市史資料Ⅵ

（1992～1997）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凡　例

-. 이 책은 釜山市史編纂事業의 일환으로 1992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釜山市 關係資料를 수록하였다.

-. 부산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제정·공포된 목록만 수록하였다.

-. 연표의 내용은 부산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중요사건을 요약·서술하거나 내용을 수록하였다.

-. 연표의 내용작성은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수록하고, 발생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월말·연말에 "이달" 또는 "이해"로 기록하였다.

-. 조약체결은 조인일, 법령, 조례, 규칙은 공포일, 회사창립은 창립총회일, 단체결성은 최초 소집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용어는 국한문 혼용으로 하되, 고유명사나 특수용어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한글을 사용하였다.

-. 숫자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였다.

-. 인용문 이외의 기사에 있는 인명의 명칭은 생략하였다.

-. 시사연구자를 위하여 출전을 밝혔다.

略 語 表

略 語	原 資 料 名	發 行 處	發行年度
경 찰 사	부산경찰사	부산지방경찰청	2000
국 제	國際新聞	國際新聞社	년도별
민 주 운 동	부산민주운동사	釜山民主運動史編纂委員會	1998
법 원 사	釜山地方法院百年史	釜山地方法院	1997
부 산	釜山日報	釜山日報社	년도별
부 산 경 제	부산경제	부산경제신문사	년도별
부 산 교 육	부산시 · 교육연표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2013
부 산 매 일	부산매일신문	부산매일신문사	년도별
부 산 시 정	釜山市政 I	부산광역시	2004
시 보	부산시보	부산시 시보편집실	년도별
직할 30년	直轄市30年	釜山直轄市	1993

目　次

■ 釜山市 自治法規

1. 釜山市 條例 ····· 11
釜山市 規則 ····· 27

■ 釜山市 行政規則

1. 釜山市 訓令 ····· 45
釜山市 例規 ····· 51

■ 釜山市 機構表

1. 1992년 機構表 ····· 55
2. 1993년 機構表 ····· 57
3. 1994년 機構表 ····· 59
4. 1995년 機構表 ····· 61
5. 1996년 機構表 ····· 63
6. 1997년 機構表 ····· 65

■ 釜山市長 및 副市長

1. 市　長 ····· 69
副市長 ····· 69

■ 年　表

1. 1992년 ····· 73
2. 1993년 ····· 149
3. 1994년 ····· 241
4. 1995년 ····· 328
5. 1996년 ····· 429
6. 1997년 ····· 515

釜山市 自治法規

▌條　例
▌規　則

釜山市 條例

釜山市 條例 目錄

(1992. 1. 1. ~ 1997. 12. 31.)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2882호	부산직할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2. 1. 3
제2883호	부산직할시 교육감표창조례등일부개정조례	1992. 1. 3
제2884호	부산직할시 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2. 1. 3
제2885호	부산직할시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2. 1. 3
제2886호	부산직할시 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	1992. 1. 6
제2887호	부산직할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1992. 1. 6
제2888호	부산직할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1992. 1. 14
제2889호	부산직할시 시보조례중개정조례	1992. 1. 15
제2890호	부산직할시 자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2. 1. 15
제2891호	부산직할시 지역전산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2. 1. 15
제2892호	부산직할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2. 1. 15
제2893호	부산직할시 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2. 1. 15
제2894호	부산직할시 지역경제협의회설치운영조례	1992. 1. 15
제2895호	부산직할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1992. 1. 15
제2896호	부산직할시 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2. 1. 15
제2897호	부산직할시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	1992. 1. 15
제2898호	부산직할시 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2. 1. 31
제2899호	부산직할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2. 2. 29
제2900호	부산직할시 가축위생시험로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2. 3. 4
제2901호	부산직할시 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	1992. 3. 4
제2902호	부산직할시 유원지관리조례	1992. 3. 4
제2903호	부산직할시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	1992. 3. 4
제2904호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2. 3. 4
제2905호	부산직할시 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	1992. 3. 4
제2906호	부산직할시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1992. 3. 4
제2907호	부산직할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	1992. 3. 4
제2908호	부산직할시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1992. 3. 4
제2909호	부산직할시 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2. 3. 4
제2910호	부산직할시 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2. 3. 5
제2911호	부산직할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	1992. 4. 7
제2912호	부산직할시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2. 4. 11
제2913호	부산직할시 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2. 4. 11
제2914호	부산직할시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2. 4. 11
제2915호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2. 4. 11
제2916호	부산직할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1992. 4. 11
제2917호	부산직할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2. 4. 11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2918호	부산직할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1992. 4. 11
제2919호	부산직할시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2. 4. 11
제2920호	부산직할시 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	1992. 5. 19
제2921호	부산직할시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992. 5. 19
제2922호	부산직할시 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2. 5. 19
제2923호	부산직할시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	1992. 5. 21
제2924호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2. 5. 21
제2925호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1992. 5. 21
제2926호	부산직할시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	1992. 6. 17
제2927호	부산직할시 남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	1992. 6. 18
제2928호	부산직할시 녹지사업소설치조례	1992. 6. 18
제2929호	부산직할시 교육감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조례	1992. 7. 24
제2930호	부산직할시 학생야영장설치조례개정조례	1992. 7. 24
제2931호	부산직할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2. 7. 24
제2932호	부산직할시 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	1992. 9. 15
제2933호	부산직할시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2. 9. 15
제2934호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2. 9. 15
제2935호	부산직할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	1992. 9. 15
제2936호	부산직할시 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	1992. 9. 15
제2937호	부산직할시 시보조례중개정조례	1992. 9. 15
제2938호	부산직할시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992. 9. 15
제2939호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1992. 9. 16
제2940호	부산직할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2. 9. 16
제2941호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2. 9. 16
제2942호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2. 9. 16
제2943호	부산직할시 용호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2. 11. 2
제2944호	부산직할시 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992. 11. 3
제2945호	부산직할시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 개정조례	1992. 11. 3
제2946호	부산직할시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2. 11. 3
제2947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지하철근무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	1992. 11. 3
제2948호	부산직할시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	1992. 11. 3
제2949호	부산직할시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1992. 11. 3
제2950호	부산직할시 맹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1992. 11. 3
제2951호	부산직할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1992. 11. 3
제2952호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2. 11. 28
제2953호	부산직할시 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2. 11. 28
제2954호	부산직할시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992. 11. 28
제2955호	부산직할시 부산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2. 12. 30
제2956호	부산직할시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992. 12. 30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2957호	부산직할시 부산교통공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2. 12. 31
제2958호	부산직할시 남항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3. 1. 11
제2959호	부산직할시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	1993. 1. 11
제2960호	부산직할시 세조례중개정조례	1993. 1. 11
제2961호	부산직할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	1993. 1. 11
제2962호	부산직할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1. 11
제2963호	부산직할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3. 1. 11
제2964호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3. 1. 11
제2965호	부산직할시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1993. 1. 11
제2966호	부산직할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3. 1. 11
제2967호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3. 1. 11
제2968호	부산직할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3. 1. 11
제2969호	부산직할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3. 1. 11
제2970호	부산직할시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	1993. 1. 11
제2971호	부산직할시 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	1993. 1. 11
제2972호	부산직할시 부두근로자휴게소설치조례폐지조례	1993. 1. 11
제2973호	부산직할시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1. 11
제2974호	부산직할시 주택건립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	1993. 1. 11
제2975호	부산직할시 청소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1993. 2. 8
제2976호	부산직할시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77호	부산직할시 지하부분토지보상기준에관한조례	1993. 2. 18
제2978호	부산직할시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	1993. 2. 18
제2979호	부산직할시 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80호	부산직할시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81호	부산직할시 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82호	부산직할시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83호	부산직할시 항만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84호	부산직할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85호	부산직할시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86호	부산직할시 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87호	부산직할시 대청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88호	부산직할시 태종대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89호	부산직할시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90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91호	부산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92호	부산직할시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93호	부산직할시 건설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94호	부산직할시 도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95호	부산직할시 남부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96호	부산직할시 수영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97호	부산직할시 장림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2. 18
제2998호	부산직할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2. 20
제2999호	부산직할시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3. 4. 23
제3000호	부산직할시 공공용지보상채권발행조례	1993. 4. 23
제3001호	부산직할시 건축조례개정조례	1993. 4. 23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3002호	부산직할시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3. 4. 23
제3003호	부산직할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1993. 4. 23
제3004호	부산직할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4. 23
제3005호	부산직할시 포상조례중개정조례	1993. 4. 23
제3006호	부산직할시 시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1993. 4. 23
제3007호	부산직할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1993. 4. 23
제3008호	부산직할시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1993. 4. 23
제3009호	부산직할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1993. 4. 23
제3010호	부산직할시 아동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3. 4. 23
제3011호	부산직할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3. 4. 23
제3012호	부산직할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	1993. 4. 23
제3013호	부산직할시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	1993. 4. 23
제3014호	부산직할시 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1993. 5. 26
제3015호	부산직할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	1993. 5. 26
제3016호	부산직할시 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	1993. 6. 2
제3017호	부산직할시 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1993. 6. 2
제3018호	부산직할시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993. 6. 2
제3019호	부산직할시 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1993. 6. 2
제3020호	부산직할시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 (부칙폐지:폐기물에관한권리,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권리)	1993. 6. 3
제3021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1993. 6. 3
제3022호	부산직할시 행정정보공개조례	1993. 6. 3
제3023호	부산직할시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	1993. 6. 3
제3024호	부산직할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6. 3
제3025호	부산직할시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	1993. 6. 3
제3026호	부산직할시 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	1993. 6. 3
제3027호	부산직할시 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	1993. 6. 3
제3028호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6. 3
제3029호	부산직할시 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993. 6. 30
제3030호	부산직할시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3. 6. 30
제3031호	부산직할시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3. 6. 30
제3032호	부산직할시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6. 30
제3033호	부산직할시 도시고속도로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7. 7
제3034호	부산직할시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	1993. 7. 7
제3035호	부산직할시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3. 7. 7
제3036호	부산직할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	1993. 7. 7
제3037호	부산직할시 남항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3. 7. 7
제3038호	부산직할시 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	1993. 7. 7
제3039호	부산직할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3. 7. 7
제3040호	부산직할시 양정청소년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3. 7. 7
제3041호	부산직할시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1993. 7. 7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3042호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공인조례	1993. 7. 9
제3043호	부산직할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1993. 9. 7
제3044호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3. 9. 7
제3045호	부산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3. 9. 7
제3046호	부산직할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1993. 9. 7
제3047호	부산직할시 무의탁자보호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993. 9. 7
제3048호	부산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9. 7
제3049호	부산직할시 산업평화상포상조례	1993. 9. 7
제3050호	부산직할시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1993. 9. 7
제3051호	부산직할시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폐지조례	1993. 9. 7
제3052호	부산직할시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1993. 9. 8
제3053호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3. 10. 11
제3054호	부산직할시 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	1993. 10. 11
제3055호	부산직할시 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	1993. 10. 11
제3056호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3. 10. 11
제3057호	부산직할시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3. 10. 11
제3058호	부산직할시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	1993. 10. 11
제3059호	부산직할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3. 10. 11
제3060호	부산직할시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1993. 10. 12
제3061호	부산직할시 경상남도내중학교졸업자중부산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3. 10. 12
제3062호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3. 11. 13
제3063호	부산직할시 가정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1993. 11. 13
제3064호	부산직할시 시보조례중개정조례	1993. 11. 13
제3065호	부산직할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	1993. 11. 13
제3066호	부산직할시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3. 11. 13
제3067호	부산직할시 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부칙폐지:시정연구단설치조례)	1993. 12. 2
제3068호	부산직할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1993. 12. 2
제3069호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3. 12. 2
제3070호	부산직할시 금곡화명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3. 12. 2
제3071호	부산직할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	1993. 12. 31
제3072호	부산직할시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	1993. 12. 31
제3073호	부산직할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3. 12. 31
제3074호	부산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부칙폐지: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1993. 12. 31
제3075호	부산직할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 (부칙폐지: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	1993. 12. 31
제3076호	부산직할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3. 12. 31
제3077호	부산직할시 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	1993. 12. 31
제3078호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3. 12. 31
제3079호	부산직할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3. 12. 31
제3080호	부산직할시 연료단지조성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994. 1. 12
제3081호	부산직할시 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	1994. 1. 12
제3082호	부산직할시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	1994. 2. 8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3083호	부산직할시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	1994. 2. 8
제3084호	부산직할시 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4. 3. 1
제3085호	부산직할시 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4. 3. 1
제3086호	부산직할시 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	1994. 3. 7
제3087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1994. 3. 7
제3088호	부산직할시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1994. 3. 7
제3089호	부산직할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	1994. 3. 7
제3090호	부산직할시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제에관한조례	1994. 3. 7
제3091호	부산직할시 세조례중개정조례	1994. 3. 7
제3092호	부산직할시 의회고문변호사조례	1994. 3. 7
제3093호	부산직할시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4. 5. 4
제3094호	부산직할시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	1994. 5. 4
제3095호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4. 5. 11
제3096호	부산직할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1994. 5. 11
제3097호	부산직할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	1994. 5. 11
제3098호	부산직할시 무역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	1994. 5. 11
제3099호	부산직할시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	1994. 5. 11
제3100호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4. 5. 11
제3101호	부산직할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4. 5. 11
제3102호	부산직할시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	1994. 5. 11
제3103호	부산직할시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	1994. 5. 11
제3104호	부산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4. 6. 11
제3105호	부산직할시 장림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4. 6. 11
제3106호	부산직할시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4. 6. 11
제3107호	부산직할시 수영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4. 6. 11
제3108호	부산직할시 교육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	1994. 6. 15
제3109호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의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4. 6. 15
제3110호	부산직할시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1994. 6. 21
제3111호	부산직할시 광안대로건설사업소설치조례	1994. 6. 21
제3112호	부산직할시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1994. 6. 21
제3113호	부산직할시 지역전산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4. 6. 21
제3114호	부산직할시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4. 6. 21
제3115호	부산직할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1994. 6. 21
제3116호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4. 6. 21
제3117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1994. 6. 21
제3118호	부산직할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1994. 8. 1
제3119호	부산직할시 황령산야영장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	1994. 8. 1
제3120호	부산직할시 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	1994. 8. 1
제3121호	부산직할시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4. 8. 1
제3122호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4. 8. 1
제3123호	부산직할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4. 8. 1
제3124호	부산직할시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4. 8. 1
제3125호	부산직할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4. 8. 1
제3126호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인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4. 8. 1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3127호	부산직할시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1994. 9. 26
제3128호	부산직할시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1994. 9. 26
제3129호	부산직할시 영락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	1994. 9. 26
제3130호	부산직할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1994. 9. 26
제3131호	부산직할시 도시고속도로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4. 9. 26
제3132호	부산직할시 가로명에관한조례개정조례	1994. 9. 26
제3133호	부산직할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1994. 9. 26
제3134호	부산직할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1994. 9. 26
제3135호	부산직할시 부산발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	1994. 9. 26
제3136호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994. 9. 26
제3137호	부산직할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	1994. 9. 26
제3138호	부산직할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4. 11. 1
제3139호	부산직할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4. 11. 11
제3140호	부산직할시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	1994. 11. 15
제3141호	부산직할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사용료임대료등에관한징수조례	1994. 11. 15
제3142호	부산직할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	1994. 11. 15
제3143호	부산직할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4. 11. 15
제3144호	부산직할시 주차위반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1994. 11. 15
제3145호	부산직할시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4. 11. 15
제3146호	부산직할시 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4. 11. 15
제3147호	부산직할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994. 11. 15
제3148호	부산직할시 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4. 11. 30
제3149호	부산직할시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1994. 11. 30
제3150호	부산광역시 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	1995. 1. 1
제3151호	부산광역시 세감면조례	1995. 1. 1
제3152호	부산광역시 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5. 1. 1
제3153호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1995. 1. 1
제3154호	부산광역시 온천급탕조례중개정조례	1995. 1. 1
제3155호	부산광역시 가정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5. 1. 1
제3156호	부산광역시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	1995. 1. 1
제3157호	부산광역시 시립도서관조례개정조례	1995. 1. 9
제3158호	부산광역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1995. 1. 9
제3159호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5. 1. 10
제3160호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5. 1. 10
제3161호	부산광역시 묘지및화장사용조례개정조례	1995. 1. 10
제3162호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5. 1. 10
제3163호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5. 1. 17
제3164호	부산광역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5. 1. 17
제3165호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1995. 1. 17
제3166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	1995. 1. 17
제3167호	부산광역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	1995. 1. 17
제3168호	부산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	1995. 1. 18
제3169호	부산광역시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	1995. 1. 18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3170호	부산광역시 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	1995. 1. 18
제3171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관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	1995. 2. 28
제3172호	부산광역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5. 2. 28
제3173호	부산광역시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	1995. 2. 28
제3174호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
제3175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
제3176호	부산광역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
제3177호	부산광역시 폐기물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
제3178호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
제3179호	부산광역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
제3180호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7
제3181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7
제3182호	부산광역시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7
제3183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95. 3. 17
제3184호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7
제3185호	부산광역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7
제3186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1995. 3. 17
제3187호	부산광역시 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	1995. 3. 17
제3188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7
제3189호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7
제3190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8
제3191호	부산광역시 감면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8
제3192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8
제3193호	부산광역시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8
제3194호	부산광역시 일반폐기물대형소각장설치관리운영조례	1995. 3. 18
제3195호	부산광역시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8
제3196호	부산광역시 시보조례중개정조례	1995. 3. 18
제3197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5. 4. 11
제3198호	부산광역시 시기조례중개정조례	1995. 4. 11
제3199호	부산광역시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995. 4. 11
제3200호	부산광역시 시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1995. 4. 17
제3201호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1995. 4. 17
제3202호	부산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5. 4. 17
제3203호	부산광역시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1995. 4. 17
제3204호	부산광역시 세조례중개정조례	1995. 4. 17
제3205호	부산광역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구→구군으로 변경〈부칙〉)	1995. 4. 17
제3206호	부산광역시 공수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5. 4. 17
제3207호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	1995. 4. 17
제3208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5. 5. 12
제3209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5. 5. 18
제3210호	부산광역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1995. 5. 18
제3211호	부산광역시 구의회의원선거구원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개정조례(전문개정)	1995. 5. 18
제3212호	부산광역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5. 5. 18
제3213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5. 5. 18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3214호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	1995. 5. 18
제3215호	부산광역시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5. 5. 29
제3216호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5. 5. 29
제3217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5. 6. 5
제3218호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1995. 6. 5
제3219호	부산광역시 주택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	1995. 6. 5
제3220호	부산광역시 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	1995. 6. 5
제3221호	부산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5. 6. 26
제3222호	부산광역시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1995. 6. 26
	부산광역시 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	한시조례로써 94.12.31폐지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도시가스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교통공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연료단지조성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상동
	부산광역시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	상동
제3223호	부산광역시 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도로사업소설치조례폐지)	1995. 7. 29
제3224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5. 7. 29
제3225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5. 7. 29
제3226호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1995. 8. 7
제3227호	부산광역시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1995. 8. 14
제3228호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1995. 8. 14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3229호	부산광역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	1995. 8. 14
제3230호	부산광역시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1995. 8. 14
	부산광역시 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폐지(대법원조례무효판결)	1995. 7. 11
제3231호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1995. 10. 13
제3232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5. 10. 13
제3233호	부산광역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	1995. 10. 13
제3234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5. 10. 20
제3235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5. 10. 20
제3236호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5. 10. 20
제3237호	부산광역시 지하수조례	1995. 10. 20
제3238호	부산광역시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5. 10. 20
제3239호	부산광역시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1995. 10. 20
제3240호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5. 10. 20
제3241호	부산광역시 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	1995. 10. 20
제3242호	부산광역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부칙: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	1995. 11. 24
제3243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5. 11. 24
제3244호	부산광역시 남부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5. 11. 24
제3245호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1995. 11. 24
제3246호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	1995. 11. 24
제3247호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5. 11. 29
제3248호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	1995. 11. 29
제3249호	부산광역시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5. 11. 29
제3250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건설조례	1995. 11. 29
제3251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	1995. 11. 29
제3252호	부산광역시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5. 11. 29
제3253호	부산광역시 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	1995. 11. 29
제3254호	부산광역시 어항정책심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1995. 11. 29
제3255호	부산광역시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	1995. 12. 29
제3256호	부산광역시 주식회사부산국제종합전시장자본금출자에관한조례	1995. 12. 29
제3257호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	1995. 12. 29
제3258호	부산광역시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5. 12. 29
제3259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5. 12. 29
제3260호	부산광역시 세조례중개정조례	1995. 12. 29
제3261호	부산광역시 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	1995. 12. 29
제3262호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6. 1. 12
제3263호	부산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	1996. 1. 12
제3264호	부산광역시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폐지조례	1996. 1. 12
제3265호	부산광역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1996. 1. 12
제3266호	부산광역시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6. 1. 12
제3267호	부산광역시 공설소매시장조례개정조례	1996. 1. 12
제3268호	부산광역시 도소매업진흥및유통근대화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1996. 1. 12
제3269호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1996. 1. 12
제3270호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1996. 1. 15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3271호	부산광역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6. 1. 17
제3272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6. 2. 16
제3273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1996. 2. 16
제3274호	부산광역시 여비조례개정조례	1996. 2. 16
제3275호	부산광역시 징계의결심의사전연구수당지급조례	1996. 2. 16
제3276호	부산광역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6. 2. 16
제3277호	부산광역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1996. 2. 23
제3278호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	1996. 2. 23
제3279호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1996. 2. 23
제3280호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1996. 2. 21
제3281호	부산광역시 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6. 2. 21
제3282호	부산광역시 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1996. 3. 28
제3283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6. 4. 6
제3284호	부산광역시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	1996. 4. 6
제3285호	부산광역시 일반폐기물대형소각장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6. 4. 6
제3286호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적용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	1996. 4. 6
제3287호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1996. 4. 6
제3288호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6. 4. 8
제3289호	부산광역시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	1996. 4. 8
제3290호	부산광역시 교육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및부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6. 4. 8
제3291호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1996. 4. 8
제3292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1996. 6. 14
제3293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6. 6. 14
제3294호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6. 6. 14
제3295호	부산광역시 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 (부칙폐지:광안대교건설사업소설치조례폐지)	1996. 6. 14
제3296호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6. 6. 14
제3297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6. 6. 14
제3298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6. 6. 14
제3299호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설치운영조례 (부칙폐지: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	1996. 6. 14
제3300호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	1996. 6. 14
제3301호	부산광역시 주둔미군하얄리아부대시설이전사업시행및특별회계설치조례	1996. 6. 14
제3302호	부산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1996. 6. 14
제3303호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1996. 6. 14
제3304호	부산광역시 세조례중개정조례	1996. 6. 14
제3305호	부산광역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1996. 6. 14
제3306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1996. 6. 14
제3307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6. 6. 14
제3308호	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 (부칙폐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1996. 6. 14
제3309호	부산광역시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6. 6. 14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3310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부칙폐지: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문화위원회조례)	1996. 6. 14
제3311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6. 7. 26
제3312호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1996. 7. 26
제3313호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6. 7. 26
제3314호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6. 7. 26
제3315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6. 7. 26
제3316호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6. 7. 26
제3317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6. 8. 2
제3318호	부산광역시 주차위반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6. 8. 2
제3319호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1996. 8. 2
제3320호	부산광역시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1996. 8. 2
제3321호	부산광역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	1996. 8. 2
제3322호	부산광역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6. 8. 2
제3323호	부산광역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6. 8. 2
제3324호	부산광역시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	1996. 8. 2
제3325호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1996. 8. 2
제3326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6. 10. 1
제3327호	부산광역시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1996. 10. 1
제3328호	부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	1996. 10. 1
제3329호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1996. 10. 1
제3330호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6. 10. 1
제3331호	부산광역시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	1996. 10. 1
제3332호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1996. 10. 1
제3333호	부산광역시 학생야영수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6. 10. 1
제3334호	부산광역시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6. 11. 1
제3335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6. 11. 22
제3336호	부산광역시 서울사무소설치조례	1996. 11. 22
제3337호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6. 11. 22
제3338호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6. 11. 22
제3339호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	1996. 11. 22
제3340호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조례	1996. 11. 22
제3341호	부산광역시 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	1996. 11. 22
제3342호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	1996. 11. 22
제3343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6. 11. 22
제3344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7. 1. 3
제3345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7. 1. 3
제3346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7. 1. 3
제3347호	부산광역시 공업용수공급조례	1997. 1. 3
제3348호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	1997. 1. 3
제3349호	부산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	1997. 1. 3
제3350호	부산광역시 도로전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7. 1. 3
제3351호	부산광역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1997. 1. 10
제3352호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7. 1. 10
제3353호	부산광역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7. 1. 10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3354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1997. 1. 10
제3355호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부칙폐지: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	1997. 1. 10
제3356호	부산광역시 세조례중개정조례	1997. 1. 10
제3357호	부산광역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1997. 1. 10
제3358호	부산광역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7. 1. 10
제3359호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1997. 1. 10
제3360호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1997. 1. 10
제3361호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1997. 1. 10
제3362호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1997. 1. 10
제3363호	부산광역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7. 1. 13
제3364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1997. 2. 21
제3365호	부산광역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7. 2. 21
제3366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7. 2. 21
제3367호	부산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부칙폐지: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1997. 2. 21
제3368호	부산광역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1997. 2. 21
제3369호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7. 2. 21
제3370호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개정조례	1997. 2. 21
제3371호	부산광역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7. 2. 21
제3372호	부산광역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	1997. 2. 21
제3373호	부산광역시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7. 2. 21
제3374호	부산광역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	1997. 2. 24
제3375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7. 4. 10
제3376호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1997. 4. 10
제3377호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	1997. 4. 10
제3378호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1997. 4. 10
제3379호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	1997. 4. 10
제3380호	부산광역시 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	1997. 5. 15
제3381호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7. 5. 15
제3382호	부산광역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1997. 5. 15
제3383호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1997. 5. 10
제3384호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1997. 6. 19
제3385호	부산광역시 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	1997. 6. 19
제3386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1997. 6. 19
제3387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7. 6. 19
제3388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7. 7. 18
제3389호	부산광역시 영락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7. 7. 18
제3390호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7. 7. 18
제3391호	부산광역시 충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7. 7. 18
제3392호	부산광역시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7. 7. 18
제3393호	부산광역시 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7. 7. 18
제3394호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7. 7. 18
제3395호	부산광역시 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폐지:도시고속도로관리소설치조례)	1997. 7. 18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3396호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7. 7. 18
제3397호	부산광역시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	1997. 7. 18
제3398호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	1997. 7. 18
제3399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건설조례중개정조례	1997. 7. 18
제3400호	부산광역시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7. 7. 18
제3401호	부산광역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7. 7. 23
제3402호	부산광역시 시민체력센터설치및위탁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	1997. 9. 24
제3403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7. 9. 24
제3404호	부산광역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1997. 9. 24
제3405호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7. 9. 24
제3406호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1997. 10. 30
제3407호	부산광역시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1997. 10. 30
제3408호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997. 11. 3
제3409호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7. 11. 3
제3410호	부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폐지: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금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	1997. 11. 20
제3411호	부산광역시 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1997. 11. 27
제3412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1997. 12. 31
제3413호	부산광역시 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	1997. 12. 31
제3414호	부산광역시 정보화촉진조례(부칙폐지: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1997. 12. 31
제3415호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7. 12. 31
제3416호	부산광역시 세조례중개정조례	1997. 12. 31
제3417호	부산광역시 세감면조례개정조례	1997. 12. 31
제3418호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1997. 12. 31
제3419호	부산광역시 부산의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1997. 12. 31
제3420호	부산광역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	1997. 12. 31
제3421호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1997. 12. 31
제3422호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소(금련산)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7. 12. 31
제3423호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997. 12. 31
제3424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	1997. 12. 31
제3425호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운동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1997. 12. 31
제3426호	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1997. 12. 31
제3427호	부산광역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1997. 12. 31
제3428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	1997. 12. 31
제3429호	부산광역시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7. 12. 31
제3430호	부산광역시 지하수조례개정조례	1997. 12. 31
제3431호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1997. 12. 31
제3432호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	1997. 12. 31

釜山市 規則

釜山市 規則 目錄

(1992. 1. 1. ~ 1997. 12. 31.)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2550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1. 8
제2561호	부산직할시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비지방채발행규칙	1992. 1. 11
제2562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1. 14
제2563호	부산직할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2. 1. 15
제2564호	부산직할시 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2. 1. 31
제2565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1. 31
제2566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2. 7
제2567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2. 2. 7
제2568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1992. 2. 15
제2569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2. 28
제2570호	부산직할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2. 3. 4
제2571호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2. 3. 4
제2572호	부산직할시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2. 3. 10
제2573호	부산직할시 항만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2. 3. 20
제2574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3. 20
제2575호	부산직할시 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2. 3. 20
제2576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3. 31
제2577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4. 3
제2578호	부산직할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체제시행규칙	1992. 4. 7
제2579호	부산직할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직제규칙	1992. 4. 7
제2580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4. 7
제2581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2. 4. 7
제2582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2. 4. 7
제2583호	부산직할시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1992. 4. 11
제2584호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2. 4. 11
제2585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2. 4. 25
제2586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2. 4. 25
제2587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4. 25
제2588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2. 5. 1
제2589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5. 1
제2590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5. 6
제2591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5. 6
제2592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개정규칙	1992. 5. 8
제2593호	부산직할시 행정장비보유정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1992. 5. 13
제2594호	부산직할시 위생처리장관리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2. 5. 25
제2595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5. 25
제2596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2. 5. 25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2597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2. 5. 25
제2598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5. 25
제2599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6. 1
제2600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1992. 6. 15
제2601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2. 6. 15
제2602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2. 6. 15
제2603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6. 15
제2604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6. 15
제2605호	부산직할시 여성문화회관직제규칙	1992. 6. 17
제2606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2. 6. 17
제2607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정중개정규칙	1992. 6. 17
제2608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6. 17
제2609호	부산직할시 녹지사업소직제규칙	1992. 6. 18
제2610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2. 6. 18
제2611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2. 6. 18
제2612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6. 18
제2613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2. 7. 1
제2614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2. 7. 1
제2615호	부산직할시 부산발전기획단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2. 7. 1
제2616호	부산직할시 종합건설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2. 7. 1
제2617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7. 1
제2618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7. 1
제2619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7. 1
제2620호	부산직할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2. 7. 1
제2621호	부산직할시 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2. 7. 1
제2622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2. 7. 7
제2623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2. 7. 7
제2624호	부산직할시 소방서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2. 7. 7
제2625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7. 7
제2626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7. 7
제2627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7. 10
제2628호	부산직할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2. 7. 24
제2629호	부산직할시 남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2. 7. 24
제2630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2. 8. 10
제2631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8. 10
제2632호	부산직할시 약업자행정처분규칙폐지규칙	1992. 8. 18
제2633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8. 18
제2634호	부산직할시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개정규칙	1992. 8. 24
제2635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8. 24
제2636호	부산직할시 행정장비보유징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1992. 9. 8
제2637호	부산직할시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2. 9. 15
제2638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9. 15
제2639호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2. 9. 21
제2640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9. 21
제2641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2. 10. 1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2642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10. 1
제2643호	부산직할시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1992. 10. 8
제2644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2. 10. 17
제2645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조칙중개정규칙	1992. 10. 17
제2647호	부산직할시 시립예술단운영규칙중개정규칙	1992. 10. 29
제2648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2. 11. 2
제2649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2. 11. 2
제2650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11. 2
제2651호	부산직할시 용호하수처리관리소직제규직중개정규칙	1992. 11. 2
제2652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11. 12
제2653호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2. 12. 15
제2654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2. 12. 30
제2655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12. 30
제2666호	부산직할시 도시고속도로관리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2. 12. 30
제2657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2. 12. 30
제2658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2. 12. 30
제2659호	부산직할시 종합건설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2. 12. 30
제2660호	부산직할시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1992. 12. 30
제2661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1
제2662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1
제2663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1
제2664호	부산직할시 인사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1
제2665호	부산직할시 시세부과징수규칙개정규칙	1993. 1. 11
제2666호	부산직할시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1
제2667호	부산직할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직제규칙	1993. 1. 11
제2668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69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70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71호	부산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72호	부산직할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73호	부산직할시 종합건설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74호	부산직할시 문화회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75호	부산직할시 시민회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76호	부산직할시 시립박물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77호	부산직할시 충렬사관리사무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78호	부산직할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79호	부산직할시 건설시험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80호	부산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81호	부산직할시 위생처리관리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82호	부산직할시 양정청소년회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83호	부산직할시 황령산야영장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84호	부산직할시 가축위생시험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85호	부산직할시 항만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86호	부산직할시 차량등록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2687호	부산직할시 대청공원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88호	부산직할시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89호	부산직할시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90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91호	부산직할시 도로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92호	부산직할시 도시고속도로관리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93호	부산직할시 수영하수처리관리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94호	부산직할시 장림하수처리관리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95호	부산직할시 여성문화회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96호	부산직할시 녹지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 18
제2697호	부산직할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3. 1. 27
제2698호	부산직할시 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칙	1993. 1. 30
제2699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2. 1
제2700호	부산직할시 차량등록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2. 1
제2701호	부산직할시 청소시설관리사업소직제규칙	1993. 2. 8
제2702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2. 8
제2703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3. 2. 8
제2704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2. 8
제2705호	부산직할시 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3. 2. 13
제2705호	부산직할시 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3. 2. 13
제2706호	부산직할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3. 3. 2
제2707호	부산직할시 행정장비보유정수에관한규칙폐지규칙	1993. 3. 2
제2708호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3. 3. 2
제2709호	부산직할시 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3. 3. 2
제2710호	부산직할시 도시고속도로관리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3. 15
제2711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3. 15
제2712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3. 31
제2713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4. 7
제2714호	부산직할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3. 4. 15
제2715호	부산직할시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3. 4. 15
제2716호	부산직할시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3. 4. 15
제2717호	부산직할시 석탄가공업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	1993. 4. 15
제2718호	부산직할시 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3. 4. 23
제2719호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3. 5. 4
제2720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5. 4
제2721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3. 5. 4
제2722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5. 4
제2723호	부산직할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3. 6. 3
제2724호	부산직할시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규칙	1993. 6. 3
제2725호	부산직할시 공공용지보상채권발행조례시행규칙	1993. 6. 3
제2726호	부산직할시 남항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3. 6. 29
제2727호	부산직할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3. 6. 29
제2728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6. 30
제2729호	부산직할시 소방서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6. 30
제2730호	부산직할시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1993. 7. 7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2731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7. 16
제2732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3. 7. 16
제2733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7. 16
제2734호	부산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7. 16
제2735호	부산직할시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1993. 7. 19
제2736호	부산직할시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3. 7. 19
제2737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1993. 7. 19
제2738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7. 19
제2739호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3. 7. 19
제2740호	부산직할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3. 8. 9
제2741호	부산직할시 시사(지)편찬위원회조례시행규칙	1993. 8. 9
제2742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8. 17
제2743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8. 17
제2744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3. 8. 17
제2745호	부산직할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8. 17
제2746호	부산직할시 시민회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8. 17
제2747호	부산직할시 여성문화회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8. 17
제2748호	부산직할시 녹지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8. 17
제2749호	부산직할시 소방서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8. 17
제2750호	부산직할시 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1993. 8. 19
제2751호	부산직할시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	1993. 8. 19
제2752호	부산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9. 7
제2753호	부산직할시 담담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3. 9. 7
제2754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9. 7
제2755호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3. 9. 7
제2756호	부산직할시 가축위생시험소직제규칙폐지규칙	1993. 9. 7
제2757호	부산직할시 문화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3. 9. 20
제2758호	부산직할시 상주인구조사시행규칙폐지규칙	1993. 9. 20
제2759호	부산직할시 상수도사업자문우원회운영규칙폐지규칙	1993. 9. 20
제2760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3. 9. 24
제2761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9. 24
제2762호	부산직할시 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3. 9. 24
제2763호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0. 11
제2764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0. 11
제2765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3. 10. 11
제2766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10. 11
제2767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10. 11
제2768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10. 11
제2769호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3. 10. 11
제2770호	부산직할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	1993. 10. 11
제2771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10. 27
제2772호	부산직할시 소방서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0. 27
	부산직할시 주택건립사업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폐지 〔93.1.11조례(2974호)폐지에따른규칙폐지〕	1993. 11. 3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부산직할시 택시상담소설치조례시행규칙폐지 〔93.10.11조례(3054호)폐지에따른규칙폐지〕	1993. 11. 3
	부산직할시 모자보건센타직제규칙폐지 〔93.10.11조례(3055호)폐지에따른규칙폐지〕	1993. 11. 3
	부산직할시 재해복구공채조례시행규칙폐지 〔93.6.3조례(3026호)폐지에따른규칙폐지〕	1993. 11. 3
	부산직할시 독극물판매업자행정처분규칙폐지 〔90.8.1법률(제4261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정에따른부칙에서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폐지로규칙폐지〕	1993. 11. 3
제2773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11. 4
제2774호	부산직할시 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3. 11. 25
제2775호	부산직할시 공연장행정처분기준규칙중개정규칙	1993. 11. 25
제2776호	부산직할시 시립예술단운영규칙중개정규칙	1993. 12. 2
제2777호	부산직할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1993. 12. 31
제2778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2. 31
제2779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3. 12. 31
제2780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3. 12. 31
제2781호	부산직할시 시립박물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2. 31
제2782호	부산직할시 양정청소년회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3. 12. 31
제2783호	부산직할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1994. 1. 12
제2784호	부산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1994. 1. 12
제2785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1. 12
제2786호	부산직할시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중개정규칙	1994. 1. 20
제2787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1994. 2. 14
제2788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1994. 2. 14
제2789호	부산직할시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중개정규칙	1994. 2. 21
제2790호	부산직할시 소송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1994. 2. 21
제2791호	부산직할시 건설시험시행규칙개정규칙	1994. 2. 21
제2792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2. 21
제2793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4. 2. 21
제2794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2. 21
제2795호	부산직할시 종합건설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2. 21
제2796호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4. 2. 21
제2797호	부산직할시 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4. 2. 21
제2798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금무규칙중개정규칙	1994. 3. 7
제2799호	부산직할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4. 3. 14
제2800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3. 14
제2801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4. 3. 14
제2802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4. 6
제2803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권규칙중개정규칙	1994. 4. 6
제2804호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4. 4. 8
제2805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4. 8
제2806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4. 18
제2807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4. 4. 18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2808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4. 18
제2809호	부산직할시 청소시설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4. 18
제2810호	부산직할시 소송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1994. 4. 18
제2811호	부산직할시 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4. 4. 18
제2812호	부산직할시 중앙로시범가로변건축계획심의규칙폐지규칙	1994. 4. 18
제2813호	부산직할시 식수등조경공사비예탁에관한규칙폐지규칙	1994. 4. 18
제2814호	부산직할시 미관지구건축에관한규칙폐지규칙	1994. 4. 18
제2815호	부산직할시 미술장식품설치기준에관한규칙폐지규칙	1994. 4. 18
제2816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4. 19
제2817호	부산직할시 종합건설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4. 19
제2818호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4. 4. 27
제2819호	부산직할시 현장민원실설치운영규칙	1994. 4. 27
제2820호	부산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4. 30
제2821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4. 30
제2822호	부산직할시 도로보수중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4. 5. 11
제2823호	부산직할시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	1994. 5. 11
제2824호	부산직할시 소방서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5. 11
제2825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5. 11
제2826호	부산직할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4. 5. 11
제2827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5. 16
제2828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4. 5. 16
제2829호	부산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5. 16
제2830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5. 16
제2831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6. 1
제2832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4. 6. 1
제2833호	부산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6. 1
제2834호	부산직할시 종합건설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6. 1
제2835호	부산직할시 문화회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6. 1
제2836호	부산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6. 1
제2837호	부산직할시 아동청소년회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6. 1
제2838호	부산직할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6. 1
제2839호	부산직할시 항만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6. 1
제2840호	부산직할시 차량등록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6. 1
제2841호	부산직할시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6. 1
제2842호	부산직할시 무역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1994. 6. 1
제2843호	부산직할시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1994. 6. 1
제2844호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4. 6. 11
제2845호	부산직할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1994. 6. 11
제2846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6. 11
제2847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6. 21
제2848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7. 8
제2849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4. 7. 8
제2850호	부산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7. 8
제2851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7. 8
제2852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7. 26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2853호	부산직할시 문화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4. 7. 26
제2854호	부산직할시 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4. 7. 26
제2855호	부산직할시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4. 7. 26
제2856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1994. 7. 26
제2857호	부산직할시 시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	1994. 7. 26
제2858호	부산직할시 가정의례업소허가세부기준규칙폐지규칙	1994. 7. 26
제2859호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4. 8. 1
제2860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8. 25
제2861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9. 26
제2862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9. 26
제2863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4. 9. 26
제2864호	부산직할시 광안대로건설사업소직제규칙	1994. 9. 26
제2865호	부산직할시 영락공원관리사업소직제규칙	1994. 9. 26
제2866호	부산직할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4. 9. 26
제2867호	부산직할시 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4. 9. 26
제2868호	부산직할시 황령산야영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9. 26
제2869호	부산직할시 부산발전기획단직제규칙폐지규칙	1994. 9. 26
제2870호	부산직할시 하수도사용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4. 9. 26
제2871호	부산직할시 나병관리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1994. 9. 26
제2872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10. 11
제2873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10. 11
제2874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4. 10. 11
제2875호	부산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10. 11
제2876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10. 25
제2877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10. 25
제2878호	부산직할시 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1994. 11. 15
제2879호	부산직할시 하수도사용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4. 11. 15
제2880호	부산직할시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1994. 11. 15
제2881호	부산직할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규칙	1994. 11. 15
제2882호	부산직할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11. 15
제2883호	부산직할시 자동차운전학원운영규칙중개정규칙	1994. 11. 15
제2884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11. 15
제2885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4. 11. 15
제2886호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4. 11. 30
제2887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11. 30
제2888호	부산직할시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	1994. 11. 30
제2889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12. 14
제2890호	부산직할시 소방서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12. 14
제2891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12. 31
제2892호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4. 12. 31
제2893호	부산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12. 31
제2894호	부산직할시 청소년수련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12. 31
제2895호	부산직할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12. 31
제2896호	부산직할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4. 12. 31
제2897호	부산직할시 소방서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12. 31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2898호	부산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4. 12. 31
제2899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5. 1. 10
제2900호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1. 10
제2901호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1. 10
제2902호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1. 10
제2903호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1. 10
제2904호	부산광역시 영락공원묘지사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1. 10
제2905호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1995. 1. 10
제2906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995. 1. 17
제2907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1. 17
제2908호	부산광역시 담당관및실과규칙중개정규칙	1995. 1. 17
제2909호	부산광역시 시립예술단운영규칙중개정규칙	1995. 1. 17
제2910호	부산광역시 황령산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1. 17
제2911호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5. 1. 17
제2912호	부산광역시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1. 17
제2913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1995. 1. 17
제2914호	부산광역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995. 1. 17
제2915호	부산광역시 과징사업특별회계규칙폐지규칙	1995. 1. 17
제2916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부칙폐지:부산광역시 직제규칙담당관및실과규)	1995. 3. 17
제2917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1995. 3. 17
제2918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규칙	1995. 3. 17
제2919호	부산광역시 소방서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3. 17
제2920호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5. 3. 17
제2921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3. 17
제2922호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3. 17
제2923호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3. 17
제2924호	부산광역시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	1995. 3. 18
제2925호	부산광역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규칙중개정규칙	1995. 3. 18
제2926호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4. 11
제2927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4. 11
제2928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4. 11
제2929호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중개정규칙	1995. 4. 11
제2930호	부산광역시 세무조사운영규칙	1995. 4. 11
제2931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4. 11
제2932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4. 17
제2933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4. 17
제2934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1995. 5. 3
제2935호	부산광역시 기획심사분석에관한규칙개정규칙(전문개정)	1995. 5. 3
제2936호	부산광역시 광안대로건설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5. 3
제2937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5. 12
제2938호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5. 12
제2939호	부산광역시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5. 12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주택사업회계규칙폐지규칙	1995. 5. 12
제2940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5. 18
제2941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5. 18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2942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1995. 5. 18
제2943호	부산광역시 음반비디오물판매업소등행정처분규칙중개정규칙	1995. 5. 18
제2944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6. 5
제2945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6. 5
제2946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6. 5
제2947호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진흥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1995. 6. 5
제2948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6. 23
제2949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6. 23
제2950호	부산광역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규칙중개정규칙	1995. 6. 23
제2951호	부산광역시 가격표시제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	1995. 6. 23
제2952호	부산광역시 공연장행정처분기준규칙중개정규칙	1995. 6. 23
제2953호	부산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운영규칙	1995. 6. 26
제2954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6. 26
제2955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6. 26
제2956호	부산광역시 사무처리전결규칙	1995. 6. 26
제2957호	부산광역시 시설안전관리본부직제규칙(도로사업소직제규칙폐지)	1995. 7. 29
제2958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7. 29
제2959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7. 29
제2960호	부산광역시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1995. 8. 14
제2961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8. 28
제2962호	부산광역시 소방서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8. 28
제2963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1995. 8. 28
제2964호	부산광역시 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	1995. 9. 15
제2965호	부산광역시 직무대리규칙중개정규칙	1995. 9. 15
제2966호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5. 9. 15
제2967호	부산공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9. 15
제2968호	부산광역시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개정규칙	1995. 9. 29
제2969호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1995. 9. 29
제2970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10. 20
제2971호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규칙중개정규칙	1995. 10. 20
제2972호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중개정규칙	1995. 10. 20
제2973호	부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규칙중개정규칙	1995. 10. 20
제2974호	부산광역시 낚시터운영및관리규칙	1995. 10. 20
제2975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10. 20
제2976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10. 20
제2977호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10. 20
제2978호	부산광역시 시와관할하의자치구군행정기구및정원기준에관한규칙	1995. 10. 27
제2979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11. 24
제2980호	부산광역시 남부하수처리관리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11. 24
제2981호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5. 11. 29
제2982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개정규칙	1995. 11. 29
제2983호	부산광역시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11. 29
제2984호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5. 11. 29
제2985호	부산광역시 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1995. 11. 29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2986호	부산광역시 어항정책심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1995. 11. 29
제2987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5. 12. 29
제2988호	부산광역시 소방서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5. 12. 29
제2989호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직제규칙	1995. 12. 29
제2990호	부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규칙	1996. 2. 2
제2991호	부산광역시 시와관할하의자치구군행정기구및정원기준에대한규칙중개정규칙	1996. 2. 9
제2992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1996. 2. 9
제2993호	부산광역시 시립예술단운영규칙중개정규칙	1996. 2. 9
제2994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6. 2. 16
제2995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6. 2. 16
제2996호	부산광역시 건설시험시행규칙개정규칙	1996. 2. 23
제2997호	부산광역시 공설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1996. 2. 23
제2998호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6. 3. 2
제2999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6. 4. 6
제3000호	부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규칙중개정규칙	1996. 4. 6
제3001호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1996. 4. 6
제3002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1996. 5. 17
제3003호	부산광역시 일반폐기물대형소각장설치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1996. 5. 17
제3004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개정규칙(부칙폐지:부산발전추진단운영규칙)	1996. 6. 14
제3005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6. 6. 14
제3006호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6. 6. 14
제3007호	부산광역시 시설안전관리본부직제규칙개정규칙	1996. 6. 14
제3008호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6. 6. 14
제3009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6. 6. 14
제3010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6. 6. 14
제3011호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부칙폐지 : 교통정책연구실운영규칙)	1996. 6. 14
제3012호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6. 6. 14
제3013호	부산광역시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6. 6. 14
제3014호	부산광역시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6. 6. 14
제3015호	부산광역시 녹지사업소직제규칙개정규칙	1996. 6. 14
제3016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6. 6. 14
제3017호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6. 6. 14
제3018호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6. 6. 14
제3019호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6. 6. 14
제3020호	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부칙폐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기금운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1996. 6. 28
제3021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폐지:문화예술위원회조례시행규칙)	1996. 6. 28
제3022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	1996. 6. 28
제3023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6. 7. 26
제3024호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1996. 7. 26
제3025호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원직제규칙	1996. 7. 26
제3026호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6. 7. 26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3027호	부산광역시 청소시설관리사업도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6. 7. 26
제3028호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회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6. 7. 26
제3029호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1996. 8. 2
제3030호	부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규칙중개정규칙	1996. 8. 2
제3031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6. 10. 11
제3032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6. 10. 11
제3033호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6. 10. 11
제3034호	부산광역시 시와관할하의자치구군행정기구및정원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1996. 10. 11
제3035호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6. 10. 11
제3036호	부산광역시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6. 11. 1
제3037호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6. 11. 1
제3038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6. 11. 22
제3039호	부산광역시 서울사무소직제규칙	1996. 11. 22
제3040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6. 11. 22
제3041호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6. 11. 22
제3042호	부산광역시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6. 11. 22
제3043호	부산광역시 소방항공대운영규칙	1996. 11. 22
제3044호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6. 12. 20
제3045호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6. 12. 20
제3046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1996. 12. 20
제3047호	부산광역시 태종대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6. 12. 20
제3048호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6. 12. 20
제3049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7. 1. 3
제3050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7. 1. 3
제3051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7. 1. 3
제3052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7. 1. 3
제3053호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7. 1. 3
제3054호	부산광역시 소방서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7. 1. 3
제3055호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1997. 1. 3
제3056호	부산광역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	1997. 1. 10
제3057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1997. 1. 10
제3058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제안규칙개정규칙	1997. 1. 10
제3059호	부산광역시 시립예술단운영규칙중개정규칙	1997. 1. 31
제3060호	부산광역시 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칙	1997. 3. 20
제3061호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시행규칙	1997. 3. 20
제3062호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부칙폐지: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근로청소년장학금집조례시행규칙)	1997. 3. 20
제3063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근무규칙개정규칙	1997. 3. 20
제3064호	부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규칙중개정규칙	1997. 3. 20
제3065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7. 4. 10
제3066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7. 4. 10
제3067호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7. 4. 10
제3068호	부산광역시 소방서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7. 4. 10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3069호	부산광역시 와자치구군의기구정원운영등에관한규칙 (부칙폐지: 자치구군관할하의행정기구및정기준에관한규칙)	1997. 4. 10
제3070호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7. 4. 10
제3071호	부산광역시 건설시험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7. 4. 10
제3072호	부산광역시 인사규칙중개정규칙	1997. 5. 1
제3073호	부산광역시 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7. 5. 15
제3074호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7. 6. 19
제3075호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7. 7. 18
제3076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7. 7. 18
제3077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7. 7. 18
제3078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개정규칙	1997. 7. 18
제3079호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7. 7. 18
제3080호	부산광역시 건설안전관리본부직제규칙개정규칙	1997. 7. 18
제3081호	부산광역시 녹지사업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7. 7. 18
제3082호	부산광역시 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1997. 7. 18
제3083호	부산광역시 공연장행정처분기준규칙폐지규칙	1997. 7. 18
제3084호	부산광역시 음반비디오물판매업소등행정처분기준규칙폐지규칙	1997. 7. 18
제3085호	부산광역시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7. 7. 18
제3086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7. 8. 21
제3087호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7. 8. 21
제3088호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7. 9. 24
제3089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제안규칙개정규칙	1997. 9. 24
제3090호	부산광역시 시민체력센터설치및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1997. 10. 30
제3091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7. 10. 30
제3092호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7. 10. 30
제3093호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7. 11. 20
제3094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7. 11. 20
제3095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7. 11. 20
제3096호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7. 12. 31
제3097호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중개정규칙	1997. 12. 31
제3098호	부산광역시 소방위험물제조등에관한행정처분규칙폐지규칙	1997. 12. 31
제3099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7. 12. 31
제3100호	부산광역시 직제규칙중개정규칙 (부칙폐지: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직제규칙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직제규칙금강공원관리사업소직제규칙양저청소년회관직제규칙)	1997. 12. 31
제3101호	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직제규칙	1997. 12. 31
제3102호	부산광역시 건설안전관리본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7. 12. 31
제3103호	부산광역시 문화회관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7. 12. 31
제3104호	부산광역시 소방서직제규칙중개정규칙	1997. 12. 31
제3105호	부산광역시 정보공개규칙(부칙폐지: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1997. 12. 31
제3106호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997. 12. 31
제3107호	부산광역시 부산정보통신연구원설치운영에관한규칙	1997. 12. 31
제3108호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1997. 12. 31

釜山市 行政規則

訓　令
例　規

釜山市 訓令

釜山市 訓令 目錄

(1992. 1. 1. ~ 1997. 12. 31.)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1056호	부산직할시 시립예술단운영규정	1992. 1. 8
제1057호	부산직할시 주차장관리규정	1992. 2. 8
제1058호	부산직할시 감사현지처리규정	1992. 2. 8
제1059호	부산직할시 사무의내부위임규정중개정규정	1992. 3. 6
제1060호	부산직할시 용두산미술전시관운영규정	1992. 4. 25
제1061호	부산직할시 사무의내부위임규정중개정규정	1992. 5. 18
제1061호	부산직할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요령중개정규정	1992. 6. 15
제1062호	부산직할시 택지공영개발선수금운영규정중개정규정	1992. 9. 25
제1063호	부산직할시 인사관리규정중개정규정	1992. 9. 28
제1064호	부산직할시 인사관리규정중개정규정	1992. 10. 8
제1065호	부산직할시 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	1992. 10. 19
제1066호	부산직할시 사업소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	1992. 10. 19
제1067호	부산직할시 토지구획정리특별처분지매각규정중개정규정	1992. 11. 4
제1068호	부산직할시 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행정처분기준	1992. 11. 20
제1069호	부산직할시 사무의내부위임중개정규정	1993. 1. 16
제1070호	부산직할시 사무의내부위임중개정규정	1993. 5. 4
제1071호	부산직할시 복합민원조정심사위원회규정폐지규정	1993. 6. 3
제1072호	부산직할시 투자심사업무처리규정개정규정(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	1993. 6. 12
제1073호	부산직할시 사고로인한재해대책운영규정	1993. 6. 12
제1074호	부산직할시 공무원소양고사규정중개정규정	1993. 6. 16
제1075호	부산직할시 급수공사규정중개정규정	1993. 6. 29
제1076호	부산직할시 하수도사용료등과징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	1993. 7. 19
제1077호	부산직할시 사무의내부위임규정중개정규정	1992. 7. 19
제1078호	부산직할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운영규정중개정규정	1993. 7. 19
제1079호	부산직할시 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	1993. 9. 7
제1080호	부산직할시 사업소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	1993. 9. 7
제1081호	부산직할시 소방서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	1993. 9. 7
제1082호	부산직할시 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1993. 9. 7
제1083호	부산직할시 소방공무원장려및경고처분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1993. 9. 20
제1084호	부산직할시 사고로인한재해대책운영규정개정규정	1993. 9. 24
제1085호	부산직할시 택지공영개발선수금운영규정중개정규정	1993. 10. 25
제1086호	부산직할시 지도방문조정심의위원회규정폐지규정	1993. 11. 13
제1087호	부산직할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요령중개정규정	1993. 11. 13
제1088호	부산직할시 시청조직망운영에관한규정	1993. 11. 25
제1089호	부산직할시 시립예술단운영규정중개정규정	1993. 12. 2
제1090호	부산직할시 사무의내부위임규정중개정규정	1994. 2. 21
제1091호	부산직할시 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	1994. 4. 18
제1092호	부산직할시 사업소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	1994. 4. 18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1093호	부산직할시 소방서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	1994. 4. 18
제1094호	부산직할시 가설건축물허가및신고업무처리규정폐지규정	1994. 4. 18
제1095호	부산직할시 용역심의규정	1994. 4. 19
제1096호	부산직할시 사무의내부위임규정중개정규정	1994. 4. 27
제1097호	부산직할시 사업소전결규정중개정규정	1994. 7. 26
제1099호	부산직할시 사무의내부위임규정폐지규정	1994. 8. 1
제1100호	부산직할시 인사관리규정중개정규정	1994. 8. 25
제1101호	부산직할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요령중개정요령	1994. 8. 25
제1102호	부산직할시 무허가건축단목처리규정중개정규정	1994 . 8. 25
제1103호	부산직할시 수도사용료등과징사무취급규정중개정규정	1994. 9. 26
제1104호	부산직할시 마약및향정신의약품취급자행정처분기준폐지기준	1994. 9. 26
제1105호	부산직할시 택지공영개발선수금규정중개정규정	1994. 9. 26
제1106호	부산직할시 택지공영개발선수금운영규정중개정	1994. 11. 15
제1107호	부산직할시 민영주택건설입지심의사무처리규정폐지규정	1994. 11. 15
제1108호	부산직할시 민방위경보통재소운영규정중개정규정	1994. 11. 30
제1109호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재운임요령중개정요령	1995. 2. 20
제1110호	부산광역시 수도급수공사규정중개정규정	1995. 3. 17
제1111호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요령중개정요령	1995. 5. 3
	부산광역시 전결규정(부칙폐지:부산광역시사무처리전결규칙)	1995. 6. 26
	부산광역시 사업소전결규정폐지 (부산광역시사무처리전결규칙부칙에서폐지)	1995. 6. 26
	부산광역시 소방서전결규정폐지 (부산광역시사무처리전결규칙부칙에서폐지)	1995. 6. 26
제1112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소양고사규정중개정규정	1995. 8. 7
제1113호	부산광역시 인사관리규정중개정규정	1995. 10. 20
제1114호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사무분장규정	1995. 10. 20
제1115호	부산광역시 청부설주차장관리규정	1995. 10. 27
제1116호	부산광역시 행정서사에관한처분절차규정폐지규정	1995. 10. 27
제1117호	부산광역시 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	1996. 1. 12
제1118호	부산광역시 행정통신운영관리규정	1996. 1. 12
제1119호	부산광역시 직업소개사업처리규정	1996. 1. 12
	부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규정폐지(부칙폐지:부산광역시사무처리전결규칙)	1996. 2. 2
제1120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평가관리규정중개정규정	1996. 3. 2
제1121호	부산광역시 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중개정규정	1996. 3. 22
제1122호	부산광역시 민원사무처리규정개정규정	1996. 4. 6
제1123호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규정	1996. 5. 17
제1124호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운영및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	1996. 5. 25
제1125호	부산광역시 문서송달규정중개정규정	1996. 6. 14
제1126호	부산광역시 공인관수및취급규정폐지규정	1996. 6. 14
제1127호	부산광역시 통계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	1996. 6. 28
제1128호	부산광역시 광고물심의위원회운영규정	1996. 6. 28
제1129호	부산광역시 도로공사장주변교통소통을위한규정	1996. 6. 28
제1130호	부산광역시 공무원소양고사규정중개정규정	1996. 8. 2
제1131호	부산광역시 재활용촉진협의회운영규정	1996. 8. 2
제1132호	부산광역시 일상감사시행규정	1996. 8. 9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1133호	부산광역시 감사지원협의회운영규정	1996. 8. 9
제1134호	부산광역시 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개정규정	1996. 8. 9
제1135호	부산광역시 건설공사설계변경심의규정	1996. 9. 13
제1136호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운영규정 (부칙폐지:부산광역시사고로인한재해대칙운영규정)	1996. 11. 1
제1137호	부산광역시 자체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운영규정중개정규정	1996. 11. 1
제1138호	부산광역시 택지개발선수금운영규정중개정규정	1996. 11. 1
제1139호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중개정규정	1996. 12. 20
제1140호	부산광역시 인사관리규정중개정규정	1997. 1. 31
제1141호	부산광역시 시청부설주차장관리규정중개정규정	1997. 4. 10
제1142호	부산광역시 정원외인력관리규정	1997. 5. 1
제1143호	부산광역시 부산시정소식망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1997. 5. 1
제1144호	부산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운영규정중개정규정	1997. 5. 1
제1145호	부산광역시 수도사용료등과징사무취급규정개정규정	1997. 5. 1
제1146호	부산광역시 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	1997. 5. 15
제1147호	부산광역시 택지공영개발선수금운영규정중개정규정	1997. 7. 18
제1148호	부산광역시 재정투융자심사규정중개정규정	1997. 8. 21
제1149호	부산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운영규정중개정규정	1997. 8. 21
제1150호	부산광역시 감사지원협의회운영규정폐지규정	1997. 8. 21
제1151호	부산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운영규정중개정규정	1997. 9. 24
제1152호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동사업면허제운영요령중개정규정	1997. 9. 24
제1153호	부산광역시 상수도특별회계재산관리지침중개정지침	1997. 9. 24
제1154호	부산광역시 주차장관리규정중개정규정	1997. 10. 30
제1155호	부산광역시 해외무역사무소운영규정	1997. 10. 30

釜山市 例規

釜山市 例規 目錄

(1992. 1. 1. ~ 1997. 12. 31.)

號 數	題 目	公布年月日
제375호	부산직할시 재해적립금관리요령폐지요령	1992. 11. 17
제376호	부산직할시 간행물조정심의및판매보급규정	1993. 3. 15
제378호	부산직할시 전산개발표준화지침	1993. 3. 31
제379호	부산직할시 시청공무원매점운영규정중개정규정	1993. 10. 11
제380호	부산직할시 미관지구내단독주택다세대주택건축허가처리지침폐지지침	1994. 4. 18
제1098호	부산직할시 회계사무취급요강개정요강	1994. 7. 26
제381호	부산직할시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1994. 8. 25
제382호	부산직할시 전산개발표준화지침폐지지침	1994. 8. 25
제383호	부산직할시 인근부지건축허가처리지침중개정지침	1994. 11. 15
제384호	부산직할시 상수도계량기및계량기본선관리규정중개정규정	1994. 11. 30
제385호	부산광역시 시청공무원매점운영규정중개정규정	1995. 1. 10
제386호	부산광역시 회계사무취급지침중개정지침	1995. 9. 15
제387호	부산광역시 시청공무원매점운영규정중개정규정	1995. 9. 15
제388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휴가업무예규	1996. 2. 16
제389호	부산광역시 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지침	1996. 6. 28
제390호	부산광역시 위반건축사행정처분업무처리지침개정지침	1996. 8. 2
제391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휴가업무운영지침 (부칙폐지:지방공무원유가업무예규폐지)	1997. 5. 1
제392호	부산광역시 민방위상황실설치운영수칙폐지규정	1997. 5. 15
제393호	부산광역시 도로의조명시설관리기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1997. 6. 19
제394호	부산광역시 전화민원세부처리지침폐지지침	1997. 8. 21
제395호	부산광역시 복합민원처리제도개선지침폐지지침	1997. 8. 21
제396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장사택운영관리지침중개정지침	1997. 9. 24

釜山市 機構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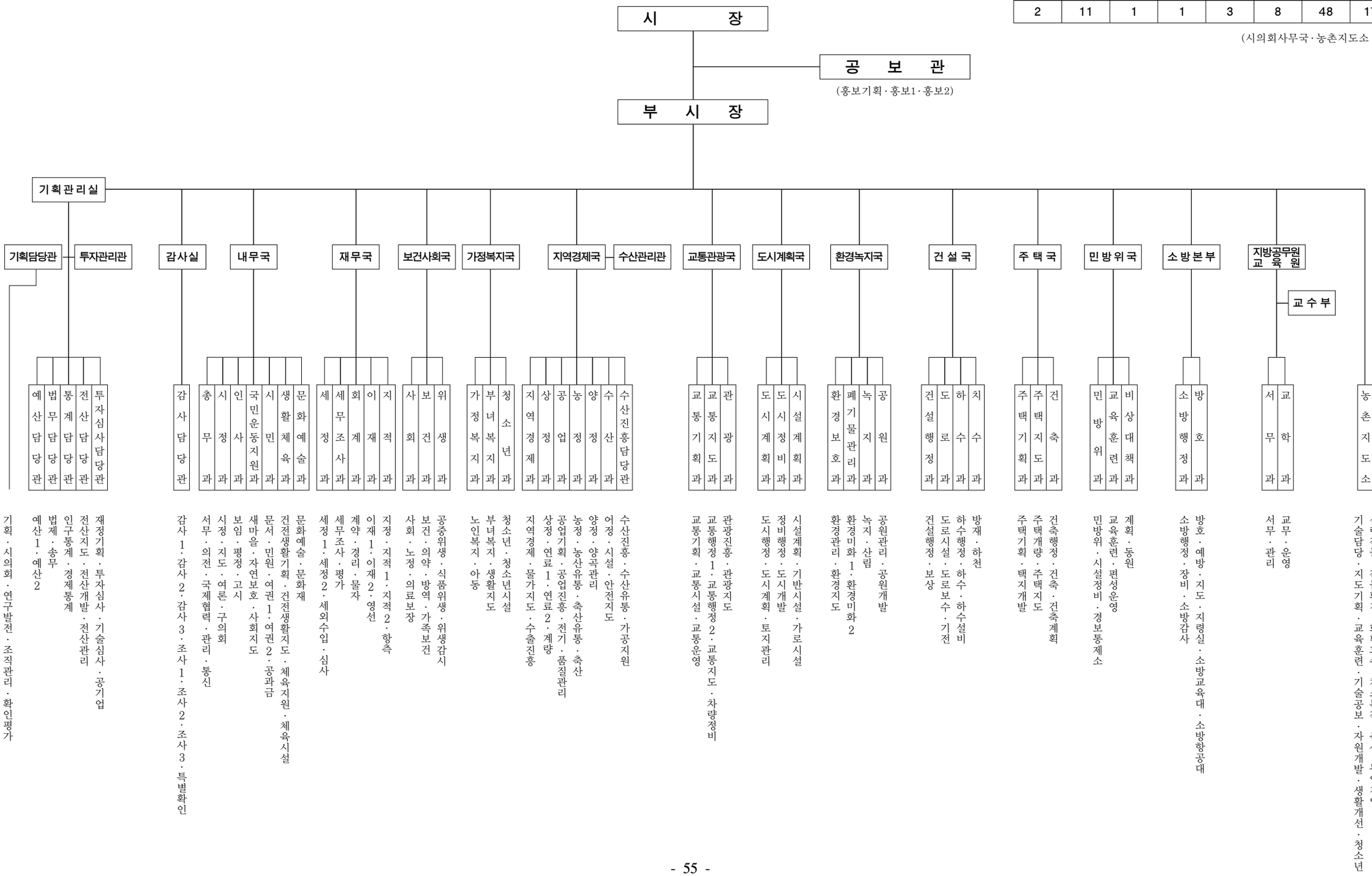
1992~1997

1992年 機構表

출처 : 『92 市政白書』, 부산직할시, 1992.

실	국	본부	원	관	담당관	과	계
2	11	1	1	3	8	48	171

(시의회사무국·농촌지도소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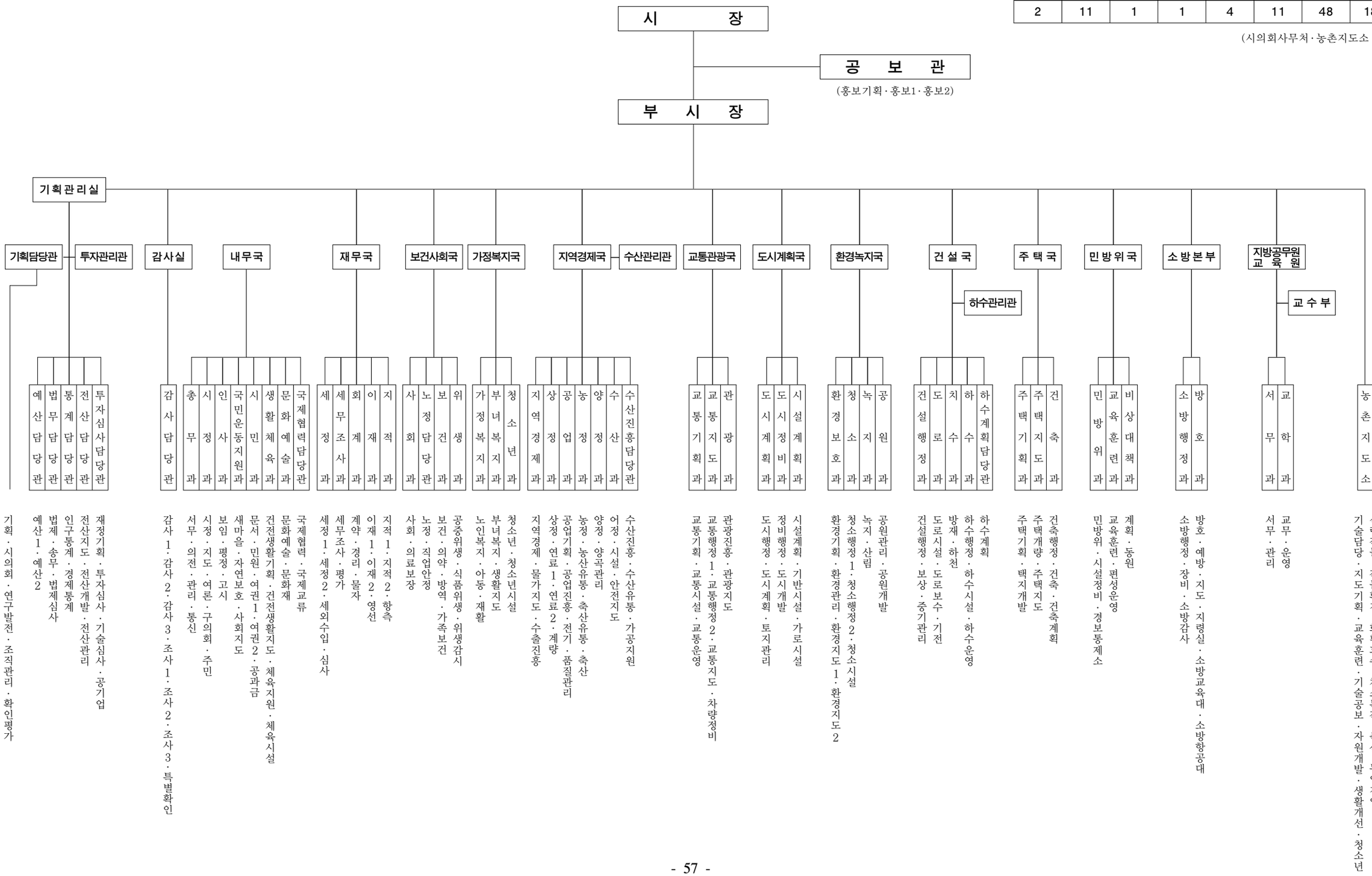


1993年 機構表

출처 : 『제32회 부산통계연보』, 부산직할시, 1993.

실	국	본부	원	관	담당관	과	계
2	11	1	1	4	11	48	180

(시의회사무처·농촌지도소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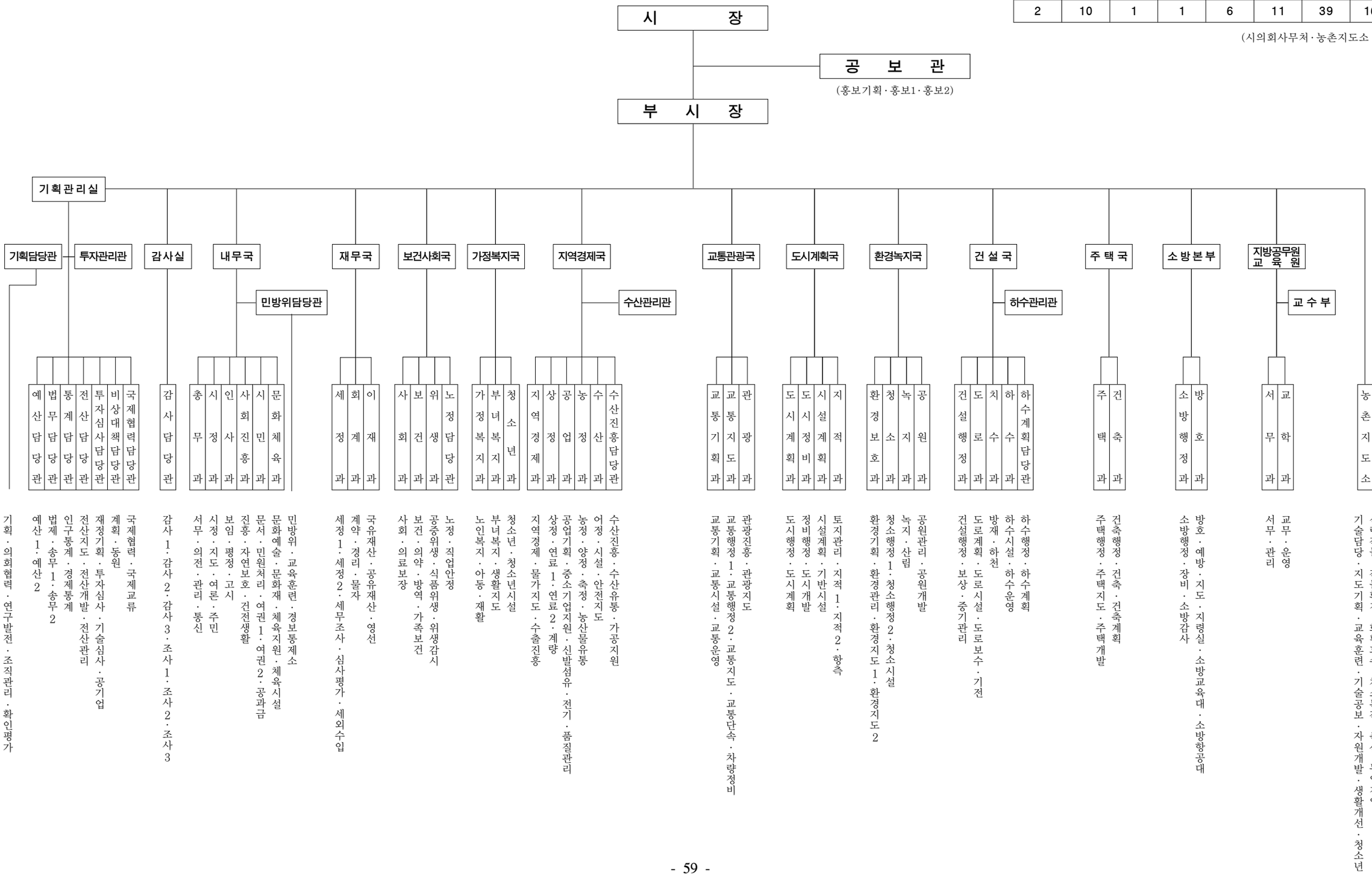


1994年 機構表

출처 : 『94 市政白書』, 부산직할시, 1994.

실	국	본부	원	관	담당관	과	계
2	10	1	1	6	11	39	169

(시의회사무처·농촌지도소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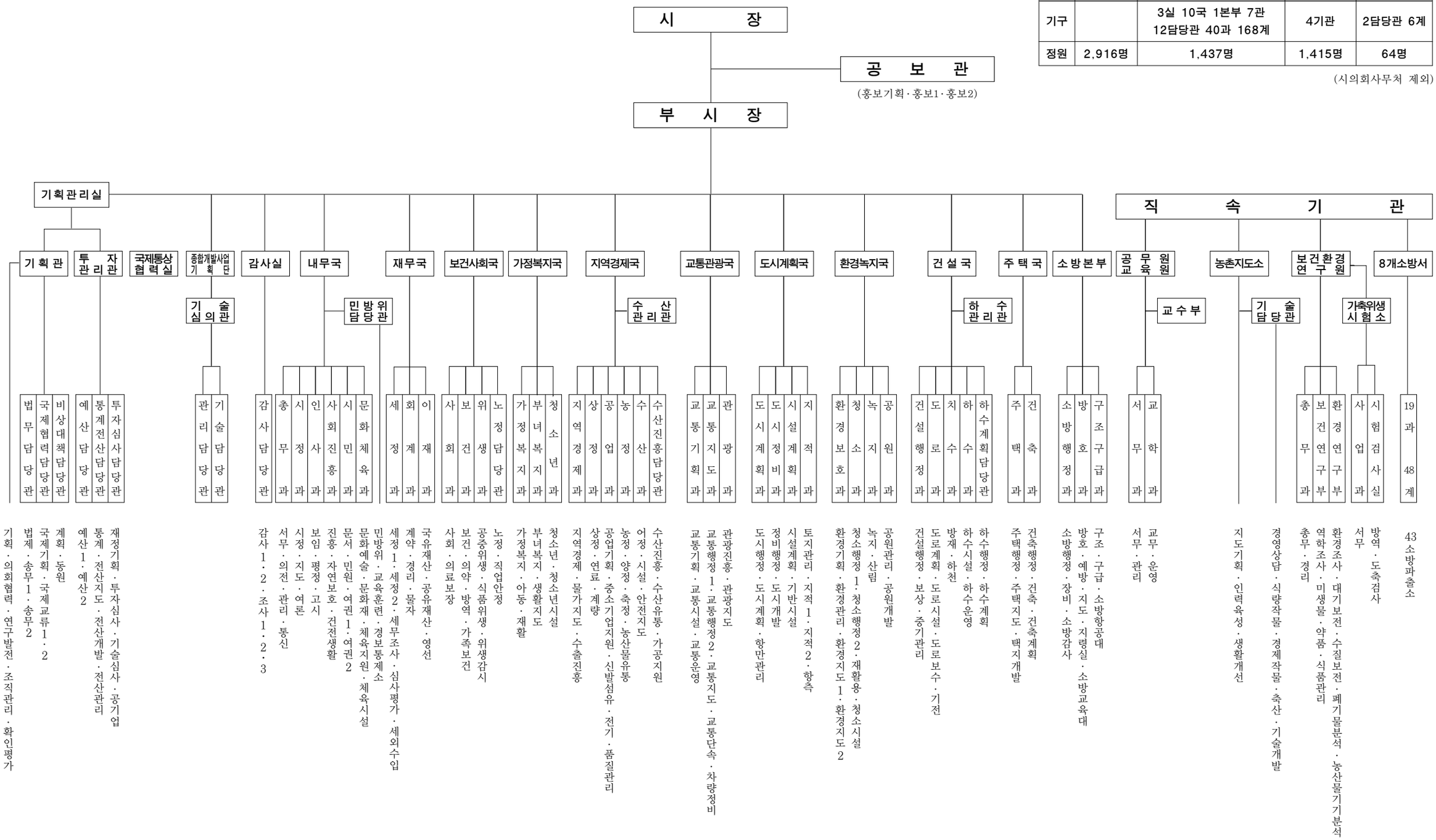


1995年 機構表

출처 : 『95 市政白書』, 부산광역시, 1995.

구분	계	시 본 청	직속기관	의회
기구		3실 10국 1본부 7관 12담당관 40과 168계	4기관	2담당관 6계
정원	2,916명	1,437명	1,415명	64명

(시의회사무처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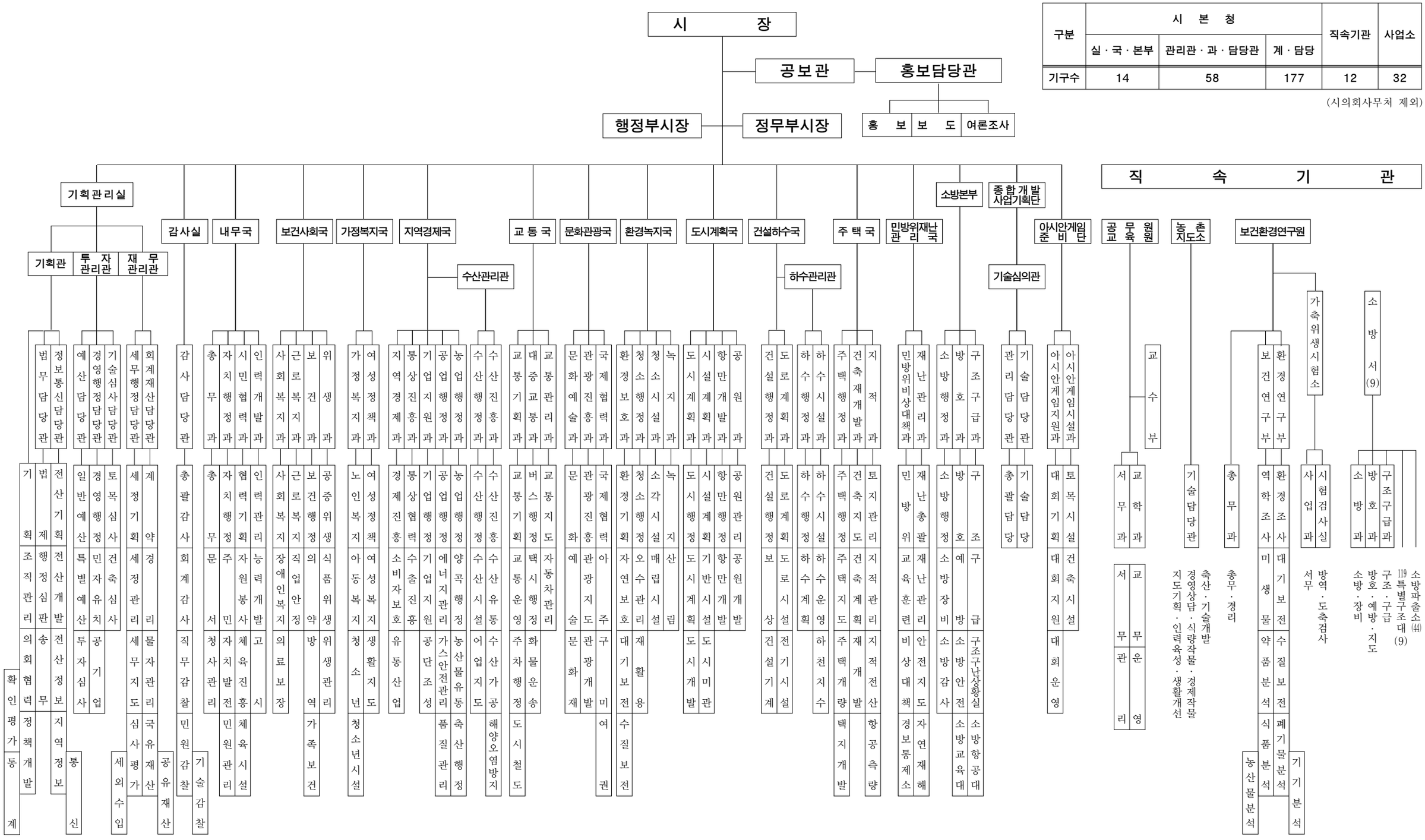


1996年 機構表

출처 :『96 市政白書』, 부산광역시, 1996.

구분	시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실 · 국 · 본부	관리관 · 과 · 담당관	계 · 담당		
기구수	14	58	177	12	32

(시의회사무처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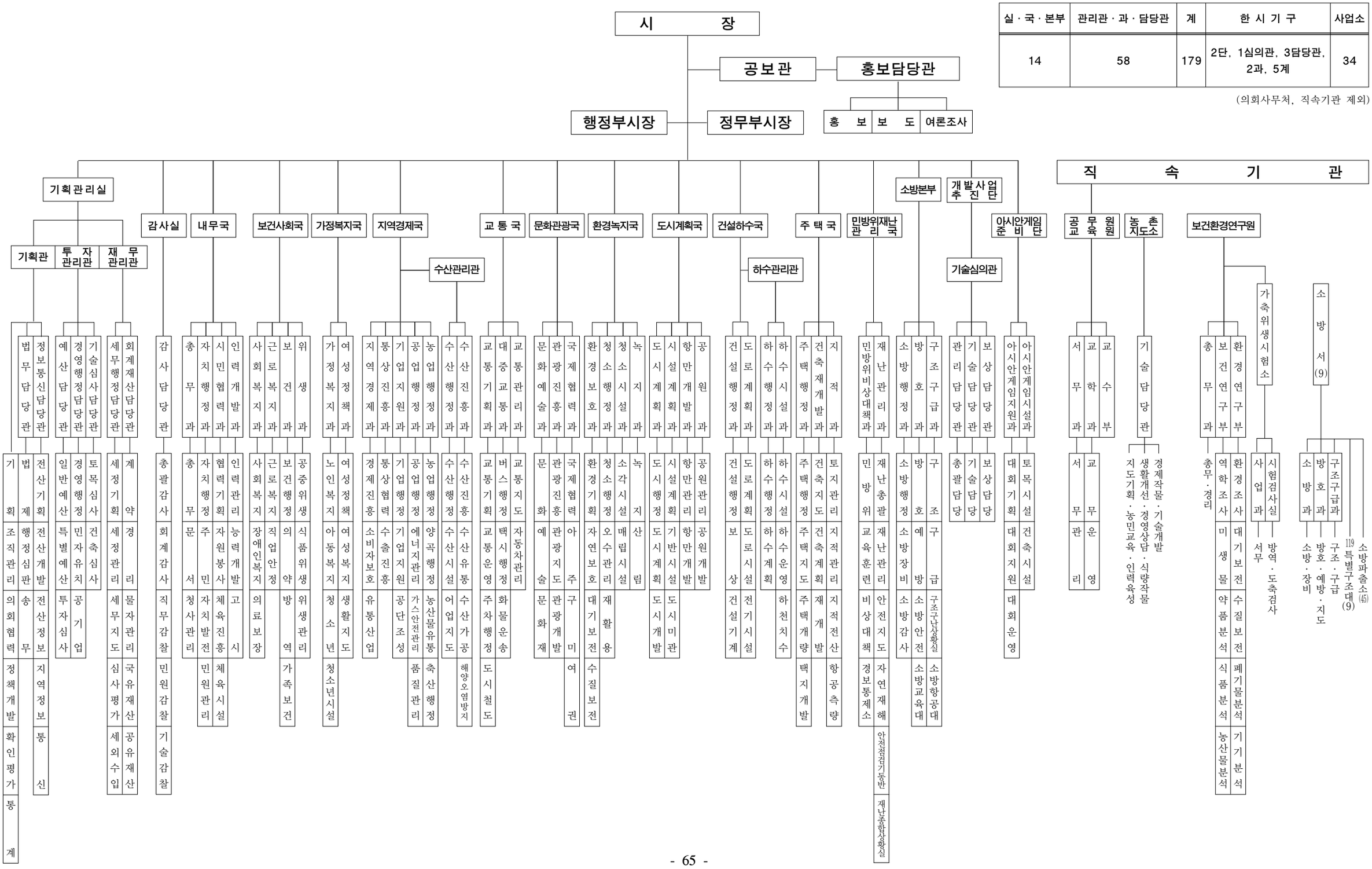


1997年 機構表

출처 : 『97 市政白書』, 부산광역시, 1997.

실 · 국 · 본부	관리관 · 과 · 담당관	계	한 시 기 구	사업소
14	58	179	2단, 1심의관, 3담당관, 2과, 5계	34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제외)



釜山市長 및 副市長

▌市　長
▌副市長

市　　長

在 任 順	姓　名	在 任 期 間
14(26)	김　영　환	1990. 12. 28. ~ 1992. 12. 15.
15(27)	박　부　찬	1992. 12. 16. ~ 1993. 3. 3.
16(28)	정　문　화	1993. 3. 4. ~ 1994. 9. 23.
17(29)	김　기　재	1994. 9. 24. ~ 1995. 6. 30.
민선 1대(30)	문　정　수	1995. 7. 1. ~ 1998. 6. 30.

※ (　)의 숫자는 직할시 이전부터 계속되는 재임순임.

副 市 長

在 任 順	姓　名	在 任 期 間
23(32)	안　명　필	1993. 3. 16. ~ 1994. 9. 26.
24(33)	진　만　현	1994. 9. 27. ~ 1997. 3. 19.
25(34)	최　인　섭	1997. 3. 20. ~ 1999. 4. 21.
정무 1대	오　세　민	1995. 8. 17. ~ 1998. 2. 25.

※ (　)의 숫자는 직할시 이전부터 계속되는 재임순임.

年　表

1992. 1. 1.～1997. 12. 31.

1992년

1. 1
* 부산경제, 수출・내수 “맑음”, 자금・인력난이 걸림돌(국제 1. 1)
* 부산시, 지역개발기금조성 올 공채 132억 발행(국제 1. 1)
* 부산시, 91년 종무식, 김영환 부산시장 참석(국제 1. 1)
* 부산시, 유흥업 신규허가 동결(국제 1. 1)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캠페인(국제 1. 1)
* 부산시, 사안별 연시대책반 가동(국제 1. 1)
* 부산시장 경남지사 시・도의회의장 새해설계(국제 1. 1)
* 올 개발 본격화…섬이 뭍으로, 가덕도 주민 임신년 “대몽”(국제 1. 1)
* 부산시, 곳곳 건설역사, 해상신도시는 지도 바꾸기 10년 대장정에 돌입(국제 1. 1)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도약, 능동의 신지방시대 열어(부산 1. 1)
* 92 부산 도약 발전의 해로 선정(부산 1. 1)
* 새해 주택 4만3천호 공급키로(부산 1. 1)
* 시장동정, 김영환 시장은 1일 오전 9시 충렬사와 대청공원에서 참배식 개최(시보 1. 11)
* 건물과 표 평균 9.2% 올라, 부산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92년 시행건물 및 기타물이 과세시가표준액을 물가안정 시책과 시민의 세부담을 감안, 급격한 인상을 억제 하고 불합리한 사항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에서 물가상승율과 비슷한 폭으로 인상키로(시보 1. 11)
* 임진년 신년사 -부산직할시장 김영환-,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아 부산시민께 만복이 깃드시기를 축원하며 새해인사를 드립니다(시보 1. 3)
* 10개 공공도서관 입관료 무료화(부산교육 1. 1)
* 양산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30여명 압수수색영장 없이 부산대 문창회장에 들어가 장기농성을 벌이던 (주)대우정밀 노조위원장 직대 문영만과 대의원 등 4명을 강제연행(민주운동 1. 2)

1. 3
* 광복동 문화거리로 되살리자, 융자알선 세제혜택 등 활성 방안 시급(국제 1. 3)
* 부산시, 6일부터 개별 땅값조사 실시(국제 1. 3)
* 부산발전추진기획단 김희생 단장, “인공섬 건설은 일생일대의 과업”(국제 1. 3)
* 강서구 봉림동 전국 첫 대형 수목원 건립(부산 1. 3)
* 광복로 특성화 개발 검토, 구간별 특성에 따라 3개 특성화 거리 조성(부산 1. 3)
* 주민수가 시 전체의 1/6에 달하는 동래구의 분구가 시급(부산 1. 3)
* 지역 연극 발전 배우협 출범, 극단 역량 모아 합동 공연 등 계획(부산 1. 3)
* 시립예술관 올해 홍보부 신설・기구 확대 강화키로(부산 1. 3)
* 부산시 2000년대 국제도약 가시화를 위한 새해 대역사 봇물(부산 1. 3)
* 부산시, 지역개발 공채업무 올해부터 전산화(부산 1. 3)
* 부산시, 지방세 징수호조 6천2백, 부산시의 지난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율은 93.5%를 보여 예년에 보기 힘든 높은 징수실정을 보였다(시보 1. 3)
* 부산시, 체불 임금 없게 예방대책, 근로자 설날 귀향편의 등 지도강화(시보 1. 3)
* 부산시, 인사 행정5급 승진(시보 1. 3)
* 시영 장기임대아파트 불법 전매 행위 등 제재, 91년 분양입주자…기존가격으로 처리, 투기목적, 모두 퇴거시키기로(시보 1. 3)
* 주택용지선수공급대상 선전, 해운대 신시가지 39만7천평…자금조성위해(시보 1. 3)
* 마을체육시설 안내서 제작보급, 부산시는 최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건강관리와 여가활용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동네 체육시설」 책자를 제작보급(시보 1. 3)
* 안정・화합된 시정모습 구현 -김영환 시장-, 「21세기를 창조하는 내 고장 부산」 이루기 위해 열심히 봉사(시보 1. 11)
* 시의회시무식, 부산시 의회는 지난 3일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우병택의장, 김화섭 도종이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다(시보 1. 11)

* 간부들 복지시설위문, 성탄절 연말연시 맞아(시보 1. 3)
* 「부산직할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2882)(부산교육 1. 3)
* 「부산직할시 교육감 표창 조례」 등의 일부 개정 조례 공포(제2883호)(부산교육 1. 3)
* 「부산직할시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2884호)(부산교육 1. 3)
* 「부산직할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2885호)(부산교육 1. 3)

1. 4
* 부산시, 아파트 건축규제 해제(국제 1. 4)
* 다대포지역 3만평 골재 전용부두로 추진(국제 1. 4)
* 공해신고 보상제 겉돈다, 예산차질과 인식부족으로 실효거두지 못함(국제 1. 4)
* 부산시, 저소득층 생계비지원(국제 1. 4)
* 부산시 교통량 조사, 우암초 일대 심한 병목현상(국제 1. 4)
* 부산시, 주민진정 묵살, 인도너비 좁아 통행 불편한 모라동에 대형건축 허가(국제 1. 4)
* 부산경찰청, 일요일도 운전면허 시험 치르도록(국제 1. 4)
* 부산시, 고급간부 대규모 인사 곧 단행, 시의회 사무국은 사무처로 승격(국제 1. 4)
* 부산시, 건물과세 시가 표준액 9.2% 인상(국제 1. 4)
* 부산시, 초읍고갯길 확장공사 12년째 방치(부산 1. 4)
* 부산시, 온천천 5호교~지하철 장전역 호안 1.1km도로 건설키로(부산 1. 4)
*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의 사장 폭 확장·시설 정비 등 모습 바꾸기로(부산 1. 4)
* 부산시 이달 말 최대 간부승진 인사(부산 1. 4)
* 부산시 재산세 징수액이 평균 9.2%나 인상되어,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부산 1. 4)
* 부산연합 부시방한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및 미영사관 항의 방문(민주운동 1. 4)

1. 6
* 부산지역 좌석버스 급증, 「달동네」 이중고, 배차시간과 요금이 2배로(국제 1. 6)
* 부산시, 들쭉날쭉 토지과표, 주민 이의 속출(국제 1. 6)
* 부산항 개발 현황 전망 - 개항 이래 최대 역사 규모(부산 1. 6)
* 부산 조선업이 국내선 건조에 치중되어(부산 1. 6)
* 부산시,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이 차질을 빚어(부산 1. 6)
* 시향 내부 운영위 결성. 성명서 발표에 주목(부산 1. 6)
* 시·구청 공모서 1월부터 전산화(부산 1. 6)
* 해운대서 보트레이스 즐기는 시설이 마련돼(부산 1. 6)
* 시민회관 시설 보수 공사가 지연되어 10개 예약단체 행사 취소·연기(부산 1. 6)
* 주차빌딩 건립시 건설비의 70%까지 융자해주기로(부산 1. 6)
* 강서·명지 등 간척지 23만평 무용지물화(부산 1. 6)
* 주차 빌딩 건립비 70% 융자 알선, 부산은행과 협약…50대 이상 시설대상(시보 1. 11)
* 신설 「컨」 세 징수 시작, 시에 납부 선박회사가 화주에 받아(시보 1. 11)

1. 7
* 부산임대아파트 관리 허술, 31%가 불법 전매(국제 1. 7)
* 시사편찬사업 본궤도 진입(국제 1. 7)
* 부산지역 관광호텔, 국내 손님에만 눈독(국제 1. 7)
* 부산 도개공 땅장사 전락, 방만한 경영과 인원과다로 시예산 낭비 지적(국제 1. 7)
* 부산시, 새마을금고 일제 점검(국제 1. 7)
* 차 부품성 호황 계속. 올해 15.7% 생산 증가(부산 1. 7)
* 을숙도 등 철새도래지 일원에 대한 수렵금지 고시(부산 1. 7)
* 가덕도일대 11개 섬 해상공원 지정 추진(부산 1. 7)
* 낙동강 유수 값 20% 일방 인상하기로 하여 부산시 반발(부산 1. 7)
* 부산시 교통사고 많은 곳 집중 정비하여 293개소에 각종 안전물 설치 추진(부산 1. 7)
* 낙동강 하구 매립지, 부산시 공해백화점이 우려돼(부산 1. 7)
* 부산시의회, 시의회 임시회서 세부계획검토, 공동어시장 감독권 이양해야(시보 1. 11)

1. 8
* 부산시 버스노선 변경 반발(국제 1. 8)
* 사치성 해외여행 다시 꿈틀, 작년 12월 단체연수 등 여권발급 폭증(국제 1. 8)

* 부산시구의회 의장단협의회, 직제개편안 건의 결의(국제 1. 8)
* 부산시, 탁상건축행정(국제 1. 8)
* 택시기사 내달 23일 첫 자격시험(국제 1. 8)
* 부산 을숙도 5천여평에 상품종합전시관 건립(부산 1. 8)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2~100년 걸리던 변화가 1년만에 국제·개방화 이루어져(부산 1. 8)
* 부산지역 12개 구청의 보건소 치과개설 시급(부산 1. 8)
* 농수산물 유통단지 완공에 차질을 빚어(부산 1. 8)
* 해운대구 우·중동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 지연(부산 1. 8)
* 공공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운영(초등 5,6학년 588명)(~1. 18)(부산교육 1. 8)

1. 9
* 부산시 교통관광국 전면 수사, 거액 받고 관광버스 특혜 증차(국제 1. 9)
* 부산지하철 사고 66건 발생(국제 1. 9)
* 배수로 없어 터널벽 터져, 부산지하철사고 괸 물 빠져나갈 곳 없이 설계(국제 1. 9)
* 부산지역 기업체들 해외투자 "시들"(국제 1. 9)
* 서낙동강권 개발편승 투기꾼 극성, 법 허점 이용 소규모 거래(국제 1. 9)
* 부산항 기능 고쳐 만성체화 해소(부산 1. 9)
* 화명 택지 예정지 폐기물 투기 등 관리 엉망(부산 1. 9)
* 지하철 좌천동역 인근 터널 벽 붕괴 원인·대책 - 부실공사와 관리 소홀의 합작(부산 1. 9)
* 관광버스 증차특혜 미끼, 부산시 공무원 뇌물 받아(부산 1. 8)
* 광복회, 미야자와 일본총리 방문 반대성명 발표(민주운동 1. 9)

1. 10
* 터널벽 누수차단 속수무책, 부산시민 불안·답답(국제 1. 10)
* 부산 시장,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 조찬간담회 참석(국제 1. 10)
* "공명선거 시민이 앞장", 55개 단체에서 「대책본부」 본격 추진(국제 1. 10)
* 부산 주택 보급률 60%선 진입(부산 1. 10)
* 구포고가교 20일 완공되어 덕천로터리 주변 체증 개선(부산 1. 10)
* 신설 컨테이너 세 첫 신고, 430만원 납부키로(부산 1. 10)
* 시 사무관 승진제로 개선 시급(부산 1. 10)
* 시 주민 숙원 등 자치구 공사 조기 발주 지시, 선거 겨냥 선심 행정 인상(부산 1. 10)
* 부산지하철 긴급 진단. 대소사고 지금까지 70여건(부산 1. 10)
* 부산시, 장애인 자녀 장학금 올해부터 지급, 10일 장애인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의 중학생 자녀에게도 학비를 지원키로 하고 1월 중 대상자 조사를 실시할 방침(시보 1. 21)

1. 11
* 지사단지 산업·주택·대학용지 조성, 상주인구 3만명 수용(국제 1. 11)
* 지사과학단지 기본계획안, 연구·산업결합 미래형 신시가(국제 1. 11)
* 매연차량 단속 "눈가림식", 장비와 인력부족(국제 1. 11)
* 부산시 교육청, 중·고 수업료 인상률 확정(국제 1. 11)
* 해운대 신시가 출발선부터 "삐걱", 탁상행정으로 주민 반발 초래(국제 1. 11)
* 변두리 주민들 일반버스타기 "별따기", 「무더기 좌석전환」 시민 반발(국제 1. 11)
* 부산교통공단, 대한토목학회에 부산지하철 정밀안전진단 요청(국제 1. 11)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3 기득권 안주 벗고 새시대 대비(부산 1. 11)
* 온천천을 교통 대동맥으로 활용하기로(부산 1. 11)
* 부산시, 올해는 「교통난 해소의 해」, 금년 92년도를 「교통난 해소의 한해」로 정해 모든 가용 인력과 재원을 총동원하여 교통난 해소에 적극 대처키로(시보 1. 11)
* 부산시, 동네에 체육시설 설치, 체력단련위해…등산로 약수터 등에(시보 1. 11)
* 부산시, 대기배출업소 감시 단속 강화, 1월말까지 시 전역 2천4백89개 대기오염배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 내리도록(시보 1. 11)
* 부산시의회, 올해 100일간 회기 맞아, 철저한 감사·조사로 제재 기능 강화(시보 1. 11)
* 대대적 공영 선거 캠페인, 시선관위 각계 민간단체 참여 유도(시보 1. 11)
* 부산시, 공채 132억 발행 5년 거치 뒤 상환, 올해 지역 개발금의 재원조성 위해 지역개발공채 1백32억8천3백만원을 발행(시보 1. 11)

* 일본 아사히신문, 태평양전쟁 중 한국인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일본 방위청에 보관돼 있다고 보도(민주운동 1. 11)
* 江西區 천가동 行政船就航(직할30년 1. 11)

1. 13
* 부산시, 법정영세민에게만 준「영구임대주택」없애 일반영세민용 늘인다(국제 1. 11)
* 간선로 주행속도 91~90년 평균대비 1km 빨라져(국제 1. 11)
* 부산시 교육청, 하단동 아파트단지 내 국교 신축, 45억에 건립지 매입(국제 1. 13)
* 해운대 신시가 최대 관건, 올 4월 착공(국제 1. 13)
* 금정구의회, 금정산…공원으로 지정 마땅(국제 1. 13)
* 부산시, 인사(국제 1. 13)
* 낙동강 하구 불법매립 구청 해양청이 방관(부산 1. 13)
*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첫 운영, 장애인·소년가장·독거노인 대상으로 활동(부산 1. 13)
*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1일 열리는 제9회 임시 회의에서 부산시 조례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시보 1. 21)
* 부산노련 화승실업 등에 대해 항의방문 '안전관리자 폭력 규탄 및 고무공장 인권유린 근절을 위한 철야 농성'(민주운동 1. 13)

1. 14
* 만덕동 주민 시내버스 재운행 요구 시위(국제 1. 14)
* 부산 도로율 0.79%P 증가, 여전히 대도시 중 최하(국제 1. 14)
* 서대신동~하단 4단계 구간, 지하철 공사 안전사고 빈발(국제 1. 14)
* 부산시, 인사(국제 1. 14)
*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수수료율 30%로 조정(부산 1. 14)
* 부산 도로율 5개 도시 중 최하 기록(부산 1. 14)
* 부산시, 도시계획부과지역을 추가 고시(시보 1. 21)

1. 15
* 부산시, 교통취약지 체계개선사업에 23억의 예산 투입(국제 1. 15)
* 금정·해운대 일부, 강서전역에 도시계획세 부과 추가 고시(국제 1. 15)
* 극심한 용지난이 시 발전의 한계로 지적되어(부산 1. 15)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4 잠재력 무한 지도층이 개발 앞장서야(부산 1. 15)
* 금정구청, 근린생활시설 허가에 특혜 의혹으로 물의(부산 1. 15)
* 부산 생필품값도 인상 경쟁, 전기 6%, 등록금 5%, 버스 20%로 계획(부산 1. 15)
* 부산시, 중구 영주동에서 서구 동대신동 간을 연결하는 부산 터널의 젯트펜(환풍기) 교체공사를 위해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밤 12시부터 새벽 5시에 한해 터널 안의 2개 차선 모두에 대해 차량통제 실시(시보 1. 21)
* '불법적 구사운동 철폐 및 구사대 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민주운동 1. 15)
* 대단위파출소 환원(경무(기)01210-21388 91. 12. 27)(부산지방청훈령 제25호)(경찰사 1. 15)
*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새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91가합24826)(법원사 1. 15)

1. 16
* 일선구청, 때늦은 공사설명회, 행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의혹(국제 1. 16)
* 부산 체육시설 곳곳 파손, 시 체육회 파손방치·보수외면(부산 1. 16)
* 강서구 국·공유지 관리 곳곳에 구멍(부산 1. 16)
* 부산시, 택시운전자격시험 2월 23일 실시, 92년도 부산직할시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자격시험에 따른 시험실시 및 자격증 발급계획 공고(시보 2. 1)
* 부산지역 택시노동조합 정식 출범(민주운동 1. 16)

1. 17
* 부산지역 총선후보자, 여-거물급 포진, 야-참신성 기대(국제 1. 17)
* 호화 건자재 수입 크게 감소(국제 1. 17)
* 부산시, 불량주택 개량사업추진(국제 1. 17)
* 단체장 선거연기 당위성 일방 홍보, 공무원 "정치중립" 말뿐(국제 1. 17)
* 부산시, 40㎡이하 공동주택 면세(국제 1. 17)
* 부산시 산불·고층 화재 구조 대비를 위해 소방 항공대 발족(부산 1. 17)
* 첫 택시 자격시험 내날 23일 실시 예정(부산 1. 17)

* 부산시의회 내무위원회, 시의회 사무국 설치와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부산시 주차관리공단 현물출자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보 1. 21)
* 후기고(인문)합격자 발표(부산교육 1. 17)
* 연산3파출소를 연산6파출소로, 연산6파출소를 연산3파출소로 개칭(경찰사 1. 17)

1. 18
* 「개발공약」 불꽃대결 볼만(국제 1. 18)
* 부산환경청 측정치 뒤죽박죽, "대기오염 수치 믿을 수 없다"(국제 1. 18)
* 부산시・도시고속도로관리사업소, 고속도로에 방음벽 설치(국제 1. 18)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5 중국특수 곧 온다, 개발 한창(부산 1. 18)
* 대저~강동군 작전도로 남해 고속도로 연결을(부산 1. 18)
* 부산시, 18일부터 일요일과 국경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심야시간대와 매월 31일에는 10부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범시민적인 참여운동을 펴기로(국제, 시보 1. 21)
* 부산시, 지난해 전국 관공서로는 처음으로 「썩는 비닐봉지」 5만매를 구입 배부하여 각종 자연보호활동 등에 활용, 좋은 반응(시보 2. 1)

1. 20
* 부산항 갈수록 작아져, 2000년대에는 지금의 절반으로 약화될 전망(국제 1. 20)
* 부산시, 사전분양 집중단속(국제 1. 20)
* 부산시, 공공하수시설 「원인자 부담」 전국 첫 적용(국제 1. 20)
* 부산시, 10억 규모, 60~70%가 운동원 수당(부산 1. 20)
* 부산시, 물가잡기 총력전 돌입, 7개 서비스요금 모니터 운영 대목물가 대책마련(국제, 부산 1. 20)
* 부산시, 올 문건금 3억8천만원 운용계획 발표(부산 1. 20)
* 명륜, 온천천, 낙동강에 1,415평 규모의 대규모 주차장 만들어(부산 1. 20)
* 20개 생필품 특별관리, 시 물가 대책회의 올해 물가 한자리 억제(시보 2. 1)
* 동네 체육시설 정비보완, 체육공원 등 57개소 대상, 시민의견 물어 시설 재배치, 2월 중 마무리…동호인에 관리지정(시보 2. 1)
* 공유재산 대부료 차등부과, 조례 개정(시보 2. 1)
* 복지시설 등에 성・금품전달, 설날 맞아 1억2천여만원(시보 2. 1)
* 하단2파출소 화염병 피습(경찰사 1. 20)

1. 21
* 공해배출부과금을 징수한 시도에서는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국제 1. 21)
* 부산시, 일일 노동시장 사라진다, 6곳 통합 종합 관리책 마련(국제 1. 21)
* 구의회 의장 무더기 민자당 입당, 부산지부 당에 소위원회 구성(국제 1. 21)
* 부산시, 암행 감사, 총선 앞두고 감사반 4명 활동(국제 1. 21)
* 부산 주력업종 위기탈출 길터(부산 1. 21)
* 주택 보급 60% 돌파(부산 1. 21)
* 공유재산 대부금 차등하기로 조례 개정(부산 1. 21)
* 시내버스 노연 총파업 결의. 임금 37% 인상 요구(부산 1. 20)
* 부산시, 올해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지침을 각 구청에 시달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시보 2. 1)
* 부산시, 2011년 인구 4백80만명 주택보급률 90%, 도로율 22% 유지를 목표로 도시기능을 낙동강권, 해안권, 내안권, 도심권의 4대권역을 개편 개발키로(시보 2. 1)
* 부산시 주요 사업계획 진단, 구덕터널~문현 9.7km 연말 완공 92만평 신시가지개발…6월에 기공식(시보 1. 21)
* 부산시의회, 21일부터 3일 동안 시의회사무국 직제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시보 1. 21)
* 부산시향 제253회 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새해를 맞아 교향악의 권위자인 정재동씨를 객원지취자로 초빙해 1월 31일 오후 7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253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시보 1. 21)
* 부산시, 생활민원대책반구성, 동절기를 맞아 각종시민생활 불편을 능동적으로 찾아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제반대상물은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절기 시민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하기로(시보 1. 21)
* 간선도로 주행 점차 빨라져, 부산시가 조사한 중앙로와 수영로 등 8개 주요 간선도로의 평균 주행속도는 출퇴근시간대가 시속 16.7km 낮 시간 때는 18.6km 90년의 16.1km와 17.3km에 비해 평균 1km 정도 빨라진 것으로 조사(시보 1. 21)

* 부산시, 영세민 자립시책을 강화하고 영세민 생활향상을 돕기 위해 올해 87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세민 지원책을 확대키로(시보 1. 21)
* 교통체계 개선사업 조기추진, 시내 1백50개소 도심차량 원활한 소통 위해(시보 1. 21)

1. 22
* 부산시, 부산주택보급률 90% 목표(국제 1. 22)
* 부산시,「차량과태료 체납」처분 강화(국제 1. 22)
* 부산시, 하수도관 설치비용…택지개발 시행자에 부과(국제 1. 22)
* 부산시 교육청, 국・중교 8개 신설 개교(국제 1. 22)
* '환태평양시대 주역' 활기 넘쳐, 제1관문 위협, 가덕도 등 개발 촉구(부산 1. 22)
* 부산시, 소방항공대 발대, 다목적 소방헬리콥터 확보(부산 1. 22)
* 시・의회・사업소직원이웃돕기, 1천8백만원 전달(시보 2. 1)
* 부산 시장, 1월 22일부터 중구청 순시를 시작으로 각 구청에 대한 연두순시에 나서, 주거환경개선 적극 추진 토록(시보 2. 1)
* 전국 대학 3당 합당 2주년을 맞아 반민자당 집회와 시위 벌임(민주운동 1. 22)
* 부산연합 '민자당 합당 2년 학정 폭로 및 지자제 선거 연기 규탄대회'(민주운동 1. 22)
* 부산노련 대의원대회 '92 임투 계획안' 확정(민주운동 1. 22)

1. 23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13개 사회단체 초청, 공명선거추진 앞장 요청(국제 1. 23)
* 부산시 교육청, 중학교 입학생 대상자 급증(국제 1. 23)
* 해운대 신시가 택지 분양(국제 1. 23)
* 갈수기 하천오염 범벅, 업체 폐수 무단방류로 5등급 이하(국제 1. 23)
* 부산시, 민원서류 중계 발급제 이용 시민 크게 늘어(부산 1. 23)
* 부산시, 하수도료 매년 5% 이상 인상, 보증부담 시민에게 떠넘겨(부산 1. 23)
* 지하철 2호선 김해까지 연장 불가, 4호선 계획 때 검토키로(부산 1. 23)
* 부산시장, 1월 23일 밤 9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부산 청소년 교향악단 신년음악회 축하 리셉션에 참석하여 단원 2명에 장학금을 전달(시보 2. 1)
* 부산소방본부, 소방항공대 발족(부산교육 1. 23)
* 경성대에서 부산경남총학생회연합(의장 손병호 부산대 총학생회장) 간부학교(민주운동 1. 23)
* 消防航空隊 발족(직할30년 1. 23)

1. 24
* 부산시와 산하 28개 사업소・시의회사무국 소속직원 등 불우성금 기탁(국제 1. 24)
* 부산시 소방항공대 발대식(국제 1. 24)
* 부산시, 가덕도 동선동 등 3곳 집중 개발(국제 1. 24)
* 영세 주택 건설시 정리 착수, 시 91년도 1,101곳 난립 일제 조사(부산 1. 24)
* 부산시, 야구・농구 집행부 총 사퇴, 회장에 임원 선임권 일괄 위임(부산 1. 24)
* 부산시, 도개공 아파트 시유지 관리 구멍, 수십억 상당 재산 손실(부산 1. 24)
* '지역 이기 벗자' 자치 조합 설립, 부산・경남 세부계획 착수(부산 1. 24)
* 부산시, 24일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주민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키로(부산시보 2. 1)
* '민자당 심판, 총선 승리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건) 대책위 발족식 및 합의서 이행 촉구를 위한 15만 학도 결의대회'를 개최(민주운동 1. 24)

1. 25
* 부산시, 좌2동 고가로 수정불가 통보, 주민들 실력저지 결의(국제 1. 25)
* 신발산업 발전 세미나 열어, 고부화 가치화 시급(부산 1. 25)
* 부산에 물류센터 건립 붐, 사하・북구 중심으로(부산 1. 25)
* 해운대구 우2동 주민 고가로 건설계획에 반발(부산 1. 25)
* 미포~청사포 해변공원 조성, 동해남부선 12km 이설 건의(부산 1. 25)

1. 27
* 주택예정지가 쓰레기장, 44만여평 3년째 방치(국제 1. 27)
* 부산시, 감천항 배후도로 개설 차질, 보상시비로 완공 늦어(부산 1. 27)
* 신평 협업화단지 공장 미착공 14개 업체 부지 환수(부산 1. 27)
* 문화부 새해 주요 업무 발표, 종합문예회관 완공, 박물관 착공 등 발표(부산 1. 27)
* 부산시선관위, 공명선거적극지원 각 사회・봉사단체 등 참가(시보 2. 1)

1. 28
* 4개 시・도「광역협의회」용두사미식, 물 건너간 낙동강 식수보전(국제 1. 28)

* 시정 보고대회 개최(국제 1. 28)
* 둔치도 연금단지 조성 활기, 연내 실시 계획 수립(부산 1. 28)
* 부산시, 교통난 해소책 흐지부지, 당국 계도 뒷전 추진력 부족(부산 1. 28)
* 올해시정방향 21세기를 창조하는 내 고장 부산, 92시정보고대회 각종사업 확실히 추진(시보 2. 1)

1. 29
* 부산시, 덕천R 일대 교통체계 개선(국제 1. 29)
* 아파트 불법 분양자 명단 공개・고발(부산 1. 29)
* 대형공사 범위조정 발주금액 상향 위해 현행 예산 회계법 개정(부산 1. 29)
* 달맞이길 고질체증 해소책 마련 위해 교통 체계 재조정(부산 1. 29)
* 부산시, 설날을 전후로 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안전점검실시와 운수종사자 교육 등 설날대비 교통사고예방특별 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시보 2. 1)

1. 30
* 「마을버스」 요금인상 요구, 시민들은 반발(국제 1. 30)
* 주차장 상호교환 활용 추진, 이용시간 격차 맞추기로(부산 1. 30)
* 주차위반 타지차량 체납 과태료 징수촉탁제 활용(부산 1. 30)
* 부산시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 매년 10%씩 줄이기로 목표(부산 1. 30)
* 부산 발전 현안 해결 길 열렸다, 관련 부처・시・도 협의 후 사업 착수(부산 1. 30)

1. 31
* 부산시, 마을버스 노선 연장(국제 1. 31)
* 부산시내 중학배정 조정요구 급증(국제 1. 31)
* 부산시, 「21세기 기획단」 구성 추진, "부산발전" 민-관 지혜 모은다(국제 1. 31)
* 관급공사 지방 수주량 격감, 현행 예산 회계법 전면 개정 필요(부산 1. 31)
* 부산 기계 산업 중핵 도시 육성, 매년 2천억 지원 개발(부산 1. 31)
* 시립 국악관현단, 92올림픽 문화사절단 참가 추진 등 올해 계획 발표(부산 1. 31)
* 주차료 영수증 보상제 위해 관리공단 내달 발족(부산 1. 31)
* 낙동강에 오폐수・분뇨 처리 시설 96년까지 5,870억 투입하여 조성키로(부산 1. 31)
* 부산 발전 위해 김해 공항 확장 등 4개 항 수용(부산 1. 31)
* 부산시, 올해 지방공무원 7백명・공개경쟁시험선발, 올해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시보 2. 12)
* 시장동정, 노인 간담회서 모범경로당 표창(시보 2. 12)
* 고무노민추를 중심으로 고무노동자협의회(이하 고노협) 준비위원회가 결성(민주노동 1. 31)

2. 1
* 부산시주요사업 계획진단, 쓰레기 매립장 조성 을숙도에 3년계획 매립장 고가도로건설, 수영교~미남로터리 강변도로(시보 2. 1)
* 일일노동시장행정지원, 자율자생 구인 구직 장소로 육성(시보 2. 1)
* 부산시, 설날 맞아 1만5천명에 전달 불우이웃 격려품 전달, 속내의・쇠고기・쌀・생필품 등(시보 2. 1)
* 택지 선수 공급, 해운대 신시가지(시보 2. 1)
* 「부산포승전」 기념사업확정, 임진왜란 4백주년을 맞아 부산지방의 많은 선열들이 향토를 지키다 장렬히 순절한 추열정신을 되새겨 부산역사의 재인식과 애향심을 드높이기 위해 기념행사를 가지기로(시보 2. 1)
* 주차장 건설 등 업무 맡아, 도심교통・주차난 해소…지방재정확충(시보 2. 1)
* 문예 진흥활동사업지원, 문학 등 6개 분야, 2월 18일까지 접수(시보 2. 1)
* 주차관리공단, 현물출자동의안 통과, 수산청 소유부산공동어시장, 감독권이양은 시와 공동노력(시보 2. 1)
* 부산시, 주차관리공단 창립(부산교육 2. 1)
* 부산지검, 5・3동의대사태 경찰 과잉진압 고발사건에 대해 피고발인인 당시 시경국장 등 경찰 간부들에게 2년 5개월만에 무혐의로 종결처분(민주운동 2. 1)

2. 3
* 복지시설 설날맞이 "썰렁", 예년에 비해 온정 10분의 1(국제 2. 3)
* 택시・버스위법 1위, 횡포운행 예사(국제 2. 3)

2. 4
* 제4단계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 착공(부산교육 2. 4)

2. 6
* 부유층 아파트 10부제 외면, 대단지 고급아파트 중 1.2%만 참여(국제 2. 6)
* 부산시, 공영개발 눈먼 행정, 이전하는 「1116부대」 5만평 매각사실도 몰라(국제 2. 6)
* 부산시, "좌석버스로 무더기 전환"으로 일반버스 배차시간 길어지고 운행 멋대로, 시민불편 심화(국제 2. 6)
* 쓰레기 수집 장려금제 홍보부족 등으로 시민 무관심(부산 2. 1)

* 의보증 부당보관 진료비 청구 의료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를 찾아 단속키로(부산 2. 1)
* 주차장 7만3천면 96년까지 690억원을 집중 투입하여 확충 계획 추진(부산 2. 1)

2. 3
* 반여지구 주거 개선 사업 건축 허가 전체의 4% 신청 등 부진(부산 2. 3)
* 시 탈루 은닉 세원 발굴 강화, 올 446억원 추징키로(부산 2. 3)
* 녹지공원 관리 인력 및 예산 부족(부산 2. 3)

2. 6
* 염색·피혁 등 공해 5종 업종 이전, 집단화 추진(부산 2. 6)
* 공동 어시장 지도 감독권 마찰 증폭, 시의회·어시장·수산청 입장 달라(부산 2. 6)
* 부산시 대대적 꽃 증산 나서 4계절 꽃피는 도시로 만들기로(부산 2. 6)
* 분뇨처리 수수료 리터당 1원 징수 조례와 오수·분뇨 법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부산 2. 6)

2. 7
* 부산시, 분야별 계획수립, 민자유치 추진, 재개발 좌천3동·범일5동(국제 2. 7)
* 담배 소비세 배정 "쥐꼬리", 시세명목 고작 3%, 자치화 역행(국제 2. 7)
* 부산시, 92년「관광위상 정립의 해」설정, 관광협회 각종 진흥사업 추진(국제 2. 7)
* 부산시,「순회예술제」개최, 부산자랑 10가지 백일장·미술대회(국제 2. 7)
* 부산시, 교통부담금 상습체납 강제징수(국제 2. 7)
* 부산시,「개발이익 부담금」137억 부과(국제 2. 7)
* 자가용이 교통체증 주요인, 부산 작년 46% 증가(국제 2. 7)
* 91년 11월에 착공된 부암 18호 광장 고가도로 건설이 미군과의 협상 차질로 연장 불가피(부산 2. 7)
* 교통유발금 상습 체납 대상 4월부터 부동산 압류 등 9월까지 징수키로(부산 2. 7)

2. 8
* 부산시, 사유시설 재해대책 개선, 내무부 건의(국제 2. 8)
* 7월 매립완료 석대 쓰레기장에 "농산물 유통단지 유치"(국제 2. 8)
* 부산 부도사태 올해도 여전, 전국 평균 계속 웃돌아(부산 2. 8)
* 부산시 고지대 및 변두리 지역 주민 교통편의 위해 마을버스 4개노선 연장 운행(부산 2. 8)
* 부산시, 풍수해법 개정 건의, 국고·지방비 각 25% 지원키로(부산 2. 8)
* 어업 면허 갱신 조건 각서가 2천여 어민의 반발로 말썽(부산 2. 8)

2. 10
* 부산시, 인사(국제 2. 10)
* 부산시, 불합리 업무 109건을 정비, 3월부터 일 분장키로(부산 2. 10)
* 부산시, 92년도 소년가장 지원 사업비를 1억3천7백70만원으로 최종확정하고 1/4분기 국고 및 시비 보조금 4천1백73만5천원을 각 구에 배정(시보 2. 21)
* 駐車管理公團 발족(직할30년 2. 10)

2. 11
* 온천천「하상도로」건설 청원(국제 2. 11)
* 산림청, 새 시행령에 각 시도반발, 산림훼손 대체 조림비 등 중앙 회수(국제 2. 11)
* 전년보다 소득세가 42%, 법인세가 33% 증가, 국세 총 3조 징수(부산 2. 11)
* 광복로 문화공간 명성 되찾기 위해 각종 시설 정비 유도(부산 2. 11)
* 동래구, 동래문화회 발족(부산 2. 11)
* 부산체신청, 올해 안 우체국 15곳 신설 예정(부산 2. 11)
* 상수도 사업 입찰, 특정 업체의 결탁으로 형식적 공개입찰 파행(부산 2. 11)
* 제2도시고속도로 일부구간 올해 안 조기 개통 예정(부산 2. 11)
* 특별관리 대상 토지 과다 보유자 땅 조정(부산 2. 11)
* 부산시, 관내문화재의 동절기 화재 등 재해피해 및 도난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를 각별히 지시하고 철저히 이행키로(시보 2. 21)

2. 12
* 전국 6대 도시 집값, 전세값 부산 하락폭 최대(부산 2. 11)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10 중공업 일변도 지양. 국제화로 계기(부산 2. 12)
* 시립 합창단 연주 실태 창작곡 없는 등 문제점(부산 2. 12)
* 반여 장산 체육공원 편의 시설 미비로 유명무실(부산 2. 12)
* 부산 등 7개 광역의회 첫 합동 간담회 지역 현안 공동 해결 모색(부산 2. 12)
* 부산에 정신대 위령비 중앙공원·제2부두에 설치 추진(부산 2. 12)
* 부산 위생 연고권·시 의회 공동 입찰 맞서 분뇨 해양 투기 사업 차질(부산 2. 12)
* 고교 학군제 지역 넓고, 학교 간 격차 심화로 인해 조정 시급(부산 2. 12)
* 승용차·좌석 버스 이용 늘어나, 승객교통량 조사 분석…만성체증기피로(시보 2. 12)

* 춤과 화음의 전령, 무용단…정월대보름지신밟기, 교향악단…새봄맞이 음악회 열어(시보 2. 21)
* 부산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 마련 위해 오는 7월부터 12개 자치구에 교통특별회계를 설치키로(시보 2. 12)
* 풍수해 복구비 부담 개정 건의, 내무부에 지원 방안 마련(시보 2. 12)
* 공명선거 대책 등 3대 과제 역점, 2월 중 중점시정에 행정력 집중(시보 2. 12)
* 부산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활성화하기로(시보 2. 12)
* 부산시,「공직자 365일 친절운동」, 13억 투자, 민원실 개선…은행 수준으로(시보 2. 12)
* 부산시인사, 지방3급(시보 2. 12)
* 부산시 주요 사업 계획 진단, 황령산터널건설(시보 2. 12)
*「취업정보센터」운영활성화, 각 구에 전용전화 설치 일터 찾아주기로(시보 2. 12)
* 주차장관리 세부규정 마련, 부산시는 주차장 관리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명분화해서 시행키로(시보 2. 12)
* 도시고속도로 재정비 부산시 도시고속도로사업소, 부산시 도시고속도로사업소은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날로 늘어나 교통체증이 가중됨에 따라 올해 13억4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망미 절개지 복구공사 등 5개 주요사업을 벌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함께 통행차량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시보 2. 12)
*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강력추진, 매주목요일「재활용품 수집의 날」(시보 2. 12)
* 타시도 차적 위반차량 과태료 체납강력징수(시보 2. 12)
* 구포대교건설 자문회의개최, 서부경남과 강서지역 김해공항 교통량 수용하기 위해 건설되는 구포대교 양쪽에 구포와 대저인터체인지건설이 검토(시보 2. 12)
* 부산시는 12일 생활보호 대상자에 정부수매마늘을 무상으로 지원(시보 2. 12)

2. 13
* 부산 올 수출 목표 78억불, 전국목표액의 9.6%(국제 2. 13)
* 불법주차 단속 “들쭉날쭉”, 단속체계가 경찰과 일선구청으로 이원화(국제 2. 13)
* 탈의장 봉사단체서 운영, 3개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등 근절위해(국제 2. 13)
* 부산시 작년 비 6% 수출 늘어. 수출 목표 70억불로 지정(부산 2. 13)
*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 적발 땐 등록증 회수・번호표 영치(부산 2. 13)
* 해운대 탈의장 고질적 바가지 해결 위해 공익단체에 맡기기로(부산 2. 13)
* 부산 하루 평균 2건 꼴 차량 방화 발생, 전 지역으로 확대(부산 2. 13)
* 부산시, 올해 영세민 직업훈련 지원계획을 밝혔다(시보 2. 21)

2. 14
* 부산시, 연 8만6천명 취로사업 동원(국제 2. 14)
* 부산시, 주택건설업 일제조사(국제 2. 14)
* 부산시, 선거편승 불법건축 등 집중단속 나서(국제 2. 14)
* 부산시, 구청에서 입지심의 했는데도 승인보류 물의, 철도청 주택조합원 반발(국제 2. 14)
* 부산시, 13억4천만원 투입하여 영세민 직업훈련 지원(부산 2. 14)
* 장림 효림국교에서 좁은 길로 작은 차량 사고가 일자 호소하는 편지 무더기로 보내(부산 2. 14)
* 부산지검 청사, 97년 목표로 신축, 현 부지 건설 유력(부산 2. 14)
* 부산시,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 등 민관 공동 출자 사업 본격 추진(부산 2. 14)
* 각종불법행위 강력 대처, 선거분위기 틈탄 녹지훼손・불법건축 등(시보 2. 21)
* 부산시, 인사(시보 2. 21)
* 부산지역 50여개 시민단체「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부산협의회」결성하고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부정선거 감시활동 시작(민주운동 2. 14)

2. 15
* 부산시의회 17일 임시회(국제 2. 15)
* 마을버스 지하철역 연장운행, 시에서 반대 “주민편의 무시” 반발(국제 2. 15)
* 가락 위탁영농육성 빈말…정부지원 전무(국제 2. 15)
* 신시가지계획 확대를, 해운대 좌동・중동 군사보호지 주민호소(국제 2. 15)
* 53개 시민 단체에서 공명선거 운동협 출범으로 부정 감시 나서(부산 2. 15)
* 부산 기업의 북한 진출이 값싼 노동력을 매력으로 인기, 투자 구체화(부산 2. 15)
* 차량 등록 사무소 세울 곳 없다, 이용객 불편에 따른 이전 시급(부산 2. 15)
* 부산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CI이론 도입, 안내 책자 제작・배부(부산 2. 15)

* 국교 교과전담제 예산부족으로 인한 교사 충원 미흡으로 원활하지 않아(부산 2. 15)
* 부산지역의 노동자 및 민주인사 500여명 '박창수 추모사업회 발기인대회' 개최(민주운동 2. 15)

2. 16
* 시내버스요금인상 구 승차원 3월말 사용, 부산지역 시내버스 요금과 좌석버스 요금이 2월 16일부터 최고 25%와 6.4% 각각 인상(시보 2. 21)

2. 17
* 1/4분기 무더기 공급예상 벗어나,「아파트예산」많지 않다(국제 2. 17)
* <부산성 사람들>, <환향녀> 등 창작 오페라 무대 활기(부산 2. 17)
* 절개지 옹벽이 붕괴로 인한 재해 위험 높아(부산 2. 17)
* 부산시의회 임시 본회의 개회, 4일간 회계 일정 돌입(부산 2. 17)
* 부산시의회, 분뇨해양투기 경쟁 입찰 촉구, 특혜단정…9개 조례 개정안도 처리(시보 2. 21)

2. 18
* 북구청, 정화조 처리업체 신규 제한(국제 2. 18)
* 폐차방치에 벌칙강화, 올 7월 시행, 차주는 1년이하 징역(국제 2. 18)
* 부산시, 공영주차장 14곳 건설, 건설사업비 66억9천6백만원을 각 구에 배정(국제 2. 18)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고속버스터미널에 가정상담소 설치, 운영(국제 2. 18)
* 도로 확장 하며 특정구간 제외・방치 하여 교통사고 위험 곳곳(부산 2. 18)
* 제2도시고속도로～우암 고가도 연결(부산 2. 18)
* 부산시장, 공명선거 캠페인 벌여, 서면로터리에서 개최된 공명선거 및 10% 소비절약 캠페인에 참석한 뒤 행사자들 격려(시보 2. 21)
* 부산시,「가정상담소」확대 운영, 가출부녀자와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가정상담소 활동을 강화(시보 2. 21)
* 화명지구 택지개발 승인(시보 2. 21)

2. 19
* 무자료 주류 사용 유흥업소, 구청서 처벌 늦장(국제 2. 19)
* 부산시 올해 4만2천세대 주택건설 분기별 쿼터제(국제 2. 19)
* 청소년 육성 10개년 계획 확정, 수련관 12곳 건립 등 37건의 사업추진에 1천65억 연차로 투입(국제 2.19)
* 항만 배후도로 일부 개통, 3단계 용당～동국제강 2.4km 구간(국제 2. 19)
* 부산 시장「주민과의 대화」, 동구청 방문(국제 2. 19)
* 화명 택지 조성 승인, 시 4천8백세대 아파트 건립키로(부산 2. 19)
* 부산시, 택지개발 땅장사 급급, 금곡・해운대 신시가지 준공 말썽(부산 2. 19)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11 환동해권 도시 간 협력 발전 모색(부산 2. 19)
* 출생기념 통장제 30%가 사용 않고 사장되어 실효성이 미미(부산 2. 19)
* 교통 유발부담금 부담에 재래시장 상인들 반발(부산 2. 19)
* 부산시, 청소년 육성 10개년 계획 수립, 연내 착수(부산 2. 19)
* 부산 시장, 19일 오후 3시부터 공군제5전투 비행단영내에서 개최된 공군수송단 걸프전 참전비 제막식에서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장병들 격려(시보 2. 21)

2. 20
* 분별없는「철부지 구청」의회의 "상위 사무실 내놔라"에 고분고분(국제 2. 20)
* 용도지역 지정 재조명 시급, 공단에도「주거」많아 무허가 공장 양산, 발전저해 부작용 심각(국제 2. 20)
* 부산 슬럼지역 17곳 기반시설 확대. 200억 투입해서 진입・소방로 확보키로(부산 2. 20)
* 시립 예술단 단원모집 오디션 열려(부산 2. 20)
* 초중등 신축공사 지연으로 인한 수업 차질 우려(부산 2. 19)
* 부산항 3단계 배후도로 1공구 신선대 구간 개통(부산 2. 20)
* 부산시, 산불 관리 체계 허술, 같은 장소에서 산불 계속 발생(부산 2. 20)
* 부산시, 추천 여행사 통해 미국 비자 발급 가능(부산 2. 20)
* 부산시의회「시립학교 설치에 관한 조례개정안」통과 토성중, 초량중, 수정여중, 은하여중 → 경남중, 부산중, 경남여중, 부산여중 교명 회복(부산교육 2. 20)
*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산하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5대 도시 시내버스노조, 임금인상안 관철을 위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94.1%의 찬성을 얻어 28일부터 전면파업하기로 결의(민주운동 2. 20)

2. 21
* 대형 수도관 연약지반 이설, 직경 2천mm 하나로 묶어 낙동로에 매설, 차 통행량 많아 사고 우려(국제 2. 21)
* 부산시,「탁상 2백만호 건축」, 계획 물량까지 실적에 포함, 실제 공급량은 30%(국제 2. 21)
* 부산시 하수업무 계획 전산화 추진 등 재정비 들어가(부산 2. 21)

* 지하철・시내버스 환승제 이용객 0.06%에 불과, 유명무실(부산 2. 21)
* 노상방치 차량에 철퇴, 벌치규정 신설 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부과(시보 2. 21)
* 부산시 관계 자료 발굴『시사자료 제1집』발간, 1945~50년 사이 법령 등 102건을 수록(시보 2. 21)
* 공영주차장 14곳 신설, 괴정천 등 1천7백대 수용 6억원 지원(시보 2. 21)
*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차 밀집지역서 합동으로(시보 2. 21)
* 임야 27ha에 4만여본 나무심어, 부산시는 올 한해 동안 2억3천7백55만4천원의 예산을 들여 해송 등 3만7천8백그루의 나무를 27ha의 임야에 심기로(시보 2. 21)
* 순회 시민예술제 개최, 오륙도・태종대 등 5곳서 미술대회, 동래야류・자갈치 등 5주제 백일장(시보 2. 21)
* 신 국제공항관광단지유치, 부산시가 21세기 국제화 도시의 축이 될 신 부산 건설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가덕도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윤곽이 드러났다(시보 2. 21)
* 시장동정, 92년도 적십자회비로 금일봉 전달(시보 2. 21)
* 청소년 수련 시설 37곳 확충, 시 육성 10개년 계획 확정(시보 2. 21)
* 쓰레기 감량 운동 전개, 장려금 등 지금 30%까지 줄이기로(시보 2. 21)
* 제1회 부산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부산교육 2. 21)

2. 22
* 부산시, 1백2개 주요 수입상품의 수입가격 표시 실태조사 착수(국제 2. 22)
* 부산시 주차관리 공단,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및 견인료를 강제 납부하는 제도채택, 물의를 빚어(국제 2. 22)
* 수심 얕아 분뇨선・운항 차질, 장자~사자도 항로 3곳 부적합 판정(국제 2. 22)
* 부산 시장, 광안리 해변도로 확장공사에 12억 지원 방침(국제 2. 22)
* 부산시, 28일 시내버스 파업 대비, 수송대책 마련하기로(국제 2. 22)
* 부산 공모선 남미 수역 첫 진출, 내달 조업 선상 가공(부산 2. 22)
* 서부산 낙동강변 주거단지 초대형 아파트 건립 붐(부산 2. 22)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12 다기능 항 개발 전근대 탈피(부산 2. 22)
* 일선 보건소, 의료진과 시설 부족으로 있으나 마나(부산 2. 22)
* 광안리 해변로 확장 공사 예산 태부족으로 공기 늦어져 차질 빚어(부산 2. 22)
* 부산 구급차 불응률 전국 최저 기록(부산 2. 22)

2. 23
* 부산연합, 부산대 학생회관에서 노동자 학생 등 1,500여명 참석한 가운데 '민자당 심판과 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민주운동 2. 23)

2. 24
* 선심 "홍정" 총선 "망청", 부산, 여야 선거전 불법난무, 갈수록 혼탁(국제 2. 24)
* 부산 경제력 전국비중 16%에서 7%로 급락(부산 2. 24)
* 부산시, 아파트 사업 승인권, 시・구청에서 환수하기로(부산 2. 24)
* 자동차 관련 업소 수질오염 전체 폐수 배출량의 50%로 앞장서(부산 2. 24)
* 부산시 행정 조직 무분별 확대 기구 방만・업무 저해(부산 2. 24)
* 강서 공공개발 주민들 편입지 보상가 현실화 및 이주단지 우선 조성 요구로 인해 반발(부산 2. 24)
* 경상・동래・부상 부산시 종별축구 공동 선두(부산 2. 24)
* 시장동정, 소녀가장에 금일봉전달 격려(시보 3. 3)
* 부산을 동남권 축으로 개발, 만덕・낙동로・북구 버스전용차선제 검토(시보 3. 11)
* 92학년도 초・중등 교사 공개 전형 합격자 연수(~2. 29)(부산교육 2. 24)

2. 25
* 초등임용 적체 심화, 부산 경남 초등중 7천여명 인사이동(국제 2. 25)
* 부산시, 승객・교통량 조사 "숫자놀음"(국제 2. 25)
* 부산시의 설문조사 결과, "하수처리장 혐오시설 아니다" 72%, 55%가 집부근 건설 무관하다 반응(국제 2. 25)
* 시 안일・회사 무성의가 빚은 농성(부산 2. 25)
* 하수처리장 집 부근 설치 반대(부산 2. 25)
* 지사 과학 단지 산업・연구부지 208만㎡으로 확대(부산 2. 25)
* 부산역 민자 조성 백지화 검토, 철도청 직영으로 사업 추진(부산 2. 25)
* 시. 골재조합 부두 신청 비호 의혹, 해양청에 조속 확보 요청(부산 2. 25)
* 인공섬 매립면허 승인, 내년 상반기 착공(부산 2. 25)
* 부산시, 인사(시보 3. 3)

2. 26 * 부산시, 인사(국제 2. 26)
* 부산시, 합천댐 물 「원수」 사용 결정(국제 2. 26)
* 부산 중심 광역협력권 형성 시급, 지방 주도로 국제화 추진해야(부산 2. 26)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13 천진·북경 외곽 탈피, 경국뉴욕 야심(부산 2. 26)
* 서비스료 인상 단속. 위반업체 세무조사 방침(부산 2. 26)
* 부산시 공영 주차장 건립 난항, 용도지역 변경 등 걸림돌 많아(부산 2. 26)

2. 27 * 연탄생산업체 불법영업, 공장 6곳의 현지점검 결과, 비산먼지 배출 초과(국제 2. 27)
* 체육공원 조성 후 관리 보수 예산 미확보. 형식적 점검 등 나몰라라(부산 2. 27)
* '시내버스 세워서는 안 된다' 시민 전면 파업 하루 앞두고 호소(부산 2. 27)
* 구청장들 선거운동 의혹(부산 2. 27)
* 지방세 징수 호조, 올해 1월말 92.4%(시보 3. 3)
* 동아대 이태일 총장 취임(부산교육 2. 27)

2. 28 * 부산시, 예산절감을 이유로 체육·공연시설 관리 민간에 위탁, 시청노조 강력반발(국제 2. 28)
* 부산시, 신발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5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신발산업 합리화업종의 등록을 받기로 했다(국제 2. 28)
* 부산~김해 전철 추진, 서부경남 개발 추진 위한 포석 마련(부산 2. 28)
* 해운대 재송동 일부 남구 편입키로. 주민 불편 덜어줘(부산 2. 28)
* 화목주택 아파트 불법 분양 물의(부산 2. 28)
* 시내버스 파업 벼랑서 파행 운행, 출근길 대 혼란(부산 2. 28)
*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양태식이사장과 부산시내 버스노조 김주익지부장 등 노사대표 6명, 임금 13만 3,000원(19.6%) 인상안에 합의하고 합의서 교환(민주운동 2. 28)

2. 29 * 퇴근길 최악의 대혼잡, 버스운행 중단날 택시 부제해제 등의 여파(국제 2. 28)
* 노선버스 전용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빙판길에서 전복되어 승객이 사망했을 경우, 시도 40%책임(국제 2. 29)
* 부산시, 건축자재 집·배송 단지 건설. 엄궁동 9천여평에 건립키로(부산 2. 29)
* 부산 현안 4대장 정부지원 절실, 수년째 표류 중. 해결 아득해(부산 2. 29)
* 낙동강오염규제 광역 체계 구축(시보 3. 3)
* 부산직할시립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2899호)(부산교육 3. 1)
* 부산공선협, 부산 YMCA 강당에서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청년 학생 자원봉사단」 발대식(민주운동 2. 29)

3. 1 * 초등학교 5개교(모산, 구학, 양덕, 신촌, 성천) 중학교 3개교(초읍중, 덕천여중, 거제여중) 개교(부산교육 3. 1)
* 대학가 학사 제적 부활(부산, 동아, 부산수산, 경성, 부산여대)(부산교육 3. 1)
* 한국해양대와 부산외국어대, 종합대학교로 승격(부산교육 3. 1)
* 동서공대 신설(부산교육 3. 1)

3. 2 * 페리운항(광안리~연안부두) 삐거덕, 행정관청간의 이견(국제 3. 2)
* 부산시 요금인상 불허, 31개 마을버스 집단행동 유보하고 공공요금 심의위 결과 기다려(국제 3. 2)
* 부산시, 동천정화 본격추진, 폐수 무단방류 세차장 5곳 영업정지(국제 3. 2)
* 부산 최고 땅값은 평당 1억, 중구 광복동 미화당백화점 부지(부산 3. 2)
* 부산항 지도 바꿀 대역사 착공(부산 2. 29)
* 해운 개방 맞아 경쟁력 강화 골몰, 자본력, 서비스 개선 시급(부산 3. 2)
* 부산에 각국 경제협력 밀물, 투자·교류 요청 쇄도(부산 3. 2)
* 미제 관제기 설치 인력 절감 안 되고, 과소비 지적(부산 3. 2)
* 불법 접객업소 각종 혜택으로 취지 퇴색, 지정 남발(부산 3. 2)
* 부산 내 4개 대학인 부산·동아·수산·해양대 본고사 부활(부산 3. 2)

3. 3 * 부산시, 관리감독 소홀, 냉동화주 실명제 부진(국제 3. 3)
* 신 주거단지 교통·공해대책 절실(국제 3. 3)
* 부산시내 시내버스 업주들, 노조측과 타결한 임금 19.6%인상 일방적 거부(국제 3. 3)
* 부산·경남 각각 선심 행정 남발(부산 3. 3)
* 10돌 부산 연극제 창작극 산실 정착. 9개 극단 참여로 축하행사 다채(부산 3. 3)
* 자치구 뉴스 부산 중구, 상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급선무 등 3건(부산 3. 3)

* 한 울타리에 2개 행정구를 가진 영주동 초원 아파트 주민들 불편 호소(부산 3. 3)
* 충혼 기리고 후세의 교육장으로 이용될 가덕도 국군 22용사 묘지 새롭게 단장(부산 3. 3)
* 시내버스 임금 인상률 수용 부산시 거부로 인해 노사 한 차례 더 충돌 예상(부산 3. 3)
* 올해 교통・용지난 해결 원년, 무의탁 노인과 소년 가장 결연 추진(시보 3. 3)
* 주거환경개선에 2백억원 투입, 17개지구 소방도로・하수도・경로당 건립 등(시보 3. 3)
* 인공섬 내년 하반기 착공, 부산해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인공섬 공유수면매립이 25일 승인(시보 3. 3)
* 수영・볼링장 등 체육관 시설 점검, 부산시는 체육시설업 지도점검 계획을 각 구에 시달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체육시설업으로 육성 발전키로(시보 3. 3)
* 부산시 주요 사업 계획 진단, 3월 착공…이면도로 활용, 옛 조방일대 심한 악취 해결(시보 3. 3)
* 가덕도 개발 기본 계획안 공모 9개 업체 응모신청,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한 가덕도 개발 기본계획안 현상공모에 대한 응모신청을 접수한 결과 9개 업체응모・신청(시보 3. 3)
* 부랑인 특별선도 구걸행위 등 단속, 부산시는 번화가 및 대중 집합소 등에서 구걸행위를 하고 있는 부랑인에 대한 특별선도 대책 마련(시보 3. 3)
* 부산시, 씀씀이 절약운동 확산가정과 직장 등에서 씀씀이 10%절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이 운동이 점차 확산(시보 3. 3)
* 부산시, 3월 중 시정역점 시책으로 제14대 총선대비철저, 지역 경제사회안정 능동대처, 새봄맞이 도시 관리 철저 등 3개 분야로 정하고 철저히 이행키로(시보 3. 3)
* 항만배후도로 연결램프건설, 부산 제2도시고속도로와 항만배후도로 연결구간에 대한 공사비 부담 등을 부산시와 항만청, 교통공단 간에 건설형상이 타결돼 공사가 큰 진전(시보 3. 3)
* 주한영국대사내부 김시장을 예방 환담, 김영환 부산시장은 3일 오전 접견실에서 주한 영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시보 3. 21)

3. 4
* 자가용 27% 불법주차, 61만㎡의 전체도로 중 3% 잠식(국제 3. 4)
* 부산에 양궁・역도・태권도 등 5개 종목 실업팀 생겨(부산 3. 4)
* 부산시 사자료 1집 발간, 광복이후 50년말까지 각종 시사 자료 엮어(부산 3. 4)
* 회동 수원지 오수 펌프 설치 백지화로 인한 식수원 오염 우려(부산 3. 4)
* 자가용 주차지 부족 가속되어 도로・공터 등에 무단 주차(부산 3. 4)
* 해운대 신시가지 총 6,500억원 보상, 시가 못 미쳐 주민 집단 반발 소지(부산 3. 4)
* 대기오염 측정기 고장 난 채 방치되어 측정 신빙성 의문(부산 3. 4)

3. 5
* 부산시, 5년만에 아파트 미분양, 「주택 경기」 불황 조짐(국제 3. 5)
* 구포대교 접속로 공사차질(국제 3. 5)
* 부산시, 「주거 환경 개설」 축소, “조령모개심 행정”이라 비난(국제 3. 5)
* 장림 도금 단지 39개사 입주로 본격 가동(부산 3. 5)
* 부산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162지구 계획 수정. 주민 반발로 61곳은 보류(부산 3. 5)
* 부산 체육 사업단 5월께 1구 1개 실업팀 육성을 목표로 발촉(부산 3. 5)
* 부산역 풍물거리 상인 입주 기피로 제구실 못해(부산 3. 5)
* 대저동에 대형 공업용수 정수장 147억 투입으로 95년 완공 목표(부산 3. 5)
* 공동 폐수 처리장가동, 신평 장림공단 내 도금조합 공동폐수처리장 준공식이 5일 오후 3시 도금조합 회의실에서 김영환 부산시장을 비롯 한봉수 상공부장관 재부기관장 조합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시보 3. 11)
* 「부산직할시립도서관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2910호)(부산교육 3. 5)

3. 6
* 민간 청소 대행업체 “횡포”(국제 3. 6)
* 공항로 확・포장 공사 안전시설 설치 전무, 대형 교통사고 위험(부산 3. 6)
* 시립도서관 대연동 5천석・대저동 4백석 규모로 세 곳 신설 건립 예정(부산 3. 6)
* 부산대에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범민중진영 단일후보 추대를 위한 부산지역 학생선거 투쟁 연합 및 민중후보 추대를 위한 청년학생 결의대회’ 개최(민주운동 3. 6)

3. 7
* 부산 강서구 천가동 주민들, 지역 발전을 위해 화장장 등 유치 자청, 「님비신드롬」 시대 이색건의(국제 3. 7)
* 직업훈련 별 효과 없다(국제 3. 7)
*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이 동백섬 완전 개방에 따른 보완시설 마련에 신경전을 벌여 개방일정 차질우려(국제 3. 7)

* 선관위 단속 실적 미흡, 부산은 불법 난무속에 지난달 9건뿐(국제 3. 7)
* 해운대 신시가 4월 착공, 토지보상비 6천2백억 책정(국제 3. 7)
* 가덕도에 화장·쓰레기장 유치. 주민대표 연육교 조기가설 조건으로 내걸어(부산 3. 7)
* 부산항 체선율 '0' 수출부진 물동량 격감(부산 3. 7)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15 문화권 단일화 '세계주도' 야망(부산 3. 7)
* 부산 노동자 한마당 열려, 탁아소 확보·고용안정 요구 대회도 열려(부산 3. 7)
* 군 작전지 통제완화 겉돌라, 공원·유원지 전면개방 늦어져(부산 3. 7)
* 중기 재정 서낙동강권 개발 포함. 심사위 설치 투자 순위 등 결정(부산 3. 7)
*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 시 공명선거 대처(시보 3. 11)
* 부산연합 부산여대에서 '민자당 심판과 민주국회 쟁취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민주운동 3. 7)

3. 9
* 부산시, 교통 안전시설 등 정비(국제 3. 9)
* 부산본부세관, 부산해운항만청, 수입품 체화에 골머리 앓아(국제 3. 9)
* 부산시, 「10부제」 운행 의무화 검토,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국제 3. 9)
* 부산지역 예식장 주차시설 태부족, 도심 교통체증 불러(부산 3. 9)
* 지사 첨단 과학 단지 편입 주민 이주 대책 요구(부산 3. 9)
* 부산시 종합 건설 본부, 토지 등 수용보상 실시, 신시가지 건설…협의기간정해(시보 3. 11)

3. 10
* 총선 홍보 우편물 "홍수", 부산 우체국마다 일손이 달려 비명, 하루 30~40만통 폭주(국제 3. 10)
* 부산시·시체육회 「춘곤증」, 실업팀 해체 방관·우수 선수 연고지 고집 급급, 직할팀 증설 편법, 체전만 중시하고 제변확대는 외면(국제 3. 10)
* 부산시 일방적 인상 지시에 산불감시원 일당 혼선, 구청업무 차질(국제 3. 10)
* 부산시, 체납차량 적발처리(국제 3. 10)
* 부산시, 인공섬 기본설계 공모(국제 3. 10)
* 공산물 집·배송, 종합 수산물 가공단지 부산 상의 현안 해결 주력(부산 3. 10)
* 해운대 신시가지 3차 분양도 신청업체 없어 미분양, 분양에 난항 겪어(부산 3. 10)
* '도심 속의 오지' 안창마을 전기 공급 부실과 각종 민원으로 '행정 사각지대'(부산 3. 10)
* 자치구 뉴스 부산 동구, 대형 빌딩 밀집으로 인한 주차 대책 시급 등 3개 소식(부산 3. 10)
* 산불 감시원 노임, 일부 구청 소급 지급 안해 '들쭉날쭉'(부산 3. 10)
* 영세민 자활교육 성과 높다, 취업·융자 신청자 늘어(부산 3. 10)
* 인공섬 예산확보 안 돼 외상 용역 업체 기피로 인한 부실 설계 우려(부산 3. 10)
*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 주도한 대형음식점 등 무더기 적발(부산 3. 10)
* 남녀공학 공고 94년도 개교 예정(부산 3. 10)
* 부산시, 21세기 환태평양 시대 주역 나선다, 부산에 자유무역지대 설치(부산 3. 10)
* 아파트의무조경 실태조사, 대규모 공동주택도(시보 3. 3)
* 인공섬 「해안도로」 용역보고, 해상신도시 해안구간도심과 외곽순환도로 기본설계자문회의가 3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곽만섭 부시장을 비롯한 건설관계장, 자문위원, 용역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시보 3. 21)
* 시장동정, 18일 접견실에서 레너드 에드워드 주한 캐나다 대사의 예방 받고 환담(시보 3. 21)

3. 11
* 부산 4.3, 경남 4.5대 1, 14대 총선 등록마감 전국 4.4대 1(국제 3. 11)
* 노상 주차 시간 조정, 상가·유흥가 15곳 연장, 16일 시행(국제 3. 11)
* 해운대 비각 문화재 마땅, 봉수대·달맞이 축제 포함, 그러나 동백섬 개방 때는 훼손의 우려(국제 3. 11)
* 부산시, 해운대구 미포6거리 일대 교통운영 체계를 개선(국제 3. 11)
* 「택지초과 보유세」 부작용 심각, 졸속 시행령에 모순투성이, 비난 확산(국제 3. 11)
* 부산·경남도 본격 지역 현안 공방을 위한 유세전 나서(부산 3. 11)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16 소·동구 몰락... 도약의 새로운 계기로(부산 3. 11)
* '부산현대음악제' 관심 고조, 성악·기악 등 6개 부문 출선(부산 3. 11)
* 시립박물관 조례예고, 무료개방·휴관일 단축(시보 3. 21)
* 영도고지대급수개선, 시 상수도본부 시설 보강으로(시보 3. 11)
* 공명선거완벽수행, 부산시는 3월 정례조례를 갖고 총선에 대비, 공명선거 완벽수행 등 시장역점을 추진키로(시보 3. 11)

* 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단속, 선거틈 탄 무질서행위 강력조치, 점검반 투입…무단 형질 변경 등(시보 3. 11)
* 하도급 거래질서강화, 각종건설 공사 의무이행 점검(시보 3. 11)
* 부산시 주요사업 계획진단, 용호하수처리장 건설, 동천 등 4하천 연결관로 공사(시보 3. 11)
* 주택용지 3차 공급, 해운대 신시가지 9만9천평(시보 3. 11)
* 「썩는 비닐」 보급 운동 펼쳐, 자연 보호 행사 때 적극 권장(시보 3. 11)
* 새봄맞이대청소, 부산시는 봄철을 맞아 이번 주를 새봄맞이 대청소주간으로 정하이 청소를 실시, 7일에 15만명이 참여(시보 3. 11)

3. 12
* 부산시민 예산혜택 타도시보다 「푸대접」, 1인 담세규모는 전국 2위 예산수혜는 최저규모(국제 3. 12)
* 부산시 교육청 집계, 교복 착용 학교 증가, 중학교 82%, 고등학교 87%(국제 3. 12)
* 부산 수출 주요 품목 크게 줄어 올해 '최악' 기록(부산 3. 12)
* 자치구 뉴스 부산 서구, 주민 40%가 판자촌 생활 등 2개 소식(부산 3. 12)
* 전국 최대 무궁화동산 해운대 올림픽 공원에 조성키로(부산 3. 12)
* 서비스 개선 약속은 헌신짝처럼.... 시내버스료 올라도 버스 횡포 여전(부산 3. 12)
* 한 표 유혹 허튼 공약 홍수, 유권자 불신 조장 우려(부산 3. 12)
* 오염물질 배출 17개 업체 고발, 조업정지 및 개선 명령(부산 3. 12)
* 신발산업 자금 지원 기업의 이율이 높아 기피, 실효 못거둬(부산 3. 12)
* 부산 부시장, 주요사업장확인, 곽만섭부시장은 제2도시고속도로 등 관내 주요 사업장 10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시보 3. 21)

3. 13
* 부산시, 동천정비・거제천 복개 착공, 장마철 하천 범람과 수해예방(국제 3. 13)
* 아파트 미분양 부산 건설업계와 당국 모두 고민(국제 3. 13)
* 부산교통공단, 지하공간 상가로 불법임대, 부산시 묵인아래 5년간 해온 것으로 드러나(국제 3. 13)
* 부산 시장 느닷없이 사회복지 요원에 1인 10만원씩 격려금, 총선겨냥 환심용 의혹(부산 3. 13)
* 부산시, 96년까지 13억 들여 교통사고 방지 5개년 계획 세워 시설 확충키로(부산 3. 13)
* 부산지방기상대를 부산지방기상청으로 명칭 변경(부산교육 3. 13)

3. 14
* 주말 전국 348곳 유세 대회전, 부산・경남 대세 판가름, 여야는 견제・공방, 무소속 변수기대(국제 3. 14)
* 부산 첫 합동 유세 열기 후끈, 거의 유권자 2~3천명 몰려 관심(국제 3. 14)
* 부산연극제 10주년 기념 세미나 수상에 얽매여 신진 등용 소홀(부산 3. 14)
* 부산시, 국교 교과 전담제 인사 규정 무시와 원로 교사 배치 등으로 '삐걱'(부산 3. 14)
* 공선협 인력부족・제약 많아 손발 묶여 악전고투(부산 3. 14)

3. 16
* 남항 항내관리 무허가 부선 난폭 운항에 사고 빈발 등 관리 엉망(부산 3. 16)
* 부산 공선협 '공명선거 결의의 날' 기념식 가져 투표유도, 부정 척결 다짐(부산 3. 16)
* 태창기업・태광기업・평화유지 등 65곳의 유명기업이 대기 오염 주범으로 밝혀져(부산 3. 16)
* 문예 진흥활동 지원 사업 확정, 92년도 부산시 문예 진흥활동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자가 결정(시보 4. 1)
* 인공섬 외곽 방파제 기본설계 자문회의, 부산시는 인공섬 건설의 1차공사가 될 외곽 방파제 기본설계에 앞서 각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시보 3. 21)
* 푸른 부산 가꾸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대책마련(시보 5. 1)
* 노동부는 산업평화대책위원회(위원장 : 정동우 노동부 차관)를 개최하여, "금년 총액을 기준으로 한 임금교섭…" 표명(민주운동 3. 16)

3. 17
* 총선 공무원 「독려 출장」 잦다, 경상남도는 하루 30%씩 윤번제로(국제 3. 17)
* 철도청, 열차 통근 시민 늘었다(국제 3. 17)
* 부산시, 외화내빈 부서 늘리기, 자리만들기 급급 실무인력 충원 외면(국제 3. 17)
* 부산 시향, 서울교향악 축제 연주, 수준 향상 불구 파트 간 균형 흔들려(부산 3. 13)
* 자치구 뉴스 부산진구, 교통난 최악, 도로확충 급선무 등(부산 3. 17)
* 마리나 아파트 단지, 학교 지을 땅이 없어 입주 국교생 2km 등교(부산 3. 17)
* 오염물질 자가 측정제도가 대형업체 사업주에 정확한 통보 안 해 겉돌아(부산 3. 17)
* 부산시, 일본인 명의의 땅 2만7천여평 국유지화(부산 3. 17)
* 부산시, 인공섬 방파제 4.3km로 축조. 선박 안전 운항 도모(부산 3. 17)

3. 18 * 부산항 부두야적장, 부산역 뒤 만3천평 부지 활용하여 늘어나(부산 3. 18)
* 하단・다대・신평동 아파트 늘어 인구 급증으로 인한 분동 시급(부산 3. 18)
* 부산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법정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직원 5백51명을 지난 18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배치키로(시보 3. 21)

3. 19 * 부산시 문예진흥기금 사업 확정 지원금 줄고 배정 획일적, 전년에 비해 금액 12%감소(국제 3. 19)
*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효, 운행 경쟁 지나쳐, 업자・운전기사 반발, 이용시민만 골탕(국제 3. 19)
* 부산시, 노상적치물 정비계획 마련(국제 3. 19)
* 무단증축 등 준공검사 위법건축사 24곳 적발, 행정조치 취해(국제 3. 19)
* 자치구 뉴스 부산 동래구, 둔치도 이전 법규 미비로 지연 등 3개 소식(부산 3. 19)
* 충렬로 확장 공사 일부구간만 마무리 하고 2년째 방치(부산 3. 19)
* 부암 고가도 건설 주민 지하차로 건설 요구로 착공 차질(부산 3. 19)
* 올 임금교섭 난항 예상.... 노사 이견 첨예(부산 3. 19)

3. 20 * 부산시, 아파트 사전분양 34%, 주택 1채 이상씩 보유, 투기자들에게 아파트 재당첨 제한조치 의뢰(국제 3. 20)
* 선거동원 구・동 업무마비, 직원 절반 이상 자리비워 시민 큰 불편(국제 3. 20)
* 연극 2편 화제 가마골 <꼭두>, 자유혼 <나는 나>(부산 3. 20)
* 하단~신평 새 동네, 지하철 공사로 8개월째 일방통행 실시로 인한 주민 불편(부산 3. 20)
* 광안리 일대 의류점・화랑 늘고 유흥업소 줄어(부산 3. 20)
* 택시・화물차 불법운행, 장비와 일손 부족으로 인한 단속 한계(부산 3. 20)
* 부산시, 산림법 개정에 따른 산지 전용 부담금 너무 많아(부산 3. 20)
* 검경, 선거사범 불법 행위에 팔짱만 낀 채 수사 '어물쩍'(부산 3. 20)
* 용두산 미술전시관 개관(부산교육 3. 20)

3. 21 *「재활용품 수집」 실적 저조, 홍보부족과 무관심으로 확대방안이 비틀(국제 3. 21)
*「수비」 19만평 부산시 위임, 국방부 관리권 이전, 건축규제 등 완화(국제 3. 21)
* 수신고 실적 올리기 제1 투신 등 직원에 할당량 부과 캠페인 등 경쟁(부산 3. 21)
* 부산 의류 업계 대할인 공세에 지역점 위기 상황으로 인한 비상(부산 3. 21)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17 GNP 7조달러 세계 최대 시장(부산 3. 21)
* 부산 소설가 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여름소설학교 10년' 문집 발간(부산 3. 21)
* 취학아동 해마다 큰 폭 감소, 변두리 인구 밀집 지역은 반대로 학생 수 급증으로 양극화(부산 3. 21)
*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급 인력 부족 이유로 6개월 후 통보하여 늑장 지적(부산 3. 21)
* 수비 인근 19만평 재산권 행사, 부산시에 위임관리 통보(부산 3. 21)
* 시립미술관 건립여건 조성, 용두산 미술 전시관 개관, 개관기념 부산 7인「작고작가전」 열어(시보 3. 21)
* 축산문화조사 보고서 나와, 기층문화 등 세 분야서 조사, 소실위기…보존 대책 시급해(시보 3. 21)
* 미 진학 청소년 기술교육, 1차 60명 사설학원에 위탁…자활고취(시보 3. 21)
* 선거전후 물가대책, 부산시는 국회의원선거를 전후로 2월과 3월에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을 예상해 물가관리대책 마련(시보 3. 11)
* 하수처리장 건설차관 용호수영 등 4백80억, 부산시는 현재 건설 중인 용호 하수처리장 건설 재원으로 세계은행차관 43억원 도입하는데 이어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공사에도 4백35억원 신청(시보 3. 21)
* 자동차세납부, 31일까지 제1기분(시보 3. 21)
* 지역특성에 맞게 노상주차장 이용시간조정, 부산시는 17일 주차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지역특성 맞게 조정키로(시보 3. 21)
*「푸른 부산상」 시상재개, 올해 5월부터, 11월「육림의 날」에(시보 3. 21)
* 매주목요일「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의 날」, 범시민운동으로 자원재활용 정착(시보 3. 21)
*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5개년 계획마련 8백13억 들여 시설손질(시보 3. 21)
* 동전투입기 2대 증설, 시 도시고속도로 운행속도 단축・체증구간확장(시보 3. 21)
* 새봄맞이 가로수정비, 부산시는 새봄을 맞아 훼손화단, 가로수 정비키로(시보 3. 21)
* 재해위험지역 조속정비완료, 해빙기 맞아 언덕・축대 등 붕괴 없도록(시보 3. 21)

3. 23　* 용두산 미술관 제구실 의문, 전문요원 없이 개관, 예산도 태부족(국제 3. 23)
* 부산시 대기 중금속 오염 “중증”, 카드뮴 등이 다량 검출, 대책 마련시급(국제 3. 23)
* 수정동 재개발 사업 자가주택 보유주민 반발로 난항(부산 3. 23)
* 부활 푸른 부산상 예산 적고, 관변인사 위주로 선정 우려(부산 3. 23)
* 중금속 오염 학장·문현동이 최고. 장기간 호흡 때는 인체 치명적(부산 3. 23)

3. 24　* 경찰, 시 전역 일제 검문검색, 폭력사범, 기소중지자 등 1백86명 붙잡아 10명 구속(국제 3. 24)
* 해운대 신시가지「갈팡질팡」, 보상금 산정 등의 잘못으로 착공 지연, 전면 재검토 시급(국제 3. 24)
* 건축 허가 제한 완화,「화재 위험」지정 주민 퇴거때 재건축 가능(국제 3. 24)
* 차분한 민의 행렬, 준엄한 심판, 부산 1,002투표소 공선협 등이 기권방지에 총력, 부산 경남지역 투표소에는 14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국제 3. 24)
* 오늘 총선 투표율 70% 안팎, 25일 새벽 당락 윤곽 판명(부산 3. 24)
* 부산 하루 새 억대만 3건 부도 사태(부산 3. 23)
* 시립예술관 봄 무대 연다, 국악단·무용단·시향 등 각자 무대 선보여(부산 3. 24)
* 자치구 뉴스 부산 사하구, 열악한 도로망 대안 없인 발전 한계 등 3개 소식(부산 3. 24)
* 각종 안내 표지판 국제화 시대에 맞아 한글·영어·한자 표기(부산 3. 24)
* 충장로 확장공사 설계업자 선정 안 되고, 일부 주민 반발로 차질(부산 3. 24)
* 부산 시장, 투표 마치고 남천1동 제3투표구 선거관리 위원장 김영대씨를 비롯한 선거사무종사들 격려(시보 4. 1)
* 봄맞이 자연보호대회, 3월 24일 상오 삼락간이운동장 등(시보 4. 1)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1,002개 등 전국 1만5,18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민주운동 3. 24)
* 박순보 부산연합 공동의장 민주시민후보, 전국 연합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민주운동 3. 24)

3. 25　* 부산 개표 현장, 여 초반 싹쓸이... 접전 없이 싱거운 개표(부산 3. 25)
* 부산시 발주 사업 부실 용역 많아, 전문 용역단 설립 시급(부산 3. 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4대 총선서 민자당이 전국 237개 선거구에서 과반수 의석에 미달하는 116석, 민주당 75석, 국민당 25석, 신정당 1석, 무소속 21석을 각각 차지, 전국구는 62석 중 민자당 33석, 민주당 22석, 국민당 7석을 각각 차지했다고 발표(민주운동 3. 25)

3. 26　* 지하철 대티·신평 구간 도로 공사자재 방치로 “몸살”(국제 3. 26)
* 부산 경기 침체 계속.... 자금 사정·수출 악화(부산 3. 26)
* 작년 지방세 6천9백억원, 94.3%의 징수율 기록(부산 3. 26)
* 강서구, 시 편입 후 되레 손해, 농어촌 발전 특별법 혜택 못 받아(부산 3. 26)
* 지하철 1호선 양산까지 연장 운행 검토, 양산시와 부산시에 건의(부산 3. 26)
* 부산시, 하반기 재원 바닥 추경 긴축 편성, 숙원 사업 차질 불가피(부산 3. 25)
* 차량 10부제 효과 높다, 부산 도심 주행 속도 1.6km 발라져(부산 3. 26)
* 사설 강습소에 대한 조례 개정안 시행(부산교육 3. 26)

3. 27　* 부산시, 상업용 건물 임대 인상폭 조정, 2년 미만 5%, 이상은 8% 제한(국제 3. 27)
* 기능직 공무원 차별 대우, 승진·급여 등 일반직보다 훨씬 뒤져(국제 3. 27)
* 지방세 부과 전산 처리, 부산시, 광학판독 도입(국제 3. 27)
* 오염배출업체「부과금」얌체지연 재산 공매처분 철퇴, 북구 관내 58개사 등 70여개 업체, 8억여원 장기 체납(국제 3. 27)
* 부산시, 주차장 정비지구 확대지정, 주거지역 등 28㎢, 건축규제 완화(국제 3. 27)
*「총선 선심」은 역시 솜사탕, 부산시 지시 공약공사 선거 끝나자 하반기 연기, 조기발주 숙원 사업 올스톱(국제 3. 27)
* 부산 춤꾼들 기량 대폭 향상으로 원정 무대 활발(부산 3. 27)
* 내집 마당 주차 운동 전개, 담장개량 및 융자 기술 자문키로(부산 3. 27)
* ILO 공대위를 중심으로 총액 5% 해당 사업장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기자회견에서 314개 서명노조명단을 발표하고 총액임금제 철회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천명(민주운동 3. 27)

3. 28　* 공유수면 매립 5만평 방치, 선착장·밭 등 무단이용, 국유화 안 돼(국제 3. 28)
* 남포동에 지하 주차장 민자유치 7월 중 착공(국제 3. 28)

* 시유지 건물 무료임대 말썽, 부산 동래구청 시우회 등 8개 관변단체에 혜택(국제 3. 28)
* 투기우려 327지역 특별관리 나서, 부산 24, 경남 45곳 거래 파악(부산 3. 28)
* 부산항 충돌 사고 잦은 지역 선정하여 선박 우측통행 확대(부산 3. 28)
* 엄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자간 이해 다툼으로 인해 표류(부산 3. 28)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18 대미 의존 줄여 아주권 자활 모색(부산 3. 28)
* 2회 부산 화랑 미술제 열려 지역 미술 현주소 조망(부산 3. 28)
* 화물터미널 예정 부지 무허 공해 업체 난립, 노동자들 안전 문제 등도 외면(부산 3. 28)
* 산복도로 불법 주·정차 정비, 버스노선 도로는 한쪽 방향만 주차 허용(부산 3. 28)
* OCR고지제도 도입(부산 3. 28)
* 연산동 일대 관가로 바뀔 것, 시 새청사 부지 일대 지법, 지점 들어설 듯(부산 3. 28)

3. 29 * 동래산성 북문에서 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2 임투 전진대회 및 공투본발대식'을 개최(민주운동 3. 29)

3. 30 * 정부, 부산 식수대책 홀대(국제 3. 30)
* 부산시, 수산행정 인원, 장비 크게 부족(부산 3. 30)
* 남항계류 선박 관리강화, 10개항 개정 조례안 시의회 상정(부산 3. 30)
* 신축 고층아파트 시비 잇따라, 조망, 일조권 등 침해, 인근 주변 학교「분진공해 보상」요구(부산 3. 30)
* 부산시, 재정심사, 결산검사안 실효 의문(부산 3. 30)
* 롯데에 지하상가 특혜의혹, 교통영향 평가 실시않고 개설허가 물의(부산 3. 30)
* '92년 택시임금인상공동투쟁위'는 성도운수(구 제일교통) 노동조합 앞마당에서 '92년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택시노동자 전진대회' 개최(민주운동 3. 30)

3. 31 * 시립 정신요약원 탈선 영업, 일반 환자 위주로 운영, 위탁 대남병원 진료부실 등 부작용(국제 3. 31)
* 폐천 부지에 주차장, 동천 매립 예정지에 설치 계획(국제 3. 31)
* 유통산업 근대화 계획 확정, 부산·창원에 도매시장 확대(부산 3. 31)
* 3월 물가 1.3% 올라, 올 부산 상승률 2.6%, 대구 3.1%(부산 3. 31)
* 자치구 뉴스 부산 남구, 교통체증 구 발전 최대 걸림돌, 차량 주행속도 고작 12km(부산 3. 31)
* 태종도~산업도 접속로 확장, 영도 동삼동 일대 교통난 해소 기대(부산 3. 31)

4. 1 * 지사 주민, "교통난 해결" 주문, 그러나 당국은 첨단 산업 단지를 핑계로 미루기만(국제 4. 1)
* 총선 뒤 공공요금 인상 러쉬, 공수표, 마을버스,「컨」수송료 등 25%까지(국제 4. 1)
* 당국이 엉터리 보건증「증산」, 관리 감독 형식적, 병원 지정도 "아리송"(국제 4. 1)
* 부산시립미술관 관 편의치중 적지 관심 밖, 교통 불편한 문화회관 옆 당곡공원 예정(국제 4. 1)
* 해운대 올림픽 공원 크게 훼손, 관리소홀과 체계 이원화 문제(국제 4. 1)
* 부산항 발전 협의회 출범, 항만·수산계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부산 4. 1)
* 부산을 정보문화 도시로, 한국 통신 등 관련 단체들 교육에 심혈(부산 4. 1)
* 우장춘박사 4월 문화 인물 선정(부산 4. 1)
* 마을버스 등 요금 인상(부산 3. 31)
* 부산, 교통, 통신, 유통 최고의 적거, 역사·정신적 측면에서 유리(부산 4. 1)
* 부산시 새청사 이전 급진전, 연산동 군부대 1년 앞당겨 이달 중순 떠나, 예산 5백억 긴급지원 요청(부산 4. 1)
* 주택투기 단속 강력 대책 마련, 청약경쟁 높은 아파트단지 등 중점(시보 4. 1)
*「내 집 마당 주차하기 운동」전개, 융자알선·기술자문 등 상담에 응하기로(시보 4. 1)
*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질 없이 추진, 저소득 주민보호 생활안정 등 편의 돕기 위해(시보 4. 1)
* 산복도로 불법주차 정비, 긴급차량 진입 애로…4월 중 실태조사(시보 4. 1)
* 수영 주변 19만평 재산권 행사, 건축규제 사실상 해제(시보 4. 1)
* 올해를「에너지10%절약」전기삼아, 5개년 계획 부문별 이용 합리화 방안 마련(시보 4. 1)
*「관광부산」화첩발간, 영문·일어판 1만2천부(시보 4. 1)
* 상업용 임대료 안정 지침 마련, 1년 미만 동결…2년 이상 8%(시보 4. 1)
* 올림픽 공원에 무궁화식 수원조성, 부산시는 11일 해운대 올림픽 공원 안에 전국최대 규모의 무궁화식수원 조성(시보 4. 1)
* 노인 정기 건강진단, 4월 1일부터 1·2차로 나눠(시보 4. 1)

* 지방세 징수실적 94.3%, 부산시는 지난 한해 약 6천8억원의 지방세율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되었다(시보 4. 1)
* 인공섬 건설 보고받아 각종 안건처리, 양정 청소년회관 운영 답사도(시보 4. 1)
* 인공섬 건설추진 순조, 4월부터 투자계획 수립 등, 연말까지 착공기반 완전조성(시보 4. 1)
* 체육・문화・취미 동호클럽 육성, 정기대항전 등 확대…생활체육확산(시보 4. 1)
* 「제17회 시민합동 결혼식」, 4월 20일까지 희망자 신청 받아(시보 4. 1)
* 4월부터 건축허가제한 일부해제, 택지재개발지구 건축규제 완화, 철거 완료된 기존 건축물 대지 착공연기 조건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시보 4. 1)
* 물가안정 위한 조치해명, 부산시는 최근 일부언론에서 「부산시가 조기 발주한 주민복원사업 등 각종 관급공사에 대해 선거가 끝나자 대부분 착공을 하반기 이후로 늦추거나 얼버무리는 등 선거 전시행정에 그쳤다」는 내용의 기사보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시보 4. 1)
* 민원대책위 설치운영,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시보 4. 1)
* 세무공무원 교육 실무사례 등 내용, 부산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들과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전문지식 배양을 통한 세무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세 실무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순화교육 실시(시보 4. 1)
* 체납차량 제재강화, 운행정지・번호판 영치 등(시보 4. 1)
* 우암로 등 120곳 체계개선, 부산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대규모 도로개설 사업과 함께 우선 취약지의 교통난부터 해소할 수 있는 단기대책을 마련(시보 4. 1)

4. 2
* 부산시 도개개발공사, 택지조성 마찰 법정 비화(국제 4. 2)
* 부산시, 남포동 지하주차장 사업자 공모, 1천8백80평(국제 4. 2)
* 부산항 부두운영 대폭 개선, 부두 내 편의시설, 장비 확보 추진(부산 4. 2)
* 부산 현대음악제 기악부분 수준급, 출품작 74곡…전국서 응모(부산 4. 2)
* 자치구 뉴스 부산 해운대구, 미관지구 족쇄…전 지역 슬럼화(부산 4. 2)
* 부설주차장 풀제 확대(부산 4. 2)
* 용호하수처리장 확장공사 난항, 총선 후 충분한 설득작업 없이 강행(부산 4. 2)
* 부설주차장 풀제 확대, 기관・업체 상호교환 유도(시보 4. 11)

4. 3
* 승용차 「주차허가제」 시행, 6m 도로에 설치, 적용 초년 10만원(국제 4. 3)
* 부산시 차량 소음 큰일났다, 일부지역 혈당장애 수위, 25곳 심각(국제 4. 3)
* 하천부지 점용료 "들쭉날쭉", 일선구청이 해마다 하천 부지 점용료를 지나치게 높게 부과(국제 4. 3)
* 아파트 4천8백62세대 공급(부산 4. 3)
* 제조업체 종업원 이탈 심각, 지난해 생산직 12%, 사무직도 10.3%나(부산 4. 3)
* 부산, 신발업체 법정관리 모두 기각, 무더기 도산 위기에, 입금・퇴직금 청산 안 돼 노동자 피해(부산 4. 3)
* 용호 하수처리장 확장 재검토(부산 4. 4)
* 부산지역 직업안내소 탈법 극성, 인신매매・윤락알선도, 시 2개업소 허가취소(부산 4. 4)
* 부산시, 도심지 출퇴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종합적인 교통운영 체계개선대책 마련(시보 4. 11)
* 시사편찬위원회 사업 확장, 「향도부산」 9호・「부산문화」 발간추진(시보 4. 11)

4. 4
* 용호 하수처리장 "비틀", 주민반대에 확장공사 등 중단(국제 4. 4)
* 부산시, 번호판 영치업무 위임, 구청 단속원 권한 강화(국제 4. 4)
* 영세민 전세금 융자 확대를, 지원금 고작 3백만원, 대상도 일부에만 한정(부산 4. 4)
* 부산・아시아 주역으로 20 횡단철도 연결임박 요지 급부상, 일(日)의 유라시아 교역 극복, 수송비용, 위험 부담 엄청나게 감소(부산 4. 4)
* 부산 해운청, 「컨」 부두 차별 운영, 물량 배정 등 불균형 극심(부산 4. 4)
* 제45회 식목일 나무심기행사, 부산시장 등 8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을숙도 등지에 1천여그루 심어(시보 4. 11)
* 부산연합 총선투쟁 보고대회 부산여대 400여명(민주운동 4. 4)

4. 5
* 부산여대 강당에서 7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미경 정신계승 및 노동자 생존권 외면한 산업합리화조치 반대 92년 고무노동자 한마당'을 개최(민주운동 4. 5)

4. 6
* "동의 없는 공사 주민무시 처사" 용호 하수처리 확장 반대 결의(국제 4. 6)

* 부산시, 공사현장 안전점검(부산 4. 6)
* 민영아파트, 국민주택 건립비율 높여, 70%서 75%로, 소형도 5%상향, 시행 7월 1일부터(부산 4. 6)
* 시・교통운영 체제개선, 수영로 가변차선제 퇴근때도 적용(부산 4. 6)
* 부산 부도율 최고, 3월 0.42%…9년만에, 전국 평균의 4배(부산 4. 6)
* 전반기 업무감사 지적측량 대행기관, 부산시는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적공사의 업무처리사항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처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 자세확립과 공익단체로서의 건전한 육성 도모키로(시보 4. 11)
* 세정추진실적평가 91년도 전 구청대상, 부산시는 91년도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추진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을 표창함으로써 경쟁을 유발하는 한편 신뢰받은 세정을 구현 위해 전 구청에 대한 91년도 세정실적 평가 실시(시보 4. 11)
* ILO 부산양산공대위 주최로 '부산양산지역 총액기준 5% 임금억제 대상사업체 노조 대표자 간담회' 27개 노조 47명의 대표자들과 노동단체 대표들이 참석(민주운동 4. 6)

4. 7
* 부산시 청소년합창단, 제3회 정기공연으로「봄맞이 청소년 가곡의 밤」개최(시보 4. 1)
* 부산학생야영장 기관 설치(부산교육 4. 7)

4. 8
* 버스노선 길어 체증유발, 1백68곳 왕복시간 평균 2시간 30분(국제 4. 8)
*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사전협의 없이 공업용수 유치계획, 인근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국제 4. 8)
* 지하철2호선 출발부터 삐끗, 기공 6개월째 착공지연, 도시계획 시설 등 사전협의 제때 않아(국제 4. 8)
* 부산 땅 중금속 "중증", 50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강서농경지 기준지 4배 초과(국제 4. 8)
* 잦은 수도관 파열 시민 불편, 시 전체 30%가 낡아 급수중단 일쑤(부산 4. 8)
* 제조선 지방도 대폭 확장, 시 24억 투입, 득천부락 5km구간도, 강서 남북 연결 큰 몫(부산 4. 8)
* 총액 임금제 선별실시, 부산 저임 80개시 제외, 대상 업체 실사 곧 완료(부산 4. 8)
* 부산시 관계 규정 개정 건의, 규제지역내 이・개축 완화(부산 4. 8)
* 자가용 20만대 돌파, 부산시 2년반만에 10만대 넘어, 자가용 10부제 도입(부산 4. 8)
* 부산시, 복천동 고분전시관 건립, 92년도 문화재 정화사업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각종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시보 4. 11)
* 버스 승차표 자동판매기 정비, 6월부터 단계별 교체(시보 4. 11)
* 부산시, 해운대 신시가지 사업장을 비롯한 10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제2차 현지 확인 실시(시보 4. 11)

4. 9
* 부산시, 서구암남동 123일대 제1송도 옆 1백50대 주차 규모의 주차장 설치 유도방안 검토(국제 4. 9)
* 군 부지 택지개발 무산, 개금 야공단 등 건설부 승인 못 받아(국제 4. 9)
* 절경깎아 부두 추진, 해운 항만청 다대포 앞바다 3만평 매립골재 전용부두를 건설키로(국제 4. 9)
* 북구청, 무허가 건물 강제 철거 "말썽", 거처 없는 서민들의 울상(국제 4. 9)
* 산복도로에 '옥상주차장', 노면과 같은 높이로 바로 연결, 유료화 적극 권장(부산 4. 9)
* 강서 화훼단지 시설 현대화, '소득증대성과' 지원 늘리기로(부산 4. 9)
* 온천장에 또 대형백화점 건립-인근주민・상인 크게 반발(부산 4. 9)
* 일일 취업 창구 개설, 운영활성화 구인・구직 접수(시보 4. 21)
* 부산시, 인사(시보 4. 11)
* 부산시, 한그루 나무심기 운동「푸른 부산」조성키로(시보 4. 1)

4. 10
* 구내식당 11곳 부적합, 호텔, 기업체 위생엉망, 세균 득실(국제 4. 10)
* 부산시,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주민 열람을 21일 동안 토지소재지 동사무소에서 실시(국제 4. 10)
* 부산시, 문화재 정화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복천동 유물관 건립(국제 4. 10)
* 부산시, 분뇨바다투기 특혜시비, 처리 단가 높고 운반선이 1척뿐이므로 연암오염 가중(국제 4. 10)
* 제10회「부산 연극제」폐막 대상극단현장 <자갈치>, 관객동원 사상처음으로 만명 넘어, 2월 심사제도입, 형가 객관성 유지(부산 4. 10)
* 부산항 선석점유율 저조, 85%로 80년 이후 최저, 경기침체, 수출입 물량 감소 영향(부산 4. 10)
* '금정산 수난' 무허가 구조물 난립, 기도장・간이음식 판매소 등 즐비(부산 4. 10)
* 버스전용정차대 설치, 수영로 퇴근 시간 가변차선제 대비(부산 4. 10)
* 경희대 크라운회관에서 개최된 전국노조대표자회의에서는 총액임금제 완전 철회와 생계비에 기초한 실질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한시적인 공동대응기구로 '총액임금제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조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민주운동 4. 10)

4. 11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21 수송・정보 장악, 3각무역 주도, 천혜의 통상국조권 최대 활용, 신라방 설치 국제 네트워크화(부산 4. 11)
* 시 늑장인사 의회 부작용, 사무처장 백여일 공석(부산 4. 11)
* 컨세 신고 백억 넘어, 물동량 증가추세, 징수율 96%(시보 4. 21)
* 구 상임위 운영 활성화 될 듯, 동래 등 8개구 사회위 등 설치,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초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각 구의회에서는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3개에서 5개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는데 남구의회와 동래구의회 등 8개 구의회가 3~4개의 상임위 설치(시보 4. 21)
* 의료기관 특별점검, 건강진단수첩 허위발급 여론 따라(시보 4. 21)
*「카풀」중개센터설치확대,「승용차 함께 타기」활성화(시보 4. 11)
* 결연사업 대폭확대, 부산시는 현재 사회복지수용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결연 사업을 모자 가정 등 저소득층 전반에 확대키로(시보 4. 11)
*「일 하는 사회」분위기조성, 4대 역점시책 착실히 추진(시보 4. 11)
* 개별토지가격열람, 4월 11일~5월 1일까지(시보 4. 11)
* 세계적 육종 연구업적 기려, 원우회・낙동 채소 연구회 주관, 학술발표회 등 기념행사 개최(시보 4. 11)
* 공・민영 주차장 건립 활발, 주차수요가 크게 늘어난 지난해부터 공・민영 주차장의 건립 활발(시보 4. 11)
* 전통가업전승자 발굴, 표창, 상・하반기 연 2회 10명씩 시상키로(시보 4. 11)
* 시 새 청사 건립, 부산시의 새 청사 건립공사가 빠르면 내년상반기 중으로 착공될 전망(시보 4. 11)
* 조기발주공사 계속추진, 3백78건…에 대해서 내무부에 지방재정운영지침과 관계없이 계속 추진키로(시보 4. 11)
* 차량10부제 효과 높다, 주차위반 차량도 37.7%나 격감(시보 4. 11)
* 신규 등록 제한검토, 주택건설 사업자(시보 4. 11)
*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순조, 제2도시고속도로 1・2 단계 건설공사가 지난 3월말 현재 82.8%의 순조로운 공정(시보 4. 11)
* 체납세 강력정리, 시는 91년도 이전에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함으로써 올해 시 재정수입의 확충을 기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 세정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년도 체납액 일제 정리 방안을 마련・시행키로(시보 4. 11)
* 공단지역 등 불법폐기물 중점단속, 시는 최근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 단속 위해 공단지역 등 특정 폐기물 배출업소를 파악해 수입・운반・폐기과정 점검(시보 4. 11)
* 부산대에서 '총선투쟁 평가와 민중연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민주운동 4. 11)
* 金井消防署 新築 起工(직할30년 4. 11)

4. 13　* 구청공사 인도 무단 점용, 행인과 차량 통행에 불편(국제 4. 13)
* 명지 땅 32만평 7년째 방치, 쓰레기로 메워 조성, 시와 소유자는 무관심(국제 4. 13)
*「화재」무방비, 곳곳에 안전사고, 주민들이「대책위」를 구성하여 자구책 마련(국제 4. 13)
* 수영요트장 기능상실, 부산시는 여기에 컨벤션 센터・무역전시장 등 추진(국제 4. 13)
* 오락실대표 5명 수배, 불법영업을 일삼는 관광호텔 오락실에 대한 일제 단속(국제 4. 13)
* 해운, 수산 불황, 부산경제 위협, 유관산업 도산사태 우려(부산 4. 13)
* 부산시, '장기임대' 건립 외면, 5년 이후 분양, 입주민과 마찰 꺼려(부산 4. 13)
* 문예지, 출판사, 판도변화조짐, 개성있는 기획자리 잡아야(부산 4. 13)
* 시 주요사업 지지부진, 추진상황자체 분석, 60%이상이 공기 차질(부산 4. 13)
* 92년도 정리총회 자유총연맹 시지회,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회 92년도 정기총회가 1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크라운 호텔 12층에서 김영환 부산시장을 비롯한 시내주요기관장 시지회 회장단 및 회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시보 4. 21)

4. 14　* 업체폐수 무당방류 여전, 부산시의 대형 폐수배출업체 97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16개소 적발(국제 4. 13)
* 화재취약건물 소방점검 실시, 시장・공장 등 1백16곳 시정조치(국제 4. 14)
*「공업용수 정수장」백지화 요구, 대저 2동 주민 농성(국제 4. 14)
* 의원역할・활동상 잘 모른다, 구의회 개원 1년 구민 조사에서 79%가 부정적 반응,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는「도움된다」74%가 긍정적 대답을 하였다(국제 4. 14)
* 부산시, 시내버스 잇단 도중회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기로 해(국제 4. 14)

* 신발, 섬유, 철강 매출 격감, 1/4분기 동향,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부산 4. 14)
* 시내버스 중간회차 횡포, 손님 없다 이유 코스이탈, 단축 운행도(부산 4. 14)
* 부산 지하철 2천1년 모두 완공, 김해공항 새 활주로 재원 협의 중(부산 4. 14)
* 부산시, 복층 도로건설 추진, 소형차량 전용 왕복 4차선(부산 4. 15)
* 부산시, 시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CI도입방안 토의 위한 「CI추진간담회」 개최(시보 4. 21)

4. 15
* 급식소 14곳 시정지시, 고신의료원 등 주방 청결상태 엉망(국제 4. 15)
* 시내버스 노선·간선도로에 편중, 수익 급급, 전체대수 43%에 달해 변두리 주민 승차난(국제 4. 15)
* 선경, 대형아파트 건립 강행, 특혜분양 시비 1만평 부지, 시의 교통영향평가에 심의 주목(국제 4. 15)
* 연합철강·극동정유·부산항 정비 이전 추진(국제 4. 15)
* 공공료, 물가인상 주도, 작년 10%올라 9년만에 최고, 소비자 물가 9.2%보다 높아(부산 4. 15)
* 자성대 주변 일방통행 검토, 신호체제도 개선, 병목현상 해소(부산 4. 15)
* 제12회 부산미술제개최, 24일까지 시민회관전시(시보 4. 21)

4. 16
* 부산상의, "부산 경제 총체적 위기 금리인하·자금지원을", 정부에 건의(국제 4. 16)
* 부산시, 4개 지역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후임자 선출 움직임, 지역의료 보험노동조합반발(국제 4. 16)
* 부산시 종합병원 원내감염 실태조사, "병원이 병 만든다"(국제 4. 16)
* 부산시, 선경의 대형아파트 건설 제동, 「소형」 30%는 「70% 의무규정」 위배(국제 4. 16)
* 지하철 공사 서면~호포, 가야·사상로 체증 우려(국제 4. 16)
* 경남공고 등 부산공립 공고 3곳 내년부터 여학생 선발(국제 4. 16)
* 부산 순시 온 서영택 건설장관, 상반기에는 건설경기 진정책 계속, 합천댐 부산 식수원 어렵다(국제 4. 16)
* 동래구청 공무원 봉급에서 일괄납부 하기로 해 직원들의 강한 반발(국제 4. 16)
* 부산, 김해 경전철 내년 착공, 정총리, 지하철 2, 4호선 연계도 검토(부산 4. 16)
* 「체육부산」 폐간위기 방치, 당국 무관심 「체육지효시」 무색, 인력, 재정난(부산 4. 16)
* 자치구 뉴스 부산 북구, 교통체증, 공단 공허, 침수피해 3난 해결 급선무(부산 4. 16)
* 의보조합 낙하산 인사, 부산 4개지구 정당간부등 대표기용채비(부산 4. 16)
*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난관봉착, 업체, 선수금 4백억 체납, 건설부 차입금마저 지연(부산 4. 16)
* '부산 민생불황' 타개조치 건의, 상의, 세제 등 4개부문, 수출부진, 인력부족, 자금난 등 호소(부산 4. 16)
* 「영구임대」 입주자격 완화, 부산시, 올 2만6천세대 공급 물량초과 철거민 등 포함(부산 4. 16)
* 미혼모 예방사업 추진, 올바른 성윤리 교육실시(시보 4. 21)
* 제17회 학생 기능 발표 대회(부산교육 4. 16)

4. 17
* 아파트 부실 사전에 검사,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사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해(국제 4. 17)
* 몰운대 공원 환경훼손 우려, 제한 개방 실시 후 단체이용객 급증, 편의시설 등 크게 부족(국제 4. 17)
* 부산시 미혼모 한 달 20명 발생, 90%가 친권포기, 예방교육 절실(국제 4. 17)
* 부산시, 부동산 거래 크게 줄어, 작년에 비해 절반이 줄어들어(국제 4. 18)
* 부산 중기업 협동화 단지 절실, 42개 조합 이사장 활성화 대책 6개항 중앙회 건의(부산 4. 17)
* 수영요트장 일반 개방, 부산시, 내달부터 야외 결혼식장으로, 이용율 저조한 요트경기장 활용도 높이기 위해(부산 4. 17)
* 관공서 주차장 공무원 독점, 시청, 오전 9시전 직원차량 90%점용(부산 4. 17)
* 사립 중고 재정 결함 보조금 의존(부산 4. 17)
* 밀어붙인 도시계획 부작용, 사유재산 침해 잇단 패소(부산 4. 17)
* 국제 로타리 총재일행 김시장 환담, 김영환 부산시장은 17일 접견실에서 국제로터리 5110지구 샘월슨 연구단 단장을 비롯한 6명의 방문단을 맞아 환담을 나누고 시정에 대한 설명(시보 4. 21)
* 가장 고귀한 것, 작은 사랑실천, 김영환 시장 선행 시민 28명 초청격려(시보 4. 21)
* 4·19 32돌을 맞아 전국 81개 대학 학생과 재야단체들 학교와 지역별로 기념식과 부정선거 규탄 거리행진(민주운동 4. 17)

4. 18
* 지역 건설업계 조달, 기금법 반발, 「15억 이상 공사에 조달청 위임」 헌법소원 내기로(국제 4. 18)
* 변두리 주민 「마을버스」 요구, 노선이 없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많은 불편(국제 4. 18)
* 녹지사업소 설치키로 부산시, 국제 교류기능 강화위한 국제협력과 신설 추진(부산 4. 18)
* 사조 보상사고 분쟁 확산, 수익자 부담 건물주가 매입해야 사조 주, 시민 다니는 길, 시서 책임질 문제 사조주(부산 4. 18)

* 토지구획정리 설계 엉성, 구포지구 도시기반시설 허술, 광장 진입로 '병목' 우려(부산 4. 18)
* 『92부산과학축제』 개막, 수영 요트경기장, 26일까지 각종행사 열려(부산 4. 18)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22 냉전구조 붕괴로 이웃 급부상, 한·중 보완적 관계…교역량 급증(부산 4. 18)
* '도심속 오지' 안창마을 행정구역 2곳, 주민생활 불편, 8백세대는 동구, 2백세대 진구(부산 4. 18)
* 중고생 이번학기부터 학원 수강, 본고사대비 학습욕구 수용(부산 4. 18)
*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재 점화, 4월 18일 지정 범시민 추진분위기 재정립(시보 4. 21)
* 부산대에서 '4·19 계승 및 부정선거 규탄과 이지문 중위, 이원섭 일병 석방을 위한 부경총련 건설준비위원회 결의대회' 개최(민주운동 4. 19)
* 釜山科學祝祭行事, 요트경기장서 開催(직할30년 4. 18)

4. 20
* 시립미술관 건립 현황·전망-용두산, 노포동, 양정 등 물망(부산 4. 20)
* 올 하반기 방법운영비 비상(부산 4. 20)
* 해운대 중, 좌동 일대도 개발 검토, 신시가지 조성 제외지역 시, 용도변경 추진(부산 4. 20)
* 동남경제면, 개원 차일피일, 기금조성 차질 '난항'(부산 4. 20)

4. 21
* 차량 무차별 견인, 곳곳 말썽(국제 4. 21)
* 부산시, 추경예산 6천억 늘려, 총규모 2조3천억원 편성(국제 4. 21)
* 자치구 뉴스 부산 강서구, 구 면적 62.8%가 그린벨트, 『지면보호』 앞서 생존권부터(부산 4. 21)
* 청소년 상담실 18곳으로 늘려, 지도자 연 1백명 양성, 부산시, 육성 10개년계획 확정(부산 4. 21)
* 부전역 앞 교통체계 개선, 범전동 입구까지는 일방통행, 광장로 이동 중앙분리대 설치(부산 4. 21)
* 부산시 92년 1차 추경예산, 일반회계 7백85억, 특별회계 5천3백33억9천, 전체 6천1백41억 증액(부산 4. 21)
* 역 주변 옥외대형 광고물 정비 마찰, '1백억 낭비'업계 반발(부산 4. 21)
* 『1시1하천 정화운동』 내실추진, 하천별 전담지정…범시민 참여, 월2회 이상 투기물 수거(시보 4. 11)
* 집행기관과 상호견제·협조 다져, 총 121회 개최·1천여건 처리, 지역현안 연구 대처 방안 마련(시보 4. 21)
*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지침 마련, 물가·임금·부동산가격 안정시키기로(시보 4. 21)
* 차량 10부제 운행 호응 좋아, 시내 모든 운수업체 자율참여 결의(시보 4. 21)
* 5월 20일까지 광공업 통계조사, 시는 91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를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달 동안 시 전역에서 실시(시보 4. 21)
* 전염병 예방 방역태세 확립, 시는 지난겨울의 이상난동으로 각종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고 보고 조기 방역 태세를 확립키로(시보 4. 21)
* 낙동강 철새도래지 학술조사, 조류·수질·어패류 등 7개 분야(시보 4. 21)
* 미화당백화점 뒤 재개발키로, 중구 광복동 미화당백화점 뒤편 낙후지역 재개발(시보 4. 21)

4. 22
* 상업계고 "공고 전환" 바람, 교사확보와 재정지원에서 어려움(국제 4. 22)
* 대항~용원 운임 인상 안 돼 실력 행사, 가덕도 주민들 발 묶여(국제 4. 22)
* 부산시, 아파트 내 주차난 해소하기 위한 주차시설을 신·증축 할 수 있는 법규개정을 건설부에 건의(국제 4. 22)
* '부동산 침체' 시 살림에도 여파, 1/4분기 취득, 등록세 10~15%줄어, 지방세수 확보 비상, 세출 절감 등 대책 시급(부산 4. 22)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23 21세기의 지중해…잠재력 막강, 한·중·러·일 결합 성장축 가능(부산 4. 22)
* 부산시, 공동주택 주차시설, 신·증축법 개정건의(부산 4. 22)

4. 23
* 부산시, 국제협의담당관 신설(국제 4. 23)
* 부산시 교육청, 『교원 복무 상황』 보고지시, 일선교사 "자율권 침해" 반발(국제 4. 23)
* 자치구 뉴스 부산 영도구, 고지대·주거환경 열악, 불법증축·철거 악순환, 급수·교통난까지 겹쳐(부산 4. 23)
* 도시계획 상·하위법 모순, 시행령 허용, 규칙은 축소, 공익건축제한 주민 불편(부산 4. 23)
*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조짐, 부산시 공원 시설 이용금 12.2%올려, 물가 부채질 비난 거세(부산 4. 23)

4. 24
* 일방통행 맞춰 버스노선 변경, 5월부터(국제 4. 24)
* 부산시, 공영주차료 120%인상 추진, 물가 부채질, 노상불법주차 기승 우려(국제 4. 24)
* 부산시 국제 시장 큰불, 42개 점포가 전소, 50여억원의 피해 발생(국제 4. 24)
* 『불구경』 소방행정 끝내 인재, 방화 시설·안전감독 소홀(국제 4. 24)
* 아파트 지구 14년째 방치, 연탄 저탄장 이전 늑장, 무허가 건물 난립(국제 4. 25)

* 부산 종토세 7백6억, 작년보다 26%증가, 시민부담 가중(부산 4. 24)
* 공직자 특별정신 교육, 친절·봉사 결의대회도(시보 5. 1)
* 국제시장 대화재 발생으로 점포 47개 전소, 피해액 30억원 추정(부산교육 4. 24)
* 國際市場 큰불로 47개점포 전소, 30억원대 被害 發生(직할30년 4. 24)

4. 25
* 장림하수처리장 또 관로유출 사고 유독 폐수 4만t "콸콸"(국제 4. 25)
* 재래시장 불씨 안고 산다, 소방설비 낡고 고장 많아(부산 4. 25)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24 북한 자유무역지대 개발열기 고조(부산 4. 25)
* 재야인사 대학생 등 1만여명 '고 강경대 1주기 추모제 및 5월 투쟁선포식 개최' 전국적으로 시위(민주운동 4. 25)

4. 26
*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 등 6개 재야단체와 부산대 등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회 소속 대학생 3,000여명, 부산대 운동장서 '고 강경대 1주기 추모제 및 5월 구국투쟁 선포식'을 갖고 가두진출 시도(민주운동 4. 26)

4. 27
* 부산시, 「용호 처리장」 난항, 토론회마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국제 4. 27)
* 부산시, 엄궁 택지개발 무산직면, 「2백만호」 급급 주거지 지정, 보상비 높아 착수에 난감(국제 4. 27)
* 쉴 곳 부족…삭막한 부산, 휴식공간 1인당 3㎡…전국 최하위, 공원·유원지 계획 수십 년 방치(부산 4. 27)
* 장전지구 재건축사업 2년째 방치, 정부, 올 6월까지 사업승인 규제(부산 4. 27)
* 「92 부일 미술 대전」 결산, 탈 장르, 개성 있는 공모전 자리매김(부산 4. 27)
* 당감동 동평현 성지 발굴조사, 시립박물관, 고려시대 기와·자기 등 귀중자료 수습(시보 6. 22)
* 명장·우수지도자 기능장려 업체 표상, 23일까지 대상자 접수…중앙에 추천(시보 5. 1)
* 부산시립박물관, 당감동 옛 동평성지 발굴조사 실시(부산교육 4. 27)

4. 28
* 중고생 학원수강 전면 허용, 내달부터 학기 중에도 수강 전면 허용(국제 4. 28)
* 부산시, 주택건설 133사 말소, 실적미달 70개 업체 영업정지도(국제 4. 28)
* 동전 투입식, 가변 차선제, 구덕터널서도 실시, 추돌사고·체증현상 등 완화(국제 4. 28)
* 부산시 「탈의장」 운영권 관변단체에 넘겨, 특혜 시비가 발생(국제 4. 28)
* 자치구 뉴스 부산 금정구, 개발제한, 수원보호, 재산권 행사 '족쇄'(부산 4. 28)
* 녹산공단 조성 차질, 환경평가 보완 겉돌아(부산 4. 28)
* 녹지사업소 일손부족 '허덕' 부산시(부산 4. 28)

4. 29
* 부산시, 인사(국제 4. 29)
* 부산시, 진입로 없이 아파트 허가, 특혜 의혹(국제 4. 29)
* 부산시 실정무시, 올해도 5백~1천5백대 계획, 그러나 회사마다 10~30대씩 운행 못하고 있어, "업계 프리미엄 특혜"라는 비난(국제 4. 29)
* 서낙동강 농업용수 부적합, 공장폐수와 생활하수가 뒤범벅되어 크게 오염(국제 4. 29)
* 정원 초가 날조 심각, 증차 대책 감감, 지하철 이용객 큰 불편(국제 4. 29)
* 제조업 3곳 이전, 구세 "비틀"(국제 4. 29)
* 정부각료 잦은 지방행차 공약남발, 현실외면 부산발전 도움 안 돼(부산 4. 29)
* 추경안 심사보류 여부 논의, 부산시 임시의회 박물관 관람료 등 14건 처리 예정(부산 4. 29)
* 낙동강변에 대규모 시민공원, 16억투입, 93년 완공 예정(부산 4. 29)
* 의회·시 갈등해소가 관건, 부산시 의회 임시회 쟁점 진단(부산 4. 29)
* 시내 교통소통 호전, 러시아워 시속 16.9km 작년보다 빨라져(부산 4. 29)
* 시 현안사업 추진 차질, 부산시의회 추경안 심의 보류 결정(부산 4. 30)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25 화해 추세 따라 현실적 대비를, 경제 고전, 북한개방 불가피(부산 4. 29)

4. 30
* 부산시의회, "의회 자존심" 「일반 통행」에 제동(국제 4. 30)
* 석대주민, 매립장 이전 연기 반발(국제 4. 30)
* 부산시, 「낮잠택시」 증차 재검토, 운전자 부족과 교통난을 감안하여 재검토키로(국제 4. 30)
* 종합건설 불법 하도급 성행, 작년 3백5건 적발, 1백73건 고발(부산 4. 30)
* 사업용차량 공급기준 엉성(부산 4. 30)

5. 1
* 부산시, 2, 3급 인사(국제 5. 1)
* 부산시, 거짓변명 들통, 해수욕장 탈의장 운영권 선정에서 YMCA 등 공익봉사단체를 제외시킨 것으로 들어나(국제 5. 1)
* 부산시, 한 달간 체납차량 집중단속, 번호판영치, 등록증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국제 5. 1)

* 부산남항기능마비, 해수면적 포화상태(부산 5. 1)
* 증시 냉각 부산이 최악, 주식약정고 전국비중 계속 줄어, 신발 등 주종업 침체 탓(부산 5. 1)
* 부산, 여형사 기동대 발족, 폭행 등 여성상대 범죄 전담, 3개반 13명으로 편성(부산 5. 1)
* 10부제 차량 주차료 할인 확대해 주차요금 20%할인(부산 5. 1)
* 자동차세 납기조정 등 제도개선, 시, 내무・재무 분야 건의(시보 5. 1)
* 물가지수체계개편,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지출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부사지역 물이 지수체계 개편(시보 5. 1)
* 종토세 전산처리 완료, 소유자 변경・미신고 등 정리(시보 5. 1)
* 계속・주민숙원사업 중점 편성, 제1회 추경예산안 6,141억원으로(시보 5. 1)
* 「공동 주택 관리령」 일부개정건의, 「신・증축가능」 포함, 기존주차장 한계…불편해소 대책(시보 5. 1)
* 시장동정, 고 안장춘 박사 기념행사 참석(시보 5. 1)
* 수영만 요트경기장 무료 예식장 개방, 부산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관리사업소는 요트경기장 운영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본관 회의실 중앙광장, 잔디밭 등 3군데를 시민들에게 예식장으로 빌려주기로(시보 5. 1)
* 쓰레기 재활용운동 확산, 매달 10%씩 증가' 장려금 3천3백만원 지급(시보 5. 1)
* 실적 없는 주택건설 업체정리, 2백3개 업체 등록말소・정지처분(시보 5. 1)
* 지역 경제 촉진공사 등 청원, 부산의회는 제12회 임시회를 4월 29일부터 10일간 열기로(시보 5. 1)
* 「국제협력담당관실」 신설, 부산시는 급증하는 국제 업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부서를 개편키로(시보 5. 1)
* 청원・의견청취・조례 등 다뤄, 제1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청원・의견청취・조례 등 다뤄(시보 5. 1)
* 「내 고장 양서 보내기」 전개, 6월말까지 문고육성・애향심 고취시키기(시보 5. 1)
* 새 질서・새 생활 실천 재 점화, 5월 정례조례 사회병리 척결 총력(시보 5. 11)
* 소비절약일환 주유소 영업시간 제한, 부산시는 최근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절약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주유소 영업시간을 제한 실시(시보 5. 21)
* 중・고교 재학생들의 학기 중 입시계 학원 수강 허용(부산교육 5. 1)
*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부산지역 노동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2년도 노동절 기념대회 및 총액임금제 분쇄결의대회' 개최(민주운동 5. 1)
* 사하경찰서 다대파출소 신축(경찰사 5. 1)
* 여자형사기동대 발대(경찰사 5. 1)

5. 2
* 공해 업체 단속차질 우려, 올 7월부터 환경처에서 구청에 이관(국제 5. 2)
* 부산시, 충렬사 크게 훼손,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성지를 참배하도록 지도(국제 5. 2)
* 부산시, 10부제 운행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20%할인제도를 전체 1백29개로 확대(국제 5. 2)
* 부산시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을 하면서 주민의사 무시해 말썽(국제 5. 2)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26 사고의 축을 서울보다는 세계로, 실질・실리 존중 의식 전환을, 지역돈 유출 최대한 막아야(부산 5. 2)
* 신호간척지 공단조성 급진전(부산 5. 2)
* 제6회 청소년 예술제, 「청소년의 달」 맞아 연극・무용 등 6개 분야(시보 5. 1)
* 부산시, 인사(시보 5. 11)
* ILO 부산양산공대위 주최 부산노동자연합 등 재야노동단체와 학생 시민 등 3,000여명, 부산대 운동장에서 '세계노동절 103주년 기념 부산 양산지역 노동자대회' 개최(민주운동 5. 2)

5. 3
* 자립의지 제고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캠페인 벌여, 장애인의 생활터전 마련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캠페인이 지난 3일 김영환 부산시장과 관계인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영요트경기장에서 거행(시보 5. 11)
* 부산연합 5・3동의대 항쟁 3주년 기념 계승대회(동의대 500명, 남포동 가두선전)(민주운동 5. 3)

5. 4
* 부산시, 청학동 선원학교~중앙동 지하철 버스노선 신설하기로(국제 5. 4)
* 여권발급기간 크게 단축, 소양・안보 교육 등도 폐지(국제 5. 4)
* 부산시, 시의회 임시회 폐회(국제 5. 4)
* 분뇨해양투기 무산 위기, 하단, 장림어민 운반선 통행에 강력 반발(부산 5. 4)
* 가덕도 개발계획 공보 4개 업체 신청(부산 5. 4)
* 내년 국고보조 4,575억 요청, 부산시 도로, 주택 등 총 21건 구포대교 건설 4백21억 건의(부산 5. 4)
* 공무원, 횡령, 유용 '부쩍', 공금관리 담당자 허위 공문서 작성, 부산시 긴급감사 실시키로(부산 5. 4)

5. 6
* 수영강 일대 국교 신설 난항, 땅값 올라 계획이 물거품(국제 5. 6)

* 낡은 아파트 재건축 시급, 부산 15년 이상 12%, 47년 이상 아파트도 다수 포함(부산 5. 6)
* 부산경제 파악 어려워, 정부 지역 총생산 등 기초자료 6년째 외면(부산 5. 6)
* 공시지가 이의신청, 부산 6백78건 접수(부산 5. 6)
* 불합리, 낭비 행정관행 개선, 절차 축소 등 21개 분야(부산 5. 6)
* 서울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민주운동 5. 6)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형규 목사 등 1,004명 '남북합의서 국회비준동의를 촉구하는 1,004인 선언' 발표(민주운동 5. 6)

5. 7
* 종합복지 회관 적자에 "허덕", 정부의 예산지원 미흡과 관심부족 등(국제 5. 7)
* 부산시, 큰 공사 반 이상 역외 발주, 부산지역 업체 공동 도급도 부진(국제 5. 7)
* 부산 부도여파, 상대기업 신용조사 급증, 올 들어 전년비 76.7%나 늘어(부산 5. 7)
* 보행자 우선·횡단으로 이용, 올해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원년으로, 「생명·질서·행복」 이념 바탕 아래(시보 5. 11)

5. 8
* 부산집값 전국에서 가장 큰 폭 하락, 올 들어 4%선 떨어져, 서울 등 6대 도시보다 1~2배(국제 5. 8)
* 신발 합리화 신청 추가접수, 11일부터 6일 동안(국제 5. 8)
* 부산시, 먼지 공해 공사장 무더기 적발, 총 18개소(국제 5. 8)
* 최고 2백mm나, 봄 농작물 피해 속출, 부산·경남 기습 호우(국제 5. 8)
* 부산 집값 하락폭 전국최고, 1년 전비 11.3% 내려, 전세값은 가장 적게 0.5% 올라(부산 5. 8)
* 자성대주변 일방통행(부산 5. 8)
* 아파트 단지 만덕, 모라, 덕천동, 분동 또 해야 할 판, 주변 한해 최고 28.2%늘어(부산 5. 8)
* 부산시, 먼지발생 사업장 18곳 적발, 지난 4월 중순부터 2주간 43개소 특별 점검(부산 5. 8)
* 삼락로 수로별로 일방통행, 덕천IC에 진입로 설치(부산 5. 8)
* 부산시 새 청사 건립 버럭, 각 부서 뒤늦게 설계변경 요청(부산 5. 8)
* 경로·효친사상 새 가정 윤리로 계승, 제20회 어버이날 기념' 효행 시민 등 표창(시보 5. 11)
* 9일 동아대에서 '제1기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출범식' 개최, 행사장 주변에 단일기, 태극기, 인공기 30여장을 내걸자 경찰 20개 중대 2,000여명 투입(민주운동 5. 8)

5. 9
* 주택조합 7%가 무자격, 부산, 전산망 검색 761명이 유주택자로(국제 5. 9)
* 부산시, 지방세 체납액 급증 3백58억, 강제 징수 방침(국제 5. 9)
* 건물 고도제한 해제 요구, 태종로변 땅값하락 초래(국제 5. 9)
* 개인 서비스료도 뜀박질, 공공요금의 인상 여파로 차값 등 최고 30%까지(국제 5. 9)
* 흔들리는 부산경제<1> 신발, 섬유, 건설업 등 연쇄도산(부산 5. 9)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27 대 서울 콤플렉스 조속 탈피를, 개발여건 나쁘다 타령 금물(부산 5. 9)
* 진시장~양정R 버스전용 차선제, 부산 교통체계 개선(부산 5. 8)
* 전대협 대학생 및 재야단체 회원 2만여명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청주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민자당 해체와 민주대개혁을 위한 국민대회' 거행(민주운동 5. 9)
* 부산연합 '민생파탄 주범 민자당 심판 부산시민 궐기대회'(민주운동 5. 9)

5. 11
* 「항도부산」「부산문화」 시사편찬위 본격 가동(국제 5. 11)
* 부산항 물동량 4위 전락, 작년 6천4백만t…광양, 울산, 인천 순(부산 5. 11)
* 흔들리는 부산경제<2> 운영자금 없어 작업 중단, 대출금마저 회수, 어음할인 못해(부산 5. 11)
* 부산, 소매물류단지 조성 시급, 슈퍼·연쇄점 등 비용 늘어 소비자 부담 커(부산 5. 11)
* 시 광고 게시판 제구실 못해, 관리업체, 재정난으로 10년째 방치(부산 5. 11)
*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다, 서낙동강 지류, 고물상 등 110곳 폐수 '펑펑', 자정력 상실, 오염가속(부산 5. 11)
* 불법·탈법행위 원천봉쇄, 부산시는 「새 질서 새 생활 재 점화1백일 운동」을 전개, 강력히 추진키로(시보 5. 21)
* 체납세 강력정리, 5·6월을 취득·주민·자동차세 등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강력히 징수키로(시보 5. 11)
* 상금은 통장으로 지급, 저축증대계획' 27억 목표(시보 5. 11)
*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유보, 시 종합무역전시관건립 보고(시보 5. 11)
* 쓰레기 무단투기 연말까지 단속, 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부터 금년 말까지 하천·해안·상수도보호구역 등에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시보 5. 11)

* 92 춤의 해 부산무용제전, 「젊은 춤꾼들 창작전」·「무용인합동공연」, 부산시주최, 무용협회 부산지부·대학무용진흥회 주관(시보 5. 11)
*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돕자, 「성년의 날」 등 다채로운 행사 펼쳐(시보 5. 11)
* 지·덕·체 겸비한 지도자 양성, 부산시 「청소년육성 10개년계획」 추진(시보 5. 11)
* 부산전력사용량 증가, 소비성업소 절약자세 절실(시보 5. 11)

5. 12
* 도심하천이 바다오염 "주범", 부산시가 17곳을 조사한 결과 크롬 등이 기준치 1만배 초과(국제 5. 12)
* 사업용버스 경영난 타개지원 차량등록세 감면(국제 5. 12)
* 「주차위반 예고제」 큰 성과, 동구·영도구 등 일부 구청이 시행중(국제 5. 12)
* 석대 주민들 피부병 "고통", 쓰레기, 폐수가 주범(국제 5. 12)
* 부산-인천 해상 수송망 확대를, 부산에서 취급되는 화물 중 연 1천4백만t(부산 5. 12)
* 주거환경 개선 '뒷걸음질', 백26곳 고시 21곳 추진(부산 5. 12)
* 흔들리는 부산경제<3> 인구 억제책 기업성장 막아, 침체가속으로 고용률 크게 격감(부산 5. 12)
* 주민협의, 내역공개 뒷전, 밀실 도시계획 부작용 심화, 행정력 낭비, 계획 차질도 속출(부산 5. 12)
* 명지 주거단지 내달 착공, 실시 계획 변경 승인…월내 후속조치, 육상부 8만9천여평, 해상부 54만6천여평 구성(부산 5. 12)
* 명지주거단지 6월 착공, 실시계획 변경 승인…월내 후속조치(시보 5. 21)

5. 13
* 무관심 속 낮잠 자는 6백만평, 낙동강 고수부지 청소년 체육시설, 12만평 중 2%에 불과(국제 5. 13)
* 「신발업 회생」 부산시 "발 벗었다", 「운영 자금 보증」 방안 검토(국제 5. 13)
* 남포동 성인오락실 "철퇴", 11곳 적발(국제 5. 13)
* 부산시, 도축폐수 행정조치, 동원산업, 대법원에 상고 「배짱 버티기」(국제 5. 13)
* 부산시, 「새 질서 백일 직전」, "행정공백", 공무원 하루 3천명 동원 "민원뒷전"(국제 5. 13)
* 흔들리는 부산경제<4> 지방경제 장기비전 등 제시 못해, 경직된 금융정책 일관, 위기심화(부산 5. 13)
* 시, 신발업체 대출 보증, 합리화 지원 방안 마련…직접 중재키로(부산 5. 12)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28 동남부 중추관리기능 강화 절실, 신발업 특화로 경쟁력 제고(부산 5. 13)
* 본격 미술지시대 예고, 「부산미술」 복간 추진, 이론지도 등장(부산 5. 13)
* 부산의 첫 조합주택 개량사업, 승당부락 재개발 타결, 2/3찬성 법정동의 충족, 7월에 본격추진(부산 5. 13)
* 민원서류 중 발급제 반응 좋다, 부산시내 5km 구청 1백34개동 실시, 공무원 1시간씩 일찍 출근 떼 줘(부산 5. 13)
*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 난관, 롯데건설, 부산시와 협약사항 어겨, 자금난 들어 이자 배 요구, 승인 늦어지자 보상중단(부산 5. 13)
* 연탄공장 둔치로 이전, 시 계획안 정부거부…20년 숙원 '물거품', 6곳 18만 주민 탄가루공해(부산 5. 13)
* 국고지원 부산 홀대, 4,575억 요청에 반영 10%로 못 미쳐, 지역 현안사업 큰 차질 예상(부산 5. 13)

5. 14
* 자성대 주변 교통체계 개선·일방통행제 실시, 15일부터 실시(국제 5. 14)
* 부산시, 농산물 「품질인증」 실시(국제 5. 14)
* 부산시, 주유소 영업시간 대폭 제한, 에너지 소비 절약 시책 하나로 1백75곳 제한(국제 5. 14)
* 신호 간척지 85만평 "개발이냐", "보존이냐" 부산시 「양다리 용역」 관심(국제 5. 14)
* 부산종합건설사 '영세', 조달철 1군 업체 전무, 2군도 1곳 뿐, 한도액 미달(부산 5. 14)
* 부산 춤 내일 가늠할 대형춤판, 14개 단체 참가, 「춤의 해」 축하 큰잔치(부산 5. 14)
* 자치구 뉴스 부산 사하구, 자활기반 완전상실, 영세민 빈곤 악순환, 근본대책 시급(부산 5. 14)
* 서낙동강 정화계획 표류, 하수처리장 건설 늑장, 각종 오수유입 방치(부산 5. 14)
* 쾌적한 「민원환경」 결의, 시·구청, 「친절봉사 자세」 실습교육(시보 5. 21)

5. 15
* 기수요 사라지자 미분양, 해운대 지역 아파트 착공 연기 조치로 인해 수형 물량 감소 불가피(국제 5. 15)
* 부산시, 10부제 운행 적극유도, 주차료 20% 할인 당부(국제 5. 15)
* 부산시의 집계에 따르면 접객업소 불법영업 격감, 3천건으로 감소(국제 5. 15)
* 주차단속 예고제 확대, 일부 구 실시, 시민반응 좋아 시내 전구 실시(부산 5. 15)
* 형식단속, 부서 권한다툼 부산시 보사행정 '한심', 불법진료 한 병원 방치(부산 5. 15)
* 낙동강 연안 상습 침수지 3단계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착수, 15일 기본계획 착수, 올 연말까지 완공(부산 5. 15)

* 철거민 물건 부산시 「공수품」, 하단 가락타운 4천세대 은행 융자 약속 어겨, 주택은 자금난 이유로 거부(부산 5. 15)
* 주차단속사전예고제확대, 「5분 예고제」·「사전 경고제」로 구분(시보 5. 21)

5. 16
* 부산시, 콜레라 재발방지 대책 수집, 올 9월까지 특별 방역(국제 5. 16)
* 하반기 강화를 앞두고 무더기 교통영향 평가 신청, 사업주 요구에 용역사 「엉터리」 작성, 부산시는 상당수를 반려할 방침(국제 5. 16)
* 「가사 부산경제」 활로 찾기 부심, 도시산업 「국제화 소프트」가 열쇠, 막강성장 잠재력 개발해야(부산 5. 16)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29 경남도와 공조 상호발전 물색, 산업복지시설 공동이용 위조(부산 5. 16)
* 부산시, '교통정책심의안' 설치, 이 달 중 '조정 위원회'로 운영키로(부산 5. 16)
* 부산 교통안전 시설물 태부족, 1,718곳 점검결과 116부설, 미비(부산 5. 16)
* 이직사태 부른 격무 박봉, 단속 업무 가중 야근 진절머리, 근무환경 대대적개선 등 시급(부산 5. 16)

5. 18
* 인공섬 건설 부산업체 참여 어려워, 지역경제 왜곡 부채질(부산 5. 18)
* 아파트 주택비중 30%, 시 집계, 부산지역 57만호 중 16만8천호, 단독주택 비중 89년 이후 하락세(부산 5. 18)
* 현안 4장 표류, 주민반발 부딪혀 무산 위기(부산 5. 18)
* 5·18 광주항쟁 12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추모제(민주운동 5. 18)

5. 19
* 변전소 옥내 이전 시급, 시설 노후로 사고 빈발, 한전은 예산 부족 핑계로 외면(국제 5. 19)
* 부산시 공무원 두명이 거액 뇌물 받아, 형질변경 허가와 아파트 사전 분양 등의 미끼로(국제 5. 19)
* 부산지역 단자사 판도변화 바람, 금리 자유화 등 적극 대처(부산 5. 19)
* 롯데에 25억 면세 추진, 국유지 매입 수수료 50억 제외(부산 5. 19)
* 아파트 2/4분기 물량 초과, 3/4분기로 이월(부산 5. 19)
* 시민 학생 6만여명 전국 20여 곳에서 반민자당 시위(민주운동 5. 19)
* 부산연합 '민자당 재집권 저지 및 민주정부 수립 시민대회'(부영극장, 500여명)(민주운동 5. 19)

5. 20
* 아미1, 서대3, 초량5 등 전국 11곳 주거개선 지구 추가 지정, 부산지역은 21개로 늘어(국제 5. 20)
* 여름철 재해 방지에 "비상", 산사태 대비 위험지 19곳 신축 불허(국제 5. 20)
* 택시기사 외면하는 자격시험, 무자격자 3천여명, 업계에서는 인력난을 내세워 마구채용(국제 5. 20)
* 을숙도 분뇨 해양처리 시설 반대, 하단어민 천여명 시위(국제 5. 20)
* 부산항 장기개발 차질, 가덕 신항만 '별로 계획 없다' 시에 통보(부산 5. 20)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30 기업 타국 진출 지금이 호기(부산 5. 20)
* 부산시 지방세 검수 비상, 부동산 경기 침체, 불황 여파 체납액 격증, 3월 현재 6백34억원(부산 5. 20)
* 가덕도, 4곳에 주거단지, 국제공항·자유무역항 등 건설, 연육교 4곳 설치·상업 관광시설 조성(시보 6. 1)
* 체납차량 강력단속, 8천9백대 적발(시보 6. 1)

5. 21
* 유명 상표 도용 8개사 적발, 운동화·지갑·벨트 등 제조 판매(국제 5. 21)
* 부산시, 기본계획안 상주인구 34만 규모, 가덕도 4곳에 주거단지(국제 5. 21)
* 옛 국제 상사 땅 아파트 추진 특혜의혹, 개발 제한 지역 4만평, 10개 업체서 매입, 주민들의 비난(국제 5. 21)
* 부산교통 대해부<1> 짜증 출퇴근 승객분노 폭발, 간선도로 마다 차량 홍수로 신음(부산 5. 21)
* 시립 무용단 정연 <다시 자갈치에서>, 여러 장르 예술인 힘 모아 제작(부산 5. 21)
* 자치구 뉴스 부산 중구, 주차난 해결만이 살길, 도로마다 불법주정차 '북새통'(부산 5. 21)
* 가덕도 개발방안 확정, 상주인구 34만명, 128만평 해상 신도시, 국제공항, 자유 무역항 건설(부산 5. 20)
* 부산자랑순회예술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 11월까지 계속(시보 5. 21)
* 제21회 부산민속 예술평가 및 경연대회, 시 지정 무형문화재 5종목평가(시보 5. 21)
* 동남 개발 연구원 7월 1일 출범,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개발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남개발연구원 성립(시보 5. 21)
* 전세금융자, 영세민 대상 3백만원까지(시보 5. 21)
* 콜레라 예방 특별방역, 부산시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된 콜레라가 금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 예방에 만전(시보 5. 21)
* 자원재활용 참여 늘어, 장려금지급 증가…2백2개 동시(시보 5. 21)
* 시의회 소식, 지방자치 발전토론회에 시의회 배상도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시보 5. 21)
* 「부산직할시립도서관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2923호)(부산교육 5. 21)

*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2924호)(부산교육 5. 21)
*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공포(제2925호)(부산교육 5. 21)

5. 22
* 구름 잡는 장기주택 계획, 시 2001년까지 55만호 건립, 소요 땅 9백만평 부족, 인공섬 5개 규모 필요(부산 5. 22)
* 부산지하철 2호선 공사, 국철 도심교통수단 활용 진통(부산 5. 22)
* 부산시 교통행정 '갈팡질팡', 좌석 버스 전환 인가 돌연 취소(부산 5. 21)
* 국민화합촉진대회, 5월 22일 사회갈등·불신해소·국민화합고취를 위해 국민화합 촉진 결의대 개최(시보 6. 1)

5. 23
* 부산시 교육청, 직업교 94년에 신평·장림 공단에 5개 학과 10학급 신설계획(국제 5. 23)
* 「문화의 거리」 축제 개막, 관광객에 전통 민속·무용·연극 소개(국제 5. 23)
* 부산 고가로 50km건설, 교통난 해소 10개년 기획 대폭 수정, 96년까지 1조원 투입(부산 5. 23)
* 부산업계 '탈불황몸부림', 8개 기업 4개 지역 순회 본격 상담, KOTRA에 정보 수탁의뢰 올 들어 128%나 늘어(부산 5. 23)
* 승강기 격층 운행, 에너지 절양 종합대책 마련(부산 5. 23)
* 부산을 아시아 주역으로 31 자본, 인력, 정보의 유기적 연결을, 세계 금융중심지 조성시급(부산 5. 23)
* 풍성한 「문화의 거리 축제」, 부산시가 주최하는 부산 「문화의 거리 축제」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해 오는 21일까지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시보 6. 1)
* ILO 부산양산공대위 주최로 '총액임금제 분쇄와 92 임투 승리를 위한 부산양산노동조합대표자회의'가 40여명의 노조 및 단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민주운동 5. 23)

5. 25
* 「동래의회」 17의원 사퇴서, 의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결의(국제 5. 25)
* 부산시 공동 주택 건설 "뒷전", 올 들어 실적 한 채도 없어, 연간 목표달성 의문(국제 5. 25)
* 노점상 단속반 마찰 극심, 잠정허용구역까지 철거(국제 5. 25)
* 부산시, 에너지 절약대책으로 내달부터 승강기 격층 운행, 사무실 등의 백열등을 금지(국제 5. 25)
* 종합병원 「특진제」 악용, 환자에 바가지, 수입 급급(국제 5. 25)
* 부산시 해직교사 복직 서명 운동, 교육청 철회 강요 말썽(국제 5. 25)
* 을숙도에 「시민의 숲」 만들다, 부산시 8억5천만원 투입, 94년 완공(부산 5. 25)
* 제13회 시의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등 다뤄(시보 5. 21)

5. 26
* 부산시의회 상위 추경예산 심사, 청원 등 심의(국제 5. 26)
* 공공주택 건설 계획차질 택지 개발에 문제있다, 화명·광안 지구 민간업자 참여거부, 8천6백세대 난관(국제 5. 26)
* 도시계획 편입토지 보상 수십 년째 늑장, 지주들 "사유권 침해" 반발(국제 5. 26)
* 시유지 무단 점용 구청서 묵인, 「해상개발」 수영 매립지에서 한 달째 선박건조(국제 5. 26)
* 부산시, 관행사에 성금근절, 기업·개인 불만해소(국제 5. 26)
* 부산시, 공해배출 과징금제 은밀추진 환경 보전 뒷전, 업체 편의(국제 5. 26)
* 청사진 없는 부산항<1> 가덕도 건설 좌절로 확장 중단, 96년 후엔 공간 없어 한계도달(부산 5. 26)
* 부산 불황 전업종 확산, 주종 산업도 위축 심화, 생산지수 전년비 10.7% 감소(부산 5. 26)
* 자치구 뉴스 부산 동구, 수정 3·4동 아파트 단지, 건물노후, 슬럼화(부산 5. 26)
* 「새질서 100일 작전」 주춤, 노점상 집단 반발, 정치권서 제동, 시, 대상 축소 재조정(부산 5. 25)
* 실질 지원 대책마련, 부산시는 5월 26일까지 실제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를 조사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시보 5. 21)

5. 27
* 경기침체 지방세 징수 부진, 81.2%로 작년보다 2%p 낮아(국제 5. 27)
* 문화회관·수련관 건립지시에 구청곤욕,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며 구청과 시민들 반발(국제 5. 27)
* 부산시, 콜레라 검역 강화, 동남아 등 콜레라 발생지역을 여행하고 온 여행객들에 대해(국제 5. 27)
* 유해물질 관리체계 허술, 관리감독권이 부산지방 환경청과 시로 이원화 돼 관리가 난항(국제 5. 27)
* 북구청, 공해 배출금 미납에 첫 공매 처분 요청(국제 5. 27)
* 부산시 동래구 의회 이종원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전격 기각, 의원들의 반발(국제 5. 27)
* 부산에 세정민관 협의회, 전국 두 번째 결성, 납세자 의견 집적 청취(부산 5. 27)
* 부산교통 대해부<2> 도로 증가율 고작 연 0.33%(부산 5. 27)
* 추경예산예비심사착수, 부산시의회는 5월 27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시와 시교육청이 낸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내고 계수 조정 작업을 벌여(시보 6. 1)

* 특별교육실시, 시는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폐지와 신원 조리 절차 간소화에 관해 여권발급수속대행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실시(시보 6. 1)

5. 28
* 남구청, "불친절·반말", 대민자세 문제 많다, 공무원 이색 자아비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국제 5. 28)
* 군 사격장 옆에 학교승인, 시와 교육청은 장림고교 설립에 따른 환경 무시(국제 5. 28)
* 낙동강 하류 부영양화 비상, 조류 이상 번식으로 오염이 가속화(국제 5. 28)
* 자치구 뉴스 부산 서구, 졸속 복개공사 비만 오면 침수, 유수량 잘못 측정, 하상도 높여(부산 5. 28)
* 급 배수관, 케이블 등 지하 매설물 96년까지 지중현황 전산화, 부산시 31억원 들여 대장정비(부산 5. 28)
* 개인 서비스료 특별관리, 협조업소 수수료 할인, 개인 서비스 요금 상승 7%이내 억제조치(부산 5. 28)
* 가덕도, 신항만 개발 '최적', 북항 맞먹는 양항가능(부산 5. 28)
* 물가안정대책추진, 4월말 소폭인상 계기…절약분위기 조성(시보 6. 11)
* 김시장 예방환담, 김영환 부산시장은 5월 28일 접견실에서 세계은행 평가단 일행을 환담(시보 6. 1)

5. 29
* 아파트 단지 관리 허술, 부산시의 조사, 법정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나(국제 5. 29)
* 부산시, 인사(국제 5. 29)
* 부산물가 전국 6대 도시 중 최고, 개인 서비스료가 주요인, 주산학원비 27%, 미용실 22% 올라(국제 5. 29)
* 일선구청, 「땅 개발이익 부담금」 실효, 국고 손실과 특혜 의혹(국제 5. 29)
* 구의원 17명 등원거부, 동래구 의장 불신임안 직권기각에 반발하여(국제 5. 29)
* 부산시 도시가스 "배짱장사", 2년째 흑자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고가를 적용(국제 5. 29)

5. 30
* 해항권 넘겨달라, 부산시 관장 해역 1%에 불과, 수입도 전체 8백50억 중 16억 뿐(부산 5. 30)
* 1인당 예산 수혜액, 도로, 주택 보급률 전국 최악, 정부 지원, 보조금 홀대, 주거환경 개선대상 전체의 32% 보유(부산 5. 30)
* 부산을 아시아 주역으로-제조업집착보다 서비스기능 강화(부산 5. 30)
* 당직 전담제조 추진(부산 5. 30)
* 부암 고가도로 8개월째 낮잠, 주민 설계 변경 요구, 시 강행 계속 맞서(부산 5. 30)
* 깨끗한 산림 가꾸기, 고원견산 등 16개소에서(시보 6. 11)
* 전국 138개 대학 학생 5만여명 전대협 제6기 출범식 개최(민주운동 5. 30)
* 부산연합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9개 참가단체(민자통, 민가협, 민교협, 부민청, 노단협, 여성회, 부경총련, 부미연, 장재완 양영진 추모사업회)로 자주통일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얄리아부대 등 미군기지 철폐투쟁' '부산항 핵항모함 입항 저지투쟁' '제국주의 문화(마약, 에이즈) 침투 저지투쟁' 등의 사업 추진(민주운동 5. 30)

6. 1
* 구청사 좁아 업무 차질, 예산 부족과 땅 매입이 어려워 확충은 감감한 실정(국제 6. 1)
* 부산시, 덕천 배수장 제구실 의문, 비상 전원 안 갖춰 전정 때 속수무책(국제 6. 1)
* 시내버스 난폭운행 여전, 요금인상 불구 개선 외면(부산 6. 1)
* 자치구 뉴스 부산진구, 서면 철재상 96개소 엄궁 유통단지로 이전 계획(부산 6. 1)
* 부산시, 여름철 재해 등 적극 대처 시청 회의실에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조례(시보 6. 11)
* 문예 진흥 활동지원, 부산시는 92년도 하반기 문예 진흥활동사업 지원신청을 6월 1일부터 20일까지(시보 6. 11)
* 승객안전위해 버스베이 설치, 부산시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승객의 무단 승·하차를 막기 위해 「버스베이」를 설치키로(시보 6. 1)
* 임해행정시설확대, 7월 1일부터 해수욕장 개장준비 지침 마련(시보 6. 1)
* 각종 행사 위한 찬조금 모집금지, 부산시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과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찬조금을 모집하는 것을 일체 금지토록 긴급지시(시보 6. 1)
* 민원서류조기발급, 1일부터…1시간 빠르게(시보 6. 1)
* 충렬사제향 엄수, 김시장 호국선열 높은 뜻 기려(시보 6. 1)
* 모내기 일손 돕기 추친, 부산시는 봄철, 가을철 영농기간 동안 시 구동에 「일손자원센터」 창구를 설치, 지역 순회농기구 수리 봉사 등(시보 6. 1)
* 산사태위험지역안전진단, 부산시는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역과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밀 안전 진단 등 보안대책을 마련(시보 6. 1)
* 새마을시설을 일제정비, 5천여개소조사 활용도 낮은 것 폐지(시보 6. 1)
* 산업구조개편수송체계개선, 부산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대책」 마련(시보 6. 1)

* 35억1천만원 확보, 부산시는 관외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결과 35억1천만원 확보(시보 6. 1)
* 청소행정 기구개편, 쓰레기 처리난이 갈수록 가중됨에 따라 시와 일선구청의 청소행정기능이 크게 보강·개편되고 명칭도 바뀌게(시보 6. 1)

6. 2
* 「용호 지역 주민과의 대화」 다시 결렬, 하수처리장 확장 난항(국제 6. 2)
* 부산시, 쓰레기 매립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 계획(국제 6. 2)
* 부산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공원·박물관 등 무료, 시내버스·지하철도 무료(국제 6. 2)
* 주차료 불법 징수, 「무역구역」서 3개월이나 주차료를 불법 징수, 시민들의 환불요구(국제 6. 2)
* 부산 경찰청, 비리경찰 「공적간주」 엄벌, 경찰의 근무기강을 확립토록 1일 긴급지시(국제 6. 2)
* 일본뇌염모기발견,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에서도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뇌염모기가 발견되어 어린이 80만명 대상으로 예방접종 실시(시보 6. 11)

6. 3
* 무료 건강진료 "있으나 마나", 한정된 기간 때문에 생업에 쫓기는 영세민들이 이용 불편(국제 6. 3)
* 택지 초과 부담금 "불공평", 기업주의 잇단 악용사례가 적발되고 있어(국제 6. 3)
* 부산시, 시민대강당에서 70쌍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개최(국제 6. 3)
* 하반기 경기로 불안, 상의조사 업체 86% 부정적 전망(부산 6. 3)
* 건설업계 규제조차로 허우적, 올 들어 허가면적 전년비 43%감소(부산 6. 3)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33 기초과학 육성 기술발전 촉진, 소프트웨어 연구센터설립절실(부산 6. 3)
* 수영만 매립지 12만평 개발 않고 1년째 방치(부산 6. 3)

6. 4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키자" 부산에도 환경바람(국제 6. 4)
*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 「바가지」 퇴폐영업, 24곳 적발해 행정처분(국제 6. 4)
* 부산 첫 뇌염모기 발견, 지난해 보다 15일 빨라(국제 6. 4)
* 부산시 택지 20% 「고급」 전환 하반기 2천대, 중형 요금보다 2.5배 비싸(국제 6. 4)
* 부산교통 대해부<3> 작년 인구 1만명 당 30명 희생, 법규 경시 보행자 사망률 73%(부산 6. 4)
* 항만 배후도로 특별회계 거래 은행, 1조원 유치경쟁 치열(부산 6. 4)
* 자치구 뉴스 부산 동래구, 연산행정, 명륜상업, 온천관광고속, 시외버스터미널로 이전(부산 6. 4)
* 석대동 쓰레기 매립 계속키로, 시, 새부지 확보 차질 계획 변경(부산 6. 4)

6. 5
* 부산시, 재선충 방지 항공 방재 실시키로(국제 6. 5)
* 부산지하 공간 먼지 공해 심각, 대현 지하상가는 기준치의 2배(국제 6. 5)
* 작년 도시가스 사용 급증, 총 사용량 지난해 비해 8.5% 증가(국제 6. 5)
* 충혼비 제막 "23용사여 고이 잠드시라", 6·25 때 산화한 용사를 기려(국제 6. 5)
* 부산, 경남 공해업체 이전 집단화 등 추진(부산 6. 5)
* '신발 연구소 지원' 빈말, 기술 분담금 11억 출연 난망(부산 6. 5)
* 을숙도 쓰레기장 조성 마찰우려, 환경평가 미흡, 의견수렴도 형식적(부산 6. 5)
* 주차난 해소책 실효 못 거둬, 운동장 유료화 겉돌아(부산 6. 5)
* 시민황경회의 정례화, 부산대기, 수질정책 감시 역할 주력(부산 6. 5)
* 제20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 환경보존 결의 새롭게(시보 6. 11)

6. 6
* 제37회 현충일 추념식, 중구 대청동 대청공원에서 김영환 부산시장 등이 참석(국제 6. 6)
* 부산시, 「주거 환경 개선」 융자 금액 올려 부산에 600억 추가지원(국제 6. 6)
* 부산시, 「복지」 요원 배치 전시행정 표본, 구세 따라 마구잡이식 배정(국제 6. 6)
* 청사진 없는 부산항<3> 개발현황과 문제점, 새항만 건설 의거 결여(부산 6. 6)
* 부산항 미·러·중 교역중심 환적항 부상, 부산항 환적화물처리 비중 지난해보다 112%증가(부산 6. 6)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34 대학연구세계수준 제고를, 문호개방, 경쟁체제 도입 등 필요(부산 6. 6)
* 구청 복지전문요원제 '아득', 박봉에다 인력부족…영세민 행정 말뿐, 188명이 3만2천세대 맡아(부산 6. 6)
* 부산조경행정 엉망, 부산시장 직속기관이 더 무관심(부산 6. 6)
* 제37회 현충일 추념, 충혼탑에서 엄수(시보 6. 11)

6. 8
* 부산항 배후로 도로 차질, 3단계 2공구 편입지 보상 늦어져 공정에 큰 차질(국제 6. 8)
* 아파트 미분양 갈수록 확산, 지난달 전체 8백97세대 분양 안 돼(국제 6. 8)
* 부산시 새 청사 부지 맞은편 2만평 "분양 눈독" 43개 기관 "노른자위 전쟁"(국제 6. 8)
* 부산 북구청, 구청 단위 첫 민간 사업체 추진(국제 6. 8)
* 「극동부지매매」 민원불씨우려, 성업공사, 5.8정부 비업무용 분류 매각(부산 6. 8)

* 부산해안선 거적 불부합 14만5천여평, 건우도 만6천평 늘고, 동삼동 7천여평 줄어(부산 6. 8)
* 집행예산 정밀 검사, 시의회 대형공사 현장 확인도(시보 7. 1)

6. 9
* 부산지방국세청「호화·투기」32명 세무조사(국제 6. 9)
* 시속 10km 기준 최고 66만대 수용, 한 대당 평균 16.8㎡ 차지, 2천년대 거북주행(국제 6. 9)
* 아파트 신축 집단민원 줄이어, 일조, 조망권 침해 이유(부산 6. 9)
* 수영천 강변로 계획안 변경, 주민, 시 고시안 '현실여부무시' 주장(부산 6. 9)
* 「컨」하우스「뜨거운 감자」, 부산시 철거거시, 구청선 장비 전무, 2천여개 난건, 매립 처리장도 없어, 지역별 차등 허가 건의(부산 6. 9)
* 부산경제 4중고 심화, 부산지역 생산, 내수경기 둔화, 인력난으로 크게 수축(부산 6. 10)

6. 10
* 골재부두 옮긴다, 해운대 군시설 내로 추진(국제 6. 10)
* 부산시 경제 긴급 수혈, 시동향 보고회 작년비 수출 14.9% 감소(국제 6. 10)
* 부산시 재산세(개인주거) 1위 황확구씨(국제 6. 10)
* 부산 경찰청, 유실물 관리·감독이 엉망, 수고비를 강요하거나 보상금 비리가 발생(국제 6. 10)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35「컨」유치 경쟁에 사활 걸자, 물량 뺏기면 21세기 전도 암울, 광양항, 일 후쿠오카 도전 심각(부산 6. 10)
* 대체선착장 요구 어민반발, 제2녹산 수문개방 차질, 장마철 농경지 침수우려(부산 6. 10)
* 지자단체 수익사업 벌인다, 도선장, 세차장등 대상 11개 선정(부산 6. 10)
* 건물 재산세 23% 늘어, 시민부담 가중…납세이전 5% 증가(부산 6. 10)
* 지하철공사 차질 우려, 부산 유일 관급공사장, 선호 잔토처리장 인근 주민들 집단민원으로 검정 폐쇄(부산 6. 10)

6. 11
* 건축허가 동이관 시기상조, 인력충당 안 돼 큰 불편, 법 개정 서둘러 되레 업무 혼란초래(국제 6. 11)
* "확장도로" 있으나 마나, 그 곳 연결 계획로 미개설 무용지물(국제 6. 11)
* 부산시, 경영수익 사업 본격 추진(국제 6. 11)
* 부산시 택시 증차 "주먹구구", 기사난 속 업체만 배불려(국제 6. 11)
* 교통특별회계 설치, 교통난해소 사업 위한 재원 안정적 확보 위해 12개 자치구에 설치(부산 6. 11)
* 부산시 행정기능 대폭 손질, 11개 분야 108건 조정보완(부산 6. 11)
* 경영수익사업본격추진, 시는 1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 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구청에서 지역특성에 맞춰 경영 수익 사업 본격 추진(시보 6. 22)
* 인사, 아동청소년회 관장 강대치 외 24명(시보 6. 11)
* 네온사인 2개 이상금지, 1일부터 밤 11시 이후…위법 땐 고발(시보 6. 11)
* 위험 지역정비, 피해최소화, 시 재난대비「시민 행동요령」마련(시보 6. 11)
* 종합토지세 과제자료 공량, 92년도, 25일까지 이의신청도(시보 6. 11)
* 생보자에 현금지급, 7월 1일부터 양곡 지급제 폐지(시보 6. 11)
* 도시통과 철도 대중교통으로, 부산시와 교통부 철도청은 관계관 회의가 따라 도시 교통난 해소와 금년 하반기에 착공될 지하철 2호선 공사에 대비해 철도노선을 시내교통의 주요수단으로 활용(시보 7. 1)
* 부당 찬조금품 징수 근절 대책을 위한 공청회(부산교육 6. 11)

6. 12
* 부산시, "민방위" 민생방위로 전환(국제 6. 12)
* 부산교통난 숨통 트인다, 시, IBRD차관 1억2천만불 들여 대폭 개선(부산 6. 12)
* 부산시 금고대행업무 왜 전환 못하나, 부산, 동삼동 지역 은행 찬밥, 92년 예산 중 65%차지(부산 6. 12)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36 관문도시 조성에 4조6천억 소요, 시민 1인당 116만원 꼴 부담(부산 6. 12)
* 부산시 직원 모내기 도와, 2백여명 강동동서(시보 6. 22)
* 실종자 찾기·범죄신고 등 활용, 민방위 훈련 대공서 치안위주 전환(시보 6. 22)

6. 13
* "부산경제 살려 달라" 긴급요청, 정부선 묵묵부답, 상의 건의 10개항에 대해 거의 회신조차 없어 지역 경제 정책에 불신을 초래한다는 우려(국제 6. 13)
* 부산시, 홀로 사는 노인 늘어난다, 본인의 희망 70%차지, 2천6백세대로 확인(국제 6. 13)
* 부산시, 생보자 무료진료,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만7천5백35명 대한 무료 건강진단 실시(국제 6. 13)
* 하달공문 폭주, 동 업무 마비, 지자체 실시 후 구청 부서 증설, 종전 10건이었던 서류가 20건으로 늘어(국제 6. 13)
* 해상오염 방지책 시급, 항만 선박 기름 유출 갈수록 대형화(국제 6. 13)

* 진우도 공원화 계획 4개월째 표류(부산 6. 13)
* 장마철 수해대책 허점투성이, 구청 건설인력 새 질서 단속요원 차출(부산 6. 13)
* 기업, 공영 개발 참여 기피, 부산시, 장기불황 수익적다 이유, 17개 현안사업 중단위기(부산 6. 13)
* 1회용품 안 쓰기 등 실천, 「식생활문화」 개선 강력 추진…새 질서차원서, 과외·과소비·외식 등 추방해…우수업소 발표(시보 6. 22)
* 사립유치원 연합회 자연보호 활동(부산교육 6. 13)
* 제2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대구, 광주, 경기, 전북, ~6. 16)(부산교육 6. 13)
*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주최로 재야 학생 시민단체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쟁취와 민주대개혁을 위한 부산시민 결의대회를 부산대 운동장에서 개최(민주운동 6. 13)

6. 15
* 부산지역 일부 구청이 「반상회보」를 폐지하고 민원내용·처리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컬러판 「소식지」 발간하여 구정을 홍보(국제 6. 15)
* 단체장 선거 쟁취 확산, 시민대회 열려 지자체 단체장 선거 조기 실시 주장(국제 6. 15)
* 대형건물 주차난 부채질, 현실 못 따르는 주차장 법 개정(국제 6. 15)

6. 16
* 환경 관련 업무 수행 "흔들", 인력확보 문제로 마찰, 시 장비 77%에 그쳐 단속 불가능(국제 6. 16)
* 부산시,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몽땅 영업용으로 발부하여 소유자들의 항의가 빗발(국제 6. 16)
* 부산시, 3월 완공 분뇨해양 투기 시설 「지각」 환경영향평가 말썽, 주먹구구식 행정처리(국제 6. 16)
* 「리우 파고」는 몰려오는데, 업체, 환경문제 「강 건너 불」(국제 6. 16)
* 부산에 첫 양곡 도매시장, 값 조작 횡포 근절 기대, 서면서 17일 개장(부산 6. 17)
* 수출 계속 내리막길, 부산 5월말 현재 작년보다 20.9%감소(부산 6. 16)
* 아파트 남아돈다,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 다달이 증가, 5월말 8백70가구(부산 6. 16)
* 자치구 뉴스 부산 해운대구, 수영 강변로 건설, 6월 착공(부산 6. 16)
* 교통행정 유관부서 다원화, 업무상충, 협조 안 돼 대책추진 차질(부산 6. 16)
* 건축물 재산세 납부, 6월말까지 자동차세도 당부(시보 6. 22)

6. 17
* 경부 고속철도 부산노선 확정, 금정산 등 환경 훼손 우려(국제 6. 17)
* 부산시, 4천억원의 예산을 들인 제2도시고속도로 제구실 못할 판,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국제 6. 17)
* 개인택시 면허기준 잘못됐다, 개인택시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국제 6. 17)
* 부산시 의회, 택시 증차 강행에 제동, 교통 국장 해임건의라는 강경책 준비(국제 6. 17)
* 인공섬·해운대 신시가지 등 관급공사 설계 서울 업자 폭식, 전문기술축적 기대난(부산 6. 17)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37 1년 재임 공무원 「백년대계 수립」 안될 말, 전문 인력 없어 시주도 기대 무리(부산 6. 17)
* 건축물 부설기계주차장관리, 지도 법 제정 시급(부산 6. 17)
* 부산 「해양신도시」 되나 안 되나, 기온설계, 환경평가 협의 등 가시화(부산 6. 17)
* 부산시, 연산동 일대에 들어설 경찰 청사 계획 무산위기(부산 6. 17)

6. 18
* 구청장 정보비 대폭증액 말썽, 3천~7천만원(국제 6. 18)
* 부산 경제 긴급지원 요청, 항만 수입이 귀속과 신발 자금의 금리인하 요구(국제 6. 18)
* 부산시, 근로자 아파트 26일 분양, 9백99세대(국제 6. 18)
* 공직자 연찬회 개최, 황령산 야영지에서(국제 6. 18)
* 부산시 보건 환경 연구원, 지하 식수도 "불안하다", 대장균등이 검출된 것이 35%로 부적합 판정(국제 6.18)
* 부산시, 미남백화점 매장 불법분양을 경찰에 조사 요청(국제 6. 18)
* 부산교통 대해부<5> 유야무야된 종합 본부 설립(부산 6. 18)
*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 각 구청 현장중심…신속처리, 상하수도·청소·고발 등 중심(시보 6. 22)
* 주택건설 사업승인 규제완화, 최근 건축경기 등 진정으로(시보 6. 22)
* 우주베크공 카대통령 내부, 우주베크공화국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부산과 창원의 공장시설을 사찰했고 김영환 시장과 협력 방안 논의(시보 6. 22)
* 부산시, 본격적인 지방화를 맞아 국과장·동직원이 함께 봉사다짐을 하는 연찬회 개최(시보 6. 22)
* 부산시, 주민위주 민원행정 쇄신추진, 지역 개발 등 4개 분야…민주봉사실천 다짐(시보 6. 22)

6. 19
* 주택조합 가입 무자격자 격감(국제 6. 19)
* 부산시, 지육 불법 반입 정육업자 고발(국제 6. 19)
* 시외버스터미널 외각 이전, 동부는 구서, 서부는 김해 공항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국제 6. 19)

* 마을버스 신설 운행, 반송 주공~반여, 삼락 부락(부산 6. 19)
* 덕천IC 확장계획 연계 수송체계엉망, 낙동대로와 단절…체증 되레 부채질(부산 6. 19)
* 녹산 선착장 건설 어물어물, 국토청 부산시 책임 전가(부산 6. 19)
* 부산시 공유재산 관리 허점 많다, 민소 잇단 패소「재정누수」심각(부산 6. 19)
* 「주말 농·어민시장」운영, 농·수산물, 도시민에 직접 공급(시보 7. 1)

6. 20
* 달맞이 일대 경관 훼손 우려, 법적 규제 없어 건물 건립 잇따라 추진(국제 6. 20)
* 경부 고속 철도 노선 부산 실정 외면 "종점 외각 이전" 해야, 소음·진동 극심(국제 6. 20)
* 지방세수 시원찮다, 경기부진, 작년 수준에 그쳐(국제 6. 20)
* 백사장 정비 예산만 낭비, 송도·다대포 해수욕장 구실 상실(국제 6. 20)
* 옥외 광고물 관리 허점 홍보 부족 신고율 10%(국제 6. 20)
* 부산시,「체증부산」탈피 21세기 교통망 구축, 현실 고려 않은「과대포장」지적도(국제 6. 20)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38「물류혁신」으로 국제화물 유도, 유통체계 미비 연간 2조원 손실, 연계 수송 물동량 불과 8.7%뿐(부산 6. 20)
* 고속전철「지하터널식」공식요청(부산 6. 19)
* 부산에 종합정보처리센터 추진, 내년 착공 96년 9월 완공(부산 6. 20)

6. 22
* 부산지방국세청, 부가세 신고 부실 7곳 세무조사(국제 6. 22)
* 부산시와 한국 고속철도 건설 공단, "고속 철도 고가화" 대립 팽팽(국제 6. 22)
* 유흥업 단속, 소형만 "마구잡이", 실적 올리기 급급, 경미한 위반사례 전체 적발 61.4%나(국제 6. 22)
* 대우 마리나 등 아파트 입주민 재산세 거부(부산 6. 22)
* 장림하수처리장 증설 진통, 시, 수자원 공사 대금상환에 이견(부산 6. 22)
* 생보자 무료 건강진단, 1·2차 나눠 1만7천여명(시보 6. 22)
* 손님장이 친절 운동전개, 피서철 대비, 해수욕장·유원지 중심으로(시보 6. 22)
* 고부갈등·가족불화로 별거, 시, 홀로 사는 노인 실태 조사 분석(시보 6. 22)
* 부산시 금정근로 청소년회관 개관, 근로청소년 복지증진 위해 건립(시보 6. 22)
* 부산시의회, 광역의회 개원1주년을 앞두고 의정활동 1년에 대한 평가 작업 준비(시보 6. 22)
* 부산대, 숭실대 등 전대협 소속 대학생 100여명, 민자당 중앙당사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극동빌딩으로 몰려가 당사 진입을 시도하며 전투경찰과 집단 난투극을 벌이다 이중 5명이 8층 사무실로 들어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즉각 실시' 등을 요구하며 농성(민주운동 6. 22)

6. 23
* 잦은 세무조사, 사업자 위축, 올 들어 특별조사 한두 달에 한 번꼴, 그나마 형평성에 문제(국제 6. 23)
* 을숙도 철거민 농성, 보상용 아파트 융자 거부 반발(국제 6. 23)
* 부산시 교육청, 국교교사 청간 전보 추진, 인사기준 보완하여 내년에 실시(국제 6. 23)
* 부산·경남 사태 위험지 4백여 곳 방치, 장마 무방비(국제 6. 23)
* 부산시, 순환도로 계획 확정 낙동대로 등 3곳 6천억 투입(국제 6. 23)
* 부산시와 동래구청, 가스충전소 특혜 허가 계획도로 변경에 사업 개시일도 연장, 주민들의 반발(국제 6. 23)
* 자치구 뉴스 부산 강서구, 녹산 제2수문한달 째 개방 못 해, 태풍 땐 대규모 선박피해 우려(부산 6. 23)
* 부산, 유해성 폐건전기 분리수고, 초·중·고교 아파트 단지에 수집함 설치(부산 6. 23)
* 부산교통공원 최대 운영난, 지하철 공기 연장 불가피(부산 6. 23)
* 부산경남 민교협 부산교사추진위 전교조 부산지부 부산대 사대학생회 대표, 전교 조지부 사무실에서「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부산본부」결성(민주운동 6. 23)

6. 24
* 부산 체육회 사단 법인화 좌초위기(국제 6. 24)
* 분뇨해양투기 오늘부터 실시, 을숙도 선착장에서 해양처리 기반시설 개소식을 가져(국제 6. 24)
* 부산·경남 공단 최저 기온 상승, 평균기온도 높아 열섬 현상 심화, 양산은 연 0.28도 부산은 연 0.23도 기온 상승(국제 6. 24)
* 부산시 재향군인회, 부산 시민회관에서 6·25 자유수호 전쟁 제42주년 부산 시민대회 개최(국제 6. 24)
* 부산시, 동래 백화점 건립 허가(국제 6. 24)
* "비온다" 미터기 검사 중단, 6백여대에 대한 미터기 주행검사가 미뤄져 기사들의 항의(국제 6. 24)
* 10부제 차량 20% 할인, 세차장·급유·카인테리어 업소도 할인에 결의(국제 6. 24)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39 유럽에 부산 진전기지 구축을, 해운, 시장 네트워크 확장시급(부산 6. 24)

* 부산 강서구 7개동 주민대표는 2일 강서구청회의실에서「서낙동강 강물 살리기 모임」발족식 가짐(국제 3. 3)
* ~27일까지 고노협 6월말 현재 도산업체 60여개, 실직노동자 2만천여명, 체불임금 239억원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고노협 소속 고무노동자 10명은 고무노련 영남무소 사무실에서 고용 문제에 대한 고무노련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임금 6% 인상 합의에 항의단식(민주운동 6. 24)
* 부산지방법원,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한 鄭宰星 변호사에게 국가가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법원사 6. 24)

6. 25
* 외국 관광객도 감소세, 관광자원 부족이 이유, 적극적 관광지원 개발이 시급(국제 6. 25)
* 부산시, 주말 농어민 시장 운영, 동래・남구 2곳에 설치(국제 6. 25)
* 시내버스, 택시 횡포 여전(국제 6. 25)
* 부산시, 차량 매매 무제한 허가, 7월 1일부터 시행, 정수제는 폐지(국제 6. 25)
* 구청 공무원 인사 "들쑥날쑥", 부산시 하위직 승진 "하늘에 별따기"(국제 6. 25)
* 부산교통 대해부<26> 지하철 수송 분담율 고작 7%, 서울은 21%…2호선 조기 개통시급(부산 6. 25)
* 자치구 뉴스 부산 영도구, 상수도 보급률 98%, 평균 급수율은 최하, 물 받는게 최대 일과(부산 6. 25)
* 부산연합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가두 서명(부산역, 150명)(민주운동 6. 25)

6. 26
* 너도나도 백화점・쇼핑 이름, 요건미비 유통업체가 간판 걸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국제 6. 26)
* 부산 금융 기관「개방 대응」활발, 단자「종금사」준비 직원교육, 해외연수(국제 6. 26)
* 제18회 부산 미술대전 결산, 실험작 눈길, 그러나 장르가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어(국제 6. 26)
* 강서구청, 지방 행정 추진 실적평가 최우수, 내무부 지방 경영, 행정 추진 실적평과 결과(국제 6. 26)
* 사상로 최악 교통 체증 우려(국제 6. 26)
* 부산시 교육청, 교육대 개혁과 해직교서 원상 복직을 위한 전국교사 추진위원회에 참가, 활동하는 교사는 국가공무원 법에 따라 중징계(국제 6. 26)
* 부산시, 선경 아파트 또 제동,「교통평가」재심결정, 미남백화점은 심의 보류(국제 6. 26)
*「석대 매립장」잡아라 20만평 최대 시 부지, 9월 착공 완료(국제 6. 26)
* 올 부산 수출 27억달러, 작년보다 15% 감소, 경기회복 조짐도 없어(국제 6. 26)
* 공과금 납부기간 연장, 현행 10일에서 30일간으로 연장(국제 6. 26)
* 부산시, 인사(국제 6. 26)
* 영도는 교통대책 소외지역, 관광객, 주택, 차량 급증…시설 제자리, 주요 거점 포화(부산 6. 26)
* 공원부지점, 사용료 납부 거부, 금정산 금강공원, 유기장 업주, 사찰, 3억 체납(부산 6. 26)

6. 27
* 해운대 신시가 7월말 착공, 6개 공구 내달 14~16일 입찰하기로(국제 6. 27)
* 부산시, 자동차 관리사업의 확충을 위해 자동차 매매업 무제한 허가(국제 6. 27)
* 피서객 수송 대책 마련, 해수욕장 주차장 25곳 확보, 단계별 차량통제도 실시할 예정(국제 6. 27)
* 부산시 구청 여직원회 사회봉사 활발, 분위기 쇄신에 한몫(국제 6. 27)
* 부산, 아시아 주역으로 40 단순해항 아닌 전보항 기능 최고, 수산자료 데이터베이스화(부산 6. 27)
* 부산도심 군부대 2곳 29일 이전, 연산동 오륙도, 광안동 측지 부대(부산 6. 27)
* 금정근로청소년회관 개관(부산교육 6. 27)
* 부산연합 범민족통일운동선포식(부산대 1,000여명)(민주운동 6. 27)

6. 29
* 부산에 러시아 영사관 한・러 외무, 기본 조약 등 합의(국제 6. 29)
* 부산시,「엄궁 청과 시장」구조에 문제, 영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할 것으로 예상(국제 6. 29)
* 보상비 절반 책정 큰 반발, 항만 배후도로 편입 주민 이의 신청(국제 6. 29)
* 영농공 무시, 방책 설치, 시 종합건설 본부에 보상 요구(국제 6. 29)
* 교통 영향 평가 유명무실, 강제력 없어(국제 6. 29)
* 하반기 관급공사 대량 발주, 부산 녹산공단 내달 입찰(부산 6. 29)
* 부산, 영남 광역행정협 '무기력', 예산 등 핑계시도 관계자 무성의, 영남권 발족 후 실적 전무(부산 6. 29)

6. 30
* 아파트 대량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등 주택 경기가 침체되자 아파트 착공을 미뤄(국제 6. 30)
* 부산시, 아파트 부지 공급 늘여, 공영개발지 중 90% 공동택지로(국제 6. 30)
* 부산시, 7월부터 시내 4백60개 초중고교와 6층 이상 고층아파트 단지 대상으로 폐건전지 분리수거하기로(국제 6. 30)

* 부산시, 78개의 각종 신고센터를 7월 1일부터 26개로 통폐합 운영키로(국제 6. 30)
* 부산시 교통당국,「중고차 행정」오락가락, 정수제를 폐지한지 하루만에 번복(국제 6. 30)
* 자치구 뉴스 부산 북구, 사상로, 지하철 2호선 공사 본격화, 일방통행 등으로 해결에 한계(부산 6. 30)
*「전시행정」신고창구 통폐합, 구청, 동 등 78곳 26개로 줄여(부산 6. 30)
* 부산, 마산, 김해, 양산, 울산 연결 광역 전철망 구축건의, 부산시 고속철도 부산 전 구간 지하로, 지하철 건설 2조7천억원 부족, 60% 국고 지원해야(부산 6. 30)
* 부산·경남 지역 무선호출 사업자 신청마감, 평균 4.1:1의 경쟁률을 보여(부산 7. 1)
* 강서구 녹산동 일대 불법 건축 성행, 30일에 철거 작업을 했으나 실패해(부산 7. 2)
* 북양 진출 교두보 확보, 러시아 연방 블라디보스톡시와 6월 30일 자매결연을 체결(시보 7. 1)
* 부산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와 자매결연 체결(부산교육 6. 30)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市와 姉妹結緣 調印(직할30년 6. 30)

7. 1
* 부산지방국세청, 인사(국제, 시보 7. 1)
* 부산 노점상 연합 재건, 새 생활 새 질서 실천운동 1백일 작전으로 당국의 노점상 단속이 강행되자 부산지역 노점상들이 노점상 연합회를 재건,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임(국제 7. 1)
* '을숙도 매립장' 무산위기, 문화재 관리국(국제 7. 1)
* 부산지역 중소 건설업체 부도 "도미노", 각종 규제와 불황이 계속되어 작년대비 209% 늘어(부산 7. 1)
* 부산지역 백화점 여름 상품 판매 부진(부산 7. 1)
* 부산시 24억 투입 올 여름 전염병 예방(부산 7. 1)
* 부산시 5개 해수욕장 개장(부산 7. 1)
*「좋은 식당」이행업소 수도료 감면, 식생활 개선위해 7월부터 30%(시보 7. 11)
* 신규 등록 제작회사에서 대행, 1월부터 자동차 등록절차 간소화(시보 7. 11)
* 시정전반 의정활동 괄목, 7월 8일 개원1주년을 맞는 부산 시의회가 그동안 시정 전반에 괄목할 만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시보 7. 1)
* 피서객 특별 수송 대책 마련, 해수욕장 운행노선버스 집중배차(시보 7. 1)
* 불량식품 단속강화, 9월 15일 유해·우려식품 근절(시보 7. 1)
* 장마철 전염병 예방,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대대적인 방역사업으로 모기서식처를 없애기로(시보 7. 1)
* 청소년 수련시설확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늘리기로 하고 민간투자 희망자 모집(시보 7. 1)
* 시가지·유원지에 대청소, 피서철 손님맞이 …생활주변 깨끗이(시보 7. 1)
* 재난대비「시민행동요령」마련, 시민 방위국에서 재난 시 피해를 예방·최소화하이 위해 재난대비 행동요령 마련(시보 7. 1)
* 제18회 부산미술대전 입상결정,「제18회 부산 미술대전」회화 조각시각디자인 공예 서예의 수상자들이 결정되어 8일 시민회관에서 시상식 개최(시보 7. 1)
* 에너지 절약 범시민운동, 매달 첫 번째 금요일「절약의 날」로 설정(시보 7. 1)
* 무단토지변경의법 조치키로, 시는 개발제한 구역 외에 도시계획구역에서도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 변경 등 위법행위를 강력단속(시보 7. 1)
* 통합 공과금「독촉고지서」개선, 7월부터 처음 교부된 고시서로 대신(시보 7. 1)
* 토지세 징수 저조, 지방세 징수 실적이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2.4% 낮아져(시보 7. 1)
* 7월부터 차량 신규 때 등록절차 간소화, 시 7월 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 자동차 소유자의 신규 등록 절차 간소화(시보 7. 1)
* 건설공사 품질 관리 강화, 5천㎡ 이상 건축물 대상(시보 7. 1)
* 부진 부산 수출 내림세, 지난 5개월 동안 부산지역 수출고 지난 해 비해 15.3% 줄어, 신발·고무·화학제품 등이 줄어 든 반면 직물과 조선·원사와 전자 제품은 늘어(시보 7. 1)
* 중고차 매매업 전면 개방, 허가 정수제였던 부산 시내 중고차 매매업이 허가 정수제가 폐지됨으로써 전면 개방(시보 7. 1)
* 일선 행정기관「신고 센터」정비, 시는 정부의 일선 행정기관 신고 센터 정비 방침에 따라 78개의 각종 신고 센터를 26개로 유사·중복 통합(시보 7. 1)

* 우수 기전 하수도 준설 마쳐, 본격적 장마 앞두고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 시설의 정비 사업 조속히 마무리, 뚜껑 파손・망홀 등도 손질키로(시보 7. 1)
* 제조업체 자금 융자, 시는 시내 중소 제조업체 육성 발정 위해 단기저리 운영자금 8월 10일까지 신청 받아 지원(시보 7. 1)
* 도시계획권한 대폭이양, 지난해 개정 공포된 도시계획법이 7월 1일 공포 시행됨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대폭 확대(시보 7. 11)

7. 2
* 부산 중구청, 인사(국제 7. 2)
* 부산경찰 '향장제' 도입, 파출소 단위로 덕망인사를 2명씩 위촉해 청소년 선도와 주민건의 전달의 가교역할 하기로(국제 7. 2)
* 지방의정(국제 7. 2)
* 부산시 좋은 식단 이행업소 수도요금 30% 감면(부산 7. 3)
* 역점 시책 추진 강조 7월 정례 조례, 2일 열린 정례 조례에서 7월 역점 시책 추진 강조(시보 7. 11)
* 봉사활동 영역확대, 소방 행정이 화재예방 외에 구급・구조・구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시민들 잘 몰라 활용 못해 홍보 활동 강화키로(시보 7. 11)

7. 3
* 부산 '도시형태' 전국 가장 낙후, 도로와 아파트 공급률 최하위, 하수도 보급률 55%(국제 7. 3)
* 부산시 대기 오염 측정기 7개 전면 교체(부산 7. 3)

7. 4
* 중기 자금지원 "빈수레", 금융기관 부도 등을 우려해 대출 기피, 정부 정책 "생색용" 불과, 부산 부도율 6월 0.53%로 10년 이래 최악(국제 7. 4)
* 제29회 부산과학전시회, 부산시교육청 주최, 부산과학교육원 주관(국제 7. 4)
* 부산건설 업체 하룻동안 5곳 부도 6억1천여만원대(부산 7. 4)
* 부산 지역 은행 중소기업 대출에 인색, 중소기업 자금난에 시달려(부산 7. 4)
* 부산시 학교 구내매점・식당 위생상태 불량,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부산 7. 4)
* 부산가용토지 면적률 낮다, 서울・대구 보다 낮아 용지난(부산 7. 4)

7. 6
* 여성정책연설립 박차, 부산 7차 집행위 오는 16일 창립 결정,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새 정치화 결성(국제 7. 6)
* 부산체신청, 인사(7. 6)
* '고차가도' 강행 큰 반발, 부암 로터리 일대 주민 실력 저지 등 계획(국제 7. 6)
*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농성, 토지수용 및 영농권 보상요구(국제 7. 7)
* 부산상회 LNGT 조기공급건의(부산 7. 6)
* 부산 건설업체 연쇄 부도 문제점 대책(부산 7. 6)
* 부산 5개 단자사 작년보다 86% 증가(부산 7. 6)
* 부산시 항만배후도 건설 마찰, 교통관광국과 건설국이 업무 관장을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부산 7. 7)
* 도시 고속도로에 공중전화, 도시 고속도로 이용 시민 편의 위해 광안 휴게소에 카드・동전식 공중전화기 각 1대씩 설치(시보 7. 11)

7. 7
* 부산시, 토지매각선 4천억 세입 결손, 세금 6백억 초과 징수(국제 7. 7)
* 부산시, 인사(국제 7. 7)
* 신평공단 용수난 조업차질, 협업단지 60업체 비상, 생산량 격감, 저수조에 물 채워 사용(국제 7. 7)
* 광역 의회 개원 1년 의장 인터뷰, 시의 의회 경시태도에 문제가 있으며 비밀 시정에 대한 태성은 여전하다고 말하고 있다(부산 7. 7)
* 부산시 국세청 탈루 혐의 71곳 조사 강화, 큰 7개 업소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 64개 업소에 대해 입회 조사(부산 7. 7)
* 부산・경남 불황 여파 술・승용차・냉장고・세탁기 등 소비 격감, 최근의 경기 불황을 반영(부산 7. 7)
* 동래 의회 의원 13명「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제출(부산 7. 7)
* 부산 교통사고 발생률 줄었다는 발표, 만6백건으로 전년대비 8%줄어(부산 7. 8)
* 부산시, 인사(시보 7. 11)
* 재활용품 수집 운동, 7일 경로당 노인 재활용품 수집 참여 계획 마련,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품 수집 운동에 노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시보 7. 11)

7. 8
* 부산 건설업계 '관급' 숨통, 내달까지 5천억 규모 발주(국제 7. 8)
* 어음부도 8년만에 최악, 부산 6월 중 0.59%, 전국 평균 5배(국제 7. 8)

* 종착역 변경 큰 불편, 동해 남부선 부전역으로 변경, 철도청(국제 7. 8)
* ‘행정 정보’ 공개 발의, 부산 처음으로 동래구 의회에서(국제 7. 8)
* 부산시 자동차세 납기 연 2회로 줄여, 한편 과세기준을 16일에서 1일로 변경시켜 줄 것을 건의(부산 7. 8)
* 부산시 개인택시 면허 순위 개정(부산 7. 8)
* 부산시 개원 1년 권한과 역할의 재인식이 절실(부산 7. 8)
* 부산 집값 하락률 6월 전월보다 1.8% 내려, 전국 6대 도시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부산 7. 8)
* 부산 지역 어음부도율 9년만의 최고로 작년 동기비 무려 4배이다, 지역 자금 사정 악화(부산 7. 8)
* 부산 사진전 대상작 표절확인 수상취소, 「제3회 부산 사진 전람회」의 대상작 표절(부산 7. 11)
* 시의회 1주년 자축 김시장 참석 축하, 부산 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성과 평가・각계각층 의견 수렴・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 운영 위해 마련(시보 7. 11)
* 시의회 제14회 임시회 폐회, ‘지사리 산업기지 조성 등 보고’,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 ‘물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도시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채택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보 7. 11)
* 부산・후쿠오카시 주택 개선 연구 발표, 부산시와 후쿠오카시의 교류 회의서 두 시간의 주택 정보 교환・주택 문제 공동 해결 방안 등 논의(부산, 시보 7. 11)
* 김태옥 상수도 본부장 정년 퇴임식 가져, 1992년 7월 8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태옥 상수도 사업 본부장의 정년 퇴임식 열려(시보 7. 11)
* 부산경실련 부산역 광장에서 ‘정보사터 부정 진상규명 시민촉구대회’(민주운동 7. 8)

7. 9
* 부산 첫 ‘출혈열’ 환자 발생, 20대 급성신부전증으로 혼수상태(국제 7. 9)
* 지방의정(국제 7. 9)
* 부산시 내년 양여금 8백48억 요청(부산 7. 9)
* 부산・경남 지방 공해 배출 업소 2백67곳 적발, 7억8천만원 추징하였다(부산 7. 9)
* 신평・장림 협업단지 공업용수 기근 수요량 30%겨우 충족, 시공・입주업체들이 생산에 큰 차질(부산 7. 9)
* 부산교육청 학생생활지도 강화(부산 7. 10)
* 대중교통 질서 바로잡기로, 피서철 맞아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 운행 질서 확립 위해 시내버스 및 택시회사 특별 관계 회의 가져(시보 7. 21)
* 쌀 소비 촉진 운동 전개, 10일 시는 쌀 소비 촉진대책에 따른 세부 실천 계획 각 구에 시달, 최근 10년 동안 쌀 소비량이 5만여톤 가량 줄었기 때문, 매주 「쌀 밥 권장의 날」 지정(시보 7. 21)

7. 10
* 대공원 저수지 댐 붕괴 위험, 대대적 보강공사 시급(국제 7. 10)
* 시교육청, 부산 교추위장 중징계 결정(국제 7. 10)
* 송도・영도 군부대 이전키로, 인공섬 건설 토취장 확보가 가능(부산 7. 10)
* 부산시 개인택시 면허접수 늑장으로 대기자들 반발(부산 7. 10)
* 부산 동구 의회 사유지 보상 위해 동구의회 조례제정(부산 7. 10)
* 바다와 숲에서 갖는 문학향연, 올해도 꿈과 낭만・추억을 안겨주는 여름문화학교 열려(부산 7. 10)
* 강서구 그린벨트 규제 완화 검토, 20여년만에 그린벨트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져(부산 7. 11)

7. 11
* 주택건설 무더기 말소, 부산시 130여개(국제 7. 11)
* 부산체신청, 인사(국제 7. 11)
* 부산시, 쌀 소비 촉진 운동 앞장(국제 7. 11)
* 부산시, 수영강 정비 늑장 착공(국제 7. 11)
* 부산 지하철 파업 위기, 노사 13차 임금협상 결렬(국제 7. 11)
* 부산 지하철 파업 위기, 노조찬반투표 16일 예정 ‘시’ 대책부심(부산 7. 11)
* 부산 지하철 파업 초읽기 노조 91% 찬성, 부산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부산 7. 13)
* 어폐류 위생관리 철저, 하절기 맞아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예방 위해(시보 7. 11)
* 폐건전지 분리수거, 학교・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폐건전지 유상으로 수거, 반응 따라 확대 실시키로(시보 7. 11)
* 부산시 소방본부, 피서철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119 바다 구급대」 운영키로(시보 7. 11)
* 벼 병충해 항공 방제, 벼 병충해의 효과적 방제 위해 13일부터 8월 7일까지 두 차례로 나누어 강서구 일원에 실시(시보 7. 11)

* 「부산 자랑 10가지 순회 시민 예술제」 시민 참여 향토애 고취 성과, 부산 자랑 10가지 순회 시민 예술제 큰 성과 나타내(시보 7. 11)
* 여권 발급 늘어나, 당국의 해외여행 규제 방침에도 올 상반기 부산 지역 여권 발급 40% 증가(시보 7. 11)
* 피서철 이동 상담소 운영, 해수욕장 개장 기간 맞춰 각 구별 1개소씩 설치, 부녀 상담원 배치 애로·건의 사항 해결, 부녀자 탈선·청소년 비행 예방키로(시보 7. 11)
* 쾌적한 도시 관리 등 중점 추진, 7월 시정 역점 시책 중 하나인 피서철 쾌적한 도시 관리 위해 '건전한 휴가 보내기', '심야 영업 행위 집중 단속할 예정(시보 7. 11)
* 재난 대비 「시민 행동 요령」, 시 민방위국에서 피해 예방·최소화 위해 응급처치·인공호흡·환자 운반 등 시민 행동 요령 마련(시보 7. 11)
* 해수욕장 주변 대상 숙박·요식업소 중점 관리, 피서객 편의 제공 위해(시보 7. 11)
* 영구 임대 주택 입주 추가 모집, 영구 임대 주택 중 미계약차 발생분에 대한 입주 희망자 추가 모집, 덕천·모라·반송·동삼도 생보자로 3년 이상 거주자 대상(시보 7. 11)
* 행정 감사·예산심의 기간 짧아 심도 있는 감시 고충, 지자제 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입법·재정 등 자치권한이 약한 것과 의원 자질·역량이 약한 것 등이 지적(시보 7. 11)
* 재해 예방 사전 대책 강화, 이달 중순부터 본격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장마 대책으로 각 가정 하수구 청소·담장 보수토록 당부(시보 7. 11)
* 수영 강변 정비 사업 추진, 수영 강변 도로 기공식 11일 오전 열려, 95년 완공 예정(시보 7. 11)
* 자가용 버스 불법 영업 단속, 피서철 맞아 11월말까지 자가용 버스의 불법 영업 행위 강력히 단속키로(시보 7. 11)
* 수영강 整備工事 起工(직할30년 7. 11)

7. 13
* 부산 지하철 파업 결의, 담판 결렬시 16일 상오 결행(국제 7. 13)
* 부산 지하철 파업 쟁의 중재, 15일 결정키로(국제 7. 15)
* 부산 지방 국세청, 91년 법인세 탈루 2백20억원 추징(부산 7. 13)
* 산업용 전력소비 둔화 부산 상반기 유흥·서비스업은 늘어(부산 7. 13)
* 의제품 연입가속 의류·화장품·가전제품 주종(부산 7. 13)
*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극히 저조 부과액 2백18억 중 57%에 그쳐(부산 7. 13)
* 부산사하공단 「슬럼화」 가속, 열악한 경영 여건으로 인한 업계의 이전러시에 불경기 여파(부산 7. 13)
* 부산 수입자동차 증가율 작년보다 줄어, 경기침체와 호화 사치자제의 분위기에 따라(부산 7. 13)
* 부산시 10월부터 상수도료 5% 인상, 공동수도 45%나,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져(부산 7. 13)
* 부산시 첫 채권 보상제,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부산 7. 13)
* 부산시 5개년계획 마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시설 3배 이상 대폭 보강(부산 7. 13)
* 산업합리화 지정효과 별무 신발업계도 마찬가지(부산 7. 13)
* 각종세금 5억 체납 사하공단 경영상태 크게 악화,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부산 7. 14)
* 부산 지하철 협상 또 결렬,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부산 7. 14)
* 냉·난방 제한 측정 기준 마련, 냉·난방 온도 제한 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측정 기준 마련, 위법시 과태료 부과(시보 7. 21)

7. 14
* 중장비 60%가 낮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가동률 40%대에 머무름(국제 7. 14)
* 하반기도 불경기, 부산 주요 수출품 부진 계속(국제 7. 14)
* 노총 부산지부 조사, 올 임금 인상 평균 14%(국제 7. 14)
* 재고해소 고육지책 올여름 휴가 늘린다(국제 7. 14)
* 백양산 터널 민자유치 착공, 오는 10월 참여업체 모집(국제 7. 14)
* 부산-경남 광역 개발협 가동, 마산 상의에서 창립총회(국제 7. 15)
* 다대포 녹지3천평 불법훼손, 부산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토석채취장으로 허가(부산 7. 14)
* 교통정책 시·도 이관 절실, 중앙에서 관활하여 문제가 되고 있어(부산 7. 14)
* 부산신발산업 합리화 2차 자금 신청 전무, 신발합리화 조치의 효과가 의문시(부산 7. 14)
* 상의조사 올 상반기 부산 주요 산업 생산실적 크게 저조(부산 7. 14)
* 구인·구직 알선업체 난립 취업정보 분산, 혼란가중 시키는 등 부작용을 빚어(부산 7. 14)
* 부산·경남 광역개발협 출범, 10개 상회가 지역 현안사업을 공동으로 대처키로 하면서(부산 7. 15)

* 낙동강 정화 등 원안 협의, 두 번째로 열린 영남권 시・도 관계자 회의는 상호 현안에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성과 기대(시보 7. 21)
* 주택・교통・환경 등 논의, 동구와 진구 주민과 시장이 주택・교통・환경 등에 관한 주제로 14일 오전 문화회관 소강당실에서 대화(시보 7. 21)

7. 15
* 부산 불법 체류 외국인 320명, 출입국 사무소 집계(국제 7. 15)
* 한국증권업협회 부산지부, 증권사 6월 약정고 5월보다 크게 감소(국제 7. 15)
* 동천 수질 정화 하나마나, 계속 악화되어 범4호교 BOD 114ppm(국제 7. 15)
* 범어사 대규모 임야 훼손, 주차장 조성 불법 사용(국제 7. 15)
* 용호 하수처리장 확장 강행, 주민 반발 격력 시위(국제 7. 16)
* 동해 남부선 시・종착역 부전역으로 이전(부산 7. 2)
* 부산 올 상반기 건축허가면적 51.7%감소, 총 2백10만㎡(부산 7. 15)
* 용호하수처리장・녹산 선착장 관련 집단 연원 해결 실마리(부산 7. 15)
* 부산시, 검경인사 앞두고 술렁, 고등검찰은 12명 승진할 예정이고 경찰은 총 경급 15면 이동이 불가피(부산 7. 15)
* 동래구 의회 정상화, 1개월만에 정상을 회복(부산 7. 15)
* 부산 군부지 거의 수의 계약, 땅 투기를 노리는 브로커들이 많아 대책이 시급(부산 7. 15)
* 부산시 지하철 파면 모면, 파업 시한을 하루 앞도고 전격 타결(부산 7. 15)
* 철도료 최고 17.7% 인상, 오는 27일부터 철도운임 평균 9.8% 인상(부산 7. 16)
* 학생 사적지 순례(부산교육 7. 15)

7. 16
* 국세청, 투기 우려 지역 재조정, 부산 모라, 김해 내동 등 해제(국제 7. 16)
* 부산지역 기업체들 상반기 수출 신용장 줄어(국제 7. 16)
* 부산 88년 이후 처음으로 업계 일손 신청 급감(국제 7. 16)
* 부산시, 가로수종 선정 멋대로, 대기오염 외면 등 과학적 연구 결여(국제 7. 16)
* 부산시, '다가구 중과' 세법 개정 건의(국제 7. 16)
* 지방의정(국제 7. 16)
* 부산 여성 정책 연 탄생(국제 7. 18)
* 아파트 미분양 갈수록 심화, 올 3월보다 4배나 늘어, 부산지역은 6월말까지 총 9백2가구(부산 7. 16)
* 부산지방국세청 가덕도・거제군・장림 등 6개 동면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 지정(부산 7. 16)
* 부산시 예산 편성 잘못 많다, 지난해 세입은 772억 초과 징수하였고 예산은 832억 집행 못해 이월(부산 7. 16)
* 부산 상반기 사업장 64% 임금 협상 매듭, 인상률은 평균 14%으로 나타났다(부산 7. 16)
* 건축허가 작년의 반 상반기 5천채 주거용은 53% 줄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부산 7. 17)
* 부산 동래구 주거지・병원 50m 내 진입 못하게, 행상확성기 소음 규제(부산 7. 17)
* 부산・경남 산재 대형화, 산업재해 피해자수는 줄었지만 사망자수는 늘어(부산 7. 20)
* 92년도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계획 발표, 순위에 따라 1순위 오는 8월 1일 하루・2순위 1일부터 6일・3순위는 접수 안하기로(시보 7. 21)

7. 17
* 해운대 신시가지 공사 업체 확정(국제 7. 17)
* 부산시 올해 주민세 지난해 비해 68%나 늘어(국제 7. 17)
* 부산물가 가장 올랐다, 전국 6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산 7. 17)
* 2/4분기 부산 땅값 1.09%하락, 지난 75년 정부가 조사한 이후 17년만에 처음으로 떨어져(부산 7. 17)
* 해운대 신시가지 공사 외지 업체에 낙찰(부산 7. 17)
* 부산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수출실적 20.15% 감소(부산 7. 17)
* 구청발주 건설공사 부진, 일선구청에서 행하는 상당수가 지연되거나 공사계획이 잘못돼(부산 7. 17)

7. 18
* 부산시, 정부 권한 80건 넘겨 달라, 지방전문직 임용권 등 대폭 이양 요구(국제 7. 18)
* 금정구청, 도로개설 본격 시행, 회동~철마 교통 불편 해소(국제 7. 18)
*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 비실시로 인해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국제 7. 21)
* 부산시 서민용 국민 주택 건설 외면, 수익성이 높은 일반 주택 건립에 치중(부산 7. 18)
* 채소류 값 큰 폭 올라,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오름세(부산 7. 18)
* 물가 안정 대책 회의, 물가 안정 대책 회의가 18일 오전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려(시보 7. 21)

7. 20　* 부산, 올 상반기 부도 3천7백억(국제 7. 20)
* 부산, 도시가스사용 급증, 작년에 비해 50% 증가(국제 7. 20)
* 태고종, 부산 사찰 집단 탈종, 교구산하 66사 성명(국제 7. 20)
* 부산시, 황령산 터널 유료화 건설부에 허가 신청(국제 7. 20)
* 보사부 수질조사, 덕산 정수장 식수 부적합(국제 7. 20)
* 용호 하수처리장 확장 백지화 요구, 주민 간선로 점거 농성(국제 7. 21)
* 경기불황 몸살 여름매장 썰렁, 부산지역 가전제품 대리점업계는 전에 없던 불황에 몸살(부산 7. 20)
* 대단위 아파트 건설 붐, 대형 제조업체들의 공장부지들이 줄지어 아파트 단지로 개발(부산 7. 20)
* 고속철도 고가화 않는다, 소음 공해 도시환경 저해 등에 부딪친 경부고속철도 부산 도심 구역, 전면 백지화(부산 7. 20)
* 부산 경실련 시민대회 "정보사 사건 철저 규명, 행정 정보 공개 실시를"(부산 7. 21)

7. 21　* 부산시 비법정 영세민도 생활자금 융자 등 지원 혜택 가능(국제 7. 21)
* 수영 하수처리장 또 시설 고장, 하루 2만여톤 처리 않고 방류(국제 7. 21)
* 일본 북구주 경협단 부산 상공계 방문(국제 7. 22)
* 부산시 주택조합 인가 요건 강화(부산 7. 21)
* 부산 해운대구청, 해운대 사장 원형 복구, 2,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3천㎥의 모래를 반입, 투입키로(부산 7. 21)
* 불모산 터널 뚫렸다, 부산과 경남권 산업 개발의 새장을 펼치게 돼(부산 7. 21)
* 부산 전력 최대 소비 경신, 21일 오후 3시 282만93백kw 기록(부산 7. 22)
* 부산시 진료거부 진상조사,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남인권군을 거부했는지 사건경위조사(부산 7. 21)
* 유행성 출혈열 환자 발생, 부산에서도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홍보 강화・예방 접종 확대 실시키로(시보 7. 21)
* 물가 안정 종합 대책 마련, 연말까지 개인 서비스 요금 비롯 모든 물가 안정 위해 행정력 집중(시보 7. 21)
* 대구 등 3개 시・도 비교 사찰, 부산시의회는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른 시도 광역의회와의 운영 현황 비교 위해 대구와 광주직할시 충남도 의회 등 차례로 시찰하고 유대 강화키로(시보 7. 21)
* 부산시 문화상 수상후보 추천 공고, 향토 문화 발전과 시민 정소 문화에 공적이 큰 시민에게 8개 부문에 나누어 상을 수여하는 부산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 요강 공고, 금년 7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부산에 거주한 사람 대상, 사망자은 상속인에게 수여(시보 7. 21)
* 전염병 대비 장마철 방역 강화, 본격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전염병 대비 위해 방역 강화(시보 7. 21)
* 부녀 상담원 공개 채용, 별정 7급 상당 부녀 상담원 19명 공개경쟁 임용 시험 통해 선발, 구청・동사무소 등에 배치키로(시보 7. 21)
* 부산시 민방위국, 재난 대비 「시민 행동 요령」, 재난・피해 예방・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시보 7. 21)
* 자원 재활용 시민 동참 확산, 쇠젓가락・재생공책 등 사용 급증, 폐지・병・깡통・우유팩 등 구분, 올 상반기 수집 장려금 1억여원 지급, 공원・유원지 등에 7백여개 「자원 재활용품 수집함」 설치(시보 7. 21)
* 부산-블라디보스토크 교류 활발, 6월 30일 자매결연 계기로, 북양해역 진출 교두보 확보(시보 7. 21)
* 황령산 「터널」 공사 순조, 황령산 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 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어 연말까지 50% 도달, 94년 완공(시보 7. 21)
* 「컨」 세 1백91억 징수, 시가 올해 처음으로 거둬들이는 컨테이너세가 1백91억원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 올 목표는 50.7%(시보 7. 21)
* 승용차 절반이 참여,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실시 8개월만에 부산시내 자가용 승용차 47%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주차료 등 각종 혜택 많은 것이 이유(시보 7. 21)
* 「공업 진흥 기금」으로 융자 건의, 시는 신발산업 합리화에 따른 시설 개선 자금의 융자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경제기획원 등에 건의(시보 7. 21)
* 문예 진흥 활동 지원 사업 확정, 92년도 하반기 문예 진흥 활동의 일환으로 생활 문화・문화 예술 관련 학술 분야 등의 강좌・강습활동・청소년 문예 강좌・문예 동호인회 활동 등이 지원 대상(시보 7. 21)

7. 22　* 상의 조사, 부산, 법인 신설 작년보다 5% 감소(국제 7. 22)
* 부산 청년 비엔나레 개최, 8월 3일~23일(국제 7. 22)
* 수영하수처리장 고장 잦다, 대상인구 잘못 상정, 용량 무시 풀가동(국제 7. 22)
* 동래구청, 버스전용 차선제 검토(국제 7. 22)

* 부산시, 인사(국제 7. 22)
* 부산시, 해양박물관건립용역 자문위원회 개최, 8년째 성과 없음(시보 8. 11, 국제 7. 23)
* 부산 시민도서관 등 부산 10개 도서관 여름 독서교실운영, 8월 1일까지 10일간 운영(부산 7. 8)
* 「신발 산업 합리화」 존폐위기, 정부가 노후시설 개채 등을 조건으로 지원해주나 업계는 이를 외면(부산 7. 22)
* 부산 「아폴로 눈병」 급속 확산, 섭씨 30도에 가까운 찜통더위가 지속되어(부산 7. 22)
* 부동산 투기 28명 적발, 매매가격을 엄청나게 낮춰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불법거래한 부동산 적발(부산 7. 22)
* 부산시 새청사 내년 7월 착공(부산 7. 23)

7. 23
* 김달현 부총리 부산방문, 노대통령 예방(시보 8. 1, 국제 7. 23)
* 부산시, 부산 북항 해저 터널 건설 추진, 청학~감만동 사이(국제 7. 23)
* 부산, 6월 중 84%로 중기 가동률 계속해서 감소(국제 7. 23)
* 부산시 교육청, 내년 4개 중학교 신설(국제 7. 23)
* 지방의정(국제 7. 23)
* 김달현 부총리 산업시찰 마지막 날 만찬서 '봉선화' 열창(국제 7. 24)
* 부산 5개 단자사 인사 돌풍 예고(부산 7. 23)
* 3/4 분기 주택 건축 배정 물량 9,699가구(부산 7. 23)
* 제조업 판매 부진 심화,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 침체 여파로(부산 7. 23)
* 부산 중학교 4개 신설, 가락타운 등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부산 7. 23)
* 공무원 기강 풀렸다, 공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부산 7. 23)
* 부산 금융기관 20여명 참석, 중소기업 지원 대책회의(부산 7. 24)
* 부산 서울 모범택시 운행 기본요금 3km 3천원(부산 7. 24)
* 택시 파업 위기, 부산지역 택시 노사가 8차 임금 교섭의 결렬(부산 7. 24)
* 「전교추」 위원장 해임(부산 7. 24)
* 공직자 연찬회 특강, 부산직할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제2기 공직자 연찬회에 참석한 공무원 2백명을 대상으로 김영환 시장 특강 실시(시보 8. 1)
* 부산시교육청,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부산교사추진위원회(부교추) 위원장인 조성덕 교사(부산남여상)에 대한 2차 징계 위원회를 열어 해임키로 결정(민주운동 7. 23)

7. 24
* 부산, 무더기 부도 사태(국제 7. 24)
* 사하구청, 우회도로 연차적 개설, 4백70여억 간선로 체증해소(국제 7. 24)
* 부산시, 낙동대로 일부구간 개축, 장림 66호 광장~감전 충전소(국제 7. 24)
* 부산시, 인사(국제, 부산 7. 24)
* 한국 수출 보험공사 부산지사 사무실 개설(국제 7. 25)
*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교통수요유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심의 결정(국제 7. 25)
* 제조업체 타지역 이전 가속화, 용지 부족화 가중, 울산 등지로(부산 7. 24)
* 서낙동강권 등 주요 개발 사업(부산 7. 24)
* 부산 무역 진흥 위원회, 24일 낮 12시 무역회관 부산지부에서 열렸다(부산 7. 24)
* 지방세 목표 달성 불투명, 올 상반기 징수 실적 분석 결과 지방세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 세원조사 활동 강화 등 대책 마련(시보 8. 21)
* 「부산직할시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공포(제2929호)(부산교육 7. 24)
* 「부산직할시 학생야영장 설치 조례」 개정 조례 공포(제2930호)(부산교육 7. 24)

7. 25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 경기 3/4분기 더 어렵다(국제 7. 25)
* 동래구청, 복천동 일대 고분군 전시관 건립, 8월부터 착공(국제 7. 25)
* 낙동대로 25일 개통, 사하구 장림하수처리장~북구 감전 삼거리 6.4km 구간(부산 7. 23)
* 8개 버스 노선 변경, 89-1번 시내버스 노선을 폐지하는 등 8개의 노선 변경(부산 7. 24)
* 부산 3/4분기 경기 전망 어둡다, 한은 부산 지점에서 매출증가가 크게 둔화(부산 7. 25)

7. 27
* 부산, 수출 보험 활용률 0.62%로 저조(국제 7. 27)
* 부산 출입 사무소 집계, 부산 불법 체류자 절반이 중국 교포(국제 7. 27)

* 부산 상의 통계, 부산 제조업 위축 여전, 생산 출하지수 계속 내림세(국제 7. 27)
* 부산 주택 건설 업체, 하반기 2만88세대 착공, 아파트 미분양 사태 계속 될 듯(국제 7. 27)
* 부산시, 부산 모범택시 천대로 잡고 세부운행 방안을 마련키로(국제 7. 27)
* 부산시,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복합건물 '원가 연동제' 해제(국제 7. 27)
* 시중 자금 제2금융권에 몰린다, 증시의 장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후퇴로(부산 7. 27)
* 공제 조합 어음 할인혜택, 부산 7개 종합 건설업체 대상(부산 7. 27)
* 부동산 경매 612건, 담보전 실행 민사 집행사건이 크게 늘어나(부산 7. 27)
* 불황 허덕 의류업체 가격인화 판촉 경쟁, 불황타개 몸부림(부산 7. 27)
* 복천고분군 전시관 10월 착공, 가야시대 유물들 전시예정(부산 7. 27)
* 해운대 공영 야영장 설치 시급, 청소년 캠핑과 배낭족들의 이동 불편(부산 7. 27)
* 수영만 매립지 6천여평 매각공고. 상업지역으로, 새 청사 이전부지 매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수영만매립지 등 시유지를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시보 8. 1)
* 부산시, 인사(시보 8. 1)

7. 28
* 부산, 전년에 비해 건축허가 면적 51.6% 격감(국제 7. 28)
* 부산 지역 기업, 전 직종 감원바람 예상, 신규 채용 규모도 감축(국제 7. 28)
* 철도청, 동해남부선 이설 무산, 해운대구 건의에 불가능 통보(국제 7. 28)
* 인사, 총경급 246명(국제 7. 28)
* 부산시, 건축 제한 구역 해제로 인해 특혜조치 의혹을 받고 있다(국제 7. 28)
* 아파트 공사 서울 업체에 불청, 지역업체의 건설기술 낙후 공사 물량 감소 등 많은 부작용 우려(부산 7. 28)
* 올 하반기 부산 기업체 조사 신규채용 크게 줄듯(부산 7. 28)
* 토지 초과 이득세 대폭 감소, 부산 부동산 경기 퇴조에 따른 지가 안정(부산 7. 28)
* 3일간 지리산 전역에서 '영호남 통일염원 등반대회'를 갖고 '지역감정 타파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영호남 청년학생 공동추진위'를 공식 건설(민주운동 7. 28)

7. 29
* 부산, 상반기 수출 실적 저조, 전년 동기비 14% 감소(국제 7. 29)
* 노동청 집계, 신발업 체임 사상 최악, 부산 전체 체불액 81%(국제 7. 29)
* 부산시, 역점 사업 의욕 실종, 시장 바뀌자 시책 추진 제자리(국제 7. 29)
* 통근 열차 간이역 추가, 하루 4회 왕복에서 2회 늘려 총 6회로 운영할 방침(부산 7. 29)
* 금리하락 불구 어음 부도율 상승(부산 7. 29)
* 제조업 수출 14% 감소 부산 작년비 신발 23% 철강27%(부산 7. 29)
* 구의회 조례 무효,「동정 자문 위원회」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 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구의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의회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 7. 29)
* 2년치 보험률 지역 보험 합산부과 문제시, 지역보험 미가입 영세민 대상(부산 7. 29)

7. 30
* 부산, 제조업 전력 사용 감소, 심각한 부한 경제 반영, 6대 도시 중 유일하게 감소(국제 7. 30)
*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 신청한 93년도 항만 개발 예산이 경제 기획원과의 협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되어 부산항 개발 등에 차질 우려되고 있다(국제 7. 30)
* '부산-울산 복선 전철'이 연기 될 것이다, 내년 예산 세수 불투명, 긴축 불가피, 도로-항만사업 차질(국제 7. 30)
* 부산, 지방세 징수 비상, 초과율 크게 둔화, 부동산 경지침체 영향, 목표액 하향 조절(국제 7. 30)
* 중앙간섭 불합리 인사 문제, 공무원들의 능력발전을 저해, 구조적인 침체를 초래(부산 7. 30)
* 9월말 우등 고속버스 운행, 현행요금의 1.5배 받기로(부산 7. 30)
* 비리공무원 늘어난다, 올 상반기 동안 각종비리 및 직무소홀 등과 관련된 공무원 1,865명(부산 7. 30)
* 부산시 대형견인 2대 구입 6톤이상 화물차 견인가능,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부산 7. 31)

7. 31
* 부산 지역 각 대학 박물관 및 발굴기관들에서 유물 발굴 조사를 본격화 한다(국제 7. 31)
* 하계휴양소 불법 설치 말썽, 대기업, 사유지 임대 허가 없이 운영, 송정백사장 9곳 점유(국제 7. 31)
* 부산시, 광안대로 해상교량안 확정, 2층 8차선 현수교로(국제 8. 1)
* 백화점 불황속 매출 증가이변 작년보다 24.5%(부산 7. 31)
* 횡단사고 급증, 방지책 총력, 횡단사고 운동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키로(부산 7. 31)
* 식수 "비상" 고지대 수돗물 제한 급수,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부산 7. 31)
* 광안대로 교량식 확정, 시공방법이 현수교로 확정(부산 8. 1)

8. 1 * 기획원 방침, 부산지하철 예산 대폭 삭감, 운영 막대한 타격 예상(국제 8. 1)
* 부산치하철 2호선 건설 공사, 서울업체들 싹쓸이, 지역 자금유출 심화(국제 8. 1)
* 통계청, 소비자 물가 안정 지속, 7월까지 전국 4.3%, 부산 4.9% 상승(국제 8. 1)
* 환경처, 부산 대기오염 배출량 격감, 90년에 비해 21% 감소(국제 8. 1)
* 부산시, 인사(국제 8. 1)
* 교통 위반 부담금 부과 반발, 부산시 "사실상 개인 소유" 면제 건의에, 교통부 "불가"(부산 8. 1)
* 고교 자율 보충수업 정착, 교과목을 배정 보충수업을 실시하여 큰 변화가 일어나(부산 8. 1)
* 주공 올 하반기 부산지역에 아파트 공급 6천143세대 분양(부산 8. 1)
* 콜레라 예방 특별법,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콜레라 등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특별 방역 60일 작전을 세우고 1일부터 9월말까지 비상근무에 돌입(시보 8. 11)
* 「항도부산」 영인본발간, 지난해 「항도부산」 제8호를 발간한데 이어 부산사 연구 논문 등 중요자료가 수로된 「항도부산」 제1호~7호까지 영인본을 발간(시보 8. 1)
* 주택조합인가요건강화, 사업이 부진한 주택조합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서 53개 조합 3천3백21세대분을 해체해(시보 8. 1)
* 「참신한 봉사 행정」의 산물, 5대 해수욕장에서 바가지·호객 행위가 사라지면서 쾌적한 피서지환경이 조성돼 시민들의 큰 반향(시보 8. 1)
*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정착, 에너지 소비 절약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운동이 작년대비 전기 6.7% 유류 17.8%가 줄어드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시보 8. 1)
* 사회 복지 전문요원 6개 지역에 재배치, 15일 저소득 주민들이 새임대아파트에 이주하는 것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재배치하기로(시보 8. 1)
* 낙동대로 일부구간 개통, 24일 장림 66호 광장~감전충전소간 5.4km가 개통 돼(시보 8. 1)
* 8개 버스 노선 변경, 25일부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89-1번 시내버스 노선을 폐지하는 등 8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구간 및 운행차량 대수 등을 일부 변경해(시보 8. 1)
* 지역발전 복지증진, 희생·봉사상 등 5개 부문에 수여하는 「자랑스런 시민 상」의 후보자를 접수 받고 있어(시보 8. 1)
* 생보자 추가 지정, 시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160명 추가했고 이들 외에도 102가구를 장기 질환자로 치료해주기로하고 77가구는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시보 8. 1)
* 홍보 영화 순회 상영, 부산시는 8월 6일부터 15일까지 하계순회 영상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해운대 및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국·시정 시책을 소개하는 영화관람 행사를 마련(시보 8. 1)
* 부산 해변 연극제, 부산시가 주최하고 한국 연극 협회 부산지회 주관으로 8월 1일부터 5일까지 해운대 해수욕장 송림공원에서 「제2회 부산해변 연극제」가 낮의 활력·밤의 낭만으로 진행(시보 8. 1)
* 광역 의회, 민의 수렴 부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회의활동이 다른 시·도 의회에 비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타 시·도 비교시찰 분석(시보 8. 1)

8. 3 * 부산시, 수입 쇠고기 뷔페 우후죽순, 시내 전역 80여 곳 성업, 월 소비량 80톤(국제 8. 3)
* 부산시 토목공사 날림시공, 제2도시고속도로, 황령산 터널 졸속 축조(국제 8. 3)
* 부산 철강 업계 불황, 전년대비 24% 감소하였으나, 원가절감 등 자구책을 찾고 있다(부산 8. 3)
* 부산 자금난 가중 중소기업 지원 부진, 한은 부산 지점이 분석해 발표(부산 8. 3)
* 부산 지역 제조업 전력소비량 감소, 매년 급격이 늘고 있는 것에 비해 줄어들어 경기불황을 반영해(부산 8. 3)
* 하로합 계열호율 저조, 부산지역 건설업체(부산 8. 3)

8. 4 * 부산 기업, 자금난 가중, 7월말 이틀 사이 43건 무더기 부도(국제 8. 3)
* 부산시, 인사(국제 8. 4)
* 사상공단 땅값 폭락, 불황 여파로 매물 속출, 1백여 업체 매매 의뢰(국제 8. 4)
* 부산시, 강서구 신호공단 눈가림 환경평가, 주민 피해 등 대책 전무(국제 8. 4)
* 부산시, 남천비치 앞 5만평 매립, 민락공원에 전망대 세워, 국내 최장 2층 현수교 건설, 광안리 국제 명소 된다(국제 8. 4)
* 병원 병상 대폭 신·증설 올해 14곳서 2754개 승인 받아, 병실난이 해소되게 되었다(부산 8. 4)
* 부산시, 인사이동(부산 8. 4)

* 부산시 일방적인 택지분양가 인상 말썽, 업계의 큰 발발을 사고 있다(부산 8. 4)
* 부산·경남 기업 「불황 행진」 계속, 최근의 시중금리 인하, 정부의 각종 자금 지원책이 효력 없어(부산 8. 4)
* 부산 기업 올 상반기 영업 실적 부진, 매출액은 늘었으나 순이익은 대폭 감소(부산 8. 4)

8. 5
* 부산시, 인사(국제 8. 4)
* 부산항 자동화 시급, 생산성 '아시아 5항'서 하위권, 화물처리 전산화 구축해야(국제 8. 5)
* 부산시, 93년 국고 지원 4,575억 신청, 11억원 책정, 구포대교, 도로사업 등 타격(국제 8. 5)
* 부산 차량 38만2천대, 지난 6월 37만6천3백94대보다 6천2백44대 늘어(부산 8. 5)
* 부산 고유 상표 해외 인지도 크게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부산 8. 5)

8. 6
* 부산시, 인사(국제 8. 4)
* 부산시, 당곡공원 시립미술관 건립, 2백억 투입,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국제 8. 7)
* 기술 정보 이용 급증, 올 들어 부산 양산 울산 지역들의 기업들의 이용으로(부산 8. 6)
* 어음 부도율 계속 최고치, 7월 중 0.59% 자금난이 최악이다(부산 8. 7)

8. 7
* 부산지역 어음부도율이 전국 평균 5배가량, 7월 중 0.59% 기록(국제 8. 7)
* 동구청, 인사(국제 8. 8)
* 부산시, 부산역 부전역으로 옮긴다, 2010년대 대비 적극 추진, 경부고속철도와 연계(국제 8. 8)
* 부산 중소 유지 업체 대기업 공세 밀려 매출 해마다 감소(부산 8. 7)
* 폐수방류 기업 22개 업소 무더기 적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폐수 배출 허용기준치 초과(부산 8. 7)
* 지방재정 확충 절호기회 부산 경정장 유치 총력(부산 8. 7)

8. 8
* 부산 북구지방 노동사무소 집계, 사상공단 노동자 격감, 1년새 2만7천여명 감소(국제 8. 8)
* 부산시, 관광자원 개발 급선무, 외화 수입 격감, 작년에 비해 49.5%나 감소(국제 8. 8)
* 부산시, 김해공항 활주로 확장 난항, 건설부, 형질변경 허가 신청서 반려(국제 8. 8)
* 인구 4만명 넘는 6곳 내달 분동, 과밀동 하단 신평 다대 만덕1동 등(부산 8. 8)

8. 10
* 부산항 체선 완화, 부산과 인천을 포함한 국내 주요항만의 체선 현상이 올 들어 크게 완화(국제 8. 10)
* 주택은행공사 조사, 부산, 전세 값도 내림세, 7월 중 0.4% 하락(국제 8. 10)
* 부산시 지정 66그루 고사 위기, 보호수 관리 허점투성이(국제 8. 10)
* 영도구청, 새 청사 주차난 예상, 차량 및 인구 증가로 추가 확보 불가피(국제 8. 10)
* 김해공항 주차료 배 인상, 영종도 건설비 명목, 시민 반발(국제 8. 10)
* 7월 부산·경남 주택 가격 동향, 집값과 전세값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6개 도시의 평균 0.5%(부산 8. 10)
* 업체 판촉 강화 11% 늘어 양담배 소비량 급증, 부산 시내 1만3백여 담배 소매점에서(부산 8. 10)
* 부산시 20년 이상 교량 42% 정기점검 소홀, 창선대교·신항주 대교의 잇따른 붕괴에 따라(부산 8. 10)
* 부산 강서구 의회, 서부산 톨게이트 시외 이전을(부산 8. 10)
* 부산 화재 올 들어 7백63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부산 8. 10)
* 윤화전담병원 추진, 부산시 50개 병상규모 내년 착공(부산 8. 10)
* 동전 투입기 확대설치, 시 구덕터널에 10대 설치, 차량 적제 해소를 위해(부산 8. 11)
*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 북부지역 교통 "최악" 우려, 시민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부산 8. 11)

8. 11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내년 하반기 보조항 활용 계획, 감천항 부두 가동차질 우려, 하수시설 분담에 의한 사매립 업체의 마찰, 지연 발생 시 화물 적체 심각(국제 8. 11)
* 사하구 관내, 대형 아파트서 오수 방류, 수질오염 악화시켜 물의(국제 8. 11)
* 해운대구청, 석대 매립장 골프장 건의, 20만여평에 18홀 규모, 공영 유료로(국제 8. 11)
* 부산시, 지하철 2호선 공사 대비 소통책 별무, 사상로 체증 최악 우려, 구간별 전면 통제 예상(국제 8. 11)
* 부산 지역 대학생 출정식, 범민족 대회, 대구와 광주에선 화염병 시위(국제 8. 12)
* 부산 대책 협의과, 정신대 모임 개최(국제 8. 13)
* 부산 의류 판매 15% 신장, 수익성은 악화, 재고소진을 위한 장기간의 할인판매로 인해(부산 8. 11)
* 부산시 주택업체 기준미달 대상 42곳 영업정지, 주택사업자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시내 198개 주택건설 업체에 대해(부산 8. 11)
* 부산시 19곳 지하조사 13곳 분진 기준치초과 대책 마련해야, 지하환경의 먼지공해가 극심(부산 8. 11)
* 오폐수 방류 무방비, 부산 사하구 다대동 아파트 단지들이 BOD배출 허용 기준치를 7배나 초과한 오수를 다대포 앞바다로 무단 방류해 오다 관할사하구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부산 8. 11)

* 광안대로 현수교로, 극심한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항만 배후도로 확충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안대로 기본계획안이 현수교로 확정, 내년 10월 착공(시보 8. 11)
* 진료거부, 강력대처,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사태가 잇달아 발생,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이에 강력 대처키로(시보 8. 11)
* 토지거래제 운영 강화, 연말 대통령선거 등을 앞두고 불법 토지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와 신고제의 운영을 강화하키로(시보 8. 11)
* 통근열차 운행 횟수 늘려, 부산시와 철도청은 오는 9월부터 통근 열차의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철도 노선을 시내 교통수단으로 확대키로(시보 8. 11)
* 내년 3월 개장 예정, 북구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올해 안으로 완공 돼 내년 3월에 개장될 예정(시보 8. 11)
* 행정협의회 규약안 심사, 제15회 임시의회가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여건 등 심사 예정(시보 8. 11)
* 보육시설 개・보수, 지난 90년도부터 새마을 유아원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로 전환된 시설 중 20개 시설에 대해 개・보수비전액을 지원키로하고 보조금을 배정(시보 8. 11)
* 민원상담 봉사위원제도 개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원 상담 봉사 위언제도의 이용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이제도를 개선, 8월부터 시행하키로(시보 8. 11)
* 도로구조물진단, 최근 타 지역에서의 교량 붕괴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노후 교량 등을 정밀진단, 각종 예방에 철저를 가하기로(시보 8. 11)
* 부산시, 인사 연료 2계장 김도홍 외 75명(시보 8. 11)
* 노점상 정비 철저관리지시, 그 동안 이루어진 노점상 정비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취약지역에선 상존 하고 있어 각 구에 강력히 단속토록 지시해(시보 8. 11)
* 주거환경개선 사업 호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상반기 추진 상황 분석결과 계획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시보 8. 11)
* 자원재활용 추진, 8월 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역점시책으로・재해예방과 시민보건관리・근검절약과 자원재활용 확산・지역경제와 시민생활안정・새 질서 새 생활실천과 공직기강확립 4개를 선정(시보 8. 11)
* "교통사고 미리 막자", 보행자 사망의 56%가 횡단로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 이에 「횡단사고 줄이기」를 집중 추진하고 있어(시보 8. 11)

8. 12
* 부산항 장기 개발 대책 시급, 해항청 2011년엔 4등항 전락 예측(국제 8. 12)
* 부산 지역 신발회사의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요망(국제 8. 12)
* 부산경찰청, 인사(국제 8. 12)
* 부산 지하철 발파 피해보상 대책 무성의, 공단과 업주 한 달째 방관(국제 8. 12)
* 부산시, 불법 삼림훼손 일제 단속(국제 8. 12)
* 영도구, 구청사 신축 갈팡질팡, 4층 공사 중 도면 없이 6층 강행(국제 8. 12)
* 부산시, 담배 자판기 설치 규제(국제 8. 12)
* 부산 환경청, 부산 공기 납성분 크게 증가(국제 8. 12)
* 부산 식수 공급 비상, 낙동강 하류 대규모 감조류 발생(국제 8. 12)
* 부산시, 시청사 부지 매각 백지화 방침, 공기업식 컨벤션 센터 구상(국제 8. 12)
* 부산시 수방 대책 헛 구호, 84mm 비에도 공장 및 도로 침수 소동(국제 8. 13)
* 부경총련 2백명 범민족 사수 대회 개최(국제 8. 12)
* 부산~김해 경운철 건설,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최첨단 교통수단인 경운철 건설(부산 8. 12)
* 중견법인 신설 늘어나 자본금 2억~3억 기업 작년비 476%(부산 8. 12)
* 부산경찰청인사(부산 8. 12)
* 과채류 값 급등세, 날씨 안 좋아 작황부진으로 배추 kg당 70% 무 26% 올랐다(부산 8. 12)
* 시 중기 재정계획 5년간 도로 교통부문 2조8천억원 투자(부산 8. 13)
* 10개 부문 2백19개 사업에 9조8천6백만원 투자, 「중기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를 열고 지역계획 수정 부분반영, 부문별 투자계획과 주요 투자사업 재원조달계획 재정규모전망 등을 중기 재정 계획을 확정(시보 8. 21)
* ~16일까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2 범민족대회' 개최(민주운동 8. 12)
* 李鐵煥 제25대 부산지방법원장 취임(법원사 8. 12)

8. 13
* 사상~김해 경전철 97년 완공 예정(국제 8. 13)

* 부산 지역 물가 조사기관, 물가통계 신뢰성 높인다, 기관마다 가격 달라 소비자 혼선, 조사방법 등 전면 개편(국제 8. 13)
* 부산시 아파트 천가구 미분양(국제 8. 13)
* 부산시, 노선 버스 신설 대책 마련, 대단위 아파트 불편 해소(국제 8. 13)
* 신평 염색 공단 조업 차질, 열병합 발전소 시공사서 부실 공사(국제 8. 13)
* 지방의정(국제 8. 13)
* 부산 교육계 임시회 의사국 설치 등 의결, 13일 오후 2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부산 8. 13)
* 송정 해수욕장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연계되어(부산 8. 19)

8. 14
* 부산 국세청, 세금민원 갈수록 증가(국제 8. 14)
* 부산시, 버스 전용 차선제 시행 난망(국제 8. 14)
* 부산시, 적자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마을노선 최우선 적용(국제 8. 14)
* 부산업계 북미수출 비상, 북미자유협정의 체결로 우라나라의 대북미 수출에 비상(부산 8. 14)
*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상담 24만9천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7% 증가(부산 8. 14)
* 부산시 상수도 본부 수질검사 방법 개선, 앞으로 검사제를 정기적으로 실시키로(부산 8. 14)
* 주공부산지사 8월 중 복지아파트 2천6백28세대 공급(부산 8. 14)
*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 해직교사원직복직에 72만명이 참여했다고 발표(민주운동 8. 14)

8. 15
* 부산시, 인사이동(부산 8. 15)
* 부산국세청, 인사(국제, 부산 8. 15)
* 부산 지방 철도청, 인사(국제 8. 15)
* 북구청, 종합 사회 복지관 공사 차질(국제 8. 15)
* 해운대 신시가지, 오는 22일 착공(국제 8. 15)
* 수출보험 이용률 낮다, 올 상반기는 1.83% 불과한 것으로 집계(부산 8. 15)
* 세무직원정기인사, 21개 세무서의 세무 조사관급이하 직원 97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대행(부산 8. 15)
* 부산시 주차장 관리업무 대폭이양, 10월 말까지 자치구에 이양키로(부산 8. 15)
*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타결로 인한 부산업계의 영향, 특히 신발・철강 등 주종산업이 큰 타격(부산 8. 15)

8. 16
* 제1회 해변 무용제 개최(국제 8. 18)

8. 17
* 정부, 부산서도 북한 영화 상영(국제 8. 17)
* 부동산 뱅크 조사, 부산, 아파트 값 평당 439만원(국제 8. 17)
* 부산 지역 체임 1백64억, 90%이상이 신발업계(국제 8. 17)
* 부산시, 시민공원 만든다, 을숙도 69만평 시유화 추진(국제 8. 17)
* 올 상반기 부산 자동차 판매부진, 작년보다 5%증가에 그쳤다고 한다(부산 8. 17)
* 주택업체 대부분 영세 등록자 중 5년미만 76.4%, 부실 업체인 것으로 들어났다(부산 8. 17)
* 바르셀로나 올림픽 參加釜山選手團 歡迎 行使(직할30년 8. 17)

8. 18
* 부산시, 도로부지 편입 큰 반발(국제 8. 18)
* 부산시, 신평・장림 처리장 확장 구체화, 수자원 공사 2만평 계약 체결(국제 8. 18)
* 부산, 새마을 지도자 수련회 러시, 구청장・구의원 대거 참가(국제 8. 18)
* 토지거래허가 신고 구역 재지정, 건설부는 부산 경남지역의 총 12303.14㎢를 재지정(부산 8. 18)
* 부산 6개 백화점 매출 신장률 낮게 책정, 경기침체와 시중 자금난 소비절약운동의 여파로(부산 8. 18)
* 부산시 도로개설 주먹구구식 금정산 전통사찰 경내 관통, 신도들의 반발과 문화유산의 훼손우려(부산 8. 18)
* 장림 유수지 이설 연내착공, 이달 중에 어민손실 보사 조사용역 및 환경 영향평가를 끝내(부산 8. 18)
* 부산권 정비 특별법 추진, 지지부진한 주요 현안사업 조기실현을 위해(부산 8. 18)
* 동남개발 연구원 개원(현 부산발전연구원)(부산교육 8. 18)

8. 19
* 부산시, 추석 물가 단속 강화, 구청별 대책 수립 지시(국제 8. 19)
* 부산 지역 수출 계속 감소, 전 업종 7.8% 감소(국제 8. 19)
* 부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개정(국제 8. 19)
* 도시개발공사, 만덕 3지구 택지 개발 강행, 사업추진 시 반발 예상(국제 8. 19)
* 부산시 북구 인구 감소, 신발 업체 도산 여파(국제 8. 19)

* 부산 업체 의지이전, 소비도시화 가속 2차산업 비중계속 감소, 80년대 이후 계속 감소(부산 8. 19)
* 공무원 연금퇴직제 정착, 지난해 28명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부산 8. 19)
* 부산시 지방 환경청 눈가림 행정일관 폐업업체 그대로 등재(부산 8. 19)

8. 20
* 부산 7개 실업계 고교 남녀공학 실시(국제 8. 20)
* 지방의정(국제 8. 20)
* 부산, 정신병 진료시설 부족, 병상 고작 7백개, 고가 치료비 부담, 잠재 환자 4만명 방치(국제 8. 20)
* 부산시 건설부에 주거환경개선 신청, 동대신 2·3지구 대덕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부산 8. 20)
* 투신사 공사채 큰 호응, 부산 7월말 현재 수신고 2억5천8백억으로 투자신탁(부산 8. 20)
* 사회복지관 직업훈련 영세인 혜택 못봐, 우선 교육대상자인 영세미들로부터 외면(부산 8. 20)
* 구민종합운동장 세운다, 부산 사하구 신평 공단 내 사유지 4천평이 94년까지 조성(부산 8. 20)
* 대영고가교 개통, 8월 20일 대영 로타리교가 개통되어 구덕~부산터널 간 논스텁 운행이 가능해져(시보 8. 21)
* 구덕로~부산터널간 대영고가교 개통(1993. 7. 15. 착공)(부산교육 8. 20)

8. 21
* 부산~서울 헬기취항, 정부 내년상반기 하루 5회 항로 개설(국제 8. 21)
* 공공 아파트 미분양, 모라 임대 전량 미분양(국제 8. 21)
* 시민 식품 위생 적신호, 제조 위반, 불량판매 갈수록 증가 추세(국제 8. 21)
* 영도구청, 영도 수변공원 조성, 영선~동삼 간 3.4km 해안(국제 8. 21)
* 부산시, 인사(국제 8. 21)
* 해운대구청, 달맞이 고개 건축 문제로 시와 구청 대립(국제 8. 21)
* 부산시 도심순환도로 계획안 마련, 감천~암남동 3차선 터널을 2개 건설, 청학동감만동에 해저터널건설이 계획(부산 8. 21)
* 부산시 양곡업소 일제단속, 추석을 앞두고 오늘 24일부터 6일간 일제 단속(부산 8. 21)
* 중소기업 가동률 계속 부진, 조사대상 1,840여개 업체 중 정상가동 업체는 1,546개 업체(부산 8. 21)
* 인구 12만 수용 주거단지 조성, 22일 해운대 신사가지 조성 사업이 착공 돼 아파트 3만2천세대 16개 학교 등 완비하고 지하철 2호선도 연결하여 주택난과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보여(시보 8. 21)
* 부산 교통난 숨통이 튼다, 10개 광역 간선 가로망 조성, 2천년대 종합 정비안 잠정 확정 등을 통해 교통난이 해소될 예정(시보 8. 21)
* 무의탁 노인에게 성금, 추석을 맞아 무의탁 노인에게 총 2억3백만원 지원(시보 8. 21)
* 낙동대로 교통체계개선, 최근 개통된 낙동대로가 불합리한 교통체계로 인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하구둑 경유 북구 반면 U턴을 신설하는 등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있어(시보 8. 21)
* 건설 공사 부실방지 대책마련,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련부서에 지시, 설비 내구·안전성 정밀 검토 등이 그 내용(시보 8. 21)
* 전통 가업 전승자에 시상, 올해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오직 자신의 전통가업을 이어오면서 장인정신으로 조상의 얼을 재현하고 있는 모범전통가업전승자를 발굴 표창하기 위해 시상식을 시행(시보 8. 21)
* 재조사 청구 3백76건, 개별지가결정 내용에 대한 땅 주인들의 재조사 청구가 3백76건에 달하고 상향요구도 1백36건에 달해(시보 8. 21)
* 소비자 보호 시책마련, 시는「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운영 강화, 해마다 피해구제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고발정신 일깨우게 하고 소비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소비자보호시책을 마련(시보 8. 21)
*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확대, 역·터미널·공원 등 곳곳에 수집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시보 8. 21)
* 컨세 235억원 거둬, 7월말까지의 컨세 징수율이 9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시보 8. 21)
* 수영만 매립지 재매각 공고, 1차 매각 때 유찰된 땅을 3필지로 나누어 28일 재매각(시보 8. 21)
*「분양원가연동제」적용 제외, 주택면적이 전체의 50%미만인 재개발 복합 건물은 분양원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시보 8. 21)
* 저소득 주민후원회 참여 활발, 올 상반기에 2백30단체가 동참하고 복지 시설 지원 등 저소득 주민 후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시보 8. 21)
* 삼림훼손 단속, 택지 개발지역 등 8개 건설허가 지역에 대한 산림훼손 행위를 단속키로(시보 8. 21)
* 추석 전 임금 체불해소만전, 경기 침체로 임금 체불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44개 업체에 1백63억원 금융자원 등 대책 마련(시보 8. 21)

* 동구 수정 2지구 등 5곳 추가지정,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동구 수정 마을 2지구 등 5개 지구를 추가 입안 대상지구로 결정, 세부검토 작업(시보 8. 21)
* 관광수입 감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관광수입이 1년 사이 50%정도 격감해 관광업계에 비상(시보 8. 21)

8. 22
* 정부, 부산 7개 유선방송국 인가, 전국 자치구별 백개 연대 설립(국제 8. 22)
* 부산 국세청, 토초세 10% 잘못 부과, 통지 4백66건 중 60건 이의(국제 8. 22)
* 부산, 공산권 선박 입항 급증, 작년 같은 기간 2배, 국적 다양(국제 8. 22)
* 부산, 경남북, 정년퇴임 교원 훈포상자 명단(국제 8. 22)
* 사직구장 일대 계획도로 15년째 지연(국제 8. 22)
* 부산시, 재활용품 전담처리 재생공사 늑장(국제 8. 22)
* 부산시, 해운대 신시가 착공, 1조4백억 투입, 95년 완공 예정(국제 8. 22)
* 손공보처장관 초청 상공인 간담회, 오전 8시 부산상의에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부산 8. 22)
* 해운대 신시가지 착공(부산 8. 22)
* 부산시 추석 앞두고 고물가 조사방법개편 핑계로 파악조차 하지 않아, 허점을 드러내(부산 8. 22)
* 부산시 기상청 "일손부족", 정원 172명 가운데 90%인 155명이 근무(부산 8. 22)
* 부산상의주최 부산국제 항구도시 회의창설, 7개국 15개 항구도시가 참가하는 「ECOMAP」(부산 8. 22)
*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착공(부산교육 8. 22)
* 海運臺 新市街地建設 事業起工(직할30년 8. 22)

8. 23
* 용호하수처리장 확장 반대 대책위원회 해체, 용호하수처리장 새 국면(국제 8. 24)
* 「남부하수장확장」 타결 급진전, 반대를 주도해 온 반대 대책위의 해체에 따라(부산 8. 22)

8. 24
* 한중 수교로 신발, 섬유, 해운, 수산, 건설 등 부산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국제 8. 24)
* 한중 수교 발효, 부산~백두산 코스, 관광 업계 후끈(국제 8. 24)
* 중화민국천백일족 마지막 하강식, 충효촌 화교 "수교 날벼락", 부산 영주동 2백 주민 집단 거주지 불분명(국제 8. 25)
* 동래분구 시급하다, 금정구와의 분구 뒤에도 부산시의 대표적 주거지역으로 정착에 따라 인구가 계속하여 증가(부산 8. 24)
* 국고지원 확보책 등 추궁, 부산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질문(부산 8. 24)
* 해상신도시·가덕도개발 우선 순위 논란, 시 사업추진에 또 난관이 생겼다(부산 8. 24)
* 군시설 이용계획 추궁, 부산시의회 제1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질문(부산 8. 27)
* 대규모 건설 산적…국교보조절실, 부산시의회는 8월 24일 의회 본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의회에서 인공섬 건설 93년 5월께 착수. 동래·남·부산진구 분구 추진, 화공업체 「풀값」 특별 경감 준비 등 논의(시보 9. 1)

8. 25
*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해운대 신시가지 7, 8 공구 조성, 부산 업체만 공업 참여케 입찰 제한 의뢰(국제 8. 25)
* 부산시의회, 동래·남·부산진구 분구 추진, 인공섬 건설 내년 5월 본격 착수(국제 8. 25)
* 부산, LP가스 판매 전면 중단(국제 8. 25)
* 내년 대입 경쟁률 낮아진다, 부산 진학 희망자 3천명 감소(국제 8. 25)
* 중국 텐진 시장 부산 방문, 신발과 섬유에 투자 희망, 개발구에 한국전용 공단설치계획(국제 8. 25)
* 부산 체임 1백63억으로 전국 최고, 작년 비 10배 증가(국제 8. 27)
* 부산도 담배자판기 추방운동, 26개 단체 조례제정 청원(국제 8. 27)
* 부산 「10부제」 참여 전국 최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날로 확산(부산 8. 25)
* 중·소형 아파트값 "꿈틀" 8초보다 300만원 올라, 이사철을 앞두고(부산 8. 25)
* 지하철 지원 비율 싸고 교통부 시 대립 심화, 교통부가 지원 비율을 현행의 10%에서 20%로 증액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귀추가 주목(부산 8. 25)
* 상임 위원회 개최, 부산시는 8월 25일 재무산업위원회를 열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 면제에 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시보 9. 1)
* 추석절 특별 수송 대책수립, 추석절을 전후하여 폭주하는 귀성객과 성묘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추석절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해(시보 9. 1)

8. 26
* 부산 산성비 매년 악화, 생태계 파괴가 크게 우려(부산 8. 26)
* 부산도시가스 옮긴다, 남구 남천동 (주)부산도시가스공장이 96년말 완전 폐쇄이전(부산 8. 26)
* 금융업계 중국 진출 활기, 한·중 정식 수교이후(부산 8. 26)

* 특별 융자제 돌연 변경, 주민들이 크게 반발(부산 8. 26)
* 각급 학교에서의 찬조금품 접수 전면 금지(부산교육 8. 26)

8. 27
* 지방의정(국제 8. 27)
* 부산시의회 질의, 행정심판 유명무실, 3백84건 중 87% 반려(국제 8. 27)
* 부산시의회 질의, 하얄리아 등 군부대 24곳 활용책 문제, 낙동강 하구관리권 시로 이전(국제 8. 27)
* 아파트 가사용승인 남발, 안전무시, 사실상 편법(국제 8. 27)
* 부산시, 추석 물가 강력 억제, 주2회 합동 단속반 투입, 가격 조사(국제 8. 27)
*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 5개월째 하향(국제 8. 27)
* 부산시 초·중등 교원, 인사(국제 8. 27)
* 부산 초중등 교원 3백16명 인사(국제 8. 27)
* 불황부산 최악, 부산의 주요업종인 신발업계와 수산업계통이 줄도산(부산 8. 27)
* 광안·남천동 일대 제4부산상권 부상(부산 8. 27)
* 내년 부산 국고 보조 1,100억 "쥐꼬리", 당초 4천500억 지원을 요청하여 주요사업 차질우려(부산 8. 27)
* 화장장 대책 집중추궁, 부산시의회는 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사정 질문(부산 8. 31)
* 시의회 소식, 8월 27일 본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행정 심판제도개선', '시 금이 지방은행에 위엄치 않는 이유', '경부 고속전철 종착역 변경' 등에 관해 논의(시보 9. 14)

8. 28
* 부산시 교육청, 인사(국제 8. 28)
* 금정산이 행정 당국에 의해 황폐화 되고 있다, 산불진화용 임도 2km건설, 시민 반발(국제 8. 28)
*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환경청, 강서구 원인조사 착수(국제 8. 31)
* 최근 주가급등으로 부산지역 증권사지점들의 약정고가 크게 늘고 있다(부산 8. 28)
* 부산 외곽 순환로 21km 건설(부산 8. 28)
*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이 1백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특별 징수 대책을 마련,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부산 8. 28)
* 주식이동 서면 분석, 부산지방국세청 1억원을 초과한 4백여개 법인 대상으로(부산 8. 28)
* 부산 수출 계약 부진(부산 8. 28)
* 내년 부산 경남 15개 사업 238억 투입, 15개 주요현안 계속 사업에 투입될 예정(부산 8. 29)
* 대선·사전운동 단속, 전담수사반을 가동했다(부산 8. 28)
* 제24회 교육자료 전시회 개관(부산교육 8. 28)

8. 29
* 국산 완구, 반값 중국산 완구 수입 증가에 의해 경영난, 부산 중소업체 30여 곳 폐업(국제 8. 29)
* 북구, 대단위 아파트 제조업체 절반이 낙동강 오염 부채질, 폐수 기준치 초과 방류(국제 8. 29)
* 사하구청, 우회도로 2곳 개설 건의, 통행 급증 체증 해소 시도(국제 8. 29)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도입(부산 8. 29)
* 부산 지역업체 올 추석 연휴 대부분 4~5일, 상여금은 1백~1백5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부산 8. 29)

8. 31
* 부산, 대졸 취업 바늘구멍, 모집 인원 작년의 25%, 퇴직자 보충 수준(국제 8. 31)
* 금정구청, 인사(국제 8. 31)
* 강서구 의회, 화훼도매시장 반대, 지역실정과 교통편 무시한 탁상행정(국제 8. 31)
* 부산시, 예산확보 어렵다는 이유로 안일한 수도 행정 시행, 오존처리 유해물 50% 잔류(국제 8. 31)
* 부산시, 용호 하수장 공사 강행, 새벽 공권력 투입, 농성주민 강제 해산(국제 8. 31)
* 부산남구문현여상 3천명 한밤 농성, 정규 고교 개편 약속 기피(국제 9. 1)
* 고금리 상품 개발 경쟁 치열, 금융기관 간의 예금유치 경쟁이 치열하여(부산 8. 31)
* 부산의 새마을금고, 외형 성장 따라 경영 등 변신시도(부산 8. 31)
* 물가가 잡힌다, 경제화 안정화 시책에 따른 내유진정 등으로 인해(부산 8. 31)
* 대중투자모색 활발(부산 8. 31)
* 부산 시의회 시정 질문 결산(부산 9. 1)
* 내년 교육 교부금 7조6천억원, 올해보다 16.5%가 증액된 7조5천8백71억원의 내년 지방 공교육비 특별회계를 확정,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배정(부산 9. 1)
* 부산도심은 지하로, 경부고속 전철의 부산시내 도심구간의 고가도로 건설이 백지화되고 지하 터널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다(부산 9. 1)

9. 1　* 부산지방국세청, 억울한 세금 많다, 구제기능미약 심판제도 개선 시급(국제 9. 1)
* 부산시, 인사(국제 9. 1)
* 사하구청, 차량 매연 우편 신고제 실시, 성과 점검 후 확대 방침(국제 9. 1)
* 부산시, 6개 동 분동(국제 9. 1)
* 만덕 3지구 택지개발사업 난항, 주민 반대서명 착수(국제 9. 2)
* 신평염색공단 하수처리시설 고장, 폐수 1천여 톤 유출(국제 9. 2)
* 부산 첫 건축 전문지 탄생, '이상건축' 9월 창간호 발행(국제 9. 3)
* 부산시 쓰레기 분리수거 본격 추진(부산 8. 25)
* 시내 6개 동 개소식, 업무에 들어가(부산 9. 1)
* 부산물가 왜 가장 비싸나,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5.3%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4.5%에 비해 무려 0.8% 포인트나 인상(부산 9. 1)
* 기업 자금 압박 가중(부산 9. 1)
* 면허행정문의「전화 응답」서비스, 부산경찰청 운전면허 취득자들의 편의를 위해(부산 9. 1)
* 가을철 교통대책 마련, 추석절 및 가을철 수송 수요 급증에 대비, 승객의 안전과 원활한 수송을 위해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시보 9. 1)
* 행정 광고물 정비, 행정 광고물에 대해서도 해당 구청의 사전검인은 물론 지정 게시판에 부착토록(시보 9. 1)
* 분리 안 된 쓰레기 수거 안 해, 1일부터 자원 재활용 운동 본격 추진으로 1일부터 분리 안 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기로(시보 9. 1)
* 추석 명절 검소하게, 오는 9일까지 대대적 계몽활동을 전개해 사치·호화선을 자제 당부하면서 건전 소비생활 실천과 연계, 과소비 추방 가두 캠페인도 벌이기로(시보 9. 1)
* 도시환경 순찰 강화, 개발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도시 환경 보전과 시정 재해요인의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순찰활동을 강화해 시설물을 보호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제거키로(시보 9. 1)
* 심야 불법 영업 특별단속, 심야 불법영업을 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시보 9. 1)
* 부산문화 활성 방안모색, 부산자랑 10가지 시민예술제가 가을을 맞아 9월 5일에 열려, 21세기 부산의 위상과 문화예술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시보 9. 1)
* 근로여성 위한「어린이집」건립, 금정구 부곡동 금정청소년 회관의 부지 내에 어린이 집을 건립키로 하고 8월 중에 착공 93년 3월에 완공 예정(시보 9. 1)
* 취득세 신고 사실 조사, 9월 한 달 동안 취득세 자진신고에 따른 납부실태조사와 투기성과 사치성 재산에 대한 부과 실태조사를 실시(시보 9. 1)
* 도심 순환도로 구체화, 한보철강~인공섬~연합철강 12km를 잇는 도심순환도로가 구체화 돼(시보 9. 1)
* 지방세 징수 89%, 현재까지 징수한 지방세가 연간 목표액의 59.3%이고 부과액의 89.5%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내(시보 9. 1)
* 하수구 등 생활 시설확충,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 지역의 공동수도 화장실 등 생활 기본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함과 함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키로(시보 9. 1)
* 어머니 컴퓨터교실 연다, 정보화에 대비 시민들의 전산의식 확산을 위해 부산시내 거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컴퓨터강좌를 개설·운영(시보 9. 1)
* 동남권 경제핵심도시로 개발, 부산지역경제 장·단기 부양 대책마련, 유통구조 현대화, 교역정보 강화 등 부산경제 회복 대책이 마련(시보 9. 1)
* 재활용 운동 본격화…분리쓰레기만 수거, 재활용 운동을 본격화 하기 위해 분리수거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알려 주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시보 9. 1)
*「3난4역」해결, 지역이기주의 불식이 열쇠, 분뇨 처리, 해양 투기 방식으로 을숙도에 쓰레기 매립, 9월 중 영향 평가, 제2도시고속, 교통공단~감전 1단계 개통예정(시보 9. 1)
* 수산물 수요·공급 무난할 듯, 추석을 10일 앞둔 현재 부산지역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8%나 많은 29만t의 냉동 수산물이 보관돼 제때 출하만 되면 예년과 같은 제수용 수산물의 폭 등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시보 9. 1)
* MBC노조, 855명의 전체 조합원 중 787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83.8%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민주운동 9. 1)

9. 2　* 부산-오사카 운항 '오림피아 88호' 선원 체불 항의, 승선 거부 결의(국제 9. 2)

* 남구청, 빌라 허가 후 돌연 중지령, 건설사 “관횡포” 반발(국제 9. 2)
* 시민단체 등 각종 단체 긴급 회의, 서명운동 논의, 금정산 임도 백지화 운동(국제 9. 4)
* 물가단속 겉돈다, 부산 지방국세청 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부산 9. 2)
* 건축재목 수입 급증, 올 들어 극심한 건설 경기 불황에도 불구(부산 9. 2)
* 동래구 의회 채락현 의원 사임(부산 9. 4)
* 교육위원회 개원 1주년 기념(부산교육 9. 2)

9. 3
* 부산시, 금정산 일대에 4개 임도개설계획 확정, 시민 측 반발(국제 9. 3)
* 정부, 부산지하철건설계획 조정(국제 9. 3)
* 부산, 부도 이틀 새 47건, 8월 부도율 0.61%, 9년만에 최고(국제 9. 3)
* 부산 중구청, 인사(국제 9. 3)
* 일본 가고시마 지방의회 의원 부산 방문(국제 9. 3)
* 춘천천 재복개사업에 대해 해운대구청과 시종합건설본부의 의견 충돌 발생(국제 9. 3)
* 부산시, 구청별 야간순찰반 운영(국제 9. 3)
* 부산시, 주차위반 상습체납시 재산 압류 적용(국제 9. 3)
* 지방의정, 남구 “종교시설 반대” 현장답사, 서구 “구세 면제 조례 등 심의”, 동래구 “세미나 수련회 개최”, 북구 “분동 소요경비 등 의결”, 해운대구 “복개주차장 의견 청취”, 금정구 “가고시마시 친선 방문”, 사하구 “추경안 심의절차 논의”(국제 9. 3)
* 부산연쇄부도 진정기미 없다, 지난 8월 29일~31일 모두 46건 19억8천5백83만6천원의 부도(부산 9. 3)
* 연산교 제구실 못한다, 만여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다(부산 9. 3)
* 부산시 전산행정 시행착오, 3년만에 교체, 이로 인해 5억여원의 예산 낭비(부산 9. 3)
* 김포~순안직항로개설, 빠르면 연내 취항이 기대, 더불어 부산과 청진 교류 항구도 추가(부산 9. 4)
* 부산시 내년예산 1조8천8백억선, 올해보다 10%늘어, 이는 교통난 해소와 공해방지사업에(부산 9. 4)
* 부산시 새마을청년 연합회 정총, 92년도 새마을청년 연합회 정기총회가 시민회관에서 열려 유공화원 12명에게 표창을 수여해(시보 9. 14)

9. 4
* 중국, 천진-부산항 결연 요청, “정보, 인적 교류 등 희망” 공문(국제 9. 4)
* 건설부, 택지예정 13개 지구 지정, 부산 거제, 당감 등 전국 2백91만평 95년 공급 계획(국제 9. 4)
* 부산진역 문화 공간 조성, 1억3천여만원 투입(국제 9. 4)
* 부산시, 내년 경상비 동결, 전체 예산 10~15% 인상선 편성, 1조9천억 밑돌 듯(국제 9. 4)
* 부산시, 인사(국제 9. 5)
* 부산·대구 공장 신·증설 지방세완화, 시·도 경제협의회 부산신발산업에 지원, 김해공항 확정에 250억원을 보조(부산 9. 4)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11개 도시의 13개 지역 2백91만2천평이 추가 지정(부산 9. 4)
* 추석 상품값 크게 올라, 65%이상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크게 올라(부산 9. 4)
* 소방서 3개 신설, 부산시 소방본부가 중구 중앙동서 동래구 연산동으로 이전, 소방파출소 8개 신설(부산 9. 4)
* 해양박물관 동삼 매립지에 건립(부산 9. 4)
* 부산 자동차 39만대, 8월말 현재 작년 동기에서 20.6%늘어나 39만대(부산 9. 4)
* 부산시의회 조례정비 특별 위원회는 특위 구성 후 처음으로 전문위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협의해, 행정 등 3개 반으로 작업키로(시보 9. 14)
* 부산노련 부산대에서 제6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민주운동 9. 4)

9. 5
* 낙동강 일대 배수 펌프장들이 부유물질제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큰비가 올 경우 낙동강 오염이 가속화될 우려(국제 9. 5)
* 중구 사회 복지관 신축, 중구청은 15억원의 예산을 들여(부산 9. 5)
* 부산 상의 조사 부산 추석 동향, 백화점 슈퍼마켓 재래시장의 판매가 부진(부산 9. 5)
* 단자사 부실여신 증가율 높다, 지역경제가 부진함을 보여줘(부산 9. 5)
* 교통사고 점차 감소, 전년대비 건수 10% 사망자는 14% 줄었다(부산 9. 5)

9. 6
* 금정산 임도 시민 규탄 확산, 휴일 등산객 즉석 성토(국제 9. 7)
* 부산대에서 ‘관권 부정선거 및 동부지구 의장 구출을 위한 부경총련(건) 결의대회’ 개최(민주운동 9. 6)

9. 7　* 부산 68개 회사 1백96억 체불, 22억원만 추석 전 청한, 단기간 해소 불투명, 1만5천 노동자 체임 받지 못해(국제 9. 7)
* 부산지역 예금은행 수신고 계속 줄어(부산 9. 7)
* 대단지 신규 아파트 대거 분양(부산 9. 7)
* 쓰레기 줄이기 구의원들이 앞장,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 동참을 선언(부산 9. 8)
* 일본 오사카 시장 부부예방 받고 환담, 부산시교육위원회 개원을 1주년을 맞아 오후 2시부터 교육청대강당에서 개최된 개원1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축사를 해(시보 9. 14)
* 범시민 축제행사 전환, 부산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부산시회의실에서 심의를 갖고 행사 세부 계획을 확정해(시보 9. 14)
* 저소득 모자 가정에 지원금,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에 대한 자립지원금전달식 7일 시 회의실에서 열려 모범가장 3백세대에 30만원씩 지원(시보 9. 14)

9. 8　* 부산시 어음부토 12년만에 최고, 8월, 0. 71%로 전국 평균 5배(국제 9. 8)
* '시민의 날' 행사 10여 곳서 개최, 10월 2~11일 개최 예정, 해상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기획(국제 9. 8)
* 부산지역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총 1백83억원, 최고 땅부자 세금 8억(국제 9. 8)
* 사상공단, 대단위 아파트 허가 남발, 12곳 사업 승인, 입주 시 인구 폭증 예상, 도로 등 기반시설 미비(국제 9. 8)
* 해운대구청, 해운대종합해양휴양지 개발 위해 시에 수영 요트장 관리권 이전 요구(국제 9. 8)
* 대한산악부산연합, 금정산 임도 철회 결의문 작성, 금정구청 전달(국제 9. 8)
* 「부도 도미노」 부산 경제 '신음', 8월 한 달 동안 부산 지역 어음 부도율이 80년 이후 최고치 기록(국제 9. 8)
* 관광지 미관 망친다, 동백섬입구 토사야적장(부산 9. 8)
* 안락지하차도 입구에 버스 정류소 교통 혼잡·사고 원인(부산 9. 8)
* 수영 요트장 관리권 해당 구청서 맡아야, 해운대구 시에 이관요청(부산 9. 8)

9. 9　* 부산 건설부, 올 할당량 크게 초과 예상, 주택 공급 3만채 무난(국제 9. 9)
* 남구청, 자체 쓰레기 소각장 설치키로, 각 동에 지시하여 대항 부지 물색(국제 9. 9)
*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 통과 시 시행, 특별 회계 재원에 활용, 주차장 설치, 관리구청 위임(국제 9. 9)
* 부산 택시 노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신고(국제 9. 9)
* 부산 상의, 긴급회장단회의 개최, 청와대-관계 당국에 건의서, '신용 보증' 지원 확대, 은행 자금력 강화, 상업어음 할인 개선 등(국제 9. 10)
* 추석자금 풀려도 상당수 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임(부산 9. 9)
* 부산항, 오는 2000년대 동북아 단일 운송권 내의 주요거점 항으로 부상될 전망(부산 9. 9)
* 부산시, 세계은행이 1억달러를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공영버스회사, 지하철 등 건립 추진(부산 9. 9)
* 부산시, 공공부문 주택건립 실적 부진(부산 9. 9)
* 부산본부세관 및 수송관련 업체, 추석특별 통관 지원대책 마련(부산 9. 9)
* 부산시교육청, 초중고교 내년 9곳 신설(부산 9. 9)

9. 10　* 주택관리공사, 4/4분기, 부산 금곡 등 16개 지구서 1만9천 가구 발주(국제 9. 10)
* 지방 의정, 금정구, 가고시마 시의원 초청, 사하구, 여성의원 월례회 유치, 해운대구, 구청 심의 의뢰안 접수, 북구, 추경예산 54억 의결, 부산진구, 회의록 발간 예정, 중구, 여론 수렵 방안 논의, 동구, '문화거리' 등 심의키로(국제 9. 10)
* 부산상의, 자금난 완화책 건의(부산 9. 10)
* 부산녹산공업단지 중단, 공업용수 사업 차질(부산 9. 10)

9. 11　* 부산시, 공약 사업 우선 추진, 예산편정지침시달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이 회의에서 교통난 해소·환경 공해 방지 등 공약에 관해 논의(시보 9. 14)

9. 14　* 영세민 돕기 후원회 운영 활발, 저소득 주민 대상으로 각계에서 활성화(국제 9. 14)
* 영도구 장기 개발 계획 주요 사업 확정, 봉래산 대단위 공원 조성, 건축 행위 등 전면 금지(국제 9. 14)
* 부산시, 주차건물 용적률 대폭완화, 주차요금체계 개편(부산 9. 14)
* 부산수출전망 불투명, 수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부산 9. 14)
* 부산시, 대형건물에 환경부담금 부과, 부과대상물에 일제조사(부산 9. 14)

* 공공기관 신축 건물「에너지 절약형」으로 추진, 건축 부문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및 산하 단체 건물의 설계부터 절약형 설비와 신기술을 도입하여 절약형 건축을 적극 추진키로(시보 9. 14)
* "쓰레기가 줄어든다", 분리수거·감량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작년 2/4분기 대비 3.7%감소했고 하반기엔 더욱 파급될 것으로 예상(시보 9. 14)
* 미분리 쓰레기도 당분간수거, 매주 목요일에 재활용품만 수거했으나 추석연휴 등을 감안 미분리 쓰레기도 당분간 수거해(시보 9. 14)
* 불법·무질서 추방운동 지속 전개, 부산시는「새 질서, 새 생활 실천」올 하반기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마련(시보 9. 14)
* 부산시의회 상임위개최, 도시계획위, 시의원 참여율 높여야 할 것이라는 회의결과 도출(시보 9. 14)
* 가을맞이 환경 정비 등 중점, 9월 시정 역점, 재활용품 수거 확산 추진하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정착도 함께 할 예정(시보 9. 14)
* 추석절 제수용 물가 동향 파악, 추석절 제수용품 물가 동향 파악을 위해 자갈치 시장으로 현지 순시에 나서 물가 안정지도를 해(시보 9. 14)
* 주거환경 개선지구 선정확정, 동구 수정 2동을 비롯한 5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을 공람 공고해(시보 9. 21)

9. 15
* 주택업체, 택지분양금 납부 기피, 1백억 체납, "계약 조건, 공사측만 유리', 업계 불만, 후속 사업 중단 위기(국제 9. 15)
* 금정구, 선동, 두구동, 오륜동, 청룡동 일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로와 다리 등 건설 추진, 시에 3백12억원 예산 요청(국제 9. 15)
* 주거지 개선 5골 지정, 공람 공고, 동구 수정 2지구, 영도구신선동, 동래구 연산동, 북구 만덕동, 부산진구 전포동(국제 9. 15)
* 삼화 범일 공장 폐쇄, 대량 실직 우려, 노조 큰 반발, 금사 공장만 가동키로(국제 9. 15)
* 부산지방국세청, 부가세 대상 사업자 일제 세무조사 착수(부산 9. 15)
* 부산시, 대선 앞두고 각종 대형공사의 조기 완공 재촉에 대선용 선심행정 지적받음(부산 9. 15)
* 부산시내 백화점, 추석 매출 최악 지난해보다 10~20% 감소(부산 9. 15)
* 낙동대로 부실공사(부산 9. 15)
* 부산 택지초과부담금 183억원 부과(부산 9. 15)
* 귀성노동자 귀사율 상승, 경기침체에 따른 구직난을 반영(부산 9. 15)
* 부산시 남구의회,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부산서 두 번째로 발의(부산 9. 16)
* 부산 역사, 구석기시대 존재가능,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지역에서 기원전 5만~1만년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돌도끼, 돌긁개 등 30여점의 구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돼(시보 11. 2)
* 삼화고무 범일동공장 경영악화로 폐쇄하고, 금사동공장은 가동키로 결정(부산교육 9. 15)
* 시립박물관, 해운대신시가지 발굴 현장서 후기구석기 유물 돌도끼, 긁게 등 발굴(부산교육 9. 15)
* (주)삼화, 범일공장을 폐쇄하고 금사공장만 가동키로 결정(민주운동 9. 15)
* 삼화 범일공장 經營惡化로 閉銷 發表(직할30년 9. 15)

9. 16
* 강서구의회, 부산시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및 근린 생활시설 용도변경 허가에 따른 사무처리 지침' 완화 건의, 재산권 침해 주장(국제 9. 16)
* 부산시, 지하철과 버스전용도로를 연결하는 환승센터 적극 추진, 노포, 동래, 하단역 등 3곳(국제 9. 16)
* 삼화 노동자 잇단 자구 농성, 민자지구당, 노동청에 대책 요구(국제 9. 17)
* 버스전용차선제 무산 위기(부산 9. 16)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공포(제2939호)(부산교육 9. 16)
*「부산직할시립 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 공포(제2940호)(부산교육 9. 16)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공포(제2941호)(부산교육 9. 16)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공포(제2942호)(부산교육 9. 16)
* (주)삼화 노동자들, 민자당 부산진을 지구당과 동구지구당 부산지방노동청 등에 200여명씩 몰려가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농성(민주운동 9.16)

9. 17
* 부산시, 시민반대 불구, 내달부터 모범택시 운행 강행(국제 9.17)
* 부산시, '금정산 임도 시민회의'개최, 각 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 보존회 등 개설반대 범시민 운동 계획(국제 9. 17)

* 지방의정, 동래구, 행정정보 공개 등 심의, 사하구, 사무국 설치 조례 개정, 강서구, 녹지 훼손 대책 논의, 해운대구, 구청 제안 안 의결, 동구, '문화거리' 의결 예정, 부산진구, 행정 구역 조정안 심의, 북구, 사무직제안 개정, 남구, 일본 자매시 방문차 출국, 중구, 주민 건의 사항 청취(국제 9. 17)
* 97년까지 거제동으로 부산의료원 이전 확정(부산 9. 18)
* '문화거리조성' 본격 추진, 17일 동구의회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부산 9. 18)
* 부산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8억8천만원을 운영비로 확보, 다음 달 중순 부산역 광장에서 합동 개관식을 가질 예정(시보 9. 21)

9. 18
* 부산시립합창단 56회 정기 연주, 시립국악단 '환경과 문명' 특별 연주회(국제 9. 15)
* 동래의회 15회 임시회, '알권리' 조례안 통과, 부산 최초(국제 9. 19)
* 부산 청년 비엔날레 위원회 개편, 제7차 위원장 정진윤씨 선출, 부산회랑 미술제, 용두산 전시관에서 개최, '부산 국제 야외조각 심포지엄' 참가자 확정(국제 9. 21)
* 동래구의회, 오는 18일 제15차임시회에서도 내분 조짐(부산 9. 15)
* 19일 양일간 부산대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청년 학생 선봉 투쟁 결의와 하반기 조직 강화를 위한 부경총련 대의원 총회와 진군제 개최(민주운동 9. 18)

9. 19
*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 4/4분기에도 여전히 어려울 전망(국제 9. 19)
* 부산시 7급 행정직 공채, 67:1 경쟁률, 9급은 16.8:1(국제 9. 19)
* 부경총련 2학기 진군제, 민주정부 수립 위한 운동 방향 설정, 대통령 선거, 지자체 대치 방안 등 대외적 선포(국제 9. 19)
* 서구 일원 지역 특성별 개발, 내륙, 중앙, 해안, 신도시 4개 구분, 휴식공간 조성도 병행(국제 9. 21)
* 부경총련 7백여명, 부산대 운동장에서 관권 선거, 민자규탄 시위 후 남포동과 서면에서 촛불시위(국제 9. 21)
* 부산지역 제조업체, 4/4분기에도 불황(부산 9. 19)
* 주식약정고 급증 부산 증권사지점 24%씩 증가(부산 9. 19)
* 동래양조원, 수용노인들로부터 기부금 징수 물의(부산 9. 19)
* 자연보호 겸한 시직원 등산대회, 부산시장을 비롯한 본청 각실, 국장과 시청직원 등 9백여명이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금정구 금정산에서 쓰레기 수거 등 자연보호 활동을 벌여(시보 10. 1)

9. 20
* 공추협, 부대 민주 동문회, 북문서 금정산 보존 결의 대회, 신설 임도 원상회복 요구, 23일 '시민환경회의'서 훼손실태 보고할 계획(국제 9. 21)
* 시민 생활 체육대회, 서울 올림픽 4주년을 기념하여 9월 20일 사직 야구장에서 시민 생활 체육대회를 개최해(시보 9. 21)

9. 21
* 해운대구청, 수영만에 공공시설 설치 추진, 설치비 토지소유주 부담방침(국제 9. 21)
* 삼화공장 2천5백 노동자 출근 농성, 대책 때까지 투쟁 계속(국제 9. 21)
* 사하지역, 지하철역세권 주차장 건설에 북·강서구 및 김해지역 연결 환승체계에 도움전망(부산 9. 21)
* 동래구 의원 43명, '동래구 분구 요구 건의안' 의회 제출(부산 9. 21)
* (주)삼화 범일공장 노동자 2,500여명 추석휴무를 끝내고 정상 출근해 사원총회를 갖고 공장폐쇄 반대 등을 주장하며 농성(민주운동 9. 21)

9. 22
* 해운대 신시가지, 기형화 우려, 공원 대폭 축소, 각종 법규 무시(국제 9. 22)
* 부산 mbc파업 장기화 조짐, 노사분규 8일째 혼미 거듭, 회사측, 지노위 중재안 내세워 복귀 일방 통보, 노조측, 국장 추천 거부는 정부차원 방송 장악(국제 9. 22)
* 동래 의회, 강남 이어 두 번째로 '건축민원 조정위 조례' 제정(국제 9. 22)
* 감천 배후도로 착공 예정, 10월말, 5백40억 투입, 왕복 6차선 완성키로(국제 9. 22)
* 내년부터 공고 14개교 등 27개 남자상고, 추천입학제로 신입생 모집(국제 9. 22)
* 환경청, 부산지역 공원 공기도 납 오염 심각, '금강원' 넉달새 배 악화, 인접지역 무분별 개발 훼손이 원인(국제 9. 22)
* 부산시, 인사(국제 9. 22)
* 부산시, 콜레라환자 발생 긴급대책회의(부산 9. 22)
* "건전 소비문화 정착되고 있다", 「1지역 1절약」 운동과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 등 범시민적인 소비 절약 운동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시보 9. 21)
* 「시민의 날」 기념행사 안내, 이충무공이 임진왜란 당시 부산포 해전에서 크게 승전한 10월 5일을 「부산시민의 날」로 제정한지 13년째를 맞이(시보 9. 21)

* 우리의 부산 21세기의 주역으로, 부산을 21세기의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 부산의 도시교통개선, 도시순환도로망 구축, 항만 배후도로건설, 주요간선 도로 확충 등을 할 예정(시보 9. 21)
* 공영 개발 내실 있게 추진, 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 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되게 하고 공유수면매립 등이 부실 없게 하도록 지시(시보 9. 21)
* 동네 체육공원 일제정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용되는 체육공원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설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일제히 정비하고 정기검진토록(시보 9. 21)
* 야간 순찰반 운영, 야간 순찰반을 운영해 구청별 일과시간 후 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시보 9. 21)
* 민원 관련 업무 전반에 확대, 「공직자 365일 친절 운동」, 대민응대 요령 등 중점 교육 실시, 87건 불합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원관리 업무를 확대하키로(시보 9. 21)
* 주차 건물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입법예고, 주차장 건물용적률을 완화하고 주차요금체계 개편키로(시보 9. 21)
* 택지조성, 아파트 건설 행정 사무조사, 부산 시의회는 14일 주택 건설 사업 승인과 준공현황 준공전 가사용승인현황 등 주택건설 사업과 택지조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자료를 시로부터 받아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업무에 들어가(시보 9. 21)
* 조례 정비에 대한 시민 의견 접수,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조례정비 특위를 구성하여 본격 작업에 나서면서 10월 1일~31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접수(시보 9. 21)
* 부산, 택지초과 부담금 1백83억원 부과, 올해 첫 부과된 부산지역의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이 모두 1백83억원 1천4백68만5천원으로 드러나(시보 9. 21)
* 시보 통신원 공개모집, 9월 28일까지 시보 통신원을 20명 내외로 공개모집해(시보 9. 21)
* 산림 내 취사행위 11월말까지 강력 단속, 아직 일부 산림 계곡 둥지에 단속이 소홀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해(시보 9. 21)
* 무자격 분양 등 철저색출, 양도 소득세 자료 주택 전산망 기능을 강화하기로 해(시보 9. 21)
* 「원산지 표시」 제도 강화, 수입 농산물이 우리 상품으로 둔갑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원산지 표시 제도를 강화하기로 해(시보 9. 21)
* 「환경 부담금」 징수, 호텔·음식점에 환경 부담금을 징수해 환경 개선 재원을 마련하키로(시보 9. 21)
* 다가구 주택 재산세 경감, 지자체에서 지자제 부활 이후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 건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공장 신·증설 땐 지방세들 크게 완화해주고 자동차세 부과연 「2회」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시보 9. 21)

9. 23
* 제3도시고속도로 12월 착공, 총 13.3km, 중앙부두~양산컨기지, 97년 완공 목표, 당감동~모라동 구간 연결(국제 9. 23)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 수출 전망 어둡다, L/C 내도액 전월비 6.8%감소(국제 9. 23)
* 해운대 신시가 계획 허점 투성이, 보완지시 묵살, 5거리 교차로 금지라는 기본원칙도 무시, 하수처리, 쓰레기장 옆 종합병원 계획 등(국제 9. 23)
* 제13회 시민의 날 기념, 부산 무대 예술제, 국악 연극 등 예총 산하 9개 단체 모두 참가, 30일부터 한달간 시민회관 등 서 행사(국제 9. 23)
* 부마 10월 항쟁 기념사업회, 다양한 행사 마련, 13주년 맞아 문화예술대동굿 등 개최, 폭넓은 참여로 시민축제화 유도 방침(국제 9. 23)
* 영도 임시 청사, 도서관 활용, 시의회 승인 후 95년에 개원(국제 9. 23)
* 부산 체신청, 인사(국제 9. 23)
* 부산 mbc 파업 타결, 노사, 지노위 중재안 수용(국제 9. 23)
* 금정산 임도 저지 특위 구성, 부산 13개 단체 긴급회의, 범시민 반대운동 전개, 내달 2일 시민 공개 토론회 개최키로(국제 9. 23)
* 대통령의 민자당 탈당과 중립선거내각 구성선언 등으로 인한 여파가 지방관가까지 확산(부산 9. 23)
* 부산의 교통난 해소에 부산최초의 대중교통 환승센터가 동래에 건설(부산 9. 23)
* 부산지역 10개 시민단체, 대통령선거 공정보도 실현, '시민회의' 발족(부산 9. 24)
* 지역 간 문화격차해소, 지방무용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지방무욕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로 지방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전국무용제」가 개최(시보 9. 14)

* 「백양터널」 공사 투자공모, 부산시는 도시교통난 완화와 부두 물동량 수송의 원활을 가하기 위해 기획하고 있는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 중인 백양산 터널 축조 공사를 민간자본 유치 사업으로 시행시키기로 하고 9월 23일 투자희망자를 공모 공고(시보 10. 1)
* 제1회 전국무용제 개최(부산교육 9. 23)

9. 24
* 사하구, 동구, 인사(국제 9. 24)
* 부산 택시 파업 위기, 지노위 조정 무산, 25일 찬반투표키로(국제 9. 24)
* 지방의정, 동래구, 상임위 활동 전개, 남구, 정보 공개안 등 통과, 해운대구, 구 제안 조례 3건 의결, 서구, 고도제한 의견 맞서, 북구, 쟁점사안 심의 보류, 강서구, 추경안 등 심의, 금정구, '도시위' 설치 심의 유보, 영도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국제 9. 24)
* 금정산보존회, 임도특위 동참, 긴급 이사회 개설, 공사저지 앞장 결의, 시민특위 참여 17개 단체로 늘어(국제 9. 25)
* 부산지하철 건설에 1,200억 지원(부산 9. 24)
* 지적불부합지 일제 정리, 부산시는 9월 24일 전체 지적불부합지 23개소 4천67필지 17만4천1백57평 중 올해안에 8개소 1천8백39필지 8만5천9백68평을 해당 지주들의 신청을 받아 정렬키로해(시보 10. 1)

9. 25
* 부산지역 중소기업 가동 상황 침체, 중소기업 가동률 84%(국제 9. 25)
* 사상공단지역 제조업체 공해배출 올해 들어 1.5회 꼴로 적발(부산 9. 25)
* 부산시, 불법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경조치(부산 9. 25)
* 부산교통공단의 시설관리 소홀 등으로 지하철사고 빈발,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가(부산 9. 25)
* 제주도에서 한일해협 연안도시협의회 창립총회 개최(부산교육 9. 25)

9. 26
* 부산 지하철 건설, 1천2백억 투입, 김해 공항 활주로 신설, 7부두 확장 완공, 총 4조7천억원, 올해보다 22.2% 늘어(국제 9. 26)
* 신시가지 공사 보상비문제로 차질, 부산시 농지전용금 2백여억 예상 못해(국제 9. 26)
* 신시가 담합 입찰 말썽, 부산 해운대 7,8공구 나눠 먹기식 낙찰, 낙찰율 97%, 부산 관급 공사론 처음(국제 9. 26)
* 부산 택시 파업 결의, 조합원 88%찬성, 전국 처음, 운행 중단 위기(국제 9. 28)
* 부산~미주노선 첫 개설, 내달 26일부터 호놀룰루에 취항(부산 9. 24)
* 부산지방국세청, 외국 법인 세무관리 강화(부산 9. 26)
* 공공시설 날림공사 적발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배후도로 3단계공사 일부구간 등(부산 9. 26)
* 부산지역 건축허가 면적이 건축경기부진으로 계속 격감(부산 9. 26)
* 부산은행, 동남은행이 10월 초에 단기기준 금리를 0.5% 인하(부산 9. 26)

9. 28
* 부산포 승전 4백주년 기념, '시민의 날' 풍성, 선단 퍼레이드, 공원 개방 등(국제 9. 28)
* 부산시, 부산지역 각 동과 농촌마을 결연 긴급 지시, 부산 2백25개 동 중 31%만 실행(국제 9. 28)
* 웅상~부산 출퇴근 불편, 주민 중 절반이 시내버스 1개 노선 의존(국제 9. 28)
* 부산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대폭 감소, 도로확장 등 신규사업 연기, 세 부담 늘 전망(국제 9. 28)
* 동래온천번영회 주최, '온정개건비경성정화사채' 준공식이 28일 개최(부산 9. 29)
* 김해국제공항 활주로 확장공사 활기(부산 9. 29)
* 부산상품전시관이 수영만에 건립(부산 9. 29)
*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불법세금자료상 증가, 부산국세청 9명 적발(부산 9. 29)
* 부산시, 건축법령의 전면개정 시행으로 각종 건축물의 신・증・개축 등으로 허가업무가 일선 동사무소 신고로서 가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 건축신고 업무지침을 마련(시보 10. 11)

9. 29
* 건설부, 10월 중 부산, 경남 지역 아파트 9천가구 분양 예정(국제 9. 29)
* 쇠고기 뷔페 체인점 급증, 부산 1백41곳 성업, 3개월 새 6.4배 늘어(국제 9. 29)
* 부산시, 부산하수처리장 13곳 설치 계획 확정, 2011년까지 3조 예산, 발생량 100% 처리 목표, 4개 권역 나눠 하천 유역별 시설 예정(국제 9. 29)
* 부산 선원학교 생 농성, 해양고와 통합 반대, 수업 전면 거부(국제 9. 30)
* 금정산 보존회, 임도저지대책위원회 구성, 범시민 반대 운동 전개(국제 9. 30)

9. 30
* 부산 소지역 문화 활동 활발, 지자체 영향, 주민의식 각석, 확산조짐, 관 개입, 백화점 식 행사 등은 지양키로(국제 9. 30)

* 부산시, 부산지방경찰청, 인사(국제 9. 30)
* 부산시 분동 지역 치안 공백 우려, 파출소 증설 안 돼 사건처리 늑장(국제 9. 30)
* 부산 올 종합 토지세 6백90억, 고표 인상, 지난해 비 23% 증가(국제 9. 30)
* 부산시, 등록 차량 39만1천4백7대 중 40% 과태료 체납, 등록 원부 압류도 10%(국제 9. 30)
* 부산 동래구 거제로 확장 편입부지에 대한 채권 보상이 내무부로부터 승인, 의회에서 조례 확정되는 대로 12월 시행될 전망(국제 9. 30)
* 부산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조례안' 마련, 12월 중 시의회 상정키로(국제 9. 30)
* 부산지역 건설업 과당경쟁 예상(부산 9. 30)
* 신규인력채용 부진 부산기업 불황 여파(부산 9. 30)
* 내무부, 일선행정기관에 공무원 대선 중립을 지시(부산 9. 30)
* 부산시, 제2도시고속도로 편입지 채권보상(부산 9. 30)
* 부산시, 올해 종토세 690억 부과(부산 9. 30)

10. 1
* 9월 소비자물가 0.3% 올라, 경기원, 부산 5.9% 전국서 3번째 높아(국제 10. 1)
* 영도구청 부산시내 12개 구청 중 처음으로 구민헌장 제정, 3일 열리는 구민 체육 대회 때 공포키로(국제 10. 1)
* 부산시, 인사(시보, 국제 10. 1)
* 공영택지개발「주차난」외면, 부산 도개공 다대4지구・개금2지구, 교통영향 보완지시 무시(국제 10. 1)
* 부산시, 2차 추경천 38억 편성, 12일께 시의회상정, 올 총예산 2조 4천억(국제 10. 1)
* 4일「임도 저지 대회」,「시미특위」일요일 금정산 보호 정례화(국제 10. 1)
* 지방의정, 이전구청사 도서관활용 적극지원(국제 10. 1)
* 부산신발 해외 대형 바이어인 나이키, 리복 등의 주문량 격감, 업계 경영난 가중(부산 10. 1)
* 부산시, 남포동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이 시공업체를 못 구해 좌초위기(부산 10. 1)
* 부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1,300억 편(부산 10. 1)
* 내무부, 공무원 대선 중립지시 부산시 구체방안 마련(부산 10. 1)
* 화재보험 '풀(공동인수)' 제도가 해제됨에 따라 13개 손해보험사들의 경쟁 가열(부산 10. 1)
* 주택건축 물량 5천호 추가, 부산시의 민간부문에 대한 주택건설 물량이 5천호가 추가 배정됨으로써 시의 올해 주택건설 물량은 4만6천7백50호로 늘어나(시보 10. 1)
* 사회간접자본 자본 확충, 정부가 확정한 93년도 예산 98조500억원 가운데 부산권 사회간접시설 확충 지원 규모는 구포~양산 고속도로의 건설비 6백억원을 비롯해서 모두 8건에 3천7백43억원으로 늘어나(시보 10. 1)
*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조사, 토지거래 허가 후 당초 이용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전매한 토지를 조사하여 토지이용을 촉구하거나 의법 조치함으로써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의 운영을 더욱 강화하기로 해(시보 10. 1)
* 부동산 투기, 알선단속, 부산시는 최근 안정 추세에 있는 부동산 경기가 한・중수교와 연말 선거 등으로 다시 투기 현상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강력한 지도 단속(시보 10. 1)
* 위법가정의례업소 단속, 부산시는 10월부터 금년말까지 시 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 가정의례업소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등을 집중 단속(시보 10. 1)
*「교통연향평가」피한 편법 따져, 부산시의 주택행정에 대한 사무조사 2일째를 맞아 부산 시의회 건설 위원회와 교통도시위원회는 의회 회의실과 도시 개발공사 회의실에서 관련구청과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로부터 서면 조사 벌여(시보 10. 1)
*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견인, 부산시는 도심지 교통체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질서 의식이 정착되고 있으나 이면도로 인도 등 취약지역에는 불법 주차가 늘어나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 밝혀(시보 10. 1)
* 쓰레기분리수거 정착, 부산시가 재활용품분리수거를 실시하여 분리수거함 보급률이 70%에 도달(시보 10. 1)
* 학교・학원주변 대상 정화운동 강력 추진, 부산시는 올 들어 학교 및 학원가 주변의 유해업소가 그동안 관련 공무원과 관련 단체 등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등으로 상당히 정화(시보 10. 1)
* 시・구・사업소직원 전용, 부산시는 본청직원 및 구청직원과 사업소직원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돕기 위해 임차통근 버스의 운행 노선을 일부 변경해(시보 10. 1)
* 감천항 배후 도로착공, 부산시는 감천항 배후로를 오는 10월 말에 착공하여 94년 12월까지 완공시키기로 해(시보 10. 1)
* 67대 경쟁률, 부산시의 임용시험에서 7급행정직의 경우 67대 1의 경쟁률을 보여(시보 10. 1)

* 식품자판기 위생관리강화, 부산시는 무신고자판기를 설치 위생 상태는 물론 도시미관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식품자판기 영업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해(시보 10. 1)
* 식품접객업소 특별 위생관리, 최근 인도네시아를 예방하고 돌아온 부산시민 2사람이 콜레라 환자로 판명됨에 따라 철저히 예방(시보 10. 1)
* 부산자랑 10가지 시민 예술제, 부산시가 주최하는「부산 자랑 10가지 순회 시민예술제」가 싶은 가을을 맞아 여덟 번째 행사로 10월 3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부산미술협회 주관으로 미술시기 대회 개최(시보 10. 1)
* 4백만 시민이 함께하는 큰잔치,「제13회 부산시민의 날」행사가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기념행사 경축행사별로 치뤄져(시보 10. 1)
* 부산포 승전 4백주년, 임진란 부산포승전 4백주년을 기념하는 부산 민속제전이 제13회 시민의 날에 때맞춰 10월 8일부터 해운대구 올림픽동산에서 부산시주체로 성대하게 열려(시보 10. 1)
* 재활용 목요일 수거제 전역확대, 1일부터 분리 안 된 쓰레기 수거 않기로 하는 등 재활용품 목요일 수거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해(시보 10. 14)
* 삼화 노동자들은 상경투쟁, 10월 5일에는 8월분 임금을 받아 냄(민주운동 10. 1)

10. 2
* 산업용 전력 사용량 계속 감소, 신발・섬유 8월 각 9.4%씩 줄어, 제조업 침체반영(국제 10. 2)
* 부산시, 인사(국제 10. 2)
*「바다장터」개설에 농성, 해운대상인 “의류코너는 상권침해”(국제 10. 3)
*「임도 토론회」부산시 불참, “시민여론 묵살” 비난(국제 10. 3)
* 경상도내 58개의 비지정 관광명소 관리 엉망(부산 10. 2)
* 부산시, 제2도시고속도로 설계를 변경해 낙동대로와 고가로 이어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부산 10. 2)
* 부산시,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2일 국・실장과 구청장 긴급회의를 갖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지침을 시달해(시보 10. 14)
* 시장동정, 부산시장은 10월 2일 알렉산드로 리콜라네비치 파노프주한 러시아 연방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해(시보 10. 21)
*「부산시민 된 자긍심」화합 구현,「제13회 부산시민의 날」기념범시민 축제 한마당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단결과 화합을 위한「제13회 부산시민의 날」행사가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다채로운 행사로 부산시내 곳곳에서 펼쳐져(시보 10. 14)

10. 3
* 3개 각종 학교 정규고 승격(국제 10. 3)
* 총무처, 총 57개 기업체 방문근거법령 및 지침 정비, 확정(부산 10. 3)
* 부산, 교통신호체계 허술(부산 10. 3)

10. 5
* 만덕동 국교 신설 시급, 아파트 신축 잇따라 취학 아동 급증(국제 10. 5)
* 4백만 화합 “한마당”, 오늘「제13회 부산시민의 날」개막, 11일까지 다양한 행사(국제 10. 5)
* 해양박물관 동삼동에 건립, 연건평 4천5백평 규모(국제 10. 6)
*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우대증 및 경로우대승차권 제도가 불편초래, 제도개선 시급(부산 10. 5)
* 부산시, 종합 토지세 부과 결과 모두 57만4백82명에 6백90여억원을 부과해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시보 10. 21)
* 사하경찰서 하단2파출소를 하단1파출소로, 하단1파출소를 하단2파출소로 개칭하고 관할구역 조정(지방청훈령 제31호)(경찰사 10. 5)

10. 6
* 주식형 관리 공사 무산, 북구청 설립 건의 내무부 반대 통보(국제 10. 6)
* 부산 수도료 5%인상, 시, 조례 개정안 확정…12월부터, 가정용은 4.9%올려 요율체계도 9개 업종서 6개로 통합(국제 10. 6)
* 자금난 대책 정부에 건의(국제 10. 7)
* 수영만 요트장 공원화 계획(국제 10. 7)
* 교통부, 부산지하철의 기존노선 연장, 오는 97년까지 4개노선 106km건설 결정(부산 10. 6)
* 대선 앞두고 관급공사 발주 급증(부산 10. 6)
* 부산시, 서민용 공공주책 건립 외면(부산 10. 6)
* 영도구 동삼동 690 매립지 일원에 들어설 해양박물관이 내년 착공(부산 10. 6)

10. 7
* 부산시,「공장 신증설 중과세」폐지, 시내 공업 지역 내달부터(국제 10. 7)
* 부산시,「정보 산업 단지」조성, 연산동 2만평 규모, 96년 완공(국제 10. 7)

* 「향장제」 본격가동, 부산 경찰청 4백45명 선정 발대식(국제 10. 7)
* 부산시, 종토세 6백82억 부과(국제 10. 7)
* 구의원 22명 집단 외유, 부산진구, 통일교 지원 받아(국제 10. 7)
* 「삼화」 20억 부도, 금사공장 6백명도 실직사태 우려(국제 10. 7)
* 지하철 4-5공구 차질, 하도급업체 부도로 중기업자 농성(국제 10. 8)
* 공장신증설 중과세 내달 해제(부산 10. 7)
* 근로자 주식저축상품의 해약사태(부산 10. 7)
* 시장동정, 부산시장, 산또르 애뜨레 주한 헝가리 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시보 10. 14)

10. 8
* 부산시, 93 예산만 논의, 경제인 간담회, 해운데 하얏트 호텔에서(국제 10. 8)
* 4단계 「컨」 부두 공영기능 차질(국제 10. 8)
* 부산시, 인사(국제 10. 8)
* 지하철 공사 민원 "내몰라"(국제 10. 8)
* 부산시, "하수국 승격" 건의(국제 10. 8)
* 부산시 지방의정, 관급공사명예감독관 제도화 검토(국제 10. 8)
* 중국투자 촉진단, 부산에 몰려옴(부산 10. 7)
* 향토색 짙은 민속놀이 재현, 시민의 날 맞아 부산 포승전 4백주년 기념 민속제전이 8일 오전 10시 30분 해운대구 올림픽동산에서 화려하게 개최(시보 10. 14)

10. 9
* 부산시의회도 국감거부, 12일 건의안 채택, 전국 시도협 "폐지" 재촉구(국제 10. 9)
* 부산건설업 해외 진출 "채비"(국제 10. 9)
* 9월 어음 부도율 감소, 부산 전월비 0.16% 줄어, 경기 청신호(국제 10. 9)
* 「제2도시고속」 내달 말개통, 문현~감전12km, 60분거리 10분으로 단축(국제 10 .9)
* 지하철 1호선 4단계 "전면 차질", 공사 연장 불가피, 94년 완공 난망(국제 10. 9)
* 부산시, 인사(국제 10. 10)
* 부산시, 새 청사 대폭확장, 연 건평 5만1천여평 규모, 본청 건물 28층으로, 건축비 2백억 더 소요(국제 10. 10)
* 서울시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거부에 이어 부산시의회도 국정감사 거부(부산 10. 9)
* KBS노동조합, 문화방송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동조파업 가결(민주운동 10. 9)

10. 10
* 부산시, 주요 품목 수출 실적, 작년 동기보다 20% 감소(국제 10. 10)
* 부산노동자실업 최악사태, 3백여명 또 직장 잃어, 올 2백50여사 도산(국제 10. 10)
* 부산 북구, 사하구에 금융기관 점포수 극소, 이곳 공단지역 기업들 난항(부산 10. 10)
* 부산시 새 청사 연면적 50% 더 늘려 건립, 재정난 가중 전망(부산 10. 10)
* 전국연합 대의원 대회 '정권교체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민주대개혁을 실현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범민주 단일후보론을 확정(민주운동 10. 10)

10. 11
* 임도저지 범시민 서명, 2차 금정산 보존 대회, 13일부터 전개(국제 10. 12)
* 「국제 야외 조각 심포지엄」 작품 완성 단계, 시가 주최하는 제2회 부산야외조각대전에 맞춰 개최되고 있는 「부산 국제 야외 조작 심포지엄」이 지난 달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해운대구 올림픽 동산에서 열려(시보 10. 11, 10. 21)
* 영남지역 노조 및 단체 소속 노동자 2천여명이 양산 영취산에서 '노동법개정투쟁 승리를 위한 92영남노동자 등반대회'를 열고 노동악법 철폐와 민주대개혁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민주운동 10. 11)

10. 12
* 시의회-국회 「국감 충돌」 불가피(국제 10. 12)
* "삼화 체임 상은서 조속 청산을"(국제 10. 12)
* 신청률 86% 인기 낮아, 부산 첫 발행 대우 주택 상환 사채(국제 10. 12)
* 부산시, 인사(국제 10. 12)
* 「시민 맹인체험 대회」 눈길, 맹인 복지연 부산지부 마련, 5백명 안대 끼고 참여, 이름쓰기 등 5개 프로그램 진행(국제 10. 12)
* 세관직원 「결탁밀수」 성행, 부산 올 들어 2명 구속·6명 징계(국제 10. 12)
* 부산 병의원 "운영난"(국제 10. 12)
* 중·소 아파트촌 교통행정허점(국제 10. 12)
* 교사퇴진요구 농성, 문현여상 수업거부(국제 10. 13)
* 부산해양경찰서, 기름해양투기 12건 적발, 해양오염자치 특별단속 실시(부산 10. 12)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부산시의 추경예산을 심의할 부산시의회 제16회 임시회가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동안 열려(시보 10. 14)

10. 13
* L/C 내도액 감소 지속, 부산 9월에도 작년비 18% 줄어(국제 10. 13)
* 부산시, 인사(국제 10. 13)
* 부산여대~주례 산복로개설, 총연장 2.2km 왕복6차선(국제 10. 13)
* 부산·상해시 결연, 조인식 내년 8월 합의(국제 10. 13)
* 부산시, 고위공무원 정보비 대폭 급증, 부산시의회 예산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부산 10. 13)

10. 14
* 부산시 시의회, 「공장신설 중과세폐지」안 가결, 부산 연 60~80% 세감면 혜택(국제 10. 14)
* 고속전철 노포~부산진역 지하구간 유력(국제 10. 14)
* 「부산항기피」 외국선 돌아온다, 동북아 중심항 급부상(국제 10. 14)
* 부산도시가스 전국 "최고가", 동자부 LPG 특소세 8% 부과 등 영향(국제 10. 14)
* 부산택시 파업 "초읽기"(국제 10. 14)
* 지하철 2호선 공사 "불투명", 부산 교통 공단 국감자료 1조5천억 공비조달 막막(국제 10. 14)
* 부산시, 건축행정 "난맥"(국제 10. 15)
* 부산도시가스, 가장 낮은 보급률인 반면 가장 비싼 비용(부산 10. 14)
* 경부고속철도 부산권역이 기존 부산역과 부전역 등 2개역으로 추진(부산 10. 14)
* 부산택시파업 '초읽기'(부산 10. 14)
* 새 질서…실천운동 강력 추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건전사회 기풍이 조성되는 등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일부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법 및 변태 영업행위가 발생되고 각종 질서 문란행위도 재연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를 완전 굴절키로(시보 10. 14)
* 농촌 일손 돕기, 11월말까지 가을철 농촌 일손 돕기 운동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 시·구·동사무소에 농촌 일손 돕기 지원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등 농촌 일손 돕기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추진키로(시보 10. 14)
* 2차 추경 1천38억원 편성, 올 시세중수예상액과 채무부담액 전입금을 주재원으로 필수 경비 부록분을 충당하고 9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며 주민숙원사업을 중점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해(시보 10. 14)
* 택시운전자격시험횟수 늘여, 택시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은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금년 하반기부터 대폭 늘리기로(시보 10. 14)
* 월동기 석유 종합 수급 대책, 부산시는 월동기 석유사용 성수기를 맞아 석유 안전수급을 위한 92 월동기 석유수급 종합대책을 마련(시보 10. 14)
* 법제 심사계 신설, 부산시는 2일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날로 증가하는 범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무 담당관실에 「법제 심사계」를 신설, 보강(시보 10. 14)
* 행정기준 주민위주 총력, 부산시장 10월 시정 시책방향 지시, 시민생활 불편·불만시정 올해 시책 모두 마무리되도록(시보 10. 14)
* 부산시 문화상 수상자 발표, 부산시가 향토문화 발전과 지방문화 창달에 공적을 쌓은 자를 발굴, 시상하고 있는 제35회 부산시 문화상 8개 부문 수상자를 최종 확정(시보 10. 14)
* 부산시, 인사 7급 문덕수 외 6명 8급 이무진 외 23명, 9급 정오현 외 1명(시보 10. 14)
* 두구동~부산역, 지하화 건의, 98년 완공 예정인 경부 고속전철의 부산 시내 통고 방법을 놓고 부산시와 한국 고속 철도 건설 공단의 의견이 엇갈려(시보 10. 21)
* 참깨밀수사건에 있어 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추징액 산출방법에 대한 판결(92노856판결)(법원사 10. 14)

10. 15
* 상수도료 5%인상, 11월부터 시의회, 조례개정안 통과(국제 10. 15)
* 동해남부선 외곽이전 수비부지 재활용해야(국제 10. 15)
* 경부 고속 전철 종착역은 어디, 위치선정 "불꽃 논란"(국제 10. 15)
* 부산시, 인사(국제 10. 15)
* 대형사업 대부분 "빚공사", 부산시 방만한 운영, 해마다 1조원선(국제 10. 15)
* 부산시, 공무원 징계 79명, 건축 등 인허업무 비리급증(국제 10. 15)
* "파업" "철회" 부산택시 어수선(국제 10. 15)
* 지방의정(국제 10. 15)

* 부산지역 철강업계, 장기간 불황 속에서 회복 국면(부산 10. 15)
* 공중전화카드 불량률 7%, 민원 급증에 따른 근본 대책 마련 시급(부산 10. 15)
* 서부경찰서 토성파출소를 신설(지방령 훈령 제33호)(경찰사 10. 15)

10. 16
* 「헬기운송업」 비밀추진추궁(국제 10. 16)
* 「부산권 교통 기획청」 추진(국제 10. 16)
* 부산시 시의회, 국감거부 시위(국제 10. 16)
* 「부산출판인협」 창립 작업 활발, 「빛남」 등 9개사 주축, 21일 발기인 대회(국제 10. 16)
* 빚더미 부산교통공단 씀씀이 헤프다 "판공비 4억 어디 쓰나"(국제 10. 16)
* 녹산동에 쓰레기 매립장 추진, 봉화산 일대 개발 공원식 화장장도(국제 10. 16)
* 부마항쟁 13주,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일본사 대강당에서 13주년 기념식 개최(국제 10. 17)
* "추경 예산, 주민 숙원 사업 중점 투자", 부산시 의회 전원은 10월 16일 국정감사 차 부산시에 온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난 1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의한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국정 감사 실시에 대한 입장 밝혀(국제 10. 17)
* 17일, 23일 새벽에는 양정로타리에서 택시노동자들의 심야시위(민주운동 10. 16)

10. 17
* 독립운동가 흉상 제작, 부산시 강서구 출신 독립유공자인 남강 조정환 선생과 이수강선생의 흉상 제막식이 대저 2동에서 거행(국제 10. 17)
* 구평・장림 공장 화재 무방비(국제 10. 17)
* 만덕동 연립주택 재개발, 부산서 처음, 40개 동 주민주도 시행(국제 10. 17)
* 부산시-국방부 땅값 "실랑이", 새청사 맞은편 「행정타운」 예정지, 시, 평당 3백만원 계상 매수의사에 "5백30만원 이하 불가"(국제 10. 17)
* 비리경찰 13명 징계, 부산 경찰청 국감자료, 6명 파견・7명 해임(국제 10. 17)
* 부산노동청 「삼화정리」 미리 알고도 "쉬쉬"(국제 10. 19)
* 사내직업훈련에 대한 사업주들의 무관심에 제대로 실시되지 못함(부산 10. 17)
* 지난 해 부산, 경남지역 소득랭킹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사람은 태양사 대표(부산 10. 17)
* 부산지역 제2금융권의 자금역외유출 현상 심화, 지역금융구조 왜곡 원인(부산 10. 17)

10. 18
* 우려가 현실로, 금정산 새임도 결국 차량 통행, 차단 장치 부수고 진입, 폐쇄요구 빗발(국제 10. 19)

10. 19
* 올 상속 세수 55% 증가(국제 10. 19)
* 부산체육박물관 설립 추진(국제 10. 19)
* 부산시, 인사(국제 10. 19)
* IBRD차관 「전동차 구입」 용도 제한, 지하철 건설 재원 활용 "물거품"(국제 10. 19)
* 시행 4년 약국의보 "이름뿐", 부산 참여율 17% 갈수록 저조(국제 10. 19)
* 특정후보지지 언행 엄단, 정당 협조 사항을 여야 구분 없이 협의(국제 10. 20)
* 「임도개설 중지안」 제출, 동래구 의회 "더 이상 금정산훼손 용납 안 돼"(국제 10. 20)
* 부산섬유업계 생산증가 및 수출내수의 호조로 활황세(부산 10. 19)
* 부산시, 인사(부산 10. 19)

10. 20
* 부산시, 행정정보 공개추진(국제 10. 20)
* 부산시, 내년 빚 1조1천억원, 세입액과 비슷, 고리채무 많이 문제(국제 10. 20)
*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남포・광복 등 상권 되살리기 축제 계획(국제 10. 20)
* 부산시, 교육 행정 "난맥", 교원인사・사학감독 소홀(국제 10. 20)
* "우리환경 누가 지킬 것인가" 부산시 새마을 부녀회 시민대표토론회, 20일 오후 2시 시민토론회 개최(국제 10. 21)
* 부산지역 기업 상당수가 한중수교에 대한 대응방안 준비 미비(부산 10. 20)
* 주민 등록 일제 정리, 시는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민 등록 사항 일제 정리키로(시보 10. 21)
* 하수 관리계 신설 진구 등 7개 구에, 시는 날로 증가하는 하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자치구 하수행정 전담 기구 및 인력 대폭 보강(시보 10. 21)

10. 21
* 투기・탈세 등 사회지도층비리 부산 8백28명 적발, 작년 4월~올 8월 1백56명 구속, 처벌 미약(국제 10. 21)
* 추경예산안 통과, 부산시 의회 총 1천38억원 통과(국제 10. 21)
* 무자격 간호조무사 물의, 부산지역 종합병원에서 무자격 간호조무사 1백53명 마구 채용(국제 10. 21)

* 공유수면 매립 환경위협, 녹산 일대 문화재보호지 해제 신청, 6만평 농지분양 계획(국제 10. 21)
* 부산시의회, 제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9건 등 모두 19건의 안건 의결, 도시 계획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 총 1천38억원 통과(국제 10. 21, 시보 10. 21)
* 마리아유치원 개원(부산교육 10. 21)
* 부산시, 여성문화회관 개관(학장동)(부산교육 10. 21)
* 공정보도 장치 마련 등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으로 파행방송을 거듭해오던 문화방송 파업, 50일만에 타결(민주운동 10. 21)
* 女性文化會館 開館(직할30년 10. 21)

10. 22
* 부산시, 구석기 유물 발굴, 해운대 돌도끼 등 20여점 처음 출토(국제 10. 22)
* 부산시, 법인 신설 올 첫 증가, 제조・건설업 분야 많아졌지만 유통서비스는 감소, "경기 회복 조짐"(국제 10. 22)
* 부산시, 인사(국제 10. 22)
* 부산시시공무원 200여명은 22일 오전 10시 강서구 녹산동 지사리에서 벼베기 농촌 일손돕기활동을 하였다(국제 10. 22)
* 문현~구서 도시고속도로 사고빈발, 처리늑장 체증심화(국제 10. 22)
* 부산시, 초중고 56개교 신설, 97년까지 53개고 부지확보(국제 10. 22)
* 지방의정(국제 10. 22)
* 부산 항만사업 계획 불구체화, 해당지역 주민들의 적정보상 요구 등에 난항(부산 10. 22)
* 「새 부산시 종합 청사」 청사진 확정, 부산 시청과 시의회 경찰청이 들어설 새 청사 기본 설계안 최종 확정(시보 10. 21)
* 「공장 신・증설 중과세」 폐지, 시는 공업 지역 안에서 공장 신설・증설 할 때 지방세를 최고 5배까지 부과하던 제도 고처, 11월부터 일반 과세로(시보 10. 21)
* 저소득 주민에 직업 훈련 실시, 내년 1천5백명 기능인력 양성(시보 10. 21)
* 근로자 복지 주택 공급 순조, 시가 도시 저소득자의 주거 안정과 기업 생산성 향상 위해 90년부터 건설 공급하고 있는 근로자 주택을 올 연말까지 7천5백70세대분 분양 계획(시보 10. 21)
* 「집단 민원 해소 대책안」 운영, 시는 각종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집단 민원이 종전의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거나 포장마차 철거 반대 등 생계형 민원에서 공공시설과 개발 반대로 변모하는 것으로 조사(시보 10. 21)
* 동계 소방 안전 대책 추진, 시 소방본부는 10월 2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소방 안전 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예방에 적극 나서기로(시보 10. 21)

10. 23
* 부산권 광역 전철망 구성, 최철도청장 구체안 마련 방침 밝혀(국제 10. 23)
* 중기 가동률 다소 호전, 부산 8개월만에 0.4%P 오른 84.4%(국제 10. 23)
* 동아대 등 「산업체」 특별전형, 부산 4개대 내년부터 야간학과 정원 30~40%(국제 10. 23)
* 일선행정 편법・특혜 많다, 부산시 올 부당업무처리 79명 징계(국제 10. 23)
* 서울보다 지방기업 소비보다 생산업종 세무 간섭 더 받는다(국제 10. 24)
* 금정산 돌 하나라도 훼손 안 돼, 부산시주최 시장기 학생웅변 대회에서도 "임도반대"의 한 목소리(국제 10. 24)
* 약사들 마약퇴치 앞장, 부산 2천명 결의 대회 열려(국제 10. 24)
* 부산지역 4/4분기 기업경기 침체(부산 10. 23)
* 부산지역 제조업체 판매부진 심화(부산 10. 23)
* "시보 제작 적극 참여" 당부, 시가 월 3회 발행하는 시보 의 편집・제작에 시민 여론 수렴・반영키 위해 공개 모집한 시보 통신원에 대한 위촉식 열려(시보 11. 2)
* 불법・탈법 선거 감시 나서, 시 2단계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감시 감독(시보 11. 2)

10. 24
* 동삼매립지 활용안 이견, 부산시 "박물관 건립", 해항청 "항만 시설"(국제 10. 24)
* 부산시, 본격 대선채비, 투표구조정・주민등록 일제 정비 등(국제 10. 24)
* 부산에 새로운 공업, 직업학교 설립(부산 10. 24)

10. 26
* 부산시, 발명장려관 27일 개관, 종합정보센터 역할 수행(국제 10. 26)
* 해양수족관 박물관 활용하기로 하여 폐쇄 4년만에 수산물 학습장으로 새 단장(국제 10. 26)
* 구청 수익사업 "주먹구구식", 사전검토・전문지식 없이 추진하여 결국 취소 속출(국제 10. 26)
* 「재개발비」 257억 "낮잠", 부산시 연 30억원씩 9년간이나 적립(국제 10. 26)

* 임도 시민 공청회 결의, 금정구의회 “개설문제 방치할 수 없다”(국제 10. 28)
* 부산시, ‘제2도시고속도로 접속도’ 사업비 승인함에 따라 조기완공 가능(부산 10. 26)
* ‘부산 이미지’ 살린 건축물 증가(부산 10. 26)

10. 27
* 제조업 수출 “뒷걸음”, 부산 전년 동기보다 12.3% 줄어(국제 10. 27)
* 안 팔린 신축아파트 3,600가구, 북구 5백38가구 최대, 올 분양물량의 10%, 공공부문 많아(국제 10. 27)
* 토큰판매소 턱없이 부족, 제때에 못 사 현금승차, 버스 조합 경영난 핑계 추가 설치 외면(국제 10. 27)
* 남구 대연동 부산구화학교, 27일 학교진입로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남구청에 건의서 제출(국제 10. 27)
* 부산교통공단은 지하철 운행시간을 오늘 1일부터 단축 운행(국제 10. 27)
* 부산시, 휴거 맹신도 집단 유언장, 경찰 자살 등 극단행동 대비경계(국제 10. 27)
* 최근 2년간 재벌기업의 호화사치품 수입 증가(부산 10. 27)
* 구청, 애향심 고취사업 추진(부산 10. 27)

10. 28
* 노조원 56명 징계, 쟁의기간 중 사복 착용 이유(국제 10. 28)
* “석대 매립장에 농산물 도매시장”, 97년 완공 목표추진 6백여억 들여 4만평 규모로(국제 10. 28)
* 모자보건센터의 시설장비 노후, 진료과목 부족 등으로 이용률 저조(부산 10. 28)
* 부산 동래구의회, ‘금정산 입도개설 중지 건의요구안’ 부결처리(부산 10. 29)
* 담배 자판기 설치 규제 회의, 시의회 관계자 초청 간담회 열려(시보 11. 2)
* 부산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상회간 자매결연(부산교육 10. 28)
*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91가합14171)(법원사 10. 28)
* 釜山商工會議所와 中國國際商會 姉妹結緣(직할30년 10. 28)

10. 29
* 삼화체임 연내청산 난망, 대법원「국세환급」소 판결 연기, 심리미비 내달 19일로(국제 10. 29)
* 부산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외면, “채산성 낮다” 아파트에 집중, 독점 횡포(국제 10. 29)
* 부산 시민 “좁게 산다”, 시, 신축건물규모 비교, 1개 동 평균 연면적 전국의 73%(국제 10. 29)
* 지역여건무시 주거지에 아파트 허가, 시내 3곳서 “조망·일조권 침해” 농성 잇따라(국제 10. 29)
*「담재 자판기 규제」 열띤 공방, 시의회 재무위 간담회 개최(국제 10. 29)
* 지방의정(국제 10. 29)
* 부산지역 186개 새마을금고, 지방세 수납업무 개시(부산 10. 29)
* 부산지역 각 대학캠퍼스, 야간을 틈탄 각종 범죄 빈말(부산 10. 29)
* 부산지역 주물업체, 중국의 급부상으로 수출부진(부산 10. 29)
* 부산시의 운수, 세무, 행정 등이 업체편의식으로 이뤄지고 각종 계획이 불법변경(부산 10. 29)
* 베트남 赤十字 總裁一行 來釜(직할30년 10. 29)

10. 30
* 부산시, 인사(국제 10. 30)
*「지역구속력」 위헌제청, 부산택시노조 “사업장 쟁의금지 노동3권 위반”(국제 10. 30)
* 부산시, 수돗물서 발암 물질, 유독「염화메틸렌」 등 검출, 물금취수장선 기준치 4배이상(국제 10. 30)
* 김해공항로 8차선확장, 부산시 전포~거제로 고가도 신설, 오는 97년까지 공사완료, 1조7천억 재원마련(국제 10. 30)
* 부산여대 제2대 총장에 김무남 교수가 선출(국제 10. 31)
* 지하철 4호선 94년 착공(부산 10. 29)
* 부산시, 내년부터 신축대형시설 LNG사용 의무화(부산 10. 30)
* 국립과학수산연구소 남부분소를 부산에 신설(부산교육 10. 30)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부산) 신설(경찰사 10. 30)
* 부산항부두 무대 밀수관련 폭력조직 검거 5명 구속(법원사 10. 30)

10. 31
* 부산~김해 경전철 본격추진, 국회 교체위가 타당성 조사비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 93년부터 본격화될 전망(국제 10. 31)
* 수산청 부산 이전 추진, 민자부산 선대위발족 25개 공약 제시(국제 10. 31)
* 삼화노동자 구직 활발,「구인개척반」 알선 7백여명 재취업(국제 10. 31)
* 임균 평균 13.63%인상, 부산 노총집계 출판 노련 18.36% 최고(국제 10. 31)
* 아파트 미분양속 분양러시, 부산 2천8백여가구 내달 초 몰려(국제 10. 31)

* 시장상대 노동부고발 취하 않을 땐 법적조치, 시 공문에 의료원 노조 반발(국제 10. 31)
* 제3도시고속도로 조기건설, 부산시 항만물동량 급증 98년 완공키로(국제 10. 31)
* 「진양」 문닫았다, 노사합의 법정관리 7년 마감(국제 10. 31)
* "광복상권 살리자" 문화축제, 이달 말까지 한달간 다채로운 행사, 부산 상권 중심가로서의 광복로 위상 정립과 상가 활성화 위해, "밝은거리 만남의 장소" 캐치프레이즈(국제 10. 30, 11. 5, 시보 11. 11)
* 부산신발사업, 연쇄도산에 따른 파문(부산 10. 31)
* 부산시, 인사(부산 10. 31)
* 부산의 대표적인 신발업체 (주)진양 폐업(민주운동, 부산교육 10. 31)

11. 2
* 문화공간·편의시설 대부족, 사하구 매년 인구급증, 재래식 시장 고작(국제 11. 2)
* 대형쓰레기수거 "구멍", 시, 「중간처리업체선정」 법규 미전수(국제 11. 2)
* 주택보급률 점증, 올 64.1%, 총61만1천 가구건립, 10년새 10%P 늘어 81년 후 증가율최대(국제 11. 2)
* 강서구 농어민 "빚더미", 가구당 7백만원 꼴, 대출금·사채 등 8백억원(국제 11. 2)
* 부산시, 내년 중 주택 12만세대규모 택지 130여만평 개발(부산 11. 2)
* 부산제조업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평균치에 훨씬 미치지 못함(부산 11. 2)
* 부산시내 일부 의료기관이 장애진단비를 국고지급 기준보다 높게 책정(부산 11. 2)
* 부산시, 대중교통 운영공사 적극 추진(부산 11. 2)
* 원산지 표시 의무 가화, 수입 농·수산물 분할·재포장 판매 때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무 강화키로(시보 11. 2)
* 지방세 징수 75.2%, 9월 말 작년 보다 16%증가(시보 11. 2)
* 「명예 감독관제」 운영, 시는 금년에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 추진 상황을 일제히 점검, 연내 마무리키로(시보 11. 2)
* 주민 신고망 재정비 모의 훈련, 시는 구 소련·중국과의 수교 남북 회담 및 교류확대 등으로 다소 해이해진 안보 의식과 대공경각심 고취 위해 주민 신고망 재정비하고 주민 신고 모의 훈련 강화키로(시보 11. 2)
* 서부경찰서 송도파출소 위치를 암남동 산87-10번지에서 암남동 179번지로 이전(지방청 훈령 제34호)(경찰사 11. 2)

11. 3
* 민영아파트 사업승인 동결, 부산시, 빠르면 10일께(국제 11. 3)
* 부산시, 인사(국제 11. 3)
* 동구 초량 3동 신우아파트 31세대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YMCA가 계획중인 신축고층회관이 일조 권침해와 기타 생활피해가 우려된다면 항의하였다(국제 11. 3)
* 교통취약지 7곳 집중개선, 내년 권역별 대책마련, 지하철 정차장 중심 1천억투입(국제 11. 3)
* 민락동 생선노점상 철거 "생계보장대책마련" 농성(국제 11. 4)
* 신발업도산, 실업비상, 당국 무관심 속 만여명 재취업 안간힘(국제 11. 4)
* 소규모 아파트군 교통평가, 집단화로 체증심각, 제도 대폭 개선(국제 11. 4)
* 부산시, 내년세입 예산확보 비상(부산 11. 3)
* 동아대 주최로 대규모 의학행사 '국제의학 학술대회' 개최(부산 11. 3)
* 부산시의회, 「지방 교육 재정 부담금 삭제 건의」, 92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 처리(시보 11. 1)
* 부산사하구 장림1동 (주)호승 소유 600여평 부지내 무허가 판자촌에서 집달관입회하에 회사측에서 동원한 철거반원 50여명이 포클레인 등으로 24세대 건물을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 김선호가 숨지고 8명 부상(민주운동 11. 3)

11. 4
* 부산시, 인사(국제 11. 4)
* 쟁의신고결의, 지역의보노조, 20일께 파업 찬반투표(국제 11. 4)
* 불법 벌목 임야 황폐화, 형질 변경 수법 의혹, 구청, 주민신고 받고도 외면(국제 11. 4)
* 부산시, 내년부터 97년까지 하천오염과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오염방지 5개년 계획」 추진(국제 11. 4)
* 사하구 보상시비 예산 미확보로 도로 개설 차질(국제 11. 4)
* 대학생 「공정선거」 앞장, 부경총련 감시단구성 고발센터 운영(국제 11. 4)
* 부산외대 본격 수사, 검찰 부정 편입학 관련 김총장 곧 소환(국제 11. 4)
* 지난달 31일, 부도난 부산 북구 감전동 성화부산공장 등 이 회사계열의 근로자들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67억원에 달해(국제 11. 4)

* 미문화원 등 18기관 전경 철수, 시민 “후련하다”,「문부식 방화사건」이후 10년만에 대학가 운동권 시위 격감(국제 11. 4)
* 도산 세화 노동자 백명 농성, 기업은행 부전동 지점서 퇴직금 요구(국제 11. 5)
* 부산시, 인사(부산 11. 4)
* 정기해상 페리가 육상연계 교통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중단위기(부산 11. 4)
* 부산시 교육청, 초등교육 전보기준안을 대폭 새선, 93학년도부터 시행(부산 11. 4)
* 부산시,「10·13특별 선언」2주년 맞아 새 질서·새 생활 실천 운동 활성화 위해 도로 기능 회복·교통 거리 질서 확립·범인성 유해 환경 개선 등 7개 분야별로 세부 추진 방안 마련(시보 11. 1)
* 부산경찰청, 아메리칸센터 일본 영사관 등 재부 외국공관과 민자당 부산시지부를 비롯한 부산 시내 18개 주요기관의 경비병력을 일제히 철수시킴(민주운동 11. 4)

11. 5
* 기업 70% “NAFTA 무대책”, 북미시장 상실 “불 보듯”, 투자력·정보 없어 역부족(국제 11. 5)
*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94년까지 서부산권 대상(국제 11. 5)
* 교통 소통대책 마련, 체증예상 학장사거리, 월말 시행(국제 11. 5)
* 주거·공단개발사업 차질, 어업권 보상 확정 안 돼 어민 큰 반발(국제 11. 5)
* 오수 정화시설 착공 지연, 구청·상수도 본부 영리비 회피(국제 11. 5)
* 부산시 교육청, 초등교사 전보 제한 폐지, 장기근속자 순 민사교류 수급조절(국제 11. 5)
* 부산시, 시민 재산권 침해 심각, 사유지 점용 12만평(국제 11. 5)
* 지방의원(국제 11. 5)
* “체임청산” 노동자 잇단 시위, 성화, 세화 근로자 은행 몰려가 집회(국제 11. 6)
*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산지역 업체들의 대응책 마련 부진, 수출 적신호(부산 11. 5)
* 부산시, 6개 공영주차장 개발, 2개 주차장 확장, 모두 1151면의 주차면적 확장(부산 11. 5)
* 부산 강서구 둔치도에 종합양묘장 조성(부산 11. 5)
*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일선관청이 시행하는 후원자 결연사업이 주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유명무실(부산 11. 5)
* 부산시, 시정 업무의 전산 개발을 촉진하고 사무 자동화 가속 위해, 전산 개발 연찬회 및 문서 편집 경진대회 열려(시보 11. 1)

11. 6
* 중구보건소는 오는 6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세민 1천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국제 11. 3)
* 기업 땅 매각급증, 토지세부담, 경영난 급증, 양도 관련 세금 배 늘어, 부산시 국세청 작년 1백96억원 징수(국제 11. 6)
* 부산경기 단체, 집행부 물갈이 관심, 축구, 레슬링, 복싱, 배구협 등 대폭예상(국제 11. 6)
* 제2도시고속도로 공사, 편파적 방음시설 말썽(국제 11. 6)
* 마을버스 요금 인상 서비스개선은 “뒷전”, 당국업자 편들기 눈총(국제 11. 6)
* 남구청, 광안리 해안도로 확장 추진본격화, 사업비 4백63억 신청(국제 11. 6)
*「교사선언」서명확산, 부산 등 전국 4천명 전교조 합법화, 교사 복직 요구(국제 11. 6)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사전선거운동협의로 20건을 적발(국제 11. 6)
* 민정수립본부결성식,「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개최(국제 11. 7)
*「교사선언」1만명 서명, 부산·경남 등 전국 8개 시도로 확산(국제 11. 7)
* 광안리 해안로 확장공사 내년 착공(부산 11. 6)
* ‘달맞이고개’ 일대가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되어 균형 있는 개발 기대(부산 11. 6)
* 제2도시고속도로 일부구간 다음달 2일 우선 개통 도심지 5개도로 교통운영체제 변화(부산 11. 6)
* 부도난 부산신발업체 노동자들의 자구책 부심, 거래은행에 대책 촉구(부산 11. 6)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전선거운동 단속활동 20건 적발, 조치(부산 11. 6)
* 부산 사하구 감천1동 삼성중 전교생들, 지난 3일 교복을 맞춰 입지 못한 것을 비관해 자살한 이 학교 3학년 손용국의 죽음이 교사의 꾸중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월례고사를 거부하고 운동장에서 연좌농성(민주운동 11. 6)
* 부산연합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부산본부’를 결성(민주운동 11. 6)

11. 7
* 부산도심순환로건설, 남구 감만~사하구 장림동 35km 연결, 1조4백80억 투입(국제 11. 7)
* 부산집값 0.7%상승, 주택은행「10월 동향」, 전세는 0.8%하락(국제 11. 7)
* 어음 부도액 사상 최고, 10월 중 0.71%「편중대출」심화, 1천억원 넘어서(국제 11. 7)

* 동 행정기능 강화, 93년 중 동사무소 시설 집중 투자(국제 11. 7)
*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 국제화 지방화시대 대비 해양박물관 등 건립추진(국제 11. 7)
*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신시가」 우회도 12월 착공, 수비~송정삼거리 천1백억들여 95완공(국제 11. 7)
* 부산시, 실업대책 "초비상", 전체 3%, 2만8천명 실직(국제 11. 7)
* 부산지역대학가 공정선거활동 박차, 총학 중심 감시단 잇단 구성 대책 부심(국제 11. 7)
* 부산 어음부도율, 연중 최고치 부산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악화 반영(부산 11. 7)
* 북구청, 사상공단 내 하천정화계획 추진(부산 11. 7)
* 부산지역 재야 시민단체, 국민회의 부산본부결성식을 가지고 대통령선거에 본격 돌입(부산 11. 7)
*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심은 나무의 관리 소홀(부산 11. 7)
* 부산 금정구 노포동 일원에 대규모 청소년수련원이 건립(부산 11. 7)
* 북부경찰서, 삼화노동자 차량에 대한 무리한 저지로 만덕일대 교통마비(부산 11. 9)

11. 8
* 부산철도청, 역내부랑인 과잉단속, 술 취해 잠시 잠들어도 즉심(국제 11. 9)
*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야외무대에서는 6만여명의 노동자, 청년, 학생,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ILO공대위가 주최한 'ILO기본조약비준, 노동법 개정과 민주대개혁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성공적으로 개최(민주운동 11. 8)

11. 9
* 부산시의회, 행정감사, 20일부터 5백57건 자료제출 요구(국제 11. 9)
* 산재사망 하루 1·2명, 재해률 둔하 불구 3백19명 희생, 부산·경남 9월 누계 1만7천39명(국제 11. 9)
* 부산기업 해외로 숨통 튼다, 올 57건 투자, 동남아 37건, 유럽 북미 등 다변화 아쉬워(국제 11. 9)
* 값비싼 샷시 설치 강요, 시중보다 4만원 높아 모라 주공아파트 천여 입주자 반발(국제 11. 9)
* 서구청 중장기계획 추진, 주택 35,000호 건설(국제 11. 9)
* 중국 대련 방한단 부산 상의 방문(국제 11. 10)
* 강서구의회, 영농자금연기 건의서 1백61억 농림수산부에 제출 방침(국제 11. 10)
* 조선경기의 불황여파로 부산지역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경영난 심화(부산 11. 9)
* 부산지역 무역수지 개선 전망(부산 11. 9)
* 전국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13.7% 하락 부산 1년 전보다 15%하락(부산 11. 9)
* 부산시, 18개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부산 11. 9)
* 부산진구청, 청사이전 및 현 부지 내에 청사신축 추진(부산 11. 9)
* 부산지역 대부분의 일선국민학교가 여교사들의 산전, 산후 휴가 때의 임시교사를 못 구해 수업 차질(부산 11. 9)
* 부산 남구 용당동 일원에 대규모 직업훈련원이 건립(부산 11. 9)
* 상업지역의 동사무소와 사업소청사가 고층복합건물로 건립되어 임대사업 실시(부산 11. 9)

11. 10
* 민주·국민 부산서 대선공략 맞대결, 첨단산업육성·다대포 신항건설 주장(국제 11. 10)
* 부산시, 인사(국제 11. 10)
* 부산시, 수출입 촉진 지역필요, 시민대학·헬리포트 건설 등 바람직(국제 11. 10)
* 부산·경남기업자불규모 취약, 절반이 5억미만 영세법인(국제 11. 10)
* 주택 자금대출 급증, 10월 중 11.7% 늘어(국제 11. 10)
* 부산-서울 「컨」 화물 수송체증 심화, 평균 19.2시간 소요(국제 11. 10)
* 건설부, 부산 「아파트승인」 동결, 만6천여가구 심의 대기, 자금 묶인 업체 부도우려(국제 11. 10)
*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낮잠", 낮시간 때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야(국제 11. 10)
* 부산시, 공영주차장 등급조정 누증제 93년 시행(국제 11. 10)
* 부산시, 2002년까지 부산지역의 공원·유원지 39개소 개발하기로(국제 11. 10)
* 부산시 동구 범일동 (주)재영주택이 아파트 70여채를 사전분양한 후 기초공사 중 부도를 내고 잠적(국제 11. 10)
* 부산시 교육청, 내달 20일 초중등 교사 3백43명을 공채하기로 했다(국제 11. 10)
* 부산체육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재정난으로 체육회관 짓기도 전에 "비틀"(국제 11. 10)
* 조달청에서 실시된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 48량에 대한 재입찰이 또다시 유찰(국제 11. 11)
* 을숙도 부근 공휴지 관리 소홀(부산 11. 10)
* 강서구의회, 농협영농자금상황기한 연장요구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결정(부산 11. 10)
* 부산시 교육청, 93년도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사 임용후보자 343명을 공개전형 모집(부산 11. 10)

* 내년부터 주차요금 누중제 도입, 노상주차장 정기주차권 폐지(부산 11. 10)
* 부산시, 김해국제공항에 94년부터 고급버스운행계획 추진(부산 11. 10)
* 부산시, 부산수출업촉진지역 설립 시급(부산 11. 10)
* 봉래로터리 일대, 최근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도로기능 상실(부산 11. 10)
* 부산 당감3동, 방음벽시설로 인해 TV수신 어려움 주장, 대책 호소(부산 11. 10)
* 부산시 소방본부, 9일 오전 10시 중부소방서 강당에서 제30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부산 11. 10)
* 동래식물원~구서주공아파트 간 계획도로가 예산부족으로 2년째 공사답보(부산 11. 10)

11. 11
* 시장 동정, 부산 시장, 11월 11일 미국 일리노이주 페어하이츠시 조지레이졸 시장 예방 받고 환담(시보 11. 1)
* 부산시 검・경 「사전선거」 본격수사(국제 11. 11)
* 부산시 상의 의원 총회, 추경안 등 의결(국제 11. 12)
* 서민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대폭확대, 부산시 공급물량 9,813가구 남음(부산 11. 11)
* 시 간담회, 내년 육성자금 100%증액, 협동화 사업단지 부지 확보 건의(부산 11. 11)
* 하천 범람 상습지 정비, 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7백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천 범람과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해 정비 사업 시행(시보 11. 1)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시는 내년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10개 지구에 대해 개선 계획 수립, 8개 지구에 대해 추가 개선 지구로 지정하는 등 18개 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키로(시보 11. 1)
* 월동 대책, 겨울철 시민 보호와 각종 사고 재난 예방 위해 92년도 월동 종합 대책 마련(시보 11. 1)
* 용두산 공원 내 「낙엽 밟는 거리 조성」, 시 대청공원 관리 사업소는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용두산 공원 내 「낙엽 밟는 거리」 조성(시보 11. 1)
* 질서 확립 등 완벽 추진, 11월 중 4대 역점 시책 올해 사업 마무리도(시보 11. 1)
* 제2도시고속도로 일부구간 개통, 시는 시민들의 교통 불평을 획기적으로 덜어 주기 위해 지난 88년부터 문현R~감전IC간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가고속도로 건설(시보 11. 1)
* 겨울철 에너지 절약 계획 마련, 내년 3월까지 1년간 1천억원 절감 예상(시보 11. 1)
* 기능별로 쓰레기 감량, 범시민 운동으로 자원 재활용도 추진,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기능별로 업무 체계 구축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로(시보 11. 11)
* 교육감기 쟁탈 단축 마라톤 대회(부산교육 11. 11)
* 삼화 노동자 30명이 부산지방노동청사 내에서 퇴직금 청산과 김영주사장의 구속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자 경찰은 이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신한숙 고노협위원장(삼화노조 해고자)과 정영근(삼화노조 대의원)을 연행하며 구속(민주운동 11. 11)

11. 12
* 부산시, 인사(국제 11. 11)
* 부산시의회 임시회, 자치구 감사 않기로(국제 11. 12)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3백억 지원(국제 11. 12)
* 부산지방국세청 관내 특별소비세액, 올해 사상처음으로 1조원 돌파(국제 11. 12)
* 부산시, 인사(국제 11. 12)
* 골재부도개설에 반발, 용호주민 분진・소음공해 대책 요구(국제 11. 12)
* 강서구의 주요 농작물 값 폭락, 농민 큰 시름(국제 11. 12)
* 부산시, 오는 12월 5일까지 시책사업 강력 추진(국제 11. 12)
* 부산시, 오는 93년부터 이면도로 주차 금지(국제 11. 12)
* 부산교통공단, 부산지하철 1호선 신규제작전동차에 대한 입찰이 거듭 유찰, 장기화 차질(국제 11. 12)
* 지방의정(국제 11. 12)
* 부산시, '30분 일 더하기' 폐지, 시간 때우기식 등 각종 부작용 속출(부산 11. 12)
* 부산경찰청, 불법선거 5건 적발(부산 11. 12)
* 위법시공건축물에 준공검사 건축사무소, 감리공단 영업정지처분(부산 11. 12)
* 부산시, 이면도로 한쪽방면 주차허용, 주민왕래 잦은 곳은 양쪽금지(부산 11. 12)
* 부산대 교수 제안 화훼단지 집중육성이 바람직(부산 11. 12)
* 부곡시영아파트의 부실 배수부실로 옹벽에 금이 감, 도로침하 승강기도 잦은 고장(부산 11. 12)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 양산, 김해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300억원 긴급지원(부산 11. 12)
* 예결 특위 구성, 부산시 의회 92년도 행정 사무 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로 의결(시보 11. 21)

11. 13　* 부산시, 공동주택 승인 업무 개선 시공감독권 등 구에 위임, 내년부터 시행(국제 11. 13)
* 부산시, 인사(국제 11. 13)
* 「컨」 수송 고속도 반발, 감만동주민 해안외곽쪽 변경 요구(국제 11. 13)
* 서구 대신동~사하구 하단 간 부산지하철 1호선 4단계의 구간, 파행공사로 큰 불편(국제 11. 13)
* 부산소비자 물가 상승률 6대 도시 중 최고, 전국 평균치 1백17.5%를 상회하는 1백19.3%(국제 11. 13)
* 부산시가 관리중인 개인서비스요금 대다수가 올해 들어 급상승(부산 11. 13)
* 부산금융단지 조성사업의 윤곽이 가시화(부산 11. 13)

11. 14　* 침례 병원, 부산 첫 응급의료센터 개설(국제 11. 13)
* 명지농협 대파,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농산물 품질인증마크 획득(국제 11. 14)
* 부산 땅값 내림세 지속 공업지역은 3.7%나, 전국 평균 0.48% 하락하였으나 부산은 1.1% 배로 하락(국제 11. 14)
* 법인신설 계속 늘어 10월 중 87개사 설립, 9월보다 3개사 3.6% 증가(국제 11. 14)
* 부산시 교육청, 내년 중 3백30억1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국제 11. 14)
* 부산시, 내년 중 1천3백만원의 사업비 투자, 공영 주차장 8곳 확충(국제 11. 14)
* 부산 종합터미널(주), 총 1천98억원의 사업비 투자, 엄궁 화물터미널 본격 추진(국제 11. 14)
* 상습침수예방을 위해 부산사상공단지역의 성토작업 시급(부산 11. 14)
* 엄궁 화물터미널 건립 인가, 국내 최대 규모의 부산종합 화물터미널이 본격 착공(부산 11. 14)
* 전국 15개 시도가운데 부산지역의 개발부담금 징수율이 최저(부산 11. 14)
* 부산 자동차시장, 경기부진으로 인한 침체(부산 11. 14)
* 부산지역 일부 상호신용금고들이 최근 기업공개 추진 움직임(부산 11. 14)
* 부산시, 환경개선사업 및 영세주민주거안정, 서민주택 확대보급 부진(부산 11. 14)
* 부산시,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선거관리 관련 25개 지침 마련 사석에서도 후보지지 발언금지(부산 11. 14)

11. 16　* 부산지역시내버스 기사들의 횡포운행 심각, 버스기사 자격제도입 시급(국제 11. 16)
* 부산 제2도시고속도로의 공식가로명, 「동서고가로」 결정(국제 11. 16)
* 학교정상 결의대회, 재단 비리 척결 촉구(국제 11. 17)
* 14일에 제8회 성지상 수상자 5명 발표(부산 11. 16)
* 각 구별로 실시하는 '영세민 합동 무료진료'의 활발한 실시에 따른 호평(부산 11. 16)
* 비법정영세민에 대한 결연사업의 부진 시민, 사회단체들의 관심과 지원 요구(부산 11. 16)
* 용두산공원 관리 엉망 철저한 관리와 시설현대화가 시급(부산 11. 16)

11. 17　* 부산시도 "신도시" 추진, 시 역내 택지개발한계, 정부부처에 건의(국제 11. 17)
* 동구청, 교통취약지 개선책 마련(국제 11. 17)
* 재활용품 수집활동에 "찬물", 내년 장려금 추정 예산 50%만 책정(국제 11. 17)
* 내년 부산시예산 1조8천39억, 시민세부담 크게 늘어, 지방세 징수 15.7% 증가(국제 11. 17)
* 부산시, '새청사 기본설계 최종보고회'에서 규모, 형태, 토지이용계획 등을 마무리(부산 11. 17)
* 김해 양동리 유물 1,300여점, 가야 환두대도 발굴(부산 11. 17)
* 시내버스 4개노선 변경(부산 11. 17)
* 일선구청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소유권이 대부분 실제소유권자와 달라 민원 야기(부산 11. 17)
* 서구청, 내년 1월 교육방송국을 설립키로 하고 18일부터 시험방송 프로그램 개발 추진(부산 11. 17)
* 플래카드 게시대 부족(부산 11. 17)
* 부산 야외 조각 대전, 조각 심포지엄・창작 과정 공개, 11월 17일부터(시보 11. 21)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부산방문(부산교육, 직할30년 11. 17)

11. 18　* 문현여상분규 확산, 학생 2천여명 재단 퇴진 요구(국제 11. 18)
* 12월 동서고가도로 개통에 맞춰 버스노선 4곳 변경(국제 11. 18)
* 부산시, 내년예산 1조8040억3200만원 규모로 편성(부산 11. 18)
* 부산시, 7개 외곽지역 교통 유출입지점에 대중교통 연계 주차장 개발(부산 11. 18)
* 부산지역국세청, 부산경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주류 부정판매 단속(부산 11. 18)
* 부산지역단지사들이 최근 자금사정의 여유로 대출업체 발굴에 적극 나섬(부산 11. 18)
* 부산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이 참여업체들의 택지분양대금 체납으로 차질 우려(부산 11. 18)
* 주거, 상업 녹지 등 비공업지역에 입지한 제조업체가 전체의 44.5%(부산 11. 18)
* 수입금지 수산물을 수출용원자재로 들여와 시중에 불법유통하는 사례가 성행(부산 11. 18)

11. 19 * 부산녹지 73만평 감소, 전국 1천만평 넘는 녹지 감소(국제 11. 19)
* 지방의정(국제 11. 19)
* 부산시, 둔치도 종합개발계획 확정(부산 11. 19)
* 부산지역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상인간의 갈등 등의 문제로 차질(부산 11. 19)
* 부산시, KOTRA부산무역관과 함께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시장개척단과 해외박람회 참관단을 공동파견 할 예정(부산 11. 19)
* 해운대 춘천권 재복개공사를 둘러싸고 구청-주민 간의 견해 대립(부산 11. 19)
* 부경총련과 남총련 소속 학생 5백여명은 부산대 넉넉한 터에서 '지역감정 타파 민주정부수립 대학생 결의대회'(민주운동 11. 19)

11. 20 * 용역남발 예산만 낭비, 화단정비 설계까지 외부에 맡겨, 각 구청 올 34건 14억 소요(국제 11. 20)
* 부산시의회 제18회 정기회 개최 정보비 대폭 삭감(부산 11. 20)

11. 21 * 부산사업체 20만5천개, 서울 등 이어 3위, 전국 2백11만개(국제 11. 21)
* 주거개선 부산이 가장 활발, 정부 융자 지원금 전체의 48%차지(국제 11. 21)
* 부산시, 좋은 식단제 장려를 위해 모범업소에 상수도 요금 인하 추진, 소요자금을 각 구 예산을 충당하도록 하여 구청 및 구의회 반발(국제 11. 21)
* 부산시, 94년부터 김해공항고급버스 운행하기로(국제 11. 21)
* 을숙도 매립장 진입로 개설 "비상", 쓰레기·잡토 대량투입으로 환경 크게 오염(국제 11. 21)
* 부산시, 사상공단 건축제한 해지 말썽, 건설업체 특혜조치 의혹(국제 11. 21)
* 신익개발, 아파트 편법 분양 혐의로 검찰 수사(부산 11. 21)
* 부산시, 송정~양산~진해고속로 추진(부산 11. 21)
* 부산금융계는 한일투금 동구 범일동 대표에서 이 회사 보유의 170억원어치 가짜 CD 17장이 발견되자 한일투금의 타격정도에 관심 집중(부산 11. 21)
* 중국에 진출한 우리업체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파업까지 벌이는 사례가 잦아 희망업체들의 주의가 필요(부산 11. 21)
* 부산시, 여권발급업무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개선, 20일부터 시행(부산 11. 21)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지역사업소가 국고손실을 초래, 올해 31건 위반 적발(부산 11. 21)
* 부산금융계, 가짜 CD와 위조상업어음 발견에 따른 위기의식(부산 11. 21)
* 부산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이 위축되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이 급증(부산 11. 21)
* 부산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학협동체제 확립 시급(부산 11. 21)
* 시 새 청사 규모 확정, 새 청사 기본 설계 최종 보고회를 갖고 규모와 형태·토지 이용 계획 등 마무리(시보 11. 21)
* 시 외각 주차장 27개소 개발,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차장난 해소 위해(시보 11. 21)
* 11월말까지 납부, 시는 91년도 종합 소득세 확정에 따라 1백12억2천3백만원의 주민세를 부과 11월말까지 징수키로(시보 11. 21)
* 가야로 교통 체증 해소, 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덜어 주기 위해 지난 88년 4월부터 문현R~감전IC간 도심을 가로지를 고가도로 건설(시보 11. 21)
* 건축 관련 업무 대폭 간소화, 시는 건축 관련 절차의 대폭 간소화와 각종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이 건축법령 전면 개정·시행 되고 있으나 건축과 관련된 진정 탄원이 줄어들지 않아 건축민원 감축 방안 마련·시행키로(시보 11. 21)
* 자동차세 부과 업무 개선, 4/4분기부터 전산 입력 후 2중 과세 해소(시보 11. 21)
* 중장기 관광 종합 개발, 시는 오는 2천년대의 국제화와 지방화 시대를 대비, 부산 관광 발전 위해 바다·산·강변에 3개 관광 단지 조성(시보 11. 21)
* 자동차 40만대 육박 자가용 22만대 으뜸, 부산의 자동차 대수가 40만대에 육박(시보 11. 21)
* 「1회용품 안 쓰기 운동」 활성화, 시는 1만3천개 음식점 상대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1회용품 안 쓰기 운동 활성화시키기로(시보 11. 21)
* 겨울철 실내 온도 제한,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실내 온도가 제한 기준인 18도에서 20도 이상 초과 할 때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키로(시보 11. 21)
* 저소득 자녀에 장학금, 올해 생활보호기금 4억3천4백만원에서 생긴 이자 수익금으로 부산 시내 저소득층 자녀 1백명에게 장학금 지급키로(시보 11. 21)

* 71%를 교통난 해소에 투입, 시는 93년도 예산을 일반 회계 1조86억4천9백만원 특별 회계 7천9백53억8천3백만원 등 총 3천2백만원으로 확정(시보 11. 21)
* 주요 사업 차질 없게 추진, 시 연초 시민들에게 약속한 92 주요 사업과 시책에 대해 점검・마무리(시보 11. 21)
* 새마을금고서도 공과금 받아, 1일부터 시민 편의를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시・구 공과금 수납 대행 업무 개시(시보 12. 11)
* 부산시의회, 제1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무 감사・예산안 다뤄,「동서고가로」대비 교통 대책과「시 발전 추진 기획단」확대 용의・김해 공항 주변 소음 해소에 관해 논의(시보 12. 1)

11. 22 * 부산고엽제 피해 5백28명, 참전전우회 보고대회, 32명은 이미 사망(국제 11. 23)

11. 23 * 북구 모라동 모라시장 인근 30세대 주민, 주택가 지하에 대한 큰 피해예상, 전면 보상요구(국제 11. 23)
* 대선유권자 2천9백만, 부산 2백56만9백34명(국제 11. 23)
* 부산시교육청, 문현여상 특별감사(국제 11. 24)
* 연근해 주요어장이 이례적 이상수온으로 어획량, 어류성장에 영향 미쳐 난관(부산 11. 23)
* 내년부터 조업이 금지됨에 따라 감천항에 북양오징어유자망어선 전용계류장 설치(부산 11. 23)
* 부산금융의 전국비중 하향세(부산 11. 23)
* 부산지역 수출 실적이 10월 들어 상당히 호전, 회복 조짐(부산 11. 23)
* 고려해운과 부산상선이 내달 1일부터 한일항로 공동운행 예정(부산 11. 23)

11. 24 * 부산시의회 행정감사, 인공섬 건설 연기 시사(국제 11. 24)
* 부산 중등교사 공채 9대 1, 국교교사 경쟁률 1.8대 1(국제 11. 24)

11. 25 *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관계법규에 의해 실현 불가능한 것이 태반으로 밝혀졌다(국제 11. 25)
* 부산시의회, “금정산 임도중지를”, 사흘째 행정감사(국제 11. 25)
* 입주자격 바꾼 영구 임대, 청약저축자도 분양 꺼려, 모라 천여가구 남아 돌아(국제 11. 25)
* 부산시, 구청세무행정 전문화, 97년까지 6급이하 6백명 세무직 교체(국제 11. 25)
*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시민 증가 시설의 추가 개방과 개선 시급(부산 11. 25)
* 부산지역 백화점, 연말대목 판촉 치열(부산 11. 25)
* 부산지역 중소기업, 자동화시설 투자가 저조(부산 11. 25)
* 부산지역 주공아파트 미분양물량이 1,700여세대, 서민들에게 좋은 기회(부산 11. 25)
* 부산주식약정고의 전국비중이 6%선(부산 11. 25)
* 부산지역 기업의 해외투자, 시장확보적인 투자로 전환 필요(부산 11. 25)

11. 26 * 부산시, 농지 형질변경 적발면적 올 들어 1만8천여평(국제 11. 26)
* 부산시, 개인서비스료 억제, 3개 대책반운영(국제 11. 26)
* 부산 금정구청, 구청 문화행사 내세워 이번엔 금정산에 광장 추진, 시민 비난(국제 11. 26)
* 지방의정(국제 11. 26)
* 부경총련 ‘민자당 재집권저지와 지역감정극복을 위한 영호남 청년학생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각 대학별로 대선운동 대책본부 발대식(민주운동 11. 26)

11. 27 * 부산시, 낡은 건설장비 현대화시급, 도급한도 수준 못 따라(국제 11. 27)
* 고용불안여전, 부산 실업률 2.9% 전국 두 번째 높아, 고학력・저연령층 확대, 전국 2.2% 서비스 취업자는 증가(국제 11. 27)
* 부산시 녹산・기장에 15년 사용규모 쓰레기 매립장(국제 11. 27)
* “사전내점” 탈락업체 반발,「백양산 터널」대우・자유건설 선정(국제 11. 27)
* 지난 10월 중 부산지역 제조업경기 회복 조짐(부산 11. 27)
* 부산지방국세청, 이례적인 세수예산축소조정 작업에 비난받음(부산 11. 27)
* 경제활동 참가율이 4년만에 큰 폭으로 감소 실업자 증가(부산 11. 27)

11. 28 * 일선구청의 투자가용재원이 극히 빈약, 재정확보 대책 시급(부산 11. 28)
* 중소기업에 대한 부산지역 예금은행의 대출비중이 하락(부산 11. 28)
* 부산해양청, 4개 방파제와 신선대부두에 낚시터를 각각 조성(부산 11. 28)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공포(제2952호)(부산교육 11. 28)
*「부산직할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공포(제2953호)(부산교육 11. 28)

* 「부산직할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2954호)(부산교육 11. 28)

11. 30 * 부산시의회, 고도제한문제 등 추궁(국제 11. 30)
* 환경미화원 등 후생복지 타 시도 비해 열악(국제 11. 30)
* 1백88개 새마을금고 시구 공과금 수납취급(국제 11. 30)
* 「신시가」 편입주민 반발, 예산모자라 이주단지 땅 매입 난항(국제 11. 30)
* 지하철 재원 1천억 "구멍"(국제 11. 30)
* 새임도가 금정산 망쳤다, 학술조사단 "무모한 행전편의주의" 결론(국제 11. 30)
* 장림동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살해 사건(민주운동 11.)

12. 1 * 중기 내년 3백억 지원, 부산시의회 본회의 김영환 시장 답변(국제 12. 1)
* 체증탈출, 열차 이용객 급증, 부산~마산 무궁화호 일 14회 신설운행(국제 12. 1)
* 부산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요지, 신발 사업자 80% 취업알선(국제 12. 1)
* 엄궁유통단지 혼잡우려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연(국제 12. 1)
* 부산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기, 건설부 53억원 추가 배정(국제 12. 1)
* 사회복지시설운영 "부실", 북구 올 국·시비 8억 지원 "하나마나"(국제 12. 1)
* 부산 남구 문현1동 학교법인 세화학원, 교사채용 때 기부금 받아(국제 12. 1)
* 부산진구청 「진양」 부지로 이전, 95년부터 업무(국제 12. 1)
* 부산시, 수영요트장 종합레저·체육시설 유치(국제 12. 1)
* 탈불황 전략의 하나로써 부산지역에 중소업체조합설립 붐(부산 12. 1)
* 부산시의회, 제1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부산 대기오염개선책에 대한 시정 질문(부산 12. 1)
* 부산국세청, 개인서비스 요금인상 업체에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부산 12. 1)
* 소년 가장에 김장 제공, 시 녹지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무로 김장해 소년 가장 1천여명에게 무료로 제공키로(시보 12. 1)
* 부산시립예술단 창단 기념 공연,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20주년 맞아 기념 공원으로 창작 오페라 「환향년」 공연(시보 12. 1)
* 민방위대 신규 편성 대상 정비, 「93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 대상자」를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 신규 편입 대상자는 본인이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분은 주소지 동장에게 1992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신고(시보 12. 1)
*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 마련,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 기간, 차량 안전 시설 정비·점검 강화 등 대책 마련(시보 12. 1)
* 부산시 여권 발급 업무 획기적 개선, 여권 발급 업무 중 미원인 편의를 위한 시책 발굴 처리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등 획기적 업무 개선책 마련(시보 12. 1)
* 주거 생활 안정 위해 주택 공급 질서 강력 추진,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책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택 공급 질서 확립 방안 마련·강력 추진키로(시보 12. 1)
* 도로 구조물 안전진단, 8월 5일부터 10월 20일가지 진행한 안전 점검에서 2백39개소의 도로 구조물 중 1백69개소는 양호·65개소는 부분 보수·5개는 정밀 진단 후 대책 강구해야 할 것으로 조사(시보 12. 1)
* 15개 등산로 폐쇄 등 대책 마련, 겨울철 산불 예방 위해 구덕산과 대청공원 등 15개 등산로 폐쇄, 1천여명의 감시원 배치·진화대 조직 등 대책 마련(시보 12. 1)
* 92년 주요 사업 진단, 부산을 한국의 제1의 항만 도시로 만들고 교통난 해소 위한 구포대교 및 접속 도로 건설 중(시보 12. 1)

12. 2 * 「신발자금」 7백억 지원, 김 부산시장 답변 시의회 예산안 예비심사(국제 12. 2)
* 부산시의회 시정질문답변 요지, 인공섬 내년 중반 업체 공모, 부산 중기재정 계획 정당 공약과는 무관, 환경오염방지 감시단 운영할 의향은(국제 12. 2)
* 여자 조정팀 칭찬, 컨테이너 부두 공사가 실업 팀으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여자 조정팀 창단(시보 12. 11)

12. 3 * 세수증대 시민부담가중, 부산시의회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따지기로(국제 12. 3)
* 의보노조 파업위기, 부산 등 4곳 7일부터 돌입 결의(국제 12. 3)
* 지방의정(국제 12. 3)
* 행정잘못 재정손실 "막대", 올 들어 총 8억여원(국제 12. 4)
* 부산 사하 일대가 부산 최대의 철물상가단지로 탈바꿈될 전망(부산 12. 3)

* 부산시립미술관 건립, 올림픽 공원 내 놀이마당에 부산시립 미술관 세워져, 주변에 부산 야외 조각 공원과 잔디 공원 확보해 96년에 개장(시보 12. 11)
* 한진중공업노조원을 상대로 불법노동운동을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판결(91가합12212)(법원사 12. 3)

12. 4
* 시의회 회관 건립 논란, 부산시의회 “퇴직 공무원 지원 반대” 주장(국제 12. 4)
* 내년 부산항예산 28%삭감, 7백75억 확정(국제 12. 4)
* 부산시, 공사 계획사전공개 지역업체 수주확대(국제 12. 4)
* 건설업체 급증, 부산 69개사 신규 면허 취득(국제 12. 4)
* 부산 첫 직업 오페라단 창단, 30대 성악인 주축(국제 12. 4)
* 부산해양청, 내년 예산 775억 확정(부산 12. 4)
* 부산지역 주택건설업체, 아파트 완공 후 분양 부도, 부실 우려 해소(부산 12. 4)
*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대출부도액 급증(부산 12. 4)
* 22일 시행되는 대학입시를 두고 대입임시열차 18개 증편(부산 12. 4)

12. 5
* 어음부도율 다소 하락, 부산 11월 중 0.67% 기록(국제 12. 5)
* 공무원 승진이 구청끼리 불균형하여 직원들 불만 고조(부산 12. 5)

12. 6
* 제2대 부산지방경찰청장에 김기수 치안감 취임(경찰사 12. 6)

12. 7
* 부산시 선관위 조사, 선거 벽보 13% 훼손당해(국제 12. 7)
* 의보노조 전면파업, 부산 등 4곳 업무 일부 마비(국제 12. 7)

12. 8
* 「근로자 주택」 실효 없다, 입주자격 등 과잉제한, 부산 3천8백가구 중 28% 분양 그쳐(국제 12. 8)
* 부산시, 불편사항 개선지시(국제 12. 8)
* 버스업체 증차배정 거부 말썽, 경영 악화 핑계 승차난 외면(국제 12. 8)
* 문현지구 「금융단지」 조성, 공원식 비즈니스 파크로 건폐율 낮춰 녹지 확보, 만8천평 부지에 20~40층 고층 유치(국제 12. 8)
* 공명선거 캠페인, 공선협 대학생 30명 진시장 앞에서(국제 12. 9)
* 내년 부산항 외 각종 항만 관련요금 급증 전망(부산 12. 8)
* 부산지역 6개 수출품목 크게 부진, 지난해보다 10~15% 감소될 전망(부산 12. 8)
* 범어사 우회 도로 건설 기공식, 범어사 진입도로가 좁고 위험해 주차장에서부터 청룡동 하마 부락까지 왕복 4차선으로, 1993년 12월 말 완공 예정, 30여억 투입(국제 12. 8, 시보 12. 11)

12. 9
* 부산시, 중점사업 추진확정, 96년까지 10개 분야에 9조원 투입(국제 12. 9)
* 부산시 장애인연합회 소속 회원 등 장애인 30여명이 민자당 부산시 지부를 방문하여 장애인 복지조례안 제정촉구(국제 12. 10)
* 부산시, 고입선발고사 수송책 마련(부산 12. 5)
* 부산지역에 대통령선거 유세가 한창(부산 12. 9)
* 부산 동서고가로 1단계 3.1km 구간이 착공, 4년만에 개통(부산 12. 9)
* 부산시, 5개년 중기재정계획 확정, 218개 사업에 9조1천억 투입(부산 12. 9)
* 부산상의, 내년 예산 올해보다 3.5% 감소한 54억9천만원 확정(부산 12. 10)
* 동서고가도로 개통, 1단계 착공에 들어 간지 4년8개월만에 동서고가도로가 개통, 가야로의 만성체증이 해소될 예정, 전포~학장 8.1km(국제 12. 9, 시보 12. 11)
* 동서고가로 1단계(학장사거리~전포로, 8.1km) 개통(부산교육, 직할30년 12. 9)

12. 10
* 가야로 택시 병산제 검토, 신암~주례 4.4km, 동서고가로 개통 체증 완화(국제 12. 10)
* 지방의정(국제 12. 10)
* 부산지역 제조업체, 수출물량 절반가량이 자사 고유상표 대신 OEM방식으로 수출(부산 12. 10)
* 부산지역 소비자물가 안정세와 달리 개인서비스 요금 대폭 상승(부산 12. 10)
* 해운대구청, 93년 예산 중 투자개발비가 부족하여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차질(부산 12. 10)
* 93년도 고입 선발 고사 실시(부산교육 12. 10)

12. 11
* 강서구 가덕도 패총·지석묘 유적지 확인, 신석기 시대 토기·가야 고분 등도 발굴(국제 12. 11)
* 체육진흥기금 내년 본격지원 “부산 최소 100% 증액 마땅”(국제 12. 11)
* 주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상습체납 30%(국제 12. 11)
* 주거개선 3곳 공고, 초량 5지구 등 계획안 수립(국제 12. 12)

* 금곡지구 택지 분양, 극심한 택지난 해소 위해 추진했던 금곡지구 택지 중 일부 민간인에게 분양(시보 12. 11)
*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기, 시가 부산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원 위해 재정 투·융자 특별 회계 융자금 53억 2천5백만원 추가 배정(시보 12. 11)
* 92년 주요 사업 진단, 94년 완공될 계획으로 공사 중인 황령산 터널은 수영로와 가야로 등 도심간선 도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예정(시보 12. 11)

12. 12 * 내년 제조업 경기 회복 흐름, 부산상의 실사지수 94, 내수위축 등 영향(국제 12. 12)
* 부산항 건설예산의 60%이상이 건설비 아닌 보상비 등으로 사용, 항만시설확충 답보상태(부산 9. 12)
* 부산직할시장 朴富贊 취임(부산교육 12. 12)
* 서부경찰서 장림1파출소 신축(경찰사 12. 12)

12. 10 * 겉도는 장애인 고용대책, 갈수록 취업률 낮아져, 강제조항 신설 시급(국제 12. 12)

12. 13 * 부산 등 지진, 담벽금가, 진도 4.0(국제 12. 14)

12. 14 * "관변 기관지 구입 예산 낭비", 각 구 매년 편성, 보는 사람 없어(국제 12. 14)
* 부산경실련 부산일보 강당에서 '대선3당 공약비교평가 토론회'를 개최(민주운동 12. 14)

12. 15 * 의보노조 9일째 파업 결의대회 후 가두행진(국제 12. 15)
* 부산시, 내년부터 국제도시화 추진(국제 12. 15)
* 정부, 부산시장 등 전격해임 배경, 지역감정 등 민감사안에 당혹(국제 12. 16)
* 부산시, 93년도 예산 1조7,986억으로 최종 확정(부산 12. 15)
* 정부, 김영환 부산시장 해임, 후임에 박부찬 총리실 제3행정조정관을 임명(부산 12. 16)
* 부산직할시장 金英煥 해임(부산교육 12. 15)

12. 16 * 신임 박부찬 부산시장, "고향을 위해 최선 다 할 터"(국제 12. 16)
* 투·개표작업 차질우려, 부산 예산부족 인력확보 못해(국제 12. 16)
* 부산관가 "기관장모임" 회오리, 시·검경·교육청 일손 놓고 사태추이 촉각(국제 12. 16)
* 정부는 부산지역 기관장 모임에 참석, 부산경찰청장에 김기주씨 임명(국제 12. 17)
* 훼손되는 금정산 부산시 직할관리차원의 '금정산 관리사업소' 설치 필요 대두(부산 12. 16)
* 도로망 확충 가시화 보람으로 생각한다, 제26대 김영환 부산 시장의 이임식이 16일 오후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려(시보 12. 22)
* 1조7천9백85억원 확정, 16일 부산시 의회는 총 1조9백85억8천5백만원 규모의 93년도 부산시 예산안 및 6천6백96억6천5백만원 규모의 시 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통과시켜(국제 12. 16, 시보 12. 22)
* 시의회 소식, 16일 제18회 정기회의 4차 본회의 열고 93년도 예산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시보 12. 22)

12. 17 * 검찰, 「기관장모임」 3명 21일 소환, 녹음테이프 국과수의뢰 전문 녹취(국제 12. 17)
* 부산항 1~4부두 부분침하, 시설노후 전면 보수 시급, 완전개축 예산 없어(국제 12. 17)
* 내년 제조업 경영애로, 부산상의 생산판매 소폭신장·해외고전(국제 12. 17)
* 부산시, 간선로 주행속도 크게 향상, 동서고가로 개통·10부제 확산 영향(국제 12. 17)
* 반송·반여개발 재원난항, 국유지 매각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진, 기반시설 확충 불가능(국제 12. 17)
* 지방의정(국제 12. 17)
*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역 국세가 경남의 66% 수준으로 85~89년보다 10% 감소(부산 12. 17)
*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전력사용량의 이례적인 감소 추세(부산 12. 17)
* 부산지역 회사들의 체임율 증가 시, 내년까지 특별대책반 편성(부산 12. 17)

12. 18 * 부곡일대 신주거지로 부상, 공장이전, 고층 아파트 "쑥쑥"(국제 12. 18)
* 의보 노조 파업 일파만파(국제 12. 18)
* 부산시, 자동차세 부과, 차량 40만9천9백27대에 대해 모두 1백81억원의 4/4분기 자동차세를 부과(국제 12. 18)
* 범어사 순환도로개설 착공(부산교육, 직할30년 12. 18)
* 대통령선거(김영삼 후보당선)(민주운동 12. 18)

12. 19 * 부산시 교육청 내년 예산 6,696억으로 확정(부산 12. 20)

12. 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후보가 총투표수 2,409만5,170표 중 유효투표의 42.0%인 997만7,332표를 획득했다고 최종집계발표(민주운동 12. 20)
* 14대 대선에서 민자당에 51.8%의 지지를 보낸 부산시민들은 대선에서 다시 김영삼후보에게 72.6%라는 압도적인 지지. 이에 반해 부산연합이 범민주단일후보로 추대한 김대중후보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은 12.5%의 지지(민주운동 12. 20)

12. 21　* 신평동 협업단지 조성 차질, 자금 압박 겹쳐 공장 신축 지지부진, 입주기업체 60% 불과(국제 12. 21)
* 학계 최종 결론, “금정산 임도는 생태계 파괴”(국제 12. 21)
* 검찰, 김영환 전시장 소환조사, 「기관장모임」 주도 김기춘 전법무도, 도청주모 경위 등 집중조사(국제 12. 21)

12. 22　* 부산시 「눈덩이 체임」, 전국의 40%, 백19개사 6백24억 발생, 42업체 3백88억 미청산(국제 12. 22)
* 부산시 연말 불우이웃돕기 계획마련, 월말까지 2억여원 예산투입, 2만7천여명에 생필품 전달키로(국제 12. 22)
* 구청·단체 각종 행사 개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활기(국제 12. 22)
* 부산시의회,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제정 오는 4월까지 자진 철거(국제 12. 22)
* 지방세 납부 75.2% 실적 보여, 지방세가 올 목표액 7천27억원의 75.2%의 실적을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시보 12. 22)
* 취업정보센터 정착 단계, 각 구·동 등 2백43개소 설치, 일자리 제공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가 올해 구직자 1만2천여명 중 93.8%를 알선하는 등 정착 단계(시보 12. 22)
* 각종 안전사고 예방,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행정력 쏟기로(시보 12. 22)
* 올해 주요 사업 계획대로 추진, 연 초에 시민들에게 약속한 92 주요 산업과 시책 당초 계획대로 추진, 자치구 주민 숙원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시보 12. 22)
* 복천동 고분군 유물 전시관 착공, 94년 완공 예정으로 역사성을 살린 성곽형으로 건립 예정(시보 12. 22)
* 동구 초량 5지구 등 3곳 거주 개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중 동구 초량 5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개선 계획안 사립·공람공고(시보 12. 22)
* 업무 신중한 정통 내무 관료, 새 부산 시장 박부찬은 경남 지방에서 시장 등 거침(시보 12. 22)
* 선거로 흐트러진 사회 분위기 쇄신, 박부찬 부산 시장은 14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흐트러진 사회 분위기와 질서를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잡아 연말연시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하라고 지시(시보 12. 22)

12. 23　* 중기가동률 부진여전, 11월 중 84.8% 부산지역 중소기업 가동실적이 여전히 부진(국제 12. 23)
* 대형관급 공사 무더기 발주, 해운대 신시가로 등 8건 연내예정(국제 12. 23)
* 부산시, 인사(국제 12. 23)
* 금정구청, 시와 건설부에 소공원내 보육시설 설립건의(국제 12. 23)
* 사상공단 업체 체불횡포, 경영난 핑계, 임금·퇴직금 미지급 많아(국제 12. 23)
* 부산시와 환경청이 무허가배출시설의 단속을 소홀(부산 12. 23)
* 한국은행 부산지점, 중소기업에 160여억원의 운전자금을 긴급 지원(부산 12. 23)
* 미인계를 이용한 도박사건 관련 2명 구속(법원사 12. 23)

12. 24　* 부산지눌 외국법인 감소, 신발 침체 등 불황여파, 올 7개 기업철수(국제 12. 24)
* 종합병원 노사분규 장기화, 고신·동아대병원 임협마찰로 환자 진료 차질(국제 12. 24)
* 금정구청, 「청소년 놀이마당」 조성 후 방치, 2년간 행사 한차례, 전시행정표본 보여줘(국제 12. 24)
* “쌀 수입 개방반대” 잇단 결의안, 사하·강서 등 4개 구의회 정부에 대책마련 촉구(국제 12. 25)
* 부산시, 경찰청과 국세청,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과 협조하여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단행(부산 12. 24)
* 통계청 부산사무소, 부산도매업계 규모가 해마다 감소세, 지난 86년 전국비중의 16.5%(부산 12. 24)

12. 25　* 주요 업종 경영실적 “작년절반”, 부산 철강·직물 등 일부만 미미한 증가(부산 12. 25)
* 부산지방국세청, 대형백화점 9개를 대상으로 유사상품권발행을 비롯한 실태 조사 착수(부산 12. 25)
* 부산시 일부 건설업체들이 토목, 건축기사의 태부족과 고임금으로 인해 현장자격증대여 성행(부산 12. 25)

12. 26　* 내년 부산경제 완만 회복, 하반기 신발 경기개선(국제 12. 26)
* 부산지역근로자 1백인이상 사업장 임금 평균 12.7% 인상(국제 12. 26)
* 석대매립장 오는 3월까지 사용, 「을숙도」 공사 미비 따라 연장, 주민반발(국제 12. 26)
* 올 시내버스 증차분 2백대 각 업체 배정(국제 12. 26)
* 고층아파트·빌라 잇단 건축 금정산이 안 보인다, 고도제한 등 규제 여론(국제 12. 26)
* 부산지역 금융시장, 비통화금융기관의 비중 급증(부산 12. 26)
* 부산지역 투신사저축고가 최근 실세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정체 현상(부산 12. 26)
* 부산수출 36년만에 최악, 올해 30년만에 전국비중의 10%이하로 하락(부산 12. 26)

12. 28　* 물가 9.7% 상승 부산, 전국서 최고 91년 지역 통계연보, 1인당 저축금액 1백38만원, 국교여교사율 70% 평균 넘어, 천명당 승용차 보유 55.1대(국제 12. 28)

* 미혼여성 노동자 아파트 건립(국제 12. 28)
* 사상공단 납오염 전국최악, 11월 대기조사 한달새 3배나 늘어(국제 12. 28)
* 부산상장기업의 매출액 다소 증가한 반면 순이익 감소(부산 12. 28)
* 부산시, 제3도시고속도로노선 확정(부산 12. 29)
* 부산시,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정부에 건의(부산 12. 29)
* 부산시, 부산교통방송국 설립에 대해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기로 정함(부산 12. 29)

12. 29
* 을숙도 일대 악취 교통 불편「쓰레기 매립장」반발(국제 12. 29)
* 관급공사 30% 예정가 낙찰, 56건 중 18건이 근사치, 정보유출 의혹(국제 12. 29)
* 부산시, 도심 차량 주행세 도입검토, 비수익 노선버스 지원도 추진, 연립주택 내년부터 교통영향 평가, 유발부담금 15% 인상(국제 12. 29)
* 중소기업에 대한 예금은행의 대출비중이 감소세(부산 12. 29)
* 개방원년의 중시가 89년이래 4년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부산 12. 29)
* 부산시, 장기택지개발계획 마련 목표 과다 책정, 현실성 결여 지적받음(부산 12. 29)
* 부산시, 지역개발공채 163억원 발행(부산 12. 30)
* 북부경찰서 구포파출소 개축 준공(경찰사 12. 29)

12. 30
* 부산시, 인사(국제 12. 30)
* 부산토지과표 대폭인상, 내년 평균 21.7% 올라, 종토세 올해보다 1백50억 더 부담,「미화당」평당 2천2백만원(국제 12. 30)
* 올해 처음 부과된 토지초과이목세 납세자들의 이의신청과 소송제기가 잇따라 발발(부산 12. 30)
* 부산지역 유통업계 불황,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부산 12. 30)
* 정권교체기를 맞아 시행정 무기력화(부산 12. 30)
*「부산과학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 공포(제2955호)(부산교육 12. 30)
*「부산직할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공포(제2956호)(부산교육 12. 30)

12. 31
* 지하철 환승이 편리하고 주차료가 일반주차장 보다 저렴해 역세권 주차장 이용급증(부산 93. 1. 1)
* 부산·경남 31일 종무식 한해 마무리, 각 관청 봉사행정 다짐(부산 93. 1. 1)

1993년

1. 1 * 민원대책협의회 첫 운영, 부산진구청, 전문가 위촉해 매일 한차례 회의 실시(국제 1. 1)
* 부산 동래구, 인사(국제 1. 1)
* 부산시 31일 낮 12시 격무식 실시, 3백여명 참석, 상장증정(국제 92. 12. 31)
* 해운대 관광지 장기 종합계획 수립, 『수비』에는 청소년 수련장 건립, 장산일대 체육공원 조성(국제 92. 12. 30)
* 고속터미널 사용료 5.5% 인상(국제 1. 1)
* 부산 지역특성에 맞는 통신망·DB 구축, 정보산업의 육성책 시급(부산 1. 1)
* 부산시 해양·무역 수도로 도약하자, 문민시대 맞아 발전 기대 크다(부산 1. 1)
* 부산 주종업종인 신발과 섬유업의 불황, 경기침체(부산 1. 1)
* 부산진구 부암2동 구름다리 개설 호소(부산 1. 1)
* 부산시 환경개선 부담금 조사 시기 부적합, 대상 업체 반발우려(부산 1. 1)
* 부산 예년보다 50%나 연말연시 우편물 격감(부산 1. 1)
* 부산 해운대구 좌·우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3백75만평 중 1백66만평 해제(부산 1. 4)

1. 2 * 93년 부산 대역사의 해, 해상 신도시·항만도로 등 20여건 착공(부산 1. 2)

1. 4 * 부산시, 올해 예산 대폭 삭감, 작년 7백40억에서 1백60억원으로 삭감(국제 1. 4)
* 부산시·부산지방경찰청·일선구청 시무식 실시, 3백여명 참석(국제 1. 4)
* 아파트 단지 입지심의 강화, 백세대 이상은 시가 직접 담당, 주변 환경 종합해 평가 실시(국제 1. 4)
* 10부제 차량 할인제 실효성 의문(국제 1. 4)
* 아파트·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수 과태료 너무 낮아, 1백톤 이상일 때 20만~80만원에 불과(국제 1. 4)
* 2월 환경 부담금 첫 부과 두고 징수 차질 우려(국제 1. 4)
* 시립화장장 위탁해제 불가(국제 1. 4)
* 부산지역 수출업체 신용도 높은 나라에 치중해 적극성 부족 등 지적(국제 1. 4)
* 부산 시청사 외형만 비대 시세는 허약, 서울·경남 반대로 특별시 승격좌절(부산 1. 4)
* 부산 신발 산업 살리기, "녹산 신발공단" 본격추진, 대규모 "국제신발전" 개최(부산 1. 4)
* 부산 전포2·만덕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부산 1. 4)
* 지난해 부산·경남 지역 기업체들의 회사채 발행 격감(부산 1. 4)
* 금정구청이 금정산성 안에 주차장 건립을 추진,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부산 1. 4)
* 동서고가로 개통 이후 서면·문현R 체증 극심, 램프진입 위해 차 집중(부산 1. 4)
* 93년 시정 설계, 21세기 주역도시 새 부산 건설, 교통망 확충 등 8대 시책 중점 추진(부산 1. 4)
* 93년도 시무식(부산시정 1. 4)

1. 5 * 부산대 앞 정문 4거리, 1백m구간 도로정비, 1억6천만원 우선 투입(국제 1. 5)
* 부산대, 국립대 최초로 교수 안식년제 도입(국제 1. 5)
* 금정산 산복로 20년간 계획만(국제 1. 5)
* 도시고가도로 개통 후 차량 소통 원활, 수영로 일대 체증해소(국제 1. 5)
* 신평공단 열병합 발전소 진통, 염색조합과 대우공방전(국제 1. 5)
* 93 부산 문화 예산 액수 줄고 대규모 사업에만 중점, 실속 의문(국제 1. 5)
* 부산도개공 미수금 93억원, 재정악화 부채질, 향후 2년 부진 계속되면 사태 심각우려(국제 1. 5)
* 10~12일 사이 부산소비자 물가 0.1~0.8%P 하락(국제 1. 5)
* 부산지하철 추가지원, 시에서 검토하여 50억 늘려서 4백50억원으로 추가 지원(국제 1. 5)
* 부산시 시내버스 증차 눈치보고 업계 좌석 요구에 작년 분 배정해 늑장(국제 1. 5)
* 부산기업체 공채외면, 구인모집인원 20% 수준에 머물러(국제 1. 5)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항만구역 내 불법어업·폐선 방치 등 불법행위 단속 실시(국제 1. 5)
* 부산 금융기관 대응 부심, 시장개방·산업구조 개편 예고(부산 1. 5)
* 부산시 『이색 고민』 건설업자 금곡단지 내 구민주택규모 건립 건의, 시 "수익감소" 『명분과 실리』 놓고 저울질(부산 1. 5)

* 부산세관 올 들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종전 평균 11%에서 9%로 2%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수입신고 크게 증가(부산 1. 5)
* 부산 컨테이너 부두 운영공사가 최근 자성대 부두에 부두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부산 1. 5)
* 공동어시장 경매용 상자 규격 시비배경, 이해관계 첨예대립…소비자 피해우려(부산 1. 5)
* 부산 상어잡이 업계 몰락 위기, 출어비 상승・어가 하락, 조선선박 70년대 백척…현재 12척(부산 1. 5)
* 부산지역 잇단 차량 방화 비상, 올 23건 화재 중 8건(부산 1. 5)
* 시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소 중 45%가 불법영업, 단속・일제정비 시급, 작년 규정위반 천3백여 곳 행정처분(부산 1. 5)
* 수입 쇠고기 반출・반입 일체금지, 부산시 위반 업자 처벌 방침(부산 1. 6)

1. 6
* 부산시, 도로일제정비(국제 1. 6)
* 황령산 터널 굴착, 전포3동 1,200세대 진정서 제출(국제 1. 6)
* 부산진구청, 시민의식개혁과 관의 대민친절봉사 풍토 정착위해 5대 정신운동 지속적 전개(국제 1. 6)
* 부산항 컨 물량 2년째 30만m/t나 감소(국제 1. 6)
* 을숙도 매립장 차질, 허가・보상지역으로 완공날짜 2달 늦은 2월 말에 완공가능(국제 1. 6)
* 부산시 교육청, 국민학생 감소에 따라 93년도 공립초등학교 학급 수 감소(국제 1. 6)
* 부산서구청, 재정자립도 높이기 위해 3섹터방식 도입해 장기발전계획 추진키로 함(국제 1. 6)
* 부산시민 2.6가구당 차 1대 보유, 자가용은 4.5세대마다 보유(국제 1. 6)
* 수입쇠고기 거래 제한(국제 1. 6)
* 주차위반 경고장 우선 발부(국제 1. 6)
* 부산지역유출업체 판매가 백화점에서 두드러지고, 슈퍼는 8%대로 추측함, 백화점 매출 24% 증가(국제 1. 6)
* 강서주민들 그린벨트 시에 편입되어도 농촌, 그린벨트 내 건축규제 완화 조절 조치가 강서구에 혜택 없음(국제 1. 6)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 양심, 실종(국제 1. 6)
* 중인감정, 담배자판기 조례적법성 공판(국제 1. 6)
* 부산지하철 요금 인상, 1구간 기준 1/4분 기준 23% 인상 계획(국제 1. 6)
* 부산지역 대EC 수출 감소, 91년 비 20%나…수입은 오히려 증가(부산 1. 6)
* 부산 상의 분석, 소매업계 명암, 백화점・편의점 등 큰 폭 신장세, 슈퍼업계 재래시장 쇠퇴 일로(부산 1. 6)
* 신용 보증 규모 크게 확대, 부산・경남 올 3천5백억…지난해의 35배, 자금난 완화기대(부산 1. 6)
* 부산지역 실태와 과제, 관련 법령제정・전담부서 신설 등 시급[정보화 시대 눈앞에 中](부산 1. 6)
* 해운대 개발 연말께 착공 백사장 복원키로 해운대 장기종합 계획 최종 확정(부산 1. 6)
* 고지대 미개설 도로높이 미리고시, 철거・정비 민원 예방, 건물 고도조정 큰 효과(부산 1. 6)
* 시내버스 업계가 경영난과 자금압박으로 인한 부도사태 입금지급지연등 48개 업체 중 절반 불황직면(부산 1. 6)
* 영도 동삼동 대단지 아파트 밀집 교통난 해소책 시급(부산 1. 6)
* 지하철 1호선 괴정~하단 구간 안전대책 무시, 인도에 장비 방치, 행인불안・추돌사고 빈발(부산 1. 7)

1. 7
* 김해공항국내선 청사 3월 개관(국제 1. 7)
* 부산 앞바다 기름 고위 유출 급증, 유출량 전년대비 32배 증가(국제 1. 7)
* 공무원 잇단 국고 손실, 땅 사들인 후 등기 소홀(국제 1. 7)
* 동래구청 연면적 30평 이하규모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설계도 무료 제공(국제 1. 7)
* 92년 8만여건 집계로 여권 발급 19% 증가(국제 1. 7)
* 수전 시설비 기습 인상 말썽(국제 1. 7)
* 금정구, 지역특성 맞게 4대 권역별 개발, 2천년대 문화・관광 영농자로 변모(국제 1. 7)
* 중장비 가동 사고 빈발, 지하철 1~4구간 안전대책 소홀(국제 1. 7)
* 통계청 발표, 전국・부산 광공업 실태, 신발, 의류 등 주종 무더기 도산, 출하・생산증가율 평균치 이하(국제 1. 7)
* 부산을 특별시로<3>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절실, 해양・무역 중추기능 유지・강화, 인재난 극복위해 지역대학 지원필요, 행정기구・인력 재정비・확충사업 시급(부산 1. 7)
* 부산지역 무역업계의 숙원이었던 대한 상사 중재원 부산지부 재설치(부산 1. 7)

* 감천항 준설・중앙부두 확장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의 예산확보 늑장으로 공사 지연(부산 1. 7)
* 바다 오염사고 급증, 91년 비 36%…고의 배출 등 61건(부산 1. 7)
* 동래구청 건축 행정 민원실 운영(부산 1. 7)
* 부산시, 인사(부산 1. 7)
* 보건소 의료서비스 향상, 부산 질병검사 전단계 신설, 신 장비 도입(부산 1. 7)
* 부산시 고위직 인사 관심 고조,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줄 대기 치열(부산 1. 7)

1. 8
* 전국기초의회 시도 대표 의장단과 부산시 구의회의원 의장단 26명 경제문화교류증진 명목으로 호주 방문 계획(국제 1. 8)
* 경부고속전철 종착역 변경, 낙동강 고수부지로 추진(국제 1. 8)
* 동산유지, 극동정유 현대・SKM에서 인수할 듯(국제 1. 8)
* 준공미필 아파트 사전 입주, 협성건설 7개 등 7백여세대분 공정 90%(국제 1. 8)
* 97년까지 「수계」에 17개 공해 공단 조성으로 낙동강에 맑은 물 공급 시책에 비상(국제 1. 8)
* 부산취업정보센터 이용급증, 하루 7백~8백여명 찾아옴, 경기불황 여파로 분석(국제 1. 8)
* 해운대구 석태 매립장에 사업비 6백여억 투입해 동부권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추진(국제 1. 8)
* 금정구청 빈약한 재정자립도 타개위해 다양한 경영 수익사업 추진(국제 1. 8)
* 부산가스사고, 안전점검, 관리 소홀, 유발요인 잠복, LPG용기 6% 노후로 불량(국제 1. 8)
* 6일~15일까지 시내 LPG사용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국제 1. 8)
* 부산아파트값 새해도 폭락행진, 신규 미분양 등 여파로 최고 30%까지 하락(국제 1. 8)
* 부산~울산~마산~진주 연결 순환 경전철 건설 추진, 민자당 부산권 광역교통 중장기 기본계획 마련, 대통령 직속 교통기획단설치 행정 효율화(부산 1. 8)
* 부산항 「컨」 부두 "명암", 신선대 물량 유치 목표 13% 초과…자성대 부진(부산 1. 8)
* 덕천로터리~주례 산복도로 공사 지연, 사상로 일대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부채질(부산 1. 8)
* 부산시 관계법령을 위반한 12개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부산 1. 8)
* 남구 용호부두 골재전용화 주민반발(부산 1. 8)
* 오락실 불법 또 활개, 시상금초과 예사, 들키면 대리자수 법 우롱(부산 1. 8)

1. 9
* 엄궁동 배송단지 조성 오는 6월께 공사착수(국제 1. 9)
* 어음 부도율 81년 후 최고, 부산 0.54%로 5만7천여건, 1조 육박, 유통・건설・섬유 등 전 업종 타격(국제 1. 9)
* 부산국세청, 세무관리 대폭 강화(국제 1. 9)
* 붕괴위험 아파트 많아, 20년 이상 노쇄 47개 단지 6천여세대나 되어(국제 1. 9)
* 부산시외버스운송사업조합측, 현금 승차 할증료 폐지(국제 1. 9)
* 부산지역 초・중등 교원 98명 오는 2월 말 정년퇴임(국제 1. 9)
* 부산・동아대 등 대선 끝난 뒤 대자보 정치 구호 급격 쇠퇴, 취업 관련 강좌 안내 등 대체(국제 1. 9)
* 노래방 주택가 설립되어 불법영업(국제 1. 9)
* 올 부산 여성계 과제…성폭력 특별법 제정, 여성정책 비판・감시(부산 1. 9)
* 비법정 영세민 지원 확대, 올 4백25억 투입 작년 비 22% 증가(부산 1. 9)
* 차량 견인업무 일원화, 주차공단・대행업체별 관리방식 달라 시민 불편・부과금 마찰(부산 1. 9)
* 남구청, 오폐수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 세차장이 과반수 차지(부산 1. 9)

1. 11
* 부산시 예술단 지휘부 개편(국제 1. 11)
* 그린벨트가 압박벨트, 강서구민 생활불편, 세금푸념, 구면적이 부산전체 1/3, 90%가 해당(국제 1. 11)
* 부산시, 동 행정 기능강화위해 무인 당직제 추진(국제 1. 11)
* 그린벨트로 용도변경 불가한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자는 여론 높아, 실제 개발제한법은 비현실적(국제 1. 11)
* 저소득 지원금 변칙운영, 사업자에 20%, 융자액 10년째 그대로, 실질적인 지원융자금 구실 못함(국제 1. 11)
* 부산경찰청 특수대・여형사대 방치, 예산 없이 무작정 가동(국제 1. 11)
* 김영삼 정부의 「작은 정부」 방침에 따라, 각 시도에서직제축소개편 예상(국제 1. 11)
* 부산을 특별시로<4> 국고 보조금 확대 선결과제, 국세 지방세 전환・세원 다양화 절실, 자금 압박 심화 개발사업 지지부진(부산 1. 11)
* 부산 금융계 장애인 첫 취업, 동남은 공개 전형 통해 3명 고용 "고객 상대 부적절" 고정관념 탈피(부산 1. 11)

* 부산・경남 지역 투자신탁사의 저축고 급증, 공・사채형 수익증권 호조(부산 1. 11)
* “부산을 수출입 촉진 지역으로”, “중소기업 리서치 파크 조성, 독자적 발전 전략이 과제”(부산 1. 11)
* 보건소 편제재편 시급, 전문성 결여, 일반・의료 활동 구분 편성(부산 1. 11)
* 현금승차 할증료 폐지, 버스표 자판기 폐쇄대응, 거스름돈 안 주면 과징금(부산 1. 11)
* 인도도 “위험천만”, 차도 덧씌우기로 상대적 침하, 공사건자재 무분별 야적방치, 보조간선도로 경계폭 안 지켜 통행위협…인명피해(부산 1. 11)
* “동서고가도로 관리부서 없다” 개통 한 달째 미 선정, 파손시설 그대로 방치(부산 1. 11)
* 화재 부산 하루 평균 5건, 방재시설 불량 대형사고 우려(부산 1. 11)
* 대졸 취업한파 최악, 부산지역 대학 조사 전년 비 10~20% 감소(부산 1. 11)
* “부산 출판역사 한눈에” 이색 도서 전시회 눈길, 독서운동 확산・애향심 고취위해 마련(부산 1. 12)

1. 12
* 부산시, 12일 부산지역신발업체 신발산업 회생위해 연 7%로 대폭 금리 인하해 적용(국제 1. 12)
* 부산신발업, 고유상품 수출 안간힘(국제 1. 12)
* 부산금융기관, 금리자유화・자본시장개방・금융규제완환 등 금융환경변화에 적극 대응(국제 1. 12)
* 제2영도교, 해안로 추진, 다리는 영선~충부동 7백m건설, 도로는 중리~영선동 8백m매립(국제 1. 12)
* 과밀학급해소 위해 3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개 개교 예정(국제 1. 12)
* 중구청, 부평동 도로확장계획 시행(국제 1. 12)
* 부산시내 8천개 폐건전기 수거함, 관계기관의 홍보미비, 시민들 무관심(국제 1. 12)
* 방학탈선, 학생범죄 기승(국제 1. 12)
* 주택공제조합 6월 발족, 사업요건 강화 부실업체 정리(부산 1. 12)
* 동남개발연구원 본격 가동, 20대 현안 본격 연구, 시설 확충 시민 공감대 마련(부산 1. 12)
* 부산 상반기 아파트 2만여세대 분양, 무주택 서민들 내집 마련 호기, 불황여파 미분양 속출전망, 공공 9천7백 민간 1만1천여세대(부산 1. 12)
* 부산 해저 오염 심각, COD・총황화물 전국 최악, 마산항 보다 높고 일본 기준치 20배 초과, 수중 저산소 상태 심화(부산 1. 12)

1. 13
* 취업정보센터 제 구실 못하고, 구인 비해 구직수가 절반(국제 1. 13)
* 부산시・부산지방철도청, 시내 동서구간 출퇴근 증편 열차 운행 증단, 이용객 적다는 이유, 시민 반발(국제 1. 13)
* 부산 주력 산업 활성화 계기마련, 연 7%, 3년거치 5년상환조건, 종업원 40명 이하 영세업도 혜택(국제 1. 13)
* 서울지역은 주식형 수익증권매각 증가세 이지만 부산은 투신사 주식형 수익증권매각부진(국제 1. 13)
* 부산지방국세청, 연 수 3천6백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 신고 기준율 7.6% 인상(국제 1. 13)
* 버스전용차선, 버스 우선 신호제도 등 시내버스 우선정책 시행(국제 1. 13)
* 자치법규 일체정비, 실정 안 맞고 불합리 한 것 189건, 남구청은 오는 3월 말까지 정비(국제 1. 13)
* 새 공무원상 마련, 각 구청 체질개선 부심(국제 1. 13)
* 부산 화랑가 불황 타개 전략 부심, 주식회사 운영・호당가격제 철폐 등 시도(부산 1. 13)
* 정보화 시대 눈앞에<下> 시 주도하에 지속적 추진 절실, 정보마인드 확산・전문 인력 양성 중요(부산 1. 13)
* 부전・충무동 시장 1천여 영세상인 엄궁 도매시장 입주요구(부산 1. 13)
* 통근영차 운행변경 구포~해운대 도심일부 중단(부산 1. 13)
* 건축 허가 반발 민원, 건물방향・지반높이 무시,「일조・조망권」비현실적(부산 1. 13)
* 버스전용 차선제 확대, 부산시 전자카드 승차권제도 도입 등 대중교통 우선시책을 시행(부산 1. 13)
* 건설사 로비 치열, “천억대 수정산 터널공사 따내라” 해상신도시 건설 프리미엄 얻는다(부산 1. 13)

1. 14
* 부산대학들 발전기금 모금 활기(국제 1. 14)
* 초중생 환경에 큰 관심, 96% 오염심각성 지적(국제 1. 14)
* 대청공원 주차장 유료화, 30분 2백원 요금 징수(국제 1. 14)
* 부산항 관리 기업화 바람직, 항만효율 극대화 방안…공단 등 특수법인체 설립(부산 1. 14)
* 부산지역 하수처리장 용량부족, 연안 해역 오염 가중, 질소・인 정화 못해 부영양화(부산 1. 14)

1. 15
* 낙동강 어패류에 중금속 발견(국제 1. 15)
* 해운대 신시가지 발파작업 피해 우려(국제 1. 15)
* 복지시설 의약품비 1인 최소 월 1백23원, 수용노인・원생 건강관리 형식적(국제 1. 15)

* 경찰청이 시 예산 변용, 매년 10억 안팎 정보비 등 사용(국제 1. 15)
* 98년 아시안게임 부산 유치, 민자추진 목표 4년 앞당겨…준비안 곧 결성(부산 1. 15)
* 92년 중 부산지역 토지거래 실적・가격이 전년에 비해 큰 폭 하락(부산 1. 15)
* 「걸프사태」 확전 가능성 희박…부산경제 별 영향 없을 것이다(부산 1. 15)
*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만 매립지 대우 마리나 아파트 분양가 사상 최고액 신청(부산 1. 15)
* 다대포항 개발사업 환경처 반대로 난항, "생태계 보전구역 해제 불가"고수(부산 1. 15)
* 부산공동어시장 올해의 총 위판물량 지난해 비 3.6% 감소하는 반면 총 위판금액 1.2% 증가 할 것으로 전망(부산 1. 15)
* 지난해 부산세관 통관 실적 저조, 91년 비 건수 12% 금액 7% 감소(부산 1. 15)
* 올 소년체전 부산에서 열린다, 16년만의 전국대회…체육발전 획기적 전기(부산 1. 15)
* 부산・제천 연결 열차운행 추진, 하루 2회 왕복 건의, 충북 찾는 부산 관광객 불편해소(부산 1. 15)

1. 16
* 용두산공원 문화 공간 조성, 운영・위치 허점(국제 1. 16)
* 쓰레기 투기 적발 때 포상, 해운대구 1건당 2만원 지급(국제 1. 16)
* 장림유수지 용도변경, 일부 준공업지역으로 전용, 공단에 주택혼재, 환경악화(국제 1. 16)
* 신축건물 안전시설 소홀, 낙하물방지망 설지 않아 사고 우려(국제 1. 16)
* 택시・버스 불편가중, 승차거부・정차불이행 다반사(국제 1. 16)
* 남구청, 주민들이 부담해오던 관대 보안 등 유지관리비용 오는 3월부터 전액 구예산으로 지원(국제 1. 16)
* 신용금고 여신 격감 자구대책 마련 부심, 시중자금 호전 실세금리 하락여파,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부산 1. 16)
* 경부선 화명구간 이설, 낙동강변으로 6백m이동, 예산 2백60억 투입 94년 착공(부산 1. 16)
* 부산 과학산업공단 어떻게 조성되나, 산업・연구・주거 복합기능, 정보・통신 우주・항공 등 첨단유치(부산 1. 16)
* 부산항 연계사업 공전, 보상가 시비만 수년째, 물류비용 급증 경제적 손실 크다(부산 1. 16)
* 부산항 화물처리 실적 뒷걸음질, 항만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부산 1. 16)
* 전국 아마 레슬링 대회 "부산서 고정 개최", 사직체육관 전국규모 첫 유치(부산 1. 16)
* 옥외화재 기동순찰대 발대, 부산진소방서 전국 최초 진화 활동(부산 1. 16)
* 금정서 앞 5거리 체증 극심 고가로 등 대책 시급(부산 1. 16)
* 해운대 승당부락 재개발 본격추진, 군사지역 고도제한 완화 따라 내2원 조합인가 후 7월 착공(부산 1. 16)

1. 18
* 낙동강 철새 도래지 학술조사 간담회(국제 1. 18)
* 부산연극, 협회 새 집행부, 전관개정, 개선계기, 영구・재교육 절실(국제 1. 18)
* 부산지역 보건소 의료서비스 확대(국제 1. 18)
* 화훼단지육성방안시급(국제 1. 18)
* 개인서비스료 오름세, 부산상의조가, 이・미용료 25%, 목욕료 15.4%(국제 1. 18)
* 신정부출범, 금융산업 개편대비 10월부터 영업 초비상(국제 1. 18)
* 부산을 특별시로<5>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 지역특성 맞는 부서유치・신설 시급, "해운항만청・수산청 부산이전 마땅" 여론(부산 1. 18)
* 삼화 노동자에 국세 환급, 부산 국세청 상고포기, 42억원 체불 임금 지급(부산 1. 19)

1. 19
* 부산항 문화 공간 조성, 해항청 97년까지 근린공원 등 사업추진(국제 1. 19)
* 8월말까지 하수관 매설 총공사비 8백억 소요(국제 1. 19)
* 부산지방경찰서는 19일 부전시장 앞 교차로 교통운영체계 개선, 이달 말부터 시행(국제 1. 19)
* 부산시사편찬위 발간, 임진항쟁・문화현황 소개, 지역사 정립 한몫(국제 1. 19)
* 부산시의회 집단 외유 계획 알려져 물의 빚고 있음(국제 1. 19)
* 시립교향악단 인사 구설수(국제 1. 19)
* 민간 환경 감시 유명무실, 전문 인력・재원 태부족(국제 1. 19)
* 부산진소방서, 옥외 화재 순찰대 발족(국제 1. 19)
* 광역의회, 시도의장협, 「증언・감정조례」 감행, 2월 전국동시재의결(국제 1. 18)
* 지난해 땅 값 사상 첫 하락, 부산 평균 1.57% 하락(부산 1. 19)
* 낙동대로 화명구간 건설방법 공방(부산 1. 19)
* 부산지역 불황여파 제조・건설업 창업 부진한 반면 유통업은 활발(부산 1. 19)

* 부산항 비효율적 운영, 작년 환적화물 비중 전체 5%불과(부산 1. 19)
* 외국관광객 달러 점차 많이 쓴다(1인당 3백27불), 작년 입국자는 91년 비 3% 감소(부산 1. 19)
* 인사…부산경찰청(부산 1. 19)
* 한국은행 부산지점 중소기업에 백20억 지원(부산 1. 19)
* 부산 유통업계 “설 대목 잡아라” 판촉전 치열, 예약 배당 등 묘안 백출(부산 1. 19)

1. 20
* 부산지역 주택업체 타 지역 진출 활발, 택지난·미분양사태 탈피, 30여개사 6천4백세대 공급계획(국제 1. 20)
* 부산시는 올해 시행할 사업 6백74건 조기착공, 3월까지 모두 착공(국제 1. 20)
* 명지·녹산 파농가 실업위기(국제 1. 20)
* 사상공단 내 무단 투기되는 폐기물처리위해 감전동에 폐기물소각장 20일에 준공(국제 1. 20)
* 남구청 용도지역 변경 상권조성, 낙후된 구세 회복 추진(국제 1. 20)
* 부산시향 재출범 가능한가, 단원 오디션 진용 일신, 연주활동 성패에 관심(국제 1. 20)
* 중국산 파 마구 구입, 값 폭락 시름 농민 “설상가상”, 국산 절반가격…연초부터 급증(부산 1. 20)
* 부산지역 은행 여행원 차별 폐지, 부산·동남은행 등 상반기 중 실시 전망(부산 1. 20)
* 「부산항 정책 심의위원회」 2월부터 본격 가동(부산 1. 20)
* 도로 무단 점유 “배짱공사”, 지하철 2호선 1단계 시공사 인도보판까지 파헤쳐 체증 유발·통행 큰 불편(부산 1. 20)
* 제39회 세계자유의 날 행사(부산시정 1. 20)

1. 21
* 민족최대명절 설, 이웃과 함께 지내자, 각계 독지가 성금 답지(국제 1. 21)
* 부산시, 인사(국제 1. 21)
* 청소년 탈선, 가출 예방위해 시에서 독립상담소 설치(국제 1. 21)
* 모범택시 신청서 업체 송부, 오는 2일 운행강행방침(국제 1. 21)
* 금정산 고도제한 추진, 조망권 위해 아파트·고층건물 규제(국제 1. 21)
* 부산지역 혈액난 심각, 수술비상(국제 1. 21)
* 2월 말까지 불법건축행위 중점 단속, 시 특별 단속반 편성(국제 1. 21)
* 부산 수출전망 “흐림” 1/4분기 신용장 내도액 계속감소(부산 1. 21)
* 부산 중소기업 육성 자금 3백억원 확정(부산 1. 21)
* 제조업 업종 다각화 부심, 불황극복 등 다목적 포석(부산 1. 21)
* 인사…영도구청(부산 1. 21)
* 마약 전문상담소 설치, 부산 등 3곳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부산 1. 21)
* 주차관리공단 요금편법인상 말썽, 할증제 신설·정기권 폐지, 2급지 18곳 1급지 상향(부산 1. 21)

1. 22
* 수입농산물 77% 원산지 미 표기, 국산·외산 구별 책 필요(국제 1. 22)
* 설날연휴 22~24일 종합상황실 설치해 교통, 화재 등 재난 대비(국제 1. 22)
* 북부경찰서, 최초로 「버려야 할 관행 1백가지」 선정(국제 1. 22)
* 동래구 민락2동, 어린이놀이터자리에 구청직원전용 테니스장 조성, 주민들 반발(국제 1. 22)
* 육교공사입찰 차별적, 부산지역전문건설업계 육교입찰에서 배제, 대형회사들만 참여(국제 1. 22)
* 부산경제 올 상반기도 부진, 매출증가율 저조·고용수준 악화(국제 1. 22)
* 부산을 특별시로<6> 경제 중추기능 확보 급선무, 상장회사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 세제 혜택·보조금 지원정책 실시(부산 1. 22)
* 부산항 개발예산 절반이상 이월, 보상금시비 휘말려 집행에 큰 차질(부산 1. 22)
* 부산 도로율 14% 6대 도시 중 “꼴찌”, 포장률도 90.8%로 최하위(부산 1. 22)
* 부산지역 환경공해 업체 10%가 법규위반(부산 1. 22)

1. 25
* 공무원이 민원신청·서류교부(국제 1. 25)
* 동구 범일동 자성대아파트 재건축 늑장, 주민들 이해관계 대립(국제 1. 25)
* 부산지하철 2호선 공사 토지보상마찰로 표류(국제 1. 25)
* 금정산보호 전담기구 절실(국제 1. 25)
* 시립도서관 대부분 회원제, 책 대출제한·절차복잡(국제 1. 25)
* 작년 부산수출실적 마이너스, 전년 비 9.2%나 감소(국제 1. 25)
* 부산항 4단계 공사 차질(국제 1. 25)

* 시내버스 요금 인상, 서비스는 “내몰라”(국제 1. 25)
* 해운대구청에서 청결유지・불법행위 예방위해 2개조로 편성해 관광지 현장즉시 처리반 운영(국제 1. 25)
* 부산종주산업인 신발・섬유・어망업 등 수출실적 5년만에 최저, 올 목표 30%까지 하향조정(국제 1. 25)
* 부산을 특별시로<7> 중장기 계획실행 국고지원 관건, 서울 비해 시설태부족 운영도 미숙, 각종사업 예산난으로 추진 불투명(부산 1. 25)
* 부산경찰청 형사민원 접수 즉시 처리 첫 시행, 조사 한 달 이내 종결 가능(부산 1. 25)
* 부산지역 출판사 새해 경영전략 다채(부산 1. 25)

1. 26
* 부산지역 땅값 주거지가 더 큰 폭 하락, 남구 낙폭 최고 91년 비 2.4%, 북구 공업지 8%이상 떨어져, 반수요감소 상업지 비 1.5배(국제 1. 26)
* 수정보완설계지침서, 시・산하 전 부서에 배포(국제 1. 26)
* 부산시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측 25일부터 버스요즘 인상, 방침 사전협의 없이 시행(국제 1. 26)
* 환경처 다대포목재전용부두 불가 결정 논란, 도심제재소 이전・교통난해결이점(국제 1. 26)
* 92 경영 행정 실적 평가(국제 1. 26)
* 재래시장 안전 무방비(국제 1. 26)
* 어린이「간질유발」일본TV 오락기 비상, 부산지역에 한달간 1만6천대 국내시판(국제 1. 26)
* 부산 지역 동장 113명 무더기 교체(국제 1. 26)
* 부산시내버스조합 부당이익 차지한다는 비난(국제 1. 26)
* 오는 2월 10일부터 시내전화요금이 3분당 25원 → 30원으로 인상, 시외・국제전화는 요금인하(국제 1. 26)
* 부산연고 프로팀 팬서비스・아마추어 육성 소홀, 지역체육 저변확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부산 1. 26)
* 부산 동행정 차질, 동장 70% 올 임기만료(부산 1. 26)
* 남항이 금괴 밀수 온상, 세관 감시 손길 못 미쳐 무방비 상태(부산 1. 26)
* 시내버스 횡포, 사리 급급…「시민의 발」정신 실종, 인상 첫날 요금 부담징수에 항의 발발, 토큰 판매기 폐쇄・증차배절 무시예사(부산 1. 26)
* 부산서도「TV게임 발작」일선 신경의원 최근 사례보고, 집단발병 우려 대책(부산 1. 26)

1. 27
* 시외버스도「불법지입」극성(국제 1. 27)
* 무소인 우편물 갈수록 는다, 물량 많아 중복처리 다반사, 부산체신청 손실 줄이기 안간힘(국제 1. 27)
* 부산시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 21명,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국제 1. 27)
* 버스할증료 내년폐지(국제 1. 27)
* 대기오염지역 정화수 식재, 공단중심 9만8천그루 배정방침(국제 1. 27)
* 가정용학습지 교재 문제 많다, 계약조건 안 지켜 원성 가득(국제 1. 27)
* 선사들이「컨」세 부과 및 도로체증으로 인한 비용 등으로 부산항이용 기피(부산 1. 27)
* 부산 쓰레기량 처음 줄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운동 시민 큰 호응(부산 1. 27)
* 체납 주택업체 아파트부지 압류 입주민 집단 항의농성, 신화개발・학산 주택 540세대 피해(부산 2.2)

1. 28
* 부산시 의회 임시회 개최(국제 1. 28)
* 개금 군부지 본격개발, 청사포공원택지조성, 진구청 이전 등 도시계획안 의회에 제출(국제 1. 28)
* 부산항 수심 최고 2m 낮아져 대형 선박 입출항 큰 곤란(국제 1. 28)
* 낙동강하구개발 시급(국제 1. 28)
* 해운동 신시가지 보상금 재결신청, 3.3% 인상, 주민 반발(국제 1. 28)
* 부산시, 인사(국제 1. 28)
* 산재율 전국 평균 상회, 북・강서구 작년 3천5백56명, 1.99% 기록(국제 1. 28)
* 버려진 나무로 도시미관 살린다, 동래구청 창구개발운영, 신개축 때 민원인에 기탁당부(국제 1. 28)
* 강서그린벨트 외지인투기바람(국제 1. 28)
* 해상도시 5월 민자유치, 부산시장 업무보고, 서낙동강권 본격개발 등(국제 1. 28)
* 부산권업계 WTC 가입추진(국제 1. 28)
* 부산을 특별시로<8> 도심 재정비・용지 확보 “필수적”, 정주권 재편 위한 도로망 구축 절실(부산 1. 28)
* 교통 환경 세계서 최악 “여성운전자 돕는다” 과실 없어도 손해 보기 일쑤, 정비・사고처리 요령 등 교육(부산 1. 28)
* 부산시, 인사(부산 1. 28)

* 설 연휴 노동자 귀사율 높다, 부산 99%…불경기 구직난 영향(부산 1. 28)
* 지방청 및 경찰서 보안 2, 3계를 보안 2계로 통합, 조정(경찰사 1. 28)

1. 29
* 김해공항 화재 사각지대, 계류장에 소방차 4대뿐, 청사밖에 진화는 속수무책(국제 1. 29)
* 광안리 해변도로 공사차질, 오는 7월 계획된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예산 없어 무산위기(국제 1. 29)
* 진입로 폐쇄 주민반발(금정구 장전2동), 양로원, 빌라 등 2백26여명이 금정구청에 진정서제출(국제 1. 29)
* 위천염색공단 조성강행, 낙동강 식수 비상(국제 1. 29)
* 부산 WTC가입 가시화(국제 1. 29)
* 부산시립미술관 건립 현안과 대책<上> 사업계획 각계 인사 참여(부산 1. 29)
* 채권 보상제 난관, 편입 지주 현금 분할 요구, 거제로 확장 등 차질 우려(부산 1. 29)
* 감천항 항만관리 체계 허술, 통제・감시 시설 빈약(부산 1. 29)
* "화장장 건립 연내 해결" 1만여평 규모…강서구 유력(부산 1. 30)

1. 30
* 부산 사하구 4월말 보선(국제 1. 30)
* 부산~울산 전철 복선화, 98년까지 73% 1대 6천5백억 투입, 부산시 올해부터 본격추진(국제 1. 30)
* 분뇨, 하수병합 처리 전환, 해양투기처리방식 3단계 거쳐 2010년 이후부터 전량하수처리방식으로 전환 계획 발표(국제 1. 30)
* 관급공사 안전점검 "헛구호", 펜스 설치 않고 도로・인도 무단점용, 대형인명사고 잇따라(국제 1. 30)
* 미술전문 월간 및 계간지 창간 계획(국제 1. 30)
* 물가출발 "불안", 부산 작년 비 소비자 0.9% 올라(국제 1. 30)
* 부산 5개 지구에 8만여평 택지 주택업자에게 선공급(국제 1. 30)
* 부산에 신발주문량 감소, 나이키・리복 등 최고 60% 감소, 수출부진할 전망(국제 1. 30)
* 부산지하철 조기 완공(국제 1. 30)
* 부산금융가 금리인하 생색내기, 지역업체에게 혜택 돌아갈지 의문, 자유화 품목 1~1.23% 포인트 수준(국제 1. 30)
* 신용금고 금리인하 적용 혼선,「부금대출 제외」홍보 안 돼 창구 마찰 잇따라(부산 1. 30)
*「동아시아 항구 도시 경제 교류회의」10월 개최, 부산 상의 본격 준비작업(부산 1. 30)
* 시 체육회 지급 장학금 2천만원, 부산외대 변칙사용(부산 1. 30)
* 낙동강 식수원 보전, 첫 광역행정 협의회, 부산시 공단 증설 자제 촉구(부산 1. 30)
* 4개 시・도 광역 행정 협의회 발언 초, 공단조성 최대 억제 배출업 감독 강화, 수질검사 등 환경업무 4곳 합동 수행(부산 1. 30)

2. 1
* 금정산 파괴, 무분별 확장계획, 산성훼손, 나무 5백여그루 벌목 위기(국제 2. 1)
* 낙동강하폐수 70% 처리시설 없이 방류(국제 2. 1)
* 중대행차 매연 단속시급, 사하구청분석 배출기준 위반 정체 93% 차지, 전담반・생산업체 교육 절실(국제 2. 1)
* 연안여객선 고장 잦다, 선원 화재까지, 배 낡아 안전 무방비(국제 2. 1)
* 부산중기, 투자의욕 기지개, 금리인하 힘입어 불황 타개 새 전략, 신규설비 등 65%가 계획, 자금조달 은행 이용 증가(국제 2. 1)
* 아미동 등 13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 실시(국제 2. 1)
* 불황여파 설 과일수요 격감, 재고 예년 20배, 부산지역 청과물도매시장들 극심한 판매부진(국제 2. 1)
* 94년 3월 부산 새 예술 고등학교 생기다, 음악・미술 등 2백50명 모집(국제 2. 1)
* 구청단위 첫 민속풍물패 발족, 1월 30일 낮 12시 회의실에서 발대식 가져(국제 1. 30)
* 부산을 특별시로<9> 처방만 있고 투약이 없다, 당국 정책적 뒷받침 취약 표류 거듭, 고부가업종 유치・용지난 해결 시급(부산 2. 1)
* 작년 보행 질서 위반자 전년 비 73% 증가, 문민시대「도덕성회복」절실(부산 2. 1)
*「뒷문」달린 좌석버스 인기, 승차 대기시간 줄었다 시민 큰 반응, 정차 단축 돼 앞지르기 등 불법 방지, 체증 해소도 도움(부산 2. 1)

2. 2
* 사하경찰서 민생치안 허점 노출, 강력사건 은폐 급급(국제 2. 2)
* 97년 전국체전 부산유치, 10일 시 체육회 안건 통과 예정, 시설보완, 교통체증해소 주력(국제 2. 2)
* 녹산 생곡에 쓰레기 매립장 11만9천평 규모 조성, 오는 2000년까지 사용(국제 2. 2)

* 공무원 무사안일 척결, 새 근무지침, 인사・징계 잣대 강화(국제 2. 2)
* 녹산공단 상반기 착공(국제 2. 2)
* 정신대 문제 사죄・배상하라, 부산대책협의회에서 자료집 발간, 연행동원경위・피해사례 등 논리적 제기(국제 2. 2)
* 무역업체 29% 등록 포기, 부산지역 무역업체 불황여파 7백79사 문 닫을 판(부산 2. 2)
* 올 중기 지원 대책 이렇게, 육성자금 대폭확대…40억 지원 산학 협동화 추진, 부산 산업박람회 개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도(부산 2. 2)
* 부산상의 석대 매립장 경마장 설치 재건의(부산 2. 2)
* 부산체육회 새바람 기대, 집행부 개편폭・진흥기금 사용・체육회관 건립, 정기대의원 총회 앞두고 관심 집중(부산 2. 2)
* 개발부담금제 개선, 주택조합・시공업자 공동부과, 동래구청 법 개정안 시에 제출(부산 2. 2)
* 마을버스료도 곧 20~30% 인상, 고지대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부산 2. 2)
* 부산 곳곳에「이색거리」등장, 주민정서 순화 휴식 공간 제공…도시미관에 효과(부산 2. 2)

2. 3
* 도시계획도로개설에 편입되는 공공유지점유자에 대한 보상 낮아 거의가 영세민인 점유자가 반발(국제 2. 3)
* 사상공단 화재위험 높다, 북부소방서는 소방점검을 이달 중으로 실시 예정(국제 2. 3)
* 부산 중소기업 베트남 진출 열기(국제 2. 3)
* 지하철 문고 새 출발, 28개 역 100여 책꽂이 분담 운영(국제 2. 3)
* 부산 예산 수혜액 전국 최하위, 1인당 30만원 불과…담세액은 6위, 정부지원 소외…개발 낙후(부산 2. 3)
* 부산서 전국 처음 개인서비스료 지수 구별 산정(부산 2. 3)
* 지역 민방 부산 방송계 초미의 관심, 차기 정부 공약…90년대 중반「다매체시대」예고(부산 2. 3)
* 인사…부산시(부산 2. 3)
* 지하철 전동차 기계고장 20분 연착, 수천명 시민 큰 불편(부산 2. 4)
* 시 상수도본부 고도 정수 처리계획(부산 2. 4)

2. 4
* 부산상의 상반기 설비자금투자 2천억 긴급지원 요청(국제 2. 4)
* 올 1월 중 부산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작년대비 4.6% 상승(국제 2. 4)
* 대입부정, 부산공업대에서도 대리시험 적발, 자체 검사 강화 등 대책 시급(국제 2. 4)
* 부산을 특별시로<10> 더 늦출 수 없는「푸른 삶」대책, 정화시설 부족 낙동강 상수원 위태, 환경 투자 확대・감시활동 강화 절실(부산 2. 4)
* 주택 3만6천세대 공급, 올 부산지역 아파트 94%…북구 가장 많다(부산 2. 4)
* 부산항 선적 남아돈다, 일반부두「컨」입항 예년 비 50% 감소, 계속되는 경기 불황 탓(부산 2. 4)
* 기업 장애인고용 기피 여전, 해당자의 56%만 채용, 지체장애 66%로 유형별 불균형(부산 2. 4)
* 민원인 사용제한 불편, 시청사 주차장 30% 시의원용 배정(부산 2. 4)
* 3개 관변단체에 구 건물 무상임대, 동래구청 "재정손실・특혜" 비난(부산 2. 4)
* 부산시 20대 역점사업 추진, 월 1회 확인평가 실시, 현안 조기 해결 통해 발전 적극도모(부산 2. 4)

2. 5
* 공무원 궐기 결의 대회 폐지(국제 2. 5)
* 김해~부산 경전철 건설, 노대통령 지하철 2호선 양산 연장 계획(국제 2. 5)
* 베트남 난민 보호소의 사후 이용 방안 놓고 시・구청 '부장자수요소', '청소차고지' 마찰'(국제 2. 5)
* 중소기업 하루에 30개꼴 부도, 작년 만8백개, 부산 전년 비 80%나 증가(국제 2. 5)
* 호텔료 최고 10%인상, 대형 폐기물처리비 신설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 및 신설안 5일 오후 열린 부산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함(국제 2. 5)
* 타지 건설업체 부산 시장 공략, 쌍용 등 지사 개설 조직 확대, 해상 신도시 등 대형 공사 물량 겨냥(부산 2. 5)
* 동아시아 국제경제세미나 부산 개최, 동아연 주최 한・중・일 학자 참가 협력 모색(부산 2. 5)
* 구청공사 늑장 큰 불편, 재송동 2천세대 통행・교통지장 가증(부산 2. 5)
* 화장장 건립 행정력 총 동원, 주민 홍보 등 대책 강화(부산 2. 5)
* 시도 교육감 간담회, 교육계 자정 앞장(부산 2. 6)
* 부산상록회관 개관(부산시정 2. 5)
*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부산교육 2. 5)

2. 6
* 대형아파트 3곳 무작정 허가 반발, 도시기반시설 증설 뒷전, 2년 내 2천집 밀집, 환경악화(국제 2. 6)
* 대보름 행사 다채(국제 2. 6)

* 남구청「시각장애인용 민원안내 점자책」발간, 관내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 예정(국제 2. 6)
* 자가용 승용차 급증, 작년 12월 신규 등록 85% 차지(국제 2. 6)
*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91년보다 줄어, 부담금 납부로 대신, 부담금은 작년 비해 증가(국제 2. 6)
* 어음 부도율 3개월째 감소, 시중자금 풀리고 한계기업정리여파, 1월 0.42% 기록 호조(국제 2. 6)
* 부산시 비능률 관행 개선추진 제도개선, 의식 개혁, 국민에 군림 탈피, 각종 민원 절차 간소화(국제 2. 6)
* 신발업 단지화 건의, 인력 80% 절감·다품종 생산 가능(국제 2. 6)
* 부산 금정구 금곡동 산업도로변 6만여평의 준공업 지역이 대단위 주거단지로 변모(부산 2. 6)
* 부산시 중소기업 지원 인색, 영남권 시·도 중 육성자금 가장 적다(부산 2. 6)
* "부산항을 시영체제로", 민자 유치 적극 개발해야 한다(부산 2. 6)
* 황령산 약수 등 5곳 음료수 부적격(부산 2. 6)
* 대학에 좀도둑 설치 "골머리", 방범 소홀 틈타 컴퓨터까지 도난(부산 2. 6)
*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차수벽공사 늦어져 부실시공 및 환경오염 우려(부산 2. 6)
* 노후 상수도관 전면 교체, 올 2백억 투입 6백78km 우선 실시(부산 2. 6)
* 전세버스 요금 인상, 관광호텔요금·대형 폐기물 처리비 인상안은 유보(부산 2. 6)
* 해운대 달맞이축제(부산시정 2. 6)

2. 8
* 상의, 상품선물거래소 추진(국제 2. 8)
* 동사무소 사회 복지업무 차질, 전문요원 경직으로 일손 부족(국제 2. 8)
* 부산지역 29개사 주총 2월 하순부터, 12월 결산 법인 배당률 저조(부산 2. 8)
* 녹산 신발단지 확정, 10만평 확보 계획 올 매듭(부산 2. 8)
* 부산시, 보건부 인사(부산 2. 8)
* 부산 미술계 중견 작가군,「겨울잠」깨고 잇단 개인전(부산 2. 8)

2. 9
* 집 지을 땅이 없다, 95년께부터 사업 막막, 도시개발공사 택지개발·주택건설 치중이 원인(국제 2. 9)
* 심야영업 극성, 정권 교체기 틈타 불법 자행, 경찰, 일선구청에서는 단속 외면(국제 2. 9)
* 부산 제조업체 타도 이전 가속, 작년 백6개사 최대 규모(부산 2. 9)
* 부산체육 현안점검, 대폭 물갈이 체질 개선(부산 2. 9)
* 부산 공립국교 여교사가 73%, 93년 임용합격자 중 남자 고작 7%, 학생 여성화 등 부작용(부산 2. 9)
* 1종 전염병 환자 급증, 작년 부산지역 콜레라 등 91년 대비 배 발생(부산 2. 9)
* 지방공사·공단경영 개선 회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취지 "흔들"(부산 2. 9)
* 신발 노동자 불안하다, 국제상사·화승 등 대형사 감원 적극 유도(부산 2. 9)
*「부산 3장」유치반대, 강서주민 대책위 결성 저지결의(부산 2. 9)
* 부산 강서구 녹산동 29개 통장들 매립장 저지 결의(부산 2. 10)
*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개소(부산시정 2. 9)

2. 10
* 주택은행에서 부산경남 동향 발표, 집값 91년 6월 이후부터 20개월째 내림세(국제 2. 10)
* 10년 전 쓰레기로 김해공항 확장차질, 활주로 공사장 50만톤 매립(국제 2. 10)
* 중고차 가격 정찰제 3월 중 실시(국제 2. 10)
* 부산지역 대형서점 문화 공간 확보 바람(부산 2. 10)
* 부산항 동북아 중심항 육성, 주요항만 2001년까지 10조 투입(부산 2. 10)
* 외국은행 중소기업지원 인색, 부산지역 대출규모 해마다 감소(부산 2. 10)
* 부산국세청 개편, 재산세국 신설…관할 변경도(부산 2. 10)
* 영도 동삼동 공유 수면매립 구청·어촌계 마찰, 사업주체 싸고 대립 팽팽(부산 2. 10)
* 국교 코앞에 주유소 허가, "통학길 위험" 학부모·주민 크게 반발(부산 2. 10)
* 부산역·구 조방 예식장 지역 주차시설 면내 확충(부산 2. 10)
* 구청행정 주민편의 위주 개선, 불합리·부적절 요소 과감히 척결(부산 2. 10)
* 산업체 특별 학급 지망생 크게 줄어, 부산 작년 비 학생 수 27% 감소(부산 2. 10)
* 부산직할시 승격 30주 기념,「새 시대·새 부산」위한 문화행사 등 다채(부산 2. 10)
* 지하철·전화료 등 오늘 인상 "서비스 크게 개선 되야", 시민 물가 불안 우려(부산 2. 10)
* 버스 증차 업자특혜 인상, 92년 2백대 중 75%「좌석」배정(부산 2. 10)

2. 11
* 자동차세 상습체납 명단 공개 형사고발, 공고 대상 5백65명, 부산시 근절책 마련, 전국 첫 시행(국제 2. 11)
* 모범택시 희망업체 많다, 84개사 신청, 부산시는 희망업체 상대로 자본금 확보비율 등 조사해 선정 할 계획(국제 2. 11)

* 상수도 전문장비 연차도입, 국번별 0028 민원 전화 개설(국제 2. 11)
* 세무직 전문화 불투명, 세무직 기피 현상 등으로 신청저조(국제 2. 11)
* 부산을 특별시로<11> 갈수록 삭막…쉼터가 없다, 녹지 공간 확보(부산 2. 11)
* 엄궁 농산물 시장 개장 차질 우려, 입주 대상자 이해 상충(부산 2. 11)
* 유통업계 자체브랜드 8개 업체에서만 보유(부산 2. 11)
* 부산항 기능 재배치 본격화, 용역 결과 놓고 공청회(부산 2. 11)
* 강서서 개서 차질, 그린벨트 내 허가 신청 2회 반려, 연내 새 청사 건립 난망(부산 2. 11)
* 환경 부담금 15억원 첫 부과, 한일레포츠 3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아(부산 2. 11)
* 「바다치안」 강화책 수립, 해경 출입항 신고의무화 등 대책마련(부산 2. 11)

2. 12
* 부산 작년 실직자 3만4천명, 폐업업체 6백81개사, 3백인 이상 회사만 20개사(국제 2. 12)
* 부산 특소세 30% 이상 늘어나 휘발유 소비 급증, 주세는 감소(국제 2. 12)
* 토큰 판매는 턱없이 부족, 2천2백개 정류소 중 1천여 곳뿐, 할증료 받아 승객 골탕(국제 2. 12)
* 장림 종말 처리장 확장 난관(국제 2. 12)
* 해돋이 마을 복지회관 개관(국제 2. 11)
* 부산항 기능 재배치 계획 부두 특화작업과 병행, “3·4부두 등 피더선 전용으로 전환”(부산 2. 12)
* 병의원 진료기피, 일반 의보보다 수익 적고 진료비 환급 기간도 길어(부산 2. 12)
* 부산시사편찬위 올 사업 확정(부산 2. 12)
* 일방통행 북구 학장 사거리, 단속소홀·체증 가중(부산 2. 12)
* 서 낙동강권 개발 본격 추진, 토지보상·환경영향평가 조기매듭(부산 2. 12)
* 주정차 과태료 상습체납 부동산 압류 등 강경조치(부산 2. 12)
* 제조업 잇단 폐업 대량 실직 사태, 부산 작년 6배 81개사 도산, 기업 「감량경영」 바람(부산 2. 12)
* 퇴폐업소 처분내역 출입문에 부착, 「사후관리」 철저키로(부산 2. 12)
* 동삼동 어민 50여명 구청 매립 반대 농성(부산 2. 13)

2. 13
* 영도구 동삼동 하리 공유 수면 매립 사업, 동삼어촌계와 영도구청 마찰(국제 2. 13)
* 토조세 부과대상 13만 필지, 부산경남지역 3년간 50% 상승 추정(국제 2. 13)
* 부산대·동아대 94년대 신입생 정원 동결(국제 2. 13)
* 부산시는 오는 20일까지 시 전역에 건축물 건축 가능지 현황 파악(국제 2. 13)
* 「부산항 살리기」 시민이 나섰다(부산 2. 13)
* 택지 초과부담금 지자체 귀속률 높여야, 지방 배당률 15% 불과(부산 2. 13)
* 타 시도주민 편의 대행 우편 민원제 동래구청 실시(부산 2. 13)
* 철새도래지 매립·분양 은밀 추진, 강서구 5만여평 농지로 공급 31억 수익계획(부산 2. 13)

2. 15
* 「부산의 문화 부산인의 문화」 축제, 4월 15일부터 30개 공연 및 전시행사(국제 2. 15)
* 부산시 시정보고 대회, 15일 오전 11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림(국제 2. 15)
* 주민 숙원사업 완공부진, 관급공사 청철 공급 2개월째 중단, 단가 인상 협상 장기화(국제 2. 15)
* 해운대, 송정, 광안리 해수욕장 올 탈의장 운영계획 확장, 공익봉사단체에서 전담(국제 2. 15)
* 중소기업 활성화 위해 환경 분야의 소방 등 간섭축소 규제완화 도모(국제 2. 15)
* 부산지방국세청과 관내세무서 운영 납세편의제도 호평, 이용건수 전년대비 14%증가 이용자 백35만(국제 2. 15)
* 부산-일 해안도시 행정교류, 유물전시-청소년-경제-환경 등 협조(국제 2. 15)
* 부산, 경남에 영구 임대 등 만여세대 공급, 부산에는 오백세대 공급(국제 2. 15)
* 부산을 특별시로<15> 「불모지」 30년 굴레 “이젠 그만”(부산 2. 15)
* 김해공항 교통지옥, 주차시설·노선버스 부족 불법 판쳐(부산 2. 15)
* 「버림받는 아동」 크게 줄어, 보육원 정원 63% 입양도 매년 25% 감소(부산 2. 15)
* 시영아파트 재건축 난항, 벽균열 등 붕괴위험(부산 2. 15)
* 시정보고대회(시민회관)(부산시정 2. 15)

2. 16
* 폐토·폐건축자재로 성토작업, 을숙도 매립장 오염조장(국제 2. 16)
* 보험관련 손배소 봇물, 함량미달 약관… 턱없이 낮은 보상금(국제 2. 16)
* 마을버스료 ‘들먹’, 동래구 3개 업체 요금 변경서 제출, 경영적자 못 견뎌…파급전망(국제 2. 16)

* 위험시설물 자체 점검, 부산시 교육청은 15일부터 19일까지 각급학교대상으로 자체점검 실시(국제 2. 16)
* 야영도서관 설치, 황령산 야영장…수련원도 함께(국제 2. 16)
* 부산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16일 오전 10시 시청회의실, 박부찬 시장 주재로 93년 노정업무 증진 및 노사간 이해 증진 위해 개최(국제 2. 16)
* 터널로 교통난 푼다, 부산 2011년까지 11개 건설…용역 착수(부산 2. 16)
* 부산연극제 새로운 시도, "기존 작품으로 관객 찾기"(부산 2. 16)
* 「부산 빙상」 육성책 급하다, 올 동계체전 스케이팅 종목 출전조차 못해(부산 2. 16)
* 부산체육 현안점검<2> 공비조달 등 난제 산적, 부지만 마련 연내 착공여부 불투명(부산 2. 16)
*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건설 오염물질로 기반조성(부산 2. 16)
* 노점상 무분별 단속, 상인들 "작년엔 허용" 항의(부산 2. 16)
* 청사 좁아 민원인 불편, 부산노동청 낡아 비 새고 주차장도 좁아(부산 2. 16)
* 김해공항 새 활주로 공사 "늑장", 국교 이전 등 관련기관 손발 안 맞아(부산 2. 17)

2. 17
* 영세민에 의료혜택, 재송동 보건간이진료소 인기, 개소 후 하루 10명 이상 이용, 예방접종·유아관리·각종 검사 중개(국제 2. 17)
* 대순진리회 건축공사 재시도, 장전1동민 집단행정 불사 강력반발(국제 2. 17)
* 예총부산지회 문화구심체로 거듭나야, "감투싸움 이제 그만" 내부개혁절실(국제 2. 17)
* 서활주로 공사강행 "무리수", 김해공항 예산, 공기에만 급급, 침하 가능성 외면(국제 2. 17)
* 비법정 생활보호자 일제조사(국제 2. 17)
* 「부산기관장회의」 추궁, 법사위 민주 「양보」로 국회 상임위 정상화(국제 2. 17)
* 부산기업체 연구개발 관심소홀, 부산연구소 36개, 전국 2.5%불과(국제 2. 17)
* 용두산 미술전시관 시설 확충을, 전시실·수장고 협소 대형전 개최 한계(부산 2. 17)
* 해운항만청 주도 부산항 선적배정 선사 자율에 맡기기로(부산 2. 18)
* 편의치적선에 대한 92노1171 판결(법원사 2. 17)

2. 18
* 부산쓰레기처리 마비 위기, 석대 2월말이면 매립완료, 을숙도 매립장 고정 40%뿐, 차수벽·기반 조성작업 허술(국제 2. 18)
* 부산실업률 3.4% 전국최고, 전국 2.3% 증가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 천9백만, 고학력자 실업 높은 추세 지속(국제 2. 18)
* 범어사 일대 불법영업 온상(국제 2. 18)
* 영세업소 "폐업위기", 세탁편의점 「체인화」 시도, 3천여 업주 "생존권보장" 집단 반발(국제 2. 18)
* 대학가 본격 등록금 투쟁, 인상반발 총학끼리 연대 납부연기 운동(국제 2. 18)
* 부산시, 인사(국제 2. 18)
* 해양병원 폐업위기, 작년 8천9백만원 적자, 시설미비 선원 기피(부산 2. 18)
* 동서고가로 벌써 "허점", 도로 옆 배수로 구실 못해 52mm 비에 잇단 침수사고(부산 2. 18)
* 신시가지 난방 마찰, 도시가스 공급방식 이견(부산 2. 18)
* 부산시, 인사 보건6급(부산 2. 18)
* 차량 10% 매연기준치 초과, 단속실효…시 차원 전담반 운영 시급(부산 2. 18)

2. 19
* 부산시현안사업, 시보고회, 경찰청사 건립비 500억원 부족, 백양산 터널 보상비 전무, 해양·시립 미술관도 말로만 추진(국제 2. 19)
* 부산문단에 문인 우후죽순, 신생 문예지 추천 받아 너무 쉽게 등단, 한해에 30명씩 양산(국제 2. 19)
* 헌혈기피, 부산 필요량의 55.6%만 자급, 대책시급, 병원 관리소홀로 반품 많아 부족 부채질(국제 2. 19)
* 문현여상 관선이사 파견, 부산시교육청 최종 결정(국제 2. 19)
* 동구·동사무소 회의실 강당 개방, 11곳 무료 예식장 활용(국제 2. 19)
* 부산대 등 산학 협력 강화, 「공동센터」 설립, 기술개발 관리맹점해결(국제 2. 19)
* 3월부터 방역활동 강화(국제 2. 19)
* 상수도료 집단 거부, 고장계량기 방치, 사용료 과다 산정(국제 2. 19)
* 부산시 7개 업종 31개 품목 지침 마련, 미용실료, 숙박료 등 7개 업종, 6% 이내로 동결(국제 2. 19)

2. 20
* 부산실내악단 프로전향 서둘 때, 팀 와해되고 침체, 최근 연주활동 주춤, 잠재력은 무한(국제 2. 20)
* 노후 아파트 재건축 난항, 이주비등 마련 걸림돌, 철거 후 기초공사도 못해 셋방신세(국제 2. 20)
* 인문계고 전입학 원칙확정, 3월 25일에 올 척 추첨배정(국제 2. 20)
* 부산시, 금정구, 인사(국제 2. 20)

* 4월 전관개관 부산문화회관 체계적 공간 활용을, 대・중・소극장간 관객이용 불균형 우려(부산 2. 20)
* 시민단체 공직자 비리 감시 나섰다, 부산경실련 등 고발창구・공청회・캠페인 등 추진(부산 2. 20)
* 시내 승차거부・장거리 과속 횡포, 특공택시 잇단 철퇴(부산 2. 20)
* 버스노선 신설・증편, 금사동 주민 “구서・남산동 방면 없어 불편”(부산 2. 20)
* 「부산직할시립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2998호)(부산교육 2. 20)

2. 22
* 공공게시판 대부분 파손되어 흉물로 전락, 설치 2천5백여 곳, 95% 불법부착(국제 2. 22)
* 새마을 이동도서관 시민들 이용률 높다, 지난달 4만9천여권 대출(국제 2. 22)
* 부산시교육청, 인사(국제 2. 22)
* 고속도로 체증피해 운회, 「컨」 세 면제 등 혜택, 4년간 5.4배 증가(국제 2. 22)
* 초등교원 교육청간 대폭이동, 근무지 불만 크게 해소, 부산시교육청 인사원칙 개선(국제 2. 22)
*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수용한계”, 낡고 비좁아 늘 북새통, 출입국 심사대 부족・편의시설 엉망(부산 2. 22)
* 저소득층 주민 8천세대 보험료 20~50% 경감(부산 2. 22)
* 북구에 파출소 증설을, 인구 6만 모라엔 2곳…치안 사각화(부산 2. 22)
* 해운대 복합 상가아파트 66%가 가스시설 부적합(부산 2. 23)
* 부산진 구청 사전철거 횡포(부산 2. 24)

2. 23
* 춘천천 재복개 늑장공사,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 차질 우려, 해운대구청 대책마련 고심(국제 2. 23)
* 부산시, 올해 처음 실시한 영세 치매노인 보호시설 지원제가 지원대상이 극히 소수로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 의문(국제 2. 23)
* 부산시, 신발 활성회 간담회, 부산시 23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간담회 개최(국제 2. 23)
* 부산시, 18개 환경개선 부담금 대상 업종 중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 방안 은밀히 추진해 물의(국제 2. 23)
* 부산을 특별시로<13> 기업 정보망 구축이 급선무, 수출입서류 전산화 조속도입 절실(부산 2. 23)
* 「예술의 전당 개관」 초청공연, 부산시향 “가능성은 보였다”(부산 2. 23)
* 부산체육 현안점검<3> 수익사업 적극 추진을, 시민 체위향상・지도자 육성도 시급(부산 2. 23)
* 「환각제」 사범 부산이 으뜸, 지난해 입건 전국 31%(부산 2. 23)
* 부산 「컨」 배후 고가로 조정건의, “현행설계 부작용 우려 변경요구(부산 2. 24)
* 광안리해변 해조류 수거 골치, 양식장 미역 폭풍에 밀려 하루 8t 트럭 1대분 이상(부산 3. 1)

2. 24
* 대통령 취임 경축 분위기 고조, 가로기 게양, 불꽃놀이모화행사 등 준비(국제 2. 24)
* 신용대출확대, 상환연장, 중소법위 조정 등 부산시, 상의 각계 건의(국제 2. 24)
*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 철거민과 부산시 철거 민원의회 회원 등 생계대책마련 요구 농성(국제 2. 24)
* 공유수면 불법매립 묵인, 3천여평 야적장사용 단속 외면(국제 2. 24)
* 시-군-항만청 의견대립, 감만동 고가도로 건설 계획 변경 놓고 의견 대립하여 사업차질 우려(국제 2. 24)
* 폐건축자재 섞인 흙 수만t 사용 낙동강하구 불법매립, 사하구청・해항청 책임만 전가(부산 2. 24)
* 금정산 보존회 확장공사 중지촉구, 금정동사무소~교육원 계획도로(부산 2. 24)
* 회동 수원지일대 땅값 폭등, 상수원구역 30평 이하 주택 등 허용(부산 2. 24)
* 물가인상 시민단체가 제재, 소비자보호 연합 공동대처(부산 2. 24)
* 부산서도 경축행사, 내일 대통령 취임식 맞아 사직・요트경기장서 불꽃놀이(부산 2. 24)
* 교육청 직제개편(대통령령 제13831호 : 학교보건과신설, 3국 3담당관 11과 41계)(부산교육 2. 24)
* 고교평준화(부산교육 2. 24)
* 경성대, 5대 김대성 총장 취임(부산교육 2. 24)
* 아성유치원 개원(부산교육 2. 24)

2. 25
* 가덕도 신공항 항만 백지화, 부산도시기본계획 을숙도 유원지・북항 매립 등도 제외(국제 2. 25)
* 부산지방국세청 투기우려지역을 6개 신규지정, 14개 지역 투기우려지역 해제(국제 2. 25)
* 건축 허가 업무가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관, 전문직 없어 업무 마비(국제 2. 25)
* 산성마을-일본 백수촌(白水村) 결연, 금성주민 선물전달 후 방문 요청, 우호・교류사업 등 적극추진 다짐(국제 2. 25)
* 항공기소음 중앙국교 이전 지연, 해상교통안적책수립-한일 여행선 휴대폰 검사 대폭강화(국제 2. 25)
* 부산체육 현안점검<4> 획기적 시설 개선 기대, 시장의 적극적 유치 의지가 관건(부산 2. 25)
* 일선구청 행정제도 합리화, “전시행정 지양” 결의(부산 2. 25)
* 출생증명 수수료 없애야, 최고 5천원 분만 의료비 지불 2중 부담(부산 2. 25)

* 어업면허 5년째 제한, 개발 때 손해배상 포기각서 강요(부산 2. 25)
* 내달 일부 열차 정차역 변경(부산 2. 25)
* “아파트 옹벽 붕괴위험”, 장전동 만세금강타워 공사장 인근 주민(부산 2. 25)
* 부산 장기기본계획 확정, 가덕도 신공항 등 삭제 상당부분 차질(부산 2. 25)
* 대우마리나 3차아파트 불법투기 극성(부산 2. 25)

2. 26
* 부산업체 해외투자 동남아 66% 편중, 해외투자지역의 다변화 시급(국제 2. 26)
* 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여파로 중등교원 수급에 차질, 예비교사 반발 클 듯(국제 2. 26)
* 낙동강보존협회·부산공추협 YMC 등 부산지역 환경 단체들 위천공단 반대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전개(국제 2. 26)
* 주공 6천1백여세대 분양(부산 2. 26)
* 부산 기업 해외투자 중국 진출 가장 활발(부산 2. 26)
* 개금·가야동 일대 상인·주민 “지하상가 건설을”, 지하철 통과 480m 구간 요구(부산 2. 26)
*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개관(부산 2. 26)
* 인사…영도구(부산 2. 26)
* 부산시 교통지도 발간(부산 2. 26)
* 선망업계-중매인 상자분쟁 끝내, 1호~7호 병행 사용키로(부산 2. 27)
* “문민시대” 선석 배정도 민간인이, 국내 29항만 중 처음 대리점·선주 관계자 회의서 결정(부산 2. 27)
* 지하철·고속버스 업계 승차장 건설 방침(부산 3. 1)

2. 27
* 동래구청, 복개천에 공영주차빌딩 조성 등 경영수익사업 예정, 예정금액 70억원(국제 2. 27)
* 부산경찰청「문인시대」맞춰 대민업무 강화, 파출소 보호망 일제 철거(국제 2. 27)
* 해운대구청, 주민들의 반발 사고 있는 성주오피스텔 신축공사 규모 낮춰줄 것 등을 부산시에 건의(국제 2. 27)
* 부산중소기업 협동화사업 난항, 용지 확보난, 기계 등 38개 조합 추진 차질(부산 2. 27)
* 아파트 전세값 오름세, 부산지역 봄 이사철 앞두고 수요 크게 늘어(부산 2. 27)
* 고유청주 옛맛 찾았다, 부산 탁약주 협회 40여년만에 재현 성공(부산 2. 27)
* 부산 구의회, 차기의장 선출 “물밑경쟁”, 출마자 득표전 가열(부산 2. 27)
* 부산체육 현안점검<5> 장기적 안목 투자 절실(부산 2. 27)
* 부산시, 업무 잘못 백7건 적발, 시의회감사 부당사유재산 규제 전면해제 등 요구(부산 2. 27)
*「만남의 광장」3천여평 조성, 시 양묘장부지에 주차장 등 설치, 금정·동래 구민 문화회관도 건립(부산 2. 27)
* 휴폐업·명의변경 두 달 사이 백여 곳, 행정처분업소 92%가 대중음식점(부산 2. 27)
* 부산시, 정보센터 통해 취업, 올 들어 2백86개 업체 1천81명(부산 2. 27)
* 시내버스 파업 위기, 부산 4차 협상결렬 3일 전국 동시 결행(부산 3. 1)
* 부산맹인복지회관 개관

2. 28
* 부산시민「위천공단」조성 적극 반대, 낙동강 수계오염방지 감독강화 요구(부산 3. 1)

3. 1
* 부산지검, 부정부패척결위해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내서 단행, 세무·인허가 관련자 대상(국제 3. 1)
* 부산소비자연맹조사, 시민 54% 수도물 불신, 공장 폐수도 오염지적 식수 사용 꺼려 불신풍조 한층심화(국제 3. 1)
* 시비보전중소자금 신청액 백95억, 중소기업지금 전액지원방안 모색, 지난해 지원액보다 3배 늘어남(국제 3. 1)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 과세정보 분석 강화(국제 3. 1)
* 교육용 소프트웨어 전시회 큰 인기, 부산 과학 교육원 25~27일 개최(국제 3. 1)
* 부산을 특별시로<14> 실물경제 뒷받침 우선과제(부산 3. 1)
* 부산-광양항 연계개발 민자 유치 무산, 해운사 등 참여 외면(부산 3. 1)
* 버스자동안내기 고장·훼손 제구실 못해, 53대 중 20대 방치(부산 3. 1)
* 무허가 고철 수집소 난립, 공항 인근 30여 곳 농지 빌려 영업 환경오염(부산 3. 1)
* 신설학교 개교, 국(3) : 덕상, 하남, 서명, 중(5) : 다대여중, 화신, 양덕여중, 하남, 반여, 고(1) : 예문여고, 각종학교를 정규 고교로 승격, 금정전자공업학교→금정전자공고, 상록공업기술학교→대광공업고등학교, 문현여자상업학교→문현여자상업고등학교, 동아대 8대 이상윤 총장 취임(부산교육 3. 1)

3. 2
* 부산 시내버스 파업위기, 시내버스 노조 막판 협상 결렬(국제 3. 2)
* 부산시, 쓰레기 분리수거 5개월 만에 감독 소홀, 업무태만(국제 3. 2)
* 구덕터널입구~세원R 교통사고 다발, 과속방지턱, 안내판조차 없어 안전시설설치시급(국제 3. 2)
* 시, 국제회의 개최 시 행사안내 및 영접요원 75명 선발, 어학특기자 집중교육(국제 3. 2)

* 동래소방서 설문조사, 고층아파트 시민 70% 소화기 사용법 몰라 화재무방비(국제 3. 2)
* 「카풀」 중개업도 성업 부산시 등록참가자 1만2천명이나 주차비, 통행요금 등 할인혜택 바람직(국제 3. 2)
* 금정구청, 하차용 정류소 건의, 부경고속승객 불편해소 일환(국제 3. 2)
* 유실물 절반이 "낮잠", 물품 경시·고가화 현상(부산 3. 2)
*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서비스 여전히 불량, 요금인상 후 의자파손 등 37건 시정지시(부산 3. 2)
* "준공검사 안 해줘 피해", 구서 우성아파트 유자격 조합원 호소(부산 3. 2)
* 무인민원실 2곳 가동, 연산 지하철역·연산 주공아파트 내 설치(부산 3. 2)
* 상습침수 남구 망미2동 암거확장 예산부족 공사 난항(부산 3. 2)
* 지하철 1호선 연장 터널굴착 완료(부산 3. 2)
* 낙하산 동장 임용 부작용 많다, 부산 33%가 행정무경험 정당인 인사 적체·사기저하(부산 3. 2)
* 부산권 전철 130km 건설, 2001년까지 전국 558km, 수송 부담률 40%로(부산 3. 2)
* 시내버스 내일 파업, 부산 오늘 노사간 최종협상 주목(부산 3. 2)
* 예식장횡포 제재 강화, 드레스 강요·무허가 호텔 예식금지, 시·업주 결의(부산 3. 3)
* "서 낙동강을 되살리자", 강서주민 환경정화 앞장, 침전조 설치·오염감시(부산 3. 3)
* 서구청 자율방범대 발대(부산 3. 3)
* 고신대학, 고신대학교로 교명 변경(이근삼 초대 총장 취임)(부산교육 3. 2)

3. 3
* 부산지역 18개 업종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대상자들의 반발에 의해 시행 주춤(국제 3. 3)
* 부산지역 수출 실적이 91년에 비해 9.2% 감소, 올해 1월 수출 실적 작년비 9.4% 감소(국제 3. 3)
* 부산시, 오는 5월 수영구 하수처리장에 2단계 건설공사 착공, 1996년말 완공 예정(국제 3. 3)
* 부산시내 및 양산 용단방면 생활권을 두고 있는 부산 일부 시민 교통편이 없어 큰 불편(국제 3. 3)
* 부산지방국세청은 3일 오전 부산지방국세청 강당에서 기념식(국제 3. 3)
* 오는 96년까지 부산시내 전 국민학교에 학교급식 확대 실시, 12개교 추가 지정, 보건과 신설(국제 3. 3)
* 부산시 교육청, 초등교육국 학교보건과장 심상주의(국제 3. 3)
* 노조, 정리해고 무방비, 부산 절반이 단협 규정 없어 악용 우려(국제 3. 3)
* 부산 강서구 7개 동 주민대표는 2일 강서구청회의실에서 「서낙동강 강물 살리기 모임」 발족식 가짐(국제 3. 3)
* 부산시 인공어초시설사업 확충, 1백50ha에 9백개 투하 어자원 조성(부산 3. 3)
* 부산지역 잇단 발레단 창단, 한국무용 등 비해 침체…새바람 기대(부산 3. 3)
* 고층건물 굴착공사 인근 80세대 벽 금가, 개금 뉴부산프라자 지하 파일박아(부산 3. 3)
* "해강 종점 사옥 건립 일조권 침해", 구서 2동 주민 공사 중지요구 농성(부산 3. 4)
* 구청즉결민원 발급 저조, 홍보미흡·인원 장비부족, 12% 그쳐(부산 3. 4)
* 장림동 판자촌 공장부지 조성 무리한 발파작업 강행, 주민안전 위협 반발(부산 3. 4)
* 「포푸라마치」 정화되려나, 20여년 불법·퇴폐…업주 자정결의(부산 3. 4)
* 약사법 개정안 천회요구 한의사 철야농성(부산 3. 4)
* 동서공과대학, 동서공과대학교로 교명 변경(정종섭 초대 총장 취임)(부산교육 3. 3)

3. 4
* 남구청, 관내 자연환경 및 문화재를 주제로 풍물화전 개최, 문화상품 제작(국제 3. 4)
* 부산시 교육청, 93년도 초중고교 육성회비 징수 한도액을 24.8% 인상토록 확정(국제 3. 4)
* 부산시, 친절봉사 행정 일환으로 12개 구청과 2백31개 동별로 「한 가지 자랑사업」 추진(국제 3. 4)
* 부산대 도시문제연구소, 「북구 발전계획」 밝혀, 부산 서북권 중심지 개발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에 주목(국제 3. 4)
* 부산 지역 금역 해제 요구 봇물, 각종 규제 해제에 주민들 한 목소리(국제 3. 4)
* 시도지사도 인사, 부산시장 정문화, 경남지사 윤한도씨(부산 3. 4)
* 정문화 부산시장 「제2도시」 건설에 신명 바칠 터, 업무 추진력 있는 총무처 살림꾼(부산 3. 4)
* 부산을 특별시로<15> 정부지원 말뿐…여건 갈수록 열악, 수도권지여 대학 각종 혜택 "독식" 심각(부산 3. 4)
* 부산경제 명암 엇갈려, 제조업계 인력난 완화 조짐, 생산·가동률 부진 어음부도 감소(부산 3. 4)
* 김해~구포 국도확장 찔끔공사로 체증심화, 부마고속도 막혀 하루 통행 6만대(부산 3. 4)
* 대학가 하숙비 "껑충", 신학기 맞아 독방 35~40만원 자취방 월세 20% 증가(부산 3. 4)
* 부산시 교육청 징수 항목 엄격구분 명문화 잡부금 잡음 줄인다(부산 3. 4)

3. 5
* 부산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 예고 지표 제도 활용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 시행(국제 3. 5)
* 부산지검, 밀수 갈수록 대형화, 92년 적발 5백55건, 5백14억 규모(국제 3. 5)

* 그린벨트 훼손 단속 흉내만, 강서구는 인력과 장비가 모자라 한계(국제 3. 5)
* 부산시 부도율 증가, 전국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0.04% 증가(국제 3. 5)
* 부산 도시가스 11년만에 첫 흑자, 이익 잉여금 27억, 배당률 9% 승인(국제 3. 5)
* 이탈리아 수입업체 신발 대금 지연 및 하자 이유로 감액 횡포(국제 3. 5)
* 화명정수장 오존처리 시설, 오조투입량과 용해정도 측정 불가(국제 3. 5)
* 부산 지역 발생 강력범죄의 대부분이 전과자들에 의한 범행으로 밝혀져 형사누범에 대한 관리 지적이 많아졌다, 형사 누범 재범률 90%(국제 3. 5)
* 부산시내 의료보호진료기관, 의료보호환자 천대, 진료 거부, 기피 사례 잦아(국제 3. 5)
* 신임 부산 시장과 경남지사 인터뷰, 교통 및 주택 문제 최우선 해결(시장), 지방 자치 기반 확충에 매진(도지사)(국제 3. 5)
* 정문화 제28대 부산시장 취임,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취임식(부산 3. 6)
* 鄭文和시장 취임(부산시정 3. 5)
* 수영하수처리장(2단계) 착공(부산시정 3. 5)

3. 6
* 부산 기업체 사업 다각화 활발, 정기주총을 맞아 정관 변경, 경영난 타개(국제 3. 5)
* 주택사업신청 격감, 부산 1천9백세대, 작년비 6백세대 감소(국제 3. 6)
* 미포 앞바다 매립 추진, 주식회사 해광, 부산 해운청에 허가신청(국제 3. 6)
* 「머니게임」 재현, 실세금리 하락…투신사로 돈 몰려, 부산4사 1주일새 천억 유입(부산 3. 6)
* 노후아파트 재건축 활기, 정부 법규개정 「기준」 완화, 25개 단지 추진 전망(부산 3. 6)
* 일선 구청에 주택계 신설, 관련 인·허가 민원업무 전담(부산 3. 6)
* 부산대 기계기술 연구소 산학 협력센터 추진, 부산·경남 중소기업에 활력 기대(부산 3. 6)
* 역사의 현장 표석에 되새긴다, 동래구청 「일성관 터」 등 소멸·훼손유적 11곳 설치추진(부산 3. 6)
* 「10대 혼숙」 단속 편파적, 여관업주 무더기 구속…호텔은 봐줘(부산 3. 6)
* 교통공단 공유지 사설주차장 임대, 상조회 간부 친척에 특혜(부산 3. 6)
* 해운대 미포 앞바다 매립 재추진, 천혜의 경관 파괴 수질 오염 우려(부산 3. 6)

3. 8
* 제2금융권의 자구노력 확발, 대출 한도 증액, 절차 간소화 등(국제 3. 8)
* 사하구, 부산지역 12개 구 중 서비스 요금 가장 많이 인상(국제 3. 8)

3월 중 구별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92년 12월 대비)

지역	인상률(%)	인상품목 수
중 구	1.5	7
서 구	0	0
동 구	1.5	11
영 도 구	2.4	7
부산진구	0	0
동 래 구	0.7	7
남 구	0.1	1
북 구	1.0	9
해운대구	0	0
사 하 구	3.9	9
금 정 구	3.8	11
강 서 구	0	0

* 동남개발연구원 보고서, 부산시 군사시설 및 공장 시설 이전지 공공개발 시급, 이용가능 땅 5백만평(국제 3. 8)
* 태종대 자갈마당 설치물 철거, 해녀 및 어민 생활터전 요구 반발(국제 3. 8)
* 시 교육청, 93학년도 연구시범학교 18개교와 시교육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지정, 통보(국제 3. 8)
* 부산시, 질소, 인 규제치 정조 발생한계 6백배 초과, 신설 방류 수질 기준 역효과, 고도 처리시설계획 포기(국제 3. 8)
* 부산을 특별시로<16> 「현장 따로 행정 따로」 탈피를, 정책결정권 중앙 집중화 극복 절실(부산 3. 8)
* 남편폭행 "참는 게 해결책은 아니다" 여성정책연 「가정폭력…」 세미나(부산 3. 8)
* 산복로 시공 잘못 노면이 1m 높아, 전포3동~남구 경계 상습 침수 우려(부산 3. 8)
* 취업사기 극성, 일확천금 유혹 물품 선 입금 떼먹어 대학가 등 피해 속출(부산 3. 8)
* 철도 건널목 사고 시 구상금청구 소(부산 3. 8)

* 중앙로 등 36곳 가로수 교체, 올해 10억 들여 12개 녹화사업(부산 3. 8)
* 황령산 터널 굴착 무리한 발파, 인근 집 균열…붕괴 위험(부산 3. 9)
* 수영 고적민속관 전통 혼례장으로 개방, 이달부터 혼례 10일전까지 신청(부산 3. 9)

3. 9
* 부산시, 동구 범일동 시민회관대강당에서 93 부산여성대회를 가짐(국제 3. 9)
* 부산시 유통업 판매부진 심화, 슈퍼 마이너스 성장, 백화점도 고전(국제 3. 9)
* 사하구 매립지 용도 변경 말썽, 조선소 부지가 원목야적장 둔갑, 주민, 해충 및 전염병 우려 반발(국제 3. 9)
* 부산상공회의소 중지대상 설문조사, 금융기관, 불건전 관행 여전, 금리인하 전과 같다(국제 3. 9)
* 부산남구 남천동 부산시장공사 개방추진, 장차관 급, 타지 공무원 숙소 밀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국제 3. 9)
* 부산시의회 문교사위원회, 시립묘지 내 건립 결의, 화장장 올 상반기 착공(국제 3. 10)
* 부산상의 지역 업체 대상 조사, 금융기관「꺾기」관행 여전, 대출사례비 요구도(부산 3. 9)
* 항만 개발 투자 인색, 경쟁국 일본의 30분의 1 수준 불과(부산 3. 9)
* 부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전년말 대비 1.5% 상승(부산 3. 9)
* 부산경찰청 형사민원 개선안 호응, 지난달 접수 즉시 조사 착수 1천1백건(부산 3. 9)
* 강서구 토석 채취 무더기 허가, 분진・소음・교통사고 다발(부산 3. 9)
* 부산경찰청「새 시대 새 경찰」친절봉사 지침서 발간(부산 3. 9)
* 북구청 컴퓨터 민원접수 통신원제도 운영(부산 3. 9)
* 동래구의원 외유 추진, 일 자치단체 오염방지시설 시찰명목, "예산낭비다" 시민반발(부산 3. 9)
*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민・관 2원화, 4백억 들여 다발지 77곳 개선사업(부산 3. 9)
* 화장장 시립묘지에 건립, 금정구 두구동 납골당 뒤 7천6백평 조성(부산 3. 9)
* 사하구청 외식안하기 등 결의(부산 3. 10)
* "예산낭비다" 주민 거센 비난 불구 동래구의원 외유결정(부산 3. 10)
* 93 부산여성대회(부산시정 3. 9)

3. 10
* 부산지방국세청과 관내 21개 세무서에서 투명세정실천 결의대회를 개최(국제 3. 10)
* 남구 감만동 모래구찌 주민 500여명, 30년간 재산권행사 제한, 주거지역 임학지 지정 해제 요구(국제 3. 10)
* 문현로타리~수영로타리 안전지대 인도 축소, 소통위해 절반 차도로 활용예정(국제 3. 10)
* 해운대구, 달맞이 고개 일대, 미관 유지와 조망권 확보를 위해 이 일대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요청, 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보류 중(국제 3. 10)
* 한국은행부산지점 보고, 수산업 여건 갈수록 악화, 조업규제 경쟁도 치열, 어업인구 6년간 21% 감소(국제 3. 10)
* 부산시의회의 화장장건립 촉구 결의에 시 동의, 후보지로 시립공원묘지 최적지 판정, 진입로, 하수관로 설치 등 난제도 산적(국제 3. 10)
* 부산항에 피더선 전용봉투 건설, 정부 5백26억 투입 항만시설 확충(부산 3. 10)
* 총학생회・학교당국・금정구청 부산대주변 발전협 구성, 청소년 탈선 퇴폐업소 단속(부산 3. 10)
* 시 소유 공공건물 관리허술, 46곳 부실지적…시 재정 손실초래(부산 3. 10)
* 일선구청 민원 등 업무량 폭주 사무기기 고장 잦아 불편초래(부산 3. 10)
* 부산 본부세관 4억 상당 금괴 밀수 갑판장 등 2명 검거(부산 3. 10)
*「도심오지」석대・반여동 "20년 개발제한 해제를"(부산 3. 11)

3. 11
* 부산 업체 베트남 진출 구체화, 경제시찰 18개사 주축, 원목 수입, 인도네시아 등 현지공장 이전 계획(국제 3. 11)
* 북구의회, 규제 완화 조례안 의결, 음악당 등 건축 허용(국제 3. 11)
* 서울지방항공청, 강서구 마을 진입로 폐쇄 일방적으로 결정, 공항공사용 도로 사업 끝나자마자 막아 3천세대 주민 큰 불편, 주민반발을 야기(국제 3. 11)
* 화장장 건립 집단반발, 시립묘지 주변 주민들 진정서 제출(국제 3. 12)
* 시립화장장부지 공식 발표, 7월 착공, 내년말 완공 예정, 금정구 주민 대책위구성 후 반대운동(국제 3. 12)
* 부산시, 공공요금 인상 보안 급급, 증권사 고객 객장점거 사태에 "초긴장"(부산 3. 11)
* 올 실업고 취업률 94.7%, 상업계는 92.6% 그쳐(부산 3. 11)
* 영도대교 붕괴위험, 철부 일부 으스러져 부식 빠르게 진행…날개벽도 변형(부산 3. 11)

* “대형 쇼핑센터 영세상 생계 위협” 문현·대연동 슈퍼마켓 업주 농성(부산 3. 12)
* 화장장 설치반대 주민 현수막 걸어(부산 3. 12)

3. 12
* 부산국세청 체납세액 은행납부 허용(부산 3. 12)
* 부산항 재래부두 노후화로 붕괴위험, 예산확보 안 돼 땜질식 보수(부산 3. 12)
* 장림둑 무단형질변경, 삼산종합건설 도로정지, 공사차량 통행시켜(부산 3. 12)
* 동백섬에 경정장 설치, 서쪽해안 만평에 관람장·부대시설 국방부와 부지 협상(부산 3. 12)
* 금정구 두구동 시립공원 묘지 화장장부지 최종확정, 7월 중순 착공 내년말 완공(부산 3. 12)
* 부산 택시행정 갈팡질팡, 교통부 지방 실정 무시 일방적 제도 지시(부산 3. 12)

3. 13
* 북구, 금정산 보존 시민의식 실종, ‘한봉지 하산운동’ 외면, 곳곳 쓰레기, 북문 공중전화도 파손(국제 3. 13)
* 동국제강, 연합철강 이전설에 부산시, 부산상의 비상, 용도 지역 제한, 항만개발로 성장 한계, 고용 등 경제 기여도 커 붙잡기 안간힘(국제 3. 13)
* 부산상의 75개사 대상 조사, 부산 업체 올 임금 인상 계획, 절반이 10% 이상 인상 할 예정(국제 3. 13)
* 시립화장장건립관련 제20회 임시회 개최, 금정 주민, 구의회 거센 반대(국제 3. 13)
* 해운대구 송정천 크게 오염, 업소 하루 1천톤 폐수 방출(국제 3. 13)
* 태종대 관광 날로 침체, 위락시설 등 태부족, 종합개발 절실(국제 3. 13)
* 시 체육회 새 집행부 출범, 사무처장 유임…경제인 중심 새 이사 13명 선임(부산 3. 13)
* 부전 복개도로 등 14곳에 공영주차장 2천평 연내 건설, 동·중구엔 주차 빌딩(부산 3. 13)
* 구청 취업알선 활발(부산 3. 13)
* 청룡·남산동 주민 화장장 백지화 촉구(부산 3. 13)

3. 15
* 부산시, 신발산업합리화자금 1차 융자 신청접수 부진에 따라 관계당국에 신발산업합리화자금을 시설자금 뿐 아니라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국제 3. 15)
* 부산지하철문호 단장, 역 28곳에 5천6백권 비치, 86년 개설 후 6년간 80여만권 분실, 향후 14개 시민단체서 운영키로(국제 3. 15)
* 부산시 93년도 사업 확정, 달동네 기반시설 확충키로(국제 3. 15)
* 부산을 특별시로<17>「고급두뇌」유치 선결과제, 연구소 태부족 전문 인력 유출 심각(부산 3. 15)
* 종합병원 전공의에 수술 맡겨 의료사고 잇따라(부산 3. 15)
*「20년 도시계획」그만 좀 풀어주오, 전포·범일·양정동 주민 재산권 규제 대책호소(부산 3. 15)
* 동서고가로 교통상황판 없어 사고 나면 “주차장”, 무작정 램프진입 체증 가중(부산 3. 15)
* 작년 11개 하천 수질조사 삼락천 등 오염악화, 91년 대비 BOD 최고 34배 초과(부산 3. 15)
* 낙동강 하류 수질 오염우려 위천공단 백지화 촉구, 부산시의회 경북도에 강력히 요구(부산 3. 16)
* 부산시 부사장 안명필·경남도 부지사 진만현 내무부 인사단행(부산 3. 16)

3. 16
* 유선방송사 우후죽순으로 생겨, 부산 60만가구 가입, 저질프로 멋대로 방영, 주민, 청소년 정서 큰 위협(국제 3. 16)
* 동래구청, 최근 동서무지개타운 주민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5억여원, 시민 반발, 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국제 3. 16)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개소식, 영도남부 본격가동(국제 3. 16)
* 한국고속철도관리공단, 양산에 철도 보수기지창 건설 예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타당성 조사 뒤 확정(국제 3. 17)
* 부산항 개발에도「님비」현상, 주민 “혐오시설” 반발(부산 3. 16)
* 유통업계「커트시스템」도입 활발, 판매량 등급 매겨 진열(부산 3. 16)
* 도시가구 60%「셋방살이」주공 6대 도시 조사, 61%가 18평 이하에 거주(부산 3. 16)
* 부산연극계 다양한 무대마련(부산 3. 16)
* 개발 부담금 안 걷힌다, 작년 징수율 37% 그쳐 경기불황·업체부도·납부기피 영향(부산 3. 16)
* 신평·장림 근로자 주택조합 부지 형질변경 요청(부산 3. 16)
* 국과수 부산 분소 16일 개소 본격 활동(부산 3. 16)
* 부산시 부사장 이임식(부산 3. 16)
* 3개 중점사업 선정 부산시 보건업무 추진(부산 3. 16)
* 부산지하철 2호선 공사장 안전예방 소홀, 규정차선 미확보·파손도로 방치(부산 3. 16)

* 부산시, 편법분양 물의 광원건설 강력한 행정조치(부산 3. 17)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개청(부산시정 3. 16)

3. 17
* 부산지역시민연대회의, 임시총회 열고 93년 사업계획 확정(국제 3. 17)
* 부산경찰청, 각종 캠페인에 시민들을 동원하지 않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 질서지키기 캠페인 등 취소(국제 3. 17)
* 부산 해운대구 삼호가든 아파트 노동조합, 부산지역에서 처음 파업 신고, 난방, 온수 공급 중단사태 우려(국제 3. 17)
* 시립공원 묘지 내 화장장 건립에 반발하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주민 200인, 부산시청 앞에서 농성, 백지화 요구(국제 3. 17)
* 93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국제 3. 17)
* 서부산 고검장, 지검장 인터뷰, 성숙한 검찰상 구현 최선, 밀수와 마약 범죄 발본색원(국제 3. 17)
* 부산시, 동래구 금강공원 내 수족관을 해양생물등본전시실로 개조해 10월 초 개관할 예정(국제 3. 17)
* 북구청,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대책 지역으로 강조된 곳에 도로표지판 3백개 설치키로(국제 3. 17)
* 부산시 일선구청, '책의 해' 맞아 구청직원과 주민 대상으로 독서운동 펼쳐(국제 3. 17)
* 부산시, 문민시대 출범과 함께 행정 쇄신 시달 했으나 효과 미미, 각종 단속, 캠페인 강화되어 업무가중, 동 직원 불만, 주 3~4회 동원 예사(국제 3. 17)
* 부산시, 지난 한 해 동안 12개 지역의보조합은 2백85억원, 15개 직장의보조합은 4백27억의 흑자를 내는 등 총 7억12억원을 더 거둔 것으로 집계, 가입자들의 반발(국제 3. 17)
* 부산항「통제빗장」푼다, 해항청 출입금지 단계적 해제, 부두시설 시민공원 조성(부산 3. 17)
* 슈퍼업계 점포난, 임대료 급상승 경영 타격, 점포 자기소유율 30% 미만(부산 3. 17)
* 의료업종 대상 세무관리 강화(부산 3. 17)
* 남포·광복 패션상가 매장 풍속도 바뀐다(부산 3. 17)
* 부도 미준공 아파트 방치, 청소년범죄 온상화(부산 3. 17)
* 버스 회차지 좁아 안전사고 우려 크다, 20여개 노선 차량 통해 지장도(부산 3. 17)
* 시청서 항의농성, 주민 2백명 화장장 설립반대, 시청직원들과 결렬한 몸싸움(부산 3. 17)
* 2000년까지 회사택시 등록제 전환, 개인면허는 완전개방, 교통부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요금제(부산 3. 17)
* 시장공관 활용논의, 5백명 대상 여론조사(부산 3. 18)
* 서면 거리를 밝고 맑게, 모범상가 번영회 자율정화위원회 발대(부산 3. 18)
* 부산 시민연대회의 93년 사업계획 확장(부산 3. 18)
* 安明弼부사장 취임(부산시정 3. 17)
*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부산시정 3. 17)

3. 18
* 시교육위원회, 18~19일 동안 22회 임시총회 개최(국제 3. 18)
* 영도지역 급수난 심각, 1일 3백40리터, 시 평균 80%에도 미달(국제 3. 18)
* 부산시 교육청, 사단법인 부산학교 안전 공제회는 교내활동 중 사고를 당항 학생에게 보상, 시내 초중고 4백69개교 가입, 그러나 절차 복잡해 학생, 교사 기피, 보상금 지급 50% 뿐(국제 3. 18)
* 부산시, 비리고발 민원센터 운영, 부정부패 척결과 민원 불편 해소 위해 민원센터 설치(국제 3. 18)
* 부산시, 녹산공단 입주업체 선정 지침 마련, 상공자원부 승인, 2백10만평 부지로 오는 4월 착공(국제 3. 18)
* 경기침체와 시장한파 겹쳐 항공기 이용객 크게 감소, 항공사 별 13~19%까지(국제 3. 18)
*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열고 오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제20회 임시회 개최키로(국제 3. 19)
* 해항청 을숙도 빈지 무상양여 거부, "관계 규정상 불가능" 통보(부산 3. 18)
*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면허처분권 시장 위임(부산 3. 18)
* 부산무용계 새봄 "기지개", 한국 춤·현대무용·발레 풍성한 무대마련(부산 3. 18)
* 금정구청 금사공단에「동종협의회」추진(부산 3. 18)
* 영도 금수시설 확장시급, 곧 대규모 아파트 입주 물 기근 심화(부산 3. 18)
* 기린주택도 아파트 편법분양 말썽, 고급자재「주문형」명목 10%나 웃돈(부산 3. 18)
*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 입주제외 상인, "법정 상인 특혜다" 반발(부산 3. 18)
* 부산 기초의회의장단 선거 다음달 15일 실시(부산 3. 18)
* 봄맞이 범시민자연보호대회(부산시정 3. 18)

* 전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장학사 회의 및 연수회(~3. 19)(부산교육 3. 18)

3. 19 * 시 교육청, 12개교 신설 급식소 신축 및 급식시설 설치비 등으로 17억4천8백만원 지원(국제 3. 19)

*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책 추진, 산하단체 동시에 시행, 공공투자사업 조기착수, 산학공공기술개발이 지원, 지역 업체제품 우선 구매, 중소기업 육성금 한도액 상향, 공장증개축 등 규제 완화, 부산 본사 둔 증권사설립(국제 3. 19)

* 부산항의 항만운영 전산화 시스템, 성공적으로 구축, 선박 입출항 및 화물 반출입 신속화(국제 3. 19)

* 부산시교육청, 국민 학교 12개교 신설 급식소 신축 및 급식시설 설치비 등으로 1개 학교당 1억4천5백60여만원 씩 총 17억4천8백만원 지원키로(국제 3. 19)

* 부산항 입출항 절차 대폭 간소화, 항만운영 전산화 본격 가동(부산 3. 19)

* 사상 출물판매조합 추징세 철회 탄원(부산 3. 20)

* 광원아파트 투기 브로커 설처, 신축현장의 웃돈전매 알선 공공연(부산 3. 20)

3. 20 * 부산시 하천 관리 주먹구구식, 오폐수 차집관로 설치 및 준설 외면(국제 3. 20)

* 부산지역 중심가 대역 약국들 독약 암매, 판매대장 안 쓰고 유통질서 흐려(국제 3. 20)

* 부산 무특성 도시 심화, 천혜자연활용 각종 사업 절실, 을숙도 철새공원 지지부진, 복천동 고분정화 12년 표류, 가덕도 관광단지 계획 취소, 낙동강 강변개발 속수무책 등 역점 사업 예산 부족으로 잇단 연기, 백지화(국제 3. 20)

* 무자료거래 확산일로, 부산 등 전국 12조원, 탈세규모 2천억 넘어(부산 3. 20)

* 부산본사 증권사 추진, 부산시 재무부에 설립안 건의(부산 3. 20)

* 시장 공관 도서관 활용을(부산 3. 20)

* 을숙도 매립장 차질 거듭, “시 행정 불신” 석대주민 반발(부산 3. 20)

* 부산 농어민후계자 선정지역 제외, 강서구 농민 등 반발…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 주장(부산 3. 20)

* 화장장 건립 백지화 요구 농성, 고속도 점거로 불사(부산 3. 20)

* 고질 교통난 언제까지 타령만…, 시민도 「고통분담」을, 10부제·동승 참여 절실(부산 3. 20)

* 부산 대학가 「등록금」 진통 심화, 동의대 등 단식농성, 학사운영 차질(부산 3. 20)

3. 21 * 새봄맞이 청결운동(~27)(부산시정 3. 21)

3. 22 * 부산 어린이 회관, 과학교육의 해를 맞아 어린이 과학교실 운영(국제 3. 22)

* 남구청, 오는 6월부터 시작될 공유수면매립지 선착장설치공사에 앞서 사전조사 요구(국제 3. 22)

* 관변단체 한해 32억 지원, 시구 30여개, 비생산활동으로 예산 낭비, 이권청탁 예사, 문민시대 정비 시급(국제 3. 22)

* 부산 경남 관가, 문민 감사원 첫 감사, 23일부터 보름간 일정, 금정산 임도개설 도마 위에(국제 3. 22)

* 건자재 수급 불균형, 시멘트 남아돌고 철근 품귀(부산 3. 22)

* 부산시 경제 활성화 역부족, 전문성 결여 기획력 미흡(부산 3. 22)

*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선착장 공사 바다오염 방지책 앞서야, 물양장 준설도 시급(부산 3. 22)

* 좌·중동 경계 천석축 해빙기 붕괴위험 커, 기초부실·일부 유실 방치(부산 3. 22)

* “진화소홀” 보상요구, 발화지 바로 옆인데도 소극적 대처(부산 3. 22)

* 공무원이 거액 고리채 놀이, 동래구청장 동료 돈 9억 알선 업체 등에 돌려(부산 3. 22)

3. 23 * 산업보건협회, 부산 노동자 6% 직업병, 사상공단 및 동래 지역 업체 건강진단,(국제 3. 23)

* 부산지방철도청, 관광열차 프로그램 민영 이관, 여행비 20% 인상 조짐(국제 3. 23)

* 부산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행정의 효과적 집행 위해 구청 주택계를 신설하려 했으나 계획발표 10일이 지나도록 무소식(국제 3. 23)

* 시 교육청, 93년 학군 배정 25일부터 실시키로(국제 3. 23)

* 부산지방기상청, 제33회 세계 기상의 날 맞아 기념식 개최, 부산 기상청 시설 공개(국제 3. 23)

* 정보처리회사 창업 활발, 부산지역 용역·통신문화 확산반영(부산 3. 23)

* 미신고 노래연습장 우후죽순, 처벌경미 불법 부추겨 변태·탈법 2백여 곳 성업(부산 3. 23)

* 시·구청 정원의 40% 확보 그쳐 세무직 지원기피 전문화 계획 차질(부산 3. 23)

* 연 3천억 금융혜택 기대, 신경제 100일 계획, 부산 중기 “자금 단비”(부산 3. 24)

3. 24 * 청소년 체육 행정 겉돈다, 땅, 예산부족, 별다른 대안 없어(국제 3. 24)

* 부산지방국세청 세무행정 대폭개선 납세자 편의 위주로(부산 3. 24)

* 신용금고 여신수요 격감, 금리인하 여파 신규대출 중단사태 자금운용에 “몸살”(부산 3. 24)
* 부산수출 회복세 기미, 18개월 만에 소폭 증가(부산 3. 24)
* 부산경찰청 의경·경찰관 대상 조사 파출소 의경 구타·기합 경험 9%(부산 3. 24)
* 금정구 상업지 좁아, 구청 7곳 용도지정 변경 건의(부산 3. 24)
* 건축물 일조권·건폐율 완화, 부산시 새 조례개정안 마련(부산 3. 24)
* 감사 본격 착수, 금정·북구청 긴장(부산 3. 24)
* 재산 형성 경위 규명돼야 재야단체 등 잇단 성명(부산 3. 24)
* 부산 경남의원 재산 축소 속속 드러나 “해도 너무했다” 국민 허탈(부산 3. 24)
* “부산 20대사업 타당성 재점검을”(부산 3. 25)
* 지방행정혁신기획단 발족(부산시정 3. 24)

3. 25
* 시 교육청, 학교 체육관리 지침을 각 학교에 시달(국제 3. 25)
* 부산고등법원, 강서구 지사동 지사과학단지 내, 도시계획 고시지역 건축 불허조치 위법 판결(국제 3. 25)
* 김해공항 주변 주민들, 김해공항 소음피해 대책마련 공청회, 김해구청, 구의원 관계자 등 참석(국제 3. 26)
* 부산을 특별시로<18> 주민 참여 속 해결책 모색, 백지화 악순환 도시존립기반 위협(부산 3. 25)
* 세금은 늘었는데 영농 지원은 줄어, 강서주민 “시 편입 득보다 실”(부산 3. 25)
* 시 의료원서 제왕절개한 주부 숨져, 유가족 “수술 잘못” 진상조사 요구(부산 3. 25)
* 광복로 공동화 가속, 경기침체로 상권위축…상가 9곳 휴폐업(부산 3. 25)
* 부산·경남지역 체임 급증, 60개 업체 2백87억원, 올 들어서도 23곳서 34억원 미청산(부산 3. 25)
* 「행정쇄신단」 발족, 부산시 9월까지 활동(부산 3. 25)
* 김해공항 소음공해대책 공청회(부산 3. 26)

3. 26
* 부산 진시장 개발(주) 창립총회, 황용언씨 대표이사로 선임(국제 3. 27)
* 금정구 청룡남산동 등 인근 주민 5백여명, 시청 앞에서 화장장 반대 연일 농성(국제 3. 26)
* 부산 시민단체들 고발접수 사례조사, 금융실명제 조속 실현 촉구(국제 3. 26)
* 영도지역, 도로 확충 없이 대단위 아파트 건립, 태종, 절영로 체증 우려(국제 3. 26)
* 해양청, 부산, 마산, 충무 등 주변 용도제한, 48개 항 ‘육상구역’ 지정, 부산항 2백만33㎡ 해당(국제 3. 26)
* 부유층 자녀 유학열 위축, 경기침체로 상담학생수 작년보다 10~20% 감소(국제 3. 26)
* 건설부, 국토장기건설도로망 계획, 자동차 하루 생활권화 2020년까지, 부산~간성 동해안 고속도로 신설(국제 3. 26)
* 부산시 교육청, 고교성적 평가 다양화하기로, 관찰조사, 과제물 반영 지시(국제 3. 27)
* 동남개발연구원 토론회 개최, 부산의 군시설, 공장 이전부지를 공동 시설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국제 3. 27)
* 부산경제 회복조짐, 중기 가동률 상승국면, 수출·기업경기 실사지수 등도 호전(부산 3. 26)
* 고수익 상품 판매중지, 투신사 저수익펀드 신설운용, 금리인하 따른 「머니게임」 방지(부산 3. 26)
* 금리추가인하 금융비용 절감, 연 1천1백억원(부산 3. 26)
* 부산 시민 내 집 마련 7.5년 걸린다(부산 3. 26)
* 부산항 등 전국 48곳 「항만육상구역」 지정, 물양·야적장 등 지정용도외 사용 못해(부산 3. 26)
* “거리화단에 우리 꽃 심자”, 외국산 팬지꽃 일색, 국내 자생화초 식재방안 검토돼야(부산 3. 26)
* 주례 삼거리 일대 체증 완화, 내달 접속도로 착공(부산 3. 26)
* 교통법 위반차량 권고엽서제 실시, 4월부터 사고 줄이기 일환(부산 3. 26)
* 광원건설 아파트 편법분양 강행, 시 시정명령 “콧방귀”, 계약 시 특별형 종용(부산 3. 27)
* 시장관사 개방(부산시정 3. 26)

3. 27
* 부산시의회 의원 51명, 화장장 건설예정부지 현장답사(국제 3. 27)
* 부산국토관리청, 보물 74호 ‘통도사 국장생석표’ 관통 도로설계, 문화재보호법 무시 논란(국제 3. 27)
* 부산 인구 작년비 0.14% 감소, 경기침체와 주택난 여파, 가구 수는 늘었으나 유년층 3만명 감소(국제 3. 27)
* 부산시, 구청장 및 내무국장 인사 내정, 정부에 승인 의뢰(국제 3. 27)
* 부산시 광공업 통계 조사, 조사항목은 사업체의 기본사항 및 실적 등 21개 항목, 29일부터 4월 28일까지(국제 3. 27)
* 부산 지역 수출 증가세, 작년비 1.10% 증가(국제 3. 27)

* 부산지역 은행「경쟁 불감증」신상품 개발 소극적(부산 3. 27)
* 산업쓰레기 소각장 난항, 건설비 융자방안도 미확정(부산 3. 27)
* “오수방류 과태료 무는게 싸다”, 아파트 정화시설 가동 외면, 처벌기준・단속강화 시급(부산 3. 27)
* 부산총인구 3백88만7천3백명, 91년 비 0.14% 줄어…남자가 2천명 많다(부산 3. 27)
* 백40억대 땅 신고누락, 김진재 의원 매각 해운대 땅 외 부지…양산 등 수억 땅도(부산 3. 27)
* 내신조작 연대책임, 시교육청 관련 교사 파면 상급자도 조치(부산 3. 27)
* 시고위직 인사, 내무국장 서종수씨 등 10명(부산 3.27)

3. 28
* 열차전복 78명 참사, 객차 4량 탈선 102명 중경상 구포부근 하전 발파공사로 지반침하(국제 3. 29)
* 열차전복 사상 최대 참사, 78명 사망 140여명 중경상(부산 3. 29)
* 구포열차 대 참사 왜 일어났나, 지반 약화 방치 예고된 “복합 인재”, 지하모래층 근접 지중화 발파작업, 위험 알고도 후속조치 등 수수방관(부산 3. 29)
* 주민통행로 폐쇄 18년째 점유, 부산진구 부암동민 시정 진정 우회불편…특혜의혹(부산 3. 29)
* 생사확인 가족들 밤새 발동동, 부산병원들 초비상 북새통(부산 3. 29)
* 객차박살 휴일 “생지옥”,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대참사 상보(부산 3. 29)
* 구포열차 탈선사고 발생(경찰사 3. 28)
* 구포에서 열차사고 발생(법원사 3. 28)

3. 29
* 공사무리・관리안일 ‘합작인재’, 침수사실 “쉬쉬” 침하 몰랐다 발뺌만 공정 70% 한전・철도청과 협의 전무(국제 3. 29)
* 횡단보도・교차로 사고다발, 교통사고의 85%가 횡단보도에서 발생, 구포역 입구 ‘최악’ 시・경찰청 조사(국제 3. 29)
* 화장장 건립 반대 통장 54명 사직서, 시립 화장장 건립 반대 금정구 청룡, 남산, 선, 두구동 주민 500여명이 29일 부산시청 앞에 모여 항의 농성(국제 3. 29)
* ‘가정복지관’ 개장 늑장, 주차장 미비, 업무추진 주먹구구식(국제 3. 29)
* 시장・군수급 이동명단, 부산, 내무국장 서종주 외 9명(국제 3. 29)
* 시, 환경 모범 가정제 운영방침, 29일 가정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자 환경개선사명감을 갖고 실천하는 가정을 환경자율감시요원 또는 환경홍보요원으로 활용하는 환경모범가정제 운영키로 함(국제 3. 29)
* ‘황령산 공원’ 조성차질, 2차 사업 예산 미확보,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 공동추진중인 황령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예산이 없어 중단돼 ‘반쪽공원’의 위기에 놓임(국제 3. 29)
* 김영삼 대통령 국민에 송구 수습 최선(부산 3. 29)
* 시의회 20회 임시회(부산 3. 29)
* 부산을 특별시로<19> 개성・자율바탕 자긍심 살려야, 외형적 성장 앞서 자질함양 도모를(부산 3. 29)
* 자유화 대상 금리인하, CP 팩터링 어음 여수신 1~1.5% 포인트(부산 3. 29)
* 부산국세청 무자료 거래 업종 확산, 1차 15명 조사 착수(부산 3. 29)
* 건설시험소 인력부족 전문성 못살려, 11명이 하루 40건 맡아 겉핥기 검사(부산 3. 29)
* 명장동 일대 한전지줄 송전관 공사 무리한 발파로 주민 고통, 건물벽 균열・소음 극심(부산 3. 29)
* 여성 통장직 급증 민방위업무 차질, 처우 열악…남성들 기피영향(부산 3. 29)
* 불법 건축단속 불공정, 영도구청 고갈산 굿당 철거외면 주민반발(부산 3. 29)
* 농가 영세・육성자금 부족으로 노포 화훼단지 난항(부산 3. 29)
* 화장장건립 백지화 요구, 부울도로 점거농성, 선동 등 5동 주민…통장들 잇단 사퇴(부산 3. 29)
* 인사…부산(부산 3. 29)
* 열차사고 현장 구조 활동 미담, 소방서원 혼자서 사체 60구 찾아내(부산 3. 29)
* 경찰과 대치 7명 연행, 화장장 반대 5개 동 주민 도로점거 농성(부산 3. 30)

3. 30
* 기업 발전 운동위 개최, 부산상의・본부 설치, 부산상의는 30일 부산상의 내에 기업 발전운동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기업발전운동 실무위원회’를 개최(국제 3. 31)
* 여객부두 귀빈실 사라짐, 연안 터미널 개장 이래 이용객 전무 국제선도 무용지물, 휴게실로 전환 공학・역도 조만간 폐쇄, 편의시설 활용방침(국제 3. 30)
* 연철노조 파업결의 새 국면, 84% 지지 오는 1일 결행 회사 측의 고용불만 해소가 해결책, 합의 도출 실패(국제 3. 30)

* 철길 건널목 입체화 늑장, 당국 예산타령 손 못 대 시내 8곳 간선도로와 교차 대형사고 우려(국제 3. 30)
* 시 관리사업료 동결, 도시가스 사용료 등도 억제 방침(국제 3. 30)
* “예방행정 철저하게”, 김 대통령 열차사고 현장 방문 유족위로(부산 3. 30)
* 한 달 전에도 붕괴사고, 열차 전복수사 40m옆 전력구서…지반연약 알고도 강행(부산 3. 30)
* 부실시공 제재수단 미흡, 형사 처벌 규정 없어 사고 나도 “솜방망이”(부산 3. 30)
* 「1·26 금리인하」 조치 불구 은행대출 되레 감소(부산 3. 30)
* 중기지원 “헛구호”, 부산시 예산부족 내세워 외면(부산 3. 30)
* 부산시 발주 건축물 문제점과 대책<上> 비공개주의 탈피 공정한 심사를(부산 3. 30)
* 행정동·법정동 나뉘어져 지번혼란 업무차질(부산 3. 30)
*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전혀 없어 폭포사 계곡 오염(부산 3. 30)
* 거제1·연산3지구 주거환경 본격개발, 주민들 신청서 제출 공동주택 등 곧 착공(부산 3. 30)
* 금정구 특산물 개발키로, 생활도자기·막걸리 생산 육성(부산 3. 30)

3. 31
* 부산시·해항청 구평동사부지 공방 감천항 배후도로 늑장, 부산 제2항인 감천항 배후도로 건설이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운낭만청의 업무 비협조로 공사에 차질(국제 3. 31)
* 붕각사고 3차례 더 발생, 열차참사 전복 100m 전방서 발생, ‘삼성’ 발파 금지 무시 공사강행, 임의로 설계변경 ‘헐값’에 이중계약도(국제 3. 31)
* 부산시교육청, 부산포 로터리클럽,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중고생 1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장학금 지급(국제 4. 1)
* 금융기관 중기지원 강화, 부산 본점사 ‘신경제 1백일’ 맞춰 4월부터 부산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신경제 1백일 계획’에 맞추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적극적(국제 3. 31)
*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강화, 재산취득시 안내문 발송제는 폐지(부산 3. 31)
* 기업관련 세금 안 걷힌다, 구산국세청 징수 목표액 52% 그쳐 불황 여파 간접세도 부진(부산 3. 31)
* 부산시 발주 건축물 문제점과 대책<下> 행정편의주의 “전문성 걸림돌”(부산 3. 31)
* 산업도로 “기능상실”, 시간대 구별 없이 체증(부산 3. 31)
* 「구포열차 참사」 각계 온정(부산 3. 31)
* 발파 항의 중 시공사 사장부인 폭행혐의, 주부 넷 “증거조작” 반발(부산 3. 31)
* 일선 서·구청 민원실 비치 책자 정부 보급 간행물 일색(부산 3. 31)
* 노조 불리한 「단체협약」 많다, 사용자 중재 일반신청 19%나…파업권 제약(부산 3. 31)
* 열차사고 피해배상금 얼마나 되나(부산 3. 31)
* 철도사고 유족 “이중설움”, 검안서 발부 등 절차 큰 불편(부산 3. 31)
* 한전 계측비용 2억 증발, 전력구 굴착공사 예산반영하고도 업체에 지급 안해(부산 3. 31)
* 철도붕괴 재발위험, 부실복구 개통…92년부터 “궤도 이상”(부산 3. 31)

4. 1
* 감독기관 직무유기 수사, 열차 참사 부산시·철도청·한전 관계자 소환, 북구청선 주민 진정 수차례나 묵살(국제 4. 1)
* 김해~거제 헬기운항, 한국항공이 1일부터 김해공항과 거제도간에 헬기 운항(국제 4. 1)
* 학급수 격감·교사 넘침, 부산 국교 작년 415개, 신규임용전무, 내년 무학급 교사 200명 예상(국제 4. 1)
* 새 출발 ‘지하철 문고’ 또 실종, 20일 만에 책 모두 바닥, 자원봉사회 독서문화 캠페인 위기(국제 4. 1)
* 부산시 환경홍보교육관, 1일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에서 개관(국제 4. 1)
* 시립미술관 설계확정, 일신 건축 작품 당선작으로 선정, 부산지역 문화예술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부산시립미술관의 계획 설계안이 확정(국제 4. 1)
* 삼성 불법 설계, 열차사고 수사 서울본사 관련 서류 압수 수색(부산 4. 1)
* 주요 구조물 안전 점검 의무화, 국회 건설위 열차사고 감독 소홀, 사후 대책 추궁(부산 4. 1)
* 부산을 특별시로, 도시 균형 개발 “최대 걸림돌”, 용지난 해결 숨통 외곽이전 필수적, 건축 제한 등 주민 재산권 피해 심각, 48개소 산재…시역 5% 9백30만평이나 점유(부산 4. 1)
* 중기 애로 직소 창구 설치, 부산지역 주요 행정관청들과 한국은행 부산지점 기업 애로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부산 4. 1)
* 신종 밀수 판친다, 컨테이너 직통관제도 악용(부산 4. 1)
* 화장장 반대 농성 주도 4명 구속, “주민의견 무시한 탄압”(부산 4. 1)

* 제1만덕터널 재시공 불가피, 동래구청 안정성 진단 분석 자료, 곳곳 누수 보수 한계, 방수・배수 기능 상실… 환기도 안 돼(부산 4. 1)
* 「통행료」 재산권 마찰 잇따라, 부곡 2동・온천 1동 4천1백세대 피해 호소, 지주 도로 점거・폐쇄에 주민들 반발(부산 4. 1)
* 공사 관련 수뢰 집중 추궁, 「열차 전복」 고위 공무원 전면 확대 수사, 시 건설 국장 철도국장 등 소환조사, 혐의 드러나면 전원 구속, 한전 현장 감독 등 8명 구속(부산 4. 1)
* 가덕도 지사 일원 주거 및 녹지지정(부산 4. 1)

4. 2
* '해운대신시가' 대형 재해우려, 배수로 없이 공사 감행, 집중호우 때 침수・토사 범람 불 보듯(국제 4. 2)
* "불합리요소 없애자" 한목소리, 중기 육성책 부산설명회 근로자수 위주 중기범위 재조정 건의 공업용수로 대구의 3배, 개선 촉구(국제 4. 2)
* 부산시 국장 등 오늘 중 구속, 열차 참사 수사 고위공무원 6명 소환 철야 조사, 삼성・한전 관계자 2명 추가 구속(국제 4. 2)
* 구포 참사 장례식 끝남, 지난 달 30일 12명, 31일 20명, 1일 44명에 이어 마지막 장례식(부산 4. 2)
* 시・국장급 등 4명 신병 확보, 「열차전복」 검경 합수반 직무유기 혐의 주중 추궁(부산 4. 2)
* 선로 밑 터널 통과 확인, 구포철도사고 규명 위해 4대 교수팀 현장검증(부산 4. 2)
* 시비 장학금 대폭 인상키로, 시가 생활 곤란 중・고・대학생 중 학업 성적 우수 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이 대폭 인상 된다(부산 4. 3)
* 녹산 공단 시설 배치안 확정, 공장이 전체 부지의 51.5% 조립 금속・석유화학・섬유업 입주(부산 4. 3)
* 쓰레기 자체 처리 확산, 구청 등 추진 부산대 소각 열로 온수 공급(부산 4. 3)
* 고위 간부 수사 확대, 「열차전복」 합수반 김대통령 엄벌 지시 따라 급선회(부산 4. 3)

4. 3
* 부산음악계 미래 점친다, 대학교수 추천 12명 축제 한마당 기성무대 첫선, 신선한 선율 기대(국제 4. 3)
* 상수도 사업소 배짱 공사, 동 포장작업 1시간 만에 수도관 교체한다고 파헤쳐(국제 4. 3)
* 부산시, 1회 방문에 민원처리, 행정쇄신 일환 절차 대폭 개선 방침(국제 4. 3)
* 부산시, 사고 줄이기 시민운동,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계도 활동을 강조(국제 4. 3)
* 사회간접자본 확충 위해 민관 공동 출연 활성화를, 도로 상하수도 토지개발 항만 개발 등(부산 4. 3)
* 무이자 할부 판매 확산, 유통가 "탈불황" 몸부림 품목・업종・기간 등 대폭 늘려(부산 4. 3)
* 광안리 해변 4층 건물 건립, 안전・미관 저해 이유로 주민 "층수 낮춰라"(부산 4. 3)
* 부산시, 채권으로 토지 보상, 거제로 확장 등 일부 적용(부산 4. 3)
* 부산시 보건 환경연구원 조사, 지하 공간 먼지 공해 심각, 상가 등 68% 부유분진 기준치 초과(부산 4. 3)
* 지하터널 확인 시추작업 계속, 부산대 토목공학과 팀과 동아 지질은 철로 함몰 부분 중간지점에서 지하터널 확인을 위한 1차 시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부산 4. 3)
* 「열차 참사」 인책, 부산 철도 청장도 처벌 대상, 전 북구청장 등 6명 포함, 삼성종건 대표 한전 본사 확산 불가피(부산 4. 3)

4. 4
* 부산 지방 철도청,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라이프니츠식 대신 유가족들 주장대로 호프만식으로 배상금 지급(부산 4. 5)

4. 5
* 부산 산림 '8천억' 값어치, 전국 산지의 3.47% 차지 산림청 임업 연구원 발표(국제 4. 5)
* 금정구청, '시범 소각로' 본격가동 구청 쓰레기 자체처리, 지난 26일부터 운영, 10평규모 공기주입 방식으로 태워, 부산대・북구청에 이어 세번째(국제 4. 5)
* 법정동명-행정동명 서로 달라 행정동명 통일 시급, 중구관내 일부 동의 법정동명과 행정동명이 불일치, 법정동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국제 4. 5)
* 부산대 시립전환 검토, 당정 해양대・수산대도 개편 지방대 육성, 경상대는 도립대로(국제 4. 5)
* 부산을 특별시로, 구체적 승격 전략부터 수립을, 추진 앞서 각계각층 의지 결집 필요(부산 4. 5)
* 외국계 생보사 급신장, 부산지역 시장 점유율 매년 상승(부산 4. 5)
* 중국 및 동남아시아지역에 대한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해외 직접 투자 급증(부산 4. 5)
* 슈퍼체인 업계 "자구" 바람, 선진 기법 도입 잇따라(부산 4. 5)
* 연안 「컨」・환적부두 전무, 부산항 체선・체화 사태(부산 4. 5)
* 항만세 징수 저조 미수액 11억이나, 대책 수립 시급(부산 4. 5)
* 시립 공원묘지 내 화장장 인근 주민 8백여명 화장장 건립 계획 철회 요구 시위가두시위 구속 주민 넷 석방 요구(부산 4. 5)

* 비정규・기능직 채용유보, 정보・판공비 등 10% 절감(부산 4. 5)
* 부산시, 고위직 처리단계서 난항, 구포 열차 사고 수사 답보 이유, 증거 확보 애로 관련자 재소환 진통(부산 4. 5)
* 사고 지점 밑까지 터널 막장 개연성, 1차 시추공으로부터 각각 10m떨어진 지점 NATM공법 시행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모래자갈 등 발견(부산 4. 5)
* 해운대 전화국 통신구공사 안전진단 나서, 전화국 인입 통신구 공사로 인해 일부 구간 지반침하가 우려 구청이 안전진단 및 대책 마련에 나서(부산 4. 5)
* 부산・경남 48회 식목일 행사(부산 4. 5)
* 삼성 전무・한전 차장 구속,「열차 전복」합수반 남대표도 금명 신병 처리, 시 도시국장 등 간부 철야 조사, 하도급 비리 특수부 별도 수사(부산 4. 5)
* 주택가도「붕괴」위험, 지하수위 1m 낮아져 침하 우려(부산 4. 5)
* 제48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부산시정 4. 5)

4. 6
* 국장생석표 이설 불가, 경남도・부산국토관리청에 통보(국제 4. 6)
* 부산 지방 경찰청, 인사(국제 4. 6)
* 부산시, 무리한 예산 절감, 올해사업 60% 상반기 조기 발주, 공사비 47억원 절약, 인건비 낮게 책정, 부실・안전사고 우려(국제 4. 6)
* 동구청, 수거 오물 이면도로에 방치 눈살, 동구청이 하수구 청소 중 수거한 오물을 부산진시장 이면도로에 방치해 상인들의 반발 얻음(국제 4. 6)
* 아시안 게임 유치단 구성 용의 없나, 부산시 의회 화장장 건립 주민 반대 대책 추궁(부산 4. 6)
* 차선 탈색 곳곳 정면충돌 위험, 중앙선 지워진 채 방치(부산 4. 6)
* 선경 건설 아파트 공사 소음・분진 공해, 망미 주공 등 2천여 주민 대책 호소(부산 4. 6)
* 배상금 협상 줄다리기, 구포 열차 유족・철도청 주장 달라 난항(부산 4. 6)
* 화장장 반대위 사무실 압수수색, 화장장 반대위 사무실과 대책 위원장 집에 대한 수색작업 벌여(부산 4. 6)
* 삼성종건 남정우 사장 구속 의미, 건설업계 고질 비리에 철퇴(부산 4. 6)
* 삼성 종건 남사장 전격 구속,「열차 전복」합수반 설계변동묵인(부산 4. 6)
* 하도급 비리 수사, 부산 구포 열차 전복 사고를 계기로 검찰이 부산지역의 정부발주 공사 전반에 대한 하도급 비리 수사에 나서(부산 4. 6)

4. 7
* 부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화장장 건립 촉구, 시 “계획 변경 의사 없다” 밝혀(부산 4. 8)
* 화장장 건립 반대 두구동 주민 농성, 두구동 주민 4백여명 부산 시청 앞에서 7시간 동안 연좌시위(부산 4. 8)

4. 8
* 등록차량 증가추세, 1만5천대, 작년보다 5.2% 증가(국제 4. 8)
* 부산시, 에너지 절약 계획마련, 여름 실내 26~28도 유지, 올해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실천계획을 마련, 에너지 10%이상 절약 계획(국제 4. 8)
* ‘큰 시청’에 ‘작은 정부’ 무색, 부산시 공무원 수 10년째 90% 증가, 비효율적 인력관리 수급 불균형 심화, 기능 중복 건설본부 156명 방만 운영(국제 4. 8)
* 부산시의회 폐회, 부산시의회는 7일 제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질문을 벌인 뒤 시립 화장장 건립 촉구 결의안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회의를 폐회(국제 4. 8)
* 유선방송 지역 분할안 확정, 정부, 부산 동구 등 8개・경남 11개권(국제 4. 8)
* 부산-상해・천진과 자매항, 대중 환적화물 중심항 급부상 기대, 환태항만회의 중국대표 수락(국제 4. 8)
* 녹산공단 조기완공, 진입로 비용 정부지원, 김 대통령 지시 공장부지 분양가 65~70만원선(국제 4. 8)
* 부산시 녹지과, ‘소나무 에이즈’ 자취 감췄다, 88년 금정산 첫 발생 300그루 집단 고사 지속적 항공방제 후 재선충 패해목 격감(국제 4. 8)
* 보선 본격 선거 운동, 부산 사하구와 동래 갑・경기 광명 등 보궐선거 후보등록 3일째를 맞아 8일 오전까지 모두 1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각 후보자는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국제 4. 8)
* 녹산공단 조성 5천억 지원, 정부 분양가 평당 60만원 선으로 낮춰(부산 4. 8)
* 부산시, 인사(부산 4. 8)
* 당감시장 복개로 지반 침하 가속, 기초 부실로 땜질 거듭(부산 4. 8)
* 광안리 해변도로 확장 시 지원 부족 지지부진(부산 4. 8)
* 괴정 1동 910 일대 주민 소방도로 개설 요구, 계획도로로 고시 된지 20년이 지나도록 소방도로 개설을 미뤄 해당 지역 주민 반발(부산 4. 8)

* 지방 의회 “민원 수렴 잘못한다”, 간담회 등 여론 수집 없이 일방적 결정(부산 4. 8)
* 열차 전복 수사 종결, 구포 열차 전복 사고 수사 중인 검・경 합동 수사반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 고위 공무원 사법 처리 않기로 하고 수사 종결(부산 4. 8)
* 참사 불씨 하도급 비리(1), 원청사 횡포가 부실 초래(부산 4. 8)
* 책임자는 어디에, 실력 행사 나서자 얼굴 내밀어 유족들 분노(부산 4. 8)
* 중기 금융지원 확대, 부산 지역 은행 여신규모 최고 40% 늘려(부산 4. 8)
* 유족, 철도 점거 농성, 구포 열차 사고 성의 있는 배상 요구(부산 4. 8)

4. 9
* 중기금융지원 대책회의, 부산은행・동남은행 등 부산지역 주요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의 육성 강화를 위해 기업 운전자금 대출범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지점장 전결한도액도 대폭 인상(국제 4. 9)
* 부산지역 구직난 심각, 지방노동사무소 통계 취업률 24.3%에 불과(국제 4. 9)
* 주택값 오름세 반전 3월 중 0.6% 상승, 부산 경남지역의 주택가격이 최근 들어 오름세(국제 4. 9)
* 불공정거래 하도급이 최다, 계약서 미교부 등 횡포, 부산공정거래위 작년 24건 전체 33%차지(국제 4. 9)
* 각종 기념비 건립 추진, 해운대구청은 동백섬에 ‘해운대엘레지’ 노래비 등을 건립・추진키로(국제 4. 9)
* 부산시교육청, 수학능력시험 설명회, 내일 94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동안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수학능력시험설명회 실시(국제 4. 9)
* 불공정 거래・하도급 급증, 공정 거래위 신고 매년 큰 폭 늘어(부산 4. 8)
* 주류 도매업체 위장 거래 특별 세무조사, 주류 도매업체들의 위장 거래에 대해 특별 세무 조사(부산 4. 9)
* 부산지역 어음 부도 올 들어 진정기미(부산 4. 9)
* 공단 업체 환경 공해 유발 여전, 사하 관내 39건 적발(부산 4. 9)
* 여권 발급 격감, 불경기・사정한파 영향, 3년만에 처음(부산 4. 9)
* 구포 열차 사고 수사 결산, 부도덕・무책임이 빚은 “복합 인재”(부산 4. 9)
* 제2 대형참사 우려, 한전 지하공사 도로 침하(부산 4. 9)
* 78명 목숨 앗아간 열차 참사 “관계 당국 책임 없나”, 합수반, 공사업체 15명만 구속 마무리, 「직무 유기・뇌물」 수사 한계 노출, 건설 관련 법규 허술 제재 미흡(부산 4. 9)
* 변호사・의사 31명 세무조사, 부산 5명 포함 본인・가족 소유 부동산・생활 실태 조사・추적(부산 4. 9)
* 상수도본부 수질검사소 개소(부산시정 4. 9)

4. 10
* 부산시교육연구원, 교육연구회 운영 적극지원, 전문성 위해 초・중등 구분시행, 현장교육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연구회 운영의 지원을 강화(국제 4. 10)
* 울산 시내버스 연장운행 부산 노포전철역까지, 울산 시내버스가 오는 12일부터 양산을 거쳐 부산 지하철 종점인 부산 금정구 노포동까지 연장운행(국제 4. 10)
* 부산 노사분규 증가세, 사측부당 노동행위 늘어 부채질(국제 4. 10)
* 근로자 아파트 인기시들, 1,500세대나 미분양, 입주자 제한자격・변두리지역위치 18평이하 소규모 등의 이류로 부산 전체 물량의 8%나 미분양, 대책마련 시급(국제 4. 10)
* 부산시, 현행 행정체계를 관 중심에서 대민 봉사 차원으로 전화키로 하고 행정쇄신에 박차(국제 4. 10)
* 황령산 터널 공사 중단, 대구열차 참변 직후 일부구간 안전검사, 94년말 완공 차질, 무리한 발파, 인근 지반 침하(국제 4. 10)
* 남항 선박 계류 등 제기능 상실, 공유수면 복개차장 활용을, 건어물 시장 번영회 중구청에 건의(국제 4. 10)
* 법인인정 이자율 인하, 현행 15%에서 12%로 하향 조정(국제 4. 10)
* 낙동강 유역 민속민요집 발간, 북구청이 낙동강 1,300리를 끼고 있는 경북 대구 경남 부산 등 5시도 49개 시군구의 조승가요와 민속을 집대성한 ‘낙동강 유역 민속민요집’을 발간(국제 4. 10)
* 관변단체 예산도 감축, 시 지원액 삭감이어 단체별 10%씩(부산 4. 10)
* 황령산 터널 공사 전면 중단, 시・(주)대우 부근 주택 붕괴위험 확인, 전체 공정 지연 불가피(부산 4. 10)
* 부산 남항 마산항 10곳씩 폐기물 저장시설, 98년까지 5백억 예산 투입(부산 4. 10)
* 부산지역 산성비 농도 “위험 수위”, 작년 한해 PH5.2 기록 환경기준치 초과(부산 4. 10)
* 승용차 도심 진입규제 대부분 찬성, 동남개발연 조사 결과(부산 4. 10)
* 군 시설 교외 이전 확정, 국방부 올 해운대 등 전국 15곳 추가(부산 4. 10)
* 공직비리 제보 잇따라, 부산 경실련 고발 센터에…진상규명키로(부산 4. 10)
* 화장장 건립 반대 주민들 농성 계속(부산 4. 10)

* 참사 불씨 하도급 비리(2), “공포의 먹이 사슬” 관행 고질화, 생명줄 걸린 하청 업체 항의 엄두 못 내(부산 4. 10)
* 부산도「비리 변호사」내나, 검찰 비난 대상 4~5명 형사처벌 방침(부산 4. 10)

4. 12
* 남구청, 6월부터 광안해수욕장 ‘미관지구’ 지정, 신축건물 색깔・높이 등 심사, 지주 재산권 침해 반발(국제 4. 12)
* 부산시 교육청과 교육방송 공동주최, 94학년도 수능 설명회 개최, 학부모・교사 2천명 참석(국제 4. 12)
* ‘쓰레기 분리수거’ 아직 반쪽, 신경 쓰는 시민 43%, 나머진 “나 몰라” 부인회 조사(국제 4. 12)
* 남구 의회, 의장단 선출, 재적의원 4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임시회 가짐(국제 4. 13)
* 금정 산성로 사고 위험 높다, 주말 행락객 7만명・차량 6천대 몰려, 폭 좁고 추락 방지벽 등 안전시설 허술(부산 4. 12)
*「부산의 문화, 부산인의 문화」축제, 부산문화관 전관 개관 기념 15일부터 20일간 행사 열려(부산 4. 12)
* 93「책의 해」사업 계획 추진, 시 주최 출판문화 진흥 심포지엄 등 여러 사업 추진(부산 4. 12)
* 시립 미술관 설계안 확정, 부산 문화 예술계의 숙원 사업인 부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계획 설계안이 확정(부산 4. 12)
* 상담 계약 1천9백만불,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다변화와 수출 증대를 위한 시장 개척단 성과(부산 4. 12)
* 동물 검역소(혈청소) 옮긴다, 송도 암남공원 개발 가속화(부산 4. 13)
* 5부두 앞 좌회전 폐지, 충장로 고가로 가설로 체계 개선(부산 4. 12)

4. 13
* 부산시, 구별 서비스료 동향 분석, 강서구 인상률 최고(국제 4. 13)
* 부산시, 노쇄 주택 재건축 활발, 사업기준 대폭 완화, 올해 25개 조합 2천61세대 추진, 올해부터 재건축 사업 대상이 2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늘어남(국제 4. 13)
* 오시게시장 한시 영업, 시장 철거문제로 마찰 빚던 금정구 오시게시장이 한시적 영업한다, 금정구-상우회 6개월간 연장 합의(국제 4. 13)
* 강서구-김해시 하수처리장 사고 대립,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입지문제 둘러싸고 김해시-강서구 마찰, 인접주민 민원들이 장소 변경 요구(국제 4. 13)
* 영세민 복지 역행, ‘모자보건센터’ 예산 없어 폐쇄방침, 실비입원・출산 혜택 못 받아(국제 4. 13)
* 의류업계 점차 회복세, 부산 1/4분기 수출・내수 판매 등 모두 호전(국제 4. 13)
* 김해공항 새 계류장 침하, 내달 신청사 개관, 안전위협, 전면 지반검사 불가피(국제 4. 13)
* 부산 중기 지원방안 확정, 지방세 경감・민방위 교육 유예, 첫 경제 기관장 회의, 관급자재 지역 제품 구매도(국제 4. 13)
* 유통 근대화 자금 실효, 유통 근대화 재정자금은 지방범위의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주지 못해 유통업체들로부터 외면(국제 4. 13)
* 중기 육성 자금 5백억 지원, 부산시 유망 기업 지방세 고지 유예(부산 4. 13)
* 의류 업계 생산 감소 조업 단축 등 자구책(부산 4. 13)
* 부산문화회관 9년 대역사 “끝”, 전관 개관 기념 예술제(부산 4. 13)
* 전국 체전 99년 유치 물거품, 정보 부재…개최권 인천에 빼앗겨(부산 4. 13)
* “명지・녹산 녹단 보상 방식 부당”, 피해 주민 대책 호소, 어업행위만「소멸」인정, 김공장 등 사실상 폐업 불구「이전」조치(부산 4. 13)
* 도시 계획 묶인 곳에 아파트 준공허가, 뒤늦게 철거 통보 주민 반발(부산 4. 13)
* 철도청 “사고 책임 없다” 발뺌 배상 협상 결렬(부산 4. 13)
* 화장장 반대 시위 40대 여 윤화 중상, 시위 참가 주민 도로 점거 위해 차도로 뛰어들다 시내버스에 머리 받혀 중상(부산 4. 13)
* 부산시, 억지 봉사 강요 공무원 상호 불신 심화, 불만만 고조…업무 효율성 저해, 친절빌미 전화 불시 점검 반발(부산 4. 13)
* 부산지역 기관장회의(부산시정 4. 13)

4. 14
* 항공기 소음 갈수록 심각, 주민 이주대책 마련 시급, 최근 급속 악화, 기준 훨씬 초과(국제 4. 14)
* 흑교로 확장 찔끔 공사, 중구 부평동 덕수예식장 앞~흑교로터리간 흑교로 확장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찔끔 공사 진행, 완공까지 체증심화 우려(국제 4. 14)
* 인사, 교통공단(부산) 경영관리과장 김문회 등 외 2인(국제 4. 14)

* 부산시, 추경예산서 지원, 예산 미확보로 사업차질을 빚고 있던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도로 확장에 부족예산을 최대한 지원키로(국제 4. 14)
* 부산교육청, 불법 사설 학원 수두룩, 부산시내 상당수 사설학원이 무자격 강사 채용, 고액 수강료 요구 등으로 무리, 445곳 적발(국제 4. 14)
* 부산시, 21c 부산 정보화 서비스화 필수,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 및 환태평양 경제권의 교역지점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첨단사업·금융업 육성 필요, 컨벤션센터 등 교역거점도시화 시급(국제 4. 14)
* 경제회복 동참 "한목소리", 업계서 먼저 의식개혁·노동생산성 강조 시장도 기업가 정신으로 시정추진 선언(국제 4. 14)
* 바이어 신용조사 소홀, 부산 수출업체 올 212건 불과, 피해우려(국제 4. 14)
* 남구청, 20년 정든 '동네 공부방' 철거, 도로 편입 핑계, 주민 큰 반발(국제 4. 14)
* 시 문화재 위원회 의결, '부산 영산제' 시 무형문화재 지정, 범패·작법무 지역성 뚜렷, 전승계보도 명확(국제 4. 14)
* 국제 업무 중추기능 확보, 부산 경제 중장기 5대 과제 제시(부산 4. 14)
* 올 3번째…「지역 민전」 자리 매김, 탈장르·다원주의 대폭 수용, 타지 작가에도 문호 개방 참가 폭 확대(부산 4. 14)
* 시 무형문화재에 부산 영산제 지정, 부산 영산제가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 신태형 외 2명이 무형 문화재 보유자로 승인(부산 4. 14)
* 시민 89% "환경오염 직접 피해", 한국부인회 부산지부 설문조사(부산 4. 14)
* 사유지 낀 주민 공동작업장 구청이 용도 폐지 철거, 구청이 사유지가 포함된 새마을 공동작업장을 용도 폐지 철거에 나서자 지주와 주민들이 반발(부산 4. 14)
* 화장장 시위 확산, 3일째 등교 거부(부산 4. 14)
* 금강 공원 시민 휴식처 "퇴색", 낡은 놀이기구 그나마도 태부족(부산 4. 14)
* 자성대공원 앞 간선도로 4차선 확장키로, 체증 완화를 위해 확장(부산 4. 15)
* 각 구 2대 의장 선출, 8개 구의회가 새 의장과 부의장 선출(부산 4. 15)

4. 15
* 경부소속전철 재검토, 완공 2000년 이후 연기, 사업비 14조 절감책 강구(국제 4. 15)
* 법규위반자 권고엽서제 패해 속출 가능성, 이달 중 권고 엽서제 실시, 운전자 소명기회 없어 시비 불 보듯, 신고요원 장비도 미비(국제 4. 15)
* 경로 의원 무료 진료, 한국 경로복지회 경로의원은 지난 12일~7월 12일까지 시내 65세 이상 노인 5,300여명에 대한 무료 노인건강진단 실시(국제 4. 15)
* 부산시, 장림처리장 2단계 차집관료공사 착공,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 차집관로공사가 오는 17일 착공, 총 모두 790억 예산추입 94년 8월 완공 예정(국제 4. 15)
* 수영로 가변차선제 30분 당겨, 20일부터 상오 7~9시 30분, 부산 경찰청은 15일 수영로 가변차선제 시간을 오는 20일부터 30분 앞당겨 오전 7시부터 실시키로(국제 4. 15)
* 부산·양산 노동자 20% 실직 경험, 부산노련 등 조사 이직도 76%, 고용불안 심각(국제 4. 15)
* 해운대 주민 '동백장학회' 설립 추진위, "청소년들에 꿈과 용기를", 오는 26일 창립총회, 고교생 10명 선정 공납금 전액 지급(국제 4. 15)
* 부산서도 세무공무원 사정, 동래 세무서 등 곧 착수(부산 4. 15)
* 해상 슬럼가 된 부산 남항, 투자 인색 시설 개선 난망(부산 4. 15)
* 일선 구청 현안 사업 예산 모자라 차질, 괴정천 복개공사 중단 불가피(부산 4. 15)
* 차집 관로시설 착공, 2단계 건설 차집관로 공사 17일 착공(부산 4. 15)
* 김해 공항 이주 단지 조성 난항, 시 개발 제한지 행위 승인 갈팡질팡(부산 4. 15)
* 해운대 신시가지 지하철, 내년 우선 착공, 우~좌동 2호선 연장(부산 4. 16)

4. 16
* 부산시교육청, 43개 실업계고교 실험 실습비 12억 지원 확정, 시내 43개 실업계고에 12억6천 실험실습비 지원, 오는 12월까지 분기별로 지급(국제 4. 16)
* 산업쓰레기 5톤 방치, 개금1동 주민 대책호소, 개금1동 300여세대 주민들 주택가에 인접한 가동 중단된 공장 지대에 쌓여있는 산업쓰레기 악취 등으로 큰 불편 호소(국제 4. 16)
* 내무부, 부산시 국장 둘 해직, '열차참사' 관련 감독 소홀 책임(국제 4. 16)
* 부산시, 관광객 유치 차질 예상, 대전엑스포 대비 코스개발 등 소홀(국제 4. 16)
* 사하구, 인사(국제 4. 16)

* 부산 수산 기관, 중앙에 집단 건의(부산 4. 16)
* 직할시 승격 30년 기념 화보집 발간, 「직할시 30년 부산」(부산 4. 16)
* 공업용수 정수장 건립 차질, 80여 가구 주민 농사피해 우려 반발(부산 4. 16)

4. 17
* 신발·조선업 수출부진, 부산 1/4분기 철강·수산가공품은 호조(국제 4. 17)
*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부산지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상인들을 상대로 맹인 체험대회 개최(국제 4. 17)
* 화장장 건립 백지화 요구 농성, 시립화장장 건립 반대하는 금정구 청룡동 주민 500여명 시립공원묘지 진입로에서 항의·농성(국제 4. 17)
* 한중 새 항로 확정, 부산~상해 고려·한라 컨소시엄 올 들어 개설(국제 4. 17)
* 건설사 부도로 입주민 타격, 임대 아파트 우선분양권 등 빼앗겨 전세금 받고 쫓겨 날판(국제 4. 17)
* 주말 연설 열띤 공방전, 사하·동래 갑·광명 보선 합동 연설회 중간 평가, 각 당 지원 강화, 유권자들 관심속 분위기 차분(국제 4. 17)
* '장림직업교' 설립추진 정원 5백명 94년 개교, 시교육청, 17일 취업 희망하는 인문계 고교생들을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 기존의 부산 직업학교 외에 가칭 '장림직업학교' 설립을 서두름(국제 4. 17)
* 교량 536곳 개·보수, 수산교·구포교 포함 중량초과 차량 처벌(국제 4. 19)
* 부산 지역 주요 업종 동향 및 전망, 수출·내수 "양수겸장" 기대(부산 4. 17)
* 지역 중기 제품 적극 구매, 부산시 수주 기회도 확대키로(부산 4. 17)
* 녹산 공단 8월 분양, 5월 초 어업권 보상 시작(부산 4. 17)
* 중기 「해외 상담망」 직접 활용, 부산 KOTRA 해외 무역 관과 계약(부산 4. 17)
* 악성 체화물 처리 간소화, 부산 본부 세관 「체화물 공매 관련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청에 제출(부산 4. 17)
* 부산도 「여성 공동의 장」 마련 돼야, 유일하게 서울만 건립, 지역 불균형 부채질(부산 4. 17)
* 부산 교육 비리 본격 내사, 교육부 기동 감찰반 1주일째 암행 활동(부산 4. 17)
* 화장장 법정 투쟁 계획, 청룡동 주민 5백여명 17일에도 반대 농성(부산 4. 19)

4. 19
* 일본 월말부터 1주간 황금연휴 관광업계 유치 경쟁, 외국인 감소로 고민하던 부산광광업계가 일본의 골든위크를 맞아 관광객 유치경쟁 활발, 부산·경남 특권 호텔은 만원(국제 4. 19)
* 이사철 주택 거래 한산, 부산지역 집값도 10~25% 내려(부산 4. 19)
* 부산항 운영 "자율 바람", 민간 중심 체제로 개선 부두 선석 배정권 선주 협회로 넘겨(부산 4. 19)
* 피해보상 마찰 장기화, (주)선경 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 분진공해 등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회사 측의 마찰이 장기화 되고 있다(부산 4. 19)
* 낙동로 도로기능 마비 우려, 여건 무시 2개 관로 매설 공사 동시 강행(부산 4. 19)
* 지하철 2호선 공기 연장 불가피, 구포·율리역 부지 보상비 확보 안 해(부산 4. 19)
* 두구동 주민 4백여명 화장장 건립 반대 시위(부산 4. 20)

4. 20
* 부산시, 올 문진기금 지원 대상 확정, 93년도 부산시 문예 진흥 기금과 문화촉매활동 지원 대상 및 수혜대상자가 확정, 장르별 2천만원씩, 획일적이라는 비판도(국제 4. 20)
* 문화체육부, 괴정 '회화 목' 천연기념물 해제, 최근 천연기념물 제316호 부산 괴정 회화 나무, 제269호 등 기념물에서 해제(국제 4. 20)
* 대기업 환경오염 주범, 거의 방지시설 미가동, 부산 3천8백여 업체 중 4백10곳 적발(국제 4. 20)
* 영도구청 조사, 공무원 30% 공직에 불만, 7~9급 많아, 각종 동원 개선 요구도(국제 4. 20)
* 우회로 개설 졸속 행정, 춘천천 복개개수공사로 경관 훼손(국제 4. 20)
* 되살아난 투신 「주식형 저축」, 증시 활황 힘입어 증가 추세(부산 4. 20)
* 하도급 비리 척결 시 차원 대책 촉구, 부산 지역 주택 건설 업체들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위한 대책 마련 부심(부산 4. 20)
* 부산 남외항, 「관제 시작」, 통제 위치 부적절, 영도 가려 사고 무방비(부산 4. 20)
* 영도 구청, 공무원 의식 조사, 억지 야근·전시 행정 많아(부산 4. 20)
* 「전력구공사」 대책 호소, 연산 1동 주민 발파 작업에 진동 등 생활 불편(부산 4. 20)
* 개원 2돌 기초 의회, 자질 시비·파행 운영 "얼룩"(부산 4. 20)
*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 규정 50% 불과 업주의식 부족·제도 미흡 탓(부산 4. 20)
* 제3도시고속도로 착공, 5부두~삼락동 낙동로 연결, 97년 완공 체증 완화(부산 4. 20)

4. 21 * 부산시, 건설업계의 관행화된 도급 부조리로 인해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확인 점검 실시하도록 지시(국제 4. 21)
* 화장장 건립 반대시위 점점 확산, 자녀 등교거부 9일째, 시립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금정구 청룡・남산동 등 인근지역 주민 1천여명, 시립공원묘지 입구 진입로에서 화장장 건립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국제 4. 21)
* 남구청, 가스 판매 업소 안전사고 대책 미흡, 가스 저장소 및 판매 업소들 소화기 관리 소홀(부산 4. 21)
* 군 면회실 확장 위해 농로 폐쇄, 강서구 대저 2동 주민 "부당한 처사" 반발, "철회까지 농성" 분쟁 장기화 조짐(부산 4. 21)
* 개발 제한 구역 묶인 땅 "이용도 높여 줄 것" 건의(부산 4. 21)
* 부산 건설 비리 전면 조사, 시 건설부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추적(부산 4. 21)
* 「권력 기생」 지역 유지 10명 고발, 관변단체 회원직 악용 각종 불법 행각(부산 4. 21)
* 동남개발연 이사장 정문화 시장 선출(부산 4. 22)
* 부산에 세계무역 센터 건립, 인가 신청서 WTCA 이사회 통과(부산 4. 22)
* 군 면회실 확장 마찰 주민 군부대와 합의, 군부대・주민・강서구청 관계자 대책회의 가져 합의(부산 4. 22)

4. 22 * 우편물 급증에 인원확충 '소걸음' 집배원 이직률 높다, 하루배달 1천600여통 무게도 79kg, 88년보다 배로 늘어나(국제 4. 22)
* 화장장 반대주민 청원서 제출,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금정구 청용동 주민 천명이 시립공원묘지 내에 화장장 건립계획 백지화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국제 4. 22)
* 부산항 '컨' 취급량 세계 5위, 영국 해운 전문지 발표, 부산항 컨테이너 물량 세계 5위 연 2백72만TEU, 홍콩 1위, 성항 2위(국제 4. 22)
* 부산 발전 기획단장 연행, 부산지검에서 형질 변경, 대가 7천만원 수뢰혐의 가진 부산발전기획단장 연행(국제 4. 22)
* 부산세계 무역센터 박차, 부산지역 일부 학계 상공계 인사들이 추진하는 부산 세계 무역센터(부산 WTC) 설립 계획, 국제 이사회 정식 인가, 하반기부터 정보네트워크 구성에 착수(국제 4. 22)
* 가야공원 경관 큰 훼손, 고시 25년째 미개발 곳곳 오물 방치(국제 4. 22)
* 내신반영 고교 각종시험 반드시 공동출제, 부산교육청 공정관리 지침(국제 4. 22)
* 부산 중기 가동률 저조, 고무・인쇄 등 침체, 작년비 2.4% 감소(국제 4. 22)
* 부산 수출 "맑겠음", 3월 LC 내도액 36% 증가(국제 4. 22)
* 첨단 기술 이전 센터 연내 부산 설립 추진, EC와 러시아 등 유럽권의 첨단 과학 기술을 부산 중소기업에 연결시키는 「첨단 과학 기술 이전 전문 센터」가 설립된다(부산 4. 22)
* 부산 경기 침체 터널 탈출 조짐, 경제 지표 일제히 호전, 중기 가동률 상승세, 어음 부도율 내림세(부산 4. 22)
* 부가세 신고창구 민원실로 일원화,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신고서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토록(부산 4. 22)
* 김해 공항 야간 교통체계 엉망, 밤만 되면 무질서 극치, 특공 택시 자가용 차량 호객 행위(부산 4. 22)
* 탁로원 부산서도 운영, 재가 노인 주간 위탁 후 귀가 시키는 보호 산업 서울 이어 전국 두 번째(부산 4. 22)
* 그린벨트 조정 촉구 강서구 대표단 구성(부산 4. 22)
* 신형토큰 자판기 이용 불편, 지폐투입구 너무 높고 고장 잦아(부산 4. 22)
* 동구청 대민 봉사 설문 조사, "공무원 친절해졌다" 83%(부산 4. 22)
* 부산지방법원, 전산화운영위원회내규(내규 제62호)제정(법원사 4. 22)

4. 23 * 부산지역 유통업계 세대교체 바람, 신・구 상권다툼 치열, 자금부족 영세상인 지원 절실(국제 4. 23)
* 부산시교육청, 교육과 교육행정에 대한 여론 수렴, 지속적 평가 위해 교육행정 모니터제 실시 운영키로(국제 4. 23)
* 중구청, 남포로 재포장 공사 석재타일 예산 낭비, 남포동 서울신탁은행~당코리 양복점간 남포로 포장 공사에 사용되는 석재 타일이 미관만을 고려, 완공 후 차량 통행 시 파손우려가 커 예산 낭비라는 지적(국제 4. 23)
* 생곡매립장 계획 진통, 강서구 녹산동민 대책위구성 반발(국제 4. 23)
* 주식 약정고 10조 돌파, 부산지역 증권사 사상 처음 91년비 28% 늘어(부산 4. 23)
* 부산 주택 건설 업체 기술 개발 투자 인색, 협회 연간 6백만원 수준(부산 4. 23)

* 부산 검역소 업무 차질 예상, 새 청사 백지화로 최신 기기 못 써(부산 4. 23)
* 청사포「도시 설계」건의, 해운대구청 달맞이길 이어 경관보전 나서(부산 4. 23)
* 광안리 해수욕장 기능 상실 우려, 시·구청 수질 관리 허술, 오폐수 처리관리 공사 착공도 못해(부산 4. 23)
* 중복 주민등록번호 일제 정리, 시, 7천6백17명 대신 6월말까지(부산 4. 23)
* 시 보상가 거부 반발, 해운대 고가로 편입 지역 주민, 시의 보상 책정액이 지나치게 적게 나왔다며 크게 반발(부산 4. 23)
* 국회의원 보궐선거(강경식, 박종웅 당선)(부산시정 4. 23)

4. 24
* 부산시, 인사(국제 4. 24)
* 보건과장이 불법약국, 부산지역 보건의료부 책임자 이홍주 부산시 보건과장이 불법약국 운영, 시 비호 의혹(국제 4. 24)
* 범일 과선교 낡아 위험, 버스운행제한 검토 상판 균열, 부식 붕괴우려 87년 '재가설' 진단에 불구하고 방치(국제 4. 24)
* 땅값 부산 0.24% 하락, 1/4분기 전국 평균도 0.42%, 신시가지 조성 해운대구 하락폭 0.8% 최대(국제 4. 24)
* 사상공단 폐수 방류 방치, 밤낮없이 흘려, 북구청 단속 외면(국제 4. 24)
* 병원노련부산지부 실태조사, 종합병원 장삿속만 밝힌다, 서비스 뒷전 병상수 불법 확장에 급급, 간호사 등 태부족, 환자·보호자 냉대(국제 4. 24)
* 부산 현안 해결 당정 협의 추진, 민자 부산지부, 예산안 확정 대비 종합대책 마련(부산 4. 24)
* 금정산성 서문 붕괴 위험, 문루기둥 기울고 이음새 부분 헐어(부산 4. 24)
* 주민, 주거환경 침해 비난, 협성 건설, 부암동 아파트 뒤에 골프연습장 개설 추진(부산 4. 24)
* 금정산 행락질서 문란 여전, 산림훼손·쓰레기 몸살, 놀이 문화 시민의식 함양 시급(부산 4. 24)
* 새마을 지도자회 재정비, 전시성 행사 줄이고 정예화(부산 4. 24)
* 고속터미널 사용료 인상 마찰, 0.5% 올리자 버스 회사 큰 반발(부산 4. 24)
* 화장장 건립 반대 농성 5개 동 1천여 주민, 두구·선·남산동 등 5개 동 주민 1천여명 금정구청으로 몰려가 화장장 건립 계획 백지화 요구 농성(부산 4. 24)

4. 25
* 유원지 일대 휴일 체증 몸살, 주변 도로 협소, 주차시설 태부족(부산 4. 26)

4. 26
* 한성생명 조사, 부산지역의 생보가입률·보험계약액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아, 한집 1.84건 계약액 59건(국제 4. 26)
* 서비스료 부당인상 19곳 적발, 부산지역 일부 개인서비스 업소들이 가격 부당하게 인상, 물가안정을 위협(국제 4. 26)
* 시장개척단 참여저조,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신규 수출시장 개척의욕이 줄어 듬, 유럽·중남미 파견단 신규 참여 줄여, 열기냉각(국제 4. 26)
* 부산시 보건과장 직위해제, 불법 약국 영업한 시 보건과장 직위해제(국제 4. 26)
* 주민, 악취 등 불편, 예산 부족, 삼락천 준설 지연(부산 4. 26)
* 시내 4백여 곳 재해 무방비, 도로·교량·주택용벽·절개지 등 방치 지반 침하·산사태 위험(부산 4. 26)
*「어업종」연합회 결성, 부산지역 12개 교류회 협력 다짐(부산 4. 27)
* 부산경제계 사정 회오리, 해항청 불시점검 돌입(부산 4. 27)
* 도로 개설 구간 주민 보상가 인상 요구 농성, 서구청의 서구 아미 2동 까치고개·감천고개 간(부산 4. 27)
* 金炯善 제26대 부산지방법원장 취임(법원사 4. 26)

4. 27
* 화장장 반대 농성 이틀째, 화장장 건립 반대하는 금정구 청룡동 시민들, 구청 광장서 5백여명 백지화 요구(국제 4. 27)
* 남구 도서관 건립 차질, 남구 도서관이 예산 미확보로 사업차질 우려, 소요예산 46억 미확보(국제 4. 27)
* 부산시, 4개 간선도로 309곳 대상 교통체계 개선 사업, 만성적 교통난 해결위해 28억 예산 들여 중앙로·수영로·만덕로·낙동로 간선도로 가변차선제등 개선 사업실시(국제 4. 27)
* 담배자판기 설치규제 제정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 거듭하고 있는 담배자판기설치, 규제관련 조례와 관련, 시민단체 조례 제정 관철시키기 위해 공동대응(국제 4. 27)
* 93년 부산 소년체전 내일 개막, 총 27개 종목 3일간 새싹 잔치 펼쳐(국제 4. 27)
* 북구청, 농어민 시장 개장 운영, 27일 최근 번지고 있는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맞추어 매 주말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농어민 시장을 개장·운영키로(국제 4. 27)

* 환경교육관 홍보 미흡, 전국 첫 개관, 한 달 넘도록 위치도 몰라(국제 4. 27)
* 부산교통공단, 새벽・심야 시간대 지하철 증편 운행, 지하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새벽과 심야시간대에 전동차 1편씩을 각각 더 운행(국제 4. 27)
* 부산 국제도시로 육성, 부산 초도순시 김 대통령 밝혀, 낙동강 오염 방지 획기적 대책, 교통문제 개혁차원서 해결, 신발 산업 자동화 적극지원(부산 4. 27)
* 부산 수출 계속 맑음, 부산 지역 수출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부산 4. 27)
* 「컨」 부두 위험물 저장 허용 3개월째 처리 지연, 자성대 및 신선대 부두 내 위험물 내장 환적(부산 4. 27)
* 상임이사제도 전국서 첫 도입, 시 체육회 전문성 부족 메운다(부산 4. 27)
* 「봄가을」에 식수비상, 자연수 사용 변두리 물 확보 안간힘(부산 4. 27)
* 대연 근린공원 내 도서관 건립 무산 위기, 부지 매입비 등 예산 확보 안 돼(부산 4. 27)
* 부산 현안 시점 장기 표류, 시민 불편 가중 시정 불신 증폭(부산 4. 27)
* 히로뽕 2천억대 인수, 부산지검 국내 최대 조직 「영한파」 17명 적발(부산 4. 27)
* 金泳三대통령 부산 순시(부산시정 4. 27)

4. 28
* 천연기념물・보호수 고사수난, 괴정동 회화나무 지정해제, 천연기념물 등 보호수가 보호 소홀로 고사 등 수난(국제 4. 28)
* 부산지법 판결, 시보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근로 기준법상 근로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국제 4. 28)
* 녹산공단 개별 보상금 수령 거부, 어촌대표 재심요구, 명지 녹산 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 앞두고 어민들 피해보상액이 적다고 반발 수령 거부(국제 4. 28)
* 올 1/4분기 부산지역 땅값이 지난 연말에 이어 주거지의 하락폭이 상업지역보다 크게 나타나, 작년 연말 대비 0.19% 하락(국제 4. 28)
* 유통업계 전문 인력 확보비상, 최근 부산지역 유통업체들이 경쟁력 강화 위해 점포의 대형화 추구하고 있으나 인력이 확보 되지 못함, 스타우트 과열 등 우려(국제 4. 28)
* 부산시, 낙동강권 개발 본격 추진, 부산시 세부계획 재수립, 정부에 지원 건의, 녹산공단 96년 조기완공, 재무부 등에 을숙도 관리권 이양 요구, 시장 월말께 상경 간담회 예정(국제 4. 28)
* 부산시 교육청, '촌지 교사' 진상조사, 장학사들 현장파견, 시내 일부국교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은밀히 돈봉투를 건네받아 잡음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진상조사(국제 4. 28)
* 자성대 아파트 붕괴 위험, 동구 범일 5동 연약지반 침하・건물 낡아(부산 4. 28)
* 부암 고가로 공사 지연, 하얄리아 부대 편입 부지 반환 늑장(부산 4. 28)
* 공시가 이의신청 급증, 작년보다 2.5배 늘어 공정성 불신 여전(부산 4. 28)
* 5백95건 제도・법규 개정 건의, 부산시 내부적 개선 병행 시민 불편 해소(부산 4. 28)
* 부산 터널 천장 금간 채 방치, 시공 이음 부분 4곳 누수현상 발생, 사고 위험 커 보수 시급(부산 4. 28)

4. 29
* 부산시, 단독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연립주택 등 연면적 6백61㎡ 이하 소규모 주택의 부실시공 사례를 조사, 위법시공자 빛 건축주 처벌(국제 4. 29)
* 부산지방철도청, 철도이용객 증가로 시설 확장 도모, 예산 12억 들여(국제 4. 29)
* 부산지검, 법의 날 맞아 범죄 없는 마을 2곳 선정, 영도 영선 2동, 중구 대청 3동(국제 4. 29)
* 여객선 수송 실적 저조, 올 들어 연안 및 국제 여객선의 수송실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남, 연안・국제선 모두 20%이상 승객 감소(국제 4. 29)
* 부산 장기 밀거래 성행, 부산지역 장기(신장) 밀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충격, 콩팥 1개 1,500만원, 알선 단체서 커미션 받고 소개(국제 4. 29)
* 부산 상의, 지역개발 종합안 건의, 금융・항만 기능 극대화, 특별법 제정, 광역교통망 건설 등 요구(국제 4. 29)
* 철거민촌 대책 시급, 적은 비에도 대형 재해 우려(국제 4. 29)
* 올 임협 소걸음, 사업주 눈치작전, 북구 관내 타결율 14%, 노조도 타 업종과 보조맞추기 급급(국제 4. 29)
* 단자사 자금 빠진다, 금리 인하 등 여파 수신 감소(부산 4. 29)
* 은행 수수료 조정, 은행 각종 수수료 징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따라 여수신 관련 모든 수수료를 조정, 시행에 들어감(부산 4. 29)
* "낙동강 하구권 정비법 제정", 부산 상의 「11대 현안」 건의 광역 교통망 건설도(부산 4. 29)
* 수신고 큰 폭 증가, 여신 여전히 부진(부산 4. 29)

* 진통 장기화 조짐, 해운대 고가도로 편입지 주민 보상가 반발(부산 4. 29)
* 좌석버스 “요금만 비싸다”, 전 구간 정차·정원 초과 시민 불편(부산 4. 29)
* 부산시, 3천억 국고 지원 요청, 시 당정 협의회, 아시안 게임 유치 범시민 운동, 교통공단 빚 연 6백억 보조도(부산 4. 29)
* 부전천 복개도로 붕괴 위험, 설계하중 미흡…교각 기초 곳곳 파손 보강·전면 보수 시급(부산 4. 29)
* 화주 출입 못해 이중고, 동부 터미널 주차장 외부 차량 통제(부산 4. 29)
* 새싹유치원 개원(부산교육 4. 29)

4. 30
* 부산시의회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 구성 방침, 내달 임시회서 확정, 추진에 큰 힘, 각계 위원 15명 실무담당으로 총력 펼칠 듯(국제 4. 30)
* ‘문화 공간 조성’ 수년째 표류, 문화회관 주변 박물관·유엔묘지측서 반대(국제 4. 30)
* 부산출신 민자당 의원들,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시정간담회, 시와 당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다짐(국제 4. 30)
* 해운대 번영회, 시에 건의문, 지역난방보다 도시가스를 기초로 한 개별난방 방식 채택 해줄 것 요망(국제 4. 30)
* 강서구 의회, 제21회 임시회를 열고 ‘농어촌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개정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국제 4. 30)
* 정화조 업자들 임의단체 구성, 검사비 명목 연 2억 부당이익, 신축건물에 건당 2~5만원, 당국, 협회인 첨부땐 확인 않고 ‘준공’, 구청 건축공무원과 결탁의혹(국제 4. 30)
* 난항 화장장 건립 새 국면, 주민반발「애향심」규정, 설득과 의사 반영 병행(부산 4. 30)
* 노포역 앞 대규모 주차장 설치, 시 외곽 지하철 환승 유도 위해(부산 4. 30)
* “부산을 살리자” 당정 이구동성, 민자·부산시 당정회의 속기록, 현안 사업 추진 예산 확보에 주력(부산 5. 1)
* 배상 합의 이행 촉구, 열차사고 유족 농성, 위령탑 건립, 유자녀 학자금 1백% 지급 등 이행 촉구(부산 5. 1)
* 지역 여성연,「지역 현실과 여성」심포지엄, 관심 높지만 역량 미달, 전문 인력 부족 연구 활동 한계, 취미위주 복지관 운영 문제(부산 5. 3)

5. 1
* 땜질 청소행정 화 자초, 석태매립장 주민 차량진입 차단, “을숙도 완공 안됐다” 안일 대처, 4백만 시민 피해(국제 5. 1)
* 부산 상의, 1/4분기 동향 조사, 공공·서비스 7.3% 인상, ‘소비자’의 3배, 안정위협(국제 5. 1)
* 부산시, 석대 주민들 새벽 청소차 출입 봉쇄, 매립장 폐쇄약속 5차례 어겨 주택가 곳곳 처리 못해 주민 고통, 4백여대 되돌아가 외곽 체증(국제 5. 1)
* 부산시, 관광객 유치 코스 개발 주력, 부산을 찾는 국내의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기 위해 관광코스 개발 계획 마련(국제 5. 1)
* 부산 지하철 1~2년 연기, 내년 착공 예정이던 부산 지하철이 2호선 2단계 공사 설계비 미확보 1~2년 지연, 2호선 70~80억 부족, 4호선도 지연(국제 5. 1)
* 붕괴위험 다리 상당수, 부산시내 다리의 상당수가 정밀안전진단 필요, 낡았거나 곳곳 금가 보수가 시급(국제 5. 1)
* 대기오염 측정 눈가림식, 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이 부산 지방 환경청의 측정지점과 중복되고 특정지역에 편중, 용도상 불합리하게 설치되 있는 등 위치상 선정의 문제 있는 것으로 지적(국제 5. 1)
* 부산시교육청, 인사(국제 5. 1)
* 부산 음악계 잇단 발표회 활기찬 5월, 지역 내 교수 음악인 7명 개인무대, 30대 후반 중견들 새 기량 과시(국제 5. 1)
* 중고차 매매업체 불법 영업, 최근 부산지역 중고차 매매업체들이 법규 무시, 주차관리비 멋대로 책정, 매도인에 부담금 강요(국제 5. 1)
* 도로 무단 굴착 구청 고발 대응, 한전·통신 공사 허가 없이 파헤쳐, 오랜 불법 관행에 “쐐기”(부산 5. 1)
* 자율 방역단 운영 허술, 거주 통 위주 소독·보건소 지원 부족(부산 5. 1)
* 경조사 부조 줄이기 운동, 공무원 월 평균 20~50만원 달해 가계 압박, 시 행정 쇄신 과제 하나로 붐 조성 나설 방침(부산 5. 1)
* 부산 교량·터널 30% 안전 허술, 시 점검 65곳 보수 시급 5곳은 붕괴 위험(부산 5. 1)
* 부산 교육계 “자정” 확산, “비리 연루 교직원 영원히 추방” 강조, 신임 육성 회장 인사 거절, 소풍 민폐 개선 학교도 늘어(부산 5. 1)
* 시-석대 주민 또 쓰레기 전쟁, 사용 연장 반발…실력 행사 나서, 새벽 차량 진입 전면 통제, 긴급회의 타협점 못 찾아(부산 5. 1)

* 부산항 전국 최고 더럽다, 연안해역 중 유기탄소 오염 1위, 생활하수 산업 폐수 영향, 평균치 갑절 웃돌아(부산 5. 1)

5. 3
* 시 교육청 연구원, 청소년 달 자료집 '우리들의 성장' 발간, 5월 청소년 달을 맞아 중고생들의 건전한 사고와 올바른 성장 돕기 위해 '우리들의 성장' 학생 상담 자료집 발간(국제 5. 3)
* 부산 여성운동 활성화 적극 모색, 부산지역 여성의 현실을 이해하고 지역 여성운동 활성화 위해 심포지엄 개최, 지역 여성연구회・여성유권자연맹 토론회 개최(국제 5. 3)
*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 지지부진 건축규제 완화 시급,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시내 고지대 등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건물 우후죽순, 면적 좁아 예사로 탈법 자행(국제 5. 3)
* 을숙도 쓰레기장 설계 잘못, 매립량・기간 계획보다 2/3 수준(국제 5. 3)
* 부산 "쓰레기 천지" 시민 고통, 석대주민 반입저지 사흘째 수거중단, 주택가・시장주변 악취진동, 하천부지・빈터엔 얌체 투기, 시, 공권력 투입 검토, 마찰우려(국제 5. 3)
* 부산시 교육청, 11개 초중고 신설, 94년도에 초등학교 4개・중학교 5개・고등학교 2개 등 신설키로(국제 5. 3)
* 부산 단자사 감사, 1주일간 은감원・재무부 합동 실시(부산 5. 3)
* 문화회관 중극장 시설 일단 "합격점", 조명・음향 장치 등 수준급(부산 5. 3)
* 시, 무면허 건축물 강력 단속, 적발 땐 기초까지 철거(부산 5. 3)
* 부산 전역 쓰레기 "몸살", 3일째 수거 마비 주택가 상가 등 방치 항의 빗발, 차량 40여대 도로 대기 교통체증 심화(부산 5. 3)
* 화장장 건립 결사반대 선동 등 4동 주민 농성, 남산・선・청룡동 등 4개 동 주민 7백여명 금정구청광장에서 4시간 동안 연좌 농성(부산 5. 4)
* 삼성종건 6개월 간 영업 정지, 구포 열차 전복 사고 인책(부산 5. 4)
* 「쓰레기 파동」 극적타결, 시・석대 주민 요구 11개항 합의(부산 5. 4)
* 부산시, 대전엑스포 참가 준비 한창, 부산시 상징기 게양 영상 전시물 제작, 지난 1일 시내 163개소 엑스포 상징기를 게양한데 이어 3일 대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지원위한 부산시 협의회 창립총회를 여는 등 엑스포 참가 준비 한창(국제 5. 4)
* 조합원의 회사소집요구를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에게 소집권한을 부여한 노동조합 규약규정의 유효여부에 관한 판결(울산지원 93카합373)(법원사 5. 3)

5. 4
* '직장탁아제도' 흐지부지, 설치사업장 거의 없어 경영주 인식부족・법령 미비로 외면(국제 5. 4)
* 부산 쓰레기 수거 재개, 석대 매립장 월말까지 연장사용 합의, 일부주민 반발 경찰 투입(국제 5. 4)
* 부산시, 인사(부산 5. 4)
* 공사 현장 안전 대책 허술, 인재・가옥 침수 잇따라, 행정 기관 등 관리 감독 강화 절실(부산 5. 4)
* 「고도 제한」 지정 시급, 부산 북구 고층 아파트 난립 조망권 등 침해(부산 5. 4)
* 부산시정 "공백" 우려, 도시 계획 국장 등 주요 보직 6곳 비어, 상부 눈치 후속 인사 늑장, 각종 현안 업무 처리 차질(부산 5. 4)
* 1차 모의 「수능」도 유출, 시 교육청 사설 학원 상대 진상 조사 나서(부산 5. 4)

5. 6
* 정부, 부산주변 30~40km 광역개발, 대구 등 지방 4개 도시 내년 본격 착수, 권역별 특성화 계획(국제 5. 6)
* 부산 '책의 해' 일과서 행사 우려, 예산 적고 사업늑장, 홍보활동 이달에 시작 "뒷북치기" 빈축, 시민도서교실도 '연례행사' 끌어오기(국제 5. 6)
* 헌혈비상, 부적격자 많다, 거의 혈액저비중・각종 병균까지 채혈자중 9% 차지(국제 5. 6)
* 해운대 등 3곳 관람 특구 지정, 당정 방침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 혜택(부산 5. 6)
* 부산 국제 무역 도시 육성, 정부 4개 직할시 광역권 개발, 반경 30~40km 지역 특성화, 9월 입안 내년 본격 착수(부산 5. 6)
* 부실 주택 건설업 무더기 행정 처분, 부산시 2백30여개 행정 처분 백45개 등록 말소(부산 5. 6)
* 기업 정보 관리에 눈 돌린다, 전산망 기업업체 급증, 자재 인사 관리 업계 동향파악에 이용(부산 5. 6)
* 관공서 주차장 개방, 시 8일부터 회의실도 예식장으로 제공키로(부산 5. 6)
* 해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 개방, 편의・안전시설 태부족, 철저한 계획 서둘러야, 몰운대・이기대 등 7곳 예산 없어(부산 5. 6)
* 공영 주차장 대폭 확충, 도심 6곳 1천27면 새로 건설(부산 5. 6)
* 민원처리계 신설, 내무부의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지침에 따라 시 본청과 자치구의 시민과에 민원 처리계를 신설하고 기존 민원계를 민원제도계로 개편(부산 5. 6)

* 제1 녹산・대저 수문 “붕괴 위험”, 60년째 보수 않고 방치(부산 5. 6)
* 부산시, 인사(부산 5. 6)

5. 7
* 보건과, 인사(국제 5. 7)
* 부산시교육청, 국민 학교 학과 전담 교사제 확대 검토, 내년부터 남아도는 교사 효율적 배치(국제 5. 7)
* 부산 상의 ‘부산경제단체편람’ 발간, 일반연구소는 14개에 불과, 해항관련 8곳・대학부설연도 14곳 뿐, 종합기구 4개 업종별 122개(국제 5. 7)
* 지역공사 서울업체에 잠식, 지하철 2호선 하도급 11개사만 참여(국제 5. 7)
* 신 부산 건설 정부 청사진은, 국민 기만 평화의 댐 의혹 추궁, 금융 제도 개편 방향 등 밝혀라, 소비자 물가 3.6% 수준 동결, 금융 실명제 시기 미리 못 밝혀(부산 5. 7)
*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산성길 미끄럼・과속 방지턱 설치, 진입로 가로등 증설 안전 운행 지도(부산 5. 7)
* 부산 지하철 재정난 “사상 최악”, 2호선 차질 3・4호선 중단 위기, 자재비・노임 올라…50%이상 추가비용 발생(부산 5. 7)

5. 8
* 옛 보훈병원・변전소 국유지 5년째 놀려, 국가기관이 소유한 도심부지가 뚜렷한 활용방안도 없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국제 5. 10)
* 부산시, 2개국 5개과 폐지, 1국 3과 5사업소 축소, 내무부 지방행정조직 개편(국제 5. 8)
* 부산시의회, 임시회 10~14일, 제21회 임시회를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회기로 열어 ‘아시안게임 유치 추진안 구성 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국제 5. 8)
* 부산 경제 연구원 조사보고, 도시형 업종 선정기준 개선 시급, 지역성무시 일률적용, 식품냉동업 등 포함 합리적 조정 필요(국제 5. 8)
* 인사, 부산 중구청 민방위과장 직무대리 김호철 외(국제 5. 8)
* 경로잔치 전시행정 치우쳐, 행사 중복・엇비슷 예산만 낭비 지적, 노인복지 대책은 외면(국제 5. 8)
* 신발부품 남아공 수출, 아트프랙스사 부산 22개 업체와 상담 적극화(국제 5. 8)
* 부산 부도율 감소세로 반전, 4월 0.46% 불과, 올 해 들어 처음으로 줄어(국제 5. 8)
* 시청~자갈치 로터리 가변 버스 전용 차선제 실시, 하루 5만여대 집중 혼잡 부채질, 교통량 편차 해소 기대(부산 5. 8)
* 하얄리아 부대 이전 촉구 결의, 부산 진구의회 “도시발전 저해・교통흐름 차단”(부산 5. 8)
* 지방 행정 조직 대폭 개편, 7월부터 시・도 국과 사업소 통폐합(부산 5. 8)
* 아파트 신축 붐…못 따르는 국교 신설, 취학아동 통학 불편, 인근 학교 1~3km이상 걸어서 등교, 교육청 부지 매입 “아득”(부산 5. 8)

5. 10
*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전면 복원제기, 좌수영 성지 보존여론, 임란 때 방어 요새, 10년째 방치, 주민 재산권제한 반발, 존폐기로(국제 5. 10)
* 해운대구청 실측자료 분석, 해운대 백사장 줄어든다, 지난해 비 넓이 10%나 감소, 모래분포 계절 7~10일 주기로 변화(국제 5. 10)
* 조망권 확보계획 시에서 묵살, “재산권 침해” 금정산・달맞이고개 고도 제한 제동(국제 5. 10)
* 3대 중 2대 1인 탑승, 수영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부채질(국제 5. 10)
* 송정천 오염 가중, 상류서 폐수 유출…어장 황폐화(부산 5. 10)
* 남구청 장기 발전 계획 수립, 2000년대를 대비, 오는 6월께 남구 장기 발전 개발 계획 용역 발주키로(부산 5. 10)
* 부산 롯데 백화점・호텔 공사 본격화, 통행 불편 상권 위축 “피해”, 인근 상인・주민 보상 요구 서명 착수(부산 5. 10)
* 행정비리 시정 요구, 부산 경실연 1백여건 접수, 30여건 시에 전달 시정 요구(부산 5. 10)

5. 11
* 시의회 조례안 상정, 청소년 유해 환경 척결(국제 5. 11)
* 올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부산엔 건립 ‘전무’, 업자계획 1채도 없어 택지난・사업성 이유, 6대 도시 중 유일(국제 5. 11)
* 해운대구청, 인사(국제 5. 11)
* 건설부, 주회제출자료, 부산시 토지 28㎢ 이용제한, 도시계획확정 10년 지나도 감감(국제 5. 11)
* 부산시, 경남 땅 50만평 부산 편입 추진, 행정구역 양분 녹산공단 걸림돌 해소, 주내 경남도에 협조 통보키로(국제 5. 11)
* 부산시, 남구청,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상업지구’로 변경 검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정된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것을 적극검토, 이 지역 관광 상권에 큰 변화를 예상(국제 5. 11)

* 부산대교 대형사고 우려, 영도 쪽 심한 곡각, 설계 잘못(국제 5. 11)
* 부산시, 체육관리 사업소 시합 중 공사강행 “상식이하” 작태, 10여건 실시 중 예산난 이유 방치도 예사, 천마기 야구 등 5개 대회 일정 변경 불가피(국제 5. 11)
* 부산시의회, ‘범시민 아시안게임 유치 교섭단’을 의회 직속 기구로 구성할 예정, 이달 12일,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 유치에 본격 나섬(국제 5. 11)
* 종합 상사 수산 업무 감량 경영, 경기 침체에 가공 무역 재미 못 봐, 전담 조직 축소 개편(부산 5. 11)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올 본격 시행, 부산시 초량 4동 등 1천6백동 대상(부산 5. 11)
* 약국·부동산 임대업 특별 세무 관리, 부산 지방 국세청 올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토대로 약국 및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 중점적인 세무 관리키로(부산 5. 11)
* 부산 소비자 물가 2.8% 올라, 지난 4월 중 부산지역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2%, 지난 해 말 대비 2.8% 상승(부산 5. 11)
* 주택가 초고층 아파트 건립 마찰, 인근 주민 일조권·조망권 침해…집단 민원(부산 5. 11)
* 학교「환경 인식도」“0점”, 교내 대형 정화조 7곳 800 기준치 훨씬 초과(부산 5. 11)
* 광안리 일대 청소년 탈선 온상, 강력 범죄·사고 잇따라, 교육구청·경찰 단속 느슨 대책 시급(부산 5. 11)
* 신활주로 편입 58세대 “갈 곳 없다”, 김해 공항 이주 단지 대신 취락 개선 통보(부산 5. 11)
*「만남의 관장」10년째 방치, 구서 금단 마을 앞 고속도로변 녹지 2만㎡ 특혜 시비·소송 등으로 건설 백지화, 녹지 훼손 흉물 등장(부산 5. 11)
* 회동 수원지 수질 비상, 정화 안 된 오폐수 유입, 질소·인 기준치 초과 부영양화 초래(부산 5. 11)

5. 12
* 청소년 범조 갈수록 흉포화, 불량서클 조직 행인 폭행 금품강탈(부산 5. 12)
* 약수터 상당수 식수 부적합, 각 구 4~10곳 대장균 검출(부산 5. 12)
* 연안 방역 체제 취약, 여름철 앞두고 외래 전염병 유입 우려(부산 5. 12)
* 화장장 건립 백지화 요구, 남산동 주민 1백여명 남상 소방 파출소 앞에서 2시간 동안 농성(부산 5. 13)
* 동부터미널 구서 이전 추진, 2003년까지 금정구 4대 권역 종합 개발(부산 5. 13)

5. 13
* ‘화장장 반대’ 연일 연좌 농성, 시립공원묘지 내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금정구 청룡·남산·선동 등 주민 600여명은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시립공원묘지 입구에서 화장장 건립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연좌 농성(국제 5. 13)
* 부산·경남 1/4분기 고용사정 최악상황, 실업 2만3천명 늘어 전국 1/3 차지, 총 실업률 3.2% 증가세, 경제활동 참가율 58%로 뒷걸음질(국제 5. 13)
* 해운대 신도시 연말 본격 공사, 부산시의회, 13일 재무산업 교통도시 문교사회 건설 등 4개 상위를 속개, 현장 확인 및 안건회의 활동 계획(국제 5. 13)
* 낙동강 유역 공단 조성 억제, 부산-경남 행정회의 상수원 보호 공동노력, 하수·분뇨장 조기 건설, 부산시 회동~철마 도로개설 일원화 요청(국제 5. 13)
* 어린이 뇌막염 비상, 종합병원 소아과 환자의 40% 차지(국제 5. 13)
* 부산시, 대민행정 체제개편, ‘1회 방문처리’ 대상 선정(국제 5. 13)
* 부산 지역 백화점 매출「이벤트」의존 커, 부산 시내 주요 백화점들이 최근 들어 이월상품전 창고 개방전 등 이벤트성 매출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부산 5. 13)
* 관, 하도급 업체 보호 “빈말”, 정부 기관「직불제」외면, 공사비 9.8% 수준 민간보다 낮아(부산 5. 13)
* 영업 피해 보상 요구, 지하철 2호선 공사 구간 상인 폐업·이전 불가피…착공 연기 진정서 제출(부산 5. 13)
* 무허가 광고탑 인도 차지, 새마을 운동 영도구 지회, 20개 설치 통합 불편·사고 유발도(부산 5. 13)
* 도개공 안전 대책 무시 택지 조성, 영도구 동삼 2지구, 인근 주민 소음·낙석 등 불편 호소(부산 5. 13)
* “시민들도 공문서 열람 할 수 있다” 시의회「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마련(부산 5. 13)
* 부산시·경남도 12개 공동현안 사업, 5년째 “이견” 거듭, 부산권 행정 협의회 절충 실패, 주민 불편 폐지론 대두(부산 5. 13)
* 사무혁신 적극 추진, 부산시 관용차량 소형화·일반문서 20% 감축(부산 5. 13)
* 시경 국장들 슬롯머신 비호, 부산 단속 계획 번번이 묵살 “의혹”(부산 5. 13)
* 상업지로 변경 건의, 남구청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 준주거지역 업종 제한(부산 5. 14)
* 부산시 불요불급 물품 구입 추진, 의회서 “예산낭비” 제동, 43종 취득 요청에 20종 삭감,「절약 운동」역행 시민들 비난(부산 5. 14)

5. 14
* 산복도로 개설 진정, 가야3동 1천여세대 통행 큰 불편(국제 5. 14)

* 시립미술관 건립 임박, 자료정리 시급, 대부분 미술인들 사진・팸플릿 등 관리소홀, 주요작품・이력 등 종합 정리할 기구도 없어(국제 5. 14)
* 부산 제조업계 뒷걸음, 업체 수 줄고 고용도 작년비 15% 이상 감소(국제 5. 14)
* 부산 중기업 구조개선 자금 외면, 24개사 뿐「선착순 수혜」홍보 안 돼(부산 5. 14)
* 금정산 산복도로 20년째 늑장, 예산 부족 일부만 공사, 4천여m 착공 지연…체증 완화 "아득"(부산 5. 14)
* 청소년 집단 성범죄 "위험 수위", 올해 발생 강간 사건 중 80% 넘어(부산 5. 14)
* 부산・경남 경계 불합리한 곳 많다, 생활권・행정구역 서로 달라 불편(부산 5. 14)
* 교육감과 교사와의 대화(부산교육 5. 14)

5. 15
* 부산시, 시의회 '위원회'구성 결의안 통과, 아시안게임 부산유치 본격화, 문체부도 적극지원 약속, 사직동 메인스타디움 98년 완공(국제 5. 15)
* 부산시, 해수욕장 운영계획 수립, 올해를 '해수욕장 선진 질서 정착의 해'로 선정하는 등 93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수립, 관련구청에 하달(국제 5. 15)
* 청소년 선도계획 겉돈다, 남구, 현장계도・안내판 설치 연례 행사만(국제 5. 15)
* 부산 관가 "암행감사" 비상, 감사원 전국 40명 파견, 민원 관련부서 공무원 전전긍긍(국제 5. 15)
*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부진, 내달 1일 완공 어렵다, 이달 들어 공사 진척 불과 5%(국제 5. 15)
* 부산 주택 업체 타지 공사 활발, "탈부산" 전국 진출 올 13개 업체 공략 나서, 미분양 사태 택지난 극복 부심(부산 5. 15)
* 부산 해양 박물관 건립 "표류", 시 기본 계획 외 후속 일정 못 세워, 부지 매립도 어려울 듯(부산 5. 15)
* 관광객 유치 사업 펼쳐, 해운대구청 EXPO 맞아 셔틀 버스 연장 운행 등 건의(부산 5. 15)
* 일선 구청 자료실 "있으나 마나", 자료부족・전문성 결여, 인력확보・도서 구입 예산 책정 시급(부산 5. 15)
* 화장장 건립 반대 주민 백지화 요구 농성 계속, 시립 공원묘지 인근 주민 7백여명 시립공원 묘지 진입로 점거, 농성 계속(부산 5. 15)

5. 17
* 신발업체 불요불급 시설자금만 홍수, '발등의 불' 운전자금은 가뭄, 운전자금 긴급지원금 15일만에 바닥, 시설자금 호황 때 이미 확장, 신청외면, 업계, 정부 합리화자금 용도 전환 호소(국제 5. 17)
* 부산~울산 항로 올 개설, 충무~제주 등 관광항로 4곳도 신설, 충무~제주 간에 쾌속선들이 운항하고 부산~울산에 여객선들이 취항한다(국제 5. 17)
* '태종대' 주차장 태부족, 시설 확충 못해 관광객 감소 부채질(국제 5. 17)
* '행정쇄신' 제자리걸음, 부산시 기획단 출범 두 달째 별무효과, 준비 미흡에 시민 참여 유도 소극적, 잦은 회의 등 행정 공백만(국제 5. 17)
* 수출업체「협의회」만든다, KOTRA 부산 무역관 "과다경쟁 방지 내부 협조 강화"(부산 5. 17)
* 부산 건설 경기 "춘곤증", 건축허가면적 큰 폭 감소, 전국 회복세와 대조적(부산 5. 17)
* 제3회 동아시아대회 부산 개최 잠정 결정, 17일 NOC 조정위 정식 토의, 대한체육회 시에 유치 제의(부산 5. 17)
* 의료기관 지역 편중 극심, 동래・진・남구에 집중 해운대・영도・강서구는 10%도 안 돼(부산 5. 17)
* 수돗물 사용료 인하 건의, 신평・장림 공단업체 t당 4백원 부담 재정 압박(부산 5. 17)
* 명지・녹산 공단 조성 차질 우려, 관행어업 보상 제외 주민 반발(부산 5. 17)
* 3회 동아시아 대회 부산 유치 실무 작업, 구덕운동장 메인스타디움 사용, 시 예산 산정 등 착수(부산 5. 18)

5. 18
* 금정구, 구청시설 개방, 청사 주차장과 회의실 대강당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탁구장 등을 주말 등 공휴일에 한해 무료로 개방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국제 5. 18)
* 베트남 난민 이주완료, 해운대구 재송1동 1005의 8 옛 베트남 난민보호소에 끝까지 남아있던 베트남 난민이 17일 오후 뉴질랜드로 출국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용돼있던 베트남 난민의 제3국 이주가 완료(국제 5. 18)
* 부산시, 문화체육부에 정책건의, "문진금 지역 환원 법장치를", 한해 15억 거둬 고작 5% 지원, '문화 불모지' 오명 해소 기회로(국제 5. 18)
* 대 중국진출 제조업 중심 탈피, 금융・서비스 진출 채비, 현지 지방채 인수 검토, 육상 화물 운송로 개설 타진(부산 5. 18)
* 건설현장 안전사고 급증, 부산지역 작년 2천7백명 재해(부산 5. 18)
* 시, 해외상설직판장 추진, 미 시카고에 15평 규모 20개 업체 참가(부산 5. 18)

5. 19
* 부산시 아시안게임 유치 확정, 세부계획발표 문체부 내부승인・적극지원 약속, 5월 중 범시민 유치 교섭단 구성, 사직 메인스타디움 98년도 완공, 문현 정비창 천5백세대 선수촌(국제 5. 19)

* 동삼1동 분동 시급, 대규모 택지 개발로 아파트 급증(국제 5. 19)
* 김해공항 확장공사 95년 완공, 부산 지하철 부채 탕감책 적극 모색(국제 5. 19)
* 부산항 관제시설 대폭 확충, 영도·송도·감천·제3부두 등 4곳 탑 신설 통제 기능 강화(부산 5. 19)
* 「항만미관 위원회」 7월부터 운영계획, 부산항에 대한 문화·휴식 공간 활용 및 항만 주변 친수시설 확충에 대비(부산 5. 19)
*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상>, 개최계기 「세계 속 항도」 발전 꿈, 정부 획기적 재정지원이 관건, 내년 10월 최종결정…시의회 등 범시민 단체 구성(부산 5. 19)
* 교통난 「주범」 드러나, 부산 승용차 66.7%가 「나 홀로 타기」, 3인 이상 승차에 혜택 추진(부산 5. 19)
* 식수원관리 허술, 회동 수원지 물고기 떼죽음(부산 5. 19)
* 구포 열차사고 부상자 철도청등과 대책 협의(부산 5. 20)
* 광안리해수욕장 탈의장, 공익단체 공동 운영키로, 전매 행위 금지(부산 5. 20)

5. 20
* (주)한양 부도 여파, 해운대 신시가 차질 우려, 공기 지연될 듯(국제 5. 20)
* 장림 유수지 이설 표류, 3년째 사하구청·어촌계 협의 난항(국제 5. 20)
* 부산시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제출, 93년도 교육비 특별 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시 교육 위원회에 제출(국제 5. 20)
* 부산 수출 회복세, 신발 등 일부 주종 품목을 중심으로(부산 5. 20)
* 부산 금융기관 국제화 박차, 국제 차관단여신 참여 미·일 법인 설립, 동남은행 외국환 업무 확대 홍콩 사무소 개설(부산 5. 20)
* 외형 매출액 추적, 부산지방국세청 올 소득세 서면신고 기피자 이례적으로 외형 매출액 전액 추적(부산 5. 20)
* 부산지역 주 수출시장 바뀐다, 아주, 북미 제치고 1위(부산 5. 20)
*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중>, 10개 종목 경기장 새로 만들어야. 승마·종합 사격장 부지선정 난항, 메인 스타디움 854억 들여 건설 교통 대책도 시급(부산 5. 20)
* 강서구 일대 그린벨트에 산폐물 방치, 수백t 몇 년째 버려져, 농지 등에 야적 토양 오염, 처리업체 못 구해 해결 난관(부산 5. 20)
* 낙동로 가변차선제 추진, 차량 주행 속도 20% 가량 향상 예상(부산 5. 20)
* 당감 4동 복개도로 확장 공사, 구 의원, 소유 공장 건물 철거 거부, 공사 중단 주민 불편(부산 5. 20)
* 신청사 임대료 4백70%까지 올려, 김해 국제공항 인상분 부담 승객전가 불가피(부산 5. 20)

5. 21
* 부산 중기 제품 유럽서 호평, 신발·면제품들 큰 관심, 유럽시장 개척단 상담액 3천만달러 실적(국제 5. 21)
* 부산~광양항 기능분담 필요, 시베리아·중국 횡단철도와 연계 개발, '컨' 공단 주최 세미나서 제기(국제 5. 21)
* 부산시민 살림 "상대적 빈약", 고소득층 증가 적고 저임금이 원인, 보유율 낮고 주고 소형·저가품, 전국 가구 평균소득 연 1천4백만원(국제 5. 21)
* 김해공항 신청사 개관, 오늘부터 본격 여객 수송 업무, 처리능력 4배 이상 늘어, 동남항공권 중추 발돋움, 미 교통장관·지역주민 등 참석(국제 5. 21)
* 부산~김해 경전철 97년 완공, 교통개발연 사업내역, 총 17.7km, 2천8백억원 투입, 사상역 지하철 2·5호선 연계(국제 5. 21)
* 부산지역 사회복지 학계·실무팀 공동연구로 활성화, 이론·실전 접목 월 2회 발표, 전문성 높이고 「노하우」 교환(부산 5. 21)
*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하>, 교통 문제 해결이 최대 걸림돌, 400만 시민 한마음 호응 있어야, 대만·인니·말련·싱가포르 등 4개국 유치 활동 불꽃(부산 5. 21)
* 김해 공항 국내선 신청사 개관, 부지 10만평 연 천5백만명 수용(부산 5. 21)
* 김해-부산 「첨단 경전철」 노선, 김해~공항~사상역 잠정 확정, 95년 착공 민간 자본 적극 유치(부산 5. 21)
* 을숙도 쓰레기장 시험 반입 시작, 21일 시작(부산 5. 21)
* 부산 업체 해외 시장 적극 공략, 「개척단」 활동 크게 늘어, 수출 계약·상담 등 큰 성과(부산 5. 22)
* 공항로 확장 5백억 지원 건의(부산 5. 22)
* 김해공항 국내선청사 개청(부산시정 5. 21)

5. 22
*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대표 협의회, 전국 기초의회간의 상호정보교환과 일관성 있는 조례심의 등 통일된 의정 활동을 위해 내무부에 사단법인 전국 지방의회 의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허가 신청서 제출(국제 5. 22)
* 부산시,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 추진단 운영, 오는 9월 개장 예정인 북구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개장을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 추진단을 설치 운영키로(국제 5. 22)

* 서 낙동강권 중점개발, 2천년대 동남 경제 중추도시로 정시장 '부산발전' 간담회서 밝혀(국제 5. 22)
* 유엔묘지 '주변정화' 마찰, 묘지관리처-남부서 의견 맞서, 관리처 고물상 등 성역존엄성 해쳐 이전 요구, 남부서 "주민 생존권 제한하는 처사 부당" 거부(국제 5. 22)
* 부산시 문체부 등 철새보호지 해제 "긍정적", 신호공단 7월부터 본격화, 94만여평 부지에 총 5천5백억원 투입, 10만평 바다 매립 인공 철새 서식지 조성(국제 5. 22)
* 설립 요건도 강화, 주택조합 불법 행위 근절(부산 5. 22)
* 지역 정보망 구축 활발, 경제 관련 단체 DB 작업 잇따라(부산 5. 22)
* 「부산·광양」 연계 개발 "현실 안 맞다" 반발, 선사·학계 공급이 수요 창출토록 시설을(부산 5. 22)
* 청정연료 사용 시기 놓고 마찰, 미해결 시 사회 문제 비화 조짐(부산 5. 22)
* 송신소 이전 요구, 영도구 청학동 청학 송신소 일대 주민 시설 녹지 지정으로 재산 피해(부산 5. 22)
* 민원 1회 방문제 실시, 부산 경찰청 민원인 편의 위해(부산 5. 22)
* 「민원 1회 방문 처리」 말뿐, 시·구청 관련 공무원 소극적 운영, 실무종합심의회 "바쁘다" 참석 기피, 문책 보완 조치 따라야(부산 5. 22)
* 오시게시장 6개월간 잠정 허용, 금정구청이 금정구 구서동 오시게 시장을 6개월간 잠정 허용키로 한데 대해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부산 5. 24)
* 금정구청 청소년 체육대회, 금정구 부곡 1동 동현국교에서 주민 학생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정구 청소년 체육대회 및 씨름 왕 선발대회」 열려(부산 5. 24)
* 주민들 공사감독 위촉, 시립 화장장 10월 착공 시 권보사국장 공청회서 밝혀(부산 5. 24)

5. 24
* 국교 2부제 수업 여전, 신흥 주거지역 48개교 2백30학급(국제 5. 24)
* 서민생활 불편·행정낭비, 불합리 법규·제도 천여건, 행정 쇄신 기획단 조사결과 시 3백건, 구청 7백건(국제 5. 24)
* 태화쇼핑 기업 공개한다, 부산 유통업계론 처음, 공모주 43역 발행 예정, 타 업계 파급 효과 클 듯(부산 5. 24)
* 가계대출 억제, 부산 지역 은행 통화 관리 강화 여파(부산 5. 24)
* 일선 보건소들 진료체계 "구멍", 비전염성 질병 증가…관련시설 전무, 현실에 맞는 진료 내용 도입시급(부산 5. 24)
* 어린이대공원 문화재 지정 돌연 해제, 아파트 건립 방조 "의혹", 자연 경관 훼손 우려(부산 5. 24)
* 진구청 "수익 치중" 복지관 이용료 인상, 현행보다 평균 14~30%나 높게 책정됐으나 구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부산 5. 24)
* 시민 휴식 공간 영도 75광장 몸살, 행랑객 무질서·승용차 무단 주차, 편의시설 설치 시급(부산 5. 24)
* 아파트 신축 민원 반발, 일조권 등 주거환경 침해 이유로 집단행동(부산 5. 24)
* 지주들 보상금 인상요구, 한진 CT~눌원 빌딩 간 도로 확장 공사, 동구청이 제시한 피해 보상금 너무 적어 적정 보상금액 요구(부산 5. 26)

5. 25
* 부산항 빈 컨테이너 급증, 올 들어 14만개, 전 물동량의 16%, 수출입물량 감소 반등(국제 5. 25)
* 부산시, 97년 동아시아 경기 2002년 아시안게임 정부에 유치 공식요청, 대한체·KOC측 최대한 지원 약속, 동아시아 개항 1백주년 기념행사 일환(국제 5. 25)
* 중구청, 인사(국제 5. 25)
* 부산시, 그린벨트 완화 해제 추진, 석대매립장·대저동·반여상리 등 일부, 각종 규제 개선방안도, 내달까지 실태조사, 정부건의(국제 5. 25)
* 수영로 가변차선제 확대, 오후 6~8시 30분까지, 구포 고가교~낙동주유소 구간도(국제 5. 25)
* 부산 중기 가동률 회복세, 4월 89%선 진입, 꾸준히 증가(국제 5. 25)
* 석대 매립장 파리떼, 주민들 큰 고통(부산 5. 25)
* 을숙도 하구둑 공한지 방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시설 설치 못해 행락객 급증…교통체증 등 부작용 속출(부산 5. 25)
* 「경제인 협의회」 잇단 발족, 상호 정보 교환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부산 5. 25)
* 경제·행정 규제 10개항 완화 건의, 부산상의 지역개발 및 항만수산 분과 위원회 갖고 10개항의 경제 및 행정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전설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부산 5. 25)

5. 26
* 부산 신발업체 북한 진출, 부영화학 평양에 공장설립, 가계약 체결(국제 5. 26)
* 부산 공동 어시장 경영 공백, 원태어 회장 사의 표명, 전무도 면직, 대행체제로 파행 우려(국제 5. 26)

* 부산경기지표 회복세, 수출 22억달러, 전 부분 완만한 상승(국제 5. 26)
* 제2도시 부산 전국 하위권, 통계청 도내 총생산 비용 호남 11.2%·충청 9.2% 상대적 약세, 신발사양화로 부산 성장률 4.8%선, 지역 간 심한격차, 7년간이나 미공개(국제 5. 26)
* 부산경찰청, 서구청, 인사(국제 5. 26)
* 금융기관 여신 급증, 경제 활성화 조치로 기업 자금 수요 확대(부산 5. 26)
* 부산 신발업 북한 진출한다, 부영화학 평양에 합작회사 5개 라인 설치 가계약, 6월말쯤 대표 방북 구체화(부산 5. 26)
* 공동어시장 운영체계 변경, 회장 책임제 폐지 대의원회 추진(부산 5. 26)
* 부산해항청 92개 선사 설문, "「예선운영풀제」 해제를", 74%가 자유계약제 원해 합동 민원실 "담당자 독단적 운영" 지적(부산 5. 26)
* 공원 부지 내 불법 주차장 조성, 사유지 이유 「개발 금지」 법규외면 "진구청서 묵인" 의혹(부산 5. 26)

5. 27
* 부산시, "증언·감정 조례안 법령위배", '부산시 의회가 통과시킨 시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 위배 돼 무효'라고 주장, 시의회를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에 제기(국제 5. 27)
* 시·구청 사업승인 주민반발, 초읍·연지 '초고층 아파트' 추진, 간선도로 체증우려, 15~25층 규모 '대단위' 잇달아(국제 5. 27)
* 부산 인문고 자율학습 강행, 진학실적 "급급", 교육정상화 "멀다", 교장회의 학습비 징수 결의, "시대 역행 처사", 일선 교사들 큰 반발(국제 5. 27)
* 부산시, 부산경찰청, 인사(국제 5. 27)
* 시 의원 "의정활동 간섭" 반발, 민자, 시 의장선거 「공명」 촉구 공문, 7월 선거 앞두고 후보들 "암중 모색"(부산 5. 27)
* 당근 가격 폭락 울상, 선·두구동 일대, 판로 없어 수확도 포기(부산 5. 27)
* 몰래 소각 악취 소동도, 삼락동 낙동강변 고수부지 간이 운동장 쓰레기장 화(부산 5. 27)
* 부산역 지하보도 낮에도 암흑천지, 교통공단, 임시 상가 철거 후 단전, 시설물 방치 부상 속출(부산 5. 27)
* 구포 열차 참사 성금 36억 걷혀, 언론사 포함·시민들 기탁이 가장 많아, 신문사 별로는 부산 국제신문 순(부산 5. 27)
* 지방 교육 재정 부담 가중, 취약한 「살림」 주름살(부산 5. 27)
* 시의회 증언 감정 등 조례안 부산시 대법원에 무효소송, 부산시 의회가 통과시킨 시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 시의회를 상재로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부산 5. 27)
* 산재 발생 크게 줄어, 부산 경남 지역 사업장의 산재 발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부산 5. 27)

5. 28
* 지하철 상가 서민만 골탕, 부산역 강제철거 8일째 마찰, 교통공단 무리한 불법임대 문제 키워(국제 5. 28)
* '신시가' 진입로 공사 2개월째 중단, 철거지역 우범화 우려, 해운대구 우1동 해운대역 인근 해운대 신시가지 제1공구 지역에 (주)한양이 시행중인 해운대 신시가지 진입로 확장 공사가 2개월째 중단, 미관을 크게 해침(국제 5. 28)
* 부산 기업 해외투자 대형화, 건당 금액 전년 비 3.5배 늘어, 동남아 시장 적극 공략, 저임 노동력 확보 추진(부산 5. 28)
* 부산 국세청 비좁다, 업무 폭주로 포화상태 이전 시급(부산 5. 28)
* 부산 상징 축제 하나로 통합, 종합적인 바다예술 행사로 마련, 각 협회별 총력지원·협조 다짐, 개최시기 문제 가장 큰 걸림돌(부산 5. 28)
* 쓰레기 장기대책이 급하다, 을숙도 매립장 연한 불과 1년, 후보지 생곡지역 조성 2년 걸려, 시 압축·소각·해양투기 등 비상 대책 마련(부산 5. 28)
* 청정연료 사용 1년간 연기 요구, 시기가 연기 되지 않을 경우 목욕요금 현행보다 33% 인상 움직임(부산 5. 28)
* 공익단체 운영 "하나마나", 해수욕장 시설 이용료 20~30% 인상(부산 5. 28)
* 제22회 전국소년 체육대회(서울, 경기, ~5. 31)(부산교육 5. 28)

5. 29
* 인사돌풍 예고, 검찰 "술렁", 부산 일선 검사들 '물갈이' 대상·폭 등에 촉각(국제 5. 29)
* 큰 건물 '용도변경' 여전한 악습, 동부지청 37명 무더기 입건, 눈가림 준공 검사 뒤 무단 증축·시설 변경, '가벼운 벌금' 효과 없어 겁낼 만큼 물려야(국제 5. 29)

* 회동수원지 수변공원 개발, 친수공간 확보…부산 최대 규모로 백21억 들여 오폐수 처리 시설(부산 5. 29)
* 공과금 가구분할 요금 혜택, 적용 시기 달라 애로, 수용가들 불편(부산 5. 29)
* 공업고 운동장「컨」하치장 임대, 동명 문화학원 돈벌이 혈안, 일부는 유로 테니스장 "배움터를 영리장 하다니" 반발(부산 5. 29)
* 불량배 설쳐 관광지 먹칠, 해운대 신시가지 일대 도로공사 보상 문제로 집 철거 안 돼(부산 5. 29)
* 동천 정비 예산 부족, 착공 1년 넘도록 공정 19% 불과(부산 5. 29)
* 거제동 정비창 택지 개발, 6월쯤 본격 착공, 부산시 육본 가격 재 감정 합의(부산 5. 29)
* 경영난 기업 종소세 신고 연장, 부산 국세청 최고 6개월 개인 사업자도(부산 5. 29)
* 부산시, 인사(부산 5. 29)
* 시내버스 횡포 심각하다, 끼어들기 일삼아 교통질서 문란 주범, 정류소 지나치고 승객에 폭언 예사, 하루 평균 백여 대 위반(부산 5. 29)
* 화장장 건립 반대 주민 구청장 사택서 농성, 시립 공원묘지 인근 주민 3백여명(부산 5. 29)

5. 30
* 용원~가덕도 간 유·도선 대형 해난 사고 불안, 정원 초과·무허가 영업, 안전시설도 없이 운행 "위험 천만"(부산 6. 1)

5. 31
* 부산시, 남구청, 서구청, 인사(국제 5. 31)
* 어시장 정관개정 마찰, 위원장제 부활조짐에 중매인 등 반발(국제 5. 31)
* 부산무용 힘찬 기지개, 시립무용단 공연 등 내달 중 춤판 잇따라, "침체" 성급한 우려 불식, 무용 활성화 기대(국제 5. 31)
* 부산~오사카 항로 내년 재개, 국제 훼리 운항 계획서 제출, 지난 2일 회사 측의 적자누증을 이유로 운항이 중단되고 있는 부산~오사카 간 뱃길이 빠르면 내년 초부터 다시 재개(국제 5. 31)
* 주택가 쓰레기 방치 땅, 간이 주차장 조성계획, 금정구청, 하절기 전염병 예방과 주차공관 확보를 위해 주택가 쓰레기 방치 나대지를 간이 주차장으로 조성(국제 5. 31)
* 온천장일대 도로 확장 시급, 호텔 등 대형 시설 밀집해 체증 극심(부산 5. 31)
* 부산「환경시비」거세질 듯, 환경분쟁 조정위 공사장 피해 첫 배상 결정계기, 한전 지하 굴착 지하수 고갈(부산 5. 31)
* 브라질, 부산 신발 등 투자 요청, 최근 부산지역 기업의 새로운 해외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이 부산 기업의 신발 섬유 기계를 비롯 목재 제지업 및 건축 관련업 진출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부산 6. 1)
* 철거 된 부산역 상가 상인 동구청서 농성, 상인 30여명 동구청에 몰려가 생계대책을 세워줄 것 등을 요구하며 1시간여 동안 농성을 벌였다(부산 6. 1)
* 한일 연안해협 시도현지사 회의(일본 사가현)(부산시정 5. 31)

6. 1
* 부산 수출 상승세, 부산지역 수출이 지난 2월 이후 연 3개월째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부산 6. 1)
* 녹산 공단 조성 공사 사전 공동 도급 설치, 지역 업체 수주난 해소 권익 보호 기대, 입찰 공동 날인 횡보 방지, 토개공 정부기관으로 첫 도입(부산 6. 1)
* 시 살림 공매 관심, 시「시민 1일 시정 시찰제」실시, 25회 걸쳐 학생 등 3천명 참여 희망자 선착순 6개 코스 실시(부산 6. 1)
* 사하지역 도로 상태 최악, 곳곳 파이고 자재방치 사고 우려(부산 6. 1)
* 노인 농장 운영 인기, 금정구청 이익금 경로당 운영비 마련(부산 6. 1)
*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부실" 가동, 침하·오염 부작용 우려, 연약지반 보강 공사 등 미흡, 6월 장마 침출수 대량 유출(부산 6. 1)
* 환경 자율 봉사대 가동, 부산진구청「쾌적한 생활환경 진구 주민들이 가꾸자」방역 방범 거리 질서 환경 미화 등 4개 봉사대 각 2백90명으로 구성(부산 6. 2)
* 가구당 5백만원 융자,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 규모 1백억원으로 확정(시보 6. 1)
* 을숙도쓰레기매립장 가동(부산시정 6. 1)
* 제11회 부산연극제(~20)(부산시정 6. 1)

6. 2
* 남구청, 민락 매립지 '주차장 설립, 오는 7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날로 심각해지는 광안리해수욕장 주차난에 대비, 민락동 민락타운 앞 해안도로와 매립지에 주차장 설치(국제 6. 2)
* 을숙도 새 매립장 반입 중지, 용역사 선정때까지 미뤄, 냉장고·가구류 처치 곤란(국제 6. 2)

* 부산시립예술단 조직개편 자율화 시급, 조례 개정 때 획일성 탈피 최대 보장 돼야, 예술감독제 시행 등 논란, 공청회도 필요(국제 6. 2)
* 증권거래 부산 사무소 세운다, 내년 개설 부산 상의 건의 수용(부산 6. 2)
* 유통업, 정보화 사업 "편식", POS 시스템 도입에만 관심, 부가 통신 망 등 꺼려(부산 6. 2)
* 건설 무면허 시공 여전하다, 불법 하도급 등 22개 종합 업체 적발(부산 6. 2)
* 시 철거민「순환 주택」건립, 도시 재개발에 "무게 중심", 택지난 해소 개발 비용 절감 기대, 세제 감면 등 행정·재정 지원 강화(부산 6. 2)
* 매립지 해안도로 침하, 남천동 삼익단지 안전 진단 외면 붕괴 위험(부산 6. 2)
* 경비용역 약관 업자만 유리, 면책 문구 마음대로 추가 책임 회피(부산 6. 2)
* 건설부조리 본격 단속, 부산시 7월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반 가동(부산 6. 3)
* 부산 공정거래사무소 기능강화, 교육 홍보에 치중해 있던 부산 공정거래사무소의 기능이 현장 지도 및 기업의 자정활동 유도 등으로 한층 강화 된다(부산 6. 3)
* 간선도로 측구 정비 소홀, 북구 일대 토사 쌓여 침수 일쑤 체증 심각, 장마 앞두고 준설 등 대책 시급(부산 6. 3)
* 부산 광역 교통 기본 계획 최종 확정, 10개 도시 고속 도로망 구축, 대중 교통체계 도로서 철도 위주로, 시 세부 시행 안 수립 착수(부산 6. 3)
* 1백45척 좌초·침몰, 부산 경남 호우 6명 실종·병커C유 유출(부산 6. 3)
* 「부산직할시 교육상 조례」중 개정 조례 공포(제3016호)(부산교육 6. 2)
* 「부산직할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 공포(제3017호)(부산교육 6 .2)
* 「부산직할시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공포(제3018호)(부산교육 6. 2)
* 「부산직할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공포(제3019호)(부산교육 6. 2)

6. 3
* 부산시, 93년도 추경예산 9백9억2천2백만원을 확정, 시의회에 상정(국제 6. 3)
* 부산시, 인사(국제 6. 3)
* 부산도시교통 정비계획 확정, 20년간 22조원 투입, 중앙정책 심의위 통과,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등 오는 2011년까지의 부산시 장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국제 6. 3)
* 인공섬 건설사업 공정, 민자 유치 실패, 1년이상 연기, 올 들어 수차 계획 변경, 1억 예산 새로 들여 용역 의뢰키로(국제 6. 3)
* 부산시, 민원분야 5백명 교체, 부산시 내무부 대폭인사 따른 후속책(국제 6. 3)
* "회동 수원지물 맑아진다", 공동 오수정화조 곧 착공, 관리비 부담 문제로 착공이 지연돼 왔던 회동 수원지 일대 공동 오수 정화조 설치 공사가 금정구청의 한시적 관리방안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오는 7월께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수원지 수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국제 6. 3)
* 부산항 선박안전 관리 "구멍", 악천 후 때마다 무더기 좌초·침몰, 안일한 상황판단 '인재' 악순환, 교신시설·구조장비도 태부족, 늑장예보까지, 어제 23척 피해(국제 6. 3)
* 아시안 게임 유치 부산 재도약 디딤돌, 준비위구성 42국 상대 로비 총력, 기반 시설 확충 국고 지원 극대화(부산 6. 3)
* 롯데·해태제과 세무조사, 부산 국세청 무자료 거래 협의 포착(부산 6. 3)
* 동·진구청 업무 협의회 구성, 지역 이기주의 벽 허물자,「지자제 후 단절」타개 앞장, 망양로 교통 체증, 안창마을 등 현안 논의(부산 6. 3)
* 대형병원「감염」방비 엉성, 병원 노련 부산지부 조사, 방역도 6개월 한번(부산 6. 3)
* 감염 축산물 등 불법 처리, 동물 검역소 규정 무시 부지 내 야산에 묻어(부산 6. 3)
* 의사가 자기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자기에게 마약을 투여한 경우 마약법위반여부에 관한 판결(부산고법92노1218)(법원사 6. 3)
* 밀수입 한 대만산 참깨에 대한 관세법상의 관세포탈액 산정을 위한 관세가액 결정방법에 관한 판결(부산고법 93노204)(법원사 6. 3)

6. 4
* 관세 징수액 크게 감소, 올 들어 8천여억, 작년비 11%나 줄어(국제 6. 4)
* 중기 구조조정 자금 절차 대폭 개선, 부산지부서 직접 대출, 금리 2% 인하, 처리기간도 단축(국제 6. 4)
* 부산 건축 경기 회복, 4월 주거용 허가면적 작년 2배, 부산지역의 건축경기가 주택건설 활성화에 힘입어 점차 회복(국제 6. 4)
* 부산시, 부산 시청사 10월 착공, 해양박물관 건립 내년 본격화, 석대 매립장에 농산물 도매시장(국제 6. 4)
* 동 배정 차량 관리허술, 종보 미가입 사고 때 운전사만 피해, 예산부족 내세워 기피(국제 6. 4)

* 엄궁 농산물 시장 연내 개장 불투명, 법인 구성·도로 보상 시비 장기화, 입주 상 이해 다툼 치열(부산 6. 4)
* 중기 구조조정 기금 금리 인하, 진흥 공단 부산지부 직접 대출도(부산 6. 4)
* "중기 통관 업무 완화 해 달라", 부산상의 24개 행정규제 개정건의(부산 6. 4)
* 피해 어민 보상 막연, 조난 선박 대부분 보험 미가입, 기름 오염 해역 계속 늘어, 손실액 13억여원 추계 마찰 불가피(부산 6. 4)
* 부산시, 인사 외압·무원칙 형평성 잃어 직원 공감대 결여, 승진길 막아 위화감 조성(부산 6. 4)

6. 5
* 중구청, 서구청, 영도구청, 인사(국제 6. 5)
* 부산 지방 환경청 발표, 낙동강물 마실 수 없다, 3급수 이하 전락, 90년대 들어 최악(국제 6. 5)
* 구사업 공영방식 채택, 사하구 조례개정, 민자유치로 공유수면 매립(국제 6. 5)
* 중고교 외곽이전 난항, 땅 못 구해 오갈데 없어, 학교주변 개발극심 교육환경 최악(국제 6. 5)
* 정부, 부산에 5천억 지원, 현안사업 11개 해결 실마리, 시청사 해양박물관=농산물시장 박차, 재원부족 빚더미 지하철 공사도 숨통(국제 6. 5)
* 부산 어음 부도율 감소, 교환액의 0.35%선, 금융지원 등 효과, 작년 2월 이후 최저(국제 6. 5)

6. 7
* 일선학교 컴퓨터 교육 차질, 전문교사 거의 없어, 일반 교사 상대 연수도 '조작' 수준만(국제 6. 7)
* 부산 지역소비자 운동 활성화 시급, 인력·재정난 적극 활동 한계, 시 지원액 서울의 10% 수준 불과…확대 절실, 피해 예방 차원 보호 나서야(부산 6. 7)
* 쓰레기 단순 매립 의존, 을숙도 매립장 압축기 고장…사용시한 줄어들 듯(부산 6. 7)
* 폭우 때 농경지 침수 우려, 강서 대저 2동 김해 공항 배수로 기존보다 항상 높아 도로 폐쇄…주민 통행 불편 호소(부산 6. 7)
* 부산역 주변정화 못하나, 술판에 고성방가·쓰레기 오염·부랑아 득실, 여행객 눈살…대책 시급(부산 6. 7)
* 부산시 지역 실정 부합 조직개편 확정, 신발 섬유·교통단속계 신설, 예산 절감 기구 축소(부산 6. 7)

6. 8
* 부산시 전개 "만년필을 씁시다" 이색운동, 사인펜 등 1회용품 억제, 40~50대 공무원들 사이에 좋은 반응(국제 6. 8)
* 부산 도시개발 공사, 조성 분양중인 학교상가 부지가 매각이 안 돼 자금난(국제 6. 8)
* 해운대 세무서 이전 95년까지 신시가로, 부산 해운대구와 경남 양산 일부지역을 관할하면서도 동래구 거제동에 위치, 납세자들의 민원을 사왔던 해운대 세무서가 95년까지 해운대 신시가지로 이전(국제 6. 8)
* 부산 국제 신발전 10월 개최, 16일부터 참가자 신청 접수(국제 6. 8)
* 부산 아시안 게임 체육회 내부 승인, 대한 체육회가 2002년 아시안 게임의 부산 유치 계획을 사실상 승인, 유치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척(부산 6. 8)
* 부산지역 CATV설립준비 한창, 8월 현재 9개사 참여 선언, 8개 구역 나눠 총 8곳 신설, 한·미 통상 협상 타결 여부 가장 큰 변수(부산 6. 8)
* 도로 공원 해제 호소, 개발 금지로 30년간 개축 못해 피해(부산 6. 8)
* 노선버스 삼락천변 우회, 시와 부산 교통 공단은 이달 착공되는 지하철 2호선 1단계 사상로 구간공사에 따른 시내버스 소통대책을 마련, 최종 검토를 거쳐 시행키로(부산 6. 8)
* 부산시민 어울 한마당, 공무원·시민화합의 장, 황령산 야영장 등서 다양한 프로 함께, 각계각층 4백여명 참가, 토론·놀이 통해 이해 폭 넓혀(부산 6. 8)
* 임야 훼손 아파트 단지 조성, 부산 동래구 온천 3동 2만7백㎡ 구청 승인 "특혜" 의혹(부산 6. 8)
* 「교통 지옥」 예고, 서면 로터리·보상금 없어 지하철 공정 지연(부산 6. 8)
* 초읍동 분동 시급, 다른 동보다 면적 5~10배(부산 6. 8)
* 화장장 건립 반대 주민 민자당 사무실 서 농성, 두구동 주민 등 4백여명 금정구 부곡동 민자당 금정지구당 사무실로 몰려가 인도를 점거, 3시간 동안 연좌 농성(부산 6. 9)

6. 9
* 구청 공무원 인사 적체 심각, 시청보다 3년 늦게 진급, 사기저하(국제 6. 9)
* 분뇨-하수 병합처리 난항, 부산 수자원 공사 등 관계기관 뒷짐, 시공위치 선정도 못해, 내년 시험 실시 계획 표류 가능성(국제 6. 9)
* 동래구청 30~백년생 나무 무차별 벌채, 녹지 아파트 허가 특혜 의혹, 2개 학교 사태 위험(국제 6. 9)
* 부산시, 인사(부산 6. 9)
* 주택가 공장공해 "10년째 고통", 대연동 유진화학 집진기 가동 안 해, 여름에 창문도 못 열어(부산 6. 9)
* 공익단체 탈의실 운영 "허점", 불법 분양하고 회계 장부도 조작(부산 6. 9)

* 금정구 지역 발전 추진협의회 발족, 개발 제한 구역 60.3% 개정 자립도 37%인 금정지역의 현안 해결과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킨 종합적인 지역 발전 체제를 구축해함께 대처해 나가기로(부산 6. 10)

6. 10
* 경부고속철도 완공 2년간 연기, 2001년 운행 개시, 당초 98년 목표 예산 확보 어려워 전체 공기 지연(국제 6. 10)
* 화장장 문제 적극 중재, 주민・국회・지방의원・기관장 등 참여, '금정구 지역발전 추진 협의회' 발족(국제 6. 10)
* 택지 지방채 첫 발행, 부산시, 오는 10월 4백억 규모(국제 6. 10)
* 운전자금 한도액 상향, 중기 지원금 조례 개정, 올 5백억 지원(국제 6. 10)
* 민락 매립지 무허가 천막횟집 강제 철거, 남구청, 구청직원 176명 동원, 남구 민락 매립지 물양장 주변 무허가 천막횟집 40여개소에 대한 강제철거 실시(국제 6. 10)
* 부산・경남・제주 유휴토지과세 55%가 토초세 대상, 7월 납세 통지서 발송, "가만히 앉아서 세금낼 판" 반발 우려(국제 6. 10)
* '녹지 내 아파트' 감사, 허가 비리 확인 때 중징계(국제 6. 10)
* 부산 제조업 경기 회복세, 순익 증가세로 반전, 12월 결산 법인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부산 6. 10)
* 상담실적 4백28만달러, 부산 상공인 중남대 시장 개척단 큰 성과(부산 6. 10)
* 부산 시장 부임 백일, "현안 해결 발 빠르게 대처", 중앙 부처와 직접 협의 적극적, "시정 홍보 다소 부족" 지적도(부산 6. 10)
* 거리단장 우리 꽃으로, 동래구청 가로변 수입산 외국 꽃 일색 탈피 의도 도라지 꽃 등 3개종 7천여그루 8월부터 식수(부산 6. 10)
* 산사태 위험지 복구 지지부진, 사고 우려 지역 30%만 공사 끝내, 장마철 대형사고 불안(부산 6. 10)
* 지방세 상습 체납자 형사 고발・명단 공개, 3회 이상의 상습적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동시에 명단 공개(부산 6. 10)
* 관련 관청 "소관 아니다" 발뺌 급급, 선박 기름 오염 피해 어민 보상 막막(부산 6. 10)
* 2000년 제81회 전국체전 개최지 부산시 확정, 부산이 200년 제81회 전국 체전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2002년 아시안 게임 국내 유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부산 6. 11)

6. 11
* 해항청, 패소 '도시계획' 강행, 부산진역~용당 6km 철도 복선 공사, 재소송 중 주민 큰 반발(국제 6. 11)
* "얄팍한 행정" 주민 반발, 화장장 건립 무마용 문화회관 추진(국제 6. 11)
* 제3영도대교 건립 시급, 대단위 아파트로 교통량 폭증(국제 6. 11)
* 부산 도매 업계 기능 약화, 메이커 직판 비중 높아져, 상의 실태조사 계약 시 98%가 답보 요구(부산 6. 11)
* "개인 서비스료 인상 자제", 이・미용업 업주 등 결의 잇따라(부산 6. 11)
* 엄궁 농산물 시장 개장 왜 늦어지나, 입주 법인 구성이 걸림돌, 지분・유사상인 참여 이견(부산 6. 11)
* 아시안 게임 전담 기구 절실, 업무 이관 문화 예술과 노하우 없어, 시 기구 축소 통합 실무 기획단 역할 미지수, 체육회 참여 주장도(부산 6. 11)
* 중천 복개 요구, 감전 1동 주민 취락위험・침수 피해 시달려(부산 6. 11)
* 서구 꽃마을 골프 연습장 안전시설 미흡, 골프 연습장이 안전시설 미비로 잦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감독 기관인 구청은 이를 방치 하고 있다(부산 6. 11)
* 도로 사업소 골재 채취장 발파 작업, 회동 수원지 안전 비상, 2~3백m 거리서 매일 2~3차례씩 지반 침하・댐 균열 우려(부산 6. 11)
* 동물 검역소 무산지소 밀수 축산물 야산 매장, 서구청 국립 동물 검역소 부산지소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부산 6. 11)
* 철도 복선화 공사 주민 피해, 감만 1동 마을 중심 통과 소음・분진 극심(부산 6. 12)
* 회동 수원지 안전 위협 골재 채취장 발파, 상수도 사업 본부 누수 방지 대책 수립(부산 6. 12)
* 화재 위험지 마무리 손질, 6월 중순 이전 재해 위험지와 각종 공사장에 대해 재해 예방 사업을 마무리 짓기로(시보 6. 11)
* 한・일 교환 관광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시 하카타(博多)역 구내 전시장서 개최(시보 6. 11)
* 추경 예산안 등 심의, 시의회 제23회 임시회가 14일부터 23일까지 열려(시보 6. 11)
* 「민원 1회 방문제도」 큰 성과, 획기적 민원 처리 방법 개선 위해 민원 전용 전화번호 8282로 통일하는 등 제도 조기 정착에 총력(시보 6. 11)
* 「시민 1일 시찰」 희망자 공고,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 제공 위해(시보 6. 11)

* 「수출 부산」 활성화 총력, 시는 부산 지역 수출 부진 타개 위해 지역 경제 단체들과 공동으로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등 지역 산업 진흥책 펴기로(시보 6. 11)
* 유관 기관 실무 협의회 개최, 아시안 게임 유치 위해(시보 6. 11)
* 10개 도시 고속도로망 구축, 교통부 중앙 도시 교통 정책 심의 위원회는 2001년대를 대비 부산권 도시 교통 정비 기본 계획안 통과(시보 6. 11)
* 주민 신고 집중 홍보 기간 설정, 시는 6·25 43주년 계기로 국가 안보 의식 고취 및 불법 폭력 척결에 대한 주민 신고 정신 높이기 위해(시보 6. 11)
* 한일교환 관광전(일본 복강)(부산시정 6. 11)

6. 12
* 군사지역 '해상공원' 검토, 몰운대·이기대 등 해안 절경지 7곳(국제 6. 12)
* 동구청, 추경에 극화 사업비 등 계상, 구의회 "예산낭비" 삭감, 동구청,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가 부담해야 할 공원관리비와 불요불급한 녹화사업비를 계상, 가뜩이나 빈약한 재정형편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국제 6. 12)
* 부산시, 인사(국제 6. 12)
* 엄궁 농산물 시장 8월 개장, 시, 입주 최후 시한 결정, 법인구성 늦을 땐 기존업체 우선 입주(국제 6. 12)
* '수영만 경기장' 시민에게 무용지물 호화 요트 계류장 둔갑, 휴식공간 구실 못 해 외면, 86·88 뒤 방치, 예산 7백억 낭비(국제 6. 12)
* 주택건립 승인업무 구청 일임, 자주적 행정능률 높이기 위해(국제 6. 12)
* 부산 체육 진흥회 창립 "물거품", 회장 내정자 송두호 의원 취임 사양, "정치인 영입은 홀로서기 역행" 비난 목소리도(부산 6. 12)
* 부산시, 인사(부산 6. 12)
* 지하보도 관리 떠넘기기, 교통공단·동래구청 책임 이원화…보수·청소 등 소홀 우려(부산 6. 12)
* "지역 실정 외면" 반발, 시 재임용 대상 동장 50% 교체 방심(부산 6. 12)
* 강서구 덕천 삼거리~가락동 간 도로 교통사고 빈발…주민 불안, 노폭 협소…국토 체증 피한 차량 몰려, 가로등·표지판도 없어(부산 6. 12)
* 송정 백사장 완전 개방, 군 당국 올여름부터 시민 출입 시민 출입 허용, 부산시 군 구체적 협의 착수(부산 6. 12)

6. 14
* 정부, 교통난 완화 부문 확정, 김해에 점보급 새활주로, 97년까지 부산~송정 구간 복선화 우선 추진(국제 6. 14)
* 지방의회 보선시한 180일 '지방자치' 경시 풍조, 의정 운영 파행 우려, 국회의원 결원 때 보다 2배나 길어(국제 6. 14)
* 부산권 광역 전철망 대폭 확충, 신경제 사회 간접 자본 부문 고속 전철 기종 8월 중 선정 발표(부산 6. 14)
* 북구에 입체 주차장 설치, 사상로 주차난 해결 백50대 수용(부산 6. 14)
* 남구 일대 「해안 쉼터」 살리자, 이기대·섭자리·백운포 등 명소 대상 대대적 환경 정화 추진(부산 6. 14)
* 죄질 불문 무차별 연행·역류, 향군·민방위·자동차관리법 기소 중지자 인권차원 개선책 시급, 과태료부과·전과자 입력 금지·조속 훈방 등 건의(부산 6. 14)
* 화장장 건립 반대 재산세 납부 거부, 시립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부산 금정구 두구동 시립공원묘지 인근 주민들이 재산세 납부 거부 운동 청와대 편지쓰기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결정, 파문이 확산될 전망(부산 6. 14)
* 부산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보호, 파농사·김양식·정치망 설치 등 규제(부산 6. 14)
* 군 시설 개방 송정 해수욕장 편의시설 태부족, 탈의장 등 없고 대부분 시설물 낡아 진입로 주차장 협소, 민·군 관할 모호, 7월 개장 어려움 예상(부산 6. 15)
* 공동 관심·연구 문제 논의, 한일 해협 연안 환경 기술 실무 회의 열려(시보 6. 21)

6. 15
* 부산 백화점 업계 「외화내빈」, 백화점 협회 조사 매출액 증가율 전국 평균보다 앞서 수익성은 되레 뒷걸음(부산 6. 15)
* 부산 무역 전시관 7월 중 착공, 추가 예산 확보 및 군사 시설보호 고도제한 등의 문제로 착공이 지연 돼 온 부산 무역 전시관이 7월 중 착공해 내년 4월 완공(부산 6. 15)
* 부도업체 급감, 당좌 거래 점지 13.6% 줄어(부산 6. 15)
* 고지대 주민 물 기근 "허덕", 구서 1동 백여세대 전포 4동 60여세대 수압 낮고 배수관 연결 늑장(부산 6. 15)

* 쓰레기 소각장 설치해 목욕탕 열 공급, 회동 수원지 4개 동 주민 반발 인근주민 “혐오시설 설치하려는 음모” 주장, 금정구청 “공해 방지·주민 위한 순수한 뜻” 입장(부산 6. 15)
* 부산지명 첫 서양지도 공개, 위·경도 없이 한반도 직사각 그려 하멜 표류기 바탕 제작한게 특징(부산 6. 15)
* 지하철 공사로 낙동로 체증 극심, 삼락 수로 등 우회차량 몰려(부산 6. 16)
* 시립 화장장 10월 착공, 기본 실시 설계 진행 중 주민 마찰 예상(부산 6. 16)
* 공업용수도 사업 난항, 95년 완공 계획 5년 연장, 사업비도 당초 보다 5백80억 증액, 시의회 “졸속 행정” 반발(부산 6. 16)
* 김해-녹산 서낙동강권 간선로 신설, 길이 14.4㎞ 너비 40m 계획 앞당겨 내년 착공 96년 완공(부산 6. 19)
* 해수욕장 개장 준비 등 보고회, 시는 15일 본청 회의실에서 안 부시장 주재로 93년 해수욕장 개장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가져(시보 6. 21)
* 해운대경찰서 우동파출소를 우1파출소로, 수비파출소를 우2파출소로 개칭(부산지방청 훈령 제37호)(경찰사 6. 15)

6. 16
* 부산시, ‘승당마을’ 재개발 난항, 2만여평에 추진, 주민 의견 대립(국제 6. 16)
* 부산시, 시도 행정 조직 대폭 축소, 2국 4과 폐지, 당정, 개편안 확정 민방위국 소방본부 통폐합(국제 6. 16)
* 부산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계속, 내무 재무산업 교통도시 문교사회건설 등 5개 상위를 열어 이틀째 부산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작업을 계속(국제 6. 16)
* 해운대 신시가 미분양 우려, 참여 30개사 분양시기 눈치, 오는 9월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업체 간 분양시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우려(국제 6. 16)
*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 총력, 일·대만과 경쟁 치열,「무료」기간 연장전용 부두 등 지정(부산 6. 16)
* “상품권 시장 선점” 비상, 부산 유통계, 발행 허용 대비 일 연수 등 준비부산(부산 6. 16)
* 40개 업체 특별 세무 조사 실시 종합 소득세 불성실 신고 혐의, 부산 지방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 중 대사업자 40여개 업체의 불성실 신고 협의를 포착,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부산 6. 16)
* 축산 시장 수수료 조정, 부산시 위탁 상장·도살 해체 수수료 분리키로(부산 6. 16)
* 시립 박물관 새롭게 단장, 본관 돔식 홀 갖춘 전시실로 전면 개조(부산 6. 16)
* 송정 해수욕장 관리 방안 확정, 오는 7월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의 관리방안이 최종 확정됨(부산 6. 16)
* 모자보건 센터 폐지안 부결, 시 의회 “서민복지정책 역행” 만장일치로(부산 6. 17)

6. 17
* 부산시, 오는 7월부터 분뇨 전량 해양처리(국제 6. 17)
* 부산시 ‘인사태풍’ 초긴장, 내달 기구개편 함께 최대 규모 이동, 공무원들 전개 추이 촉각(국제 6. 17)
* 부산시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를 열어 내무와 재무 산업위 소관 부산시의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 작업(국제 6. 17)
* 부산시 기관장-관계관회의 확정, 23~9월말까지 시행, 4개 분야 11개 시책 중심 적극 추진, “최악체증 숨통 트기” 고육책, 시내버스 2백대 증편, 일방통행 확대(국제 6. 17)
* 임시 공영 무료 주차장 운영, 해운대구청 해수욕철 맞아 수영매립지에 설치(국제 6. 17)
* 지하철 편의 시설 훼손 급증, 5월 말 수리건수 지난해 수준 육박, 시민 공중도덕 실종(부산 6. 17)
* 교통난 완화「100일 작전」돌입, 시내버스 노선 합리적 조정 2백대 증차, 이면로 정비 일방통행·주차금지·허용구분(부산 6. 17)
* 부산시 조직 개편 확정, 다음 달부터 민방위국을 포함, 본청 1국 5과 6계 5 사업소를 폐지하고 3개계를 신설(부산 6. 17)
*「황령산 터널」공법 문제 많다, 발파 충격 커 건물 균열, 대우 시공 나틈식「논넬」로 전환을(부산 6. 17)
* 녹산 매립장 반대 추위 환경 평가 이의 신청, 녹산 쓰레기 매립장 설립 반대 추진 위원회, 녹산 향토문화원에서 회의를 열고 쓰레기 매립장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해 이의 신청(부산 6. 18)
* 지하철 3호선 온천천 고가로 2001년까지 완공, 초읍~사직 너비 40m 도로도 신설 교통 신설 획기적 개선(부산 6. 18)

6. 18
* 부산시, 바다와 하천 강변 등 정화 및 정비대상지역 1백17개소를 선정, 지속적인 ‘시민대청결운동’ 벌임(국제 6. 18)
* 부산시, 인사(국제 6. 18)

* 해운대구 설문조사, 교육비・생필품 너무 올랐다, 물가안정 가장 시급, 인상업소 강력조치 바람(국제 6. 18)
* 부산 L/C 내도액 감소, 5월 2억9천만달러, 전원비 19% 줄어(국제 6. 18)
* 사상공단 영세화, 신발 등 사양산업 밀집・불황 여파(국제 6. 18)
* 부산시,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절전 운동을 강화키로(국제 6. 18)
* 주택 사업 포기 업체 속출, 올 34 기업체 등록 반납, 부산 경기침체 여파… 『말소』도 백43개 나(부산 6. 18)
* 신용장 내도액 감소, 부산지역 5월 들어 전년 동기화 17%(부산 6. 18)
* 부산시, 인사(부산 6. 18)
* 공유수면 매립공사 주민 피해, 먼지・하수구 악취 심각, 영도구 동삼동 부산해항청 시정 요구 무시(부산 6. 18)
* 퇴폐・불법 영업 "여전", 『포푸라마치』 안창마을 일대 당국 단속 외면(부산 6. 18)
* 부산 강서구 대저동서 뇌염모기 발견, 전국에 뇌염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뇌염모기 발견(부산 6. 18)
* 석대 매립장 침출수 『비상』, 부산시의회 추경 심의 과정서 추궁, "책임 소재・안정성 감사해야"(부산 6. 19)

6. 19
* 부산시 건설부 승인, 신청 동서고가도로 10월 유료화, 승용차 600원(국제 6. 19)
* 3/4분기 경기 회복세, 부산 상의, 대중 수출・공동투자 늘어나 낙관(국제 6. 19)
* 시립공원 화장장 곤란, 환경처・건설부 "상수원 보호구역 공식 발표"(국제 6. 19)
* 부산시, 도시계획 고시, 서 낙동강대로 건설, 녹산~김해 등 총 연장 32.6km(국제 6. 19)
* 생곡 쓰레기장 연내 착수, 부산시, 올해 안에 생곡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시작키로(국제 6. 19)
* 민간 참여업체 없어 인공섬 건설 연기, 부산시의회, 19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계수 조정 소위를 구성, 이날부터 21일까지 부산시 9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작업(국제 6. 19)
* '통합 보건 사업' 주민 큰 호응, 동구 보건소 부산 첫 실시, 주1회~월1회 가정방문 건강상태 점검, 영세민 질병보유 파악 진료서비스 향상(국제 6. 19)
* 낙동강 하류 '수화' 비상, 여름철 식수차질 우려, 이상조류 번식 가능성 커, 부산 경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하류에 최근 엽록소 성분이 크게 증가 조류비상(국제 6. 19)
* 대연 양묘장 싸고 신경전, 부산시-"75년 구두합의" 난색, 유엔묘지-무단점유 반환요구, 이제와서 소유권 들먹, 양측대응 주목(국제 6. 19)
* 119구급대 장비부족, 시민이용 갈수록 늘어도 즉각 대처 못해(국제 6. 19)
* 시립 화장장 건립 법리 해석 공방전, 환경처・건설부 "관계법 저촉" 회신, "공원 내 시설 변경은 시장권한"(부산 6. 19)
* 화장장 건립 반대 주민 민자 금정 지구당 농성, 시립 공원묘지 인근 주민 3백여명 민자당 금정 지구당 사무실로 몰려가 『금정구 지역발전 추진 협의회』 창립 목적과 경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 하며 농성(부산 6. 19)
* 동서고가로 9월부터 유료화, 통행료 승용 6백・화물 8백원 확정(부산 6. 19)
* 부산시 새청사 건립 차질, 공사비 당초보다 7백81억 늘어, 국고 확보 애로 공기 수정 불가피(부산 6. 19)

6. 21
* 각 구청 대형쓰레기 처리 골치, 폐가전제품 건축폐자재 버릴 곳 없다, 을숙도 매립장 반입 금지, 해안가 등 방치, 위생환경 악화(국제 6. 21)
* 부산 발전시스템 조사 결과, 항만 고속로망 구축 절실, 화물 우회 수송・도심교통난 해소(국제 6. 21)
* 서부산 개발 '대동맥' 건설, 서 낙동강권 간선망 계획, 녹산공단 둔치도 연료 단지 등 연결, 송정-김해 구간 14km는 폭 80m 광로(국제 6. 21)
* 지하철 2호선 착공, 체증 예상, 부산 지하철 2호선 1단계 222공구 중 서면 옛 부산상고 앞 가야로 2백50m와 한일 레포츠 앞 전포로 1백50m 구간 공사가 21일 착공돼 서면 일대에 극심한 교통 체증 예상(국제 6. 21)
* 해운대 신도시 분양전쟁 예고, 3만호 9월 동시분양 업체 시기조정 결렬 미달사태 우려(부산 6. 21)
* 신발 기술 수준 낙후, 부산 상의 경쟁국에 크게 뒤져(부산 6. 21)
* 단자사 기업 대출 감소세, 자금난 심화 『신규』 중단 사태 우려(부산 6. 21)
* 수출업체 무역 분쟁 잇따라, 올 부산지역 중재요청 35건이나(부산 6. 21)
* 부산실정과 안 맞아, 시 자전거 타기 운동 "1회성 전시행정" 지적, 전용도로 없고 공공장소 보관대 전무(부산 6. 21)
* 부산 KBS~대남 삼거리간 차선 증설공사, 인도 축소…통해 불편(부산 6. 21)
* 광안리 유흥가 범죄 온상화, 변태 영업 극성 10대 탈선 잇따라(부산 6. 21)

* 동남개발연 해륙 수송 토론, “부산항 배후로 대륙진출 교두보로”, 연안국 물동량 흡수 방안 시급, 항만 관련 권한 지방 이양 필요(부산 6. 21)
* 교통소통 1백일 작전 추진, 교통난 완화 위해 짧은 기간 시행 효과가 높은 4개 분야 11개 시책 집중 추진(시보 6. 21)
* 부산 음악 콩쿠르 10회 막 올려, 예선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30일 본선(시보 6. 21)
* 몰운대 등 해안 통제 지역 개방, 시는 육군 오륙도 부대와 군 작전상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몰운대·태종대·신선대·이기대·동백섬·청사포·송정 등 해안 경관 지역을 시민 휴식처로 개방한다는 원칙에 합의(시보 6. 21)
* 문화 소식, 6월 21일 열린 11회 부산 연극제에서 극단「하늘 개인 날」의 <동의보감>이 대상 수상(시보 7. 1)

6. 22
* 부산시의회, 해양·수산 상임위 신설, 추경예산 8백84억 통과(국제 6. 22)
* ‘광역행정협’ 구성 난항, 해운대구청-양산군청 입장차이 커(국제 6. 22)
* 우려가 현실로 서면 ‘체증’ 심각, 지하철 2호선 공사 소통대책 허술, 출퇴근 시간 ‘차량지옥’(국제 6. 22)
* 정부 경제 통계 부산서도 발표, 통계청 지역자료 매달 공개(부산 6. 22)
* 부산항, 교역 중심 부상, 홍아해운-일·중 화물 소송협 TS 계약 체결(부산 6. 22)
* 중고차 매매업계 “지각변동”, 허가 완화로 경쟁 가열, 5개 업체 가세 판매 전략 개발 부심(부산 6. 22)
* “여론 수렴하라” 주민 반발 거세, 시 화장장 건립 추진계획 강행 방침(부산 6. 22)
* 시의회 소식, 예결 특위 3차 전체 회의 열고 9백9억원의 올 1회 추경 예산 중 8백84억원을 최종 확정(시보 7. 1)

6. 23
* 영도 ‘피란민촌’ 모습 바뀐다, 재정 투자 받아 주택개량사업 한창, 한건물 2~3세대 ‘미니연립’ 건립(국제 6. 23)
* 동남개발 연구원 세미나, ‘시 경영사업’ 일원화를, 도개공에 통합, 항만과 신설도 제안(국제 6. 23)
* 부산시의회, 23일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백84억원 규모의 금년도 부산시 제1회 추경과 6백30억원 규모의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폐회(국제 6. 23)
* 부산시, 정부에 신호·명지 등 3백만평 대저·반여동 부분 조정, 강서 그린벨트 해제 요청, 학교 등 신설·주택 증개축 허용도 고려(국제 6. 23)
* 부산시, 심야버스 시범운행, 연말부터 밤 11~새벽 2시(국제 6. 23)
* 부산지역 취업난 최악전망, 기업체 신규채용 축소, 경영자 협 설문 90%가 현상유지·감원계획(국제 6. 23)
* 엄궁 배수장 폐수 방류, 시험가동 중, 학장천·낙동강 악취(국제 6. 23)
* 1/4분기 부산경제 최악, 신발부진 90년대 최저, 지난 1/4분기 중 부산지역 각종 산업의 생산 및 출하 활동이 지난 90년 이후 최악 기록(국제 6. 23)
* 새 동장 누가 되나, 각축 치열, 부산시 월말 111개 동 임기 끝나, 신규임용 대상은 53명, 구청 고참 관계자 눈독, 외압·로비 잡음(국제 6. 23)
* 부산시 “재정파탄” 반발, 정부, 부산교통공단 시 이관 추진, 부채 총액 1조5천억대, 시 저지 총력 실무진 상경(부산 6. 23)
* 대진건업 부도사태 파장, 부산 굴지 업계 재계 “충격”, 하청·보증업체 등 연쇄 파동 우려(부산 6. 23)
* 부산 중기 가동률 전년 비 소폭 증가, 지난 5월 중 부산지역 중소기업 가동률이 전년 동월 대비 2.8% 포인트 소폭 증가(부산 6. 23)
* 부산 중남미 시장 개척단 귀국, 2천6백만달러 상담실적(부산 6. 23)
* 부산시 체육회 자정 운동 나선다, 비위 임직원 자진사퇴유도 거부 땐 인준 취소 등 강행(부산 6. 23)
* 처우개선요구 방범원 강력 반발,「3년 근무 때 기능직 전환」안 지켜져, “시 상대 소송” 움직임(부산 6. 23)
* 용·배수로 준설사업 미흡, 강서구, 정비 3.4% 불과 농경지 침수 우려(부산 6. 23)
* 유엔 묘지 관리처 조치에 시민반발, 출입객 제한 혐오시설 정리, 관리처 “묘지 존엄성 위해 원칙 고수 불가피”, 시민 “산 교육장 빼앗고 생존권 박탈” 지적(부산 6. 23)
* 시의회, 화장장 건립 예산 승인, 주민 반발 거셀 듯(부산 6. 24)
* 사상로 일대 정체 극심,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속도 2㎞ 이상 줄어(부산 6. 24)
* 「제2부산대교」건설 확정, 시 의회 용역 비의결 94년 본격 공사(부산 6. 24)

6. 24
* 부산시 대역사업, 국비지원 삭감으로 상당기간 연기 혹은 무산될 위기(국제 6. 24)
* 금정구 주민들, 시 상대로 소송추진. 상수도원 보호구역에 화장장 설치에 반발(국제 6. 24)

* 부산 YWCA 설문조사, 시민 90%가 수입식품에 부정적(국제 6. 24)
* 배달환경보전회 조사, 부산 덕천동 등 24곳 이산화질소 평균치 상회(국제 6. 24)
* 부산 지역 불량 식품, 기한경과, 세균 기준 초과 유통 등 올 들어 6백여건 부적합 판정(국제 6. 24)
* 부산시, 교육교부금 30%로 축소, 연 1백25억으로 예산 절감
* 부산시 교육청 '사립고교 과학교구확보실태' 제출, 과학실험교구 부족, 사립고 중 60%, 42개교가 기준 미달(국제 6. 25)
* 온천천 상류 오염 투성이, 가정・업소 오・폐수 차집관로 없어 수영강・해안 더럽혀(부산 6. 24)
* 옥상광고탑 풍압 내구력 검사 소홀, 태풍 앞두고 대형 안전사고 위험(부산 6. 24)
* 오 교육장관 발언「망언」규정, 부산시 약사회 항의 농성(부산 6. 24)
* 부산 교통 공단 시 이전 관련 의원들 적극 저지, 경제 기획원이 추진 중인 부산 교통 공단의 부산시 이전을 청와대 내무부 등 관련 부처가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방침 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부산 6. 24)
* 부산 등 6대 도시 이산화질소 독・일의 4~5배, 부산 범일동 지하철역 오염 심각(부산 6. 24)
* 부산시, 인사(시보 7. 1)
* 부산직할시 교육청 사무분장규칙 제313호 3국 3담당관 11과 41계(부산교육 6. 24)

6. 25
* 부산시, 부산경찰청, 인사(국제 6. 25)
* 부산시, 행사 간소화 계획 수립, 한일교환관광전을 민간단체인 관광협회로 이관 등, 예산절감책 발표(국제 6. 25)
* 부산시, 박정진 의원, 가정복지국장에 내정, 시 공무원의 거센 반발(국제 6. 25)
* 대역사업 비상, 제2도시 위기감, 수영강변로 등 현안 무산, 연기 불가피(국제 6. 25)
* "임시수도 기념관「역사의 장」으로", 자료 특성 없고 빈약 "기능 활성화해야"(부산 6. 25)
* 청소년 과학 경진 대회(부산교육 6. 25)

6. 26
* 부산시, 시장공관 활용 여론 묵살, 7차례 의견 수렴 불구, 전시장 전격 결정, 시민 측 즉흥 행정 비난(국제 6. 26)
*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 절반이 국고 의존, 연 30~50% 지원, 갈수록 '공립화' 현상(국제 6. 26)
* 시립공원 묘지 내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500여명이 부산역 광장에서 시위(국제 6. 26)
* 부산시,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의 대형쓰리기 처리를 위해 일선구청에 소각장 설치 지시, 뒷북행정이라는 지적, 전문 용역업체 선정 외면(국제 6. 26)
* 부산 상의 연수원 옮긴다, 지사 명지・녹산 등 후보지 물색 "기존 시설 노후 교육환경 저해"(부산 6. 26)
* 부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증가폭 둔화, 5월 말 현재 부산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총액 전월 말에 비해 3천12억원 늘어나는데 그쳐(부산 6. 26)
* 신평・화명에 아파트 단지, 부산시 5천4백세대 규모 조성, 7월 중 택지 승인 신청, 내년말 착공 다대 등 4곳은 보류(부산 6. 26)
*「엄궁 시장」입주안 확정, 9월쯤 정식 개장 될 듯(부산 6. 26)
* 해운대 신시가 제척지 재개발 추진, 해운대 신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제척지(불량주택지) 17만평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부산 6. 26)
* 해운대 휴일 화물차 통행 제한, 경찰청 5개 해수욕장 교통 대책 마련, 체증 심하면 일방통행・진입 통제 실시 주차장 25곳 확보 계획(부산 6. 26)
* 감천항 임항도로 시설 엉망, 해항청 준공 3년 되도록 차선표시도 안 해, 차량 뒤엉켜 교통체증 심각(부산 6. 26)
* 한진 CY~눌원 간 도로공사 편입 부지 보상 난항, 동구 범일동 547 한진 CY~눌원빌딩 간 도로 확장공사가 편입지주들의 보상금수령 거부로 한달째 지연(부산 6. 26)
* 위락시설 허가키로, 수년간 방치 돼 왔던 민락동 공유 수면 매립지에 대형 위락 시설(부산 6. 26)
* 낙동강 수질 개선 계속 겉돈다, 정부 "1급수 장담" 말뿐 급격 악화 물금 취수장 BOD 한계치 육박(부산 6. 26)
* 국제 와이즈맨 회의 참석, 앙명필 부산 부시장은 26일 국제 와이즈맨 신임 부산 남지방장 취임식에 참석(시보 7. 1)

6. 28
* 미술평론가협회 '하계학술세미나', 부산시립미술관 활성화 대책 필요, 소장품 구입 예산 확충 등 제도적 장치 절실(국제 6. 28)
* 부산시, 충무동~대평동 간 제2부산대교 건설 예정, 기본 설계 용역 착수, 95년 완공 계획(국제 6. 28)
* 철도청, 관광열차 프로그램 운영권 민간여행사로 이관, 여행경비 10% 인상, 시민들의 이용 기피 등 반발 심화(국제 6. 28)

* 탈의장 공익 단체 운영 바가지 근절, 부산시내 공설 5곳 점검 기업·군 휴양소 많아 공간 잠식, 광안리 중심 우범자 집중 단속, 해운대 백사장 모래유실·교통 주차 쓰레기 문제 올해도 심각(부산 6. 28)
* 일부구간 미개통 제 구실 못 해, 미남로터리~청룡동 하마 마을간 산복도로, 구서 주공아파트~신망애 양로원간 예산 확보 못해 10년 넘도록 미착공 중앙로 체증 완화 못해(부산 6. 28)
* 사하구청, 폐수 배출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조치, 식품 운수업체 등 1백34개 중소업체들의 폐수 배출 시설 등 일제 점검에 나서(부산 6. 28)
* 수영로 오후 가변차선제 실시, 29일부터 문현R~대연 4거리 구간(부산 6. 28)
* 김해 공항 소음 대책 "서광", 항공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 활발(부산 6. 28)
* 부산시장 국장·구청장 회의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대한 적극적 추진 자세로 6대 중점정비 과제 가시화 휴지 안 버리기 등 단속(시보 7. 1)
*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노동자의 교섭위원들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서명 무인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는 결정(93카합592)(법원사 6. 28)

6. 29
* 부산시, 자금사정 호전에도 불구하고 '신경제 1백일계획' 성과 불투명, 수출은 작년 비 1.9% 증가했으나 어음부도율이나 물가는 하락(국제 6. 29)
* 부산시, 연산구 분구 체계화, 곧 내무부에 요청, 망미, 수영, 양정동 포함(국제 6. 29)
* 남구청, 필지별 조사, 지번 동일 토지 합병, 10월 말까지(국제 6. 29)
* 부산시, 7월 1일부터 단독주택 증개축과 이륜자동차의 취득세, 면허세 수납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시행토록(국제 6. 29)
* 중구청-서구, 구 경계도로, 구청 간 협의 소홀로 개설효과반감(국제 6. 29)
* 시립공원 묘지 내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금정구 5개 동 주민 4백여명, 금정구청 앞 인도를 점거하고 화장장 건립 반대 농성(국제 6. 30)
* 부산 기업 경기 회복세, 한은 3/4분기 전망 생산 매출 활발 기대감(부산 6. 29)
* 이석희 청장 취임, 29일 취임(부산 6. 29)
*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 건축 허가 유보 조치 해제, 말썽 많던 지역 개발 관심(부산 6. 29)
* 옹벽 없고 노후 붕괴 위험, 까치고개 도로·영도 애향 노인정 장마철 맞아 대책 마련 시급(부산 6. 29)
* 제2부산대교 건설 구간 이견, 구청 송도~남항 주장, 시 선 충무~대평 결정 영도 주민 "시 일방적계획" 반발(부산 6. 29)
* 전시 주택 기획 계장 영장, 문현동 미림 아파트 돈 받고 사업 승인(부산 6. 29)
* 을숙도매립장 악취, 사하 신평동 일대 1만2천여세대 주민 고통(부산 6. 30)

6. 30
* 부산지방법원, 부산시, 인사(국제 6. 30)
* 부산진 부암1동 박재춘, 부산 여성 동장 첫 탄생(국제 6. 30)
* 신발연구소, 부산지역에 10만평 규모의 신발산업단지 조성 시 연간 생산량 15억달러 이상의 물가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결과 제출(국제 6. 30)
* 부산지검 감찰반 운영, 전국 최초, 검사장 직속 3~4명 구성, 다음 달부터 행동 개시(국제 6. 30)
* 부산시 체육회, 가맹 6개 단체장 공석, 해당 협회 업무마비, 보조금마저 삭감, 체전 훈련 엄두 못 내(국제 6. 30)
* '부산항 정책 심의회' 본격 가동, 관, 학계, 민간대표 운영위원 15인 확정, 개발계획 등 사전 심의(국제 6. 30)
* 시 전역 일제 건문 검색, 30일 밤 8시~1일 새벽 1시까지 시내 전역 일제 검문 검색(국제 7. 1)
* 부산 「토착 비리」 30명 적발 10여명 사법 처리, 전 현직 공무원·언론인 등 청와대 암행 감찰 전국 90여명 내주 당국 이첩(부산 6. 30)
* 부산 수출 구조 양극화, 업종 경공업 침체 중공업 활기, 지역 미·일 위축 동남아 급부상(부산 6. 30)
* 청소년 시설 부족, 광안리 해수욕장 개장 준비, 단속 위주 대책에만 머물러(부산 6. 30)
* 부산 최초 여성 동장 탄생, 진구청 가정복지계장 박재춘씨 "동민들과 고락 함께" 다짐(부산 6. 30)
* 어민·해녀 보상 요구, 영도 남외항 좌초 선박 기름 유출 피해(부산 6. 30)
* 구청 정보비 삭감 "구태 여전", 간부직 소폭 현업부서 업무비 대폭, "첫 추경 편성하며 형평 잃어" 지적(부산 6. 30)
* 해운대 신시가지 지하철 건설 난항, 사업비 부담 떠넘기기, 시 교통부 재원 조달 방식 싸고 마찰(부산 6. 30)
* 동장 임용 민자당서 외압, 낙하산 인사에 집단 반발, 주민들 연대 서명·진정 등 잇따라, 고참 계장들 불만 고조(부산 6. 30)

7. 1
* 소비자 물가 6월 중 큰 폭 상승, 부산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 0.6% 올라, 올 억제선 4~5% 위협(국제 7. 1)
* 백화점 상반기 매출 부진, 경기 침체 등으로 매출 실적 크게 부진(부산 7. 1)
* 공영주차장 요금 시비, 공영 주차장의 등급이 토지 용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주차 요금 홍보 미흡 등으로 이용자들과 주차요금 문제로 마찰을 빚음(국제 7. 1)
* 낙동강 식수 부적격 대장균 기준치 초과, 27배 초과(국제 7. 1)
* 관광 종합 계획 난항, 국제화 시대 대비해 추진 중인 부산 중장기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이 관련 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기본 내용 대폭 수정(국제 7. 1)
* 온천장~명장 시내버스 신설, 오는 11일부터 운영(국제 7. 1)
* 5개 해수욕장 개장, 해운대・광안리 등 부산 시내 5개(국제 7. 1)
* 부산↔진해・김해・양산 통화료 30원, 7월부터 시행(국제 7. 1)
* 관내 기업들 잇단 도산, 세수 확보에 비상, 부동산 거의 담보 잡혀 징수 불가능, 재정 난행 우려(국제 7. 2)
* 부산시, 발주 공사입찰, 설계금액 사전공개, 사전누출 등 부조리 방지(부산 7. 1)
* 남구청, 도로・하천・공공요지 지번 병합정리 추진(부산 7. 1)
* 배출폐수 오염 심각, 남구지역 업체 19%나 허용기준치 초과(부산 7. 1)
* 부산시・해운대구청, 월남인 난민보호소, 부랑인 수용에 사용(부산 7. 1)
* 부산시, 직할시승격 30주년 기념사진 현상공모(시보 7. 1)
* 5개 해수욕장 개장(부산시정 7. 1)

7. 2
* 공단 인조 주거지 조성 무리, 신평・장림공단 지역의 극심한 대기 오염 고려 않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국제 7. 2)
* 폐수 시설 관리자 무자격 채용, 수질 오염 가속화(국제 7. 2)
* 부산시, 인사 지연 행정 동요, 부분적 업무 마비 현상, 민원 불편(국제 7. 2)
* 인사, 가축 위행 시험 소장 류중운 등(국제 7. 2)
* 구의원 동장 임명, 부산 시내 일부 구청이 현역 구 의원을 동장으로 임명해 반발 확산(국제 7. 2)
* 해운대 경정장 본격 추진, 동백섬 부근 2백30여억 투입, 내년 착공, 수년 3백억, 관광객 유치 자치 재정 증대(국제 7. 2)
* 사립고 교장 2월 모임, 부산지역 사립고 교장 2월 오후 2시에 동구 청량동 호텔에서 모임, 방학 중 보충 수업 실시(국제 7. 2)
* 아시안 게임 영남권 분산 개최, 정문화 시장「목요 학술회」주체 발표, 재정 부담 줄이기 위해 대구도 포함, 기존 시설 최대 활용(국제 7. 2)
* 부산 연극 도약 자구책 모색, 부산 연협 운영위서 제기, 재교육 기관 개설 연극제 개선책 강구(국제 7. 2)
* 체육 시설 관리 갈수록 엉망, 재 보수비 체육행사 등으로 낭비, 수익 올리기에 급급, 지원엔 인색(국제 7. 2)
* 부산시, 낙하산 동장에 반발 확산, 주민 "자질 없다" 철회요구 서명(부산 7. 1)
* 부산은 신경제지원 효과 없나, 휴・폐업 업체 급증, 제조업 138개 전년비 27% 증가(부산 7. 2)
* 부산연극협회, 부산연극제 예선 성격 띨 엄격한 예비심사제 도입, 연극인 자질 향상위해「연구소」설립추진(부산 7. 2)
* 부산시, 아시안게임 부산유치 부산 상의서 토론회, 목요학술회 주최(부산 7. 2)
* 일선구청, 주정차 단속 동직원까지 동원, 부서별 실적평가…「과잉」부추겨(부산 7. 2)
* 부산시, 택시행정 "갈팡질팡", 모범택시 도입 3차례 시기 늦춰 반발(부산 7. 2)
* 동래구, 연산R 지하도 개통, 공단・구청 관리권문제 매듭(부산 7. 2)
* 부산시, 17일부터 30일간 피서객 수송기간, 차량 증편 및 운행횟수 늘림(부산 7. 2)
* 부산시, 국고확보에 게으름, 중앙 동향 감감… 대폭 깎이자 대책비상(부산 7. 2)
* 영도구청, 부산대교 보수공사 입찰물의(부산 7. 2)
* 증권거래 부산사무소 개소 박차, 부산상의 1층에 8월 3일 예정(부산 7. 2)
* 한국신발연구소, 부산 신발단지 조성, 정부 적극지원 방침(부산 7. 3)
* 제30회 과학전람회 시상식(부산교육 7. 2)

7. 3
* 부산시 교육청 기구 개편 예산 확대(국제 7. 3)
* 노동자 체임 여전, 지난해 도산한 (주) 삼화 등 부산 경남 71개 업체 외 194억원 임금 체임(국제 7. 3)
* 자성대「컨」부두 위험 화물 장치장 5일 개시, 신선대는 7월 말 운영, 시물 유치, 비용은 절감(국제 7. 3)

* 부산 지방 경찰청 감사실과 12개 일선 경찰 서장실에 설치된 민원 부조리신고 센터가 홍보 부족으로 3개월째 실적 거의 없어(국제 7. 3)
* 부산시, 인사(국제 7. 3)
* 예방 접종 부진 전염병 비상, 예산 부족 엄두 못 내(국제 7. 3)
* 단자사 자금 운용 파행, 부산지역 단자사들 6월 결산 맞춰 기업체들에게 꺾기 여전, 콜론 사용, 자금 큰 압박(국제 7. 3)
* 두구동 화장장 착공, 내년 완공 목표로 오는 5월 설계 용역 입찰키로(국제 7. 3)
* 부산시 행정 쇄신 과제 건의, 청룡동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감천항에 사업비 9백18억원 투입 중(국제 7. 3)
* 부산시, 부산복지예산 "쥐꼬리" 서울 6천3백억의 2%에 불과(부산 7. 3)
* 부산시, 공단 「지하철 공사」 마찰, 건설 운영 이원화 절실(부산 7. 3)
* 부산업체, 해외투자 "보따리 장사 규모"(부산 7. 3)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컨」 부두 위험화물장치장 신설(부산 7. 3)
* 낙동강 철새도래지 훼손 심각, 대규모 청소작업 시급(부산 7. 3)
* 부산시, 인사(부산 7. 3)
* 부산시의회, 시의장단 선거 혼미 속 우열 윤곽, 상임 위원장단도 후보 난립, 「부산」 의원 시예산 확보 전방위 로비 결의(부산 7. 3)

7. 5
* 부산 YWCA 「일하는 여성의 집」 개관, 5일 부산 부시장 등 참여(국제 7. 6)
* 을숙도 매립장 시설 인력 보강 시급,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인력 보강 시급(국제 7. 5)
* 오염수 해수욕장 유입,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배수관로의 용량이 적어 비만 오면 각종 생활 오폐수가 넘쳐 백사장으로 흘러들어(국제 7. 5)
* 토지 28% 외지인 소유, 강서구 전체 토지 28%가 외지인 소유(국제 7. 5)
* 의원구속 전직 구의회 흔들, 공무원 위협·압력 예상(국제 7. 5)
* 아파트지구 고시 지역 내 토지소유주, 택지초과부담금 부과에 반발(부산 7. 5)
*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경제에 활력소, 유치 땐 최대 4조5천억 소득(부산 7. 5)
* 부산시, 시립화장장 건립부지 상수원구역 해제건의(부산 7. 5)
* 부산시, 서낙동강 하구권역 규제 중첩, 관계법 통합정비 시급(부산 7. 5)

7. 6
* 사하공단 공해 대책 세워야, 10만 주민 여름철 매연·분진·소음 호소, 여름에 주민들 창문도 열지 못해(국제 7. 6)
* 시의회 지도부 선출 인터뷰, 시의회 지도부 선출(국제 7. 6)
* 전교조 해임 취소 불복, 부산시 교육청은 6일 전교조 해임 교사 15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부산고법의 판별에 불복, 대법원에 산고 제기(국제 7. 6)
* 수영초 인도 줄여 도로 확장, 교통 제증 완화 방안, 시민 보행 안전 위협, 육교 부족엔 종전대로 효과 의문(국제 7. 6)
* 어음부도 부도율 큰 폭 상승, 부산 6월 0.49% 한달새 반전(국제 7. 6)
* 화장장 반대 주민상경 시위, 화장장 건립을 반대 하는 주민 6백여명이 청와대 정부종합 청사 등 방문(국제 7. 6)
* 부산시, 인사(국제 7. 6)
* 우리 쌀 지키기 범시민 운동, 오는 10일 부산 17개 단체 클린턴 방한 맞춰 대회 계획(국제 7. 6)
* 부산시, 파행인사 파문확산, 구청복지과장들 부시장에 철회요구(부산 7. 6)
* 북구청, 북구 영구임대아파트 비생보자입주 건의, 시 전체의 23%가 밀집(부산 7. 6)
* 부산지역 신발업체, 신발단지 조성 구체화(부산 7. 6)
* 부산시, 인사(부산 7. 6)
* 부산시, 쓰레기처리 대책마련, 재활용센터·음식찌꺼기 퇴비화 등 추진(부산 7. 6)
* 화장장설치 반대주민청원서, 부산 금정구의회 본회상정(부산 7. 6)

7. 7
* 낙동강 오염 하구둑 원인, 부산지법 피해 어민 판결 비상(국제 7. 7)
* 무료 주차장이 「유료」 둔갑, 수익 급급 민간업자에 임대, 주민반발(국제 7. 7)
* 부산 건설 업체 아파트 조기 분양 "붐", 해운대 신시가 3만3천세대 9월 공급, 물량 과잉 따른 미분양 우려 앞당겨 "세일"(국제 7. 7)

* 녹산 공단 공비 조달 사전 분양, 부산시-토개공 내달 초「입주 관리 요령」고시, 비싼「바다 땅」계약금 요구는 무리(국제 7. 7)
* 부산시, 인사(국제 7. 7)
* 「미림」수회 공무원들, 7일 미림현대아파트 사업 승인 과정서 거액의 뇌물 받은 공무원들 지위 해제(국제 7. 7)
* 시설 투자 회복세, 부산 기업, 경기 회생 조짐 따라 환기(국제 7. 7)
* 을숙도 휴게소 공해 몸살, 쓰레기 매립장 가동 후 악취・해충 득실(국제 7. 7)
* 시청 회의실에서 부산시장 시장 주체로 제3차 경제기관장 회의 개최, 부산 무역 상사협 극성(국제 7. 7)
* 중병 장애장 요양원「실로암의 집」개원, 사회복지법인 욥의 마을에서 운영하는 중증 장애자 요양원「실로암의 집」6일 개원식(국제 7. 7)
* 비자업무 변동, 부산 미국 영사관의 비자 관련 일반 서비스가 12일부터 변동(국제 7. 7)
* 부산시 의회 상임 위원장 선출, 7일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부회의를 열고 운영, 교통 항만 등 논의(국제 7. 7)
* 위생 업소 저속 상호 일제 정비, 저속, 혐오감 주는 업소의 간판들 일제 정비(국제 7. 7)
* 부산시, 생곡매립장 주민의견 수렴 소홀(부산 7. 7)
* 부산시의회, 상임위원 배정, 7개 위원장 오늘 선출(부산 7. 7)
* 부산시, 인사(부산 7. 7)

7. 8
* 낙동강 수질 전국 최악, 하구둑 담수기능 완전 상실(국제 7. 8)
* 화장장 건립 현행법상 불가능, 금정구의회 화장장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는 7일 7차 회의를 열고 시가 금정구 두구동 시립 공원 묘지 내에 추진 중인 사립 화장장 건립 계획은 현행법상 불가능 하다는 결론을 내고 이 같은 최종 청원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키로(국제 7. 8)
* 국과장 동장 임명 파문 확산, 부산시와 일선구청이 단행한 국과장 동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관해 시민단체들 반대 서명, 인사 철회 요구(국제 7. 8)
* 노선버스 우회로를 찾아라, 부전 복개도로 붕괴위험 진단(국제 7. 8)
* 아시안 게임 유치기획단, 부산시 가동 한달째 표류, 추진 작업 차질(국제 7. 8)
* 부산 등록 차량 43만대 2.5 가구당 1대 소유, 전년대비 16% 증가(국제 7. 8)
* 각종 비리 관련 구속 조사 잇따라, 주요 보직 공성 행정 공백(국제 7. 8)
* 공사장 소음 분진 항의 급증, 여름철 창문 못 열어 고통, 대책 호소(국제 7. 8)
* 부산 무역 상사협 창립, 부산지역 35개 중견 수출 기업들(국제 7. 8)
* 부산시, 교통운영체계 대폭개선, 온천장~금강공원 일방통행제, 부전천복개도 시내버스 통제, 대연R~용소삼거리간 가변제(부산 7. 8)
* 부산시, 사업소세 과세대상 격감, 대형제조업 이전・부도・폐업 여파(부산 7. 8)
* 한일 지자체 수산교류 본격화, 부산경남 등 첫 회의(부산 7. 8)
* 부산시, 아시안게임 분산개최 선언, 체육계 반대 "스포츠시설확보유치・목적 퇴색"(부산 7. 8)
* 부산시, 인사(부산 7. 8)
* 「신경제」약효 없다, 부산상의 분석, 경기회복 기미 여전히 난망(부산 7. 8)

7. 9
* 부산시, 인사(부산 7. 9)
* 시멘트 야적 수질오염, 우암동 하수처리 공사장 도로에 방치…하수구 유입(부산 7. 9)
* 부산・경남 "인상눈치보지" 59%타결, 임금협상 "소걸음"(부산 7. 9)
* 무역협회부산지부, 경제현안 해법모색, 무역・수출・신발업체 주축, 수출활성화 방안 등 도모(부산 7. 9)
* 해수욕철 맞아 바가지요금 고개, 남구청 지도가격위반 13개 업소 적발(부산 7. 9)
*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공인 조례」공포(제3042호)(부산교육 7. 9)

7. 10
* 낙동로 이번엔 지중선 공사,「지하철」끝나자 또 1년 다음달 착공(국제 7. 10)
* 시민상담 부동산 으뜸, 부산 YMCA 시민 중계실이 각종 상담 내용 분석한 결과 부동산 매매 관련 상담이 70% 차지(국제 7. 10)
* 지역 특성 감안 주차료 인하, 영도구청 1급지를 2급지로 조정(국제 7. 10)
* 건축 민원 조정위 빛 좋은 개살구, 고질적인 건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동래구청의 건축 민원 조정위원회가 설치 후 한번도 회의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국제 7. 10)
* 부산시, 인사(국제 7. 10)

* 구포 참사 감독 책임 물어 직위해제, 10일 열차전복사고의 책임을 물어 지난 4월 15일자로 직위 해제했던 정 국장을 복직(국제 7. 10)
* 녹산 공단 96년까지 조성, 분양가격도 평당 70만원이하 합의(국제 7. 10)
* 산학합동 승선 연구, 한진해운이 국내 해운 업계 최초로 산학 협조차원의 「선박 승선 프로그램」을 마련(국제 7. 10)
* 97 동아시아 유치 신청, 97년 3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유치 승인 신청서를 대한 올림픽 위원회에 제출(국제 7. 10)
* 부산항 화물보관료 누적제 실효, 할증액 10% 복리 적용(국제 7. 10)
* 임금 협상 타결률 53%, 부산 경남 평균 임금 교섭 타결률이 50% 넘고 평균 인상률은 6.5% 수준(국제 7. 10)
* 부산시, 해상규제 대폭완화, 「항해금지」 시간 등 축소(부산 7. 10)
* 부산·중국 경제교류열풍, 중국상공인 부산 오는 발길 활발, 부산기업 중국투사 급증세(부산 7. 10)
* 부산시, 인사(부산 7. 10)
* 부산시, 97 동아시아대회 유치신청서 제출, 준비작업 착수(부산 7. 10)
* 북구, 화명매립장 조성 후 농지사용 불가능, 지주들 피해보상 요구(부산 7. 10)
* 부산·광양항공사 첫 채권발행, 2천억 민자유치로 자금난 해소(부산 7. 10)
* 부산시, 녹산공단 조기조성, 당초계획 1~2년 당겨질 듯(부산 7. 10)
* 하구둑 건설 후 낙동강 생태계 "최악", 수질악화로 먹이격감…조류 50여종 사라져, 「인공호수」 조성 논란 예상(부산 7. 10)
* 부산역광장 문화공간으로…건전한 만남의 장 조성(부산 7. 10)

7. 12
* 부지 못 구해 조성차질, 일선구청 자체쓰레기 소각장 추진(부산 7. 12)
* 문민정부 출범이후 억지성 민원급증,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부산 7. 12)

7. 13
* 부산 산업 구조 변화 전국 평균 3배 빨라, 동남 은행 연구 보고서 발표, 수산-제조업 쇠퇴, 통신·금융업 상승(국제 7. 13)
* 지방세 징수 호조, 13일 부산시와 부산상의 집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대비 16.7%나 늘어(국제 7. 13)
* 부산 유치 전국의회 "2류급", 주최 측 무성의 참가팀 절반수준(국제 7. 13)
* 엄궁 공동 집배송 단지 11월 착공 내년 완공(국제 7. 13)
* 해안 전경 7곳 시민 공원 개설, 올 여름 안전 편의 시설 갖춰 일부 개방(국제 7. 13)
* 동구 「문화지대」로 발돋움, 전국 첫 차로 공원 휴식처 마련(국제 7. 13)
* 부산 상해 내달 25일 결연식(국제 7. 13)
* 부산 공직자 부동산 급매, 재산 공개 때 지난 피해 보고자 공직자 부동산 급매, 소유 이전 근저당 설정도 봇물(국제 7. 13)
* 범일과선교 다시 건설, 부산시 41억원 투입, 올해 11월말 착공(국제 7. 13)
* 부가세 표준 신고율 부산 6.3% 인상, 전국평균 4.9% 상향(국제 7. 13)
* 김해공항 신활주로 곳곳장애, 95년 목표 공기 수정 불가피(부산 7. 13)

7. 14
* 30년간 전력 소비량 급증, 부산 35배 경남 2백56배, 30년간 전력 소비량 급증(국제 7. 14)
* 구청서 「전산 프로그램」 개발, 강서구 「토목설계 시스템」 운용(국제 7. 14)
* 부산시교육청, 고시전담 부서 없다, 부산시교육청이 각종 고시 전담하는 부서가 시재 관련 부서에서 이를 떠맡는 바람에 고유 업무 뒷전(국제 7. 14)
* 복지 편의 시설 태부족, 신흥 거주 지역으로 각광 받는 남구에 복지편의 시설이 태부족 주민들 큰 불편(국제 7. 14)
* 의료기관 특별감시, 오늘부터 4일간 1,298곳 대상(국제 7. 14)
* 화장장 반대 시청 앞 시위, 시립 공원 묘지 내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금정구 남실 주민 300여명 부산시청 앞 시위(국제 7. 14)
* 남구 공익시설 턱없이 부족, 소방서·3차진료병원·전화국 등 없어 57만명 주민들 큰 불편(부산 7. 14)
* 부산시내 8곳 정화조 청소업체, 매출액 낮춰 8억 탈세(부산 7. 14)
* 신평·장림공단 복지문화시설 부족, 5만 노동자 불편, 버스노선 모자라(부산 7. 14)
* 의료자율감시체계 허술, 민간위탁 후 적발실적 미미, 부산시 1,298곳 특별단속(부산 7. 14)

* 부산진구청, 저소득층 중학생대상 컴퓨터교실 운영(부산 7. 14)
* 부산시, 동 단위 쓰레기 소각장 설치(부산 7. 14)
* 회동수원지 인근 주민 “상수도설치 시급” 호소(부산 7. 14)

7. 15
* 신발 수출 감소 내수 증대, 고용 인원 2만7천명 작년비 2.6% 감소(국제 7. 15)
* 일본엔 중국 원력 운영 가치 급변 대처, 환차익 극대 추구 세미나, 설명회 등 만원(국제 7. 15)
* 학교 위반 건물 조사, 시는 15일부터 시내 초중고교 및 대학의 위반 건축물 일제 조사에 나섰다(국제 7. 15)
* 식품 진흥 기금 융자 첫 실시, 시가 이달 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을 실시해 식품 위생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국제 7. 15)
* 구청 설문 조사 하나마나, 관변 인사 위주 형식적 실시 신뢰성 의문(국제 7. 15)
* 터널 6곳 대기오염 심각, 질소산화물 등 다량 검출(국제 7. 15)
* 사상공단 임협 순조, 부산 북구 사상공단 내 사업장의 임금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국제 7. 15)
* 등록금 학과별 차등화, 부산대는 오는 94학년도부터 학생들의 등록금을 학과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국제 7. 15)
* 부산시, 7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생곡 쓰레기 매립장 간선도로 및 공항로 확장 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 내년 4월 공사 착공키로(국제 7. 15)
* 부산시, 이기대・송정 등 7개 보호시설, 해안공원 개발운용계획 확정(부산 7. 15)
* 해운대 신시가지 공용 청사부지, 재정난으로 확보 못해(부산 7. 15)

7. 16
* 부산-김해 경전철 24.5km, 부산 김해간 부산권 경량전철을 총 연장 24.5km에 15개역이 건설되며 연간 평균거리는 1.633km로 나타남(국제 7. 15)
* 강서구의회, 그린벨트 해제 공청회 개최, 강서구민들의 현안인 그린벨트 문제 해결 위한 공청회가 16일 오후 열림(국제 7. 16)
* 부산시 대규모 조직 개편, 본청 1국 6과 10계 폐지 기구 축소(국제 7. 16)
* 시향 수석지휘자 경합, 영입대상 늘려 연주회로 평가(국제 7. 16)
* 부산 2/4분기 땅값 2.74% 또 하락, 작년 후 1년째 내림세(국제 7. 16)
* 시민단체 부정척결 나섰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정부패 척결 운동에 나서는 등 활발한 움직임 벌여(국제 7. 16)
* 서구청, 인사(국제 7. 16)
* 「서부」 터미널 교통 체계 조성, 사상역 → 주례 좌회전 등 금지(국제 7. 16)
* 부산시, 신호공단 95년 완공, 가덕도 개발 본격 착수(부산 7. 16)
* 부산항 「컨」 배후도로 공사 엉성, 옹벽 설치 안 해 산사태…공정 차질(부산 7. 16)
* 부산~김해・마산~창원~진해 경전철 연계수송망 고려않아, 사업 효율저하 우려(부산 7. 16)
* 부산시, 인사(부산 7. 16)
* 제15회 고등학생 합창 발표회(부산교육 7. 16)

7. 17
* 을숙도 매립장 사용기간 단축, 슬러지 등 반입 통제(국제 7. 17)
* 부산 「현안사업」 예산향방 주목, 소요액 10개 사업 5,303억, 시 노력 불구에도 전액 반영 기대 어려워(부산 7. 17)
* 부산~김해 경전철사업 무산 우려, 교통부・부산시, 재원조달 등 방식 의견차이(부산 7. 17)
* 일선구청, 직원들의 참여기피 등 지방세 담당자 전문화 “아득”(부산 7. 17)
* 부산 주식 장외거래 부진, 전국거래량 0.4% 그쳐(부산 7. 17)
* 녹산 협업지구 추진, 13개 업종별 중소조합(부산 7. 17)

7. 19
* 송정 해수욕장 개방, 올 여름부터 전국 87곳 출입 허용(국제 7. 19)
* 하수처리장 건설 큰 차질, 정부 예산 부족 이유 사업비 지원 중단(국제 7. 19)
* 투기성 유휴지 매물 “홍수”, 부산 토초세 비켜가기 7월 이후 배 늘어, 김해 양산 진해 지역 대부분(국제 7. 19)
* 서구청, 불법 주정차량들로 차량 소통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관내 산복도로 특별관리키로(국제 7. 19)
* 해운대구청, 해운대가정복지후원회의 지원으로 20일부터 새마을금고에서 여름 모자학교를 운영키로(국제 7. 19)
* 초읍 시민도서관 운영, 초읍동 부산시민도서관은 오는 22일부터 12일까지 무료 교양 강좌 운영(국제 7. 19)
* 부산시・허심청 물 값 시비 법정비화, 계량기 7차례 고장 수도료 거액 추징, “일사부재리원칙 어긋나” 취소소송 제기(부산 7. 19)

* 동래 온천 제5호, 망미 삼성아파트 옹벽 붕괴 위험(부산 7. 19)
* 부산시, 일용직 노동자 재해급증(부산 7. 19)
* 부산시, 쓰레기 매년 감소 추세, 작년보다 10% 감소(부산 7. 19)
* 광안리 해수욕장에 바다도서관(부산 7. 19)
* 부산시, 학교 위법건축물 조사, 시정명령 이행 안 될 시 고발 방침(부산 7. 19)

7. 20
* 부산시 건설본부, 대형 건설 사업 조경 등한시, 쾌적 환경 조성 차질(국제 7. 20)
* 주택 개발 절영로 몸살, 곳곳 파헤치고 금가, 교통 체증도 심각(국제 7. 20)
* 체육장비 구입 보조금 편중 배정 "말썽", 체육계의 사전 의견 수렵도 없이 무시 강행, 일선 단체 거센 반발(국제 7. 20)
* 녹산공단 분양방법 이견첨예화(부산 7. 20)
* 해운항만청, 해상교통안전 시스템 운영(부산 7. 20)
* 부산육상 "고사위기", 경기침체 영향 실업팀 속속 해체(부산 7. 20)
* 남구청, 관내 풍물소재 홍보…애향심 고취, 4월부터 추진(부산 7. 20)
* 동래구청, 재활용작업장 준공(부산 7. 20)
* 다대로~낙동초 간 도로개설, 연내완공 불가능…체증 장기화(부산 7. 20)
* 부산시, 인사(부산 7. 20)
* 「관광부산」날로 퇴색, 3년새 외국인 10% 격감(부산 7. 20)
* 교통영향평가 "형식적", 용역업체, 사업주 이해치중(부산 7. 20)
* 부산시, 신용장내도액 격감, 실적 줄어 하반기 수출전망 불투명(부산 7. 20)

7. 21
* 부산 산업생산 감소세, 5월 중 부산지역 산업 생산 출하지수 지난 해 비해 각각 8.0%, 9.0% 감소해(국제 7. 21)
* 개별 공시 지가 재조정, 지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국제 7. 21)
* 부산시, 전염병 예방 비상 방역 지시, 콜레라 등 각종 전염병 발생 예방 차 각 구에 비상 방역 태세에 관한 특별 지시 내림(국제 7. 21)
* 제조업체 휴가 단협 규정보다 길다, 평균 4.3일 하루 늘어(국제 7. 21)
* 건축사무소 11곳 정업, 건축법을 위배한 11개 건축사 사무소를 적발(국제 7. 21)
* 쓰레기 매립장 반대, 강서구 녹산동 주민 녹산 농협 태야지소 앞에서 시의 생곡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에 반대하는 항의 농성 벌여(국제 7. 21)
* 북부경찰서, 어린이태권도 교실운영(부산 7. 21)
* 제3도시고속도로, 토지보상비 100억 확보 안 되어 건설 난관(부산 7. 21)
* "안방서 민원서류 뗀다", 부산시 12월부터 PC통해 행정 통신망 서비스, 컴퓨터 통신망 이용, 시정 자료 볼 수 있다(국제, 부산 7. 21)
* 동래구청, 제1만덕터널 환기시설보수(부산 7. 21)
* 남구청, 인사(부산 7. 21)

7. 22
* 부산 교육청 개편작업 오는 96년부터 적용, 초·중 「선택 교과제」 도입(국제 7. 22)
* 부산 쓰레기 행정 "단결", 매립장 오라는 곳 안가고 마다는 곳 선정, 차기 후보지 생곡주민 집단 항의(국제 7. 22)
* 용호지구 「주거개선」 차질, 지정 3년째 착공 못해, 주민들 이견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국제 7. 22)
* 부산시, 인사(국제 7. 22)
* 황령산 새 도로 건설, 오는 8월 초부터 야영장서 봉수대 밑까지 도로 건설, 내년 3월 완공(국제 7. 22)
* 부산 시장, 「2천년대를 대비, 신항만 개발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항만 관리권을 항만청으로부터 이관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국제 7. 23)
* 금정구, 시민도서관 건립예정(부산 7. 22)
* 태종대 진입로 미관 엉망, 도로 곳곳 패고 쓰레기 무단방치(부산 7. 22)
* 부산시, 인사(부산 7. 22)

7. 23
* 부산 세관 보세 창고 종합 점검, 수출입 보세 화물 관리 허술, 컨내 장품 도난 빈발, 경비료 부당 징수, 전체 업소 30%가 불법(국제 7. 23)
* 화훼 수출 적극 지원, KOTRA 부산 사무소 네덜란드 전문가 초청, 마케팅 지도(국제 7. 23)

* 구・동 직원 책임 관리제 반발, 시가 기초 질서 지키기 확립을 위해 일선 구・동 전직원들로 하여금 담당 구역 정해 불법 노점상 등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 반발(국제 7. 23)
* 부산대 주변「선교」강화, 청소년 탈선 장소인 부산대 주변에 청소년 선도 활동 강화(국제 7. 23)
* 부산 수돗물 맹독 발암 물질, 부실 수돗물에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보다 독성이 10배 이상 강한 클로로피크린 유기물질 검출(국제 7. 23)
* 부산시, 부산항 관리운영권 지자체로 이관 추진(부산 7. 23)
* 남부경찰서, 유치장내 독서실 운영(부산 7. 23)
* 부산 보세장치장 관리허술, 물품훼손 등 잇따라 신용 실추(부산 7. 23)
* 구정창・동장 포괄사업 실적부진, 사업비 집행 41% 불과(부산 7. 23)
* "항만오염 민간업체가 맡아야", 자율경쟁체제 바람직(부산 7. 23)
* 부산시, 아파트 진입로 대폭확충(부산 7. 23)
* 부산시, 인사(국제, 부산 7. 23)

7. 24
* 부산항 개발 차질 우려, 신규 사업 억제로 예산 삭감 불가피(국제 7. 24)
* 장애인 육교 첫 설치, 영도구 봉래로터리 산업은행 앞(국제 7. 24)
* 부산체신청 93 부산경남 우표전시회, 부산체 신청 24일부터 일주일간(국제 7. 24)
* 정부, 내년시행 비공업지역 공장설립 허용, 부산「성장 관리 권역」지정(국제 7. 24)
* 보건의료 정책 저소득층 외면, 동래 보건소,「십자산 마을」실태 조사 간염 보균자 평균치 웃돌아, 모자 건강 예방 접종 등 정책 혜택 시급(국제 7. 24)
* 체육훈련장에 불법 건물 물의, 양정 모 종합훈련장 자치 운영 위원회가 시당국 승인도 없이 훈련장 부지 내 공터에 조립식 불법 건물을 지어 물의, 부산시 뒤늦게 공사 중지 나서 '허점'(국제 7. 24)
* 부산 중기 가동률 6월 들어 하락, 경기회복 늦어 87% 불과, 하반기도 계속 부진 우려(국제 7. 24)
* 구청 수익 사업 유치 주력, 재정 자립 40~50% 지역 개발 어려워(국제 7. 24)
* 모자 보건 센터 파행 운행,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기관인 모자 보건 센터가 시의 폐쇄 결정과 시의회의 폐지안부결 등을 걸치면서 파행 운영(국제 7. 24)
* 온천천 세병교~연안교간 강변 도로, 소음・분진・사고위험 최악(부산 7. 24)
* 중소가동률 감소세, 부산 증가세 7개월 만에 꺾여(부산 7. 24)
* 영도구청, 영도도로변 쓰레기 투기, 방지대책 적극추진(부산 7. 24)
* 부산시, 공석중인 공보란에 투자관리관 전보발령(부산 7. 24)
* 부산시, 낙동강유역 중금속오염 심각(부산 7. 24)
* 부산시, 인사(국제, 부산 7. 24)

7. 25
* 제2회 부산 노동자 통일 맞아 한마당, 동아대 승학캠퍼스 통일터에서 열려(국제 7. 26)
* 제2회 부산무용제(~26)(부산시정 7. 25)

7. 26
* 영세민 진료 사업 통합, 일선 보건소 8월부터 체계 활성화(국제 7. 26)
* 다대항 축소 건설 확장, 놀란 거듭하던 부산 다대항의 원목 전용부두 개발이 자연 생태계 보전 구역 제외한 지역으로 대폭 축소 건설키로 최종 확정(국제 7. 26)
* 기업체 하기휴양소 편법 설치, 공익단체 시민위한 당초 방안 외면(부산 7. 26)
* 해운대, 백사장유실 땜질처방 급급, 작년 3천t 투입불구 사장면적 9% 줄어(부산 7. 26)
* 부산시, 인사(국제, 부산 7. 26)
* 아시안게임유치 발기인대회(부산시정 7. 26)

7. 27
* 해운대 경찰서 관광객에 교통안내도 제작 배포, 법규 위반 외지 차량 단속 보다 지도 중정(국제 7. 27)
* 신평~당리 새 도로 추진, 신평 장림 공단과 사하구 당리동 곧바로 연결(국제 7. 27)
* 가변 차선제 실시, 시청~자갈치 로터리에 이르는 구간 가변 차선제 내달 2일부터 실시(국제 7. 27)
*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징수율 4.1%P감소, 지역경기 위축현상(부산 7. 27)
* 부산 오존오염 심각, 아황산가스・먼지 환경기준치 크게 밑돌아(부산 7. 27)
* 부산시, 지역국번 일부 변경, 부산진・연산・범일 전화국 관내, 오는 31일 전화 번호 변경, 부산진, 연산, 범일 전화국 일부 전화 번호 변경(국제, 부산 7. 27)
* 부산시, 인사(부산 7. 27)
* 부산시, 유명병원・호텔・백화점 냉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출 "비상"(부산 7. 27)
* 대전엑스포, 부산관 개관(부산 7. 27)

7. 28 * 공사순서 앞뒤 바뀌어 예산낭비(부산 7. 28)
* 부산시・경남, 대형재난 구호 공조, 소방본부 응원협정 체결(부산 7. 28)
* 시립화장장 건립반대 재산세 거부, 납부실적 20% 감소(부산 7. 28)
* 부산경찰청, 출근시간 가변제 실시, 시청앞~자갈치로터리간 도로(부산 7. 28)
* 부산시, 인사(부산 7. 28)

7. 29 * 부산시교육청 조사, 결과초중고생 체격 갈수록 좋아져, 10년 전 대비 2~6cm성장, 체중 2~5kg 늘어(국제 7. 29)
* 부산항 환적 화물 급증, 최초 중국 관련 물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산항 환적 화물 급증(국제 7. 29)
* 가전업계 마이너스 성장, 부산 상의 유통동향 분석 에어컨 매출 50% 감소, VCR, 숙녀복 등 대부분 판매 부진(국제 7. 29)
* 좌석버스 증차 시민 더 불편, 시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가 2년간 좌석버스를 무더기 증차, 일반버스 비중 낮아지고 서비스는 말뿐 업주 수익만 늘어(국제 7. 29)
* 해운대구 좌동 어민 대표 6명 시・구에 어촌 공동창고를 허가 내 줄 것을 건의(국제 7. 29)
* 부산 고질 용지난 해결 기대, 공장 억제「제한 정비 지역」대폭 축소 작업(국제 7. 29)
* 강서구 증개축 허용, 그린벨트 규제 완화 "말뿐", 택지 면적 주택 수 동결, 실익 없고 주민만 불편(국제 7. 28)
* 화장장 반발 재산세 거부, 주민세 25% 화장장 철회 요구 하며 올해 재산세 납부 거부한 것으로 밝혀져(국제 7. 28)
* 경사 진입로 시정 요구 속출, 주거환경 파괴, 사생활권 침해 주장(국제 7. 28)
* 동해 남부 부산전철 노선 변경(국제 7. 28)
* 부산시, 주택사업업무 구청대폭 이관, 입지심의 민간인 참여(부산 7. 29)
* 임금교섭 타결률 저조, 전년대비 9.9% 감소(부산 7. 29)
* 부산지방세 징수 호조, 작년대비 537억 증가(부산 7. 29)
* 금정소방서 개서(부산시정 7. 29)

7. 30 * 취약지역 방역 중・강서구 45곳, 시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오는 8월 2일부터 공동 급수 시설 이용지역인 중구 대청동 16동과 강서구 자연 마을 6곳 등 45개 방역 취약지역에 매주 방역 실시키로(국제 7. 30)
* 아시안 게임 추진위 집행부 인선 정치 입김, 아시안 게임 추진위원회의 일부 발기인들이 추진위원회 회장과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자유경선 원칙 무시, 파행 일삼아 말썽(국제 7. 30)
* 부산지역 부실수출 다시 감소세, 6월 전년비 5.6% 감소(부산 7. 30)
* 인구급증 사하구 다대지구, 시내버스 대폭 증차(부산 7. 30)
* 거제동 파출소 분리시급, 인구급증으로 민생치안 수요 불감당(부산 7. 30)
* 부산시, 인사(국제, 부산 7. 30)

7. 31 * 부산항 건설 사무소 행정력 낭비, 공사실적 저조 불구 기구만 방대(국제 7. 31)
* 부산 첫 국제 조각 교류전, 31일부터 해운대 동백 아트센터에서 국제 조각 교류전 열려(국제 7. 31)
* 서울 업체 부산 택지 독차지, 토개공 상반기 계약 분석, 올해 공급분 61% 확보, 지역 자금난 분양 계약 포기 잦아(국제 7. 31)
* 작년 부산경제 최악, 지난해 부산 경제 지난 80년 이래 최악(국제 7. 31)
* 쓰레기 반입 되레 증가,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해 쓰레기 20% 줄이기 운영 벌이고 있으나 반입 쓰레기량이 훨씬 늘어나(국제 7. 31)
*「신평 레포츠 공원」조성, 사하구 테니스장 등 5개 종목 시설 갖춰(국제 7. 31)
* 대전엑스포 관광객 유치 소홀, 대전엑스포에 대해 형식적 홍보에 치우치고 있음(국제 7. 31)
* 부산지검, 종합민원실 개설(부산 7. 31)
* 부산지검관할 12개 실적분석, 경찰 청구영장 14.8% 기각(부산 7. 31)
* 일본・홍콩 저질프로 안방침투 심화, 유선방송 공청시설 통해 대량공급(부산 7. 31)

8. 2 * 체납 공과금 납부제 개선 시급, 88년 이후 정부가 추진한 통합 공과금 납부제가 체납됐을 때 관계 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토록 되어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커(국제 8. 2)
* 부산시-항공청 이례적으로「항공법」적용 방침, 김해 공항 확장 부지 "강제 수용", 주민들 행정 횡포 큰 반발(국제 8. 2)
* 사회복지 요원 업무 큰 차질,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복지 업무반을 전담하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각종 고지서 발급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국제 8. 2)

* 남포로 가변 차선제 실시, 시청 앞~자갈치 로타리(국제 8. 2)
* 저소득층 109명 의료서비스 지속 실시, 영도구 장기 와병증이면서 치료비가 없어 병원 가지 못하는 109명에 한해 관계기관과 연계해 지속적 의료 서비스 실시키로(국제 8. 2)
* 남포로 가변차선제 실시, 2일 오전부터 남포동 시청~자갈치 로타리까지(국제 8. 2)
* 송도 바다 수질 개선, 지난 6월 오수관 교체 공사의 완공으로 송도 해수욕장 수질 크게 개선, 대장균 수 격감(국제 8. 2)
* 영도·대마도 스포츠 교류, 한일 관계 우호 이해증진·부산역사 교육기대(부산 8. 2)
* 부산경찰청, 「부산경찰」 화보발간(부산 8. 2)
* 부산지역 혈액 수급비상(부산 8. 2)

8. 3
* 영구임대 주택 부실 시공, 모라 2지구 승강기 고장 잦고 편의 시설 부족(국제 8. 3)
* 부산대 캠퍼스 순환버스, 강의실-지하철 연계 캠퍼스 순환 버스 등장, 2학기 개강 맞춰 시범 운영키로(국제 8. 3)
* 「FIPOS'93」 지원, 부산시 경제 기관장 회의 협조 당부(국제 8. 3)
* 「컨」 전용로 예정지 철회 진정, 금정구 부곡동 주민 90여명이 이 일대 부지 이천여평이 도시계획에 묶여 있으나 실제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아 예정지 철회 진정서 제출(국제 8. 3)
* 지도창 부설 아파트 중소규모만 건설합의, 부산시와 부산시 도개공은 남구 광안동 지도창 부지에 25.7평 이하 주소아파트만 짓기로 합의(국제 8. 3)
* 해경 특수구조대 등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중 오물 제거 처리(국제 8. 3)
* 무협지부 분석, "신발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이 효율적이라 지적(부산 8. 3)
* 부산시 상의분석, 부산발전 10년 앞당긴다, 숙원사업 무더기 해결 전망, 생산·소득 유발 5천8백억 달해(부산 8. 3)
* 대저동 등 김해공항 인근 소음피해 보상키로(부산 8. 3)
* 부산시 화장장 국회비화, 주민협 요구 공식의제 결성, 시추진·위법 땐 정기회 상정(부산 8. 3)
* 신 시청사 도로사업 지지부진, 거제로 보상 문제로 진척 절반, 남문구~연산R간도 예산미확보(부산 8. 3)
* 화장장 건립 반대 주민, 공원묘지 진입로 농성(부산 8. 4)

8. 4
* 부산역 광장서 무궁화 전시회, 10일부터 7일간(국제 8. 4)
* 부산항 개방 계획 철회, 해항청 항만 공간 부족 이유 불가 통보(국제 8. 4)
* 유독물 판매소 관리 엉망, 유독물 취급 판매 업소 상당수 부실 운영, 유출 때 대형 오염 사고(국제 8. 4)
* 제조업 역외 이전 가속, 상반기 56개사 떠나 97년 이래 최대(국제 8. 4)
* 다대항 15만평 추가 매립, 환경청의 낙동강 생태 보호구역 조정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수산물·목재 단지 조성(국제 8. 4)
* 환경 개선에 7천억원 투자, 93년 중기 수정 계획 확정, 낙동강 수질 2급수로 개선, 지하철 수송 부담률 24%로, 민간 대형 소각 시설 설치 적극 지원(국제 8. 4)
* 부산시 지하철 재정난 가중, 공단 요구액 절반이상 삭감 위기, 2호선 건설공사 큰 차질 예상(부산 8. 4)
* 제14회 아시안게임 부산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창립(부산시정 8. 4)

8. 5
* 동래의보조합 채용 비리, 시 감사 결과 통보 1명 징계·2명 경고(국제 8. 5)
* 사상공단 산재 격감, 작년 비 4천여업체 발생률 32% 줄어(국제 8. 5)
* 개별 부담금 체납 많다, 개별 부담금제도가 체납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 실효 거두지 못해(국제 8. 5)
* 옛 극동호텔 부지 가건물 공방, 상인·민간단체-구청 맞서, 피서 기간 중 탈의장·장터 운영 요구-단체, 허가땐 해수욕장 질서 무너져 불가-구청(국제 8. 5)
* 부산 폐업 업체 늘어, 올 상반기 중 부산지역의 제조업체 수는 2백965개로 지난해 비해 43% 늘었으나 업체 폐업으로 실직한 근로자는 늘었다(국제 8. 5)
* 부산 상공인 증권사 추진, 영 벤슬사와 합작 신청, 신극동제분 등 주축…재무부 허용 방침(국제 8. 5)
* 부산상공인 증권사 만든다, 신극동제분·부산 산업 등 6개 기업 참가, 3개 외국사지분 44%(부산 8. 5)
* 자가용 승용차 크게 늘어, 부산지역 올 들어 매일 1백63대꼴 등록(부산 8. 5)
* 부산시, 지하철 공사 교통체증 해소, 16개 우회로 건설 7천억 투입(부산 8. 5)
* 아시안게임유치 추진위 운영위원 37명 선임(부산 8. 5)
* 시내버스·택시료 시·도가 독자 결정, 내년 7월부터(부산 8. 5)

8. 6 * 「40계단 기념비」 제막, 중구청은 중앙동 40계단서 구청장과 주민 참석 가운데 기념비 제막식을 가짐(국제 8. 6)
* 서구의회 의장 사퇴서, 동장임명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서구의회의장이 사퇴서 제출(국제 8. 6)
* 체납급증, 세수비상, 부산지역 10개 세무서 2천억 규모(부산 8. 6)
* 부산시, 인사(부산 8. 6)
* 「컨」 부두에 첫 통과 기능, 부산중기지원센터 개설(부산 8. 6)

8. 7 * 저소득층에 학자금 지급(국제 8. 7)
* 쓰레기 수거자 비누 화장지 등 지급, 7일부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쓰레기 되가져오는 시민들에게 사은 행사(국제 8. 7)
* 서면 철물 상가 이전 본격화, 연말 신축 건물 착공…95년 완공 계획(국제 8. 7)
* 「철새호수」 두 곳 내년 초 착공, 57억 들여 신호・을숙도에 조성(국제 8. 7)
*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오는 20일까지 개금 2・금곡 2지구 영구 임대 주택에 입주자 선정(국제 8. 7)
* 시민상 변경 실시, 올 해부터 자랑스런 시민상에 최고상인 대상 신설, 근로상 부분과 독행상 부문 폐지키로(국제 8. 7)
* 부산시, 인사 보건 6급 서구 홍종서 외(국제 8. 7)
* 「영구임대주택」 영세민 외면, 슬럼화 우려 입주 기피…미분양 불 보듯, 시 대상범위 확대 건의(국제 8. 7)
* 주차공단 수입급증 전년비 69.9%나 증가, 각종 주차시설 확보에 밝은 전망(부산 8. 7)
* 부산시 민・관 중국교류 본격화(부산 8. 7)

8. 8 * 범민족 대회 「통일한마당」, 광복절 기념 범민족대회 부산역서(국제 8. 9)

8. 9 * 중금속 측정 들쭉날쭉, 지방환경청 월별 납 농도 큰 차이(국제 8. 9)
* 부산시 종합 건설 본부 업무 집중 공룡화 우려, 포장도로 관리・자재검사까지 도맡아, 고유기능 벗어난 개편(국제 8. 9)
*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정부 보조시설 첫 조사(부산 8. 9)
* 소나무에이즈 사라졌다, 체계적인 방역작업으로 6년만에 거의 박멸(부산 8. 9)
* 부산시, 9일에 영구임대 3천세대 분양(부산 8. 9)
* 부산지역 무주택 근로자 내집마련 쉬워진다, 노동자아파트 분양조건 완화, 10인 이하 업체도 포함(부산 8. 9)

8. 10 * 사용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 시국장급 이상 일선구 과장급 이상 지급하는 무선 호출기가 별 필요 없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국제 8. 10)
* 부산항 재투자 인색, 노면 불량, 안벽 유실, 퇴적토 방지 투자 인색, 수입액 0.1%만 사용, 선박 접안 소송 등에 큰 장애(국제 8. 10)
* 구청위임 건축행정 겉돌다, 시・인력・예산 내몰라, 행질 변경 사업 승인 등 업무만 폭주(국제 8. 10)
* 지역 미술사 자료집 발간, 40년간 자료 수집(국제 8. 10)
* 시교육청 업무차량 9대 감축, 10일 관청 차량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을 위해(국제 8. 10)
* 김해 공항 새 활주로 공사 중단 위기, 확장 부지에 산폐물 80만톤 매립 또 확인, 천억대 추가 비용 … 재검토 불가피(국제 8. 10)
* 영도구 청계 2동 주민들이 시와 사업 조합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옮겨진 것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며 재 이전 요구(국제 8. 10)
* 부산시, 오는 11일,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할 업체 선정, 하반기 지원액 3백오십억원 확정(국제 8. 11)
*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 빨간불, 참여의식 부족 자동차 범죄로 기피(부산 8. 10)
* 태종대 주차장 옹벽위험, 부실 공사로 균열, 보수 시급(부산 8. 10)

8. 11 * 낙동강 하류 홍수 비상, 주의보 발령, 지류범람 논밭 천2백ha 침수(국제 8. 11)
* 「농산물 도매 시장」 부실 공사, 일부 건물 균열・누수, 5백억 공사…태풍 로빈에 곳곳 물바다(국제 8. 11)
* 가덕도 개발 사업 본격화, 정부는 납차만 「도시지역」 변경 지원, 40만평 수면 매립 가능(국제 8. 11)
* 부산시 농촌지도소, 올해부터 부산 농민 대상제 실시, 10월 초 농촌 지도자 대회 때 첫 시상식 갖기로(국제 8. 11)
* 부산 지방 환경청 조사 결과, 밤엔 서울 보다 2~3dB 높아 교통 체증 갈수록 심화 반영(국제 8. 11)
* 석태 매립장 주민 무료 검진, 시 4천여만원 예산 들여 실시(국제 8. 11)
* 영도구 민 「순환 버스」 요구, 교통 체계 절영-태종로 갈려져 큰 불편(국제 8. 11)
* 동아주대회 부산 개최, KOC 승인 97년 9・10월 계획(국제 8. 11)

* 호화 사치 용품 수입 감소, 부산보부세관 분석에 의하면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경기침체로 호화사치 용품 수입 감소하고 가정용 소비재 증가(국제 8. 11)
* 온천천 고가도로 건설난항, 국고지원의 예산 미확보(부산 8. 10)
* 화장장 건립 국회 공식의제 채택이어 구의회서도 철회건의(부산 8. 11)
* 가덕도 조기개발가능, 국방부 반대 입장 철회, 시 수정안 정식 접수(부산 8. 11)
* 97년 동아시아 대회 부산유치 공식 승인(부산 8. 11)
* 통합공과금제 개선시급, 체납 땐 한전 등 6곳 납부 불편(부산 8. 11)
* 부산시 업무 12건 구청위임(부산 8. 11)
* 엄궁 농산물 시장 부실투성이(부산 8. 11)

8. 12
* 부산역서 「제12회 나라 꽃 무궁화 전시회」 광복 48주년 맞아 무궁화 심기 운동을 펼침, 12일부터 7일 동안 부산역 광장에서(국제 8. 12)
* 금정구 「장기계획」 밝혀, 금정산성 개발 회동 친수 공간 동서 노선 개설 등(국제 8. 12)
* 피서지 무단 주차 여전, 호객 바가지는 없어져(국제 8. 12)
* 폐수처리시설 "한계", 신평·장림 공단 하루용량 30t, 내년 초과 전망(부산 8. 12)
* 시, 화장장건립 추진, 의회에 도시계획안 청취키로(부산 8. 12)

8. 13
* 부산역 일대 만성 체증 몸살, 철도 이용객 넘치면서 지하 주차장 설치 시급, 올림픽 예식장 뒷길 일방통행 검토(국제 8. 13)
* 「하얄리아」 이전 감감, 진구의회 질의안 22개월 지나도 무반응(부산 8. 13)
* 범민족대회 부산추진위원회, 「부산시민 통일학교」 강연회,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부산 8. 13)
* 관급공사 18건 시공평가, 실적·내용 지적사항 관련 부서장 통보(부산 8. 13)
* 「93바다 예술제」 개최, 오는 17일부터 6일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개최(부산 8. 13)
* 인구급증 영도 교통지옥 예상, 95년까지 4~5만 증가, 대책마련 시급(부산 8. 13)

8. 14
* 종합 하수 처리장 늑장, 시가 지난해부터 해운대 신시가지의 하수처리장 공사를 96년 후로 미뤄 「신시가」에 분리 추진 축소 처방 비난(국제 8. 14)
* 시청·법원 "일제상징" 잔존, 부산 문민정부 첫 광복절 의미 반감, 민족정신 정립 위해 철거 방침, 하늘서 보면 「日本」 글자 모양(국제 8. 14)
* "도심 군부대 조기 이전율", 부지활용 시 용지난 숨트여 부산전역 48곳 9백30만평 산재(부산 8. 14)
* 부산시 사절단, 아시안게임 유치 첫 해외로비, IOC부위원장 등 만나 협조요청(부산 8. 14)
* 진우도 부산이양 시급, 도시계획 차질, 김해군-지주 소송 중(부산 8. 14)
* 부산 러시아 총영사관 31일 개설(부산 8. 14)

8. 16
* 부산·천진 미술 교류 길 터, 미협 협정서 체결 내년부터 본격화(국제 8. 16)
* 청소년 수련원 추진, 부산에 숙박 시설 등 갖춘 대규모 청소년 수련장 건립 「함지골」이 유력(국제 8. 16)
* 구청민원서류 발급 순위 변화(부산 8. 16)

8. 17
* 구간 연결 도로 사업 「반쪽 공사」, 곳곳에 「병목」 …역효과(국제 8. 17)
* 「수능」 수송대책 마련, 94년도 제1차 대학 수학능력 시험 대비 20일 오전 6~8시 30분 트럭 등 통제(국제 8. 17)
* 1동 1장학회 구성, 95년도 21억 조성, 동래구청 생활고로 학업 지장 받는 관내 중고생·대학생 위해 장학금 지급(국제 8. 17)
* 동주 경기 유치 「실명제 한판」, 지난 12일 실시된 금융실명제가 2002 아시안 게임 부산 유치 범시민 추진위 활동을 위축 시킬 것으로 지적 기부금 조성에 악영향(국제 8. 17)
* 부산국세청인사(국제 8. 17)
* 실명제 대책반 구성, 시·상의 부작용 억제·정책지원(부산 8. 17)
* 부산시, 인사(국제 8. 17)
* 부산시 결원 7명, 기초·광역의원 보선 일괄 실시(부산 8. 17)
* 부산바다예술제(~26)(부산시정 8. 17)

8. 18
* 환경오염 측정 구청 이관 후 전문 인력, 장비 태부족(국제 8. 18)
* 주차비 불법 징수, 범어사 경내 출입 일반 차량에 대해 2년째 불법 주차비 징수한 것으로 밝혀져 말썽(국제 8. 18)
* 남구 관내 유휴 토지 공영 주차장 설치, 교통 소통과 주차난 완화 위해(국제 8. 18)

* 도심지「재개발」제자리걸음, 노후건물 붕괴・재해 무방비(국제 8. 18)
* 시보건 환경 연구원 유명유실, 올 연구 12건 뿐 식품 관련 검사는 포기, 인력 부족 장비 노후화 업무 기피 현상까지(국제 8. 18)
* 시 토곡 토취장 사용 줄다리기, 근로자 주택 회관 건립 위해 불하를-노총, 구청 차량 등록 사업소로 활용해야-시청(국제 8. 18)
* 세계 환경 교육제도 강연, 미국 미시건대 천연자원학과 교수 윌리엄 박사 초빙 특별 강연회(국제 8. 18)
* 해운대 찬가 가사 공모, 해운대구청 애향심 고취 위해(국제 8. 18)
* 부산시, 금정구청 숙원 사업비 35억 배정, 구의회 수용여부 주목(부산 8. 18)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부산지역에서 어음거래 격감, 우려했던 중소기업의 부도는 아직 발생하지 않아(부산 8. 18)
* 가야유원지 본격 개발, 1차로 2억여원 민간자본 유치, 진구청 무허가영업 11개 음식점 철거(부산 8. 18)
* 구 운영 이동도서관 성과, 동구청 하루 평균 4백42권 대출, 도서기증은 저조(부산 8. 18)
* 부산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거주동사무소서 접수(부산 8. 18)
* 부산시, 인사(부산 8. 18)
* 부산경제 기관장 실명대책회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책 시급, 은행 신용대출 확대 절실(부산 8. 18)
* 부산 상장기업 순익 급증(부산 8. 18)

8. 19
* 부산 산업 활동 계속 악화, 경공업 부문 침체 가중, 상반기 집계 산업 생산 출하 지수 감소 추세(국제 8. 19)
* 광안리 해수욕장 공원 검토, 남구청 피서지 기능 쇠퇴일로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 뒤 용도 전환(국제 8. 19)
* 송정터널 앞 사고 위험, 부산시 종합 건설 본부가 신시가지 우회도로 건설하는 송정터널 공사하면서 급커브길 안내원 배치하지 않아 사고 위험(국제 8. 19)
* 고속도~울산국도 연계 시급, 금정로 만성체증…노포동 램프 설치 돼야(국제 8. 19)
* 부산경찰청, 강서서 10월 개설, 북구 감전동에 임시청사 사용(부산 8. 19)
* 남구 소방서 신설, 계획사업 본격화(부산 8. 19)
* 올 상반기 부산지역 제조업 침체 “여전”(부산 8. 19)
* 부산시립화장장 건립반대 주민 4천5백80명, 공람공고 반대 의견서 제출(부산 8. 20)

8. 20
* 서부산 터미널 매점 물건 값 비싸, 시중보다 20~50% 높아 이용객 짜증(국제 8 .20)
* 낙동강 오염 불 보듯, 을숙도 매립장 집수정 제구실 못해(국제 8. 20)
* 2000년 총생산 30조원, 동남 개발원 발전안 보고, 부산 1인당 주민 소득 6백59만원, 국제화 기능 확보 관건(국제 8. 20)
*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96년까지 222개 지점으로 늘려(부산 8. 20)
* 부산시의회 건설위원회, 도로사업소・건설시험소 등 2개 기관 건설본부 통합 부결(부산 8. 20)
*「체육부산」예산・관심부족 또 폐간위기(부산 8. 20)
* 94학년도 제1차 대학 수학능력 시험 실시(부산교육 8. 20)

8. 21
* 구청 장기 발전 예산만 낭비, 일선 구청이 자치구개발을 위해 장기 발전 계획을 잇따라 수립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 계획과 중복, 상충되는 사업도 많아 실행 의문시(국제 8. 21)
*「아파트 사업 승인」구청 이관 후 차질, 직원 모자라 처리 지연(국제 8. 21)
* 순환도로 무단 주차장 둔갑, 서구 송도 해수욕장과 동물 검역소간 순환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 불법 주차장으로 둔갑, 통행 지장(국제 8. 21)
* 북문 급수대 완공, 금정산 보존회 등 환경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 속 추진된 금정산 북문 앞 급수대 완공(국제 8. 21)
* 목욕탕 연료 변경 둘러싸고 마찰, 대기오염 완화책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내 목욕탕에 대해 벙커C유 대신 경유 사용토록 한 지시에 업주 적자 운영 들며 반발(국제 8. 21)
* 동구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특성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키로(부산 8. 21)
* 부산시의회 도시계획 결정안, 화장장 건립 본격화(부산 8. 21)
* 부산시, 자치구 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 공사 관리, 부실우려(부산 8. 21)
* 부산시, 을숙도 매립장 개선, 탈취시스템 등 시설확충(부산 8. 21)
* 부산시, 9월 25일까지 33일간 남구 남천동 시장공관에서「부산의 변천사」사진전 개최(부산 8. 21)

8. 23
* 아주 경기 유치 내일 신청, 24일 대한 올림픽 위원회에 14회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 승인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국제 8. 23)

* 하천 복개 공사 수방책 허술, 폭우 땐 주변 침수 예사, 관급 공사 관리 허점 … 보완책 서둘러야(국제 8. 23)
* 공고 학생 증원 확장, 기술 인력 양성 위해 시내 공업고 학생을 2000년까지 전 학생 20% 수준까지 늘리기로(국제 8. 23)
* 경부고속철도 차종선정 여파, 부산·경남기업 특수 기대(부산 8. 23)
* 철도청, 전철화 계획 2010년까지 1,015km 건설(부산 8. 23)
* 부산시·김해군 소유권 공방, 양 시·군 간의 논란이 예상(부산 8. 23)
* 유치원장(설립자) 직무 연수(부산교육 8. 23)

8. 24
* 해상 화물 연 평균 2천만톤 급증, 3년마다 부산항 규모의 새로운 항만이 건설돼도 폭증하는 해상 화물을 무리 없이 처리하기엔 하역 능력 역부족(국제 8. 24)
* 부산-상해 자매결연, 경제·문화 교류 등 3개항 합의(국제 8. 24)
* 「노인 건강 진단」 시늉만, 검진 형식적·실적 위주 경로당 찾아 배당 인원 채우기만 급급(국제 8. 24)
* 부산 100대 기업 전무, 한국 능률협회가 발표한 92년 국내 3천 기업 재무 분석에 따르면 부산 100대 기업 전무, 5백대 기업도 16, 작년 대비 7개사 감소(국제 8. 24)
* 부산 부두협 항만시설 특혜, 24년째 무상사용…수입액 인건비로 지출(국제 8. 24)
* 녹산 공단 조기 착공, 도개공 9월말 공사 발주, 95년 완공 예상(국제 8. 24)
* 「모범택시」 철회 불가피, 시민 70% "효과 없다" 반대(국제 8. 24)
* 화장장 건립 반대 시청 앞 농성, 금정구 두구동 시립 공원묘지 내 화장장 건립 반대하는 인근 주민 4,000여명 24일 오전 10시 시청 앞 농성(국제 8. 24)
* 부산·상해 자매결연, 한·중 교류협력 "시금석", 역사적인 일로 평가(부산 8. 24)
* 남항관리권, 부산시 이관추진, 체계적 항만 개발 기대(부산 8. 24)
* 부산시, 아시안게임 유치 총력, 신청서 제출 선수단 43개국 1만명 사상최대, 총 경비 5천130억원(부산 8. 24)
*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공동 도급비율 30%이상 적용,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난 해소 전망(부산 8. 24)
* 부산-상해 자매결연, 부산의 7번째 자매도시(부산 8. 24)
* 녹산공단 조성, 주거단지 포함 총 백62만평, 9월말 본격화(부산 8. 24)
* 부산·중국 상해시 자매결연(부산시정 8. 24)

8. 25
* 부산-상해 연대에 카페리, 한·중 해운협 인천~대련~청도도 연내 운항 합의, 빠른 시일 내 여객선 취항(국제 8. 25)
* 청룡·두구동 수원 구역 해제, 하수도 정비로 오염 물질이 회동 수원지로 유입되지 않는데도 수원 보호 구역으로 불합리하게 묶여 주민의 불편을 가중(국제 8. 25)
* 사상로 지하철 공사 체증 최악, 운전자 재조정 교통 체계 몰라 혼란, 병목 현상 주차장 방불(국제 8. 25)
* 부산 교원 238명 인사, 시내 초·중등 교원·교육 전문직 238명 9월 1일자로 인사 단행(국제 8. 25)
* 공익 탈의장 긍정적, 해운대구 설문조사 응답자 58% 공익 탈의장에 대해 긍정적 반응, 친절·값 저렴 등 지켜(국제 8. 25)

8. 26
* 처치 곤란 대형 쓰레기 동이 「덤터기」, 돈한 푼 없는 데다 시설 미비 책임 회피성, 시 행정 큰 불만(국제 8. 26)
* 수영만 교통 지옥화 불 보듯, 최근 잇단 대형 건물 신축 공사로 교통량 폭증이 예상(국제 8. 26)
* 다대 단지 배치 합의, 수산 가공 단지 추진 모임과 목재 조합은 입지 선정 둘러싸고 난행을 거듭해 온 다대항 일대 매립지의 배치를 합의(국제 8. 26)
* 부산시, 낙동대로 덕천~감천IC 9.3km 우선시공 97년말 완공(부산 8. 26)

8. 27
* 부산 석대동 일대 당시 군 문서엔 제외 요청, 행정 착오로 「개발제한」 잘못 지정, 시서 포함시켜 주민 피해(국제 8. 27)
* 신설 3개 개교 늑장, 개발 제한 해제 진입로 땅 매입 난항 등으로 오는 94년 3월 개교 예정이던 초중고 11학교 중 3개 개교 어려워(국제 8. 27)
* 수협-어민 마찰 잇따라, 녹산 공단 조성으로 인한 양식 어업권 피해 보상금액 둘러싸고 수협-어민 사이에 마찰 계속(국제 8. 27)
* 중기 흑자 부도 방지책 시급, 실명제와 부산 경제 토론회 검은 돈 생산 자금화 방안·세제 개선 필요(국제 8. 27)
* 중대형 승용차 증가세 둔화, 최근 사정 한파와 이에 따른 사회 전반의 자숙분위기로 중소형 자동차가 증가 추세(국제 8. 27)

* 43조 규모 예산안 심의 착수, 부산 제2 KOEX건설 50억 예상 사회 간접 자본 5조8천억(국제 8. 27)
* 영호남 결연 행사 금정구 「바살」 협회, 금정구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27일 전남 광양군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와 영호남 지역 자매결연 환영 행사를 가짐(국제 8. 27)
* 부산 경제 6월 이후 계속 하락세, 수출 제자리 생산 감소, 실업율도 작년 비 1.3% 상승(국제 8. 27)
* 경기보조금 편중 배정 말썽, 부산시 체육회 체조·레슬링에 집중, 나머지 단체들 불만(국제 8. 27)
* 부산대 주변 본격 정비, 전신주 보도블록 교체 통학로 조성(국제 8. 27)
* 「구정 모니터제」 있으나 마나, 제보 한건 없어 "전시행정표본" 지적(국제 8. 27)
* 부산항 개발 표류 위기, 부산항의 새해 예산이 27일 정부가 마련한 새해 예산 시안에 40% 삭감(국제 8. 28)
* 부산무역전시관 착공, 94년 4월 완공목표(부산 8. 27)
* 부산지역 수출 늘어 작년 동기보다 1% 증가한 39억1천만달러 기록(부산 8. 27)
* 부산의 중견 가방 제조업체인(주)청산이 장림공장을 폐쇄, 매각을 추진 중(부산 8. 27)
* 부산시, 쓰레기 줄이기 "시들", 시민 참여부족 일선구청도 소극적 대처(부산 8. 27)
* 부산시, 인사(부산 8. 27)
* 부산시, 터미널 10개 건설 최종확정, 총 연장 21.51km 2천11년까지 1조4조억투입(부산 8. 27)
* 제25회 교육자료 전시회(~8. 30)(부산교육 8. 27)

8. 28
* 수원 보호 해제 빛 좋은 개살구, 시의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으로 인해 27일 해제된 금정구 청룡동이 여전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서 주민들 혜택 거의 없어(국제 8. 28)
* 하단 어촌계 침출수 대책 요구,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 몰려가 매립장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낙동강에 방류하고 있다고 농성 벌여(국제 8. 28)
* 구청별 청소 구역 들쭉날쭉, 1인당 담당 면적 20배 차이, 인원조정 필요(국제 8. 28)
* 「모자 보건」 주민 큰 호응,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무료 진단 등 활성화 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국제 8. 28)
* 부산 무용계 「가을」 준비 한창, 시립 무용단 「겨울나기」 공연 대작·소품 골고루…풍성한 볼거리 기대(국제 8. 28)
* 부산상의, 실명제 정착 정책 토론회, 상의회의실서 부산 지역 학계 상공 관계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실명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국제 8. 30)
* 부산시, 현지조사 결과, 김해공황 활주로 공사구간 매립쓰레기 예상보다 3배나 많아(부산 8. 28)
* 조선후기 지방행정자료 발견,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로당에서,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어(부산 8. 28)
* 부산시, 건축위원회 대폭정비, 착공 전 사전심의 강화(부산 8. 28)
* 부산시 사하구청, 장림 유수지 이설 차질 우려, 해당지역 어촌계 주민들의 반발과 사업자 선정 어려워(부산 8. 28)
* 부산시 도시계획·건설공사 예산난·협의난항 "지지부진", 장림하수장 2단계 고작 1.4% 진척(부산 8. 28)
* 부산·경남 공직자 재산등록 저조 보름째, 9~13% 불과(부산 8. 28)

8. 30
* 영도구청이 시행 중인 영도 부산대교 보수공사로 시청 앞 일대 혼잡 극성(국제 8. 30)
* 유독폐기물 「환경」 망처, 사상공단·강서구 곳곳 방치, 매립장 부족·단속 나몰라, 업체 하루 1천6백톤 배출(국제 8. 30)
* 부산·울산 복선화 차질 우려, 기획원 "부산·울산시가 재원 50% 부담해야"(국제 8. 30)
* 다대로 가변 차선제 추진,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 체증 현상을 빚고 있는 사하구 다대로에 가변 차선제 시행이 적극 추진(국제 8. 30)
* 아주 경지 부산 유치 지원, 박관용 실장 회견 북핵 곧 타결…개각 있을 것(국제 8. 30)
* 다대~홍티마을 낙동강변로 공사 재개, 행정 절차 미비로 6개월째 공사 중단 돼온 사하구 다대동~홍티마을 공사가 오는 9월 초 재개 돼 내년 2월 완공 예정(국제 8. 30)
* 신선대 피더선 전용부두 활용, PECT 1개 선석 추가 환적 중심항 계획(국제 8. 30)
* 부산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매주 1회씩 시·구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키로(부산 8. 30)
* 해운항만청, 다대포항 개발 6천억 소요, 투자재원 확보 본격화(부산 8. 30)
* 보수·좌천동 등 9개 노후주택지역 주거 개선 지구 제정(부산 8. 30)
* 수영 요트 경기장 내 출입국 관리사무소 설치, 체육시설 기능 퇴색 이유 "난항"(부산 8. 30)

8. 31
* 「지역 책임제」 행정 낭비, 인력 한정 구·동 직원 단속 업무 말뿐(국제 8. 31)

* 공유 수면 매립 본격화, 사하구 신평・장림 일대 상습 침수지 해소 위해(국제 8. 31)
* 부산 최초「도심지 재개발」, 동구 좌천 3동「사업 추진위」발족, 아파트 건립 주상 단지로 탈바꿈(국제 8. 31)
* 부산시, 인사(국제, 부산 8. 31)
* 부전 복개도로 붕괴 위험, 서면 대아호텔~문화 관광호텔 구간의 부전천 복개 도로가 붕괴 위험을 안고 있어 시내버스 운행 금지(국제 8. 31)
* 해양박물관 10년 숙원 "헛꿈", 국고 요청 설계 용역 20억 올 예산서 제외, 시민・학계 "정부 인식 부족" 질책(국제 8. 31)
* 부산시, 민영주택 입지심의 기준 첫 제정, 기존 주택 감안 진입도로너비 결정(부산 8. 31)
* 황령산 황폐화 가속, 부산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부산 8. 31)
* 금정산 급수대 洗心井 준공(부산시정 8. 31)
*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제1대 2기 의장단 선출(조평래 의장)(부산교육 8. 31)

9. 1
* 부산민족문학인협 곧 창립, 9일 정식 출범…「부산민예총」의 교두보, 문학의 위기 극복 다짐(국제 9. 1)
* 부산역 광장 절반 주차장 임대, 부산 지방 철도청이 수익 사업에 급급하여 주차장을 개인에게 임대, 계약 기간도 3년이나, 이용 시민의 편의는 묵살(국제 9. 1)
* 동문 앞 문화 공간 추진, 환경 단체 반대(국제 9. 1)
* 종합 유선 방송국 희망자 신청 접수, 1월 10일~30일까지(국제 9. 1)
* 직원 건의함 설치, 남구청 하급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수렴 위해(국제 9. 1)
* 쓰레기장 설치 시조례 만든다, 지역 이기주의 사전 무마 위해(국제 9. 1)
* 춘천천 토사 유입 기능 상실, 해운대 의회 조사 해운대 신시가지 공사현장의 토사가 다량으로 유입돼 춘천천이 하천기능 거의 상실 새로운 하천 개설 시급(국제 9. 1)
* 부산 환경청 폐기물 처리 감독 소홀, 감독원 적발 주의 조치(국제 9. 1)
* 러・중국 총영사관 개관, 3일 6일 잇따라(국제 9. 1)
* 행정 쇄신 문민 6개월 용두사미, 비현실적 시책과 개혁의지 결핍으로 용두사미 형세(국제 9. 1)
* 부산 간선로 버스 전용 차선제 교통 개혁안, 6차선 이상 97년까지 동해 남부선 부전~송정 간 전철화(국제 9. 1)
* 은행, 실명전환 계좌 16%, 실명제실시 이후 부산 경제계는 대체로 정착되어가는 추세(부산 9. 1)
* 엄궁시장 지분문제 타결, 10월초 개장될 듯(부산 9. 1)
* 부산에 외국인 투자지역(FIE)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부산 9. 1)
* 부산에 새 문인단체 발족,「5・7문학회」등 기존 2개 단체 모체(부산 9. 1)
* 해운대 중심가지역 수해, 설계 전면 재검토 촉구(부산 9. 1)
* 부산시, 인사(국제, 부산 9. 1)
* 부산-후쿠오카시, 환경행정교류회의(부산 9. 2)

9. 2
* 김해 공항 확장 지하철 2호선 부산대역사 차질 우려, 부산의 대역사 추진이 정부의 잇따른 94년도 예산 대폭 삭감으로 큰 차질(국제 9. 2)
* 청정 연료 사용 기피, 대기환경 정화를 위해 1일부터 시행된 청정 연료 의무화 제도가 업체들이 비용 부담 꺼려…제도 효과 의문(국제 9. 2)
* 동남아 물동량 급증세, 부산항의 해상 물동량이 종전 북미・일본 중심에서 크게 탈피, 동남아 중남미 쪽으로 크게 변화(국제 9. 2)
* 엄궁 농산물 시장 업무 개시, 농산물 도매 시장 내 농협 부산 공판 장 지난 28일 초매식, 농협중앙회 부산시지회는 2일 개장식을 가짐(국제 9. 2)
* 유흥업소 집중 단속, 27곳 적발 행정 처분(국제 9. 2)
* 정부, 을숙도 국유지 69만5천여평, 시에 무상양여(부산 9. 2)
* 부산시, 5개 버스노선 변경, 일방통행 2곳 신설(부산 9. 2)
* 부산 6대 숙원사업 차질, 제3도시고속도로 등 기획원, 내년예산서 배제(부산 9. 2)
* 농협공판장, 말썽꾼 엄궁시장 부분 개장(부산 9. 2)
* 부산권 광역전철망 계속 난항(부산 9. 2)
* 교육위원회 개원 2주년 기념 행사(부산교육 9. 2)
*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조평래의장 취임(부산교육 9. 2)

9. 3 * 녹산 공단 배치 계획 확정, 오는 97년 완공 될 녹산 공단 공업 용지 1백8만5천평에 대한 공장 배치 기본 계획안이 마련(국제 9. 3)
* 해수욕장에 놀이 공간 설치를, 해운대구청 청소년 설문 조사결과 놀이 공간 및 문화 시설 설치 희망(국제 9. 3)
* 산복로 주차 일방 폐지, 구청서 대책 없이 시행…지역민 큰 반발(국제 9. 3)
* 주공 부실 공사 반발, 영도 동삼 3지구 입주 예정인 주공 아파트에 곰팡이 슬고 내부 시설 부실 등으로 천4백세대 입주 앞두고 서명 운동 실시(국제 9. 3)
* 부산 현안 국고 대폭 지원, 김해 공항・지하철 등 예산 늘리기로(국제 9. 3)
* 금곡서 남해 고속도로 차로 진입, 국도 35호선 공사 완공 30일 오전 준공식(국제 9. 3)
* 부산시, 인사(국제 9. 3)
* 재부 러시아 총영사관 개관(부산시정 9. 3)

9. 4 * 그린벨트 완화 시안 크게 반발, 강서구민 6개항 추가 항 마련(국제 9. 4)
* 건축 쓰레기 환경오염 부채질, 이면로 곳곳 흉물 방치, 하루 88톤 발생, 처리 대책 마련 시급(국제 9. 4)
* 부산시, 견인차량안내전화 설치・운영 「742-1110」(부산 9. 4)
* 주 부산 러시아 총영사관 개관(부산 9. 4)
* 증권거래사무소 “개점휴업”, 개소 한달 주권상장 업무 전무(부산 9. 4)
* 부산시, 쓰레기처리 “비상”, 폐기물 중간업 신규신청 없어(부산 9. 4)
* 하수처리장 민원 무마용사업, 예산 없어 차질 우려(부산 9. 4)

9. 5 * 부일 이동통신 개통(부산시정 9. 5)

9. 6 * 주 부산 중국 영사관 개관 축하 리셉션, 6일 부산시장 참석(국제 9. 6)
* 부산 등 도로건설 계통 감사에 착수, 감사원 6일 부산・인천 등 대도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 건설 등 각종 도시 기반 시설공사에 대한 계통 감사 착수(국제 9. 6)
* 기초의회 2곳 “무투표”, 부산 지역 7개 보선 후보자 등록 마감(국제 9. 6)
* 상의 주최 동아시아 항구 교류회, 호치민시 등 14개 도시 참가(국제 9. 6)
* 주민등록번호 행정 착오 수두룩, 각종 증명서 재발급 곤욕(국제 9. 6)
* 부가세 수정 신고, 6일~30일까지 접수(국제 9. 6)
* 강서구, 지역실정 안 맞고 누락부분 많아 그린벨트 개선 재건의(부산 9. 6)
* 주 부산 중국 총영사관 개관(부산 9. 6)
* 부산시, 교통체계개선사업 “실효”, 현실외면・사후관리 소홀(부산 9. 6)
* 고려가요 정과정 옛터 존폐위기, 하수장 공사강행…유적훼손 반발(부산 9. 6)
* 재부 중국 총영사관 개관(부산시정 9. 6)

9. 7 *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있으나 마나, 채수량 격감 기능 상실(국제 9. 7)
* 동사무소에 출장 민원 처리, 서부 경찰서, 구청과 협조로 실시, 고발 등 16개 사항 주민 불편 덜어(국제 9. 7)
* 「도개공」 부실 공사 잦다, 시가 자본 참여 하고 있는 공기업인 도시개발 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정수장 오수처리장 등 기반 시설을 부실 시공해 잦은 민원을 야기 시켜(국제 9. 7)

9. 8 * 부산시, 국방부가 9만여평에 달하는 육군 기술병과 학교 부지의 매각 의사를 학교에 통보 해 옴에 따라 지가 감정 등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에 공영 개발 택지 지구로 지정키로(국제 9. 8)
* 간선로 자동 홍보 방송기 설치, 10일까지 4천만원 예산 투입 각종 교통 시책 홍보하는 자동 홍보 방송기 설치키로(국제 9. 8)
* 「부산 여성 문학상」 10월 첫 시상, 지난해 말 창립 부산 여성무인 회 제정 회원 백명 매월 시 낭송회 등 본격 활동(국제 9. 8)
* 경정장 계획 재검토해야, 해운대 지역에 경정장 설치하기 위해 춘천천의 하수정화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국제 9. 8)
* 부산시, 망양로 주변고도완화, 청사포 미관지구 지정(부산 9. 8)
* 부산체육회관 건립 지연, 내년 10월까지 유보(부산 9. 8)
*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유치 정부 측 긍정적 반응(부산 9. 8)
* 고속철도 부전역 건설 백지화, 시의회・학계・시민들 거센 반발(부산 9. 8)
* 「부산직할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제3052호)(부산교육 9. 8)

9. 9 * 남구청, 시민 체육대회 응원단 동원, 구・동 직원 크게 반발(국제 9. 9)

* 그린벨트 완화 시안 강서 구민 상경 항의, 건설부의 그린벨트 완화 시안에 강서 구민들 크게 반발, 강서구의회 의원 전원과 주민 대표 30명 상경(국제 9. 9)
* 녹산 공단 선조성 후 분양, 기획원 방침 단지 분양제도 전면 개편(국제 9. 9)
* "실명제 후 갈수록 자금 압박", 부산 상의 설문 조사 49% 자금난 호소…금융기관 불신 94%(국제 9. 9)
* 주차 공간 유료화 방침, 시내 일부 대학 병원이 주차난 해소 위해(국제 9. 9)
* 부산주차관리공단, 노상주차장 운영개선 필요, 이용자와 마찰 빈발(부산 9. 9)
* 금정구청, 민영훈공 공덕비 제작(부산 9. 9)
* 녹산분양가 크게 내린다, 공단분양제 개선…토개공 마진 없애 후 분양 60만원 이하(부산 9. 9)
* 부산업체 자금난, 실명제 실시 이후 더욱 악화(부산 9. 9)

9. 10
* 장림・녹산 간선 도로 내년 착공, 시는 10일 명지 산호・녹산・가덕도 등 서낙동강권의 4개 개발기구와 부산 도심을 해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장림-녹산 간 도로를 94년에 착공키로 확정(국제 9. 10)
* 몰운대 공원 산책로 개설, 사하구 확정, 시민 우한 산책로 등 편의 시설 설치키로(국제 9. 10)
* 해운대구청, 인사(국제 9. 10)
* 동 직원 담당 주민 수 큰 차이, 구 따라 2배나 인원 재조정 시급(국제 9. 10)
* 부산재산공개 임박, 사정 대상 우려, 일부 공직자 부동산 급매(부산 9. 10)
* 부산시, 제5낙동대교 97년 완공, 왕복 8차선 4개간선로 내년 착공(부산 9. 10)
* 해운산업연구원, 중국화물 유치하면 연 1천4백만불 효과 전망(부산 9. 10)

9. 11
* 가옥 14채 강제 철거, 「신시가」 편입 우동 세실 마을 11세대(국제 9. 11)
* 을숙도 땅 미 등록지 측량 실시, 측량 통해 지적공부에 정식 등록키로(국제 9. 11)
* 산성 마을 일대 차 배재지로, 금정산 산성 마을 일대 차나무 재배지로(국제 9. 11)
* 음식점・숙박업소 목욕탕 1회용품 불법사용 여전, 당국 법 시행 몰라 단속 외면(국제 9. 11)
* 부산 7개 세관 대상 관세청 또 특별 감찰, 부산 본부 세관 비롯, 동래 소상세관 등 산하 7개 전 세관에 관세청의 특별감찰 실시(국제 9. 11)
* 모범택시 방침 철회, 모범택시 시행 방침 철회 시민 여론 조사 결과 72% 현 부산 지역 도로 여건상 모범택시 운영은 시기상조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류(국제 9. 11)
* 서구의장 새로 선출, 정준영의원 선출(국제 9. 11)
* 사상공단 오염 단속 겉돌다, 인력 태부족…폐기물 소각 폐수 무단 방류 다반사(국제 9. 11)
* 항만 쓰레기 처리 비상, 원목 껍질 등 4천여톤 방치…하역 작업 지장, 「을숙도」 산폐물 반입금지 여파(국제 9. 11)
* 부산지역 업체조사, 파트타임 노동자 급증, 근로조건 보상엔 소홀(부산 9. 11)
* 부산・경남 공직자 재산등록 마감, 부산 등록률 87%, 경남은 92%, 100억이상 재력가만 4명, 재산 형성과정 관심 집중(부산 9. 11)
* 부산시, 모범택시 실시 연기, 업자・노조는 크게 반발(부산 9. 11)
* 부산시, 을숙도 쓰레기장 이용 규제로 부산항내 폐기물 "갈 곳 없다"(부산 9. 11)
* 부산시, 인사(부산 9. 11)
* 부산시, 관급 공사 발주 「설비」 분리 추진, 부실시공 방지, 건설업계 긴장(부산 9. 11)
* 부산시, 소년소녀가장 등 대상으로 추석을 맞아 생필품 전달(부산 9. 11)

9. 13
* 사상・신평・장림공단 58개 업체 기준치 초과, 유독 폐수 무단 방류 예사, 치명 중금속 다량 검출(국제 9. 13)
* 폐수 찌꺼기 버릴 곳 없어, 을숙도 매립장 반입 금지로 곳곳 방치,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의 준설토 반입 금지 조치로 각종 부작용 잇따라(국제 9. 13)
* 산림 보호 정책 겉돈다, 산림 훼손 막기 위해 개발업자에게 부과되는 산지전용부담금과 산림대체조림비가 전액 국고로 환수돼(국제 9. 13)
* 연안 여객선 현대화 추진, 쾌속선 연말부터 투입(국제 9. 13)
* 「축재 파문」 크게 일듯, 50억 이상 지방 공직자 전국 1백60명 부산시 20일 첫 윤리위 개최(국제 9. 13)
* 「부산정사협」 정식 출범, 21개 시민단체 참여 지역 개혁 기치,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하나로 뭉쳐(국제 9. 13)
* 약사, 시의원 평균 26억원, 구의원 4억대, 한의사, 구의원 3명 10억대 재산(부산 9. 13)
* 부산시, 인사(부산 9. 13)

9. 14
* 공시지가 "들쭉날쭉", 부산 잘못 산정 된 곳 많아 64% 재조정(국제 9. 14)

* 시・구 구입 책 예산 낭비, 시구에서 구입하는 교양도서의 상당수가 업무와 별 관련이 없는데다 같은 책을 지나치게 많이 구입해(국제 9. 14)
* KOC 부산 아시안 게임 승인, 시 원안대로 통과, 정부에 건의 결정(국제 9. 14)
* 광안대로 공사 주민의견 청취,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 뒤 보름동안(국제 9. 14)
* 광안대로 건설공사 부작용 예고, 해양오염 가속화 우려(부산 9. 14)
* 수방시설 허술, 해운대 신시가지 설계 전면 재검토 촉구(부산 9. 14)
* 영도해안도로 건립 지지부진, 대형아파트 입주 앞두고 체증 우려(부산 9. 14)
* 부산시, 부산~김해 좌석버스 연내 심야운행(부산 9. 14)

9. 15
* 부산 연극제 대폭 손질, 예심제 도입, 대상만 선정 운영위 권한 강화(국제 9. 15)
* 첫「부산 시인상」이달 말 선정, 시인협회 5인 심사위 구성(국제 9. 15)
* 막차운행시간 연장을, 외곽지 노선버스 이용 시민 대책 호소(국제 9. 15)
* 「제14회 부산시민의 날」 행사 규모 확대, 직할시 승격 30주년 맞아 실시(국제 9. 15)
* 부산시,「부산시민의 날」 행사 내달 4일부터 7일간(부산 9. 15)
* 부산시, 수영비행장 개발 본격화, 군 당국과 적극적인 교섭(부산 9. 15)
*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 구체화, 11월 노선 등 용역의뢰(부산 9. 15)
* 부산시, 2002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신청 승인받아, 첫 번째 절차 마침(부산 9. 15)
* 부산직할시 교육청 공직자 윤리 위원회 개최(부산교육 9. 15)

9. 16
* 집단 민원「아파트 부실」으뜸, 55건 발생 중 36% 차지(국제 9. 16)
* 삼성 자동차 부산 유치 본격화, 부산 경제 기관장 회의 녹산 등에 100만평 부지 적극 검토(국제 9. 16)
* 4/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부산 9. 16)
* 부산 체임 100억, 10개 업체 21억 청산 불가능(부산 9. 16)
* 광안대로 건설방안 최종확정(부산 9. 16)
* 신호공단 내년 본격 개발, 내달 지방공단 지정, 95년 완공(부산 9. 16)

9. 17
* 부산~김해 전철 출발 삐걱, 양시 당국 "광역 경전철" 주장 맞서(국제 9. 17)
* 수영 매립지 국교 신설 난항, 학교 부지까지 팔아치운「단견행정」(국제 9. 17)
*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96년 결정 유력(부산 9. 17)
* 만덕3지구 도시기반 시설 없이 택지개발, 교통체증 등 우려, 주민반발(부산 9. 17)
* "4단계「컨」부두 국적선사 전용화를", 부산항 환적화물유치 세미나(부산 9. 17)
* 삼성승용차 부산유치 파급효과 크다, 역내공단에 연 50만대 생산 가정(부산 9. 17)
* 부산 수출 "뒷걸음질", 전국 비중 30년만에 최악(부산 9. 17)
* 부산시, 먼지유발아파트 시공자 적발(부산 9. 17)
* 북구청, 모라 운수천 가변차선제 실시(부산 9. 17)
* 호주 무역대표부 부산사무소 개설(부산 9. 17)
* 부산시,「지구 대청소의 날」부산 1백만명 참가(부산 9. 17)
* 부산도 당직 변호사제 내달 중 실행(부산 9. 17)
* 시・구의회 보궐선거(부산시정 9. 17)

9. 18
* 부산시는 부산시청회의실에서 문화위원회를 개최 올해부터 부산시 문화상 심사 방법 변경, 개선키로(국제 9. 18)
* 부산시 직영 주차시설 선다, 부산 초량・덕포에 290대 동시 수용(국제 9. 18)
* 가덕도 용도지역 확정, 부산시 취락지 주변 주거지 나머지 녹지 결정, 섬 절반 이상 공원・유원 시설로(국제 9. 18)
* 사상로 이어 만덕로도 공사, 북구 전역 체증 최악(국제 9. 18)
* 종착역 강서구 대저로, 경부 고속철 부산역 설정은 도심 교통 방해(국제 9. 18)
* "3,700억 공사 잡아라" 녹산공단 수주 전, 지역업체 도급짝짓기 한창(부산 9. 18)
* 동남개발연구원 김홍관박사 주장, "고속철도 부산종착역 대저에 건설"(부산 9. 18)
* 부산시, 563억 지방채 발행(부산 9. 18)
* 부산시, 가정용보일러 청소요금 50% 감면(부산 9. 18)
* 부산시, 동서고가도로 통행료 10월초부터 징수(부산 9. 18)

* 버스베이・버스전용차선 “있으나 마나”, 교통흐름 되레 방해(부산 9. 18)
*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달 4~5일 이틀간 실시(부산 9. 18)

9. 19
* 식용 부적 수산물 수입 “봇물”, 올 들어 89건 천여톤 작년보다 50% 늘어(국제 9. 19)
* 동래 온천장 관광특구로 건의, 동정자문위원 자생단체 추진 건의(국제 9. 19)
* 시・구의회 보선 투표, 부산 남구 제5선거구와 북구 제4선거구의 시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17일 오전 7시부터 35개 투표소별로 일제히 실시(국제 9. 19)
* 옥상 간판 공업지역도 확대, 상업 지역에만 적용시키던 것을 공업지역에도 시행키로(국제 9. 19)

9. 20
* 「태종대 관리」 서로 “내가”, 구청 “효율관리”, 시 “서비스 개선” 내세워(국제 9. 20)
* 부산시 윤리위 본격 출범, 「재산」 심사 착수, 부산 공직자 재산 공개에 시동 걸렸다(국제 9. 20)
* 강서 환경청 조사 75%가 「생곡매립장」 주민 반대, “설치 땐 악영향”(국제 9. 20)
* 지방청와대 「민속관」 졸속 추진,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생색내기」, 내부 시설 그대로 둔 채 진열장만 배치(국제 9. 20)
* 관세청, 부산항 위험물 직통관제 실시, 물류비용 연 80억원 절감기대(부산 9. 20)
* 부산 근대사진사 정리 “화제”(부산 9. 20)
* 부산 주택정책 궤도 수정, 물량축소 재개발 역점(부산 9. 20)
* 부산시의회, 국감거부 움직임, “지방자치정신 위배” 폐지건의 결의(부산 9. 20)
* 8월 신용장내도액 최악, 지난해 8월비 24%나 줄어(부산 9. 20)
* 부산본부세관 징세부진, 올 목표 87% 확보에 그쳐(부산 9. 20)
* 부산 도심재개발 7년째 난항, 세입자처리・지주이해 겹쳐 표류(부산 9. 20)
* 부산시, 구덕운동장 주변 고도제한 해제(부산 9. 20)

9. 21
* 문화행사 지원금 「쥐꼬리」, 구 예산의 0.1%…향토 육성은 말뿐(국제 9. 21)
* 「영남 행정협」 무산 위기, 부산・대구의회 운영규약 원안 수용, 경남 “실익 없다” 보류 경북 수정 통과, 이해 엇갈려 난항 거듭(국제 9. 21)
* 아시안 게임 종목 축소 요구, KOC 소프트볼 등 5개 경기제외 예산난・입상 희박 이유, 부산시 차질 우려(국제 9. 21)
* 부산 내달 초 재산 공개, 시・시의회 52명 10월 8일 공개(국제 9. 21)
* 직할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 오는 10월 5일 14시부터 22시까지 「시민 대축제 한마당」 개최(국제 9. 21)
* 중구청, 인사(국제 9. 21)
* 부산시, 직할시 30년 발간, 시 변천 과정 정리(국제 9. 21)
* 부산시, 양적팽창 거듭 내실없는 “기행성장”, 인구수・상하수도 보급률 등 급증세, 도로사정 등 도시여건은 되레 악화(부산 9. 21)
* 상해 한국상품전, 부산지역 15개 중소기업 등 국내 78개사 참가(부산 9. 21)
* 국제신발전시회 참여업체 확정, 55개 회사・바이어 403명 참가(부산 9. 21)
* 부산의 중국진출업체 「십시일반」(부산 9. 21)
* 해운대 송림공원, 개발구실 훼손우려, 문화공간 없애고 유희시설만 늘려(부산 9. 21)
* 부산 서구의회 외유 말썽, 규정 여비 외 7백만원 편법 추가사용, 물의 빚자 70만원씩 개별적 구청 환불(부산 9. 21)
* 부산시, 신교통개혁안 마련, 회사택시동결, 개인면허 확대(부산 9. 21)

9. 22
* 아파트 사전 입지 심의 실패, 전문 인력 부족 위원도 못 뽑아(국제 9. 22)
* 생곡매립장 진입로 확장 차질, 예산 미확보 1년 늦춰(국제 9. 22)
* 주거 환경 개선지구 지정, 신선3・범천2・4・용호4동 등 4곳(국제 9. 22)
* 부산 실명 전환율 저조, 가차명 계좌 금액 기준 0.5~4% 불과(국제 9. 22)
* 해운대구청 시청에 충렬로 확장비 건의(국제 9. 22)
* 부산시, 사업자등록확인철저 긴급지시(부산 9. 22)
* 「골치」 주・정차 과태료 징수 민간업체에 떠넘겨 “말썽”(부산 9. 22)
* 부산상의, 기업 애로 센터 설치, 현판식 거행(부산 9. 22)
* 주거개선지구 추가지정, 부산 신선 7지구 등 전국 21곳(부산 9. 22)
* 부산시, 금융 단지 설계 확정, 3만4천평 규모, 95년 착공(부산 9. 22)

* 부산시, 매각땅 47억 웃돈 매입 방침, 큰 허점으로 들어나(부산 9. 22)

9. 23
* 아시안게임유치 「보완서」 제출, 부산시 「컨벤션 센터」 제외 종목 그대로(국제 9. 23)
* 체전 국교지원 전면 중단, 95년부터 지방이 전담…규모 대폭 축소 불가피, 200년 부산체전 비용 충당 애로 예상(국제 9. 23)
* 일선 동 민원 업무 뒷전, 담당 직원 경력 짧고 인사이동 잦아(국제 9. 23)
* 「도로 복공판」 차량 피해 극심, 지하철 4~5 공구 높낮이 들쭉날쭉, 운전자 안전운행 위협(국제 9. 23)
* 9월 들어 진정세를 보이던 부산지역 어음부도율이 추석을 압두고 다시 급상승세롤 보여 추석자금난에 따른 영세 소기업의 부도사태가 우려된다(부산 9. 23)
* 교통경찰 체증해소 "나 몰라라" 위반단속에만 치중, 시민편의 외면 원성(부산 9. 23)
* 8월말 부산 부채 707억, 시 세수확보 비상, 강력조치 나서(부산 9. 23)
* 동래온천장 주민들 '옛 명성을 찾고 지역발전을 위해' 관광특구지정을 관계당국에 건의(부산 9. 23)
* 부대병원부지 교육부 계약변경과정에서 시 간부가 개입되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부산 9. 23)
* 제3대 부산지방경찰청장에 이승완 치안감 취임(경찰사 9. 23)

9. 24
* 부산시 간부 인사(국제 9. 24)
* 미역 양식장 단속 어민 반발 남구청 내년 설치 거부 불응 땐 철거, 민락 어촌계 철회 요구(국제 9. 24)

9. 25
* 금정구청 배정 숙원사업비 56억여 원, 「추경 예산안」 구의회 승인(국제 9. 25)
* 사상공단 「납」 농도 전국 최악, WHO 기준치 웃돌아, 업체 공해 방지 외면 노동자 건강 위협(국제 9. 25)
* 항만 관련 기관 사옥 신축·증원 몰두, 부두 개발·노후시설 개체 투자 외면(국제 9. 25)
* 중기 가동률 3개월째 하락, 수출 전년 비 3% 증가 그쳐(국제 9. 25)
* 부산시,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가 인상, 분양가 평당 최고 270만원, 택지공급가 2백20만원 서민 내집 마련책 무색(국제 9. 25)
* 영국 문화원 개원, 오는 10월 8일 개원(국제 9. 25)
* 부산항 4단계와 광양항 1단계 등 4개 선사에 선석 독점 사용권, '민자유치 명분 넘겨' 반발(부산 9. 25)
* 부산지역 금융기관 하반기 신규채용 30%나 줄어 경쟁시대 감량경영 선언(부산 9. 25)
* 부산시가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 없이 거창하게 계획만 발표한 이후 흐지부지된 전시행정적인 사업이 적지 않아 용역발주에 따른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 불신을 낳고 있다(부산 9. 25)
* 부산시, 인사(부산 9. 25)
* 부산 영국 영사관이 부산진구 부전동 536 교보빌딩 6층에 사무실을 마련, 내달 8일 개관(부산 9. 25)
* 시 재해복구비를 특정업체부지 진입도로 개설에 투입하여 특혜시비를 빚고 있다(부산 9. 25)

9. 26
* 부산시립화장장 건립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대토론회가 25일 오후 열렸다(부산 9. 27)
* 석대농산물시장이 97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한다(부산 9. 27)
* 다대쓰레기 소각장이 95년 완공을 목표로 다음 달 착공된다(부산 9. 27)
* 장림 유수지 이설사업이 12개 건설사가 투자를 희망하여 내달 10일 선정하기로 했다(부산 9. 27)
* 93 부산시 문화상 수상자를 27일 발표한다(부산 9. 27)

9. 27
* 항내 페리 1년째 구실 못해, 해운대~중앙동 작년 10월 개설 운항, 승객 태부족 파행 운영(국제 9. 27)
* 동사무소 일지 정비 시급, 18종에 작성 내용 엇비슷(국제 9. 27)
* 소방도로 개설 호소, 봉래동 일대 영세민 1천여명 대책 호소(국제 9. 27)
* 「기준 공장 면적률」 완화, 상공부 경사면·원형지 초과면적서 제외(국제 9. 27)
* 부산지역 토월세 유휴판정 난맥, 둘 중 1건 꼴 "이유 있었다", 편의적 조세 행정 비난(국제 9. 27)
* 춘천천 배수 펌프장 설치, 80억 투입 상습 침수 예방(국제 9. 28)

9. 28
* 지역 의보 가입자 불이익 많다, 「직장」보다 보험료 많고 수혜 폭 적어, 정책·운형 개선 시급(국제 9. 28)
* 역사적 고증 거쳐 문화 유적지 표석 설치, 조선시대 동래부의 남문과 서문 망미루 등의 위치에 화강석 문화 유적지 표석 설치(국제 9. 28)
* 부산시교위 행정 감사 대상 확정, 93년도 행정 사무 감사 대상 기관 및 일정 확정(국제 9. 28)
* 부산시 견인 차량 반환 때 과태로 징수, 업체·운전자 크게 반발(국제 9. 28)
* 추석을 앞두고 부산지역의 현금통화발행이 급증하고 있다(부산 9. 28)
*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한 중앙로 구간에 가변차선제를 확대 실시할 예정(부산 9. 28)
* 녹산공단 조성 입찰에 7개 업체가 공사 따내(부산 9. 28)
* 녹산공단 입찰에 천억원 상당의 수주로 지역 업체 8개가 참여(부산 9. 28)

* 부산기업 수출시장 구조 다변화 추세로 후발개도국의 비중이 증가(부산 9. 28)
* 부산시, 주택보급율을 77.3%로 올리기 위해 4만5천세대를 공급할 예정(부산 9. 28)
* 부산시가 부산항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항만관리소 개선을 진행(부산 9. 28)

9. 29
* 지하상가 공기 오염 심각, 환기 시설 용량 부족으로, 서면 대현 부유 먼지 등 기준치 초과(국제 9. 29)
* 부산시, 인사 교육청(국제 9. 29)
* 버스 정류장 위치 문제, 상당수 시내버스 정류장의 위치선정 잘못돼 교통 흐름 차단·승하차시 안전 위협(국제 9. 29)
* 극빈 부자 가정에도 혜택을, 부산진구청 첫 조사 부자 가정 실태조사 극도로 열악(국제 9. 29)
* 도시계획 민원 전산화 시급, 다른 창구 민원보다 난의도 높고 다른 증명서에 비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 미쳐 정확성 요구(국제 9. 29)
* 부산시는 동남개발연구원에 증차 기준을 위한 교통량 조사를 의뢰하였다(부산 9. 29)
* 부산시는 추석기간동안 종합상황실의 8개 시민불편대책반 전화번호를 확정했다(부산 9. 29)
* 녹산공단이 오는 12월 6일 분양될 전망이다(부산 9. 29)
* 부산 창업 보육센터가 내년 건립된다(부산 9. 29)
* 부산지하철의 승객이 지난해보다 2.8% 감소하였다(부산 9. 29)
* 부산·경남지역 상장기업 가운데 6월 결산 10개 법인의 매출과 이익이 크게 줄었다(부산 9. 29)
* 부산시가 국유지 변상금을 받지 않거나 대부료를 적게 선정하는 등 국유재산관리를 허술히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부산 9. 29)

10. 1
* 공고 1년간 현장 실습, 내년 17개교 첫 도입(국제 10. 1)

10. 2
* 부산시 8곳 도시계획 세부 내용 확정, 자연 경관 보전 쾌적 환경 조성(국제 10. 2)
* 「수산 진흥 축제」 7일간 개최, 직할시 승격 30주년 맞아 수영만서 주라기 화석·어류 표본 등 전시(국제 10. 2)
* 부산 관가 국감 비상, 시 경찰청 등 4일 실시 앞두고 분주, 연휴기간도 출근해 자료 준비, 화장장 등 재정 부분 예상 답변 고심(국제 10. 2)
* 부산시, 인사 문화회관 관장 김중해 외(국제 10. 2)
* 「퍼스컴」 경시 예선 대회, 부산시 교육청, 10월 3일 부산 과학 교육원에서 퍼스널 컴퓨터 경시대회를 개최(국제 10. 2)
* 「수원보호」 해제 요구, 회동 수원지 주변 증개축 여전히 제한(국제 10. 2)
* 시 도립 대학 육성 적극 지원, 정부 지방화시대 부합하기 위해 시립 도립 대학 육성 증설 필요로 대학운영권한 지자체에 이양하기로(국제 10. 2)
* 서대 산복도로 주민 버스 증편 요구, 배차 간격 길어 큰 불편(국제 10. 2)
* 쓰레기 반입 수수료 부과, 부산시 95년부터 폐기물 처리 조례 안 확정, 「님비」 무마 복지 향상 명분(국제 10. 2)
* 부산시, 건설업무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낳아(부산 10. 2)
* ㈜부산도시가스, 가정용 가스의 요금을 6.8%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부산 10. 2)
* 올 들어 부산지역 기업 부도율이 전국평균의 4배에(부산 10. 2)
* 오는 5일 직할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제14회 부산시민의 날 기념축제가 시작(부산 10. 2)
* 일선 동사무소에 설치된 부녀상담원 제도가 각종 부작용을 유발,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발생(부산 10. 2)
* 부산 남구 쓰레기 소각장 설치, 구체적으로 추진(부산 10. 2)
* 간선도로 사업이 일선구청의 협의미비와 예산부족으로 지지부진(부산 10. 2)
* 부산시, 인사(부산 10. 2)

10. 4
* 삼성자 부산 유치 대책은, 구감 착수 슬롯머신 재허가 경위 추궁(국제 10. 4)
* 도로 굴착 복구 손발 안 맞아, 도로 굴착과 복구공사가 사업자-관리청 이원화로 부실 우려, 늑장 마무리 민원 유발(국제 10. 4)
* 사하구 풍성한 기념 행상, 사하가 구승격 10주년 맞아 지역 행사 개최 확정(국제 10. 4)
* 부산시민의 날 행상 오늘 팡파르, 새롭게 다 함께 미래로 10/4~10/10까지, 직할시 승격 30주년 기념 축제, 시민 참여 확대(국제 10. 4)
* 부산시 국 공유재산 관리 허술, 국 공유 재산 관리 허술하게 해 시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국제 10. 5)
* 부산시, 경상남도, 영향평가는 뒷전으로 하고 대규모사업을 승인하여 환경오염을 부추겨(부산 10. 4)

* 직할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역대시장들이 시정지침(부산 10. 4)
* 각종위원회 중 14개의 위원회는 회의를 추진하지 않아 예산만 축낸다는 지적(부산 10. 4)
* 부산경찰청, 14개서에서 4억원 규모의 금품을 받아온 사실 드러나(부산 10. 4)
* 경찰, 국감수감자료에서 교통사고 처리 업무 허술, 음주운전미처리 등 발각(부산 10. 4)
* 감사원 시정조퇴 등 부산시 공무원이 배짱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징계(부산 10. 4)
* 국회감사, 부산시 관변단체 지원 등을 3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궁(부산 10. 4)
* 부산경기, 4분기도 불황일 것으로 예상(부산 10. 4)
* 중국산업협력사정단이 6일부터 부산 방문하기로(부산 10. 4)
* 부산국세청이 부가세 불성실 신고의 관리를 강화하기로(부산 10. 4)
* 92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산시가 대체농지조성비를 누락하는 등 시정명령(부산 10. 4)
*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부산시정 10. 4)

10. 5
* 부산 공개협 첫 결성, 오는 8일 창립대회 뒤 공식 출범(국제 10. 5)
* 해상 주차장 설치 요구, 서구 암남동 송도 일대 상인·주민들은 날로 쇠락해 가는 이 일대의 활성화를 위해 요구(국제 10. 5)
* 97 부산 동아주 대회 연기 될 듯, 국제대회 3개 겹쳐 예산 조달 곤란 이유로 3회 동아시아 경기대회가 99년이나 2001년으로 미루어질 전망(국제 10. 5)
* 통합 공과금 직원들「견문 보고제」큰 성과, 서구청 실시, 민원 해소 한 몫, 외근 때 불편 사항 적어 제출(국제 10. 5)
* 부산시 자체 사정 허술, 비리 적발 겨우 13건 뿐, 새 정부 출범 후 최고 중징계도 정직 1개월(국제 10. 5)
* 부산시 국감자료, 임야 9만9천㎡의 경관훼손 등 특혜에 대해 지적(부산 10. 5)
* 일선구청, 법인 소유토지와 취득세·등록세 등을 잘못 징수(부산 10. 5)
* 시민운동을 통한 국민의식 개혁을 표방하는 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동 협의회가 8일 정식 출범(부산 10. 5)
* 부산·경남지역의 최저임금과 고용평등이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부산 10. 5)
* 제14회 부산시민의 날 행사가 오늘부터 10일까지 개최(부산 10. 5)
* 국감자료, 부산시의 관급공사가 공개입찰 되지 않아 의혹이 지적(부산 10. 5)
* 제14회 부산시민의 날(부산시정 10. 5)
* 부산민속관 개관(부산시정 10. 5)

10. 6
* 부산 법원 98년 거제동 이전, 96년 착공 법무부 조사 예산 10억 이미 확보(국제 10. 6)
* 투수콘 도로 포장 예산 낭비, 지난 88년 올림픽 개최 당시 도시 미관 조성 위해 시내 간선 도로변에 설치한 붉은색 콘크리트가 3년도 못돼 파손·변색 돼 각 구청 잇단 교체 공사로 통행 불편 등 단점 발생(국제 10. 6)
* 환경 교육 테이프 49개 국교에 기증, 부산 향도 청년회의소는 6일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심어 주기 위한 교육성 테이프를 기증(국제 10. 6)
* 부산시 출자기관 부실 경영, 도개공·주차공단·의료원 운영 무사 안일, 무자격자 채용·호봉 조작도(국제 10. 6)
* 구청 미관원 차량 업무·해제 업무, 전산망 부실 처리 지연(국제 10. 6)
* 동래구의회, 6일 임시회의를 열어 관광특구 건의를 결의(부산 10. 6)
* 동남개발연구원에서는 부산발전토론회를 열어 동남부의 거점육성 추진을 토론(부산 10. 6)
* 부산시는 올해 부산지역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24% 증가하였다고 발표(부산 10. 6)
* 그린벨트 개선안 반대단체, 강서구 추진위에서 결성(부산 10. 6)
* 부산시, 경전선의 직·복선화를 추진하여 2001년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부산 10. 6)
* 부산시 정기 감사 결과 구청 등 560건의 일선행정의 오류를 적발하였다(부산 10. 6)
* 부산지역 호텔·병원 등이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오폐수 무단방류(부산 10. 6)
* 부산시의 부도율이 0.4%대로 다소 회복세(부산 10. 6)
* 부산시 아시안게임의 유치를 위한 3단계 활동을 시작(부산 10. 6)
* 동사무소 직원의 1인 담당 주민수가 지역 간의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부산 10. 6)
* 최근 들어 부산지역의 제조업체의 주택업 진출이 잇따라(부산 10. 6)

10. 7
* 부산 발전 5개년 계획 필요, 경제 활성화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확대 위해, 신발 고도화·무역·관광 입지 활용에 초점(국제 10. 7)

* 부산 도로변 소음 “몸살”, 30곳 중 27곳 기준치 초과, 방음 시설 전무…수업에 큰 지장(국제 10. 7)
* 부산 충무국교 등이 재학생 격감으로 내년 폐교될 예정(부산 10. 7)
* 부산공직자의 재산공개, 오락가락 안개공개로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부산 10. 7)
* 직할시승격 30주년기념 대토론회(문화회관)(부산시정 10. 7)

10. 8
* 부산 시의원 평균 재산 42억, 공직자 재산 공개 교육위원 24억・구의원 9억 순(국제 10. 8)
* 남해대교 등 11개 교량 위험, 감사원의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에 대한 교량시설 점검결과 남해대교・고평교・홍구교 등 11개의 교량이 붕괴 위험 교량으로 결함 판정 받은 것으로 밝혀져(국제 10. 8)
* 직할시 발주 공사 계약 자치 단체로 대폭 이양, 정부는 민자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예산 회계법과 기금 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합의(국제 10. 8)
* 수영만 땅 매각 지연 추궁, 국회는 8일 운영 법사위를 제외한 14개 상위별로 닷새째 국정감사를 계속해 국방위는 병무행정 개혁・농림수산위는 어업자원확보・교체위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문제 등을 집중 추궁(국제 10. 8)
* 기업 해외 투자 감소, 부산・경남 지역 기업체 해외 직접 투자가 최근 계속 증가해 오다가 올해 3/4분기 전분기보다 32% 줄어(국제 10. 8)
* 반여 군부지 매각 싸고 마찰, 육본 10만평 일관 매입에 시 난색(국제 10. 8)
* “부산을 국제 교역 거점으로”, 동남 개발 연구원 시민 대토론회 계획안 무성 실천 사례 드물어(국제 10. 8)
* 부산 금융시장 안정회복, 부산지역 부도율 전월대비 다소 높아졌으나 부도 업체 수가 줄어들고 화폐 환수 빨라져(국제 10. 8)
* 부산공직자의 재산공개, 따라 구린 축세 수두룩(부산 10. 8)
* 부산지역 관광호텔의 진로모색 세미나 개최(부산 10. 8)
* 사하구 장림고개 일대에 정류소가 횡단보도가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부산 10. 8)
* 장전3동 사무소, 민원 안내카드를 제작하여 배포(부산 10. 8)
* 해운대구에서는 파지수집소등의 불법영업을 묵인(부산 10. 8)
* 부산공직자 중 50억 이산 재산가 25명(부산 10. 8)
* 부산공직자 재산공개(369명)(부산시정 10. 8)
* 시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교육감, 교육위원 재산 등록 사항 공개(부산교육 10. 8)

10. 9
* 공공 도서관 구실 못한다, 시설 낡고 자료 태부족, 지원금 10곳 고작 3억…전국 최하위(국제 10. 9)
* 부산항부두 배경로 공사 차질, 부산항의 올해 부두 및 항만 배후 도로 건설 공사 추진 실적이 크게 부진, 완공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입 물동량 처리에 지장 초래 예상(국제 10. 9)
* 부산 지하철 설계 “원초적 잘못”, 감사원 국감 자료서 확인, 바다 수면보다 낮은 구간 방수 엉성(국제 10. 9)
* 부산시 발전 정체 심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 계획 1천여건, 소요 예산 총 10조9천억, 가용 재원 44억…사실상 불가능(국제 10. 9)
* 부산시 간부들이 곳곳의 무연고 땅을 소유하여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부산 10. 9)
* 부산~상해 간 합작여객선사가 설립(부산 10. 9)
* 이기대・신선대 등 군 통제 7개 해안이 9일부터 완전 개방(부산 10. 9)
* 10월 중 공공 부문아파트 2천5백세대가 부산지역에 공급(부산 10. 9)
* 제2회 추경예산에서 부산시가 9백69억원을 확정(부산 10. 9)

10. 11
* 부산신발업 중국 투자 활발, 정부가 신발 업체 해외투자를 묶어온 ‘1국 5개사 해외투자제한 조치 해체’로 부산 신발 업체 중국에 투자 활발(국제 10. 11)
* 부산 철도청 재산관리 엉망, 소유권 보존 등기 소홀, 부시 사용료 등 낮춰 받아 국고 손실(국제 10. 11)
* 당감동에 아파트 단지, 주택공사가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 내년 건설(국제 10. 11)
* 부산 시의회 20일 임시회 개최,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9백6억원 규모의 『93년도 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키로(국제 10. 11)
* 부산시립영락공원의 건립을 반대하는 남구 주민들이 금정구민 체육대회에서 농성(부산 10. 10)
* 부산을 비롯하여 전국 15개 시도의 지방공직자 5천여명의 재산공개가 완료(부산 10. 11)
* 부산시 일부 공직자가 위장전입 투기의혹(부산 10. 11)
* 군부지의 택지개발이 이달내 본격 추진될 예정(부산 10. 11)
* 부산항 유지보수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관리 엉망(부산 10. 11)
* 부산지방법원, 법관회의내규(내규 제65호) 제정(법원사 10. 11)

10. 12 * 지정 진료제 환자들 반발, 환자가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 받는 지정 진료제가 병원 수익 증대에 악용(국제 10. 12)
* 가덕도 2백82만평 항만 개발, 부산해항청 국감 용역의뢰, 내년 사설지구 지정 계획(국제 10. 12)
* 공휴일 윤번제 실시, 시는 12일 무허 자동차 정비업소의 불법 정비 행위를 근절하고 공휴일 사고 차량의 견인 등 교통 소통 문제 해결 위해 17일부터 시내 8곳 차량 정비 업체 윤번제 실시키로(국제 10. 12)
* 1천5백명「그린벨트 개선안」반대, 강서 주민들 항의 집회(국제 10. 12)
* 녹산 공단 분양 신청, 내주에 입주 요령 공고 심사 착수(국제 10. 12)
* 새 청사 12월 착공, 부산시 새 청사 건립 공사가 오는 12월 본격 착공, 국감 자료 이달 안에 실시 설계 용역 완료(국제 10. 12)
* 부산지역업체의 중고차 수출선이 변화되기 시작(부산 10. 12)
*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미분양아파트가 6천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부산 10. 12)
* 부산시는 12일 2000년까지 부산 대청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부산 10. 12)
* 동래구 의회·주민 설문조사 결과 공직사회 부조리가 개선(부산 10. 12)
* 북구·해운대구 윤리위원이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물의(부산 10. 12)
* 부산항의 입·출입 선박들의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부산 10. 12)
*「부산직할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 공포(제3060호)(부산교육 10. 12)
*「경상남도 내 중학교 졸업자 중 부산직할시내 고등학교 입학 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공포(제3061호)(부산교육 10. 12)

10. 13 * 행정 소송 패소율 높다, 부산 국세청 잘못된 세금 수정 기피, 제소 34%가 부당 판정, 문책 우려 전체 인정률 12% 불과(국제 10. 13)
* 가명계좌 96% 실명화, 어제 마감 차명 포함 총액 5조6천7백억, 부산 전환율 전국 평균 상회(국제 10. 13)
* 고교생 예능 대회, 시교육청 고교생 특별 활동 활성화 위해 오는 16일~17일 고교생 예능 대회 개최(국제 10. 13)
* 부산 세수 증가율 급증, 작년 4조2천억 징수…26%나 늘어(국제 10.13)
* 가변차선제 실시 시급, 서면-양정로터리 출퇴근 때 체증 극심, 교통 체증 완화 위해 가변 차선제 실시 시급(국제 10. 13)
* 국세 징수 기준 "멋대로", 부산 세관, 부당 환급·면제 잦아 국고 손실(국제 10. 13)
* 북구청에서 지하철 2호선 공사구간의 긴급안점점검(부산 10. 13)
* 모자보건센터가 설립 된지 21년만에 보건소에 역할을 이관하고 폐지(부산 10. 13)
* 부산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액이 평균을 상회해 과세과잉정책이 아니냐 지적(부산 10. 13)
* 지역경제 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의 세수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지적(부산 10. 13)
* 부산지역에 10개소의 지하하수처리장이 추가로 건설(부산 10. 13)
* 생곡매립장 주변도로의 확장이 지적되어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부산 10. 13)

10. 14 * 구민 체육대회「예산 동냥」물의, 금정구 동 민간단체에 손 벌려, 최고 50만~10만원까지 행사비 각출(국제 10. 14)
* 부산시 발주 공사 특혜 의혹, 10억 이상 5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국제 10. 14)
* 부산 신발 업체 절반이 폐업, 91년 이후 3년간 561개사 문 닫아, 실업자 4만4천여명, 현재 658개만 가동 명맥 유지(국제 10. 14)
* 그린벨트 내 공무원 관련 불법행위 부산이 90명 전국 최대, 부산시가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와 관련 공무원 징계 건수가 전국 최고인 것으로 드러나(국제 10. 14)
* 등록재산 본격심사 시 교육청, 시교육청 공직자 권리 위원회는 14일 등록재산에 대한 본격 심사 착수(국제 10. 14)
* 베일 속 다대진 실체 확인, 부산시립박물관 조선말 부산의 국방상황과 풍속, 사회상을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는 일기 일본견문록 그림책 다대포 첨사인수인계서가 한꺼번에 발견(국제 10. 14)
* 부산지방국세청의 세수가 10% 늘어난 것으로 확인(부산 10. 14)
* 부산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전철역의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키로(부산 10. 14)
* 부산시, 최근 결혼성수기를 맞아 예식장 바가지를 특별지도 단속키로(부산 10. 14)
* 부산시, 일부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과 민간건물신축사업에 대해 교통평가 없이 사업승인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부산 10. 14)

* 부산공직자 704명의 윤리위원회가 가동되었으나, 형식에 그칠 것이라 의문이 제기(부산 10. 14)
* 국감자료, 부산시가 녹지의 형질변경 남발로 임야 142㎡ 감소(부산 10. 14)
* 국감자료, 연립주택 등 붕괴위험 건물의 점검 제외로 안전진단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난(부산 10. 14)
* 부산시와 금정구의 영락공원 건립과 관련한 화장장 견학이 폭력 등으로 물의(부산 10. 14)
* 부산시 관급공사 111건이 설계변경으로 예산 1천억이 낭비되었다(부산 10. 14)
* 국회 건설위 국정감사(부산시정 10. 14)

10. 15
* 신시가 공사 담합 의혹, 지역 경쟁 8건 평균 낙착율 96.9%(국제 10. 15)
* 동서고가로 통행료 비싸다, 6~8백원 징수…시 수입 올리기 급급(국제 10. 15)
* 부마항쟁 역사적 재평가 복권 시급, 79년 10월 16일 부마항쟁 기념 사업회 기자회견 뒤 각종행사(국제 10. 18)
* 국감자료에서 사립고 시설공사 상당수가 탈법의 온상으로 지적(부산 10. 15)
* 부산국토관리청, 5년간 253건의 설계 변경에 따른 유착의혹을 의심(부산 10. 15)
* 시내~구포방면 운행 노선버스의 개선이 주민들로부터 요구(부산 10. 15)
* 부산시 제출 국감자료, 부산시 도시고속도로 곳곳 안전 위험(부산 10. 15)
* 동서고가로 통행료 징수(부산시정 10. 15)
* 安相敦 제27대 부산지방법원장 취임(법원사 10. 15)

10. 16
* 올해 부산지역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이 6.6%로 낮아졌으나, 기업규모별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부산 10. 16)
* 부산시, 16일 고가・지하차도의 입체건설로 추진(부산 10. 16)
* 「건설부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 반대 강서구 추진위」, 그린벨트 제도와 관련한 6개항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건설부・부산시에 제출(부산 10. 15)
* 3년간 난항을 겪은 둔치도 연료단지가 내년 중 착공 예정(부산 10. 16)
* 부산 각 구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이 부동산 및 재산축소 의혹(부산 10. 16)

10. 18
* 관급 공사 담합 의혹, 3억 이상 절반이 낙찰율 95% 이상 부산시가 발주한 관급 공사도 대부분 업체들끼리의 담합으로 낙찰가가 공사 예정가격의 90% 이상에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국제 10. 18)
* 금정산 일대 택시 불법 영업, 부당 요금 예사, 경찰 단속 않고 먼 산 보듯(국제 10. 18)
* 가야로 교통체증 극심, 동서고가로 통행료 비싸 차량기피(국제 10. 18)
* 주거지역 택지난으로 공장부지 아파트건립이 90년 이후 만7백세대인 것으로 나타나(부산 10. 18)
* 부산정기감사, 부산상수도 본부가 비리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나(부산 10. 18)

10. 19
* 부산 상의, 국제화전략 “첫발”, 동아시아 주요항구 교통회의 21일 개막(국제 10. 19)
* 부산 시청사 수주 경쟁 치열, 공공도급 전망에 지역업체 분주(국제 10. 19)
* 해운대 국민 생활관 시 직영 방침에 큰 발발, 지난달 조례안 확정 “사회체육위축 처사”(국제 10. 19)
* 부산시, 영세 일반 음식점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시는 19일 일반 대중음식점의 시설개선과 위생향상을 위해 시설 자금마련이 어려운 업소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해주기로(국제 10. 19)
* 부산지역 공원 광장 유원지 등 도시 공간 시설이 도시 발전에 따라 시설 투자 절대 부족하여 쾌적 공간 역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국제 10. 19)
* 자원 재활용 업무 차질 우려, 청소 차량 인력 확보 등 대책마련책 없어, 내년부터 구청서 전담 업무에 차질 불가피(국제 10. 19)
* 동삼~청학동 해안로 사고위험 곳곳 패고 유실 많아, 영도구 동삼1동~청학2동(국제 10. 19)
* 남구의 광안4동에 부산시 청소년 수련마을이 건립(부산 10. 20)
* 자갈치 수산물 축제가 22~24일 3일간 개최(부산 10. 19)
* 부산시의 유료도로 관리 업무가 행정위주로 치우쳐 과중한 통행료를 부과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부산 10. 19)
* 92년 예산 결산에 따르면 부산시의 살림이 주먹구구식(부산 10. 19)
* 부산시 해양박물관, 20억원 가량 국고에서 지원받아 내년 중 착공키로(부산 10. 19)
* 지난 2년 동안 난항을 겪어온 수영강변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로(부산 10. 19)

10. 20
* 선거문화 발로 뛰어 일깨운다, 부산시 선거관리 위원회 학교 기업체 노조 찾아 바른 선거 지원(국제 10. 20)
* 부산시 부당노동행위 “앞장”, 일용직 노조와 단협 거부 대화불응(국제 10. 20)
* 장기처리채권신청저조, 자금출처조사 면제 혜택에 불구하고 장기처리 채권 신청이 저조한 실적(국제 10. 20)
* 부산시, 인사 아동 청소년회관장 이영활(국제 10. 20)

* 관공사 방치 교통체증, 부산시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천일부를 미복개한 채 그대로 두거나 예산부족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해 교통사고 우려와 함께 교통사고 우려(국제 10. 20)
* 부산항 관련기관 통폐합, 부산 해항청 추진 기구축소 민영화 검토(국제 10. 20)
* 강서지역 4개 국교 내년부터 분교개편, 부산시 교육청은 20일 한정된 교육재원을 절감하기 위해 전교학생수가 1백명 이하인 강서지역 4개 학교에 내년부터 분교개편(국제 10. 20)
* 부산 지역 기초의원들이 관광성 외유를 추진하여 물의를 빚어(부산 10. 20)
* 개발제한구내 농지를 무허가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부산 10. 20)
* 부산해양청 공사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부산 10. 20)
* 시와 일선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대청결 운동이 겉치레가 될 것이라 우려(부산 10. 20)
* 시와 동구청이 부산역 광장에 들어설 업체 주차장의 설치와 사용권을 두고 공방(부산 10. 20)
* 부산시, 인사(부산 10. 20)
* 동아시아 주요항구도시 경제교류회의(부산시정 10. 20)

10. 21
* 엄궁동 택지 개발 늑장, 지주 11명 보상금 거부(국제 10. 21)
* 97년 부산 동아주대회 유보, 정부 예산사정 들어 난색표명(국제 10. 21)
* 국감자료에서 부산지역 일선구청에서 아파트세금 봐주기 의혹 제기(부산 10. 21)
* 구청의 행정착오로 토지소유권 미이전 상태에서 과세가 부과되어 종합토지세 납세 거부(부산 10. 21)
* 부산 북항 해저터널이 도심순환도로 계획에 따라 착공 확정(부산 10. 21)
* 금정구 기찰 경로당 등이 철거문제로 진퇴양난(부산 10. 21)
* 부산시는 화장장건립을 25일 착공키로 해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예상(부산 10. 21)

10. 22
* 항만경쟁력 강화 위한 수출, 부산항 관련 기관 통폐합 추진 배경(국제 10. 22)
* 부산대교 체증 몸살, 도색 보수 공사로 편도 1차선 차단(국제 10. 22)
* 엄궁화물터미널 착공, 23일 기공식(국제 10. 22)
* 용호부두 내달개장, 냉동운반선등 접안 다목적 활용(국제 10. 22)
* 민락매립지 레포츠 시설 추진, 소유주 건축계획 결정신청서 제출(국제 10. 22)
* 산불비상 진화장비 태부족, 민관군 협조체제도 미흡 대책시급(국제 10. 22)
* 전과자를 교육위원선출, 부산시의회가 공갈협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위원으로 선출해 물의(국제 10. 23)

10. 23
* 국토대청결 마지막 날, 50만 시민참여 대청소 남항 을숙도 등 말끔히(국제 10. 23)
* 취업교재 사기판매 기승, 경찰 사칭 강매로 소비자 우롱예사(국제 10. 23)
* 부산시, 인사(국제 10. 23)
* 부산 국제 신발 전시회 개막, 우리 상표로 세계시장 도전(국제 10. 23)
* 부산시, 소비자고발 전화번호 9898로 통일, 현재 시구 및 각 민간소비자 보호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고발 절수용 전화번호를 9898로 통일하기로(국제 10. 25)
* 장의차업주-사업자 분쟁해결 유도 시, 쌍방간담회주선, 부산시는 23일 최근 업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장의자동차업주와 장의사업자에 대한 조정에 나서(국제 10. 23)
* 무허가 컨테이너 하우스가 부산시내에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부산 10. 23)
* 부산시의 사업들이 중복투자로 예산낭비가 막대한 것으로 드러나(부산 10. 23)
* 국토대청결 운동이 열러 부산 등 전국 7백여만명이 청소작업(부산 10. 23)
* 부산시, 인사(부산 10. 23)
* 부산국제신발 및 스포츠레저용품전시회(~27)(부산시정 10. 23)
* 부산종합화물터미널 기공(부산시정 10. 23)

10. 25
* 임해봉사실 미관해쳐, 건물낡고 해수욕철 이외에는 쓸모없어 해운대 이미지 큰 손실(국제 10. 25)
* 감천항 관-업체 갈등 준공연기, 해안로 용도변경 펌프장 설치비 공방 2천8백억 부두 낮잠(국제 10. 25)
* 국제신발전 큰 호응, 이틀만에 실적 목표 3백만달러 달성(국제 10. 25)
* 부산화장장건립 비상, 시 이번 주 벌목작업추진, 주민 가족동원 철회농성(국제 10. 25)
* 생활오수의 법적규제가 없어 관련법규 마련이 시급(부산 10. 25)
* 부산시・선관위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소규모 단체의 교육을 실시키로(부산 10. 25)
* 부산의 레미콘 보유 부족으로 해운대 신도시 공사가 비상(부산 10. 25)

10. 26 * 부산상의, 유통업계 분석, 대형슈퍼 백화점 덤핑시장 재래상가 실명제 희비쌍곡선(국제 10. 26)
* 알루미늄난간 사고우려, 강도 낮아 쉽게 부서져(국제 10. 26)
* 산성주민 마을가꾸기 한창, 부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금정산 산성마을이 날로 오염돼 주민들이 직접 마을 가꾸기에 나섰다(국제 10. 26)
* 부산화장장 불씨안고 착공, 벌목 착수 주민 3백명 경찰과 대치 몸싸움(국제 10. 26)
* 신호 국가공단 추진, 정부 녹산 단지와 통합 분양가 인하, 항만도 개발 효율 극대화(국제 10. 26)
* 금정구청, 인사(국제 10. 26)
* 지난 20일 경영자 협의회 동향조사, 하후상박원칙을 준수(부산 10. 20)
* 도시발전연구소에서 해양개발방향 세미나가 열려 부산발전을 위해 해안매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용 토지를 늘이는 방안이 제기되었다(부산 10. 26)
* 부산시가 오션타워 등 대형리조텔 업소에 대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부산 10. 26)
* 북구의회, 관광성외유를 강행하여 물의(부산 10. 26)
* 부산지역 가스취급 시설 중 24%가 안전조치를 소홀 적발(부산 10. 26)
* 산불예방명령이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부산 10. 26)
* 사상종합복지관 개관(부산시정 10. 26)

10. 27 * 고속전철 부산-대구 직선화, 정부는 당초의 부산-경주-대구로 우회하는 경부고속전철노선을 부산-대구로 직선화하고 경주-대구간의 복선 전철화를 통한 고속전철 직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국제 10. 27)
* 양곡부두체선 갈수록 심화, 부산항 운항기피로 외국선에 웃돈까지 지급(국제 10. 27)
* 가변차선제 성과 없다, 안내 표지판 등 태부족 혼란만 불러(국제 10. 27)
* 서낙동권 개발시급, 도시발전면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주장(국제 10. 27)
* 재건축 용적률 5백%, 부산 현행보다 백%상향 활성화 추진(국제 10. 27)
* 부산 관광행정이 예산부족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부산 10. 27)
* 부산금정구청, 인사(부산 10. 27)
* 지방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나(부산 10. 27)
* 이달 중으로 예정되었던 부산 시청사 착공이 내년 1월로 연기될 전망(부산 10. 27)
* 부산대교 보수공사가 날림공사로 지적되어 대책이 시급(부산 10.27)
* 부산시, 27일 도로점용권 징수 조례를 지정, 내년부터 점용료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부산 10. 27)

10. 28 * 사상~김해경전철 99년 개통, 교통 개발원 최종보고 96년 착공(국제 10. 28)
* 부산 저축에 큰 폭 증가, 31조 작년비 12% 늘어(국제 10. 28)
* 특정폐기물 관리실태 엉망, 대장없고 일반쓰레기와 섞어 배출, 26개소 적발 행정처 분(국제 10. 28)
* 서면동보극장 36년 역사 마감, 월 1,600만원 적자, 지난 21일 폐업신고(국제 10. 28)
* 충렬 수영로 체증우려, 신시가 아파트 신축 때 화물차 급증(국제 10. 28)
* 부산시, 주민들의 버스노선 신설을 묵살하여 주민 불편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부산 10. 28)
* 부산시, 농지・산지의 전용부담금, 역외 유출이 심한 것으로 드러나(부산 10. 28)
* 부산시, 인사(부산 10. 28)
* 영도구 한의사회, 보건소, 지난 17일부터 저소득층들을 무료 진료(부산 10. 28)
* 내년부터 부산 10개 터널의 건설이 최종 확정되어 공사 착공(부산 10. 28)
* 환경처의 발표, 부산지역의 소음공해가 작년보다 심해진 것으로 드러나(부산 10. 28)

10. 29 * 부산시는 시립화장터 건립과 관련해 지장목 벌채를 착수, 본격적 건립에 들어갔다(부산 10. 29)
* 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에 내년에 9백80억을 지원하기로(부산 10. 29)
* 그린벨트의 추가 완화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부산 10. 29)
* 내년부터 착공되는 수영강변도로의 공사우선순위가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부산 10. 29)
*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눌차도를 잇는 천가교 준공(부산 10. 30)
* 소련선원 보리스 훼지코프총기 밀반입사건 판결(법원사 10. 29)

10. 30 * 부산 교육청 재정난 극복위해 내년부터 연 20여억원 예산절감(국제 10. 30)
* 부산시 대기오염 부채질, 기준치도 없이 구청 동별 소각장 추진(국제 10. 30)
* 화장장 도시계획 고시, 부산시는 30일 금정구 두구동 산 83의 2 시립공원 묘지 내 화장장 건립공사와 관련 (국제 10. 30)

* 민원1회 처리방문제 홍보 시급, 응답자 46% 모른다 답변 시민불편사항 적극 개선키로(국제 10. 30)
* 29일에 시행된 화장장 건립이 내달 25일 토목공사에 들어감에 따라 반대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예상(부산 10. 30)
* 부산지역 주요경제 지수가 4개월째 하락세를 보여 여전히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다(부산 10. 30)
* 해운항만청이 추진하는 다대포항 개발부지에 수산물 가공단지가 부지부족으로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입주업체들과의 마찰이 예상(부산 10. 30)

11. 1
* 부산, 부산진, 가야역 기능 분담, 가야~사상간 복선화, 부산역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담당, 진역 무궁화와 통일호 담당, 가야역, 일반화물 담당(국제 11. 2)
* 해운대지역 관광특구 지정을 앞두고 일부 관광자원개발예정지가 규제에 묶여 발전 저해, '국유지' 묶여 민자개발도 불가(국제 11. 2)
* 부산 중소기업 경영 악화, 2단계 금리자유화시행, 금융부담 급증(국제 11. 2)
* 금정구, 행정통신원제 신설, 공과금 징수직원 활용, 주민 애로 사항 등 처리키로(국제 11. 2)
* 부산경찰청, 112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위치가 지방청 112 지령실 컴퓨터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시스템 구축(국제 11. 2)
* 부산지역 종합 유선 방송국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 마감, 16개 법인 신청, 경남 지역 1개 업체만 희망, 유력기업 인사 각축 치열, 전국 평균 3대 1(국제 11. 2)
* 영도 신선중학교-대마도 겟지중학교 자매학교 결실, 1일 양교 교류 협정서 교환(국제 11. 2)
* 산악단체가 앞장서서 자연석 등을 파괴하여 비석과 비문을 세우는 등 금정산 등의 경관파괴가 우려(부산 11. 1)
* 주거개선 공동주택, 내년 착공되어 부산에 첫 선(부산 11. 1)
* 백양·학장사회복지관 개관(부산시정 11. 1)

11. 2
* 한일 환경오염 연구합의, 94년 상호 인력 교류 실시(국제 11. 2)
* 부산시, 내년부터 신출되는 아파트 지하대피소를 주민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의무화하기로(국제 11. 2)
* 부산항 4단계 '컨' 부두의 공식명칭이 감만부두로 결정(국제 11. 3)
* 엑스포 '부산직할시의 날', 부산시장을 비롯한 1천3백여명의 내외 관람객 참여, 뮤지컬 공모 등 부산 소개(국제 11. 2)
* 강서구 등 구의원 7명이 사퇴한지 2개월이 지나 강서구의회가 기능이 마비된 것으로 드러나(부산 11. 2)
*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보선 당선 의원들의 추가재산을 공개(부산 11. 2)
* 부산공동어시장이 1일 개장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부산 11. 2)
* 부산시의회의 조례안이 표류하여 시정감시가 겉핥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부산 11. 2)
* 부산시는 2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93년도 시비장학금 수여식을 개최(부산 11. 2)
* 해운대 2만7천세대 등 부산아파트의 물량이 전국 최고조(부산 11. 2)
* 부산남구청, 인사(국제, 부산 11. 2)
* 부산역의 민자유치가 증축되어 업무 진행이 가속화(부산 11. 2)
* 대전엑스포의 「부산직할시의 날」 행사가 2일 오후 2시 엑스포극장에서 개최(부산 11. 2)
* 최초의 재산분할심판(92느1781)(법원사 11. 2)

11. 3
*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 5.6% 상승, 올 10월 말 목표선 5% 초과, 추석 후에도 계속 뛸 예정(국제 11. 3)
* 부산시의 자치구 평가제, 구청 간 경쟁 과열, 업무차질, 문책 우려해 매일 심야근무, 불만 고조, 자율성 저해와 행정 낭비(국제 11. 3)
* 국회, 대정부 질문과 답변을 가져 부산지역에 첨단산업 유치키로, 부산 경찰 여중생 폭행 추궁 등도 이루어져(국제 11. 3)
* 부산시, 국제 신발전 정례화 하기로 결정, 내년 2억5천만원 지원, 규모 확대(국제 11. 3)
* 녹산공단의 월내 원격분양이 빠르면 이달 내 시작(부산 11. 3)
* 부산시 「94산업육성개획안」이 확정되어 신발·섬유 산업의 육성을 지원(부산 11. 3)
* 부산 스위스 명예 영사관이 4일 현판식을 갖고 개설(부산 11. 3)
* 부산시, 인사(부산 11. 3)
* 주민대표의 공식적 제의로 부산시와 화장장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로 하였다(부산 11. 3)
* 시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부산 최악의 교통체증지역은 문현로터리인 것으로 드러나(부산 11. 3)

11. 4　* 부산 어음부도율 급상승, 10월 백13개사 문 닫아, 자금 편중 현상 심화, 영세업체 위기(국제 11. 4)
* 일선 구·동에 배치된 기능직 공무원의 관리 시에서 일괄 운영, 결원 발생 시 인원보충 기간 지연, 업무 차질(국제 11. 4)
* 금정구청, 금정산 전 지역에 생태조사 실시, 예산 3억을 부산시에 요청(국제 11. 4)
* 93 부산국제 신발 및 스포츠레저용품전 참가업체, 부산무역회관에서 간담회, 신발산업 도약 방안, 신발사업 회색 가능 자신감(국제 11. 5)
* 2002 아시안게임 부산 유치 추진회, 오는 30일 쿠에이트에서 열리는 제12차 OCA에 실무진 파견(국제 11. 5)
* 10월 부산 부도율이 0.54%로 올 들어 최고인 것으로 드러나(부산 11. 4)
* 부산시는 녹산공단의 운영주체를 둘러싸고 삼공자원부와 맞서고 있다(부산 11. 4)
* 부산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기업경영요소를 도입하기로(부산 11. 4)

11. 5　* 부산국세청장, 부산상공인 간담회, 부산상의, 중소기업에 세제 지원 건의(국제 11. 5)
* 철도청, 무궁화호 개찰 폐지 추진, 과다 탑승 등 사고 위협 우려(국제 11. 5)
*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신발 상설 전시장 설치, 내년 6월 완공 예정, 3백평 규모(국제 11. 5)
* 부산시 보건환경 연구원, 부산 주거지역 하천 갈수록 오염, 가정 오수 전체 오염량 95%(국제 11. 5)
* 부산지역 일선 구청 조직 개편, 이달 중 단행, 특성과 능률 중시, 관가 술렁(국제 11. 5)
*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내년 1월부터 가변 차선제 실시키로(국제 11. 5)
* 부산시 농촌지도소, 오는 13일에 4H경진대회 개최키로(국제 11. 5)
* 부산항, 컨테이너 고가차도 공사,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지연되어 수송에 차질(부산 11. 5)
* 영도구청, 5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영도구발전 10대 계획」을 시에 건의(부산 11. 5)
* 부산시, 내년부터 「신발아가씨」, 신발박물관 건립 등 범시민적인 신발축제를 개최(부산 11. 5)
* 부산시, 6천511억을 투입하는 등 내년 건설사업 17건을 확정(부산 11. 5)

11. 6　* 상공자원부, 녹산공단 공업용지 분양가격 평당 평균 60만8천원으로 최종 확정, 공당 운영주체 부산시로 확정(국제 11. 6)
* 부산지역 차량 증가율 크게 둔화, 10월 한 달간 절반수준으로 감소, 10월말 부산지역 차량 총 등록대수 45만7천8백18대(국제 11. 6)
* 부산시, 세무직 전문화를 위해 행정직공무원의 세무직 전환을 실시했으나 공무원들의 기피로 인해 저조한 참여율, 필요 인력 절반 정도만 확보(국제 11. 6)
* 부산시, 물가관리정책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어 정책효과가 반감(부산 11. 6)
* 부산시가 해양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영2호교를 시공하여 물의(부산 11. 6)
* 부산시는 2000년까지 부산지역 신발산업을 자사브랜드 수출방식으로 전환키로(부산 11. 6)

11. 8　* 부산지역 재활용 쓰레기 수거 늑장, 아파트 단지마다 수북, 주민들에게 적재까지 요구(국제 11. 8)
* 사하구 장림동 철거민단체, 부산시에 질의서 제출(국제 11. 8)
* 부산시, 공공료 봇물 인상, 분뇨수거료 100% 인상, 하수사용료 10% 인상 계획, 물가 위협(국제 11. 8)
* 사직운동장~만덕터널 등 동래지역 3개도로의 완공이 시급(부산 11. 8)
* 용두산미술관의 1·2층 전관 활용으로 전시 공간 확대여론이 주장(부산 11. 8)
* 부산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하는 공공요금 심의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물가대책위」를 신설하기로(부산 11. 8)
* 부산시, 조직이 외형적으로는 크게 비대해졌으나 질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행정의 전면 개편이 시급(부산 11. 8)

11. 9　* 부산지역 변호사 사무원 마구잡이 채용, 별도 사무실 내주고 수임료 나눠먹기, 비리 연루 경관출신 무더기 고용(국제 11. 9)
* 부산시 특정 업체에 특혜, 시내버스 증차 뒤 바로 양도 허가, 운행대수 줄어 주민 불편(국제 11. 9)
* 문화체육부, 아시안 게임 부산유치 계획, 정부안 월말에 확정(국제 11. 9)
* 부산지역 설비공사가 타지업체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부산 11. 9)
* 부산시, 착공한 범일과선교 보수공사가 소통 없이 진행되어 교통지옥화 될 전망(부산 11. 9)
* 민자 황총장의 '부산발전특별관리'에 따라 서낙동강권 개발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부산 11. 9)
* 부산의 일산 구청들이 용역을 남발하여 예산 낭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나(부산 11. 9)

* 부산지역 경제기관장 회의가 열려 물가안정 수출진흥 등을 논의(부산 11. 9)
* 부산지역 대기 등이 매년 악화되어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부산 11. 9)

11. 10
* 부산도시가스, 가스시설 교체 후 20배 폭리, 고무호스, 밸브 설치비 지나치게 요구(국제 11. 10)
* 부산시, 행정 정보 공개 수수료 받기로, 한 시간 열람에 100원, 사본 300원씩(국제 11. 10)
* 부산 음악계의 숙원사업인 시립오페라단의 창단이 가시화(부산 11. 10)
* 해운대·녹산 등의 개발에 따라 부산 전력시설이 크게 확충(부산 11. 10)
* 녹산공단의 분양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분양가가 소폭 인하될 전망(부산 11. 10)
* 부산시는 2000년까지 「건강한 국토사업」을 3단계로 계획하여 수립키로(부산 11. 10)
* 1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시와 주민대표의 화장장 대화가 답보상태(부산 11. 11)
*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규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부산고법93노1044)(법원사 11. 10)

11. 11
* 부산시, 오는 97년까지 1천4백억 투입해 영세민 밀집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치기로(국제 11. 11)
* 두구동 그린벨트 불법행위 극성, 무허가 공장 30여개 입주, "지역유지 단속 기피" 형평성 잃어 의혹(국제 11. 11)
* 사하구청, 23일 장림유수지 이설 공사 기공식, 4백20억 소요, 장림 신평공단과 주택가 상습 침수해소(국제 11. 11)
* 부산시 현안 4장 중 둔치도 연료단지 조성사업, 내년 5월에 실시, 내년 10월 착공 예정, 시 예산 55억 투입(국제 11. 11)
* 부산의 공유수면지가 불법 점용이 많아 해양오염 및 해안선이 훼손(부산 11. 11)
* 일선구청의 우선순위 무시로 인해 회계연도를 넘겨 추가비용을 낭비(부산 11. 11)
* 현재 설립 추진 중인 부산 WTC종합전시장이 78억불의 이익 발생을 추정(부산 11. 11)
* 부산시, 오는 17일~19일 열리는 중국 상해 국제수도회의에 관계자를 파견키로(부산 11. 11)
* 부산 전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기 중금속 오염도가 검출(부산 11. 11)
* 부산시 교육청, 10~13일까지 어린이회관 전시실에서 탐구사례발표대회 개최(부산 11. 11)
* 부산 경제계의 현안인 부산세계무역센터 설립을 위해 부산 WTC추진회가 발족되었다(부산 11. 11)

11. 12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고 부산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 지출안에 대한 종합 심사, 예비비 과잉편성 추구(국제 11. 12)
* 부산시청사 2천억 공사 외지업체로 빼길 판, 법 제한 묶여 토급 비율 10~20%뿐(국제 11. 12)
* 부산시, 오는 12월 1일부터 행정정보 일반시민에게 공개, 9백16개 목록 대상(국제 11. 12)
* 부산시, 건축법 위반한 향토건축사 사무소 등 12개 건축 사무소에 대해 업무정지 처벌 등 시행(국제 11. 12)
* 부산시, 시정감시체제를 가동,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부산 11. 12)
* 부산맹학교의 동래구 이전과 수영만의 해강국교 신축이 확정(부산 11. 12)
* 부산시가 을숙도 철새도래지에 쓰레기 등을 불법투기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부산 11. 12)
* 해운대 신시가지의 불합리한 용적률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부산 11. 12)
* 부산시 주요 행정 정보 공개 목록 사회단체 등록취소 현황 外(부산 11. 12)

11. 13
* 민주주의 민족통일부산연합, 6공 청산 국민대회 개최(국제 11. 15)
* 부산시, 어른 목욕료 13.3% 인상 허용, 1천7백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국제 11. 13)
* 부산시, 무계획적이고 비능률적인 재정운용, 92년 세입, 세출 검사, 1,361억 사장, 각종 기금 운용 실적 부진(국제 11. 13)
* 민락동 매립지 무분별 건축으로 미관 훼손, 쾌적한 관광지구 기능 상실 우려, 도시기반 시설도 미흡, 대형건물, 건폐율 상한선까지 신청(국제 11. 13)
* 부산시, 특별승진제 실시, 공무원 사기 진작책 마련 시행(국제 11. 13)
* 다대로~낙동대로 우회도로 내년 초 완경 예정(국제 11. 13)
* 부산시, 겨울철 산불 예방 방지를 위해 15일부터 내년 5월까지 일부 등산로 폐쇄키로(국제 11.13)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92년도 부산시교육청 세입세출결산안, 부산시교육청, 학교시설 사업 등으로 재정난, 올 예산 4백억원 사장(국제 11. 15)
* 부산해양관광권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부산 11. 13)
* 시의회는 방만한 시예산 운영 등을 집중 성토하기로(부산 11. 13)

11. 15　* 부산시, 구청별 수백 건씩 모두 5천여건 지방세 징수 과오납, 이자액만도 수억 환불, 업무 미숙과 전산착오 등 빈번(국제 11. 15)
* 부산시의회, 27회 임시회 폐막, 부산시의회 92년 결산안 통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지원,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 확정(국제 11. 15)
*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사직동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실 시설계를 서울의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할 방침, 특혜 의혹, 부산업체 측 공개입찰 요구(국제 11. 15)
* 부산, 경남 대형 주민 숙원 사업, 국가예산지원 불확실 또는 도시 계획 불부합이라는 이유로 무더기 유보, 낙동대로, 제2부산대교 보류, 마산문화회관 등 19건 불확실(국제 11. 15)
* 부산전문대학 내에 민속박물관이 개관(부산 11. 15)
* 부산 문단출신의 문학지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부산 11. 15)
* 부산시립 화장장 건립에 반대해온 주민들이 시장과의 대화와 지속적 반대시위를 2가지 사안을 두고 최종 택일키로(부산 11. 15)
* 부산 민락동 매립지 2만여평이 10년째 흉물로 방치(부산 11. 15)
* 금정구청, 지역 문화 발굴 작업 결과를 수록한『부산 두구동의 기층문화』라는 책을 발간하였다(부산 11. 15)
* 부산시의 산불 방지 대책이 유치한 발상으로 비난(부산 11. 15)

11. 16　* 중구청, 구청사부지 보건소 창고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국제 11. 17)
* 부산시 소방본부, 부산지역 대형건물 47%가 소방안전 불량, 겨울철 화재사고 우려(국제 11. 17)
* 부산시, 94년도 도로개설 및 확장 신규사업안, 동래지역 포함한 7개소 도로 개선(국제 11. 16)
* 부산시, 국제적 행사 앞두고 수영만요트경기장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영천수질정화사업 전개', 그러나 간이 침전조 수년간 방치, 대부분 파손(국제 11. 16)
* 부산시, 남구청 인사(국제 11. 16)
* 부산시, 연말 물가 합동 단속 강화, 매점매석행위 등 업체에 대해 검사권 수시로 발동(국제 11. 16)
* 부산시, 시민체육시설 신설, 중구 용두산 공원과 서구 중앙공원에 시민체육 시설과 궁도장이 각각 신설(국제 11. 16)
* 부산상의, '정보화추진실태' 설문조사, 부산제조업 자동화, 정보화 미비, FA 등 미흡, 경쟁 상실(국제 11. 16)
* 부산시, 한국방문 외국인 방문을 위해 범시민친절운동 전개, 관광객 72%가 불친절 경험(국제 11. 16)
* 경제 단체 결성 러쉬・연합회 등이 올해 7개 출범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부산 11. 16)
* 부산시 시설을 정밀 점검한 결과 50여 곳의 재해 위험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부산 11. 16)
* 제1회 산업평화상 시상(부산시정 11. 16)
* 각 급 학교 찬조금품 관리 지침 개정(부산교육 11. 16)
* 96학년도 제2차 대학 수학능력 시험 실시(부산교육 11. 16)

11. 17　* 부산시 소방본부, 산하 8개 소방서, 소방장비 노후도 극심, 보유장비 부족, 소방체계에 큰 허점(국제 11. 17)
* 부산기업 중국투자 활발, 전년비 건수 86, 금액 34% 증가(국제 11. 17)
* 국회상임위원회, 부산 화장장 내주까지 처리키로, 내일 법 개정, 결산승인건 해결(국제 11. 17)
* 부산시 부시장 등 시 관계자 3명, 국제 수도회의 참가, 17~19일(국제 11. 17)
* 동구청, 고부교실 개강(국제 11. 17)
* 부산지역 개최 예정인 각종 경기대회가 재정난, 주변의 무관심 등으로 무산(국제 11. 17)
* 시내유원지 이용객 격감, 태종대 공원, 어린이 대공원 등 작년대비 39만 감소, 교통체증과 시설 투자 미흡 등이 원인(국제 11. 17)
* 부산 중구 땅값 하락률 최고, 전년비 6.25% 하락, 올 9월까지 강서구가 1.36%로 최저(국제 11. 17)
* 부산제조업 경쟁력약세 품질이 가격보전 미흡, 부산상의 282사 조사(국제 11. 17)

부산지역 제조업 수출경쟁력 비교

	부산업체	선진국	경쟁국	열위국
가격	100	120	93	76
품질	100	117	95	77
디자인	100	118	95	77
해외마케팅	100	124	101	82

* 삼성자동차 부산에 2백만평 부지로 공단 조성할 예정, 부산시 경제단체, 땅 확보와 가격 원칙적 합의, 내 4월 지사 신호 공장 착공(국제 11. 17)

* 남구 수영동과 망미동 주민, 수영구 신설 요구(국제 11. 17)
* 부산지역 제조업체들의 생산성 악화로 수출가격을 인상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 11. 17)
* 부산지방해양청이 부산시가 을숙도 철새도래지에 장기간 불법투기해 온 사실을 묵인해왔다고 의혹(부산 11. 17)
* 부산금융기관이 권한이 제한되어있어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부산 11. 17)

11. 18
* 부산시 교육청, 학교 방음시설 학교 측에 떠넘겨, 시내 28개교 소음공해, 양 측 대립(국제 11. 18)
* 부산 도시개발공사, 주택건립사업에서 3백96억 적자, 택지개발도 실패(국제 11.18)
* 부산지역 도시가스, 시설비 부담을 이유로 단독주택에 가스공급 외면, 전체 0.72%만 혜택, 단가 적은 아파트에만 집중(국제 11. 18)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국제 11. 18)
*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의 분양이 대부분 다음 달로 연기(부산 11. 18)
* 부산시, 중복투자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전선의 직복선화를 조기 추진키로(부산 11. 18)
* 기초의회의 감사자료 요구가 과다하여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 11. 18)
* 사상로 지하철 공사가 착공 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불편 심화(부산 11. 18)

11. 19
* 부산시, 사하공단 내 공동주택 허용조례 확정, 공동주택 설립에 분쟁, 집단 민원 우려(국제 11. 19)
*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지역 실직자 1만3천3백53명 중 영세신발 근로자 9천11명으로 집계(국제 11. 19)
* 부산시, 오는 26일~12월 10일까지 심장병어린이 실태조사 예정, 지원 계획(국제 11. 19)
* 부산지역 기업체의 수출신용장 내도액, 10월, 전월 비 28% 증가, 3억5백만달러(국제 11. 19)
* 부산시 남구, 인사(국제 11. 19)
* 부산시는 급증하는 지방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양여금을 확대하기로 건의(부산 11. 19)
* 부산 교육 동백회가 재단법인으로 출범(부산 11. 19)
* 남구청, 건축법을 무시하고 종교시설을 허가해 주민들의 반발(부산 11. 19)
* 부산시 새 청사의 공사가 교통대책 소홀과 졸속공사 우려가 제기(부산 11. 19)
* 부산시 소방본부, 19일 오후 2시 불조심 해상 퍼레이드를 진행(부산 11. 19)

11. 20
* 부산시, 차적변경등록 혼잡, 서류송달료 시에서 대납, 동마다 징수요금 달라 혼선(국제 11. 20)
* 부산지방경찰청, 인사(국제 11. 20)
* 부산시의회, 93년도 정기회개최, 내년 예산안도 심사(국제 11. 20)
* 부산시의회, 부산시 내년 예산 2조4천억, 올해보다 24% 증가(국제 11. 20)
* 부산 금정구 시립 공원 내 화장장건립 반대하는 주민 300여명 시 상대로 집단 고소(국제 11. 20)
* 사하구 염색공단-부산경남염색공업협동조합 시설분담금 마찰, 산출 방식 이견(국제 11. 20)
* 북구청, 민원대리인제 인기, 복잡민원 등 구청 직원이 도와 55건 해결(국제 11. 22)
* 부산시 내년예산 편성결과 교통난해결을 우선화 하고 신규 투자를 억제하기로(부산 11. 20)
* 금정구청, 2천여명이 모여 금정산 인간띠 쓰레기 하산운동을 벌였다(부산 11. 20)
* 부산시립화장장, 지난달 29일 착공한 이시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걸었다(부산 11. 20)
* 부산시 교육위원회, 20일 부산시 7개 특수·특수목적 학교를 방문·감시(부산 11. 20)
* 부산시청사 건립 공사에 공사업체와 시 간의 참여확대를 두고 줄다리기(부산 11. 20)

11. 22
* 해운대구, 신시가지 우회도로 내년 1월부터 공사, 부산시에서 총 사업비 31억6천만원 투입(국제 11. 22)
* 부산시, 화명 2지구 택지조성공사비 3천2백61억원 등 총 8개지구에 4천4백93억3천만원의 택지조성공사비 확정(국제 11. 22)
* 신평 장림공단 근로자 복지시설 부족, 공용 용지에 관공서만 우선 유치(국제 11. 22)
* ㈜부산도시가스 조사, 10월 말 상공업용 도시가스요금 체납액 증가(국제 11. 22)
* 부산시, 중하위공직자 사정 마무리작업, 최종 대상자 70~80명 선, 1차 선정 백여명 정밀 내사(국제 11. 22)
* 부산시, 김장배추가격 안정 및 정부 양정대책회의, 범시민적으로 운동 전개하기로(국제 11. 23)
* 지난 10일 개방된 해안공원의 유원지 개발이 지연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부산 11. 22)
* 부산시 체육회 상임이사제가 늑장 구성이 되어 눈총을 받고 있다(부산 11. 22)
* 행정관리 민간 지원금이 관련단체에만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나(부산 11. 22)
* 부산시 공무원 94명의 비리가 적발되어 징계(부산 11. 22)

11. 23
* 시의회, 부산시 상위법 저촉해가며 시설기준 강화, 부산시-기존업자 결탁, 중고차매매 신규참여 봉쇄 주장(국제 11. 24)

* 부산시, 가덕도 천가 일주 도로 내년 공사 착공(국제 11. 24)
* 동구청, 관내 오수정화시설 및 대형 정화조 일제 점검, 연말까지(국제 11. 24)
*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인근 주민들이 무리한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등 재산피해와 관련해 집단 민원(국제 11. 23)
* 생활정보지광고 악용 범죄 극성, 위장 취업 후 금품 털어, 물품 강매 등 부작용 빈발(국제 11. 23)
* 제6회 철새모이주기 및 탐조 행사가 28일 을숙도에서 열릴 예정(국제 11. 23)
* 부산시의회, 93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 감사 돌입, 부산시 주차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교통행정의 난맥상, 공유재산관리실태의 허점 등에 대해 집중 추궁(국제 11. 23)
*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낙동강 하류 수화 비상, 엽록소 급증, 대규모 조류 발생 시 식수 차질(국제 11. 23)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온천장 지하철역 마을버스가 12월 1일부터 운행(국제 11. 23)
* 부산시, 농산물 유통 근대화를 위해 농산물 규격화 추진(국제 11. 23)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부산항 미군 부두 반환, 한미 연내 실시, 미군물자 최우선 처리 전제(국제 11. 23)
* 부산지방환경청, '낙동강 중권역 수질개선계획', 97년까지 확정 예정, 총 1조9백25억 투자(국제 11. 23)
* 부산시의회는 23일 상임위를 열고 부산시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부산 11. 23)
* 부산시 식육점에서 불법 유통을 하는 곳이 412곳이 적발(부산 11. 23)
* 부산 영락공원 진입로 공사 낙찰율이 100%에 육박해 담합에 대한 의혹이 제기(부산 11. 23)
* 명지 IC건설 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표류(부산 11. 23)
* 수정터널 공사가 본격화 되어 내년 6월에 착공에 들어간다(부산 11. 23)
* 엄궁농산물시장, 완전개장 준비를 마쳤다(부산 11. 24)

11. 24
* 부산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12명을 특수학교 운영실태 위해 실태조사 투입(국제 11. 24)
* 부산시의회 시정감사, 부산시의 주택수급조절기능 상실, 대기오염 및 산업쓰레기 처리문제와 지하철 공사 지연 등에 대해 집중 추궁(국제 11. 24)
* 부산상의, 부산 중기 정상 가동률 호전, 6개월 만에 하락 탈출(국제 11. 24)
* 부산시, 발주한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 구입 입찰에서 부산지역 업체가 98% 수주 신청했으나 수주액 비율은 44.4%에 불과(국제 11. 24)
* 부산국세청, 3억원대 이상 고액 부동산 거래, 양도 소득세 실사 신청자 90%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해 탈세(국제 11. 24)
* 도시개발공사, 예정가 유출 의혹, 지난 두 달간 신축 사옥 등 6건, 평균 낙찰율 96%(국제 11. 25)
* 내년부터 관청서에 팩시밀리・단말기 등이 설치되어 무료로 제공(부산 11. 24)
* 부산시의회, 24일 상임회를 열어 부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틀째(부산 11. 24)
* 송도예비군대대에 부지 34만평이 다음 달 택지로 개발될 예정(부산 11. 24)
* 부산시, 자연녹지훼손이 주택건립을 이유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부산 11. 24)
* 부산～상해 카페리 항로 개설 작업이 본격화 될 예정(부산 11. 24)
* 수영만 매립지 도시계획이 졸속으로 드러나 시가지 기형개발이 우려(부산 11. 24)

11. 25
* 부산시, 북구 화명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문제 발생, 지주보상 마찰, 분양 경기 침체(국제 11. 25)
* 통계청, 종사자 5인 이상 광공업사업체 7만6천개 조사, '92년도 광공업통계조사결과', 부산지역 광공업 종사자수 전년비 9.3% 감소, 전국 최고, 생산 및 출하증가율은 제자리걸음(국제 11. 25)
* 부산시, 겨울철 산불예방위해 시내개방 등산로 입구에 입산신고소 설치, 등산객 인적 사항 신고토록(국제 11. 25)
* 화명 2지구 등 부산 일대 주거환경 개설로 공공아파트 만2천세대가 보급될 예정(부산 11. 25)
* 부산시, 이달부터 내년 5월말까지 산불방지를 목적으로 등산로를 통제키로(부산 11. 25)
* 부산시, 화장장 대체 후보지에 대해 사업 불가능을 내비쳤다(부산 11. 25)
* 부산 시의회 사무감사에서 부산의료원 경영문제 등을 추궁(부산 11. 25)
* 부산시 어항시설 사업계획안을 발표하여 6곳을 확충하기로(부산 11. 25)
* 부산근교 김해・양산일대에 택지 2천만평을 개발하기로(부산 11. 25)
* 사하구 중장기 발전계획이 마련(부산 11. 25)
* 시립 화장장의 화장로 기종에 거액 낭비 논란(부산 11. 25)
* 시・경남도 공직자들, 대폭 명예퇴임 권고사직이 내려와 연말 물갈이가 예상(부산 11. 25)

* 부산시, 20개 지방공공요금을 내년 6월까지 동결하기로(부산 11. 25)

11. 26
* 부산시, 제3순환도로 건설 예정, 내년 4월 착공, 기종 계획 변경해 낙동~광안로안연결, 남천~수영은 복층도로(국제 11. 26)
* 부산시, 명장시립도서관 인력충원과 예산배정 더뎌 3개월째 미개관(국제 11. 26)
* 부산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불후이웃돕기 성금모급(국제 11. 26)
* 동구청, '깨끗한 동구만들기 운동'의 하나로 쓰레기 고발 시 포상금 지급, 5만원 지급(국제 11. 26)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 청소년 회관에서 청소년단체 시설관계자 등 참여 토론회 개최(국제 11. 26)
* 부산시의회, 6개 상위행정감사, 종합건설본부와 도개공 농산물도매시장 등 산하기관의 발주공사 지연 등 집중 추궁(국제 11. 26)
* 부산시의회, 6개 상위행정감사, 부산의료원 98년까지 신축 이전, 도개공 공사 낙찰율 등에 의문 제기(국제 11. 26)
* 부산시 항만관리사업소, 남항 입출항신고 내년부터는 한 번만 실시(국제 11. 26)
* 부산시립영락공원 건립공사, 부산의 (주)화인건설에 낙찰(국제 11. 27)
* 부산시립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농성이 5일째 계속되고 있다(부산 11. 26)
* 부산시기 화장로 선정과정에서 설비 용역업자에게 구미형의 장점을 삭제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26일 확인(부산 11. 26)
* 화장로, 일본형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부산 11. 26)
* 부산시의 수출이 31년만에 전국비중 8.4%로 최저치(부산 11. 26)
* 부산시, 96세계국제청년회의 개최지로 선정(부산 11. 26)
* 부산 체육회가 머지않아 법인화를 추진, 홀로서기를 할 것으로 밝혀져(부산 11. 26)
* 부산 최초의 종합금융단지, 오는 95년 상반기에 착공(부산 11. 26)
* 부산시, 쓰레기 종량제가 95년부터 본격 실시(부산 11. 26)

11. 27
* 부산시, 월동기 유류 정량미달 단속, 불법사항 접수(국제 11. 27)
* 부산시-롯데, 사직야구장 새 단장, 인조잔디교체, 외벽도색 합의, 13억 소요 예상(국제 11. 27)
* 부산시의회, 동서고가도로 부지 주거단지공사 등 현장 확인과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사무감사 모두 끝내, 신시가지 건설 문제점 집중 추궁(국제 11. 27)
* 부산의료원, 부산시 공무원 13.8%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국제 11. 27)
*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검사와 재무산업위의 소방본부 감사를 끝으로 행정 사무감사 종료(국제 11. 27)
* 부산시, 영도와 남구에 공공 도서관 건립 예정, 6백~1천5백석 규모로 조성(국제 11. 27)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부산~연대, 한중 카페리선 취항이 내년 중 이루어 질 예정(국제 11. 27)
* 아시안게임 부산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28일 OCA총회 실무진 파견 예정, KOC와 협조, 각국 로비 동향 파악 등 아시안게임 부산 유치 국제교섭 돌입(국제 11. 27)
*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한전부산지점, (주)부산도시가스 등 관련기관, 매년 각 계량기의 고장 신고가 5천건 이상이라고 밝혀, 전기 합선, 가스 누출 등 사고 위험 높고 사용료 과다 부과 빈발(국제 11. 27)
*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폐지될 방침이다(부산 11. 27)
* 부산시,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바자로 말썽을 피워 내년부터 이용 억제할 방침(부산 11. 27)
* 부산 화장장 파문이 사회단체와 연대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부산 11. 27)
* 부산시가 환경처와 건설부등에 내륙공단 증설을 억제하고 합천댐 수원을 활용토록 해줄 것을 건의(부산 11. 27)
* 부산 수출이 지난달 5억7천만달러로 전월비 8.7%감소되었다(부산 11. 27)
* 당감 11만평 5천세대 아파트가 환경보호아파트로 국내 첫 시도된다(부산 11. 27)
* 부산시, 26일부터 2주간 심장병어린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부산 11. 27)
* 부산시, 재원조달 계획 없이 시청 건립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따른 사업차질이 예상(부산 11. 27)
* 부산시, 금융시장의 총수신이 전국비중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부산 11. 27)
* 부산시, 공장입지 지역구분 표시제를 내년 중에 고시하여 시행할 방침이다(부산 11. 27)
* 부산발전시시템연구소 조사 결과 부산항이 지역경제에 몸값을 하는지 의문 제기(부산 11. 27)

11. 29
* 부산시, 지방세 징수와 배정에 형평 잃어, 구별 담세와 혜택 차이 증가, 주민 반발(국제 11. 29)
* 부산시, 비상급수시설 점검하니 비상급수 고갈, 오염, 시설관리 엉망, 식수 가용은 1.4% 뿐(국제 11. 29)
* 부산지역 교통 신호체계, 관계당국의 무관심과 첨단시설 부족 등으로 제구실 못해 체증 가증(국제 11. 29)
* 부산시, 영도대로 교통 통제, 빠르면 연말부터 버스와 2톤 이상 트럭 전면 통금(국제 11. 29)

* 사하구의회, 산폐물소각장 시찰활동 결과 보고, 산폐물 소각장 반대 의사 밝혀, 사하구의회는 반대 입장 재천명(국제 11. 30)
* 영도대교 대형차 통제가 불 보듯 진행되어 도심 교통지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부산 11. 29)
* 화장장 반대 주민들의 단식농성이 8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주민 200여명이 연좌농성(부산 11. 29)
* 부산국세청, 97년에 부산 동래구 연산동 군부대부지로 이전하기로 했다(부산 11. 29)
* 송정터널 상행선 건설, 오후 3시 관통(부산 11. 29)
* 부산지역 중소기업, 각종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참가해 큰 수입(부산 11. 29)
* 해바라기・초원・엔젤・동명・연제유치원 개원(부산교육 11. 29)

11. 30
* 부산상의, 부산 제조업 생산지수 전월비 1.9% 증가, 철강, 기계 등 상승, 작년 비해서 7.9% 미진(국제 11. 30)
* 부산시의회, 93년도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최, 동서고가로 통행료 유예 바람직, 신호 공단 승인 시기와 활용방안, 만년 적자인 부산 의료원 민영화 문제 등 이틀간 시정 질문(국제 11. 30)
* 부산시의회, 정기회 3차 본회의 속개, 이틀째 시정질문 벌여, 신공항 건설, 부산~경남 간 광역교통망 확충, 시발주 건설공사의 수의계약의혹, 교원인사관리문제 등 집중 추궁(국제 11. 30)
* ㈜한국통신부산지사, 부산에 텔리포트 구축하기 위해 범일동 범일전화국에 첨단정보통신기지 건립하기로(국제 11. 30)
* 황령산 터널~수영로 잇는 연결도로공사가 천혜건설의 부도로 차질 빚어, 발주처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무책, 오는 95년 4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진행 못할 듯(국제 11. 30)

12. 1
* 시장, 의회서 신호공단 조성 본격화 지정 승인 확인, 중앙부처와 이미 합의, 내년 초 기본 설계 착수(국제 12. 1)
* 부산경찰청, 오는 8일부터 영도대교 통행차량을 1톤 이하, 12인승 이사의 소형 차량으로 제한, 단속(국제 12. 1)
* 부산시 교육청, 예산난으로 인해 내년부터 각 학교의 임시교사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 초등학교 임시교사만 폐지하고 중고교는 존속 결정(국제 12. 1)
* 부산시,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교통안전대책기간으로 지정, 업체에 정비 관리 안전 당부(국제 12. 1)
* 한국은행 부산지점, '금리자유화 이후 부산지역 금융시장 동향', 1단계 금리 자유화 실시 이후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부산 금융시장 안정세 유지(국제 12. 2)
* 부산시건설국장, 제2부산대교 조기 착공, 영도대교 대체, 늦어도 95년 초 공사 시작 예정(국제 12. 2)
* 동해남부선의 복선화 노선이 철도청과 시・구청간의 마찰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져(부산 12. 1)
* 부산시 주요 개발 사업 4개가 착수조차 못하는 등 또 해를 넘기는 것으로 분석(부산 12. 1)
* 부산~상해・대련 해상항로가 곧 개설될 전망(부산 12. 1)
*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부산시의 택지 실수 공급 승인을 거치치 않은 채 민간에 불법 사전 분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물의가 예상(부산 12. 1)
* 부산시가 논란을 겪어온 화장로 기종 입찰을 개방형으로(부산 12. 1)
* 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의 개통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와 구청이 가건물 정비와 교통소통대책을 마련 하기로(부산 12. 1)
*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불법 변태 운영 지도・단속(~12. 31)(부산교육 12. 1)
* 중부경찰서 관할변경 영주동 1-26번지 외 2필지가 중부경찰서에서 동부경찰서관할로 변경(경찰사 12. 1)

12. 2
* 부산상의, 유통업 발전 토론회, 96년 유통시장 개방 대비해 정보시스템 공동 이용, 기존 상균 탈피 등 방안 제시(국제 12. 2)
* 부산 중소입주희망업체, 12월 중 분양예정에 있는 녹산국가공단의 분양대금지불방법과 관련해 반발, 대금지급 불합리, 중소기업 진정서 제출(국제 12. 2)
* 통계청, 부산 실업률 최악, 3/4분기 4.1%, 실업자 수는 7만1천명에 달해 전국 1위(국제 12. 2)
* 부산시경찰청, 구포로 가변차선 실시(국제 12. 2)
* 부산시 건설국장, 부산시의회 건설위에서 낙동강 고수부지 3백만평 개발 승인, 시민공원 조성, 휴식공간, 체육시설 설치, 내년 기본계획수립 98년 완공 예정(국제 12. 3)

12. 3
* 부산 장애인 연합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부산시 부시장 등 참석(국제 12. 3)
* 부산시의회, 94년도 시예산안 예비심사 활동, 예산안 편성의 오류 및 예산 삭감을 집중 논의, 생곡 매립장 조성 지연 추궁(국제 12. 3)
* 부산시, 화장장건립지역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화장장건립공사 감행(국제 12. 3)
* 부산시, 자체연구기관인 시정연구단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통합 운영(국제 12. 3)

* 부산시의회, 예산안 예비심사, 담배소비세 전입금 차액 추궁, 화명 택지개발비 3천억 삭감, 수도료 10% 인상안 집중 성토(국제 12. 3)
* 북구청, 북구문화회관 건립 백지화 위기, 대신 강당 및 체육관 건립안 적극 검토, 주민 반발(국제 12. 3)
* 부산시의회 도시주택위원회,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산 전액 삭감, 공사 차질(국제 12. 3)
* 중구청, 과태료 미납자 급증, 불법 주차 5만여대, 징수율 51%에 그쳐(국제 12. 3)
* 부산시, 2~4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예산낭비 공기 지연, 사고 예방위해 건설공사 시공 평가 실시(국제 12. 3)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내년 예산이 44% 증액 될 것으로(부산 12. 3)
* 시의 지속적인 도로확장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차로의 체증이 더욱 악화(부산 12. 3)
* 부산시, 내년 예산안 중 4억원의 사용처를 변칙 편성하여 물의(부산 12. 3)
* 부산 화장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민대표와 부산시가 2차 대화를 가졌다(부산 12. 3)
* 부산 달맞이길 밑에 대형콘도건립이 추진되어 절경훼손이 우려(부산 12. 3)
* 동인유치원 개원(부산교육 12. 3)

12. 4
* 쌀 수입 및 기초 농산물 개방 결사반대를 위한 1차 부산시민결의대회 개최, 시민, 재야, 학생 총 궐기(국제 12. 6)
* 부산시 새 청사 건립의 교통영향평가가 끝나 내년 초 착공이 가능(부산 12. 4)
* 부산항 부두관리위원회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체계개편에 나섰다(부산 12. 4)
* 부산 자치구가 외국과 결연한 곳이 한곳도 없는 등 국제화 전략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부산 12. 4)
* 엄궁 택지 개발지구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되어 아파트 4천여세대가 건립(부산 12. 4)
* 용역업체의 횡포 등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부산 12. 4)
* 부산항 컨부두는 이용선박이 급증하는 한편, 일반부두의 쇠퇴하고 있어 명암이 교체되고 있다(부산 12. 4)
* 한·중·일간의 동북아시아 경제권 구상이 지역 국가들에 의해 논의(부산 12. 4)
* 부산 지법, 전국에서 2번째로 부동산 매각방식을 입찰방식으로 바꾸기로 해 브로커 개입을 적극 차단하기로(부산 12. 4)

12. 6
* 부산시, 세계해양생물전시관 증축, 어항시설 확충, 인공어초단지 조성 등을 주요추진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수산사업예산 45억7천만원 확정(국제 12. 6)
* 부산시, 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금융재산 실태 조사 착수(국제 12. 7)
* 부산시, 영도대교 통행 제한으로 인해 대교 통과하는 버스노선 전면 재조정(국제 12. 6)
* 부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올 들어 2억1천만불 실적 올려, 20개국과 대리 계약 체결, 시, 박람회 참가 지원(국제 12. 6)
* 남구의회조사, 구의원 전문성 부족, 여론수렴기능엔 긍정적(국제 12. 6)
* 아시안게임부산유치 실무단, 아시안게임 부산유치 전망 밝다, 96 동계경기 양보로 중국 등 회원국 긍정의사 표명(국제 12. 6)
* 부산시 의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종합심사에 착수했다(부산 12. 6)
* 부산경제가 수출이 5% 늘어나고 중기가동률도 상승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부산 12. 6)
* 13·88번 등 25개 387대의 영도대교 버스노선이 8일부터 변경된다(부산 12. 6)
* 부산시, 인사(국제, 부산 12. 6)

12. 7
* 한국은행부산지점, 부산어음부도 연중 최고, 11월 8백억 규모, 전국 평균의 3.6배(국제 12. 7)
* 부산시, 부산상의, 올해 수출목표를 75억달러로 책정했으나 지난 10월말 수출액 57억2천8백달러, 목표대비 76.4%의 저조한 실적, 신발업과 경공업 부진(국제 12. 7)
* 문현로타리 인근에 35층 규모의 초대형 건물 건설 추진, 교통난 심화 우려(국제 12. 7)
* 동구청, 93년 동구시행 주요 업무 결산, 부산역광장을 야외문화마당으로 활용, 좌천 가구 거리 활성화, 텍사스촌 정비, 외국인 쇼핑센터 육성, 영세민들 정기치료 등 복지증진 온 힘(국제 12. 7)
* 부산시내 일부 일선자치구의회, 94년도 의회비 예산을 일반회계예산증가율보다 높게 책정, 특히 해운대와 사하구 물의(국제 12. 7)
* 교통부, 김해 경전철 95년 착공, 도로 대안 4개축 제시(국제 12. 7)
* 부산교통공단, 내년 예산 올해보다 41% 증가한 5천7백43억으로 확정,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의결(국제 12. 8)
* 부산진구청, 부암 고가도로, 12월 말부터 차량통행 허용, 서면과 양정 일대 체증 연쇄적 해소 전망(국제 12. 7)

* 부산시, 대형공사 공동도급에 부산업체를 배제하여 물의(부산 12. 7)
* 부산 화장장 문제에 주민들이 타당성을 조사하는 등 혼선이 거듭(부산 12. 7)
* 여러 아파트 공사장에서 공사 관련 인근주민 피해가 커져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부산 12. 7)
*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어 부도율이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 12. 7)
* 해운대 달맞이길 주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어 경관훼손과 안전사고 우려(부산 12. 7)
* 부산 수출이 내년 75억불이 예상되어 전국 증가율에 밑도는 것으로 조사(부산 12. 7)
* 부산시가 내년을 「국제화 원년」으로 지정하여 해외 교류 사업을 확대키로(부산 12. 7)
* 부산·김해 경전철이 95년 착공에 들어가기로(부산 12. 7)

12. 8
* 부산시의회, 시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지역경제국 교통관광국 등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국제 12. 8)
*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저지를 위한 부산 시민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공동기자회견 개최, 서명운동과 미 영사관 항의방문 등 계획(국제 12. 8)
* 부산지역 시민단체, 농촌 해체 막기 위해 농산물 구매 및 판매와 관련한 공동기획 사업 개최하기로(국제 12. 8)
* 친절운동 사례 발표회 개최(국제 12. 8)
* 중구청, 노인건강교실 개설, 체조 실기 등 강습, 60세 이상 노인 대상(국제 12. 8)
* 부산시, 8일~15일 간 생활주변 각종 위해 요소에 대한 시민의 신고 접수, 붕괴, 화재 위험 시설 대상(국제 12. 9)
* 부산시 체육대회, 산적한 현안에 무대책 일관, 회장단 외 지원 외면, 임시이사회 한번 개최 않아(국제 12. 8)
* 정부, 부산 국고지원 원안 대폭 반영, 감천항 배후도로 천억 확보, 해양박물관 건립 30억 지원 확정 등(국제 12. 8)
* 부산시, 국고 보조 예산액이 3천5백66억9천만원으로 집계(부산 12. 8)
* 부산시, 인사(국제, 부산 12. 8)
* 부산시교육청, 내년 2월말까지 학원 특별지도 단속(부산 12. 8)
* 부산시민 2~3가구당 차량을 한 대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부산 12. 8)
* 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의 명단을 공개(부산 12. 8)
* 강서구 주민들, 도시 계획에 따른 과세 부과에 부당하다며 반발(부산 12. 8)
* 부산시의회, 예결위를 열어 내무 예산 심사활동(부산 12. 8)
* 철도청, 동해남부선 해운대 구간의 반송 우회 노선을 최종 확정(부산 12. 8)
* 양산~김해구간 고속도로가 내년 개통됨에 따라 부산~양산 간 6차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부산 12. 8)
* 세계여성사회참여평가대회(부산시정 12. 8)

12. 9
* 해운대구 선착장과 중구 중앙동 연안여객부두 운항하던 항내 페리 운항 제개(국제 12. 9)
* 부산시, 공사가격 1천6백억원의 부산시신청사공개입찰공고, 낙찰자격 제한 반발, 지역업체 찬밥(국제 12. 9)
* 부산시, 내년 초 사업 착공 예정인 한국종합전시관(KOEX) 부지로 수영비행장 5만평 확정, 수영비행장 이전 가시화(국제 12. 9)
* 부산시 교육청, 공공도서관 정식 판매 기피, 분식류에 집중해 청소년 건강 적신호(국제 12. 9)
* 부산시 교육청, 국교 50명, 중등 2백1명을 선발하는 교사 신규임용시험, 30일 치르기로 확정(국제 12. 9)
* 한국공항공단 부산지사, 김해공항의 선진화를 위해 대대적인 정비 시행, 버스도로 6개로 증설 등(국제 12. 10)

12. 10
* '쌀과 기초 농산물 수입 개방 저지 부산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시민궐기대회, 58개 단체, 2천명 참석, 농업 포기, 사대외교 규탄, 남포동까지 가두 행진, 동참 호소(국제 12. 10)
* 부산시의회, 대결의 속개, 부산시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활동, 청소년 교육부재 및 교육환경개선 소홀 등에 대해 집중 추궁(국제 12. 10)
* 음식쓰레기 퇴비화 정책, 대부분 구청서 소극적, 시범사업 예산조차 미확보(국제 12. 10)
* 부산 감천동 등 3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내년부터 들어간다(부산 12. 10)
*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 부산항 4대권역화는 친수공간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분석(부산 12. 10)
* 부산시 체육회는 동계훈련 관련하여 시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보였다(부산 12. 10)
* 구포 어촌계 주민 80여명이 시의 하수차집관로매설공사로 조업에 지장이 생겼다며 반발(부산 12. 10)
* 부산발전기획단, 파행 운영되어 개선이 시급(부산 12. 10)
* 부산교통체계 개선사업이 허점이 많아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나(부산 12. 10)
* 롯데·대우·삼성 등 5개 건설사가 시청사 담합 입찰(부산 12. 10)
* 해양박물관 건립, 내년부터 착수될 전망(부산 12. 10)

12. 11 * 부산시, 94학년도 고입선발고사 위해 버스 증편(국제 12. 11)
*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요금 편법 인상, 100원 단위에 맞춰 버스 평균 38% 인상 방침, 서민 가계 압박, 물가 불안 우려(국제 12. 11)
*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 지사, 녹산공단 분양 계획 확정, 평당 59만5천, 내년 2월 입주, 분할상환거부(국제 12. 11)
* 금정산선 서문, 잘못된 복원작업과 관리소홀로 붕괴위기(국제 12. 11)
* 부산시 12개 구의회, 지난달 하순부터 정기회 개최, 구정 질의와 행정 사무 감사 등을 펴고 있으나 일반 방청객의 건의가 없어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의회 고유 기능 상실(국제 12. 11)
* 부산시, 음란서적 및 간행물 불법 복제 일제 단속, 학교주변 문방구 중점 실시(국제 12. 11)
* 북구청, 복지시설 부실 운영, 회계 책임자 없어 재산관리 소홀(국제 12. 11)
* 부산시, 둥치도 경마장 유치 극비리에 추진, 시장과 시의장 등 마사회 간부와 회동(국제 12. 11)
* 부산시교육청의 장학금 지급이 올해 9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져(부산 12. 11)
* 시립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시한 대체 후보지에대해 시가 불가론을 펼쳤다(부산 12. 11)
* 부산시, 유치대비 예산 확보를 위해「아시안게임 복권」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부산 12. 11)
* 쌀저지 부산시민대회가 열려 부산역에서 60여 단체가 반대 깃발을 올렸다(부산 12. 11)
* 부산항 기능 재배치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부산 12. 11)

12. 13 * 도시개발공사, 부산 문현동에 지하도시, 금융단지 아래 5층, 15만평 규모로, 95년 7월 착공, 5년 뒤 완공(국제 12. 13)
* 부산시 새 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해 부산시 지역 업체 반발 수용한 결과, 자유 건설 등 4개사 참여 확대(국제 12. 13)
* 부산시 예산 중단, 황령산 레포츠 공원 건설 적신호(국제 12. 13)
* 부산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 전체 96%인 7만6천건 처리(국제 12. 13)
* 부산진구 재해대책본부, 제2차 재해대책회의 개최(국제 12. 14)
* 교통부, 교통요금 조정안, 내년 초 대폭 인상, 시내버스료 3백20원, 좌석 버스 7백40원, 지하철 2구간 4백원, 소형택시는 8백원~1천원, 중형택시 9백원~11백원으로(국제 12. 14)
* 부산시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본격 시행됐으나 이용실적이 저조(부산 12. 13)
* 부산시 청사건립 담합 입찰에 물의가 나타나 부산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부산 12. 13)
* 남구 문현동 육군 제2정비창 부지에 부산 최초의 종합금융단지가 개발(부산 12. 13)
* 부산시, 내년부터 3개 시내 유료공원에 대해 1개월 정액권을 발매하기로(부산 12. 13)
* 부산시, 15일 미 시카고의 한국 상품 상설전시장에 부산관 개장(부산 12. 13)
* 녹산 국가 공단의 분양가, 평당 59만5천원인 것으로 집계(부산 12. 13)
* 93새마을지도자 대회(부산시정 12. 13)

12. 14 * 부산시, 수영매립지 유찰(국제 12. 16)
* 부산시, 부산 해운대 올림픽 공원 지하에 하수처리장 신설 계획, 내년 초 확공 예정, 540억원 투입, 99년 완공, 주민 반발 예상(국제 12. 14)
* 부산교통공단, 사하구청, 지하철 1호선 연장 구간 공사가 늑장, 완공 예정일이 두달 늦은 내년 4월로, 낙동로 체증 장기화(국제 12. 14)
* 부산시, 동구 초량동 텍사스촌,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국제 12. 14)
* 충무국교 폐교에 따른 학부모 40명이 교육회를 찾아가 반대시위(부산 12. 15)
*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이 구청과 경찰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부산 12. 15)
* 정과정 유적지가 문화재 지정가능 요구 검토를 14일 받았다(부산 12. 15)
* 부산 제조업의 생산이 9%신장되어 내년 경기가 밝을 것으로 예상(부산 12. 14)
* 감만2동 복개도의 위험이 감지(부산 12. 14)
* 목욕탕의 청정연료 전환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부산 12. 14)
*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회동 수원지 상류지역 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부산 12. 14)
* 부산시, 15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조정하기(부산 12. 14)
* 신평・장림공단의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198곳 적발하였다(부산 12. 14)

* 낙동대교와 광안대교의 건설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부산 12. 14)
* 부산시가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가 기업·구직자들에게 큰 호응(부산 12. 14)

12. 15
* 부산 청년회의소, 96세계대회 유치, 부산 JC모임 개최, 부산시 부시장 등 참석(국제 12. 15)
* 부산시, 내년부터 매월 11월 '복지의 달'로 제정 운영(국제 12. 15)
* 부산시, 만덜터널 매표방식에서 통전투입기 방식으로 통행료 징수 실시(국제 12. 15)
* 부산시, 인사(국제 12. 15)
* 일선 구청, 주민숙원사업 조기해결 위해 사업비 지원을 시에 요청(국제 12. 15)
* 일선 구청, 저소득영세민의 복지편의 위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인력부족 핑계로 일반 업무 떠맡겨(국제 12. 15)
*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현장설명회, 부산시신청사공개입찰을 위해, 64개사 참가, 업체 간 제휴 치열(국제 12. 16)
* 금정구의회가 화장장에 대한 반대로 의정활동을 중단키로 해 파문이 확산(부산 12. 15)
* 부산시, 기존 조직을 망라한 채 「건전한 국가 건설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물의(부산 12. 15)
* 종합연수원 건립이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 제자리걸음(부산 12. 15)
* 부산지역 주택업이 무더기 폐업 위기(부산 12. 15)
* 부산시, 인사(부산 12. 15)
* 부산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송수관 이설로 최악의 급수 중단을 예고(부산 12. 15)

12. 16
* 부산시, 인사(국제 12. 16)
* 해운대구, 신시가지 조성 차질, 아파트 분양 불투명, 3개사 사업승인 취소, 1개사 연기 신청(국제 12. 16)
* 부산시 교육청, 94학년도 시내 초등학교 취학대상 어린이 1천9백24명 감소(국제 12. 16)
* 부산시의회, 제4차 본회의 개최, 시가 제출한 2조4천7백93억원 규모의 94년도 예산안 중 3천3백79억원 삭감한 총 2조1천4백14억원과 부산교육청 예산 7천5백32억원 각각 확정 통과(국제 12. 16)
* 수영2호교, 충장로 고가도로 완공, 27일과 28일 연이어 개통(국제 12. 16)
* 부산시, 부산경찰청, 지하철 공사 지연을 이유로 사상로 3개 차선 폐쇄, 소통 대책 무관심(국제 12. 16)
* 부산도시개발공사, 백억이상 공사 발주 포기, 지역 업체 육성 외면하여 비판(국제 12. 17)
* 부산시의 내년 예산 규모가 2조1,400억원인 것으로 최종 확정(부산 12. 16)
* 부산항의 수용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시설확충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부산 12. 16)
*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결과 부산국세청 6명이 사직대상인 것으로 드러나(부산 12. 16)
* 부산진구청 청사이전에 예산확보 실패 등 기존 완공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부산 12. 16)
* 영도구청이 영세민에게 사랑의 연탄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연탄을 보내었다(부산 12. 16)
* 부산지역 수출의존도가 89년 이후 23%가 줄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부산 12. 16)
* 부산서구청, 인사(부산 12. 16)
* 부산시, 지난 7월부터 준비해온 「컴퓨터 통신망 이용한 시정자료 공개제도」를 29일부터 시행(부산 12. 16)
* 부산시, 또 시청사 입찰 참가 조건을 변경 추진하여 부산업체의 반발(부산 12. 16)
* 부산시, 내년 토지과표를 평균 20.2% 인상하기로(부산 12. 16)
* 내년 국교 취학 아동수가 올해 대비 1,900여명이 감소할 전망(부산 12. 16)
* 부산시가 실태조사를 나선 결과 학교 주변의 소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부산 12. 16)
* 제14차 시의회 본회의 개회(부산시정 12. 16)

12. 17
* 부산시, 중구 북구 인사(국제 12. 17)
*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부산시민비상대책위원회', 오는 21일 비상시민대책위소속 61개 단체대표와 함께 시민교육방법 등을 집중 논의키로, 농민 직거래 확대 추진(국제 12. 17)
* 부산시 교육청, 거주지 이전으로 중학생들의 전학, 편입학 추첨배정 횟수를 늘리는 등 전입학 업무 대폭 개선, 접수 7일 이내 추첨 배정(국제 12. 17)
* 부산시 교육청, 명장도서관 내달 개관(국제 12. 17)
* 남구청, 수영로터리, 연산로의 교통체증 해소 위해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팔도시장 일방통행키로(국제 12. 17)
* 부산시, 문화재조사 위원회를 열고 정과정 문화재 여부를 심사(부산 12. 17)
* 부산시와 유통업계가 UR외풍에 신토불이로 맞불작전을 펼치기로 했다(부산 12. 17)
* 부산에 내년 1월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회관이 착공되어 95년 개관하기로 했다(부산 12. 17)
*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내년부터 백억 이상 자체공사를 위임 발주하여 보신주의 행정비난(부산 12. 17)

* 부산시, 경찰청은 23일 사상로 폐쇄방침에 따라 일대의 소통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부산 12. 17)
* 부산시청사와 광안대교가 미관에만 치중하여 공사비가 과중(부산 12. 17)
* 명지주거단지 조성지가 쓰레기 매립으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부산 12. 17)
* 부산지역 택지개발지역의 학교 설립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부산 12. 17)
* UR대비 수입식품 관리가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부산 12. 17)

12. 18
* 한국은행 부산지점, 11월 한달 동안 부산지역 수출업체의 L/C내도액 2억8천2백9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억7천10만달러에 비해 23%하락(국제 12. 18)
* 부산시,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공사 시작 후 금곡로 1, 2차선이 도로 굴착으로 통제되었고 공사자재와 중앙 장비들이 차도를 가로막기 일쑤라 출퇴근 시민들 불편(국제 12. 18)
* 부산교통방송국, 내년 중 개국할 예정, 민관참여(국제 12. 18)
* 부산시 동구청, 영도구, 해운대구 인사(부산, 국제 12. 18)
* 부산지방국세청, 국세관련 소송에서 10건 중 3건 패소, 지난해 1백57건 중 67%만 승소(국제 12. 18)
* 해운항만청, 연안여객 운임 내년 일제 인상, 내년부터 보험료 현실화, 선원 처우 개선비용 등 운항 원가 상승분을 운임에 최대한 반영키로(국제 12. 18)
* 부산시, 좌2동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사업인가에 대해 실무 종합심의회를 거쳐 승인키로, 내년 6월 사업 본격화(국제 12. 18)
* 서구청, 태풍피해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여 물의(부산 12. 18)
* 부산시, 학장 등 공급기지를 3곳 설치하여 96년부터 LNG를 공급하기로 했다(부산 12. 18)

12. 20
* 부산시, 올해 11월말 현재 종업원 5인 이상인 5백50여개 업체가 도산, 실작자 급증, 1만3천3백여명(국제 12. 20)
* 동구청, 공영주차장빌딩 건립, 정발장군 동상 옆 1백40대 수용, 내년 10월 완공(국제 12. 20)
*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서울시 및 광주시의회의 의원직사퇴문제와 관련 지지결의문 채택, 동반사퇴는 당분간 유보(국제 12. 21)
* 해운대구, 오는 94년 정부의 관광특구 지정 확정에 따라 장기적인 관광자원보전 개발차원에서 해운대 호안 도로철거와 송정일대 대규모 관광랜드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국제 12. 20)
* 부산시, 오는 29일 시청회의실에서 '부산시정소식' 개통식을 갖고 PC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신청과 시정 정보공개 할 예정(국제 12. 20)
* 부산시, 사상역 앞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대폭 인하(부산 12. 18)
* 동서고가로와 도시고속도로에 대형교통 전광판을 설치하여 내년 중 완공 계획(부산 12. 20)
* 부산 신발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져 지난 85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부산 12. 20)
* 재단법인 부산교육동백회 출범(부산교육 12. 20)

12. 21
* 동구청, 부산역 광장에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홍보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교육장 설치(국제 12. 21)
* 엄궁농산물시장이 7년간의 공사 끝에 개장(부산 12. 21)
*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개장(부산시정 12. 21)

12. 22
* 남구청, 남부경찰서, 수영2호교 개통에 따른 부처 간 협의회 가져, 수영2호교 체증 우려, 그러나 완공 후 병목 현상 해소대책 마련 안 돼(국제 12. 22)
* 부산시 오는 97년까지 도로교통 산업경제 지역개발 등 10개 부문 2백35개 사업에 모두 9조4천9백2억원 투입, 21세기 국제화 도시 기반 구축, 주택 보급률 77.3%로(국제 12. 22)
* 도시개발공사, 거제 정비창 부지 택지개발 부지 계약 완료, 총 8만평, 내년 하반기 업체 분양(국제 12. 22)
* 부산지방경찰청, '93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 하루에 한명꼴 교통사고 사망, 60세 이상 노인층이 21%로 가장 많아, 음주단속 7천건, 위반스티커 70만건(국제 12. 22)
* 부산무역협회, 올해 1월 사단법인으로 정식 발족, 기존 협회와 독립, 지역무역 활성화(국제 12. 23)
* 동삼동 준설토 투기장에 종합 해양문화 공간을 조성할 예정(부산 12. 22)
* 부산 현안 사업에 자체 조달이 42%에 불과해 국고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나(부산 12. 22)

12. 23
* 부산시, 서구 인사(국제 12. 23)
* 동래구청, 불합리한 계획도로의 변경을 부산시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모두 묵살, 예산 낭비는 물론 도로 효율성 저하,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점 야기(국제 12. 23)
* 부산시, 내년 택시만 600대 증차, 교통행정 서민측의 입장 외면, 시민 거센 반발(국제 12. 23)
* 부산지역 항만하역 요금 인상 요청, 19개 업체, 올해보다 12% 늘려 달라(국제 12. 26)
* 부산 무역협회가 공식 출범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부산 12. 23)

* 시카고 한국 상품전의 부산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이 순조롭게 진행(부산 12. 23)
* 30일 실시되는 부산시청사 공사 입찰에서 대형사의 공도도급 불허(부산 12. 23)
* 내년 1월 1일부터 인감 관련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부산 12. 23)
* 부산상의, 인사(부산 12. 23)
* 부산시, 내년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을 확장해 600대 증차하는 한편 버스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부산 12. 23)
*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내년 실비 투자가 경기 회복세와 관련해 호전(부산 12. 23)
* 감사원 감사, 공사 관련 비리 28건과 시 예산 61억 낭비 등을 적발(부산 12. 23)
* 고무산업의 잇단 폐업과 금융실명제 실시로 노동자 9천여명의 임금이 체임(부산 12. 23)
* 부산시, 「러시아인 편의 대책 추진 간담회」를 열어 러시아인 유지책을 마련(부산 12. 24)

12. 24
* 북구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농협중매인 50여명, 시장관리사무소에서 잔품처리동의 점포 재배분을 요구하며 1시간 동안 농성(국제 12. 25)
* 94년부터 착공될 광안대로 건설에 따라 일대 교통 대 혼잡이 예상(부산 12. 24)
* 국내 신발업계의 세력판도가 10년만에 큰 변화(부산 12. 24)
* 94년 시정계획에서 서부산권의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 착수될 예정(부산 12. 24)

12. 25
*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역 조세징수 실적은 1조5천5백53억원으로 91년의 20.6% 증가, 불황속 세수는 호황(국제 12. 25)
* 부산시, 인공섬건설 무기연기로 인해 영도지역이 심각한 교통난이 직면, 도시계획 크게 수정되는 등 혼란(국제 12. 25)
* 주민들이 남산천 주변에 안전시설 설치해줄 것을 호소(부산 12. 25)
* 대한건설협회, 부산시 신청사 공사 입찰의 출혈경쟁에 따라 부산 업체의 피해 우려, 입찰 시 원도급업체와 함께 입찰장에 참여하게 해줄 것을 시에 건의(부산 12. 25)
* 부산항 기능 재배치 사업의 내용이 빈약하여 실속 없다는 평가(부산 12. 25)
* 서구청, 중앙공원의 관리권 이관을 추진하는 한편 이 일대를 대신공원으로 개발하여 유료공원화하기로(부산 12. 25)
* 예산부족과 시설 빈약 등으로 부산 천혜관광자원들이 사장 될 전망(부산 12. 25)

12. 27
*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하치장이 없어 입주상인과 이용시민 간의 불만 쇄도(국제 12. 28)
* 내년부터 을숙도 일원의 종합개발이 구체화될 전망(부산 12. 27)
* 시・구청의 일용직 재해보상이 미흡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부산 12. 27)
*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의 송림공원의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부산 12. 27)
* 수영2호교 개통(부산시정 12. 27)

12. 28
* 부산시, 서예가 이규남씨 기탁 성금 1백40만원을 소년소녀가장 7명에게 전달(국제 12. 29)
* 부산시, 예비군복무제도 변경에 의해 민방위대원 인원 급증 예상, 교육 시설 담당자 부족(국제 12. 28)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꽃마을, 안창마을 주민, 주택개량 등 못해 불편, 재산권 행사 위해 철회 호소(국제 12. 28)
* 부산시 교육청, 1백25개교에 컴퓨터 보급키로, 국민학교 97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4개교에 100% 지원(국제 12. 28)
* 부산시, 유원지 개발하면서 행정편의대로 공원 이름 변경, 남구민들 4년째 진정, 건의서 제출, 금련산 이름 되찾기 운동(국제 12. 28)
* 해운대구, 달맞이길 전망대 2개소 설치, 마린센터 등 종합 관광지 개발 예정(국제 12. 28)
* 부산시, 연말연시와 인사분위기 편승으로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 질까 우려, 공무원 기강 확립 지시(국제 12. 28)
* 부산시, 삼성자동차 생산 공장 유치 지역, 신호공단과 지사공단이 정부로부터 각각 지방공단 지정 승인 받아, 내년 초 조성사업 본격화(국제 12. 28)
* 아시안게임 부산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내년이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아주 중요한 해라고 전망, 내년 OCA 집행위원회에 교섭단 파견, 3단계 나눠 홍보, 정보 분석, 대대적 총력전(국제 12. 28)
* 아시안게임의 효과적인 유치를 위한 아시안게임 추진위가 3단계 계획 수립(부산 12. 28)
* 부산항, 4단계 건설이 민자유치업체 참여 포기로 난항(부산 12. 28)
* 여객선의 이용자가 전년대비 연안 23%, 국제선 26%줄어 급속히 사양화(부산 12. 28)

* 무역협회지부의 조사결과 부산 수출의 내년도 전망이 흐린 것으로 드러나(부산 12. 28)
* 부산시, 고원견산 개발이 3년째 표류(부산 12. 28)
* 올 들어 11월까지의 부산지역 수출실적이 전년도보다 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 12. 28)
* 95년 착공될 지사과학연구단지가 65만여평이 줄어들 전망(부산 12. 28)
* 충장로의 고가로 개통, 부산항 컨테이너 화물을 신속하게 수송 역할(부산 12. 28)
* 충장로 고가도로 개통(부산시정 12. 28)

12. 29
* 부산시,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부실, 유해침출수 대량 누출, 인근지역 지하수, 토양 크게 오염(국제 12. 29)
* 교통부, 철도와 지하철, 1월 15일, 버스, 택시, 2월 15일 요금 인상, 부산지하철 1구간 350원, 시내버스 2백90원, 좌석 600원, 택시기본요금, 천원, 평균 22.1% 상승(국제 12. 29)
* 해운대구, 오는 94년부터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아파트 사업승인 시 소각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국제 12. 29)
* 부산 신청사 건립 공사가 오늘 입찰되어 20개 팀 69개사 각축전(부산 12. 30)
* 엄궁농산물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마찰이 심화되어 삐걱거리고 있다(부산 12. 29)
* 잇따른 공중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5.8%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부산 12. 29)
* 지난 11월 중 부산지역 생산 출하가 다소 호전(부산 12. 29)
* 부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송도 등 39만평이 지정(부산 12. 29)
* 부산지역 제조업이 꾸준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부산 12. 29)
* 부산 내년 제조업 분석결과 철강·조선 전망을 밝으나, 신발·의류 등은 흐릴 것으로 전망(부산 12. 29)
* 컴퓨터를 이용해 구청민원 서류 신청이 가능한 「부산시정소식」이 28일 개통(부산 12. 29)
* 수영2호교 개통, 길이 500m, 왕복 4차선 규모(부산 12. 29)
*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심지 개발 사업이 붐(부산 12. 29)
* 남부경찰서 용당파출소 위치를 용당 123-25번지에서 용당동 123-56번지로 이전(경찰사 12. 29)

12. 30
* 올 부산 상장기업의 주가가 56% 상승하는 등 주가가 폭등(부산 12. 30)
* 부산항의 체선률이 5.1%를 기록해 앞으로도 가중될 전망이라 해소대책이 시급(부산 12. 30)
* 수정산 터널의 민자 투자가 선정되어 내년 4월 착공될 예정(부산 12. 30)
* 부산진구청, 인사(부산 12. 30)
* 그린벨트 관련 규제가 더욱 풀린다(부산 12. 30)
* 최근 부산항을 통해 수출되는 해상물량이 동남아·중남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일본·북미 등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나(부산 12. 30)
* 부산권에 새롭게 복합 화물 터미널이 건설될 예정(부산 12. 30)
* 부산 수출 통계가 집계방식 등의 차이로 들쭉날쭉하여 혼란만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부산 12. 30)
* 지하철 1호선의 환승시설 확충에 따른 동래·교대 역세권 개발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적(부산 12. 30)

12. 31
* 93년도 종무식(부산시정 12. 31)

1994년

1. 1
* 지역 개발 공채 142억 부산시 새해 발행키로, 시 지역 개발 기금 재원 마련 위해, 이 수익금으로 상수도 6차 확장사업과 남부하수 처리장 사업 등 중점 지원 계획(국제 1. 1)
* 부산·경남 도지사 의회의장 신년인사, 정문화 부산시장은 세계화를 향한 국제 도시 기반 구축에 전력할 것을 다짐(국제 1. 1)
* 장산에 9㎞ 관광 산책로, 94년 관광 특구 지정에 대비 좌동~장산 마을~장산 능선~반송 택지 개발지를 잇는 산책도로 만들기로(국제 1. 1)
* 시장신년사, 희망찬 갑술년 새해에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룩되시길 축원(시보 1. 3)
* 충렬사 등 참배 정문화시장, 갑술년 새해를 맞아 부산시 간부공무원 등의 성역참배식이 1일 오전 9시부터 충렬사와 대청공원에서 거행(시보 1. 11)
* 부산지방법원, '국·과장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내규 제66호) 제정(법원사 1. 1)

1. 3
* 부산 공동 어시장 초매식, 부산 공동 어시장은 3일 오전 7시 어시장 위판장에서 부산 지역 수산 업체 관계자와 중매인 상인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4년 초매식 가져(국제 1. 3)
* 부산시 시무식, 3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정문화 시장 비롯 실국장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 가져(국제 1. 3)
* 아파트 17%가 안전 불량,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기준공아파트 안전 점검 결과(국제 1. 3)
* 상의의장 세몰이 본격화, 부산 상의 제15대 회장 자리를 노리는 출마 희망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국제 1. 3)
* 영도 대교 제한 차량 통행 여전, 부산시와 부산 경찰청이 영도대교 보수를 위해 지난 12월 8일부터 차량 통제를 실시한 뒤 지도 단속 제대로 하지 않아 통행금지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어(국제 1. 3)
* "부산체육 제2도약의 해", 부산 체육계 새해 포부, 아시안 게임 유치 총력…선수육성·단체 활성화 목표, 체육인 단합된 힘 모으는데 어느 해 보다도 큰 역점(시보 1. 3)
* 도로 교통·산업 경제 등 기반 구축, 부산시는 오는 97까지 도로교통·산업경제 등 10개 분야 2백35개 사업에 모두 9조4천9백2억원을 투입,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21세기 국제화시대를 대비하는 세계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키로(시보 1. 3)
* 시·러시아 관광객 위해 텍사스일대 정비…통역원·버스 등 운영, 날로 늘어나는 러시아 방문객에 대한 쇼핑 관광 등의 불편사항 해소 위해 초량 텍사스 일대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시보 1. 3)
*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실시로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기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시보 1. 3)
* 거택보호자 월생계비 10만2천원 지급, 부산시는 저소득 주민위해 거택보호자 생계 지원비를 올해부터는 지난해 지급한 9천6백원보다 6.2% 인상한 10만2천원 지급하여 서민복지향상에 힘쓰기로(시보 1. 3)
* 특별·직할시 폐지 시도 통합, 직할시 폐지, 서울 4개시로 분할, 부산 경남도에 편입 등 방안 추진(부산 1. 3)
* 차집관로 매설 부실 공사, 자갈 섞인 일반 토사로 되메우기, 완공 후 침하 우려(부산 1. 3)
* 부산 올해 아파트 분양 홍수,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아파트 분양 계획(부산 1. 3)
* 달리 예술의 진수 부산서 접한다, 2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부산 해운대 동백아트센터(부산 1. 3)
* 거택 보호자 생계 지원비 인상, 시는 3일 거택 보호자 생계 지원비를 지난해 보다 6.2% 인상한 1인당 10만2천원 지급키로(국제 1. 4)
* 부산상의 신년 인사회, 3일 오전 상의홀에서 부산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 인사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4년도 신년이사회 개최(국제 1. 4)
* 복지·화합 시정 펼쳐, 부산시는 94년 새해 시무식을 3일 9시 30분부터 시청본관 회의실에서 정문화 부산시장을 비롯한 실·국장·사업소장·시본 청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시보 1. 11)
* 94년도 시무식(부산시정 1. 3)

1. 4
* 해운대 신시가 동시 첫 시공, 지상 쓰레기 소각장·지하 하수처리장 4월 초 착공(국제 1. 4)
* 시행 규칙 개정, 시 주택 건설 촉진법 개정에 따른 시의 시행 규칙 및 조례 개정 작업 시작(국제 1. 4)

* 감천동 부두 곧 준공, 6년 동안 끌어오던 감천항 하수관로 매설 및 하수 펌프장 문제가 타결 동편 부두의 준공이 내달에 가능(국제 1. 4)
* 석대 농상물 시장 윤곽, 시 8백억원 투입 96년 완공 목표(국제 1. 4)
* 해운대 소각장 하수처리장 오늘 4월 착공, 국내 최초 동일 장소에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이 함께 건립(부산 1. 4)
* 서 낙동강 강변로 개설, 강서구 강동동 대사리와 명지주거단지(부산 1. 4)

1. 5
* 지적 측량 전화로 신청, 시는 5일 지적 측량을 위한 신청 과정을 전화로 가능케 하는 등 간소화시킴(국제 1. 5)
* 병목 감천로 만성 체증, 예산 부족 내세워 도로 확장 방관(국제 1. 5)
* 부산시 체육회 예산 편성 진통, 시 불투명 수익금 제외 지침에 “불가피 반발”(시보 1. 5)
* 가야 유원지 새 모습 단장,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 유원지가 대대적 정비에 들어감, 테니스・게이트볼장 등 마련(국제 1. 5)
* 김해 공항 승객 감소 88년 이후 처음, 항공기 대중화 추세에도 불구, 만성 체증・연계 교통망 태부족, 작년 한해 전년비 4.9% 줄어(국제 1. 5)
* 스테인리스 게시판 등장, 풀로 부착하던 부산시 지정 게시판이 자석을 이용하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교체, 빗물에 젖지 않게 미닫이식 뒷면 교통 안내 표지판으로 활용(국제 1. 5)
* 서면・해운대 지하철 가시화 15일께 용역 발주,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가 올해부터 시작 98년말 완공 계획(국제 1. 5)
* 복개공사로 1석 2조, 서구청이 관내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복개공사와 유로 변경공사를 통해 수재 막고 유료주차장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 1석 2조 효과, 하천 부지 매각금 주민 복지에 돌려(국제 1. 5)
* 부산 차량 증가 “과속”, 1년 새 15.5% 증가(부산 1. 5)
* 다대포 개발 주민 찬반 대립 “팽팽”, 시민들 환경오염, 개발 이익 둘러싸고 대립(부산 1. 5)
* 노인 복지 예산 대폭 확충, 보다 양질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예정(부산 1. 5)
* 항만 산업 대폭 자율화, 항만 관련 산업들 경쟁력 강화를 위해(부산 1. 5)
* 철도청 여객 수입 증가, 저급 열차 폐지 고급화 추진 여파(부산 1. 5)
* 부산 여성 지도자 신년 인사회, 정문화 부산시장은 1월 5일 12시 30분 부산호텔연회실에서 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부산로터리클럽 신년 주회에 참석(시보 1. 11)

1. 6
* 결식 국교생 “두 번 배고파”, 부산시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학교장의 무관심으로 결식아동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학생 중식 지원 혜택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나(국제 1. 6)
* 국제 상품 전시회 7회 개최, 부산 올 KOTRA서 주관(국제 1. 6)
* 부산 수출 UR향후 5년간 5.8% 증대,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부산 지역 경제 매년 0.8~1.2%씩 모두 5.8%의 수출 등대 효과 기대(국제 1. 6)
* 명지주거단지 보상 대상자 선정, 주민 자율에 맡기기로, “집단 민원 떠넘긴다” 지적도(국제 1. 6)
* 사직 경기장 건설 본격화, 부산시 종합 건설 본부는 사직 주경기장 건립 관련 이달 중으로 「주경기장 선정 위원회」를 구성 주경기장건설 본격화하기로(국제 1. 6)
* 지하철 1호선 4단계 6.4㎞ 6월 23일 개통, 4월말까지 토목 공사 완공・5월 영업 준비・6월 10일부터 시운전 돌입(국제 1. 6)
* 부산 「컨」 공사 운영 자율화, 내년부터 시행(부산 1. 6)
* 임시 구청사 도서관 개조, 임시청사의 남쪽을 이용키로(부산 1. 6)
* 시립 도서관 난방・식당 운영 “엉망”, 예산 부족으로(부산 1. 6)
* 지하철 1호선 4단계 6.4km 6월 23일 개통, 부산 서구 서대신동~사하구 신평동 간(6.4km) 부산 지하철 1호선 4단계 구간이 오늘 6월 23일 정식 개통(시보 1. 11)

1. 7
* 편지・전화・팩스・PC…「시민의 소리」 입체 청취, 시는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시민의 소리」 청취 계획을 확정・오는 10일부터 전면 시행(국제 1. 7)
* 올 장편 풍년 예고, 올해 작품을 출간하려는 작가들 모두 장편을 준비하고 있어, 주제도 반전・동학을 중심으로 한 민중들의 이야기・소수 민족들의 삶 등 다양(시보 1. 7)
* 부산 본사 금융기관 체제 정비, 국제화 시대 경쟁에 대비 경영 혁신 본격 돌입(국제 1. 7)
* 부산 상의 구인 정부 이용 급증, 지난해 부산상의 산업 인력 정보센터의 취업 알선 실적과 구인구직 희망자의 내방이 크게 늘어 난 것으로 집계(국제 1. 7)

* 우후죽순 주유소 50일새 백55개 허가, 부산 지역에 주유소간 거리제한 철폐 이후 설립 신청 및 허가가 우후죽순으로 잇따라 난립 양상(국제 1. 7)
* 지자체 시민운동 "시동", 95년 지방자치제 선거를 두고 부산 시내 시민 재야 단체들이 적극 홍보에 나서(국제 1. 7)
* 부산시, 인사 중구청 5급 이하 임용 및 전보 부산시 교육청 4급 승진 등(국제 1. 7)
* 동서고가도로 공사 순조, 부산 남구 문현로터리에서 북구 감전동 IC를 연결하는 동서고가로 공사가 7일 현재 공정 94%를 보이며 빠른 속도로 진척(국제 1. 7)
* 국교학급 당 43.8명, 부산시 교육청은 7일 시내 국민 학생 수가 지난해 비해 3만8백여명 줄어듦에 따라 4학년 학급당 인원을 45.3명에서 43.8명으로 줄여 모두 8,149학급으로 확정(국제 1. 7)
* 부산·김해 경전철 시대 성큼, 국비 5억원 들여 용역 발주, 오는 11월 부지 매입, 98년 완공 예정(국제 1. 7)
* 부산-홍콩 항공 직항로 개설, 국제선 화물기 다음 달 4일부터 주 1회 운항(부산 1. 7)
* 부산시 교육청 인사(부산 1. 7)
* 부산 상록회관 공무원 복지 "말 뿐", 공무원의 편의 시설보다 일반 이용객 위주 운영(부산 1. 7)
* 외국인 범죄 흉포화, 작년보다 38% 폭행, 절도 등 흉악범 증가(부산 1. 7)
* 「문화인의 밤」 신년회, 올해 「문화인 신년회」가 7일 부산 10층 대강당에서 열려(시보 1. 11)
* 북부경찰서 화명, 덕천2, 모라, 만덕2, 학장, 감전1, 덕포, 삼락, 구포1. 2, 사하, 괴정1, 당리, 하단1, 신평1, 장림1파출소 경계지역 지정(경찰사 1. 7)

1. 8
* 공영 주차장 7곳 신설, 올해 모두 95억2천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역세권 주차장 4곳을 비롯 모두 7개소의 공영 주차장 건설키로(국제 1. 8)
* 부산·경남 식수 비상, 부산시 상수도 상업 본부는 8일 낙동강 상류로 유입된 폐수가 3일내 상수원 취수지점인 물금에 이를 것으로 보고 희석 위해 노력(국제 1. 8)
* 부산 비엔날레 내실 행사로 재탄생 선언, 해외 팀 확대·행위 미술·세미나 마련, 출품작 수준 향상에 최대 역점(국제 1. 8)
* 공영 주차장 인상 추진, 시는 차량 도심 진입 억제 위해 시내 공업 주차장 요금을 민영 주차장 수준으로 대폭 인상키로(국제 1. 8)
* 인사, 금정구청 서 1동장 전호 등(국제 1. 8)
* 부산-블라디보스토크 5월부터 주 1회 운항, 부산~블라디보스토크 간 정기 여행선 5월부터 취항, 러시아 교류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국제 1. 8)
* 부산 제조업 넘친다, 계속적인 침체 현상을 보이는 신발 업종 제외한 대부분 업종 올해 매출 및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비해 최고 40%까지 늘려 설정하는 등 활기찬 생산 및 영업활동 계획(국제 1. 8)
* 부산기점 국제 카페리·컨항로 6개년 내 신설, 국제화 시대를 맞아(부산 1. 8)
* 해운대 신시가지 공정 50%, 12만 내 집 꿈 성큼(부산 1. 8)
* 부산진구청 전국서 첫 「출퇴근 시차제 실시」 …1석 2조(부산 1.8)

1. 10
* 「장님 행정」에 도시 계획 "흔들", 수비 비행장 고도 제한 구역을 5배 이상 확대하는 등 항공기지법 시행령이 지난해 5월 26일 개정 공포됐는데도 불구 최근까지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국제 1. 10)
* 수비 고도제한 5배 확대, 수영 비행장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오히려 비행장일대 고도제한을 5배 이상 확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개발 제한 등 갖가지 부작용 우려(국제 1. 10)
* 식수 비상 하수 고도 처리 시설 "발 등의 불", 현 처리율 고작 29% 오폐수 무사통과, 「질소 성분」 기준치 초과 검출 속수무책(국제 1. 10)
* 노폭 재 확장 연내 착공, 부산 북구 만덕로 확정 공사가 올해 안에 착공, 북구청이 지난해 확정한 북구 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것(국제 1. 10)
* 부산 유통업 상품권 발행, 이달 말 부산시 조례 확정 시행(국제 1. 10)
* 다대우회로 부분 개통 제증 볼 보듯, 이달 말 완공 예정이었던 사하구 다대로와 낙동대로 간 연결도로가 공사간의 차집관로 설치 공사 늦장으로 노폭 절반만 가포장, 심한 병목 현상 불가피(국제 1. 10)
* 올 환경 개선 사업 차질, 부산시의 도개공 보고에 따르면 재개발 지구 3개 중 1건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시보 1. 10)
* 만덕 3지구 6월 본격 개발, 오는 6월부터 본격화(부산 1. 10)

* 부산 상의 회장 선거 2파전 양상(부산 1. 10)
* 금정구청 발주공사 중단 속출, 지주들과 보상 문제에 따라 차질을 빚음(부산 1. 10)
* 선상 폭력 급증, 연근해 어선 발생 폭력 사건이 작년에 비해 증가, 선상 폭력의 30.6% 차지(부산 1. 10)
* 부산 수돗물도 악취 소동, 경남 마산 창원에 이어 화명정수장에서도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 수돗물 파문이 부산으로 확산(부산 1. 10)
* 부산 아시안 게임 유치, 1단계 사업 본격화(부산 1. 10)
* 생활개혁 10大과제 추진, 정문화 부산시장은 1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안명필 부시장 성병두 기획관리실장 국제관계 자문대사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실·국 주무과장 사업소장 구청장 등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 회의를 갖고 1월 7일 중앙회의 때 지시 사항을 시달(시보 1. 11)
* 부산시도 시정 옴부즈맨 시행, 부산시는 지난 10일 컴퓨터 통신망인 「천리안」에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산시정 소식> 코너를 개통(시보 1. 21)

1. 11
* 엄궁동 집배송 단지 구체화, 부산시내 산재해 있는 건축자재 판매상과 철강재 도소매업체가 집단 이주할 공동 집배송 단지 구체화(국제 1. 11)
* 작년 1월 부도율 연중 최고, 전국 5배 자금난 가속, 부산 9백44억…대형화·전 업종 확대 추세(국제 1. 11)
* 다대항 개발 차질 우려, 주민 42% 반대…어민 등 저지 투쟁 모색(국제 1. 11)
* 영구 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 올 2월 말까지 4천6백세대(국제 1. 11)
* 「질소폐수」 부산 상수원 강타 시민들 사흘째 물 고통, 낙동강 상류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성분 흘러 내려와 부산시 상수원 크게 오염(국제 1. 11)
* 광안 해안로 교통 체계 바뀐다, 수영 2호교 개통에 따른 남구 광안 해안도로 일대 교통 체계 대폭 개선, 내달 좌회전 9곳 폐지 동방 5거리 좌회전 전면 허용, 민락 현대 아파트 앞 유턴 금지(국제 1. 11)
* 공항버스 노선 변경, 지하철 2호선 공사와 관련 오는 21일부터 201번, 310번 등 공항버스 2개 노선 구간 변경(국제 1. 11)
* 행정 타운 건설, 부산 동래구 연산동 토취장에 연내 차량 등록 사업소와 부산시 녹지 사업소 건설 공사가 시작되는 등 행정 타운 조성(국제 1. 11)
* 부산연혁 한눈에 「지명총람」 편찬(부산 1. 11)
* 110번 버스 운행 연장, 주민들 특정 업자의 업권 보호를 위한 편파 판정이라며 반발(부산 1. 11)
* 택시 운전 자격시험 짝수 달에 실시, 올해 6회에 걸쳐 치르기로(부산 1. 11)
* 수영 비행장 일대 고도제한 파문, 시민의 재산권을 옥죄는 군의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평가(부산 1. 11)
* "오수만 먹어야하나" 분통, 낙동강 상수원 오염 9일째 계속(부산 1. 11)
* 부산시 지적 오류 토지 3천5백필지 13만평(부산 1. 11)
* 경찰병원 부산분원 건립 차질,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부산 1. 11)
* 부산 재개발 사업 새 전기,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도시재개발 사업 참여 허용으로(부산 1. 11)
* 경찰청, 수영 2호교 개통에 따라 좌회전 8개소 폐지(부산 1. 11)
* 3월 OCA에 유치 신청, 부산이 올해에 이루어야 할 과제인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위치로 이것은 곧 부산 재도약 기회(시보 1. 11)
* 저소득 주민 자립조성, 부산시는 올해 2백56억3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구 단위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화 등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시보 1. 11)
* 국제도시화의 원년의 해로, 부산시는 94년도 시정방향 및 부산시정 1월 역점 시책으로 세계를 향한 국제도시 부산건설과 지역경제의 활력 촉진·안전한 도시조성 등으로 정하고 이를 새해 주요 시책업무로 선정·중점 추진해 나가기로(시보 1. 11)
* 쓰레기 20% 줄이기 적극 추진, 부산시는 올해부터 쓰레기 처리량의 감량 목표를 하루 4천17톤에서 3천2백톤으로 낮추어서 20% 줄여나가기로(시보 1. 11)
* 시정발전 우수 제안자 시상,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25일~11월 3일까지 시청 공무원 대상으로 시정 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470명 직원들이 516건의 의견 제출(시보 1. 11)
* 3월에 개관예정 해양생물전시관, 해양생물전시관이 오늘 3월 문을 열고 일반인들에게 공개(시보 1. 11)
* 지적 측량 전화로 가능, 신규 등록 측량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신청 시 토지관할 구청이나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찾는 종전의 번거로움이 전화로써 처리가능하게(시보 1. 11)
* 5급 이하 공직자 81명 사정, 부산시 5급 이하 중·하위 공직자 81명이 부동산 투기·사생활 문란 등으로 공직 기강을 흐트린 사실이 들어나 직위해제와 사퇴·경고 등 처분을 받아(시보 1. 11)

* 부산시의 주요사업 어디까지, 20大사업 추진실적 점검・청소년 수련원 영도구 합지골 공원 내 … 9월 첫 삽, 과학・산업단지 산업첨단화・기술제고 …95년부터(시보 1. 11)
* 지하철 1구간 3백50원으로 15일부터 시내버스 2백90원, 정부의 교통 요금 인상 계획에 따라서 부산지역 교통요금도 올해 초 인상(시보 1. 11)
* 민원 전화 증설, 부산시 차량 등록 사업소 전화 민원이 전화 민원이 한층 편리해짐(시보 1. 11)
*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취득세 등 중과세를 폐지키로, 올해부터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세가 폐지되는 대신 1가구 2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중과세 됨(시보 1. 11)
* 부산외대 박봉식 총장 취임(부산교육 1. 11)

1. 12
* 아파트 값 5.7% 하락, 93년 한해동안 5.7% 하락, 전세는 2.7% 상승 연립주택 2% 단독 주택 1.9% 하락(국제 1. 12)
* 물가 동향 조사 형식적, 일선 동사무소들 물가 동향 조사나 영세민지원업무 소홀, 주민불편사항 파악 및 상부 보고 외면(국제 1. 12)
* 부산시, 인사 김정구 행정 6급 전보(국제 1. 12)
* 버스 전용 차선제 확대, 시 44개 지역 교통 체계 개선키로(국제 1. 12)
* 을숙도 66만평 양여 신청, 부산 재무부에 용호 농장 7만평 매각도(국제 1. 12)
* 지난해 부산서 가장 많이 팔린 가전제품, 금액 기준으로 냉장고, 컬러TV, 세탁기, 비디오 등의 순(부산 1. 12)
* 무허가 고물상 난립 강서구 일대 단속, 그린벨트 지역 무허가 고물상 집중 단속(부산 1. 12)
* 시 31억 투입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9개 유형의 교통원영체계개선(TSM)사업을 시행(부산 1. 12)
* 금정산 일대 내륙관광 벨트 조성, 동래부동헌 복원, 금정구 금정산성 안에 민속촌 조성, 연계 관광 단지화 하기로(부산 1. 12)

1. 13
* 낙동강 오염 최우선 해결, 김 대통령 금명 관계장관 회의서 대책 마련(국제 1. 13)
* 올 부산 문화예산 편성 확정, 지원 소폭 증가…효율적 배부는 신설・행사 부문별「알뜰」흔적 뚜렷(국제 1. 13)
* 부산「국제화 도시」선언, 정문화 부산시장 시청 회의실서 시의원 유관기관 및 단체장 언론사 대표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친 계획 설명 보고회 개최(국제 1. 13)
* 상습 체증 구간 개선 시급, 들쭉날쭉 수영로 가변 차선 위험 높아, 연산 우체국～망미 시장 1차선 늘여야 (국제 1. 13)
* 가스 사용업소 29% 불합격, 시내 LPG 도시 가스 등 각종 고압가스 사용 업소 가운데 30% 정도가 안전 불합격 판정, 폭발 사고 위험(국제 1. 13)
* 식수 행정 바닥, 공급 능력 태부족…건설 계획 등 차질 아파트선 연일 물 전쟁(국제 1. 13)
* 부산시, 인사 공업 4급 승진 수영 하수처리 관리소장 서황수(국제 1. 13)
* 부산시 청사 기공식, 시는 오는 18일 부산시 새 청사 신축공사 기공식을 가질 예정(국제 1. 13)
* 낙동강 오염대책 최우선 수립, 김영삼 대통령 지시(부산 1. 13)
* 부산시, 대판에 첫 해외 사무소, 사상 최초로 일본 오사카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부산 1. 13)
* 21세기 부산 국제도시화 선언, 지난 1월 13일 부산시는 21세기를 맞아 세계의 물류・금융・관광의 중추도시가 되고 환태평양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가 될 것임을 다짐하는 21세기 부산 국제화 선언을 함 (시보 1. 21)
* 21C 부산 국제도시화 선언(부산시정 1. 13)

1. 14
* 생활 개혁 운동 실적 위주 단속 강요, 구・동 직원에 지역 할당, 현실 무시한 전시 행정…주민 반발(국제 1. 14)
* 구청 주변 일방통행 확대,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시장에서 미포5거리 간의 만성적 교통 체증 해소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해운대구청 주변 도로 일방통행 실시(국제 1. 14)
* 농촌 특별법 고쳐주오, 강서구 주민들이 현행「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및 시행령」개정 위해 청원 운동 (국제 1. 14)
* 화명 개발 도개공・수익에만 급급, 주거・주변 환경 다 같이 악화, 유상 대지・건축 용적률 상동(국제 1. 14)
* 물가 안정 행정 지도, 시는 최근 잇따라 오르고 있는 물가 안정을 위해 행정 지도를 강화 하는 등 물가 안정에 행정력 집중키로(국제 1. 14)
* 인사, 동래구 <6.7급 전보> 진홍 계장 이삼열 등(국제 1. 14)
* 발암 물질 끓여도 잔류,「수돗물은 끓여도 안심할 수 없다」, 수돗물 벤젠・톨루엔 무방비, 검사 불가 유기물도 2백종(국제 1. 14)

* 수도료 납부 거부 움직임,「맑은 물」어디가고「발암식수」웬 말, 은폐 당국자 엄중 문책을(국제 1. 14)
* 한민족 우호 다진다, 부산시 아마추어 복싱 연맹과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복싱 연맹 자매결연 맺어(국제 1. 14)
* 4조 투입「맑은 물」정책 "수포화", 상수원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부산 1. 14)
* 유선방송 50개 법인 확정(부산 1. 14)
* 작년 시민 여권발급 92년에 비해 2.2% 증가(부산 1. 14)
* 발암물질 검출 쉬쉬, 상수원수에서 발암성 물질 발견됐음에도 상수도 본부가 묵살(부산 1. 14)
* 부산시 체육회 상임위원회 구성(부산 1. 15)
* 냄새 등 완전 소멸,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국립환경연구원이 낙동강 수질오염 정밀 조사를 위해 낙동강 제2 수원지 달성 정수장・칠서정수장 부산 상수원인 매리취수장에서 원・정수시료를 채취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휘발성 유기용제 7개 항목을 정밀 분석한 결과를 발표(시보 1. 21)

1. 15
* 지하철 요금 오늘 인상, 1구간 350원 2구간 400원, 철도는 9.8% 올려(국제 1. 15)
* 부산 시향「알찬 화음」펼친다, 정기 16회 포함 총 31회 선사, 현대 초연곡・대중곡 레퍼터리로 의욕 과시(국제 1. 15)
* 인사, 부산 경찰청 경사 승진 임봉 예정자(국제 1. 15)
* 부산 수돗물서 발암 물질, 부산의 가정 수돗물에서 발암성 물질인 벤젤이 검출되어 충격, WHO의 1.8배가 넘는 벤젠 검출(국제 1. 15)
* 허술한 수질기준 유독 물질에 식수 무방비, WHO의 1백21항목 중 37개만 검사, 납・크롬 등 허용량 높고 월 1회 조사(국제 1. 15)
* 정 부산시장 해임 요구, 민주당은 15일 오전 낙동강 수질 오염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산시장과 환경처 장관의 즉각적 해임 촉구(국제 1. 15)
* 산재 의료 혜택 대폭 확대, 산재 환자의 치료와 재활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 산업재활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98년 부산에 설립(국제 1. 15)
* 상수 뒷북 대책도 갈팡질팡, 부산시, "활성탄 비싸다" 어제부터 사용량 감축, 수질 검사소 측정 기계 한 대뿐(국제 1. 15)
* 강서 경찰서 개서, 부산 강서 경찰서가 오는 2월 1일 개서식을 갖고 정상 업무 시작(국제 1. 15)
* 시의회「낙동강 특위」구성 대책 나서, 10일간의 일정으로 현지 조사 활동 벌일 예정(부산 1. 15)
* 황령산 터널 내년 개통 앞두고 내부 단장 한창, 서면권과 남구 대연동 남천동 일대를 곧바로 연결(부산 1. 15)
* 부산항 관제지도 만든다, 부산항내 해난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3월까지 작성, 배포 계획(부산 1. 15)
* 북구 그린벨트 표석 64개 훼손 물의 빚어(부산 1. 15)
* 충렬로 확장, 만성적 침수와 상습 교통체증 지역 올 안에 확장 예정(부산 1. 15)
* 발암 수돗물 먹이다니 시민 분노, 발암 물질 함유 확인 후 은폐에 대한 시민 분노(부산 1. 15)
* 취수장 일대 수질정화 나서, 부산시는 최고 낙동강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15일 오전 10시부터 시 산하 전 직원 자연 환경관련 단체 일반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해군 상동면 매리취수장과 양산군 물금면 물금취수장 등 낙동강 수계일원에 대한 수질정화 캠페인을 실시(시보 1. 21)

1. 17
* 강서 산업 단지 흔들, 공장 재배치 구상 차질, 17일 현재 80만평 중 2백10사 29만평 분양, 첨단업종도 신청률 12%(국제 1. 17)
* 대형 쓰레기 처리 몸살, 부산시 중간 처분 업체 선정 7개월 답보(국제 1. 17)
* 민원 1회 방문처리 37%불과,「방문 시민에 공손・친절」28%, 공무원 전화 응대 아직 고압적(국제 1. 17)
* 맑은 물 대책 시민 우롱, 부산시 무성의 발표…불신감만 증폭, 대책 발표 했지만 실현 가능성 없거나 기존 대책 되풀이(국제 1. 17)
* 부산시의회 임시회 낙동강 오염 추궁, 부산시의회는 17일 정문화 시장 출석 한 가운데 29회 임시회 개최, 낙동강 수질 오염에 대한 책임과 조속한 대책 마련 집중 추궁(국제 1. 17)
* 부산서 국제 여자 유도대회 열린다,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러시아・중국・일본 등 4개국이 참가하는 국가 친선 여자 유도 대회 개최(국제 1. 17)
* 시 의회 낙동강 수질 특위 구성(부산 1. 17)
* 부산약수터 62곳 부적합, 소규모 약수터와 아파트 단지 등이 자체 개발한 지하수전 등 300여곳은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부산 1. 17)

* 노동위 복직 판결 “있으나 마나”, 복직 판결을 받고도 사용주의 거부로 복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 시급(부산 1. 17)
* 시, 새청사로 21C 대비, 18일 첫 삽질 시작(부산 1. 17)
* 부산 송도에 1만㎡조성 계획, 송도해안 대형해상주차장 건립 안 놓고 논란(부산 1. 17)
* 공해사범 단속 “미지근”, 공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형식적이거나 미지근(부산 1. 17)
* 암남공원 개발 본격 추진, 서구청이 송도 암남공원 개발이 걸림돌이 된 국립 동물 검역소 부산지소의 이전이 올해 구정역점사업으로 선정 본격 추진(국제 1. 19)
* 부산 연극 협회 운영 이원화 체제로, 부산 연극협회는 17일 봄에 열리는 부산 연극제에는 소속 극단 참여하는 기존 형식을 고수 가을 무대 예술제는 6개 분과위 작품을 공연키로(국제 1. 19)
* 미 LA 시장에게 전문・정시장 지진피해 위로, 정문화 부산시장은 1월 17일 오전 4시 31분 자매도시인 미 LA시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위로 전문을 보냄(시보 1. 21)
* 낙동강 수질조사 특위 구성, 부산시 의회는 지난 1월 17일 오전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낙동강 수질오염대책을 보고받고 낙동강 수질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시보 1. 21)
* 「맑은 물 지키기」 당부 정시장 반상회 참석, 정문화 부산시장은 1월 17일 오후 7시 30분 해운대구 중 1동 10통 6반 한재동씨 댁에서 개최된 「맑은 물 지키기」 임시 반상회에 참석(시보 1. 21)
* 수질개선에 총력, 부산시는 화명과 덕산 정수장의 고도 정수 처리시설을 앞당겨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시보 1. 21)

1. 18
* 아파트형 공장 건설, 송도・물금 등 2개 지구에 아파트형 공장 건설 계획 추진, 공장 부지난 해결책(국제 1. 18)
* 시청사 기공식 거행, 부산시 신청사 기공식이 신청사 건립 현장에서 거행, 97년말까지 완공 예정(국제 1. 18)
* 「낙동강 특위」 가동, 부산시의회 활동 계획 확정(국제 1. 18)
* 수질 개선 시민운동, 수도료 거부 등 “불복종”, 부산지역 환경 단체 연대 조직활동(국제 1. 18)
* 중국산 참깨 밀수 특별 단속, 부산지검 농민 피해 극심 연말까지 특별 단속 펴기로(부산 1. 18)
* 불황 여파로 예년 3배, 200개의 부산 지역 주택업체들이 사업 실적 미달, 소재지 불명 등의 이유로 각종 행정처분(부산 1. 18)
* 해운대 관광봉사센터 건립, 관광객들에게 종합적인 정보와 편의 제공(부산 1. 18)
* 구포-물금 사이 화명역 신설(부산 1. 18)
* 부산 시민 절반이 약수 먹는다, 낙동강 수질 오염으로 수돗물 불신(부산 1. 18)
* 부산시 신청사 기공식(부산 1. 18)
* 농산물 거래 제한지역 고시, 부산시는 농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거래 제한 지역 및 품목을 18일 고시(시보 1. 21)
* 부산시 새 청사 기공식, 부산시는 신청사 건립기공식을 1월 18일 오후 2시 내무부 장관・부산시장・지역출신 국회의원・시의회 의원・주요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이 건립현지에서 가짐(시보 1. 21)
* 부산시 신청사 기공식(부산 1. 24)
* 약수 15% 식수로 부적합, 18일 시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부산 1. 27)
* 부산직할시 신청사 기공식(부산시정 1. 18)
* 최형우 내무부장관, 부산시 초도순시(부산시정 1. 18)
* 경찰청사 기공식(경찰사 1. 18)

1. 19
* 경제 단체 국제 판촉 강화, 국제화 원년 선포에 따라 부산시 시장 개척단 파견・박람회 잇단 참여(국제 1. 19)
* 진구청 신청사 건립 난황, 부산진구청이 사무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새 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 마련이 안 돼 난황(국제 1. 19)
* 노상 주차장 축소 요청 묵살, 시 주차공단 돈벌이에 급급(국제 1. 19)
* 영도구 구세확장 힘찬 도약, 동삼동 아파트 단지 「신도시」 꿈 영글어, 해양박물관・제2부산대교건설 박차(국제 1. 19)
* 정수 약품에 발암 물질, 각 정수장에서 정수처리 위해 투입하는 PSOC에 맹독성 발암물질 포함, 부산 가정 수도 잔류량 검사도 않아(국제 1. 19)
* 낙동강 오염 현장 조사, 부산시의회 낙동강 수질 조사 특위는 19일 낙동강 오염 실태・원인규명 위한 현장 조사 활동 착수(국제 1. 19)
* 농산물 거래 지역 고시, 시는 19일 농산물 거래 질서 확립 위해 농산물 제한 지역 고시(국제 1. 19)

* 올 개인 택시 6백대 확정, 올해 개인택시 면허 대수를 6백대로 확정하고 오는 20일「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계획」공고(국제 1. 19)
* 남천동 공유수면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안 최종확정(부산 1. 19)
* 가덕 신항만 개발 시급(부산 1. 19)
* 용당 "해운대 방면 버스운행을", 교통 불편이 심하다며 시에 버스 노선 조정 건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부산 1. 19)
* 부산시「발암성 물질」보고서 은폐, 과학기술처의 국책 연구결과를 지난해 통보 받았지만 이들 기관이 은폐해 사후대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음(부산 1. 19)

1. 20
* 호포-양산 지하철 건설 확정(부산 1. 20)
* 낙동강 전역 시찰, 낙동강 수질 조사 특위는 선박과 헬기를 이용 현장 시찰(부산 1. 20)
* 부산-중국 6개 항로 신설, 오는 3월까지(부산 1. 20)
* 녹산공단 분양신청 예상외 호조(부산 1. 20)
* 부산 찾는 외국 관광객 3년째 감소세, 유지 대책 마련이 시급(부산 1. 20)
* 수도료 거부 천명 서명, 부산시청과 부산시 의회를 항의 방문(부산 1. 20)
* 부산시, 인사 행정 4, 5급 승진・전보(시보 1. 21)
* 낙동강 오염 합동 조사,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낙동강 수질 오염 방지 위한 민간 합동조사단 구성키로 합의(국제 1. 22)

1. 21
* "부산 살기 어렵다" 인구 감소, 도시 문제와 지역 경제력 위축으로 시의 인구가 연 2년째 감소(부산 1. 21)
* 구청 이관 대형 공사 부실 우려, 전문 인력 부족과 경험 미숙으로 자칫 부실 공사가 초래된 우려(부산 1. 21)
* 다대포항 개발 무산 위기,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무산될 위기(부산 1. 21)
* 시 3대 현안 본격 추진, 미 하얄리아부대 이전, 동래구 분구, 지방 경마장 유치 등(부산 1. 21)
* 새는 물 하루 32만톤,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부산 1. 21)
* 수도 행정 아직 정신 못 차렸다(부산 1. 21)
* 예술인 양성위한 전문대학 부산예술대학교 문 열어, 부산에도 전문예술인을 양성할 전문대학인 예술학교가 설립해 3월에 문을 염(시보 1. 21)
* 1천8백명에 직업훈련, 부산시는 취업안정대책 일환으로 올해 11억3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 미진학・미취업 청소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시보 1. 21)
* 탐방 부산의료원,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주민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질병의 양상도 점차 만성병 위주로 변화되어가는 추세이며 시민의 의료 수요도 차츰 고급화,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시설의 현대화와 인력확충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이용에 편의를 도모(시보 1. 21)
* '위천 염색공단 안 된다' 시・강력 반대 입장 밝혀,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낙동강 오염 사태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중류의 위천염색공단 조성을 감행하기로 부산시와 경상남도 반발(시보 1. 21)
* 부산 상수도 4시간 "먹물" 10만세대 "물 고통", 낙동강 파동이 지나기 전에 상수도에서 먹물이 흘러나오는 사건 발생,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비난, 덕산 정수장의 정화 과정에서 문제 발생(국제 1. 22)
* 부산 본사 기업 헛장사, 지난 92년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상위 1백38개의 총매출 상액이 16.3% 늘어났으나 당기 순이익은 25.6% 줄어든 것으로 조사(국제 1. 22)
* 상담지도 사례집 발간, 시 교육연구원 22일 우수 실천 사례를 묶은「93 진로 상담 지도 사례집」발간(국제 1. 22)
* 엄궁동 택지 조성 도개공 내달 착공, 부산시 도시 개발 공사가 시행하는 북구 엄궁동 산 65일원 6만8천1백36평의 택지 조성 공사가 내달 착공(국제 1. 22)
* 부산시, 인사 교육청 초장 중학교 정종수 외 21명(국제 1. 22)
* 부산 상수본부장 사표, 정문화 부산 시장은 지난 22일「검은 수돗물」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산시 상수도 상업 본부장의 사표를 수리 정수사업소장 직위 해제(국제 1. 22)
* 수비 비행장 연말 폐쇄, 국방부가 최근 고도 정비구역을 5배나 확대해 논란을 빚이 있는 수비 비행장이 빠르면 금년말쯤 부산 인근 해안 지역으로 이전(국제 1. 22)
* 조방~김해 심야버스 상반기 운행, 지역 환승버스 곧 도입, 모범택시・공항 리무진 도 적극 추진(국제 1. 22)
* 영문 안내판 '웃음거리', 한국 방문의 해 맞아 설치한 안내 표지판 영어표기가 어법에 맞지 않아(국제 1. 22)

1. 22 * 동서고가도로 2개 공구 연내 매듭 완전 개통(부산 1. 22)
* 구청 구입 교양도서 "예산만 허비", 직원 교양 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해마다 1천만~2천만을 지출, 예산 낭비라는 지적(부산 1. 22)
* 부산 상수도 송수관 노후로 매년 수백억 누수에 의한 낭비(부산 1. 22)
* 수영만 매립지 온천수 발견(부산 1. 22)
* 강서경찰서 신설(경찰사 1. 22)
* 북부경찰서의 대저, 공항, 강동, 명지, 녹산, 가락, 천가 파출소를 강서경찰서 관할로 편입(경찰사 1. 22)
* 강서경찰서 관할로 편입(경찰사 1. 22)

1. 24 * 부산 올림픽 아카데미 발족 시동, 부산 올림픽 아카데미가 기본 틀을 갖추고 2월 발족 위해 본격 활동 시작(국제 1. 24)
* 시 교육청 환경 교육 마련, 시 교육청은 낙동강 오염을 계기로 「학교 환경 교육 방안」 마련(국제 1. 24)
* 「낙동강 공단」 백지화 추구, 부산시의회 낙동강 수질조사 특위는 24일 오전 관계 공무원들 출석 가운데 상수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실시(국제 1. 24)
* 차질·잡음·교통난 가중, "공사비 적다" 응찰 고작 한 곳, 위치 선정 등 관련 기관 이견(국제 1. 24)
* 효행 등 모범시민상 시 포상계획 확정, 24일 각종 모범시민상 포상계획 확정 오는 2월 5일까지 추천 받기로(국제 1. 24)
* 교원 92명퇴임, 2세 교육에 평생을 바친 부산 지역 교원 92명이 오는 2월말 정년퇴임(국제 1. 24)
* 부산 상수도 정수 관리 역부족, 감시체계의 미비,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항상 오염 사고의 위험(부산 1. 24)
* 해양박물관 건립 중단 위기, 국고지원과 민자유치가 원활치 못 해 어려움(부산 1. 24)
* 부산-울산 복선 전철화 노선 이설 혼선, 소신 있게 대안을 선정하지 못하고 정치권 및 지역적 이해에 이끌려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큰 혼선(부산 1. 24)
* 상수원 관리체계 일원화, 시 의회 주최 「낙동강을 살리자」 시민 대 토론회(시보 2. 1)

1. 25 * 부산 노동청 청사 이전 추진, 25일 노동청에 따르면 청사 신축을 위해 현재 부산시가 종합 행정관가로 조성 예정인 동래구 연산동 1469의 2소재 군수 재원단 부지 내 1천2백평을 청사 부지로 제공해 줄 것을 시에 요청(국제 1. 25)
* 주공 용호 재개발 착수 4만8천평 순차 개발, 1지구엔 아파트 4백10세대 건립(국제 1. 25)
* 공공 도서관 제 구실 못한다, 장서 태부족 시미 외면, 예산 부족으로 3개구 도서관 없어(국제 1. 25)
* 인사, 부산 경찰청 강서 경찰서 경찰 과장 전판수 외 5명, 부산시 중구 7급 남포동 박경우 외 23명(국제 1. 25)
* 화장장 위치 변경 청원, 시립 공원 내 화장장 건립 반대 주민들이 화장장 대체 후보지 4곳을 선정(부산 1. 25)
* 신선대 개발 관광 순환 도로 착공, 남구 용호동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결, 신선대 공원 개발을 위한 관광 순환 도로 기능을 담당(부산 1. 25)
* 2002년 아시안 게임 부산 유치 적극 추진(부산 1. 25)
* 슬라이드 포스터 사진전, 재부산 사진작가 50여명이 참석(부산 1. 25)
* 화장장 부지 이동 촉구, 부산시립 화장장 건립 부지 인근 주민과 금정구의회의원·금정구 소속 시의원·시민단체들 25일 화장장 건립 지역 이전 촉구 청원서 제출(국제 1. 26)
* 전국 궁도대회 부산서 첫 창설(부산 1. 26)
* 주민간담회·사업현장 등 살펴, 정문화 부산시장은 새해 활기찬 시정정책 추진과 시·구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동구청 순시를 시작으로 새해 구정 순방(시보 2. 1)
* 시장 區 연두순시(중구)(부산시정 1. 25)
* 양호교사 공채 시험(부산교육 1. 25)

1. 26 * 설 물가 안정 지침 마련, 시는 26일 설날을 앞두고 담합 인상에 대해 강력한 의법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4 서민 생활 물가 안정 대책 추진 지침」 마련(국제 1. 26)
* 낙동강 특위 연장 운영 부산의회 임시회 폐회, 부산시의회는 26일 오전 제29회 임시회 2차 본회를 속개·낙동강 개선 촉구 결의안과 수당 비행장 고도 제한 완화 및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 교육청 조례안 2건 통과 폐회(국제 1. 26)
* 공동 급식 학교 첫 운영, 명지국교서 인근 4개교에 식품 운송(국제 1. 26)
* 유치원 종일반 2곳 시험 운영, 시교육청은 94학년도 유아 교육의 특색 사업으로 오전에는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 과정을 오후에는 연령에 적합한 교육과 보육 하는 「유치원 종일반」 프로그램 설정·시범 운영한 뒤 확대 실시키로(국제 1. 26)

* 부산권 광역 택지 추진, 시는 26일 택지난을 해소키 위해 진해・김해 등 인근 4개 시군을 부산 광역 택지로 개발키로 기본 계획 수립・중앙 부처와 개발 방안 협의키로(국제 1. 26)
* 부산시, 인사 교육청 지방부 이사관(승진), 부산 어린이회관장 전병주 외(국제 1. 26)
* 낙동강교 금년 내 착공, 부산 북구 모라동과 대저 1동을 잇는 낙동강교가 올해 안 착공・96년말 완공 예정(국제 1. 26)
* 고학력자 취업난 여전, 부산 노동청 집계 지난해 업계 구인 수 전년비 28% 줄어(국제 1. 26)
* 부산진구・영도구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 부산진구와 영도구 등을 시범 실시구로 정해 4월 1일부터 시행(부산 1. 26)
* 낙동강교 연내 착공(부산 1. 26)
* 고도 정수 시설 조기 설치, 「낙동강 상수도 종합대책」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부산 1. 26)
* 대구 염색공단 이전해야 시의회 제29회 임시회, 부산시 의회는 26일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낙동강 수질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낙동강 수질 행정 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및 낙동강 수질개선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시보 2. 1)

1. 27
* 제12회 부산연극제 예심 연기, 참가 극단 두 곳 작품 완성 안 돼, 공정경선 흠집…일정 촉박 지적(국제 1. 27)
* 「주차장 셔틀 버스 등장」, 시 외곽 주차장과 도심 번화가 연결, 오는 2월 15일부터 운행한 뒤 상반기 중에 확대 할 예정(국제 1. 27)
* 해운대 극동호텔 뒤 군 부지 2만6천평 대규모 온천센터 조성, 오는 2월 승인을 예정(부산 1. 27)
* 양정~서면R 1.8㎞ 내달 가변차선제 실시, 2월 말부터 버스전용 차선제와 가변차선제를 병행 실시(부산 1. 27)
* 고도 정수시설 조기설치, 부산시는 낙동강 오염 및 수돗물 탁수 발생사건과 관련・차제에 상수도 행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맑은 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촉진시키기로(시보 2. 1)
* 가정 종합 복지회관 개관, 각종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한 동래구 연산 4동 「가정 종합 복지 회관」이 1월 27일 개관(시보 2. 1)
* 가정종합복지관 개관(부산시정 1. 27)

1. 28
* 중소 지원금 상환 연장 건의, 부산시 재무부에 현행 6개월을 1년으로 연장 건의(국제 1. 28)
* 서부산권 "동맥" 도로 2곳 신설, 서부산 개발 중심지인 명지 거주단지와 산호 지방 공단・다산 지방공단을 잇는 새 도로와 부산~진해 국도 2호선과 다산 공단을 잇은 도로 올해 말 착수(국제 1. 28)
* 자전거 전용 도로 조성, 금정구청은 관내 수영천 상류지역에 시내 유일의 자전거 전용 도로 조성키로(국제 1. 28)
* 장애인 의무 고용 부산 45%에 불과, 부산 경남 지역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고 인력 수급의 불균형도 심해(국제 1. 28)
* "수영비행장 이전 내달 발표", 수영비행장의 타 지역 이전과 1천2백만평에 대한 고도 정비 구역 완전 해제 조치 빠르면 2월 말에 발표(국제 1. 28)
* 공무원 해외 연수 유명무실, 예산 획일적으로 제한, 인력부족 내세워 대부분 사장시켜(국제 1. 28)
* 부산 지하철 4천억 예산 낭비 불가, 물가 상승 투자이익 손실 등으로 인해(부산 1. 28)
* 김대통령 부산시장 질책, 식수 오염에 대해(부산 1. 29)

1. 29
* 부산 도심 재개발 박차, 도심 재개발 촉진 위해 임시 조치법 만들어 공공기반 시설 정비, 재개발 참여 건축 업체에 세제 감면 혜택 부여 검토(국제 1. 29)
* 부산시, 인사 교육청 교장(승진) 경남여중 강금룡 외 1(국제 1. 29)
* 감천항 수질악화, 유독성 6종 크롬 다량 검출(국제 1. 29)
* 서 낙동강변도로 본격 추진, 명지주거단지와 남해안 고속도로를 잇는 왕복 4차선서 낙동강변로와 왕복 6차선의 도로를 신설키로(부산 1. 29)
* 부산역 옛 대합실 어둠속 방치, 철도 요금은 평균 10% 인상되었지만 대합실에 대한 운용계획은 없어(부산 1. 29)
* 지하철2호선 공정 차질, 2000년 돼야 완전 개통(부산 1. 29)
* 해운대 상습 침수지 공사 지연, 공사의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부산 1. 29)
* 시정 옴브즈맨 제도 시행(부산시정 1. 29)

1. 30
* 쓰레기장 반대 시위 녹산 주민 300명, 녹산 주민 300여명은 30일 오전 10시 녹산 우체국 앞 빈터에서 생곡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반대 결의 대회 열어(국제 1. 31)

1. 31　* 중기 대출 이자 30% 시 이자 내달 육성 융자금 신청 접수, 중소제조업체 육성 위해(국제 1. 31)
* 중학교「콩나물 교실」재등장, 새 학기 교사 충원 안 돼, 20여개 학교 한 반에 55~57명 편성(국제 1. 31)
* 정부 미 무제한 방출, 쌀 값 상승에 대처 위해 정부미 방출 가격을 인하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방출키로(국제 1. 31)
* 수출 증가율 고작 2.8%, 부산 지역 수출이 지난 92년 감소세에서 93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고작 2.8%에 그쳐 전국 증가율 7.3%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국제 1. 31)
* 가야역 일반 화물 전용역으로 추진, 진입로 개설 않아 말썽, 철도청이 일반 화물 취급역을 부산진역에서 가야역으로 바꾸면서 가야역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아 인근 주민 집단 반발(국제 1. 31)
* 생보자 생계비 늑장 지급(부산 1. 31)
* 미군부대 식당 한국인회원 식대로 연 100억 뿌려 "상류층 신분 과시" 빈축(부산 1. 31)
* 645명 재산 변동 신고, 31일 마감된 부산지역 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 접수 결과(부산 2. 1)

2. 1　* 부산 주차 관리 공단 창립 22주년 기념식, 부산 주차 관리 공단은 1일 오전 창립 2주년 기념식 열어(국제 2. 1)
* 설 물가 안정 대책 마련, 시는 설날을 전후해 주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위해 설날 대비 지방물가 안정 대책 마련(국제 2. 1)
* 쓰레기 종량제 "허점", 수거용 봉투 안 썩는 비닐제품 사용(국제 2. 1)
* 조립식 아파트 건립, 부산시 도시 개발 공사는 1일 부산진구 개발 2지구 내에 조립식 아파트 이달 중순께 착공(국제 2. 1)
* 부산항 시민 신수 공간 탈바꿈,「항만 경비 및 보안 관리 지침」개정 항만 이용자의 부두 출입 크게 완화, 공문으로 신청할 때 견학도 즉시 허용, 선사 직원 등 관계자 신분증으로 대체(국제 2. 1)
* 부산 물가 1.7% 폭 등, 1월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 1.7% 폭등, 전국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0.4% 포인트 웃도는 것, 6대 도시 중 대전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준(국제 2. 1)
* 1월 중 부산 물가 폭등, 1월 들어 91년 이후 3년만에 가장 높은 오름세(부산 2. 1)
* 승용차 10부제 참여율 스티커 배부실적 계상, 전시성 행정이라는 지적(부산 2. 1)
* 장림, 신평 주거환경 개선 96년 완료,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기기로(부산 2. 1)
* 부산시「눈치 행정」급급, 부산시가 내무부의 지시 수용에 급급(부산 2. 1)
* 가락타운・서 낙동강 개발 호재, 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개통이 임박으로 인해(부산 2. 1)
* "아시안 게임 부산 유치 적극 지원"(부산 2. 1)
* 올 해를 관람도약 원년으로 94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 1백만명을 유치하여 4억달러의 수익을 계획하고(시보 2. 1)
* 낙동강 유역 공단조성 억제, 부산시는 상수원의 92%를 공급하는 낙동강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근 시・도와의 협조아래 상류지역의 공단조성을 강력히 억제하기로(시보 2. 1)
*「부산의 문화재」12년만에 증보발간, 부산시가 82년 첫「부산의 문화재」발간한 이후 12년만에 다시 부산지역에 있는 각종 유・무형 문화재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담아 수정 보완한「부산의 문화재」를 내 놓음(시보 2. 1)
* 설날 불우이웃돕기 운동, 부산시는 설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찾아 각종 위로사업을 펴나가기로(시보 2. 1)
* 부산시 설 대목 물가 비상(부산 2. 2)
* 645명 재산변동 신고, 지난 1월 31일 마감된 부산지역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접수결과 등록대상자 6백46명 중 6백45명이 변경신고를 끝낸 것으로(시보 2. 12)
* 낙동강 하・폐수 처리장 27곳 97년까지 조기완공, 정부는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금호강 남강 낙동강 하류천 등 3개 권역에 건설예정인 27개의 하수 축산 폐수 및 공단폐수처리장을 모두 연내에 착공(시보 2. 12)
* 문창화 대사 임명, 부산시 국제자문대사에 문창화 주 칠레대사가 임명됨(시보 2. 21)
* 공직자 3백77명 재산 공개, 부산시와 자치구 단체장 등 1급 이상 공무원・지방의원 264명의 신규 등록 재산과 재산변동 내역이 2월 1일 시보를 통해 공개(시보 3. 1)

2. 2　* 창원 터널 개통, 부산~창원 30분대로 단축 국내에서 가장 긴「창원 터널」(국제 2. 2)
* 아시안 게임 부산 유치 승인, 김대통령 부산순시 국제화 도시 건설 등 적극 지원, 상수도 수질 개선 최우선(국제 2. 2)

* 장림・송정 새 택지 개발, 부산 사하구 장림동과 해운대구 송정동 일원 22만4천평이 택지지구로 개발(국제 2. 2)
* 강서구 새 도심으로 본격 부상, 부산시가 올해부터 서 부산권 개발에 본격 착수키로, 개발 제한・지연돼왔던 낙동강 서쪽 강서구 일원 새로운 개발 지역으로 부상 전망(국제 2. 2)
* 부산・경남 경제권 통합, 동남개발연구원 2일 94년을 신부산발전의 원년과 환태평양시대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해로 설정, 올 한해 추진해야 할 지상 과제 13가지 선정・발표(국제 2. 2)
* 아시안 게임 유치 활기 예상, 부산시 초도순시에서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장기적 발전 위한 노력이 바람직하다며 김대통령이 적극 지원 표명(국제 2. 2)
* 농축산물 저가 공급, 시는 설 대목 물가 안정 위해 농축산물을 시중보다 최고 25%까지 싼 가격으로 농・축협 및 양돈 조합 직영점에서 판매키로(국제 2. 2)
* 단지사 수신고 줄어, 실세금리 지속 하락에 따라 금리 경쟁력 잃게 된 일부 어음 상품 매출 부진으로 부산지역 단자사들의 수신 규모가 올 들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국제 2. 2)
* 「신시가」 재조정 불가피, "터만 닦으면 된다" 단견 행정 난관 자초, 부산시 뒤늦게 도로 신설 등 법석(국제 2. 2)
* 부산시, 인사 도시 개발 공사 총무 이사 임종택 등 16명(국제 2. 2)
* 관급 공사 부실시공 앞장, 부산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의 절반 이상이 각종 건설재료의 시험 제대로 하지 않고 시공하는 것으로 조사(국제 2. 2)
*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일 창립 예정, 부산 경남 한국사 연구자와 역사교사들 중심, 부산경남역사연구소를 오는 19일 창립할 예정 귀추 주목(국제 2. 2)
* 수돗물 개선 안 되고 있다(부산 2. 2)
* 행정심판 인용률 저조, 행정심판 위원회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부산 2. 2)
* 부산 최대 현안은 교통 문제, 시민들은 교통과 주거환경 개선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인식(부산 2. 2)
* 사하구 교통 체계 대폭 정비, 지하철 1호선 연장과 강변도로가 오는 4월 완공된다(부산 2. 2)
* 「맑은 물」 청사진 구체화(부산 2. 2)
* 「물 파동」 위무 부산 방문 1순위,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 순시 첫 번째로 부산・경남(부산 2. 2)
* 부산을 시발로 나라에 경쟁력 강화, 새 바람이 일게 여러분이 앞장서야, 김영삼 대통령은 2일 부산시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자리에서 「올해를 국이 경쟁력 강화의 해」로 정했다고 말하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각오로 임해줄 것을 기대하며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고 함(시보 2. 12)
* 아시안게임 부산유치 승인, 김영삼 대통령은 2일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유치를 정부방침으로 결정했다고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아시안게임 부산유치 방침을 공식 확인(시보 2. 12)
* 金泳三대통령 부산 연두순시(부산시정 2. 2)

2. 3
* 당감 공병 기지창에 건설, 경부 고속 철도 부산역 차량 기지가 부산진구 당감동 군수사 공병 기지 창부지에 들어선다(국제 2. 3)
* 부산 아주 경기 유치 계획 발표, 정문화 시장과 안병택 아시아 경기대회 부산 유치 범시민 추진 위원회 회장은 정부에서 아시안 게임 승인과 관련 공동 기자 회견을 갖고 향후 추진 계획 등 발표(국제 2. 3)
* 해운대구 경기장 유치 활기, 경기세 신설로 구 수익 증대(국제 2. 3)
* 항만 시설 확충 2천억 투입, 날로 심화되는 항만 정체 해소 위해 중앙 정부 예산만 모두 2,280억원이 투입되는 항만 시설 확충 공사 7건을 올 해 중 착공키로(국제 2. 3)
* 부산시민 84.7% 일 문화 개방 반대, 공어명 주일 대사의 일본 문화 수입 불가피 주장으로 국내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민 대부분이 일본 문화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국제 2. 3)
* 용호부두 "무용지물",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의 근시안적 행정으로(부산 2. 3)
* 아시안 게임 북한 등 43국 초청, 사상 최대 규모(부산 2. 3)
* 공사 금액 38% 낙찰, 부실시공이 크게 우려(부산 2. 3)
* 부산 아시아 게임 의외로 쉬울 수도(부산 2. 3)
* 다대 기계 단지 지원 시설 부지, 공단 이주 업체들이 무단 점용(부산 2. 3)
* 유치경쟁국 자료수집 등 나서,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부산유치가 정부의 공식승인을 받음에 따라 대회유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짐(시보 2. 12)

*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정부승인 발표 및 기자회견(부산시정 2. 3)
* 실업계 고교 추가 합격자 발표(부산교육 2. 3)
* 강서경찰서 개서식(북구 감전동 임시청사)(경찰사 2. 3)

2. 4
* 예산 부족 개선 난망, “정부 지원 요청액 절반 삭감 수도료 인상” 시민에 덤터기(국제 2. 4)
* 부산시 건설 행정 개편, 오는 3월 1일부터 부산시가 발주하는 도급액 15억 이상의 모든 공사의 입찰이 사회계과로 일원화(국제 2. 4)
* 유흥업소 출입 18세 건의, 시가 유흥업소 출입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내리고 영업시간 차별 규제 철폐를 정부에 건의(국제 2. 4)
* 해외투자 센터 시급, 부산 지역 산업의 국제화 추진 위해 지역 해외 투자 지원센터 설치와 해외 개발 협력기금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 제기(국제 2. 4)
* 컨처리 300만개 돌파,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 실적 처음으로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3백만개 돌파(국제 2. 4)
* 부산시, 인사 4급 부산진구 보건소장 김문주 외 17명(국제 2. 4)
* 18호 광장 확장 부암 고가도로, 부암 고가도로와 부암 18호 광장 확장 도로가 오는 4일 개통(국제 2. 4)
* 부산 경제 특구 지정 추진, 부산시 전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상공업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부산 2. 4)
* 지하철 2호선 공조 단축(부산 2. 4)
* 학교 식수도 안심 못한다, 부산 시내의 상당수 학교가 지하수를 그대로 학생들의 식수로 사용 문제(부산 2. 4)
* 공영주차장 도심지 요금 100% 인상, 공영주차장의 도심지역의 주차요금은 대폭 상향 조정외곽지 및 지하철역세권 주차장은 현행대로 운영키로(부산 2. 4)
* 2월 16일 임시회 열기로, 부산시의회는 제30회 임시회를 오는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열어(시보 2. 12)
* 부암 고가도로 개통, 부산진구 부암로터리 고가도로 축조 및 확장공사가 완공돼 2월 4일 개통(시보 2. 12)
* 부암고가교 개통(부산시정 2. 4)

2. 5
* 인사, 부산 국세청 창원 세무서장 김호업 외 1(국제 2. 7)
* 쌀 개방 국회 비준저지 부산시민 결의 대회, 쌀과 기초 농산물 수입 개방 저지 부산시민 비상 대책위원회 5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쌀과 기초 농산물 개방 국회 비준 저지 위한 결의 대회 개최(국제 2. 5)
* 부산 산업 활동 회생 “감감”, 전국 산업 활동이 회복 국면에 들고 있으나 부산은 생산 출하 등 각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국제 2. 5)
* 현대화 사업 추진, 국제 시장과 자갈치 시장 등 중구 지역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 추진(국제 2. 5)
* 부산 아주 경기 범정부 지원, 부처별 총력…경기장 건설 등 백71억 보조(국제 2. 5)
* 낙동강 전역 퇴적물 조사 나서(부산 2. 5)
* 수돗물 파동 충격 97년 조기 완공, 제6차 상수도 확장 사업(부산 2. 5)
* 강서구 치수 대책 제자리걸음, 예산 부족(부산 2. 5)
* 시립 미술관 운영 계획 시급(부산 2. 5)
* 사학 재정 운영 상태 공개, 사학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 각 학교 법인 및 사립학교에 통보(부산 2. 5)

2. 7
* 시체육회 올 예산 22억, 부산시 체육회의 올 예산이 22억9천5백만원으로 잠정 확정(국제 2. 7)
* “주정차 단속 일원화를”, 현행 도로 교통법 상 동일한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주체가 경찰과 단속요원으로 이원화 되어 형평성에 문제 제시(국제 2. 7)
* 일용 노동자 재해 비상, 부산시와 일선 구청 소속 환경 미화원·도로 관리원 등 일용직 노동자들의 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데다 대형화, 대책 마련 절실(국제 2. 7)
* 제5낙동대교 건설 차질, 재원확보 어려움으로 큰 차질(부산 2. 7)
* 과태료 2만5천원, 7일부터 고속도로변이나 등산로·성묘지 주변 등에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시 과태료 스티커 발부(국제 2. 8)
* 제2부산대교 송도~영선동 확정, 부산시민의 관광사업인 제2부산대교의 위치가 「송도 해상 신도시 예정지~영도구 영선동」으로 최종 확정(시보 2. 21)

2. 8
* 올해도 교통 체증 여전, 일부 구간 미확장으로 심한 병목 현상을 보이는 송도 곡각지와 장림 고개 사이 감천로 확장 공사가 올해도 잔여 구간 부분 확장에 그쳐 교통 체증 여전할 것으로(국제 2. 8)
* 성묘객 특별 수송, 시는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를 성묘객 특별 수송 기간으로 정해 부산과 양산 등 묘지별 시내버스 증편·연장 운행하고 묘지 주변에 임시 주차장 운영키로(국제 2. 8)

* 제2부산대교 송도~영선동 확정, 부산 시민의 관심 사업인 제2부산대교(가칭)의 위치가 「송도 해상 신도시 예정지~영도」로 최종 확정(국제 2. 8)
* 인사, 기획 담당관실 연구 발전 계장 유진성 외 12명(국제 2. 8)
* 부산 최초 마라톤 코스 개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대비 마라톤 코스가 부산 최초로 개발(국제 2. 8)
* 중・일 등 연결 신규 항로(부산 2. 8)
* 국토 대 청결운동, 부산시는 설날연휴동안 깨끗하고 질서 있는 귀성길을 만들기 위해 국토 대 청결운동 캠페인을 가짐(시보 2. 12)
* 「부산직할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등 폐지 조례 공포(제3082호)(부산교육 2. 8)
* 「부산직할시립도서관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083호 : 명장도서관 설립)(부산교육 2. 8)

2. 9
* 자투리 땅 시민 휴식 공간 된다, 시는 올해 96개 녹화 사업 시행을 골자로 한 94 녹지 행정 지침 확정(국제 2. 9)
* 설날 시민 불편 해소 상황실 설치 운영, 시는 설 연휴 맞아 9일~11일 3일간 시민 불평 해소 위해 총괄반과 교통 청소 보건 물가 대책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된 상황실 운영키로(국제 2. 9)
* 고가도 내달 착공, 시는 오는 3월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로에서 거제로 간 1.9㎞구간의 고가도로 건설 및 도로 확장 사업에 본격 착수(국제 2. 9)
* 다대포항 개발 본격화, 부산 지방 해운 항만청이 다대동 일대에 공유 수면 매립 공사를 인가해 다대포항 개발 본격화 될 전망(국제 2. 9)
* 부산 관급공사 덤핑 성행, 지난해 최저가 낙찰제도 도입 이후 직접 공사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덤핑 투찰이 잇따르고(부산 2. 9)
* 남-해운선대 북-항만시설 이용하자, 남북한 해운교역의 훌륭한 조화를 이룰 것으로 지적(부산 2. 9)
* 송도~장림 구간 도로 확장 시급, 최근 물동량 폭주로 하루 종일 교통체증에 시달려 확장이 시급(부산 2. 9)
* 부산 시민 1인당 예산액 하위권, 대전・대구・서울에 이어 4위(부산 2. 9)

2. 12
* 생산 중기 세무 지원 강화, 산업 발전에 근간이 되는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집수유예 납기 연장 등 세무지원 활발(국제 2. 12)
* "도심공장 계속 빠진다", 최근 시내에 공장을 둔 대형 제조업체들이 잇달아 이전과 함께 이전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건설(국제 2. 12)
* 공공 도서관 이용 시민 증가, 작년 한해 3백31만명 찾아(국제 2. 12)
* 11㎞ 차집관로 신설 등 공사 박차, 완공 시 동천 유역의 생활 오폐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전망(부산 2. 12)
* 공공 도서관 이용 시민 증가, 종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부산 2. 12)
* 보고・화의・문서 감축추진, 부산시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위해 공무원을 문서 행정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목표아래 「보고・회의・문서」 감축운동을 적극 추진(시보 2. 12)
* 새마을이동도서관 93년 결산, 부산시가 새마을 문고 부산시 지부에 위탁 운영하이 있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이용실적을 「책의 해」였던 지난 한 해동안 이용자 총 50만9천여명에 1백10만5천여권의 도서가 대출된 것으로 집계(시보 2. 12)
* 생활개혁운동을 펼쳐, 부산시는 2월 중 부산시정의 역점시책을・맑은 물 공급과 생활개혁 운동의 강력추진(시보 2. 12)
* 「부산 국제화 선언」 본격 추진, 부산시는 국제화 추진 기획단과 국제화 추진 시민 협의회를 구성해 국제화 선언의 실천에(시보 2. 12)
* 동직원 등 2백41명 해외연수, 일선 공무원 2백41명이 처음으로 해외연수를 위해 홍콩과 싱가폴 등 해외나들이에 나선다(시보 2. 12)
* 토요휴가제 실시 시・매월 1회씩, 부산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책 일환으로 기관장을 제외한 시 산하 전 직원들이 매월 1회씩 토요일에 휴가토록 실시(시보 2. 12)
* 15억 모금 시 이웃돕기 집계, 지난 두 달간 모금원 올겨울 이웃돕기 성금은 모두 15억9천만원으로 집계(시보 2. 12)

2. 13
* 입상 활성탄시설 마무리, 부산화명정수장의 입상 활성탄 처리시설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완공 후 정수효과에 관심이 모아짐(시보 2. 21)

2. 14
* 부산 전역 공장 건설 허용, 부산지역이 「성장 관리 전역」으로 지정 오는 4월 8일부터 녹지 및 상업 지역에서도 중소규모 시형 업종의 공장 신・증설 허용(국제 2. 14)

* 떠내려가는 인공 섬, 늦어도 2월 초 완료키로 한 인공 섬 건설에 따른「재원 조달 방안 연구 용역」결과 및 착공 여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오는 5월 말까지 3개월 이상 연기되어 부산시 인공섬 무기 연기 방침이 현실로(국제 2. 14)
* 부산시 행정 국제화 박차,「국제화 원년」선언을 계기로(부산 2. 14)
* 아파트 주차난 해결 궁여지책,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에 최저 7배에서 최고 50배까지의 무거운 주차료를 부담시키기로 결정(부산 2. 14)
* 노인 복지 정책 겉돈다, 정부의 복지행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부산 2. 14)
* 부산시교육위원회 인사권 강화, 교육 위원회 자체 인사가 가능(부산 2. 14)
* 기상 관측소 측정 능력 "한계", 부산 지역 기상관측소가 도심 한가운데 설치 돼 있어(부산 2. 14)
* 8부두 '3함사' 이기대 이전, 환경 파괴는 물론 지역개발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부산 2. 14)
* 중학교 배정 발표(부산교육 2. 14)

2. 15
* 부산 작년 9백3사 폐업, 지난해 부산 지역의 폐업 업체 수는 92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나 이로 인한 실직 근로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국제 2. 15)
* 부산 주택업 공영 택지도 못 챙긴다, 부산 도시 개발 공사가 지난해 민간 업체에게 선수 공급한 택지 중 70%를 서울업체들이 독차지해 가뜩이나 택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주택 업체들이 시 산하 기관의 공영개발 토지에서까지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국제 2. 15)
* 부산 미술제 일과성 행사 전락, 지역 미술인의 축제인 부산 미술제가 협회의 사전 준비 부족과 부산시의 비현실적 예산 지원 등으로 연례적 행사로 전락(국제 2. 15)
* 베트남 투자 본격화, 지난 2월 초 단행된 미국의 베트남 경제 제재 조치 해제 이후 베트남 진출 본격화(국제 2. 15)
* 부산시 구청장급 인사, 시는 15일 공석 중인 내무국장에 전진 부산진구청장을 임명, 진구청장에 양종수 중구청장을 각각 발령(국제 2. 15)
* 행정착오로 못 따내, 정부가 올 해 2천억원의 예산으로 지방 중소기업 육성 지원 계획이었으나 부산시 행정착오로 육성 기금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국제 2. 15)
* 부산시의 식수 파동에 따른 수질 개선 의지 미비(부산 2. 15)
* 이달 내 일제 정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재래시장 일제 정비(부산 2. 15)
* 제조업 노동자 귀사율 사상 최고, 부산 지역 각 제조업체 노동자들의 귀사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부산 2. 15)
* 시내버스 부산대교 우회 주민 불편, 영도대교의 버스통행 제한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노선버스를 임시운행해 줄 것을 요구(부산 2. 15)
* 행정기관-기업체 교환근무 실시(부산시정 2. 15)
*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발표(부산교육 2. 15)

2. 16
* 서비스업 단속 대책, 시는 16일 서비스업에 대한 불법 부당 요금 징수 근절 대책 마련(국제 2. 16)
* 부산에 국제 소송 전담법인, 국제화 시대를 맞아 부산시에서도 국제 소송을 전담할 법무법인 곧 개원(국제 2. 16)
* 지하철 공사 제자리걸음, 지하철 2호선 건설 공사 위한 북구 사하로 연장 폐쇄 계획이 관련 기관들의 무대책적인 입장차로 공전되면서 지하철 건설 공정이 지연, 교통체중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국제 2. 16)
* 녹산 입주업체에 특별 융자, 시는 녹산공단 입주업체에게 분양 대금의 60% 특별 융자 하는 방안 추진(국제 2. 16)
* 부산의회임시회 개최, 부산시의회 16일 오전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국제 2. 16)
* 부산시, 인사 4급 종합 건설 본부 건설 1부장 탁치남 외 4명(국제 2. 16)
* 부산역, 부산진역 시민 휴식 공간 제공 계획, 부산역과 부산진역의 빈터에 수림공원의 조성예정(부산 2. 16)
* 부산 시 중소기업에 625억 지원, 지역 중소기업체들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생산기반 및 기술을 높이기 위해(부산 2. 16)
* 서부산권 개발・도시기능 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 2월 16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문화 부산시장과 우명주 부산시교육감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음(시보 2. 21)
* 부산시, 인사 내무국장 전진 중구청장 송인명 부산시는 지난 15일 공석중인 내무국장에 전진 부산진 구청장을 임명하는 등 3~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시보 2. 21)
* 상수도 10.6% 인상 입법 예고,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수도요금을 평균 10.6% 인상하는 부산직할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2월 16일 입법예고(시보 2. 21)

2. 17 * 부산시 4월 1일 수도료 10%인상, 부산시는 17일 상수도 요금을 오는 4월 1일부터 ㎥당 평균 10.6% 인상키로 하는 내용의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국제 2. 17)
* 자성대부두 하역 현대화, 부산항 자성대 컨테이너 하역 장비가 대폭 확충(국제 2. 17)
* 6개 학교 개교 국교2・중학 4곳, 3월 시내 국민학교 2개교와 중학교 4개교 개교, 신설학교는 모동국교・상리국교・모동중・주감여중・영도중(국제 2. 17)
* "올 경기 점진적 회복",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들과 경제 단체들 올해 경기 회복세 보일 것이라 전망(국제 2. 17)
* 광안로 예산 확보 추궁 부산 시의회 상위질서, 부산시의회 17일 내무 건설위 등 6개 상임 위별로 12관부서 별 업무 보고 받은 뒤 질의응답(국제 2. 17)
* 논스톱 좌석 버스 신설, 부산시 올 교통 종합 계획 발표, 전문요원 채용 교통 행정 연구 단 발족(국제 2. 17)
* 다대 7지구 등 10곳 90만평 택지 타당성 조사, 올해 안으로 전면 실시(부산 2. 17)
* 수정산 터널 연내 착공 차질, 터널 접속 도로 공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부산 2. 17)
* 시 지원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예상보다 70억 감소, 340억원 정도에 불과(부산 2. 17)
* 부산 임대 주택 4천6백세대 공급, 19일까지 부산 지역에 공급(부산 2. 17)
* 부산 수도료 4월부터 10.6% 인상, 수질 개선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인상, 이에 시민 대책위에서는 수도료 인상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부산 2. 17)
* 상수도료 인상 능사 아니다, 부산시의 상수도 인상 계획이 시의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국제 2. 18)
* 부산에 「시민의 종」 세우자, 부산시에 상징물을 건설할 것을 북구청이 부산시장에게 건의(국제 2. 18)
*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추진, 사하구청은 서부산권 시민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위해 사하구 을숙도 북부 1만여평에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추진키로(국제 2. 18)
* 부산시 부채 눈덩이 올해 1조원 육박, 부산시 부채 증가 올해 2조원 육박 전망,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채 발행 및 채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 지난해 8천7백64억원 규모였던 부채가 96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국제 2. 18)
* 부산시 교통 종합 개선 대책, 전국 최악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부산 2. 18)
* 서낙동강권 중점개발, 정문화 부산시장을 앞으로 부산발전의 기본 방향을 북구와 강서구를 축으로 서낙동강권을 중점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시보 2. 21)

2. 18 * 망미동에 부산 첫 "실버타운", 2천여평에 노인 주택 백93세대 건립, 「로사봉사회」 유료 임대키로(국제 2. 18)
* 부산회의 4개 상위보고, 부산 시의회는 18일 내무 교통항만 도시 주택 운영위 등 4개 상임위를 속개・내무국 주택국 등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 받고 질의(국제 2. 18)
* 을숙도에 서부산 문화회관(부산 2. 18)
* 부산 지하상가 먼지 오염 심각,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해(부산 2. 18)
* 시 교통 종합 개선 대책 내용, 공급위주에서 수요 관리 위주 정책으로 전환(부산 2. 18)
* 수당 대폭인상, 부산시의회 내무위원회는 협오시설 근무 공무원들의 수당을 현재보다 2백40%에서 최고 3백60%까지 인상(시보 3. 2)
* 정문화 시장 구정소방,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건의 협의 중 지하철 수송률 20%올릴 터, 보수천 복개 조기완공… 교통체증완화 제2부산대교 연내착공 96년에 완공(시보 3. 2)
* 남부경찰서 문현2파출소를 문현2동 519-6번지에서 517번지로 이전(경찰사 2. 18)

2. 19 * 부산 무역 센터 설립 허가, 상공 자원부는 부산 세계 무역센터 건립, 운영할 「재단 법인 부산 세계 무역 센터」의 법인 설립을 19일 허가(국제 2. 19)
* 유해 「염소」 대량 투입 종용, 낙동강 원수 「질소」 제거 미봉책 급급, 부산시 "고도 정수 약품 사용" 선언(국제 2. 19)
* 재활용품 수익금 98억, 재활용 분리수거 증가로 판매 수익금 공동체 생활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조사(국제 2. 19)
* 노포동으로 이전, 부산 동부 시외버스와 사직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작업 본격 추진, 늦어도 96년 금정구 노포동 지하철역 일대 환승 센터에서 승하차 가능(국제 2. 19)
* 신-장 공단 주거지 개발, 부산 사하구 신평동 54천여평이 신평 장림 공단 배후 주거지로 개발(국제 2. 19)
* 고속・동부 버스터미널 두구동 이전 추진(부산 2. 19)
* 부산권 광역개발 연구 "시동", 부산과 인근 김해・양산을 연결하는 「부산권 광역 개발 연구」가 올해 본격 착수(부산 2. 19)

* 부산 역사연 19일 출범, 「지역사 연구와 대중화」를 설립 취지로, 지난 19일 부산진구 부전동 연구소 2층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 시작(국제 2. 22)

2. 21
* 전국 첫 상설 「재활용센터」, 전국 최초의 상설 재활용센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공장이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589 일대에 건설, 오는 4월 가동(국제 2. 21)
* 재활용품 할당량 채워, 시가 재활용품 수집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제」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조사(국제 2. 21)
* 교사 순환 근무제 확대, 지난해 부산시내 초등교사의 대폭적인 청간 전보가 실시(국제 2. 21)
* 부산 세계 무역 센터 건립 박차, 상공자원부가 재단 법인 부산 세계 무역 센터의 법인 설립을 허가(부산 2. 21)
* 사하 구청 버스 노선 전면 조정 건의(부산 2. 21)
* 대규모 시민 공원 조성, 강서구 일원에 대규모 휴식공간 3개소가 조성(부산 2. 21)
*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 부산시는 해빙기에 우려되는 재해의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합동 점검기반을 편성・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정밀 안정진단과 보수・정비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시보 2. 21)
* 3백77명 재산공개 공직자재산변동사항, 부산시 공직윤리위원회는 부산지방공직자의 신규재산 등록 및 변동자의 재산 등록사항을 2월 21일자 시보를 통해 공개(시보 2. 21)
* 「동래향토지발간」 과거・현재・미래 조망, 동래구는 대표적인 부산역사와 문화의 뿌리인 전통의 고장인 동래지역에 대한 향토자료와 변천과정을 실은 동래향토지를 발간(시보 2. 21)
* 공무원 기업체에 위탁교육, 현장행정기회를 늘리기 위한 일선동 근무제와 민간기업체 위탁교육이 실시(시보 2. 21)
* 부산사회체육센터 기념식, 정문화 시장은 2월 21일 오전 11시 접견실에서 아시아사회체육협회 이사회 간부들의 예방을 받고 환담(시보 3. 2)
* 행정쇄신업무, 부산시 행정쇄신업무에 대한 감식원의 감사가 2월 21일~26일까지 실시(시보 3. 2)

2. 22
* 부산 무역 역조 심화, 지난 1일 중 부산지역 기업체들의 수출 신용장내도액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수입인증서 발급액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국제 2. 22)
* 세계 해양 생물관 징수 조례안 제정, 세계 해양 생물관 관람료 어른 1천5백원・청소년 1천원・어린이 6백원씩(국제 2. 22)
* 「지프 차세 조례안」 통과, 부산시의회 폐막 1년 후 승용차 동일 인상(국제 2. 22)
* 올해 부산 수출 먹구름, 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부산 2. 22)
* "좌수영 성지 복원을"(부산 2. 22)
* 부경 역사 연구소 출범, 19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부산 2. 22)
* 저소득 주민 생활 개선, 취업 알선 대책이 최우선(부산 2. 22)
* 지하철 온천장역 역세권 주차장 공사로 인근 도로 균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부산 2. 22)
* 상수도요금 인상안 유보 부산시의회는 지난 2월 22일 오전 제30차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11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시보 3. 2)
* 지프자동차 세금대폭인상, 부산시의회는 2월 22일 시가 제출한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시보 3. 2)

2. 23
* 부산~홍콩항공화물 3월 8일부터 직항로, 3월 8일부터 부산~홍콩 간 항공화물 직항로가 개설, 같은 달 9일부터 서울~로스앤젤러스 간 화물기 부산으로 연장 운행(국제 2. 23)
* 전력 사용 증가율 "주춤", 지난해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제조업 부문 전력 사용 증가율이 타 부분보다 특히 저조, 지역 경기 부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국제 2. 23)
* 공익 근무 요원 소요 인력 조사, 시는 23일 병역법 개정으로 내년 초 공익 근무 요원제도 실시됨에 따라 구청과 사업소에 분야별 필요 인원 조사, 이달 말까지 신청토록(국제 2. 23)
* 부산지역 중기 육성 천1백73억 지원, 부산지역 중소기업 육성 위해 올해 총 1천1백73억 지원, 올해 시도별 중소기업 육성 재원의 9%(국제 2. 23)
* 취로 사업 노임 인상, 시는 올해 취로 사업 노임 단가를 1인당 1일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 3월부터 시행(국제 2. 23)
* 신호공단 조성 마찰, 시가 지난달 강서구 신호동 간척지를 신호 지방 공단으로 지정하고자 하자 이 지역 주민들이 공단 조성에 따른 편입지의 적성 보장과 지역민들의 기득권 보장 요구하고 나서 마찰(국제 2. 23)
* 부산 연안 터미널 신축, 23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78년에 개장한 연안 여객 터미널이 시설이 좁고 노후해 불편 초래(국제 2. 23)

* 폭 30m광로 올 착공, 아시안 게임 대비 동래구 사직동 사직 운동장에서 부산진구 초읍동 시민 도서관까지 광역 도로 착공키로 하는 등 사직운동장과 온천장 일대 교통망 조기 구축(국제 2. 23)
* 시 보상 업무 구청 전가, 구 자체 사업 차질…지주들 피해 심각(국제 2. 23)
* 대규모 신발 공장 잇단 폐업・이전, 영세상과 영세민들의 가계에 큰 타격(부산 2. 23)
* 시 청사 건립 출발부터 발병, 1개월 이상 착공이 지연(부산 2. 23)
* 해운대서 대보름 달맞이 축제, 2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 예정(부산 2. 23)
* 긴급 물가 안정 대책, 부산시는 2월 23일 긴급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지난 2월 21일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을 전달하고 물가안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시보 3. 2)

2. 24
* 무역 전시관 6월 완공, 부산 경제 기관장 회의서 올해 녹산 협동화 용지계획 수립(국제 2. 24)
* 경유사용 차 환경 부담금 고지서 발부 차질, 교통부 전산 자료 거절, 구청 직원 12만여 대 수작업 매달려(국제 2. 24)
* 해빙기 대형사고 “상존”, 부산 화재 위험지 229곳, 시 일제 조사 노후 건축물 64곳 최다(국제 2. 24)
* 부산시 간부 합숙 교육 165명 삼성 연수원, 부산시 간부 공무원 165명 시의 5급 이상 전체 간부 기업체 위탁 연구 계획에 따라 2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중동 삼성 연수원에서 위탁 교육 1기 입소식 가져(국제 2. 24)
* 동해 남부선 신시가 우회, 부산시 해운대역 신도시 외곽 이전(국제 2. 24)
* 전자 감응식 승차권제 시내버스 토큰제 폐지, 시는 시내버스 토큰제를 없애고 전자 감응식 승차권제 도입키로(국제 2. 24)
* 올 상반기 대졸 취업 격감, 부산대기업 전체 30명, 작년 절반 이하…일부선 아예 “무채용”(국제 2. 24)
* 부산시립무용단 전통 춤 보급・계승에 역점, 부산 유일의 직업 무용단인 부산시립 무용단이 오는 2월 24일 문화회관 야외무대에서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 <달아달아 밝은 달아> 공연을 시작으로 연말 까지 모두 11회 주요 공연 일정 잠정 확정(국제 2. 24)
* 달아달아 밝은 달아, 부산시립무용단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2월 24일 오후 6시 부산문화회관 야외무대에서 대보름 특별기획 <달아달아 밝은 달아>로 대보름 지신밟기 공연을 함(시보 2. 21)
* 경제기관장 회의 개최, 부산시는 2월 24일 정문화 시장 주재로 부산시장 경제기관장 회의를 갖고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시보 3. 2)
* 국제화 사업 활발히 추진, 부산시는 2월 24일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 도시 국제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시보 3. 2)
* 범시민추진위사무처 개소식, 아시아경기대회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2월 24일 오후 2시 30분 부산데파트 2층에 부산시 아시아경기대회 추진위원회 사무처를 두고 현판식과 함께 개소식을 가짐(시보 3. 2)
* 94대간첩대책 지방회의, 94대간첩대책 지방회의가 2월 24일 10시 30분 53사단 대강당 송상현관에서 개최(시보 3. 2)
*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부산시정 2. 24)
*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처 개소(부산시정 2. 24)

2. 25
* 「광역 개발권역」 지정, 울산-마산・창원・진해 통괄, 양산 정관・속영 안정 신도시 추가(국제 2. 25)
* 부산에 제2지방경마장(부산 2. 25)
* 아주 게임 정부차원 유치를(부산 2. 25)
* 부산권 광역 개발 계획 수립, 연내에 수립 될 예정(부산 2. 25)
* 세계 무역 센터 5년간 62만명 고용 효과 기대(부산 2. 25)
* 동남개발연 부산 21세기 연구센터 설치(부산 2. 25)
* 덕천~만덕 간 도로 개설 지연, 이 구간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올해도 악성 체증에 시달릴 전망(부산 2. 25)
* 불법공사 여전(부산 2. 25)
* 강서 종합 복지관 개관, 25일 예정(부산 2. 25)
* 정류소 외래어 표기, 영어・일어・러시아어 등 오는 3월부터 표기(부산 2. 25)
* 가야 1동 주민, 지하철 2호선 가야역 이전 요구, 가야시장 앞의 기존 육교 쪽으로(부산 2. 25)
* 부산 시청 부지 바다 조망 전시관 활용을(부산 2. 25)
* 강서구 종합복지관 개관, 서부산권 개발의 중심지역인 강서지역에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시보 3. 2)
* 부산도서관연구회 창립 총회 개최(부산교육 2. 25)

2. 26
* 무허가 공장 양성화 실효, 환경 시설 부담 커 기피, 특별 혜택도 제한적…7.6%만 신청(국제 2. 26)
* 수준 높은 조각 부산시 산책, 다다갤러리・동백아트센터 개원 기념, 코리아전 국내 작품성・흐름 한 눈에(국제 2. 26)

* 내일 일제히 요금 인상, 전국의 시내버스와 좌석 버스 요금이 27일부터 인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290원・좌석버스는 600원(국제 2. 26)
* 동삼 매립지에 연구센터, 한국 해양대 26일 국제 경쟁 시대에 대비 위한 방안으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학교 앞 매립지에 5만여평의 학교 부지 조성 추진 등 2천년대 장기 발전 계획 마련(국제 2. 26)
* 시 철도료 인하 건의, 시는 26일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사하로 가야로의 교통 체증이 극심・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시내구간 철도 요금 대폭 인하 할 것을 철도청에 건의(국제 2. 26)
* 녹산 공단 3개 마을 그린벨트 해제를, 부산 정부에 첫 건의, 시는 26일 녹산동과 용원 일대에 조성중인 녹산 공단 확대 조성 위해 인접해 있는 신촌・화전・미음 등 3개 마을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 건의(국제 2. 26)
* 부산진역 부근에 옛 인공 군항, 「조선시대 부산에 인공 군항 있었다」 17세기 후반 무렵 조선수군이 건설 추정, 길이 1백여m…일제가 매립 후 사라져(국제 2. 26)
* 1월 관광객 지출 감소 서비스・자원 개발 시급, 각종 국제회의 유치 및 관광 이벤트 개발이 시급(부산 2. 26)
* 지하철 2호선 호포 기지창 착공 표류, 양산군, 개발제한구역 이유 승인 유보(부산 2. 28)
* 취수장일대 정화활동 22여직원회 1,500여명 참여, 부산시 여직원회는 2월 26일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양산군 원동면 벌 등리 낙동강 일원에서 시 산하 전 여성공무원 1,500여명 참여하여 낙동강 수계 일원에 대한 정화활동 전개(시보 3. 2)

2. 27 * 버스요금 인상 2월 27일부터, 시내・좌석버스 요금이 지난 2월 27일 새벽 0시부터 인상(시보 3. 2)

2. 28 * 가덕도에 신항 개발 촉구, 국회는 28일 법사 외무 통일 행정 내무 등 15개 상임위를 속개, 계류 법안을 심의하거나 소관부처별 현황을 보고 받고 정책 질의 벌여(국제 2. 28)
* 공공기관 태부족 "원성", 모라 주공 아파트의 증설로 주민이 급증했으나 파출소 신설・분동 등이 관련 기관 관심 소홀로 계속 늦춰서 주민들 원성(국제 2. 28)
* 수입화물 직통 관제 일반 부두까지 확대, 3월부터 확대 실시(부산 2. 28)
* 부산 상장회 새 사업 앞 다투어 진출, 탈불황을 위해 사업 다각화 추진의 일환(부산 2. 28)
* 대형 사업장 성차별 여전, 40% 이상 취업 규칙을 위반(부산 2. 28)
* 상습체납 첫 명단공개, 부산시는 2월 28일 주정차 51번 과태료 3회 이상 상습체납자 16,638명의 명단을 공개(시보 3. 11)

3. 1 * 부산 상품 종합 전시장 연내에 공사 착공 계획, 부산 상품 종합 전시장 추진 위원회 오는 10일 서울 대한무역 진흥 공사에서 첫 회의 갖는 등 부산에 종합 전시장 건립 위한 본격 작업 시작(국제 3. 1)
* 베트남에 부산 중기 공단, 호치민시 50만평 사업 계획서 발송 곧 개발 착수(국제 3. 1)
* 역사만 있고 재평가 소홀, 3・1 운동 75주년 맞아 부산지역 독립 만세 운동・학생운동・농민・상인이 가세한 운동 등에 대한 재평가 필요하다는 지적(국제 3. 1)
* 부산 건설업 호황,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이 지난해 동안 92년에 비해 거의 50% 가까운 공사 수주실적 증가 기록(국제 3. 1)
* 부산은 대형화 5백억 규모 증가, 부산 은행이 5백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실시한 것을 비롯 조흥・서울・신탁・강원 등 은행과 신한・삼희・동아・삼삼 투금 등 단자사가 오는 5・6월 중 증자 실시(국제 3. 1)
* 낙동강 물 대책 부산시 8개항 정부에 건의, 11개 공단 입지 금지, 시는 1일 기존의 청정 지역 외에 낙동강과 금호강 수계에 있는 대구와 경북 일대 1직할시 2시 10군 6읍 43개면지역을 특별 지역으로 지정 신규 공단 입지 금지하는 등 8개항의 낙동강 수질 보전 대책을 환경처와 건설부에 정식 건의(국제 3. 1)
* 주정차 위반 「상습체납」 첫 명단 공개, 시는 1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3회 이사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국제 3. 1)
* 내 고장 교과서 첫 선,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부산 특성을 알리는 교육청 자체 교재인 「신나는 1학년」 교과서가 첫 선보여(국제 3. 1)
* 성인 정신지체 장애인 부산 첫 교육장 마련, 3일부터 백향 소망 교실 열기로(부산 3. 1)
* 공공도서관 세운다, 남항동과 대연동, 청룡동 등 3곳(부산 3. 1)
* 백산 안희제 선생 흉상 각고 끝 재 건립, 3・1절 75주년을 맞아 2년여 만에 다시 건립(부산 3. 1)
* 제75회 3・1절 기념행사(부산시정 3. 1)
* 국민학교 2개교(모동, 상리), 중학교 4개교(모동중, 주감여중, 영도중, 운송중) 개교(부산교육 3. 1)
* 부산직할시립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084호)(부산교육 3. 1)
* 부산직할시립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085호)(부산교육 3. 1)

3. 2 * 학생 신분 변동 남자 민방위대 신고 받아, 시는 신학기 맞아 학생 신분이 변동 된 만 20세 이상 남자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민방위대 편성 신고를 동사무소에서 받아(국제 3. 2)
* 예산 수억 낭비 초래, 명지 해안 매립지 뒤늦게 용도 변경으로 인해 예산 수억원 낭비(국제 3. 2)
* 최저 30m 고도 지구로, 부산진구청은 서면 건물의 최저 고도를 현행 12m에서 30m으로 높이기로(국제 3. 2)
* 10일부터 가변차선, 시 출근 시간에 정체가 심한 서면 로타리~양정 교차로 간, 다대 성보냉장 앞~장림 삼거리에 대해 10일부터 가변 차선제 실시(국제 3. 2)
* 민원 해결 옴브즈맨제 도입, 집단 민원 원만한 해결 위해,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국제 3. 2)
* 부산 시향 유럽 첫 나들이 코스, 부산 시향이 지역 교향악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유럽 5개국 순회 연주회 추진(국제 3. 2)
* 우2동 임야에 이주단지, 해운대 신시가지의 우회도로 편입부지에 거주하는 우2동 주민의 집단 이주단지 조성계획 가시화(국제 3. 2)
* 다대로 등 3곳에 자전거 시범도로, 시는 2일 낙동대로・장림 도로・다대로에 자전거 시범도로 조성키로(국제 3. 2)
* 부산 인근 신 국제공항 건설 추진, 정부 및 여당 일각에서 논의 중(부산 3. 2)
* 해운대 신시가 편입지 이주단지 조성 가시화, 주민들의 주택 조합 설립과 이주 지역에 대한 부산시의 도시계획 변경 결정으로 가시화(부산 3. 2)
* 낙동대로 자전거 시범도로 조성, 부산・경남・경북 등 14개시도 24곳에 자전거 시범도로를 만들기로(부산 3. 2)
* 통계로 본「부산의 하루」2일 통계 결과 발표(부산 3. 2)
* 생활개혁・맑은 물 공급 최선, 부산시는 3월 중 부산시정의 역점시책을・시민생활안정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시보 3. 2)
* 수도료 인상 연기, 부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던 수도요금의 인상 시기 오는 7월 이후로 연기하기로(시보 3. 2)
* 임도 10km 신설 올해 백양산 등 6곳・4억 투입, 산불예상 진화와 산림보호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10km 임도를 새로 개설함(시보 3. 2)
* 쓰레기 수거 종량제 시범실시, 부산시는 쓰레기 수거료를 지금까지 재산세액이나 건물면적 등에 따라 고정적으로 부과해 오던 것을 실제 배출량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시보 3. 2)
* 고도정수시설 조기완공, 화명과 덕산, 명장정수장 등 부산시내 4개 정수장에 오는 97년까지 오존과 입상활성탄 등 고도정수 처리시설이 완비(시보 3. 2)
* 여성 시정참여 확대 시・각종위원회위원 위촉, 여성의 요구를 다양하게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부산시의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시보 3. 2)
* 계류 중 집단민원 조기해소, 부산시는 그 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생활 개혁 10대 과제」중 부산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해오고 있는 이기주의형 집단민원에 대하여는「일관성」「책임성」「주민대표성과 전모성 확보」등 집단민원해결 3대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시보 3. 2)
* 동 직원 해외연수 1기 20명 홍콩 등, 부산시는 올해 동 근무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또 국제화시대를 맞아 공무원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키로(시보 3. 2)
* 오토바이 과속 등 단속, 부산시는 최근 교통사고 요인이 큰 오토바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시보 3. 11)

3. 3 * 통계로 본「부산의 하루」범죄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주는 반면 해운 화물 컨테이너 수송과 수산물 어획고는 증가(국제 3. 2)
* 사상 가야로 주변 주차장 3곳 신설, 북구청은 3일 지하철 공사 중인 사상로 가야로 주변 3곳에 주차장을 올 상반기 중에 신설키로(국제 3. 3)
* 역 광장 시민 휴식 공간 마련, 부산역과 부산진역 광장 수림제 조성공사 3일 마무리(국제 3. 3)
* 인사, 환경 녹지국 녹지과 녹지 계장 황태용 외 4명(국제 3. 3)
* 공무원 해외 연수 흐지부지, 올해도 예산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각 구청 현실 감안 않고 획일적으로 예산 편성 실질 효과 없어(국제 3. 3)
* 부산 소극장 연극 사양길, 부산지역 소극장 연극 공연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국제 3. 3)
* 부산시, 인사(부산 3. 4)

* 아시아경기대회 기필코 유치, 아시아경기대회 부산유치 체육인 결의대회가 부산직할시 체육회 주최로 3월 3일 오후 3시 시민회관 소강당당에서 정문화 부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인사 및 체육인사 6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시보 3. 11)

3. 4
* 부산~청진 뱃길 열린다, 남북한 간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해상 직항로를 3월 중으로 개설하는 계획 추진(국제 3. 4)
* 무역 활성화 대책 박차, 부산시는 올해 수출 목표 74억달러 달성 위해 국제 자매결연 도시 확대·해외 상설 직판장의 추가 설치 등 대책 마련(국제 3. 4)
* 부산 도시가스 최대 흑자, (주)부산 도시 가스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단기 순이익 남겨(국제 3. 4)
* 재건축 추진 지지부진, 시가 시내 24개 지구를 재건축 추진하고 있으나 2개 지구만 정상적으로 공사 시행될 뿐 재건축 사업 극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국제 3. 4)
* 을숙도 빈지 62만여평 관리권 해양청 부산시에 이양, 낙동강 을숙도 빈지가 휴식 공간으로 개발(국제 3. 4)
* 부산대 박물관 확대 이전, 부산대 박물관이 4일 구 음악관 건물에 전시시설을 갖춰 이전·개관(국제 3. 4)
* 농가 인구 13년만에 절반, 93년 농업 기본 통계 조사 결과 농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노령화 현상 계속(국제 3. 4)
* 인사, 부산 수산대 수산 과학대학장 손철현 등(국제 3. 4)
* 백화점서 민원서류 발급, 도심 내 다중 집합 장소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부산 3. 4)
* 부산 엑스포 97년 개최, 부산 국제 종합 전시장 오픈 기념행사로 「97 부산 EXPO」를 개최키로(부산 3. 4)
* 을숙도 빈지 부산시 이관, 사하구 하단동 1207 낙동강 을숙도 빈지로 이관(부산 3. 4)
* 정문화 시장취임 1년 부산장기발전 기반조성 시책에 역점 둬, 정문화 부산시장 취임 1년을 맞아(시보 3. 11)
* 「전국토청결의 날」 대대적 정화, 부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전 국토 청결의 날」 행사를 시 전역에서 실시(시보 3. 11)

3. 5
* 부산 부도율 증가세 "주춤", 부산 지역 어음 부도율이 올 들어 2개월째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져 지난해 9월 이후의 가파른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국제 3. 5)
* 「불교 방송국」 부지 해제, 시는 5일 불교 부산 FM 방송이 방송국을 짓기 위해 신청한 어린이 대공원 중 2천여평을 공원에서 해제하는 등 모두 8건의 도시 계획안 공람 공고(국제 3. 5)
* 아주시장 개척단지원, 부산시는 5일 아시아 대양지에 시장개척단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부산지역 기업들의 수출 촉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시보 3. 11)
* 대연 5동에 공공 도서관 건립(부산 3. 5)
* 명지주거단지 해상매립·호안축조 순조 주택난 숨통, 명지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 진행(부산 3. 5)
* 부산항 부두 내년 초 민영화, 부산항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부산 3. 5)
* 사직운동장 일대 대대적 환경 정비, 2002년 아시안 게임 유치에 대비(부산 3. 5)

3. 7
* 지하철 구간 안전 무방비, 북구 관내 지하철 2호선 구간 곳곳에 차선이 지워지거나 교통 표지판 등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 큰 것으로 조사(국제 3. 7)
* 한-중 우편 직항로 개설, 우편물 수송 위한 직통 해상항로가 오는 3월말 개설(국제 3. 7)
* 부산 지방 경찰청 인사, 경위 본청 경비과 상황실 김영문 등(국제 3. 7)
* 부산항 배후도로 깊은 잠, 부산항 3단계 배후도로 공사가 시공 회사의 부도로 5개월째 중단(국제 3. 7)
* 인사, 부산상의 진흥 부장 박공현 외 1명(국제 3. 7)
* 녹산공단 유치 공고 요업 통신 분야 대상, 녹산 국가 공단에 첨단 산업 분야 업체 유치 위해 이달말에 전국 대상으로 유치 공고 내기로(국제 3. 7)
* 부산항-상해항 결연, 12일 중국서 조인식 가져(국제 3. 7)
* 94 부산 지역 첫 당정 회의 현안 국고 요청, 민주당 부산시 지부와 부산시 등 부산지역 15개 기관과의 94년도 제1차 당정 협의회가 7일 열려(국제 3. 7)
* 중소형 조선소 이전 대체 입지 시 적극 개발 방침, 각종 민원 발생의 원인 해소(부산 94. 3. 7)
* 부산상의 의원 선거 "후끈"(부산 3. 7)
* 아시안 게임 정부 차원 유치를(부산 3. 7)
* 김해공항 확장사업 등 보고, 부산출신 국회의원과 부산시장을 비롯한 재부기관장이 참석한 올해 첫 당정회의가 3월 7일 오전 부산무역회관에서 개최(시보 3. 11)
* 「의회 안내」 1천부 발행, 부산시의회는 시의회를 찾는 방문객의 안내 자료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시의회의 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의회안내」 1천부를 발간(시보 3. 11)

* 낙동강 원수 냄새 사라져, 낙동강원수의 냄새 원인으로 알려진 발암물질 디클로메탄이 7일 완전 소멸(시보 3. 11)
* 당정협의회 개최(부산시정 3. 7)

3. 8
* 체증 도로 6곳 3년 내 확장, 지하철 2·3호 5년 내 완공(국제 3. 8)
* 반여지구 9만평 택지 개발 본격화, 국방부 측과 토지 수용 조건 놓고 이견을 보여 온 해운대구 반여지구 택지 개발 본격화(국제 3. 8)
* 시 환경 부담금 부과, 시는 8일 지난해 하반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 고지서 부과(국제 3. 8)
* 국악의 해 수놓을 봄의 향연, 올해 부산 문화회관 전관 개관 기념 공연은 국악과 민속 무용 등 우리 소리 우리 춤 중심으로(국제 3. 8)
* 충무국교 폐교 않기로, 오는 95년 3월 폐교 예정이던 충무국교 그대로 운영 폐교 계획 재검토키로(국제 3. 8)
* 부산 상수원 식수 부적, 부산시 보건 환경 연구원의 검사 결과 식수로 부적합할 정도로 악화(부산 3. 8)
* 부산 만성 난제 해소 사원 재원 내년 국고 4천억 필요(부산 3. 8)

3. 9
* 「실업」 부산 취업률 상승세, 올 들어 경기 회복 추세로 부산 지역 업체 구인 요청 크게 증가(국제 3. 9)
* 아주 도시 생산성 연구 부산 국제 경쟁력 고양, 동남 개발 연구원은 국제 시장에서 부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은행과 합동으로 아시아 도시 생산성에 관한 주제 비교 연구 시작(국제 3. 9)
* 부산 예술 학교 11일 개교, 부산 지역 최초 예술 전문대학인 부산 예술 학교 오는 11일 개교(국제 3. 9)
* 광안대로·수영 강변로 6월 첫 삽, 해운대 신시가지와 부산 시내 연결하는 광안대로와 수영 강변 도로 개설 공사 6월부터 공사, 97년 완공 예정(국제 3. 9)
* 부산시, 인사 건축직 5급 중구 전출 최주용 등 9명(국제 3. 9)
* 삼성차 산호 공단 내정, 5~6월 중 계획 공식 발표(국제 3. 9)
* 구덕 터널 유료화 연장(부산 3. 9)
* 시 묘목 판매장 개설, 오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부산 3. 9)
*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확대, 주차난 해결을 위해(부산 3. 9)

3. 10
* 항도 부산 논문 공모키로, 부산시사편찬위원회는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94년 전체 회의 열고 올해 사업 계획 확정(국제 3. 10)
* 행정 정보 공개 흐지부지, 시와 일선 구청에서 실시 중인 행정 정보 공개 제도가 준비 소홀·홍보 부족·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효과 거두지 못하고 있어(국제 3. 10)
* 사업체 현황 파악 실시. 부산 지역 사업체에 대한 현황 조사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 시·구 합동 조사(국제 3. 10)
* 국교학급 인원 고무줄 조성, 지역 따라 38~50명 편차 들쭉날쭉, 실정 외면한 "탁상 편성" 불만 팽배(국제 3. 10)
* 해양 박물관 건립 안개 속, 부산 매립지용도 결정 늑장 또다시 표류, 항만청 비협조 시행조차 의문(국제 3. 10)
* 사업체 실태 조사 시 11일부터,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국제 3. 10)
* 부산 실업률 전국 최악 작년 4.4%,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경제가 회복세 보이나 부산 지역은 신발 경기 침체 등으로 고용 사정 최악(국제 3. 10)
* 국제 종합 전시장 건립 박차, 부산 수영 비행장 부지 일대에 건립 될 부산 국제 종합 전시장의 기본 계획 확정 건립 추진위 결성 등 전시장 건립 본격화(국제 3. 10)
* 북항 해도 바뀐다, 부산 북항의 해도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 작성(국제 3. 10)
* 아주 경기 부산유치 시민 공감대 형성 나선다, 「2002년 아시안 게임은 부산으로」, 유치위 20일 사직 체육관서 범시민 다짐 대회 개최, 추진위 각계 인사 3천명 선으로 확대(국제 3. 10)
* 녹산공단 공사 9일째 중단, 송정 어촌계 소속 어민들이 「적정 보상」을 요구하며 공사장 4개 진입로를 차단 공사가 전면 중단(부산 3. 10)
* 부산 실업률 전국 최고치(부산 3. 10)
* 부산시에 김해·양산 편입 추진(부산 3. 10)
* 「인공섬」 사실상 백지화, 재산성 없어 민자 유치가 힘들어(부산 3. 10)

3. 11
* 2002년 부산 유치 먹구름, 태국 "98년 아주 경기 개최 반납 않겠다", 강력 경쟁국 인니 98년 유도계획 수포(국제 3. 10)
* 인문고 전입 추점일정 확정, 내년 2월까지 월 2회 실시(국제 3. 10)
* 올 관급 공사 1조8천억 대형 사업 활발, 작년 비 건수 줄고 금액 증가, 동서 고이 등 수백억대 많아(국제 3. 11)

* 근로자 주택 공급 확대, 부산시 업종·소득 제한 완화(국제 3. 11)
* 교통 환승 센터 내년 착공, 교통수단별 환승 센터를 내년 본격 착공·오는 96년말 완공키로(국제 3. 11)
* 임차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임차인에게 부과 지시, 현재 대여 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임차자에게 부과토록 개선 조치(국제 3. 11)
* 사상로 송수관 이설 "늑장 공사", 계획했던 공사기간보다 무려 6개월 이상 늑장(부산 3. 11)
* 부산시에 양산 편입 추진 지역 주민 강력 반발, 양산군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부산 3. 11)
* 중업 육성 원년 선포, 올해의 중업 육성자금 7백억원으로 확대(부산 3. 11)
* 부산 아시안 게임 추진위 확대 재편, 836명에서 3천명으로(부산 3. 11)
* 파리고추 등 작물 수출확대, 부산시 농촌지도관 강서지역의 시설원예 작물에 대한 수출 확대키로(시보 3. 11)
* 해경 구난함 취역식 참석, 정문화 시장을 11시 오후 2시 부산항 제8부두에서 거행된 부산 해양 경찰청 소속 해경 3001호 구난함 취역식에 참석(시보 3. 11)
* 전 공무원 친절 배가운동 전개, 부산시는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친절배가운동」을 전개하여 대민 친절도를 향상, 민원의 가부를 명백히 하여 낭비와 오해소지를 불식(시보 3. 11)
* 추진위원 3천명으로 확대, 아시안게임 부산유치 추진위원회는 3월 11일 코모도 호텔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회유치 활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 기구와 인원을 대폭 확충하기로(시보 3. 21)
* 영도에 절영 사회복지관 개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주민간의 연대감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관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28번째 사회복지관인 「절영사회복지관」이 지난 11일일 개관(시보 3. 21)
* 다대포항 일대 51만여평에 수산물·목재가공 공장조성, 부산 다대포항 일대에 대규모 수산물·목재가공 단지가 들어선다(시보 3. 21)
* 내무부장관 부산방문(부산시정 3. 11)
* 절영사회복지관 개관(부산시정 3. 11)

3. 12
* 올 부산 중화학 공업 호조, 올 들어 부산의 산업 생산 활동이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다소 나아지는 것으로 조사(국제 3. 12)
* 주택지구 4곳 재개발, 시는 부산 중구 광복동 5가 3 일원 동광 2지구를 비롯 시내 노후 불량 주택 밀집지역 4개 지구를 주거 환경 개전 지구로 지정 정비키로(국제 3. 12)
* 분양률 상승세, 지난 1월 합동 분양 직후 대량 미분양 사태가 빚어졌던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 아파트가 이사철 맞아 평균 62%의 분양률 기록하는 등 부동산 경기 호전 기미(국제 3. 12)
* 부산 국제화 사업 본격 시행, 오는 14일 정문화 시장이 일본의 도쿄 등 6개 도시 5박 6일간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해외 도시 교류와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화 사업」 본격 시행키로(국제 3. 12)
* 노사정 간담회, 시는 12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정문화 부산 시장 등 노사정 대표 22명 참석 가운데 94년 노정 업무 추진에 따른 노사정 간담회 개최(국제 3. 12)
* 순환 전철망 2005년 구축, 철도청은 오는 2005년까지 부산~울산~경주~영천~동대구~부산을 순회하는 전철망 구축 예정(국제 3. 12)
* 부산 시향 15일 정기 연주회, 14일 바리톤 우기선 독창회(국제 3. 12)
* 「동래 장날 시위」 뜻을 기린다, 1919년 3·1 운동 당시 동래고보학생 신분으로 동래 장날 시위를 주도했던 애국지사 고 박임갑씨의 공적 기리는 기념비가 거사 기념일은 13일 제막(국제 3. 12)
* 김해·양산 부산 편입 확정 땐 김해·양산·송정 3개 구 신설(부산 3. 12)
* 비자 발급 업무 중단, 4월 1일부터 여행사를 통한 비자발급 신청 제도 폐지(부산 3. 12)
* 중앙·대대로 가변 차선제 실시, 버스전용 차선제도 함께 실시(부산 3. 12)
* 부산-울산-경주-영천-동대구-부산 영남권 순환 전철망 구축(부산 3. 12)
* 「녹색환경신탁」 가입 정문화 시장·환경개선운동 참여, 정문화 시장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환경신탁통장」 갖기에 호응·구좌를 개설(시보 3. 21)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17억4천1백만원이 부과(시보 4. 1)
* 대일 수출촉진 추진, 부산시는 「1시·도 1상품」 대일수출촉진사상의 하나로 부산의 특화상품인 낚싯대를 선정·대일본시장판로 개척과 함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시보 3. 21)

3. 14
* 부산시, 인사 토목 6급 하수 계획 담당관실 하수계획계장 직대 최수치 외(국제 3. 14)

* 부산 지방 경찰청 인사, 경사 중부서 남상헌 외(국제 3. 14)
* 쓰레기 매립장 건립 반대 시위 녹산 주민 경찰 대치, 녹산 쓰레기 매립장 반대 투쟁 위원회 소속 주민 30여명 14일 반대 시위 벌여 경찰과 대치(국제 3. 14)
* 시립 화장장 운영 조례 확정, 관리사무소 설치(부산 3. 14)
* 부산에 새 「문화 축제」 생긴다, 용두산 공원 일대에서 「문화의 거리 축제」를 신설하기로 결정(부산 3. 14)
* 종업 단지 조성 차질, 문현동에 건립될 종합 금융 단지 군부대 이전 문제로(부산 3. 14)
* 鄭文和시장 일본방문(부산시정 3. 14)

3. 15
* 재활용품 쌓아 둘 곳 없다, 한국 자원 재생 공사가 쓰레기장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 부지 확보 못해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중단 위기(국제 3. 15)
* 가덕도 관광농원 조성, 가덕도에 대규모 관광 공원 단지 조성(국제 3. 15)
* 부산항 「컨」 야적 숨통 튼다, 부산항 부두 모습이 오는 99년까지 크게 바뀌어, 부산항의 2부두・4부두를 컨테이너야드 기능 갖춘 다목적 부두로 확장 정비키로(국제 3. 15)
* 공기 지연 수질 개선 이득, 8월 완공 목표였으나 관련 기관 간의 행정 협의 지연으로(부산 3. 15)
* 부산 아시안 게임 유치 기금 조성 박차(부산 3. 15)

3. 16
* 93년 인구 변화, 경남 인구가 현재 처음으로 부산 인구보다 많아져, 부산 지역 인구가 기업체 이전에 따라 인접한 경남도내 시・군으로 이동 때문(국제 3. 16)
* 문화회관 내 음악 감상실 마련, 부산문화회관이 공연장 찾는 관객들의 만남의 장소・휴식처로 활용 위한 음악 감상실 마련(국제 3. 16)
* 시민 도서관 건립 난항, 금정구 공사비 확보되지 않아 난항(국제 3. 16)
* 감천항 하수처리 분쟁 타결, 구평동 하수 98년부터 장림 처리장서 해결, 항만청 불공평 제기 「원인자 부담 원칙」 양보(국제 3. 16)
* 부산 경찰청 기구 대폭 개편, 지방청의 4개계를 없애는 등(부산 3. 16)
* 부산 인구 2년 연속 감소(부산 3. 16)
* 유명 호텔・패스트푸드 체인점 불량식품 판친다(부산 3. 16)
* 95~99년 부산항 건설(부산 3. 16)

3. 17
* 명지주거단지 녹산 공단 서부산권 개발 난항, 2000년대를 겨냥한 시의 대규모 현안 사업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초반부터 진통(국제 3. 17)
* 주택 보급률 67% 93년말 현재 부산시의 총 주택 수는 64만261호 주택 보급률 67.01%로 나타나(국제 3. 17)
* 부산시장・서울 「예술의 전당」서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7일 오후 7시 30분 서울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94 교향악 축제에 참가해 전국의 유수한 교향악단과 함께(시보 3. 21)

3. 18
* 2/4분기 기업 경기 호전, 부산지역 2/4분기 기업 경기가 1/4분기에 비해 호전(국제 3. 18)
* 부산 「컨」 물량 급증, 올 들어 부산항 「컨」 전용 부두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 크게 늘어 지난해 비해 15.1% 증가(국제 3. 18)
* 절반 이상 '못 마실 물', 부산시 세균・대장균까지 검출 보건 위협, 검사 백51건 "부적합 판정"(국제 3. 18)
* 호텔・백화점・편의점 등 식품 불량 16곳 적발 행정 처분, 유통기간 경과・제조 일자 미기재 등 불량 식품 판매하던 유명 호텔・백화점・편의점 등 16군데 적발(국제 3. 18)
* 무역 전시관 민간 위탁 경영, 오는 6월 부산 해운대 요트 경기장 내 완공 될 부산 무역 전시관의 운영 주체 및 사료 등 잠정 결정(국제 3. 19)
* 부산~목포 전철 내년 착수, 다대포항 등 99년 완공, 기획원 집계, 각부 내년 사업 예산 26조 요구(국제 3. 18)
* 김해 공항 교통편의 시, 리무진 버스 운행 내・외국인 급증에 따라(부산 3. 18)
* 보이스카웃 정기 총회(부산교육 3. 18)

3. 19
* 부산 수출 전망 먹구름, 2월 L/C액 작년 동기비 17% 감소(국제 3. 19)

3. 20
* 2002 아시안 게임 부산 유치 범시민 성공 다짐 대회, 2002년 아시안 게임 부산 유치 성공 다짐 대회가 20일 사직 체육관에서 열려(국제 3. 21)
* 묘목 싸게 팝니다, 시는 봄철식수기를 맞아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각 가정・기업체 등이 묘목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시 지정 묘목 판매장을 개설・운영키로(시보 3. 21)
* 범시민 성공 다짐대회,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부산유치 범시민성공다짐대회가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부산사직 실내 체육관에서(시보 3. 21)

* 여성문화회관 새봄 맞아 알찬 활동준비,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이 새봄을 맞아 여성들의 삶을 활기찬 생명력으로 채워 줄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어(시보 3. 21)
* 아시아경기대회부산유치 범시민 성공다짐대회(부산시정 3. 20)

3. 21
* 부산-마창-울산 새 고속도로 검토, 연내 기본 계획 용역 거쳐 확정 방침(국제 3. 21)
* 납세불만 근원적 해결, 부산시는 94년 한해를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를 수행·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납세불만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세정 홍보계획을 추진(시보 3. 21)
* 일일취업안내소서 무료검진, 동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분기 2회에 걸쳐 보람극장 옆 인력시장과 삼일극장 맞은편 노동부 일일취업 안내소를 찾아 무료진료를 계속하기로(시보 3. 21)
* 도시발전시설 등 직접파악, 정문화 시장 5박 6일간 일본방문 결산(시보 3. 21)
* 청빈공무원에 격려금, 부산시는 자발적인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시보 3. 21)
* 94년 부산시 경제시책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 부산시는 금년도 경제시책의 기본방향을 경제발전 기반조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물가안정과 건전생활 분위기를 조성(시보 3. 21)
* 해빙기 안전사고대책 마련, 부산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위해 각부서장과 구청장이 지역 내 공사현장·시설물 및 기타 재해 우려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시보 3. 21)
* 행정감사·감찰계획 시달, 부산시는 문민정부 2차 년도를 맞아 중앙부처 및 자체업무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94년도 감사·감찰계획」을 산하정부에서 시달(시보 3. 21)
*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본격 추진, 부산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94년부터 97년까지 1천4백30억원의 사업비로 노후한 3천6백32km를 개량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키로(시보 3. 21)
* 부산시사편찬위 올해 시사 계획 확정, 부산시사편찬위의 94년 주요계획 확정(시보 3. 21)
* 국력신장 전초기지로 부상, 부산시는 2002년 제14회 아시아경기 부산유치를 위해 4백만 시민의 힘을 한데 모아 기필코 성공시켜 나가기로(시보 3. 21)
* 제12회 부산연극제, 부산연극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부산연극제가 올해 12회를 맞아 시민과 연극인이 함께 펼치는 문화축제로 예심을 거친 2개 극단의 작품이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시보 3. 21)
* 부산대 개혁발전위원회 발족(부산교육 3. 21)

3. 22
* 국제화 사업 전시 행정, 구 특성 무시 일방 지시, 추진협 구성·토산물 개발 "비현실적"(국제 3. 22)
* 주차장 3곳 신설 총 660면 확보, 도심 주차난 해소 위해 어린이 대공원 주변 등 3개 지역에 주차장 건설키로(국제 3. 22)
* 부산 도개공 해외건설 첫 발, 부산시 도시 개발 공사 해외 건설업 진출에 나서(국제 3. 22)
* 부산도개공 해외건설 첫발, 부산시도시개발 공사가 해외건설업(국제 3. 22)
* 구청장 선거 벌써부터 "꿈틀"(부산 3. 22)
* 대규모 관광 휴양지 조성, 금정산성과 회동수원지 일대(부산 3. 22)
* 신춘무용제, 부산시립 무용단이 봄을 맞아 3월 22일~23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봄눈·겨울비」를 준비해 신춘무용제를 펼침(시보 3. 11)
* 대형약국 불법영업행위로 인하여 4명 구속, 41명 불구속(법원사 3. 22)

3. 23
* 학생에 답안지 공개키로, 상문고 비리와 관련 「내신 성적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부산 3. 23)
* 신발·섬유업 세무 조사 면제, 부산 지역 주종 산업의 불황 타개를 위해(부산 3. 23)

3. 24
* 토요 휴무제 부산 제조업체 시행 증가, 부산 상의 작년 38사…화학 업종 15개 최다(국제 3. 24)
* 부산시, 인사 6급 북구 전출 정우연 외(국제 3. 24)
* 오수 방류 표지판 어디있나, 대부분 눈에 안 띄게 설치 "무용지물"(국제 3. 24)
* 오염 배출 업소 점검 시 다음달 25일까지, 시는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피혁·화학·금속·고무 등 부산지역 236개 오염 배출 업소 대상으로 방지 배출 시설 등에 대한 시설 점검 실시(국제 3. 24)
* 항만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해항청 내년 부산항을 시범항으로(국제 3. 24)
* 주택 건설사 폐업 속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올 들어 부산 지역 주택 건설업체의 41.3%인 200개 업체 폐업, 신규 등록 7개뿐…불황·실명제 여파(국제 3. 24)
* 토요 휴무제 부산 제조업체 시행증가, 지난 89년 3월 근로 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주당(국제 3. 24)
* 부산시, 인사 6급 북구 전출 정우연 외(국제 3. 24)

* 오수 방류 표지판 어디 있나, 시가 일선구청을 통해 시내 2,300여개소에 이르는 대량 오수배출검소를 대상으로(국제 3. 24)
* 오염 배출 검소 점검 시, 다음날 25까지, 시는 24일부터 다음날 25일까지 피혁·화학·금속·고무 등(국제 3. 24)
* 항만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해운항만청은 지리정보시스템 컴퓨터 이용설계 등 최신 컴퓨터 기술을 이용(국제 3. 24)
* 주택건설사 폐업 속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올 들어 부산지역 주택건설업체의 41.3%인 299개 업체가 폐업(국제 3. 24)
* 부산시, 인사(부산 3. 24)
* 시립행정「이태리 가곡의 밤」부산시립합창단 소그룹이 3월 24일 오후 7시 30분「이태리 가곡의 밤」무대를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펼침(시보 3. 21)
* 김해공항 확장 또 지연, 부산시 숙원 사업인 김해공항 확장 공사의 완공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우려(국제 3. 25)
* 수입 농산물 유통 단속, 시는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검·경찰 및 유관기관 농산물 수입업자 대형 유통 전관계자 등 참석 가운데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관련 회의 열고 4일부터 집중 단속(국제 3. 25)
* 단자사 종금 전환 부산 리스사 대책 부심, 부산지연 단자사들의 종합 금융 회사 전환이 임박한 가운데 부산리스 상문리스 등 부산 본사 리스 회사들이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국제 3. 25)
* 부산 기본 틀 다시 짠다, 정부·시 합동 연내 완료, 광역 도시·서낙동강권 등 개발 용역 착수(국제 3. 25)
* 쓰레기 집 앞에서 거둬간다, 쓰레기 수거 종량제 실시 계기로 쓰레기 수거 형태를 현행 타종 수거에서 문전 수거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국제 3. 25)
* 원산지 표시 않는 업체 강력 단속, 부산시는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유용판매업자들은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하기로(시보 4. 1)

3. 25
* 단자사 종금전환 부산리스사 대책부심, 부산지역 단자사들의 종합금융회사 전환이 임박한 가운데 부산리스 상문리스 등(국제 3. 25)
* 부산 기본 틀 다시 짠다, 부산지역 발전을 위한「기본 틀」을 새로 만드는 개발 계획용역이 정부와 부산시 합동으로 이달 중 잇따라 발주되어 연말까지(국제 3. 25)
* 녹산공단 철도 신설 추진, 화물 수송 원활을 위해(부산 3. 25)
* 부산시향 청소년협주곡의 밤, 부산시향은 3월 25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37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을 가짐(시보 3. 21)
* 쓰레기 집 앞에서 거둬간다, 쓰레기수거 종량제 실시를 계기로 쓰레기수거 형태를 현행 타종 수거에서 문전 수거로 변경하는 방안이 적극(국제 3. 26)
* 폐수집상 일제정비, 석대 쓰레기매립장 인근 반송천 일대 1만여평의 그린벨트 지역에 집단 난립해(국제 3. 26)
* 부산 해양스포츠 메카화, 부산이 2000년 전국체전 개회와 2002년 아시안 게임 유치를 계기로 세일링요트 조정 카누 등(국제 3. 26)
* 국교생 감소, 넘치는 교사 96년 천명 남는다, 부산시내 국민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를 오는 96년에는 국교 교사 1천명이 남을 것으로 전망 교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국제 3. 26)
* 중기 주문물량 늘어 “새 골치”, 부산지역 제조업체들이 경기호황으로 주문물량이 늘어(국제 3. 26)
* 녹산공단전면 재분양, 녹산국가공단'의 입주선정업체들이 무더기로 입주계약을 포기해 전면적인 재분양 불가피(국제 3. 26)
* 진해항에 화물부두, 진해항에 2만톤급 선박 2척이 동시 전안 할 수 있는 일반 화물부두가 건설(국제 3. 26)
* 아시아경기대회 추진위원회 정부차원협조요청 OCA회원록 순방계획, 아시아경기대회 부산유치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외교채널과 부산의 민간외교 두 갈래로 나누어 2002년 대회유치활동을 펴 나가기로(시보 4. 11)
* 사무동 증축 준공 시립박물관·지상2층 규모, 시립박물관은 늘어나는 역사유물을 체계 있게 전시하기 위해 새 사무동을 준공·본관은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키로(시보 4. 1)

3. 26
* 폐수집상 일제 정비, 석대 쓰레기 매립장 인근 녹지 훼손(국제 3. 26)
* 부산 해양 스포츠 메카화, 부산이 2000년 전국 체전 개최와 2002년 아시안 게임 유치를 계기로 세일링 요트 조정 카누 등 해양 스포츠 종목의 메카로(국제 3. 26)
* 국교생 감소 넘치는 교사 96년 천명 남는다, 부산시내 국민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로 오는 96년에는 국교 교사 1천명이 남을 것으로 전망, 교사 수급에 비상(국제 3. 26)

* 중기 주문 물량 늘어 “새 골치”, 부산 지역 제조업체들 경기 호황으로 주문 물량 늘어나자 이에 따라 인력 확충 문제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국제 3. 26)
* 녹산 공단 전면 재 분양, 녹산 국가 공단의 입주 선정 업체들이 무더기 입주 포기, 37% 2백15사 불참(국제 3. 26)
* 진해항에 화물 부두, 진해항에 2만t급 선박 2척이 동시 접안 할 수 있는 일반 화물 부두가 전설(국제 3. 26)
* 낙동로 교통 체계 대폭 개선, 오는 6월 부산 지하철고 1호선 4단계 연장구간이 개통(부산 3. 26)
* 신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공사 중 야간 통행 제한(부산 3. 26)

3. 28
* 장림유수지 이설, 사하구청이 추진 중인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 보상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마찰로 차질(국제 3. 28)
* 어항 시설 대폭 확충, 강서구 송정항 등 부산시 5개 어항 시설 대폭 확충, 7억 투입 선착장 등 보강(국제 3. 28)
* 건물 증・개축 못해 불편, 금정산성 내 금성동 주민들은 동전역 유원지 고시 지구 자연 녹지로 묶여 건물 증개축 불가능,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규제 완화 호소(국제 3. 28)
* 연안 화물 전용부두 건설, 96년까지 부산 등 주요 항에(국제 3. 28)
* 보상 시비 사업 차질, 장림 유수지 이설 공유수면 매립 난항(국제 3. 28)
* 엄궁 농산물 시장 유명무실, 거래량 부진에 수의 경매성행 난맥(국제 3. 28)
* 부산 상의「중기 활성」대 정부 건의, 28일 녹산 공단 행정 구역 일원화・부산지역 신용 보증기관 보증 기능 활성화・부도 기업 청산 기구 설치 등 건의(국제 3. 28)
* 사하구청 신평동 이전(부산 3. 28)
* 부산 시내버스 임협 타결 협상 개시 61여일 만에 타결, 통상 임금 7.5%인상・무사고 포상금 1만원・여름 휴가비 2만원 인상 등, 지난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국제 3. 29)
* 부산 유치위 바빠졌다, 태국 방콕의 98년 아시안 게임 개최가 확실해진 가운데 2002년 아시안 게임 부산 유치 범시민위원회는 유치 전략 회의 개최 등 개최지 경합에 대비 본격적 득표 작전에 돌입(국제 3. 29)
* 관행 어업 인정하라, 명지 주거 단지 조성 공사로 불가능하게 된 어패류 채취 등 관행 어업권 보상 요구 농성(국제 3. 29)
* 부산 5곳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연내 착공, 만덕 지구, 대청1,2 지구 등(부산 3. 29)
* 오사카 부산사무소 개설추진, 시장일행 방일 결과 설명회(시보 4 .1)
* 부산 문예 진흥 기금 지원 사업 내역 확정, 시는 지난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94년도 부산시 문예 진흥 활동 지원 사업 결정 위한 심사위원회 열고 지원금 확정(국제 4. 4)

3. 29
* 시 1만4천여명 조사, 부산시 국제 협력 담당관실 자체 조사 결과 직원 1만4천1백76명 중 간단한 영어 회화 구사 가능 직원 전체 0.26%에 불과한 37명으로 조사(국제 3. 29)
* 공시 지가 4% 내린다, 오는 31일 발표 예정인 부산 지역 94년도 표준지 공시지이 대폭 하향 조정 될 전망(국제 3. 29)
* 명장 도서관 29일 개관, 오는 29일 동래구 명장 도서관 개관(국제 3. 29)
*「태종대 관리」이용 불가, 시 구덕운동장 주차장 활용 건의도 불허(국제 3. 29)
* 화장로 4월 발주, 부산시 종합 건설 본부는 68억원 규모의 시립 화장장 화장로 공사 4월 초 발주・본격 제작(국제 3. 29)
* 과학 교육 실험 위주 개편, 시내 각 급 학교의 과학 교육이 대폭 강화, 총 수업시간 수 15% 이상 실시(국제 3. 29)
* 명장 도서관 개관, 29일 명장 도서관 개관식 갖고 운영 시작(국제 3. 29)
* 유사 상호 너무 많다, 도소매업 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장 면적이나 시설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도「○○백화점」・「△△쇼핑센터」등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 소비자들 현혹(국제 3. 29)
* 명장시립도서관 개관, 명장시립도서관 지난 29일 개관(시보 4. 1)
* 시의회「의원연수회」개최,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시의원과 가격 그리고 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연수회(시보 4. 11)
* 수질오염대책 마련, 낙동강 수질오염사건이후 처음으로 낙동강 수계 4개 시・도에 자연보호단체 간담회가 3월 19일 오전 부산시청회의실(시보 4. 11)
* 명장도서관 개관(부산교육 3. 29)

3. 30
* 유통업 불공정 거래 여전, 부산 작년 신고 25건 상담 59건으로 최다(국제 3. 30)

* 잇단 아파트 건설 급수난 가중, 양수장용량 부족・고지대 제한 급수(국제 3. 30)
* 부산진역「컨」운송 사각지대, 하역장비・단말기 전무, 하역 시간 지연으로 무역 업계의 물류 부담 가중(국제 3. 30)
* 녹산공단 분양가 평당 59만7천원 확정(부산 3. 30)
* 통근 열차 증편,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사상로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어(부산 3. 30)
* 대청동 복병산 배수지 인근 산책로 개선, 도심지 내에 시민들의 휴직 공간으로 조성(부산 3. 30)
* 「낙동강 환경 관리청」부산에(부산 3. 30)
* 119 장난 전화 하루 40건, 전체의 74%가 허위 신고(부산 3. 30)

3. 31
* 부산시, 인사 교육청 4급 승진 교원 연수원 총무 과장 박상지 외(국제 3. 31)
* 신시가 공사 하도급 지역사 적극 활용을, 부산지역 설비전문 업체들의 하도급 수주 실적이 극히 부진한 가운데 대한 설비 공사 협회 부산 사회가 해운대 신시가지 참여 업체들에게 지역 업체들을 하도급 업체로 적극 활용해 주도록 요청(국제 3. 31)
* 폐기물 함량・재활용 추진, 부산시는 3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국제 3. 31)
* 부산 평당「미화당」8,925만원 최고 오륜동 1,650원 최저, 공시지가 2년째 하락세, 부산 표준치 6천8백곳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국제 3. 31)
* 자성대 축제 준비 한창, 역사 유적인 자성대를 상징으로 동구 범일 2동 옛 조방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자성대 축제」가 오는 5월 처음 열려(국제 3. 31)
* 부산 탑 곤포가든 계속 임대 특혜 의혹,「무상사용」이미 만료, 공개입찰・직영 사용료도 염가(국제 3. 31)
* 지하터널 폐쇄, 뻘유입으로 인한 재 붕괴를 막기 위해(부산 3. 31)
* 집단 배상 소송 움직임, 구포 열차 사고 유족들이 장례 후 법적 대처를 위해 집단 소송할 예정(부산 3. 31)
* 78명의 생명 앗은「후안무치」(부산 3. 31)
* LA시의원 부산시 방문(부산시정 3. 31)

4. 1
* 버스전용 차선 위반단속, 부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한달간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국제 3. 29)
* 부산 4세대 당 자가용 1대, 1일 통계청이 발간한「한후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부산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47만4천대 이중 자가용 승용차는 29만대로 집계(국제 4. 1)
* 개발에 뜯기고 산불에 찢기고 "녹지는 남고 싶다", 부산의 녹지 갈수록 황폐화(국제 4. 1)
* 러시아인 관광안내소,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 관광객들의 안내를 위해 부산시는 2천3백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구 초량동 텍사스거리와 부산세관 통선장 등 2곳에 관광안내소를 마련(시보 4. 1)
* 종합금융단지 조성 설계용역 부산시는 국제규모의 금융단지가 조성된 문현동 722번지 일원 3만4천6백20평 가운데 2만2천평 부지에 금융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1만2천평에는 도로와 광장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설계용역을 발주(시보 4. 1)
* 산불위험경보발령, 부산시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산불 위험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에 대한 대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직원들의 비상근무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구에 지시(시보 4. 1)
* 부산 근대사 연구지원자 선발, 부산시 시사편찬위원회는 향토사 연구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향토사 연구작업 시민과 지역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항도부산」제11호 수록논문에 대한 연구지원 대상자를 선발(시보 4. 1)
* 개인택시 친절・질서・봉사 최선, 부산시는 올해를 국제화도시 선포 원년과 더불어 9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개인택시들이 친절・질서・봉사를 생활화하는 등 획기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기로(시보 4. 1)
* 봄철 화재예방 특별경계, 부산시 소방본부는 봄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오늘 5월 15일까지 봄철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가(시보 4. 1)
* 시・해외시장 개척 활발, 부산경제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산시가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고・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 능력을 높이고 지역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시보 4. 1)
* 6급 이하 전보, 6급 북구전출 정우연 외(시보 4. 1)
* 기업 애로 직소창구 1년 동안 실적전무, 부산시와 일선구청에 기업민원 해결 명목으로 설치된「기업 애로 직소창구」가 1일로 1년이 지났으나 실적이 전무 하다시피 해 유명무실한 전시 행정 비난(국제 4. 2)

* 부산시청 아까운 준우승, 부산시청이 제18회 성곡기 전국유도대회 일반부 단체전에서 준우승(국제 4. 2)
* 건축 관련 규제・절차완화,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건축이 대폭완화 되는 등 건축 관련 규제와 절차가 크게 개선(시보 4. 11)
*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부산시는 1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경제관련 기관장과 경제 단체장・금융기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 경제기관장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시보 4. 11)
* 상해시 인민우호 협회장 접견, 정문화 부산시장은 4월 1일 11시 30분・상해 시 인민우호협회 조운후 회장 일행의 예방을 받고 접견실에서 환영해(시보 4. 11)
* 재활용품 수거체제 일원화, 부산시는 4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가 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매각 체계 정비 및 인력 시설장비의 확충키로(시보 4. 21)

4. 2
* 부산서도 테크노마트 가능, 부산지역에서도 이달부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각 기업들과 각종 기술정보를 사고파는 테크노마트 이용이 가능(국제 4. 2)
* 부산~천진 남북직항로 개설, 부산과 청진을 직접 연결하는 남북한 정기선 항로개설(국제 4. 2)
* 도시정비・재개발 사업시급, 부산시내에 무허가 건축물 3만4천여동이 산재, 도시정비 차원의 재개발 사업이 시급(국제 4. 2)
* 인사, 부산 남구청 6급 전보(국제 4. 2)
* 약사법 개정안 마련 시 보사부건의 키로, 부산시는 2일 일선 약국에서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남매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등 불법 영업 양상이 심화됨에 따라 약사법 개선안 마련 보사부 건의키로(국제 4. 2)
* 한우판매점 9곳 증설, 올해 부산지역에 한우 고기전문판매점 9군데 신설(국제 4. 2)

4. 4
* 낙동강 세제 오염 심각, 4대강 중 최악…물금 지점 1년 새 3배, 정수해도 물맛 나빠져(국제 4. 4)
* 부산상의 업종별 의원선거, 4~5일 이틀간 16명 선출, 모두 16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부산상의 업종별 선거가 4일 상의회의실 등에서 시작(국제 4. 4)
* 쌀 수입개방, 반미규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소속 대학생 2천5백여명은 3일 오후 3시 부산역 광장에서 UR 협상규탄과 반미결의 대회 개최(국제 4. 3)
* 복천동 유물전시관 지역문화 산실 자리매김, 단순전시관 아닌 학예 연구 기능 부각, 부산 고대사 이해 위한 산교육장 활용(국제 4. 4)
* 은행, 시설자금 대출기피, 작년 동기비 40% 격감, 저수익 이유…경기 회복 따른 투자 “찬물”(국제 4. 4)
* 녹산 진입 교량 공사 차질, 녹산국가공단이 오는 96년 6월 입주예정이나 명지~녹산 간 공단진입로 교량 입주(국제 4. 5)
* 쓰레기매립장반대 생곡동 주민시위, 강서구 생곡동 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해온 이 일대주민 50여명은 4일 오후 1시에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20여대의 화물차 승용차 등을 나눠타고 2시간여 동안 시위(국제 4. 5)

4. 5
* 버스노선 전면조정,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차량 승객 교통량 조사 분석」을 실시, 시내버스 노선 조정 위한 기초 자료 마련키로(국제 4. 5)
* 「푸른 부산」 부끄럽다, 부산시가 올해 녹지 및 공원사업 예산 대폭삭감(국제 4. 5)
* 부산올림픽 아카데미 정식 발족, 올림픽정신을 확산시키고 2002년 아시안 게임 부산유치 위한 체육인들의 뜻을 결집시키는 가칭 「부산 올림픽 아카데미」가 창립총회 갖고 정식 발족(국제 4. 5)
* 쓰레기종량제 부작용 속출, 인근 미실시 지역 투기, 식당・다방선 차에 실어 집까지 운반(국제 4. 5)
* 식목일행사, 제45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가 5일 오전 10시부터 남구 용호동에서 정문화 시장 등 시 직원과 사민단체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시보 4. 11)
* 야간 이용도 개방, 부산시는 봄철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어린이대공원의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시보 4. 1)

4. 6
* 부산시, 인사 6급 투자 심사 담당관실 하만철 외(국제 4. 6)
* 영도관광개발박차, 부산시가 최고 영도구청이 건의함 태종대권 관광 위락지 및 봉래산공원 조성계획을 적극 검토키로 결정(국제 4. 6)
* 모범택시 7월 도입, 부산시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 없이 현행 중형 택시 요금의 배인 모범택시 운행 시기를 오는 7월로 확정해 물의(국제 4. 6)
* 부산・고베시의회 친선교류, 고베시의원 40명 친선방문 문화・교육・경제교류 추진(시보 4. 11)

4. 7 * 부산시, 인사 행정 6급・투자심사담당관실 하만철 외(시보 4. 11)

4. 8 * 부산시, 인사 중구청 행정 6급(국제 4. 8)

* 지역 의보료 또 인상, 부산 눈덩이 흑자 불구 수입 잡기 급급(국제 4. 8)

* 부산주택사업 공제조합창설 1년 3백5억원 자금 대출, 주택공제조합 부산지점이 지난해 4월 25일 설립 이후 1년 사이에 각 주택업체에 3백5억원의 자금을 대출 하고 1억3백20억원의 각종 보증을 서는 등의 실적 올려(국제 4. 8)

* 중기업 부도 또 급증, 3월 한달 새 1백36사, 부산 부도율 0.5% 전국비 4.2배(국제 4. 8)

4. 9 * 쓰레기 종량제 "파란불",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 지역 일반 쓰레기 줄고 재활용품 늘어(국제 4. 9)

* 인사이동, 6급 지역 경제국 농정과 신동훈 외 11명(국제 4. 9)

* 임시회 15일부터 개최 부산시의회, 시의회는 8일 오후 운영위 개최, 제31회 임시회를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개최키로 결정(국제 4. 9)

* 내년 부산 11개교 신설, 부산시 교육청도 9일 과밀학급 완화 및 2부제 수업・통학 불편 등 해소 위해 95년 공고 1개교・직업학교・개교를 포함한 11개 초중고교 신설・개설키로(국제 4. 9)

* 7년간 주택 55만호 공급, 택지 천백만평 개발, 수정 1동 순환 주택 올해 착공(국제 4. 9)

* 부산시,「위천」저지작업 구체화, 최근 대구시가 건설교통부에 내년 위천국가공단 지정 신청과 관련 건교부의 수질 평가 자문단 활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계획 및 허실에 대한 분석의견과 부산시 입장을 해당 위원에게 전달하는 등「위천공단 조성 저지」작업 구체화(부산매일 4. 9)

* 지자체 재정자립 "요원", 예산 확보난・신규 사업 개발 부진, 지자제 출범한지 10개월째 맞고 있으나 재정자립도 확충 위한 일선 구・군의 경영수익사업은 예산 확보난과 신규 사업 개발 부진 등으로 제자리걸음(국제 4. 9)

* 부산시, 청소 위생 사업 공기업화, 만성 적자・전문성 부족 개선, 특별회계로 수지 관리, 재정자립・경영 능력 제고 추진(국제 4. 9)

* 부산지방철도청, 동해남부선 통근 열차 증편 운행, "소음 대책 없다" 주민 반발, 지난 1일부터 방음벽 설치 등 근본대책 없이 동해남부선 통근열차 운행에 들어가 철로변 주민들 반발(부산매일 4. 9)

* 부산시・국방부,「수비」매매계약 체결, 2001년 6월 인수 29만평 땅값 3천3백52억 결정, 국제 전시장 부지 5만평은 대토(代土)(국제 4. 9)

* 중구청,「백산기념관」홍보 책자 제작, 백산 안희제 선생의 항일독립정신을 기념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한「백산기념관」홍보 책자 제작・시민들에게 배부(부산매일 4. 9)

* 신용 금고 금리 인하, 부산지역 상호신용금고들이 시중실세금리 하향안정세에 맞춰 예금과 대출 금리를 0.5~1.5% 포인트 낮추고 신용대출 대폭 늘리기로(부산경제 4. 9)

* 장애인 2만명 투표 불능, 4・11 총선의 부산 지역 투표소 중 상당수가 2층이나 지하에 있거나 동일 건물 내 2개씩의 투표소가 설치돼 투표당일 부산지역 2만여 중증장애인이 주권행사 못해(국제 4. 9)

* 수비 땅 시민 품에 돌아왔다, 부산시・국방부 29만평 매매계약 체결, 군사시설 54년만에 "마감", 땅값 3천3백억원 5년간 분납키로(부산 4. 9)

* 부산 무역 수지 첫 역조, 올 들어 부산지역 손실액이 수출실적을 넘어서 사상처음으로 무역 수지 역조 현상 나타나(부산 4. 9)

* 지하철 2호선 서면~호포 구간 궤도 공사 이달 착수, 서면~호포 간 22.17㎞를 잇는 지하철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중 레일을 부설하는 궤도 공사가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작(부산매일 4. 9)

* 수영로 버스 무료 환승제 도입을, 자가용・택시 승객 흡수 체증 해소 도움, 교통연「부산시 교통관리」2차 보고, 부산의 주요 간선로인 수영로가 지하철공사로 사상 최악의 체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의 이용률을 높이고 승객 편의와 업체의 경영합리화 위해서 이 구간에 버스 무료 환승제와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 제기(부산 4. 9)

* "기장군을 세계에 알립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서비스 시작, 군 역사 현황 관광명소 특산물 등 소개, 영어 한글 제공 지도 사진도 함께 담아(국제 4. 9)

* 부산시・국방부,「수비」개발 본격화, 매매계약 체결, 35만평 3천3백52억에 합의, 정보 업무 복합단지 2001년 완공(부산매일 4. 9)

4. 11 * 인사이동, <북구청> 행정 6급 가정 복지과 부녀 복지 계장 배경호 외 13명(국제 4. 11)

* 삼성차 부산유치 구체화, 생산 공장 신호 공단 배치 재조정, 부품 협업 단지는 녹산 공단 내 내정(국제 4. 11)

* 외국어 홍보책자 발간 부산시・일・영문판 2종, 부산시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외국도시들과의 교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시보 4. 11)

*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부산에도 노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종합복지회관이 설립(시보 4. 11)
* 부산시 문예 진흥활용 지원 사업대상 확정, 문학·미술 등 6개 분야 1백6건 1억4천여만원(시보 4. 11)
* 「생활개혁」 월별과제 추진, 부산시는 「생활개혁」 월별 중점과제를 선정·효율적인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산하 전 부서에 지시하고 매월 추진실적 보고토록(시보 4. 11)
*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부산시 시역의 70%가 산지로 되어있어 용지가 부족·주택 보급률을 64.1%로 전국 주요도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러한 용지난을 완화하고 서민주택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 도시개발공사의 현황을 알아봄(시보 4. 11)
* 「건강한 국토」 조성 7개년 사업 추진, 부산시는 「건강한 국토」 사업 7개년 계획의 1차년인 금년에 465억 4,200만원 예산투입·총 911사업의 국토환경 개선에 본격 추진(시보 4. 11)
* 서낙동강권 개발관련 협의 등 기획담당관실서 전담, 부산시는 서부산권 개발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을 전담 협의부서로 지정해 운영(시보 4. 11)
* 산불예방·안전사고 대체키로, 부산시는 4월 한달 동안 산불방지와 해빙기 안전사이 예방에 역점 두기로(시보 4. 11)
* 부산발전 기본계획 수립, 부산시는 지방화·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부산을 정보화를 통해서 발전시킬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시보 4. 11)
* 산불감시·진화 등에 비지땀, 최근 건조기를 맞아 빈발한 산불 예방을 위해 향토사단인 육군 오륙도 부대가 장병들을 동원 휴일산불감시활동을 펼쳐(시보 4. 11)

4. 12
* 맑은 물 지키기 운동 확산, 시민 단체 토론회 활발, 낙동강 수질 개선 경각심 고취(국제 4. 12)
* 시유지 6만평 매각, 해운대 신시가 등 공개 입찰(국제 4. 12)
* 2월 부산 산업 부진 지수 전월 비 13%감소, 부산의 산업 생산 활동 여전히 부진 면치 못해(국제 4. 12)
* 부산항 관제 시설 현대화, 부산항 관제 시설 대폭 현대화, 해난 사고 예방 위해 해상 교통관제 시스템 구축 위해(국제 4. 12)
* 부산 상의 새 회장 강병중씨, 부산상의 제15대 회장 강병중씨 선출, 이와 함께 부회장 4명 감사 2명 등 선출(국제 4. 12)
* 부산 지하철 3호선 승인, 부산 북구 구포~만덕~해운대·반송 간 지하철 3호선 공사 12일 교통로부터 조기 산업 승인(국제 4. 13)
* 부산대 본고사 부활을 포함한 신입생모집 요강 발표(부산교육 4. 12)

4. 13
* 부산 숙원 사업비 국고 보조, 내년 3천9백억 요청키로(국제 4. 13)
* 부산 문화회관 전관개관 1주년 기념공원, 부산문화회관은 4월 15일 전관개관 1주년을 맞아 4월 12일~23일까지 12일간 문화회관 대·중·소강당 중앙관장 열린 무대 전시장 등에서 「문화회관 전관개관 1주년 및 94 국악의 해 기념공연」을(시보 4. 1)
* 아시안게임 유치 시민토론회, 2002년 부산아시안 게임 유치 촉진을 위한 부산 범시민참여 분위기조성과 시민의 열기를 모아 성공적인 유치와 지역발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부산시민 대 토론회」가 오늘 4월 13일 오후 2시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시보 4. 1)
* 2002년 아시안게임유치는 부산 발전 위한 돌파구,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 유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4월 13일 오후 2시 부산 문화회관에서 부산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200여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개발연구원 주체로 열려(시보 4. 21)
*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부산유치를 위한 시민토론회(부산시정 4. 13)
* 해양대실습선 한나라호 취항식(부산교육 4. 13)

4. 14
* 기업 주택 자금 대출 급증, 올 3월까지 전년 비 3.6배, 민간은 대폭 감소(국제 4. 14)
* 입상 활성탄 시설 이동, 화명정수장 국내 최초로 17일 준공(국제 4. 14)
* 부산기업 시설 투자 활기, 경기 호전 전망에 따라 부산기업들 시설 투자 활기(국제 4. 14)
* 부산 성장 지역 입법 예고, 상공자원부 비 공업지역 공장 허용 내달 실행(국제 4. 14)
* 공단 분양가 최고 45% 인하, 토개공 계약 끝낸 기업체도 차액 보전 방침(국제 4. 14)
* 수영 강변로 공사 질질, 예산 달리고 소송 위기까지, 신시가 소통 체계 비상(국제 4. 14)
* 인사이동, <강서구> 도시국건설과 김병선 외 13명(국제 4. 14)
* 제14회 부산미술제, 부산시가 주최하는 제14회 부산미술제가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강당과 중강당 전시실에서 열림(시보 4. 11)

* 개통 앞두고 지하철 시험운전, 서대신동과 신평 간 지하철 1호선 4단계 개통을 앞두고 4월 4일부터 시험운전(시보 4. 21)

4. 15
* 중소기업 시의회 운영 조례안 통과, 부산시 의회 재무 산업위 15일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통과(국제 4. 15)
* 신평·장림공단 썰렁, 신평 장림공단 근로자수 크게 줄어, 생산 실적도 전년도 비해 12.8% 하락(국제 4. 15)
* 임시회 본회의 개회, 제31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국제 4. 15)
* 부산 상의 올 과제 선정, 한-중-러 무역항 활성화, 역외 금융 시장 조성, 자유 무역항 구축 등(국제 4. 15)
* 부산 세관 무작위 밀수 조사, 「컨」 화물 5% 감시 추적·업계 반발(국제 4. 15)
* 위조 상품 범람 여전, 부산시 1/4분기 29곳 적발(국제 4. 15)

4. 16
* 해운대 간비오산 일대 본격 개발, 17만평 규모 도시 공원으로 탈바꿈(국제 4. 16)
* 부정 주류 무더기 적발, 부산-경남 지역 밀조주 등 부정 주류 제조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8명 벌과금 16명 면허 취소(국제 4. 16)
* 신선대 컨 부두 대폭 확장, 96년말 3백72억 투입…선석 3백m 축조(국제 4. 16)
* 낙동강 맑은 물 물거품, 정부 「특별 대책 지역 지정」 부산시 건의 거부, 수질 개선 근본 처방 외면, "상류 오수 통제 없는 정화 빈말" 반발(국제 4. 18)
* 자연녹지훼손 대책촉구, 부산시 사하구 의회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무분별한 지역 녹지 훼손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제한 지역고시촉구 결의안을 의결(시보 4. 21)

4. 17
* 고입·고졸 검정고시(부산교육 4. 17)

4. 18
* 농산물 매점매석 협의, 부산 지방 국세청은 물가 상승 부추긴 농산물 매점매석한 판매상·중매인 등 6명 적발, 탈세금 2억5천6백만원 추징(국제 4. 18)
* 엄궁 화훼 공판장 착공 난항, 산지 직판장·농가 이용기피 움직임(국제 4. 18)
* 영구 임대 아파트 취지 무색, 생보자·저소득 모자가정 등 도시 영세민 위해 건립 되고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가 일반·청양 저축 가입자 등에 대거 분양(국제 4. 18)

4. 19
* 「부산 발전 추진 기획단」 내달 해체, 인공 섬 건설 사실상 백지화(국제 4. 19)
* 부산 발전 계획 연구 착수, 동개발연, 주요 과제 14개·현안 8개 포함(국제 4. 19)
* 사하 염색 공단 열병합 발전소 고장, 50여 업체 작업 중단, 염료 원사 손실은 물론 수출 물량 생산 차질·피해 수억원대 추정(국제 4. 19)
* 부산 광역권 개발 추진, 김해·양산 등 포함한 광역도시권 개발 추진키로, 6월 용역 발주 김해·양산 포함 타당성 조사(국제 4. 19)
* 재개발 기금 296억원 순환주택 사업비 활용, 지난 84년부터 도심 재개발 위해 적립되어 온 부산시 도심개발 사업 기금이 순환 주택 건립비로 본격 사용(국제 4. 19)
* 1/4분기 서비스 요금 중구 인상율 최고, 지난 1/4분기 동안 부산의 개인 서비스요금이 지역별로 중구·품목별로 비빔밥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국제 4. 19)
* 4.19혁명 기념식, 제34주년 4.19 혁명 기념행사가 4월 19일 오전 10시 시민회관대강당에서 정문화 부산시장 우병택 시의회 의장 등 주요 기관장과 4.19 상이자 유족유공자 보훈단체장 시민 등 1,100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시보 4. 21)

4. 20
* 창단 10주년 우리소리 울림터 공연, 부산시립 국악 관현악 제50회 정기연주를 「우리소리 울림터」를 4월 20일 오후 7시 30분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림(시보 4. 11)
* 50여 업체 수십억원대 피해, 신평공단 열병합 발전소 고장 연발(국제 4. 21)
* 부산 상의 민간 통상 외교 1번지, "탈 아시아" 방문 국가 날로 다양화, 자체 해외 진출 활발(국제 4. 21)
* 과학의 날 기념식, 제27회 과학의 날 기념식이 27일 부산 과학 교육원에서 고교 과학 중미 교사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국제 4. 21)
* 부산 노조 감소, 부산지역 노동조합원 수 매년 감소 추세, 90년 728개·91년 724개·92년 606개·93년 527개로 3년간 156개 21% 줄어(국제 4. 21)
* 교육 개혁 성명서 발표 시 교육 위원회, 20일 제26회 부산시 교육 위원회 임시회에서 상문고 비리 등 최근 학원 비리 문제 관련 성명서 발표(국제 4. 21)
* 을숙도 66만평 이양합의, 부산시·재무부 시 소유 면허 시험장과 맞교환(국제 4. 21)
* 녹산 공단 이달 말 재 분양, 업종·지역 제한 등 철폐, 입주 포기 21%…최종 분양률 45%불과(국제 4. 21)

* 김해 국제공항 주변 2천5백 가구「소음 지역」지정 건의, 21일 김해 국제공항 인근 지역 소음 진동 규제법의 소음피해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환경처에 건의(국제 4. 21)
* 부산자유무역항 추진, 부산시가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항으로 개발 되는 방안 적극 추진(국제 4. 21)
* 시장동정, 정시장은 4월 20일 오후 2시 30분 뉴질랜드 필립 버든 상무교역장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시보 4. 21)
* 부산시 민원 공무원 일본 선진 민원 견학, 부산시 민원 담당 공무원 26명이 4월 20일 일본의 선진 민원 행정 견학 위해 김해 공항 통해 출발(시보 5. 2)

4. 21
* 오페라 가수「수잔안토니」초청, 부산시립교향악단은 4월 21~22일 모두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반초 차브다르스카의 지휘와 세계적인 오페라가수 수잔안토니를 초청해 제1289회 정기 연주회를 가져(시보 4. 11)
* 교통・관광시설 외국어표기 정비, 부산시는 국제화와 개방화를 맞아 교통시설과 시내버스정류소 관광시설 등에 대한 외국어 안내표지를 6월말까지 확대 정비하여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키로(시보 4. 21)
* 6월말 완공, 서부시외버스 터미널주변 휴식 공간 조성, 북구는 서부터미널 주변 4천여㎡ 공간에 왕벚나무와 느티나무 등 7종 1백40여그루의 나무를 심고 의자 등을 설치 터미널 이용승객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시보 4. 21)
* 아파트 한 가족 운동 전개, 부산시에서는 날로 심화되어가는 아파트 생활의 삭막함과 상호 무관심으로 인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살기 좋은 아파트문화를 꽃피워 나가기 위해(시보 4. 21)
* 부산 국제화사업 본격 가동 2월 4일 부산시 국제도시화 추진사업단을 발족, 국제화사업을 지원할 관계 기관 단체 등 42명으로 구성된 범시민 부산시 국제도시화 추진협의회를 발족(시보 4. 21)
* 재해예방대책 강력추진, 부산시는 94년 재해대책업무의 최우선을 인명보호에 두고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사전 예방행정을 강화하여 총체적 대응 태세로 모든 재해위험 시설물 및 위험지는 구청장 책임 하에 우기전 정비토록 지시했다(시보 4. 21)
* 주차관리공단 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은 다음회기로 넘겨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는 4월 21일 제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과 무역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안 등 13개안을 의결하고 1주일간 회기를 모두 끝내(시보 5. 2)
* 항만배후도로 건설 예산지원 요청 지난 4월 21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는 민자당 국가경쟁력 특별위원회 사회 간접자본 소위원회(위원장 김운환 의원)의 현지 조사활동이 열려(시보 5. 2)
* 부산지방기능경기대회(~27)(부산시정 4. 21)

4. 22
* 신 공단 기업 유치 역점, 신 공단 기업 유치 역점, 위원 18명 확정 26일 첫 회의 자유 무역항 등 논의(국제 4. 22)
* 2002년 정부 지원 적극 검토, 2002년 아시안 게임 부산 유치에 필요한 유치 자금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적극 검토(국제 4. 22)
* 부산 지하철 2호선 3천억 지원, 부산 지하철 2호선(양산 호포~해운대구 좌동) 공사 조기 완공 위해 내년 정부 예산 3천억원 지원될 방침(국제 4. 22)
* 신평 레포츠공원 준공, 사하구는 4월 22일 총 3억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평동 지하철 차량 기지창인근 4천여평의 부지에 건립한 신평 레포츠공원의 준공식을 가져(시보 5. 2)
* 중금업 경쟁력 강화, 부산상의 제15대 위원부 출범식이 4월 22일 오후 6시 상의홀에서 전・현직 의원과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시보. 5. 2)

4. 23
* 공중화장실 청결의 날 운영, 시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내・외국인의 방문에 대비하여 4월 23일(토) 하루를 공중변소 일제 청결 및 정비의 날로 정하여 시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훼손된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키로(시보 4. 21)
* 부산 3만여 업체 대상 시「산업 총 조사」실시, 23일 통계청과 합동으로 부산지역 3만여 업체에 대한「93년말 기준 산업 총 조사」실시(국제 4. 23)
* 부산 현안 사업 무더기 차질, 정부가 최근 95년 예산 편성지침 시달하면서 내년도 일선 시・도의 국고 보조금 신청 규모를 올해 국고 보조금 총액의 30% 증가 이내로 제한(국제 4. 23)

4. 24
* 제3회 시민예술제 부산자랑10가지 순회, 본격적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부산시민들의 애향심 향상을 위해 부산시 주최와 부산문인협회・부산미술협회 주관으로 4월 24일 태종대를 시작으로 열려(시보 4. 21)

4. 25
* 사상 송수관 이설 늑장,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송수관 이설 공사 지연으로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 완공 시기 1년가량 늦춰질 전망(국제 4. 25)

* 2002년 유치위 OCA 대규모 교섭 단체 파견, 시 추경 예산안・체육 진흥 기금 6억원 추가 배정 전망(국제 4. 26)
* 학교 업무 차량 놔두나 없애나, 비교육 부문에 수백억 낭비, 6공 대선 후 공립교 배당…처리 골머리(국제 4. 25)
* 농어촌 살리기 새마을운동, 새마을 운동 부산시 지부와 경남 지부가 주관하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후원하는 농어촌 살리기 새마을운동 농촌・도시 간 자매 결연식 및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4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시민회관 대강당 및 옥외강당에서 정문화부산시장 등 참석한 가운데 개최(시보 5. 2)
* 컴퓨터 공중통신 업무 개시(경찰사 4. 25)

4. 26
* 건설 현장 불시 점검, 11개 사업장에 시정 지시, 사하구청 첫 시행, 부실 공사 방지와 산업 재해 예방 위해(국제 4. 26)
* 범어사 우회도로 개통식 무기 연기, 26일로 예정 된 범어사 우회도로 개통식이 차량 통제 방법 둘러싼 금정구청과 범어사 측 이견 대립으로 무기 연기(국제 4. 26)
* 요양원에 전문의 상주, 최근 원생 등의 인권 유린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정신 요양원 문제와 관련 시내 10개 정신 요양원에 원생 보호자위원회 상주 의사제・인권전화 설치 등 도입키로(국제 4. 26)
* 명장공원개발 시민 휴식공간으로 시가 확정 4월 26일 발표한 명장공원조성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96억7천3백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등 근린공원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조성키로(시보 5. 2)

4. 28
* 미「하얄리아」주거지로, 부산시는 4월 28일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01년까지의 도시재정비계획안을 확정, 남구 대연5동 시 건설 시험소에서 4월 29일부터 15일간 공람공고 실시(시보 5. 2)
* 상수도 수질 감시위 발족, 부산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상수도의 생산 공급과정의 수질을 확인 감시할 민간단체 감시 기구인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가 4월 28일 오전 10시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시보 5. 2)
* 시민 찾아 나선 움직이는 시립 예술단, 부산시립예술단은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시보 4. 21)
* 현장민원실 개소(부산시정 4. 28)

4. 29
* 부산 투자 유치단 출범, 29일 오전 부산 문화회관 영빈관에서 각계 인사 참석 한 가운데 상견례를 겸한 첫 번째 회의 갖고 활동 방향과 추진 계획 등 본격적 활동 시작(국제 4. 29)
* 인사이동, <행정직> 3급 기획 관리실장 직대 최인섭 외 21명, <기술직> 3급 도시계획 국장 고재인 외 15명(국제 4. 29)
* 시에 7개항 시정 요구 부산의회 요양원 관련, 부산시의회 교육사회위 29일 오후 정신 요양원사태와 관련한 제2차 회의 갖고 그동안의 현장 조사 활동 등을 토대로 시측에 7개 항 시정 조치 요구(국제 4. 30)
* 부산 어메니티플랜 보고회, 부산시는 4월 29일 오전 10시 시청 회의실에서 명필 부시장 등 관계관들이 참석,「21세기를 향한 부산 어메니티플렌」연구중간보고회를 가져(시보 5. 11)

4. 30
* 자기부상 열차 바람직, 부산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자기 부상 열차 도입 적극 모색(국제 4. 30)
* 소비성 가계대출 급증제, 2조2백88억원…전년 비 22%증가(국제 4. 30)
* 낙동강 원수 저하일로, 물금 3급수 이하 부영양화도 심각(국제 4. 30)
* 부산항 경쟁력 허약, 사용료 인접국 보다 최고 3배, 수출업체 물류비 가중, 피더선 부두 없어 더 부담(국제 4. 30)
* 부산 수출 중기 지원으로 회생, 정보・유통・홍보 강화책 제시, 세계무역・정보센터 건립, 해외 공동 마케팅망 구축 등(국제 4. 30)

5. 1
* 체납차량 일제 단속, 부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비, 납이 내 자진납부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수시 또는 정기적인 단속 실시, 5월 25일까지 자동차세 미납 때는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시보 5. 2)
* 제8회 부산 청소년 예술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해 제8회 부산 청소년 예술제가 5월 1일부터 무용경영 대회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부산 시민회관 대・소강당에서 열려(시보 5. 2)

5. 2
* 영선 2동 2년 연속「범죄 없는 마을」, 법의 날 맞아 주산 지검 선정, 작년 2통 이어 30통 선정(국제 5. 2)
* 비 법정 영세민 2천여 가구, 정부조차 외면 절망 속 "생계 잇기", 공부상 부양가족 등 이유 무혜택, 질병까지 겹쳐 2중고(국제 5. 2)
* 인사이동, <행정직> 6급 상수도 사업본부 김길홍 이재옥 외 12명, <수산직> 6급 서구 전출 이기진 외 3명(국제 5. 2)
* 일 뇌염 접종 당부, 시 2일 일본 뇌염 모기 발생하는 5・6월 앞두고 일선 보건소 등에 일본 접종 당부(국제 5. 2)

* 무분별 한 행정 심판 쇄도, 시와 구청의 행정 처리에 불복 민원인들이 제기한 행정 심판이 기각되거나 신청인이 중도에 자진 취하하는 사례 늘어, 사전 조정 위원회 도입 절실(국제 5. 2)
* 시민편의 민원행정 발굴강화, 부산시는 올해부터 컴퓨터망 등을 통한 「시민의 소리」 운영과 「민원 1회 방문처리 운영」과 「민원 1회 방문처제」 「현장민원실」 등 시민들이 관공서를 드나드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민원행정 발굴을 강화해(시보 5. 2)
* 청소년의 달 5월 미래주역을 위한 푸짐한 축제행사 다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부산시와 시 산하 4곳의 청소년 전문행정기관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시보 5. 2)
* 항만배후도로 77㎞건설, 부산시는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항만배후도로 총 10개 노선 77.1㎞를 2001년까지 조성(시보 5. 2)
* 재해예방 글짓기 수상작 발표, 부산시 재해대책본부는 재해의 사전예방과 경각심을 높이는 글짓기를 실시해 학생·일반 148편의 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수상작으로 최우수 1, 우수 2편을 선정(시보 5. 2)
* 10개 정신요양원 운영 특별감사, 5월 8일까지는 구청에서 21일부터 6월 한 달간은 시 본청에서 새 희망 정신요양원과 햇빛 정신요양원을 비롯해 부산에 10개 정신요양원에 대해 시설운영 전반에 걸쳐 특별 감사를 실시키로(시보 5. 2)
* 아시아 스포츠 거물 부산 몰린다, 소년 체전대비 주요 인사 초청 아주 경기 유치 홍보(국제 5. 3)
* 부산 상의 현안 해결 박차, 유치단 중앙 부처 파견, 경제 특구 중기 전용 공단 조성 건의(국제 5. 3)
* 인사이동, 부산 교통공단 사하역장 직대 조성운 외 5명(국제 5. 3)
* 부은 아시안게임 신탁 큰 호응, 부산 기관장들 가입, 2천2번 고객 선물 증정(국제 5. 4)
* 정문화시장 우병택의장, 부산은행에 「2002 아시안게임 신탁」 가입 정문화 부산시장과 우병택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 추진 위원장이 부산은행의 「2002 아시안 게임신탁」 통장에 가입하여 아시아경기 부산유치 운동에 앞장서(시보 5. 11)
* 우기 앞둔 재해예방 만전, 부산시는 정례조례에서 정문화 부산시장은 금년이 국제화의 원년이 되는 해로서 년 초 계획이 수립되어 지금 실천에 옮겨지고 있으며, 21세기를 대비한 부산건설을 위해 지역경제 활력화 도시교통난의 완화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을 강조(시보 5. 11)

5. 4
* 외국 근로자 고용 확대, 합리화 자금 전용·해외 진출 도움을(국제 5. 4)
* 장유·기장 올 부산 편입, 빠르면 올 하반기 부산 김해 지역 일부 부산권 편입, 편입 지역 「개발 촉진 지구」로 지정 부산시와의 균형 개발 가능(국제 5. 4)
* 송도 해수욕장 수질 개선, 개장 두달 가량 앞둔 송도 해수욕장 수질 크게 개선(국제 5. 4)
* 반송 영구 임대 주택 입주 대상 신청 접수, 시는 이달 말까지 해운대구 반송지구 영구 임대 주택 입주 대상자 일선 동사무소에서 신청(국제 5. 4)
* 해운대 신시가 기반 시설 없이 공사 강행, 우회로 개설 등 불이행, 인근 주민 도로 막고 철야 항의 농성(국제 5. 4)
* 사람 많은데 쉴 곳이 적다, 1인 공원 면적·법정 절반(국제 5. 4)
* 「부산직할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공포(제3093호)(부산교육 5. 4)
* 「부산직할시 교육·학예법계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공포(제3094호)(부산교육 5. 4)

5. 6
* 엄궁 농산물 도매 "활기" 「중매인 파동」 후 되레 증가, 햇품 출하 늘고 일부 농민 거래선 전환(국제 5. 6)
* 공사 진척 「소걸음」, 서낙동강 개발 계획의 중심지역인 부산 강서구 부산 국가 공단 및 명지 주거 단지 조성공사가 관계기관의 소극적 자세와 주민 피해 보상 지연 등으로 큰 차질(국제 5. 6)
* 당감 택지 본격 개발, 아파트 4천2백세대 건립, 해발 1백50m제외 9월 토지 매입 계획(국제 5. 6)
* 9~13일 「중기주간」 토론회 등 각종행사, 시는 5월 중소기업의 달을 맞아 9일부터 13일까지를 중소기업 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토론회·강연회 등 각종 행사 개최(국제 5. 6)
* 맑은 지하수 의무화, 환경처 개발 때 오염 방지 규칙 제정(국제 5. 6)

5. 7
* 국제 윈드서핑 대회 개막, 94 한국 방문의 해 기념 부산 국제 윈드서핑 대회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국제 5. 7)
* 수급 불안 쌀값 또 들먹, 도매가 가마당 2천~3천원 인상(국제 5. 7)
* 행사 몰린 5월 조성 전사 운동 강력 단속,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7일 이달 중 집중된 어버이날·스승의 날·석가탄신일·성년의 날과 각종 체육행사 등 관련된 행사 이용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국제 5. 7)

* 실업자 감소 고용 청신호, 부산 지역에는 사업체 휴폐업에 따른 실업자 수가 3,366명으로 전년대비 28% 줄어서 고용불안 개선에 청신호(국제 5. 7)
* 「전 국토 청결의 날」 행사, 부산시는 7일 본격적인 상춘기 행락철을 맞아 「전 국토 청결의 날」 행사를 부산시와 12개 구청별로 시역 내 일제히 개최하여 동절기에 오염된 산 계곡 공원 유원지 등 자연환경을 깨끗이 정화하여 봄 행락철에 대비(시보 5. 11)
*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캠페인(부산교육 5. 7)

5. 9
* 가짜 한우 신고 포상금, 시는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붙잡는 시민에게 20만~50만원의 포상금 지급키로(국제 5. 9)
* 개별 공시 지가 열람, 23일까지 동사무소에서 실시(국제 5. 9)
* 자가용 30만대 돌파, 부산 지역 자가 승용차 30만대 돌파, 전체 차량의 61.6%차지(국제 5. 9)
* 삼성차 부산으로, 침체 경제 회생 유일한 "탈출구", 정부 "불가"시사…각계 유치 운동 착수(국제 5. 9)
* 자동차세 체납 단속, 시 오는 5월 한 달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납세필증 미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강제 영치 계획(국제 5. 9)
* 동부권 농산물시장 설립 구체화, 부지 4만5천평 규모, 석대동이 최적지 물랑, 사업비 9백억…내년 9월 착공(국제 5. 10)

5. 10
* 엄궁동 농산물 시장 고추 마늘 등 개장식, 엄궁동 농산물 도매 시장 고추 마늘 등이 10일 오전 중 매인 및 관계 공무원 등 4백여명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 및 초매식 행사를 갖고 본격 영업 시작(국제 5. 10)
* 인구 3만 이상 분동 착수, 구포 등 17개 동 대상, 분구 위한 정지 작업(국제 5. 10)
* 외항 해운 수입 집중화, 작년 10대 대형선사 전체 90% 점유(국제 5. 10)
* 부산도 고입 선발 폐지, 부산시 인문계 고교 선발 고사가 서울지역보다 2년 앞서 오는 96년에 폐지되고 내신 성적만으로 신입생 선발(국제 5. 10)
* 3월 산업 생산 지수 전년 비 0.2%P 증가, 10일 통계청 부산 통계 사무소가 발표한 「3월 중 부산지역 산업 생산 출하 재고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의 산업 생산 지수는 91년 3월 기준으로 지난 2월에 비해 6.4% 지난해 3월보다 0.2% 증가(국제 5. 10)
* 전문 건설사 자본·증자 잇달아, 부산지역 전문 건설 업체들이 건설 시장 개방 앞두고 경쟁력 강화 위해 자본금 증자하는 것으로 조사(국제 5. 10)
* 인사이동, 「부산시」 세정과 김영수·이재경·이준채 외 1명, 「부산시 소방 본부」 소방 행정 과장 신주영 외 1명(국제 5. 10)
* 시민생활분야 쇄신 중점, 부산시는 지난 1년간 민원제도 개선 분야 등 10개 부문에 걸쳐 모두 596건의 행정 쇄신 과제를 발굴(시보 5. 21)
* 러시아 관광객 편의대책 마련, 부산시는 최근 들어 급증하는 러시아 관광객들에 대해 편리한 입·출국관광 쇼핑 상거래 질서 확립 등 각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부시장실에서 각 기관 단체장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시보 5. 21)

5. 11
* 부산서도 5.18 항쟁 명예 회복, 광주항쟁 14주년 앞두고 부산 지역 관련 피해자 6명에 대해 처음으로 보상 결정 내려져(국제 5. 11)
* 도심 교통 시설 확충 1조 2천억 배정을, 시는 김해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공사 조기 완공과 부산항 제3·4단계 수산터널 착공 등 95년 도심 교통 시설 확충 17개 사업 마련하고 이에 소요되는 1조2천3백60억원 내년 예산에서 지원 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국제 5. 11)
* 삼성 승용차 파문 확산, 부산 정·경제계 불허 방침 크게 반발(국제 5. 11)
* 부산권 광역 개발 착수, 마산·울산·밀양 등 11개 시군 포함, 환태평양 교역 거점 육성, 도시고속도 등 특별 지원 검토(국제 5. 11)
* 부산시 미래 투자 인색, 73억 불과…새 시설 엄두 못 내, 각종 상담·건전서클 육성 등 지원 전무(국제 5. 11)
* 39건 각종도로건설 추진, 부산시는 올 한 해 동안 모두 3천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9건의 각종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시보 5. 11)
* 전염병 집단발생 대처, 부산시는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급성전염병 집단 설사 환자 발생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시보 5. 11)
* 이의신청 접수 개인택시면허심사, 부산시 교통지도과에서는 94년도 개인택시 신청자 총 1,596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 94년 5월 2일 우편을 통해 그 내용을 개별 통보(시보 5. 11)

* 개별공시지가 열람, 부산시는 「94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에 대해 사전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 의견을 받기위해 우선 열람키로(시보 5. 11)
* 체납세 특별징수, 부산시에서는 매년 큰 폭으로 누증되어 94년 3월말 현재 820억원에 이르고 있는 취득세·자동차세·주민세·등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기 위해 5월 한달을 「체납세 일소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 각 구청별로 전 세무공무원을 총 동원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시보 5. 11)
* 부산시립청소년 교향악단 창단, 수준 높은 부산음악인의 육성에 이바지할 부산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이 6월 창단을 위해 단원을 모집 중이고 10월에 첫 연무주대를 첫 연주무대 꾸며(시보 5. 11)
* 2001년 목표 '도시내실화' 본격착수, 부산의 행정구역 5백29㎢와 항만구역을 포함한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부산시 도시 계획 재정비안이 확정됨으로써 오는 2001년까지의 도시개발을 위한 법정도시계획 수립 윤곽 드러나(시보 5. 11)
* 항만배후도로 77㎞건설<下>, 수영강변도로 : 해운대구 우동 수영교와 금정구 구서동(구서IC)를 잇는 길이 11.4㎞ 너비 30~50m로 총 사업비 2,150억이 소요되며 금년 6월에 착공(시보 5. 11)
* 맑은 물 공급사업 활기, 올해 맑은 물 공급 사업에 필요한 국비 5백65억원의 지원이 확정돼 고도 정수처리시설 확충이 활발해질 전망(시보 5. 11)
* 불합리 규제 과감히 개선, 시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방화·자율화에 맞도록 모든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키로(시보 5. 21)
* 베트남시장과 환담, 정문화 부산시장은 5월 11일 오후 4시 접견실에서 베트남 빈롱시 웬 반쿠웅시장 일행의 예방을 받고 환담해(시보 94. 5. 21)

5. 12
* 철도 시내 요금 인하, 오는 6월부터 국철 노선 운행 요금 인하, 사상역 정차 횟수가 크게 늘어날 예정(국제 5. 12)
* 삼성 승용차 사업 강행, 삼성 그룹은 상공 자원부의 불허 방침 시사에도 불구하이 승용차 사업 신규 참여 강행 방침(국제 5. 12)
* 외래 작물 1,007종 서식, 중국 원산지 2백70종 최다…인도는 34종, 관상용 55% 차지…귀화종은 26종에 불과(국제 5. 12)
* 삼성차 대안은, 「산업개편」 실패 땐 공동화, 차 진출 부산 생산액 15조 증대 효과(국제 5. 12)
* 시상수도 본부 채용인원 증원, 직제 개편 및 인력 보강 방치에 따라 14일까지 추이 원서 접수키로(국제 5. 12)
* "퇴학생 줄여라" 비상, 집나와 각종 범죄 유발, 연간 7백60명 학교서 추방, 올 들어 중퇴 1백36명이 61건 범행(국제 5. 12)
* 인사이동, 5급 기획계장 김효영 외 39명(국제 5. 12)

5. 13
* 삼성차 부산 유치 결의, "승용차 추진 유일한 선택", 부산시의회 무성의·무소신 시정 질타(국제 5. 13)
* 자갈치 시장 새 단장, 기존 건물 헐고 5층 신설, 연 4천5백평 해안 설립 연내 착공(국제 5. 13)
* 삼성승용차 유치촉구, 부산시의회는 지난 13일 오전 운영·재무산업·교통항만 등 3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최근 삼성승용차 부산유치와 관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부산신호공단 입주 승인을 정부에 건의키로(시보 5. 21)
* 부산시, 인사 행정직 국제 통상 협력실 6급 김헌훈 등(시보 5. 21)
* 부산시, 인사 행정 5급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장 김효영 등(시보 94. 5. 21)

5. 14
* 부산 경제 종합 대책 마련, 침체되어가는 부산 경제 회생 위해 부산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수립(국제 5. 14)
* 아시아 역도 대회 유치단 파견, 부산시역도 연맹-내년 개최될 아시아역도 선수권 대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15일 제8회 아시아 주니어 역도대회가 열리는 몽골 울란바토르 방문(국제 5. 14)
* 부산시의원 31명 일 출국, 아주게임 부산 유치 활동 위해(국제 5. 14)

5. 16
* 낙동로 온종일 체증, 지하철 연장 구간 전력구 공사 계속 지연(국제 5. 14)
* 불법 토취장 허가 연장, 강서구청 무단 형질 변경 적발 두 곳 복구 조치 않고 허가 연장해 임야 훼손(국제 5. 16)
* 하수구 준설토 골머리, 처리장 없어 길가에 방치…악취 진동(국제 5. 16)
* 종합 탈세 조사 대폭 강화, 93년 귀속 소득세 실사 신고자 대상(국제 5. 16)
* 부산 경찰청 조직 폭력 수사대 발족, 16일 오전 사하가 장림동 기동 본대 운동장에서 「조직 폭력 특별 수사대」 발대식 가져(국제 5. 16)

* 스승 찾기 운동성과 5백20명 은사 찾아, 시 교육청 지난 92년부터 스승의 날을 전후해 5월 한 달간 벌이고 있는 「스승 찾아 드리기」 운동 좋은 성과 거둬(국제 5. 16)
* 미래주역에 성인된 도리·의무 일깨워 제22회 성년의 날 기념행사 일제히 열려 제22회 성년의 날을 맞아 부산시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비롯해 12개 구청에서는 올해 성년이 된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아울러 성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는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가져(시보 5. 21)
* 학교장·모범교사 초청 간담회, 부산시는 제13회 스승의 날을 맞아 5월 16일 오전 11시 정문화 부산시장 우명주 부산시 교육감 학교장 모범교사 등 1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시보 5. 21)
* 아주대회유치박차, 제14회 아시아경기 대회 부산유치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우병택회장 박경환 사무처장 등 24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유치단을 일본 히로시마에 파견하여 17일 개최된 제23차 아시아 올림픽평의회 집행위원회에 참석, 알사바 OCA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 분과위원장 등 관계자를 상대로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펴고 18일 귀국(시보 5. 21)
* 조직폭력특별수사대 발대(경찰사 5. 16)

5. 17
* 부산 수출 침체 여전, 섬유 신발 증가 불구 철강류 부진, 수출 경기 침체 장기화 조짐(국제 5. 17)
* 농산물 가격 내릴 줄 모른다, 지난 연초 오른 농산물 가격이 햇품 출하에도 불구 떨어지지 않아, 파도매가 최고 4배까지 인상(국제 5. 17)
* 생곡쓰레기장 7월 첫 삽, 부산시 지사 과학단지도 이달 사업 착수(국제 5. 17)
* 아시안 게임 유치 전망 밝다, 오늘 OCA 집행위 일서 개막, 대만·인도선 유치단 파견 않아 부산 추진위 의욕적 본격 활동(국제 5. 17)
* 삼성차 부산 유치 강력 요구, 정부 거부 땐 서명 운동 추진, 중기 조합협의회 결의문 채택 청와대 등에 전달, 승용차 사업 확정 땐 일부 계열기업 정리(국제 5. 17)
* 다대포항 내년 본격 개발, 상반기 중 2백83억 투입 방파제·호안 축조(국제 5. 17)
* 해운대 신시가지 부대시설 용지 공급 계획 확정, 공공·상업지 16만여평, 부산시 건설 본부 상반기 중 의료·주차장 우선(국제 5. 17)
* 아주 경기 부산 개최 청신호, OCA위원장 가능성 공식 표명(국제 5. 18)
* 남부교육청 중학생 합창 발표회(부산교육 5. 17)

5. 18
* 「부산21세기委」 발족, 시장 자문 기구로 각계 전문가 망라(국제 5. 18)
* 올 유망 기술 기업 지정, 부산 서봉정밀 공업 등 92개 업체(국제 5. 18)
* 선박 입출항 보고 소홀, 작년 12월 3백60건 누락…사고 위험(국제 5. 18)
* 부실 신고 센터 설치,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부실공사 피해자들의 민원 접수·시정 조치를 수행 할 「부실 신고 센터」 설치(국제 5. 18)
* 「부산 추진위」 적극 교섭 주효, 일 OCA참가 유치 활동 큰 수확, 각 회원국에 의지 전달 협조 약속 받아, KOC와 공조체제 성공적 유치 자신(국제 5. 18)
* 쓰레기 종량제 무단 투기 5배 급증, 한달간 1백83건 적발, 주택가 투기 행위 등 부작용 속출, 배출량은 종전보다 감소(국제 5. 18)
* 지하 공간 "먼지 소굴", 지하철·상가 17곳 환경 기준치 초과(국제 5. 18)
* 금정산성 새로 단장, 망루·성곽 등 7월께 보수(국제 5. 18)
* 당국 물가 자극 앞장, 시가 도심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도심지 공영주차장 기본요금 100%·수도료 10.6% 인상키로 방침을 정해 공공기관이 물가 불안 부추긴다는 지적(국제 5. 18)
* 부산 반송 지구 아파트 4천5백세대 건립, 도개공은 이 지구에 전용 면적 25.7평 이사의 서민용 소형 아파트 위주로 4천5백41세대 짓는다는 계획(국제 5. 18)
* 용두산 문화거리 부산상징 축제마당, 부산을 상징하는 「용두산 문화의 거리축제」 행사가 2번째를 맞아 중구 대청동 미문화원에서부터 미화당백화점을 거쳐 광복로 백산로의 보문담에 이르는 용두산공원 일대 거리에서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열려(시보 5. 11)

5. 19
* 친선교류 조인식 개최, 두 도시간의 문화 교육 관광 체육 경제 등 분야에서 상호 교류 적극 지지 우호 친선 위해 상호 협력키로(국제 5. 19)
* 공용 주차장 요금 1천원으로 인상 땐 43% 이용 포기하겠다, 시가 도심지 공영주차장 기본요금을 현행 5백원의 2배인 1천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 보이자 절반 정도의 시민들이 도심지로의 승용차 이용 포기·외곽지역 주차장 이용하는 등 대체 수단 강구 할 것으로 분석(국제 5. 19)

* 부산 인구 계속 감소, 공장 이전·주택 마련 등 경남 전출 증가(국제 5. 19)
* 인사이동, 「부산시 소방본부」 장승포 소방서장 김병삼 외 4명(국제 5. 19)
* 부산 현안 "민자로 타개", 시 정부 지원 불가 따라 방침 전환, 국회법 통과 되면 본격 유치(국제 5. 19)
* 업무추진 유공자 특별승진, 부산시는 5월 19일자로 업무추진에 공이 있는 시기획 담당관실 김태오씨 등 8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6명에 대해 1개급씩 특별승진을 실시(시보 5. 21)
* 방재도상훈련 실시, 부산시는 5월 19일~21일까지 2박 3일간 여름철 빈번히 발생하는 태풍 내습을 가정한 방재도상훈련을 실시(시보 5. 21)
* 태국산 헤로인 대량밀수입 사건 수사, 관련자들 구속(법원사 5. 19)

5. 20
* 「신발 합리화」 대정부 건의, 융자 조건 대폭 개선을, 부산 상의 녹산 입주사 지원 확대 바람직(국제 5. 20)
* 부산시 새 청사 공사에 복병, "군사용으로 징발 된 땅 타 용도 변경 땐 소유권 인정" 판결(국제 5. 20)
* 엄궁 시장 도매 중단, 법인-중매인 경매 방법·수수료 시비(국제 5. 20)

5. 21
* 엄궁 중매인 협상 난행, 전양 상장 합의·수수료율엔 의견 팽팽, 시·도매법인-상도청과 대립(국제 5. 21)
* 광안대로 건설 사업소 설치, 광안대로 건설 전담할 광안대로 건설 사업소 설치 조례안 확정(국제 5. 21)
* 하수도 요금 체납 5% 가산금 부과, 오는 7월부터 하수도사용료 체납할 경우 연체료 부과 대신 가산금 제도로 변경키로(국제 5. 21)
* 인력 수급 양극화 심화, 생산 썰렁·사무 북적, 경기 활황 큰 장애…업체 속수무책(국제 5. 21)
* 공무원 해외여행용의, 올 하반기부터 부산시 공무원의 사적인 해외여행이 크게 자유로워져(국제 5. 21)
* 부산 도개공 경영 다각화, 장기 발전 계획 수립…실버산업 등 추진(국제 5. 21)
* 「인공 섬」 부서 사실상 폐지, 실무부 명칭 도시 재개발 담당으로 명칭 바꿔(국제 5. 21)
* 장애아 재활길 바늘구멍, 「폐륜유기」 한 달 새 3건, 부산 수용 시설 15곳 뿐…대책 시급(국제 5. 21)
* 부산무역전시관 6월말 개관, 부산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수출을 중대하고 기술정보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건립하고 있는 부산 무역전시관이 90%의 공정을 보여, 오은 6월말 개관예정(시보 5. 21)
* 낙동강하류 오염수치 떨어져, 지난 3월 이후 취수한계까지 올라갔던 낙동강 하류지역 수질이 최근 몇 차례의 비로 수량이 늘어나면서 점차 오염수치가 떨어져(시보 94. 5. 21)
* 「의전편람」 발간, 부산시는 지방화 세계화 추세에 맞춰 각종 행사시 낭비요소를 없애는 한편 품위있는 의전이 요구됨에 따라 주요 의전 행사 및 일반적인 각종행사의 기본지침서가 될 의전편람을 발간(시보 5. 21)
* 과태료 백만원까지 부과, 부산시는 행락철을 맞아 유원지 등에서 별도 기구 없이 휴대 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린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생활개혁차원에서 집중 단속키로(시보 5. 21)
* 주거환경개선사업 99년 완료 불량주택 4만여동 개량, 시역내 공공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관계법의 제약 등으로 주택개량마저 어려운 1백1개 지역 약 4만2천여동의 불량건물이 산재되어있는 것으로 집계(시보 5. 21)
* 용당동에 대형소각로 건립, 부산시에서 구청단위로는 가장 큰 월 240t처리 규모의 소각로가 남구 용당동에 세워진다, 남구청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남구 용당동 산 2-1번지 해운항만청 소유의 임야 1천평 부지에 중형 소각장 만들기로 하고 4월말 공사 시작(시보 5. 21)
* 상수도·주차료 인상보류, 부산시물가대책위원회는 5월 21일 시가 건의한 상수도 요금인상안과 공영주차장 금지 및 요금인상안 보류, 시 물가대책위는 시상수도 사업본부가 제출한 상수도요금 평균 10.6% 인상인과 시 교통관광국이낸 주차료 인상안을 심의한 끝에 "보다 다양한 인상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6월 이후 이를 재심의키로(시보 6. 1)

5. 22
* 부산자랑 시민예술제 22일 용두산 공원서, 부산시가 주최하는 올해 두 번째 부산자랑 10가지 순회 시민예술제가 5월 22일 자갈치 시장을 대상으로 용두산 공원에서 백일장과 미술실기대회로 행사를 개최(시보 5. 21)

5. 23
* 종합 문화 교양지 만들자, 부산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 문화 교양지 발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국제 5. 23)
* 부산시가 풀어라①교통②식수③환경, "심각" 인식…지방의정 무관심, 부산 정책 연구소 시민 설문 조사 결과(국제 5. 23)
* 수도·주차료 인상 보류, 부산물가 대책위 6월 이후 재심의(국제 5. 23)
* 부산 무역 협회 "설립 강행", 「서울 들러리」 더 이상 싫다, 무협 반대에 추진위측 강력 반발(국제 5. 23)
* 신록의 계절, 활발한 시립예술단무대, 「맥」 우리 춤 진수 선봬 무용단 31회 정이 공연(5월 23일~24일 오후 7시 30분) 세계민용 페스티벌합창단 소그룹공연 베토벤 음악 「황제」 교향악단 291회 정기연주 국악관현악단 서울영주 국악 관현악 축제 참가(시보 5. 21)
* 우리 전통 소중함 펼친 무대, 이매방씨 <살풀이 춤> 갈채(국제 5. 25)

5. 24 * 인사이동, 『부산시』 6급 통계전산 담당관실 하영팔 외 35명(국제 5. 23)
* 녹산 공단 하수처리장 표류, 올해 착수해도 99년 완공, 바다오염・어장 황폐화 우려, 부산시-토개공 땅값 떠넘기기(국제 5. 24)
* 민속 백화점 부산 첫 설립, 평화 시장에 2천여평, 쇼핑센터 세워 9~14층 매장 활용(국제 5. 24)
* 부산~나진 『컨』 항로 개선, 북, 개발 사업 위해 면변 항운과 합의(국제 5. 24)
* 피혁 가공업 잇단 도산, 부산 지역의 피혁가공 업계가 신발 산업의 퇴조로 큰 어려움(국제 5. 24)
* 정문화 시장 한일 친선협 정기총회참석, 정문화 부산시장은 5월 24일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한일친선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축하해(시보 6. 1)
* 시, 올해 제1회 추경 편성 국가 경쟁력 제고 등 집중, 부산시는 5월 24일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마련해서 본청과 산하부처에 시달해(시보 94. 6. 1)

5. 25 * 시커먼 수돗물 "20분 콸콸", 부산 연산 2동 2백여세대 "물고문"(국제 5. 25)
* 충렬사 제향 봉행, 임진왜란 발발 4백20주년 맞아 위업 선양 추모키 위해(국제 5. 25)
* 녹산 관리 공단 추진, 부산시 "업무 효율 제고"내달 건의, 정부 방침과 배치 귀추 주목(국제 5. 25)
* 올 부산 화랑 미술제 사실상 무산, 불황・회원 간 반목…준비 작업 전무(국제 5. 25)
* 금정산 솔잎 흑파리병 극성, 방제 예산 못 구해 방관, 5백ha소나무 고사…화명동으로 번져(국제 5. 25)
* 삼성차 유치 본격 시동, 부산 시의회 건의문 채택 금명 청와대・상공부에 전달, 지역 경제 활성화 유일 대안, 신호 공단 국내 최적의 입지(국제 5. 25)
* 재활용품 4배 늘고 쓰레기는 43% 줄어, 쓰레기 종량제가 시범 시행된 이후 재활용품 수집량 4배 이상 증가・쓰레기 배출량 43% 감소 그러나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회피・무단 소각 등 부작용도 여전(국제 5. 25)
* 신선대 부두 내년 1월 확정, 해항청 승인, 3백72억 투입 3백m 안벽 축조(국제 5. 25)
* 시 전역 방재 위험지 점검, 부산시는 5월 25일 『방재의 날』을 맞아 우수기에 대비한 시전역의 재해 위험 지구 및 장재시설을 일제히 점검(시보 6. 1)
* 부산시, 인사 전산 6급・토목 6급・토목 7급・토목 8급・토목 9급・기계 8급・기계 9급・임업 8급・임업 9급・보건 9급・환경 8급・환경 9급・의료기술 9급・별정직(시보 94. 6. 1)
* 충렬사 제향 봉행(부산시정 5. 25)

5. 26 * 저소득 주민 치료비 지원, 올 들어 3천만원 지급(국제 5. 26)
* 생곡 쓰레기 매립장 늑장, 을숙도 사용 연장 추진, 6개월 정도 지연…주민 반발 거셀 듯(국제 5. 26)
* 부산 실업자 사상 최악, 통계청 고용 동향 발표, 1분기 중 4.9%…전국 평균 3.1%, 실업자 14%가 부산인(국제 5. 26)
* 인공 섬 124억 예산 낭비, 부산시 의회 시민 우롱・도시 계획 차질 문책 촉구, "해상 신도시 계획 유보", 인공 섬・삼성차 "되는 게 없다"(국제 5. 26)

5. 27 * 부산시 수산 행정 강화 시급, 수영 수산국 신설・원양 업체 유치 경쟁 배가(국제 5. 27)
* 소득세 불성실 신고자 세무조사 강화, 부산 지방 국세청은 93년 귀속 소득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6・7월 두 달 간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키로(국제 5. 27)
* 주거 환경 개선 지정, 부산 남구 문현동 고지대 7만5천여평의 노후 불량 주택 밀집 지역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로 지정(국제 5. 27)
* 부산 법조청사 이전 허가, 거제동 제1정비창 확정(국제 5. 27)
* 멕시코에 중기 전용 공단, 티후아나시 "세금 감면 등 적극 지원", 엘플로리도 공단 입주, 미 무역 규제 덜어 "부산경제 호황"(국제 5. 27)
* 4월 부도금액 최고, 총 8백51개사로 0.5% 기록(국제 5. 27)
* 경제 우호 증진 포럼 부산-티후아나시, 부산시와 멕시코 티후아나시 간의 경제 협력 및 우호 증진 포럼이 27일 오후 열려(국제 5. 27)
* 부산 시역 확장 왜 늦추나, 시의회 인공 섬 연기 반발 의원 사퇴서 제출, 정문화 시장-삼성차 계속 추진(국제 5. 27)
* 부산항 민영화 반대 거세다, 해운 항만청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민영화 계획에 항운 노련 부두 관리 협회 등 항만 관련 단체 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서 난항 예상(국제 5. 27)
* 부산시 청사 감리사 특혜 선정, 2개 업체 지명 입찰 실시, 건설 본부 권리 남용 논란(국제 5. 27)
* 부산↔멕시코 티후아나市 경제협력 및 우호증진 포럼(부산시정 5. 27)

5. 28 * 『해상 신도시 연기』 철회 촉구, 의원 30여명 성명서 제출(국제 5. 28)

* 경영 난 이유 관리권 포기 반발, 국제 지하상가 사인 대책 요구(국제 5. 28)
* 부산시역 확장 추진 중, 가덕도 등 자유 무역항 지정 정부 건의(국제 5. 28)
* 고속철 종착역 부산역 백지화, 경부 고속철도 부산역 종착역 계획 전면 백지화 돼 구포역과 호포 및 부전역 등 새 후보지로 검토(국제 5. 28)
* 삼성차 유치건의 부산 강서구 의회 채택, 부산 시의회 이어 부산 강서구 의회가 「삼성 자동차 공장 설립 인가 및 부산 유지를 위한 건의문」 채택·상공부 등 관계 기관에 제출(국제 5. 28)
* 부산시 세수 차질 우려, 작년 비해 10% 떨어져, 매각 예정 시유지 공시 지가 하락 등(국제 5. 28)
* 문예 진흥 활동 지원 내달부터 신청 받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94년도 하반기 문예 진흥 활동 사업 지원 신청 받아(국제 5. 28)
* 부산 무용계 장르별 다채로운 춤 연기, 「춤」 순회 공연, 이영희·정귀인 무대 즐비, '다양한 춤 세계 진면목 보이겠다' 의욕(국제 5. 28)
* 송정에 관광 랜드 추진, 2백만평…유희시설·골프장 갖춰(국제 5. 28)
* 지방화시대 대비정책개발, 부산지역 야권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부산지역 정책연구소가 28일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각계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열고 지역정책개발활동 시작(시보 6. 1)
* 시장동정, 정문화 부산시장은 5월 28일 오전 9시 30분 접견실에서 환태평양 요트레이스 부산코스 오사카부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환담(시보 6. 1)
*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 부산시 북구 금곡동 기경계와 사하구 하단동 하구언에 이르는 18.51㎞의 낙동강변 고수부지가 종합개발(시보 6. 1)
* 제2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광주, ~5. 31)(부산교육 5. 28)
* 한국청소년연맹 단원 전진대회(부산교육 5. 28)

5. 29
* 부산 「아주」 경기 전망 밝다, 10개 국 NOC대표 내부 "유치 능력 충분" 긍정 평가(국제 5. 30)
* 금정산 보존회 그리기 대회(부산교육 5. 29)

5. 30
* 신시가 건설 환경 뒷전, 부산시 「영향 평가」 무시 무리한 공사 강행, 집단 민원·항의 시위 야기(국제 5. 30)
* 삼성차를 신호 공단에, 부산의 산업 구조 고도화 위해 삼성자동차의 신호 공단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국제 5. 30)
* 만덕 3지구 8만여평 개발, 택지 확정, 아파트 4천세대 건립, 도개공 해발 1백50m 이상은 녹지 보존(국제 5. 30)
* 94 부일미술대전 성황리 끝나, 신예작가들의 다양한 조형작업을 폭넓게 수용해 한국미술의 진취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94 부일미술대전을 지난달 21일 시상식과 전시회가 부산문화관 대전시실에서 30일까지 열려(시보 6. 1)

5. 31
* 공시 지가 조정 요구 급증, 31일 시에 따르면 시가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서 접수 결과 모두 3천9백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국제 5. 31)
* 가덕 신항만 97년 착공, 해항청 2001년까지 전국 8곳 신설, 부산항 선석 추가 건설, 민자 등 10조 투입 항만 시설 전량 확보(국제 5. 31)
* 부산 시청 성악래씨 화교협회서 감사패, 부산시 공무원 성악래씨가 화교민 재산권 보호와 권익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 화교 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국제 5. 31)
* 부산정책 연구소 출범, 자치 활성화…지역 현안 대안 제시(국제 5. 31)
* 부산 민방 신청 마감, 부산 지역 민영TV방송사업자 선정 위한 한 판 승부 막 올라, 자유 건설·한창·신극동 제분 3파전, 컨소시엄 구성 두 달간 열전(국제 5. 31)
* 뇌염접종 반드시 해야, 부산시 보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강서구 대저2동 유문 등에서 채집한 23마리 모기 조사 결과 2마리가 일본뇌염모기, 뇌염접종 당부(시보 6. 11)
* 삼성차유치 적극 추진, 부산시의회는 지난 25일부터 제32회 임시회를 열고 「삼성승용차 공장 부산유치를 위한 대정부건의문」을 채택, 해상 신 도시 건설 등에 대한 시정 질문과 사회복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 뒤 31일 폐회(시보 94. 6. 1)

6. 1
* 인사이동, 「부산시」 하수계획 담당관 정영석(국제 6. 1)
* 부산 광복회관 "무산", 시 91년 1억원 지원 후 건립 유보(국제 6. 1)
* 역세권 주차장 건립, 금정구청- 도심교통난 완화 위해 승용차와 지하철의 환승 체계 확립·현재 공사 하고 있는 부산대역 외 4곳 추가키로(국제 6. 1)
* 산업 생산 점차 호전, 부산 4월 지수 전년 대비 3.9% 증가(국제 6. 1)

* 범어사 순환로 통행 방식 줄다리기, 사찰측「일방」금정구청「쌍방」주장 팽팽, 15일까지「시한제 일방 통행실시 후 확정(국제 6. 1)
* 새 공항 → 항만 → 경부 역사 → 아주 게임, 부산 개발 프로젝트 순위 부산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 대만 등과의 3개 경제권을 형성해야(국제 6. 1)
* 부산 금 20, 은 24, 동 28, 소년 체전 폐막, 7년만의 경기…무사히 끝나(국제 6. 1)
* 게시판 조형미 살린다, 시 2천여개 단계적으로 정비 통일, 도시 미관 고려 스테인리스제 늘릴 계획, 자석 이용 홍보물 부착 야간에도 환하게(국제 6. 1)
* 부산 금융기관 예금 급증, 한 달 새 3천8백억원, 4월 총 24조4백억…요구불 증가(국제 6. 1)
* 노거수 점차 사라진다,「수영동곰솔」등 보호수 39그루 고사(국제 6. 1)
* 컨 화물량 큰 증가, 부산항 올 들어 전년 비 15.8% 증가(국제 6. 1)
* 부산 수출 내리막길,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중 부산지역 수출 실적 14억7천4백여만달러로 3월보다 5.5% 감소(국제 6. 1)
* 하수도료 체납에 가산금, 부산시는 앞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할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키로(시보 6. 1)
* 공공시설관리 민간위탁확대, 부산시는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공시설 관리분야에 대한 민간 위탁제 대폭 확대키로(시보 6. 1)
* 하반기 문예 진흥 활동 지원, 부산시는 94년도 하반기 문예 진흥 활동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원신청을 받아(시보 6. 1)
* 모범가정발굴포상, 부산시는 핵가족화로 우리고유의 전통미풍양속이 붕괴됨으로써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모범적인 가정생활 영위하는 가정을 발굴, 건전한 가정윤리 확립의 계기로 삼고자 94년 모범가정 20가구를 선정하여 7월에 시상, 격려키로(시보 6. 21)
* 부산발전연구원 명칭변경(舊동남발전연구원)(부산시정 6. 1)

6. 2
* 관광 행락지 바가지 요금 근절, 시 석달간 지도 단속 강화키로(국제 6. 2)
* 시 현안사업 차질 우려, 국비 보조 확보 불확실, 정부부처 “14개 중 4~5개만 지원” 밝혀(국제 6. 2)
* 새마을 서울-해운대 7월 15일부터 운행, 연중 하루 1회 왕복(국제 6. 2)
* 수영 비행장 일대 275만평 군사 보호 구역 해제, 건축 등 재산권행사 “숨통”, 이전 위한 사전 조치 분석, 국방부 부산시에 통보(국제 6. 2)
* 지방청 계 통·폐합 및 신설 교통과 교통계 시설반을 교통과 관제계로, 수사과 수사1, 2계를 수사1계로, 수사과 경제계와 강력과 형사계를 수사과 수사2계로, 보안과 보안1, 2계를 보안1계로, 외사과 외사1, 2계를 외사1계로, 외사3, 5계를 외사2계로 각 통합 조정, 강력과를 형사과로, 통신과를 전산통신과로 개칭, 보안과 수사1대를 보안과 보안2계로, 보안과 수사2대를 보안과 보안3계로, 수사과 감식계를 형사과 감식계로 변경(경찰사 6. 2)

6. 3
* 부산 총 생산 증가율 경제 성장률 꼴찌, 1인 총생산 경남의 절반 불과, 신발·섬유 산업 장기 침제가 주원(국제 6. 3)
* 개인택시 면허 대상, 시 3일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 6백명 확정 공고(국제 6. 3)
* 민원안내용 명함 제작, 강서구 담당 공무원 1백30명에 배포(국제 6. 3)
* 일반직 사무관 일선 동장 취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반직 사무관인 송재군씨 동장 취임(국제 6. 3)
* 3인 이상 카풀 통행료 면제, 시「녹색 교통 운동」전개, 매월 첫 월요일 대중 수단 이용(국제 6. 3)
*「1회 민원」정착 추진 시, 본격적 행정서비스 돌입, 부산시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내정개혁 핵심 과제로 추진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시민위주의 편의 시책으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하고, 세부시행 대책을 마련, 6월 3일 시 회의실에서 시 구 민원 행정 담장자연석회의를 열어 추진에 만전기하기로(시보 6. 11)
* 녹색교통 대 시민 운동전개, 부산시와 YMCA, YWCA 등 15개 민간단체 대표들은 6월 3일 오전 11시 시청 제3별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녹색교통 대 시민운동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해(시보 6. 11)

6. 4
* 가덕도에 텔리포트, 해항청장 지시 첨단 타보·통신 기지화(국제 6. 4)
* 전자공고 앞 체증 심화, 온천장 도로 공사 4년 넘게 중단으로 인해(국제 6. 4)
* 시내 열차 요금 인하, 부산지방철도청 3일 부산~해운대역·부산~구포역 간 무궁화·통일호 열차의 운임을 종전 1,700원에서 1,500원·1,400원에서 1,300원으로 인하키로(국제 6. 4)
* 시립 교향악단 첫 컴퍼스 연주회, 부산시립 교향악단(금난새)이 3일 부산대 구 운동장에서 음악회 개최(국제 6. 4)

6. 5 * 신용카드를 이용한 허위매출표 작성으로 인한 신용카드업 위반 사건으로 26명 구속 한진중공업, 기관차노조, 메리놀병원노조, 백병원노조등 대대적인 파업사건발생(법원사 6. 5)

6. 6 * 아시안 게임 외교 본격화, 부산 유치위 43국 NOC 전원 초청 계획(국제 6. 6)

* 해운대구 「관광계」 신설, 7월 관광특구 대비 전담 기구설치(국제 6. 6)

* 문민정부 공직사회 처벌 강화 포상 감축, 적당・보신주의 부채질, 시 11%・경찰 30% 축소…사기 저하(국제 6. 6)

* 차관 1억불 연내 성사, 지하철 2호선・환승 시설 적극 추진, 세계은행 평가단 부산 방문(국제 6. 6)

* 대청공원 충혼탑 참배, 제39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9시 55분 대청공원 충혼탑 광장에서 정문화 부산시장을 비롯 부산 지역 국회의원・시의원 재부기관장보훈 단체장, 유가족, 시민, 관계공무원 등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시보 94. 6. 11)

6. 7 * 문민정부 들어서도 지수 바닥, 부산 경제 꼴찌를 벗자, 산업 구조 조정 실패, 생산성 등 추락 일로, 지역 살림 파탄 지경(국제 6. 7)

* 지하철 1호선 4단계 서대신~신평 간 영업시운전 나서 부산지하철 1호선 4단계 서대신에서 신평 간 6.4㎞ 구간이 6월말 개통에 대비해 지난 6월 7일부터 정상운행과 같이 운행하는 영업 시운전(시보 6. 11)

6. 8 * 올 부산고용 청신호, 신규 전년 비 2배 모집, 생산・기술직도 큰 증가(국제 6. 8)

* 부산 경제 꼴찌를 벗자, 경제 불황 '투자 메리트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 공장 지을 땅 없다, 시 면적 2.2% 불고…업체 영세화 불가피, 교통난에 운송비 부담(국제 6. 8)

* 부도율 상승세 주춤, 4월 이후 두 달째…자금 사정 호전(국제 6. 8)

* 부산시 빚 1조 넘었다, 부산시의 부채 사상 처음으로 1조원 넘어 1조2백여원 기록(국제 6. 8)

* 우리 도기 예술 부흥을, 일 능가할 신예 발굴・세계흐름 한눈에, 국내 두 번째 공모전…문화편중 탈피도(국제 6. 8)

* 부적합 식품 수입 급증, 올 해 들어 1백4건 반송・폐기(국제 6. 8)

* 산업 디자인 전람회 개최, 제29회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 부산 이동 전람회가 8일 오전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렸다(국제 6. 8)

* 시 직할 공원 작년 18억원 적자, 시민 세 부담 가중시켜, 유지비 급증…입장료는 수년째 동결(국제 6. 8)

* 부산에 국내 첫 맹인 오락장, 한국맹인 복지연합회 부산지부, 20평 규모 벽마다 폐타이어 안전시설, 헬스・수영・볼링장・PC통신 장비도 계획(국제 6. 8)

6. 9 * 자가 승용차 3.5가구당 한 대, 부산 한 달 새 5천6백대 증가(국제 6. 9)

* 세무 공무원 크게 부족, 동 사무소는 절반 이하, 시 전체 정원의 60% 불과, 업무 과다・전문교육 등 이유로 기피(국제 6. 9)

* 산업 구조 고도화 시급, 노동집약・소비재경공업 의존 따라 사양길, 지역 경제 이끌 중화학・첨단산업 육성해야(국제 6. 9)

* 인사이동, 국제 통상협력 실장 류종식 외 2명(국제 6. 9)

* 신시가 부지 처분 난항, 부산시 매각 계획 차질 연계 사업 "삐걱"(국제 6. 9)

* 부산시, 인사 부이사관・국제통상협력 실장 유종식 서기관・총무과장 안준태・청소과장 강호증(시보 6. 11)

* 친절봉사 우수사례 발표, 부산시는 시민을 위한 친절배가운동 및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추진해 오면서 그동안 각 기관별로 추진해 온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6월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청, 구청, 동사무소 직원 80명이 참석한가운데 친절봉사, 민원1회 방문처리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시보 6. 11)

6. 10 * 기반 시설 투자 "발 등의 불", 항만 배후로 등 조기 확충 물류비용 줄여야, 2천1년 광역권 「컨」 처리 시작 땐 큰 타격(국제 6. 10)

* 인사이동, 「부산시」 6급 승진 기획 담당관실 김보연 외 41명, 「부산시 교육청」 덕천 여중 교장 김영목 외 2명(국제 6. 10)

* 부산 청과시장 10일 폐쇄, 부산 서구 충무동 부산 청과 시장 10일 완전 폐쇄(국제 6. 11)

* 시립 「세계해양생물관」 개관,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해양자연사 박물관인 부산시립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이 10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시보 6. 21)

* 무형문화재 새보유자지정, 부산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시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의거 부산시 무형문화재기・예능 보유자 6명 인정해(시보 6. 11)

* 시립해양생물전시관 개관(부산시정 6. 10)

6. 11 * 부산 경제 꼴지를 벗자, 작년 수신 23조・여신 17조…6조가 "집 나간 돈", 업체 자금난 계속 심화 올 들어 4백80곳 부도(국제 6. 10)

* 자치구 수익 사업 적극 추진, 유료 주차 빌딩 등 건립, 동 사무소 복합건물로 지어 임대 수입(국제 6. 11)

* 부산항 체선 심화 우려,「컨」부두 관련 북항 준설「일방통항」실시(국제 6. 11)
* 우 1동~중 1동 일방통행 확대 해운대 체증 해소, 해운대 지역의 만성적 교통 제증 해소 위한 방안 적극 검토(국제 6. 11)
* 부산시, 인사 동래구청 6급 승진 총무과 김주태 외(국제 6. 11)
* 한・중 직항로 개설, 남-북한 해상 직항로와 북한・중국 양국의 철도 이용,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을 곧바로 연결하는 육-해상 복합 수송로 개설(국제 6. 11)
* 부산시의 올해 재해예방 대책을 알아본다, 취약지 정비점검, 예찰활동 강화 지난해 글래디스호 태풍으로 많은 피해 입어 여름철을 앞두고 부산시의 재해 예방대책을 알아봐(시보 6. 11)
* 서식 541종 없애, 부산시내 일선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서식의 절반이 폐지되는 등 대대적인 정비 사업 벌여(시보 6. 11)
* 지하철 2호선 2단계 교통체증 대착과 연계 구간별 공사계획확정, 부산시와 부산교통공단은 부산지하철 2호선 2단계구간 중・해운대 신시가지구간 건설공사를 오는 7월 착수, 서면~신시가지 구간 본 공사를 황령산 터널 및 접속도로 공사가 끝난 뒤 95년 8월 착공키로(시보 6. 11)
* 부산무역전시관 곧 준공, 부산시가 그 동안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와 지역경제의 국제화 기술 및 정보 지역 생산제품의 홍보를 위해 추진해온 부산 무역전시관이 오는 6월 30일 개관(시보 6. 11)
* 부산시 하천정비 사업계획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부산시는 금년에 금천 정비 등 5개 사업에 총 152억원을 투입하여 하천 주변의 침수방지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 정비 사업 추진(시보 6. 11)
* 베트남 하이퐁시장 일행 접견, 정문화 부산시장은 6월 11일 오전 11시 베트남 하이퐁 시장 일행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하이퐁 시장 일행은 양 도시간의 교류와 적십자 사업의 활성화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시보 6. 21)

6. 13
* 부산 경제 꼴지를 벗자, 개발 순위 등 정기정책 절실, 무역 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 순 개발해야 효과(국제 6. 10)
* 부산시, 인사 전보 <중구청> 6급 승진 외 다수(국제 6. 10)
* 노인종합복지회관 기공식, 부산서 처음으로 건립되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기공식 6월 13일 연산4동 현지에서 거행(시보 6. 21)
* 노인종합복지관 착공(부산시정 6. 13)

6. 14
* 공동 어시장 "거듭나기", 부산 공동 어시장은 조기 위판 개시 중매인 유예 자금 한도 확대 등 위판 활성화 대책 마련(국제 6. 14)
* 삼성차 유치 부산 기업 "열망", 96%가 적극적 찬성, 지역 경제 활성 기대(국제 6. 14)
* 부산시단 우먼파워, 중견・신인 작품집 잇따라 발표, 인생무게와 넉넉한 서정 담아(국제 6. 14)
* 부산 중・고교 학군제 변경 1구 1학군 추진, 도심 인구 변화 등 요인…부작용 개선, 최종안 곧 확정 내년 적용(국제 6. 14)
* 음식점 물수건 불결, 부산시내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는 물수건의 상당수가 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등 위생 상태 불결(국제 6. 14)
* 부산시, 인사 국제 통상 협력실 김헌훈 외 3명(국제 6. 14)

6. 15
* 부산 지하철 곳곳 균열…누수, 자갈치~중앙동역 20여 곳 확인, 전 구조물 정밀 안전 점검 시급, 장마철 대형 사고 위험(국제 6. 15)
* 부산~대구 직선 고속도로 빠르면 내년말 착공, 부산과 대구를 거의 직선으로 연결하는 총길이 80㎞의 4차선 새 고속도로가 빠르면 내년말 착공(국제 6. 15)
* 북・사하구에 대형 백화점 신설 유통 시장 분권화, 부산 북구와 사하구 지역에 대형 백화점 잇따라 들어서 부산 유통 시장 분권화 가속화(국제 6. 15)
* 신시가 지역난방 공사 확정, 자재 구매 8월 본 공사 내년 초 발주(국제 6. 15)
* 부산시 공신력 "흠집", 부산시가 올해 건물분 재산세 고액 상위 납세자 순위를 발표하면서 일부 명단을 빠뜨려 부산시 발표 자료의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 낳아(국제 6. 16)
*「부산직할시교육연구원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 공포(제3108호)(부산교육 6. 15)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공포(제3109호)(부산교육 6. 15)

6. 16
* 수도료 10.7% 인상 공영 주차료 시간당 2천2백원, 시 인상안 확정 의회 승인 남아(국제 6. 17)

* 주민신고 집중 홍보 나서, 부산시는 제44주년 6·25를 계기로 6월 16일~25일까지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대 시민 안보의식을 고취 각종재난 환경오염간첩 범죄사건·사고 무질서 등의 요인 제거키로(시보 6. 11)
* 시립 국악단 새 얼굴과의 만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6월 16일 오후 7시 30분 문화회관 중강당에서 제52회 정기연주회뢰 「새 얼굴과의 만남」 무대의 마련으로 기량이 뛰어난 젊은 국학도가 출연해 국악의 해와 창단 10주년의 뜻 깊은 무대 꾸며(시보 6. 11)
* 수도료 평균 10.7% 올라, 올 하반기부터 부산시내 수도요금이 평균 10.7% 오르고 도심공영주차장요금을 100% 인상(시보 6. 21)
* 재해피해 최소화, 신속복구, 부산시는 6월 16일 오전 10시 시청 회의실에서 안명필부시장 주재로 부산 지역 유관기관 방재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 대책협의회를 개최(시보 6. 21)

6. 17
* 세계적 첼리스트 조영창 초정, 부산시립교향악단을 6월 17일 오후 7시 30분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292회 정기연주회로 세계적 첼리스트 조영창 초청 연주회를 가져(시보 6. 11)
* 삼성차 부산 유치 재거의, 부산 상공 회의소는 17일 삼성 승용차 공장 부산 유치과 시역 확대를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현안 과제로 채택·정부에 재 건의키로(국제 6. 17)
* 부산항 일방 통항 연기, 선사반발, 수용 「컨」 공단 재검토(국제 6. 18)

6. 18
* 부산 예산 국고 지원 대폭 삭감, 5천억 신청에 10%만 배정…현안 큰 차질, 아주 게임 주경기장·지사 단지는 전액 중단(국제 6. 18)
* 미준공 아파트 부산 5천7백세대, 재산권 행사 못해 고통, 건설사 부도·자격 미달 등으로 불안(국제 6. 18)
* 20일부터 부두 출입 전면 금지, 항만 시설 사용료 장기 체납 업체에 대한 항만 시설 사용이 전국에서 처음 오는 20일부터 부산항에서 제한(국제 6. 18)
* 부산항 내년 예산 천4백억, 해항청 올보다 82%증액…기획원과 협의(국제 6. 18)
* 부산시, 인사 <사하구청> 6급 승진 외 다수(국제 6. 18)

6. 20
* 해운대 신시가 지하철 공사 부산 업체 참여 의무화, 2공구 나눠 1·2군 공동 도급(국제 6. 20)
* 외국관광객 8% 증가, 5월말까지 36만1천명 부산 방문(국제 6. 20)
* 지하철 과연 멎나 부산시 비상 수송책 마련, 중앙대로 36개 노선버스 연장, 예비 버스 2백32대 집중 배치, 택시부제해제 합승 잠정 허용(국제 6. 20)
* 지하철 1호선 4단계 다대·신평 일대 버스 노선 전면 재조정, 시는 오는 23일 지하철 1호선 4단계 구간 개통과 관련 부산 사하구 다대 신평동 일대 24개 노선버스 4백65대의 운행 구간을 지하철 환승이 가능하도록 전면조정하고 2개 노선버스 4대는 다대포~신평역 순환토록 조치(국제 6. 20)
* 모두가 하나 된 「부산시민 어울 한마당」 시민이 하나 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지난달 20일과 21일 그리고 23일과 25일 부산시공무원교육원과 황령산 야영장에서 「부산시민 어울 한마당」으로 다채롭게 펼쳐져(시보 7. 1)

6. 21
* 부산시 법제 계장 유소현 외 2명(국제 6. 21)
* 여름철 환경오염 특별 대책, 부산시는 오는 8월까지 실시할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 대책 수립(시보 6. 21)
* 복지시책 안내책자 발간, 부산시는 각종복지시책을 일목요연하여 한 곳에 정리해 복지시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94 가정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안내」를 전국에서 처음 발간(시보 6. 21)
* 21세기 첨단산업 주도할 부산 과학 산업연구단지, 정보통신·항공 우주 등 유치 기술 집약 자립기반구축 강서구 지사동에 2001년까지 조성 부산 과학 산업연구단지는 첨단산업 연구, 주거 및 서비스 기능을 동시에 갖는 산업단지로 개발되어 사업비 6천4백18억원 투자예정(시보 6. 21)

6. 22
* 생활환경 감독 강화, 부산시는 이달 초부터 8월말까지 자동차 매연·비산 먼지 악취 업소 중점 단속 등 생활환경 관리 감독 강화 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 활동(국제 6. 22)
* 시 매연·소음 등 중점 단속, 부산 경실련이 창립 초기의 정치 감시·경제적인 활동 영역을 점차 환경 운동으로까지 넓히기로(국제 6. 22)
* 부산 도개공 분양 확정 하반기 1만3천세대, 「근로 복지」 5천여가구, 7월 초 시작…비수기 미분양 우려(국제 6. 22)
* 부산 주류 도매협 "횡포", 부수수료 부단 인상·가격담합 일삼아(국제 6. 22)
* 부산 관광 개발 계획 보고, 부산시의회 교통 항만위는 22일 시 집행부측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 관광국 소관 당면 현안 사항 전반에 대한 협의(국제 6. 23)
* 중 위해시 시장 일행 상의 방문, 중국 산동성 위해 오륭강 시장 일행 22일 부산 상의 방문·부산 기업 적극적 중국 투자 및 진출 등 요청(국제 6. 23)

6. 23 * 지하철 1호선 완전 개통, 노포~신평 이용객 10만명 늘어(국제 6. 23)
* 지사 과학 단지 개발 보류, 분양가 높아 추진 지연, 구고 보조도 난항…본격 사업 “삐걱”, 부산시가 첨단 산업 유치 위해 추진(국제 6. 23)
* 민원 서류 발급 완화, 납세 증명원 사업자 등록 증명원・미과세 증명원 등 국세청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 절차 대폭 완화(국제 6. 23)
* 부산항 개발 “좌초”, 95년 예산액 41%삭감, 3・4부두 확장 물거품(국제 6. 23)
* 임금 체불 사업주 급 등,「자기 몫」 챙긴 후 도주・노동자 큰 고통, 부산・경남 3년간 1백81억(국제 6. 23)
* 부산시, 인사 강서구 보건 소장 박진형, 중구 보건소장 이재석(국제 6. 23)
* 차량 매연 단속 절반 이상 육안 검사, 23일 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말 현재 시의 자동차 매연 점검 대수는 모두 3만5천여건으로 이 가운데 육안 검사나 비디오 측정이 절반 이상인 1만9천여건 차지(국제 6. 23)
* 해운대 관광특구 신청 범위 공청회, 14만여평 최종 선정(국제 6. 23)
* 지하철 신평역에 민원실 설치, 사하구청은 23일 지하철 1호선 4단계 연장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신평역사 지하 1층 만남의 광장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키로(국제 6. 23)
* 주먹구구 도시 계획 “원성”, 도로 개설 2년만에 확장 추진, 상가 건물 철거 위이 상인 반발(국제 6. 23)
* 부산 서부가 달라진다, 서・사하 지역 “교통혁명”, 북구~경남 연결 광역권 토대마련, 괴정 등 새 상권・외곽은 주거지로(국제 6. 23)
* 사하・다대지역 버스노선변경, 부산시에서는 지하철 1호선 4단계 개통에 따른 사하・다대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대・신평역 연결 순환노선 신설 6월 23일부터 변경 운행키로(시보 6. 21)
* 지하철 1호선 6월 23일 완전개통, 부산교통공단에서 지난 90년 7월 착공한 지하철 1호선 4단계구간 6.4㎞가 착공 된지 4년만에 6월 23일 개통(시보 6. 21)
* 지하철 1호선 완전개통 서대신~신평 6.4㎞완공으로, 부산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지하철 1호선이 착공 13년만에 완전 개통돼 부산의 대중교통 동맥역할(시보 7. 1)
* 지하철1호선(노포~신평) 전구간 개통(부산시정 6. 23)

6. 24 * 부산 서부가 달라진다, 부산 지하철 개통 도심 기능 급격 변화, 상업 금융 중심이 부상, 대형 백화점・예식장 곳곳 신축, 지하철역 인근 전세 값 폭 등세(국제 6. 24)
* 부산 발전 계획 다시 짠다, 당정 간 부산시 종합 발전 위한「마스터플랜」추진(국제 6. 24)
* 추경 예산 5천억 책정, 감천항도로 등 계속 사업 8백억 투입, 부산시 내달 초 의회 심의 요청(국제 6. 24)

6. 25 * 부산 지하철 파업, 기본급 인상폭 협상 결렬, 도로 대 혼잡「고통 출근길」, 시 버스 증차 택시 부제 해제(국제 6. 25)
* 부산 제조업 수출 “흐림”, 3/4분기 내수 경기는 주도 회복세 지속(국제 6. 25)
* 부산시, 인사 북구청 시민과 윤영철・김숙희 외(국제 6. 25)
* 철도 파업 시멘트 공급 중단, 레미콘 출하 절반 격감, 해상 수송 2사만 가동(국제 6. 25)

6. 27 * 부산 지하철 악화, 출근길 30~40분 대기 예사, 전동차 승차 곳곳 아우성, 34개 역・도로 극도의 혼잡, 국민 90% “파업 즉각 중단하라”(국제 6. 27)
* 오래된 책걸상 버릴 곳 없어 골머리, 일부 학교는 소각처리,「해체 후 재사용」규정무시 “자원 낭비”(국제 6. 27)
* 구청・입주자 시공자로 협의회 구성, 아파트 준공 미필 해소(국제 6. 27)
* 서면 철물상 96년 이전, 부산진구 장기 개발계획 승인 받아(국제 6. 27)
* 부산 서부가 달라진다, 4단계 부산 지하철 개통 도심 기능 급격 변화, 하단・괴정 역세권 개발, 금융・공공 시설 역 주변 배치(국제 6. 27)
* 생곡 쓰레기 매립장 건립 반대 결의 대회, 시의 차기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인 강서구 녹산동 생곡동 주민은 27일 오후 강서구 녹산동 성산시장 앞에서 시의 생곡 쓰레기 매립장 강행 방침에 반대하는 결의 대회 개최(국제 6. 28)

6. 28 * 해운대 등 3곳 올해 안에 착공 6개 관광지구 개발 계획 확장, 시는 28일 을숙도 금정산성 가덕도 해운대 등 6개 지역을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관광 종합 개발 계획 확정(국제 6. 28)
* 광안 해변도로 야간 불법 주정차 극성, 체증 심해 개장 앞두고 단속 시급(국제 6. 28)
* 지하철 파행 “언제까지…”,「시민 발」담보 이래도 되나, 무더위 속 연일 출근 전쟁…분노 폭발, 공단측 노조 간부 19명 직위 해제(국제 6. 28)

* 새벽시장 다시 인가, 북구 엄궁동 농산물 도매 시장의 활성화 위해 폐쇄했던 유사 도매 시장인 북구 감전동 새벽 청과 시장에 대해 북구청이 다시 시장 인가 내려 엄궁 도매 시장 상인들 반발(국제 6. 28)
* 건축사 사무소 행정 처분, 현장 조사 등 감리 업무 소홀히 하는 건축사 사무소 7개소에 대해 최고 영업 정지 4개월까지 무더기 행정 처분 내려져(국제 6. 28)
* 배추 값 폭 등, 부산 지역서 시판되는 배추 가격 큰 폭 인상(국제 6. 28)
* 부산 경제 지표 "최악", 산업 생산고용 물가 등 부산 지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전국 최악 국면 나타내(국제 6. 28)

6. 29
* 부산 서부가 달라진다, 4단계 부산 지하철 개통 계기 도심 기능 변화, 사상·구포 2천년대 급부상, 2·3·5 호선 개통…교통 중심, 쇼핑몰 조성·고수부지도 개발(국제 6. 28)
* OCA회장 부산방문 추진위, 운영위원회 활동도 강화, 아시안게임 부산유치위원회는 유치활동이 본격 전개됨에 따라 추진위원과 운영위원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시보 6. 21)

6. 30
* 구포대교 부분 개통 8월 말께 가능할 듯, 대저동과 구포 지역 연결하는 구포대교의 교통 체증 해소 위해 이달 말 부분 개통키로 한 구포대교가 연결 공사 지연으로 오는 8월께 차량 통행 가능(국제 6. 30)
* 부산 인구 95년 고비 준다, 낮은 출생률·도산기업 증가 여파 점차 감소, 경남은 매년 1% 증가…2천년 4백만 돌파 예상(국제 6. 30)
* 룸살롱 등 신규허가 시 1년대 연장키로, 시는 30일자로 시한이 만료되는 룸살롱 등 유흥 주점 신규 허가 규제 기간을 95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키로(국제 6. 30)
* 깎인 예산 난감한 현안, 부산 8개 기관 추진 사업 60%선 반영(국제 6. 30)
* 부산 지하철 완전 정상화, 열차도 운행 시 비상수송 대책 해제(국제 6. 30)
* 「미화당」 땅 값 평당 8천9백만원 부산 최고, 명동 상업 은행 1억3천 전국 최고, 건설부 94공시 지가 발표…전체 필지 53%하락(국제 6. 30)
* 부산 소비자 물가 "흔들", 전월 비 1.1%나 상승, 6월 농수산물 급등…안정 기조 깨져(국제 6. 30)
* 부산항 「컨」 사용료 저렴, 고베 가오슝·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항만보다 훨씬 싼 것으로 조사(국제 6. 30)
* 둔치도 연료 단지 하반기 착공, 5만5천평 조성키로, 96년말 완공…6개 연탄공장 이전(국제 6. 30)
* 부산시, 인사 임업 6급, 보건 6급, 임업 7급, 토목 7급, 건축 7급, 화공 7급, 화공 7급, 임업 8급, 화공 8급(국제 6. 30)
* 부산 지하철 "본궤도" 6월 30일부터, 노조원 99%복귀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부산 지하철 파행 운행은 파업 운행은 파업 5일만인 6월 29일부터 파업 노조들의 복귀로 정상화(시보 7. 1)
* 부산무역전시관 개관(부산시정 6. 30)

7. 1
* 부산시, 인사 도시 개발 공사 주택 건설 이사 임정섭(국제 7. 1)
* 사치품 수입 큰 증가, 골프채 5월 한달간 2천8백개(국제 7. 1)
* 내년을 미술의 해 "시립 미술관 조기 건립 기대", 부사미술인 "96년까진 개관" 한 목소리, 문체부 국제 미전·지역 행사 등 펴기로(국제 7. 1)
* 시사지 「월간 부산」 창간, 부산 유일의 시사 종합지 「월간 부산」이 이달 창간 돼 시민들의 커다란 관심 가져(국제 7. 1)
* 김해 공항 국제선 청사 낡고 비좁아, 입출국 수속 오래 대기, 76년 건립… 「방문의 해」 이미지 해쳐(국제 7. 1)
* 「농특세」 불합리 부산 3만 농가 지원 제외, 직할시 이유…강서 주민 반발(국제 7. 1)
* 해수욕장 개장, 해운대 광안리 등 부산 시내 5개 해수욕장이 1일 일제히 개장(국제 7. 1)
* 부산 3/4분기 경기 쾌속 회복, 2/4분기 중 원만하게 회복된 부산지방 제조업체들의 경기가 3/4분기에는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국제 7. 1)
* 장마철 재해 방역 대책 마련, 8월 말까지 집중 예방 나서 부산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에 대비하여 재해 사전 대비 전반에 걸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가운데 대비 태세 더욱 강화(시보 7. 1)
* 대형 차량 진입 등 통제 해수욕장 교통 관리 마련, 부산시와 부산 지방 경찰청은 부산지역 5개 해수욕장 주변에 대한 교통관리대책을 마련해 7월 1일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시행(시보 7. 1)
* 즐거운 피서되게 준비 만전, 해운대와 광안리 등 부산의 5개 해수욕장들 7월 1일 개장(시보 7. 1)
* 감사활동개선책마련 시 현장중심·직보제 운영, 내무부가 앞으로는 중앙감사 보다는 자체감사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서 부산시가 자체감사 활동 개선계획을 마련(시보 7. 1)
* 주민 등록 등·초본 전국 온라인 발급, 주민 등록 등·초본 발급업무가 오는 7월 1일부터 거주지에 관계 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돼(시보 7. 1)

*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부산시는 여름방학과 피서철 등을 맞아 청소년 비행・탈선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7월 1일 ~ 8월 31일까지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시보 8. 1)
* 시민협조에 감사 지하철 정상운행에 담화문, 정문화 부산 시장은 지난 6월 25일 이후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정상운행이 어려웠던 지하철이 6월 29일 현재 파업 노조원의 대다수가 복귀하여 6월 30일부터 정상 운행됨에 따라 그동안 큰 불편과 고통을 인내하며 빠른 해결과 정상회복을 위해 협조해온 시민들에게 감사의 시장 담화문 발표(시보 7. 1)
* 현안・마무리사업에 중점, 올해 5천2백55억원의 부산시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돼 하반기 현안과 마무리 투자사업에 중점 투자(시보 7. 1)
* 해수욕장일제정비, 12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모래 속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등 국제 도시화 걸맞는 건전・쾌적한 환경 조성 할 계획(시보 7. 1)
* 좋은 물건 값싸게 사려면…부산시 상록회관, 93년 완공된 부산시 상록회관은 1~2층의 의류 가전제품 기타 생활용품 판매 매장과 전직공무원 휴게실 강당 등 후생시설 수영장 휴욕실 등의 체련시설, 편의시설 주차시설을 갖추고 시중가격보다 10%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용객이 날로 늘어나자 이용객 편의 증진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의 영업시간을 종전보다 1시간씩 연장 운영키로(시보 7. 1)
* 부산편입 주민 72.4% 찬성, 부산시 인근 경남지역의 시역편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가운데 김해시・군 양산군 등의 편입 대상지역 주민의 72.4%가 부산편입에 적극적(시보 7. 1)
* 부산시립교향악단 293회 정기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을 7월 1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멘델스폰 탄생 185주년 기념음악회」로 제293회 정기연주회 무대를 장식, 시향수석지휘자 반초차브다르스키가 지휘,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피아니스트인 이경숙씨 협연(시보 7. 1)
* 주민등록 등・초본 전국 온라인 발급(부산시정 7. 1)

7. 2
* 신시가・화명 「던키」 발주, 부산 건설사 반발, 대한 주택 공사 부산 지사와 부산시 도시 개발 공사가 해운대 신시가지 및 화명 2지구 아파트 건립 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던키방식으로 발주키로 하자 부산 지역 건설업계는 건설부에 이의 시정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국제 7. 2)
* 신시가 중심지 용도 확정, 부산시 종합 건설 본부 해운대 신시가지의 도심이 될 중심 상업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건축물 용도 지정 계획 확정(국제 7. 2)
* 간선도로 4배 확충, 신경제 SOC전략 부산항 97년 화물 적체 해소(국제 7. 2)
* 부산시 문화상 심사 방법 바뀐다, 후보자-심사위원-추천 방법 등 4부분 객관성 유지 「나눠 먹기식」 오명 씻어야(국제 7. 2)
* 움직이는 시립예술단 7월 공연 일정, 이달에는 광안리 해수욕장과 부산역 광장・사하구 아파트 등지에서 국악과 합창・무용 등 선사(국제 7. 2)
* 부산 9개 지구 택지 개발 예정, 한 뼘 녹지 이마저도…전국 최하 수준 시민 큰 반발, 총 47만여평 없어질 판(국제 7. 2)

7. 3
* 참여율 높은 제3회 부산무용제, 부산시가 주최하고 한국무용협회 부산지회가 주관하는 제3회 부산무용제가 7월 3일 개막(시보 7. 1)

7. 4
*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해운대구청 4일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제1단계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실시(국제 7. 4)
* 4개국어 안내판 설치, 동구청 4일 부산시 전역 및 도심부를 연계 안내할 수 있는 「한영-한러」 4개 국어 병기 도시 보행자 안내 표지판 부산역 부산진역 광장 등 8곳에 설치(국제 7. 4)
* 그린벨트 내 설치 허용, 부산시 개선안 건설부에 건의, 형질 변경 때 공체 폐지(국제 7. 4)
* 「녹색교통운동」 출범, 부산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교통난 완화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10부제 지키기 등 이른바 녹색교통운동을 시민단체 중심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으로 7월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유도(시보 7. 11)
* 수돗물 정사취수・공급,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7월 4일 낙동강의 기름오염 농도가 떨어져 정수생산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밝혀(시보 7. 11)

7. 5
* 추경 심사 예결위 구성, 부산시의회는 5일 오후 부산시 및 교육청의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 구성(국제 7. 5)
* 음주・난폭 운전은 줄고 주차・신호 위반 여전, 교통 문화 개선…주차난・체증은 문제, 건체 건수 11% 감소(국제 7. 5)

* 개성 공영 주차장 견인차량 보관소,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 해 조성한 공영 유료 주차장이 이용 차량 적어 불법 주차 견인 차량 보관소로 용도 변경 돼 사용 되고 있어 탁상 행정이란 지적(국제 7. 5)
* 부산 여름 무용 축제 폐막, 지역 행사 자리 매김 합격점, 전국 수준 위상 확대 위해 노력 필요, 광안리 야외 공연 대중적 기법 갈채(국제 7. 5)
* 부산시, 인사 상수도사업부 문신득 외, 보선환경연구원 정재언 외(국제 7. 5)
* 제1회 추경예산안 본격심의, 부산시의회는 지난 5일 15일간의 회기로 제33회 임시회를 열고 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5천2백55억원과 4백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시보 7. 11)
* 추경 예산안 등 심의, 부산시의회는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제33회 임시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 29일 집회를 공고(시보 7. 1)
* 부산시립청소년 교향악단 출범, 청소년 정서함양과 건전한 문화예술창달을 꾀하여 연주경험 조기 축적 및 부산지역음악인 육성을 위해(시보 7. 11)
*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출범(부산시정 7. 5)

7. 6
* 폭서 연일 피서 용품 불티, 7월 들어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서에 열대야가 겹치면 빙과 제품 매출 폭발적 증가, 본격적인 여름 특수 시작(국제 7. 6)
* KOEX건립 “박차”, 부산시에 예산 5억원 투입 준공 앞당겨(국제 7. 6)
* 지역 공동 도급 확산, 관급 공사 대상…「신시가」도 30%적용(국제 7. 6)
* 지하철 공사 한전 지중선 “수난”, 전기 합선 일으켜 화재・정전 사고 발생, 부주의로 훼손 빈발(국제 7. 6)
* 수정 터널 통행 요금 5백~8백원선 될 듯, 올 하반기 착공 98년 개통 예정(국제 7. 6)
* 차량 50만대 돌파, 자가용 승용차 3.5 가구당 1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국제 7. 6)
* 인사, 중구청 7급 이하 도시국 손광일 박홍호 등(국제 7. 6)
* 시 교육청 예산 뒤죽박죽, 올 추경 편성…일선 학교 큰 반발, 기초 교육 시설 투자 뒷전, 체육관 건립에 11억 책정(국제 7. 6)
* 시장특별경제 정책보좌관제, 경제기획원 서기관 등으로 구성된 부산시장 특별경제 정책 보좌관실이 신설되어 7월 6일부터 업무에 들어가(시보 7. 21)
*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접수, 부산시는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기술개발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협약은행의 통하여 년 3%의 금리를 시비로 자원하고 있는 단기저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94년도 하반기 지원계획 확정하고 희망하는 업체를 7월 1일부터 15일까지 각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접수(시보 7. 1)
* 농・어촌특별세 시행 7월부터 정부에서 UR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이에 필요한 자원 조달 위해 향후「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에서도 시행(시보 7. 1)

7. 7
* 석대동 농산물 시장 내년 9월 착공, 엄궁동 서부권 농산물 도매 시장에 이은 동부권 농산물 도매 시장이 해운대구 석대동에 건설(국제 7. 7)
* 재건축 사업 본격 추진, 아파트 8개 지구・단지 180곳(국제 7. 7)
* 부산 부도율 증가세 “주춤”, 지난 6월 중 부산지역 어음 부도율 0.54%로 전월보이 0.03% 하락(국제 7. 7)
* 지하철・교량 건설 늑장, 대규모 시 현안사업 협의 없이 추진, 예산 받고도 시행 못해, 신시가・녹산 공단도 지연 될 듯(국제 7. 7)
* 지하철 순환 버스, 부산 지하철 1호선 4단계 연장 구간 개통 따라 신설된 사하구 다대・장림 지역과 신평역간 지하철 연계 순환버스의 운행 대수가 태부족・이를 이용하는 4천여 주민 큰 불편(국제 7. 7)
* 가덕도에 제철소, 현대 추진 계획서 제출・성사 여부 주목(국제 7. 7)
* 부산시, 인사 미국 파견 김현양 외 4명, 영도구청 시민과 서미자 외(국제 7. 7)
* 임대・수수료 최고한도액 폐지, 부산시는 93년 12월 27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에 이어 동법 시행령이 지난 7월 7일부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동안 부산직할시 고시 제404호 및 부산직할시 고시 129호로 고시된 가정의례 업소의 요금 최고한도액 폐지(시보 7. 1)

7. 8
* 대기 중 NO_2 양정로터리 전국 최고, 기준치 2배까지 검출 부산 환경 연합 조사 지난 해 비해 크게 증가(국제 7. 8)
* 중구 청사 포화 상태, 신축 6년만에 증축 주민 부담 가중(국제 7. 8)
* 해운대 해수욕장 캔 압축기 상시 가동, 일요일 마다 가동 되던 것을 8월말까지 상시 가동(국제 7. 8)

* 통일시대 위한 밀알 되자, 시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 부산시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이 지난 8일 오전 11시 시청 회의실에서 정문화 시장 우병택 의장과 시의회의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시보 7. 11)
* 상수도사업장 순시점검, 정시장 맑은 물 공급 차질 없게 당부(시보 7. 11)
* 부산시, 인사 발전기획단 지방4급 김행양(시보 7. 11)

7. 9
* 학교 주변 폭력 일소 시 교육청 순회지도, 시 교육청 9일 학교 주변 폭력을 없애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매주 2회씩 학교 주변 순회지도 활동 펴기로(국제 7. 9)
* 가덕도 지역 주민 숙원 공사 부실시공, 축조 8개월도 안 돼 방파제 붕괴・도로 균열(국제 7. 9)
* 상해시 땅 제공 조건 중 영사관 부지 요구, 중국 부산총영사관이 중국 상해시의 부지 제공 조건으로 영사관 신축 부지 제공 요구 시가 대책 검토(국제 7. 9)
* 피서객 예고제 실시, 시 자동안내 전화도 운영, 행락객 분산 유치 방안 실시(국제 7. 9)
* 복지시설 수용 노인 자연 보호 행사 가져, 시 후원으로 사단 법인 한국 노인 복이 시설 협회 부산지회가 주관하는 복지 시설 수용 노인 자연 보호 행사 가져(국제 7. 9)
* 제4대 부산지방경찰청장에 황용하 치안감 취임(경찰사 7. 9)

7. 10
* 부산항내「컨」장치장 "초만원",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 물량 대부분이 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을 이용・교통량 과다 발생의 요인으로 지적(국제 7. 9)

7. 11
* 인공 섬 실종 질타, 부산시의회 예결위는 11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첫날 정책 질의(국제 7. 9)
* 인사, 부산교통공단 운영 이사 민양준 외(국제 7. 9)
* 성철스님 만장특별전, 11월부터 시립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관장 윤병용) 개관 16주년 기념으로 성철스님 만장특별전을 개최(시보 7. 1)
* 부산시 문화상 수상후보 추천받아, 향토문화발전 공적 8개 부문, 8월 한달 동안 접수(시보 7. 11)
* 피서철 행락 질서 확립, 산・계곡 등 불법시설물 철거 쓰레기 안 버리고 산림 내 취사금지도(시보 7. 11)
* 여름휴가를 자기계발 기회로, 여성문화회관 등 인기과목 개설 잇달아(시보 7. 11)
* 1백31개 사무 구청위임, 차량・선박에 관한 업무 등, 조례개정안 의회에 제출(시보 7. 11)
* 상수도확장 1단계 92.7% 공정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제6차 상수도확장 1단계 공사가 올 연말 완공목표로 92.7%의 공정을 보인 가운데 원활하게 추진(시보 7. 11)
* 공직자 행락철 기강확립, 시 특별지침(시보 7. 21)

7. 12
* 관광객 유치에 총력, 해운대구 홍보 나서, 해운대구청은 12일 본격 피서철 맞아 관광 해운대를 부산과 서울 등 전국에 홍보키 위해 다각적인 활동 펴기로(국제 7. 12)
* 광안대로 주먹구구 입안, 해상 매립 승인 "감감", 재원 조달 불확실…사업 계획 수정 돼야(국제 7. 12)
* 교통 부담금 대폭 인상, 부산시 교통 유발 부담금 15.6% 올려 건물주 반발 예상(국제 7. 12)
* 부산시, 인사 영도구청 동삼 3동장 정원술 외(국제 7. 12)
* 하수도 바르게 사용합시다, 시, 생활쓰레기 처리 안내 팸플릿 배포, 시는 지난 12일「올・바른 하수도 사용법」을 알리는 대 시민 홍보 팸플릿 25,000부를 제작 시・구・동사무소의 민원실에 배포(시보 7. 21)
* 부산시, 인사 행정6급(시보 7. 21)

7. 13
* 녹산 하수 처리장 신호 공단 제외, 입주업체 미정…공사 분담금 조달 난항, 추가 건설 땐 손실 막대(국제 7. 13)
* 부산시, 인사 6급 공보관실 김진찬 외(국제 7. 13)

7. 14
* 부산시, 인사 강서구 시민과장 권영극 외, 동래구 보건소 서무과장 직대 박종철 외(국제 7. 13)

7. 15
* 해운대~서울 새마을호 개통, 새마을호 열차 개통식이 15일 해운대역 광장에서 열려(국제 7. 15)
* 인사, 부산 교통 공단 기획부장 직대 이준 외 2명(국제 7. 15)
* 에너지 절약 슬기롭게, 고지대 운반 급수 등 총력대처(시보 7. 21)
* 카자흐스탄 NOL 위원장 내부 정시장, 오찬초청, 카자흐스탄 국가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이 아시안게임 부산 유치추진위원회의 초청으로 7월 15일 오전 11시에 김해공항에 도착(시보 7. 21)

7. 16
* 부산 건설업계 숨통, 하반기 2조1천억 공사 발주, 30%지역 공동 도급 규정, 최소 7천억 시장 전망 "탈불황"(국제 7. 16)
* 피서객 수송 대책 막막, 공항・역・터미널 셔틀버스 운행 시급(국제 7. 16)
* 금정산 9월부터 새 단장, 등산로 폭 제한・성곽 출입 통제 실시, 무분별한 훼손 복구(국제 7. 16)
* 372건 정책 반영, 시민들이 편지・전화 및 팩스 이용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한「시민의 소리」청취제 큰 호응(국제 7. 16)

* 부산시, 인사 북구청 6급 사회과 조숙희(국제 7. 16)

7. 18 * 인공섬 공방 흐지부지, 교육청「파행예산」논란, 첫 표결 통과(국제 7. 18)

* 사전 선거 19명 적발, 부산시 선관위 내년 자치제 선거와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출마예정자 19명 적발(국제 7. 18)

* 추경 예산 대폭 삭감, 시의회 분뇨관 공사비 등 백억(국제 7. 18)

* 부산시 상해에 직영 상품 전시관 대중 수출 교두보 마련, 시는 최초의 시 직영 해외상품 전시관을 올 해 말까지 중국 상해에 설치하겠다는 목표로 적극 추진키로(국제 7. 18)

7. 19 * 부산시 주택 공사 차질, 상반기 물량 올 전체의 28%불과(국제 7. 18)

* 절개지 재해 위험, 안전 조치 없이 진입로 공사 강행, 비오면 토사 유실 우려, 아파트 지반 붕괴·주택 매물 "불 보듯"(국제 7. 19)

* 고속·동부 터미널 이전 보류, 시 후보지 2곳 추가…타당성 조사(국제 7. 19)

* 부산시 영도구 인사, 6급 승진 시민과 김양선 외(국제 7. 19)

* "제안사항, 시정에 적극반영", 모니터 요원 상반기 평가회(시보 7. 21)

* 부산시 추경 5천1백89억원 확정, 백산상회 부지매입비증액, 분뇨 이송관 관련 전액 삭감(시보 7. 21)

* 제16회 고교생 합창 발표회(부산교육 7. 19)

7. 20 * 부산 차 부품 업체 호황, 상반기 생산 실적·내수 판매 급신장세(국제 7. 20)

* 일부 품목 계약서에 명시, 아파트 선택 사양 말썽 없앤다, 구체적 규격·명칭 첨부, 부산시 개선안 마련…건설부에 승인 요청(국제 7. 20)

* 부산시, 인사 7급 재무과 조정래 외(국제 7. 20)

* 여객부두 영도 이전,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항 1부두 내 국제 여객 부두가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국제 7. 21)

* 부산음악콩쿠르 대상 부산출신 황성훈 차지, 부산시 주최·부산문화방송 주관, 우수 입상자 축하 연주 성황(시보 7. 21)

* 보훈장학금전달, 육군 군수사, 시화전수익금(시보 8. 1)

7. 21 * 동삼 매립장 관광 공간 조성 해양문화 새장, 손색없는 국제 여객항 복안 부지매입비·교통체증 해소 과제, 5년간 논란 끝에 최종 확정(국제 7. 21)

* 일선 교사 잡무에 허덕, 협조 공문 과다·유해 업소 단속까지(국제 7. 21)

* 삼성-승용차·현대-제철소 밀어붙이기, "정부 허가 사항 아니다" 강행, 삼성 "동시성사 가능성" 점쳐, 재계 "신규 사업 제재 명분 없다"(국제 7. 21)

* 하반기 중기 자금 신청 25일부터 접수, 시는 9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구조 조정 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받기로(국제 7. 21)

* 부산 직원 훈련원 개선 내년 기능대로 승격, 부산 직업 훈련원이 내년부터 다기능 기술자 양성 위한 기능대학으로 승격 예정(국제 7. 21)

* 부산항 민영화 TOC제 필수, 부산항·인천항 등의 항만운영 민영화 오는 95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국제 7. 21)

* 부산시, 인사 6급 서구 이호 등(국제 7. 21)

* 관공서도 '가뭄비상' 냉방기 가동 억제 등 실천, 실내온도 28도 이하 유지(시보 7. 21)

* 에너지절약 범시민 운동, 수요급증 때 냉방기구 사용 자제 당부, 수도꼭지에 분무형 부착, 적극권장(시보 7. 21)

* 소규모 건축물 신고절차 간소화, 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증·개축기준도 완화, 교육시설을 보육시설 변경땐 신고만으로(시보 8. 1)

* 자아성찰·공동체의식도모, 자연 소중함 일깨우고 보호의식 키워, 소년소녀가장 등 대상 문화유적 답사(시보 7. 21)

* 국제화 추진협 발족 민간 주도로 첫 회의, 부산시는 민간단체로써 국제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7월 21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시보 8. 1)

* 아시안게임 본격유치 활동,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를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시보 7. 21)

* 연말 전 구간 개통을 앞둔 동서고가로, 문현동~낙동대교 10분 내 연결, 가야·중앙·전포로 교통난 해소(시보 7. 21)

* 환경오염측정망 운영개선, 24억 투입 감시체제 국제수준으로, 95년에 이동 차량도입 등(시보 7. 21)

* 부산시민, 시정참여도 높아, 부산시는「시민의 소리」청취제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분석, 지난 1월 10일 이 제도를 시행한 뒤 6월말까지 하루 평균 4건씩 총 4백37억을 접수, 긍정적으로 처리되어 시책에 반영된 것은 89.2% 3백72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 의도했던 대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시보 7. 21)
* 자활보호대상자 건강진단, 1차 10월말까지, 1만6천여명 대상, 2차는 11월에(시보 7. 21)
* 내무부·시의회 간부간담회 7월 22일 개최, 개원 3년 동안의 지방의회 운영성과를 분석·내무행정 시책의 방향설명과 시의회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내무부 간부와 지방의회 대표자 간의 간담회가 오는 7월 22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개최(시보 7. 21)
* 자연보호 연찬대회, 22일 시민회관(시보 7. 21)

7. 22
* 부산 경제 활성화 삼성차 유치 최우선, 부산 경제의 활성화 위해선 삼성 승용차 공장 유치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각층에서 강도 높게 제기(국제 7. 22)
* 부산 슈퍼업 경기 시들, 부산 지역 슈퍼 업체 올 상반기 매출 신장률이 평균 9%에 머물러 다소 저조한 것으로 조사(국제 7. 22)
* 장바구니 물가 단속, 부산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매점매석 행위 강력 단속키로(국제 7. 22)
* 뇌염 경보 체제 돌입, 전체 모기 중 절반서 발견(국제 7. 22)

7. 23
* 가뭄 극복 지원 손길을, 부산시·부대 등 영호남 농촌 돕기 본격화, 정부 대책-4백75억 긴급 예산 투입·「극심」지역 암반관정 7백개 개발(국제 7. 23)
* 미분양 아파트에 토초세 건설사 수십억원 부담, 건설사 수십억원 부담, 부산 주택이 처분기간 연장도 불허 "반발"(국제 7. 23)
* 부산 직물 생산 호조,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비 3.2% 늘어나(국제 7. 23)
* 부산항 출입선박 대형화, 중·「러」교역 활발·수출입 물량 급증(국제 7. 23)
* 인사, 부산시 서구청 문화 공보실 직장대 장웅기, 부산 지방 철도청 부산진역 화물과장 석판득 외(국제 7. 23)

7. 24
* 한 해 장비 고향보내기운동 전개, 8월말까지 시·구청 접수창구(시보 8. 1)
* 부산상품, 중남미시장 개척단 파견(부산시정 7. 24)

7. 25
* 태풍 비켜가고 …8월도 찜통, 사상 최악 살인적 폭염과 가뭄으로 저수지가 고갈되면서 수리 안전답까지 타들어 가고 화재 진화용 차량들까지 가뭄 극복에 투입 되는 등 가뭄과 폭염 심각(국제 7. 25)
* 보육시설 부실 운영, 정원 초과·보육비 부당 징수 등 적발(국제 7. 25)
* 생곡쓰레기장 공청회 개최 "환경오염 대책 미비", 시-침출수 피해방지 만전, 주민-일방선정 백지화 주장(국제 7. 25)
* 제7회 부산 비엔날레 세계 젊은 미술 한눈에, 9개국 35세 이하 청년 작가 69명 참가(국제 7. 25)
* 폭서·파업 후유증 이용객 격감, 부산역 개설 이래 첫 승객 유치활동 벌여(국제 7. 25)
* 컨소시엄 대학지정, 시, 산학협동지원, 부산시는 7월 25일 컨소시엄 대학으로 신청한 5개 대학을 최종 심의한 결과 경성대와 해양대 2개 대학을 선정했다(시보 8. 1)
* 부산상품 중남미시장 개척 나서, 브라질·멕시코 등 순회상담, 대리점 계약·합작투자 기대(시보 8. 1)

7. 26
* 지하철 2호선 민락~수비 간 조정 수영 비행장 밑 통과, 시 곧 공단과 변경 협의, 수영 이전 따른 무역 센터 등 개발 대비(국제 7. 26)
* 가락세무서 내달 개서, 부산시 강서구와 김해시군을 관할한 가락 세무서가 오는 8월 중순께 문을 열고 본격 업무 시작(국제 7. 26)
* 부산 철강업「엔고」호황, 2백14만t 생산 전년 8.2%증가(국제 7. 26)
* 인사, 부산시 6~9급 서급 정현대·안승태·이종재·손진현 외(국제 7. 26)
* 부산 투금사 경영난 심화, 5개사 당기 순익 4.4%감소, 고유영역인「단자」도 위축 "울상"(국제 7. 26)
* 국교생 천7백명 문맹, 시 교육청 실태 조사 구구셈 불가능도 1천8백여명(국제 7. 26)
* 부산시 제한 급수 등 비산 급수 대책 마련,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낙동강 원수의 수량 부족 및 취수중단 사태에 대비 비상 급수 대책 세우고 비상 급수 상황실 운영키로(국제 7. 26)
* 콜레라 방역 비상근무, 보건 당국의 콜레라 주의보 발표에 따라 26일부터 콜레라 특별 방역 비상 근무 체제 돌입(국제 7. 27)
* 부산시, 인사 보건 6급(시보 8. 1)

7. 27
* 남포동에 4백평 대형 서점, 7층 전관매장「문창서적」개점, 전산화 완비…지역 문화 밑거름(국제 7. 27)
* 양산·김해일부 부산 편입, 9월 정기 국회 처리 요망, 민자 부산시 지부 시역 조정안 중앙당에 제출(국제 7. 27)

* 부산 시민세 부담 가중, 올 지방세 징수 목표액 연초보다 1천억원 가까이 증액 시민 부담 가중(국제 7. 27)
* 제7회 국제 청년 미술 대전 「부산비엔날레」 개막, 진취적 예술혼 한자리, 8월 16일까지 문화회관 전시실(시보 8. 1)
* 전국에 콜레라 주의보, 시 비상 근무반 편성…순찰·방역강화, 전국에 콜레라 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부산시도 7월 27일부터 비상방역체제로 들어가는 등 예방대책 마련(시보 8. 1)
* 제7회 부산비엔날레(~16)(부산시정 7. 27)

7. 28
* 자원 재활용센터 주민 외면, 진구청 관리 업무도 이원화…대책 시급, 교통 불편 이용률 저조(국제 7. 28)
* 부산시, 인사 광안대로 건설 사업소 변도생 외(국제 7. 28)
* 용두산 미술관 제대로 된 전시 아쉽다, 일관성 없는 기획…예산부터 독립을, 회고전 일색…시대 흐름은 반영 못 해(국제 7. 28)
* 먼지 날려 생활 불편, 남부 하수 처리장 흙더미 산적(국제 7. 28)
* 제척지 정비 본격화, 재개발·토기 구획정리·자체 정비 등(국제 7. 28)
* 농산물 공급 대책 마련, 시, 가뭄으로 값 올라 가격 안정 기해(시보 8. 1)

7. 29
* 통계로 본 구한말 경제·사회상, 84년 전 부산 인구 9만6천명, 1920년 부산에 첫 상수도 설치, 쌀 1가마는 4원·닭 스무 마리 값, 경남 백44만명 10.4% 농업 종사(국제 7. 29)
* 부산 기업 증시 자금조달 부진, 회사채 발행도 사채 상환 활용, 재투자 전무 생산 증대 "빨간불"(국제 7. 29)
* 부산시 하수 "절반 처리", 장림·수영 처리율 45%…오폐수 그냥 방류 오폐수 그냥 방류(국제 7. 29)
* 노포역에 대규모 환승 센터, 시 기본계획 확정 고속·동부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15층 규모 상가 복합 건물도(국제 7. 29)
* 부산 비엔날레 개막 젊음·기지·실험 "축제", 수준 높아지고 규모도 커져, 현실 비판 주제 줄고 「설치」 작품 급증(국제 7. 29)
* 인사, 부산시 도로 보수 계장 옥무이 외(국제 7. 29)
* 법조타운에 동래구 청사, 도개공 토지 이용 계획 확정 아파트 2천여세대 건립, 법조관련 면적 48%…97년 착공(국제 7. 29)
* 여름밤 식혀 줄 야외무대 「썸머 페스티벌」, 부산시립예술단, 시민과 함께하는 신명마당 꾸며(시보 7. 21)
* 부산시립 예술단 「94 썸머 페스티벌」, 문화회관장 시민 3천여명 참관 「열린무대」 29일 열려, 국악·양악·조화… 「돌아와요 부산항」 합창(국제 8. 1)
* 부산시, 인사 토목 5급 도로 보수 계장 옥무석(시보 8. 1)
*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개관(부산시정 7. 29)

7. 30
* 부산 좌천·범일동 재개발 본격 추진, 전체 3만여평 개발 1·7지구 착공 준비 끝, 우성·한신 아파트 건립(국제 7. 30)
* 부산 제조업체 대출 급증, 상반기 금속·기계 업종에 자금 집중 "호황"(국제 7. 30)

8. 1
* 부산·경남 임협 타결 마무리, 타결률 80% 예년보다 호조 사실상 마무리 단계(국제 8. 1)
* 부산 산업 위축 가속화, 90년 이후 지수 하향·전국은 증가세(국제 8. 1)
* 불법 주차 견인 늘어, 올해 불법 주차로 견인된 차량이 크게 늘어 일선 구청의 계속된 계몽 활동에도 운전자들의 주정차 질서 의식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국제 8. 1)
* 화승 실업 노동자 재취업 적극 추진, 부산지방 노동청 폐업 확정된 신발 업체인 화승실업 근로자 9백여명에 대해 재취업 적극 추진키로(국제 8. 1)
* 민관합심…방학청소년 건전육성 노력, 탈선 예방·저소득층 학생 학습능률 향상도모(시보 8. 1)
* 환경미화원 해외여행, 부산시는 환경 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차량과 쓰레기 수거 장비 등을 대폭 보강, 장기근속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보내는 등 사기를 올려주기로(시보 8. 1)
* 부산시의회 「의회보」 3호 간행, 주요의정활동과 소감 등 실어, 부산시의회는 개원 3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의 주요의정활동과 의원들의 소감 등을 모아 「의회보」 제3호를 발간(시보 8. 1)
*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 지난 3월, 부산시는 1일 강서구 신호동에 조성중인 94만여평의 신호지방공단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지난 3월 21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의뢰, 현재로서는 사전에 용지분양이라든가 업종유치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시보 8. 1)
* 범시민 10% 절수 운동 전개, 낙동강 남조류 단비로 해소(시보 8. 1)
*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기반 신호지방 공업단지, 자동차산업유치위한 계획추진,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 수립해야(시보 8. 1)

* 쓰레기 종량제 정착단계 - 영도구전역・부산진구일부지역시범실시-, 수거량 크게 감소…재활용율은 높아, 9월 서구까지 확대…내년부터 시전역서 실시, 구・동 단위 소형소각로 설치 적극권장(시보 8. 1)
* 유행성 눈병예방 유의, 시, 물수건 등 사용 말도록 당부, 부산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수영장을 비롯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유행성 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행성 눈병예방에 유의하도록 당부(시보 8. 1)
* 제3회 부산한국화전 작품공모 8월 31일까지 접수 부산시와 예총부산시회가 주최하고 부산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제3회 부산한국화전의작품을 공모(시보 8. 1)
* 부산시립박물관, 성인박물관 강좌 열어, 부산시립박물관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제10기 성인 박물관 강좌를 박물관 강당에서 개최(시보 7. 21)
* 청소년 수련소로 황령산 야영장 이름 바꿔, 부산시 황령산 야영장이 지난 7월 19일 부산직할시 의회 제33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명칭이 황령산 야영장에서 부산직할시 청소년 수련소로 변경, 8월 1일 시행(시보 8. 11)

8. 2
* 동북아 5국 환경 대회 내년 부산서 개최, 시 해양 자원 공동 개발 등 제안 계획(국제 8. 2)
* 전국 체전 불참 종목 최다, 마라톤 등 12개 종목…「3위」 먹구름, 체육회 방관…앉아서 5백~1천점 손해 불가피(국제 8. 2)
* 현상공모 입선작품 확정 시상,「시민의 날」 행사, 발전방안 모색, 부산시가 지난 5월 25일부터 한달간 현상공모한「시민의 날」 행사, 발전방안 현상공모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8월 2일 시청 회의실에서 거행(시보 8. 11)
* 나라꽃 무궁화 잔치,「배달」 등 1만5천그루 선보여(시보 8. 11)
* 부산 업체, 중남미 수출활기, 신발원・부자재 상담 쇄도, 문구・의료용품 등도 인기(시보 8. 11)

8. 3
* 법조청사 부지 분양가 이견, 부산시-법원・검찰 평당 백만원 차…이전차질 우려, 예산 이미 요청…추가확보 난항(국제 8. 2)
* 부산항 민영화 노사정 협의회 월말 가동, TOC제 따른 실업 대책 등 마련(국제 8. 3)

8. 4
* 부산항 공사 시공 평가 "우수", 해항청「철도 복선」을 내년 표창 대상(국제 8. 4)
* 부산 초중고생 6명 중 1명 "비만", 초・중・고 비만 학생 수 매년 급증・영양 섭취의 편중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국제 8. 4)
* 양수장 오염 농민 피해, 김해 안동 공단 오・폐수 마구 방류(국제 8. 4)
* 시 청소년 환경교육 을숙도 매립장 견학(시보 8. 11)
* 시립의료원 공매 새 청사 거제동 이전, 부산시에서 지방공사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립의료원이 지난 8월 4일 재산 매각 입찰공고를 했다(시보 8. 11)

8. 5
* 삼성차 유치 표류, 부산시 방관…현대 제철소도 지지부진(국제 8. 5)
* 해수욕장 인해 1천만명 돌파, 부산시 7월 한달 5곳 집계, 20년만의 피서 진기록(국제 8. 5)
* 부산 공단 경기 상승세 "뚜렷", 신평・장림 2/4분기 생산・수출 호조(국제 8. 5)
* 황령산 야영장 명칭 시청소년 수련소로 개칭, 남구「황령산 야영장」의 명칭「시청소년 수련소」로 바껴(국제 8. 5)
* 상습 침수지 90% 미정비 태풍 땐 재해 예고, 본격 태풍 철 앞두고 부산 지역 상습 침수지 90%가 정비 안 돼 호우 동방 태풍의 내습 때 큰 피해 우려(국제 8. 5)
* 수산물 임의 상장제 96년 전면 시행, 당초 97년서 1년 당겨 10월부터 첫 단계 적용(국제 8. 5)
* 전국 시도 국제자문대사회의, 부산에서 개최, 효율적인 지방의 국제화 방안 토의를 위해 전국 시・도 국제자문대사회의가 8월 5일~7일까지(시보 8. 11)
* 제13회 전국 해양축전 및 제3회 국제청소년 해양축제(부산시정 8. 5)

8. 6
* 시정종합정보센터가동, 6일부터 내무장관 참석 개소식(시보 8. 11)
* 신호공단 업종변경추진, 시 승용차산업 유치 쉽게(시보 8. 11)
* 부산 해외 시장 개척 "상담액 1억불", 부산시와 대한 무역진흥공사 부산 무역관이 공동 추진하는 각종 해외 시장 개척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계약 상담액 1억달러 돌파 예상(국제 8. 6)
* 뜻 깊은 광복 사업 속속 결실, "음지의 독립 운동가를 찾습니다", 노다이사건 연루자 등 69명 명단 확보(국제 8. 6)
* 미수령 국민 연금 4억여원, 올 들어 전국선 50억, 부산 2만8천9백명 수급권 소멸(국제 8. 6)
* 부산 중기 가동률 신장, 상반기 85%…금속업종 최고 기록(국제 8. 6)
* 시정종합정보센터 개소(부산시정 8. 6)

8. 8　* 삼성차 유치 시민운동, 「부산을 가꾸는 모임」 결성 본격 가동, 경실련 등 20단체 연대, 여론 조사·1백만명 서명도 추진(국제 8. 8)
* 부산 다대포항 개발 내년 본격 공사, 세계개발은 서 차관 도입, 민자 유치·선석배치 완료(국제 8. 8)
* 부산 업계 중남미 수출 활기, 파나마와 백50만불 계약 등 거래 호조(국제 8. 8)

8. 9　* 백년대계 "사람교육" 큰 물결, 각급교·단체들 인성 교육 비중, 교사·학부모 함께 의식 개혁(국제 8. 9)
* 강서 지역 등 상속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시는 9일 부산 강서구 가락동과 녹산 천가동 지역에서 지난 85년 12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상속된 토지 농지 등 부동산 대해 실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국제 8. 9)
* 수학여행 점차 폐지, 부산 초·중·고 유람·관광 일색 교육 효과 퇴색·연례행사로 변질 된 수학여행을 점차 폐지키로(국제 8. 9)
* 뇌염 발생 예방 강화키로, 뇌염모기 밀도 높아, 서식처방역(시보 8. 22)
* 대성동 자유마을 어린이 초청 평화 통일 기원 대회(부산교육 8. 9)

8. 10　* 국제 우편 수취인 부담 브라질 등 11개국 추가, 부산 체신청은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제도 취하 국가를 현재의 19개국에서 30개국으로 늘려 확대·시행(국제 8. 10)
* 부산 민방 한창 확정, 대구 청구·광주 대주건설·대전 우성사료(국제 8. 10)
* 내년 국고 지원 20% 밑돌듯, 부산 현안 차질 불가피, 5천9백억 신청·천3백억 최종심의(국제 8. 10)
* 부산항 「현안3제」 해결 시급, 해항청 예결위에 건의, 내년 기본 설계비 확보 공사 추진을(국제 8. 10)
* 쓰레기장 폐수 줄줄, 을숙도 매립장 처리시설 구멍 늑장 완공에 정화능력도 부족(국제 8. 10)
* 인사, 부산체신청 창원 우체국 업무과장 김영철(국제 8. 10)
* 태풍(더그)피해예방대책 강화, 시 대책본부 위험지 안전점검 마쳐(시보 8. 11)
* 「복지의 달」 상징마크 공모 시, 9월 1일부터 사회과서 접수(시보 8. 11)

8. 11　* 「컨」 환적 화물 처리 '복잡', 부산항 외국항은 간략 전산화 등 개선을 선주협·해외 현지 조사 보고(국제 8. 11)
* 부산대 「국책 대학」 선정, 교육부 발표 창원·경북·영남대 등 8개 대 확정, 향후 5년간 2천억 지원(국제 8. 11)
* 직판장 확대 시급, 공매 물량도 더 늘려야, 부산 기존 판매장 홍보미흡 실적 저조(국제 8. 11)
* 소신 없는 교통 행정 체증만 약화, 범어사-우회로 통행방식 미정, 사상로-폐쇄 시기 10개월 미뤄(국제 8. 11)
* 황령산 야영장 여름철 이용 저조, 샤워장·수영장 등 편의시설 적어(국제 8. 11)
* 가덕도 공황 "계획 없음", 정부-중장기 청사진서 김해만 확장 방침, 영종도·속초 등 5곳만 신설(국제 8. 11)
* 광복회관 5년째 끌어, 시 50주년 기념사업에도 반영 안 해(국제 8. 11)
* 시에 편입된 가락동 등 부동산, 실소유자에게 이전 등기가능, 녹산 천가동도 9월 1일부터 확인서 발급(시보 8. 11)
* 낙동강 수계 수질자동측정망, 환경관리청 19곳에 95년부터(시보 8. 11)
* 생활안정에 도움 커, 상반기 저소득층 취로사업 분석…3백14건 집행(시보 8. 11)
* 주례 산복도로 8월말개통, 사상로 폐쇄대비, 시내버스 노선조정(시보 8. 11)
* 옛 백산상회 원형복원, 중구청 15억 투입 독립기념전시관으로 활용(시보 8. 11)
* 쓰레기 침출수 방지위해 「비스타 공법」으로 지반강화 - 을숙도매립장 - 동아대에서 충분한 기술검토, 현장 여건 경제성 등 고려채택(시보 8. 11)
* 「크린업 타임제」 운영, 시 피서지 쓰레기 안내 방송 따라 수거(시보 8. 11)

8. 12　* 가덕도 신항만 건설 박차, 해항청장 내년 정부예산 25억원 확보 시사(국제 8. 12)
* 삼성차 유치 운동 확산, 부산지구 청년회의소 본격가세(국제 8. 12)
* 「위락」 사용료 최고 400%인상, 부산시 물가안 등 "앞장", 7개안 확정 시의회 상정 후 연내 시행(국제 8. 12)
* 94 바다예술제 파도소리 어우러지는 '바다·빛·인간의 만남', 부산대표적 문화축제 12~15일 해운대 백사장에 다채로운 무대마련(시보 8. 11)
* 중국 교주시 부시장 일행환담, 안명필 부시장은 8월 12일 오전 11시 부시장 집무실에서 중국 산동성 교주시 유극선 부시장 일행 5명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시보 8. 22)

8. 13　* 신발업 수출 위축 여전, 부산 L/C 내도액 4개월째 내리막길(국제 8. 13)
* 구청 로비에 전시장 마련, 금정구청 청사 로비를 전시장으로 단장, 주민들에게 예술 작품 감상 기회 제공(국제 8. 13)
* 쓰레기 종량제 확대, 쓰레기 종량제 관급 봉투가 분해되지 않는 비닐을 사용해 새로운 공해 문제를 일으켜 탄산칼슘 성분 20%이상 함유를 의무화 하는 종량제 봉투 개선방안 마련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국제 8. 13)

* 부산 시의회 시 금고 은행 변경 제기 주목, 민자 부산 지부 중진 위원장 기용설 갑론을박, 진정추 “보안법 철폐”, 김위원장 평가 엇갈려, 새 선거법 개선안 건의(국제 8. 13)
* 청소년 수련장 이용료 대폭 올려, 일반인 1백50%까지, 시설 개선 없어…「청소년」은 그대로(국제 8. 19)

8. 14
* 부산시가 가장 부유, 가장 부유한 도시 부산, 가장 가난한 도시 광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가장 많은 곳 과천(국제 8. 14)
* 55번 버스 충무동까지 연장, 동부지원~사직운동장 노선 신설(국제 8. 14)

8. 15
* 부산의 중심 동래로, 부산의 뿌리라 일컬어지면서도 개항 이후 시세 팽창 과정에서 그 역할이 축소 돼 왔던 동래가 지난 13일 국제신문의 거제동 신사옥 입주를 시발로 도약의 힘찬 발걸음 시작(국제 8. 15)
* 광복 50주 행사 겉치레, 상징물·학술행사 인색…일회성 우려(국제 8. 15)
* 정부 95년 2백억 융자 지원, 부산항 제4단계 컨테이너 부두 건설 정부 융자금 지원 예정으로「컨」부두 공사 활기(국제 8. 15)
* 중기구조 조정자금 축소, 시 재원 확보 안 돼 정부 지원 줄어들듯(국제 8. 15)
* 국기 달기 운동 활발, 제49주년 광복절 맞아 부산시 및 각종 시민 단체에서 대대적인 국기 달기 운동 벌여(국제 8. 15)

8. 16
* 청소년 문화 교실 운영, 여름 방학 맞아 청소년들에게 놀이 문화 참여 자리 제공·건전한 욕구 발산 위해 문화 교실 운영(국제 8. 16)
* 생곡매립장 반대 방화 시위, 시가 주민 합의 전 진입도로 공사 기공식 강행하자 주민들 현장 사무소 불태워 사태 악화(국제 8. 16)
* 부산 사하천 관리 ‘말로만’, 감전천 오염 기준 14배, 정화·정비책임도 기업에 떠넘겨(국제 8. 16)
* 해운대 신시가지 제척지 정비 사업 구청에 떠넘기기, 재정난·인력 부족 난색, 지역 의견 수렴도 무시·주민 반발(국제 8. 16)
* 부산시 공무원직 여성 고학력 급증,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시 전체 공무원 14,300여명 가운데 여성인력은 3,146명으로 전체의 22%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국제 8. 16)
* 가덕도 공원지역 기본계획 안 세워 편의 시설 등 조성 차질, 공원지역으로 고시 된 뒤 기본 계획 세워지지 않아 편의 시설 조성과 환경 정비 작업 등 각종 계획 차질(국제 8. 16)
* 부산의 중심 동래로, 5대 권역 개발 “동래 환골탈태”, 행정 법조타운·관광 위락 단지 등 조성, 아주 경기 유치·국제 스포츠센터 부상(국제 8. 16)
* 엄궁 건자재 단지 9월 첫 삽, 부지 5만3천㎡…내년 10월 완공 예정(국제 8. 16)
* 화물차량 난폭운전 단속, 시경 고속도로 등서(시보 8. 11)
* 전국 음악 교육 협회 부산 대회(부산교육 8. 16)

8. 17
* 삼성차 유치 재촉구 활발, 부산 상의-결의대회…건의서 채택, 30개 중기 협력업체 신청,「투자유치단」대책 회의…“전망 밝다”(국제 8. 17)
* 부산-마산 경전선 직복선화, 시 설계 용역비 예산 방영 요청 조기 추진 방침 따라(국제 8. 17)
* 인사, 강서구 건설행정과장 안규환 외(국제 8. 17)
* 일청소년 문화센터 일행 부산시를 예방(시보 8. 22)

8. 18
* 부산 3개구 늘린다, 김해구·양산구·송정구, 장유·웅동은 강서구 편입, 시 행정구역 조정안 26개 읍·면·동 시역 확대(국제 8. 18)
* 교통체계 재정비 발등의 불, 도로망 확충 답보 서면까지 연쇄체증, 주택·하천개발 시 직접 투자 확대해야(국제 8. 18)
* 재산권 제한 철폐 요구, 사하구 편입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국제 8. 18)
* 청소년 선진지 견학 시, 소년가장 등 대상, 부산시는 여름방학동안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로 격려하고 우리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기 위해(부산시 8. 11)
* 21세기 국제 관문 도시 역할 중점, 시 95년도 업무계획안 수립착수, 서부산권 종합 개발 등 도시 기반 확충(시보 8. 22)

8. 19
* 중구 종합 복지관 개관, 천주교 부산교구 위탁 운영(국제 8. 19)
* 중앙로 버스 차선제 부산 10월로 연기, 시는 당초 9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중앙 버스 전용 차선제 확대 실시를 오는 10월 연기키로(국제 8. 19)
* 새 항만 시설 6백만평 고시, 부산해항청 10월부터 묘박지로…체선 해소 기대(국제 8. 19)

* 삼성차 유치 운동 계속 확산, 북·서구 JC결의 잇따라, 금정구 JC내일 대회 개최(국제 8. 19)
* 부산 기업 이전 주춤, 지난해보다 26사 감소, 새 설비 자금 부족·공장터 매각 곤란(국제 8. 19)
* 부산 해외 직접 투자 1억6천불, 베조-수산-무역업 순조(국제 8. 19)
* 자동차세 체납액 급증, 2/4분기 51억…전체의 10%웃돌아(국제 8. 19)
* 간부 1일 동장제 운영, 일선 업무 파악…지역 민원 수렴(국제 8. 19)
* 청소년 중창대회 성료, 부산시장상에 부산진고「진하모니 중창팀」아동청소년회관주최(시보 8. 22)
* 무료 시민 문예 강좌 개설, 부산시 주최, 8월 9일부터 매주 금요일(시보 8. 11)
* 택지소유상한법률시행령개정, 부산시는 부산 8월 19일부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택지소유 개정됨에 따라서 택지소유 부담금을 재종정해서 1천6백77건 3백47억원을 부과(시보 8. 12)
* 중구종합복지관개관, 대청동에 탁아소 등 갖춰(시보 8. 22)
*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개관(부산시정 8. 19)

8. 20
* 부산 2002년 월드컵 후보도시 지정, 문체부 서울 등 8개 도시 1차 개최지 선정, 경륜은 춘천·의정부시로 결정(국제 8. 20)
* 국교 방과 후 특활 과외, 부산 2학기부터 컴퓨터 등 무료 교육, 자원단체 등이 실시(국제 8. 20)
* 부산 미술 대전 개선안 토의, 고질적인 표절 시비, 운영·심사위원 한정, 지나친 장르 세분화, 기성작가 출품 유도 시상금 인상 의견도(국제 8. 20)

8. 22
* 무궁화 대잔치, 부산시 사회체육센터와 무궁화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 2회 무궁화대잔치가 22일 올림픽 기념 국민 생활관에서 열려(국제 8. 22)
* 부산시 예산 편성 허술, 수천억 사업비 해마다 이월, 올 백75건…전체의 14%, 공사 발주 지연·사전 준비 미흡이 원인(국제 8. 22)
* 삼성차 유치 40만 서명, 부산 여성 단체협 "10만 회원 적극동참" 결의(국제 8. 22)
* 해운대 해안도로 개축,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유실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현 해수욕장 해안도로 옹벽 전 구간이 수로 등을 갖춘 계단식으로 전면 개축(국제 8. 22)
*「1사1하천 살리기 운동」강화, 시 백47개 업체 지정…수질오염정화(시보 8. 22)
* 언론사진의「환경보존캠페인」에 부산시도 참여, 샛강 살리기, 그린 카우트 운동 등 참가시민을 환경모니터 요원 위축(시보 8. 22)
* 부산시, 국비 보조금 확보비상, 국회와 중앙부처에 강력요구(시보 8. 22)
* 동부권 농산물 도매시장, 부산시 97년 완공목표로 추진,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보호(시보 8. 22)
* 부산종합 화물터미널 공사순조, 1천2백72억 투입, 96년 10월 완공목표(시보 8. 22)
* 자치구, 해외 투자환경 눈 돌려, 국제 도시 간 자매결연 등 계기로 공업기술·관광 사업 등 다양(시보 8. 22)
* 가덕도 보호대책 마련, 강서구 5억 들여 자연경관 보존(시보 8. 22)
* 개인택시면허 자격요건 강화, 시 사업용5·자가용10년 무사고로(시보 8. 22)

8. 23
* 주차장 셔틀 버스 중단, 시민 이용률 저조…운영 계획 백지화(국제 8. 23)
* 부산에 1급 식수 공급, 시민들은 빠르면 오는 97년말부터 1급수질의 식수를 염가로 마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국제 8. 23)
* 구의회 일정 채우기 급급, 임시회 억지로 늘려, 회기 60일서 80일로 변경, "구정논의보다 증액된 일비 염두" 비난(국제 8. 23)
* 범시민 운동 청와대 움직였다, "부산 경제 활로" 인식 확산, 국제 경쟁 제고 논의·본사 캠페인도 주효(국제 8. 23)
* 구포 방향 상행선 분산 운행,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인 북구 모라동 평화 장비~주례3거리 간 사상로를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통제키로 한데 이어 사상으로 버스노선 조정안을 최종 확정(국제 8. 23)
* 교육자금전시회 개최, 시 교육 연구원도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을 위한 제26회 교육 자료전시회 개최(국제 8. 23)

8. 25
* 버스 전용 차선제 실효 개선 대책 시급, 4차선 택시 불법 주차, 주행속도 향상 안 돼…교통사고도 빈발(국제 8. 25)
* 신호 공단개발 기본 계획 확정, 삼성차부지 47만여평, 5만평 연관 산업 유치(국제 8. 25)
* 임금 수준 아직도 열악, 부산·경남 1백64사5천여명「최근」미달(국제 8. 25)
* 가덕도에 제2삼성차, 대우도 신호에 차 부품 공장, 삼성 그룹계획 1·2공장 10조 투입…신항만 등 건립(국제 8. 25)

* 제26회 교육자료 전시회(부산교육 8. 25)

8. 26 * 부산에도 텔레마케팅 센터, 11월까지…업체・일반인 통신 서비스, 씨티은 이미 활용・고객에 편의제공(국제 8. 26)

* 「시민의 소리함」 큰 호응, 올 4백92건 제안 접수…97% 시정 반영(국제 8. 26)

* 삼성차 부산 유치 시민 95%가 찬성, 「부산을 가꾸는 모임」 여론 조사 결과, 경쟁력에 도움…시역확대 필요(국제 8. 26)

* 가덕도 신항만 개발 차질, 내년 예산 제외・부산항엔 6백63억 배정(국제 8. 26)

8. 27 * 국회는 부산서 개최 검토, 북한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반납, 중・일 권유…경기장 부족・시일촉박 내년은 불가(국제 8. 27)

* 해운대 관광특구 지정, 정부 가덕도 등 4곳도 유흥업소 24시간 영업 허용(국제 8. 27)

* 산폐물 소각장 첫 설치, 부산 「부산환경개발」 신평에 3백t 규모(국제 8. 27)

* 대 인니 경제 교류확대, 부산시 수라바야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계기로 경제 교류 확대 기대(국제 8. 27)

8. 29 * 부산-수라바야시 결연 인니 최대 항구 도시, 부산시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와 자매결연 맺어 상호 발전 및 교류 협력 적극 추진키로(국제 8. 27)

* 부산 경제 활로 큰 기대, 시・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자매결연(시보 9. 1)

* 인도네시아 수라바야市와 자매결연(부산시정 8. 29)

8. 30 * 해외 통상 업무 강화, 부산시 국제 통상 협력실 「통상위」, 전문 연구원 6명 채용, 중기・경제단체와 공조(국제 8. 30)

* 부산 기업 해외 투자 활발, 인도 등 제조업 중심…건수 79% 증가(국제 8. 30)

8. 31 * 김해・양산 부산 편입, 정부 행정 구역 개편안 울산시・군 통합 직할시로, 동래・남구 등 분구 검토…경기도 분할 취소(국제 8. 31)

* 인사, 부산 교육청 승진 <행정 5급> 이홍렬 해운대 도서관 외(국제 8. 31)

* 동서고가로 접속도로 개통(시보 9. 1)

* 해운대 관광 특구로 지정, 부산 해운대 중심권과 송정해수욕장 일대 1백60만6천6백평이 8월 31일자로 관광특구로 지정고시(시보 9. 1)

* 동서고가로 접속도로 개통(부산시정 8. 31)

* 해운대 관광특구 지정(부산시정 8. 31)

9. 1 * 시민 절반이상 주말 집에서, 부산시민 절반 이상이 주말에 TV를 시청하거나 부족한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남(국제 9. 1)

* 첫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 감천항에 전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이 서구 암남동 감천항 준설토투기장 4만평 부지에 내년부터 착공돼 99년말 완공될 예정(국제 9. 1)

* 중앙-지역건설사 「짝짓기」 돌입 광안대로 공사비 5천1백억 확정, 부산시 광안대로 건설사업소는 총연장 7.6km에 달하는 광안대로 공사비를 5천1백43억원으로 확정(국제 9. 1)

* 추석 수산물 유통 대책 추진 부산시 현장 물가 지도실시, 부산시는 1일 추석 성수기를 맞아 조기・오징어・명태 등 수산물의 수급・가격안정대책을 마련(국제 9. 1)

* 부산헌혈 전국 최하, 93년도 부산의 헌혈실적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 목표량의 78.2%다, 94년도 역시 지난달까지의 실적은 연간목표 16만 유니트(병)중 6만2천2백46 유니트를 기록(국제 9. 1)

* 부산 연제구 신설, 시 동래구 분구안 확정 보고(국제 9. 1)

* 27개 사업 7천4백억원, 광안대로・녹산공단 진입로 등 낙후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시보 9.)

* 분쟁조정 신속처리 시 환경오염조정위, 헌법35조에 따라 행정 구제 수단인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이 활성화(시보 9. 1)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안」 상정, 부산시 제34회 임시회가 9월 1일부터 10일간(시보 9. 1)

* 비상식수원 개발필요, 부산시는 시민들에 대한 맑은 물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상수도의 취수원을 양산군 원동면에 건설할 계획을 추진(시보 9. 1)

* 「쓰레기종량제」 전역확대, 사하구・강서구 제외, 쓰레기 종량제가 9월 1일부터 부산서구를 시작으로 부산시 전역에 확대 시행(시보 9. 1)

* 부산시립예술단, 가을 여는 소리로 다채로운 무대 꾸며, 수원시립합창단과 조인트 콘서트, 창단 10주년 기념, 국악페스티벌(시보 9. 1)

* 사상로 버스 노선 조정, 지하철공사로, 부산시는 지하철2호선 1단계 공사구간인 북구 모라동 평화정비~주례3거리 간 사상로 5.3km를 9월 1일부터 전면 통제키로 한데이어 이 일대를 운행하는 버스 노선 조정안을 최종확정(시보 9. 1)
* 자동차공장부지 47만평, 시 신호공단 기본계획 확정(시보 9. 1)
* 보육시설 절차완화, 시 허가를 신고만으로(시보 9. 1)
* 위락시설 소방안점 점검, 시 소방본부 룸살롱 등(시보 9. 1)
* 시민의 소리함 호응 높아, 시 공원 등 11개소 추가 설치(시보 9. 1)
* 선물세트 값 동결 부산시는 선물세트 판매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키로(국제 9. 2)
* 추계도시환경정비 10월말까지 「밝고 깨끗한 부산」 조성(시보 9. 12)

9. 2
* 남녀고용평 등 정책 간담회 참석, 2일 정문화 시장(시보 9. 1)
* 무료 시민 문예 강화, 부산시 주최 부산문인협회주관의 무료 「시민 문예 강좌」 9월 2일 강연은 오후 7시부터 강은교 시인의 「위무와 소망의 문학」 이문걸 시인 「메타언어의 현상학」(시보 9. 1)
* 감천항 공영 수산물시장·유통 선진화 확립 큰 획, 오는 95년 착공·99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산시의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 시장은 수산물 유통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국제 9. 2)
* 광안대로 공사 수주 혼탁, 총 공사비 5천1백40억원 규모의 광안대로 건설사업이 서울의 1군 대형업체들 간의 나눠먹기식 입찰로 전락하고(국제 9. 2)
* 「공산품 유통관련 법률」 입법반대 결의 부산 재래상인 큰 반발, 부산시 재래시장 상인들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의 「공산품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에 적극 반대하고 나서(국제 9. 3)
* 교토 부산시 일행환담, 국제신문사옥 개관기념참석(시보 9. 12)
* 영도구 신청사 개청(부산시정 9. 2)

9. 3
* 부산 식수 비상, 오륜 정수장 3일 생산중단(국제 9. 1)
* 배내골 일대 투기 극심·부산시 「생수댐」 보상비 막대, 부산시가 생수시판 및 비상식수원 확보를 위해 댐을 축조할 예정인 경남 양산군 원동면 배내골 일대가 지난 90년을 전후해 부산시내 일부재력가들의 극심한 땅투기로 지가가 크게 올라(국제 9. 3)
* 용지 분양률 저조 신시가 7.6%…기반시설 차질, 해운대 신 시가지내 상업용지 등 각종 민간분양용지의 분양률이 7.6%에 그쳐 신시가지 기반시설 조성 및 광안대로 건설 사업에 차질이 예상(국제 9. 3)
* 모범택시 가격기준완화 친절서비스 대해 우려, 오는 12월부터 본격 운행될 모범택시 운전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선발 운전자 수도 크게 줄어들어 모범택시 도입취지인 친절서비스를 저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국제 9. 3)
* 부산 수출 증가 7월 전월 비 17%, 지난 7월 중 부산지역 수출실적은 금속·기계·전자제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국제 9. 3)
* 일본 시가시와 교류추진, 동래구 직원상호교류·체육 등(시보 9. 12)

9. 4
* 시 지방공무원모집, 8월 16일~19일 원서접수(시보 8. 11)

9. 5
* 화명 2지구 44만평 본격 택지 개발, 44만평에 달하는 부산 북구 화명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 추진(국제 9. 5)
* 92년 소음치로 피해지역 지정·김해공항 인근주민 반발, 부산지방항공청이 김해공항인근 수음피해지역의 소음재측정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으로 지난 92년 측정한 소음치를 기준으로 교통부에 소음피해지역지정 고시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국제 9. 5)
* 안희제 선생 장모 계하씨 할아버지 유품수집에 주력, 계하씨는 내년에 복원될 백산상회를 위해 친척들과 연락·이곳에 전시할 자료들 수집 중(국제 9. 5)
* 삼성차 부산유치 총력전, 삼성차 부산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부산시의회 재무산업위원회가 결의문을 채택(국제 9. 5)
* 공공 공사 입찰 "의혹", 부산시와 산하기관의 공공공사 낙찰율이 예정가격의 1백%에 근접하거나 정확히 85%선에서 결정되는 등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국제 9. 5)
* 시 측량잘못 집단민원, 일선구청이 시측의 측량잘못으로 무허가주택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우려(국제 9. 5)
* 한일 연안지사 회의 부산서 개막,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제3회 한일해협연안지사 교류회의가 5일부터 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국제 9. 5)
* 한·일 해협선 협력·번영모색, 제3회 한일해협연안 7개 시·도·현 지사회의가 오는 9월 5일~7일까지 부산시 주최로 해운대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다(시보 8. 22)

* 물가안정, 교통대책수립, 정문화 시장은 9월 5일 오전 9시 실·국장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추석절을 맞아 기업체의 노임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노임 체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시(시보 9. 12)
* 검소·훈훈한 추석보내기 전개, 웃어른 찾아보기,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사치낭비일하기 등을 추진키로(시보 9. 12)

9. 6
* 시정통계 들쭉날쭉, 시정의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제각기 달라 업무수행에 큰 혼선을 빚을 뿐만 아니라 사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까지 초래하고(국제 9. 6)
* 전국기능경기대회 부산 4위 예상, 6일 폐막된 기능경기 대회의 종합우승은 금 10·은 5·동메달 6개를 획득한 경기도가 차지했으며 부산은 금 5·은 5·동메달 4개로 4위를 차지(국제 9. 7)
* 내년부터 전국 7개 권역별 개발「가택도공단」곧 착공, 정부는 국제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국을 부산권·아산만권·대구 포항권·광주 목포권·광양권·군산 장항권·대전권 등 7개 광역개발권역으로 설정(국제 9. 6)
*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10년 성대한 국악축제 연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 10주년 맞아 성대한 국악축제를 염(국제 9. 6)
* 양국 공동 사업 개발, 적극 교류 제3회 한일해협 7개 시도현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후 폐막, 한일 해협을 사이에 둔 두 나라 지방 자치단체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3회 한일해협 연안지사교류회의가 9월 6일 부산에서 열려(시보 9. 12)
*「한일 해협 연구협」발족, 부산발전연구원 등 참여, 한일해협연안의 공통과제에 대한 공동 연구와 학술 및 정보교류 등을 벌일「한일 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가 6일 발족, 본격 활동(시보 9. 12)
* 제3회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회의(부산시정 9. 6)

9. 7
*「부산실내악페스티벌」열어, 부산 문화회관은 개관 6주년을 기념하는「부산실내악페스티벌」을 9월 9일부터 3일간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중강당에서(시보 9. 1)
* 추석 비상 수송터미널·주요지역 연계운행, 부산시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을 추석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가기로(국제 9. 7)
* 상수도관 30% 10년 이상 노후 누수·단수사고 잦다, 시내에 매설된 낡은 상수도관이 수압을 못 견디고 파열되서 단수사고의 원인이 되고 누수로 인한 낭비도 심각한 지경(국제 9. 8)
* 부산 경제 "최악", 8월 부도율 21개월만에 최고…123사 도산(국제 9. 7)
* PC 통신으로 민원서류 발급,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PC 통신으로 민원서류 발급하게 되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국제 9. 7)
* 부산에 2개 순환고속도로, 정부는 7일 부산신항만 건설을 포함해 김해공항의 이전·2개의 도시 순환고속도로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부산광역권을 개발사업안을 확정(국제 9. 7)
* 부산 광역화 1안 제시, 내무부는 7일 내년 3월부터 부산·대구·인천 등 3개 직할시를 주변지역을 편입해 광역화하고 울산시를 울산군 전체와 합쳐 직할시로 승격시키기로 하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국제 9. 7)

9. 8
*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 신시가지 구간 10월 중 착공, 부산교통 공단은 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비 4천8백54억원을 포함한 95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호선 2단계 해운대 신시가지구간은 오는 10월 중 착공키로(국제 9. 8)
*「푸른 부산」심기 부산시 182억 투입 주요시가지에 "식수", 부산시는 8일 이 같은 도시녹지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3단계로 나눠 시행키로(국제 9. 8)
* 내년 부산 국고지원 37%, 7천3백억 지하철 2호 3백억 등 추가될 듯 내년도 부산지역 국고지원 예산액이 기간사업과 항만시설 등 총 30개 항목에 금년보다 36.9% 11천9백81억8천만원 증액된 7천3백55억6천만원으로 나타남(국제 9. 8)
* 녹산 75만평 추가매립,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현재의 녹산공단을 진해의 안골쪽으로 75만평을 추가 매립(국제 9. 8)
* 부산시역 확대 최소화·당정 입장정리 지역대립 심각…여론 수렴 뒤 시행, 정부와 민자당은 제2차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여권 내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개편내용과 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매듭짓는다는 입장을 정리해가고 있는 것으로(국제 9. 8)
* 북경시 경제유치단 중구청 방문, 투자설명회, 중국북경시 석경산국 경제 유치단 일행 12명이 9월 8일 부산 중구청을 방문하고 투자유치설명회 가져(시보 9. 22)

9. 9　* 내년「부산환경원년」선언, 95년이 부산환경 원년으로 기록(국제 9. 9)
* 「추석수입쇠고기」인하 판매 부산시・성수품 등 집중출하(국제 9. 9)
* 북항 부분 허점, 건설부가 8일 발표한 부산권 광역 개발계획 중 부산 북항의 재개발부분은 경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현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지적(국제 9. 9)
* 학생발명 전시관 창관, 부시장은 9월 9일~14일까지 부산 발명 장려관에서 개최 하는 94 대한민국 학생 발명 부산 전시회에 참석(시보 9. 12)
* 대한민국 학생 발명 부산 전시회 부산 환경교육연구회 창립 총회(부산교육 9. 9)

9. 10　* 하얄리아부대 이전확정, 정부는 부산 도심에 위치해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 미 하얄리아부대를 시외로 이전키로 방침 확정(국제 9. 10)
* 부산시・중기자금 융자 추천 업체당 1억 이내・연리 11% 조건, 부산시는 10일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예상되거나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운전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해 주기로(국제 9. 10)
* 부산 청년회의소 21개 지구 삼성차 서명운동, 부산지구청소년회의소는 10일 오후 1시 부산역 광장에서 회원 3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차 부산유치를 위한 1백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국제 9. 10)

9. 12　* 인사, 부산 체신청(국제 9. 12)
* 거대 주택 단지 조성 부산시・곧 택지예정 지구신청, 부산 편입 예상지역인 경남 양산군 웅산읍・정관면과 김해군 장유면과 진해시 웅동동 등 경남 4곳에 해운대 신시가지보다 최고 5배나 큰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국제 9. 12)
* 3・1운동 부산기념탑 세운다, 95년 광복50주년에 맞춰 부산지역의 항일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3・1운동 부산기념탑이 건립(국제 9. 12)
* 일부지역 비상급수 대책, 시 상수도본부, 회동수원지의 저수량 부족으로 명장과 오륜정수장 급수지역에 대한 부산시의 비상급수대책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시보 9. 12)
* 상수도 식수수질 기준적합, 시 상수도본부 3개 대학 연구로…덕산 등 3 개소(시보 9. 12)
* 기술개발로 경쟁력 제고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총사업비 4억4천여만원 투자, 애로・기술개발박차(시보 9. 12)
* 가덕도에 53선석 신항만 김우석 건설부장관「부산권 광역 개발계획안」발표, 정부는・국제화를 위한 거점으로 중심도시 부산의기능제고・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광역권의 기능제고, 쾌적한 주거환경 형성을 위한 정주체계 개편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부산권 광역 개발 계획안을 발표(시보 9. 12)
* 알뜰 도서 무료, 교환 시장 성황, 시 독서인구 저변확대 위해 10월 12일까지(시보 9. 22)

9. 13　* 2002 아주게임 부산유치 카운트다운, 2002 아시안 게임 부산유치추진위는 9월 13일 오전 부산시민회관에서 추진위 확대 개편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국제 8. 25)
* 부산~블라디보스토크 항로추진, 해운항만청은 현재 한・러 간에 정식 개설된 유일항로인 부산~보스토치니 직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한・소 해운이 지난 7일 블라디보스토크를 이 항로의 기항지로 추가하기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혀(국제 9. 13)
* 시민 휴식 공간 조성, 해운대・청사포 일대 달맞이고개 전망시설과 산책로 등을 갖춘 시민휴식 공간이 조성(국제 9. 13)
* 농산물 직거래 장터 16곳 개설, 시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시내 16개소에서 우리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운영(국제 9. 13)
* 인사, 부산시 교육청 교장 낙동중 정차영(국제 9. 13)
* 광안대로 설계확정, 부산의 관광명물이 될 자동차 전용다리인 광안대로의 설계용역이 최종적으로 확정(시보 9. 22)
* 부산・양산 5개 읍면 등 편입, 정부와 민자당은 9월 13일 당정협의회에서 부산 시역확장은 구 동래구 지역인 양산군 2개 읍 3개 면과 진해시 웅동 2개 동 가운데 녹산공단 조성을 위해 매립 공업지역으로 확정 발표(시보 9. 22)
* 시민의 참여 대폭 참여, 아시안 게임추진위 총회(시보 9. 22)
* 아시안게임유치추진위 회의(부산시정 9. 13)

9. 14　* 부산광역화 축소 삼성 승용차 지연 "부산출신 국회의원 뭐하나", 부산시역 확장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되고 가덕도항만개발과 삼성승용차 유치 등 대형 사업이 잇따라 유보 또는 연기되자 부산출신 국회의원 및 부산시의원 등 정치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난(국제 9. 15)

* 부산 편입 85%가 그린벨트, 정부와 민자 등은 13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당정 최종 합의에서 부산의 시역 확장을 최소화 양산군 동부 5개 읍면과 진해시 웅동2동 일부만을 포함시키기로 확정(국제 9. 14)
* 중추절 불우시설을 방문격려 정문화 시장, 재활원아동위문, 정문화 시장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을 맞아 9월 14일 오후 4시 남구 감만동 소재 소아영아재활원을 방문・격려(시보 9. 22)
* 외국인토지취득완화, 지난 12일 투자설명회 개최(시보 10. 21)

9. 15 * 부산시 문화상 7명 발표, 부산시는 15일 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상하는 제39회 부산시 문화상 수상자 7명을 발표(국제 9. 14)
* 시립무용단・젊은 춤마당, 부산시립무용단의 젊은 단원들이 자신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 역량을 한껏 발휘하는 의욕의 춤마당 「94 젊은 춤꾼들의 가을나기」 특별공연이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펼쳐져(국제 9. 9)
* 부산시역개편안 졸속처리 반대결의문 채택, 부산시의회는 15일 오후 8시 제35회 긴급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최근 당정이 확정한 부산시역 개편안이 졸속 처리됐다며 부산시역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부산지역 당정조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채택(국제 9. 16)
* 불우이웃돕기바자회참석, 안명필부시장은 9월 15일 오전 11시 여성회관에서 추석 맞아 사단법인 부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불우이웃돕기바자회 개장식에 참석・격려(시보 9. 22)
* 시역조정안반대결의, 경쟁력제고 취지와 상반, 주민투표 따른 조정촉구(시보 9. 22)

9. 16 * 특소세 세수 큰 증가, 부산 지방 국세청의 올 세수 중 특별소비세는 59%나 급증한 반면 주세는 4.7% 감소한 것으로 조사(국제 9. 16)
* 부산가요제 16일 팡파르, 국내 대중가요의 저변확대와 부산 경남지역의 유망한 신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제2회 부산가요제가 오는 16일 오후 6시 30분 KBS 부산홀에서 성대히 열림(국제 9. 16)
* 국제종합전시장 위치 확정, 부산시-군수사 합의(국제 9. 16)
* 제37회 부산시문화상 수상자7명 선정, 부산시는 9월 16일 올해 제37회 부산시 문화상수상자로 인문과학부문 김용욱 교수 등(시보 10. 1)
* 3・1 독립운동 부산기념탑건립, 9월 16일 오후 3시 시청 회의실에서 「3・1독립운동 기념탑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시보 9. 22)
* 지방세 징수관련 비위방지 대책, 시 확대간부회의, 행정구역개편 추진도(시보 9. 22)
* 동서고가로 감전램프개통, 16일 남해고속도로 진입 등 체증 해소(시보 9. 22)

9. 17 * 2002 아주게임 부산이 최적지, 아시아 스포츠 강국인 중국이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에 있어 부산을 지지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혀 이 대회의 부산유치 전망이 크게 밝아져(국제 9. 16)
* 지방 세무행정 보완, 부산시는 16일 인천 북구청 세무부정사건과 관련・내무부의 지시에 따라・해운대 등 8개 구청에 세무과를 하나씩 더 늘려 세목별로 분리된 지금의 세정 체계를 부과와 징수로 이원화하기로 함(국제 9. 17)

9. 18 * 복지시설에 추석선물, 시 1억2천만원 배정 격려(시보 9. 12)

9. 19 * 부산-거제-진주-대전-대구 순환 고속망 구축, 정부는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를 충무를 거쳐 거제~가덕도~녹산까지 연장 건설할 방침(국제 9. 19)

9. 21 * 부산식품관리청 추진,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수입식품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검사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담당할 식품관리청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함(국제 9. 22)

9. 22 * 시립미술관 건립의지 있나 없나, 7월 설계완료 불구 발주계획조차 없어 건립 후 운영방안 등도 전혀 세우지 않아(국제 9. 22)
* 2천년대 푸르고 품위 있는 도시로, 부산시는 오는 2천년대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 도시전역을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만들기로(시보 9. 22)
* 우리의 부산 새롭게 다함께 미래로, 「제15회 부산시민의 날」 「부산포축제」, 외국자매도시 민속예술단 등 초청 「국제화원년」 사업과 연계추진(시보 9. 22)
* 추석전후 방역철저, 콜레라발생 등 대비, 부산시는 추석 전후하여 집단급식 및 해외여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시보 9. 22)
* 산불방지 특별경계, 성묘객 실화 등 우려, 순찰강화(시보 9. 22)
* 시립예술단 싱그러운 가을무대, 부산시립예술단은 가을을 위해 여름에 준비했던 소리들을 감미로운 선율에 실어결실에 달에 「교향악단소그룹」・「소년소녀합창단」・「합창단소그룹」이 시민 곁에 다가선다(시보 9. 22)

* 시「세계 가정의 해」기념사업으로 추진 입양가정에 수업료에 학자금지원, 부산시는 세계 가정의해 기념사업의 하나로 입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의 중・고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키로(시보 9. 22)
* 부산의 금문교 "광안대로", 11월 착공 수영로 교통체증해소(시보 9. 22)
* 「산업평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 모범근로자・자랑스런 기업인대상, 산재예방・노무 관리 개선 유공자 등(시보 9. 22)

9. 23
* 부산의원들 목소리 높인다, 삼성차부산유치에 총력…매달 현안논의 1차 회의서 신항만 우선 개발원칙 확인(국제 9. 23)
* 부산 시장 경질 유력, 시・도지사 3~5명 빠르면 오늘 교체(국제 9. 23)
* 인사, 부산중구청 사회과장 김호현 외(국제 9. 23)
* 지하철 송정・기장까지 연장, 부산편입지역 개발계획2・3호선 구간확대(시보 10. 1)
* 금정산성 대대적 보수 공사, 금정수 서문・망루 등 훼손정비(시보 10. 21)
* 「시정전산화 중・장기기본계획」 확정, 시 2001년까지 사무 처리의 완전자동화위해(시보 10. 1)

9. 24
* 지하철 송정・기장까지 연장, 부산시역 발전계획 양산 5개 읍면 본격 개발(국제 9. 24)
* 부경역사연구소 첫 발표회, 역사의식의 대중화와 지역사 인식 제고를 위해 발족한 부산 경남 역사연구소의 첫 연구발표회가 참석자들의 진지한 토론 속에 열림(국제 9. 27)
* 서면R 교통사고 전국 1위 지난해 71건 발생 85명 부상, 지난해 전국에서 교통사고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서면로터리(국제 9. 24)
* 서부산 개발 최우선 추진・김기재 신임부산시장 인터뷰, 신임 김기재 부산시장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부산의 발전을 위해 온힘을 쏟겠다」고 밝힘(국제 9. 24)
* 부산시 민원업무 2001년 전산화, 운전면허증 변경・토지대장 발급 등 민원관련 116개 업무가 주민등록신고만으로 컴퓨터로 자동처리 되는 등 부산시의 민원업무 오는 2001년까지 전산화(국제 9. 24)
* 군사시설확장 일방추진 신시가인근 만8천평 규모 사업실시"보호구역 확대" 반발, 육이 오륙도 부대가 해운대 좌동 신시가지 인근 지역에 1만8천여평 규모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군사 보호구역 확장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의 고도제한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국제 9. 24)
* 부산시, 인사 6급 차량 등록사업소 조규천외(국제 9. 24)
* 부산포 축제 내달 4일 화려한 개막, 거북선병선 모형 동원 부산포 해전 재현, 구별 행사 풍성・백화점들 할인판매 참여(국제 9. 24)
* 제1만덕터널 26일 전면통제,「2터널」 무료통행(국제 9. 24)
* 시간・격일제 급수 등 대책 세워, 안동 등 낙동강 4개댐 방류 감소, 각 가정 저수조준비・물 아껴 쓰도록(시보 10. 1)
* 부산시, 인사 전산 6급 차량 등록사업소 조규호 외 6명(시보 10. 1)
* 鄭文和시장 이임(부산시정 9. 24)

9. 26
* 도시고속도 램프웨이 11곳 교통전광판 설치, 시는 26일 번영로 동서고가로 등 시내 도시도속도로 11개 램프웨이에 교통체증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을 설치(국제 9. 26)
* 해운대 관광개발 불투명, 부지확보방안도 없어 종합계획 남발 용역비도 이중으로 낭비(국제 9. 26)
* 중고학업포기 급증 지난해 3천2백명, 부산에서 지난 한 해 동안 3천2백여명의 중고생이 가정형편과 학습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교 중퇴(국제 9. 26)
* 지하철 토목공사 저가낙찰, 예정가 66%에 불과…부실공사 우려(국제 9. 26)
* 금정구 문화회관 부지 시 양묘장 8천평 확정, 시는 26일 금정구 문화회관 부지의 금정구 구서 1동 481 시 양묘장 부지 8천6백50평을 확정 금정구청에 이를 통고(국제 9. 26)
* 부산교통지도 시・제작 배포, 시는 26일 시내 94년판 교통지도를 제작(국제 9. 26)
* '부산개발' 차질 없이 추진, 제29대 김기재 부산시장이 9월 26일 오전 10시 시청 회의실에서 취임식을(시보 10. 1)
* 김기재시장 취임(부산시정 9. 26)
*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136호)(부산교육 9. 26)
* 「부산직할시 교육소송심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 개정 조례 공포(제3137호)(부산교육 9. 26)

9. 27 * 을숙도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구의회・주민 반발, 차기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키로 방침을 확정하자 해당지역 의회와 주민들이 반발(국제 9. 28)
* 부산시 내달 최대 인사, 부산시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중 6급 이하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사상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키로 해 부산공직사회가 술렁이고(국제 9. 27)
* 하단 5일장 폐쇄 상인들 항의 농성, 사하구 하단동 하단 5일 장터의 영세상인 2백여명은 27일 낮 12시께부터 사하구청 앞에서 5일장 폐쇄조치에 반발(국제 9. 28)
* 안명필부시장 이임, 내무부민방위본부장영전, 안명필부시장 이임식이 9월 27일 오후 5시 본관2층 회의실에서 본청 실・국장을 비롯 주요사업소장 구청장 소방본부장 시의회의원 재부기관 단체장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시보 10. 1)
* 安明弼 부시장 이임(부산시정 9. 27)

9. 28 * 자연부호경진대회 부산시협의회, 자연보호부산시협의회는 28일 오전 자연보호헌장 선포 16주년을 기념(국제 9. 29)
* 부산피더선 부두 김해경전철・내년 민자유치 확정, 가덕도 항만은 개발용역(국제 9. 28)
* 부산도개공 소형아파트 "소나기분양", 미분양사태 속출 우려(국제 9. 28)
* 부산시 자체 사정감사, 부산시 자체 사정감사(국제 9. 28)
* 온천장부근 교통체계개선, 부산지방경찰청, 만성교통체증 해결 위해 온천장 일대 교통운영체계개선(시보 10. 11)
* 제33대 진만현 부시장 부임, 진만현 부시장 취임식이 9월 28일 오전 11시 본관2층 회의실에서 본청 실・국장을 비롯 주요사업소장 구청장 소방 본부장 시직원 등 3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개최(시보 10. 1)
* 94 대한민국 국악제(부산시정 9. 28)

9. 29 * 4/4분기 부산 경기 "맑음", 부산 상의 BSI 전년비 1백21로 회복세(국제 9. 29)
* "지하철 부대시설 특혜 임대", 교통부 감사서 밝혀져, 국유재산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 무시, 전 공단간부 친인척에 수의계약(국제 9. 29)
* 국회국정감사, 부산시에 대한 국회국정감사가 9월 29일~10월 17일까지 내무 교체 노동환경을 3개 분야에 대해 실시될 예정(시보 9. 22)
* 전기로 인한 인재 많아, 올해만 3백76건(시보 10. 11)
* 부산 경향 하우징 페어 개막식 참석 김기재 부산시장은 9월 29일 오후 2시 부산무역전시관에 개최된 94부산 경향 하우징 페어 개막식에 참석(시보 10. 1)

9. 30 * 시역 확대안 재검토 촉구, 서구청 93년 지방세 횡령 추궁, 작년 군 범죄 14.6%이 하극상, 부산시 감사 가덕 신항만 배 늘려야(국제 9. 30)
* 시공비 물 쓰듯 9억여원 낭비, 아파트 바닥 수공 고집 값싼 기계화 공법 외면(국제 9. 30)
* 공영 수산물 시장에 수협 잇단 참여, "종합 도매시장 손색없다", 부산시가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가 오는 99년말 완공 예정인 전국 최대 규모의 공영 수산물 도매 시장에 부산 지역 연근해 수협들이 본격 참여(국제 9. 30)
* 부산 무역 전시관 국내용 전락, 국제화 아득, KOTRA 해외 홍보 부족・운영 미숙, 부산시마저 지원 냉담・활성화에 찬물(국제 9. 30)
* 시내 전 지역 소음 공해 기준치 초과 "만성적", "밤낮 없어 시끄러워 못 살겠다", 환경처 국감 자료서 밝혀져… 대책 시급(국제 9. 30)
* 병무민원 자동 안내, 부산지방병무청도 30일 병역 의무자의 편의 위해 병무민원 음성 자동 안내 전화 설치(국제 9. 30)
* 10월 범시민 국기 게양, 국군의 날・개천절・한글날 등을 맞아 범시민 국기게양 운동 벌이기로(국제 9. 30)
*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2백억 넘어, 부산지역 각 구청에서 부과한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체납액이 2백억원을 넘어(시보 10. 11)
* 부산시 국정감사, 국회내무부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가 지난 9월 30일 실시(시보 10. 1)
*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감사(부산시정 9. 30)

10. 1 * 2002년 아시안 게임 현지서 부산 유치 홍보, 1백22명 유치단 본격활동 개시(국제 10. 1)
* 실업고 신입생 추천제도, 95학년도 부산시내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 날짜 확정(국제 10. 1)
* 내년 부산 개최 확정, 동북아 5개국「환경 보조」강화 위해 공동 노력키로(국제 10. 1)

* 신호공단 땅값 “껑충”, 실거래가 폭 등 보상 마찰 예견, 대지 백만원 호가…불법 증축도(국제 10. 1)
* 부산시 환경 정화 활동 유공자 4명에 표창장, 자연보호헌장선포 16주년 맞아 일선 구 별로 기념식 개최・자연보호 유공자 40명에 대한 표창 수여 및 정화활동 전개(국제 10. 1)
* 세정 개혁 강력 추진 부산 국세청, 최근 인천 북구청 지방세비리 사건과 관련 업무의 중하위직 대민행정 부조리 근절 방침에 따라 일선 세무서장 책임 사정개혁 추진키로(국제 10. 1)
* 초저가 낙찰로 부실 우려, 부산 국토청 잦은 설계 변경・공사비 증액 “특혜”(국제 10. 1)
* 물가 내림세 부산만 “해당 무”, 29년만에「소비자」0.3% 하락, 부산 상승률 6% 6대 도시 최고(국제 10. 1)
* 건축사 행정 처분 부산지역 9명, 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내 9명의 건축사가 감리 불성실 및 현장 조사 불성실 등의 이유로 1・2개월 간 업무 정지 처분(국제 10. 1)
* 농촌 일손 돕기 창구, 자매결연 농촌지역지원도, 11월말까지 각 구청에서 접수(시보 10. 11)
* 가을철 행락질서 확립, 11월말까지 불법・무질서 근절, 산・유원지・계곡서 취사행위도(시보 10. 11)
* 자연보호 정화 활동 등 참여 김기재 부산시장은 10월 1일 오전 10시경 북항에서 개최한 국군의 날 기념 함정 시승 행사에 참석(시보 10. 11)
* 쓰레기종량제 시범구역 확대, 부산시는 10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범구역을 중구・동래구・남구・북구 등 4개 구 21개 동으로 확대 실시(시보 10. 11)
* 시민대청소실시, 20여만명 참가, 산, 바다 등지서 불교단체선 국토 대 청결 운동(시보 10. 11)
* 문화재 일제점검, 훼・파손 등 보수・주변 환경도 정비(시보 10. 1)
* 범시민국기게양운동, 10월 중 개천절 등 맞아(시보 10. 1)
* 부산시민의 날 문화의 달 기념, 부산 무대 예술제 개막,「자갈치의 새벽」등 다채로운 내용마련 ‘환경을 생각하는 음악회’(시보 10. 1)
* 폐페스트 발병예방 대책, 인도・동남아여행자제…개인위생철저당부(시보 10. 1)
* 시정종합정보센터, 개관 한 달 평가「행정의 완충 역할」수행, 시정홍보관 터치스크린 등 인기, 미비점보완…운영의 내실화노력(시보 10. 1)
* 부산시 4개 구 증설, 행정구역 개편안 내무부에 제출, 주민편의・생활관 따라 분류, 인구 3만 넘은 4개 동 분동(시보 10. 1)
* 동아대 정수봉 이사장 취임(부산교육 10. 1)

10. 3
* 부산 공무원 백13명 사정, 부산토검 비리 새 명단 확보…내달 구속 수사(국제 10. 3)
* 올 부산 수출 “먹구름” 8월 목표 58% 그쳐, 3일 부산시와 부산 상의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올해 수출 실적은 지난 8월 말 현재 42억9천8백만달러로 올해 목표 74억달러의 58.1%에 그쳐(국제 10. 3)
* 부산항 북방 중심항 자리 굳힌다, 대중・러 항로 개설 급증, 물량 수교 전 최고 5배(국제 10. 3)
* 시립 무용단 무용제 14일 개막,「고향의 춤」주제 전국 8곳 참가, 부산팀 창작극「천상의 길」출품(국제 10. 3)
* 2002년 아시안 게임 부산이냐・대북이냐, 양 도시 히로시마서 유치 경합 치열(국제 10. 3)
* 행정 서비스 개선키로, 구청 광장 민원인 주차장으로 제공, 간부 현장 활동 강화, 구청장실 전화 24시간 개방 민원접수(국제 10. 3)
* 부산 국제 시장 현대화 시급, 광복로「차 없는 거리」80%가 찬성, 중구청이 장이 발전 계획을 마련 위해 지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주민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국제 10. 3)
* 부산시 상위직도 인사 태풍, 월내 대규모 이동 불가피, 동장 결원 44곳・승진 합격 51명 대기, 구청장직 3명 “지자출사표” 사퇴 예상(국제 10. 3)
* 「바다의 날」제정 천만 서명 운동,「바다축제」개막, 선원 가족 등 5천명 “삶터 살리자”(국제 10. 3)
* 97년 동아시아 대회 부산 개최 확정, 이에 따라 오는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유치 전망도 한 층 밝아져(국제 10. 4)
* 동아시아대회 부산개최확정, 제14회 아시안게임 유치전망 밝아(시보 10. 11)

10. 4
* 94 부산포축제 비디오공모, 10월 4일~9일 행사기간 촬영내용으로(시보 9. 22)
* 부산포축제…신명한마당, 전야제는 4일 오후 6시 50분 사직야구장과 수영만・낙동강 고수부지・서구 남부민동 방파제 등 4곳(시보 10. 11)

10. 5
* 가덕 신항만 표류 추궁, 부산 국감 중기 대출 정부가 재보증해야, 9개 학교 식수 불합격 판정, “고법 재판지연 이유는” 민영화 실직 대책 요구(국제 10. 5)
* 부산 증권 거래소 본격 추진, 이달 중 연구 용역 발주, 상의 “금융 활성화・자금유출 방지 큰 역할”(국제 10. 5)

* 인사, 부산시 서구청 민원제도 계장 정동윤(국제 10. 5)
* 광안대로 건설 공사 발주 오는 12월 5일~6일 공개 입찰, 총공사비 5천1백43억원 규모의 광안대로 건설 공사 발주(국제 10. 6)
* 동래구청 민원판단 편람 발간, 민원접수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민원 가·부 사전 판단 심사 편람」발간·구청 민원실과 산하 27개 동에 배포(국제 10. 6)
* 부산 세수 소폭 증가, 7월까지 작년 비 14.6% 증가(국제 10. 6)
* 부산 제조업 경기 호전 지수 전월비 16% 상승, 부산 지역 8월 중 산업 생산 지수가 3개월만에 미미한 증가 나타내 다소 호전(국제 10. 6)
* 지하철 문고 폐쇄 위기, 비치 도서 대부분 분실·훼손(국제 10. 6)
* 자갈치 축제 개막, 부산 남포동 발전위 제3회 자갈치 수산물 축제 9일~12일까지 개최(국제 10. 6)
* 국제교류 주제발표 진만현 부산시 부시장은 5일 오후 2시 30분 조선비치호텔에서 개최한 국제자매도시교류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진행(시보 10. 11)
* 부산 새롭게 미래로, 축제전야제·경축공연 등 중심행사, 오페라·국제학술세미나 등 문화한마당(시보 10. 11)
* 부산포 축제「시민장터」개설 13곳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 시는 94 부산포 축제 문화 행사의 하나로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과 앞뜰 마당을 연계하는「시민장터」개설(국제 10. 6)
* 차기 OCA 총회 한국서 개최, 파드 회장 연임…부산 아시안 게임 유치에 청신호(국제 10. 7)
* 제15회 부산시민의 날 및 부산포축제(10. 4~10. 9)(부산시정 10. 5)

10. 6
* 광안대로 건설 공사 발주 오는 12월 5일~6일 공개 입찰, 총공사비 5천1백43억원 규모의 광안대로 건설 공사 발주(국제 10. 6)
* 동래구청 민원판단 편람 발간, 민원접수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민원 가·부 사전 판단 심사 편람」발간·구청 민원실과 산하 27개 동에 배포(국제 10. 6)
* 부산 세수 소폭 증가, 7월까지 작년 비 14.6% 증가(국제 10. 6)
* 부산 제조업 경기 호전 지수 전월비 16% 상승, 부산 지역 8월 중 산업 생산 지수가 3개월 만에 미미한 증가 나타내 다소 호전(국제 10. 6)
* 지하철 문고 폐쇄 위기, 비치 도서 대부분 분실·훼손(국제 10. 6)
* 자갈치 축제 개막, 부산 남포동 발전위 제3회 자갈치 수산물 축제 9일~12일까지 개최(국제 10. 6)

10. 7
* 부산 반여·김해 구산 13만평 택지 개발, 공항배후 신도시 조성, 주택 8천호 건설 3만명 수용(국제 10. 7)
* 부산시 64명 1차 인사, 조창국 광안대로 건설 사업소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3~8급까지 모두 64명에 대한 승진저보 인사 단행(국제 10. 7)
* 직할시→광역시로 내년 1월 명칭 변경, 내무부는 7일 지방자치제 실시 앞두고 5개 직할시를 내년 1월 1일자로 광역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 자치법 개정안 마련(국제 10. 7)
* 청소년 수련소 사용료 인상 시의회 상정 최고 150%, 청소년 건전육성이란 설립 목적 무색케(국제 10. 7)
* 국회 노동위원회 국정감사(부산시정 10. 7)
* 교육위원, 신설 예정 학교 공사현장 방문(부산교육 10. 7)

10. 8
* 부산·경남 여성 인력 채용 저조,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조사, 부산은 전체 근로자의 31.8%·경남은 23.5%를 차지(국제 10. 8)
* 8·9일 가두서명 전개, 자동차 산업 부산 유치범시민추진 위원회는 8·9일 이틀 동안 부산역 광장 등 시내 15곳에서 자동차 산업 부산 유치를 위한 1백만명 가두서명 운동 실시(국제 10. 8)
* 부산 제조업 경기 회복세, 3/4분기 BSI 102…부도 "주춤"(국제 10. 8)
* 신발업 실업자 5년간 10만명, 90년 이후 3백52사 폐업 신고·수출 실적 78% 감소(국제 10. 8)
* 중학 1곳, 국교 6곳 신설, 시내 신흥 개발지에 초등학교 6개교와 중학교 1개교 모두 7개교가 신설(국제 10. 8)
* 지난해 서비스업 부진, 부산 도·소매업도 성장률 낮아 "불황"(국제 10. 8)
* 부산 차 51만8천대 9월 한달 하루 2백대 신규 등록, 부산지역 차량의 총 등록 대수 올 9월말까지 모두 51만8천 8백77대로 지난해 동기비 14.1%가 늘었으며 자가용 승용차는 전체 등록 차량의 62.5% 기록(국제 10. 8)
* 그린벨트 최다 잠식 부산 올 들어 51건 적발, 시 16만평 형질 변경 앞장, 국감 자료…경남도 80건 훼손(국제 10. 8)
* 행정 편의주의 시민 피해 급증, 올 1백49건 소송 야기, 시 등 패소율 25%…법리 오해 많아(국제 10. 8)
* 부산시, 인사 광안대로 건설 사업소장 조창국 외(시보 10. 11)
* 범시민 대대적 절수운동전개, 낙동강 수계 4개댐 방류량 감소, 고지대 운반급수 등 비상대책 세워(시보 10. 11)

10. 9　* 임시 교량 개통 범일과선교 공사, 부산진구 범일동 부선 철로위에 놓여 진 범일과선교가 노후 돼 오는 12월 말에 본 교량 재 가설공사 시작(국제 10. 10)

10. 10　* 93년도 결산안 등 심의, 시의회 오는 10일 임시회 열어, 부산시의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제36회 임시회를 열어 93년도 부산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 등을 심의키로(시보 10. 1)

* 신뢰구축 공직자상 조성, 김시장 확대간부회의 주재, 부산시 확대간부회의가 10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김기재 부산시장을 비롯 부시장 실・국장 구청장 각 사업소장 등 1백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시보 10. 11)

* 10일부터 구 초도순시 나서, 김시장 주민대화는 조찬간담으로(시보 10. 11)

* 93년도 결의안 심의 부산시의회 제36회 임시회 열어, 93년도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결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시보 10. 11)

* 엄궁 농산물 시장 "비틀", 거래 부진 중매인 이탈・교통망 미비 등이 이유(국제 10. 10)

* 부산 시의회 개회 세입 세출 결산 심사, 부산시의회 10일 오전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3년도 부산시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심사(국제 10. 10)

* 감천 수산물 도매 시장 "구체화", 업계 뜨거운 관심…종합 상사 진출 채비, 원양・연근해 등 총 집결 유통 메카 부상(국제 10. 10)

* 인사, 부산진구청, 전포 4동장 김동원 외(국제 10. 10)

* 토큰 자판기 점용료 부과, 버스 운송 조합 반발, 시-1월까지 소급 징수 "전면 철거" 맞서 시민 불편 가중 우려(국제 10. 10)

* 삼성차 유치 전국 확산, JC대회 "전국회원 무기한 투쟁" 결의. 백만명 서명 운동 전개, 서울 토론회・여의도 국민 대회 추진(국제 10. 10)

* 김기재시장 초도순시(부산시정 10. 10)

10. 11　* 이기대・신선대 시민공원 개방 제 구실 못한다, 주차장・편의시설 부족, 공원 사무소 없어 체계적 관리 어려워(국제 10. 11)

* 역 46% 내구연한 경과, 부산지방철도청 96개 역 중 내구연한이 지난 역은 46%인 44개소로 5개 지방청 중 가장 노후 역사 많은 것으로 조사(국제 10. 11)

* 「부산광역시」 가장 선호, 시정 구역 개편 시 명칭 여론 조사 결과(국제 10. 11)

* 석대 매립차 수벽 공사 반여동 등 오염 무방비, 부산 석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방지책으로 시공한 차수벽 공사가 매립장 침출수 유입 방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이뤄져 실제로 유출수 오염 피해가 극심한 매립장 남쪽 부산 해운대구 석대・반여동 지하수는 앞으로도 오염피해에 무방비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국제 10. 11)

* 부산권 개발 시장 방안은, 부산 시의회 11일 제36회 임시회 2차 본의회를 열고 부산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임시장의 시정방안・행정구역 개편 문제・서 부산권 개발 계획 등 집중 추궁(국제 10. 11)

* 배내골 식수 내년 착공, 김 부산시장 서 부산 개발 때 추가 편입 검토(국제 10. 11)

* 김해공항～해운대 관광 헬기 취항, 삼성항공 13일부터 11인승 하루 4회 운항(국제 10. 11)

* 어머니 합창 발표회, 시는 11일 오전 동구 범일동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15회 부산 어머니 합창발표회 개최(국제 10. 11)

* 인사, 사하구청 5・6급 외(국제 10. 11)

* 녹산 공단 부지 10월 중 추가 분양, 아직 분양 되지 않은 24만여평을 10월에 추가 분양 할 방침(시보 10. 11)

* 24일까지 공감공고 을숙도 매립 2차 사업, 기존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과 맞먹는 쓰레기 매립장 2차 조성 사업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공고(시보 10. 11)

* 불법 건설 행위 36건 적발, 정부의 부실공사 근절 의지 천명에도 불구불법 행위 여전히 성행(시보 10. 11)

* 부산・후쿠오카시 주택 행정 교류회의, 부산시와 일본 후쿠오카시 간의 주택정보 교환과 공통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양도시간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시보 10. 11)

* 「서부산권 발전법」 제정 시급, 부산 발전 연구원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산 발전 10대 정책 과제」를 선정 발표(시보 10. 11)

* 부산 발전위 10월 발족, 부산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여론 등을 수렴・조정 할 「부산 발전위원회」가 10월에 발족(시보 10. 11)

* 농촌 지도자 대회, 우리 농촌에 경쟁력 강화와 새 활력을 키우고 제2녹색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시보 10. 11)

* 산불방지 종합대책 마련,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 보호 위해(시보 10. 11)

* 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 연주가 10월 13일 문화회관 중강당에서 열려(시보 10. 11)
* 36회 임시회, 시역확대 추가 조정 촉구・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배내골 식수원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 질의 벌여(시보 10. 21)

10. 12
* 충렬로 확장 공사 마찰, 시 착공지점 일방 지시…구 반발(국제 10. 12)
* 삼성차 부산 유치 재촉구, 상의・정부 조속 허용을 요청하는 결의문 채택(국제 10. 12)
* 공영 주차료 150%인상, 부산시의회「수정산 터널 민자 유치」부결(국제 10. 12)
* 인사, 동구 범일 1동장 김홍석 외(국제 10. 12)
* 체납 지방세 9백억, 부채액의 10%…재정난 가중(국제 10. 12)
* 평강교~구포대교 접속로 확장, 10월 12일 강서구 강동동 평강교에서 구포대교 접속도로 구간의 국토 14호선 확장 및 신설구간에 대한 공사 기공식 거행(시보 10. 21)

10. 13
* 부산시 새 청사 전기・통신 공사 낙찰, 삼성・롯데・「자유」3사로 확정(국제 10. 13)
* 군수비리・군기 문란 추궁, 국감-일본 대중문화 개방 일정 따져, 재계 풍토 쇄신・사정 강화 요구(국제 10. 13)
* 인사, 부산 교통 공단 감사 송동근(국제 10. 13)
* 을숙도 철새 인공 도래지 곧 착공, 매립장 서쪽 12만평 규모, 20억원 투입…호수 3곳・전망대 등 조성(국제 10. 13)
* 국제 노인의 날 기념, 13일 구덕 실내체육관에서 개최(시보 10. 21)
* 쓰레기봉투 사용률 95%상회, 쓰레기 종량제가 시범 지역 주민들 적극적인 참여로 조기 정착될 전망(시보 11. 1)

10. 14
* 생곡・을숙도 매립장 조성 지연 연말「쓰레기 파동」불가피, 부산 생곡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이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 부처 간의 협의 지연으로 차질(국제 10. 14)
* 지하철 누수 재시공 시급, 지하철 1호선 4단계 구간 부실 공사로 벽면과 바닥에서 자갈만 건드리면 물이 분수처럼 쏟아져 재시공 시급(국제 10. 14)
* 을숙도 매립장 승인, 부산시의회 도시주택위원회는 14일 부산시가 제출한 을숙도 2차 쓰레기 매립장 시설 결정안과 재개발 사업 조례 개정안 등 2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국제 10. 15)
* 사하구청 순시 김기재 부산시장, 구청 회의실에서 업무 보고를 받아(국제 10. 15)
* 명예 소방관 간담회, 부산진 소방서 14일 회의실에서 명예소방간담회 가져(국제 10. 15)
*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카풀 마크 부착한 3인 이상 동승차량 대상 통행료 면제・주차요금 30% 감면키로(시보 10. 21)

10. 15
* 공고 현장 실습 인기, 희망자 90% 산업체 취업 전제(국제 10. 15)
* 흑교로 공사 난항 예산 확보 안 돼「찔끔 공사」, 중구청이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중구 부평동 부평 사거리 보수동 흑교 로터리까지 총 연장 8백80m의 흑교로 확장 공사가 예산 미확보로 인한 찔끔 공사로 이 일대 주민들 큰 불편(국제 10. 15)
* 2011년 부산 개발 확정, 새 택지 조성 인구 분산, 건설부 경남 면적 39% 14개 시 포함(국제 10. 15)
* 지방세 징수 실적 저조, 목표액 87.7%에 그쳐, 시의 현안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국제 10. 15)
* 인사, 북구청 개발 행정 계장 이재철 외(국제 10. 15)
* 최초 검사 기간 연장 대상차량 신청 접수, 시 차량 등록 사업소 92년 12월 1일 이후로 신규 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에 한해 최초 검사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16일부터 대상 자동차 소유자의 연장 신청 받기로(국제 10. 15)
* 시립 미술관 조기 건립 주력, 미술대전 위상정립 등에 노력, 한국화 분회장 놓고 회원 갈등(국제 10. 18)
* 광안대로건설사업소 개소(부산시정 10. 15)

10. 16
* OCA총회 한국 유치, 아시안게임 부산유치 전망 밝아(시보 10. 21)

10. 17
* 부산상의 동삼동 연수원 내년 이전, 시설 낡고 교육 환경 악화(국제 10. 17)
* 제2부산대교 내년 6월 착공, 시는 영도 동삼동일대 아파트 단지 들어서는 등 영도지역 교통량 급증에 따라 제2부산대교를 내년 6월에 착공키로(국제 10. 17)
* 가로수 가지치기 잔재물 처리 골치 공터 소각・방치 "환경오염", 월동기 3백~5백톤, 퇴비로 재활용하는 파쇄기 도입 시급(국제 10. 17)
* 부산 연말 수출 적신호, 9월 L/C 내도액 전월비 0.4% 하락(국제 10. 17)
* 오늘 임시 반상회, 10월 중 긴급 임시 반상회 시전역서 개최, 지난 수원시 증인 가족과 고소인을 보복 살상한 범인 김경록의 조속한 검거 위해 인적 사항 등 알릴 예정(국제 10. 17)

* 산폐물 불법 소각 오염 가중, 무허 시설로 마구 태워 “악취”, 7곳 적발…염색단이 업체엔 단속 전무(국제 10. 17)
* 부산시-빅토리아주 자매결연 조인서명, 김기재 부산시장 17일 오후 호주 빅토리아주 수도인 멜버른 시주정부 청사에서 대표 케네트 주정부 수상과 양 도시 간 자매결연 조인식에 서명(국제 10. 17)
* 부산시 각종 기금 낮잠, 14종 8백70억 거의 사용 않고 은행에 묵혀 둬(국제 10. 18)
* 부산시-호주 빅토리아주 자매결연 멜버른에서, 10월 17일 교역 등 상호협력 다짐(시보 10. 21)
* 호주 빅토리아州와 자매결연(부산시정 10. 17)

10. 18
* 그린벨트 전면 정비 건의, 시는 18일 신항만이 들어설 가덕도 일대의 조기 개발 및 부산권 발전을 가로 막는 낙동강 서쪽 강서구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의 전면 재정비를 정부에 건의(국제 10. 18)
* 상장수수료 1%인하 물류비용 절감 큰 효과, 시는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북구 엄궁동 도매시장 등 부산지역 7개 농산물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를 현행보다 1%인상키로(국제 10. 18)
* 삼성차 시민 토론회, 삼성승용차 부산 유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부산 시민 대 토론회가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개최(국제 10. 18)
* 21개 사업장 오염 적발 모두 대형 부산조선 등 9곳 고발(국제 10. 18)
* 「부산권 광역」 공청회, 부산 반경 60㎞를 대상 지역으로 오는 2011년을 목표 연도로 한 부산권 광역개발 계획(안)시민 공청회가 부산상의 회의실에서 개최(국제 10. 18)
* 시 소양 교육 우수자 일본 해외 연수, 부산시는 94년도 소양 고사 성적 우수자 10명을 선발 10월 18일부터 6박 7일 일본 지역 해외 연수 실시(시보 10. 22)
* 부산권 광역개발안 공청회, 동·남해안 공업벨트개발 모색, 건설부장관참석 8명 주제 발표(시보 10. 21)
* 항만과 연계한 신공항을 「부산권 광역개발 계획안」 공청회 열어, 「광역교통망구축」을 최우선, 재원 조달계획 등 명시해야(시보 11. 1)

10. 19
* 「컨」 화물처리 “비상”, 전국 향후 3년간 최고 2백만개 부족(국제 10. 19)
* 당국 「의료 보호비 미지급액」 눈덩이, 부산시가 의료 보호 대상자들을 위해 의료 보호지정 진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의료보호비가 현재 1백20억여원이나 되고 있어 올해만도 70여억원이 미지급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국제 10. 19)
*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특별 수익분의 범위에 관한 판결(94나2487)(법원사 10. 19)

10. 20
* 해운대 치안대책 마련, 파출소 직원 증원·순찰 검문검색 강화(국제 10. 20)
* 부산 편입 양산 5개 읍·면 인구 등 감안 「광역시」 기장군으로 개편, 내무부-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바꾸고 광역시내에 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국제 10. 20)
* 안락 2동 도시고속로변 자투리땅 자치구간 서로 떠넘기기, “기반 시설 없고 침수 등 재해위험” 회피(국제 10. 20)
* 13년째 증개축 못해 불편, 복천동 문화재보호구역 부지매입 늑장(국제 10. 20)
* 시-동절기 대비 도로 일제 정비, 시는 다가오는 동절기 대비 시내 도로 노면 정리·구조물 보수·배수시설 및 비탈면 정리·각종 표지판 등 일제 정비키로(국제 10. 20)
* 생곡매립장 토론회, 녹산 쓰레기 대책협의회는 부산 녹산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환경 관계 전문가·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국제 10. 20)

10. 21
* 무인 민원실 호응 높아, 동래구청·올 들어 3천1백여건 발급(국제 10. 21)
* 부산 국제 신발전 개막, 21~25일까지 요트 경기장 85사 참여(국제 10. 21)
* 아태시대 “한-일 해운협력을”, 발전연 세미나 “물류흐름 원활·새 관계 형성”(국제 10. 21)
* 시 공원 세미나 개최, 시는 21일 어린이 대공원 옆 자유총연맹회관에서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된 가운데 「도시 녹지 공원 개발에 대한 공원 세미나」 개최, ‘공원 녹지 늘려야’ 강조(국제 10. 21)
* 3·1운동 기념탑 부지 명장동 마안산 동남단 확정, 시는 21일 시청회의실서 3·1운동 기념탑 추진위원회 회의를 갖고 광복 50주년인 내년 8월 15일 제막식을 가질 기념탑 건립 부지로 동래구 명장동 마안산 동남단 5백편을 결정(국제 10. 21)
* 낙동대로 내년 초 발주, 부산 북구 감전동에서 덕천동 남해 고속도로 입구에 이르는 낙동대로 건설사업 본격 추진(국제 10. 21)
* 동구청 민자 유치 복합동사 건립, 부산 동구청이 본격적인 지방 자치제를 앞두고 전국 처음으로 자치 재원 확대 방안의 하나로 동사 신축에 민자를 끌어들여 복합 동사 추진(국제 10. 21)

* 조세 행정 규제 대폭 완화, 부산 지방 국세청은 침체된 부산 경제의 활성화 위해 세무조사 업소 방문 등 각종 세무간섭을 축소해 나가는 한편 조세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갈 방침(국제 10. 21)
* 매년 11월을 「부산복지의 달」로, 전국서 첫 제정, 선언문도 채택, 소외계층 관심…대대적 행사, 사회공동체 의식 재건계기로(시보 10. 21)
* 국내외 중견연주자 부산시향 새로 입단, 부산시립교향악단에 역량 있는 국내외 중견연주가들이 잇따라 입단해 부산시향이 세계수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시보 11. 1)
* 78개 업체가 참가신청, 94부산국제신발전시회(시보 9. 22)
* 공원개발전략세미나, 이전 적지를 공원으로 우선 확보, 이용객 특성 따른 시설물 선정 등,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 절실(시보 11. 1)
* 지하철 공기 정화시설 보완, 분진방지용 살수장치・급기탑 개조 등(시보 10. 21)
* 각종 증명민원감축 추진, 행정・민간단체 불요・불급 서류 많아(시보 10. 21)
* 94 국제신발 전시회 개최, 부산무역전시관에서, 94부산국제 신발 및 스포츠레저용품 전시회가 국내외 8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부산 무역전시관에서 2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다(시보 10. 21)
* 부산시립무용단 러시아 무대서 공연, 우리 춤 우수성 알리는 「천상의 길」 …28, 31일 두 차례 공연(시보 10. 21)
* 분구지역명칭・경계조정 시의회 의결, 수영・사상・연제구로 , 부산시는 10월 21일 편입지역과 분구지역의 명칭과 경계조정안을 확정해서 부산시 의회에 상정해(시보 11. 1)
* 부산 3・1독립운동 기념탑, 동래구 마안산에 건립 결정, 부산3・1 독립운동 기념, 8・15 광복50주년 제막식(시보 11. 1)

10. 22
* 부산항 밀수 “뛰고 난다”, 부산항을 통한 밀수 행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밀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수법 또한 대담해져 보다 강력한 단속 요구(국제 10. 22)
* 감전동 공구 월드 22일 첫 분양 시작, 부산시 북구 감전동 옛 태화고무자리에 들어설 초현대식 공구 상가인 사상공구 월드가 22일 분양 개시(국제 10. 22)
* 감리전문 12개사 확정, 부산시 부실 공사 제재 강화키로(국제 10. 22)
* 교과전담제 국교 81% 파행 운영, 「산후 휴가」 가장 큰 원인… 「보결」 활용(국제 10. 22)
* 쓰레기 무단 투기 여전, 진구청-종량제 실시 이후 3백7건 적발, 규격 봉투 사용 않아(국제 10. 22)
* 서면 로터리~범내골 로터리 22일 가변 버스 전용차선 실시, 부산진구 감전동 서면로터리~범내골로터리 사이 중앙로 1.1㎞ 구간에서 오는 22일부터 가변차선 및 버스 전용차선이 실시(국제 10. 22)
* 부산 행정 구역안 확정, 동래 남・북 3개구 분구, 양산 5읍 관장 「직할군」, 연제・사하・수영구・기장군 결정(국제 10. 22)
* 대형 공사 내년 봇물, 총 8천3백억원 투입, 제2부산교 98년 완공(국제 10. 22)
* IBRD차관평가단 접견, 진만현 부시장은 장림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에 따른 기자재 구입 및 설치비 6천만불 외자도입에 따른 IBRD차관 평가단일행의 예방을 받아 환담했다(시보 10. 22)

10. 23
* 시민 생활 체육 대회 열어, 오는 23일 사직운동장에서(시보 10. 11)

10. 24
* 부산시 임시회 폐회, 부산시의회는 24일 제3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16건의 안건을 확정한 뒤 폐회(국제 10. 24)
* 부산도심 경전철 건설 추진, 부산도심에 경전철 등 신 교통수단이 구축될 전망(국제 10. 24)
* 부산항만 시설 안전 점건 부실시공 여부 정밀 조사,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관련 해운항만청은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도로 등 기존 항만 시설을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공사의 안전 점검과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국제 10. 24)
* 93부산시 결산안 승인, 시의회 제36회 임시회 폐회(시보 11. 1)
* 시내 전교량 안전진단, 57개교 30년 이상 노후(시보 11. 1)

10. 25
* 인사, 부산 본부 세관 6급 총무과 강대원 외(국제 10. 25)
* 부산 공동 어시장 수산물 종합 백화점 변신, 50개 판매장…총 2천평 규모, 개방・임의 상장제 실시 대비(국제 10. 25)
* 원동 IC에 지하차도 건설 건의, 해운대구 내년 시 예산 지원을 요청(국제 10. 25)
* 부산종합개발사업 기획단 발족, 부산지역 주요현안추진 담당(시보 11. 1)
* 불법과적차량 집중단속, 시 경찰합동 도시고속도로・부두중심(시보 11. 1)
* 중・고생 외국어 말하기 대회(부산교육 10. 25)

10. 26 * 환적 화물 처리 개선, 신시가 등 5개 선석신설, 장육 신고제 세관과 협의(국제 10. 26)
* 내년 5월 지하철2호선 공사 대비, 문현 고가교 보수 서둘러야, 인근에 36층 고층 건물도 내달 착공, 교각 균열 심화 우려(국제 10. 26)
* 부산 중소 가동 호조, 부산 지역 중소 기업체의 지난 9월 중 정상가동 비율이 89.5%로 전월대비 1%포인트 증가(국제 10. 26)
* 농협 화훼공판장 12월 착공, 엄궁 부지 6천평에…내년말 완공(국제 10. 26)
* 석대 매립장 환매 촉구, 옛 지주 "폐쇄 1년 반 넘도록 늑장" 민원(국제 10. 26)
* 부산 지하철 2호선 부실, 건설부가 지난 8일 부산지하철 2호선과 대구 지하철 1호선 등을 부실시공으로 적발하고 보완시공토록 지시(국제 10. 26)
* 유통 선진화 큰 몫 기대, 공동 어시장 새 모습 수산 백화점 탈바꿈, 예산 확보·5개 수협 지원이 최대 과제(국제 10. 26)
* 당구장 미성년자 출입 논란, 학교보건법「유해」체육시설령「허용」으로 상치(국제 10. 26)
* 시역 모든 교량 안전관리 철저히, 실태조사 문제점·장단기조치 추진, 김시장 긴급구청장회의 주재(시보 11. 1)
* 94 부산국제 야외조각 심포지엄, 10월 26일~11월 16일, 올림픽동산서 개최(시보 10. 21)
* 노상입간판 등 단속, 벽보 등 불법부착 광고물도(시보 11. 1)
* 생활개혁참여민간단체격려, 김기재 부산시장은 10월 26일 오전 12시 문화회관 영빈관에서 생활개혁 운동에 선도적으로 활동해 온 민간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고 생활개혁을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시보 11. 1)

10. 27 * 주민대학 운영 4개구 시범 실시, 하루 4시간씩 구청별로「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시민의식 함양과 평생 교육 실현하는 배움터 제공」이라는 주제 하에 손순길 동아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 3차로 나눠 주민대학 시범 운영(국제 10. 27)
* 부산시 예산 편성 "주먹구구", 수백억 집행 않고 사장, 1천5백억 초과징수 시민 부담 가중(국제 10. 27)
* 부산 저축 증가 주춤, 전국 시도 10위차지, 부산 지역 총 저축 증가율이 지난해엔 전국 평균을 상회 하지만 올 들어 전국 평균 크게 못 미쳐 전국 15개시도 중 10위차지(국제 10. 27)
* 2단계 서면~장산 16.7km 착공, 지하철 2호선 해운데~좌동 2.4km부터 수영로 교통체증 크게 완화(시보 11. 1)
* 부산시, 인사 6급 이하 세무직(시보 11. 1)

10. 28 * 도세 연루 혐의 대상 세무 직원 40명 인사, 일선 구청에서 발생한 등록세 횡령사건으로 공무원 연루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부산시가 산하 세무직 공무원 40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단행(국제 10. 28)
* 인사, 부산시 6급 차량 등록 사업소 김양한 7급 외(국제 10. 28)
* 소방세 징수 취지 무색, 부산 기관운영비 전용…집행에 큰 구멍(국제 10. 28)
* 영도대교 "부분통제", 대달 2일부터 12개 노선버스 부산대교 분산(국제 10. 28)
* 가덕도 새 항만 서안부터 개발해야 유리, 매립토 자체 충당 가능, 제약 적어 공사도 수월(국제 10. 28)
* 부산지역 통일정세 보고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10월 28일 오전 10시 문화회관 중강당에서 진만현 부시장 평화통일자문위원 김명수 위원실장 등 6백20명을 대상으로 통일정세 보고회를 개최했다(시보 11. 1)
* 부산시 3급 인사, 부산 직할시 재무국장 양종수(시보 11. 28)

10. 29 * 부산시, 인사 재무국장 양종수 외(국제 10. 29)
* 주택인구 시범 예행조사, 부산시는 서구 동대신 2동을 95년 인구 주택 총 조사시범 예행조사지역으로 선정(시보 11. 1)

10. 31 * 부산시, 인사 2급 승진 전보 부산 종합 개발 사업 기획 단장 전진 외(국제 10. 31)

11. 1 * 서낙동강 개발 먹구름, 녹산 공정률 13%, 국도 2호선 확장 공사 중단…심한 체증(국제 10. 28)
* 시내버스 에어컨 내년부터 의무화, 시는 1일부터 부산지역 45개 시내버스업체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일반 시내버스에 에어컨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선명령 시달(국제 11. 1)
* 도심 공영 주차료 인상, 1일부터 부산 시내 도심 번화가 공영 주차장 주차기본 요금이 1백%인상 시행(국제 11. 1)
* 신규 전문 건설업 급증, 부산시 새 면허신청 4백66사·5백63건(국제 11. 1)
* 동래·북·남구 분구 경계 확정, 연제·사상·수영구 새 명칭 검토, 내무부는 1일 내년 3월 1일자로 부산 동래구 등 인구가 많은 9개구를 분구키로하고 분구경계안 확정·발표(국제 11. 1)

* 부산시, 인사 <전산직> 6·7·8급, <통신직> 6·7·8급, <기계직> 6·7급 외(국제 11. 1)
* 광안리 지하에 주차장,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 지하에 국내 최초로 대규모 공영 주차장 건립(국제 11. 1)
* 11월「녹색교통운동」실시, 7일 아침 각 구별로 10부제·카풀 등 실천계도(시보 11. 1)
*「시민자원경찰」운영, 11월 중순, 범죄예방·환경정화·질서계도활동(시보 11. 1)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늘어, 시 포상금 5백35만원 지급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가 활성화되고 있다(시보 11. 1)
* 자동차공장을 부산에, 30여 민간단체, 부산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시보 11. 1)
* 지하철 1호선 4단계구간 정밀진단 하단~신평, 설계·시공 등 문제 있을 땐 책임 물어, 시 교통공단, 대한토목학회 용역 의뢰(시보 11. 1)
* 신발산업 회생의 돌파구, 94부산국제신발전시회 성과, 9천7백만달러로 목표 상회, 중국 해외시장개척 지원해야(시보 11. 1)
* 동구, 해운대구 금정구도 종량제, 1일부터 쓰레기처리 확대(시보 11. 11)
* 부산시, 인사 부산시는 11월 1일자로 부이사관급 이상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시보 11. 11)
* 카풀승용차 통행료면제, 1일부터 10부제차량도…주차료도 할인(시보 11. 11)
* 복지자원봉사자대회, 제1회「복지의 달」기념식 불우이웃에「작은사랑 실천」(시보 11. 11)
* 노후아파트 재건축 지도강화, 구조 안전 진단 등 결과 8곳 위임(시보 11. 21)
* 제1회 부산복지의 날 기념식 및 자원봉사자대회(부산시정 11. 1)

11. 2
* 해운대~오륙도 유람선 무분별 신규 허가 대형 해난 사고 우려, 규모·시설 등 제한 도외시, 소형선 난립 운항 불 보듯(국제 11. 2)
* 유명 호텔 불량 식품 장사, 부산 14곳 음식점 적발 부산시 시정 지시 내려(국제 11. 2)
* 감사 기능 강화, 부산 지방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의 업무 감사와 세무 공무원의 비리 척결 위해 감사기능 대폭 강화(국제 11. 2)
* 지하철2호선~동해남부선 수비 삼거리서 환승, 부산 지하철 2호선이 수영 비행장 삼거리에서 동해 남부선과 환승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건설키로(국제 11. 2)
* 부산 산업 경기 "내리막길", 신발·섬유불황 생산 지수 4달째 감소(국제 11. 2)
* 현장 확인 행정·민원 즉각 해결토록, 김기재시장, 정례조례서 강조, 연말까지 비상체제로 현안시정 차질 없게(시보 11. 11)

11. 3
* 제12회 우수신인 등용무대 부산무용콩쿠르, 부산시 KBS 주최, 3·10일 문화회관 경선(시보 11. 1)
* 한·일간 환경오염공동대처, 내년부터 환경기술교류회의서 합의, 한·일 해협 10개 도시 산성비 조사, 10개항 대기오염원 분석 추적 등(시보 11. 11)

11. 4
* 삼성차 부산 유치 가능한가, 삼성 독자진출 의지 여전, 김대통령 "업계 합의" 발언 후 온갖 소문 상공부 "매수·합병" 권유…그룹 즉각 부인(국제 11. 4)
* 삼성차 부지 조성 차질, 신호공단 업종 변경 신청 정부 계속 보류(국제 11. 4)
* 삼성 기존 자동차사 인수설 "실현불가", 부산 상의는 4일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쌍용 승용차 또는 대우 승용차 인수설에 대한 성명서 발표·인수가 실현될 경우 정부는 국가 산업 정책의 비합리적 운용이라는 비난(국제 11. 4)
* 토개공·녹산·장유 등 주거단지 확정, 부산 광역 택지 개발 "박차", 1백49만여평에 달하는 경남 양산과 김해군 일대의 부산 광역권 지역 택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국제 11. 4)
* 부산시 청소년 의식조사 결과 청소년 68% 음란물 경험, 부산 지역 청소년 60% 이상이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으며 또 7%의 청소년은 본드·각성제 등의 환각제를 사용해 본 것으로 조사, 효율적인 청소년 선도대책 마련 시급(국제 11. 4)
* 부산 시의회 개회, 부산 시의회는 4일 오전 제37회 임시회를 개회 5일간의 의사 일정 시작(국제 11. 4)
* 부산시「가로 명」제정, 신암로 등 49개, 유서 깊은 순수 우리말로(시보 11. 11)

11. 5
* 부산~블라디보스토크 뱃길 열린다, 해운항만청은 부산과 보스토치니 간을 운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발표(국제 11. 5)
* 삼성차 표류 "강경투쟁", 삼성승용차 부산 유치가 표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시민 운동 연합단체인 자동차 산업 부산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이 문제를 국민적 공론화하는 등 강경 투쟁 선언(국제 11. 5)

* 생산·수출 저조 신평 장림 공단, 올 들어 지난 상반기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온 신평 장림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3/4분기에 내림세로 돌아서(국제 11. 5)
* 부산 전국서 최고, 작년 교통 혼잡 비용 대당 2백61만원, 교통 체증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해마다 급증 지난해 교통 혼잡 비용 GNP의 3.3%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국제 11. 5)

11. 6
* 삼성차 유치 5천명 서명, 자동차 산업 부산 유치 범시민 추진 위원회는 6일 금정산성에서 시민들과 등산객을 상대로 삼성차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산성서명」 운동 벌여(국제 11. 7)

11. 7
*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율 저조, 일선 구청 60%선 그쳐(국제 11. 7)
* 부산 부도 최고치 10월 중 0.65%, 부산 지역 어음 부도율이 23개월만에 최고 수준(국제 11. 7)
* 부산 시내 차량 52만4천여대, 올 들어 부산에서는 하루 평균 1백81대의 차량이 새로 늘어나고 10월 말 현재 2세대 당 한 대 꼴로 차량 보유(국제 11. 7)
* 지방세 체납 9백억, 부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1천억원에 육박 시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국제 11. 7)
* 수영만 35만평 개발 컨벤션·해양 센터 건립, 부산 해운대 관광 특구를 2000년대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키 위해(국제 11. 7)
* 시에서 노조 업무 조사, 부산 교통 공단·동아금속 등 크게 반발(국제 11. 7)
* 세병교 버스 우회 운행 12개 노선 연말까지 실시, 시는 세병교의 노후화로 통과 노선버스 2백80대 모두를 내성 로터리를 경유 동래 방향으로 우회 운행토록 조정 오는 7일부터 시행(국제 11. 7)
* 좌천 3거리~시청 버스 전용 실시, 시와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동구 좌천동 좌천 3거리~시청 앞구간에 대해 버스 전용 차선제 실시키로(국제 11. 7)
* 버스전용차선제 확대운영, 좌천삼거리서 시청행 4.2km, 노선 내 차량진입 강력 단속도(시보 11. 11)
* 부시장을 단장으로 「안점검 대책반」 구성, 부산 지역 내 각종 안전점검 및 대책을 통괄조정하기 위한 안전점검 대책반이 구성돼 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시보 11. 11)

11. 8
* 종량제 전면 실시 "청신호", 동구 등 쓰레기 60~70% 감소(국제 11. 8)
* 119 3조대 증설, 시소방본부는 긴급구조대 구급대가 내무부 지침보다 턱없이 부족·사고발생시 인명구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의 긴급구조대를 대폭 확대키로(국제 11. 8)
* 생곡쓰레기장 이달 착공 부산대 병원 강동동 확정, 부산 강서구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 공사가 이달 중 착공되고 부산대 병원이 강서구 강동동 농수산부 원예 시험 부지로 이전(국제 11. 8)
* 지자체 재정난 「허울자치」 우려, 부산 12개 구 자립도 44%선, 궁색한 수입사업…민원 초래(국제 11. 8)
* 부산 현안 사업 "삐걱", 내년예산 투자가용 재원 고작 30% 반영(국제 11. 8)
* 버스 전용차선 대대적인 단속, 부산시와 경찰청은 8일부터 연말까지 버스 전용 차선제의 조기 정착 위해 위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국제 11. 8)
* 10개 사립 중 시립화를, 부산 교육청 감사 동부 교육청 분할도 건의(국제 11. 8)
* 자매도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방문, 최인섭 기획관리실장은 11월 8일~13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를 방문(시보 11. 11)
* 잘디바르 주한스페인대사접견, 김기재 부산시장 11월 8일 14시 20분 시장접견실에서 잘디바르 주한스페인 대사의 예방 받고 환담했다(시보 11. 11)
* 행정 사무 감사 일정확정, 부산시의회 제37회 임시회 폐회, 11월 22일부터 9일간 실시해 관련자료 16일까지 제출요구(시보 11. 11)

11. 9
* 부산항 「컨」 화물 폭주 근본 대책 세워야 "숨통", 올 9월까지 처리량 전년비 25% 급증, 땜질 처방 한계… 새 항만 조기 건립 절실(국제 11. 9)
* 부산 기업 북 진출 채비, 신발·섬유 등 백개사 가능성 타진(국제 11. 9)
* 내년 택지 92만3천평 신규 개발, 택지 4만5천 가구 공급, 재건축 사업도 적극 추진, 부산시 순환 주택도 2백90세대(국제 11. 9)
* 부산 체육 꿈나무 홀대, 체전 예산 고교생 이상 선수에 편중, 과감한 투자로 우수 초중 선수 발굴·육성해야(국제 11. 9)
* 부산시, 인사 행정 4급 전보·승진·직대, 행정 5급 전보·승진 외(국제 11. 9)
* 시민자원 경찰대 출범, 도덕성 재무장·윤리의식 확립 추진, 김시장 지역파수꾼 사명 당부(시보 11. 11)
* 부산시, 인사 시의회 사무처 전문위원 정연우 외 26명(시보 11. 11)
* 부산 3·1운동 기념탑 건립키로, 내년 2월 착공, 96년 완공예정(시보 12. 1)
* 시민자원경찰대 발대식(부산시정 11. 9)

11. 10 * 삼성차 유치 민주당 동참, 부산시 지부 당원 교육 홍보・서명 운동도 전개(국제 11. 10)
* 위판물량 급증, 올 들어 부산 공동 어시장의 위판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국제 11. 10)
* 아파트 8곳 붕괴 위험, 부산지역의 노후 아파트 가운데 동구 좌천동 자성대 아파트 등 8개 아파트 단지 37개 동이 붕괴 등의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국제 11. 10)
* 치매 치료 센터 건립 학장동에 2백 병상, 부산에 치매 및 중풍 노인에 대한 요양 치료 전문 의료 센터 들어설 예정(국제 11. 10)
* 부산-수라바야시 교류각서 서명, 부산시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는 10일 두 도시 간 자매결연에 따른 상호 교류 협력 양해 각서에 서명(국제 11. 10)
* 일반 버스「좌석」전환, 시는 지하철 1호선 4단계 개통 이후 시내버스 승객 감소에 따라 일반 버스 1백3대를 좌석버스로 전환・운영키로(국제 11. 10)
* 강서 지역 추곡 수매 불이익, 전년비 1백 가마만 증가 농민 반발(국제 11. 10)
* 삼성차 유치 30만명 서명, 삼성차 부산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 운동이 사회 단체에서 서민 계층까지 확산(국제 11. 10)
* 부산시 재개발과 신설, 주택국 소속 연내 가동, 주택・도시 정비계 관련 업무 이양 전담(국제 11. 10)
* 백혈병 여고생 격려, 김시장 용기 잃지 말라 금일봉(시보 11. 11)

11. 11 * 실업고 지원 집계 잘못,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7일 마감한 부산지역 실업계 고교 입학 원서 접수 현황 중 주야 동시 5백42명・야간 3명이 지원한 부산실고를 집계 잘못으로 야간 및 주야동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발표(국제 11. 11)
* 부산 "전국 최고 실업"여전, 올 3/4분기 4.0% 평균치 배 기록(국제 11. 11)
* 반여동 택지 개발 박차, 국방부와 토지 수용 협의 등으로 1년 이상 끌어 온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지구의 택지 개발 본격 착수(국제 11. 11)
* 97 부산 동아 대회 해양 스포츠 포함시켜라, 조정・카누・요트 등 부산 해양 스포츠 단체들은 97년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14개의 개최 종목 가운데 해양 스포츠 종목이 제외된데 대해 집단 반발 자성 요구(국제 11. 11)
*「자갈치」현대화 박차 시장 주차장 본격화, 중구청이 추진 중인 자갈치 시장 현대화와 공영 주차 빌딩 건립 계획이 예산 확보로 내년 본격화(국제 11. 11)
* 구청「지자체 예산」비상, 각종 주민 수원사업 차질…민원 우려, 시청 보조금 대폭 삭감(국제 11. 11)
* 강서 벼농사 지역 격감, 낙동강 유역 최대의 곡창지역인 부산 강서구의 벼농사 지역이 최근 들어 서낙동강권 개발 붐과 농산물 수입 개방의 여파로 격감 중인 것으로 조사(국제 11. 11)
* 부산 광역 전철망 "반쪽 구축", 사상-김해 우선 추진・부산-마산 무기 연기, 사상-김해 민관 합작…96년 중반 공사 착수(국제 11. 11)
* 부산 청소년, 가정・학교생활에 불만, 수련시설 증설, 지나친 간섭자제 "요구" 탈선유형, 음란물 접촉・환각제 사용순(시보 11. 11)
* 3개 분구 경계확정 구명지역특성감안, 부산시는 부산의 3개구를 내년 3월 1일부터 분구하기로 하고 분구 경계를 확정해 발표했다(시보 11. 11)
* 월동기 쓰레기 수거에 만전, 부산시는 월동기를 맞아 고지대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는 월동대책을 마련했다(시보 11. 11)
* 겨우살이 종합대책 마련, 내년 2월까지 시민생활 불편 없게, 각종 안전사고 등 재난 예방, 김장채소・연료 등 생필품 안정수급도(시보 11. 11)
* 말러의 교향곡「거인」부산초연, 부산시립교향악단 297회 정기연주, 피호영・이미경 협연(시보 11. 1)
* 불법주차-집중단속, 부산시는 11월부터 올 연말까지 불법 주・정차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시보 11. 11)
* 월동기 시민생활 대책마련,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겨울성수품 수급만전(시보 11. 11)
* 재해위험 23개 지역 특별관리, 산사태・주택지・축대 등 대상(시보 11. 21)
*「부산직할시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 공포(제3139호)(부산교육 11. 11)

11. 12 * 부산-사할린 정기항로 추진, 부산과 러시아 사할린 간의 컨테이너 정기 항로 개설 작업 추진(국제 11. 12)
* 오염지표 미국자리공 서식, 금정산 "적신호"(국제 11. 12)
*「부산 발전협」곧 출범, 중장기계획 수립・사업순위조정 시장・국회의원・언론계 등 총망라(국제 11. 12)
* 민주・「삼성차서명」돌입, 민주당 부산시 지부는 12일 삼성승용차 공장의 부산유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당원과 시민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국제 11. 12)

* 동 쓰레기소각로 지지부진, 예산・부지확보 어려워(국제 11. 12)
* 시・국제대회 지원단 내년 설치, 오는 97년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전담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가 부산시에 설치(국제 11. 12)
* 시내 23개소 재해위험, 시내 일부 아파트단지 옹벽 언덕 석축 등이 부실 붕괴우려 등이 있는 등 재해 위험지가 산재한 것으로 드러나(국제 11. 12)
* 복지시설 4배로 확충, 부산시 내년부터 10개년계획 단계추진(국제 11. 12)
* 시역해안선시찰 김기재 부산시장은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지역 해안선 안전점검을 겸한 시찰을 오후 4시까지 했다(시보 11. 21)

11. 13 * 전국 학생 교육원 교육 요원 합동 연찬회(부산 교육원)(부산교육 11. 13)

11. 14 * 겨울 영농자금 절반 축소・강서지역 농가부채 상환 못 해 "발동동"(국제 11. 14)
* 삼성차 "연내유치 성사", 범 추위 간담회 기술도입서 조속제출 촉구(국제 11. 15)
* 수능 7만6천 응시, 부산・시험장 63개교 등 관리 지침 발표(국제 11. 15)
* 해수욕장 진입로에 대형백화점 건립・다대로 교통체증 "불 보듯", 시「교통영향 평가」통과(국제 11. 14)
* 어린이집 종일 운영, 부산진・북구 2곳서 시범실시(국제 11. 14)
* 부산기업 해외투자 "쥐꼬리", 전체건수 5.9% 고작(국제 11. 14)
* 게시판 새롭게 정비, 시 내년까지 2백 곳 교체계획, 부산시는 지난 14일 시내 2천6백23개소 게시판이 설치된지 오래돼 녹이 슬고 심하게 부식된 상태로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벽보 관리물 개선대책」을 마련(시보 11. 21)

11. 15 * 음식쓰레기 전량 재활용, 부산시「자원화」계획마련…내년 실시(국제 11. 16)
* 동서고가로 2단계 15일 부분개통, 동서고가로 2단계구간인 문현 2파출소~문현로터리 간 길이 9백m 구간이 15일 부분개통(국제 11. 15)
* 지하철「땜질보수」확인, 실태조사반 부산1호선 4단계 곳곳 벽면균열(국제 11. 15)
* 부산경찰청사 건립예산 태부족, 공기관도 시민이 짓나(국제 11. 15)
* 지하철 초량~부산진・남포동~자갈치 균열, 부산시의회 누수까지 겹쳐 구조물 침하 우려(국제 11. 15)
* 녹산교 긴급 보강 공사 계약, 긴급 보수・보강 공사를 위해 교량 보강 지지대 설치 공사를 11월 15일 (주)화수건설과 수의계약 체결(시보 11. 21)
* 동서고가로 2단계 구간 개통, 동서고가로 문현 2파출소에서 문현 로터리 구간 9백m가 11월 15일 정오부터 부분 개통(시보 11. 21)
* 등산로 백94곳 통제, 겨울철 산불 예방 위해, 95년 5월말까지 폐쇄되며 공익 근무 요원이 배치(시보 11. 21)
* 장애인 곰두리 미술대전 참관, 김기재 시장 올림픽 기념 공원에서 개최한 부산 국제 야외조각 심포지엄 작품 전시 개막식에 참석・테이프 컷팅 및 작품을 관람(시보 11. 21)

11. 16 * "기계공구 단지절실", 명지동개발제한구역에 부지활용 건의(국제 11. 16)
* 녹산교 본격보수 석달간 통행제한, 시는 16일 녹산교 보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보수작업에 들어가(국제 11. 16)
* 동삼동 매립지 개발 해항청 부산시 합의,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16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부산시와 최종 합의해(국제 11. 16)
* 부산 특소세 징수액 급증, 대형 가전제품・차량 소비 확대(국제 11. 16)
* 투자사업 빚으로 충당, 시・전체 49% 4천8백억 외부차입(국제 11. 16)
* 사회체육행정 겉돈다, 부산시・지도자 의무고용 외면(국제 11. 16)
* 인사, 부산시 부산진소방서장 강호응 외 4명(국제 11. 16)
* 44개 거리 새 이름 명명, 백산거리・읍내길・해돋이 길 등 확정(국제 11. 16)
* 세관 감시정 취항식, 50t급 3척・시속 27노트(국제 11. 16)
* 김기재 부산 시장이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을 받았으나 수술비 마련이 어려운 오영숙씨를 방문・금일봉을 전달 격려(시보 11. 21)

11. 17 * 공항로 찔끔 공사 사고 불러, 안전시설 없어 차량전복 되기도(국제 11. 17)
* 당감동 편입지 보상가 반발, "전세방도 못 구할 액수" 대책외 구성…이주비 현실화 요구(국제 11. 17)
* 부산 2년 절수=합천댐 1개 건설 부산발전연구원, 전 시민 동참 시 연 1백10억원 절감효과(국제 11. 17)
* 해운대 신시가청사 건립 차질, 예산 모자라…민원업무 마비될 우려(국제 11. 17)

* 부산L/C 내도액 증가세 10월 전월비 9.4% 늘어, 지난 6월 이후 계속 내림세를 보이던 부산지역 기업체들의 수출신용장 내도액이 4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국제 11. 17)
* 동래동물원 연말에 폐해, 적자 불감당…보유동물처리 주목(국제 11. 17)
* 민속관으로 시민에 돌려준 「지방청와대」 민선시장 관사용 보수 물의, 부산시가 민속관으로 운영중인 부산 남구 남천동 구 시장관사를 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국제 11. 17)
* 가덕도 자유무역항 추진, 부산시 1천3백만평 지정 건의(국제 11. 18)

11. 18
* 국민연금 23% 체납-부산-, 2천8백여개업소 69억원 집계(국제 11. 18)
* 버스전용차선 확대실시 "효과" 주행속도 시속 5~10km 빨라져, 버스전용차선제 확대시행이후 도심 내 버스 주행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국제 11. 18)
* 부산 관광사진 전시회, 부산의 관광지 문화재 등을 소개하는 관광사진전시회가 눈길을 끌고 있어(국제 11. 18)
* 을숙도 인공생태계 내년 착공, 을숙도 철새보호를 위한 인공생태계조성지가 당초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남단에서 을숙도 서남단 명호도 쪽으로 이전(국제 11. 18)
* 행정구역 개편…각종 재산 둘러싸고 마찰 부산시 7천억 재산싸움, 지자법 세부 지침 없어 임의해석(국제 11. 18)
* 학교주변 유해업소 "척결"-부산시교육청-, 정화구역 내 오락실 등 2백58곳 척결명령(국제 11. 18)
* 동래동물원을 살리자, "범시민 차원 회생 책 시급"(국제 11. 18)
* 카풀 희망차주 급증 이용신청 저조, 3백50여대 짝 못 찾아(국제 11. 18)
* 부산시, 인사(국제 11. 18)
* 부산시, 인사 행정 6급 여성 문화 회관 관리과장 직대 주문달 외(시보 11. 21)
* 모범 개인택시 운전원 자율 환경 감시원 위촉, 단속 공무원 위주로 하는 환경 감시 한계성을 극복하고 환경 감시 요원으로 위촉해 적극 활용키로(시보 11. 21)

11. 19
* 다대포항 수산물·목재가공단지공사 본격화 내주 지방공단 신청, 세계개발은행 차관 확보 이달 안에 환경 영향 평가(국제 11. 19)
* 수영강변도로 1차 구간 시공사 선정 쌍용건설 등 5개,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동 수영교에서 반여동에 이르는 4.88km의 수영강변도로 1차 구간 시공업체가 선정(국제 11. 19)
* 부산개발연구 일에 용역 재하청, 부산발전형 일 노무라 연구소에 일부위탁(국제 11. 19)
* 삼성·가덕도 신항만 개발의향서 제출 10년간 3조7천억 투입, 삼성그룹은 19일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가덕도 신항만 개발사업의향서」를 해운항만청 건설부·교통부·경제기획원 등 관련부처에 제출(국제 11. 19)
* 부산 「녹색지도」 새롭게 그려진다 가로수·지역별로 특화, 해안도로변 해송심어(국제 11. 19)
* 부산시, 인사 토목6급·토목7급(국제 11. 19)
* 교통정책연구실 신설, 시·내년부터 전문요원 8명 특별채용(국제 11. 19)

11. 20
* 동래동물원 버림받지 않았다, 천5백명 몰려 평소 3배…격려 전화 빗발(국제 11. 20)

11. 21
* 부산시, 인사 부산지방노동청·동래사무소 산업안전과장 최관동 외 3명(국제 11. 21)
* 동래동물원 재벌인수타진-부산시-, 시영화·유기장 겸업 허가 검토(국제 11. 21)
* 부산시의회 개회, 부산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94년도 정기회를 개회·40일간의 일정으로 내년도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착수(국제 11. 21)
* 부산지역 간접자본 내년부터 1조5천억 투자, 전국 18조원 민자 유치(국제 11. 21)
* 부산지방고시 내년 7명 공채, 부산시는 본격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내년도부터 실시될 지방고 등 고시에 모두 7명의 사무관을 공개 채용키로(국제 11. 21)
* 쓰레기 종량제 시민참여 95%, 내년도 전면 실시를 앞두고 12개 구 가운데 사하구 강서구를 제외한 10개 구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 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시보 11. 21)
* 폐수 배출 업소 특별 점검, 겨울철 갈수기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1백14개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해 환경 위반 행위 특별 점검 실시키로(시보 11. 21)
* 시행 시 예산 3조4백88억원, 내년도 예산이 3조원을 넘어서(시보 11. 21)
* 부산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창단 연주회, 청소년 정서 함양과 건전한 문화 예술의 창달을 꾀하여 연주 경험 조기 축적으로 부산 지역 음악인 육성을 위해(시보 11. 21)
* 서부산권에 고부가 산업 유치, 김기재 부산시장은 내년도 부산시의 시전 기본 방향을 「경쟁력 갖춘 국제 도시 건설」에 두고 「서부산권에 새롭게 조성되는 공단에 고부가 산업을 유치하는 등 산업 구조를 개편해 나가고 교통망과 주택·상수도시설 등을 확충·정비해 시민 불편을 최대한 해소해 가겠다」고 밝혔다(시보 11. 21)

* 영락공원 적정 사용료 “부심”, 용역 결과, 4개안 회의 상정(시보 11. 21)
* 범시민 절수 운동, 오랜 가뭄으로 수돗물의 정상 생산에 어려움 겪어(시보 11. 21)
* 저소득 주민 격려 간담회, 시는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자활·자립 의욕이 없는 저소득 주민에게 자립 의욕 고취 위해(시보 11. 21)
* 시의회 제28회 정기회 개회,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등을 심의(시보 11. 21)

11. 22
* 결실의 풍성함…시립 예술단 무대, 합창단 69회 정기 공연 부산 찬가 창작곡의 밤, 국악단 55회 정기연주 국악과 서양 악기 만남(시보 11. 21)
* 체계적 개발 계획 수립 촉구, 부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1일 제38회 정기회를 개회 제1회 본회의를 열어 김기재 부산시장과 우명수 교육감으로부터 9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22일부터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시보 12. 1)
* 교통난 완화에 3조5천억 투자, 시는 올해부터 오는 98년까지 5년간 중기 재정 계획을 발표(시보 12. 1)
* 노인회 회장단 간담회, 김기재 부산시장은 11월 22일 오전 12시 중구 동광동 대회장에서 대한 노인회 부산시 연합회 회장단 초청간담회를 가져(시보 12. 1)
* 부산역 문화관 인기, 부산역 구내에 새로 마련된 문화관이 새로운 전시공간으로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어(국제 11. 23)
* 부산공유재산관리 엉망, 부산시의 공유재산 매각이 장기적인 계획수립 없이 마구잡이로 헐값에 처분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국제 11. 22)
* 교통부부담금 체납 늘어, 2천3백여건 3억5천9백만원 집계(국제 11. 23)
* 미분양 아파트 연중 최고기록-부산-, 부산시의 미분양아파트가 1만2천6백여세대에 달해 올 1월 이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드러나(국제 11. 22)
* 부산용역사업 낙찰율 95% 예가 누출·업체 간 담합의혹, 부산시 종합 건설본부가 실시하는 각종 용역사업의 낙찰율이 95.57%에 달해 발주부서의 예정가격 누출과 업계 간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어(국제 11. 22)
* 운수교육기금 사장 질탈, 세무비리방지 행정전산화 촉구 정신요양원 환자 인권유린 따져(국제 11. 22)
* 주택정책 소리만 요란 부산시 택지개발사업 등 실적 극히 저조(국제 11. 22)
* 야간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강력한 불법주차단속으로 민원 들끓고 있는 가운데 시가 또다시 시내 47개 지역을 지정·야간 불법주차 단속을 전개키로 해 이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국제 11. 22)
* 신축 생활관 공사 차질, 시 청소년 수련장 겨울철이용 불편(국제 11. 22)
* 수영만 매립지 해강국교 시공 내년 9월 개교 천2백명 수용, 수영만매립지내에 해강국교가 내년 9월 개교돼 이 일대 국교생들이 6km나 떨어진 해운대구 중1동 해운대국교까지 걸어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국제 11. 22)
* 지방재정 확충방안 추궁, 부산시의회는 22일 부산시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일제히 돌입(국제 11. 22)
* 부산극단 첫 뮤지컬 ‘만다라’, 만다라가 내달 1~3일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막 올라(국제 11. 22)

11. 23
* 건전시민의식함양 표어 현상공모, 시는 건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표어를 현상공모(국제 11. 23)
* 시·중기재정조달 계획난항·98년까지 6조원 부족, 시의 올해부터 98년까지 향후 5년간 세입이 11조5천6백여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는 반면 효율적인 지역개발 등을 위해서는 17조8천여억원의 세출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 돼 6조2천여억원의 부족재원 조달이 시급한 것으로 집계(국제 11. 23)
* 부산시, 인사 부산중구청 6급 교통행정 계장 박희옥 외 해운대구청 국장요원 최정경 외(국제 11. 23)
* 부산권 개발표류 질타, 위원회 유명무실 폐지촉구(국제 11. 23)
* 산재·직업병예방 겉핥기,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이 하반기 석달 동안에 몰려 실시되고 있어 겉핥기식 형식측정이 우려(국제 11. 23)
* 부산주공아파트 내년 7천4백세대 공급,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는 내년에 총 7천4백여세대의 각종 아파트를 부산시내에 분양(국제 11. 23)
* 부산 영화 제작 가능성·방안은, 자본 댈 지역경제인 참여 아쉬워, 영화 평론가협 아주게임 대비 세미나, “침체 탈피 위해 국제 영화제를”(국제 11. 23)
* 제2회 학생 과학 탐구 올림픽(부산교육 11. 23)
* 대학수학능력 시험(부산교육 11. 23)

11. 24
* 자동차세 92년에도 포탈, 부산 북구청 수납-수납부 틀려…의혹 증폭(국제 11. 24)
* 부산시, 인사 부산서구 7급 사회과 손한진 외(국제 11. 24)

* 부산시 산업평화상수상자 14명 발표, 부산시는 24일 제2회 부산시 산업평화상 수상자로 근로자부문 대상에 14명 발표(국제 11. 24)

11. 25
* 부산시립미술관 시공사 2사 결정,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 공원 내 5천평 부지 위에 세워질 부산시립미술관의 시공회사가 (주)대우와 자유건설로 결정(국제 11. 25)
* 가덕도가 최적지역, 부산에 외국인 투자 특구 설치를(국제 11. 25)
* 양산동부 전원주택지 관광위락지 집중개발, 부산 편입 대상지역인 경남 양산군 기장 장안읍과 정관 일광 철마면 등 동부 5개 지역이 전원주택지와 관광위락시설지구로 본격 개발(국제 11. 25)
* 기업대출기피 부산금융기관, 부산지역 금융기관들이 40년대 들어 대출을 꺼리고 있어 기업자금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이 시급(국제 11. 25)
* 연말물가단속, 부산시는 연말연시 물가 안정위해 2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행정력을 동원(국제 11. 25)
* 1인당 당세 30만원 돌파, 내년도 부산시민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이 사상 처음으로 3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국제 11. 25)
* 인사, 해운대구 총무국장 황종석 외 4명(국제 11. 25)
* 브람스 음악의 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5일 저녁 7시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브람스의 교향곡과 서곡 협주곡을 연주(국제 11. 24)
* 남구쓰레기소각장 25일 준공예정, 남구청이 용당 산2일대 천평에 건립중인 구단위 대형 쓰레기소각장이 7개월여 동안의 공사 끝에 오는 25일 준공될 예정(국제 11. 23)
* 부산시립박물관 진시황 부산 특별전 개최, 11월 25일부터 부산시와 공동주최로(시보 11. 21)
* 중국 상해시 부시장 일행 내부, 진만현 부시장도 11월 25일 접견실에서 중국 상해시 부시장 등 7명 예방받고 환담(시보 12. 1)
* 시비・복지 장학금 전달, 94년도 시비 및 복지 장학금 수여식이 11월 25일 오후 2시 30분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김기재 부산시장 장학생 학부모 등 참석 가운데 개최(시보 12. 1)
* 진시황 부산전 인기, 「진시황 부산전」이 11월 25일 개막 후 관람객 15만명 육박(시보 1. 3)

11. 26
* 26억원 경영손실, 부산도개공이 고지대여서 택지로는 부적합에도 불구 부산 북구 만덕동 산 179일원 만덕3지구가 무리한 개발추진으로 최소한 26억원 이상의 경영손실을 기록(국제 11. 26)
* 중기 해외 시장 개척 전년 비해 25% 증가, 부산지역 기업들이 올 들어 참가한 유럽과 중남미 중동 등지의 해외 시장 개척단 및 각종 국제 박람회에서 예년보다 많은 수출 계약 실적을 올린 것으로 조사(국제 11. 26)
* 신시가 상업 용지 유찰,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내 상업용지 무더기 유찰(국제 11. 26)
* 학술 행사 무대 공연 「민요 맥 잇기」 잇따라, 민요의 건강성과 현재적 접맥에 끊임없는 관심을 쏟아 온 「부산 민요 연구회」는 26일 부산 동래구 거제동 국제 문화 센터 소강당에서 「부산 경남 민요 학술 심포지엄」 개최(국제 11. 26)
* 1월부터 평균 11% 인상, 부산~시모노세키 「컨」 운임 조정(국제 11. 26)
* 97년 동아시아 대회, 97년 동아시아 대회 부산 개최 앞두고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가 시설 점검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 돌입(국제 11. 26)
* 부산 3개 교육구청 신설, 부산시 교육청 산하에 내년부터 중부・북부・해운대 등 3개 교육구청이 신설(국제 11. 26)
* 인사, 부산시 감사 담당관실 조사 3계장 이박문 외 3명(국제 11. 26)

11. 28
* 민속 박물관 존속키로, 지방청와대 "민선 시장 공관 활용" 계획 철회(국제 11. 29)
* 상업 용지 사가세요, 시 종합 건설 본부 필지 커 분양률 저조(국제 11. 28)
* 부산・경남 10개소 특감, 26개 시청구는 내무부 감사, 감사원・내무부 지방세 자동차세 비리 추적(국제 11. 28)
* 녹산 공단 용지 부지 3차 분양 대기업 참여 허용, 주종 산업 세 간섭 완화, 부산지역 경제 기관장 회의 적극 검토(국제 11. 28)
* 삼성차 공청회 촉구, 자동차 산업 부산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28일 경제정의 실천 시민 연합회에 지난 4일 요청한 「삼성승용차사업 신규진입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여부를 조기에 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국제 11. 28)
* 충무동 방파제 전면 보수를, 부산 지역 수산업계와 어민들이 지난 87년 태풍으로 파손 된 채 7년째 방치되고 있는 부산 남항 충무 방파제의 전면 보수를 부산시 등 관계 당국에 건의(국제 11. 28)
* 상사 평가제도 도입 공무원 70.8% 찬성, 부산의 일선 공무원 중 대부분이 상급자의 인사고과에 하급자의 평가가 반영돼야하며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국제 11. 28)

* 부산 미술 50년 전 도록 발간,「이동 미술관」…발자취 한눈에, 신문기사 등 귀중한 자료 총망라, 작가 인적 사항·경력 등 기재 일목 요연(국제 11. 28)
* 시 노외주차장 신설 1,300여면 확장, 시는 내년 1,300여면 공영노외 주차장 건설키로(국제 11. 28)
* 가로명 44개 새로 확정, 28일 지명 위원회의 심의 통해 부산 지역 44개 주요 도로에 대한 가로명 확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국제 11. 28)
* 버스 전용 차선제 실시, 시는 동래구 연산R~부산진구양정R간 버스 전용차선제를 금주 실시(국제 11. 28)
* 복지시설 연말 온정 한파 "따뜻한 마음이 그립다", 연말연시 앞두고 부산의 아동 노인 수용 시설에 온정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아(국제 11. 28)
* 부산시가 도서 "재 납부" 지시, 세무과장회의서 서구청 등 6개 구청 독촉장 발부, 시민에 책임 전가 "편의 행정"(국제 11. 28)
* 주차료 수입 격감, 부산시 주차관리 공단의 주차관리 직원 부정 채용 및 공영 주차 요금 횡령 사건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28일 공단의 37개 주차장의 지난 상반기동안 주요 수입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사실을 확인 주차 관리 직원들이 간부들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주차료를 횡령해왔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키로(국제 11. 28)
*「도서」 독촉에 잇단 반발, 부산시와 일선 구청이 법무사 사무로 직원이 횡령한 세금을 재 납부 하도록 독촉 고지서 발부·파문 확산(국제 12. 1)
* 선거 방법 개선 할 점 많아, 내년 6월 4대 지방 선거 대비해 인력·장소·시간·과정 등에서 개선 할 점이 많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시보 12. 12)

11. 29
* 시내 15개 동 내년 3월 분동, 개금 3동·연산 9동·당리동·남산동 등 인구 3만명이상 대상, 시내 15개 동이 내년 3월께 분구 일정과 맞춰 분동(국제 11. 29)
*「환경부산」 청사진,「녹색팀 구성」 환경지도·백서 발간,「범시민 축제」·국제 행사 적극 유치, 구별 시범 교선정「푸른 교실」 운영, 내년을 부산의 환경원년으로 삼으려는 부산시의 계획이 29일 확정(국제 11. 29)
* 인사, 부산 영도구 6급 청소행정 2계장 이광수 외, 부산 중구 총무 과장 안본근(국제 11. 29)
* 평통 부산지역 활동 보고회, 김기재 시장 참석(시보 12. 12)

11. 30
* 부산 경기 호조…확장 국면, 부산 지역 산업 경기가 의복과 기계 장비 제조업의 호조 등으로 생산과 출하 재고 지수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수출 증가율도 올 들어 처음으로 전국 평균을 앞지르는 등 점차 확장 국면(국제 11. 30)
* 부두 순환도로 건설, 왕복 4차선 96년 착공 내년 예산 5억 확보 기본 용역 착수(국제 11. 30)
* 자연 녹지 훼손 질타, 부산 시의회 30일 건설위 도시 주택위의 시정 감사를 끝으로 지난 9일간의 94년도 행정 사무 감사 일정 마쳐(국제 11. 30)
* 어시장-부산시 물량장 사용권 공방, 부산 공동 어시장이 지난 91년부터 임시 위판장으로 무상 사용해 온 3백평 규모의 물량장에 대해 최근 부산시가 연말까지 반환을 요구했으나 공동 어시장 측이 크게 반발·귀추 주목(국제 11. 30)
* 부산 국악 대전 신설, 유능한 국악인을 발굴하는 전국 규모의 국악대전이 부산에서 개최(국제 11. 30)
* 부산 체육 정신 차려라,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와 부산시 체육회 등 부산 체육 중추 단체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국제 11. 30)
* 부산 양궁장 선다, 아주게임 대비 사직보조구장에 마련, 5천만원 들여 과녁 선수 휴게실 등 설치(국제 11. 30)
* 민영 주차장 지원 확대, 민영 주차장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 하자 시가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 마련 중(국제 11. 30)
* 하수도사용료 인상 오는 1월부터 19.7%, 부산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 1월부터 평균 19.7% 인상키로 확정(국제 12. 1)
* 삼성차 부산유치 가시권, 지역정서 YS「세계화 구상」 합일·허가 내락 공식 결정 택일만 남아(국제 12. 1)
* 시 직원 외국어 위탁 교육 수료, 최인섭 기획 관리실장은 11월 30일 ESS 외국어 학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시 직원 외국어 위탁 교유 수료식에 참석 시 직원 격려(시보 12. 12)

12. 1
* 주차회수권 도입촉구, 부산시의회는 1일 오전 94년도 정기회의 제2차 본회의 속개 첫날 시정 질문 벌여(국제 12. 1)
* 만덕~초읍터널 내년말 착공, 만성교통체증지역인 부산 북구 만덕동, 진구 초읍동 및 동래구 사직동을 연결(국제 12. 1)

* 송림공원 6년째 난항, 해운대 송림유원지의 관광지 개발 사업이 시와 민간단체 간의 경쟁을 믿지 못해 6년째 표류(국제 12. 1)
* 시내버스이용 해마다 준다, 부산발전연구원 교통실태조사(국제 12. 1)
* 하얄리아부지 시민공원 소망묵살 시-대규모 아파트 조성, 이전이 확정된 미 하얄리아부대 부지에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도심 속 공원을 희망한 시민들의 반발 예상(국제 12. 1)
* 소비자물가 단잠, 부산은 전국 3위, 11월 소비자 물가는 공산품 가격 상승률이 지난 86년 이래 가장 낮은 폭 기록(국제 12. 1)
* 신항만 내년 본격 개발, 당정회의·가덕도 등 7개소 예산 75억 확보(국제 12. 1)
* 농수산물 수출 활기, 대일 작년비 금액 11% 증가(국제 12. 1)
* 수영비행장 이용방안 밝혀라, 부산시의회가 지난 9일간 행정사무 강사에 이어 1일 부터 3일간 시정 질문(국제 12. 1)
* 가덕도진입철도건설, 부산 강서구 둔치도에 경마장 건설이 재추진 되며 녹산공단 추가매립 면적이 현재 계획된 75만평에서 100만평으로 늘어나(국제 12. 1)
* 44개 가로명 확정, 12월 2일부터 시행키로(시보 12. 1)
* 「녹색 교통 범시민 운동」 전개, 시민 동참 땐 도심 통행량 반으로 줄어, 참여 업체…교통 유발 부담금 감면 검토(시보 12. 1)
* 예식장 불공정 거래 특별 지도, 결혼 성수기 맞아, 신고 요금 준수 실태 등 점검(시보 12. 12)
* 생필품 물가 안정 지도·단속, 연말연시를 맞아 주요 생활필수품 수급과 개인 서비스 요금 가격 안정을 위한 물가 안정 지도 단속에 나서(시보 12. 12)
* 부산 지역 중소기업 수출 호조,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이 올 한 해 동안 유럽 중남미 중동 등의 해외 시장에 개척단 파견과 각종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 계약 늘어(시보 12. 1)
* 시민 대 청소 실시, 시민 청결 의식 함양과 청소의 생활화 도모를 위하고 94 도시 환경 정비의 완벽한 마무리 붐 조성을 위해(시보 12. 12)
* 김장 쓰레기 대책 마련, 시는 김장철 맞아 배추 무 등 김장 채소 물동량 증가로 김장 쓰레기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김장 쓰레기 수거 대책 마련,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기로(시보 12. 12)
* 95년 예산안 본격 심사, 12월 1일부터 3일간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과 김기재 부산시장과 우명수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다(시보 12. 12)

12. 2
* 부산시, 인사 세정과정 이홍석(국제 12. 2)
* 「상차비뇌물」 전면조사, 부산시는 2일 부산시내 일선구청과 구청의 청소용역 업체들의 상차비 명목 뇌물수수사건과 관련 전면 조사(국제 12. 2)
* 부실교량 4곳 교체, 시는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붕괴 직전의 판정을 받은 해운대구 좌 1동 동백교에 대해 2일부터 차량 진입은 전면 금지(국제 12. 2)
* 북구 교통량 감소, 자동차의 증가로 시내주요도로의 교통량이 폭증, 북구 지역의 교통량은 감소(국제 12. 2)
* 구의회 외유경비 과다, 지방자치단체 올 예산만이 의결기관인 구의회의 외유경비를 과다 책정·낭비적인 항목 시정하지 않고 노인정 등 사회 복지 시설 등은 소폭 인상 혹은 감액시켜 비난(국제 12. 2)
* 수영도 우회도로 "찔끔 예산", 당초 계획 70%만 배정(국제 12. 2)
* 우수 미술 작품 전시회 개최, 「부산 자랑 10가지」 순회 시민 예술제에서 입상한 사람들의 작품(시보 12. 1)
* 토지과표 공시지가 대비 31.4% 수준 조정, 내년부터 부산지역 토지과표가 14.1% 인상 돼 개별 공시지가 대비 31.4%로 조정(시보 12. 12)
* 제2회 산업평화상 시상식(부산시정 12. 2)

12. 3
* 생곡쓰레기장 4사 낙찰, 부산강서구 생곡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진도 종합건설·동아건설산업·건영기업·성일건설 등 4개 사에 낙찰(국제 12. 3)
* 하얄리아 시민 품으로, 하얄리아만이라도 시민의 품으로(국제 12. 3)
* 부산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수돗물 대책 집중 추구(국제 12. 3)
* 대기 오염 규제대책 촉구, 부산시의회는 3일 정기회 4차 본회의 개회 3일째 마지막 날 시정 질문(국제 12. 3)
*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정기 카페리 빠르면 내년 상반기 운행, 방한 러시아인 수요 충족 1만톤급 1척 월 6항차, 부산~블라디보스토크 간을 운항할 정기 카페리 항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설될 전망(국제 12. 3)

* 부산 고교 평준화 폐지, 부산에서 오늘 96년부터 고교평준화 폐지전망 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4년부터 서울과 함께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제도는 학력의 하향평준화 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 고교 입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국제 12. 3)
* 내년 토지과표 부산 14% 인상 32평 아파트 종토세 만5천원,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에도 불구 시가 내년도 종합 토지세의 과세 근거가 되는 토지 과표를 평균 14.18%나 대폭 인상해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국제 12. 3)
* 신호공단에 삼성차 공장, 삼성그룹도 승용차 사업 신규진입에 대한 정부의 인가가 떨어지면 부산 신호공단에 승용차 공장 착공, 97년부터 생산에 들어 갈 전망(국제 12. 3)
* 부산경제 새 활력 삼성승용차 설립확정과 그 파장, 부산발전사업 제1호인 삼성승용차 공장 유치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부산 경제 새로운 도약의 전기 맞아(국제 12. 3)
* 을숙도 철새 도래지서 먹이 주기, 시는 12월 3일 천연 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에서 자연보호와 철새 먹이주기 운동을 전개(시보 12. 12)
* 부산시, 인사 행정 4급 재무국 세정과장 이홍석 외 1명(시보 12. 12)

12. 4
* 독학 학위 취득 시험(부산교육 12. 4)

12. 5
* 부산「쓰레기대란」비상, 개인수거 쓰레기의 상차비와 관련 집단적인 반발을 보여 올 부산시 개인 수거자 3,500여명이 전면적인 수거 거부 움직임 보여 시의 생활 쓰레기 대란 우려(국제 12. 3)
* 부산시도 대대적 조직개편, 서 낙동강권・지자체 대비 지역특성 살려, 내무국 축소・대민 서비스 강화(국제 12. 5)
* 시민 세부담 과중 추궁, 부산시의회는 5일 내무재무산업 교육사회위 등 6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고 소관부서별로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착수 예산 편성 상의 문제점 대해 집중 추궁(국제 12. 5)
* 자유 무역항 설치를, 공단 주거 단지 갖춰 최적, 부산 경제 활성화 큰 기대(국제 12. 5)
* 배내골 취수댐 내년 착공, 부산시의회 지방채 8백39억 발행승인(국제 12. 6)
* 부산경제 새 활력, 자동차 기술 세계화 박차, 신산업 정책 구상・시장 경제 논리 관철, 부산권 개발로「무역입국」재도약 기대(국제 12. 5)
* 통행료 자동화추진, 부산시 차량에 전자 인식표 부착(국제 12. 6)
* 수능 시험 뒤「청소년 어울 마당」, 시 주최 황령산 청소년 수련소서(시보 12. 12)
* 시립예술단 불우이웃 초청 무대 마련,「관악협주의 밤」부산시립교향악단,「꿈나무들…콘서트」소년 소녀합창단, 장애학생 등 초대 시립무용단 송년무대(시보 12. 12)

12. 6
* 인사, 부산중구청 7급 민방위과 김상규 외(국제 12. 5)
* 시의회 예산심사, 부산시의회는 6일 6개 상임위별로 이틀째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의 내년을 예산안 예비심사 벌여(국제 12. 6)
* "삼성차 부산 온다, 강서구 땅값 들석", 삼성승용차 공장 부산유치가 확실시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서구 일원 땅값 폭 등 움직임 보여(국제 12. 6)
* 녹산 3만평 추가매임, 부산강서구 녹산공단 앞 바다에 추가로 3백만명 매립추진(국제 12. 6)
* 부산경제 새 활력, 삼성차 공장이 부산지역 개발 및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국제 12. 6)

12. 7
* 부산 경제 활로 열었다, 삼성차 유치 시민 반응 "서부산권 개발・산업 고도화 계기로"(국제 12. 7)
* 부산지역자동차 53만7천여대 외제차 9백77대…15.6% 증가, 올 들어 지난 달까지 등록된 부산지역 자동차는 모두 53만7천1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한 것으로 조사(국제 12. 7)
* 조선소 공동화 바람직, 부산 중기 활성화…감천항에 단지 조성, 부산 발전연 공청회서 주장(국제 12. 7)
* 교통용역비 과다중복 시 정책개발 조사비용에 13억원 책정, 부산시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통 관련 각종 용역비를 중복 책정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국제 12. 7)
* 분뇨수수료 감면 맹점, 생활보호대상자 대부분 공제 못 받아(국제 12. 7)
* 95 부산시 체육예산 오히려 줄었다, 전체 예산 반영비율 전년 대비 0.15%감소, 1백24억원 주경기장 건설 등에 투자(국제 12. 7)
* 부산부도율최악 11월 중 0.66%, 11월 중 부산지역 어음 부도율이 지난 92년 11월 이은 2년만에 가장 높은 0.366% 기록(국제 12. 7)
* 동아 저가투찰 광안대로 현수교공사 부실시공 우려, 예정가의 78%에 선정, 감독 강화로 사고 방지(국제 12. 7)
* 부산경제 새 활력 삼성승용차 설립확정과 그 파장(4), 제조업구조 고도화 선도, 첨단 산업・고부가가치 업종 전환(국제 12. 7)

* 범시민 운동이 정치권 움직여, 자유경쟁·지역발전 논리 주효, 범추위 결성 30만명 서명 받아(국제 12. 7)
* 삼성차 허가, 녹산 96만평 그린벨트 해제(국제 12. 7)
* 청소년 탈선 예방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 시는 방학과 크리스마스 졸업 등이 연속되는 연말연시 맞아 청소년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선도키 위해(시보 12. 12)
* 부녀지도사업 보고회, 7일 시민회관 수범사례 발표, 올해 봉사활동 결산·유공자 표창(시보 12. 12)
* 신호공단 조성에 박차, 삼성승용차 공장의 부산 유치를 정부서 승인함에 따라 신호공단 조성 사업을 부산시 종합 건설 본부를 비롯한 전 부서가 참여하는 임시 기구를 설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시보 12. 12)
* 동아대 이태일 교수 제9대 총장 취임(부산교육 12. 7)

12. 8
* 95년 사업비 3천억 책정, 행정력 총동원…내년 7월 기공(국제 12. 8)
* 부산항 개발 "근시안", 장기 대책 없이 미봉책 급급, 국제 경쟁력 날로 쇠퇴(국제 12. 8)
* 부산시의회 예결위 정책 질의, 부산시의회 예결특위가 8일 본격 가동 되어 6일간의 예산종합 심사에 착수(국제 12. 8)
* 쓰레기 공수거 구제하라, 부산시의회는 8일 예결특위를 가동(국제 12. 8)
* 시장, 개인수거인 지위보장 약속 쓰레기 파동일단락, 상차비 비리와 관련 부산시내 개인쓰레기 수거자들의 쓰레기 수거 거부 등으로 이어진 부산 생활 쓰레기 대란이 8일 김기재 부산 시장의 법적 지위 보장 약속 등으로 일단락(국제 12. 9)
* 부산경제 새 활력 삼성자동차 설립확정과 그 파장(5), 부품전문공단 조성 견인차, 완성차 협력 업체 서낙동권 집중 배치, 기능 인력 육성·기술 연구 센터도 설립(국제 12. 8)
* 하얄리아 아파트 단지조성 재검토, 시의회 답변 시민 편의 최우선 고려 결정, 첨단 산업 단지 계획 없다(국제 12. 9)

12. 9
* 미관우선, 주택 정책 편다, 신축 아파트 시와 협의, 녹지 보존·조망권 문제 적극 배려(국제 12. 9)
* 국회 감사자료 과다요구, 구마다 1백~1백건, 민원 업무 제쳐두고 준비에만 매달려(국제 12. 9)
* 거미줄 배란 통합관리건설, 「부산도시가스」 이전 "2년간 안전"만전을, 시내 백여곳 "누출 적신호" 지적, 본관 자동차단 장치 전무 "아찔"(국제 12. 9)
* 공영주차장 이용금지, 시는 10부제 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10부제 미 참여 차량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공영주차장 이용 금지할 계획(국제 12. 9)
* 부산시, 인사 부산 북구 7급 건설행정과 안승주, 김상근외(국제 12. 9)
* 부산경제 새 활력 삼성자동차 설립확정과 그 파장, 1차 부품업체 신청 "봇물", 신발·섬유 등 타 업종도 참여 적극 모색, 부지확보·공장 건립 과열 분위기 우려(국제 12. 9)
* 부산도시가스 장림이전,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위치해 대형 가스 폭발 사고의 불안감을 주고 있는 부산 남구 남천동 (주)부산도시가스가 오는 96년 부산 사하구 장림동 도시가스제조소로 이전·통합 예정(국제 12. 9)
*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부산시정 12. 9)

12. 10
* 하수처리장 예산낭비, 부산시 의회 아파트 조경 관리 감독 촉구(국제 12. 10)
* 시문화재 정화, 시는 지역소재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62점에 대한 자연적 인위적 훼손을 막기 위해 월1회 정기점검 실시(국제 12. 10)
* 부산대교 밑 주차장 12일부터 유료화, 부산대교 밑 주차장이 공명유료 주차장으로 오늘 12일부터 전환 운영(국제 12. 10)
* 재해예방대책수립 시·산하기간에 시달, 시는 지난해 대책부에서는 내년 4월 3일까지 동절기 재해대비 대책 마련(국제 12. 10)
* 광안대로 5공구도 고의 유찰 "얼룩" 사업추진 큰 차질 우려, 부산시가 5천1백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건립할 광안대로 공사가 발주단계에서부터 대행건설업체들의 담합과 고의 유찰 등 얼룩져 대로 건설에 차질이 우려(국제 12. 10)
* 회동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훼손, 토질 형질 변경 여전, 금정구 올 들어 무허 건축 등 19건 적발(국제 12. 10)
* 부산교육대상 확정, 시교육청은 10일 제7회 부산교육대상 수상자로 초등부문에 강용지씨 등 4개 부문에 5명을 확정(국제 12. 10)
* 부산경제 새 활력 삼성승용차 설립확정과 그 파장(7), 전문건설과 하도급 참배 "부푼 꿈", 차 공장 관련 총공사비 1조 추산,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효자 노릇"(국제 12. 10)

* 아파트 안전 검사 실시, 시는 12월 10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90년 이후 시공된 아파트에 대해 정밀 안전 검사 실시(시보 12. 12)
* 신호공단 승인, 삼성 승용차 공장 입주 예정 부지인 신호 공단의 유치 업종 변경과 개발 계획 10일 건설부의 최종 승인 받아(시보 12. 12)

12. 11 * 차량 통행 제한 해제, 녹산교 보강공사 완료로(시보 12. 12)

12. 12 * 교육 환경개선 소홀질타, 부산시의회는 12일 4일째 예결 특위를 속개, 부산 시의회 사립학교 재단투자 증대 시급(국제 12. 12)
* 부산서 개최 경제토론회 "말잔치 많다", 부산에서 열리는 경제관련 토론회가 너무 많고 형식적이란 지적(국제 12. 12)
* 신호개발 업종변경 승인, 내년 6월 착공 97년 완료(국제 12. 12)
* 화장료 9만원 확정 부산시의회 시원안대로 통, 내년 1월 개장 시립 화장장, 부산시의회는 12일 시가 제출한 부산시 묘지 및 화장장 사용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국제 12. 12)
* 부산 5개 구청 도세 협의 감사원 특강강화, 감사원의 지방세 비리 특감을 받고 있는 부산의 사하구 등 5개 구청에서 지방세 횡령이 적발 되거나 횡령 의혹 제기(국제 12. 12)
* 동아시아 대회 준비 박차, 시는 오는 97년에 개최될 제2회 동아시아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해(시보 12. 12)
* 아파트 단지 한 가족 운동 전개, 시는 아파트 위주의 주거 행태로 이웃 간의 인정이 각박해짐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 운동을 전개하기로(시보 12. 12)
* 쓰레기 종량제 큰 성과, 내년 1월부터 시내 전 지역서 실시, 배출량 30% 감소되고 재활용품 두 배 늘어(시보 12. 12)
* 대민 특별 봉사 활동 전개, 실천·현장 중심 가시화 되게 12월 한 달 국민 신뢰 회복 차원(시보 12. 12)
* 200명 규모 대회 조직위 구성, 97년 부산시 동아시아 경기 준비 위해(시보 12. 12)
* 산불예방 경계령, 기온이 갑자기 내려감에 따라 산불 발생이 어느 때보다 높아(시보 12. 12)
*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대비 작업,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과 재활용품 처리 대책 마련 등 준비 작업에 나서(시보 12. 12)

12. 13 * 여객선 이용 외국 관광객 급증,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부산과 인천항으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이 올 들어 크게 늘어(국제 12. 13)
* 민원업무 설문조사 "형식적", 회수율 10~20% 불과, 시민들 외면…시·구청 예산만 낭비(국제 12. 13)
* 부산 "겨울 스포츠 살리자", 동계 경기 없어 시민체육열 찬물, 실내 축구 등 검토 사업성 밝아(국제 12. 13)
* 부산 원로 연극인 포상, 부산에 연극의 씨앗을 뿌린 원로 연극인들을 찾아 포상하는 뜻있는 자리가 마련(국제 12. 13)
* 가덕도 신항만 개발 대무도 참여 공식화, 3조 규모 투자계획 제출, 부지 총 5백48만평 조성(국제 12. 13)
* 부산경제 "꼴지" 여전, 3/4분기 주요지표 전국서 "바닥", 실업률도 평균치보다 1.8%P 높아(국제 12. 13)
* 영도 청학~감만동 해저침매터널, 부산 영도구 청학동과 남구 감만동을 해저도 연결하는 길이 107km의 침매터널이 내년부터 민자 유치(국제 12. 14)
* 부산광역시로 명칭 변경, 시는 12월 13일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 2일 제1백70회 정기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광역시로 명칭 변경(시보 12. 21)

12. 14 * 쓰레기 종량제 확대, 내년 전면 실시…슈퍼 등서 봉투 구입(국제 12. 14)
* 시립예술단 잇단 송년무대,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담아 부산시립대 예술단의 각 단체들이 송년 음악회와 춤판을 무대에 올려(국제 12. 14)
* 부산시 세무 "인사태풍", 35년생 8명 정책 보좌관 전보 고위직 공석, 분구 준비단 요원 인사까지 겹쳐(국제 12. 14)
* 생곡쓰레기매립장 착공(부산시정 12. 14)

12. 15 * 부곡동 현대모직 앞 고속버스 중간하차, 오는 15일부터 금정구 부곡 3동 중앙로변 현대 모직 앞에 설치된 고속버스 중간 하차장 운용(국제 12. 13)
* 미 55보급창 "이전 적기는 지금", 동구청 시에 첫 공식 건의(국제 12. 15)
* 부산 전 구청 조직적 도세, 정부 감사 확인된 것만 8곳 5억 등록세 횡령, 감사 끝나면 규모 크게 늘듯(국제 12. 15)
* 수영강변로 17일 착공, 부산 수영강변 고속도로 공사 17일 착수 97년 완공 예정(국제 12. 15)

* 내년 예산 백억 삭감, 부산시의회 예결특위는 15일 마지막 계수조정 작업 계속(국제 12. 15)
* 사직주경기장 건립 “기우뚱”, 부산시의회 관련 예산 80억원 전액 삭감, 아주 게임 준비 기관 간 이견 노출(국제 12. 16)
* OCA총회 내년 5월 “서울개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유치 여부 최종 결론(국제 12. 16)
* 자원봉사 대축제 오순신씨 등 「최우수상 영예」, 「11월 부산 복지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자원 봉사 경연 대축제 시상식이 열려(시보 12. 21)

12. 16
* 3개 권역별로 산업별 특화, 2000년대를 대비하는 부산 지역 발전의 기본 계획이 마련(시보 12. 12)
* 「컨」 수송 배후 수영로 기공, 부산시 종합 건설 본부에서는 해운대구 수영교~금정구 국도 7호선을 잇는 컨테이너 수송 배후 수영도로 건설 1단계 공사 기공식을 12월 17일 개최(시보 12. 21)
* 시예산 3조6백53억 확정 교육청 8천5백억 통과, 부산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38회 정기 외 제 5차 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1백80억원 삭감 확정(국제 12. 16)
* 조도에 「해상교통관리센터」, 부산해항청 64억 예산…내년 착공 영도구 동삼동 조도에 설치(국제 12. 16)
* 하구둑 내년 보수공사, 석달 간 계획…체증 대비책 마련 시급(국제 12. 16)
* 명지대파 사주기 운동전개, 시 「주말시장」 등 개설키로(국제 12. 16)
* 광안리~해운대 첨단업무단지 건설, 3개 권역·8개 핵심 프로젝트 시관합작 추진, 엄궁 서부산 북부산 일대 물류 유통 센터 개발(국제 12. 17)
* 돌아본 94 부산문화, 개별공연 풍성…기획은 부족, 이매방 춤인생 60년 집대성 큰 비중, 중견 무용인 해외 무대 진출 잇따라(국제 12. 16)

12. 17
* 금정산 추모비 “마찰”, 12개 산재…산악인회 철거 요청 묵살(국제 12. 17)
* 녹산공단 조기완공건의, 부산 상의 97년 이전 앞당겨야 차 부품 공장 유치(국제 12. 17)
* 명지에 해양 주거단지, 부산시 13만여평에 친수 공간·공원설치(국제 12. 17)
* 가덕도 신항만 내년 개발 본격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산항만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 조사 연구비 25억 확보(국제 12. 17)
* 명지 2백80만평 매립, 하단~매립지에 경전철, 부산 신평공단에서 을숙도를 거쳐 명지주거단지로 연결되는 총연장 2.3km의 왕복 8차선 교량이 민자 유치산업으로 건설(국제 12. 17)
* 컨 ‘수영도로’ 착공(부산시정 12. 17)

12. 18
* 초·중등 교사 임용 시험(부산교육 12. 18)

12. 19
* 중기 하청생산 활발, 부산이 전국에서 중서제조업체들의 계열화 생산(하청 생산)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조사(국제 12. 19)
* 감천항 중앙부두 내년 착공, 감천항 중앙부두와 인천항 국제여객 터미널 등 총 사업비 1천6백33억5천4백만원 규모 항만 공사 8건이 내년부터 새로 시작(국제 12. 19)
* 불우이웃돕기 캠페인 전개 25일까지 시민 모금운동 실시, 시와 이웃돕기운동 추진협회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슬로건으로 불우이웃 돕기 범시민 캠페인 전개(국제 12. 20)
* 부산시, 삼성차 실무위 구성 매주 수요일마다 정례회의, 부산시는 신호공단에 삼성승용차 공장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 마다 정례회의 개회(국제 12. 20)
* 삼성차 부품공장 녹산공단에 조성, 시에 부지 20만평 요청, 삼성그룹은 승용차 주요 부품단지를 당초 예정대로 부산 녹산 공단에 조성할 계획(국제 12. 20)
* 사회복지시설 방문격려, 시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김기재 부산 시장을 비롯 시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 격려하는 등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 위한 94년도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계획 마련(시보 12. 21)

12. 20
* 부산 체육대회 내년예산 사상 첫 감소, 부산시 체육회의 95예산이 이사회비, 지원금의 학보 차질로 사상 처음으로 줄어든 전망(국제 12. 20)
* 가덕도 770만평 매립, 부산도심 반경 60km를 대상 지역으로 오늘 2011년이 목표 연도인 부산권 광역개발이 최종 확정(국제 12. 20)
* 해운대 운촌 근린공원 조성, 관광지 해운대 진입관문인 해운대구 우동 동백교 일원에 동백공원 송림공원을 연계한 운촌 근린공원 조성, 잔디 광장 등 갖춘 휴식 공간 마련(국제 12. 20)
* 교통체증 악화 우려, 교통체증이 극심한 부산역 주변과 중앙로 인접지역에 교통유발 요인이 큰 대형 업무용 빌딩과 예식장건립이 추진(국제 12. 20)

* 부산시, 인사 6급 토목직, 북구청 김용택 외(국제 12. 20)
* 민・관・학 협동 국내 첫 보육 종합센터 문 연다, 교육서 건강관리까지 맡아, 관력 학과 교수・학생까지 참여(국제 12. 20)
* 올 아파트 신규공급저조 계획대비 73% 그쳐, 부산시의 금년도 아파트 공급량은 3만2천여세대에 그쳐 4만4천세대의 72.8%에 그친 것으로 조사(국제 12. 20)
* 부산권 광역개발안 확정 이미 세계화 거점육성 "청사진", 정규 규제 완화・지역 발전 가시화, 그린벨트 해제・재정 조달 열쇠(국제 12. 21)

12. 21
* 96년 주식회사 전환, 부산「컨」운영공사 민영화 추진 "박차", 예산 확보 내년 용역, 관련 법규 대폭 개정(국제 12. 21)
* 달맞이 고개 훼손 부산시 땅장사 탓, 녹지 주거지로 용도 변경 후 불하, 단견 행정…"택지초과 부담금 때문에 신축"(국제 12. 21)
* 일반 건설사-207사, 부산 올 신규 69사 급증・면허 2백42종(국제 12. 21)
* 부산시립미술관 "첫 삽질", 해운대 올림픽 공원 97년 완공, 예산 뒷받침 불충분 해결 과제(국제 12. 21)
* 부산시립미술관 "첫 삽", 해운대 올림픽 공원…97년 완공 예정(국제 12. 21)
* 구청위원회 "유명무실", 업무중복・활동 거의 없어…예산낭비(국제 12. 21)
* 국교취학아동감소 부산 4만9천여명, 부산시 국민학교 취학아동 해마다 감소(국제 12. 21)
* 내년 항만개발 중액투자 모두 4,900억원, 부산항 2. 4부두 안벽개축 등을 비롯해 내년 항만 개발에 모두 4,900억 투자(국제 12. 21)
* 건축 감리사 무더기 징계, 부산시, 19개 사무소영업 정지 등 처분(국제 12. 21)
* 예산학교 내년 용역 관련 법규 대폭개정, 21일 해운항만청과 부산 지방 해운 항만청에 따르면 일반 부두의 민영화 작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국제 12. 21)
* 일반건설사 2백7사, 부산에 63개사의 신규건설업체가 면허 취득(국제 12. 21)
* 부산 경기회복세 지속, 내년 1/4분기 BSI 1백22 전망(국제 12. 21)
* 합천댐 물 부산 공급, 정부는 21일 오전 한강물의 부산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부산 경남 지역 맑은 물 공급 대책 확정・발표(국제 12. 21)
* 시 통근 버스 폐쇄, 부산시 본청 직원들 출근 편의 위해 운행하고 있는 임차 통근버스가 이용률 저조 및 운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95년 1월 3일부터 일부 구간 운행 중지(시보 12. 21)
* 국비지원 8,850억원, 내년도 부산시 예산 중 국비 금액 8,850억원 확정(시보 12. 21)
* 부산시립미술관 기공식, 국제 문화 관광 도시 발돋움, 21일 해운대구 올림픽 동산서, 바다 접한 부산 상징, 97년 완공 목표(시보 12. 21)
* 겨울철 각종 재해 대책 마련, 시 대책본부 내년 4월까지 시민 생명・재산 보호, 기상 특보 따라 신속대처(시보 12. 21)
* 부산시립예술단 94 송년 무대, 부산시립예술단 한해 마무리하는 메머드 무대 마련, 국악관현악단이「겨레의 노래 장터」, 교향악단은 합창단과 송년음악회 가질 예정(시보 12. 21)
* 시 예산 3조6백53억원 확정, 지난 12월 16일 제3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열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의결한 95년도 부산시 예산 3조6백53억원 확정・통과(시보 12. 21)
* 부산시 문화체국과 문화예술가로 독립, 방대한 행사 담당…국 수준 돼야, 체육계도 반발 두 부문 분리 당연(국제 12. 23)
* 노인 복지 시설에 융자, 고령화 시대 대비 노인 복지 시설 확충 위해, 12월 25일까지 접수(시보 12. 24)
* 용두산 공원 자료 전시관 공원 역사・시민 애환 담아, 용두산 공원의 자료와 옛 모습 담은 각종 사진 지난달 21부터 전시(시보 95. 1. 3)
* 제7회 부산 교육상 시상식-수상자 : 강용지, 김동국, 오재용, 박용숙, 노장연(부산교육 12. 21)

12. 22
* 삼성차인력모집공고, 전 계열 대상…오는 14일 최종 선발(국제 12. 22)
* 부산남항 수심 얕아 준설시급, 연근해 어업의 전진기지인 부산 남항의 수심이 얕은데다 각종 장애물이 산재해 있어 준설이 시급(국제 12. 22)
* 광안대로 내주 본격 착공, 부산시민의 관심 속에 진행된 광안대교 건설 공사의 5개 공구 입찰이 모두 끝남에 따라 내주 중 본격 착공(국제 12. 22)
* 용호농장 구유지 7만8백평 불하, 시는 22일 남구 용호동 산 200일원 용호농장 점유국유지 7만8백평을 1백90억원에 비법인 단체인 용호농장 측에 일괄 매각(국제 12. 23)

* 도시계획안 4건 승인, 부산시의회는 22일 도시 주택 위원회를 열어 부산시가 제출한 다대동 폐기물 처리 시설·녹지 결정안 등 4건의 도시계획안 승인(국제 12. 23)
* 용두산 공원에 새 시비 4기 제막, 거리 조성 2차 시비 제막식이 지난달 22일 열려 시비 4기 제막(시보 1. 3)

12. 23
* 영도 경전철 검토, 부산 경남권 광역 개발 계획에서 사상~김해 간 26.3km의 경전철 건설이 확정된데 이어 부산 영도에도 경전철 건설 검토(국제 12. 23)
* 지역 개발 공채 156억 조성, 시는 지역개발 기초 조성을 위한 내년도 지역 개발 공채를 156억200만원 규모로 조성키로(국제 12. 23)
* 장산 산복도로 10km개설, 장산을 동서로 연결,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양산군 철마면과 해운대구 송정동 양산군 기장읍 간을 곧 바로 잇는 장산 산복도로 개설(국제 12. 23)
* 폐수배출 감시, 신정연휴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를 신정 연휴 폐수배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동천변 등 하천 지역 배출 업소집중 감시(국제 12. 23)
* 사상공단 「기형개발」 우려, 북구의회·업 지역 마구 해제 "원성"(국제 12. 23)
* 부산시 주차 관리 공단 이사장 김종진 영도구청장 허남식, 내무부 지난 12월 23일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에 김종진 영도 구청장을, 영도구청장에 허남식 부산시 기획 담당관 임명(시보 95. 1. 3)
* 생필품 등 2억2천만원 전달, 시는 연말연시 맞아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은 김기재 시장 등 쇠고기와 위문금 전달(시보 95. 1. 3)

12. 24
* 시·도 승인 연안어업 허가 수산청장에 이관, 수산청은 연안 어업허가 남방을 막이 위해 그 동안 각 시도에서 승인 해주던 연안 어업 허가를 수산청장 승인 사항으로 개정키로(국제 12. 23)
* 광안리~횡령산~이기대 연계 종합 관광지 개발, 2000년대 남구지역을 광안리 해수욕장 횡령산 이기대공원 등을 연계한 종합관광지로(국제 12. 26)
* 부산시, 인사 주차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신 외(국제 12. 24)
*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캠페인(부산교육 12. 24)

12. 26
* 부산 미술관련 출판 "활기", 내년 미술의 해를 맞아 부산의 미술 출판이 활기를 띨 전망(국제 12. 26)
* 시향 내년 연주계획 확정, 부산시립교향악단이 95년 한해 연주계획 확정, 공연수은 정기공연 14회, 특별공연 15회, 순회공연 3회 등(국제 12. 26)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내년부터 불법 주차장 차량에 대한 견인단속구역이 대폭 확대(국제 12. 26)
* 우수관광업체 표창, 시는 26일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주)웨스틴 조선비치 호텔 관광과 88 고속 관광 등 2개 업체 최우수 업체로 선정(국제 12. 26)
* 주차 수입 해마다 증가, 부산 주차관리 공단의 수입이 해마다 증가(국제 12. 26)

12. 27
* 지하철 승객 날로 증대, 11월 하루 평균 60만명 이용, 10부제 등 여파 매월 12%씩 증가(국제 12. 27)
* 사상공단 건축허가, 부산시 북구의회는 27일 도시위원회를 열고 사상공단 내 아파트 건립이 가능토록 하는 구건축 조례 개정 심의안 부결(국제 12. 28)
* 부산제조업 내년 10%성장, 부산지역 제조업체들이 들은 95년도 생산 및 판매 신장률을 올해보다 1~2% 포인트 높은 평균 10%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국제 12. 27)
* 광안대로 착공, 부산최대의 교량이 될 광안대로 건설공사 27일 착공(국제 12. 27)
* 명지 주거 단지 재해 우려, 명지주거단지 매립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대체 인공수호를 개설치 않고 매립을 강행(국제 12. 26)

12. 28
* 동서고가로 13km 전 구간 연결 28일 완전 개통, 부산 북구 감전동 낙동대교에서 남구 문현동 문현로터리를 잇는 동서고가도로 13km 전 구간이 오는 28일 개통(국제 12. 21)
* 부산 관광 사업 "빈수레" 부산지역 관광산업은 「94 한국방문의해」에도 불구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정체 현상을 벗어나지 못한데다 관광외화 수입도 전국 소비 수준의 30%에 그치는 등 열악한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국제 12. 28)
* 동서고가도로 완전 개통, 부산남구 문현 로터리와 북구 감전동을 잇는 동서고가도로 전 구간이 28일 완전 개통(국제 12. 28)
* 감리태만 건축사 23명 징계 부산시 6명 업무정지 처분, 부산시는 28일 설계와 다르게 지도 건물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건축사 23명 적발 이 중 6명에 대해 1개월 간 업무 정지 처분(국제 12. 28)
* 공영 수산물 시장 설립 "난항", 부산시·해항청 감천항 부지 이용 이견(국제 12. 28)
* 산불방지 특별근무, 시는 최근 겨울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를 「연말연시 산불 방지 특별 근무 기간」으로 정해 예방 활동 계획(국제 12. 28)

* 도개공아파트 “총체적 부실”, 부산 33건 적발…7개 사 영업정지, 철근 1백33t 빼돌려 매각, 다용도실에 보일러 등 설치(국제 12. 28)
* 동서고가로 완전 개통, 부산 북구 감전 인터체인지에서 남구 문현 로터리를 잇는 동서고가로 전 구간 94년 12월 28일 완전 개통(시보 95. 1. 3)
* 동서고가로 완전 개통(부산시정 12. 28)
* 제5대 부산지방경찰청장에 이필우 치안감 취임(경찰사 12. 28)

12. 29
* 부산찬가 합창곡으로 만든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시인과 작곡가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부산찬가 25곡이 오는 95년 5월께 부산시민회관에서 무대에 오른다(국제 12. 29)
* 94하반기 명예 퇴임 총 81명 훈장・공로패, 곽윤섭 부이사관 외 4명에 대한 94 하반기 명예 퇴임식(시보 1. 3)

12. 30
* 정기부산시의회개회, 부산시의회는 30일 오전 10시 제38회 정기회 7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 영락공원 및 공원묘지 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정기회 및 118일간의 94년도 전 회기 일정 마치고 폐회(국제 12. 30)
* 부산본고사대 출제경향 발표, 부산대, 동아대, 부산수산대 등 부산지역 3개 대학의 본고사 출제경향 발표(국제 12. 30)
* 대북한교역 3백만불 무난, 평양소주 곶감 호두 약술 등 북한산 물품의 부산항을 통한 수입 지난해 이어 3백만달러 넘어설 것으로 전망(국제 12. 30)
* 쓰레기종량제 연초 전면실시 무단투척 극성, 평소 2배…곳곳 부작용 “빨리 없애자”심리 팽배(국제 12. 30)
* 부산기업 해외투자 “활발”, 건수 전년비 98% 급증(국제 12. 30)
* 시 추가 예산안 원안 가결, 시의회는 지난 12월 30일 제38회 정기회를 폐회 94년 의정활동 마무리(시보 95. 1. 3)
* 선거 사범 합동 단속반 발족, 금품 수수・기부행위・불법 흑색선전 행위를 빙자한 불법 행위 등 중점 단속(시보 95. 1. 3)
* 94년도 종무식(부산시정 12. 30)

12. 31
* 김기재 시장 연말연시 동정 충렬사 참배 등, 김기재 시장 94년 12월 31일 송년사와 1월 1일 신년 참배・신년하례, 3일 신년 시무식과 신년 인사회 가져(시보 95. 1. 3)

1995년

1. 1
* 2002를 향하여 아시안게임 유치 어디까지 와있나, 21세기 새 부산 「희망의 해」 밝았다, 5월 OCA서울 총회 승인만 남아, 시민 자부심・일체감 밑바탕 체계적 준비 시급(부산매일 1. 1)
* 부산시, 「환경도시」 공식선언, 대상과제 등 10대 과제 선정, 녹색 위원회 구성 시민 운동전개, 수질 오염 집중 감사(부산 1. 1)
* 부산광역시, 거대 도시 탄생 원년이 밝았다, 동남권 거점구축 면모 일신, 양산 동부 5개 읍・면 편입 시역 41% 증가, 환태평양 시대 전진 기지화(부산 1. 1)
* 부산시, 부산광역시・경남통합시 출범, 부산 「직할」 32년만에 명칭 변경, 경남 7개시 현판식…본격 업무, 지난 1일부터 부산광역시로 명칭 변경(국제 1. 3)
* 쓰레기 종량제 전구 전면 실시,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매달 징수해 오던 오물 수거 수수료 따로 부과 않기로(시보 1. 3)
* 부산 「광역시」로 출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수영구 등 3개구 신설・기장군 편입, 산업 구조 개편… 국제도시건설 향해 매진(시보 1. 3)
* 3・4급 승진・전보, 금정구・북구 구청장 김홍구 등 3・4급 승진(시보 1. 3)
* 직할시 명칭변경(부산直轄市→부산廣域市)(부산시정 1. 1)
* 쓰레기종량제 전면시행(부산시정 1. 1)
* 부산상품 해외상설직판장(미국 시카고)개장(부산시정 1. 1)
*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로 부산직할시 교육청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 명칭 변경(법률 제4789호)(부산교육 1. 1)
* 부산직할시가 부산광역시로 승격, 부산직할시 지방경찰청(장)을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으로 변경(법률 제4789호. 94.12.20공포)(부산지방청 훈령 제55호)(경찰사 1. 1)

1. 3
* 정화 사업 "허송 세월", 동삼동 패총 부지매입 부진, 계획 14년째 7백여평 고작, 해를 넘겨도 사업추진 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국제 1. 3)
* 「민선 단체장」 누가 뛰나<1>, 여 - "공천이 당선" 자신… 야 - 「인물성」 고심, 민자후보 낙점 향방이 최대 관심(국제 1. 3)
* 부산광역시 현판식, 시와 시의회 시내 각급 기관 단체들이 현판 바꿔 달고 새해 업무 시작(시보 1. 3)
* 시립 영락 공원 3월 1일 개장, 부산시립 영락 공원 2개월 연장된 오는 3월 1일에 개장(시보 1. 3)
* 최근 4년간 교통사고 사망률 36% 줄어, 교통사고 건 수 91년에 비해 18%・인명피해 20%・사망자 수 36% 감소(시보 1. 3)
* 95년도 부산시 주요 사업<1>, 지하철 건설에 집중 지원, 교통부분-신교통수단 타당성 조사・동래역 등 환승 시설 설치・제3도시고속도로 건설, 항만부분-2종 어항 시설계획 용역・자갈치 시장 물량장 시설・해양 생물 전시관 증축(시보 1. 3)
* 광복 50주년 각종 행사 계획 동래구 지역에 3・1운동 상징 기념탑 건립・백산상회 복원・광복 50주년 기념 도서 모음전・강사 초빙 특강 등 계획(시보 1. 3)
* 부산을 동남경제권 중추도시 육성, 김기재 부산 시장은 산업 구조 개편 통해 고부가 첨단 시설 조성 할 것 밝혀(시보 1. 3)
* 김기재 시장・우병택 의장 신년사, 시장-경쟁력 갖춘 국제 도시 건설・쓰레기 줄이기 등 지속 추진, 의장-능력과 제도의 세계화 절실・정의가 지배하는 사회 지향(시보 1. 3)
* 95년도 시무식(부산시정 1. 3)

1. 4
* 부산시 공무원 최대 규모 공고, 분구에 따른 부족 인력 보충 3차례 나눠 천여명 선발(부산매일 1. 4)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가덕도 신항만 올 본격 개발, 월내 용역비 25억 배정, 민자유치 어려운 부문 정부 투자, 기존시설 효율적 운용 역점(부산 1. 4)
* 가덕도 신항만 본격 개발 "출발", 이달 기본 계획 조사 용역 발주, 「항만운영공사」 설립 검토(국제 1. 4)
* 광복 50년간 교육지표 변화, 대학생 2백배 증가, 학교 6배 "껑충" 1천만명 수용, 교원 당 학생교육만 29% 늘어(부산매일 1. 4)

* 바다에 관한 모든 것 여기에 마린 토피아<1>, 22만평 갯벌에 「해양낙원」 건설, 문화・관광・교육망라 종합리조트로, 민자 유치 도심 연결 경전철도 추진(부산경제 1. 4)

1. 5
* 부산시, 광역 발전 틀 새로 짠다, 도시 계획안 전면 수정, 광역권・정보화 2개 안 축으로, 가덕 매립지・기장 추가 총 8백90㎢로(부산매일 1. 5)
* 부산시장론<1>, 시민이 부여한 권한・책임 막중, 업무 규모 등 감안하면 위상 "세계적", 임명제 부작용 극복 소신행정 가능, 역량・의지 따라 지역 성패 좌우, 「출세」 위한 디딤돌 이용 막아야(국제 1. 5)
* 3대 시민운동 확산에 행정력 집중<1>, 김기재 시장 올해 구정 연두순시 "구민 생활 하나하나 챙겨 봉사" 당부, 중구 - 「백산기념관」 사업비 지원 요청, 서구 - 혈청소 매립지 소유권인계 건의, 진구-도로개설 등 86건 사업 조속 추진(시보 1. 11)
* 김기재 시장 구 연두순시(부산시정 1. 5)

1. 6
* 상수도망 차질・버스노선 진통・쓰레기 수거난・학군 늦장 조정 광역시 편입 양산 5개 읍・면 "말만 부산 시민", 도시 기반 시설 준비 미비, 식수 전쟁 등 불편 불 보듯(부산 1. 6)
* 부산 광공업 침체일로 하루 1.5개 문 열고 2.9개사 문 닫는다, 휴업 전국서 2위, 역내 전입 4개 업체 불과 업체 시설 경기도가 최다(부산 1. 6)
* 부산 「종량제」 성공적 정착, 사전 준비 철저 시민 호응 전국최고, 규격봉투 사용률 90%, 쓰레기 급감・재활용 수거 크게 늘어(부산 1. 6)
* 아시안 게임 유치 신청서 1월 14일 정식 제출, 추진위원회 기자 간담회서 밝혀, 동아시아 경기 대비 조직 착수, 1백여명의 지원단 구성키로(시보 1. 11)
* 김기재 시장 올해 구정 연두 순시, 경쟁력 갖춘 「국제도시」 건설, 북구-가야로・사상로・백양로에 연결 교통 분산, 동구-고객 만족 행정・지방 경영행정 위해 최선(시보 1. 11)
* 학부모 연합회 회장 장관 표창(부산교육 1. 6)

1. 7
* 부산시, 15개 동 3월께 "분가", 개발 예상・민원 건수 등 고려해 분할, 해운대 4곳 포함 "최다"(부산매일 1. 7)

1. 8
* 부산시, 2002년 대비 계획 확정, 신설 아주경기장 부산시권에 배치, 지역 균형 발전 계획과 연계, 둔치도=승마장・을숙도=사이클장, 금곡=사격장・물금=테니스・하키장, 서낙동교~둔치도=조정장・카누장(부산매일 1. 8)

1. 9
* 강서구에 도시가스 공급, 부산지역서 유일하게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던 강서구 지역에 오는 3월부터 도시가스 공급(국제 1. 9)
* 차량 10부제 참여・쓰레기 종량제 등 현장 활동 전개, 시는 1월 9일 12개 구 단위로 승용차 10부제 스티커 부착 및 쓰레기 종량제 관련 현장 활동 벌여(시보 1. 11)
*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조례」 개정 조례 공포(제3157호)(부산교육 1. 9)
* 「부산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158호)(부산교육 1. 9)

1. 11
* "95역점사업-영도구", 제2부산대교 조기 건설, 동삼 매립지에 해양종합공원 조성, 무차별 훼손 봉래산 보존에도 주력(부산 1. 11)
* 6월 27일 4대 지방 선거일, 시는 4대 선거 업무 본격 착수(시보 1. 11)
* 공업용 수도시설 등 추진, 남부・수영・장림 하수 처리장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명장정수장 등 오전・입상 활성탄 시설 지을 예정(시보 1. 11)
* 부산시, 인사 공보관실 홍보 1계장 이정기 외(시보 1. 11)
* 수돗물 수질 기준치 이하, 시 상수도 본부 낙동강원수 탁도 11PPM유지, 수계 4개댐 일정 방류량 계속, 가뭄 계속 땐 4월쯤 제한 급수(시보 1. 11)
* 올해 1천1백6명 공채, 시 3차에 걸쳐 행정・세무 등, 1차 13~17일 원수 접수…행정직 6백명(시보 1. 11)
* 개발 지역 등 15개 동 늘어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영도구 동삼 1동・금정구 온천 3동 등 8개구 관내에 15개 동 분할키로(시보 1. 11)
* 미리 보는 부산시립예술단 무대, 정기 연주 14회・특별 연주 12회 등 40회 공연, 광복 50주년 기념 공연・국내외 정상급 출연(시보 1. 11)
* 멕시코 티후아나 시 자매결연, 16일 김시장 현지방문…열 번째로(시보 1. 11)
* 시민 발전 의지로 세계화 추진, 시는 삼성 자동차 공장 유치 비롯 신호 공단에 첨단 자동차 단지 건설・가덕도 해안 매립・「컨」 부두조성 등 추진 예정(시보 1. 11)

1. 12 * “2천년엔 「바다고가도로」”, 해운대-광안대로-다대포 연결, 감만동-영도간 해저터널 건설, 김부산시장 초도 순시서 밝혀(국제 1. 12)
* 과학교육원 환경 과학 실험실 개설(부산교육 1. 12)

1. 13 * 부산시, 가뭄대책 “비상”, 내달 격일제 급수 실시, 수영장 주 1회 휴무 등 절수 운동 추진, 올 겨울 가뭄 및 급수난에 대처 관할 5개 정수장의 상수도 생산량 빠르면 내달부터 50% 감량(부산매일 1. 13)
* AG 추진위, 아주 경기장 시설위치 재검토 절실, 서부산권에 「아시아드 타운」을, 사직동 교통체증 등 문제 많아(부산매일 1. 13)
* 부산시, 환경원년 「환경축제」, 3월 대대적 시민대회 민간단체 주축 캠페인도 병행키로(국제 1. 13)

1. 14 * 하천・저수지 주변 대청소, 지난 14일 하천・저수지에 대한 대청소가 시민・공무원・군장병 등 7백여명 참가한 가운데 실시(시보 1. 21)

1. 16 * 공직자 기강 점검반 운영, 사건 사고 예방・시민 불편 해소 중점(시보 1. 21)

1. 17 * NAFTA권에 부산의 교두보 확보, 본격적인 비즈니스 외교 일환으로 추진, 티후아나시 멕시코 공업 생산의 30% 차지(시보 1. 21)
* 일본 고베시에 위문단, 부산시의회 대지진으로 많은 피해 입은 일본 고베시 방문 위문(시보 1. 21)
* 멕시코 티후아나市와 자매결연 조인(부산시정 1. 17)
* 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공개 전형 2차 시험(부산교육 1. 17)

1. 18 * 설날 대비 물가지도 단속, 시는 설을 맞아 설날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 안정 위해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단속(시보 1. 21)

1. 20 * 문예 진흥 활동 사업 지원 신청 받아, 문화 예술 창작 활동・문화 촉매 화룡 부문 1월 20일부터 교부, 2월 18일까지 접수(시보 1. 21)
* 95 유네스코 연차 총회(부산교육 1. 20)

1. 21 * 식수원 고갈 “수돗물을 아껴 쓰자”, 낙동강 상류 4개댐 저수율 26%불과, 수돗물 생산 25% 줄여 하루 1백55만t, 시 회동 수원지 급수 비축 등 비상 대책 마련(시보 1. 21)
* 부산광역시 민원 봉사 대상, 사무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내무부주관 동래구도 영예(시보 1. 21)
* 공원・유원지 분야 도시 환경 정비, 3월말까지 25곳 안내판・시설물 등 손질・쓰레기 무단 투기 등 단속도(시보 1. 21)
* 음식 찌꺼기 퇴비화 활성, 각 구청 EM 활용 공장 설치 전국서 부산 최초(시보 1. 21)
* 95년도 부산시 주요 사업, 노후 녹산교 재가설, 봉래로터리~해양 대학 간 도로 확장, 춘천 상습 침수지에 배수펌프장 설치(시보 1. 21)
* 세금 비리 차단 전산망 구축, 7월 1일부터 모든 세금 고지서 전산 처리, 세금 횡령 소지 완전히 없애기 위해(시보 1. 21)
* 설날은 불우 이웃과 함께, 장애인 등 돕기 마을 단위 추진 권장, 시 31일까지 1억3천여만원 지원(시보 1. 21)
* 거택 보호자 생계비 10만원 수준 인상, 시 올해 거택 보호 대상자의 생계비를 1인 평균 십만원 수준으로 인상 지급키로(시보 1. 21)
* 미리 보는 부산시립예술단 무대, 정기 연주 등 40회 공연(시보 1. 21)
* 시 동경 세계 5시 박람회 참가, 시는 96년도에 개최하는 동경 세계 도시 박람회에 부산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오는 3일 참가 계획서 제출키로(시보 1. 21)
* 쓰레기 재활용 대책 마련, 대량 배출 지역 정기 순회, 수집통・보관소 확대 설치 전국서 가장 적제 나오는 도시로(시보 1. 21)
* 사전 선거 운동 2단계 단속, 기부 행위 사례집 배포 동향 점검(시보 1. 21)

1. 25 * 버스 전용 차선제 확대, 1월 25일부터 연산R~경부고속로 입구 간(시보 2. 2)
* 신호공단 착공 대책, 신호공단 조성 공사가 빠르면 당초보다 2개월 앞당겨 4월 중 착공될 전망(시보 2. 2)
* 학교 안전 공제회 이사회(부산교육 1. 25)
* 교원 단체 연합회 대의원 총회(부산교육 1. 25)

1. 26 * 「청소년 수련원」 건립 기공식, 동삼동 함지골에 내년 2월 준공, 청소년 극장・취미 교실 등 야외무대・체육 시설도(시보 2. 2)
* 영아원 방문 김기재 시장, 설맞아 소외 계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불우 이웃돕기 운동 분위기 조성 위해(시보 2. 2)

2. 2　* 동래구 사진집 「동래백년」 간행, 「사진으로 본 동래 백년」 사진집이 간행 돼 향토사 변천과정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됨(시보 2. 2)
* 「녹색 부산 가꾸기」 범시민 운동, 국제도시 면모 일신·도시 환경 정비도 벽화·하천 공원화 등 6대 중점과제 추진(시보 2. 2)
* 낙동강 상수원 정화 활동 전개, 겨울철 가뭄으로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 수위가 낮아져 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상하류의 수중·수면 및 강변 오물을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대대적 정화키로(시보 2. 2)
* 민영 주차장 건설 융자 확대, 민영 주차장에 대한 건설 자금 융자와 용도 규제 조건 크게 완화(시보 2. 2)
* 부산시도율 14.8%, 전년대비 0.4% 증가(시보 2. 2)
* 아시안 게임 본격 유치 활동, 대만 등 경쟁국으로 떠올라(시보 2. 2)
* 37개소 지하수 개발, 시는 유래 없는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제한 급수 대비해 2월말까지 개발키로(시보 2. 2)
* 신설구청사·관할동 등 확정, 3월 1일 개청 수영·사하·연제 등(시보 2. 2)
* 문화 소식, 시립무용단 마당 춤판에 역량 결집, 시립합창단-정기·소그룹 힘찬 활동(시보 2. 2)
* 95년도 부산시 주요 사업<4> 청소년 수련관 건립, 해운대 신시가지 등에 소각장 건설, 지하수 보존 위한 기초 조사 실시(시보 2. 2)
* 쓰레기 종량제 정착 단계, 시는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품 수거량 늘어나자 처리 시설 늘이기로(시보 2. 2)
* 「종량제」가 쓰레기 감량 견인, 시 전면 실시한달 성과 분석, 강서-최고 70% 배출량 감소, 규격 봉투 사용 정착도 순조(시보 2. 11)
* 자가용 승용차 3만대, 하루 1백79대 늘어나(시보 2. 11)
* 95년도 부산시 주요사업<5> 서부산권·금정 문화 회관 건립 추진, 중소기업 구조 조정에 1백66억원 지원(시보 2. 11)

2. 4　* 낙동강변 정화 활동, 심각한 겨울 가뭄으로 낙동강 오염 심해지자 민·관·군 대대적 참여로 하구언~매리 취수장까지(시보 2. 11)

2. 6　* 피고인 원종성에 대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사건 무죄 선고(94고합1306, 95고합9)(법원사 2. 6)

2. 7　* 「미술의 해」 기념 사업 확정, 부산 미술계 새로운 전기 "기대", 「광복 50주년 기념전」 등 12개 사업 추진(시보 2. 21)

2. 8　* 컨테이너선 불 19명 사망, 이날 불은 한진 중공업 수리용역업체 직원들이 갑판 밑 4층 엔진룸에서 연료파이프 수리 차 용접 작업을 하다 불꽃이 연료에 옮아붙어 일어난 것으로 추정 돼(부산매일 2. 8)
* 수리선박 불 19명 사망, '용접 작업 중 기름에 인화, 기관실 못 빠져나와 참변(부산 2. 8)
* "편입지 처한 문제 해결에 최선", 김기재 시장 기장군 준비단 방문 종합 개발 계획 수립 추진(시보 2. 11)

2. 9　* 광안대로 부산 새 상징물 기대, 국내최대의 해상교량인 광안대로가 9일 기공식을 갖고 착공에 들어가(부산 2. 9)
* 「성수」 악몽 씻어줄 탄탄대로 기대, 5천5백억 투입 4년간 대역사, 국내최장 현수교 「안전」 시공 절실, 국내최대의 해상교량으로 총 사업비 5천5백34억원이 투입 돼 오는 98년말 완공 예정(부산매일 2. 9)
* 지하철 1호선 4단계 부실 확인, 지난 94년 6월 개통당시부터 부실시공 물의를 빚어왔던 부산지하철 1호선 4단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당장 구조물의 붕괴 위험은 없으나 균열과 누수가 많아 지속적 점검 및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부산매일 2. 9)
* 광안대로 기공식, 98년 완공 계획으로 9일 기공식 가져 부산 교통 문제 획기적 개선(시보 2. 11)
* 광안대로 착공(부산시정 2. 9)

2. 10　* 부산시, 신설3구·1군 7백75명 증원, 부산시는 10일 오는 3월부터 분구 또는 신설되는 부산시의 3개구 1개군에 공무원 7백75명을 증원하는 등 행정기구와 증원 확정(부산 2. 10)

2. 11　* 부산항 2개 부두 신설, 부산항의 늘어나는 잡화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일반 부두 2개가 신선대와 영도구 동삼동에 각각 7개 선석, 5개 선석 규모로 2000년까지 건설(국제 2. 11)
* 부산시 건설공사 무더기 조기 집행, 부산시가 시역내의 각종 건설공사를 5월 이전에 무더기 조기 집행토록 해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이란 지적 받아(부산 2. 11)
* 수돗물 25% 가정서 절감 가능, 「물」을 아끼자…공공·가정·절수 요령, 세탁·설거지는 모아서 한꺼번에 세차장·목욕탕도 적극 협조해야(시보 2. 11)
* 목욕탕 주 2회 휴무 등 수돗물 2단계 비상 대책, 시 「급수 비상」 선언 비상 급수 대책 크게 강화 고지대는 운반 급수 실시(시보 2. 11)

* 시장 동정, 2월 3일 동계 체육 대회 참가 부산 선수단 격려, 2월 7일 4·5급 신규 보직자 대상 특별 교육서 특강(시보 2. 11)
* 비상 급수 대책 상황실 운영, 장기적 가뭄에 대처 위해 본청에 설치 범시민적 대책 추진(시보 2. 11)
* 시의회 제39회 임시회 소집, 2월 17일부터 8일간 열려(시보 2. 11)
* 다가구 주택 판단 기준 마련, 재산세 관련 납세자의 불만 해소(시보 2. 11)
* 부산의 경기 종합 지수 개발,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위해(시보 2. 11)
* 수련 활동용 숙박 시설 대규모 「생활관」 문 연다, 부산시 청소년 수련소 안에 숙박 전용 시설 「생활관」이 18일 개관, 「건전 사회 교육의 장」 역할 기대(시보 2. 11)
* 올해 개인 택시 면허 2백대, 3월 2일~3일 접수, 7월 초 발표 예정(시보 2. 11)
* 시 직원에 새로운 정보 신속 제공, 시민의 알 권리 제공 위해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 업무 치중(시보 2. 11)
* 부산시 산하 공기업 경영 개선 계획을 알아본다<1>, 업무 관리 일원화 대민 봉사 역점, 주차 수입금 일일 결산·비리 척결(시보 2. 11)
*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 납기 내 자진 납부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수시 또는 정기적 단속 실시키로(시보 2. 11)
* 승용차 5부제 운행 실시, 부산시 전 공무원 대상 3월 1일부터 청사 내 주차장 민원인에 제공(시보 2. 11)
* 문화 소식, 시립 무용단 14일 대보름맞이 놀이판 펼쳐(시보 2. 11)
* 도시 미관 저해 광고물 정비, 자진 철거 계도 후 행정 조치, 해운대·금정구에 광고계 신설(시보 2. 21)
* 「우리 지명 찾기」 범시민 운동, 광복 50주년 맞아 일본식 이름 바꿔(시보 2. 21)
* 일반 용지 4만5천평 공급, 부동산 도개공, 동삼 2지구 등 8개소(시보 2. 21)

2. 12
* 부산 부두 2곳 신설, 부산항에 2개의 새 부두가 내년부터 오는 2000년대까지 건설되고 가덕도신항만 개발 사업이 방파제 공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착수(부산매일 2. 12)
* 국제시장 또 큰불, '부산최대 재래시장 국제시장에 또 큰불이나 3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어, 긴급 출동한 소방대 등은 이 건물이 낡고 인화성이 강한 목조건물인데다 소화수까지 부족, 진화에 큰 어려움 겪어(부산매일 2. 12)

2. 13
* 자성대 미군전용부두 반환, 빠르면 3월 피더선부두로 개축(부산 2. 13)
* 부산시, 가덕도 종합개발 범정부차원 추진,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 과천청사에서 해운항만청, 부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덕도 종합개발회의를 갖고 가덕도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계획과 해항청이 마련하고 있는 항만계획 그리고 부산시의 도시 계획을 묶어 일괄적으로 시행하기로(부산 2. 13)
* 부산시 사상최대규모 인사, 오는 3월 분구를 앞두고 인사 대상이 2천5백여명에 이르는 부산시 사상 최대 규모의 하위직 인사가 이번 주말께 단행될 예정(부산 2. 13)

2. 14
* 부산시, 공무원정원 등 27건 시의회에 승인 요청, 부산시는 오는 17일 열릴 부산시의회 제39회 임시회를 앞두고 부산시와 베트남 호치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동의 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13일 시의회에 제출(부산매일 2. 14)
* 「카풀」 전선차선제 7월 시행, 오는 7월부터 부산시내 편도4차선 도로에 카풀 전용 차선제가 시행되고 카풀 차량에 대해 도시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감면되는 대신 1~2인 승용차에 대한 유류도로 통행료가 대폭 인상돼(부산매일 2. 14)
* 부사시, 컨테이너형 무허가 가설물, 부산시 일제정비 실시, 4월 시정명령 강제철거 계획 13일 시에 따르면 형행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신고 뒤에 설치해야 하나 컨테이너는 설치 및 이동이 쉽다는 이유로 시내 이면도로와 공장 주택지에 무허가로 가설되는 사례가 많아 건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부산경제 2. 14)
* 부산시, 카풀운동 대대적 전재, 중개소 1만여 곳 설치…주차료 등 혜택, 부산시는 교통수요관리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승용차 10부제에 이어 대대적인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에 나서(부산 2. 14)
* 『지평의 문학』 재정난 존폐위기, 부산에서 발간되는 유력한 종합문예지 지평의 문학이 출범한지 1년 5개월만에 극심한 재정난으로 존폐의 갈림길에서(국제 2. 14)
* 가뭄 낙동강 4급수 전락, 계속되는 가뭄으로 낙동강 수질이 식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 부산 경남의 식수공급에 비상이 걸려(국제 2. 14)
* 부산·경남 중기신보 설립, 사업전망은 밝으나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대출을 받지 못하는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 업무를 담당할 신용보증조합이 부산과 경남에 각각 설립(국제 2. 14)

* 부산시, 지사에「외국인 투자구」설치, 지사 과학 산업 연구 단지를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하이테크 파크로 조성키로 하고 첨단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외국인전용 투자구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해(부산 2. 14)

2. 15
* 부산의 대역사,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의 역사로 꼽히는 4단계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이 공사 3년이 지난 현재 부산항의 지도를 바꾸면서 서서히 부두윤곽을 드러내고 있어(부산매일 2. 15)
* 부산 공업용수파동 우려, 부산지역 제조업체들이 가뭄 장기화로 조만간 물 부족으로 인한 조업차질이 우려되는 등 비상이 걸려(부산경제 2. 15)
* 부산도 발암물 다이옥신 공해, 부산에도 인간에게 가장 유독한 대표적 발암물질 다이옥신 공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부산매일 2. 15)
* 7부두 환적절차 전환, 우리나라를 경유해 제3국으로 중계 수송되는 통과화물의 운송 및 환적 절차가 대폭 개선되어(부산경제 2. 15)
* 미 55보급창 되찾자, 부산 8부두 전용선석 개방도 요구방침(부산매일 2. 15)
* 상류공단이전「젖줄」살리자, 공장 폐수 등 전체 30% 정화불과, 환경시설 절대부족 고급화 필요(국제 2. 15)
* 지자체선거 앞두고 행정 누수, 오는 6월 실시될 자치단체장 선거에 부산의 현직 구청장 및 본청 국장급 10여명과 경남의 현직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급 16명 및 전직 시장 군수 6명 등 모두 30여명이 출마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국제 2. 15)
* 대형지하수개발 성공, 동구청은 지난 10일 동구 초량 4동 806 부산중학교 운동장에서 1일 2백t 생산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해(부산매일 2. 15)
* 사업체 기초 조사 실시, 2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지방화 시대 본격 대비키 위해(시보 2. 21)
* 어린이회관 해양과학관 개관식(부산교육 2. 15)

2. 16
* 부산시, 5개 하수처리장 99년 완공, 오는 2011년까지 남부하수처리장 등 13개 하수처리장을 완공 하수 처리율을 90%로 올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해나가기로(부산 2. 16)
* 올 10개 사업 민자 유치 건설, 올해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건설교통부 항만청 등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사업이어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승인 등에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내년부터는 될 것으로 보여(국제 2. 16)
* 올 10개 사업 민자 유치, 10조 규모… 96~97년 가덕 신항만 추진, 부산~가덕도~거제를 잇는 총연장 40.23 km의 교량과 부산~김해 경전철, 대구~김해 대동고속도로 3개 사업이 올해 추진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 가덕도 항만 시설 등 24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민자 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돼(부산 2. 16)
* 3·1기념탑 모형 확정 본격 건립, 부산 3·1독립운동 기념탑 공모 심사위원회는 14일 오후 부산 남구 대연동 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심사위원 8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 가져(국제 2. 16)
* 부산시의회 활동 F 학점, 지난해 부산시에 대한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의 단순 확인 차원 질문과 공무원들의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 돼(부산 2. 16)
* 2002 부산아시안게임 부산유치 OCA회원국 주재 해외공관장 초청간담회(부산시정 2. 16)

2. 17
* 도로 10% 늘 동안 승용차 4백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94년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2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3위의 인구밀도 속에 살고 있고 근로시간은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1위를 차지, 아직 생활 선진국이 되기에는 거리가 먼 것으로 밝혀져(부산 2. 17)
* 쓰레기 소각장·보건소등 공공시설, 분구로 사용마찰 불 보듯, 오는 3월 1일부터 분구되는 부산 북구와 사상구, 동래구와 연제구를 비롯한 6개 구청이 쓰레기 소각장 청소차량 차고지 보건소 등 1개뿐인 공공시설물의 사용을 놓고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 돼(부산 2. 17)
* 시의회 소식, 부산시의회는 지난 17일 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시정보고 등 받음(시보 2. 21)

2. 18
* 엄궁시장 완전 경매실시, 오는 3월 1일부터 부산시 북구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완전 경매제가 시행 돼(부산경제 2. 18)

2. 19
* 부산시, 2년 연속 10%이상 인상, 부산시 교육청이 부산지역 중·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10%이상 인상 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부산매일 2. 19)
*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 시와 무역 진흥공사 부산 무역관 올해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이 해외 박람회 참가 규모 및 횟수 대폭 늘리기로(시보 2. 21)
* 시 전역서「카풀제」일제 실시, 시는 3월부터 대형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자가용 함께 타기를 시 전역서 실시 교통 체증 완화키로(시보 2. 21)

* 수돗물 소비 30% 줄어, 시민 절수 운동 가시화, 제한 급수 대비 다각 대책 마련(시보 2. 21)
* 장기 가뭄 대비 식수 확보 우선, 각 구청 비상 급수 시설 마련에 비지땀, 시 지원 지하수 등 개발해 맑은 물 공급, 부대시설 설치 2~3월 중 주민에 급수(시보 2. 21)
* 분구·군 신설 따른 기구·정원 승인, 시는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3월 1일자로 부산시에 3개 자치구 1군 신설(시보 2. 21)
* 다대 4택지 영구 임대 주택 1,272세대 추가 분양 접수, 시는 2월 28일까지 사하구 다대 4택지 개발 사업 지구 내 영구 임대 주택 12.3평형 입주 대상자 1천2백72세대 추가 모집(시보 2. 21)
* "태극기를 게양 합시다", 3·1절 맞아 범시민 운동 전개(시보 2. 21)
* 시정 단신, 올해 교육 방침 확정, 시 공무원 세계화 중점, 쓰레기 다량 배출 업소 3월부터 부담금 부과(시보 2. 21)
* 부산 시향 정기 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의 3백회 정기 연주회가 2월 24일 문화회관대강당에서 개최(시보 2. 21)
* 부산시 산하 공기업 경영 개선 계획을 알아본다<2>, 시민 주거 생활 안정에 역점, 4년간 택지 70만평·주택 만5천채 건설, 경영분석·의무 창안제 도입 등 업무 개선(시보 2. 21)
* 베트남 호치민시와 교류 협력, 시장은 오는 2월 27일부터 베트남 호치민시 방문 두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앞서 교류 협력 양해 각서 체결(시보 2. 21)
* 95년도 부산시 주요 사업<6>, 택지 개발 사업 역점,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신호 공단 조성, 민락동 공유수면 3만5천여평 매립(시보 2. 21)

2. 22
* 「부산 세계화」 본격 추진, 시 기획단 가동 사람·제도·시설 등 50대 시책 확정(시보 3. 2)
* 공익 근무제도 실시, 1차 260명 하천 감시 등 배치,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병무 자원을 대상(시보 3. 2)

2. 24
* 시의회 소식, 쓰레기 다량 배출 업소 톤당 반입료 만원 부과 등 조례 개정안 등 의결 후 폐회(시보 3. 2)
* 청소년수련소 생활관 개관(부산시정 2. 24)
* 청소년 수련소(구.황령산 야영장) 숙박동 개관(부산교육 2. 24)

2. 25
* 퇴직교원 훈·포장 전수(부산교육 2. 25)
* 교원·교육전문직 임명장(임용장) 선수(부산교육 2. 25)

2. 28
* 「부산직할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 조례 공포(제3171호)(부산교육 2. 28)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172호)(부산교육 2. 28)
*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173호)(부산교육 2.28)

3. 1
* 일제가 맥 끊은 김해평야 젖줄 잇는다, 3·1절 76돌 맞은 강서 주민 복원추진, 녹산 제방 건설로 수맥 완전 끊겨서 낙동강 본류 흐름 막혀 수질 악화, 제1수문 옮기고 일대 매립 택지조성(부산매일 3. 1)
* 시 산하 전 공무원 자가용 「5부제」, 3월 1일부터 3~4일에 한번 운행 효과(시보 3. 2)
* 새로운 행정 서비스 체계 출범, 연제·수영·사상구 개청, 대민 봉사 만전, 연제구-부산 행정 중심으로 도시 면모 일신, 수영구-기존 도시 기반 하에 제2도약 박차, 사상구-공단 산업 구조 개편·확충 등에 역점(시보 3. 2)
* 행정구역 개편 및 제6차 행정구역 확장(연제·수영·사상구, 기장군 설치 경남 양산군 및 진해시 일부 편입)(부산시정 3. 1)
* 시립영락공원 개원(부산시정 3. 1)
* 신설학교 개교(부산시정 3. 1)
  - 국(6) : 금곡, 금창, 신금, 개원, 절영, 해강
  - 중(1) : 금곡
  - 고(2) : 서부산 직업 학교, 부일외국어고

  기장군 지역 편입학교
  - 국(13) : 기장, 대변, 죽성, 일광, 일광학리분교, 칠암, 장안, 좌천, 월내, 정관, 월평, 철마, 신진
  - 중(2) : 기장, 장안
  - 고(4) : 기장고, 장안종고, 제일고, 시온실고
* 지방청 경비과에 309전경대 편입(경찰사 3. 1)
* 해운대경찰서에 기장, 장안, 월래, 일광파출소를, 금정경찰서에 정관, 철마파출소를 각각 편입(부산지방청 훈령 제57호)(경찰사 3. 1)

3. 2　* 부산항「바다 버스화」추진, 출퇴근 페리운항 늘려, 광안리~중앙동 내년 중 2척 투입, 영도·다대포 노선도 신설키로(부산 3. 2)
* 첫날부터 분구 편입 행정 난맥, 업무파악·준비 소홀 곳곳서 문제점 발생, 기장은 전화마저 "시외통화"(국제 3. 2)
* 부산시 기구·체제 개편 방향·의미, "지방화 시대 행정 효율 극대화", 기능 통폐합·민간이양 등, 교통·청소 등 대민서비스(부산매일 3. 2)
* 부산시의회 의원 정수 55명으로, 기장군 편입·분구로 4명 늘어(시보 3. 2)
* 기장군 편입 지역 시내버스 운행, 주민의 교통편의 도모 위해, 택시도 미터기 요금 체계로 전환(시보 3. 2)
* 「항도 부산」수록 논문 연구 지원,「부산의 항일 독립 운동사 조명」주제, 광복 50주년 맞아 향토사 연구 전기 모색(시보 3. 2)
* 시 상수도 본부서도 수질 검사, 음용수 등 36개 항목 14일 내 회신(시보 3. 2)
* 융자 대상 기준 완화, 도심지 주차난 해소 위해 3월 1일부터 민영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시설자금의 융자 및 지원 확대하여 주차장 건설 촉진키로(시보 3. 2)
* 소방 종합 행정 타운 건립, 연산동 토취장 각종 재난 신속 대처 위해(시보 3. 2)
* 농산물 국제 경쟁력 높여, 강서구 대저동 35개 농가 일보에 12억 수출(시보 3. 2)
* 보육 시설 설치비 지원, 시설 설치비 8백70개소에 8백70억원 융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시보 3. 2)
* 고도 정수 처리 시설 확충, 상수도 사업 본부는 수질 오염 등 비상사태에 대비 덕산 정수장 안에 하루 5만톤 규모의 배수지 건설하고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확충 하는 등 올해 258억 투자 계획(시보 3. 2)
* 시장 동정, 2월 21일 여성 유권자 연맹 총회 참석 격려·2월 22일 낙동 CATV 개국 기념식에서 축사(시보 3. 2)
* 연제구, 사상구 개청(부산시정 3. 2)
* 제10대 정순택 교육감 취임식(부산교육 3. 2)

3. 3　* 연제·수영·사상구-기장군 스케치, 청마다「새 살림」안녕 기원 굿·고사, 축하 공연장마다 오빠부대·실버족 홍수(부산매일 3. 3)
* 부산시,「관광부산」개발본격화, 종합계획안 확정 소형·대중시설 확충 주력, 가덕도 등 5개 지구 골프코스, 8개 지역에 관광지 새로 조성키로(부산매일 3. 3)
* 부산시, 20년 도시계획 묶인 땅 푼다, 미집행 시설 연내 해제·변경 추진, 사업 방치지역 7백76개(부산 3. 3)
* 수영구, 기장군 개청(부산시정 3. 3)

3. 4　* 공무원 1인당 시민수·1인 총 생산액 부산 6대 도시 중 최악, 주택·도로·하수처리율도「성장억제」묶여 기반 시설 계속 열악(부산 3. 4)
* 부산시내 대형예식장 횡포 실태, "일생에 한번 뿐" 악용 2중·3중 피해 강요, 소비자 고발 한달 평균 40~50건, 철저한 감독·행정 처분 있어야(부산경제 3. 4)
* 금정산 청소년 수련소 개방 심신 단련장 본격 활용, 연 5백평 건물 각종 시설 완비, 대학동아리·직장인에게도 개방(부산매일 3. 4)

3. 5　* 부산 당정회의 발언 요지, 지사 과학 단지 국고 지원 노력, 버스 노선 전면 조정 바람직, 영락 공원 하반기부터 사용(부산매일 3. 5)

3. 6　* 부산 시장론, "「삶의 질」이끌 문화 시정 펼쳐야", "시민 생활과 직결" 중요성 인식 시급, 경영차원 활용 능력도 필수적 자질(부산 3. 6)
* 송도 앞바다 매립 추진, 한진종합건설·지영번영회 7만여평에 인공섬 계획, 환경 훼손·남항 기능 저해 우려(부산 3. 6)

3. 7　* 기장군 대중교통 사각지대, 버스료 2~5배 "바가지", 택시료 미터기 눈금 무시, 적자를 이유로 시내요금 적용 묵살 시외 요금 받아(부산매일 3. 7)
* 수사직전 비자금 장부 소각, 택시 조합 강이사장 수배·출금 요청, 예금 계좌·거래 내역 추적, 전현 시 공무원 금명 소환(국제 3. 7)
* 수산청, 대구·꽃게 등 31개 수산물 10일부터 자유 판매, 연근해산「위탁」단계 해제, 어민 부담 큰 위판 수수료 없애(부산매일 3. 7)
* 부산택시조합 비자금장부 소각,「증차흑막」더욱 뚜렷,「모범」돌연 시행 등 곳곳 의혹, 로비자금은 사전에 유포된 듯(국제 3. 7)

* 건축 행정 건실화 마련, 건축 분야의 질서 확립과 규제 완화를 통한 시민 편익 제공 위해 7일 대책 마련(시보 3. 11)
* 부산·호치민시 자매결연 추진, 7일 김기재 시장 현지서 「양해각서」 서명, 환태평양 협력권 구축(시보 3. 11)

3. 8
* 정부, 지자체 투자사업 집행 연기, 경기과열·물가상승 억제 위해, 고속철 부산역사 민자 확대, 낙동강수계 9백72억 지원(부산 3. 8)
* 부산 중구청 「주민 불리기」 안팎, "애향심" 내세워 위장전입, 구청장이 앞장 전직원 동원 조직적 추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공명성 논란 일 듯(부산 3. 8)
* 육본 중도금 8백억 요구, 반여 택지개발 지연, 부대시설 보상 시와 마찰(국제 3. 8)
* 정부, 부산에 신발·피혁 연구소, 신발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부산 신발연구소를 「신발 피혁 연구소」로 확대·개편키로(부산 3. 8)
* 외국인 연수생 고용허가제 안한다, "상여금·수당 등 추가 업체 큰 부담", 부산에 기능 대학 신설키로(부산 3. 8)
* 이기대 위락단지 조성, 신선대 오륙도와 연계, 남구청 이달말 용역·산림욕장 등 설치(국제 3. 8)
* 로비의혹 갈수록 증폭, 택시 조합 전현간부 줄줄이 잠적, 자진출두 의사 전전무도 수배, 검찰 수사 난항 … 신병확보 주력(국제 3. 8)
* 부산시, 기장군 현안 "허공에", 계속·신규사업 교부금 미정, 「재산」도 승계 시비로 자금화 불투명, 도로 확포장 등 "연기·중단"(부산매일 3. 8)
* 동직원들 잡무에 피곤하다, 각종 행사 동원·고지서 배부 등 혹사, 행정 업무 수행 애로(부산 3. 8)

3. 9
* 인간 증발 수사도 실종, 부산 월평균 500명 중 25% 못 찾아, 일손 부족 내세워 거의 단순 가출처리, 행불자 수소문에 가정파탄까지(부산 3. 9)
* 6월 선거 걱정 태산, 우편물 5일간 460만 통 쏟아진다, 부산·경남 집배원·차량 크게 부족 대책 마련 시급(부산매일 3. 9)
* 광역 전철4·도시지하철 4개 노선 "대중교통망 조기 확충을", 3인 이상 차 우선 통행 실시, 정부 차원 대책기구 구성도(국제 3. 9)
* 건설교통부 부산항·광양항 동북아 최대 「컨」 항 육성, 해운·항만 개방 대비, 가덕 신항만 올 상반기 계획 착수, 중부·서남·동남해안 6개항 개발(부산경제 3. 9)
* 을숙도 산화분지서 분뇨 "줄줄", "어장 망쳤다" 어민 아우성, 장림 하수장 유출수 마저 유입, 시-피해보상 약속 1년여 "질질"(부산매일 3. 9)
* 부산시, 수익 사업 2백12억 벌어, 작년 48건 추진해 전년에 비해 48% 늘어(부산경제 3. 9)
* 검찰, 부산 「경매 비리」 본격 수사, 부산지법 집달관합동사무소의 집달관들이 압류처분 서류를 위조 압류물건을 특정인에게 낙찰 받게 해준 사건과 관련 사건 경위 조사하는 등 집달관 경매 비리 본격 수사 착수(국제 3. 9)
* 카풀 종합 중개 센터 건설, 시는 9일 녹색 교통 운동 시민 추진 본부에서 카풀 종합 중개 센터 개설 「승용차 함께 타기」 본격 가동(시보 3. 11)
* 음식 쓰레기 퇴비화 사업장 견학, 각 시·도 관련 공무원 부산에 발효제 생산 시설 등 찾아(시보 3. 11)

3. 10
* 남구, 6대 숙원 사업 착공 잇따라, 이기대 진입로 공사 마무리, 이달 중 대천국교 옆 도로포장 등 5곳도 마무리 작업(부산매일 3. 10)
* 전국 "꿀 같은 비", 부산·경남 오늘 오전까지 60㎜ 예상, 가뭄 해갈에 크게 도움 될 전망(부산매일 3. 10)
* 부산 실업률 전국 최악, 지난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취업자 수가 늘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등 고용 상태가 좋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 다른 5대도시에 비해 아직도 취업자 증가율 낮고 실업률 높아(부산매일 3. 10)
* "부산 광역 전철 조기 추진", 교통대책 세미나 지하철 2~4호선 재조정, 신도시 철도 2개 노선 건설, 도심 진입 혼잡 비용 거둬야(부산경제 3. 10)
* 부산 도시개발 관광 중심으로, 제조업 우선 정책 탈피, 해변·항만 주변 휴양지 활용 시급, 부산 발전 연구원 관광정책 포럼서 발표(부산 3. 10)
* 부산 실업률 전국 최악, 작년 7만1천명 집계, 취업률 증가 불구 취업자 감소(국제 3. 10)
* 정부, 부산 신발제조업체 자동차 부품업 전환, 산업 구조 조정 차원 지원, 삼성·하청업 2백여개사 적극 육성키로(부산 3. 10)

3. 11　* 석대 시장 그린벨트 해제 건설 박차, 933억 투입 9월 착공 97년말 개장, 7개 유사시장 입주 유통 구조 개선, 전자 상장경매 도입 가격조작 차단키로(국제 3. 11)
* 부산시, 경영 행정 추진 "박차", 공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 일용직 채용억제 아르바이트생 활용(국제 3. 11)
* 지역 CATV 내고장 프로 편성 '온힘', 케이블TV 방송국들이 다양한 기획물을 제작해 지역채널을 통해 내보내, 단순 중계국 탈피노력 …인력・장비 확보 시급(부산 3. 11)
* 석대 농산물 시장 허용 의미, 공익성 고려 그린벨트 완화 고심 끝 결단, 필수기반 시설 인정 시 건의 수용, 부산지역 농산물 유통체계 획기적 전환 마련, 98년 개장 …2001년 청과물 천5백t 취급(부산 3. 11)
* 부산 정화조 무더기 불량, 독점 제조사 영업정지・시공사 11곳 행정 처분, 법정 기준치 크게 미달, 하천 수질 오염 주인(부산 3. 11)
* 창원지검, 경매 비리 3명 구속, 뇌물 준 건설회사 대표 등 2명 소환(국제 3. 11)
* 물의 또 물의 …"부산 경찰 왜 이러나", 직원-금품・향응 대접받고 피의자 검거, 간부-신병 인수증만 받은 뒤 그냥 방면(부산매일 3. 11)
* 지자제 대비 투자 재원 확보하라, 경영수익 확대 "총력", 독립채산제 운용 추진, 체육・문화 행사 등 이벤트 사업 적극 유치(부산매일 3. 11)
* 부산 주택 전세 값 또 폭등, 지난 달 또 다시 폭등세 보여 사상 최고치 경신, 집 없는 서민들의 가계 압박 심화 우려(부산매일 3. 11)
* 기장 인구 증가 추세, 기장군 신설 및 부산시 편입 앞두고 크게 늘어나, 93년말 대비 4천여명 늘어 7만명 육박(부산매일 3. 11)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우암 고가로 「부실」 정밀점검, 부산항 컨테이너 배후수송로인 우암 고가차도의 부실시공과 관련 공사구간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검사 실시키로(부산경제 3. 11)
* 한국어선협회 강서구 일대 폐선 수백천, "정상조업" 허위검사 남발, 해안매립 따른 보상금 노려, 선주와의 뒷거래 소문 무성(부산매일 3. 11)
* 부산 석대 농산물 시장 허용, 금정구 등 14개 시・구・군 학교 신설도, 정부 그린벨트 시설규제 완화(부산매일 3. 11)
* 버스요금 20일 인상, 일반 230원(10.3%) 좌석 700원(16.7%) 학생 240원(20%), 부산시 "최소 범위 내 조정"(국제 3. 11)
* 여러 필지로 된 부지 합병 정리, 시 도로・구거・하천・전답・과수원 등 단일 필지로(시보 3. 11)
* 「학생 1일 시정 참여」 시찰 20일까지 신청 접수 하수 처리장 등 견학(시보 3. 11)
* 시장 동정, 시장-9일 청년 회의소・회장단 접견, 여성 단체 협의 회장 취임식에 참석 축하, 부시장-3일 지역 언론 연구회 대토론회에 참석, 4일 동남 CATV 개국식 참석(시보 3. 11)
* 95 경영 수익 사업 추진 지침, 경영 행정으로 전환, 연찬 활동 강화해 경영 능력 제고, 지방 재정력 확충 위해 적극 추진, 공공 시설물 효율적 관리 대책도(시보 3. 11)
* 부산 종합 화물 터미널 개장, 3월 14일 엄궁동서 5년여의 신축 공사의 끝으로 1차로 부분 개장(시보 3. 11)
* 동아시아 경기 대회 협의회 열려, 아시안 게임 유치 위한 홍보 전개, 추진위 회장단 회의 개최 해외파견단 대표 결과 보고(시보 3. 11)
* 해외 시장 개척 참가 업체 낚시 용품 등 주문 잇따라, 해외 시장 개척단 참가했던 부산 지역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 주문 잇따라(시보 3. 11)
* 95 부산 세계 박람회, 25개국 참가 부산 무역 전시관 일원에서 오는 7월 16일 개막(시보 3. 11)
* 사회 복지 10개년 종합 발전 계획 수립, 부산시 다 함께 만드는 복지 공동체로, 노인 요양 시설 6개소로 확충, 보건소를 복지사무소로 개편・생보자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 등이 기본안(시보 3. 11)
* 저소득 주민 치료비 지원 확대, 의료비 지원 한도를 입원 치료 경우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통원 치료는 10만원 지원, 치료 기간도 2주 이상 대상에서 1주 이상으로(시보 3. 11)
* 「향토 음식점」 육성 계획, 시 세계화 맞아 서비스 향상 도모, 외국 요리 전문점 세제 혜택 부여(시보 3. 11)
* 부산시 산하 공기업 경영 개선 계획을 알아본다<3>, 자동생화학 분석기 등 최신 의료 장비 갖춰, 생보자 등 보호 환자 증가 경영 악화 부채질(시보 3. 11)

3. 12　* 부산시, 버스 파업 대비책 마련, 임금협상결렬에 따른 부산버스노조의 13일 파업결행에 대비 지하철 증편 및 배차간격 단축・택시부제해제・마을버스연장운행 등 비상 수송대책 마련(부산경제 3. 12)
*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선거 편승 집단 민원 속출, 선심성 정책・공약 남발 "너도나도", 구청마다 10~30%나 급증(부산매일 3. 12)

* 구민들 보건소 많이 이용한다, 북・사상구 병의원보다 시간절약・치료비 싸(부산매일 3. 12)
* 부산교통공단, “부산 지하철료 하반기 인상”, 빚더미로 파산지경에 이르자 자구책으로 금년 하반기 중 14.9% 인상 계획 중, 눈덩이 부채 시민에 떠맡겨(부산매일 3. 12)
* 해항청, 매립항만부지 사유화 허용, 항만법 시행령개정안 마련, 오는 7월 5일부터 가덕도 사업 등 대기업 참여 늘 듯(부산매일 3. 12)
* 「한국잡지 100년」 발간, 국내 최초의 잡지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창간1백주년의 해를 앞두고 우리나라 잡지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한국잡지1백년」 발간(부산매일 3. 12)

3. 13
* 4대 선거 관리인력 태부족, 동시 실시로 업무 폭증, 행정장비도 보강 안 돼 큰 차질 우려(국제 3. 13)
* 부산시내버스 임협 타결, 6대 도시 중 대구만 합의 못 봐, 기본급 6.2% 상여금 50% 인상 합의(국제 3. 13)
* 부산 물값 전국 최고, 평균보다 t당 백원 비싼 336원, 원수공급・처리비용 등 격차 커(부산 3. 13)
* 부산 세계화 수준 “낙제점”, 11개 분야 비교 분석 자료, 기업 해외투자 미의 0.3%, 상수도 보급률은 98% 근접, 국민생활・무역・금융 등 모든 부문서 특히 낙후(부산 3. 13)

부산의 세계화 수준

무역부분	세계화 수준
무역 의존도(93)	42
대 외 투 자(92)	0.3
수입 자유화율(92)	97.7
수입 자유화율(93)	98.1
금융・물가 부문	**세계화 수준**
할 인 율(93)	60
이 자 율(93)	50
C P I(93)	62.5
국민생활부문	**세계화 수준**
주택보급률(93)	61.1
상수도보급률(93)	98.1
만명당의사률(93)	56.5
승용차보급률(93)	11.5

※ 미국을 100으로 간주했을 때의 수준

* “경기장・선수촌 등 준비 완벽”, 제10차 동아시아 경기 대회 협의회 부산 총회에서 동아시아 경기 준비 상황 보고(시보 3. 21)
* 제10차 동아시아경기대회 협의회 부산총회(부산시정 3. 13)

3. 14
* 부산 종합 화물 터미널 개장, 「부산 종합 화물 터미널」이 착공 1년 6개월만인 3월 14일 1단계 공사 완료 부분 개장(시보 3. 21)
* 특정 지역 「일당화」 예방, 시・도 광역의원 「비례대표제」 도입, 득표율 따라 배분…정원 10% 늘어(시보 3. 21)
* 부산 수돗물 값 전국 으뜸, 경북보다 t당 146원 비싸, “수질 나빠 정수 비용 등 더 들어”(부산매일 3. 14)
* 동래구, 세계화 추진기획단 발족, 국제환경과 국내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 마련코자 발족, 환경 등 5개분야 위원 15명 위촉(부산 3. 14)
* 중구청 위장전입자 전주소지 퇴거조치, 「부산중구청 위장전입사건」을 감사중인 부산시와 내무부는 14일 위장전입자 전원을 전주소지로 퇴거조치키로(부산 3. 14)
* 시 묘목판매장 운영, 봄철을 맞아 내실 있는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식수상담소와 묘목판매장 운영키로(부산 3. 14)
* 동아시아 대회 총회 결산, 「부산 2002」 유치에 자신감, “완벽한 사전준비” 중국 등 간접지지, 97년 대회일정・참가국・종목 등 확정(부산 3. 14)
* 부산 제조업 전국비중 계속 내리막, 생산액・종업원 수 등 80년 후 감소세, 노동집약형 경공업 편향・업체 역외이전 등 영향(부산 3. 14)
* 김용태 내무부장관 초도순시(부산시정 3. 14)
* 부산지방법원, 경매감독관배치에 관한 내규(내규 제73호) 제정(법원사 3. 14)

3. 15
* 부산 경제기관장회의, 지방 공단 외국인 연수생 직접 신청, 신평・장림 인력난 덜기 위해, 대형관급공사 공구분할 발주, 삼성차 협력사 기보 보증 지원(부산경제 3. 15)

* 부산·경남, 출마 구청장·시장 무더기 사퇴 후유증, 후임꺼려 후속 인사 진통, 3개월 단명·선거 관련 구설수 부담, 대상 고위직들 발령 기피(국제 3. 15)
* 부산 행정 흔들린다, 부산지역 4개 구·군 신설에 이어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제 선거 출마를 노린 현직 공직자의 대거 이탈 등 인사태풍이 예상됨에 따라 일선행정 업무 공백 우려(부산매일 3. 15)
* 엄궁동 종합화물터미널 부분 개장, "부산 화물 맡겨주세요", 연말께 물량 반 이상 처리, 도심 교통난 해소·물류비 절감 기대(부산 3. 15)
* 둔지 연료단지 조성 난항, 주민들 경마장설치 등 종합개발 요구, 부산시-선거 앞서 주민 반발의식 허가 미뤄(국제 3. 15)
* 대만 아주게임유치 막판 세몰이 안간힘, 부산체육시설 부재 선전, 경기장 실태 등 집중 조사할 듯, 「가오슝 유치단」 폐막날 연막전술 펴기도(국제 3. 15)
* 둔지도 연료단지 추진 본격화, 주민 설득 대신 구의회 동의안 작성, 통과 땐 연내 착공 가능(부산 3. 15)
* 부산항 관리 운영권 "시서 맡아야" 여론 비등, 부산항의 관리운영권이 부산시로 넘겨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자체 4대 선거와 맞물리면서 부산시와 민자당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부산 3. 15)
* 사하구 민원실 기능 확충, 단말기·복합인증기로 서류 신속 발급 가능(부산매일 3. 15)
* 부산 종합화물터미널 부분 개장, 유통난 완화 "큰 기대", 하루 7천3백t 처리, 엄궁동 12월 완공 땐 1만8천t 소화(부산매일 3. 15)
* 「약속의 땅」 서부산권 개발 차질, 민원대처 안일·부처 마찰로 중단·지연, 명지-주민·환경처 반발 계속, 신호-보상불만족 "조직적 대응", 녹산-토취장 공사 중지 명령(부산매일 3. 15)
* 올해 달라지는 지방 세법령, 시는 내무부와 합동으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95년도 달라진 지방세법 숙지교육 실시(시보 3. 21)
* 「세계를 향한 미래 도시 부산」 제시, 부산 상공회의소 국제 회의장에서는 「정보화 시대 세계를 향한 미래 도시 부산」을 주제로 「지역 정보화 촉진 심포지엄」 열려(시보 3. 21)
* 벼 직파 재배 연시회, 부산광역시 농촌 지도소에서 벼 직파 재배에 따른 기술 이론 교육과 현지 포장 등 연시대회 실시(시보 3. 21)
* 주택 공급 질서 감독 강화, 건축 과장 회의 행정 지침 시달(시보 3. 21)

3. 16
* 부산 편입 무색 "교통 사각 지대", 기장군 버스·택시 운행 중단, 노선 조정·거리병산제 시행에 업자 불만, 당국-불법행위 벌금 엄포뿐 대책 못 세워(부산 3. 16)
* GDP로 본 작년 경기 지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성장 수준이 적정성장률을 크게 초과해 경기 과열에 따른 부작용 우려(부산매일 3. 16)
* 기장군 이상 없나<3>, 그린벨트·「상수원구역」 등 조정, 새로운 산업 단지 유치 병행을, 해양 특성 개전 모델 세워야(부산매일 3. 16)
* 부산·경남 토양 중금속 오염 심각, 공단 오폐수·매립장 침출수 등에 노출, 주거지·공원 제외 전역 신음, 녹산이 부산·울산보다 심해(부산매일 3. 16)
* 김기재·강경식·문정수 부산시장후보 거론, 민자당은 오는 6월 27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도지사 후보를 3배수내로 압축 작업 시작(부산매일 3. 16)

3. 17
* 6·27지방 선거 어떻게 치르나, 5천7백여명 선출 "최대 선거", 전담사무인력만도 52만명 동원, 4개 투표 동시기표로 혼잡예상(국제 3. 17)
* L/C 내도액 올 들어 급증, 부산 수출 "파란불" 2월 중 3억불 작년 동월비교 32.2%나 증가, 수입 승인서 발급도 증가 무역 수지는 적자(부산 3. 17)
* 기장군 이상 없나<4>, 「특수지 학군」 전출 부채질, 버스·택시 파행운행 근절 시급, 수산학교 설립 등 활로 찾아야(부산매일 3. 17)
* 동구청, 자매 결연 본격 추진, 세계화 추진 일환으로 중국 황대시지부구와 자매결연 맺기로, 5월 중 대표단 중국 방문해 시장 개척 도모(국제 3. 17)
* 광역순환도로 내년 착공, 가덕~김해한림~양산~일광~해운대 연결, 지하철 4·5호선 조기 건설, 도심 진입 혼잡통행료 징수(국제 3. 17)
* 부산도 대규모 「서적 단지」 계획, 도서 유통 새장 기대, 학장동 3천평 부지에 연내 조성, 청소년 문화공간·상설 전시장 등도 추진(부산매일 3. 17)
* 4대 지방선거 100일 작전, 기본사무처리 동원 인원 52만8천명, 선거인 2천5백명 기준 투표구 분할, 각 시·도 선전벽보장소 사전 선정 대비(부산경제 3. 17)

* 출마 공직자 언제 사퇴하나, 지방 의원 희망자는 29일까지 퇴직 완료, 단체장 입후보 땐 6월 10일전 물러나야(국제 3. 17)
* 시립 화장장 부실 공사, 「화장로」 연기분출・작동 불량 드러나, 무리한 공기 단축 졸속 완공, 설비업체 저가 낙찰 부작용(부산경제 3. 17)
* 부산시 교통 종합 대책위, 부산-마산-울산-광역 전철망 건설, 신도시 철도 집중건설 지하철과 연계(부산매일 3. 17)
* 실질적 부산 시민 "머나먼 길", 군 전체면적의 85%가 그린벨트, 재정난 심각 …현안 사업 산더미(부산경제 3. 17)

3. 18
* 부산 수출 봄이 온다, L/C 내도액 급증 배경과 전망, 엔저 초강세・일지진 특수・미경기 회복이 원인, 「동남아 장애」 딛고 신발 회복세(부산경제 3. 18)
* 내무부, 가정용 수도료 19.7% 인상, 오는 7월부터 인상, 월 20t 이상 사용시 누진율 적용키로(국제 3. 18)
* 현 부산역에 고속철 역사, 고속철도공단 통보 시내 구간 35.31㎞, 범어사~자성대 지하로 노포동~사직운동장~부전역 경유, 의회에 도시계획안 상정(부산 3. 18)
* 지방선거 사전 운동 급증, 지역민에 버스료 할인 선심, 감시 요원 부족 …제보 의존, 여론조사 빙자 후보소개 전화 극성(국제 3. 18)
* 기장군 이상 없나<5>, 공연・전시 공간 한 곳 없어, 인력 부족 …행정 수요 감당 못해, 신라 토성・황학대 등 유적 방치(부산매일 3. 18)
* 지사 단지 조성 차질, 재경원 "국가 공단 전환 불가" 통보, 사업 계획 수정 불가피(부산경제 3. 18)
* 민자 민선 부산시장 후보는?, 김기재・강경식・문정수 공천 압축 박관용 돌발 변수, 김기재 시장-강력한 행정력 유리 고지 선점, 문정수 의원-민주계 핵심 특별기획반 운영, 강경식 의원-지역문제 정통 정치력도 겸비(부산매일 3. 18)
* 산성비 초비상, 장기가뭄・황사 여파, 부산 한때 "빙초산우", 16일 일부 산도 PH3.9 기록, 플랑크톤 소멸・고기알 부화 악영향(국제 3. 18)
* "기장에 아주보조경기장", 김부산시장 골프장 등 대규모 레저시설도, 도로 확장 시정 우선 사업으로, 「GB」법 테두리 내 최대한 개발(부산매일 3. 18)
* 부산시 환경 민원 "무성의", 보상 늑장・동간처리 일삼아 분쟁 자초(부산매일 3. 18)

3. 19
* 일선 경찰서 과장급 40%가 곧 떠날 타지 출신자, 부산경찰 경정 승진자 "통과역", 다른 지역 출신 1~2년 근무하고 떠나는 악순환 반복, 부산 경찰 조직 관리 큰 걸림돌로 작용(부산매일 3. 19)
* 공공 탁아소 내년까지 40여곳 설립, 청사 신축 따른 구시설 매각 않고 활용, 사회복지 전문 요원도 배치, 영세민 보육부담 던다(부산매일 3. 19)
* 시민・사회단체 제목소리 낸다, 「4대 선거」 앞두고 기구 결성・토론회 "활발", 후보자상대 지역 발전 공약 요구, 부정 고발・정책개발로 위상 강화(부산매일 3. 19)
* 고속철 종착역 현부산역, 노포~사직운동장~부전역 경유, 상반기 중 최종 확정 고시(부산경제 3. 19)

3. 21
* 여, 「텃밭」 부산 새 선거구 잡아라,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내년 치러질 15대 총선 위한 국회의원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30만명으로 확정함에 따라 부산 지역에서는 사하・금정・동래・남・사상 등 5개 지역의 선거구가 늘어(국제 3. 21)
* 분구・신설 6개구 재정도 반쪽, 재원 마련 안간힘, 동래・북구 자립도 크게 떨어져, 남구・수영구 분리로 7% 감소(국제 3. 21)
* 지방 선거 출마 명예퇴직 "봇물", 부산 구청장 5명 신청, 전국서 2~5급 81명이나 희망, 경남도 시장・군수 등 6명 사퇴(국제 3. 21)
* 기장군 이상 없나<6>, 오폐수처리 못해 어장 황폐화, 예산부족・「지역이기」 해결해야, 주민 절반이상 지하수 의존(부산매일 3. 21)
* 문정수 의원 "부산 시장 출마", 지역 의원 모임서 시사 행정가 보다 정치인이 바람직(부산매일 3. 21)
* 구동사 탁아소・독서실 등 활용, 시는 동사 신축으로 발생한 「구동사」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 「구동사」를 주민문화 생활공간으로 활용키로(시보 3. 21)
* 일제가 박은 쇠말뚝 일제 조사, 시는 광복 50주년 맞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쇠말뚝을 일제 조사해 제거키로, 고유 지명 찾기 운동도 4월 20일까지 실시(시보 3. 21)
* 새 봄 맞아 시 기관 기지개 "활짝", 시 산하 복지기관에서는 봄을 맞이해 「외국어・어미니 취미교실」 마련, 봉사자 양성 「연극교실」 등 개최(시보 3. 21)

* GB법 테두리 내 최대한 개발, 기장군 일대 도로 및 상수도 확장 사업이 시정의 우선 사업으로 집행되는 등 기장군 일대 본격 개발 예정(시보 3. 21)
*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 시는 해빙기 맞아 산사태·옹벽·제방 점검 등 각종 안전 사고 방지 위해 예방 대책 마련(시보 3. 21)
* 「자랑스런 신한국인」 발굴 표창, 시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도 묵묵히 일하는 「자랑스런 신한국인」 발굴·격려키로(시보 3. 21)
* 어항 시설 정비, 시는 기장군 편입으로 관내 어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대대적 어항 시설 정비키로(시보 3. 21)
* 수혜자를 찾는 복지로, 시는 21세기 대비 「다 함께 만드는 살기 좋은 복지 공동체」 구현을 기본 이념으로 10개년 사회복지 종합 발전 계획 수립(시보 3. 21)
* 「광복길 놀이」 기획 구상 공모, 시는 「광복길 놀이」와 「문화 장터 및 아리랑 축제」를 지역 특성 최대한 살린 시민 축제로 만들기 위해 행사 전반에 걸친 기획 구상 공모(시보 3. 21)
* 중소 운전 자금 5백56억 지원, 부산시는 올 상반기에 5백45개 중소기업에 5백56억원 운전 자금 융자 지원키로(시보 3. 21)
* 시의회 제40회 임시회 개회 3월 21일부터 8일간 열려, 부산시의회는 제40회 임시회 3월 21일 개회(시보 3. 21)
* 심야 불법·퇴폐 영업 추방 대책 마련, 시는 지방 선거 앞두고 변태 영업 등을 강력 단속키로 했으며 자율정화·타 업종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키로(시보 3. 21)
* 「세계 물의 날」 행사 다채, 부산시 상수도 사업 본부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과 관련 갖가지 기념행사 준비(시보 3. 21)
* 공업 입지 확보 등 자립 기반 조성, 95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지침 마련 지원 자금 1,216억원 기업 애로 직소제 확대(시보 3. 21)
* 시장동정, 15일-수도시설 주요 사업장 서본부장 현장 점검, 16일-교통 정책 심의위 주재(시보 3. 21)

3. 22
* 해운대 신시가 우회도로 공사 "법정 분쟁" 비화, 이번엔 주민들이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고가로 일·조망권 침해 무리한 곡선시공 설계 변경 의혹"(국제 3. 22)
* "하얄리아땅 주민 품으로", 부대이전·부지 활용 방안 토론회 시관계자-공원 건립 4천4백억 필요(부산 3. 22)
* 베를린 티어가르텐·일 도쿄 우에노공원·서울엔 「용산 공원」 부산에는 ? "하얄리아땅 공원중심 개발을", 외곽지 주상 단지화 비용충당, 녹지조성 원칙서 재원 확보를(국제 3. 22)
* 지하철 2호선 수영비행장 남쪽 통과, 일부 노선 변경 수영교서 직진·수비 삼거리로(부산 3. 22)
* 하마평 4인 "김심" 암중모색, 문의원·김시장 압축 설 속 관망세 주류, 내정자 없이 강행·단일추대론 등 분분, 김시장 29일 전 사표 여부 「공식 출사표」 기로(부산매일 3. 22)
* 부산시 의회 시정 질문 요지, 제2도시 교통 청사진 뭔가, 선거 두고 지역 현안만 매달려 아쉬움, 재정 확충 위한 공영 개발 사업 대책은, 타지보다 비싼 수도료 인상 근거 대라(국제 3. 22)
* 95 부산여성대회(부산시정 3. 22)

3. 23
* 부산시, 지사 단지 국비 요청, 기반시설 조성 1천3백억, 중기 수출촉진 자금 30억원 지원(부산경제 3. 23)
* 부산시의회 임시회 질문·답변, 미세먼지 오염 예방책 없나, 질문-전국 최악 교통난 해결 청사진 뭔가·「가덕도 신공항」 내용 및 추진 상황은, 답변-시내 모든 도로에 주차 공간 마련 계획·기장 거주학생 해운대 지역 배정 허용(부산매일 3. 23)
* 기장군 이상 없나<8>, 「지역이기」 벗어나 시민 의식을, 그린벨트엔 쾌적한 환경 조성, 세계화 발맞춰 도시 개발해야(부산매일 3. 23)

3. 24
* 부산 문정수 경남 김봉작, 시도지사 후보 민자 복수추천 내정·유력 …김기재·김규혁씨와, 서울-정원식·이명박씨, 대구-조해영·이상이씨(국제 3. 24)
* 부산시, 「부산 아젠다21」 선언, 전국 처음으로 시민과 기업·부산시의 환경 친화적 실천지침 담은 「부산 아젠다21」 선언, 개발우선 정책 제동 환경 도시 건설키로(부산매일 3. 24)
* 추리 문학관 지역 문화 명소로 "자리", 강연·연주·영화 상영 등 프로그램 풍성, 애호가 누구나 환영 …작가 교실도 추진(부산매일 3. 24)

3. 25
* 구청장 공천자 이미 내정, 민자 부산시 지부 절반 이상이 행정 관료 출신, 무연고자 일방 결정 크게 반발, 일부선 탈당·무소속 출마 선언(국제 3. 25)
* 부산항 8부두 빠르면 내달 개방, 해항청-미군에 협조요청 공동 사용 합의, 년 60만~70만 TEU 처리(부산경제 3. 25)

* 해항청, 가덕도 설계 용역 내달 말 착수, 용역 사업과 병행해 신항만개발과 연관된 광역배후수송망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을 위한 종합 환경영향 검토 작업 상반기 중 시행(부산경제 3. 25)
* 금정구,「금정산 사계」 영상으로 본다, 총 19분 분량 비디오 제작, 14개월 걸쳐 산성 경관 등 기록(부산매일 3. 25)
* 부산 시의회 40회임시회 질문・답변, 낙동강 수질 보호 대책 없나, 질문-시내도로 가각 정비 계획은, 답변-신항만 건설예정지 미확정(부산매일 3. 25)
* 부산발전기획단 실무회의, 5대 기업 유치 총력, 세제 혜택 등 제도개선 추진, 증권거래소 등「4현안」 정책 반영, 지사 기반시설 국고 지원도 건의(부산매일 3. 25)
* 부산시, 기장에 신시가 조성, 휴・폐업 섬유업체「삼성차」 협력사로(부산매일 3. 25)
* 부산시, "「부산교통」 국고 지원 확대를"(부산매일 3. 25)
* 해항청, 가덕 신항 내달「용역 발주」, 20억 투입 기본 설계 착수, 상반기 종합 환경 평가도(부산매일 3. 25)
* 8부두 미전용 반석 둘 4월부터 한・미 공용, 부산항 제8부두 내 미군 전용 부두 2개선석이 4월부터 우리나라에 반환돼 미군과 공동 사용(부산매일 3. 25)
* 시립 화장장 "하자 투성이", 유인 배풍기 배기결함, 주연소 버너 화염 불량(국제 3. 25)

3. 26
* 시의회 의원들 인기성 발언 치중 "눈살", 지방선거 3개월 앞둔 22~23일 사흘간 열린 부산시의회 제40회 임시회본회의에 질문자로 선정된 11명의 시의원들 선거구 지역 주민들 의식한 듯 인기성 발언에 치중(부산매일 3. 26)
* 부산시, 다대포 지방 공단 축소, 부산항 광역개발계획 일환, 총 47만평으로 축소 …녹지는 5만4천평(부산매일 3. 26)
* 부산 대형 사업 민자 참여 활발, 대우・삼성 등 이어 한진중・금호도, 한진=영도~부산역 경전철, 금호=서면~사직동 경전철(부산매일 3. 26)
* 25년째 재산권・개발 "꽁꽁", 정관・철마면 35만여평 묘지 지구 기장군 발전 "걸림돌", 인근주민들 공업・공원 용도 조정 호소(부산매일 3. 26)
* 진해시 웅동 2동 "우리도 부산시민으로", 생활・경제권 같아도 갖가지 불이익, 행정구역 재조정 탄원(부산매일 3. 26)

3. 27
* 선거 앞두고 행정 누수 심각, 지휘계통 부재・책임회피 만연, 부산-공천 경쟁・편가르기까지, 경남-고위직 60명 곧 사퇴할 듯(부산 3. 27)
* 동부 여객 운행횡포 기장군 주민 울화통, 시 편입후 교통불편만 가중, 멋대로 요금인상・결행 일삼아, 부산시 조치 없어 봐주기 인상(국제 3. 27)
* 오륙도「보전지역」 선정, 자연경관 우수・희귀 동식물 서식(국제 3. 27)
*「삼성차」 착공 지연, 신호 분양가・평수 큰 이견, 시・지자제 선거 "눈치"(국제 3. 27)
* 부산시장 정치가 낙점 …「경선」 아득, 민자 시도지사후보 수면위로, 김시장 출마포기 문정수 의원 대세, 경남・김규혁 현지사 후보 확정 단계(국제 3. 27)
* 민자 시도지사 후보 곧 윤곽, 김기재 부산 시장 불출마 선언, 부산-문정수 전총장 거의 확실, 서울-이회창씨 영입 막판 부상(국제 3. 27)
* 녹산 간척지 주민 보상용 2만여평 "증발", 행정 실수 83억 보상 "막막", 경남-무상 분양 미루다 부산 편입, 부산시-일방적 공단 지정 양도 막아(국제 3. 27)
* 신호공단 분양가 이견 삼성차 조기 착공 차질, 65만평 평당 100만원 상회 삼성-60만원대・분리개발 요구, 시-재벌기업 특혜 시비 등 우려 결정 난색(국제 3. 27)
* 신 시청 통과 연산R 연결 당국 고심, 시측-"새 청사 관통" 당위론 내세워, 공단측-각계 의견 수렴 내달 11일 최종 결정키로, 공법・교통흐름 감안「연산」이 유리(부산 3. 27)
* 김시장 불출마 선언 배경, "부산현안 해결 정치력이 필수적", 문전총장 부각-강경식씨 등 거명(부산 3. 27)
* 김기재 시장 불출마 선언, 27일 공식 발표, "남은 임기동안 부산의 현안해결 위해 일하겠다" 밝혀(부산 3. 27)
* 명예 퇴임식, 김기재 부산시장은 3월 27일 95년도 상반기 1차 명예 퇴임식 가져 그간 노고 치하(시보 4. 1)
* 새 봄 맞이 국토 대 청결 운동 3월 27일~4월 5일까지 시민 대청소(시보 4. 1)

3. 28
* "해운대 관광 특구 개발 지원을", 부산 시의회 제40회 임시회 시정 질문(시보 4. 1)
*「청소년 유해 환경 민감 감시단」 출범,「바른 청소년」 육성 위해 YMCA에 위탁 하여 유흥업소 등 감시, 시민 제보 접수 고발 전화 운영키로(시보 4. 1)

* 문예 진흥 활동 지원 사업 활정, 부산시 올 한해 6개 분야 2억2천만원 지원(시보 4. 1)
* 부산 시내 중고 남녀 공학 급속 확산, 개방화 부응 공립학교서 붐, 중학교 13곳・고교 18곳 실시, 학생 순화・학군 조정용이 …계속 늘어날 듯(부산 3. 28)
* 부산・경남 기초 단체장 후보 윤곽,「참신」난 속 전・현직만 "실망", 부산 동래 등 8~9개 지역 공천확실시, 경남-전직관료 개별접촉 상태 …「확정」없어(부산매일 3. 28)
* 부산시 제출 고속철 결정 안, 시의회심사 보류, 시-계획안 재검토키로, 도시주택위-부전역 중간역 활용 촉구(부산매일 3. 28)
* 민자당, 부산시장 후보 3명 압축, 문정수・우병탁・권철현씨 곧 등록, 경남 김지사 공식출마 선언, 경선 실시 방침은 대폭 후퇴(부산 3. 28)
* 민자, 부산 기초장 후보 공천 "윤곽", 4대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후보로 나설 부산경남지역 민자당 기초자치단체장후보가 사전내락 등으로 공천후보자 접수를 일주일가량 남겨두고 가시화(부산매일 3. 28)

3. 29
* 부대 언론 연구소, 지자제 부산시민 여론 조사, 시장 "인물 보고 뽑겠다" 50.9%, 유권자「비정치인」선호경향 뚜렷, 선택기준 도덕성・능력・전문성 순, 시의원도「도덕성」중시・지난 4년 평가 "부정적"(국제 3. 29)
* 6・27 선거 기류, 정치력 표방에 경력・참신성 "맞불", 문의원-현안 해결할 추진력 갖춰야, 우의장-지역실정 누구보다 잘 이해, 권교수-전문성 앞서 개혁정책 적합(부산 3. 29)
* 부산 중추관리기능 "바닥", 중앙 행정 업무 서울 100에 부산 0%, 대출 7.9정보 0.9% 불과, 해항청・수산청 등 이전 시급(부산 3. 29)
* 엄궁 농산물시장 가격 등락률 극심, 월별 최고 10배까지 차이, 거래품목 대부분 해당, 계획생산・집하 기능 강화 등 절실(부산매일 3. 29)
* 부산시, 심벌마크 제정, 광역시로의 명칭 변경과 행정구역 확장 등 지방화・세계화시대의 이미지 제고 위해 새 상징마크 제작(부산매일 3. 29)
* 광복 50주 전국 3백8개 행사, 기념사업위 정부・민간단체 계획 확정발표, 역사재조명・공동체실현 등 새 주제, 부산도 백산상회복원 등 17개 사업(국제 3. 29)
* 구청장 법정 대리, 시는 명예 퇴임한 6개구청의 구청장을 현직 박구청장이 법정 대리로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구청장 법정 대리 인사 발령 발표(시보 4. 1)

3. 30
* 정부, 부산 교통난 심화 "불 보듯", 행정규제완화 위해 교통영향평가대상건축물 기준 크게 완화, 가뜩이나 극심한 부산 등 대도시의 도심교통난 심화 우려(부산매일 3. 30)
* 부산・경남북, 국교 4학년 사회과탐구 졸속제작 곳곳 "엉터리", 지명・통계 등 오기 수두룩, "내 고장 잘못 배울까 두렵다", 강서인구 50~60만・동래구는 고작 9만, 매립백지화 수영만 "새로 생기는 땅" 표시, 통폐합 전 지명으로 명승지・특산물 소개(국제 3. 30)
* 6・27 선거 기류 지자선거 89일 카운트다운, 호보 첫 등록 …민자선거 전 "점화", 민주-외부인사 안될 땐 노무현씨 유력, 우병탁・권철현씨 중앙 태도 변화관망(국제 3. 30)
* 시 선관위 "4대선거 투・개표 요원 대거 동원", 교사들 "우리가 동네북인가", 초・중・고 전체 인원 30%나, "정상수업 큰 차질 우려" 반발(부산매일 3. 30)
* 후보 경선 원칙 퇴각, 민자-공천 심사기구도 있으나마나, 광역-부산・경남 문정수・김혁규씨 내정, 기초-부산 16개구 중 5곳도 이미 선정(부산매일 3. 30)
* 부산시내 신흥 개발지 교육・행정시설 태부족, 다대・하단・금곡・동삼지구 등, 생활불편 심화 …민원 속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편익 시설 못 따라(부산매일 3. 30)

3. 31
* 6・27선거기류 지자선거 88일 카운트다운, 중앙 정치에 밀린「경선축제」, 문정수의원 단독등록 자동 무산 확실, 우병택・권철현씨 입지 향후행보 관심(국제 3. 31)
* "가덕도개발 차질 없이 추진", 부산・경남 방문 자자선거 부정 타락 반드시 근절, 김영삼 대통령 부산・경남 방문에서 밝혀(국제 3. 31)
* 부산항 사상 최악 체선사태, 정기선까지 2~3일 대기, 수출입 화물 운송에 "비상", 물동량 폭발 증가・시설 10년째 제자리(국제 3. 31)
* 선거 결정 변수 "사퇴 통반장을 잡아라" 출마자 확보전, 부산 1백70명「모시기」경쟁, 초고 수요 …혼탁과열 부채질(국제 3. 31)
* 부산지역 올 노사협상 부진 임・단협 타결률 20% 미만, 노사협상 실적 지난해 비해 크게 부진한 것으로 조사(국제 3. 31)

* 부산 동부지청, 구의원・공무원 등 넷 구속, 무허 건물 묵인 대가 금품 수수(부산매일 3. 31)
* 영도대교・제2낙동교・구포대교 불법 하도급 “부실의혹”, 무면허 업자 시공 맡겨 물의, 한진・코오롱 등이 건설・보수, 성수교 붕괴사고 재판 우려(부산매일 3. 31)
* 바다버스 노선확대, 육상 교통난 완화위해, 중앙동~하리・다대포・광안리3개(국제 3. 31)
* “가덕도 개발 차질 없이 추진토록”, 김대통령 부산시 방문 “지자 선거 부정 타락 반드시 근절” 당부(시보 4. 1)
* 金泳三대통령 연두순시(부산시정 3. 31)

4. 1
* 지방선거 열전현장, 여 문정수 의원 단독질주, 김기재・우병탁씨 등「설」로 끝나, “민자공천=당선” 무혈입성 가능성 커(부산매일 4. 1)
* 부산 SOC확충 최우선 지원, 김영삼 대통령 부산시 순시 후 김기재 시장으로부터 올해 업무를 보고 받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차질 없도록 지시(부산매일 4. 1)
* 김대통령-부산기관장 대담 요지, “부정・타락선거 기필코 근절”, 6월 선거 주민・생활자활실현장 돼야“, ” 취약 산업 구조 개선 주력 경쟁력 제고(부산매일 4. 1)
* 항만적체 해소냐 교량안전 확보냐「컨」과적차 단속 고민, 건교부-수출입 타격 …완화 요청, 부산시-붕괴 우려 허용에 난색(부산 4. 1)
* 시민 71% “하얄리아 녹지로”,「부산땅되찾기위」설문 “미 무상사용 민족 자존심 저해” 92%, “8부두・미문화원 등도 임대료 받아야 마땅”(부산 4. 1)
* 부산「환경 도시」본격화 추진, 9월「아젠다(의제)21」구체적 선언(시보 4. 1)
* 김시장 업무 보고, 부산시 교육청 확장 이전(시보 4. 1)
* 불우이웃 결연 사업 활성화, 올해 2만명 목표 확대 추진(시보 4. 1)
* 시장 동정, 3월 25일-제1회 눌원 효행상 시상식 참여 외 4건(시보 4. 1)
* 광업・제조업 통계 조사 4월 1일부터 한달간, 시는 94년 기준 광공업 통계 조사 실시(시보 4. 1)
* 영세민 전세자금 마련 쉬워진다, 시는「95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 계획」마련, 연리 3% 가구 당 5백만원 이내 저리 융자 계획(시보 4. 1)
* 선거 대비 주민 등록 일제 정리, 4월 한달간 위장 전입 등 대상으로 주민 등록 정리 실시(시보 4. 1)
*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건강 진단, 4월 11일부터 체능 검사 진창 등 8,761명 대상(시보 4. 1)
* 부산시 새 상징 마크 확정, 지방・세계화 시대 맞춰, 새 디자인 부산다움 창출(시보 4. 1)
* 중・장기 종합 교통 대책 확정, 시는 2005년까지 지하철 2~5호선 완공,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대책 등 중・장기 종합 교통 대책의 정착을 기본 목표로 설정(시보 4. 1)
* 선거철 불법 건축물 단속, 시는 지방 선거 분위기에 편성해 불법 건축이 늘어 날 것을 우려 단속 지침 마련(시보 4. 1)
* 유독 물질 사고 대처, 시는 시 산하 전부서와 경찰청・철도청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유독 물질 사고 예방 대책 강화키로(시보 4. 1)
* 어린이 대공원 야간 개장, 시는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이용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키로(시보 4. 1)
* 부산 교통난 국가적 선결과제, 시는 교통 체증 대책 위해 전철망 구축 2005년까지 5개 노선 건설, 광역 도로망 개설키로(시보 4. 1)

4. 3
* 녹색교통 운동 공감대 확산, 본사 공모 교통표어 “질서 앞에 사고 없고 양보 앞에 혼잡 없다”, 3만여 시민 출근길 동참 캠페인 공무원 자가용 안타기・카풀 활기(부산 4. 3)
* “낙동강 보존” 범시민운동, 부산 시민・한경단체 위천공단 재추진 반발, 대구 항의 방문 백지화 요구, 마・창과 연대 토론회 등 개최(부산 4. 3)
* 분구구청 신청사 부지확보 난항, 예정지 “풍치・보안” 묶여, 임시청사 비좁고 편의시설 빈약 불편(부산 4. 3)

4. 4
* 「해상폭력」에 단속 공무원 수난, 연근해 불법 어선 흉기・화염병 위협 …납치・폭력 빈발 심지어 살해까지 잇따라(국제 4. 4)
* 부산시 재정 “파탄 지경”, 사상 최악 돈가뭄에 추경조차 편성 못해, 재원 적자만 2백억 넘어 지하철 등 현안 사업 무더기 차질(부산매일 4. 4)
* 국고 대폭 지원 없인 학교 지을 돈 없다, 부산 19개교 신설 차질, 예산 2천억에 5백억원 확보, 신흥주택지「더부살이」비상(부산 4. 4)
* 부산・경남 세계적 차산업 단지로, 마산・창원대학에 분소 설치, 지역별 기술개발 체제 구축, 부품 산업 특화 육성 부대에 테크노센터 설립(부산 4. 4)

* 우암선 복선화 반발, 컨테이너 차량 등 대형화물차통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구 우암선 구간에 인접한 주민들이 우암선 철로가 복선화됨에 따라 교통체증 가중된다며 대책 마련 요구(국제 4. 4)

4. 5
* 국회 선구획정위 남·사하·금정 등 신설 부산 5개 선거구 간선로·하천 등 경계 분할, 인구 30만명이상 대도시 선거구 분할 방침에 따라 신설될 부산지역 5개 선거구 구획조정 윤곽 드러나(부산매일 4. 5)
* 부산시 보관 정부 재고 쌀 40%가 못 먹는 쌀, 93년 이전 오래된 쌀 6천여t 달해, 처분결정권도 없어 쌓아 놓기만, '예산 이중 낭비' 지적(부산 4. 5)
* 기반 시설 제자리 「도심오지」 불만, 학군·교통 등 상대적 소외감, 예산 바닥 새살림 파산지경, "관광 휴양 도시" 계획 실천 지원·배려 절실(부산 4. 5)
* 장기 밀매 사기단 설친다, 부산·경남북 무대 소개비 명목 금품 갈취, 메모식 광고로 비밀 접촉, 온라인 선불 받은 뒤 잠적, 종합병원 주변 피해자 속출(부산 4. 5)
* 부산 녹지 조성 그림의 떡, 도시녹지공간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크게 부족한데도 불구 도시 공원 조성 예산이 해마다 삭감 돼(부산 4. 5)
* 금정산 등산로 말끔히 봄단장, 철쭉길 활성 공사 마무리, 자연석 쌓고 배수로 설치·성토작업도 마무리 단계(부산매일 4. 5)
* 자가용 10부제 "호응", 동래구 관내 주민들의 10부제 참여·카풀 운동 갈수록 증가, 스티커 부착 98%(부산매일 4. 5)
* 제50회 식목일 행사, 시 대연동산 일원 해송 4천그루 심어(시보 4. 11)
* 구·군·동 사무소 버스 승차권 판매, 지난 일부터 시민 불편 해소 위해 구·군·동 사무소에서 버스 승차권 판매키로(시보 4. 11)

4. 6
* 부산대서 지방산업 기술 진흥회의 개최, 김기재 시장 제2회 지방 산업 기술진흥회에 참석(시보 4. 11)
* 장기 밀매 사기 실태, 반인륜적 「생명갈취」에 충격, 부산·경남북 6개 조직 활개, 쉽게 목돈 번다, 젊은층 유혹, 일부 병원에선 거래 묵인 …처벌 규정 강화 절실(부산 4. 6)
* 6·27선거 기류, 공천 후유증 막을 묘책 찾기 부심, 금정·중구 등 3~4곳은 경선 불가피, 자체 조정 선호하나 낙천반발 경계(부산 4. 6)
* 고속철 부산 차량기지 난항, 국유지·철로이용 가능 "최적", "형식적 안보 논리 비현실적", 국방부-당감동 육군 보급창 이전 반대(국제 4. 6)
* 6·27 선거 기류, 지방선거 82일 카운트다운, 「당공천」 1차 관문 통과 "접전", 진구-주자 6명 각축 …하 전 구청장 우세(국제 4. 6)

4. 7
* 교사 일·숙직 근무 폐지, 「국교 교과 전담」 보결 수업도, 시 교육청·교조 전격 합의(부산매일 4. 7)
* 통상산업부, 부산·경남에 「차」 테크노 센터,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이해 지역 산업계와 대학 등이 공동 추진 중인 자동차 기술 테크노센터 설립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1백85억원 지원키로(부산매일 4. 7)
* 선거 밑 물가 폭등세, 교통 등 공공료 인상이 도화선, 수강·주차료 등 30~50% 껑충, 숙박·이용업소도 무더기로 인상(부산매일 4. 7)

4. 8
* 수영로 「교통대란」 비상, 지하철 2호선 2단계구간(서면~송정) 본격 착공을 앞두고 우회도로 확보 계획 차질로 남구 일대 교통대란 우려(부산 4. 8)
* 부산시, 을숙도 자연생태 공원으로, 쓰레기 매립 끝나면 복원, 7만평에 녹지·학습시설 조성, 산책로 등 시민 휴식공간 마련(부산 4. 8)
* 부산 SOC 민자 유치 사업 9건·20조원 규모, 예상 비용 업체마다 큰 차이, 대구-부산 고속로 코오롱·동부 건설 참여, 가덕도 신항만 조성 LG·삼성·대우 경합(부산 4. 8)
* 금정산 임도 생태계 망쳤다, 길 양측 50~100m 훼손 확인, 북문 서쪽 희귀 습지 건조 상태·동물군 이동 중지 멸종 가능성 높아(국제 4. 8)
* 6·27 선거 기류 지방 선거 80일 카운트다운, 행정 관록에 「참신」 승부 "불꽃", 사하-토박이 5명 각축·민자 공천이 관건, 북구-4주자 부상 …전 구청장 2파전 관심(국제 4. 8)
* 공공 도서관 시설·서비스 향상, 도서관 수·장서 수 예산 등 고르게 증가, 이용자 수 급증 …독서 프로그램도 활발(국제 4. 8)
* 해운대구청, 해운대 해수욕장 유료화 재추진, 오는 6월 실시될 4대 지방선거 이후 자치구재원확대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어 시민들의 거센 반발 예상(국제 4. 8)

* 기술력 대폭 확충, 5년간 1조 투입, 인력·정보 등 6개 분야, 차 부품업 부산·경남 특화 산업 육성(부산 4. 8)
* 양산군 부산편입 땅 매각 시도, 인계 합의 잡종지 사전 통보 없이 "슬쩍", 사용주민에 계약 체결 종용, 부산시 "극단 지역이기" 반발(국제 4. 8)

4. 9
* 민주-부산지방선거 전략 확정, 시의회에 주력 …반민자 바람몰이, 시의회-금선거구 출전 기반구축(부산매일 4. 9)
* 지방선거 열전 현장, 민자 공천 내분 야 실낱희망, 부산진구-여권 인사들 조기낙점 강력 반발, 동구-시의원·행정통 자존심 걸린 일전(부산매일 4. 9)

4. 10
* 지하철 3호선 5.3㎞ 연장 미남~반송 경전철 건설, 교통개발위 기본 계획 중간보고, 대저~미남 2002년 개통, 환승시스템 5개 지역 설치(부산 4. 10)
* 백양산 터널 등 40~50개 SOC 사업 민자유치 촉진법 적용키로, 세제·금융 등 지원혜택, 부산·경남 8건 …내달 초 대상 확정(부산 4. 10)
* 3월 한달 차량 증가 사상최고, 사회전반적 경기호조와 새 차종 출시 등으로 지난 3월 부산지역 차량 증가 대수가 사상 최대치 기록(부산 4. 10)
* 6·27 선거기류, 지방선거 78일 카운트다운,「토박이」정서론으로 승부수, 해운대-후보 4~5명 선 무소속도 불사, 연제-신설구 참신한 인물 가능성 높아(국제 4. 10)
* 백양 터널 등 정부지원, 민자 유치 경과 조치 적용 세·금융 혜택, 40~50건 SOC 시설대상 추진(국제 4. 10)

4. 11
* 부산 지하철 노선 변경 추진, 2호선-10.3㎞ 연장 북정까지, 3호선 5.3㎞ 대저까지(부산매일 4. 11)
* 히로뽕 환각 흉기 들고 인질극, 30대 유흥업소 업주 히로뽕 환각상태에 빠져 자택에서 부인·여종업원 등 3명을 인질로 잡고 흉기 들고 휘두르며 7시간 동안 난동(부산매일 4. 11)
* 외항선 부산항 등 돌린다, 올 들어 극심한 체선 체화 현상을 빚고 있는 부산항이 지난 3월말 사상 최악의 체선을 기록하면서 마침내 정기 외항선의 부산항 기항 중단 사(국제 4. 11)
* 부산지하철 "시·국고 지원 바닥권", 부채 비율 전국 최고, 교통개발위 공채 년이 인하·상환 연장을(부산 4. 11)
* 교통위 지하철 3호선 중간보고, 경제성 고려 일부구간 경전철로, 환승체계 구축 시민 이용 유리, 수영·연산 R 역세권 개발 주목(부산 4. 11)
* 6·27선거 기류 지방선거 77일 카운트다운, 공천 향방 불투명 …물밑 경쟁, 북구-공식 출마자 없이 3명 이름 거론, 사하-공무원·지방의원·기업인 등 각축(국제 4. 11)
* "위락시설 조성" 빌미 공유수면 8만평 매립 추진, 청사포 해안 망친다, 산원산업(주)-어촌계 동의 얻어 곧 허가 신청, 해운대 등 수질 오염 "불 보듯"(부산매일 4. 11)
* 연제구, "행정 관리 개선팀 발족", "대민 서비스 질 높이려", 15명 선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키로(부산매일 4. 11)
* "만성 체선 더 이상 못 참겠다", 부산항, 외국 선사 기항 중단, 일본 등 5국 14일부터 노선 변경,「국제적 항구」위신 먹칠(부산매일 4. 11)
* 백양산 터널 등 SOC공사 40~%)건 민자 유치사업 인정 될 듯, 재경부-도로·항만 등 60건 신청 접수(부산매일 4. 11)
* 건강 공단, 부산 성인건강 적신호, 30%가 요주의 판정, 당뇨·비만·혈압 등 각종 질병 "초읽기", 40대 이상 여 35.5% 최고(부산매일 4. 11)
* 교통개발위, 지하철 3호선 미남~반송 경전철로, 5.3㎞늘여 29.5㎞ 건설, 사업비 1조4천억 소요, 본선 2002년 개통·지선은 2005년에(부산경제 4. 11)
* 지자제 교두보 마련 총력전, 국내 재벌기업들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에서 자사 출신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구체적 계획 수립 또는 당선 유력자와 인맥 형성에 나서는 것으로 조사(국제 4. 11)
* "기항 못하겠다" 국제 망신, 외국적 선사 K라인 등 4국 6사 정식 통보, 자성대 등 체선율 최고치 갱신, 당국 무대책 뒷짐 후유증 우려(국제 4. 11)
* 부산항 물류 비상, 물량은「기하」급증 시설은 제자리, 부두 안팎「컨」공간 '하늘의 별따기', 체선·체화 최악 …경쟁력 상실 우려(국제 4. 11)
* 시 가용재원 70% 도로에 투자, 승용차 함께 타기 등으로 도로율 최대로, 도심순환도로 1지하철 건설 등 차질 없이 추진(시보 4. 11)
* 공직 기강 확립 등 추진, 시 확대 간부회의, 당면 과제 철저 당부(시보 4. 11)

* 결핵 실태 조사 실시, 시 5월 25일까지 10개구 6천8백명 표본 조사(시보 4. 11)
* 자동차 매연 무료 점검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자동차 배출 가스 무료 점검 실시키로(시보 4. 11)
* 무료 급식 지원 사업 확대 실시, 시 12개 종합 복지회관에 1억8천만원 지원, 매일 8백여명 저소득 주민에게 혜택 돌아가(시보 4. 11)
* 식품 진흥 기금 융자 계획, 시 영업 시설 개선 위해 12억1천만원 지원(시보 4. 11)
* 「녹색 교통 운동의 난」 공무원·새마을 단체 등 1만명 참가(시보 4. 11)
* 저소득층 봉사활동 전개, 4월 보건의 달 치료 등 건의(시보 4. 11)
* 개발 사업 때 건축자금 이사비 융자키로, 연제 8% 5년 내 일시상환 조건(시보 4. 11)
* 선거 관련 불법 벽보 등 단속, 6월 27일까지 특별 정비, 현수막·노상·입간판도(시보 4. 11)
* 시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보급, 「3대 시민 운동」 실천 방법 담아(시보 4. 11)
* 「광복 50주년」 경축장의 향연 펼쳐, 부산 시향은 음악으로 광복 참뜻 새겨 청소년 교향 안단·2회 경연·참신함 선사(시보 4. 11)
* 「대동놀이 한 마당」 꾸며, 4월~7월 시·구 다양한 행사 마련(시보 4. 11)
* 녹산 국가 공단 3차 분양 실시, 4월 21일부터 평당 60만원 선(시보 4. 11)
* 수출 촉진 자금 30억원 지원, 부산 지역 중소제조·수출업체에 3억원 지원(시보 4. 11)
* 공명선거 위해 광고 제한, 신문·방송광고는 시·도지사 선거에만, 선거 운동기간 중 모금 위한 광고 금지(시보 4. 11)
* 상반기 취로 사업비 보조, 생활 보호 대상자 등 지원, 95년 시비 등 12억원 배정(시보 4. 11)
* 출마 예상자 31명, 시 공무원 중 4대 선거 위해 사퇴(시보 4. 11)
* 환경 보전 우선으로 정비, 올해 소하천 사업 313개소 689억 투입(시보 4. 11)
* 공유토지 개별 분할된다, 4월 1일 특례법 시행으로 소유권 등기(시보 4. 11)
* 시보 가 주간으로 발행됩니다, 4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주간 발행(시보 4. 11)
* 시민 기초 질서 등 정착 추진, 올해 상반기 생활 개선 중점 과제 선정(시보 4. 11)
* 지형적 조건 감안 터널 건설 시급, 항만 배후도로·해안 순환도로 건설, 대도시 생활권 추세, 광역 교통망 추진 바람직(시보 4. 11)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199호)(부산교육 4. 11)

4. 12
* 구포시장 대마초 밀매 성행, 매월 3일과 8일 등 6회에 들어서는 구포 5일장에서 일부 약초노점상이 대마초 공급책이나 흡연자들을 상대로 대마초 비밀거래(부산 4. 12)
* 부산권 통행료 신설, 정부와 민자당은 부산광역권 교통대책으로 「부산권 교통세」 신설키로하는 등 34가지 방안 검토(부산매일 4. 12)
* 부산 교통대책 당정 간담회, "항만 개발권 지자체에 넘겨라", 원목부두 가덕도 이전 바람직, 주차 빌딩 세제 해택 발등의 불(부산 4. 12)
* 부산 종합 금융단지 표류, 도개공·5개 금융기관 5백억 추가부담 놓고 마찰, 부지매입 6개월째 중단 …민자 유치도 불투명(부산 4. 12)
* 3개월짜리 시장·군수 령이 안 선다, 과도기 지방행정 "영점", 눈치보기·편가르기 "횡행", 현안 뒷전 … 잇단 민원 유발(국제 4. 12)
* 시민도서관 고서 전시회 개최, 진귀 고문서 2백여권 선보여, 경국대전·구운몽 등 눈길, 한말 한일 관계 서적 포함(국제 4. 12)
* 6·27 선거 기류 지방선거 76일 카운트다운, 부산 정치 1번지 …의외로 조용, 중구-10명 물망 3~4명선 후보 압축, 영도-박대석·이종억씨 공천싸움 유력(국제 4. 12)
* 채용 순서 조작 거액 뒷거래, 공무원 혜택 받아 인기 직종, 상차근무 3백50만원 매매, 감독관 권한 막강 … 공무원 결탁의혹도 제기(부산 4. 12)
* 2002부산아시안게임 부산유치 OCA조사단 방문(부산시정 4. 12)

4. 13
* OCA 조사단 현지 점검,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여건 심사 위해, 경기장 시설 등 14개 항목 심사(부산 4. 13)
* 부산 관광 세계화 기반조성 원년 선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맞아 부산 관광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작업 활발(국제 4. 13)
* 컨테이너 처리대책 간담회, 시-배제한 항만 개발 "비효율", 제2기지 투자 경쟁력 저해, 가덕도 주민 반대 밀려 계획 추진조차 못해(부산매일 4. 13)

* 2002 아주게임 경기장・지원시설 200년까지 완공, 선수촌・프레스센터 등 건립지 선정해 OCA 조사단에 보고(부산 4. 13)
* 부산항 체선 할증료 부과, 국내항만으로는 최초로 부산항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에 대해 체선할증료 부과, 국적선사도 조만간 운임 인상(부산 4. 13)
* GT운동 다시 고삐 죄다, 행정력 이완 틈타 10부제 참여 급감, 카풀제 등 조기 정착 유도(부산매일 4. 13)
* 하구둑 축조 후 상수원 날로 오염, 3급수에 육박 …식수능력 상실 위기, 부영양화 등 부작용 생태계 파괴 극심(국제 4. 13)
* 백색공포 재확산 "비상", 히로뽕 사고 3년새 급증 … 올 57건, 외지서 유입 불구「루트」못 캐, 점조직화 밀매로 단속애로(부산매일 4. 13)
* 부산시, 삼성 자동차 52만평 우선 개발, 신평 공단 26일 착공, 예정보다 두 달 앞당겨, 3단계 추진 …사유지 타결 안 되면 포기(부산 4. 13)
* 건설교통부, 황강물 98년부터 공급, 부산・경남 광역 상수도 사업 올해 착공키로(국제 4. 13)
* 95 부산지방 기능 경기대회(부산교육 4. 13)
* 95 부산 민속 예술 축전(부산교육 4. 13)

4. 14
* 부산항 묘박지도 "초만원", 30~50척 초과 …대부분 입항 대기 중(국제 4. 14)
* 신발업 조업 단축 속출, 수출이 증가하는 등 회생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주원료인 합성 천연고무의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품귀현상을 보여 조업에 큰 차질(부산경제 4. 14)
* 부산의 밤 음주 운전 천국,「교통사고와 전쟁」선포 "쇠귀에 경 읽기", 부산 올 들어 2백42건 사고, 2차행 심야질주 "단속 전무"(국제 4. 14)
* 부산 환경가족「나무 이름표 달기」, 환경・청소년 단체 천여명 참여, 오전 10시부터 금정산 일대서 개최(국제 4. 14)
* 해운대구「쓰레기 재활용센터」가동, EM 고속발효기・캔 압축기 등 갖춰, 먼 거리엔 이동식 차 운행(부산매일 4. 14)
* 국세 일부 지방세 전환해야, 부산의 열악한 재정난 해소 위해서는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체단체의 세입으로 조정 주장 제기(부산매일 4. 14)
* 원칙 없는 도시 계획・분별없는 건축허가 금정산 개발 굉음에 "신음", 식물원 일대 초고층 아파트 우뚝, 산림 훼손 가속화(국제 4. 14)
* 부산경찰 공권력 횡포 "갈데까지", "무고한 시민 인건 유린 누가 책임지나", 북부서 고문・조작수사 잇따라도 처벌 전무(부산매일 4. 14)
* 부산항 체선 정부차원 해결, 부처별 공동대처 8부두 사용 미군과 협의,「컨」컴바인 수송 전 도로 허용, 철도 수송 늘려 내륙운송 활성화(부산 4. 14)
* 부산시, 아시안게임계획 발표, 경기장 13개 신설, 사직 주경기장 올 하반기 착공(부산경제 4. 14)

4. 15
* 부산시, 마안산에 부산광복 회관, 50주년사업 확정 98년까지 건립 예정, 독립운동가 동상도 계획(국제 4. 15)
* 강서구, 농업경제특품 추진, 세 감면 등 통해 GB인하 낙후 탈피 모색키로(부산매일 4. 15)
* 강서에 종합 유통 단지 건립, 농수산물 및 공산품 취급 대규모 종합유통단지 들어서, 가락 IC 인근 99년 개장 …농수축산물 등 도・소매(부산 4. 15)

4. 17
* 부산시 관광정책 실종, 관련예산 전국 최하위, 기구・인력 태부족 …자원 개발 "말뿐"(부산매일 4. 17)
* 북구, 아파트 전용 행정 첫 도입, 단지 관리실에 이동 중계실 설치 운영, 팩시밀리・우체통 통해 각 종 민원 해결키로(국제 4. 17)
* 부산항 체선 "진정 기미", 항만당국 비상조치 …화물 하역 순조,「컨」전용부두 작업 시간 연장, 20피트 2개 연결 수송 허용(국제 4. 17)

4. 18
* 부두 밖「컨」장치장 15%이상 늘린다, 빈「컨」보관소 이용 허용, 20일부터 무료 장치 기간 단축키로(부산매일 4. 18)
* 부산항 피더항 부두 10월 착공, 전용 5개 선석 규모 건설, 1,688억 투입해 200년 완공 목표, 체선・체화 조기 해소(부산 4. 18)
* 근대 사법사상 첫 판결문 발굴, 1895년 동학 농민 운동 연루 2명 선고 내용, "심문 결과 증거 정확치 않아 무죄 방면"(부산 4. 18)
* 부산시, 동북아 환경협력 회의 시민회관서 개최, 부산의 환경도시선언이 천명될「제4회 동북아 환경 협력 회의」행사 일정 확정(부산 4. 18)

* 「기장 5분대기대」 발족, 범죄·화재 등 각종 안전 사고에 관한 긴급사태에 기민 대응 위해 발족(국제 4. 18)
* 부산항에 대형 피더항 부두, 연간 「컨」 35만개 처리, 오는 10월 착공해 200년 완공 예정(국제 4. 18)
* 부산세관, 화물 적체 해소 추진, 부산시내 공 컨테이너 일시 장치장으로 화물을 채운 적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활용키로(국제 4. 18)
* 「전자통신랜드」 착공, 사하구 괘법에 대규모 전자상가인 「부산 전자 통신랜드」 건립 공사 18일 착공, 자하 2층 지상 20층 규모 97년 완공예정(국제 4. 18)
* 부산시 재정력 전국 "꼴지", 담세액 5위 불구 수혜액·국고 보존금은 하위, 실질적 지방 재정력 취약(국제 4. 18)
* 「텔레포트」 수비에 건설, 비즈니스파크 민자 유치, 컨벤션·미디어 3섹터로, 2001년까지 2조50억원 투입(국제 4. 18)
* 21세기 미래형 신도심 구축, 부산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인텔리전트베이 텔레포트」 계획 윤곽, 투자규모·내용면에서 부산지역발전 계획 중 사상 유례없는 큰 규모(국제 4. 18)
* 기장 병리천 오염 무방비, 식수댐 예정지에 양어장 등 난립, 오폐수 그대로 흘러들어 문제 심각(부산매일 4. 18)
* 묻혀버린 조상 얼에 '숙연'·'탄성', 석불사 암벽 29개의 불상 조각에 "잔잔한 감동", 부산민학회 회원들 금정산 답사(부산매일 4. 18)
* 수비~53사단~신시가외곽~송정 동해남부선 「해운대노선」 확정, 기존 동해 남부선 이설구간 관광객 유치 위한 경전철 운행 노선으로(부산매일 4. 18)
* 도개공 아파트 부실시공, 부산시 은폐·묵인 의혹, 검찰도 소극수사 …3월 감사 때 적발하고도 쉬쉬(부산 4. 18)
* 부산항 인근 군용시설 항만시설로 대폭 전환, 진해 미군 부두 「컨」 전용, 수비 활주로 「야드」 설치(부산 4. 18)

4. 19
* 수영로터리·연산로터리·고속터미널 등 대규모 역세권 개발, 부산시내 3개 지역에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대규모 역세권개발사업 추진(부산매일 4. 19)
* 교육환경권 첫 인정, 교육환경도 넓은 의미의 주거환경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한 침해로부터 법적인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법원 첫 판결(부산 4. 19)
* 「부산 무용제」 8개 팀 경연, 축제한마당 일정·참가단체 확정, 한국 춤·현대 무용·발레 망라 7월 3~6일 문화회관 대극장(부산 4. 19)
* 해운해양항만청, 삼성 가덕도 개발 본격화, 가덕도신항만개발기본계획 용역업체 입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삼성건설·한아엔지니어링·동일기술공사 등 3개사가 2억2천만원을 써내 최종 낙찰자로 선정(부산 4. 19)
* 부산 등 성장관리지역 공장 설립 허용, 기존면적의 25%내 가능, 기준초과 부지도 일부 업무용 인정(부산경제 4. 19)
* 가덕 신항 용역 착수, 가덕도 신항만 건설이 용역업체 선정을 끝내고 기본계획 용역에 본격 착수(국제 4. 19)
* 부산소년체육대회 개최(부산교육 4. 19)

4. 20
* 도개공 부실 시공 정치권으로 비화, 민자당 의원 지구당 내 진상조사위원회 긴급 구성 현장실태조사 실시, 이주·책임자 문책 촉구, 국정 조사권 발동 요청(부산 4. 20)
* 해운대 해안도로에 모노레일 탈의장 지하 대형 주차장 건설, 송림에 음악당 건립, 오륙도 순회 초대형 유람선 운영(부산 4. 20)
* 기장 군민 행정 불신 "극에", 민원 처리 미온적·행정 지원 쥐꼬리·발전 구상 형식적 등 행정 불신 날로 고조, 집단행동 조짐도 보여(부산매일 4. 20)
* 서민 울리는 도개공 「부실」 대명사, 타공·감리·감독 "총체적 날림", 하자보수 신청 1만여건 …바람불 땐 현기증, 안일한 사업 일관 5개단지 33건이나 신고(부산 4. 20)
* 부산시, 인사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7명, 세무 7급 1명, 지적 8급 1명(시보 4. 21)

4. 21
* 「민원 해소 추진위」 운영, 시 민간 합동으로 선거 편승 「집단이기」에 대응(시보 4. 21)
* 동부권 농산물 도매 시장, 석대·반여동에 내년 5월 착공(시보 4. 21)
* 주요준비사항, 2002년 아시안 게임 대비, 백두산서 성화채화·사직동 8만 수용 경기장, 기간 9월 29일~10월 14일·동래야류 등 문화 행사(시보 4. 21)
* 시장 동정, 시장 「해병대 창설 제46주년 기념 및 환경 감시원 발대식」 참석·15일 국제 로타리 3660지구 제26차 지구대회 참석, 부시장-LNG 운반선 명명식 참석(시보 4. 21)
* 물가 관리 체계 개선, 자치구간 상호 교체 점검 실시(시보 4. 21)

* 불법 토지 형질 변경 특별 단속, 7월말까지 선거 편승 불법 심리사전 예방(시보 4. 21)
* 부산 아시아드 준비 「합격점」, OCA조사단 종합 운동장 등 점검 긍정 평가, 유치 계획 보고 주경기장 올 하반기 착공(시보 4. 21)
* 농수산물 물류 센터 건립 추진, 강서 지역에 99년 완공 예정(시보 4. 21)
* 부산 시의회 제41회 임시회, 시 국제 통상 활동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24일부터 5일간 열기로 결정(시보 4. 21)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 건물·산업체 대상 15억원까지(시보 4. 21)
* 95신발 전시회 참가 업체 모집, 5월 1일부터 부산 무역관서 접수(시보 4. 21)
* 기존 교통 시설 효율적 활용, T.SM사업·버스 전용차선 확대 실시, 교통변화 탄력 대처 전자 감응식 신호기 설치(시보 4. 21)
* 부산 연극제 화려한 "개막", 「극단 현장」 등 5개 극단 경연 대상은 전국 연극제에 참가(시보 4. 21)
* 행정 누수 많아 감찰반 운영키로, 시는 행정 누수 방지 위해 4월 17일부터 기동 감찰반 운영(시보 4. 21)
* 카풀 추진 상황 보고회, 종합평가·발전 방향 모색(시보 4. 21)
* 자동화 시스템 등 정상 가동, 시 영락 공원 이용 불편 완전 해소(시보 4. 21)
* 올해 개별 지가 열람 의견 제출, 5월 4일까지 재심의도 받아(시보 4. 21)
* 을숙도를 생태 공원으로 개발, 96년 착공 쓰레기 매립장 17만평 철새 도래지 복원(시보 4. 21)
* 사무 자동화·청사 환경 개선 시도, 43개 동사무소 행정 관리 시범 기관 육성(시보 4. 21)
* 「광복길 놀이, 아리랑 축제」 확정, 시 광복 50주년 「통일로·미래로」 주제(시보 4. 21)
* 낙동강 고수부지 383만평 도심 공원으로 집중 개발, 삼락지구-스포츠 행사 유치 전원 공간, 을숙도 지구-철새탐방·문화시설로 조성, 대저지구-단체중심 수상 레포츠 개발(부산 4. 21)
* "금정산 사랑" 선언문 채택, 내일은 「95 지구의 날」 부산환경 단체 행사 다채, 시민 1천2백여명 참가 나무 이름표 달기, 북문서 풍물패·극단 축하 공연도 열려(부산 4. 21)
* 도개공 입주민 불안하다, "우리 아파트도 불안" 안전진단 요구 봇물, 건물 비틀림 현상 주장, 주민들 집단 행동 돌입(부산 4. 21)
* 자동차 부품산업 도시화 연계 기장에 전용공단을, 부지·인력확보 유리, 시설 해외유치 일 업체와 협력 가능(부산 4. 21)
* 사하·사상 공동주택 쓰레기 가연성 분리 수거, 수집함 따로 운영해야, 다대 소각장 운영대비 재활용은 종전대로(부산 4. 21)
* 검찰, 도개공 아파트 부실 확인, 5~6명 선 구속 방침, 압수수색 실시·「뇌물」 수사, 김사장·우대표 은폐 땐 사법 처리키로(부산 4. 21)
* 수영에 「컨」 전용 가교, 부산항 컨테이너 물량의 원활한 수송 위해 수영교 옆에 컨테이너 전용 가교 건설(국제 4. 21)
* 시·구 관광특구 개발계획안 확정, 해운대 모습 달라진다, 민자 유치·구 재정 활용, 송림 공원 야외 음악당, 수비 해변 모노레일, 탈의장 밑 자하주차장 건설(국제 4. 21)
* 녹산 공단 조성 "이대로는 안 돼", 「발파 피해」 주민 잇단 소송, 용원동 119명 집단 보상 제기, 법원 수용 땐 공사 중단 불가피(국제 4. 21)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사무실외의 사내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전면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울산지원 95카합320)(법원사 4. 21)

4. 23
* 종량제 봉투 "특혜 잡음", 부산 일선 구청 상당수 수거용 규격봉투 구매 계약을 단가계약 등 명목으로 특정 업체와 계속 맺어 결탁 또는 특혜 의혹(부산매일 4. 23)
* 도개공 짓는 아파트도 부실, 다대 4·동삼 2지구 5천세대 벌써 "하자", 21개 동 모두 내·외벽에 금 쩍쩍, 누수 극심 …새로 바른 벽지 흥건(부산매일 4. 23)

4. 24
* 시·도개공·남도 개발 「부실」 떠넘기기, 보상·이주 대책 감감, 주민 집단 반발 움직임(부산 4. 24)
* 기장 일대 불법 사설 묘지 난립, 기장군 내 그린벨트에 사설 묘지 무분별하게 불법 조성 …단속 실적 전무(부산매일 4. 24)
* 서민 울린 부실에 단호한 메스, 「기우뚱 아파트」 사법 처리안팎, 시공사 대표 처벌 이례적, 지하주차장 거리 무시가 주인 결론(부산 4. 25)
* 신호 공단 실시 계획 확정, 총 94만4천평 …3천여평 확대, 시장 승인 완료 26일 착공 예정(부산 4. 25)
* 부산컨테이너 부두 운영공사, 자성대 부두 하역장비 증설, 하역장비 늘려 부산항 체선체화 조기 예방키로(부산 4. 25)

* 부산지검, 도개공 김전사장 수뢰 수사, 계좌추적 …남도 우대표 등 4명 구속(부산 4. 25)
* 부산 동북아 중심항 집중 개발, 민자유치 통해 이르면 97년부터 동북아 지역 중심항으로 조기 개발 예정, 가덕도 신항만 조기 완공 추진(부산 4. 25)

4. 26
* 삼성 자동차 기공, 신호공단에 연건평 20만3천평 규모, 98년 6만5천대 생산 시작, 연간 15만명 고용 창출 효과 기대(국제 4. 26)
* 부산 생업 구조 고도화 "새 지평", 자동차 경쟁력 제고・수출 견인차 기대, 부품 산업 활성화・침체 지역 경기 숨통(국제 4. 26)
* 부산 자동차 산업 시대 개막, 삼성차 공장 신호공단서 기공, 52만평 규모 97년 초 완공 예정, 98년부터 완성차 생산 시작(부산 4. 26)
* 서부산권 개발 대역사 "신호탄", 2002년까지 4조여원 투자 효과,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활로 기대(부산매일 4. 26)
* 도개공・남도「기공단축」조건계약, 검찰 수사 결과 표준 30개월을 24개월로, 시한 쫓겨 부실 보며 공사강행, "단기"지시 핵심 간부 추적 주력(부산매일 4. 26)
* 삼성 자동차 부산 공장 기공, 4월 26일 신평공단 97년 완공, 98년부터 생산(시보 4. 28)

4. 27
* 부산시, 인도에「컨」진입로 설치, 도시고속도로와 접속되는 컨테이너부두배후 도로의 진입램프를 인근 아파트 인도에 설치, 주민들 수 ㎞ 우회 불편 겪어(국제 4. 27)
* 만6천여 가구 전화 불통, 상급자에 불만 품은 정신병력 직원 전화국 방화, 회복 일주일 소요로 큰 불편 예상, 야간 무인 분국 사고 무방비(국제 4. 27)
* 부산 발전 민자 사업 "총 20조원 투자", 대우 등 5개 대기업자체 계획 수립참여 표명, 포스코-청학~감만 해저터널 등 건설, LG-동삼 마린토피아・기장등 개발, 삼성-가덕신항만・자동차 산업 주력(부산매일 4. 27)
* 부산자동차 산업대동, 가덕 2공장 유치 못하면 효과 반감, 10조원 투입 풀라인업체제 구축, 2005년 백50만대 생산 계획(부산 4. 27)
* 대기업 부산 진출 러시, 20조 대형 프로젝트 추진, 침체 경제 활성화에 물꼬, 한진해운 4년 내 본사 이전, 대우-가덕도 신항만 등 참여, LG-수영만 텔리포트 건설(부산 4. 27)

4. 28
* 지방 선거 열전 현장<23>, 분구 첫 일꾼 보수 성향 민자 독무대, 동래-현역 뿌리 튼튼 …인물 교체 난망(부산매일 4. 28)
* 부산시, 경영 수익 사업 본격 추진, 16개 구・군 도시・농촌・해안 분류, 민관 합동 공기업 설립(부산 4. 28)
* 부산 업체 이손 크게 부족, 근로자들 선거 인력으로 빠져나갔으나 대체 인력 충원 안 돼 조업차질 심각(부산매일 4. 28)
* 민자 부산「기초」후보 가시화, 28일부터 각 지구당별 공모 실시, 사상・수영구 5명씩 …"각축 예상"(부산매일 4. 28)
* 시정 동정, 시장 대한 주부 클럽 부산시지회장 취임 행사 참석 외 2건, 서종수씨 도개공 신임 사장으로 취임(시보 4. 28)
* 시내버스 점차 고급화, 불합리한 노선 조정 환승 체계 구축, 주거권 생활권 역순환・심야 좌석 버스 운행 검토, 지폐・동전・승차권 판매소 대폭 늘려(시보 4. 28)
* 매주 수요일「상수도 서비스의 날」각 가정 직접 방문해 급수 불편 해소, 첫째・셋째 수요일「누수 탐지의 날」, 둘째・넷째 수요일「순회 방문 서비스」(시보 4. 28)
* 녹색 교통 운동, 각급 단체 참여(시보 4. 28)
* 시전 선거 운동 감지・단속 강화, 시 입후보 예정자 각종 행사 등에 금품 제공 등 단속(시보 4. 28)
*「녹색 교통 부산 시민 카드」발행, 동남은행 수익금 일부 부산 교통 환경 개선 사용, 유로 도로 논스톱 통과로 체증해소, 주차장・지하철 등 교통 요금 자동 결재(시보 4. 28)
* 6월 시행 9급 세무직 등 356명 뽑아, 5월 1일부터 3일까지 시청 원서 접수, 제3회는 8월 9급 수산직 등 추가 공모(시보 4. 28)
*「아젠다21」수립 연구 발표회, 시 9월 동북아 환경회의 대비 환경 친화 조성(시보 4. 28)
* 쓰레기 종량제 정착 단계, 1일 매립지 반입량 30% 격감, 재활용 23% 증가(시보 4. 28)
* "청소년을 밝고 건강하게" 청소년의 달 5월 다채로운 기념행사 마련, 수련 활동 중심으로 운영하여 연극・자연 학습 등 부문별 개최, 소년 가장 등에 격려금도(시보 4. 28)
* 중소기술・경영지도 희망 업체 신청 받아, 시는 중소 업체 가운데 기술 지도를 받도록 했으며 4월 24일~5월 6일까지 신청(시보 4. 28)

* 제25회 공예품 경진 대회 개최, 오는 7월 1~2일까지 독창성・향토성 담은 목공예 전 부문 개최(시보 4. 28)
* 부산시의회 제41회 임시회 열어, 도개공 아파트 부실 시공여부 조사 및 현장 확인 활동(시보 4. 28)
* 하수도료 상습 체납 강력 대처, 체납금 징수 독려반 편성 운영, 부산시는 강력한 징수 대책 마련하여 체납금 일소에 만전 기하기로(시보 4. 28)
* 도매물품 모두 상장 엄궁동 농산물 시장, 시는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생강・건 마늘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상장 경매 실시키로(시보 4. 28)
* 「민자유치 심의 외」 곧 발족, 해저 터널 건설 등 활발해질 듯(시보 4. 28)
* 농・수산업 지원금 백73% 늘려, 시 내년도 국제 경쟁력 강화 위해 백73% 늘어난 1천2백68억원 지원(시보 4. 28)
* 중소구조조정 자금 2백28억원 지원, 부산시는 1백3개의 중소기업 업체에 2백25억원 지원(시보 4. 28)
* 시의회 청원・진정 줄어들어 건설・도시 주책 문제가 최다, 시의회에 대한 청원・진정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서류 심사에 치중해 민원 해결에 소홀한 것으로 조사(시보 4. 28)
* 기초의원정수 320명 현재보다 17명 늘어, 시 기초 의원 선거구를 2백39개로 의원 수는 3백20명으로 늘리기로(시보 4. 28)
* 물가 상승 압력 대비 안정 대책 마련, 부산시는 물가 안정 대책 회의 열고 대책 마련(시보 4. 28)
* 낙동 고수부지 강변 공원 조성, 을숙도 등 5곳 3백30만평 개발(시보 4. 28)
* 「모두 세계인이 됩시다」 시민 의식・교통 문화・국제 매너 등 세계화 시책 일환으로 무료 배포・실천 과제 2백72개 항목 등 수록(시보 4. 28)
* 「세계화・지방시대」 학술 세미나, 시・국민 홍보위 주관, 시민 의식 확산・고취 위해(시보 4. 28)
* 거제 택지 개발지구 4만여평 주택 용지로, 부산 법조청사가 들어설 연제구 거제 택지 개발 예정 지구 개발 계획 확정(시보 4. 28)
* 부민동 노후 주택 재개발, 주민 주도로 도시 계획안 마련(시보 4. 28)
* 대구 참사 위로금 전달, 김기재 시장이 대구 시청을 직접 방문 위로금 3천만원 전달(시보 5. 6)

4. 29
* 지하철 공사장 등 안전 철저, 시 확대 간부 회의서 대구 가스 폭발 참사 관련 대책과 당면 현안 사항 재점검(시보 5. 6)
* 대형사고 안전 대책 등 논의, 시 유관 기관장 회의서 사고 요인 사전 제거 방안 논의(시보 5. 6)
* 부산 도시가스 위험 상존, 배관과 감지설비 측정장치 등 시설 전반에서 안전대책 미흡, 유출 땐 대형사고 무방비 대책 마련 시급(부산 4. 29)
* 도개공 아파트 옹벽 부실, 부산 영도구 동삼동 도개공아파트 외에도 도개공이 건설한 동삼 1・2지구와 다대 4지구의 옹벽부분에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배수공 적게 시공 균열・누수(부산 4. 29)
* 정부, 지하철 건설 전면 재조정, 미착공 구간 4곳 공사연기, 충분한 설계기간 확보 등 안전대책 수립(부산 4. 29)

4. 30
* 가스관・상하수도・통신망 등 지하 매설도 전산화, 99년까지 5백20억 투입, 건교부 건설공사 보험도 의무 가입(부산매일 4. 30)
* 자전거 도로 대대적 확충, 사하구청 강변대로~신평공단 32㎞ 개설, 도시교통난 완화・시민건강증진 위해(부산매일 4. 30)
* 민자 부산 「기초」 접수 26명으로, 민자당의 기초단체장 후보공모 마감일을 하루 앞둔 29일 부산지역 16개 기초단체장 후보신청자는 신청서류 접수 첫날인 지난 28일 19명 포함 모두 26명으로 조사(부산매일 4. 30)
* 부산시, 공기업 설립 본격화, "지자체 투자재원 대폭 확충", 상반기 중(주)국제무역 전시관 등 가동 공사・주식회사 등 운영(부산매일 4. 30)
* 남부하수처리장 체육시설 개장, 국내 최초 윗부분 복개 1만2천평 활용, 국내 최초 하수처리장 윗부분을 시민 체육공원으로 조성한 남부하수처리장 체육시설개장식이 지난달 30일 열려(부산매일 5. 1)

5. 1
* 정부, 서낙동 개발, 관할권 부산에 …시민공원 부푼 꿈, 철새낙원 명성 되찾는다, 생생한 자연학습장 활용・인공호수도 조성(국제 5. 1)
* 올 들어 부산 해외투자 활발, 지역도 점차 다변화, 전년 동기화 건수 62% 금액 47% 늘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등에 대한 투자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부산 5. 1)
* 부산의 15개 구 1개 군의 지방의원・전 현직관료 대거 출사표, 전문인・당직자 출신은 극소수, 16개지역 중 6곳 치열한 경합(부산 5. 1)
* 서울 가현동에 이어 부산도 「가스폭발」 공포 확산, 안전점검・부품교체요구 잇따라, 관 매설공사 주민 반발도 거세(부산 5. 1)
* 진해 앞바다 85만평 매립, 안골동 5만평 29일 기공 녹산과 연계 공업벨트 조성(부산 5. 1)

* 민자당부산시지부, 부산 기초단체장 3·3대 1, 민자후보 접수 마감 북·부산진구는 1명만 신청, 경남지역은 3대 1(부산 5. 1)
* 직업학교 불 40여명 화상, 명장동 제마전문교 라이터 불장난 휘발유 가스 폭발, 부상자 4개 병원 분산 치료 중(부산 5. 1)
* 부산~울산 동해남부선 복선안 확정, 총 65㎞에 22개 역…부전~일광 우선 착공, 교육대·우동·남문구역은 1·2·3호선과 환승역 조성(부산매일 5. 1)
* 부산시, 동아대회 적극협조 당부, 오늘 부산 당정 협의회 AG국비신청금 전액지원도 건의, 부산출신 국회의원과 관계 부처 장관 초청해 부산지역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 협조 당부(부산매일 5. 1)
* 동해남부선 전철 노선 확정, 부전역~울산 65㎞ 총 22개역 설치, 환승역 교대 우동 남문구 3곳 선정, 교리망양(울산구간) 등 4개역 신설(국제 5. 1)
* 동해남부선4개역 신설, 부전~울산 우동~송정 신시가 외곽이설(부산 5. 1)

5. 2
* 부산 영도구 동삼 2·다대 4지구 옹벽도 "흠", 부산시 점검 미세변위·누수 등 적발,「기우뚱 아파트」부실시공 파문이 확산(부산매일 5. 2)
* 최대 교통 혼잡 지역, 전포~양정 범천~개금 산복도로 연내 완공, 서면R 우회…체증해소, 사업비 83억원 추경예산서 확보(부산 5. 2)
* 부산시, 다대포 지방공단 지정 유보, 환경평가 녹지공간 등 재조정 필요, 추진안서 자진 철회(부산 5. 2)
* 민자당의 부산지역 기초단체장후보 공모, 민자 부산·경남「기초장」접수마감, 현 구·시의원 대거 참여, 진·북구 단독신청 사실상 후보 확정, 부산 금정구 경남 하동군 경쟁 최고(부산매일 5. 2)
* 승마장 승인 특단 조치 촉구, 문정수 시장과 신한국당 김운환 시지부장 등 2002년 아시안게임 관련 부산지역 당정회의 열고 승마경기장 입지 승인 등 정부 측에 특단 조치 취해 줄 것 촉구(부산매일 5. 2)
* 동아대회 본부 호텔 오픈, 롯데 호텔에 본격적인 손님맞이 돌입, 오는 10일 개막되는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내외 초청귀빈들과 임원들이 묵을 본부 호텔이 문 열어(부산매일 5. 2)
* 다대항 배후로 2단계 공사, 교량·평면 혼합방식 건설, 하반기 착공 삼락IC~덕천 IC 1㎞는 교량으로, 도로개설 방식을 놓고 논란 빚었던 다대항 배후도로 2단계 공사가 평면도로 방식과 교량방식을 혼합하는 것으로 확정(국제 5. 2)
* 기아 함대 '우승 축포', 챔프전 5차전 나래 107대 90꺾어, 원년 챔프 영광…MVP엔 강동희, 부산 기아 마침내 프로농구 왕중왕에 올라(국제 5. 2)
* 경찰서 통신계를 전산통신계로 개칭(부산지방청 훈령 제61호)(경찰사 5. 2)

5. 3
* 민자당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무소속 "돌풍", 부산지역 민자공천 탈락자 탈당 줄 이을 듯, 친 여권 인사 사전내정 반발, 민주선거 호재로 활용 전략(국제 5. 3)
* 신평공단, 난제 많아 자칫하면 기형개발, 부산 자동화 산업 시공, 삼성차공장 착공…청사진과 과제, 31%가 사유지로 보상 마찰여전, 분양가 줄다리기도 주요 걸림돌, 선착공 후정산 분쟁소지…토취장 확보·진입로 확장시급(부산 5. 3)
* 부산 기업 해외 직접투자 16% 감소, 1분기 소규모 중업 투자는 대폭 증가, 지역경제 침체 여파로 올 들어 부산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크게 준 반면 소규모 중소기업 투자는 오히려 대폭 늘어나는 등 대조(부산매일 5. 3)
* 부산 도시 가스 이달 기업 공개, 세원 중공업 등 3사도 26일~27일 공모주 청약…발행가 1만9천원(부산매일 5. 3)

공개사 개요　　(단위 : 백만원)

회　　사	매　출　액	당기순이익
부산도시가스	103,192	8,307
세원중공업	63,767	3,831
덕양산업	121,206	4,491
공화	37,406	2,856

* 부산시, 인사 지방 행정 사무관 6명, 시 소방 본부 인사 승진 3명 전보 3명(시보 5. 6)

5. 4
* 정부, 녹산공단 150만~200만평 추가매립, 10월 3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 4백만평 규모로 확장, 한진 조선·삼성 차 부품단지 건립(부산 5. 4)

* 서울 지하철 철도 레일공사 담합한 ㈜궤도공영 등 3개 업체, 부산도 레일공사 담합의혹, 지하철 1호선 궤도공영 등 예정가 최고 99.9%낙찰(부산 5. 4)
* 정부, 녹산공단 매립규모 2배 확장, 서부산 공업벨트 조선, 신평공단-가덕도 연계, 조선단지・압연공장 추가, 시, 통산・건교부에 건의공문(국제 5. 4)
* 부산지역 도시가스, 가스누출 미리 알 수 없어, 부산주택 대부분 "불안", 경보차단기 엉뚱한 천장에, 아예 설치 안 된 곳도 수두룩(부산매일 5. 4)
* 부산도시가스 지역관리소, 부산 도시가스 안전요원 태부족, 대형사고 "위험천만", 13개 관리소 대부분 확보기준 어겨, 검침원이 점검 맡기도(부산매일 5. 4)
*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민족예술보존협회 창립20주년 기념 무형문화재 합동공연 한마당, 5일 금강공원 내 민속관 놀이마당서, 동래학춤・진주검무 등 선봬(부산매일 5. 4)
* 부산 민자당 기초단체장 후보, 부산 기초장 후보 가시화, 민자 6개 지구당 공천 심사 마무리, 남갑, 양한석・진, 하가렬씨 단독, 남을, 신종관・차정호씨로 압축, 서, 변익규・동래, 박규상씨로 추천(부산매일 5. 4)
* 부산, 지하철 양산선 노선 잠정 확정, 물금택지 동축~양산서 서측 통과, "접근성・수송 수요 감안 최적" 평가, 총 사업비 2천8백억, 문발연 공청회 물금~북정 양산군 재정부담(부산 5. 4)

5. 5
* 부산, 녹산공단 추가매립, 통산부 긍정검토 1백50만~2백여 만평 규모(부산경제 5. 5)
* 민자당 부산・경남지역 각 지구당, 기초장 공천후보 "정실추천", 민자 부산・경남지구당 이원장 측근 인사중심 「단독」 많아(부산매일 5. 5)
* 민자당, 민자 기초장 교통정리 골머리, 부산・경남지역 후보공천 "내홍", "공천=당선" 후보자 대거 몰려, 「복합지구당」 악재 잡음 증폭(부산매일 5. 5)
* 낙동강 환경관리청, 낙동수계 전산망구축, 월내 착수 14억원 투자 전국 최초로 추진, 태백~을숙도 6백44km 걸쳐, 수질・수량・오염관리 일원화(부산매일 5. 5)
*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도개공 감사 허술했다, 작년도 각급기관 자료서 밝혀져, 공사 자체감사도 눈가림용, 비위사실 적발 겨우 4건뿐, 아파트 입주민들 "부정비리 조장" 분통(부산매일 5. 5)
* 검찰, 문 시장 불구속 기소방침, 검찰-"무혐의 처리보다 재판 통해 결백 입증", 정부의 한 고위사정 관계자는 한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는 문정수 부산시장의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 불구속 기소방침이 굳어졌다고 밝혀(부산 5. 5)
* 노동생산성 임금상승률 첫 능가, 작년 실업 등 급증…전년 대비 12.4% 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임금 인상은 억제되면서 지난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처음으로 임금상승률 능가(부산 5. 5)
* 부산 앞바다도 반핵 캠페인,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해상훈련과 국제 반핵시위가 부산 앞바다서 열려, 13일 개최 대만-남해-원산 항로 봉쇄(부산 5. 5)
* '움직이는 미술관' 부산 왔다, 동아대회기념 용두산 전시관서 공개, '한국의 풍경' '현대…' 등 3개 주제 80점 선봬, 인터넷 사이트 개설 다양한 정보도 제공(부산매일 5. 5)

5. 6
* 부산시교육청, 2001년까지 67개교 신설, 국38 중15 고14개교, 교육청 학급당 학생 수 계속 줄이기로(부산 5. 6)
* 부산시, 부산지하철 환승시설 본격화, 노포역・고속터미널에 주차장 등 설치, 교통체계개선 설계완료, 69억 추가평성 의회 의결 요청(부산 5. 6)
* 김해 공항로 확장 공사 준공, 지난해 11월 총 27억4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착공된 김해국제공항 진입로 및 공항로 3단계 확장 공사 구간이 새롭게 단장 돼 개통, 대저 2동 파출소~공항 1.3㎞ 구간(부산 5. 6)
* 지하철 8량으로 늘려, 부산지하철 1호선의 편성이 오는 11월까지 모두 8량으로 장대화 돼 차내 혼잡률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부산 5. 6)
* 1만원권 위폐 비상, 마산이어 부산・대구서도 발견…동일범 추정, 지난 4일 창원과 마산 등 경남도내에서 1만원권 위조 지폐가 잇따라 발견된데 이어 5일 부산과 대구에서도 같은 종류의 위폐가 발견돼 경찰이 공조수사에 나서(부산 5. 6)
* 부산시, 오늘부터 승용차 2부제, 부산 9일까지 자율기간 거쳐 10일 시행,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앞두고 승용차 2부제 자율시행기간인 9일까지 아파트 단지와 주요 간선로・교차로 등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계도활동 시작(부산 5. 6)
* 하얄리아 이전 급진전, 시 조기매듭 박차 협상창구 장관급으로 격상, 중순께 4자 회담 구체의견 접근 시도(부산 5. 6)
* 감천항 「컨」 부두 조성, 한진 7월・제일제당 내년 5월 완공, 년 64만개 처리…체선 해소 일조 기대(국제 5. 6)

* 오늘부터 승용차 2부제, 시범실시 EAG 기간 위반 때 과태료 위반, 낮 시간대 이면 도로 불법 주차 시비 예상, 동아시아 경기대회 원활한 수행 위해(국제 5. 6)
* 부산서도 위조 1만원권 발견, 마산・창원・대구 9장 이어 이어 같은 일련번호, 컬러복사기로 위조된 1만원권 지폐 9장 잇따라 발견된데 이어 부산서도 같은 일련번호의 1만원권 1장 발견(부산매일 5. 6)
* 경영 수익 사업 본격 추진, 시「추진 기획단」설치 지자체 투자 재원 확대(시보 5. 6)
* 16개 구・군 특성 맞는 사업 개발, 시설 관리 공단 종합 무역 전시관 설립, 도시・농촌・해안 지역 부류 등 민자 유치(시보 5. 6)
* 시장 동정, 시장「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전야 연합 대법회」참석 외 2건(시보 5. 6)
* 「세계화와 지방 시대」, 시 국민 홍보 위원회 세미나 개최하여 자구적 규모의 문제를 시민 참여로 해결, 부산의 세계화・시스템화로 적극 추진해야 함을 밝혀(시보 5. 6)
* 시 의회 제42회 임시회, 추경 예산안 등 심의(시보 5. 6)
* 추가 2천3백67억원 편성, 시 시급한 현안 사업 해결 위해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시보 5. 6)
*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98년 준공 녹산 공단 내에,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는 창업 정보 센터・금융기관・수출입 대행사 등이 들어서(시보 5. 6)
* 추경 예산안 주요 내용, 현안 사업 해소 및 마무리 사업에 역점 투자 도로・교통 부문 23건에 6백24억원 배정(시보 5. 6)
* 이면 도로 주차지역 전면 조정, 민영 주차장 건설 Eos 지방세 감면 등 행정 자원 공영노상・노외 주차장 대폭 확충,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해 공익 근무요원 활용(시보 5. 6)
* 부산・가오슝 아주 게임 경쟁 치열, 대만의 물량 공세로 유치전 과열 양산 적당한 범주 내에서 정정당당하게(시보 5. 6)
* 자율방화의식을 높이자, 5월 25일 제2회「방재의 날」각종 행사, 지하철역 등에서 피해복구 재연 취약지 일제 점검・예방 캠페인 실시(시보 5. 6)
* 자치제도 장점은 “청렴”, 알랑 교수 지방 자치 제도 강연회, 행정에 기업 경영 방식 도입은 바람직하지 못해(시보 5. 6)
* 「120번」민원 전화 설치, 종합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제로, 명장 등 정수장 매주 수요일 개방(시보 5. 6)
* 건설 공사 시공평가제 도입, 도급액 3억원 이상 성실한 공사 되게 유도(시보 5. 6)

5. 7
* 시의회「위천저지」상경 투쟁, 내일 총리 등 관련 장관 특별 법안 전달, 최근 대구시의원들이 정부 각 부서를 방문 위천 공단지정 강력히 촉구한데 대해 부산시의회도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시위성 상경방문 예정(부산 5. 7)
* 항공기 부산 첫 재산세 부과, 강서구청 김해공항 이용 대한항공 대상, 부산 강서구청이 세수증대 위해 관할 지역인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대한항공 항공기에 대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재산세 부과(부산 5. 7)
* 지자체 행정개선 전국연대, 5대도시서 구청장규제법령 개정 요구,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위주의 각종 행정규제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로 연대해 법령 개정 등 요구(부산 5. 7)
* 「전자민주주의」꿈 부산서 일군다,「전국대학생 정보운동포럼」10～11일 부산대서 개최, 전자주민카드 실시 반대, 정보공유 지역결합 등 논의(국제 5. 7)
* 정부 광양항 파격지원 발표, 부산항 화물유치 ‘비상’, 이용료 낮게 책정…컨 화물 옮아갈 듯(국제 5. 7)
* 김해공항 검색기 ‘툭하면 고장’, 국제선 4대 내구연한 경과・과다 사용, 국제선 2층 출국장에 설치된 X레이 화물검색기 문형 금속탐지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작동이 잘 되지 않아 교체 및 수리 작업 시급하다는 지적(국제 5. 7)
*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주택위 초점,「용호만 매립」타당성 집중추궁,「부지확대」건설업체 특혜 아니냐, 매각 시기도 부동산 경기 참작 않아(국제 5. 7)
* 동아지역 스포츠스타 총출동, D-3 부산 동아시아 경기 관전 요령, 10일부터 19일까지 열전 10일에 돌입하는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는 동아시아지역의 최고 스포츠 스타들이 거의 출전(국제 5. 7)
* 정부, 부산 경마장 건설계획 무산, 아시안게임대비 소규모 마술경기장만 허용,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자치정부의 세수증대 차원에서 마술경기장을 경주용 경마장으로 확대 전환하려던 부산시와 경남도의 계획 사실상 무산(국제 5. 7)
* 환경운동연합, 13일 부산항 해상시위,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수출 반대 해상시위가 오는 13일 부산항 앞바다서 열려(국제 5. 7)

*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1호선 모든 전동차 8량 편성, 6량 편성을 모두 8량으로 재편성하고 8량 편성 열차 1개 늘려 전체 전동차 3백60량으로 8량씩 45개 열차 편성 운영키로(부산매일 5. 7)
* 부산, '부산 2008올림픽 유치' 시사, 오는 200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후보 대열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김운용 KOC위원장 일본방문 중 밝혀(부산매일 5. 7)
* 부산시의회, 용호만 매립 특혜 추궁,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주택위는 폐회 중 상임위활동을 갖고 용호만 매립 관련특혜 의혹 등을 집중 추궁, 부지 추가·롯데 시공권 내락 의혹 따져(부산 5. 7)
* 15억 동아시아인 길 밝힌다, 내일 경주서 성화채화 2박3일 봉송 퍼레이드(부산 5. 7)
* 기습 폭우 피해 속출, 시간당 최대 50㎜ 퍼부어 도로 곳곳 침수, 차량 7중 충돌…여객기 결항·지연 사태(부산 5. 7)

5. 8
* 부산시, 차부품단지 가속화, 삼성차 1차 협력 18개사 녹산공단 입주신청, 8만평 규모…9월 공장착공, 신호도 4만평 7월 우선분양(부산 5. 8)
* 강서, 도시형 농산물 생산지 조성, 국비 등 220여억 투입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림부, 부산시에 통보(부산매일 5. 8)
* 금정구청, "동아대회를 신명대회로", 제2회 동아시아 경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동아시아인 평화와 화합 축제 한마당」을 펼치기로(부산매일 5. 8)
* 수협, 부산공동어시장 인수 검토, 중국산 수입제한·할당제 도입도 건의, 어업인 간담회서 밝혀(부산매일 5. 8)
* 부산항 충장고가로 교각 균열, 시설 안전공단 보고 철근량 기준치 크게 미달 부실 의혹(부산매일 5. 8)
* 김해공항 남풍만 불면 '마비', 7일 입국예정이던 제2회 부산동아시아 경기대회 참가 7개국 외국선수단 2백60여명이 남풍이 불 때마다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김해 국제공항의 고질적 입지 문제 때문에 오지 못해(부산매일 5. 8)
* 부산·경남 장대비 피해 속출, 하천 범람·주택 담이 무너지는가 하면 도로침수와 정전 하수구 범람 및 교통사고 등 각종 피해 속출(부산매일 5. 8)
* 대선 주자들 동아 대회 대거 참석, 개막식 전후 내부 PK지역 '표밭갈이' 경쟁, 개막식 참석을 전후해 부산에서 각종 간담회 강연회 토론회 등 잇달아 개최(부산매일 5. 8)
* 결혼식에도 자가용 이용 말라니…승용차 2부제 부작용 '원성', 오는 10부터 19일까지 자가용승용차 2부제를 강제 시행키로 하면서 시민들의 결혼 등 관혼상제에 꼭 필요한 차량까지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자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에다 경직된 시책이라는 비난 여론이 높다(부산매일 5. 8)
* 94세 시어머니 30년 봉양 "손발 역할 더 오래했으면", 부산 강서 윤귀선씨의 어버이날 소망, 병수발만 12년…품팔아 생계, 16년 전 남편 사별 4남매 키워, 구청 효부상 추천 '애써 사양'(국제 5. 8)
* 부산 대형 사업 적극 지원, 내무부 장관 7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 방문해 시정 현황보고 받아, 녹산공단·정보단지 등 정부차원 뒷받침(국제 5. 8)
* 동아시아 대회소식, 국제 스포츠 회의 잇따라, OCA 총회·스포츠 과학 학술회의 등 열려, 총회 열어 호주 가입 여부 결정, 폭우로 대회준비 차질 우려, 항공기 못떠 선수단 버스 이동, 강우량 잘못 예측 기상청 항의, TV방영권 수입 6억여원, 축구 울산 경기 예매율 저조(국제 5. 8)
* 부산 복지시설 안전 '흔들', 74곳 시설점검 건물 균열·누수·배전 설비 노후(국제 5. 8)
* 동아시아 횃불 구덕벌로, 2박 3일간 187㎞ 퍼레이드 돌입, 오늘 경주서 채화(부산 5. 8)

5. 9
* 부산시, 재정운동 "졸속", 추가재원 업자 불유지·지방채 팔아 조당, 체납세 해결 등 근본책 마련 외면, 본격 지자체 앞날 걱정(부산매일 5. 9)
* 부산 경남 시·도지사 「6. 27선거」, 단체장선거 표밭갈이 돌입, 여야 후보 가시화…조직정비 시동, 부산 「문정수-노무현」 대결 압축, 경남 김혁규·최일홍씨 등 4색전(부산 5. 9)
* 부산시내 해수욕장 개장, 피서철 「교통대란」 불가피, 개장 전 소통대책 마련 절실, 해운대 일대 주차장 확보 차질, 국제박람회·지하철공사 중복, 접근도로망 개설도 지지부진(부산 5. 9)
* 해운대 신시가 「시설물 사고」 곳곳 잠복, 종합건설본부-구청 관리 책임 서로 미뤄, 웅덩이 피하려던 운전자 사망(국제 5. 9)
* 부산의원 의정활동 소홀, 정국 표류 속 입법·정책구상 등 미흡(부산 5. 9)
* 광양항 활성화 정책 발표, 부산항 대책 마련 '발등의 불', 물량감소·수지악화 따른 부작용 불가피, 체선·체화 해소 서비스 향상 등 장점도(부산 5. 9)

* 남구청, 종합 전자행정센터 추진, 새 청사 신축 때 교육청과 경찰서 세무서 등기소 등 지역 행정 관청을 한곳에 모으고 각 기관이 정보도 공유 해 주민 편의 도모키로(부산매일 5. 9)
* 강서, 하천 막고 다리공사 마을 "물바다", 폭우로 범람해도 방치 논밭 3만여평・학교 수몰, 주민들 롯데・태영 건설 몰려가 거센 항의(부산매일 5. 9)
* 프랑스 다국적 유통 업체 까르푸 부산 진출, 부전동 3,400평 규모 초대형 할인매장 개장, 공산품 등 대량 직수입 지역 업계 긴장, 자금 역외 유출 부산경제 빈사 우려도(부산 5. 9)
* 남구청-교육청 마찰증폭, 부산 남구청이 대연동 부경대 못골캠퍼스 부지로 청사 이전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부지 소유자인 부산시 교육청과 마찰 빚어(국제 5. 9)

5. 10
* 부산, 민선시장이 풀어야 할 부산 40대 과제, 수질개선・광역 교통망 등 선결 돼야, 문화・해양・산업정보 기반도시육성, 동북아거점 특화산업 적극 유치를(부산 5. 10)
* 민자당, 시・도의원 대폭 물갈이, 민자 부산 50・경남 60% 새 인물로, 자질미달・비리 연루자 제외, 10일부터 접수 탈락 상당수 무소속 출마 예상(부산 5. 10)
* 부산지역 일선행정기관, 부산관가 선거 밑 "나사 풀렸나", 대민업무처리 자의・감정・무책임, 아파트수도료 영업용 적용, 시급한 지붕개량도 "안 된다", 아파트 사업승인거부 횡포(부산매일 5. 10)
* 민자당, "텃밭이 없다", 지방선거 초비상, 심상치 않은 여론에 내심 당혹, 부산 경남 제주 등 일부만 낙관, "민주계 독주가 결속저해" 당내갈등 겹쳐, 지역 책임제로 충진 분발 촉구(국제 5. 10)
* 4대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악성유언비어…음해성 신고…금품살포, 지자선거 벌써 "혼탁", 고발전화 하루 백여 통 상당수 "허위", 경남선 탈・불법 70건 적발(국제 5. 10)
* 민자당 부산지역, 시의원후보 공모 "공염불", 민자 부산지역 특정인사 사전내정설 파다, 검증도 없이 측근 인물 등 추천, 무더기 반발조짐, 후유증 클 듯(국제 5. 10)
* 민자당, 시・도의원 대폭 물갈이, 부산 50・경남 60% 새 인물로, 자질미달, 비리 연루자 탈락, 10일부터 접수, 상당수 무소속 출마 예상(부산 5. 10)
* 지방자치제 본격 시행 앞둬, 동아대 김남일 교수, 지자체 행정・개발정책에 필수조건, "시 통계전담과 신설을" (국제 5. 10)

5. 11
* 재정경제원과 조달청, 국유잡종재산권 조달청 이관 추진, "지자체 역행" 시도 강력 반발, 부산・경남 연 2백억대 재정손실, 국유지 점용한 주민들도 큰 불편(국제 5. 11)
* 내무부, 부산시 조직「기형」위기, 지역실정 무시한 개편안 제시, 해양・교통 전문부서 외면, 건설・문화제 등 비대화, 행정 비능률(국제 5. 11)
* 4대 지방선거, 지방선거편승 불법 기승, 생필품 10~30% 올라, 미성년자 출입 등 위반건수 70% 증가, 그린벨트 훼손, 물가담합 인상, 업소 탈법영업(국제 5. 11)
* 부산, 그린벨트 규제완화조치 악용, 이축권 매입 불법 기승, 기장・해운대 등에서 "공공연", 음식점 건축업자・공무원 4명 구속(국제 5. 11)
* 민선부산시장 후보 윤곽, 문정수・노무현・안상영 압축, 문-"안 전시장과 맞대결은 큰 부담", 노-"2파전보다 3파전 유리 판단", 안-"돌발변수 작용 유력 거취주목"(국제 5. 11)
* 부산, 장산 일대 "지뢰폭탄", 70년대 군 시설보호용 지뢰 대량매설, 토사와 함께 유실…현황 파악 못 해, 등산로 개방 따라 참사우려(국제 5. 11)
* 부산, "수영텔레포트 녹산 등과 연결을", 고도정보통신망 산업체계 하부구 조화필요,「과학기술 기조의…」부산개발 포럼(부산매일 5. 11)
* 부산지역, 부산대기 급속도로 혼탁, 15km미만 악시정일수 2.7배 늘러, 82년 이후 6대 도시 중 오염추세 가장 빨라(부산매일 5. 11)

5. 12
* 부산, 사치품목 통관 큰 폭 증가, 승용차・골프채 등 최고 3배, 냉장고・세탁기는 격감, 수입물량 6%나 신장 (국제 5. 12)
* 민자당,「문제」기초장 후보 배제, 사상・강서 등 2~3곳 예상, 창원・거제・고성지역 거론, 5월 12일부터「공천확정」순차발표(부산매일 5. 12)
* 삼성그룹, "아시안게임 유치 적극 지원", 인력・해외조직・재정 등 총체적 제공(부산매일 5. 12)
* 국내, 대기업 부산진출 박차, SOC확충 등 20조 규모 건설시장 겨냥, 지자체 출범 전 "연고권만들기", 포철・대우 등 자사・지사설치(부산매일 5. 12)
* 부산지역, 일선구청 인력난 "허덕", 각 구별 10~20명 모자라, 충원 안 돼 업무공백 초래, 전공무시, 인사발령 전문화 역행도(부산매일 5. 12)

* 부산지역, 부산 제2금융권 희비교차, 종금・투신 경영순조, 흑자를 기록한 반면 보험사 큰 적자(국제 5. 12)
* 부산, 노상주차장 설치기준 변경, 주차료 10분 단위 받는다, 6m도로에도 주차장, 건성교통부 입법예고(국제 5. 12)
* 정부, 수도권만 공단 재개발 허용, 부산은 규제완화 제외, 수도권은 첨단산업단지화 특혜조치, 부산은 성장관리지역 묶여 공동화(부산 5. 12)
* 우리나라 지역 엘리트, "지방의회 불만 많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지역사회」 설문조사 의원 자질부족・재정 중앙 집중 등이 문제, 현 정권 민주화 진전됐으나 삶의 질 미흡(부산매일 5. 12)
*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교육청지원 예산 대폭 삭감, "교육계 경시" 거센 반발, 일반회계 전입금 117억 줄여, 영도도서관 개관연기 등 불가피, 시설투자 등 재정차질(부산 5. 12)

5. 13
* 정부, 부산 도시중심축 낙동강 일대로, 21세기委 위 「지역발전」 정책토론회, 중앙・지방 간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생활문화운동 전개 "지역문화 창달"(부산매일 5. 13)
* 당국, 부산 교통지옥 장기화, 서면・화명 지하철공사 예고도 없이 툭하면 차선폐쇄, 가야로 등 주차장 방불, 30분 거리 4시간 소요 시민 큰 불편(부산 5. 13)
* 부산시장후보, 부산도 본격 선거전 돌입, 시장후보 문정수-노무현씨 압축, 문 후보, 공・사조직 풀가동 해 인물우위 홍보, 노후보, 대화・토론의 장 주력 정책대결 유도(부산 5. 13)
* 부산, 청사포해안 훼손 위기, 5만평 매립 관광지조성 추진, 부산시에 허가신청, "해운대해수욕장 망친다" 주민반발(국제 5. 13)
* 부산, 부산편입 기장 개발 뒷걸음질, 예산 없이 통제만 늘어, 인허가 사업 동호 지역경제 위축(국제 5. 13)
* 부산, 청사포해안 매립 "강행", "자연훼손" 반대여론 불구 시에 허가신청, 선거철을 틈타 특혜를 노리는 것(부산매일 5. 13)
* 세계화 시대, "부산을 물류・정보 거점도시로", 가덕신항・수영텔레포트 건설 시급, 21세기위 지역발전정책 토론회(부산매일 5. 13)
* 포스터 입선작 발표, 재해 예방 공모(시보 5. 19)

5. 14
* 창간6주년 기념 부산・경남 여론조사, 부산・경남 주민들, 단체장 제1조건 "추진력", 전문지식・행정실무 경력순 선호, 「문민」 후 지역발전 긍・부정 반반(부산매일 5. 14)
* 부산지역 민자당 후보, 부산광역의원 후보 윤곽, 일부 접수 조기마감・사전내정 등 따라, 동구 현역 3명 확정(부산매일 5. 14)
* 부산・경남 여론조사, 단체장 "무소속 지지" 부산 40・경남 60%, 출마자 금품 향응 거절・고발 57%, 본격 지방자치 땐 고장 발전 73%, 기초장은 행정관료・사회단체 지도자・정치인 순 선호(부산매일 5. 14)
* 부산・경남지역민들, 문민정부 "부패 척결 등 잘했다" 53%, 심각한 현안은 교통난・환경오염, 수영비행장 여가공간 활용기대, 경남주민 "문화복지시설 시급히 보강돼야"(부산매일 5. 14)
* 부산시, 지방화 원년-부산・경남 준비상황, 기구기편 등 마무리 「작은 정부」 출발선에, 권한확대 걸맞게 주민복리 최선, 민자유치・수익사업 추진 자체재정 확충, 도업무 8백건 이관…민원처리시간 단축, 행정력 낭비요소 제거 혁신 박차, "지역이기주의 극복・초기혼란 최소화 노력을"(부산매일 5. 14)
* 부산, 「부산 아시아드」 이상 없다, 이달 OCA총회서 결정…막판 총공세, 대만 가오슝에 객관적 우위(부산매일 5. 14)

5. 15
* 부산시, 삼성차 기반조성 시비 1천억 지원, 부산시 재정악화 가중, 분양가 낮춰주기 편법, 공장유치만 집착 혈세낭비(국제 5. 15)
* 부산시장 여야 각 정당 후보 확정, 6. 27 접전, 정책-문정수・인물-노무현・발전론-안상명…삼색전, 문-여표밭에서 승리 전국적 바람몰이, 노-비판심리 이용 현정부 중간 평가로, 안-공식선언 미뤄 여론 탐색 막판 가세(국제 5. 15)
* 민자당 부산 광역시의원 후보 공모 결과, 시의원에 대한 절반 물갈이…참신성 미흡(국제 5. 15)
* 제14회 어린이날(부산교육 5. 15)

5. 16
* 부산시, 국고 4천7백억 요청, 지하철 빚 상환, 천7백억, 김해공항 확장 4백58억, 내년 교통관련예산 건의(부산매일 5. 16)
* 부산지역, 중량초과 차량 등쌀에 주요 도로・교량 "몸살", 「성수」 이후 제한했다 최근 들어 "느슨", 노면침하・붕괴 위험 가중(부산매일 5. 16)
* 부산, 광안해수욕장 실명우려, 민락매립지 조성 후 지형급변 "기능저하", 대형퇴적층 생성 사질 점토화, 방파제~바다서 자갈층도 노출(부산매일 5. 16)

* 부산, 중구-감정자구(중국) 교류 박차, 행정・경제 등 협력추진, 양측 현황소개 상호진출 발판 다져(부산매일 5. 16)
* 민자당 부산경남시도의회 후보자들 윤곽 드러나, 민자 공천경쟁 1.7대 1, 부산 55곳 89명・경남 85곳 백54명 신청, 현역 의원 65명 집계(부산매일 5. 16)
* 부산시, 지방자치시대 맞아 시 경제부서 조직개편 시급, 업무 중복・편중 심해, "효율성 밑바닥" 통폐합 등 절실(부산매일 5. 16)
* 부산, "가오슝 물량공세 깬다", 개최지 결정 D-7, 2002년 아주경기, 대만, 범국가적 체제 구축 득표에 안간힘, 추진위 "비관・낙관도 없다" 막판로비 총력(부산 5. 16)
* 부산 대형시설물 곳곳 위험, 범2호・낙동・오지교 부실, 안전외면 가스업소 많아, 구청점검 우수기 사고 우려(국제 5. 16)
* 부산시, 4대 선거, 다방・목욕탕서 투표할 판…, 투・개표소 확보 "쩔쩔", 4백87개소 아직 미확정, 부산시 선관위, 장소싸움치열…기권사태우려(국제 5. 16)
* 시장과 교장, 교사와의 대화(부산교육 5. 16)
* 유치원교사 창작 동화 구연 대회(부산교육 5. 16)

5. 17
* 부산, 매년 10m씩 점토층 형성 「뻘밭」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지형 급변 실태, 다대포・영도 이어 사역상실 위기, 무분별 매립개발 "경종"(부산매일 5. 17)
* 오늘날, 행정경새… 근로자 목소리 "안 들려", 공직자 이제는…, 사용자중심 업무처리로 "불신", "할일은 많은데…인력 없다" 뒷짐, 노사입장 포용 제 역할 다해야(부산매일 5. 17)
* 민자당, 기초장 후보 51명 확정, 민자, 부산은 7곳 미정 9곳만 발표(부산매일 5. 17)
* 민자, 「광역」 후보 공모 결과, 부산 선거구 2/5 단독 후보신청, 특정재력가 내정…공모퇴색, 마산 첫 여성의원 탄생기대(부산매일 5. 17)
* 부산대 오건환교수 주장, 광안리해수욕장 "기능상실 불가피", 수영만 등 매립으로 모래공급 끊기고 「침식」도 (부산매일 5. 17)
* 「탈부산」 인구 6년째 증가, 통계청 자료 경남에 51%…양산・김해 순, "제조업체 이전 등 영향" 분석, 부산 "생활여건 열악" 반증, 93년 이후 매년 5만8천여명 이탈, 전국 「원거리이동」 백명당 6.1명(부산매일 5. 17)
* 부산, 신국제공항 가덕도・명지 최적, 대산면보다 입지 더 나아, 부발연 소음대책・근접도 등 비교 우위 (부산 5. 17)
* 부산 동래구청, 중앙 분리대 "더 위험", 온천천 복개도로 야간 식별 안 돼(국제 5. 17)
* 통계청, 「94년 인구이동」 발표, 탈부산 가속…인구 5만 명 감소, 경남으로 9만 명 전출 「광역화」, 경기도, 백명당 32명 이동 "최고"(국제 5. 17)

5. 18
* 부산, 수영비행장 「컨」 야적장 활용, 5월부터 8부두 육군시설 컨부두로 전용, 국방부・해항청 종합대책 발표 (부산매일 5. 18)
* 부산 기초・광역의회, 시・구의회 예상 "홍청망청", 감사원・내무부감사 부인친목회에 식대・경비도 과다 편성, 부당처리 공무원 30명 징계(부산매일 5. 18)
* 부산시, 부산항 적체해소 대책발표, 8부두 2선석 민군공용, 국방부・해항청 수비 일부 야적장 전용 합의 (국제 5. 18)
* 부산, 해안매립 남발 후유증 심각, 포구 9・해수욕장 2곳 이미 기능상실, 진행사업만 31개…연못 성한 곳이 없어(부산매일 5. 18)
* 부산교통공단, 무리한 공기단축서 이미 예견, 부산지하철 부실 하자보수 실태, "완벽시공" 무시 공사비 줄이기 "급급", 지중 연속벽 공법구간 등 곳곳 균열(부산매일 5. 18)
* 국립대학교 인근에 24층의 초고층아파트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95카합 5)(법원사 5. 18)

5. 19
* 부산지하철, 부실지하철공사 도로 복개도 날림, 도면 침하・균열 등 심화, 부산1호선 4단계 ㈜한보시공구간, 통행차량 안전사고 "손짓"(부산매일 5. 19)
* 부산도심연안, 부산시・해항청 특혜성 허가 남발, "해안매립 더 이상 말아야", 18일 현재 신청만도 10여건, 연안 수질오염・생태계파괴 후유증, 경관망치고 해수욕장 기능도 상실(부산매일 5. 19)
* 국방부, 8부두 군용선석 2개 개방, 국방부 부산항 체선대책 수비도 「컨」 야적장으로, 해항청 "큰도움 안 돼" 재협의 요구(부산매일 5. 19)
* 부산・경남지역, 민자 기초장후보 공천갈등, 특정인 관철・제동, 민주계 집안싸움, 부산5・경남12지역 미발표, 실세 입김설 가세 잡음 증폭(부산매일 5. 19)

* 6. 27선거 앞둔 부산, 여야 선거총력체제 돌입, 민자, 범여권 조직정비 완료, 민주, 선대본부 다음주 구성(부산 5. 19)
* 정부의 교육개혁, 부산대학가, 학사자율화 대비 부심, 교육개혁안 발표 앞두고 학기제·학점별 등록제 등 검토(부산 5. 19)
* 부산 서구 암남동 감천, 부산 첫 수산물 도매시장, 감천항 건립 확정, 시, 중설토 투기장 4만평 시설고시, 지하엔 하수종말 처리장 조성, 내년설계 97년 착공(부산 5. 19)
* 부산, 녹산공단 개별공장용지 거의 분양 완료, 1·2차 분양은 저조, 3차 분양 신청접수서 1백31개 업체가 24만1천평을 신청(부산 5. 19)
* 부산시 추진 중인 수산물도매시장, 부산시-해항청 "동상이몽", 부산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지을 계획, 해항청, 잡화부두 배후 보관시설로 지정(국제 5. 19)
* 사고 다발 지역 대폭 정비, 운수 업체 대상 안전 관리 교육 강화, 자전거 주행도로 및 보관시설 확대(시보 5. 19)
* 불법 건축 행위에「이행 강제금」부과, 지방 선거 맞아 강력 단속(시보 5. 19)
* 연안 해상 방역 철저 수인성 전염 예방 강화, 시는 여름성 수인성 전염병 예방 대책 추진키로(시보 5. 19)
* 1회용품 줄이기 운동 추진, 유통 과정부터 생활화 정착을, 가정·직장서 컵·접시 등 사용 자제(시보 5. 19)
* 10부제·카풀 참여 제도, 녹색 교통 운동 전개(시보 5. 19)
* 하천 등 환경 취약지 순찰 강화, 오염 행위 중점 단속 다발 지역 감시원 배치 생활 악취 규제도 철저 관리(시보 5. 19)
* 일본 뇌염 방역 대책 강화, 전국 주의보 발효 하수구 등 취약지 중점 소독(시보 5. 19)
* 도시 고속도로에 전광판, 사고 등 알려 체증 상태 해소(시보 5. 19)
* 집단 급식소 일제 점검, 여름철 식중독·전염병 발생 대비(시보 5. 19)
*「독립 유공자 거리」조성,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시보 5. 19)
* 퇴폐 영업 신고 땐 포상금, 선거 앞둔 유흥업소 탈법에 쐐기(시보 5. 19)
*「부산환경」포스터 큰 "호응", 환경 문제 시민 관심 제고 위해 제작, 실천 방안 수록해 지침서로도 활용(시보 5. 19)
* 시 추경 2천7백67억원 확정, 교육청 예산안 1백17억원 삭감(시보 5. 19)
* 분뇨해양 투기 공개 입찰 37억원 예산 절감 효과, 부산시의 분뇨 해양 투기 사업이 공개 입찰로 변경되자 절반 이상 예산 절감(시보 5. 19)
* 아주 경기 부산 유치 여부 곧 결정, 5월 23일 OCA 서울 총회에서(시보 5. 19)
* 해운대 관광 개발 계획, 야외 공연 위한 음악당 유치, 녹지를 휴식 공간으로 개방(시보 5. 19)
* 시민과 기업이 동참해야,「부산 아젠다21」작성안 자원 절약 생활양식 유도,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로(시보 5. 19)
*「부산 어메니티」본격 추진, 21세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대비, 기능·안전·편의성 시책에 환경 쾌적 도입(시보 5. 19)
* 지방 자치 시대 맞춰 전결 규정 재정비, 시장·부시장 책임·권한 명확히(시보 5. 19)
* 아파트 여가 공간 확충, 시 98년까지 1백개 단지 확대, 신축 아파트는 의무화 추진(시보 5. 19)
*「모의 투표」읍·면·동 실시, 20일 시·선관위 달라진 절차 홍보(시보 5. 19)
* 시장 동정, 부시장 근로 복지 공단 부산 지역 본부 개소식 행사 참석 외 1건(시보 5. 19)
* 에볼라 병 발생에 따른 대책, 혈액 분비물·장기·정액과 직접 접촉 발병, 위험지 여행자 귀국 후 관할 보건소서 관리(시보 5. 19)
* 노인 건강 진단 실시, 5월~10월까지 1, 2차로 저소득 층 치료비 보조(시보 5. 19)

5. 20 *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유치 23일 확정, OCA 서울총회 개막(부산 5. 20)
* 부산지역, 상성 "해운대 모노레일 건설", 지역관광개발 대기업 첫 참여, 경수로문제 타결 전에, 연락사무소 개설가능, 미국무부(부산매일 5. 20)
* 정부, 백양산 터널공사 등 31개 사업,「민자유치」인정 지원확대, 총 사업비 1조4천억 규모, 금융·조제·부담금 등 혜택, 교육개혁 공약제시, 민자 대학정원 자율화 등 골자(부산매일 5. 20)
* 백양산터널공사, 부산·경남 9개 사업 민자유치, 정부 심의안, 전국 31개 사업 대상확정, 조세감면·금융혜택, 부산시, 우선순위 사업 선정(부산 5. 20)

5. 21　* 부산공정거래소, 롯데쇼핑 신용카드 사전발급 “제동”, 계열사 임직원에 고할인율 적용, “사실상 할인 특매” 해석(부산매일 5. 21)
* 부산, 금정산자락에 일제 거대불상, 일부주민 “신성시”, 해프닝, 등산로 입구 바위 조각물도, 관할구청 알고도 방치 “비난”(부산매일 5. 21)
* 부산항, 일밀항기지 전락, 외국인근로자 상대 알선조직들 설쳐, 올 들어 87명 적발…전체 90%이상 차지(부산매일 5. 21)
* 부산지역, 철도건널목사고 해마다 급증, 철도건널목 입체화 “제자리”, 부산지방철도청 사고급증 불구 예산타령만(부산매일 5. 21)
* 부산지역 시민단체들, 4대 지방선거에 대대적 참여 선언,「시민후보」대거 출마, 민간단체, 4대 선거 적극 참여 선언(부산매일 5. 21)
* 부산 기장군, 해안삼복도로 등 절개지 “불안”, 기장군, 예산부족 핑계 안전시설도 없이 방치, 장마철 대형사고 우려(부산매일 5. 21)
* 부산시, 광복50주년 맞이해 펼친 특별시책,「고유 지명 찾기」겉돈다, 사전계획 소홀…실적 2건에 불과(부산매일 5. 21)
*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위원장 부산방문(부산시정 5. 20)

5. 22　* 부산시, 지방선거 후 상위직증소・하위직증가, 부산관가 “희비 쌍곡선”, 현구청장 자리보장 “막막”, 본청 입성 경쟁, 부구청장 발령도 가능, 사무관 크게 늘어 6급 이하 “기대”(국제 5. 22)
* 부산지방철도청, 철도건널목 사고 90%가 운전자 부주의, 부산관내 올 들어 32건 발생…안전교육 절실(부산 5. 22)
* 부산,「사하 방아소리」경연부문 우수상, 부산민속예술 및 경연대회, 구성 고증미흡 최우수상 안뽑아, 문화재 전승 발굴개선방안 시급(국제 5. 22)
* 부산, 5년째 찔끔 14km가 천리길, 양산-통도사 국도 확장, 90년 착공 공정 60%선, 토지보상지연… 예산타령 거듭, 하루 4만대 통행 휴일 북새통(부산 5. 22)
* 여당,「부산선거」제안에 야당 시큰둥, 민자 창원시장에 김창수씨 확정 “뜻밖”, 민주 노후보, 이총재 지원업고 강행군, 민자 해운대 기초장・광역후보 경선 7시간, 후보 바뀌자 중앙당 항의 방문(부산 5. 22)
* 아시안게임 유치 전망, 부산 우세 속 부동표 18국이 변수, 중국・사마란치 강력지원 “큰 힘”, 가오슝, 대대적 선심공세 펼쳐, 총회 벽두부터 투표방식 놓고 논란일 듯, 각국 대표들 직접 만나 당위성 호소, 각종 모임 참석 부산시민 열망 전달(부산 5. 22)
* 아시안게임 부산유치 유력, 2002년 개최지 23일 결정, 추진안 “6대 4로 유리”, 42개국 중 17개국지지 표명, 사마란치, 물량공세 경고(부산 5. 22)
* 부산진경찰서와 남부경찰서 경계지역의 황령산 터널을 남부경찰서 관할로, 해운대경찰서와 울산남부경찰서 경계지역 효암천과 효암교를 해운대경찰서 관할로, 강서경찰서와 진해경찰서의 경계지역 기동교와 소화천을 강서경찰서 관할로 각 이전, 편입(부산지방청 훈령 제62호)(경찰사 5. 22)

5. 23　* 부산시의원 선거 30대 대거 출사표, 김용균 전차관, 자민련 방문 지사공천 논의, 부산 16개 지역 무소속 후보들 윤곽 드러나(부산 5. 23)
* 부산, 미술심포지엄 2차 토론회, “「1% 미술」우수작품 확보가 관건”, 주무부서 문화체육과로 이관해야, 전문・객관성 보장위해 위원회 구성(부산 5. 23)
* 도시계획도로 일안, 부산「계획도로」탁상입안, 천5백곳 10년 넘게 방치, 시행권 구천 넘어가도 여전, 주민피해 외면…상당수 재정비・폐지대상(국제 5. 23)
* 지방자치제 선거, “정당공천 필요 없고 급여・처우 괜찮다”,「기초」출마 예상자 난립, 부산지역 4대 1 경쟁률, 주민분열・과열 혼탁조짐(부산매일 5. 23)
* 부산지하철, 제2호선 도면침하・가스누출 등 잇단 사고, 지하철공사장 겁난다(부산매일 5. 23)
* 부산시, 정부, 지자체행정조직 개편방침 관련 공식 제기, “개악”, 부산시, 수정건의 지역특수성을 무시한 획일 적용(부산매일 5. 23)
* 부산, 경관이 카드업자 협박 갈취, 부산경찰청 “사칭사건” 왜곡・은폐…뒤늦게 셋 구속, 검찰, 경찰간부 등 수사 확대(국제 5. 23)
* 21세기 여는 첫 대회 개최지 부산 아시아드 확정, OCA총회서 41개국 중 37개국 지지, 2002년 9월 개최, 보디빌딩 등 포함 35개 종목 16일간 열전(시보 5. 26)

* 제14회 AG개최지 '釜山' 확정(제14차 OCA총회, 서울)(부산시정 5. 23)

5. 24
* 부산시, 기장군 시내버스 운행관련, 파행운전 거듭한 「동부여객」 5개 노선 인가취소, 시・기장군 마을・시내버스 신설・연장으로 대체(부산매일 5. 24)
* 부산, 세병교 6월 10일까지 부분통제, 이로 인해 인근 교대 앞 네거리・내성로터리 일부구간 체증예상(부산 5. 24)
* 아시안 게임 부산 유치 축하, 김대통령 축하 메시지 보내(시보 5. 26)
* 「부산 찬가」 합창 뜨거운 불꽃, 아시안 게임 부산 유치단 환영식, 카퍼레이드 행렬에 시민 환호 박수(시보 5. 26)

5. 25
* 부산, 기장군 내 농촌지도회, 기장군농촌지도소 설치주장 탄원서 제출, 농촌지도소로는 경쟁력제고에 도움 못돼, 증빙서 발급 등 불편(부산 5. 25)
* 부산, 시의회 여성의석 다툼 치열, 문 민자후보, 자서전 펴내 이미지 홍보, "여 캐치프라이즈 지역감정 호도" 맹비난, 최 전지사 민자선대위 고문에 위촉, 시장후보 후천대회 지사후보 참석(부산 5. 25)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교통공단・부산도개공 등 21곳, 불공정 거래 일제조사, "공정부문 질서 확립" 차원, 적발사안 따라 고발・과징금 조치(부산매일 5. 26)

5. 26
* 영남권의 젖줄, 낙동강 악성조류 만연, 여름뿐 아닌 사철 내내 부영양화 심각, 가을~봄 「갈조」 이상 번식, 하구둑 축조 후 20배나 폭발적 증식(부산매일 5. 26)
* 부산, 해운대 피서철 체증 푼다, 수비삼거리~미포 등 일방통행, 신시가 우회로・송정터널 개통, 시・구청, 소통대책마련 7월 시행(부산매일 5. 26)
* 부산 서구, 대티터널 붕괴위험, 천장 등 1백여 곳 균열・누수, 입구 쪽 옹벽 30cm기울기도, 부산 서구청 안전점검 결과(부산매일 5. 26)
* 부산, 7월 개장 해운대, 피서철 일방통행 실시, 세계축제박람회 겹쳐 교통난 최악, 4단계 소통대책 확장(국제 5. 26)
* 부산시, 아주경기 교통대책 마련, 도로율 18%, 주차장 배로, 부산시 내년 대책안 본격 가동(국제 5. 26)
* 부산, 서대신동 대티터널 내부균열 보수 시급, 인구옹벽 붕괴 위험, 서구청 안전점검 누수도 심각…정밀진단 필요(부산 5. 26)
* 아시안게임 앞둔 채, 터미널은 좁고 보안시설은 낡고, 궁색한 김해국제공항, 아시안게임 관문역할 무리, 계류장・해외노선도 태부족(부산 5. 26)
* 부산 기초단체장, 전 국회의원 강경식씨 출마, 기초장, 여・야・무소속 모두 출전 "유일", 시의원, 민주 회사원・주지 공천 경쟁(부산매일 5. 26)
* 지역 발전 앞당길 계기 기대, 아시안 게임 유치 확정 시민 반응 "예상은 했지만 너무 기쁘다"(시보 5. 26)
* "부산 발전 10년 앞당긴다, 아주 경기 유치 파급 효과로 유발 소득 4조5천억원 예상, 신발 등 특화 상품 판촉 제기(시보 5. 26)
* 엄궁에 공동 집・배송 단지 조성, 교통 수요 관리 위한 전담 부서 신설, 도심 교통 체증해소・물류비용 절감 위해(시보 5. 26)
* 연제구 도시 계획 일부 변경, 시 새 청사 주변 37만㎡ 상업 지역으로(시보 5. 26)
* 「해운대 종합 관광 봉사 센터」 준공 임박, 6월 10일 축하 행사 다채롭게 펼쳐, 1층 시민 휴게실・2층 문화 공간・3층 관광 행정실(시보 5. 26)
* 「금샘 사랑방」 주민 교양 강좌, 김기재 시장 「부산 발전 전략 과제」 주제 발표(시보 5. 26)
* 「95방제 훈련」 세부 계획 마련, 사태 수습 능동 대처 능력 배양키 위해 실제 훈련 등 추진(시보 5. 26)
* 마을 공터 등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 1차로 연달까지 32개소 생활 체육 활성화 대중 스포츠 자리잡기 (시보 5. 26)

5. 27
* 엄궁 화훼 공판장 착공, 내년 9월 개장 가든 센터 등 종합 시설 갖춰(시보 6. 2)
* 민자당, 민자 광역의원 후보, 6백64명 확정 발표, 심사기준 능력・도덕성, 부산49・경남77・대구32명 등 (부산매일 5. 27)
* 지방선거 부산・경남 여론은, 부산・경남 민자당 지지도, 민자 22.5% 민주 17.7%순, 부동층 많아 정치 무관심 현상 뚜렷, "무소속 강세 가능" 50% 선…돌풍예고, 부산광역장・경남 기초장 선거에 관심, 지역개발 활성화・주민 복지 향상기대(부산 5. 27)
* 부산시민들, 부산시장 노무현 22.9% 문정수 21.5%, 지자선거 앞으로 한달 부산・경남 지지도 분석, 본사・정음리서치 주민 1천4명 여론조사, "투표 꼭 참여하겠다" 66%(부산 5. 27)

* 인재와 더불어 1세기 새로운 웅비 꿈꾼다, 개교 백돌 준비한창 부산상고・동래여고・봉래국교, 부산상고, 상업고교 대명사로 우뚝, 동래여고, 여성독립운동가의 산실, 봉래국교, 졸업생 3만여명 배출(부산 5. 27)
* 부산지역 청소년, 약물남용 위험수위, 1백명 중 16명…80%는 "중독", 본드・부탄가스 흡입 90%, 범죄・중추신경마비 등 우려(부산매일 5. 27)
* 제2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대전, ~5. 30)(부산교육 5. 27)

5. 28
* 부산, 기장군 영농포기 지주 속출, 시편입 개방기대에 편승, 경지정리 기피 지목「대지」바꾸기 "혈안"(부산매일 5. 28)
* 부산, 시내 간선도로 소통 향상, 녹색교통운동・운영체계 개선 효과, 평균주행 시속 25.4km, 가야・만덕・태종로 등은 만성 체증(부산매일 5. 28)

5. 29
* 광역부산, 새활로 새비전, 아시안게임 호재…무르익는「새부산」, 3조 재원조달 난제 속 국비지원 기대감, 부산시 내달 가덕도 개발계획 용역발주 본격가동, 환경보전 등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국제 5. 29)
* 긴급 해난 구조 시범 훈련, 시 소방 본부 동삼동 앞 해상에서 시범 훈련(시보 6. 2)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공포(제3215호)(부산교육 5. 29)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공포(제3216호)(부산교육 5. 29)

5. 30
* 부산지역, 콜레라 환자 발견, 91년 이후 4년만, 올 들어 전국에서 5명, 현재 격리 치료 중(국제 5. 30)
* 부산, 부산지하철 2호선 공사장 안전 구명,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감전~괘법구간…부산선 처음, 보도 함몰, 대형사고 적신호(부산 5. 30)
* 부산・경남지역, 마산~부산~울산 동남해안, 전국 최악 오염띠 형성, 환경부 94현황조사 구리・아연 등 중금속 최고 12배 검출, 마산 우심・부산 우려 연안으로 분류(부산매일 5. 30)
* 부산, 노동부 안전진단, 지하철 2호선 공사 중지, 부산 감전~괘법구간 함몰현상…대형사고 우려(국제 5. 30)
* 부산시, 공장폐수방류로 낙동강 식수원 오염 가속화, 낙동강 복류수 개발, 땅속 물로 식수활용, 내년 본격 공사(국제 5. 30)
* 부산, 녹산하수처리장 2001년 늑장완공, 바다오염 가속화 우려, 97년 입주 공단 폐수방류 불가피, 설계지연…「임시시설」도 포기(국제 5. 30)
* 부산, 신호 54만평 우선 개발, 부산시 삼성차 조기착공 배려 6월 중 계약, 기반시설 5백억대 축소지원, 어민보상 타결 뒤 분양가 결정(국제 5. 30)
* 부산, 시내버스 횡포극심, 노선단축, 중도회차, 배차소홀, 부산아파트 1시간1대운행…당국선 "캄캄"(국제 5. 30)
* 부산시, 건설행정 "주먹구구", 백양산터널 접속로 뒤늦게 공사중지, 아파트 진입호 연결 몰라, 도시계획 확인 소홀, 공사지연 자초, 절개지 토사 흘러 사고 위험(국제 5. 30)
* 부산, 환경수준 전국최악, 환경부 폐수・차량밀도 등 42개 지표 조사, 부산-「아황산」최고・공원면적 최저, 경남-소음진동 제주와 비교해 20배나, 영남권 전체가 생태환경 열악(부산 5. 30)
* 전국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환경 전국 최저수준, 백점 기준 31.6점…「아황상」심각, 환경부, 수질 등 42개 지표 조사발표(국제 5. 30)
* 교통정책연구실 개소(부산시정 5. 30)

5. 31
* 부산, 꽃-함박꽃 새-동박새 나무-호국정신 일깨우는 곰솔, 수영구 상징물 확정, 광안리바다 등 형상화한 마크도(부산매일 5. 31)
* 부산, 부산시 교통정책연구실 개원, 전문가 8명「계획」・「공학」분담, 교통정책연구개발・교통용역 타당성 평가・교통시책자문・교통중장기계획 조정 등 해결책 적극 모색(부산매일 5. 31)
* 부산지역, 선거 밑 행정 난맥상, 부산 군・구청 사업허가 남발・반려 멋대로, 낚시터운영 무조건 "안 된다", 자연림에 고층아파트 "건축"(부산매일 5. 31)
* 부산, 지하철 공채 매입면제로「형질변경」신청 쇄도, 강서지역 농지황폐화 가속화, 3월 이후만도 32건 허가 14건 협의 중(부산매일 5. 31)
* 부산지역 산업경기, 경기침체 여전, 신발・섬유업 불황주도, 업종별론 석탄・광업 감소율 가장 높아, 생산지수 작년 대비 2.2% 감소(국제 5. 31)
* 부산, 남구-수영구 구청, 잉여금 배분 마찰, 남구의회 7대 3비율 거부 5억원 삭감(국제 5. 31)
* 부산, 첫 노인을 위한「투표 시연회」, 당감동 항도노인대학 개최, 4대 선거절차 복잡, 혼란 방지차원 마련, 용지4장 색깔이 달라 선택 별 어려움 없어(국제 5. 31)
* 부산역사, 부산의 뿌리 동래구지 9월 출간, 1천4백여 쪽 규모방대 지역사 새 지명, 발전과정・전통문화 집대성 3권으로(부산 5. 31)

* 「아시안 게임 준비단」 설치, 시 2003년까지 운영(시보 6. 2)
* 교육 개혁 발표(부산교육 5. 31)

6. 1
* 5백억 부지 활용 방안 관심, 99년 이전 부민동 법조청사, 아파트·쇼핑센터 건립 등 소문 나돌아, 가정법원·소년부 지원 설립 여론 높아(부산 6. 1)
* 부산시, 부산포 축제 홍보물 공모, 오는 10월 5일 부산시민의 날을 전후 해 열리는 「부산포 축제」 포스터 및 마스코트 이름 등 관련 홍보물 현상 공모키로(부산매일 6. 1)
* 건교부, 부산-서울 「컨」 운송 13시간, 서울-미국 항공기운항시간과 같아, 86년에 비해 2배 …체계 재정비 검토키로(국제 6. 1)
* 부산시, 황령산에 세계 최고 전망탑, 아주게임 대비 98년 완공 추진, 해발 6백m 높이종합 전파탑도(부산 6. 1)
* 부산시, 황령산에 세계 최고 전망탑, 98년 완공 추진, 지상 2배·해발 6백m 높이, 상부에 종합 전파타워도 설치(부산매일 6. 1)
* 부산진구청, 기부 받은 10억 주차 빌딩 방치, "주는 떡도 못 먹나", 유원오피스텔로부터 주차 빌딩 기부채납 받고도 "수요 적고 관리비 만든다" 포기(국제 6. 1)
* 부부쌍방에 귀책사유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는 판결(94르311)(법원사 6. 1)

6. 2
* 지사과학단지 지지부진, 대구·광주는 대기업 입주 예정 …조성 가시화, 단견 행정에 규모축소 수모, 재원 없어 6년째 제자리에(부산 6. 2)
* 부산항 「컨」 부두 "숨통", 3월 이후 체선율 감소 추세, 콤바인 수송 허용 등 "효과", 선박 대기 평균 3.1시간으로 개선(부산매일 6. 2)
* 수영로 일대 교통마비 우려, 부산 수비 CY증설 파문, 「컨」 차량 하루 1천대 추가 통행, 하반기 지하철 공사도 맞물려(부산매일 6. 2)
* 도심에 초대형 판매·업무시설 "우후죽순" 교통대란 불 보듯, 소통책 없이 허가만 남발, 영향 평가·건축 심의는 "면책절차"(부산매일 6. 2)
* 부산역, 「고객과 만남의 날」 행사, 지난 달 25일 1시간여 동안 부산 부산진구 부전 2동 태화쇼핑앞 등 서면 일대에서 「고객과 만남의 날」 가두 캠페인 벌여, 내년 공사화 대비 "경영 혁신" 홍보(국제 6. 2)
* 부산상의 조사, 부산 법인 실설 활발, 국내 경기 활황에 힘입어, 5백74개 사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8.7% 늘어(부산 6. 2)
* 부산시, 보육시설 희망자 16억원 지원, 백50평 이상 소유·확보 가능해야 …10일까지 접수(부산 6. 2)
* 해운항만청, 제2부산대교 건설 표류, 암남영선동 해안청 인공섬 유보 따라 허가 않아, 공작물설치 허가 신청 반려(부산 6. 2)
* 부산시의회, 초대 부산시의회 4년 의정 마감, 2일 오후 제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 안건을 원안 또는 수정가결하고 폐회(부산매일 6. 3)
* 교통 행정 연구 기능 활성화, 시 「교통 정책 연구실」 개소 중·장기 계획 추진(시보 6. 2)
* 아시안 게임 정부 차원 적극 지원, 홍 부총리 부산 상공인과 만나 밝혀(시보 6. 2)
* 시민의 참여가 관건, 부산 아시안 게임 추진으로 부산지역 경제 등 큰 발전 기대(시보 6. 2)
* 지방 자치제의 기틀 다져, 초대 부산시의회 결산에서 회기 4백일 동안 6백여 안이 처리(시보 6. 2)
* 분규요인 사전 해소 노·사·정 간담회 개최, 동구·연제구·노사 대표 초청 건전 협약 유도(시보 6. 2)
* 부산 지역 첫 콜레라 환자 발견, 시 태국에서 입국한 30대 격리 수용 동남아 여행 자제·개인 위생 철저 당부(시보 6. 2)
* 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 동시 뽑아, 부재자 신고는 6월 5일부터 5일간, 선거인 명부 6월 10일~12일 확인토록(시보 6. 2)
* 긴급 사태 대비 비상 수송 대책 마련, 시 지하철 시설 테러·사고 발생 때(시보 6. 2)
* 「녹색교통 운동」 캠페인, 시 전역에서 실천 분위기 확산(시보 6. 2)
* 「농산물 수집상 등록제」 실시, 세제상 불이익 최소화 등 대책 마련하고 수급 조절 품목 취급할 땐 선도금 등 적극 지원(시보 6. 2)
* 황령산에 「뉴 부산타워」, 시 세계 최고 해발 600M 상부 전파탑을 98년 완공 목표로(시보 6. 2)
* 기장 지역 시내 버스 노선 조정, 1일부터 마을버스 대체·증차 보강 주민 불편 해소 중점(시보 6. 2)
* 초대 부산 시의회 의정 마감, 제43회 임시회 끝내고 폐회연 가져(시보 6. 9)

6. 3
* 지방선거 현장<D-24>, 문-노 TV토론, 인터뷰 형식 합의, 민자-자체여론조사 문 후보 선두 나서, 노 후보-현장방문 완료 사조직 총 점검, 시의회 본회의장 분위기 "서먹", 민자 비례대표 공천 잡음 진통(부산 6. 3)

* 부산시 청소시설 일손 부족, 직원 5명서 매립장・소각장 7곳 맡아, 생곡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 본격 착수돼 차기 매립장선정 시급하나 인력부족으로 차질(부산 6. 3)
* 부산시, 대형 건축공사장이 도심공기 더럽힌다, 「먼지날림」 방지시설 않고 공사 강행, 20여 곳 고발 등 조치(부산매일 6. 3)
* 동래구청, 간이 쓰레기 수집소 운영, 맞벌이・직장인 편의와 쓰레기종량제 활성화 위해 주유소・대형주차장 등 20곳에 설치(부산매일 6. 3)
* 「부산 국제관광전」 해외자원 홍보 치중, 「내것」 알리기는 외면 "남 좋은 일 시킨다", 행사준비도 소홀 지역업체 참가 2곳뿐(부산매일 6. 3)
* 동래구청, "「사무착오」 보상 해드립니다", 민원인에게 현금 등 지급, 내달부터 도입 행정 신뢰도 제고(부산매일 6. 3)
* 시기구 개편안 의회제동 의미, 커지는 「부산 목소리」, 지역 무시한 중앙 간섭배제의지, "대통령 예시 규정 강제력 없다"(국제 6. 3)
* 100자 현안 부산 시장 후보에 듣는다, 치밀한 계획-국가적 지원, 민자당 문정수 후보-사회 간접 자본에 집중투자, 민주당 노무현 후보-부채 등 대회 후유증 최소화(국제 6. 3)
* 부산・경남 신흥 무소속후보 강세 전망, 기초장・광역의회 「동지회」 결성 움직임, 선거판도 최대 변수(부산 6. 3)
* 토개공, 녹산 공단 내 7만평 고시 해제, 보상비・집단 민원 원인 … 무분별 개발 우려, 진해시 용원 매립지역 일대(부산 6. 3)
* 부산 2개 교육청 신설, 기업체 입사 시험 폐지 권유, 생활기록부 양식 12월 확정, 54개교 설립 특별 교부금 4,779억 지원(부산 6. 3)
* 해운대 신시가지 입구 우 2터널 무리한 발파 천장 붕괴, 암석・토사 1천여t 낙하, 토압 상승 연쇄 사고 우려, 시공업체・시 안전조치 외면(부산 6. 3)
* 수대-공업대 통합 작업진전, 일반종합대 청사진가시화, 해양・공업 전문분야 시설 이용 극대, 교육령개정・학내외 여론수렴 등 걸림돌 산적, 경쟁력 확보 대학가 지각 변동 예상(부산 6. 3)
* 6・27 선거 기류 D-24, 조직・홍보 등 선거 귀재 총집결, 부산시장 선거참모 누가 뛰고 있나, 문후보 - 「중앙동」 캠프 직계・운동권 출신 포진, 배갑상・김탁영씨 등 핵심 「문심」 대변, 노후보-재야 청년조직・사설연구소 등 주축, 권영대씨 등 30대 중심 "일당백 진용"(부산 6. 3)

6. 4
* 부산 영어 표기는 「Pusan」이라야, 부산대 언어학과 조두상 교수 주장, 84년 확정 …외무부만 「Busan」 고집, "고쳐야" 건의불구 "번거롭다" 방치, 10여년째 통일 안 돼 외국인들 "헷갈려"(부산매일 6. 4)
* 해운대・북부 교육청 신설, 초중고 54곳 설립 예산 4,700억 지원, 지업 입사 필기 시험폐지 유도, 학부모 학교감시 기능도 강화(부산매일 6. 4)

6. 5
* 부산경상, 시립대 전환 추진, 국제정보・통신 등 10~15개과 특수대 계획, "관계부처와 협의 중" 동창회장 밝혀(부산 6. 5)
* 시의회, 부산시 기구 개편안 보류, "신중 검토 필요" 본회 상정 유보, 민선시장이 결정해야 마땅, 내무부 일방적 지침에 반기(부산 6. 5)
* 시・해항청 잦은 행정 마찰, 예산낭비・건설사업 차질, 제2부산대교・「감천항」 등 이견, 가덕도 종합개발도 "따로따로", 항만시설권한 지방 정부 이전 시급(부산 6. 5)
* "지구촌 물류 중심기지" 「선진 부산항」 21세기 새 도전, 신항만 개발 …첨단 시설・친수 공간 확보, 「체증항」 오명 씻고 지정학적 이점 살려야(국제 6. 5)
* 경남・부산 기초단체장 출사표<1>, 지역현안 부각 표밭 다지기 온힘, 서구-전직 구청장・비여당 후보 등 3파전, 창원-다양한 출신 후보들 "필승" 고군분투(부산 6. 5)
* 지방선거 현장<D-22>, 「문-노-김」 사직 조우 장외 열전, 대구 참사 희생자 아버지 시의원 출마선언 "눈길"(부산 6. 5)
* 아시안게임준비단 설치(부산시정 6. 5)

6. 6
* 부산 송정 주민 70여명 집단 설사, 수돗물 마신 뒤 3일째 …수인성 전염병 추정, 당국 기급 진상조사 나서(부산매일 6. 6)
* "억울한 세금 300억 낼판", 화명 2지구 지주들 시・도개공 "비난", 사업 승인 늦게 신청 법 개정 끝나, 공영개발용 양도세 면제 못 받아(부산매일 6. 6)
* 부산항 8부두 미군 2개 선석 7월께 민간 개방, 안전점검 등 세부안 협의 후 조인 예정, 체선・체화난 해소 "숨통", 해항청-미8군 실무자 회의(부산매일 6. 6)

* 6・27설문 조사<상>, 정당지지 민자 18%・민주 12%, 문・노후보 나이별 지지 차이 현격, 문 북구 사하・노 동래 금정서 우세, 후보선택 기준 행정력・도덕성 순(국제 6. 6)
* 부산~나진 정기항로 개설, 북-나진・선봉지구 한국인 무비자 허용, 28일부터「컨」세월 2회 운항(부산 6. 6)
* 선관위 인력 확충 급하다, 부산 각 구청 업무 폭주 휴일도 반납, 불법 행위 단속 엄두 못 내(부산 6. 6)
* 제40회 현충일 추념식, 대청공원 충혼탑에서 거행(시보 6. 9)
* 국제 어린이 백일장(부산교육 6. 6)

6. 7
* 지방선거 현장 <D-20>, 김현옥씨 막판 합류 여야 '희비', 김후보 캠프 문-노 TV회견 중단촉구 성명, 민주후원회 후원금 광고「실탄 보태기」총력(부산 6. 7)
* "지하철 국고 증액 필요" 한 목소리, 지역 경제 회생・시 빚청산 등 방법은 달라, 본지 부산시장 후보 문정수・노무현씨 특별회견(부산매일 6. 7)
* 자치구 재정자립 시급, 세입 52%시 교부금・보조금 의존, 일선구청-시 세금을 구 세금으로 이전 희망(부산매일 6. 7)
* 대구 위천 이어 안동 공단 추진 부산・경남 또 "식수 공포", 낙동강 상류 백만평 규모 조성, "식수원 오염" 주민반발 불보듯(국제 6. 7)
* 가덕도 국제 물류 단지 조성, 부산발전시스템 경제 종합대책 연구 용역 중간 발표, 4대 첨단산업 중심 육성, 항만시설 확충 중추기능 확보 필요(부산 6. 7)
* 위천만 매립 진통, 부산시-문화 휴식 공간 조성, 주민-해안 생태계 파괴 우려, 환경부도 "수질 오염" 들어 소극적(부산매일 6. 7)
* 부산시「그린플랜」추진, 아주대회 계기「21세기 녹색도시」박차, 도심 녹지화・전산관리 체계 구속, 환경지표 설정・조례제정(국제 6. 7)
* 부산 시장 후보 특별회원 민주 노무현, 시정개혁 최선 …대통령과도 협의, 공정한 인사・격의 없는 대화 솔선, 정책자문위 구성 현안 해결 주력, 지하철 부채 국가가 갚는 게 당연, 기업 활동 지원 시스템 만들겠다(부산매일 6. 7)
* 완벽한 선거 관리 사무 집행, 김시장 주재, 확대 간부회의(시보 6. 9)

6. 8
* 지하철 2호선 서면~해운대 구간 공사비 가뭄 개통 지연, 시비 확보 차질 국고 지원 늑장, 3호선 지장 …체증 장기화 우려(부산 6. 8)
* 부산・경남 기초장 격전 주자들, 수영구 2만여 부동표 향방이 승패 좌우, 남구-소외감 누적 서민층 파고들기, 사천시-통합여파 지역대결 구도 전망 후보 유동적 …3~4명 출마 할 듯(부산 6. 8)
* 지방선거 현장<D-19>, 김현옥씨 안 전시장 영입 '안간힘', 해운대 시의원공천「금품세」제기진통, 문후보 출판 기념회장출정식방불, 노후보「재산신고서」공개 루머 봉쇄(부산 6. 8)
*「하얄리아」이전 적극 추진, 김대통령 부산 방문 정부 미8군과 직접 협의, 아주대회 특별법 연내 제정, 가덕개발 등 현안 해결 지원(부산 6. 8)
* 지지 노무현・당선가능 문정수, 지자 선거 부산・경남 단체장 설문, 부산 부동표 58.2% 선거 주요 변수, 경남 김혁규 후보 당선・지지율 선두(국제 6. 8)
*「아주경기지원 특별법」제정, 김대통령 부산시 방문해서 아시안 게임 준비 상황 보고 받아(시보 6. 9)
* 金泳三대통령 부산방문(부산시정 6. 8)

6. 9
* 김대통령 급거 내부 의미, 부산 발전 위한 "획기적 보따리", 아시아드 지원・수비 이전 선물, 예정 없던 행보 선거용 시각도(부산매일 6. 9)
* 본사・정음리서치, 부산시장 선거 여론 조사, 부동층 52.4%, 노무현 21.4% 문정수 20.7% 접전, "구청장 후보 모른다" 59.6%(부산 6. 9)
* 수비 5만평 연내 이전, 부산시 행정절차개시 나머지 30만평 대체부지 내년 6월 마련, 하얄리아 12만평 아시아드 테마 공원 조성(부산 6. 9)
* 부산시장 후보 방송 3사 초청회견 요지, 민자 문성수-「인공섬」여론 재수렴 …시 주도로항만 개발, "교통난 해소・맑은 물 공급 역점", 민주 노무현-행정개혁 중심 현안해결 …갈등은 대화로, "인사혁신 단행・서민 편익 우선"(부산 6. 9)
* 부산시장・구청장선거여론 회방은 본사-정음리서치 제2차 전화 설문조사, 후보선택요건 부산 발전 기대 54.6%, 부동층 상당수 "선거 전날・당일 결정", "반드시 투표" 82.4% …남성・40대 높아, 문후보 중・북・사상・금정구, 노후보 동・남・동래・해운대구 우세(부산 6. 9)

* 부산시 동사무소 주임수당 전액 삭감, 하위직 사기저하 “가속”, “책임만 있고 혜택은 없다” 불만 고조, 국장급 이상 크게 올려 대조(부산매일 6. 9)
* “「수비」 부산에 환원” 내부 김대통령 밝혀 국방부에 이미 지시, 아주 대회지원특별법도 제정, 하얄리아 이전 정부 차원 추진(부산매일 6. 9)
* 시유지 1천억원대 매각, 부산 지자체 출범・현안사업 재원 마련 위해, 미사용 땅・영세민 점용지부터 처분(부산매일 6. 9)
* 효도관광・경로잔치 출마자 이름 알리기 “극성”, 지역단체 주최로 …「불법」 적발 어려워(부산매일 6. 9)
* 수비 부산시로 이관, 김대통령 내부 아시아드지원 특별법제정, 「하얄리아」 선수촌・공원으로, 주경기장 사직・대저동 검토(부산경제 6. 9)
* 재원조달 청사진 마련, 아시아드 준비 본궤도 오른다, 김대통령 “부산 21c 대비 적극지원”, 미 하얄리아부대 이전 정부서 “직접”(부산경제 6. 9)
* 해운대・광안리 피서철 문화행사 “다채”, 해운대-해상 영화・이동 박물관 준비, 광안리-민속・춤 공연에 문학 강좌도(부산매일 6. 9)
* 부산시장후보 특별 회견, 민주 문정수-인공섬 여론 다시 수렴 결정, 외부청탁 배격・객관적인 인사 실현, 민주 노무현-항만관리권부산이전 노력, 아시아드 시 장기발전과 연계 추진(부산매일 6. 9)
* 중국 연태시 동아시아 수출입 교역회, 부산 8개사 참가 시장 개척 등 기대(시보 6. 9)
* 시정 동정, 시장「투우 판화전」 개막식 첨석 외 2건(시보 6. 9)
* 부산시, 인사 국제 대회 지원 준비단 단장 임명 외 31건(시보 6. 9)
* 시민의 능동적 참여 유도, 95「생활 개혁」 상반기 추진 상황, 단속 취약 지역 등 위반 사례 여전, 현장 학습 통한 실천적 교육 필요(시보 6. 9)
* 소규모 건축 폐기물 반입 허용, 집수리 등 5ℓ을숙도 매립장에(시보 6. 9)
* 2002년 아시안 게임 대비, 동래구 도시색채 환경 개선 추진(시보 6. 9)
* 아주 경기 조직회 9월 출범, 기획 등 8개 부서로 사무처 구성되며 대회 플랜 마련과 8월 중「준비단」 가동 예정(시보 6. 9)
*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 장마 대비 9월 말까지 방역 소독 등 강화(시보 6. 9)
* 유권자 2백66만명 4대 선거 잠정 집계, 부산시 유권자는 모두 2백66만7천2백14명으로 잠정 집계(시보 6. 9)
* 새마을 방역단 발대,「전염병 없는 부산」 다짐(시보 6. 9)
* 불수사용료 체납금 특별 징수, 1차로 7월말까지 고액・상습 체납 중점(시보 6. 9)
* 부산시민 축하 큰 잔치, 9일 오후 사직 운동장 아시아 경기 유치 성공 자축(시보 6. 9)
* 6월은「농촌 일손 돕기의 달」 시 구청에 창구 설치(시보 6. 9)
* 선거 우편물 특별 수송, 시 체신청과 협조(시보 6. 9)
* 청소차 위생 상태 집중 단속키로, 일부 청소차 불결하다는 여론에 따라 집중 단속(시보 6. 9)
*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조사, 시 환경부와 합동 1~3종 대상 정밀 조사(시보 6. 9)
* 출근 낮 시간대 차량 속도 비슷, 교통 체증으로 도심지와 외곽지역・출근시간과 낮 시간대의 차량 속도 비슷(시보 6. 9)
* 곳곳서 환경 보전 행사 “다양”, 제23회 환경의 날 맞아 푸른 바다 가꾸기 캠페인 등 열려(시보 6. 9)
* 국토 대 청결 운동 실시, 3일 시 전역서 5만여명 찾기(시보 6. 9)
* 인사, 중구 5급 승진 6건 외 다수(시보 6. 9)
*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부산유치 시민축하큰잔치(부산시정 6. 9)

6. 10
* 부산・경남 기초단체장 격전 주자들, 북구-민자 10년 아성에 시민후보 도전, 사상구-지역 개발・책임 행정 구현 표방, 김해-공천 탈락 무소속 4명 치열한 추격전(부산 6. 10)
* 횡령산 훼손 “해도 너무 한다”, 시민들 반발 …개발 저지 운동 확산, “녹지・경관 훼손 가속”, 온천 유원지・전망탑 등 재검토 촉구(부산 6. 10)
* 기초의회 누가 뛰나<15>, 기장군-시편입 발전 기대 수용 여부 “관건”, 정관면-행정경험 대 개발실무 “맞대결”, 기장읍-3석 놓고 8명 출마 불꽃 경쟁(부산매일 6. 10)
* 지방선거전 내일 본격 돌입, 이틀 동안 후보등록 부사구청장 경쟁률 4~5대 1 예상(부산 6. 10)
* 대학가 선거참여 달라졌다, 후보자 초청 강연・설문조사・토론회 등 다채(부산매일 6. 10)
* 부산 국세 징수 호조, 경기회복으로 부가・소득세 늘어, 4월말 현재 8천80억 거둬(부산경제 6. 10)

6. 11 * 수비 개발 본궤도 오른다, 이전협약 월말 체결 내달 고도제한 해제, 종합전시장 연말께 착공, 텔레포트 등 정보단지 조성 본격화(부산국제 6. 11)
* 남구 초현대식 공공 도서관 선다, 4층 규모 내년 12월 완공, 점자・컴퓨터 등 천5백석 열람실 갖춰(부산매일 6. 11)
* 초・중・고 월반제 시행, 평가시험 거쳐 진급・조기 졸업, 올 2학기부터 시행(부산매일 6. 11)
* 선거 운동 막 올랐다, 시장 4대 1・구청장 3대 1선, 대검「불법」4백17명 내사 중, 오늘부터 후보등록 개인 유세 등 본격 활동 나서(부산매일 6. 11)
* 민주 부산지구「선대위」현판식, 본격 선거체제 돌입 부산 4대 후보 26명 사실상 확정(부산매일 6. 11)
* 민자 문정수 후보공약 분석, 여당 프리미엄 붙인 "장미빛 약속", 동북아 거점화에 역점 "초대형", 구체안 없고 장기성 실현 의문(부산매일 6. 11)

6. 13 * 부산 시장 4대 1, 4대 선거 후보등록 마감 구청장은 3대 1, 시의원 2.3대 1 구・군 의원 2.2대 1, 경남 지사 2대 1 시장・군수 4.4대 1(부산매일 6. 13)
* 부산 국교생 1천여명 매일 점심 굶는다, 급식비 하루 6백50~1천5백원 불과, 지원비 현실화 등 대책 시급, 비급식 학교생 60%나 차지(부산매일 6. 13)
* 부산・경남 6・27 표밭 현장 D-14, 빗속 야간 유세 …득표전 치열, 울산시장 후보 5명 제일중 동문, 무투표 낙관 사상 지역 이재우씨 전격 출마, 거제 기초의원 백부-조카 91년 이어 재격돌(국제 6. 13)
* 부산시의원 12명 첫 무투표 당선, 부산・경남 기초・광역의원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단독 입후보 선거구 많아 무투표 당선자 봇물, 정수 21.8% 경남 도의원 7・시군의원 35명 확정(국제 6. 13)
* 6・27 선거 D-14, 기초장 선거 무소속 강세, 후보등록 마감 부산시장 4대 1・경남지사 2대 1(부산 6. 13)
* 6・27 선거 D-14, 새벽시장서 간선도로서 …빗속 강행군, 부산시장・경남지사 후보캠프, 문민자-"복합 교통 타운" 공약, 김・배 후보- 오토바이 구입・가족 동원 득효 총력전, 노민주-로고송 유세, 김민자-"지사 능력 검증" 경륜 앞세워 지지 호소(부산 6. 13)
* 6・27 표밭 현장 D-14 후보 분석, 무소속 강세 …정당 대결 퇴색, 경남-평균 4대・시도 의원 대폭 물갈이 예상, 부산-단체장 공천 탈락자 무소속 반 넘어 눈길(국제 6. 13)

6. 14 * 서구청, 재활용품「교환권제」시행, 복권식 제작 상품권・전화카드 등 지급, "쓰레기 선별 수거 활성" 기대(부산매일 6. 14)
* 6・27 선거 D-13, 지방 선거전 중반 돌입, 여야・무소속 후보들 연설회 개최 본격 세몰이 나서(부산 6. 14)
* 삼성차 부지 평당 60만원선, 계약 체결 신호・녹산에 2백만평 추가 매립(부산경제 6. 14)
* 부산의 국제화 방안 제시 관심, 아시아드 유치위 박경한 처장「선진화 보고서」제출, 트레일러 화물차량 모두 야간운행, 버스번호판 지역별 고유번호 매기기, 관광지마다 자동 통역 헤드폰 비치(국제 6. 14)
* 부산시・해항청, 영도~감만동 현수교 건설, 민자 유치 1.5㎞ 왕복 8차선 규모, 재정난으로「해저터널」계획 변경, 공사금액 3천억원 소요 예상, 제2부산대교 접속로 곧 착공(국제 6. 14)
* 음악 전문 잡지 부산 첫 창간,「월간 메소드」…매월 15일 발행, 공연 비평・음악 소식 등 담아(부산매일 6. 14)
* 부산시, 수비인수・하얄리아 이전・가덕도 개발 "현안 조속 매듭", 민선시장 출범 이전 사업 바탕 마련, 국방부 등에 적극 요청(부산매일 6. 14)
* 어린이회관, 학생 과학 발명품 대회 전시회 및 시상식「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학부모 연수회(부산교육 6. 14)

6. 15 * 건교부, 동래구-동구 연결 19.25㎞ 금정터널 하반기 착공, 초량터널 13.71㎞도, 경부고속로 우선 공사 확정(부산 6. 15)
* 부산시・해항청, 영도~감만동 현수교 건설, 왕복 8차선 …민자 유치 99년 완공, 제2부산대교 접속로 연내 착공(부산경제 6. 15)
* 4대 선거「사표」홍수 우려, 유권자 누가 무슨 후보인지 잘 몰라, 구마다 평균 12명씩 입후보, 공약 판단커녕 이름도 못 외울판(부산매일 6. 15)
* 부산시 잇단 대형 사업 발표, 영도~감만 해저터널 현수교 변경, 제2부산대교 접속도로부터 착수, 녹산・신호 공단 대규모 추가 매립, 선거 및「공약」후보와 덩달아 선심 남발(부산매일 6. 15)
* 6・27 선거 D-12, 부산 시장 선거 혼탁 조짐, "무책임 비판" "낙하산식 공천" 공방, 부동표 잡기 안간힘, 여야 후보 인신공격성 상호 비난전 가열(부산 6. 15)
* 황령터널 개통, 1천4백억 투입 동서 고가로와 연결(국제 6. 15)

* 6·27 후보전략 D-12 부산·경남 단체장·의원 당선작전, 금정「마당발」싸움·동래 "느긋", 3선거구 4명 출사표 최대격전지 예고, 1·2선거구 무투표 당선 불구 발전 다짐(국제 6. 15)
* 「황령산 터널」15일 개통, 제1·2도시고속도로와 항만 배후 도로 연결 부산 새 동서 교통축 형성(시보 6. 16)
* 황령터널 개통(부산시정 6. 15)

6. 16
* 「자동차 테크노센터」발족, 2000년대 부산·경남 핵심 특화 사업 육성, 부산대 본부·울산·창원대에 분소(시보 6. 16)
* 부산시「마스코트」등 최종 결정, 도시 이미지 통일화 계획(CIP)용역 보고(시보 6. 16)
* 수비행장 이전 가시화, 시 대체지 선정 등 박차(시보 6. 16)
* 주민 등록증 재발급, 19일부터 25일까지 지방 선거 투표로 인해 재발급(시보 6. 16)
* 시정 동정, 시장-한국여성유권자 연맹 부산지부 9주년 기념식 참석 외 1건(시보 6. 16)
* 아시안 게임 유치 시민 잔치, 대회 유치 공로자도 표창(시보 6. 16)
* "부산을 국제 업무 거점 도시로", 항만 관련 산업 육성, 가덕도 신항만 개발 핵심(시보 6. 16)
* 「부산 광복 길놀이」세부 계획 확정, 광복 50주년 기념 부산·서울서 잇달아 개최, 아리랑 축제·문화 장터 등 연계 행사도 다채(시보 6. 16)
* 부지·노폭·접도 거리 등 일부 개장, 부산시 주유소 허가 기준 개정(시보 6. 16)
* 인사, <부산진구> 과장 임명 외 다수(시보 6. 16)
* 종합 환경 감시 체제 본격 추진, 2002 아시안 게임 대비 96년에는 보건 환경원에 센터 설치, 97년에는 4곳 수질 자동 측정소 설치(시보 6. 16)
* 부산「그린」아시아드로 추진, 2002년 아시아 경기 녹화 사업·공원 확충, 98년까지 2백억원 투입(시보 6. 16)
* 금정터널 하반기 착공, 고속철도 4개 장대 터널 우선 건설, 동래구~부산진역 연결 19.25㎞(부산경제 6. 16)
* 91 광역·기초 의원 당선자들 상당수 부풀린 학력 들통, 부산지역 재출마자 백여명 낮추거나 수정 등록(부산매일 6. 16)
* 선거 분위기 옛날 같잖다, 유세장 청중 안모여 "썰렁", 개인연설회 잇따라 취소, 핫이슈 없고 언론 홍보 큰 영향(부산매일 6. 16)
* 부산시,「출금」풀린 해안명소 사장, 3년째 개발1정비 계획조차 안 세워, 동백섬·청사포 등 1백63만평 방치(부산매일 6. 16)
* 여야 시장선거 전략 대폭 수정, "발로 뛰면 표가 있나니" 새 바람, 문후보-골목길 누비며 악수 나누기, 노후보-시 중심가서 즉석 토론 주력(부산매일 6. 16)
* 합동 유세 주말 중복 유권자 혼란, 부산·경남 전체 80% 안팎 집중 …연설회 청취 제안(부산경제 6. 16)
* 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의문, 부산진구청 동향 보고 파문, 유세방법·전략 구체적 제시,「경기도 파문」재현(부산 6. 16)
* 김대중씨「선거 개입」시비 확산, 부산시장 선거 새 변수, 여-"국민 우롱" 유세전 호재 활용, 야-악재우려 DJ 지원 중단 촉구(국제 6. 16)
* 부산시 선관위, 지방의원후보 전문성 결여, 후보직업 분석 의사·교사 등 광역 11%·기초 9% 불과 의정활동 역기능 우려(국제 6. 16)
* 수비일대 7월 중 고도제한 해제, 1천1백60만평 대저·송정동 이전 시·국방부 16일 전격 합의(부산 6. 17)

6. 17
* "수비 고도제한 내달 해제", 김시장 간담회 이관협약 이달 체결 합의, 종합 전시장 부지 우선 이용, 국방부「하얄리아」조기 반환 확약(국제 6. 17)
* 정부, 다대포항 개발 10월 착공, 방파제 공사부터 …8월 공개 경쟁 입찰 통해 시공업체 선정키로(부산경제 6. 17)
* 「선거동향」부산시가 지시, 유세장 청중수·반응 총평가까지, 구청 직원들도 반발, 서식 제시 보고 받아(부산매일 6. 17)
* 시장출마 4후보 TV 토론, "부산 발전 내가 적임" 사구동성, 문후보-최대한의 중앙 지원 따오겠다, 노후보-공정한 인사로 공무원에 "사기", 김후보-낙동강 등 천혜의 자원 개발해야, 배후보-정치와 무관한 행정 살림꾼 될터(부산매일 6. 17)
* 부산시·국방부,「하얄리아」98년 이전, 김해 인근 수비 고도제한 이달 말 해제 확정(국제 6. 17)
* 부산시·해항청, 해운대~중앙동 해상 교통 활성화,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 대비 페리 야간 운행 허용, 오륙도 유람선 출퇴근 시간대 투입(부산매일 6. 17)

* 「바다 버스」 활성화 표류, 도심교통난 완화・지하철 2호선 2단계 착공에 따른 수영로 우회로 확보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다 버스가 동백선착장 신축 지연과 노선버스 연계・셔틀버스 운행 난항으로 표류(부산 6. 17)
* 부산시, 돈 안 쓰기・비방 자제・정책 대결 입후보자들 "공명" 다짐, "시정 30대 과제 지지" 45명 서명, "불법・타락 선거 추방" 62명 서약, 감시원 서로 파견 제안도(부산매일 6. 17)
* 검찰・경찰, 진구청 「관권 개입」 본격 수사, 동향보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 총무국장・담당 직원 소환 조사, 작성경위 추적 사법 처리키로, 시민단체 규탄 빗발(부산 6. 17)
* 수비 고도제한 7월 전면 해제 부지 이달 중 부산시로 이전, 50만 주민 재산권 완전 복원, 김기재 시장-국방부 합의(부산매일 6. 17)
* 「동향보고」 의문 증폭, 보고서 작성지시는 누가했나, 부산진구청에만 있었을까, 연설 정밀분석・여론조사, 별도 문건 구청장에 전달, 당국 신속대응 …특정후보 연루 초점(부산 6. 17)
* 부산시장 후보 TV토론 "활발", 부산 3사 16일~18일 방영, "안방표 공략 최대 접전장", 정책・자질 등 검증대 활용(부산매일 6. 17)
* 황룡터널 졸속 개통 "부작용", 신호등・육교 없어 …접속로 「병목」 심각, 체증 무방비・윤화 속출(부산 6. 17)
* 부산시, 부산진구청장 직위 해제, 후보자 동향보고서 작성 물의(부산 6. 17)

6. 18
* 국토 개발 부산 박대 여전, 신공항 건설 등 대형 사업 제외, 수도권 대응 거점 육성은 "말로만", 3차 계획 수정・보완 작업 지역 형편・여론 반영 안 돼(부산매일 6. 18)
* 금정구청, 금정산 일대 건물 고도 제한을, 청룡~장전동 간 2.5㎞ 시에 건의(부산매일 6. 18)
* 독학 학위 취득 2단계 시험(부산교육 6. 18)

6. 19
* 연철~동천3거리・1부두~신선대부두, 우암로와 연계 시켜야, 부발연 연구결과 8부두 구간 건설 가장 시급, 접속로 없어 체증 유발(부산 6. 19)
* 검찰, 부산 후보 60명이 전과자, 자격심사 결과 통보, 2명은 피선거권 없어, 폭력 등 24번 입건자도(부산 6. 19)
* 부산 시장 선거 대세 굳히기 돌입, TV 연설 등 통해 이미지 부각 주력, 문후보-부산발전론, 노후보-서민 시장론 대결, 이번 주 당락 최대 고비(부산 6. 19)
* 유권자 "성숙" 후보는 "구태", 「6・27」 첫 주말 합동유세 단상단하 대조, 유권자-참여 높고 연설 경청 차분, 후보자-박수부대 동원・인신공격(부산 6. 19)
* 인신공격 …상호비방 …김빼기 작전, 첫 합동 유세 "얼룩", "날강도" "까분다" 극언 일삼아, 유권자 열기 없고 분위기 차분(국제 6. 19)
* 선거 틈타 풍치지구가 아파트 숲으로, 부산시 녹지훼손 "앞장", 다대 일대 15만여평 주거지로 고지, 수목 5만그루 사라질판(국제 6. 19)
* 부산지검, 부산 지자 후보 60명이 전과자, 전과자 조회 결과 강간・절도 등 파렴치범 포함, "피선거권 없는 2명 등록 무효"(국제 6. 19)

6. 20
* 교통난 해결 최우선 과제 설정, 부산시장 후보 공약 쟁점 분석, 문정수-지하철 조기완공 등 시설 확충 역점, 노무현-버스 노선 재조정 등 수요 억제 강조(부산매일 6. 20)
* 부산 지방세 5배 중과 폐지, 7월 중 대도시 종교용 부동산 등록세 비과세(부산매일 6. 20)
* "민선시장 나오면 해결하자" 부산시 현안처리 중단, "무소신・무책임" 주민 반발, 용호 농장・남천만 문제 등 검토 외면(부산매일 6. 20)
* 부산 대기 오염 심화, 오존농도 등 크게 악화 …시민 건강 위협(부산매일 6. 20)
* 지방 선거 타락・혼탁일로, 비방 유인물・기물 파손・심야 협박 전화까지, 정책대결보다 인신공격・흑색 선전(부산매일 6. 20)
* 6・27 선거 D-7, 문후보-20대・노후보-여성・김후보-젊은 층, 취약층 공략 본격화, 부산・경남 대세 잡기 치열(부산 6. 20)

6. 21
* 전화 유세 "짜증난다", 후보자들 시도 때도 없이 지지호소, 한밤・새벽 잠 설치기 예사, 특정 후보 자처 음해성 전화질도(부산매일 6. 21)
* 구청 공무원 선거 휩쓸려 "편싸움", 부산 전구청장 등 특정후보지지 대립・반목, 6월 27일 이후 심각한 후유증 우려(부산매일 6. 21)
* 구청장 선거 "혼전", 민자-일방 우세 예상깨고 무소속 맹위, 민자-"10곳 강세 …취약지 막판 공략", 무소속 -"10곳 강・백중 …초반세 굳히기"(부산매일 6. 21)
* 보훈의 달 1회성 행사만 "요란", 관련단체 서럽다, 호국정신 계승 "빈말", 회관조차 제대로 없어 "더부살이" (부산매일 6. 21)

* 기초의원 후보 유세 청중들이 안 몰린다, 벽보만 보고 투표할 판, 「광역」에 가려 "누가 누군지 솔직히 몰라" (부산매일 6. 21)
* 부산지역 후보 72%가 전과자, 부산시 선관위가 부산지검에 의뢰해 조회, 5범 이상 15% …2명은 피선거권 없어(부산매일 6. 21)

6. 22
* 교통・관광・주차 등 6개 분야 민자 유치 사업 24개 선정, 2002년 아주게임 전 완료, 부산발전연구원 용역 중간보고(부산매일 6. 22)
* 자연사 박물관 부산에도 세워야, 청소년들 생태계・국토 변화 연구 산 교육장 활용…영도 해양박물관 부지에 들어서야(국제 6. 22)

6. 23
* 부산~나진 정기직항로 개설, 한국특수선・북해양무역 대표 합의, 이르면 9월부터 운항, 남북화해 조성 땐 국적선 투입 계획도(부산 6. 23)
* 남북항로 국적선 첫 "고동", 분단 40여년만에 역사적 북 입항, "본격 운항 물꼬" 큰 기대(부산매일 6. 23)
* 쌀 북송 작업 본격화, 2백31개 도정 공장 풀가동, 포장재 1백40만장 제작도, 수송 지정 항 선적에 돌입 (부산매일 6. 23)
* 상호비방・흑색선전・금품 살포 공명선거 막판 "흐림", 사생활 들춰 인신공격도, 주민 이간 유언비어까지 (부산매일 6. 23)
* 부산 해수욕장 3곳 개장 준비 차질, 올여름 피서 "짜증나겠다", 해운대-동백교 재가설 지연, 광안리-진입도로 개설 중단, 송도-모래 덧씌우기 유찰(부산매일 6. 23)
* 부산 시민단체 「후보선택 기준」 제시, "진흙 속에서 「진주」를 골라내자", 좋은 후보-부정부패 뿌리 뽑을 인물, 도덕성 있고 청렴한 사람,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 중시, 공익성 갖고 지역 사회 봉사, 나쁜 후보-혐오스런 전과・부정 축재, 각종 비리・부정부패 관련, 금품・향응제공・부정선거, 재산・학력・경력 속인 자 (부산매일 6. 23)
* 쌀 지원 실무 합의서 서명, 무공-삼천리 총회사 오늘 북경서 협의, 북한에 무역관 개설 논의, 남북 경협 활동화 방안도 모색(국제 6. 23)
* 공선협 부산 시장후보 공약 분석 실현 희박 공약 남발, 문후보-재원확보 불투명 노후보-원칙론 머물러, 구청장 후보들도 권한 밖의 약속 많아(부산 6. 23)
* 투표 개표소에 대한 특별 소방 안전 진단,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특별 소방 안전진단(시보 6. 23)
* 부산지방세 5배 중과 폐지, 7월 중 시행 대도시 종교용 부동산 비과세(시보 6. 23)
* 피서철 물가 안정 대책 추진, 행정지도 가격 설정, 운영키로 4대 지방 선거 맞물린 가격 담합 대비(시보 6. 23)
* 주택 단열 자금 융자, 시 가구당 8백만원 한도 내 대출(시보 6. 23)
* 다가구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 완화, 누진세율 상향 조정…주민 세부담 줄어(시보 6. 23)
*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7월 1일부터 위반 땐 30% 과징금・징역형도(시보 6. 23)
* 실소유자 미 등기 부동산 권리 "무효", 7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명제(시보 6. 23)
* 중소기업 운전 자금 7월부터 융자 신청 접수(시보 6. 23)
* 여름철 식품 위생 점검 하계 방역 대책도 수립, 집단 급식소 등 일제 단속 착수(시보 6. 23)
* 95전문건설업 신규 면허 실시, 접수 '7월 18일~22일까지 시 건설행정과로', 종합심사 '8월 23일~9월 2일 결정 뒤 교부'(시보 6. 23)
* 95년도 건축물 재산세, 757억 확정 부과(시보 6. 23)
* 「재해대책협의회」 구성 운영, 본격 장마철 맞아 40여 기관 합동으로, 신속 인명 구조・복구체제 구축(시보 6. 23)
* 마스코트 「부비선정」, 부산도시 이미지 통일…개성과 매력 부과(시보 6. 23)
* 염분 함량 초과 모래 공급 철저하게 단속, 콘크리트 성능 검사 강화(시보 6. 23)
* 「행정 사무 착오 보상제」 시행, 민원인 시간・경제 손실 없게 도서 상품권 지급(시보 6. 23)
* 기장 지역 마을버스 5개 노선 신설 운행, 동부 여객 파행 운행에 따라 기장 지역에 마을버스 인가(시보 6. 23)
* 수영로 교통 대책 마련,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 맞춰 우회 도로 건설 등 교통 혼잡 최소화(시보 6. 23)
* 향도의 여름을 여는 음악회 2제, 부산시향 30일 문화회관 대강당…베토벤 등 연주, 소년 합창단 싱그러운 6월의 합창 주제 동요 들려줘(시보 6. 23)
* 「개소홀」 대체 연료 검토, 부산시 전국 처음으로 대기오염 방지위해 휘발유와 에탄올 섞은 개소홀의 대체 연료 가능성 검토(시보 6. 23)

* 4대 지방 선거 투・개표 준비, 21개 개표소・1,196개 투표소 점검(시보 6. 23)
* 녹화 사업 대상지 조사, 아시안 게임 대비 시전역에(시보 6. 23)
* 시정 동정, 시장 부산시 자매도시 방문 외 1건(시보 6. 23)

6. 24
* 내 한 표로「풀뿌리」시대 열자, 시민단체 기권방지 캠페인 활발, 후보 난립 유권자 무관심 조장, 업체 정상 조업 …투표 포기 우려(부산 6. 24)
* 6・27 선거 D-3, 부산 표밭-부산 지원연설서 서울 후보 지지 부탁・불법 자제 촉구 선거비용 일일이 공개・타당 연설회장 무소속 후보「배짱 유세」, 경남 표밭- 부산서 민주 이총재 "여의원 야시장 바람직, 마산서 괴단체 명의 흑색 선전물 대량 우표, 울산서 시선 끌기 위해 얼굴 없는 벽보 부착(부산 6. 24)
* 시도 지사 선거 여소야대 재현 될까, 불안한 민자 …안정권은 5곳 뿐, 중부 "흔들" …8곳 승리 기대권(부산 6. 24)
* 황룡산 개발 반대 시민운동 확산, 서명・공천회 등 잇따라, 산악연맹・환경운동연・범시민 모임, 온천지구・전망탑 건립 등 철회 요구(부산 6. 24)
* 「사진으로 본 부산 50년」, 광복 50돌 기념 부산 발전상 조명, 40년대 풍물 희귀자료 8월 10일~17일 부산역 문화관서 전시(부산 6. 24)
* 막판 주말 대격돌, 여야 무소속「6・27」대세몰이 총력전, 노후보-부동층공략・인물 선택 호소, 문후보-부산역 유세「힘」시장론 강조(국제 6. 24)
* 유치원생 선거 운동 동원, 코팅한 후보 명함 패용 …홍보물도 배포, 후보 부인 참석・원장이 여당지지 발언(국제 6. 24)
* 영락공원 납골당 추가 건설, 97년 1월께 완전 만장, 신축 땐 6만기 안치 10년간 사용 가능(국제 6. 24)
* 부산시장 후보 최종 판세 분석, 부동층 흡수・투표율 높이기 부심, 노후보-여성・젊은층서 강세 투표 참여 독려, 문후보-승리 장담 주말 세몰이로 격차 전략(국제 6. 24)

6. 25
* 자금・인력 선거 바람 안탔나, 현금 통화 줄고 금리 안정・근로자 부동, 실명제・시민 의식 향상 "뜻밖 결과"(부산매일 6. 25)

6. 26
* 6・27 선거 D-1, 자치 의미 퇴색 …정쟁 변질, 세대교체론 등장 새 쟁점 부각, 유권자 누가 어떤 후보인지 몰라 혼란,「비디오 선거 운동」…재래식 방법 퇴조(국제 6. 26)
* 부산시장 선거 "지지후보 정했다" 73%, 본사・정음 25일 현재 조사 부동표 최대 변수로, 기초장 48%・시 의원은 56% 미정, 여야 마지막 세몰이 공세, 내일 전국서 일제히 투표(부산 6. 26)
* 환송 시민「우리의 소원 통일」합창, 북송 쌀 출발 동해항 이모저모, 씨아펙스호 배경 기념촬영 분주, 소나기 속 동포애 가득 싣고 북행(국제 6. 26)
* 4대 지방 선거 내일 투표 마지막 유세 총력전, 여야 수뇌 경합지 대세 몰이, 부산 후보들 홍보물 돌리며 표 훑기(국제 6. 26)

6. 27
* 지방선거 투표 순조 부산・경남 등 일제히 실시, 시・도 지사 내일 새벽 당락 판명, 전국 평균 투표율 38.9%(국제 6. 27)
* 새 민선 시장 7월 1일 취임, 4대 지방 선거에서 최초 민선 시장 선출, 기초 단체장도 구청별로(시보 6. 30)

6. 28
* 부산지역 곳곳서 개표 중단 소동, 준비부족으로 기표 용구 결함・운영 요원 운영 미숙으로 잦은 실랑이(국제 6. 28)
* 6・27 지방선거 단체장 확정 부산 문정수・경남 김혁규씨, 광역장 5-4-4-2 …지역 분할, 민자-부산 기초장 14・시의원 51석(국제 6. 28)
* 민선 부산 시장・경남지사 당선자 소감, 김혁규 새 경남지사-경영행정으로 경제 활성화, 토와는 무관 모든 도민 존중, 부지사는 경제통 임명 계획, 문정수 새 부산 시장-실생활 개선에 최우선 노력, 부산 21c 국제도시로 격상, 기쁨보다 큰 책임감 통감(국제 6. 28)
* 6・27 지방 선거 지역 분할 재현 …민자 참패, 부산-문정수 경남-김혁규씨 당선, 서울 조순씨 …광역장 5・4・4・2(부산 6. 28)
* 기초선거 무표효 속출, 부산 과열 혼탁에 염증 유권자 무관심, 인물난 선택 고심 입증, 모두 기표하거나 백기 …무려 20만표 안팎(부산 6. 28)
* 6・27 선거 개표장 표정, 기장 투표율 80% "1등 풀뿌리", 부산-모친상 불구 분전 3백49표 차 고배, 105표차 패배한 후보「무효」105표 나오자 아쉬움, 열쇠 투표함 빠져 절단기 동원, 경남-마산 반 YS 바람「공천=당선」옛말, "내가 지지하는 후보표 무효처리" 투표용지 삼켜 소란, 고성 군수・도의원 민자 전무(부산 6. 28)

* 부산시장 여 기대치 못 미친 채 체면 유지만, 문-발전론·당 측면 지원으로 신승, 노-막판 악재「지역 바람」에 결국 고배, 20~30대 대거 불참 투표율 크게 저조(부산 6. 28)
* 부산 시장 문정수씨 확실, 오늘 새벽·시 현재 동래 등 8개 구청장은 당락 결정, 경남 지사 김혁규씨 확정, 투표율 66.4% …전국 67.4%(부산매일 6. 28)

6. 29
* 부산 시장 문정수씨, 전국 광역장 5-4-4-2 …민자 대참패, 기초장 민자 14·무소속 2석 차지(국제 6. 29)
* 항만 관리권 이양 법 개정 추진, 아주게임 특별법 제정, 인공섬-시민여론 수렴 타당성 재검토, 문정수 부산 시장 당선자 본지 회견서 밝혀(부산 6. 29)
* 여야 정국 주도권 잡기 부심, 6·27 지방 선거 후 지역 분할 등 변화 따라, 야-야권 연대로 대여 공세 강화, 여-조직 재정비 후유증 최소화(부산 6. 29)
* 부산 구의원 61% "물갈이", 의정활동 불신 반영, 일부지역 의장도 낙선 예산 남용 등 주민 실망(부산 6. 29)
* 민선시대 개막 채비 분주, 부산시·16개 구군 사무 인수인계 준비 한창, 이·취임식 준비·사무실도 새로 단장, 자치 행정 기틀마련 비상(부산 6. 29)
* "교통난 해소 최우선" 40%, 민선부산시장 해결과제「지방 선거 평가」여론 조사, 경제 활성·식수·아주 경기 순 비중, 자치 성공전망 41% "잘될 것" 응답(국제 6. 29)
* 6·27 평가 여론 조사 중앙 정치권 영향력 컸다, 유권자 43% 인물·경력 보고 후보 선택, 문 당선자 '힘 있는 시장론」호응도 낮아(국제 6. 29)
* 6·27평가 여론 조사 지방 선거 대체로 고명 82%, 젊은층「자치」미래 상당기간 진통 전망, 동시 시행 60대 이상서 64% 찬성 이채(국제 6. 29)
* 4년 부실 의정 …민의는 매서웠다, 시·구 의원 대폭 물갈이, 50%이상이 첫 당선, 20~30대 진출 증가 … 새 바람 예고(국제 6. 29)
* 당선자 61%가 전과자, 부산-10범도 입성 …정보 공개 등 시급, 도덕성 논란 거셀 듯(국제 6. 29)
* 당선자에 통지, 6월 29일 시 선관위(시보 6. 30)

6. 30
* 부산시 광역의원 당선자 부산시 기초의원 당선자, 광역의원 46명 기초의원 다수(시보 6. 30)
* 김기재 시장 퇴임, 6월 30일 2002년 아주 게임 유치 헌신(시보 6. 30)
* 재건축사업 55% 진척, 중구 지역 여건 적합한 개선책 수립 추진(시보 6. 30)
* 부산시, 인사 행정 6급 2명 외 다수(시보 6. 30)
* 환경 보존부산 아젠다21제정, 쓰레기 등 3대 10% 줄이기 운동 전개, 2천년대「녹색 도시 부산」건설(시보 6. 30)
* 제25회 부산시 공예품 경진 대회, 11일까지 용두산 공원 미술 전시관 입상 작품 전문 업체 지정·융자 혜택(시보 6. 30)
* 토요 전일 근무제 시행, 시 7월 1일부터 2개월 간 시범 실시, 2개조로 나눠 1개조는 휴무키로(시보 6. 30)
* 문정수 후보 당선 확정, 6·27 지방 선거 부산 광역 시장에 당선 확정(시보 6. 30)
*「6·27」당선자 분석, 기초장 46%가 공무원 출신,「기초」직업 농업 21.9%·상업 20.2%, 광역의원 소속 정당 민주가 40.2%(국제 6. 30)
* 부산 관가 크게 술렁인다,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 따른 대폭 인사 불가피(부산매일 6. 30)
* 발빠른 공무「핀치히터」성공, 3~4개월 재임 부산지역 구청장 무슨 일 얼마나 했나, 후보 동향 사건연루「부산진」직위 해제 "옥에 티", 북구-구포에 3·1운동 기념비 건립, 강서-관정개발 섬마을 식수난 해결, 동래-동래파전 상품화 특산품 육성(부산매일 6. 30)
* 김기재시장 퇴임(부산시정 6. 30)
* 제32회 과학 전람회 시상식(부산교육 6. 30)

7. 1
* 부산 민선구청장 당선자 인터뷰<하>, 서구청장-고지대 기반시설 확충·구민복지증진 주력, 동구청장-노후 건물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 북구청장-만덕로 확장 등 대형공사 빠른 시일내 완료, 남구청장-주민소득 증대·교통 난 해소 최우선 과제로, 연제구청장-연산 로터리 지하 대규모역세권 개발 추진, 동래구청장-불용재산 정리·민자유치로 재정문제 해결(부산매일 7. 1)
* 긴급기획 통합선거 문제있다<하>, 과잉경쟁 …잡음 …"자치 훼손", "자질보다 출신당" 후보 선택 파행, 당선 후 독자의정 의문 "재고 마땅"(부산매일 7. 1)
* 지방 자치 시대 "활짝", 문정수 부산시장 등 부산·경남 민선장 2백45명 1일 일제히 취임식(부산매일 7. 2)
* 95 해수욕장 개장 손님맞이, 1일부터 해운대 등 6개소 개장, 인명구조·환경 개선 등 완벽(시보 7. 7)
* 옥외 광고물 표시 완화, 7월 1일부터 해운대 관광 특구 지역 내 설치하는 옥외 공고물의 표시 완화(시보 7. 7)

* 취임, 첫 출근 대중교통 이용, 문정수 시장 시내버스와 지하철 타고 출근(시보 7. 7)
* 토요일 오후에도 민원처리, 1일부터 「토요 전일 근무제」 시행 따라 본처 구청 시민과·일선 동사무소에서 여권발급·일반 공문서 접수·병역·호적 등 업무 처리(시보 7. 7)
* 영수증 장기 보관 불편 없애, 시 공과금 잡부 영수증 장기 보관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위해 상·하수도료 고지방법 개선(시보 7. 14)
* 초대 민선시장(文正秀) 취임(부산시정 7. 1)
* 1단계 조직개편(부산시정 7. 1)
* 제27회 아시아남자 및 제8회 여자역도선수권대회(~10, 구덕실내체육관)(부산시정 7. 1)
*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보수지급기준에관한내규(내규 제76호)제정·부산지방법원 '민사측량감정방법및 측량감정인선등에관한지침'(내규 제77호)제정(법원사 7. 1)

7. 2
* 부산 물가 상승률 전국 최고, 6월 중 4대 동시선거가 실시됐음에도 지난 5월에 비해 0.2% 인상, 지수상으론 안정됐으나 전국 6대 도시 중 가장 높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 인상(부산매일 7. 2)
* 부산지역 대형 백화점도 "불안", 준공 이후 잦은 용도 변경 통해 편법으로 매장 면적 확장, 서울 삼풍백화점과 같은 사고 우려(부산매일 7. 2)
* "바다가 열렸다, 해수욕장 6곳 일제히 개장, 옷보관함·샤워장 등 편의시설 두루 갖춰, 교통 혼란 방지·바가지 근절대책도 마련(부산매일 7. 2)

7. 3
* 부산시, 지하철 건설비 지원 늑장, 2·3호선 공사 예산편성·교부비 미뤄 공정 차질·교통공단 재정악화 부채질(부산 7. 3)
* 광안리해수욕장 "무법천지", 올 여름 치안 불안 예고, 취객 각목 폭행·강도 사건 줄이어 발생(부산 7. 3)
* 부산시, 「민자 유치 위원회」 설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 그린벨트 완화·타임캡슐 제작 추진, 문정수 시장 시책방향 발표(국제 7. 3)
* 부산시의회 업계 로비장 전락 우려, 시의원 건설 등 사업 관련 상임위 몰려, 주민여론·편의뒷전 인상, 이권 개입·업권보호 수단(국제 7. 3)
* 교육위원 선거전 "과열", 시교육위원 임기 2개월 가량 남겨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물밑 사전 선거 운동 치열, 경쟁률 5대 1 …의원 상대 선물공세까지(국제 7. 3)
* 부산 노후 건물 안전 진단 시급, 육안 확인 아닌 구조적 점검 필요, 13개 아파트단지 등 위험지 46곳(국제 7. 3)
* 제4회 부산무용제(~6)(부산시정 7. 3)
* 울산지원 중부등기소 개소(법원사 7. 3)

7. 4
* 부산매일 초대석, 김하규 경남도지사-권역별 개발 지역 불균형 해소와 낙후 서부권에 첨단단지 조성 중소기업 등 경제 활성화 주력, 문정수 부산광역시장-신항만·서낙동강 개발 가속화와 교통문제 단기방안부터 착수하고 아시안게임 조직위 출범에 만전(부산매일 7. 4)
* 부산시, 「시설 안전 본부」 신설, 대형사고 예방 전담기구로 사용, 건설·주택국-시·구로 분리된 관리업무 일원화(부산 7. 4)
* 부산 첫 시민 건축 대학 "눈길", 건전건축문화 형성 관심 제고 위해, 부산 건축사협 창립 30년 기념 개설(시보 7. 14)

7. 5
* 부산항 항만관제 장비·인력 부족 해난사고 부채질, 야간·농무 때 레이더 등 기능 못해, 통신사 13명 관리 "무리"(부산 7. 5)
* 기장군 예산사용 "두서없다", 진행사업 찔금 공사 불가피, 추경 76억 대부분 신규 투자(부산매일 7. 5)
* 부산·경남지역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과열, 금품·흑색선전 난무, "출범부터 자치 정신 망각" 비난 여론(부산 7. 5)
* 부산시, 건축물 안전 점검 졸속, 필수장비 지급 없이 "빨리빨리", 염분·강도 측정기 없이 육안 진단, 각 구 수백 곳 「진단서」 20일 내 요구(부산매일 7. 5)
* 정통부, 통신 사업 자유경쟁체제로, 내년 시내전화 제외 전면 허가 개방, 연내 사업자 선정 마무리, 정통부 경쟁력 강화 정책 발표(부산매일 7. 5)
* 구청 직제 지역특성 따라 개편, 획일적 통제·조정 탈피, 동래구-실·과 통합 현안위주 팀제 도입, 남·해운대구-관광·수산업 부서 대폭 확충(부산 7. 5)
* 해운대 온천 센터 내년 착공, 공사 용역보고서 7만㎡에 3천8백억 투자, 숙박·운동·상업 시설 등 계획(부산 7. 5)

* 부산지검, 수질 오염 사범 무더기 적발, 해수욕장・낙동강 오염, 17개 업체 27명 단속 …2명 구속(국제 7. 5)
* 부산시, 기장에 시립대 설립, 2001년 목표 적극 추진, 동부 신도시 수익금 재원 충당, 정관 일대 주거교육 중심 개발(국제 7. 5)
* 당정협의회 개최(부산시정 7. 5)

7. 6
* 부산 기장군 구난 체계 크게 허술, 기장군 도심지가 아파트・상가 등 대형화 추세로 인구 밀집현상 가속되고 있으나 구난 체계 허술해 대비 필요(부산매일 7. 6)
* "열악한 재정에 하계 수련대회 웬말", 부산 서구청 혈세 낭비 빈축, 산적한 현안 외면 "직원 화합", 2박 3일 전북부안서 흥청, "민선 청장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 비난(부산매일 7. 6)

7. 7
* 광안리 앞바다 해조류 번식 확산, 해수욕장 기능 상실 가속, 민락 매립공사로 자정 기능 크게 저하, 인근 회 센터서 오폐수 유입 "부영양화", 미관 훼손・안전사고 우려(부산매일 7. 7)
* 부산시의원「자리」각축, 2대 의회 지도부 10석 놓고 득표전 치열, 재선-"경험" 초선-"지분" 내세워, 각 상의 2~3명씩 접전(부산매일 7. 7)
* 부산시・토개공 기반 시설 떠넘기기 녹산 공단 조성 차질, 공장 입주 지체 등 불가피, 하수종말처리장 최근 확정 열 병합 발전소는 불투명(부산 7. 7)
* 풀뿌리 지방 시대 열렸다, 부산 5개 구・군의회 개원, 의장 선출 주민 공복 다짐(국제 7. 7)
* 몰운대 개발 강행, 민선 사하구청장 기본계획 용역 발주, 서부산권 마지막 자연 보고 사라질 위기, 15만평 훼손・호텔 등 위락시설 건립, "지금 상태 보전이 최선" 반대 여론 거세(국제 7. 7)
* 자치단체 간 이기표면화, 본격적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으나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 설치 이용을 둘러싸고 각 자치단체 간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운 갈등 첨예화(국제 7. 7)
* 해수욕장 주변 접객업소 정화, 위생상태・부당 요금 징수・심야 영업・불량 식품 등(시보 7. 7)
*「시민 제일주의」실현할 터, 문정수 시장 지하철 조기 완공・버스터미널 외곽 이전 등 추진(시보 7. 7)
* 국가 보안 유공가 보상금 인상, 간첩 신고는 3천만원에서 1억원 보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농지 취득 개선(시보 7. 7)
* 백화점 등 안전 점검, 시 다중 이용 건물 정밀 진단(시보 7. 7)
* 민방위대 창설 제20주년 기념 공모 포스터 등 결정, 표어・포스터 부분에 응모한 작품 심사 결과 표어 5명 포스터 3명 시상(시보 7. 7)
* 민선 자치시대 개막, 1일 제30대 문정수 부산광역 시장 취임「주민 복리 증진 위해」선서, 부산의 교통 문제 해결을 시정 제1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시보 7. 7)
* 시정 동정, 시장-7월 1일 사회복지시설 송국 요양원 방문 관계자 격려・2일 정화 양로원 성우원 방문(시보 7. 7)
* 해수욕장 등 행락철 쓰레기 대책, 반드시 종량제 봉투로 처리계도(시보 7. 7)
* 안질환자 실명 예방 추진, 시 연말까지 의료 보호대상자들 각 구・군 1명씩 수술키로(시보 7. 7)
* 문화 유적지에 표석 건립, 동래구-7월 중 서천교터 등 4곳, 93년부터 계속된 사업 총 8곳 세워(시보 7. 7)
* 부산 시의회「의정백서」발행, 초대 부산시의회 4년간 의정 활동 집약한「의정백서」발행(시보 7. 7)
* 시정 방침 새로 제정, 신임 민선 시장 취임 따라 시정 방침 새로 제정(시보 7. 7)
* 대형 참사 예방 전담, 시 시설 안전 본부・안전 관리국 시선 추진(시보 7. 7)
* 시정 주요 업무 추진 국비 자원 건의, 당정 협의회 거쳐 지하철 3호선 건설 등 8개 사업 추진(시보 7. 7)
*「시설물 안전 점검단 운영」, 발대식 갖고 정밀진단…전문가 참여(시보 7. 7)

7. 8
* 부산시, "도시 기본 계획 전면 수정", 기장군 편입과 아시안 게임 유치에 따른 도시기반환경 변화 등으로 도시 발전 여건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도시 기본 계획 전면 수정 보완키로(부산매일 7. 8)

7. 9
* 부산 시의회 내일 개원, 오는 10일 제2대 정식 출범 의장단도 선출키로(부산매일 7. 9)
* 대과제도・프로젝트팀 수영구청 전국 첫 도입, 지역 실정 걸맞게 관제 대개편, 대과제도-유사 과 통폐합 하나로, 프로젝트팀-주자 등 6난 집중관리(부산매일 7. 9)
* 수상 안전 인명 구조 시범대회(부산교육 7. 9)

7. 10
* 87년 그날 함성 생생히 6월 항쟁 자료집 발간, 소설 형식 일지・사진 등 모음집 세권으로 엮어, 97년 10주기 기념사업 일환 …모두 10종 계획(국제 7. 10)
* 지역 화합 대형사고 방지 주력, 시 확대 간부 회의서 공직 기강 확립・일하는 분위기 조성도(시보 7. 14)
* 2대 부산 시의회 개원, 10일부터 3년 임기 개시…의장에 도종이씨 선출(시보 7. 14)

7. 11
* 5급 승진 공개 시험 검토, 지방 공무원 임용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관 승진 임용 때 공개 경쟁 시험 치르는 방안 검토, 6급 5년 지난 공무원에 자격부여(국제 7. 11)

* 시장・시의장 역학 “촉각”, 부산시-시의회 어떤 관계 보일까, 민선 의식 “양보 불가” 긴장감 팽팽, 자치 양축 견제와 협력 조화 절실(국제 7. 11)
* 95 부산 국제 신발・스포츠 레저용품전, 대기업 참여 외면, 신발산업협 41개사 신청 전무, 지역 경제 활성화 역행(부산 7. 11)
* 민선 시대「인사 돌풍」임박, 대기발령 전 구청장들 이동 관심, 부산 시장 권한 강화 …이달 중 대대적 단행(부산 7. 11)
* 우암로 철로 포장 무산 위기, 철도청의 반대로 9월 지하철 착공, 수영로 제증 무방비 상태(부산 7. 11)
* 교통 현안 풀 길 막막, 부산 중앙부처・군 비협조, 법 적용 융통성 없어, 동부 터미널 이전-녹지대 건물 설치 “불가”, 서부산요금소 이전-“수입 감소” 건교부 반대, 거제 연결 교통로-“작전지역 통과” 군 불허(부산매일 7. 11)
* 부산시의회 의장 도종이씨,「제2대」개원 부의장엔 배상도・권영적씨(부산매일 7. 11)
* 서구청 논공행상식 인사 “말썽”, 선거 때 청장 지지도 따라 중용・좌천, 심의・정차 무시 일방 발령(부산매일 7. 11)
* 제2대 부산시의회 출범 이모저모, 61명 전원 참석 “시정감시” 다짐, 부의장 4차까지 투표 가까스로 선출, 초선들 상임위 배정 반발 변경여부 질문, 민자당 당직자 총출동 개표결과에 “민감”(부산매일 7. 11)
* 사하 등 5개 구의회 출범, 의장단 선출 완료 의정 활동 본격 돌입(부산매일 7. 11)

7. 12
* 부산시, 상하수도료 19~20% 인상, 내년부터 요금 체계 6구간 세분화, 누진요율 78%까지 확대 실시키로(부산매일 7. 12)
* 부산시의회, 상임위장 선출, 내무-김주석 정통당료 출신 …1대때 내무 위주 활동, 교육사회-김허남 고령불구 왕성한활동력 갖춘 “노익장”, 건설교통-김영수 3차 투표 끝에 당선 …사회복지도 관심, 문화환경-김종암 6・27 직전 민선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항만주택-김덕열 재수로 상임위장 입성 …친화력 돋봬, 운영-이영 의정우수 3이 중 한명 …“일찌감치 내정”(부산매일 7. 12)
* 2대 부산시의회 의장・상임위원장 6・27 무투표 당선자 대거 진출, 문시장-극도 보안속 인사 작업 착수, 민주 지구당위원장 거취 놓고 고심, 시의회 상임위장 마라톤 혈전(부산 7. 12)
* 부산 국회의원 선거구 5곳 늘어, 연제・사상・수영 독립 …금정・사하는 분구, 전국 23개 증설 …경남은 그대로, 전국 의원 수 62명에서 39명으로 줄어(부산 7. 12)
* 소년의 집 현악 합주단 자선 연주회(부산교육 7. 12)
* 경찰서 교통관리계를 폐지하고 교통사고 조사계 신설(부산지방청 훈령 제64호)(경찰사 7. 12)

7. 13
* 2002 주경기장 사직 확정, 문 부산시장 시정보고 강서・기장・북부에 보조 시설,「하나로 교통 카드제」12월 도입, 배내골 취수원 개발 올 실시 설계(국제 7. 13)
* 삼성차 공장 건립 또 차질, 정부-그린벨트 내 토취장 개발 난색, 계약 체결하고도 터다지기 흙 못 구해, 부산시-경기장과 동시조성 계획 지연(부산 7. 13)
* 부산서 괌・방콕・하얼빈・블라디보스토크 직항공로 개설, 2002 아시안게임 앞두고 부산 기점으로, 괌 28일부터 대한항공 등 국제선 잇따라(부산 7. 13)
* 부산 아시아드 재원계획 확정, 총비용 7조9천억원, 국・시비 6조9백・민자 1조3천억 조달, 문정수시장 시의회 보고(부산 7. 13)
*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강서지역이라야”, 부산시의「사직」내정에 시민들 불만, “도시 균형 발전” 시민 기대 부응, 주거환경・교통혼잡 등도 해소(부산매일 7. 13)
* 문정수 시장 부산 시정 보고, 교통난・경제 구생에 전력, 지하철 2・3호선 예산확보 조기 완공, 대학・기업 공동 산학연컨소시엄 운영(국제 7. 13)

7. 14
* 지하철 환승 시스템 확정, 수영-연결 통로안 폐기 복층 구조, 동래-내성지하로 2층에 3호선, 덕천-지하 2・3층 각각 2・3호선, 연산-1・3호선 ㊥형으로 배치, 서연정-경전철 고가~지하로 연결(국제 7. 14)
* 부산시 돈가뭄 심각, 해운대 신시가지 상업용지 분양 저조 자금난, 광안대로 건설 등 외상 공사 …은행 대출도 꺼려(국제 7. 14)
* 하수처리장 예산 고갈 표류 위기, 부산 7곳 신・증설 빚더미에 내・외자 조달 막혀, 내년에만 1천억 부족, 시 하수도료 인상 추진 시민부담 가중(부산 7. 14)
* 부산해항청장, 골재 전용 부두 건설, 감천・다대항 2곳 중 선정, 문시장-가덕도 개발 조기착공, 상공인-녹산 분양가 인하요구(부산 7. 14)

* 재원 조달 대책 없이 무리한 계획, 부산「전략 사업」겉돈다, 53건 국비지원 요청에 38건만 반영, 지하철 3호선·3도시 고속도 "위기"(국제 7. 14)
* 제2대 부산시의회 출범, 의장 부의장 의원 선출(시보 7. 14)
* 7개국에 부산 무역관 설치, 중소 자생력 강화와 직원 상주 시켜 상품 홍보·수출 상담, 올해부터 연차적 추진(시보 7. 14)
* 구청 인사, 중구 건설 행정 계장 외 다수(시보 7. 14)
* 폐수위탁업소 일제 단속, 우수기 가스 안전 점검도 실시키로(시보 7. 14)
* 하절기 청소년 선도·보호, 해수욕장·유원지 중점 어울 마당 등 마련(시보 7. 14)
* 오염 물질불법 투기 감시, 장마철 맞아 수질 검사도 강화(시보 7. 14)
* 해수욕장 피서객 특별 수송, 해운대 등 6개 지역별로 불편 없고 안전하게(시보 7. 14)
* 95부산 세계 축제 박람회, 교통대책 마련, 7월 16일~8월 18일 요트 경기장 일대서 개최(시보 7. 14)
* 교통 관리 본부 설치 계획, 시장 직속으로 체계적 관리(시보 7. 14)
* 모자 복지기금 신설 계획, 20억원 규모 조례안 시의회 상정, 생계비 등 지원하영 자립조성(시보 7. 14)
* 지역 제조업체 해외 판로망 확충, 미국 등 7개국에 부산 무역관 설치(시보 7. 14)
* 노인 전용 아파트 건립,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중풍·치매 노인을 위한 요양센터 건립 등 시설확대(시보 7. 14)
* "교통난 해소에 역점", 문시장 부산지역 상공인 간담회 가져(시보 7. 21)

7. 15
* 백산 독립기념관 공사 부실, 무리한 공기·자재 불량, 장마기 방수미비 유물손상 우려도(부산 7. 15)
* 「순절도」2폭 반환 운동, 부산 호국 상징 "고향으로", 「부산을 가꾸는 모임」임란 항쟁 담아 보물 지정, 5·16 육사에 넘겨져 인도거부, "지방자치시대 시민 긍지 삼아야"(국제 7. 15)
* 「다대샘」31년만에 복원, 사하구 64년까지 마을 식수원 「추억」가득(부산매일 7. 15)
* 부산시·시의회 힘겨루기 양상, 시정 감시자 위상다지기, "민선 시장 집행부 초반 견제", 사무처장 인사에 이의제기, 사무실 크기·현판 위치까지 거론 귀추 주목(부산매일 7. 15)

7. 16
* 국내 환수 해외문화재 한자리에, 20일~8월 15일까지 부산「진」화랑서 「서화·도자 명품전」(부산매일 7. 16)
* 「세계축제박람회」국제 망신 우려, 계획보다 규모·내용 미흡 …편의시설도 태부족(부산매일 7. 16)
* 마약류 오·남용 예방 시민 대행진 행사 성황, 7월 16일 부산역 광장서 시민 5천여명 참여한 가운데 행사 개최(시보 7. 21)
* 마약 퇴치 국민대회 행사(부산교육 7. 16)

7. 17
* 부산-상해·부산-마닐라 직항공로 잇단 개설, 상해-27일부터 주 1회, 마닐라-내달 5일부터 월 4회 운행, 건교부 정기노선은 올해말 계획(부산 7. 17)
* 국토관리청, 교량·터널 28% "위험", 부산·대구·경남북 점검 788곳 중 220곳, 대형 공사 상당수 안전 불감증, 4백12곳 부실재시공 등 조치(부산 7. 17)
* 부산경찰청, 2,600억대 금괴 밀수 적발, 3년간 일서 18t …일당 추적, 공해상서 일본 조직과 접선, 어선에 숨겨 89회 부산 반입, 총책 사무실 등 수색(부산 7. 17)

7. 18
* 부산시, 부산도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 9월부터 호별방문 통해 내력벽 철거 등 점검(부산 7. 18)
* 부산시, 제2부산대교 고무줄 공사비용 1년 새 배로, 일부 설계 변경에 비용은 눈덩이, 기본계획 수립 주먹구구식, 보상·감리비 등 뒤늦게 추가(부산경제 7. 18)
* 검찰, 5·18「공소권 없음」결정, 전·노씨 등 58명 …광주피해자들 반발 예상(국제 7. 18)
* 장마철 홍수 땐 오염 식수 무차별 유입, 부산 젖줄 결딴난다, 금호강 바닥 중금속 퇴적 …낙동강 "비상", 아연·구리·크롬 등 15㎝ 두께로 쌓여(국제 7. 18)
* 검찰, "5·18 관련자 공소권 없다", "정치행위 …적법여부 판단 어려워", 고소인 등 당사자 반발 클 듯(부산 7. 18)
* 동해남부선 붕괴위험, 해운대 우동 지하차도 공사 방치로, 시공 중 암반돌출 발파 못해, 장마 앞두고 대형 참사 우려(부산경제 7. 18)
* 부산지역 지하상가「레지오넬라」비상, 대형냉방장치 무리하게 가동, 채집시설 없어 지상 무단 배출, 오염 공기만나 호흡기 감염(부산경제 7. 18)
* 「세계축제박람회」개장 첫날부터 "잡음", 준비 소홀·내용 미흡 …관람객 환불 요구 소동 등 관람객 거센 반발(부산매일 7. 18)

* 구포～냉정 남해고속도로 확장 “부실”, 공기 전에 지반침하, 도로・다리 연결점 40㎝차이도, 도공-덧씌우기 등 눈가림 보수만(부산매일 7. 18)
* 시 외부 경영 진단 검토, 지방자치 시대 재정 자립 모색위해 각종 추진 사업과 기구 설립 등에 대해 일반 기업체와 같이 외부 경영 진단 실시 검토(시보 7. 21)
* 지방 공사・구군청 초도 방문, 문정수 시장 현안 사업 청취・주민 대화 등 가져(시보 7. 21)

7. 19
* 불시에 방제 응급 복구 훈련 실시, 시 재해 대책 본부 낙동강둑서 홍수로 구포교 붕괴・둑 일부 유실 가상 훈련 실시(시보 7. 21)
* 부산시, 동해남부선 “도심엔 고가로”, 실시설계 앞두고 공식 입장 전달, 늦어도 2001년도 완공 요구, 지하철 연계 환승역 4곳 설치도(부산매일 7. 19)
* 좌수영 성지 훼손 위기, 수영구청-문화재구역 해제 추진, “부산 대표적 유적지 보존을” 학계 반발(부산 7. 19)
* 일선 구청 목소리 커진다, 고문변호사 자체적 위촉 움직임, GB 관리 청경 인건비 시에 요구, “구민 부담 시・국세 자치구 이양을”, 부산-민선청장 취임 후 제몫 찾기 활발(부산매일 7. 19)

7. 20
* 내무부 구태 못 벗고 간섭・통제 여전, “자치 역행” 지자체 반발, 전문경영인 등용 등 원천봉쇄, 직제개편도 지역특성 도외시(부산 7. 20)
* 강서취락지구 정비 확정, 2004년까지 주거 환경 개선・개발 등 촉진(국제 7. 20)
* 자치시대 관가 새 풍속도, “나도 민선” 강당한 구청장, 시장 초도순시 영접 옛말, 상부 하달 탈피 업무 보고 함께 청취(국제 7. 20)
* 부산시, 미포・악민 도시 계획 “의혹”, 일부 고도 제한 제외・준주거지 변경, 해당 구청・지역 주민들 문제 제기, “유력 인사 로비설” 특혜 시비 증폭(국제 7. 20)
* “대구시 분석 환경영향 조사 부실”, 부산시 「위천공단」 반박자료 준비, 남분해성 중금속 대책 없어(부산매일 7. 20)
* 부산시 경영진단 한다, 문시장 도개공 초도순시서 밝혀, 전국 최초로 결과 따라 인력・기구 개편(부산매일 7. 20)
* 문정수 부산 공동 어시장 둘러, 관계자・상인들 격려 하고 오찬도 함께(시보 7. 21)
* 시정동정, 시장 에두하르도 하라 주한 칠레대사 외 환담 참석 외 1건(시보 7. 21)
* 오래된 시영 아파트 1만천채 안전 진단, 시 90년 이전에 지어진 시영 아파트 안전진단 실시(시보 7. 21)
* 시민 중지 모아 부산 경제 새 도약, 문 시장 지정 보고 제44회 임시회, 「세계・지방・정보화」로 시정 기본 방향, 장정의 IC카드로 지하철・버스・택시 이용하는 「하나로 교통카드」 11월 중 도입 예정(시보 7. 21)
* 정무부 시장 관련 조례 등 심의, 부산 시의회 제45회 임시회 열어(시보 7. 21)
* 「시민의 소리」 올해 상반기 성과 분석, 교통・환경 분야 가장 큰 관심 나타나, 총 2백94건 접수 84.5% 처리…적극 홍보로 불편 사항 수렴(시보 7. 21)
* 「부산시 시설 안전 관리 본부」 신설, 교량 등 시설물의 대형사고 발생 예방(시보 7. 21)
* 임도시설 안전 점검 나서, 전문가로 구성 절・성토지 붕괴 등 재해 막아(시보 7. 21)
* 여름 밤 수놓는 야외 공연 잇달아 열려, 시립 무용단 야외 춤판 성황리에 마쳐, 문화회관 95 썸머 페스티벌 마련(시보 7. 21)
* 낙민동 6만평 준주거지로 공고, 시 달맞이길 옆 고도제한 등 9건의 도시 계획안 9월 시행(시보 7. 21)
* 제11회 「자랑스런 시민상」 추천, 8월말까지 접수 애향상 등 4개 부문(시보 7. 21)

7. 21
* 아파트・백화점 45곳 “위험”, 부산지역 제2 「삼풍」 우려 …보수 등 대책 시급, 유나・미화당 하중 문제 “안전 위험”, 장산동국 APT 등 벽체 곳곳 균열(국제 7. 21)
* 「부산 30대 현안」 선정, 부산시 사업별 탐제 도입 본격추진, 예산 고려 투자 순위 조정(국제 7. 21)
* 부산역～영도 해상신도시 지하철 노선 백지화, 가덕～감만동 해안구간 새로 개설키로, 3호선 용역 최종보고서 …경전철 하단까지 연결(부산 7. 21)
* 부산 시정 다시 짠다, 문시장 기존 계획 백지화 내년 재수립, 무분별개발 사업 지양, 조직・경영진단 … 인력・기구도 재배치(부산 7. 21)
* 부산의료원 민자유치, 기존부지 매각 늦어져 선투자 후 교환(국제 7. 21)
* 지방고시 응시자격 제한, 주민등록지로한정, 타 지역 유학생 길 막혀 …본적지 바람직, 타 지역자 응시 불가능해 참여확대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국제 7. 21)
* 부산시의회 상임위 질의・답변 요지, 「오염 해수욕장 폐쇄」 입법 건의, 질의-공원관리권 자치구로 이양하라・고령자 주차관리원 취업방안은, 답변-미화당 백화점 등 안전 일부하자 발견・경로당 현대화 작업 각 구청별로 추진(국제 7. 21)

* 전국 첫 산・학・관 협력 연구기관, 부산 수산기술센터 추진, 시・수산대 공동 연말 설립, 지역 내 가공업체 연구활동 등 대행(부산매일 7. 21)
* 정부, 부산 지하철 5백억 추가 지원, 부울 전철 복선화・광안대로 건설비도 지원키로(부산매일 7. 21)

7. 22
* 부산시, 서면・남포동 통행료 징수, 내년부터 2인 이하 승용차 13인 이하 승합차, 하수도 요금 매년 20% 인상, 기장군 개발 계획 영영 발주, 의회에 업무 보고(부산매일 7. 22)
* 6대 해수욕장 죽어간다, 부영양화・오염으로 기능상실 위기, 매립개발 남발・하수유입 방치, 전국 34곳 중 수질 등 최하위권, "체계적 생태계 진단 서둘러야"(부산매일 7. 22)
* 시의회 상임위 질의・답변 요지, 기장 그린벨트 완화 불가능, 질의-시가 공동어시장 관리감독해야・시내버스 냉방시설 설치 왜 늦나, 답변-영세기업 위한 신보 조합 설립 검토 중・낙동강 일대「상수원 보호」지정 어려워(부산매일 7. 22)

7. 23
* 남부 태풍 직접 영향권에, 제3호 태풍「페이」오늘 제주 상륙 지역 따라 최고 1백㎜ 집중호우 예상(부산매일 7. 23)
* 부산시의회, 시 제출 각종안 "실정 안 맞다" 무더기 심사보류, 고속철 부전역 미지정 "불가", 정무 부시장안 수정 통과도(부산매일 7. 23)
* 민선구청장 과욕 "부작용", 현실성 무시한 전시성 아이디어・정책 많아 예산낭비・불협화음 등 부작용 낳아(부산매일 7. 23)
* 시의회 상임위 질의・답변 요지, 명지주거단지 평당 1백20만원선, 질의-문예진흥기금 확대 조성 방안은, 답변-장비 태부족 16층 건물 진화 불가(부산매일 7. 23)
* 구청이 해운대 해수욕장 망친다, 건축 폐자재 백사장에 대량 투기, 피서객 부상 등 피해 속출(부산매일 7. 23)
* 부산시,「전자 시장실」내달 개설, 공개행정의 일환으로 PC 통신망 통해 시장-시민 직접 연결(부산매일 7. 23)

7. 24
* 태풍 강타 38명 사망 실종, A급「페이」강풍 폭우 동반 …선박 수백척 침몰, 부산 12명 희생 …경남 농경지 7백ha 침수(국제 7. 24)
* 예비 신랑 덮친 무정한 파도, 선원 구조하다 실종 박창희 순경, "위험 무릅쓰고 인명구조 임무 다하려 …"(국제 7. 24)
* 서낙동강 10㎞ 강변도로 개설, 강서 종합적 하천 정비, 도시기반 조성・상습 침수 방지키로(부산 7. 24)
* 2대 부산시의회 임시회 결산, 민선시장 시대 위상설정 관심, 집행부-시정 업무 보고 구태 못 벗어나, 초선들 의욕적 질의 시종 진지한 모습, "의원 자질함양 노력 따라야" 한 목소리(부산 7. 24)
* 남항서 배 침몰 8명 참변,「페이」부산・경남 피해 어선 62척 파손・농경지 천ha 침수, 강풍에 축대 붕괴・정전 소동, 여수선 해일로 16명 사망・실종(부산 7. 24)
* 강풍・해일 …인명 피해 속출, 태풍「페이」강타 부산・경남 14명 사망・실종, 급유선 전복 구조경찰 등 8명 참변, 농지・양식장 유실 수천억대 재산 손실(국제 7. 24)
* 부실「도개공」주민 긴급 대피, 강풍에 흔들 …시청에 몰려 농성(국제 7. 24)
* 피고인 신귀영 등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80고합448호 간첩 등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법원사 7. 24)

7. 25
* 부산시「10년 대계」"흔들린다", 8개 대규모 역점 사업 재원 확보 "막막", 일부 중단 되거나 착공 어려워, 아시아드 성패 열쇠 …대책 시급(부산매일 7. 25)
* 부산시의회 제45회 임시회 결산, 시정 감시자 역량 한 단계 제고, 초선-시정질의・방향제시 "눈길", 시-대안 없이「공략」반복보고 "흠"(부산매일 7. 25)
* 명지・녹산 공단 조성 어업권 보상 민원 "봇물", 기준모호・최종선정권 민간 일임, 2천1백여명 이의 신청(부산매일 7. 25)
* 부산시, 지역개발 30대 현안 선정 사업별「팀제」운영, 가덕도 등 대형사업 효율 추진, 실국장급 팀장이 총괄 관리케(부산경제 7. 25)
* 매주 수요일을「절수의 날」로, 시 상수도 본부 올해도 물부족・아껴쓰기 적극 전개(시보 7. 28)

7. 26
* 광안대로 건설 갈등 심화, 남천 1동-"주거환경 저해 매립공사 철회", 남천 2동-"공유수면 메워 발전 앞당겨야"(국제 7. 26)
* 문정수 시장 자치규 초도 방문, "교통난 완화에 최대한 지원", 서부권 연결 산업 도로 건설 시급(시보 8. 4)

7. 27
* 부산항 침투세력 발 못 붙인다, 육・해・공・해경 합동 대응 훈련, 수중 레이더 투하 잠함 탐색, 고속・경비정 출동 적함 격침(부산 7. 27)

* “행정 효율성 제고” 총론 공감, 여권-지방행정조직 개편 재추진, 6대 도시 구기능 축소 등 주안, 지방의회 이해대립 극복 과제(부산매일 7. 27)
* 부산수협, 다대 수산물센터 내년 10월 착공, 4백90억 들여 5만㎡ 규모로 내년 10월 건립(부산매일 7. 27)
* 기름띠 오늘 부산까지, 유조선 좌초 닷새째 어제 통영 해역 유입 “사해화”, 장비・약품 모자라 방제 늦어, 어민 피해 수백억원 넘어서(부산매일 7. 27)
* 부산시, 쓰레기 행정 “갈팡질팡”,「을숙도」사용 전 폐쇄 “예산 낭비”, 생곡매립장 앞당겨 완공 “졸속”(부산 7. 27)
* 부산시, 민자유치 10대 사업 선정, 빈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위해 서면~사직 경전철・초읍터널 등 추진(부산 7. 27)

7. 28
* 2002년 아주게임과 환경 좌담,「그린 아시아드」쾌적 부산 기대, 녹지・공원 확보가 제1선결과제, 21세기 내다보는 정책입안 필요, 장림에 그린시범타운 조성・기업체 하천 오염 상시 감시제 필요(국제 7. 28)
* 민자 유치 10개 사업 선정, 부산 발전연 용역 최종보고, 초읍터널 경전철 3개 노선 등 확정(부산매일 7. 28)
* 부산시,「쓰레기 행정」갈팡질팡,「을숙도 연장 불허」에 행소 방침, 주민엔 “연말까지만” 미봉 약속(국제 7. 28)
* 회동 수원지 오염 위지, 독극물 실은 대형 트레일러 전복, 부산시 상수도 본부 늑장 출동 유출량 파악 등 허점, 경찰 관계자 소환 확인조사(국제 7. 28)
* 안전점검 관공서제외 노후시설 대책 절실, 기둥・천장 등 곳곳 균열, 건축 전문가 없이 관리 땜질 보수(부산매일 7. 28)
* 부산 쓰레기 파동 부채질, “지역 국회의원 압력 받아 을숙도 매립장「연장」철회”, 부산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키로(부산매일 7. 28)
* 부산시 사업별「팀제」운영, 지역 개발 30대 현안 적극 추진, 부산 발전을 조기에 가시화 위해 팀구성 통해 책임성・효율성 확보, 주관 부서의 실・국장을 팀장으로, 추진상 문제점 해결에 공동 대처(시보 7. 28)
*「시설 안전 관리 본부」조례 의결, 7월 21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사한 뒤 임시회 폐회(시보 7. 28)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우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도 점검에서 중구가 우수구 선정(시보 7. 28)
* 자원봉사 진흥 기금 조성, 시 참여 활성화 방안 추진・전산 관리도, 활동 중 사고 땐 보상제 실시(시보 7. 28)
* 시영 아파트 긴급 안전 진단, 8월부터 시작, 90년 이전 건립 된 309동이 대상(시보 7. 28)
*「전자 시장실」8월 중 개설, 시 PC통신망 통해 시장・시민 직접 연결(시보 7. 28)
* 올 여름 전력 수급 안정・절전 운동, 상업・주택용 중심 전력 소비 급증 억제, 전기 에너지 소비 절약「백가지 실천」추진 등 시민 참여 유도(시보 7. 28)
* 95년도 청소년 기금 융자, 시설비의 50%이내 6억원까지(시보 7. 28)
* 아시안 게임 준비・교통난 해결 등 96년 국비 지원 추가 확보에 총력, 시 재정 경제원 등 찾아 적극 설득, 문정수 시장 매주 중앙 출장 “최선”(시보 7. 28)
* 시정 동정, 시장-YMCA 주최「지방 자치의 발전과 시장을 위한 조찬 기도회」참석 외 1건(시보 7. 28)

7. 29
* 부산시, 인사 4급 전보 외 다수(시보 8. 4)
* 부산시 간부 대폭 인사, 2~5급 94명 … 행무 부시장 8월 발령(국제 7. 29)
* 폭주족「살인단속」, 순찰차 오토바이 추돌 고교생 3명 사망, 나뒹군 피해자 버려둔 채 뺑소니, 가로등 받아 즉사 … 도주 경관 뒤늦게 검거(국제 7. 29)
* 부산 앞바다에도 적조, 가덕도~송정 내항으로 퍼질 땐 양식장 큰 피해, 경남 지역 계속 확산(부산매일 7. 29)

7. 30
* 부산시, 예산 신청 “요령부득”, 치밀한 사업계획 없이 손부터 내밀어, 번번이 삭감・삭제 수모 자초, 반영 안 되면 지역의원에 기대기도(부산매일 7. 30)
* 오토바이 폭주족 끝내 참변, 단속과정 윤화 3명 사망, 순찰차 구조하지 않고 현장서 달아나다 붙잡혀(부산매일 7. 30)
* 민선 부산시장・경남지사 취임 한달, 책임・경영 행정 뚜렷 …예산 확보 과제, 부산시-「안전본부」발족 …8개 사업 총력전, 경남도-「자치기획단」출범 …시장 개척 박차(부산 7. 30)

7. 31
* 해운대 해수욕장 탈의장 “요주의”, 도난 사고 빈발, 개장 이후 11건 발생, 잠금장치 허술 … 2~3인조 설쳐(부산 7. 31)
* 교통불편 신고 “하나마나”, 행정처분 14% 불과, 처리기간도 길어 … 행정 낭비 지적(부산 7. 31)
* 민선 시대 한달 …달라진 행정 현장, 민원 “넘치고” 단체장 “땀나고”, 흑자경영・재원확보에 안간힘, 면모일신 … 의욕 앞서 부작용도(부산 7. 31)

* 해항청, 공유수면 매립 독식, 부산시와 협의 없이 관할확대 추진,「가덕도～욕망산 관리」입법 예고, 부산시-서낙동강권 개발 차질 반발(국제 7. 31)
* "낙동강 하류 개발 재고하라", 학술 토론회 반대 확산, 고수부지・을숙도 개발 되레 환경 파괴(국제 7. 31)

8. 1
* 부산시, 지사과학단지 조성 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 사업집행을 위한 국비지원요구액이 대폭 삭감, "부산 봐주기 없어…", 재정경제원 국비요청 3천억원 또 삭감, 지원규모를 보다 줄어…문시장 상경, 지사・아시아드 준비 등 차질 불가피(부산경제 8. 1)
* 부산시, 해수욕장 피서 짜증난다, 교통체증에 불법주차 극성, "부르는 게 값" 몇 배씩 바가지, 쓰레기 마구 버려 곳곳에 악취, 부산 "시민의식 실종・당국 대책 부재 탓"(부산매일 8. 1)
* 부산시내 행정기관, 공공시설 관리・운영 둘러싸고 수익성을 이유로 마찰・사업자체 포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정이기주의, 자치구 잇속만 "눈독", 수익사업 골라 이관요구, 도서관・주차장 운영 등 대민 행정 기피(국제 8. 1)
* 부산, 또 물부족 비상, 낙동강 4개 댐 가뭄 극심해 작년보다 저수량 적어, 찜통더위로 물사용량 급증, 수질 악화…정수난과 겹쳐 절수 비상대책 불가피(부산 8. 1)
* 불법 차고지 집중 단속, 9월말까지 개인택시와 개인 용달 등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불법 차고지 이용 집중 단속키로(시보 8. 11)

8. 2
* 부산, 일선구청 민선단체장 체제실감, 행정직제 "신선한 변화", 획일적으로 편성된 직제를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통폐합 또는 신설, 시민편의 위주・업무처리 일관성 점검(국제 8. 2)
* 부산, 광복50주년 맞이해 일제시대 석탑불상 폐지논란, 금강공원 13층 석탑과 돌 기념비 등 처리고심, 전자공고 뒷산 불상 온천장 굽어보는 모습, 일본 중고생들 여행 때 꼭 참배(국제 8. 2)
* 부산시, 기존 공원조성계획 변화, 공원녹지 중장기 계획수립・시행, 도심공원 문화・예술공간 조성,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민간참여 등「공원위원회」구성(부산 8. 2)
* 일본, 헤이그밀사 사건 직후 내각회의서 고종의 황제위를 일왕에게 양위하는 방안을 논의한 문서발견, 정신문화연구소 교수 일본 외무성문서 입수(부산 8. 2)
* 부산, 동래구청・동래자생단체들 청소년주민들을 위한 무료강좌 "풍성", 구청・지역단체에서 각종 프로그램 마련, 컴퓨터・민속교실 등 다양(부산매일 8. 2)
* 부산시・부산교통공단, 지하철3호선 석대로 지상화 문제 많다, 동도농산물 시장 부지통과 건립 차질, 주민숙원 우회로와 겹쳐 건설 못할 판, 1백억원들인 주차장 등 관통 "못 쓰게"(부산매일 8. 2)

8. 3
* 부산, 복천 고분군 보존사업 지연, 시공자 부도로 보상 문제 겹쳐 계속 난항(부산 8. 3)
* 부산, 시내버스에도 냉방장치 설치 의무화됐지만 버스업자들 추가비용 문제로 도입 미루고 있어, 찜통 시내버스 승객들 곤욕, 냉방장치 설치한 곳은 부산시내 2천51대 중 16대 불과, "서비스개선약속 외면 요금인상 궁리만" 시민들 분통(부산 8. 3)
* 부산, 민선단체장 시대 맞아 지역이기주의팽배, 주민들간 반목・마찰 잦다, 도로개설・버스운행을 둘러싸고 갈등, "이웃사촌 무색"구청 중재곤혹(부산 8. 3)
* 부산시, 해운대 신시가지 동경계 조정,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 6개 학교・아파트 단지 6곳 등 대상, 연말까지 마무리예정(국제 8. 3)
* 부산시,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전면 재편, 문시장 취임한달 회견 시정 10대 과제 발표, 기장군 편입 등 개발조정 불가피, 시 산하 지방공사로 항만공사의 설립 추진(국제 8. 3)
* 부산시VS대구시 힘겨루기, 환경보호VS지역개발, 낙동강변 위천공단 조성문제를 둘러싸고 마찰, 민성단체장 출범 이후 광역자치단체간 최초의 이해대립으로 "귀추 주목"(부산매일 8. 3)
* "열린 행정・도시경영 행정 펼쳐", 지방화 시대 부응 항만 관리권 이양 추진 등 10대 정책 과제 등 밝혀(시보 8. 11)

8. 4
* 부산, 상습 침수구역인 강서구가 4대 하천과 주변 부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침수피해 방지와 지역 개발을 동시에 추진, 강서구 강변도로 42km 개설, 상습 침수피해 방지(국제 8. 4)
* 부산, 기장군 3일 경영수익사업 밑 군정발전시책의 연구개발・군민소득 증대방안 강구 등을 위한 2010 기획단 발족, 달음산・불광산 개발 계획 등 추진(부산매일 8. 4)
* 부산시, 아시안게임 때 선수촌과「아시아드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던「하얄리아」부대 부지 인수 새 암초, 미군 "새부지・시설비 대책없다" 이전 거부, 아시안게임 선수촌 차질, 부산시 미정부와 직접 협상해야 할 판(국제 8. 4)
* 정부, 부산을 비롯 전국 각 자치단체의 내년도 국비 지원예산을 편성, 예산편성 문제 많다, 아시안게임 부산도 "삭감", 타당성・완급 불문하고 할당, 지방자치단체 형평성 고려해 가감불가"(부산매일 8. 4)

* 정부, 부산항 관리 운영권을 부산시로 이관 추진, 부산항 운영 및 관리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金해항청장 “시정 자립도가 갖추어 지면 언제든지”(부산매일 8. 4)
* 문정수 부산시장, 기존 행정 조직·기구 인력·제도 등 경영진단 실시, 항만공사 설립검토, 문 부산시장 시정계획 다시 조정(부산매일 8. 4)
* 부산, 녹산 추가매립지에 LNG기지 설립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 가스공사, 건설교통부에 공단계획 요청 변경요청, 신항만 개발과 배치(부산 8. 4)
* 제2대 부산시 교육의원 선거, 혼탁은 있고 처벌은 없다, 과열·타락 심화, 관련 법규 미비, 교육자치·공직 선거 법 등 적용 못해, 검찰 “탈법에 속수무책”(부산 8. 4)
* 문정수 시장 중앙 출장 동분서주, 정부부처 돌며 예산 자원 적극 요청, 96 부산 국비 지원 현안 사업 총 14건(시보 8. 4)
* 택시 기사들의 제복 착용 11월부터 의무화, 일반 택시기사들 복장 개인택시·모범 택시 기사 수준으로(시보 8. 4)
* 시정 동정, 시장 -「노총의 장단 및 산별 대표와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 외 2건, 부시장-오타나베마사또 환담 외 1건(시보 8. 4)
* 지하수 이용자 지역 개발세 부과, 시 9월부터 음용 및 목욕용에 징수(시보 8. 4)
*「지방자치 복권」120만매 팔려, 부산 7월 한달 6억원 수익(시보 8. 4)
* 건물 제조업의 합리 업종 지정을 97년까지 연장으로 자금 지원, 3차례 연장한데 이어 97년 연말까지로 4차 연정(시보 8. 4)
*「시정모니터」공개모집, 8월 20일까지 우수자 보상금 지급(시보 8. 4)
* 태풍 피해에 세제 혜택, 시 정도 따라 재산세 등 면제·감면(시보 8. 4)
* 회동 수원지「오염징후」없이, 시 상수도 본부-유독물 유입 여부 정밀 분석(시보 8. 4)
* 광복 50주년 기념 학술실포지엄, 10일 부산시 주최 일제 강점기 부산지역 중심 전개된 선열들의 항일 정신 되새겨(시보 8. 4)
* 버스 전용차로 위반 집중 단속, 8월 말까지 기동반 편성 혼잡지 15곳 중점(시보 8. 4)
* 여름 휴가철 불법 영업 강력 단속, 시 무허가 식품 접객소·심야변태 영업 등 미성년 주류 제공 등 문란 행위도 단속(시보 8. 4)
* 자동차 고장·안전 점검하세요, 소모품 무상교환 등「하계무료점검」실시, 시 해운대 공영 주차장에서 19일까지(시보 8. 4)
* 즐거운 휴가 환경을 생각합시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최고 1백만원 과태료 부과(시보 8. 4)
* 자치단체 경영사업 활발, 95경영 행정 연구 발표회 가로 등 점멸기 자동 조도 제어 장치 및 해수열탕 운영 등 기발한 사업 쏟아져 수익성·타당성 평가 받아(시보 8. 4)
* “경전철 등 민자 유치 10개 사업 제시”, 부산 발전 연구원 용역 보고서 제출(시보 8. 4)
*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 행정을 경영 서비스 조직으로 토론하고 대안 찾는 분위이 유도(시보 8. 4)
* 각종 공사 부산 업체 참여 확대, 문시장 건설회사 대표 간담회(시보 8. 4)
* 부산시장배 비치 발리볼 대회, 8일 해운대 해수욕장 16개 팀 참가(시보 8. 4)
* 홍보 책가「우리 고장 부산」출간, 애향심 고취하기 위해 홍보 책자 발간(시보 8. 4)
* 책임·경영 행정 강력 추진, 민선 문정수 부산 시장 취임한달(시보 8. 4)
* 부산 시 간부 대폭 인사 2~5급 94명(시보 8. 4)
* 쓰레기 20% 감량 운동 펼쳐, 시 종량제 실시 이후 최근 다시 증가하는 쓰레기를 20% 감량하기로 밝혀(시보 8. 11)
* 고속도로 119구급대 운영(부산시정 8. 4)

8. 5
* 부산시, 문화재보호구역 개발 대가, 철새 인공서식지 효과 의문,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 무시·환경파괴 가속화 우려, 학계·시민단체 참여 자문기구 시급, 김해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토론회(부산 8. 5)
* 한국신발연구소, 녹산공단 내 조성될 피혁산업협동화단지에 피혁전문연구분소 설치, 피혁연구실·자동차 연구실도 추가 신설, 신발연구소 협동화단지 내…인력도 보강(부산매일 8. 5)
* 부산시, “수영, 21세기 부산 중심으로”, 세부개발계획은 용역 의뢰, 무역·정보 복합업무 유치, 해운대 연계 관광서비스 기능 강화(부산매일 8. 5)

8. 6
* 부산지역 일선 구청, “우리 집 앞에 도로를” “일자리 마련을”…, 구청장에 억지 민원 홍수, 구와 무관한 업무도 “해결하라”, 민선 내세워 집까지 방문 생떼(부산매일 8. 6)

* 부산시, 구청들의 지방세무행정 여전히 엉망 “낮잠”, 올해도 지방해 수억원 시효소멸로 결손, 지역개발세도 부과 미루다 소급 징수 “원성”(부산매일 8. 6)
* 부산지역 시중 건자재 및 철강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 부산경제 회복세 “뚜렷”, 제조업 등 큰 폭 증가, 건축허가면적도 지난 해보다 60%이상 급증(부산매일 8. 6)
* 한국전력공사・통상산업부, 감천화력발전소 폐쇄시한을 98년에서 97년으로 앞당겨 45만kw규모 초진, LNG 발전소로 대체,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부산매일 8. 6)
* 부산 강서구 일대, 무허가 조선소가 난립 이들 업소로부터 배출되는 폐유 등 각종 산업강서폐기물로 철새 보호구역 “신음”, 환경오염・생활불편 가중(부산매일 8. 6)

8. 7
* 부산시, 이원화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대상에 건설폐기물・대형폐기물 추가, 구별 요금 규정(부산 8. 7)
* 부산, 사상구청이 분동 대상인 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해당 동사무소에 계장제를 도입하는 등 「대동제」 도입,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직 확대・강화, 구청 업무 일부 동사무소에 이관하는 방안 추진할 예정(부산 8. 7)
* 정부, 가덕도 신항만 배후지에 고속정보교류체제 갖춘 「첨단정보도시」 건설 예정, 2만명 수용…국제무역센터도 건립(국제 8. 7)
* 부산시, 을숙도 및 신호지역의 인공생태계를 위한 습지조성과 낙동강 주변 5개 고수부지개발사업 재검토 해야, 부산대 환경연구소 「낙동강하구의 습지보존과 개발에 관한 토론회」 서 지적, 쓰레기 매립지 들어선 을숙도 부적합, 고수부지 개발할 때는 수서식물 급격 감소(국제 8. 7)
* 부산지역, 개발사업장 안전 “구멍”, 부산 북・사상구청, 전문가 초빙 점검결과 밝혀져, 대부분 붕괴・침하・균열 등 발생, 보완공법 채택・정밀진단 시급(부산매일 8. 7)
* 부산, 을숙도 사용 연말까지, 문정수시장 매립장 주민과 약속 지키겠다(국제 8. 7)
* 부산, 일제 때 개명됐던 산・들 마을 이름 50년만에 제 이름 찾아, 국립지리원 일제 지명 37개 고유 지명 환원(국제 8. 7)
* 부산, 일제가 세운 「부산진매축기념비」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 일제, 바다매립 공사기념 건립, “중앙청도 없애는데” 처리 주목(국제 8. 7)
* 8월 중 녹색 교통 운동 전개, 시・구・동 전공무원 비롯 각급 단체에서 어깨띠・모자 착용・피켓・플랜카드 등 활용 시민 참여 홍보(시보 8. 11)
* 교육감기 쟁탈 수영대회(부산교육 8. 7)

8. 8
* 부산, 항일운동 산 교육장으로, 백산상회 독립기념관으로 새 단장, 친필서한・유품・신문 등 70여 점 전시, 전문가 14명 구성 현대식으로 새로 지어(부산경제 8. 8)
* 부산지역 수출구조, 올 하반기 경공업위주에서 중화학제품위주로 급반전, 엔고・동남아국가 설비투자 힘입어, 6월 전체비중 47% 차지(부산경제 8. 8)
* 부산,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만들기 「녹색도시 부산21」 안 확정, 환경선언 내달 공포, 시민・기업 등 실천의지・원칙 천명(부산 8. 8)
* 연료단지 둔치도 확정 부산 6개 연탄공장이전 시민불편 해소 국무회의, 조성 승인안 의결(국제 8. 8)
* 부산,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발표, 부산 산업별 수출 무게중심 대이동, 경공업이 주도하던 시대에서 중화학 새로운 물결로, 지난 6월 기점 사상 첫 역전 현상, 엔고・구조조정 효과, 신발 등 침체…격차 가속화(부산 8. 8)
* 부산, 해운항만청 가덕도・울산・포항 영일 등 전국 7곳을 새로 건설하고 이산항과 군장신항 광양항 등 시설 확장 하는 「신항만 개발 계획」 발표(부산 8. 8)
* 부산, 부산연안 적조현상 장기화, 발생 한달째 가덕도에서부터 해운대를 거쳐 기장군까지 확산, 하천 등에서 영양물질 유입 “이상번식”, 하수처리시설 확충이 시급(부산매일 8. 8)
* 해방전후 우리나라 정치상황 및 사회상과 맞물린 대형 사건들과 관련된 판결문 발견, 창원지방법무 사회 김 소장, 군장교 총살・다대포 여객선 침몰 등, 당시 대형사건・사고 고스란히 담아, 정치・사회 상 한눈에 “사적가치”(부산매일 8. 8)
* 조국해방 50주년, 우리 문화・예술 현주소 광복 50년 현실과 과제, 보편성 추구 주제의식 절실, 번역 작업 빈약・세계화 후진 굴레, 분단상황 한계 보고차원 머물러(부산매일 8. 8)
* 부산지역 시설물 안전관리 “구멍”, 대형사고 예방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되면서 연구소 및 기관 업체로부터 지정신청 받아, 부산은 단 한곳도 없어, 전문 진단기관 전무…서울 등과 대조(부산매일 8. 8)

* 부산시, 영세 정신질환자 강제 퇴원, 부산시 의료보호 진료비 적체이유 조치, 3백여명 귀가・요양시설 복귀, 치료 방치 각종 부작용 우려도(부산 8. 8)
* 부산 서면, 태화쇼핑 비롯 일부 대형건물 불안하다, 부산시 안전점검 결과 정밀진단 필요, 무리한 증축, 보수 시급, 서부터미널 바닥・옹벽에 심한 균열, 애운차크 아파트 경우 「배부름」 현상(국제 8. 8)
* 부산시, 구청장전결권 대폭 조정, 수영구 구청장 종전 구청장이 갖고 있던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을 북구청장에게 이양(국제 8. 8)
* 부산, 2011년까지 현재 부산항 규모의 10배에 달하는 항만시설 추가 건설, 가덕도・울산곶 신항・포항 영일만 신항・서남해안의 이전 북항 등 10곳에 신항만 건설 추진(국제 8. 8)
* 부산시, 2011년까지 전국 10개 권역에 부산항 규모의 신항만 연차 건설, 가덕도・울산 신항만 등 대상(부산경제 8. 8)
* 3공화국 정권, 정치적 이유로 폐기처분 되었던 40~50년대 대형사건 법원 판결문 필사본최초 공개, 법무사 김씨 소장자료 기증, 다대포 앞바다 창경호 침몰사건 등 수록, 공안사건 등 당시 재판과정을 상세히 조명(부산 8. 8)
* 부산시, 태화쇼핑 해운파크아파트 등을 비롯 대형시설물 70%가 안전문제 이상, 107곳 안전점검 결과 75곳이 구조불안 누수・균열현상, 부산시 긴급보수・안전정밀진단 실시할 것(부산 8. 8)
* 부산시, 「힘 있는 시장론」 무색한 국비삭감, 부산시 사업진행에 "비상", 지하철・지상단지 등 건설에 차질… 사직경기장 "예산무", 재경원 6천억원만 지원, 올해보다 2천억원 감소(국제 6. 6)

8. 9
* 부산시, 분뇨이송관의 낙동강 통과방법을 두고 부산시 VS 한국수자원공사 마찰, 낙동강 하구둑 두고 부산시 비협조적 태도일관(국제 8. 9)
* 부산시, 내년 부산항 건설사업 예산이 당초 요구액보다 절반 가까이 삭감,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 재경원 5백억 확정 해항청의 요구액 49% 삭감, 순환도로 개설비용 등 미반영, 주무장관협회・당정 협의회 통해 사업추진 시급성을 강력히 개진할 것(부산경제 8. 9)
* 부산시, 누적되어온 의료보호 진료비 적체 해소 위해 영세민 정신환자 3백명 강제 퇴원, 부산시 진료 기회박탈 말썽, 진료비 절감으로 수혜대상 늘리기 위한 방침이었을 뿐(부산경제 8. 9)
* 부산시, 일선관공서 주차장 유료화, 부산시 내달 시행 확정…민간 기업체에까지 확대할 계획, 시민 반대 클 듯(국제 8. 9)
* 부산시, 승용차 이용 억제하고 협소한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을 위해 구청주차장 내달부터 유료화, 부산시 법원・검찰청 11월에・기업체는 내년에 실시할 예정, 1시간 이내 주차는 면제(부산 8. 9)
* 부산, 중・고교 학생선발방식인 「선복수지원 후추첨배정」 내년 전면시행, 시 교육방침 중학교는 일단 시행 유보, 현행 학군 그대로 유지, 선택 학교 2개교 유력, 배정이 안 되면 근거리 우선방식 구제, 빠른 시일 내 여론수렴 최종안 결정(부산 8. 9)
* 부산항, 내년도 건설사업에 필요한 예산 당초 요구액보다 절반 가까이 삭감된 상태서 확정, 해항청 요구 9백89억 중 5백억만 반영, 순환로 개설 등 4개 사업은 한푼도 안줘(부산매일 8. 9)
* 부산,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 상당액 삭감, 아시안게임은 어찌하라고…, 국비지원 따내기 "마지막 승부", 지하철 3호선・사직주경기장 "필수사업" 설 듯, 부산시장 전면에 나서…하수처리장 건립도 추가(국제 8. 9)

8. 10
* 부산시, 시민 휴식처 금정산의 체계적 관리・유원지화 위해 전담기구 건의, 금정구 "시 직할 관리사업소와 같은 전담기구 설치 필요"(국제 8. 10)
* 부산시, 변두리지역주민의 교통불편해소 위해 10일부터 시내버스 13개 노선 조정, 1백5대에 대한 노선 조정・운행, (502)아미동~부산역 시설・(183)부대까지 연구(부산 8. 10)
* 부산시, 수영구 대남로터리 지하차도 공사 장기화, 수영로 일대 교통대란, 황령터널 개통 이후 차량 몰려 통과하는 데만 30분, 도시가스・낙동마을까지 상시 연쇄체증, 10월 지하철공사할 때는 "지옥"일 것(부산매일 8. 10)
* 부산시, 내달부터 시청・구청 주차장 유료화, 1시간 넘으면 적용(부산매일 8. 10)
* 부산지역, 주종산업이었던 신발업 수출부진 가속화・생산량격감으로 침체국면, 9개사 생산 줄고 수출 크게 부진(부산경제 8. 10)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제6차 상수도확장공사 및 부산정수장내 1단계 오존처리시설공사 완공 11일부터 본격 가동, 하루 50만톤 추가 생산, 고지대 식수난 크게 완화될 것, 「부산」 1단계 오존처리시설 내일 가동식(부산매일 8. 10)

* 부산, 관광특구가 해운대 환락 특구로 전락, 내국인 대상 업소 난립, 20대 초반 젊은 층 타겟, 대낮 카바레·24시영업 탈선조장, 법적·제도적 지원미비로 유흥시설만 밀집(부산매일 8. 10)
* 부산시, 하수도사용료 전산화 작업에 따른 체납액 정리작업 착수, 하수도세 무리한 징수 물의, 5년치 체납액 한꺼번에 소급 부과, 납부자에게 독촉장…항의 빗발쳐, 영수증 없어 선의피해자 속출, "처리비용 든다" 미루다가 뒤늦게 정리(부산 8. 10)
* 「95 을지연습」 준비사항 보고회, 문정수 시장 주재 8월 21일~26일까지 실시(시보 8. 11)

8. 11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황령터널 접속도로 대남로터리지하차도 공사 중단, 교통대란 장기화, 무책임한 행정에 시민분통, 3번째 시공업체도 부도, 특히 9월 지하철공사 본격 착공될 경우 교통대란 우려, 내년 완공은 불가능…진정·시위 잇따라(부산 8. 11)
* 부산시, 해운대온천지구 개발사업 민간·공공이 같이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 시공청회 회사설립·미분양으로 물자조달, 월 내 최종확정(부산 8. 11)
* 서부산권 개발사업, 가덕도개발 관련 공단유치 여부가 향후 개발방향 변수로 작용, 용역보고 각종 제약이 많아 중앙지원 절실(부산 8. 11)
* 부산 해운대온천지구 개발, 재원·토지 확보 방안을 고려해 민자유치에 따른 제3섹터 방식 적합, 시공청회, 자금조달이 쉽고 효율적 진행이 가능(부산경제 8. 11)
* 부산 지하철2·3호선 건설, 예산 미비 정부의 지원기피 등으로 차질, 시 공사예단교부 늑장, 정부, 설계비 지원기피(부산경제 8. 11)
* 부산시, 내년부터 2001년까지 해운대 좌동 일대에 「온천리조트」, 부산시 개발계획 용역보고회, 4천5백억 투입 2만여평 규모(부산매일 8. 11)
* 부산, 광복 당시 6천3백37대 불과했던 자동차 수 95년 7백92만6천대로, 광복50주년… 「통계로 본 한국」, 자동차 대수 1,251배 증가, 수출액 4천3백6·수입액 4백92배, 근로자 월 명목임금 70년보다 71.5배, 탁·약주 소비 줄고 소·맥주 11,260배, 1인 GNP 127배…범죄자는 74년에 비해 4.4배(부산매일 8. 11)
* 부산, 쓰레기매립장 둘러싼 을숙도·생곡 사용기간 두고 인근주민 갈등 양상, 사하구의회 "시가 연말완료 약속" 연장반대 결의, 생곡주민 "조성공사 우선 돼야" 조기반입 거부(부산 8. 11)
* 부산시, 건축물 안전진단 "형식적", 특수장비·전문인력 예산이 전혀 없어, 공무원의 육안검사만 급급, 수영구청 백2개소 점검 71곳 안전판정(부산 8. 11)
* 부산 사하구 하단동, 낙동강 하구둑 교량 신축이음보수공사 착공, 4개차선 중 편도 2개차선 통제 실시, 차선 통제로 극심한 교통체증(국제 8. 11)
* 부산시, 가로질러 흐르는 도심하천 오염도 날로 심각, 적조현상 등 해양오염원인·가중, 부산 BOD 최고 24배 악취까지 발생(국제 8. 11)
* 부산 남구, 대남로터리 지하도공사 또 중단, 세 번째 시공업체마저 부도를 내 공사 중단, 해운항만청의 시공사 「선정」 문제가 큰 것으로, 연내 공사 불투명, 수영로 교통체증 장기화(국제 8. 11)
* 부산지역, 일선구청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구·조직개편 추진, 일부 통·폐합 대상 실·과 간부급 공무원들의 반발, 조직개편 진통, 기득권 유지에 위협 느껴 대과주의로 직제개편 추진 골머리(부산매일 8. 11)
* 가덕도 종합 개발, 53선석 규모 동북아 최대 무역항 부상, 개발 계획 연계 「항만 관리 공사」 설립 추진(시보 8. 11)
* 「부산 아젠다21」 초안 확정, 녹색 도시 가꿀 3대 기본 방향 21개 행동 원칙 제시(시보 8. 11)
*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 8월 한달 시 재정 확보 위해(시보 8. 11)
* 시내버스 순환 노선 신설·변경, 변두리 불편 지역 해소·주민 교통편의 위해(시보 8. 11)
* 시 교육위원 후보 등록 마감, 부산 시의회서 8월 22일 16명 전출(시보 8. 11)
* 부산 수출 중화학 제품이 주종, 하반기 들어 전체 비중 47% 차지(시보 8. 11)
* 「95바다예술제」 개막, 광복 50주년·아시안 게임 부산 유치 기념으로 광안리서 나흘 간 다양한 문화 행사 열어(시보 8. 11)
* 구청 인사, 해운대구 문화 공보실장 직대 이영규 외 10명 시하구 5명(시보 8. 11)
* 아파트 불법 구조 변경 행위 원상 복구 9월말까지 연기, 당초 8월말까지로 정했던 아파트 불법 구조 변경 자진 원상 복구 기간을 9월말까지로 연장하고 10월부터 특별 단속키로(시보 8. 11)
* 「카풀」 효율 운영 위해 전산 처리, 시 프로그램 개발로 일선 구청에 보급(시보 8. 11)
* 「고속도로 119구급대」 운영, 각 종 장비 탑재·응급 처지요원 배치 등으로 인명 피해 손실 최소화 대처(시보 8. 11)

* 하루 50만t 추가 증산, 11일 통수식 덕산 정수장 6차 상수도 확장, 1단계 오존 처리 시설 가동도(시보 8. 11)
* 시정 동정, 시장-조찬기도회 참석 외 3건(시보 8. 11)
* 10월 5일 「시민의 날」 행사, 「95 부산포축제」 기본계획 확정(시보 8. 11)
* 가덕도 개발 방향 제시, 11일 시 자문회의서 용역보고(시보 8. 18)
* 8월 21일까지 공사재개 지시, 「컨」 배후도로 공사 중단, 관계부서 대책 마련(시보 8. 18)
* 광복 50주년 기념식, 부산서도 광복회원에 위로금(시보 8. 18)
* 오세민씨를 임명, 초대 부산시 정무부시장에 오세민씨 전공정거래 위원장 임명(시보 8. 18)

8. 12
* 부산환경문제연구소 실태보고서, 금정산 「생태공원」 지정 시급, 수질오염 심각…위락시설 등 정비를, 고당봉 천연기념물 지정 보호 절실(국제 8. 12)
* 부산시, 지난 6. 27지방선거 여론동향 보고서 작성으로 물의 빚은 부산진구 구청장, 시본청 투자관리관으로 전격임명, 부산시 인사 시의회 직원발령도 번복소동(국제 8. 12)
* 부산지역 독립유공자들 숙원사업 실시, 부산 「광복기념관」 내년 착공, 부산시 마안산 5백평 부지에 97년 광복절 준공(국제 8. 12)
* 부산시, 서 전장관 6월 부산서도 비슷한 발언, 검찰 비자금 수사 이모저모, "진원지는 시중 풍문… 사법처리는 없다", 이창수씨 "거액입금 통지 괴전화 받아"(부산 8. 12)
* 부산시, 지역민에 의한 자치는 지역민의 부담이 따르는가?, 지하철 수수료 현실화, 내년부터 원칙주의・사용자부담 원칙 적용, 상하수요금 각각 19.20%인상, 영락공원 사용료도 점차 조정할 것(부산매일 8. 12)
* 부산, 북구・사상・사하구 연결하는 강변도로 건설사업 "반쪽공사", 예산부족 1년째 중단…99년 완공 차질, 금곡지역 교통대란, 총 길이 22.4km…6.3km만 우선 개설(부산 8. 12)
* 부산 지역 정보 교사단 창립(부산교육 8. 12)

8. 13
* 부산시, 민성시장 출범과 함께 「30대 현안」 선정 졸속, 타당성 검증하지 않고 일상적 과제 많아, 신항만・관광공사 등 거시적 과제 제외, 암남공원 개발 등 지역적 사업 포함(부산매일 8. 13)

8. 15
* 부산, 제1회 지방고등고시 원서접수 현황 경쟁률 70대 1, 민선시대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 이양 후 첫 시험, 경남도 51대 1 지역봉사・책임행정 기대(부산 8. 15)
* 부산시, 버스・택시요금 인상 놓고 업계와 대립 첨예, 시 "불가" 업계에서는 "올려달라"(부산 8. 15)
* 부산지역, 광복50주년 맞아 문화재 정비복원・일본문화재를 청산하자, 우리문화재 "제자리로", 일본인들 도시개발 내세워 마구 이전・훼손, 동래부 시설 금강원에 옮겨 방치, 망미루 등 제 모습 잃고 「망(亡)미루」 꼴, 「구포왜성」 등은 기념물 해제 시민공원으로(부산매일 8. 15)
* 백산 안희제 기념관 건립(부산시정 8. 15)
* 부산 3.1기념탑 제공(부산시정 8. 15)
* 부산 3.1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기공(부산교육 8. 15)
* 백산독립기념관 개관(부산교육 8. 15)

8. 16
* 부산시, "세원노출・웃돈감소", 택시・버스업자 거부, 「하나로 교통카드」 암초, "도입강행해도 불만" 반발, 부산시 "교통난 해소에 필수" 설득계속(국제 8. 16)

8. 17
* 부산시, 지하철3호선을 시사업으로 추진, 정부 "지하철3호선 건설 시가 맡아라", 부산 7천억 추가 부담, 국비지원은 30%에 불과, 시 재정 압박은 엄청나, 부산시 수용 적극 검토(부산 8. 17)
* 부산해항청, 부산-북한 나진 직항로 9월 개설, 등용해운에 면허 방침, 연간 2천4백TEU 운송 전망(부산 8. 17)
* 정부, 다음 달 11일부터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부산~나진 정기직항로 개설, 월3회 정기운행으로 중국행 환적화물 주로 이용(부산매일 8. 17)
* 부산, 수영비행장 내 국방부 소유 부지 35만평 이전합의 최종 매듭, 개발사업 본격화될 예정, 대체부지・땅값합의(국제 8. 17)
* 부산시, 슬롯머신업소 신규 및 경신허가금지 조치 이후, 폐쇄된 호텔 슬롯머신이 시중에 마구 유출, 도시 곳곳에 "불법 도박장", 다방・식당 등 천5백대 설치, 사행심 조장・청소년 탈선 우려…사회문제화, 무허가 오락실 업주 구속(국제 8. 17)
* 부산-시모노세키 협력 증진, 일 시장 일행 부산시 방문(시보 8. 11)
* 「부산 3・1독립 운동 기념탑」 기공식, 명장동 마안산 정상서 높이 21m 독립 운동 약사 등이 기록된 탑 건립(시보 8. 18)
* 吳世玟 초대 정무부시장 취임(부산시정 8. 17)

8. 18　* 부산시교육청, 2개 교육청 신설 무산위기, 교육부 “북・해운대 소요인원 자체충당”, “행정효율저해” 교육계 반발(국제 8. 18)
* 부산시, 확대예정이었던 쓰레기 문전수거제도입 난항, “쓰레기처리 주민부담 급증・성량정책 후퇴”, 문전수거제 “백지화”, 자치구 “96년 이후 연기를”, 부산시 “고지대는 시행 불가능, 주민갈등”(국제 8. 18)
* 부산, 국비지원 대상에 미포함 되었던 사업이 2차 예산심의 통과, 10개 사업 6백억 지원 확정, 부산 국비보조 전망 밝다, 지하철3호선 예산반영 검토, 전시장건립 등 지원 계속 요청, 난한 지사과학단지 조성 본격화(국제 8. 18)
* 부산시, 범일동 예식장 등 상업 업무시설 밀집되어있는 상태서 중앙로 일대 대규모 빌딩 들어서, 범일동 교통대란 예고, 상시체증 불구 건설, 현대백화점 개장 뒤엔 수요폭발 예상(국제 8. 18)
* 부산 아시안게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특별법안」 지원 파격조치, 정부 특별법 입법예고 의미, 강서 그린벨트 개발 가능성 제고, 국공유재산 무상으로 대부 가능(국제 8. 18)
* 정부, 경북 중상류에 공단8개 조성, 낙동강 결딴난다, 부산 및 경남 식수원 훼손위기에 처해, 환경용량 초과해 오염 가속화 위기, 시민단체 반발 상경투쟁 불사(부산 8. 18)
* 정부, 미 하얄리아부대 이전문제 둘러싸고 정부의 비협조, 부산시의 추진능력부족, 미군측의 과다한 이전비용 요구, 하얄리아 이전 “원점으로”, “공원화” 시민바람도 물거품, 「아주선수촌」 활용 등 계획 수정 착수(부산매일 8. 18)
* 부산시, 공개행정 위한다던 「전자시장실」 있으나마나, 자료의 대부분이 낡아 “빛 좋은 개살구”, 4개월 전 물가정보 등 그대로 방치, “전시・생색용” 비난 빗발(부산매일 8. 18)
* 부산시와 사상구청, 「사상구 물물유통기지화」 사업, 부실시공에 입지선정도 부적절, 사상물류단지 “실패작”, 상당수 교통난 가중 등 부작용, “지역개발 일익” 기대 무산(부산매일 8. 18)
* 95부산 신발 전시회 신청 접수, 10월 26일부터 부산 무역관에서 개최(시보 8. 18)
* 불법 주・정차 뿌리뽑아, 이면 도로 금지 구역 철저관리, 위반차량 견인위주 강력 단속 등 대책 마련(시보 8. 18)
* 야간 공사하기로, 시민 불편과 교통난 해소 위해서 앞으로 폭 25m이상의 도로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반드시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만 하고 낮시간에는 원상복구토록(시보 8. 18)
* 시・구청 주차장 9월부터 유료화, 오는 9월 1일부터 부산시청과 일선 구청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유료화(시보 8. 18)
* 가정용 상수도 검침 격월제로, 9월부터 12개 동 시범 실시(시보 8. 18)
* 바다 모래 관리 종합 대책, 시 염분 조사 결과 기준치 미달(시보 8. 18)
* 위반차량 17대 적발, 시내에서 운반・판매 때 보존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의 대부분이 타 시・도로부터 유입되고 있어 지난 8월 4일 새벽 4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경부・남해고속도로 톨게이트・김해↔부산국도 선암다리 입구에서 3개반 13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식품 운반 차량 실태 점검 벌여(시보 8. 18)
* 광복 50돌 부산서도 행사 다채, 13일부터 15일까지 문화장터・아리랑 축제 등 열려(시보 8. 18)
* 청소년에 「고전」의 멋 들려줘, 23일 「청소년 위한 해설 음악회」 개최, 금난새 지휘의 부산 시향 특별 연주회 등(시보 8. 18)
* 자연보호 활동 발전적 추진, 공익 근무 요원 쓰레기투기 취약지 감시 등 실질적 추진(시보 8. 18)
* 주거지역 공영 주차장 오후 7시부터 무료 개방, 9월 1일부터 시행 주거지 주차난 해소 도모(시보 8. 18)
* 원산지 미표시 업체 과태료, 수산물에 대한 원산 지 표시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유통질서가 문란한 가운데 부산시 관내 유통업체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대거 적발(시보 8. 18)
* 「백산기념관」 개관식 가져, 백산기념관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시보 8. 18)
* 부산시 인사, 기획관리실 투자관리관 외 다수(시보 8. 18)
* 「아시아드 테마공원」 조성 추진, 수영비행장-국제정보・업무단지로 개발, 낙동강 고수부지・스포츠 단지・공원으로 정비 등(시보 8. 18)
* 뮤지컬 무료 관람, 부산시는 시내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 청소년 위로・격려하기 위해 15일부터 20일까지 시내 불우 청소년에게 연극 무료 관람의 기회 제공키로(시보 8. 18)

8. 19　* 부산, 하얄리아부대 이전작업 정부 비협조와 부산시무능 등으로 사살 상 장기국면으로, 부산시민단체・학계 등 시민분노, “시 무능・정부무책임” 잇단 규탄 성명(부산매일 8. 19)
* 부산, 수영비행장은 언제 옮겨가나, 이전시기 및 고도제한 해제 시기 계속 확정하지 않아, 이전시기 불명, 부산시 국방부와 합의각서 “졸속체결”, 고도해제 문제도 언급 안 돼, 별도군 행정절차 거쳐야 할 판(부산매일 8. 19)

* 정부, 미 하얄리아부대 부지 인수 작업, 정부 의지・지원이 없는 한 불가능, 하얄리아부대 이전 난항, 미 이전 비용 5억 요구 “협상횡포”, 국방부도 발 빼기 “제자리걸음”(부산매일 8. 19)
* 부산시, 연제구 단속 예고 스티커제 호응, 노점・노상 적치물 대상, 공개 사전경고로 마찰 줄여 “신뢰행정”(부산매일 8. 19)
* 부산시, 기장군 시 편입 이후, 상수도・교통・학군 3대 난제해결 까마득, 시의 해결의지가 없다면 「도심 속의 오지로」로 남을 우려, 식수난 해소 3~4년 지나야, 교통문제 예산부족으로 도로공사 중단 일쑤, 학군 조정안 반발로 아직까지 표류(부산 8. 19)
* 정부, 건교부지침 21일 시행, 공동・단독주택 택지배분, 단체장이 결정권, 부산권 「9대 1」 등 20% 내 자유화, 소형 평수 비율 조정(부산 8. 19)

8. 20
* 부산시・부산시 도시개발공사, 반여 택지개발 “3중고”, 계획도로비 전무・군부대 이전 지연・보상재원 확보난, 98년 완료시한 1년 연장, 분양가 비싸 선수공급도 지지부진(부산매일 8. 20)

8. 21
* 부산, 한국은행 부산지점 직원 손상화폐 절도사건, 한은 지폐유출 범인 김씨 자백, 총 3억5천만원 빼돌렸다, 한국은행 지점, 적발하고도 축소・은폐, 55억원은 눈가림 증권투자실패하자 범행(부산은행 8. 21)

8. 22
* 부산, 감천항의 민자매립부두인 동양시멘트부두・미행산업부두 내달 개장되어 화물처리 시작, 2만톤급 2척・만톤급 1척 동시접안, 북항 체증 완화기대(부산경제 8. 22)
* 부산지역, 산성비 위험 수준 10번 가운데 8번이 산성비, 낙동강 환경관리청 범천・감전동 특히 심각, 부산・경남 지역 측정 결과 78%가 ph5.6 이하, 특히 범천동은 90%가 산성비, 울산시・마산보다 높아(국제 8. 22)
*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참사 계기, 부산 여성수용시설도 “비상”,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 대형참사 우려…시 긴급안전점건 착수(국제 8. 22)
* 제2기 부산시 교육 위원 선출, 부산시의회는 지난 8월 22일 제46회 임시회를 열고 부산시 교육위원 선출(시보 8. 25)

8. 23
* 부산, 감천항 민자 매립부두 중 일부 9월 초 개장, 동양시멘트・미행산업 3개 성적, 천2백10만톤 화물처리(부산매일 8. 23)
* 부산, 신호 삼성차공장 공사 차질, 부산시 지반 보강용 토사확보 대책 허술(국제 8. 23)
* 부산, 부산시의회의 교육위원 선출 과정 중 3개 구에서 과반수 넘는 후보 없어 궐원처리, 후보자질 시비…현 교육문제점 산적, 시의회 행동통일…1・2차도 똑같이 투표, 후보 비교육적 인품・금품살포행위도 말썽(국제 8. 23)
* 제2기 부산시 민선교육위원 선출과정, 3개 구의 교육위원이 선출되지 못하고 궐원처리, 경력자 10명・비경력자는 3명 등, 영도구 등 3개 구 과반득표 없어(부산매일 8. 23)
* 부산, 동구청 부산지역 첫 구보 발간, 월・회 타블로이드판, 2만부 제작…구정 시책 등 소개(부산매일 8. 23)
* 부산시, 편입 6개월째 맞고 있는 기장군민 불만 “폭발 직전”, 행정업무의 이원화 특수지학군 불이익 주민생활제한 여전, 광역시 편입했지만 불편함은 심화, “참정권 포기・돌발행동”(부산매일 8. 23)
* 부산지방해항청, 해안절경지역에서 부산시도시계획과 어긋나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추진, 부산해안 망친다, 신선대~이기대 「컨」 부두 조성강행, 시 반대하자 몰래 매립, 가호안 축조 벌써 65%나 진척(부산매일 8. 23)

8. 24
* 부산, 가독도신항만 최우선 건설, 해항청 투자우선순위 보고서 내년 실시설계 97년 중 착공, 울산 20 선적 대형항만 새로 건걸(부산매일 8. 24)
* 부산, 한국은행부산지점 전 직원 김씨 지폐유출사건, 한국은행은 지폐유출 책임 떠넘기기 급급, 본사와 지점이 합작해 축소・은폐, 지점 측 세단기 내 7천만원 부실보고, 본점 측 감사팀 돈 행방 등 조사 회피(국제 8. 24)

8. 25
* 한국은행 폐지폐 유출사건, 수사과정 중 본점간부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보고서 고친 박 전 지점장 영장, 한국은행 수뇌부까지 수사확대, “지폐유출 철저히 조사하기로”, 김영삼 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박경식 씨 임명(부산경제 8. 25)
* 한국은행 발표, 우리나라 경제 32개월째 확장국면 지속, 2분기 GDP 9.6% 성장, 하반기에는 9%선 정점도 달한 듯, 소비도 7.4% 증가(부산경제 8. 25)
* 부산시, 추석물가안정 위해 추석성수품 긴급방출, 시 쌀・콩 등 10개 품목 공급확대, 매점매석・담합 일일점검(부산 8. 25)
* 한국은행권 유출사건, 검찰 「은폐」 지시한 인사부장 등 소환, 한국은행본점 본격 수사 착수, 지폐 유출 축소 윗선 개입추궁, 검찰 박 전부산지점장 구속(국제 8. 25)
* 부산시, 주요현안사업인 지하철 3호선 건설・아주경기장 건설 사업에 국비 지원 결정, 내년 예산 3백억 반영…96년말 착공, 아주경기장도 6백억 보조(국제 8. 25)
* 부산시, 「통계로 본 광복 이후 한국인의 문화생활 변천」 결과 발표, 1만명 당 인구비율 해외여행 4.8명에서

70.6명으로 급증, VTR 85년 4.1%에서 50.1%로, 관련 실질 소비지출 20년 째 3.7배, 담배소비 비중 급감 전체 4%불과, 1인 연간 독서량 4.6권 늘어 11.5권(국제 8. 25)

* 부산지방해항청, 신선대 오륙도 앞바다 매립공사 강행, 매립반대 여론 빗발, 부산시·남구 민간단체 등 투쟁委 구성, 해항청 공사 철회 촉구(부산매일 8. 25)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오륙도 신선대 해안매립 및 컨테이너부두설치공사」 남구지역주민 반발 확산, 반대추진위원회 해항청 일부 철회검토에 백지화 요구(부산 8. 25)
* 부산, 발권은행 사상 초유의 지폐불법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일단락, 검찰로 넘겨져, 국가기관 비리 숨기기에 "경종", 중부서 끈질긴 추궁 돋봬, 김씨 여죄부분 밝히는데 역부족, 한국은행 「은폐 대책회의」 의혹 풀어야(부산 8. 25)
* 부산, 최대 교통요충지 서면교차로 인근에 대형 건물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 「교통체증 중심지」 가속화, 교통소통대책 무용지물 가야로 확장도 지연(부산 8. 25)
* 부산 해운대구 반여지구, 반여택지개발 본격화, 시-국방부 내달 계약 군부대 97년말 이전(부산 8. 25)
* 95광역권 재난 대비 훈련, 인명 구조·화생방 방호 등 사고 수습 실제 대처(시보 8. 18)
* 구청 인사, 동구 세무과장 안실 외 다수(시보 8. 25)
* 부산시 인사, 4급 시장 비서실장 정영석 외 다수(시보 8. 25)
* 「항만관리공사」 설립추진, 부산 역세권 종합 개발 「항만관리공사」 설립, 시청사 건립 등 현안 사업 추진(시보 8. 25)
* 도개공이 지은 아파트 일제 점검, 고지대 위치 중점·전문기관 용역의뢰(시보 8. 25)
* 「부산 관광」 홍보 나서, 후쿠오카·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맞아 부산 관광 홍보관 운영(시보 8. 25)
* 지방고시 70.3대 1, 지방직 5급의 사무관급 공무원 선발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뒤 처음 실시되는 제1회 지방 고등 고시 원서접수 결과 부산에서는 8명 모집에 5백62명이 응시(시보 8. 25)
* 추석 대목 성수품 등 물가 단속, 시·경찰·국세청 등 합동으로 물가 단속 품목별 가격 안정에도 행정력 기울이기로(시보 8. 25)
* 다대 5지구 12.7평형 영구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시-8월 16일~9월 10일까지 법정 영세민 등 대상(시보 8. 25)
* 기장군 가뭄 극복 적극 추진, 양수기 총동원 용수확보에 주력, 관정·저수지 등 전시설 활용(시보 8. 25)
* 부산 발전상 부각·위상 제고, 시립 예술단 순회공연 부산 문화 공개 등 2002년 아시안게임 홍보 계획 마련(시보 8. 25)
* 수영 이전 따라 개발 본격화, 시 국방부 매듭…정보 단지 등 조성(시보 8. 25)
* 「부산 아주 경기 특별법」 입법 예고, 9월 국회 제출…관련 시설 국비 지원, 국·공유 재산 등 우선 양여…88 올림픽 포함 3번째(시보 8. 25)
* 「녹색도시 부산21」 구성, 21세기 녹색 도시 부산을 가꾸기 위한 「녹색도시 부산 21 추진협」 이 8월 22일 본격 활동 시작(시보 8. 25)
* 부산시 지방세 중과세 부과서 제외, 8월 1일부터 기업 투자 경제 활성화 유도, 공장 신증설·법인신설 경우…취득·등록·재산세 비과세(시보 8. 25)
* 시정 동정, 시장-도시발전 연구소 창립 제7주년 기념 회원 연찬회 참석 외2건, 부시장-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훈련 참석(시보 8. 25)
* 권위주의 「행정용어」 안 쓰기로, 행정용어 순화 위해 활용 지침 마련, 민선 단체장 출범…환경 변화 부응, 명령·시달·지시 등 권위·획일성 배제, 권고·조언·안내 등 부드러운 용어로(시보 8. 25)
* 녹산·신호 공단 적극 추진, 산호지방 공단 조성, 녹산국가공단 조성 등 현안 사업 추진(시보 8. 25)
* 예산 한푼이라도 더 국비 따내기 총력전, 지하철 3호선 아주 주경기장 건설비 등 "성과", 문정수 시장 당정 협의회 참석(시보 9. 15)
* 제27회 교육자료 전시회(부산교육 8. 25)

8. 26
* 부산일선구청, 개별토지 가격산정 하면서 시초조사 주먹구구식으로, 지가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 잇따라, 각 동 사무소 직원1명이 전문지식도 없이 백~2천여건 담당, 수청심의위원회는 현장조사 없이 토지가격 산정, "재감정 등 행정력 낭비 부채질"(부산매일 8. 26)
* 정부, 이번 2학기부터 전국 3~4백개 국공립 초중고교에 학교운영위가 시범설치, 예결산 및 학교운영 지원비 액수 교과서선택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 심의(부산경제 8. 26)
* 부산, 부산~상해 부산~대련 부산~천안 항로 개설, 한국 간 해상교역루트 4개로 늘어, 내달부터 항해(부산경제 8. 26)

*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김호기 부산시의회의원 등 51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 초선시의원 재력가 수두룩, 신규등록 12명 자산 20억도 넘어, 최경석 씨 75억 신고 최고, 총 부산공직자 3백90명재산공개(국제 8. 26)
* 부산, 시공업체 잇단 부도로 대남로터리 공사 장기화, 29일부터 교량가설 임시로 개설(부산 8. 26)
* 부산시, 16개 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서 이미 재산공개를 한 공직자 제외 신규등록자 2백27명의 재산내역 및 퇴임공직자 1백91명의 재산 변동사항공개, 현직 10억 이상 39명, 초선 시의원 중 12명 20억 이상(부산 8. 26)
* 부산시, 대중교통 우선통행정책 일환으로 도입된 시내버스 전용차로제 큰 효과 못 거둬, 도로여건 열악・운전자 인식부족, 일반 차량 침범 되레 불편(부산 8. 26)
* 부산지방해항청, 신선대 관련 부산지역사회 극단적 반발 알면서도 1단계 매립공사 강행 고집, 부산해항청 "안하무인", 지역사회 도시행정과 주민여론 무시한 저돌적 행동이란 비난마저 무시, "백지화" 범시민적 움직임마저 확산(부산매일 8. 26)

8. 27
* 부산지역, 주요제조업체 올해 임금협상이 대상사업장의 92.4% 타결되어 마무리 국면, 부산 작년보다 15일 빨라(부산경제 8. 27)
* 부산지역, 제조업 91~93년 업체수 증가에도 불구 종업원수 감소・출하액 부가가치 증가율 저조, 부산 제조업 "발육부진", 전국 꼴찌(부산경제 8. 27)
* 부산, 가덕도신항만 건설 주체로 「부산신항만공사」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신항만공사가 부산항 총괄", 「컨」 부두 공단 해체, 해항청 업무 축소(부산경제 8. 27)

8. 28
* 부산시의회, 신선대매립・위천공단 「경동」 분쟁, 부산시의회 실태조사 착수, 시정부결의안 채택 추진(국제 8. 28)
* 부산, 1930년대 한국독립 의열 투쟁사 이봉창의사, 정부문서 기록보존소에서 발견된 이봉창의사 관련 총독부의 경비관계철 발견, 거사 전 폭탄성능실험 건의, 1942년 24세 때 항일청년단체 결성, 베일 싸인 청년시절 투쟁사 복원(국제 8. 28)
* 경남・부산, 공동으로 김해시 장유면 장유 신시가지일대 제3경마장 조성하기 위해 유치활동 나서, 공동유치 추진, 세수 5백억원 반분합의(국제 8. 28)

8. 29
* 부산, 「부산항관리」 시 이관 시급, 해항청사업-부산계획과 충돌이 잦아, 할만 개발・정비 되레 걸림돌, 일방적인 사업이 많아 지역사회와 마찰도(부산매일 8. 29)
* 부산지역, 부산 학원업계 "초비상", "외국어학원 대공세 막아라", 연쇄도산 불 보듯 뻔해…외국인 채용 시설 확충 안간힘, 내년 완전 개방 카운트다운, 자본력 앞세워 싹쓸이 우려(국제 8. 29)
* 부산,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 지하철3호선 부산교통공단으로 사업주체 정해지고 국비지원 사실상 확정, 조기완공 "청신호", 재경원 국비 30%지원확정, 전공구 턴키방식…내달 기본설계(부산 8. 29)
* 낙동강 중・상류 무더기 공단조성 계획, 건설교통부 「대공단화광역개발계획」(안)에 대해 "낙동강 중상류 공단조성 절대 안 된다", 부산시의회 본격 저지운동, 현정부 건의문 채택하기로, 시민단체와 연대 계획도 수립할 예정, 현장실태 조사・결의대회 등 개최 예정(부산 8. 29)
* PC를 통한 전자시장실 개통(부산시정 8. 29)

8. 30
* 부산시,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장불가 조치 철회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연장불가 통보, 부산 11월 쓰레기 대란, 2차 매립장 공사는 중단상태, 「생활」은 내년 3월 사용가능, 시 민원대처 소홀・늑장 행정(부산매일 8. 30)
* 한국토지개발공사, 토개공 가덕도신항만 등 대규모 사업, 지자체와 공동개발 제안, 재정・행정부담 대폭경감, "이익도 해당지역 환원가능" 주장(부산매일 8. 30)
* 검찰, 「6. 27부정선거」 전면 수사착수, 138명 기소 249명 내사, 특히 대검중수부의 야당의원 수뢰 의혹 수사와 맞물려 제2사정수사로 확대조짐, 전주시장・해남군수 자금추적, 김천시장에 1년 6월 구형, 사법처리 확대되면 무더기 재선거 및 보궐사태 사태도 불가피(부산 8. 30)
* 부산, 을숙도 매립장 사용기단 철회조치관련, 부산 쓰레기전쟁 초비상, 문화재관리국 을숙도 매립장 연장불가 통보, 11월 대란 불가피…시 대책부심(부산 8. 30)
* 부산, 시, 부산도 교육위원 선출비리 의혹 증폭, 시・구의원 30여명 내사, 억대금품・향응제공 제보, 부산지검 물증확보 주력(부산 8. 30)
* 부산해항청, 신선대매립 법・절차 완전 무시, 해항청 "시・남구청과 협의추진"은 거짓말(부산 8. 30)
* 다대쓰레기소각장 준공(부산시정 8. 30)

8. 31
* 부산금정구 장전동 주민들, 대순진리회 전자공고 건립반대, 등교거부시위 5일째 등교저지, 장전국교 1천여명 결석(국제 8. 31)

* 정부, 이봉창의사 비밀사료・구한말 판결문 대량발굴, 근・현대사 매듭을 풀 귀중자료 “사장”, 정부-학계 공동발굴을, 기록보존소 지소 전문인력 3명뿐, 학자참여유도 번역 등 시급(국제 8. 31)
* 부산, 신선대 앞바다 매립공사 강행한 부산지방해항청, 신선대환경평가 “허위”, 해항청 문화재 없는 것으로 꾸며 진행(부산매일 8. 31)
* 부산시, 현재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유흥업소 등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 11월부터 추진 업소지역 위락시설 허가도(부산매일 8. 31)
* 부산시, 전자통신랜드 사업규모 축소 서류제출 “고의다”,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정(부산매일 8. 31)
* 부산, 가덕도 신항만의 배후수송을 위한 가덕도～삼랑진 철도건설 오는 2002년에 착공・2011년 완공, 내달 말까지 시행주체 확정(부산 8. 31)
* 정부,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택지개발지역 내 신설학교 용지비 50%부담, 부산시 살림압박 가중, 97～98년만 1천7백억, 43개 학교 신설계획…현 부담금의 4배(부산 8. 31)
* 부산시, 부산 문화회관 일대 11만평, 조각공원・상설전시장 등 대규모 문화관광타운 조성, 시 2000년까지 220억 들여, 도로 지하화・슬럼가 대대적 정비, 예산확보 되는대로 올해 말 기본설계・개발연구분석 용역의뢰 후 내년부터 본격사업에 착수하기로(부산 8. 31)

9. 1
* “신선대 1단계 매립 재개에 협조하라” 해항청・시, 남구청 “협공”, 해항청 중단약속 위반 물밑 설득 잡업, 부산시 반대 입장 바꿔 공사타협 압력(부산매일 9. 1)
*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논란, 경부고속도로 난항(부산매일 9. 1)
* 해운대～울산 고속도로건설, 내년 3월 착수, 기본 설계 등 예산 7억 책정, 물류비 절감 기대(부산 9. 1)

9. 2
* “「쓰레기」는 구・군서 책임져라” 「청소행정」 기초단체 일임, 소각・매립장 기피에 “법대로”, 16개 구군과 「조합」 공동추진(국제 9. 2)
* 해항청, 신선대 불법매립, 부산시의회조사 「문화재 구역」 무시 강행, 「매립반대 건의문」 채택(국제 9. 2)
* 등교거부 60% 육박, 금정구청 중재 무산, ‘대진전자공고 건립을 반대하는 부산 금정구 장전1동 주민들의 장전국교생 등교거부운동이 6일째인 2일에도 계속.....’(부산 9. 2)
*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차질, 정부 예산 대폭삭감 98년 완공 난망, 3백50억 요청 23%만 반영, 계획만 거창 실천의지 없어(부산 9. 2)
* 부산시 교육청 학교운영위지침 보완시급, 「치맛바람」 차단책 전무, “소수학부모가 운영 입김”, 교육 과정・교과 선정까지 관여우려(국제 9. 2)
* 사무관 심사 승진제 추진, 단체장 정실인사 우려, 부작용 방지책 시급, 「근무 평가위」 구성・과정 공개 등 필요(국제 9. 2)
* 일선구청 「해정 실명제」 실시, 인・허가 등 민원서류에 담당자 명기, 대민 신뢰도 제고키로(부산매일 9. 2)
* 부산진구, 아파트 구조변경 조사, 2만8천여세대 대상, 내력벽 등 주요부분 원상복구 유도(부산매일 9. 2)
*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제 개선, 각 구청마다 차이 보이던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제가 부산시 차원에서 통일(시보 9. 15)
* 양산군법원 개원(법원사 9. 1)

9. 2
* 제2대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개원(부산교육 9. 2)

9. 3
* 교통영향평가 엉터리, 부산시 주먹구구식 평가서 무사통과, 실제와 큰 차이 검증절차 없어, 현대백・메가마켓 등 연일체증(부산경제 9. 3)
* 지사단지 국고지원, 외곽기반시설 국가공단수준 보조(부산경제 9. 3)
* 쓰레기 「법대로」 처리, 부산시 내년부터 기초단체에 책임지우기로, 조례개정 16개 구군 조합추진(부산경제 9. 3)

9. 4
* 부산시 「공약성 사업」 일괄정리, 부산시는 4일 시의 주요사업가운데 예산 반영 없이 의욕만 앞세우거나 법 절차상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등을 재검토해 시행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국제 9. 4)
* 기장군수 선거법 위반 수사(국제 9. 4)
* 정부기록보존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총무처 산하 정부기록보존소의 보존물에 대한 연구 활성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기록보존소가 보존사료의 학계 공동연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제 9. 4)
* 선거비용 초과사용 수사, ‘대검 공안부가 3일 6・27지방선거에서 통합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조속 수사를 전국 검찰에 지시함으로써 부산 경남 검・경이 본격적인 선거 사법수사에 착수했다’(부산 9. 4)

* 히로뽕사범 줄고 대마는 폭증, 마약류 주종이 바뀐다, 건수 87% 늘어나…10대까지, 값싸고 구입 쉬워 단속 비상(부산 9. 4)
* 다대포 공단 개발 재개, 녹지 확대 등 계획수정, 공업지역・바다모래 채취구역 축소(부산 9. 4)
* 제2대 교육위원회 구성, 의장단 선출(제1기 이준환 의장)(부산교육 9. 4)

9. 5
* 수영공원 개발 내년착수, 1백40억들여 98년 완공, 도서관 건립・민속관 증축 등 추진(부산매일 9. 5)
* 낙동강 중상류 공업단지 조성반대, 부산 시의회 건의문 채택, "생존권위협" 백지화 촉구(부산 9. 5)
* 해운대~울산고속도로 건설, 5천4백억 투입 97년 5월 착공,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을 위해 총 사업비 5천4백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97년 5월에 착공, 5년만인 2002년에 완공할 계획이다"(국제 9. 5)
* 「신선대철도」 운행, 완공 5개월만에…주민과 극적타결(국제 9. 5)
* 「수비」에 순환모노레일 설치, 정보・업무 외 주거단지 유치 적극 검토, 부산시 개발용역 자문회의(국제 9. 5)
* 부산시, 불합리한 행정관행 손질, 부서명 칭 등 쉽게 고쳐, 백12건 선정 여권 대리 신청 때 주민증 폐지(부산 9. 5)
* 자치구, 시에 예산요구 '봇물', "부산의 민선 구청장 군수들이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여건을 외면한 채 자신의 선거공약 이행에만 급급"(부산 9. 5)
* 부산시민 75% 추석에 귀성길, 태반이 자가용 승용차로, 절반이상 전날출발…이튿날 귀가(부산 9. 5)
* 인사, 광역시 지방 서기관 박춘환 교통 관광국 관광 과장(시보 9. 15)
* 시설 안전 관리 본부 현 판시, 시 교량 등 5,200여개 시설물 점검・보수 총괄, 안전 문제 있는 271개소 정밀 진단 나서(시보 9. 15)
* 쓰레기 「문전 수거제」, 시는 9월 6일 쓰레기 문전수거 시범 실시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은 오는 11월부터 도입키로(시보 9. 15)
* 위천공단 신선대 매립 대정부 건의문 채택, 9월 5일 제47회 임시회를 열고 위천공단 등 낙동강 중・상류 지역 공업 단지 조성과 신선대 주변 매립 공사 저념 백지화 할 것 강력 촉구(시보 9. 15)
* 시설안전관리본부 현판식(부산시정 9. 5)

9. 6
* 부산 구・군의회, 부산시 구의회의장단 협의회 회의 6일 개최(시보 9. 15)
* 부산~김해 경전철, 국내 첫 사철건설, 양시 실무협의회, "사업비 부담" 시군합동추진계획 변경, 투자예정 2백억 연차 보조,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요청(국제 9. 6)
* 부산~울산 철도 복선화 내년 착공, 정부 강릉까지 연결 해안망도 구축(부산 9. 6)
* 정부, 부산・경남 거센 반발 무시, 위천공단 조성 본격화, "구체계획 수립" 대구시에 지시, 추경예산 30억 확보 용역 발주, 시민단체 "있을 수 없는 일" 총력 저지(부산 9. 6)
* 쓰레기 「문 앞 수거제」 백지화, 자치단체 예산미확보, 부산시 96년 실시방침 바꿔 구군에 위임(국제 9. 6)
* 부-울 전철 국비 추가지원, '부산지하철 3호선에 이어 부산~울산 간 복선전철건설사업도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가반영이 확정돼 내년말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국제 9. 6)

9. 7
* 부산교통방송 내년 7월 첫 전파, 법안 9월 정기국회 상정, 운영권 도로안전협회로 이관(부산 9. 7)
* 타시도 해외시장 개척 전력, 부산 예산 없어 제자리걸음, 인천 중국에 무역센터・대구 주재관 파견, 시 박람회 참가도 힘들어(부산 9. 7)
* 지자시대 지역발전 "밑거름"(부산매일 9. 7)
* 부산, 택시 요금 내달 10% 선 인상, 20개월만에 또 … 교통여건 무시 시민 반발, '부산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서울수준인 10% 가량 인상하기로 결정, 시민들이 너무 큰 인상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부산 9. 8)
* 부산약수터 35% 수질 불량(부산 9. 8)
* 「아시안 대회 조직위」 72명 파견, 부산시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임박(부산 9. 8)
* 부산앞바다 적조 급속 확산, 낙동강 하류~기장 폭 1백~2백m 띠 형성, '남해안 일대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앞바다도 적조비상이 걸렸다'(부산매일 9. 8)

9. 12
* 새해 예산안 63조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새해 예산안편성과 관련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농어촌 지원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해 당초 정부안에 5천5백억원 안팎의 예산을 추가 배정키로 했다'(부산 9. 12)
* 정부 부산 아시안 대회 지원 소극적, 형평성 빌미 특별법 원안통과에 난색(부산 9. 12)
* 암・기형아유발 폴리염화 페비닐, 낙동강하류서 다량 검출, 어류 통해 인체에 축적 심각(부산 9. 12)

* 그린벨트 일부완화 추진, 부산시 정부에 공식 요청, 둔치도 승마장・수산전문대・금정주차장, 관철여부에 관심집중(부산 9. 12)
* 부산경제 「기형」, 2차 산업 급속위축 3차 이상비대, 94년 취업자 2차 28.5% 3차 69.3%, 음식・숙박업 등 주종(부산 9. 12)
* 가덕도 개발돼도 2011년 시설 크게 부족, 부산항 체증 고질, 물동량 매년 급증…81% 확보 그쳐, 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부산 9. 12)
* 아시안게임 곳곳 '걸림돌' "형평성 잃은 특혜 입법은 곤란"(국제 9. 12)
* 부산 「예산 따내기」 당정 "따로", 심의 통과 논리개발에 소홀 "힘들다" 연발, 아주특별법 "특혜 시비" 일부조항수정요구(국제 9. 12)
* 예산확보・「아주 지원법」 제정・「위천」 …부산 주요사업 총체적 차질, 오늘 비상당정회의(부산 9. 12)
* 부산시 '위천공단 관련 3원칙제시', 광역상수도망 조기구축등 대구시・정부에 통보(부산매일 9. 12)
* 부산관가, 국감준비 비상, 답변자료 확보 분주 타 업무 마비사태, 시, 임시회 맞물려 이중고, "부산시를 비롯한 부산의관가가 국회국정감사 답변자료 준비 등 국감비상이 걸렸다(부산 9. 12)
* 청소년 88% 대학가야 성공, 교육문제점 입시위주・잦은 제도 변경, 비행 동기는 남 「친구」 여 「가정 문제」 때문(부산 9. 12)
* 북구 낙동 민속제 내달 8일 개최, 동민체육대회와 병행, 농악놀이・지신밟기 등 선봬(부산매일 9. 12)

9. 13
* 부산시 유사기관・사업소 통폐합, 공단설립 "경영체제로", 교통시설・체육공원 윤곽, 문화시설도 검토… 내년 상반기 본격화(부산매일 9. 13)
* 부산시 역점사업 대체로 저조, 수비・광안로 추진 "낙제", 시 업무평가 GT・쓰레기 줄이기는 우수(부산 9. 13)
* 천마산에도 임도 개설, 2km 내주 착공… "생태계 파괴" 비난 빗발(국제 9. 13)
* 민선자치단체, 재정・인력지원 중단, 부산경찰 「홀로서기」 고심, "치안기능 위축" 위기의식(국제 9. 13)
* 부산시 신선대 「1단계매립」 중재, "가덕도 완공 뒤 관광지로 활용" 제안(국제 9. 13)
* 아시아드 특별법 원안제정 차질, 부처 간 이견으로 시 요구 수정할 듯, 일부의원 출신 구 현안만 거론, 지하철 3호선건설 추가지원 기대(부산매일 9. 13)
* 3대 운동, 쓰레기감량, 「녹색교통」 실천, 수돗물절약 흐지부지, 부산시 정책일관성 상실, 시민호응도 못살려, 카풀・10부제 참여자 거의 없어(부산매일 9. 13)
* CD・채권 과세 "포함", 정부 당초원안 변함없이 추진, 입법예고 기간 중 당・각계의견 수렴, 이달 내 최종안 국회제출(부산매일 9. 13)

9. 14
* 부산당정협의서 지역구 사업요구 백출, 「구의원급」 국회의원 "눈살" 시 현안 외면 표밭관리만, "지하철 지선・심야영업 허용" 억지(국제 9. 14)
* 전자카드발급 본격 추진, 주민등록증 등 대체, 부산시 구・군에 시스템구입비 등 요청(국제 9. 14)
* 중앙로 전 구간 종일 버스 전용제, 10부제 어길 땐 주차료 2배, 지하철주변 주차료인상, 부산시 새 교통대책 단계추진(국제 9. 14)
* 부산지역 대학가에 면학 열풍, 교육개혁 신선한 움직임, 교과조정 알찬수업 모색, 도서관은 새벽부터 만원(부산매일 9. 14)
* 시영아파트 낡아 "불안", 남구청, 관내 6곳 안전점검 결과, 4곳 균열・누수 극심, 정밀진단 등 대책 마련 시급(부산매일 9. 14)
* 부산시, 도시계획 명분 없는 손질 잦다, 부산시 전체골격 무시 툭하면 수정・변경, 신선대등 청사진 표류, 체계적 개발 저해 기형화 우려(부산매일 9. 14)

9. 15
* 「부산 아젠다」 선포 환경보전의지 천명, 기후 협약 등 대응 세계적 협의체로, 황해오염 5개국 공동대책 등 논의(부산매일 9. 15)
* 영도구청 분위기 나날이 변모, 구정혁신 지원제안 적극반영, 능동행정 실천 "선도구로"(부산매일 9. 15)
* 부산시 감천수산물시장 내년 추진, 「노량진」 6배 4만평 규모 확정(부산매일 9. 15)
* 해운대 교통지옥 "발등의 불", 지하철 2호선 요트경기장~해운대역 11월 착공, 신시가지 우회로 완공 지연, 충렬로 확장도 거북이걸음(부산 9. 15)
* 부산연안 유독적조 확산, 가덕도~온산 앞바다, 양식장등 초비상(부산 9. 15)
* 「5・18불기소」 대학가 핫이슈 "처벌촉구" 격렬 시위 잇따라(부산 9. 15)
* 지하철 문현역 "잘못된 위치" 이용객 적고 환승 불편, 로터리쪽 조정 요구(부산 9. 15)

* 시정 동정, 시장-여성단체장 21명과 간담회 외 2건(시보 9. 15)
* 수영 비행장 개발 가시화, 1차 용역 보고회 정보 단지 유치 등 3개안 제시(시보 9. 15)
* 95년도 시내 장학금 지급, 초·중·고 390명 1억4천만원, 대상자 추천 접수 마감 9월 20일까지(시보 9. 15)
* 암남공원 독 일반에 개방, 시-농수산부와 합의…천혜절경 시민 품에(시보 9. 15)
* 기업투자·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부산시 중과세 지방세법개정·공장 및 법인 신·증설용이, 법인 대상 취득·등록세 과세 표준 산정 때 부가가치세 제외 등 세제의 미비점 보완(시보 9. 15)
* 건축 행정 건실화 대책, 시는 95건축행정 건설화 대책 추진 사항을 지도·점검키로(시보 9. 15)
* 「환경 헌장·아젠다21」 선포, 9월 19일 국제 환경 협력회의 개최(시보 9. 15)
* 95년도 수산증산 유공자 포상, 어업을 경영하면서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산물 증산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와 수산시책 유공자를 발굴·포상키로(시보 9. 15)
* 콜레라 비상 방역 체제 돌입, 콜레라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비상 방역 체제 돌입(시보 9. 15)
* 제38회 부산시 문화상 수상자 발표, 향토 문화 창달·지역 발전 선도 "공로", 류탁일 외 7명(시보 9. 15)
* 9월 중 달라지는 시책, 공장 신·증설 때 취득세 등 중과세 제외 등(시보 9. 15)
* 버스 승차권 판매소부족 시민불편 해소 대책 마련, 시-유인판매소 확대·동에서도 판매, 중단된 자판기 조속 재가동(시보 9. 15)
*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개정 조례준칙(안)시달, 법률 개정에 따라 자치구·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준칙(안)을 자치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토록(시보 9. 15)
* PC통신으로 시정 현황을 한눈에, 천리안·하이텔 이어 아이즈에 「전자 시장실」 개설(시보 9. 15)
* 가을철 발생 급성 열성전염병 "주의", 급성열성전염병 사전 예방 위한 예방 관리 대책 발표, 야외활동 피하고 개인위생 철저히 관리 당부(시보 9. 15)
* 시의회 제48호 임시회,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15일간 개회, 25일부터 부산시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계획(시보 9. 15)
*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 2001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 개발에 모두 1천8백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시보 9. 15)
* 시립 예술단 가을 공연 "풍성", 부산시립예술단이 향도의 초 가을밤 은은한 음악의 선율로 물들일 공연 다채(시보 9. 15)
* 추경예산 725억원 제출, 시 올해 제2회 의회에 심의 요청(시보 9. 22)

9. 16
* 산림지역을 「주거」 용도변경 아파트 짓도록, 부산시가 봉래산 망친다, 구청·구의회 반발 무시…특정 업체 특혜 의혹(부산매일 9. 16)
* 부산연안 "적조주의보" 「유독성」 급속환산, 육상축양장·양식장 비상(부산매일 9. 16)
* 콜레라 부산서도 발생, 설사환장 20대 1명 「진성」 판명, 국내감염 추정…정밀조사, 추가발병우려 방역 비상(부산 9. 16)
* 지하철공사 겁난다, 수영로 상권 "흔들", 착공 앞두고 장사 포기, 업소 70%이상이 매물, "교통체증 가속화" 권리금도 바닥(국제 9. 16)
* 부산서도 콜라라 환자, 생선회 먹은 20대 균검출…방역강화(국제 9. 16)
* 대법원 교육환경권 첫 인정, 부산대 강암 주택에 승소, 연구·창작활동에 방해 "아파트 19층 이상 짓지 말라" 확정(부산 9. 16)
* 현 시청 부지 첨단 신시가지로 개발, 부산시 '내년 매각 '친수녹지 도심형 휴식 공간 조성' 백화점·오피스텔 적절히 배치(부산 9. 16)
* 일선구청, 외국도시 자매결연 활발, 경제·문화 교류 다양화, 동래·중구 전담 부서 신설등 점차 확산(부산 9. 16)
* 부산시, 봉래산 훼손방관, 구의회 반대결의안 추진 '초고층화 방치 경관 훼손'(부산 9. 16)
* 부산현안 해결 전망 밝다, 내년 국비지원 8천89억 확정, 신규 사업도 천2백억 배정, 교통·아주 경기 준비 등 차질 없이 추진(부산 9. 18)

9. 19
* 민자 '부산 5개 지역 조직책 확정, 김 대통령 내무차관 등 곧 후속인사(부산 9. 19)
* 부산시 '동북아환경회의 개막', 시, 전국서 첫 환경선언 쾌적한 도시 등 「아젠다21」 선포, 5개국 대표 등 2백여명 참석 나흘간 주제발표·토론(부산 9. 19)

* 지방세 체납 눈덩이 비상, 부산, 천2백억원 누적(부산 9. 19)
* 지하철 2호선 2단계, 99년 개통 「삼난」, 건설비 추가부담・체증 불가피, 서면~광안리 부분개통 검토(부산 9. 19)
* 2백80억대 히로뽕 밀매단 적발, 부산지검 울산지청 '중국에 현지공장…28명 무더기 구속'(부산 9. 19)
* 장기근속 공무원 '안식년제 도입 검토', '6~9급 대상 간부양성과정 신설' '명예퇴직 공로연수 자율화 고려'(부산 9. 19)
* 기장 3일새 52억 피해, 넙치 폐사 30만마리 늘어 총 80만으로, '적조 동해안으로 계속 북상' "비상", 울산도 10만마리 죽어 3억 손실(부산매일 9. 19)
* 부산주요사업 숨통 트였다, 내년 국비지원 2천억 늘려 8천89억 확정(부산매일 9. 19)
* 공사중단 대남R지하차도, 부산해항청 "나 몰라라" '공사재개여부・시기 불투명'(부산매일 9. 19)
* 「녹색부산21」 선언, 「동북아환경회의」 오늘개막, 아주게임 「그린 아시아드」 추진, "인문-자연 공생하는 생태도시로"(국제 9. 19)
* 부산시의회 48회 임시회 개회, 23일부터 추경 심사처리, 시 제출 총14개 안건 회기 중 심의(부산매일 9. 20)
* 부산지하철 구조물안전 "위협", 1호선 중앙동~진역 곳곳 염・산도 높은 해・오수 다량 유입, 일부 구간 균열로 누수 현상도(부산매일 9. 20)
* 부산적조 "낙동강 때문" 수진원 '오폐수 오염물 바다로 대량 유입', 89년부터 매년 발생 올해 최악(부산매일 9. 20)
* 부산・경남 현역의원 대폭 물갈이, 민자 정기 국회 후 본격 공천 작업, 계파 불문 당선에 초점(부산 9. 20)
* 부산지하철 벽면 곳곳 균열, 대한토목학회 안전진단 결과, 1호선 남포~범일 '염도 높아 콘크리트・철근 부식 우려'(부산 9. 20)
* 부산・경남 최소 반 이상 교체 예고, 'YS텃밭…새 인물 내세워도 당선' 자신감 실사결과 부산 5・경남 14곳 지목, 3선 이상 중진, 3~4명도 대상(부산 9. 20)
* 지방정부 환경보호 책무 막중, '대연에 시범구역, 시민단체 긴밀 협력' '자매결연 외국도시와 공동 사업 추진' '정책결정에 비정부기관 참여 법제화' '극동지역 수백개 단체 산업 감시활동'(부산 9. 20)
* 지하철 2호선 2단계 연말 착공, 해운대 교통지옥 '불 보듯' '신시가 입주・지하 차도 공사 등 겹쳐' "우회도로확보 서둘러야"(부산매일 9. 20)
* 부산 환경 선언<전문>,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시민 환경 실천을 생활화 하자(시보 9. 22)
* 「녹색도시 부산21」 선포, 행동 원칙 21개 채택, 인간 공생하는 생태도시 지향 위해 「녹색도시 부산21」 선포, 동북아 환경 회의도 개막(시보 9. 22)
* 제4차 동북아환경협력회의(부산시정 9. 19)
* 부산 맹학교 학예제(부산교육 9. 19)

9. 20
* '부산시의회 임시회 뭘 다루나', 추경 예산안 등 14건 처리, 지하철・매립장 조성관 등 재조정, 공유 재산 처분・도시계획 논의도(부산매일 9. 20)

9. 21
* 부산 환경 단체들 '환경보전' 목소리, '신선대 매립 전면 재검토해야' 「녹색도시 부산21」 선언 부응, 보전 대책 구체 계획 수립을(부산매일 9. 21)
* 해외연수・선진국 시찰이라지만 '구 의원 혈세만 낭비' 현지사전지식 없이 유람성, 일정 방문국도 무작정 지정(부산매일 9. 21)
* 부도 삼우 기술단 감리원 집단사표, 부산 대형 공사 '기우뚱', 공사지연・부실시공 우려(국제 9. 21)
* 부산, 생태계변화 심각, 환경파괴 동식물 개체 수 격감, 국내 기록원의 8~43% 그쳐, 부산지역 동식물 상당수가 환경파괴로 인해 멸종하거나 개체수가 격감하는 등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부산 9. 21)
* 유조선 좌초 기름 유출, 4백톤 적재탱크 1개 파손, 높은 파도로 방제 작업 난항(국제 9. 21)
* 부산시 관변단체 지원 중단, 부산시는 21일 각급단체 예산지원을 축소해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새마을운동부산시지부와 한국자유총연맹부산지부에 대한 경비지원을 중단키로(국제 9. 21)
* 해운대특구 활성화 대책 촉구, 무분별 자연훼손 추궁, 수영 체증 해소안 따져, 문시장 제2부산대교 직선으로 재설계로 답변해(부산 9. 21)
* '꽝' … 순식간에 기름 뒤범벅, 유조선 좌초 암초에 끼어 탱크 파손, 두 달 전에 있은 시 프린시스호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제1유일호 좌초사고로 해양오염이 불가피, 적조현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부산 경남지역 어민들이 큰 타격을 입게 돼(부산 9. 21)

* 부산앞바다 유조선 좌초, 부산항 인근에 수천여t의 벙커C유를 적재한 유조선이 운항부주의로 좌초된 사건이 발생, 제2의 시프리니스호와 같은 대형해양오염사고가 우려되고 있어(부산 9. 21)

9. 22 * 항일운동 발상지 기념, 동래구청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동래지역 항일 운동의 발생지인 동래시장 주변거리를 만세거리로지정해(부산매일 9. 22)

* 부산지역 6개대 18학과 신설, 내년 부산지역 대학의 신입생 모집정원이 올해보다 1천40명 증원되고 부산수산대에 자동차공학과와 해양탐사학과가 신설되는 등 6개 대학에 18개 학과가 신설(부산 9. 22)
* 부산시 항만 관리권 이양 공식 건의, 부산시가 항만관리권 이양 문제를 처음으로 정부에 공식 건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부산 9. 22)
* 부산 앞바다 유조선 침몰, 벙커C유 계속 흘러나와 가덕·부산항 쪽으로 확산, 유조선의 무리한 운항과 해경의 잘못된 조치가 부산 앞바다를 또 대형유류 오염사고의 공포로 몰아넣어(부산매일 9. 22)
* 지자체 환경보전 노력 공식화 21일 부산에서 폐막된 제4차 동북아 환경협력회의는 경제력과 생활방식이 서로 다른 동북아시아 5개국이 모여 환경문제가 지역공동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져(부산 9. 22)
* 부산~제주 탁송화물 적체 심화 선사부도로 인한 운항중단으로 부산~제주 간 카페리선이 절대부족, 부산연안여객 터미널 앞 도로에 화물 탁송차의 줄서기 전쟁이 이틀씩 계속되는 등 운송화물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부산 9. 22)
* 고속철도 부전역 추진, 문시장 의회 답변 하얄리아 5만평 우선활용(부산경제 9. 22)
* 「부산 아젠다21」 3개 기본방향·21개 행동 원칙, 기본방향 ①환경에 적합한 일상생활의 정착, ②쾌적한 녹색도시 환경의 창출, ③환경을 배려한 사회 구조의 실현(시보 9. 22)
* "부산시의 어려운 상황 인정", 정부 부산 국비 지원 대폭 증액 의미, 작년보다 24.9%가 실제 증가한 규모, 문시장 등 관계자들의 정부 설득 주효, 시규 14개 사업 1천2백28억원 반영(시보 9. 22)
* 문현동에 「종합금융단지」, 첨단산업 요람이 될 「과학산업단지」 조성, 「제2증권거래소」 설립, 금융도시로 육성, 중소기업 신용보증 위해 「신용보증조합」도(시보 9. 22)
*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 부산시의회 제48회 임시회가 지난 20일 본회의 개회하고 오는 10월 4일까지 회기 시작(시보 9. 22)
* 제3회 부산시 「산업 평화상」, 근로자·기업인 대상 10월 7일까지 추천(시보 9. 22)
* 폐기물 처리 업소 확대, 시 건축 폐자재 등 허가 대상 포함, 내년부터 조례개정안 입번 예고(시보 9. 22)
* 아시안 게임 조직안 곧 발족, 문시장 "재원 확보…경마·경정도 검토", 시 체육회 이사회 당면 현안 논의(시보 9. 22)
* 95육림 조성 작업 철저, 시는 올해 육림 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지별·작업종별 세부추진 계획에 따라 조림지 풀베기 산지 수목 정비 작업 등은 산불 방지 활동 시행 이전에 작업 완료토록 지시(시보 9. 22)
*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제16회 부산시민의 날」, 「95 부산포 축제」 대대적 홍보 나서, 언론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주요 간선도로에 선전탑·육교 현판 설치, 통일된 디자인 개발, 일체감·안정감 제고(시보 9. 22)
* "부산 주요 사업 숨통 트였다", 96년 국고 지원 2,000억 늘려 8,089억 확정, 지하철 3호선 등 신규도 천2백억원 반영(시보 9. 22)
* 시정 동정, 시장 - 「21세기 부산의 비전과 발전 방향」 특강 외 2건(시보 9. 22)
* 아주경기 「붐 조성」 시민 체육 대회, 9월 23일 사직 운동장 아시안 게임 성공 다짐(시보 9. 22)
* 적조·기름띠 피해지역 순시, 9월 28일 적조피해와 유일호 기름 유출 피해 입은 가덕도와 남항일원을 현장 순시하고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긴급 지시(시보 10. 6)
* 제8회 바다 미술제(해운대해수욕장)(부산교육 9. 22)

9. 23 * 남해황금어장 결딴 위기 부산앞바다를 포함한 남해안과 동해안이 태풍 라이언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태풍으로 인한 해저 상황변화로 3천t에 가까운 벙커c유를 적재한 채 부산 다대포 앞 바다에 침몰한유조선 제1유일호의 유류유출이 심하게 발생할 경우 부산 경남 지역 해역의 엄청난 해양오염사태가 우려되고 있어(부산 9. 23)

* 부산 시구 의회 예산 부당집행 여전, 부산시의회와 16개 구·군 의회 예산이 의원들의 사적경비에 유용되는 등의 불법 부당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부산 9. 23)
* 동아게임 기부금 손비인정, 정부는 내년부터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를 공익법인으로 지정, 기업들이

기부하는 돈에 대해 전액 손비로 인정해 주는 등 아시안 게임 개최와 관련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기로(국제 9. 23)

* 25일부터 부산시 등 국감 국회는 22일로 상임위별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주부터 20일간 3백24개 대상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해(국제 9. 23)
* 시구의회 혈세낭비 이래도 되나, 부산시의회와 일부 구의회가 국내외 여비를 지나치게 쓰고 고가 집기와 값비싼 기념물을 마구 구입하는가 하면 개인적인 모임에 예산을 지출 하는 등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나(국제 9. 23)
* 부산시 경제관련 부서 개편 시급, 중소기업 지원 인력 태부족·전문성 결여, 지역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중소기업지원과 개설 등 부산시의 지역 경제 관련 부서의 기구개편이 시급해(국제 9. 23)
* 부산지역 6개 대 18개학과 신설, 부산지역 각 대학들의 96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이 올해보다 1천40명 늘어나고 신문방송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6개 대학에 18개 학과가 신설(부산매일 9. 23)
* 민자 시대 시민기대 부응미흡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출범한 제2대 부산시의회가 처음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개최한 제48회 임시회에서 부산시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부산매일 9. 24)
* 국정감사 첫날인 25일 부산시 감사에 나서는 국회 내무위소속 여야의원들은 부산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목되어.. 여 지역개발 초점, 야 건물안전 추궁(부산매일 9. 24)
* 부산, 경남 우표 전시회(부산교육 9. 23)

9. 25
* 유조선 제1유일호에서 유출된 기름이 25일 부산 해안으로 급속도로 밀려오고 있어, 청사포 동백섬까지 확산(국제 9. 25)
* 시청사주변 개발 본격 추진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청사 부지를 포함한 이 일대 9만3천여평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결정안이 지난 19일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고시를 한뒤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해 오는 10월 개발계획 공모를 실시키로(국제 9. 25)
*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감사(부산시정 9. 25)

9. 26
* 지하철 2호선 1천1백억 낭비, 부산지하철 2호선 공사 중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비용이 당초 낙찰가의 2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국제 9. 26)
* 대형사고 예방 38%늘려 2조원, 교육부문 24% 증액 15조5천억, 맑은 물 공급에 1조3천억 투입(부산 9. 26)
* 부산시, 적조경보 늑장, 어민피해 더 커졌다, 부산시가 지난 8월 중순께 발생한 남해안해역의 유독성 적조에 대한 부산기장군 등 어류양식어업 어민들에게 이 사실을 늑장 통보 부산지역의 적조피해가 더욱 확산됐다는 사실이 밝혀져(국제 9. 26)
* 기름오염 피해 눈덩이, 영도·다대포 앞바다도 덮쳐, 미역·파래양식장등 황폐화(부산 9. 26)
* 국회 건교위원회 국정감사(부산시정 9. 26)

9. 27
* 부산「에이즈」백12명, 국회는 27일 행정 재정경제 국방 등 12개 상임위별로 정무장관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재정경제원 국방부 등 소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 대한 사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해(부산 9. 27)
* 도심녹지 13만평 "결딴", 대한주택공사가 지주들과 함께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남겨진 야산 13만여평을 깎아 내는 무모한 택지개발을 추진, 파문이 일어(국제 9. 27)
* 위천공단 정치쟁점화, 부산과 대구지역 간에 유치여부를 놓고 논란으로 빚고 있은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위천공단 추가조성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어(국제 9. 27)
* 연제구 구민자율감시단 출범, 연제구는 지난 21일 지역현안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들의 구정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구민자율감시단 발족식을 갖고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해(부산매일 9. 27)
* 부산 관광 부흥 묘책 제시, 부산시관광협회가 오는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계기로 부산관광이 일대 도약을 위한 대형포럼을 열어(부산매일 9. 27)

9. 28
* 고속철 중간 역「부전」확정, 경부고속철도건설을 맡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부전역을 사실상 경부고속철도의 중간 역으로 건설키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져(부산매일 9. 28)
* 부산국토청 사업비 1천4백억 증액,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이 각종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물가 변동 등 이유로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과다 증액해 준 것으로 밝혀져 무계획적 사업집행이란 지적과 함께 특혜 의혹마저 사(부산매일 9. 28)
* 환경위 3개 안건 처리, 제48회 임시회 8일째인 27일 부산시의회는 6개 상임위별로 상임위를 열고 부산시 산하 각 부서 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5건 안건을 심사해(부산매일 9. 28)

* 낙동강 하류 녹조 심각, 맹독성 적조가 남동해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 하류와 사연댐에서 녹조류까지 크게 번져 인근 농어민들의 또 다른 피해가 우려돼(부산 9. 28)
* 고속철 중간역, 부전역 건립 사실상 확정, 부산시의회 도시계획 의견 청취안 수정통과(부산 9. 28)
* 아시아드 조직위 구성 지연 추궁, 부산시의회는 제4회 임시회 8일째인 28일 예결특위에서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 시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및 정책질의를 벌여(부산 9. 28)
* 부산 AG조직위 10월 초 발족,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오는 10월초 정식 발족해(국제 9. 28)
* 시 안전관리본부 추경추궁, 부산시의회 추경예산·조례안 등 안건심사, 부산시 의회는 제48회 임시회 7일째인 26일 7개 상임위별로 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발족한 부산시 시설안전관리본부의 안전점검실태와 하얄리아부대 이전을 위한 구체 추진사항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안건심사와 현장 확인활동을 벌여(부산매일 9. 28)
* 부산지하철 위험 싣고 달린다, 부산지하철 1호선 1~3단계 중 남포동에서 범일동역 구간 벽체의 누수에 포함된 염서오인농도가 시공 당시 1백1·9ppm에서 현재 6천m으로 무려 60배나 증가 부산지하철이 제2의 무궁화호 참사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나(부산매일 9. 28)
* 폐기물처리업체 환경오염 부채질, 유독성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전문처리업체들이 특정폐기물처리업체들이 특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 무단소각 및 매립 등을 일삼아 오히려 환경오염을 부채질해온 것으로 드러나(부산매일 9. 28)

9. 29
* 장애인 특례입학 늘어, 9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장애인들의 특례입학 기회가 대폭 늘어나(부산매일 9. 29)
* 기장 선거구 해운대 통합, 부산기장군 국회의원 당일선거구 쟁취위원회는 기장군의 인구가 선거구 획정하한선인 7만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기장군을 해운대에 통합선거구로 포함시킨 결정을 부당하다며 2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성을 제기해(부산경제 9. 29)
* 식수댐 경제성 없다, 부산시 용역조사 결과 투자 비해 실제효과 미미(부산경제 9. 29)
* 부산연제구청 파산위기, 분구 때 세입예산 잘못 책정…재정난, 지방세 감소 등 21억여원 결손발생, 동직원 급여중단 처지(부산매일 9. 29)
* 부산~상해 카페리 신설, 한라해운과 구체적 협의 부산과 중국 상해를 잇는 카페리 항로가 이르면 12월 초에 신설된 예정(국제 9. 29)
* 구청, 자연녹지 훼손 앞장, 부산사상구청이 산림 밀집지역인 자연녹지를 대규모 자동차학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가 하면 녹지에서 자동차학원 부지로 변경된 곳에 아파트를 짓게 용도 변경해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어(국제 9. 29)
* 방사능제거 자동설비 도입, 고리원전은 29일 지난 7월 드러난 원전 제한 지역 내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발전소 내 제한지역 오염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해(국제 9. 29)
* 1백여개 대학 「5·18 맹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소속 전국 1백여개 대학이 29일부터 이틀간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맹휴업에 들어감에 따라 부경총련 소속 37개 대학도 일제히 동맹휴업에 돌입해(국제 9. 29)
* 봉화산 40%만 개발 부산 사하구 신평 장림 봉화산 일원 대규모 택지개발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당초 건설 교통부가 고시한 12만8천여평 중 상당부분을 축소해 개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국제 9. 29)

9. 30
* 고리원전 안전체계 대폭 강화, 고리원전의 방사능 누출방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돼(부산매일 9. 30)
* 신선대매립 전면 중단, 수면 위 가호안 보완공사만 재개(부산매일 9. 30)
* 실용성 없는 즉흥적 발상, 부산시는 배내골 급수댐 건설계획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계획을 백지화할 방침을 밝혀(부산매일 9. 30)
* 성공적 개최 첫걸음,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30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함으로써 지난 5월 23일 대회유지 이래 진행돼 오던 물밑 준비작업이 비로서 전면으로 부상 본격 실무 작업에 돌입하게 돼(부산 9. 30)
* 「아시안 게임 조직위」 공식 출범, 9월 30일 발기인 대회·창립총회 가져, 위원장 등 집행위원 38명 확정(시보 10. 6)
* 2002 부산AG 조직위원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부산시정 9. 30)

10. 1
* 부산시 의회, 해양 오염 항구적 대책 촉구, 기름·적조 피해 어민 적정 보상도, 부산시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부산매일 10. 1)

10. 2　* 부산 시의회, 위천공단 반대 상경 투쟁, 민자 부산 위원장-국회의원 백지화 총력 시민운동과 공동보조, 부산 시의회 시민 대표 청와대·환경부 등 항의방문(국제 10. 2)
* 부산시, 쓸 곳은 늘고 돈 들어 올 곳은 없고, 손 놓은 내년 예산 편성, 지방세 수입 증가 불투명, 취득·등록세 정체 자동차세 격감, 대형사업 산적 재원 조달 "막막"(국제 10. 2)
* 부산 아시안게임 조직위 구성 "뒷말", 밀실 인선 의혹 난무, 조직체계·권한 등 내부 이견, "시민 대표 1명" 관 행사 전락(국제 10. 2)
* 부산시, 위반차량 주차료 50% 할증, 10부제 대폭 강화, 10부제 미참여 차량에 대해 주차장 상한제 도입, 부산시의 교통 수요관리정책 크게 강화(부산 10. 2)
* 교통 평가「권장 사항」시·구 적용 달라 혼란, 대형교통유발시설의 건립 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통영향 평가 심의의결서상「권장사항」이행 여부 놓고 부산시와 일선 구청 이중 잣대 적용(국제 10. 2)
* 부산시, 인사평점제 대폭 개선, 민원부서 가산점 폐지, 국제전문직·감사담당 한해 가산혜택, 공무원 경쟁력 강화 위해 내년 6월부터 시행(국제 10. 2)
* 부산 대기 카드뮴 오염 비상, 심장병 유발…산성비는 2번에 1번 꼴(국제 10. 2)
* 부산 물가 상승 위험 수위, 8월 대비 0.9% 올라 억제선 5.5% 육박, 태풍과 추석 등의 영향으로 지난 9월 부산소비자 물가 올 들어 최고 상승률(국제 10. 2)

10. 3　* 부산시 의회, 시 추경안 25억8천만원 삭감(부산매일 10. 3)
* 부산시 의회, "위천공단 백지화" 상경 투쟁, 국회 등 항의 방문 건의문 전달, 임시회에서 채택한「낙동강 중상류 지역 공업단지조성 반대건의문」청와대·국회·건교부·환경부 등 주요 국가 기관에 공식 전달 (부산매일 10. 3)
* 부산시, 택시료 15일부터 10% 인상, 상수 14%·하수 38%도 같이 추진, 9월 물가 0.09% 올라 억제선 5% 육박, 서민가계에 큰 압박(부산매일 10. 3)
* 부산 국세청 20억 누락, 감사원 적발 조사 소홀 등 업무차질로, 부산 지방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가 상속세 부가세 등 각종 국세의 조사 업무 잘못 등으로 20억5천만원에 달하는 세금 거둬들이지 못해(부산경제 10. 3)
* 부산·경남, 지역 소주 신제품 승부, 이달부터 희석식소주의 자도주 50% 구입시행, 대선·무학 영업망 확충 박차(부산경제 10. 3)
* 부산시·한국토지개발공사, 녹산 공단 4차 분양, 평당 61만원·업체당 5백~만8천평(부산 10. 3)
* 명지 파밭에 큰 피해, 수입 원목 야적장서 "괴 나방", 2~3년 전부터 날아들어 잎 마름 현상, 역학조사도 않고 방치(부산매일 10. 3)
* 부산시, 금정산 휴식년제 검토, "생태계 파괴 막으려 일부등산로 폐쇄", 시민들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황폐화 돼 문제(국제 10. 3)
* 동래구, 애향대상 수상자 선정, 지난달 26일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유공자와 향토명예를 선양한 일꾼에게 수여(부산매일 10. 3)
* 금정구,「아주」경기장 유치 총력전, 의회-임시회 열어 결의문 채택, 구청-특별반 운영·기획안 마련(부산 매일 10. 3)
* 부산시,「명지」에도 쓰레기 소각장건립, 내달 초 발주 의뢰…오는 12월 착공, "강서구 전역 배출 쓰레기 처리"(부산매일 10. 3)
* 부산시·건교부,「하얄리아」강서 울만 이전, 98년까지 18만평 대체 부지 조성, 사업 전담팀 구성 실무작업 착수(국제 10. 3)
* 부산 수영구 징수권 이관 요구, 횟집「바닷물 사용료」공방, 구의회-세수 확보 내세워 내달 정식 안건 채택 계획, 해항청선 수입 적어도 "타 지역에 선례 될라" 거부(국제 10. 3)
* 4백년 단군제 "한얼님 자녀임을 알라", 부산 장전동 소정 경로당서 개천대제, 1년에 3회…"젊은이 참석 많았으면"(국제 10. 3)
* 해운대구청, "해수욕장 넘겨다오", 인근 시유지 7천여평 양여 요청, 관광특구 국제화 부응, 지하 3층 신축해 주차장·쇼핑센터 활용(국제 10. 3)
* 영도구, 관광행정 연구단 첫 발족, 효율적 자원이용·홍보 위해(국제 10. 3)
* 삼성자동차지지 부진, 부지 보상 난황…인력·자금 확보도 애로, 98년 생산목표에 큰 차질, 부산경제 활성화 먹구름(부산 10. 3)
* 국감자료 부산 지방세 횡령 11억, 최근 2년간 경남 10억4천만원(부산 10. 3)

* 부산시, 택시요금 10%・상수도료 14%・하수도료 38% 공공요금 덩달아 인상, 정부선 철도・우편 요금 올려, 서민 가계 압박 불가피(부산 10. 3)

10. 4
* 아시안 게임조직위 사무처, 「1실-3본부」로, 직원 54% 72명 시 공무원으로 충당(부산 10. 4)
* 슈퍼・연쇄점 경영수지 날로 악화, 환경변화 적응 실패 8~15% 매출 감소(부산 10. 4)
* 부산-나진 정기 컨테이너 직항로 개설, 남북 분단 이후 오늘 역사적 첫 출항(부산 10. 4)
* 낙동강 관리청, 부산 대기 카드뮴 검출, 8월 0.002㎍ 심장질환 등 유발 가능성(부산 10. 4)
* 부산시의회 임시회 결산, 민선 자치 무한한 가능성, 해양오염 등 지역 현안에 능동적 대처, 질의 방만…시정 방향 제시 못해, 여론 수용 폭 좁아 정책화 한계(부산매일 10. 4)
* 부산시, 물가 너무 쉽게 올린다, 인상 요인 검증・여론 수렴 과정 없어, 시민보다 업자두둔 행정, 대책위 협의 안거치고 일방 결정(부산매일 10. 4)
* 가덕~거제 연륙교 해군 반대로 난항, "작전 장애" 해저 터널 대체 건설 요구, 부산시-예산편성 본격 추진 "귀추 주목"(부산매일 10. 4)
* 「삼성차」 왜 늦어지나 <상>, 부지보상・부품업체 확보 최대 난제, 부지보상-시책정액・지주요구 현격한 차…진척 없어, 부품 업체-녹산 공단 분양가 높아 대부분입주 포기, 당국 행정지원・삼성 「해결의지」 절실(부산 10. 4)
* 부산지역 8월 수출 전국 비중 4.6%, 사상 최저치 기록(부산 10. 4)
* 부산시의회 48회 임시회 폐회, 원만한 운영…초선 높은 점수, 현안분석 미흡-쟁점 부각엔 실패, 시 무성의 답변…민선 퇴색 지적도(국제 10. 4)
* 해항청, 부산항 준설 예산 "들쭉날쭉", 신청액과 큰 차이…장기 계획 차질(국제 10. 4)
* 제조업체 물류값 부담 증가세, 상공회의소 작년 3조6천억…전년 비해 19.1%, 부산항 중심 영남권 특히 심각(국제 10. 4)
* 「자랑스런 시민 상」 7명 시상, 제16회 부산시민의 날 기념하는 부산포 축제 전야제에서 4일 저녁 7시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는 불꽃놀이를 비롯 민속공연 클래식 대중가요 등으로 다채로운 행사(시보 10. 6)
* 가수 현철씨에 감사패, 가수 현철-무의탁 노인 돕기에 1천만원 기탁(시보 10. 6)
* 부산포 축제(~8)(부산시정 10. 4)

10. 5
* 건교장관, 부산・경남 주민 반대 땐 위천공단 활성 않는다, 정부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 중인 낙동강 상류의 위천공단조성과 관련 부산 경남 지역 주민들 동의하지 않는 한 공단 조성 않기로(국제 10. 5)
* 부산선관위, 정당 행사 중심 기부 집중 감시, 제한 전 불법 선심 공제 차단, 자원봉사자 동원 공명 관찰(부산매일 10. 5)
* 신평・장림공단 내 산폐물 소각장, 유독 가스 분출 논란, 사하구의회 허가과정 논의, 학계-"발암성 「다이옥신」 제거 못해", 사업주-"활성탄주입으로 문제없어"(부산 10. 5)
* 김해 공항 국제선 청사 "기우뚱", 중앙~외곽 수평도 50㎝ 차이, 건물 곳곳서 균열 심화 "불안", 국내선 탑승교도 침하 현상, 대한건축학회 재건축 불가피(부산 10. 5)
* 부산기업 경영 혁신 바람, 기술개발・원가 절감・사업 다각화, 연철・동국제강 등 팀제・연봉제 도입, 산학연 연계도 확대(부산 10. 5)
* 김해공항 청사 균열・침하 위기, 「국제선」 건물 지탱 "비상", 「국내선」도 지반 7㎝ 내려 앉아(국제 10. 5)
* 제11회 자랑스런 시민상, 「제16회 부산시민의 날」 맞아 10월 5일 제11회 자랑스런 시민상 시상식에서 문정수 시장이 수상자들을 격려(시보 10. 6)
* 「제16회 부산시민의 날」(부산시정 10. 5)

10. 6
* 시추경 예산 7백25억원 확정, 부산시의회는 지난 10월 2일 관계기관을 방문 해 「낙동강 증상류지역 공단조성 반대 건의문」 전달(시보 10. 6)
* 부산발전 30대 현안 사업<7>, 지하철 2・3호선 조기건설 추진, 목재・수산물 가공단지 조성, 경마장 유치,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시보 10. 6)
* 시립 무용단 2차례 외부 공연, 부산시립무용단은 오는 10월 11일과 18일 광주 비엔날레 시・도 무용제서 외부 공연(시보 10. 6)
* 목조 문화재 화재 점검, 가을 건조기를 맞아 소화장비 및 전기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중요 목조 문화재 화재 예방(시보 10. 6)
* 교통안전 시설 개선 5백억 투입, 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중점 추진, 범시민 캠페인 등 시민의식 개혁도(시보 10. 6)

* 「농촌 일손 돕기」 지원기간 설정, 시는 10월 2일부터 11월말까지 2개월 동안 농촌 일손 돕기 지원 기간으로 정해 시군별로 일손 돕기 지원 받기로(시보 10. 6)
* 시장과 시민 대화의 날, 「열린 시정」에 건의 된 시민의 소리, 시장실 개방 월 1회 기탄없이 청취(시보 10. 6)
* 무단 방지 차량 일제 정리, 시-10월말까지 적발 땐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시보 10. 6)
* "위천공단 백지화" 상경 촉구, 시의회는 지난 9월 5일 임시회에서 「낙동강 중상류 지역 공업 단지 조성 반대 건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지난 10월 2일 청와대와 국회 건설 교통부 환경부 등 주요 국가 기관에 이 건의문을 공식 전달 위천 공단 조성 백지화 강력 건의(시보 10. 6)
* 시정 동정, 시장 - 「부산 사랑·농촌 사랑 한마음 실천대회」 참석 외 2건(시보 10. 6)
* 10월을 「시민 대화합의 달」, 시장 공약 적극 추진, 아주 게임 체제 확립, 95년 업무 추진 상황 점검 완벽 마무리(시보 10. 6)
* 다대포항 방파제 공사 저가 낙찰, 예정가의 50%선 수주 부실 공사 우려, 경기침체 건설업계 "우선 따고 보자" 심리 팽배, 삼성·현대 등 컨소시엄 5백7억원에 맡아(국제 10. 6)
* 부산-세계적 문화도시로 가꾼다, 부산문화회관~당곡일대 대표적 공원 조성, 국제 바다축제 개최 종합 관광 코스로 개발, 김경남지사 "도민제일 봉사행정" 밝혀(부산 10. 6)
* 하얄리아 이전 작업 본격화, 국방부 「용산 사업단」 내부 협의, 장소·비용 산정 착수(부산 10. 6)
* 10부제 스티커 폐지, 미참여 땐 주차료 최고 100% 인상, 주차장 20% 이상 카풀 전용으로, 내달부터 시행(국제 10. 6)
* "하류 주민 반대 땐 공단 불허" 잇단 확약, 「위천 반대」 새 국면, 부산 시의회·시민단체 "건설유보" 판단, 대구·경북 설득 답변 주시(국제 10. 6)
* 금정산 스카이웨이 추진, 부산시 아주게임 대비 장·단기 대대적 개발 계획, 민속촌·음식점 등도 조성, 시민단체 "자연훼손" 반발, 97년 민자 공모 98년 시행(부산 10. 6)
* 녹산 공단 300만평 추가 매립, 부산시 요청 토개공 수용 2단계 개발 본격 추진, 강서 진우도~진해 용원 공유수면, 11월 용역 입찰…98년 착공(부산 10. 6)

10. 7
* "항만 관리권 이양 관련 법 개정 건의", 문 부산시장 취임 회견서 밝혀(부산매일 10. 7)
* 유독 적조 약화, 한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유독성 코클로디니움 적조가 해수온도가 내려가면서 점차 세력 약화, 가덕도~감포 주의보로 대체(부산 10. 7)
* 부산시, 경상사업 값 동결 내년 예산 3백억 절감 교통·문화 투자키로(부산 10. 7)
* 낙동강 남조류서 맹독 성분 검출, 합천호·영산강도 극소량으로도 치사 가능 「간독」,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적조가 심각한 피해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 영산강 합천호 등에 서식(부산매일 10. 7)
* 부산지역 대학 9백55명 증원, 96대입 전국 1만2천명 늘려 27만1천여명 선발, 부산대 공학계만 1백15명 감축(부산매일 10. 7)
* 부산시, 토요 전일 근무제 본격 시행, 토요일도 평상시처럼 오후 6시까지 행정 업무를 보는 관공서 「토요 전일 근무제」가 7일부터 본격 시행(부산 10. 7)
* 사하구청, 을숙도 갈대밭 "새 단장", 을숙도 갈대밭 20여만평 지금까지 단 한번도 벌초 작업 하지 않아 뿌리와 줄기가 매우 약해졌으며 철새 먹이가 될 생물도 크게 줄어(부산 10. 7)
* 「하얄리아 되찾기」 서명, 미 하얄리아부대 이전작업이 정부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땅 하얄리아 되찾기 시민대책 위원회」는 서명운동·공개서한 발송 등을 통해 대대적인 시민운동 전개키로(부산 10. 7)

10. 8
* 열린 행정 힘 있는 시장, 문시장 취임 1백일, 국고 확보 사상최대규모…시정 "숨통", 전국 첫 「시설 안전 본부」 설치 등 성과(부산매일 10. 8)
* "금정산은 부산 시민의 산", 부산지역 시민 환경단체들 부산시의 「금정산 개발」 계획에 반대·전면 재검토 촉구(부산경제 10. 8)
* 수비 「컨」 야적장으로 활용, 부산항의 화물 적체현상 완화 위해 오는 20일부터 활용, 부산해항청 - 군 당국 합의, 북쪽 활주로 등 3만7천평 규모(부산매일 10. 8)
* 부산시, 주택 행정 갈팡질팡, "외곽 분산·자연보호" 기본 계획 위배, 도심 녹지 등 아파트 허가 남발, 봉래·금정산 등 황폐화 부채질(부산매일 10. 8)

10. 9
* 어제 아침 울산 앞바다서도 지진, 규모 3.5 부산 등 경남지역 건물 "흔들", 올 25번째…강원도 삼척 발생 이틀만(국제 10. 9)
* 부산시, 정무부시장 권한 강화, 민선자치시대에 첫 도입된 정무 부시장 권한 강화키 위한 방안 검토 중정무 부시장의 역할이 정무적 업무에 국한돼 있어 인력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국제 10. 9)

* 서낙동강 축산폐수 “범벅”, 수질악화・연안 적조 등 주요 원인, 서낙동강 일대 하천에 무허가 가축 사육장들이 국유지 등의 토지형질을 무단 변경하면서 난립・축산 폐수물 마구 방류 26곳 적발(국제 10. 9)
* 감전 사거리~남해 고속도로 IC 9.3㎞ 낙동대로 내년 착공, 4차선만 우선 공사, 국고 지원 받아 인터체인지 3곳 건설키로(부산 10. 9)
* 낙동강 호포교 수질 최악,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11.8PPM까지 떨어져…3급수도 안 돼 올 들어 가장 나쁜 수질 상태(국제 10. 10)
* 부산 감천항 한진 종건 매립 부두, 오늘부터 「잡화전용」 개장, 한진종합건설이 축조한 부산 감천항 민자 매립 부두가 10부터 잡화전용 부두로 개장(부산매일 10. 10)
* 시청 직장어린이집 개원(부산시정 10. 10)

10. 11
* 부산 지법, 민사조정제도 활성화, 올 1천400여건 소송 않고 해결, 작년 대비 3백26%나 늘어, 당사자 경제 부담 줄고 업무도 효율(부산매일 10. 11)
* ‘오이소・보이소・사이소’ 광복로・자갈치 축제 “팡파르”, 행사 다채 볼거리 풍성, 부산 제1의 쇼핑명소인 광복로 일대 상권 활성화하고 광복로를 국제적 명소로 가꿔나기기 위해(부산매일 10. 11)
* 부산시, 10부제 카풀 준강제적 추진, 내달부터 미참여 승용차 주차 요금 1백% 할증, 3인 이상 탑승땐 유료도로・터널 통행료 면제(부산매일 10. 11)
* 부산지역 건설사도 “비틀”, 지난 4일 중견 건설업체인(주)삼익이 자금난으로 부도낸데 이어 부산지역 상당수의 건설업체들도 극심한 자금난 때문에 잇달아 부도내거나 부도직전에 있는 것으로 조사(부산매일 10. 11)
* 민속예술 경연대회 개막, 국내 최대 민속예술의 한마당인 제3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11일 오전 공주시 종합운동장에서 문화예술진흥원장 등 문화예술계 인사 등 참여한 가운데 막 올려(부산 10. 11)
* 낙동강 종합개발 내년부터 추진, 고수부지 정비와 유원지 설치・유람선 운항 등을 골자로하는 낙동강 종합개발계획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 5개 지구 나눠 을숙도・종합위락단지로(부산 10. 11)
* 한은 부산지점, 부산 지역 경기 4/4분기 회복, 올 들어 회복세를 보였던 부산지역 경기가 지난 3/4분기 들어 크게 둔화됐으나 4/4분기에는 호조를 보이며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임(부산 10. 11)
* 부산시, 구덕・제2만덕터널 등 통행료 최고 66%인상, 부산시내 민자유치 유료터널 통행료 최고 66.7% 오를 전망, 조례개정 입법 예고(부산매일 10. 11)

10. 12
* 부산시, 서부산권 면모 바뀐다, 낙동강 종합개발계획 내용, 을숙도-디즈니형 위락단지・삼락-자동차 경주장・대저-주말농원 체육공원, 97년부터 하도 정비・부지 조성, 재원 조달・환경평가가 난제(부산 10. 12)
* 기장 축양장 어류 집단 괴질, 맹독성 적조로 80여억원 피해 입은 부산기장 군내 축양장에 적조 소멸 이후 각종 어병과 스트레스로 양식어 또 다시 집단 폐사하는 등 2차 피해 속출(국제 10. 12)
* 부산시, 을숙도 쓰레기장 연장 사용 “숨통”, 방음림 조성 등 민자 조건에 합의, 내년 4월부터 생곡 매립 결정(국제 10. 12)
* 낙동강 환경청, 부산 「미세먼지」 오염 심각, 환청 촉발 공단 이외 도심서도 고농도 검출, 신평공단・범천R 등 「기준 횟수」 최고 2배 초과(부산매일 10. 12)
* 적조 보상 턱없이 적다, 피해 어민 “지원 시기마저 불투명”, 산정기준 상향조치 도움 안 돼, 피해액 27%에도 못 미쳐(부산매일 10. 12)
* 다대포항 개발 재검토, 지역민・구청 환경오염 등 우려 반발, 해항청-연기・철회 계획, 부산 다대포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 개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져 다대포항 개발이 무산될 위기(부산 10. 12)
* 부산시, 승용차 이용 강력억제 고단위 처방, 부산시 교통 수요 관리대책 내용・의미, 지하철 2호선 완공 될 때까지 10부제, 공설 주차장 유료화 도심 진입 줄이기, 주거-업무지역 「직행좌석」 운행・버스차선제 확대(부산매일 10. 12)
* 환경부, 낙동강 하류 유해물 PCB 농축량 논란, 재조사 통해 「다량 농축」 신고 반박(부산매일 10. 12)
* 일제 침략 자료전 “눈길”, 문서・도서・사진 등 2백여점 선봬, 부산 사상구청 개청・광복 50돌 이색 행사, 11일부터 20일까지 구청 제1민원실에서 「일제침략과 저항의 역사」를 주제로 한 자료전시회 개최(부산매일 10. 12)
* 부산시 위원회 통폐합, 위원장도 외부전문가 등 영입키로(부산경제 10. 12)
* 국공유 재산 무상양여 허가, 월내 국회상정 아시안게임 지원법 이견 해소, 관련부처 옥외 광고물 설치 등 동의(부산 10. 12)

* 몰운대 개발 “절대불가”, 원시림 많고 동물분포 다양…보존가치 높아, 사하구청 개발 계획 전면 조정키로(부산 10. 12)
* 부산시, 을숙도 매립장 내년 3월까지 사용 연장, 문화재관리국 허가 받아 쓰레기 대란 일단 막아, 사용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 온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생곡매립장에 쓰레기가 반입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사용을 연장하기로(부산 10. 12)
*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 본격화, 부산시 계획안 확정, 1천8백억 투입 내년 착수(부산경제 10. 12)
* 부산 11월 아파트 5천 가구 공급, 올 들어 3번째 규모, 지역주택업체들이 다음달에 5천 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부산에 공급키로(부산경제 10. 12)
* 부산 생태계 3단계로 복원, 용역 보고회 21세기 부산을 국제환경 도시로, 96년부터 18년간 청사진 마련, 군사보호 시설 해제 지역 등 조사(시보 10. 20)

10. 13
* 시장-부산개인택시 선교연합회 참석, 외 4건, 부시장 - 「광복 50주년 기념 부산 미술 원류전」 참석(시보 10. 13)
* 「차량 10부제」 간접 규제 강화, 시-차량 10부제와 함께 타기 등 활성화 위한 보다 강력한 방안 마련하기 위해 시민공청회 갖고 방안제시(시보 10. 13)
* 경영 수익 사업 확대로 만성 적자 해소, 문정수 시장 취임 100일 회견, 민자 유치 전담 기구 설치(시보 10. 13)
* 「신산업보육센터」 설립 제시, 부산 발전 시스템 연구소 부산경제 종합 발전 연구 보고회서 녹산 공단 내 신사업 보육 센터 설립 제시와 국제 경쟁력 대비(시보 10. 13)
* 행정 광고물 신규 설치 승인제로, 이미지 통일화 사업 연계의 일환으로 앞으로 행정 광고물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심사 싱은 받도록 조처키로(시보 10. 13)
* 「1실 3본부 체제」 편성・운영, 아시안 게임 조직위 사무처 준비팀 10명 근무(시보 10. 13)
* “열린 시정 경영 행정 펴 나갈터”, 문정수 부산 시장 취임 백일 기자회견서 부산시의 현안・생각보다 훨씬 심각, 당초 예산보다 증액, 획기적인 성과, 시정전반 종합적 경영 진단 급선무라 밝혀(시보 10. 13)
*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이전 확정, 부산시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 공사가 현재 전체 68%의 순조로운 공정을 보임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생곡매립장 1단계 공사 구간에 쓰레기 매립키로 확정(시보 10. 13)
* 쓰레기 무단 투기 포상제 강화, 쓰레기 종량제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다소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제를 더욱 강화키로(시보 10. 13)
* 가을철 교통안전 대책 마련, 시-안전운행・사고 줄이기・차량정비 등 계도반 편성, 불법 운행 단속도(시보 10. 13)
* 불합리한 시내버스 정류소 조성, 시-승차권 판매소도 시민 편의 위주로 정비(시보 10. 13)
* 백양산 터널 등 민자로 건설, 김해 국제공항 조기 확장・해안 순환 도로 건설 등 현안 사업(시보 10. 13)
* 시・선관위 기부행위 단속 나서, 내년 총선 대비해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부산시 선관위가 지도와 단속 업무 시작(시보 10. 13)
* 「제도적 참여」로 정책 전환, 교통 수요 관리 활성화 추진 계획, 일부구간 카풀 전용차로 설치, 바퀴 잠금 장치제도 도입 추진(시보 10. 13)
* 시청 내 「직장 어린이 집」 개원, 시 직원 자녀의 건전한 보육 통해 후생복지 증진차원에서 개원한 “직장 어린이집”이 10일 개원(시보 10. 13)
* 시 하수처리장 14곳 신・증설, 오는 2011년까지 모두 14개 하수처리장 신・증설키로, 현재의 37.8%에서 90%수준으로 크게 향상 될 전망(시보 10. 13)
* 부산 택시 정책 “일방통행”, 업계 적자 보전 위해 해마다 요금 인상, 수익 감소분 시민에 떠맡겨, 회사 잉여 차량 「개인」 돌려야(부산매일 10. 13)
* 「태화」 등 대형 백화점 설계구조・용도변경 멋대로, 건교부 국감자료 특급호텔도…무리한 증개축 “안전 흔들”, 부산지역 특급이상 호텔과 대형백화점 태반이 건축허가당시 설계구조를 멋대로 바꿔 용도 변경・무리하게 건물을 증개축하여 시설을 늘리거나 바꾸는 등 안전을 무시해 온 것으로 조사(부산매일 10. 13)
* 「다대항 개발」 재검토, “환경훼손” 여론 수용 철회・규모 축소 협의(부산매일 10. 13)
* 가덕 신항 개발 전액 민자로, 가덕도 신항만 개발 사업이 정부재정 수입 없이 1백% 민자 유치로 추진(부산매일 10. 13)
* 자동차 매연 결합 땐 인체 치명적, 부산 「미세먼지」 오염 실태・대책, 환경차원 교통체증 대처를, 쓰레기 무단 소각 맡아야(부산매일 10. 13)
* 엄궁 농산물 시장점포 임대 담합 입찰, 북부서 저가 낙찰 업주 16명 수사, 경쟁자 금품 회유・친인척 들러리 참여, 종전임대료 절반에 낙찰, 관련 공무원들 묵인의혹(부산 10. 13)

* 낙동강 하구 대마등 철새 도래지 복원, 38억 들여 96년 완공, 을숙도・신호 인공생태계와 연계(국제 10. 13)
* 서부산회관 연내 착공, 사하구청 위치변경 일웅도에 건립(국제 10. 13)
*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 내달 1일부터 9일간 전거주민대상 28개 항목, 부산을 비롯 전국에 걸쳐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인구 주택 총 조사가 일제히 실시(부산매일 10. 13)
* 부산시, 도로 표지판 제 구실 못한다, 식별곤란 표기 잘못 수두룩, 설치률도 건교부 기준 60% 불과, 시내 도로 방향과 위치 등 알려주는 표지판이 크게 부족한데다 설치된 표지판도 내용이 맞지 않거나 위치가 부적절해 제 구실 못하다는 조사 결과 나와(부산매일 10. 13)
* 시→군→동 "쓰레기장 알아서 하라", 혐오시설 떠넘기는 「민선」, 북구청 조례 개정 추진, 부산시 이어 각 구청에도 파문일 듯(국제 10. 13)
* 서구 「수산 축제」 개최 추진, 산물 홍보・주민 화합 도모, 오늘 간담회 열어 내용・주체 등 논의키로(부산매일 10. 13)
* 부산시, 부산 생태계 18년 거쳐 복원, 보전대책 확정…내년부터 3단계시행, 절대 보호구역 등 검토, 「21세기 녹색도시」 지향하는 부산지역 생태계 보전 청사진 확정(부산 10. 13)

10. 14
* 부산 대형건물 안전 전국 최악, 아파트 181개 동 「부실」, 극장・백화점 등 8곳 보수보강 지시 받아, 시설관리본부 조사 결과(부산 10. 14)
* 쓰레기 문전 수거 실시, 금정구 내달 1일부터 맞벌이 부부 등 불편 해소 기대(부산매일 10. 14)
* 지하철 3호선 아주경기 전 개통 불투명, 부산시・정부 건설비 분담 마찰 허가 등 지연(부산 10. 14)
* 23일부터 29일까지 「녹색 교통주간」 실시, 부산시 대중교통의 날 등 행사(부산 10. 14)
* 해항청 새 항만 서안 추진…부산시 동안 고수, 가덕도 개발 난항 예고, 해항청-재정 등 고려 용원쪽 해안 적지, 부산시-도로망 등 기본계획혼선 "불가"(국제 10. 14)
* 수정산 터널・연산 ICD 등 11곳 민자 유치사업 추가 인정, 출자 총액 제한 예외・차관 도입 허용, 금융지원・세제 감면 혜택(국제 10. 14)
* 전국 시・도간 교직원 미술 작품 교류전(부산교육 10. 14)

10. 15
* 문화재 관리국이 문화재 망친다, 부산 다대 보호구역 내 폐자재 처리토록 형상변경 허가, "특정 업체에 특혜" 의혹 무성(부산매일 10. 15)
* 부산 일선 구청 외국도시 결연 활발, 자치도 배우고 경제 북돋운다, 공무원 교환근무・산업유치 기술협력, 실속 있는 교류로 발전(부산매일 10. 15)
* 해운대구청, 수영만 「해운대 명물」로 가꾼다, 산책로 등 꾸며 상징거리 조성, 전시회 등 이벤트 유치, 그동안 나대지로 방치(부산매일 10. 15)
* 해양대 「해사 박물관」 준공, 개교 50주년 기념 16억원 모아,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대가 개교 50주년 맞아 국제회의장과 다목적홀・해사박물관・교환교수 숙소・가든 파티장 등 망라한 「개교 50주년 기념회관」 준공(부산매일 10. 15)
* 부산서 국내 첫 위조주권, 현대 건설 1천주권 5장 대림산업 1천주권 1장 시가 1억4천만원…정밀 복사 경찰 수사 나서(부산경제 10. 15)
* 호포~북정공단 지하철 연장 돈줄 없어 공기 차질, 부산시・양산군・토개공 마찰, 서로 "나 몰라라" 미루기 일관, 내년 1월 발주 예정인 실시설계용역이 예산 미정으로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건설 계획 차질(부산경제 10. 15)
*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무분별한 아파트 건립, 부산 도심 산지 "신음", 올 들어 195만여㎡ 주거지로, 봉래산・아미산 등 황폐화 가속, 민선 시장 출범 이후 더욱 극성(부산매일 10. 15)

10. 16
* 사직 주경기장 내년 착공, 2002년 아시안게임 중심 무대가 될 사직 주경기장이 1,700억 투입 돼 내년 초 발주 돼 상반기 중 착공(국제 10. 16)
* 부산시-해항청 불협화음, 국비 500억 표류, 해항청-집단 민원 소극대처 시에 불만・수영로 등 확보 예산 배정 않아(부산 10. 16)
* 감천항 조선공단 매립 연말 완공, 8만6천여평 공사 98% 진척, 97년부터 본격 가동(부산 10. 16)
* 아주경기 사직경기장국비 6백억 지원, 주경기장 최종 확정, 공사비 35% 내년부터 99년까지(부산 10. 16)
* 부산 대기 중금속 천지, 납・카드뮴 감전・덕천동 위험 수준, 부산 시내 대기 중 납과 카드뮴・크롬・구리・망간 등 중금속 상당량 함유 돼있어 시민 건강위협(국제 10. 16)
* 부산시 보건환경 연구원, 부산항 수질오염 심각, 중앙동 물양장 3급수에도 못 미쳐, 부산항 연안 일부 해역의 수질이 해수 수질의 최저 기준인 3급수에도 못 미치는 등 수질오염 상태 심각 한 것으로 조사(국제 10. 16)

* 토개공, 녹산에 임시하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의 늑장으로 녹산 국가 공단의 공장 입주자가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입주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시하수처리 시설 건설키로(부산 10. 16)

10. 17 * 부산시, 부산시 대규모 조직 개편 연내 마무리, 민선시대에 걸맞게 행정조직 대수술, 문화 관광국 신설…6개국 3개로 통합, 아주경기 조직위 70명 파견 임박(부산 10. 17)

* 부산시, 부산 야간 영업 계속 규제, 논란 빚은 유흥업소 심야 영업자율화논의에 대해「규제해제 불가」방침 최종 결정, 다음 달부터 불법 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실시키로(부산 10. 17)

* 부마항쟁 계승제 시 차원 지원 시급, 부마항쟁 발발 16주년을 맞았으나 기념행사가 갈수록 줄어들고 시민참여 역시 시들해져 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 절실하다는 지적(부산 10. 17)

* "밀수단속 힘에 부친다", 부산항 밀수가 매년 2~3배씩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감시 장비나 인원은 노후 및 답보로 밀수증가 속도 따라가지 못해 대책 마련 시급(부산경제 10. 17)

* 부산시, 도심 재개발 계획 전면 보류,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뒤로 미루는 도시 계획의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해 최근 추진해 온「장기도심개발(정비)계획」수립 전격 보류키로 결정(국제 10. 17)

* 부산 신공항 우선 건설, 2001년까지 전국 5개 권역별 국제 공항 확충, 가덕 신항 동북아 정보 거점화, 부산·광양 동남아 물류 기지로(부산매일 10. 17)

*「컨」부두 생산성 높다, 지난해 신선대 부두의 부가 가치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생산성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국제 10. 17)

* 감천 조선 공업공단 조성 차질, 선박수리업의 부가가치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감천항 조선공업공단(가칭) 조성 사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 불투명으로 연내 3월 착공 불투명(국제 10. 17)

* 5지 택일형 출제·단답형 제외, 영어 듣기 8문항·30%로 확대, 부산 내년도 고입 전형 요강 확정, 2학군 50%내서 선 지원 후 추첨(국제 10. 17)

* 부산지방철도청, 개금 폐터널 재활용, 개금 폐터널 주변 철도청부지에 무허가주택 난립을 방치하다가 폐터널을 화물전용선으로 재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워 주민들과 철거를 둘러싼 마찰 우려(국제 10. 17)

* 양식어「적조 후유증」, 적조이후 살아남은 기장군내 1백여만 마리의 양식어들이 예년에 비해 성장 속도가 30%이상 더딘 바람에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수십억원대의 손해 우려(국제 10. 17)

10. 18 * 부산 장림동 수돗물에 가성소다 유입, 주민피부병 증세…7천세대 식수 고통, 상수관에 화공 약품관 잘못 연결(국제 10. 18)

* 부산시 교육청, 내년 사상최악 재정난, 급식 시설 등 사업 차질, 교육부 지원 줄어 예산 전용 불가피(국제 10. 18)

* 동해남부선 복선화-이설비 중 2천억, 철도청 "부산시가 맡아라", 부전~일광 구간 "역내" 구실,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 가능성(부산매일 10. 18)

* 부산시, 황령산 개발 전면 재검토, 반대여론 수렴…환경보전 위주로, 순환로·골프 연습장·동물원 등 백지화, 변경계획안 연내 마련(부산 10. 18)

* 정부, 낙동강-한강 운하 타당성 조사, 내년 5억투입 본격 착수, 건교부 수질 개선·수송능력 한계 극복 위해(부산 10. 18)

* 수돗물에 맹독 가성소다 유입, 장림 1동 국영산업 저장탱크·수도관 불법 연결 0.5t 역류, 인근 5백세대 급수 중단…20여명 화상(부산 10. 18)

* 부산 지역 컬러복사기 관리체계 허술, 위조 범죄 예방 "구멍", 경찰등록·판매 대수 큰 차이, 복사점 영업 실태 점검도 "겉핥기"(부산매일 10. 18)

* 문정수 시장 아시안게임 겨냥 "야심작",「바다축제」특색 없다,「부산포」바다 예술제」짜집기 불과, 공약 명분 아래 관제 행사만 양산(부산매일 10. 18)

* 낙동강~한강 대수로 건설 본격화, 건교부 내년 타당성 조사 충주댐-안동댐 연결 60여㎞(부산매일 10. 18)

* 부산시, 국민주택 의무비율 축소·25.7평 이상 가격 자율화·미분양 아파트임대 전환,「미분양」종합 대책 마련, 건교부에 지자체로서는 첫 공식 건의(부산매일 10. 18)

* 연구위원 장기공석·연구성과 기대 미흡·연구영역 제약 극심,「부산 발전 연구원」계속 표류, 이사장인 시장 눈치 살피기 급급, 민 위주로 확대 개편 돼야(국제 10. 18)

* 부산법원 운영체계개편확정, 2000년 법조청사 거제동 이전이후 시행, 서부산권 관할 서부지원 신설,「동부」는 본원에 흡수(부산매일 10. 18)

10. 19 * 건교부, 고속철 5개축 구축 발표, 부산항·영종 등 동북아 물류 거점화, 2011년 매듭 국가기간 교통망(국제 10. 19)
* 구청장-의회 감정싸움 "추태", 조례안 부결·예산 삭감 불만 구정질의 불참, 부산 진구의회 파행 끝 산회 선언(국제 10. 19)
* 「일자형」 고속철도망 건설, 2011년까지 남북 2·동서 3개축, 부산항 대형 중추항 육성, 정부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마련(부산매일 10. 19)
* 부산시, 금정산 건축물 높이 제한, 내년 1월실시 사직~범어사 10㎞, 산지 개발에 따른 자연 환경 파괴 최소화 위해 실시키로(국제 10. 19)
* 부산-목포·속초 고속철 건설, 건교부 2011년까지 경전철도 직선·복선화, 가덕도 물류 중추항육성, 고속도 16곳 신설…전국 반나절 생활권(부산 10. 19)
* 부산해항청, 동삼동 매립지 관리 엉망, 공해업체에 무더기 사용 허가, 폐자재 적치·선박 해체 작업 등, 도시 미관 크게 해쳐(부산매일 10. 19)

10. 20 * 부산시, 폐기물 관리 문제 있다, 조직·인력 수준 6대 도시 중 최하위, 「쓰레기 처리」 자립 27%(국제 10. 20)
* 부산시 내년 예산 증가율 5% 사상 최저, 주요 사업 투자 삭감 방침, 1조4천4백여억 계상, 지하철·광안로 등 공기 늦춰 수지 보안(국제 10. 20)
* 부산 부산진 경찰서, 주권 위조범 긴급 구속, 공범과 컴퓨터로 대출금 반분, 시가 4억원대 주권 위조해 시중에 유통 시킨 장영문씨 자수의사를 밝힘에 따라 장씨를 자신의 집에서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유가증권 위조협의로 긴급 구속(국제 10. 20)
* 부산-원산 복선전철 99년 완공, 국가기간 교통망 구출 계획안 요약, 철도-전국 1~2시간 연결 고속 철도망 추진, 도로-남북 7개·동서 9개 노선 격자별 구축, 항만-부산항 「컨」 부두 확충 물류 기지화, 공항 - 「김해」 신활주로 건설 미·유럽 취항(부산매일 10. 20)
* 을숙도·신호 지역 추진 인공 생태계, "예산만 낭비·타당성 없다", "또 다른 생태계 파괴" 학계 반발, 부발연 보고서 묵살 강행(부산매일 10. 20)
* 구·군청 행정 기구 설피 범위 확정, 시민계→민원봉사실 사회계→사회복지계로(부산 10. 20)
* 화훼 농가 「탈부산」 러시, 토양·수질 오염 여건 최악, 원예 조합원 20% 타지로…대책 시급, 낙동강 하류의 극심한 수질오염 및 이에 따른 토양오염으로 부산 김해평야 지역의 화훼농가들과 농업 관련 연구소들 속속 부산 떠나(부산매일 10. 20)
* 호치민·상해시 방문, 문정수 시장 자매결연·투자 여건 시찰, 11월 2일부터 8일간 실시(시보 10. 20)
* 시청 주차장 유료화 운영, 과다한 승용차 이용 억제·주차 공간 합리적 이용 위해 11일부터 시청 주차장 유료화, 민원으로 내청시 1시간 내 무료(시보 10. 20)
* 아시아경기대회 완벽하게 준비, 낙동대로 우선 4차선만 내년 착공, 「하나로 교통 카드」 첨단 서비스 제공 등(시보 10. 20)
* 수영·문현 고가교 보수 공사, 10월 20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1차선만 운행(시보 10. 20)
* 심장병 어린이에게 새 생명, 만 18세 이하 저소득층 대상 무료 수술, 15명 선발 해 수술비용 전액 지원해줘(시보 10. 20)
* 중소기업 금융 지원 시책 등 보고, 부산지역 경제 기관장 회의가 13일 부산시청 회의실서 개최(시보 10. 20)
* 시정 동정, 시장 - 「95한국 시리즈 3차전」 참석, 부시장 - 「95하반기 지도자 연수회」 참석 외 2건(시보 10. 20)
* 「실명의 고통」 함께, 제16회 「흰 지팡이의 날」 행사가 10월 14일 용두산 공원 광장에서 문정수 시장 비롯 시각장애인 및 가족 자원보사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시보 10. 20)
* 노포동역에 환승 시설 공사 착수, 11월 26일부터 18개월간 영업 중지로 범어사역 종점 돼(시보 10. 20)
* 방치 폐선박 신속히 처리, 시는 항구와 포구 주변 또는 연안 해역에 방치돼 바다의 오염 가중시키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 폐어선 신속히 처리토록(시보 10. 20)
* 95 국제 신발 전시회 개막, 10월 23일 부산 무역 전시관에서 개최(시보 10. 20)
* 서부산권 개발 구체적 방안 제시, 「부산 경제 종합 발전 대책 수립」 용역 보고, 개발 이익은 시 국가에게 환원토록(시보 10. 20)
* 심야 불법 퇴폐 영업 강력 단속, 최근 식품 접객 업소들이 영업시간 자율화 또는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따른 불법 심야 영업이 확산되자 오는 11월부터 96년 1월까지 대대적 단속키로(시보 10. 20)
* 중소 자금 상환 연장을, 문정수 부산시장은 지난 10월 16일 부산지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에 관하여 토의(시보 10. 20)

* 「부산 녹색 교통 문화 헌장」 선포, 10월 23일 시민회관서 「녹색 교통 주간」 실시 맞춰, 운수업체·서비스 개선 약속도(시보 10. 20)
* 한·일 해협 연안 주민 한 자리에, 시 주최 우호증진…3천명 참석, 21일 양국 주민의 지역 문화 이해 행사, 22일 태종대 일주 친선 걷기 대회 등도(시보 10. 20)
* 을숙도를 종합 위락 단지로, 시 낙동강고수부지 종합 개발 계획 최종 보고회, 5개 지구로 96년부터 설계 등 착수(시보 10. 20)
* 폐수업체에 등급별로 관리 계획, 시-방지 시설 관리 따라 5 등급으로 분류, 회자 정문에 색깔로 표시, 제5회 부산·후꾸오카시 환경 행정 교류회의서 발표(시보 10. 20)
* 정무부 시장 사무분장 조성, 부산시는 신설된 정무부시장이 주요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분장 조정 실시(시보 10. 20)
* 민원실 환경 개선 정착, 95「동 행정 서비스」 시범 사례 발표, 달라진 위민 행정 분위기 실감, 43개 동·명 다양한 시책 발표(시보 10. 20)
* 가을 하늘에 번지는 은은한 실내악 선율, 제3회 부산 실내악 페스티벌 9개 단체 참가한 가운데 23~25일 문화회관서 개최(시보 10. 20)
* 유치원 학부모 연수회 「우리 아이 인간화교육 이대로 좋은가」(부산교육 10. 20)

10. 21
* 부산진구의회, 구청장 공약 사업 제동, 장학회 설립 청년회 조직 등 "현실성 없다" 예산 배정 거부, 부산진구청이 민선구청장 공약사업을 사전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의회 반발에 부딪혀 잇따라 무산 유권자를 의식한 공약 사업의 한계 노출(부산매일 10. 21)
* 기장군 의회, 기장군 새 청사 부지 확정, 청강리 옛 전경부대 자리, 연면적 2만여평 내년 6월 착공(부산매일 10. 21)
* 부산시, 「살림살이」 허술, 만성적 재정난 불구 작년 2천7백억 이월, 교통 등 「현안」 큰 차질, 「94 결산 검사 의견」 서 밝혀져(부산 10. 21)
* 부산시, 다대 소각장 가동 중단, 배출 가스 정화 장치 등 이상 부실시공 가능성, 2백억원 들여 건설해 지난달 13일부터 가동한사하구 다대동 다대소각장처리시설에 이상 생겨 지난 19일부터 가동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부산매일 10. 21)
* 정부, 수정산 터널·양산-CD 민자 참여 각종 혜택 부여, 「경과 조치」 적용 10개 사업 추가, 부산 수정산 터널 축조 공사 등 10개 사업에 민간자본유치법 경과조치 적용해 금융 및 조세상의 지원과 함께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각종 혜택 부여(부산경제 10. 21)
* 고속버스 탈법 환불, 부산 터미널 환산액 중 1백원미만 챙겨, 월 평균 1만여건 차액 폭리, 당국 약관 위반 사실 파악조차 못해(부산경제 10. 21)

10. 22
* 부산시, 「녹색 교통 주간」 선포, 자전거 행진·어울 마당 등 다양한 행사, 시민 생활 문화로 재점화, 「함께 타기」 등 내일부터 홍보(부산매일 10. 22)
* 다대 소각장 부실 시공 의혹, 대기 오염물 배출 기준치 초과…백연도 다량, 오염도 측정 않아 "공해 방지 시설 결함"(부산매일 10. 22)
* 부산시·조합, 차 무허 정비 업소 철퇴, 176곳 적발 142곳 무더기 고발, 불법 사실 알고도 수리 의뢰, 운전자 2천6백65명 함께(부산경제 10. 22)
* 노씨 485억 직접 조성, 신한행장 소환…돈 건넨 기업 조사, 이현우씨 「비자금」 검찰 진술(국제 10. 23)
* 해운대구청, 해운대 신시가지 눈가림식 감리, 구청서 아파트 부실시공 150건 시정 지시,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공사현장에서 감리자들의 감독 소홀로 일부 날림 공사 자행(부산 10. 23)

10. 23
* 「녹색교통문화헌장」 선포(부산시정 10. 23)
* 제3회 부산국제신발피혁전시회(~26, 무역전시관)(부산시정 10. 23)

10. 24
* 부산시, 수비35만평 제3섹터방식 개발, 시·상공인·대기업 출자 주식회사 설립, 97년 하반기 본격 착공, 국제 정보·업무 복합단지 조설 될 수비비행장 부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제3섹터 방식으로 아시안게임 개최전 해인 2001년까지 마무리(부산 10. 24)
* 부산국제전시장 무공 주도로, 내달 말까지 사업추진 주식회사 설립, 1단계 1만6천평 98년 완공, 나머지는 민자 추가 유치(부산경제 10. 24)
* 부산시, 「녹색교통문화헌장」 선포식, 카풀 등 5개 실천 덕목 채택, 모범시민 10명 등 시장 표창(부산경제 10. 24)

* 정부, 아주 경기 지원 법안 의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비용 조성 위해 아시안 게임지원 법안 의결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국제 10. 24)
* 구청장 주민 눈치 행정 "눈살", 하수료 탕감·고속철 노선 변경 등 억지 건의, 민선구청장들이 민원성 사안에 대해 전면에 나서 반발하거나 지역이기주의에 치우쳐 지휘 보고를 올리는 등 억지성 요구를 하는 바람에 부산시와 잦은 마찰 빚어(국제 10. 24)
* 좌천동 가구 대축제 "팡파르", 할인 판매·제작 과정 재현, 내일부터 7일간 1백여 업소 참가해 다양한 행사 소개(부산매일 10. 24)
* 부산 민선 구청장「자치 역행」정부 지침 개선 방안 공동 대응, 6급 정원 축소·기능직 채용 등,「불합리」사례구청 별 취합(부산매일 10. 24)

10. 25
* 화명 2택지 종토세 부과 지주들 반발, 1천5백여명 "시 선수분양 해놓고 거액 과세 부당", 부산시의 늑장 행정으로 3백억원대의 양도 소득세 부담을 안게 된 화명 2택지 개발지구 지주들이 이번엔 지난해 주택건설 업체들에게 선수 분양 된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까지 부과되자 크게 반발(부산 10. 25)
* 자치구 지방채 첫 발행, 부산 5개 구·군서 47억3천만원 규모, 쓰레기 재활용 시설에 투입, 환경부서 융자…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부산 10. 25)
* 목욕료 인상 요구, 부산 지역 공중목욕탕 업계가 오는 11월 초부터 어른 15.8% 어린이 10%씩 요금 인상 추진해 부산시의 대응 주목(부산매일 10. 25)
* 다대 소각장 운영도 "부실", 불연성 쓰레기 분리 않아 효율 크게 떨어져(부산매일 10. 25)
* 수비 일원 정보·위락「첨단 공간」조성, 롯데월드 2배 규모「부산 랜드」들어서, 국제교류·멀티미디어 기능시설 배치, 수영강 고수부지 시민 휴식터로 꾸며(부산매일 10. 25)
* 광안리 백사장 불법 주점 난립, 밤바다 호객행위 "불야성", 시민 휴식 공간 점령…술값 등 폭리, 당국 단속 않아 묵인 의혹(부산매일 10. 25)
* 부산시 예산 운용 "주먹 구구", 부산시가 세입 세출예산 과다 또는 과소 편성함으로써 1천여억원 넘는 불용액 발생(국제 10. 25)
* 주권 위조 헛도는 검찰 수사, 범인 은폐 말려 전모 파악 못하고 "허둥지둥", 지난 14일 적발된 주권 위조 사건 범인들이 대량 채권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국제 10. 25)

10. 26
* 좌천·범일동 재개발 사업 본격 추진, 지난 6월 사업시행 인가 받아 놓고도 이주대책이 없어 난항을 겪던 동구 좌천·범일동 제1지구 도심지 재개발이 시공사 우성건설의 주민 이주비 무이자 융자 방침에 따라 본격 추진 예정(부산 10. 26)
* 영도~감만동 해안 순환로 건설, 5.16㎞ 민자 유치 내년 본격 추진, 제2부산대교 2000년까지(부산 10. 26)
* 부산경찰, 부산경찰 구속 영장 "남발", 구속 영장 신청 지나치게 남발해 피의자 인권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부산매일 10. 26)
* 부산시,「자치법」무시 청사 주차장 유료화, 조례 제정 않고 강행, 내달부터 이용자에 요금 징수키로(부산매일 10. 26)
* "아주게임 주경기장 강서지역이 최적지", 도시 균형 발전에 큰 도움, 그린벨트 활용 땐 경비 절감 효과도, 동아대 하향주 교수 주장(부산매일 10. 26)
* 모라 주공아파트 치안 사각지대, 청소년 탈선·범죄 극성, 심야 우범지대 경찰 단속 못미쳐 불안(국제 10. 26)
* 가덕도 신항만 입지 동부서 북서부 변경, 부산시 원위치 고수 "비상", "확정땐 도시 계획 백지화", 해항청 공식통보…철회 설득 부심(국제 10. 26)
* 부산 다대 5지구 도개공 아파트 완전 분양, 21평형 1차분 5백75가구(부산경제 10. 26)
* 부산의 백화점 4강전 예고, 대우「리베라」인수·호텔 사업 본격 추진, 시어즈사 합작 내년 상반기 영업, 독자적 브랜드 호텔체인망 구축(부산경제 10. 26)
* 94회계년도 결산 심의 착수, 10월 26일부터 15일간 회기로 부산시의회 제49회 임시회 개회(시보 10. 27)
* 부산 씨름왕 선발대회(부산교육 10. 26)

10 27
* 부산지역 7개 업체 참가, 부산시 지역 상품의 남미 지역 판로 개척 위해 10월 27일부터 10일 동안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산티아고 국제 박람회 주방용기 전문 제조 업체 동화스텐 등 7개사를 참여 시켜 수출 계약 및 상동활동 펼치기로(시보 10. 27)
* 월동기 연탄 안전 공급 대책 마련, 올겨울 38만톤의 연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모자라는 14만 4천톤은 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성수기에 1백52일분 17만톤의 비축을 항상 유지토록 지시(시보 10. 27)

* 아주 경기 지원 법안 의결, 정부 이번 정기 국회 제출, 경기준비・운영 필요한 기금설치 등 규정, 4당 총무도 부산아시아드 특위 설치 합의(시보 10. 27)
* 유흥업소 신규허가 계속 제한, 시 나이트클럽・룸살롱 등 96년 6월까지 실시키로(시보 10. 27)
* 시정 동정, 시장 -「부산은행 창립 28주년 및 연구소 세미나」 참석 외 1건(시보 10. 27)
* 문화 부문 예산 확대 등 역점, 문정수 시장 문화・예술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서 부산 문화 발전 위한 시책 발표(시보 10. 27)
* 96JCY부산 청년 대회, 시는 세계 1백20여개국 2만여명이 참가하는 96JCY 부산세계 대회 개최일이 내년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로 확정됨에 따라 국제 행사 지원계획 마련 추진키로(시보 10. 27)
* 제2회 부산국악대전 계획 확정, 11월 21일~22일 시민회관 소강당서 개최, 판소리・기악부문 11월 20일까지 접수(시보 10. 27)
* 운행 제한 차량 단속, 중량초과・과적차량 대상으로 실시(시보 10. 27)
* 동절기 가스 취급 업모 합동 점검, 부실・지적 사항 안전 검사 의뢰, 교통 정책 자료 위해 차량 주행 속도 조사(시보 10. 27)
* 낙동대로 버스 전용차로제, 10월 23일부터 대티터널에서 하단 교차로가지 낙동대로에 버스 전용차로제 실시(시보 10. 27)
* 3인 이상 탑승 승용차 통행료 면제, 시「카풀마크」 부착 관계없이 면제(시보 10. 27)
* 매년 11월「복지의 달」로 지정, 지방화 시대 부응 복지 시책 지속 전개(시보 10. 27)
* 신발 산업 재도약 장으로,「95부산국제 신발・레저용품전」 개최, 다양한 소재・신개발품 선봬, 8천여만달러 실적 예상(시보 10. 27)
* 부산시, 불성실감리 여전,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후 부실공사 방지 위해 감리불성실 건축사에 대해 제재 크게 늘어, 부산시 43개 건축사 행정 조치(부산 10. 27)
* 생필품값 인상 "봇물", 음료・비누 등 4~10%씩, 소스류 다음달 20~36% 폭등 예상, 여파 확산…가계 부담 크게 늘 것(부산 10. 27)
* 기장군 조세 행정 난맥상, 체납자 소재파악 "구멍", 전체 예산 14% 규모 37억여원 체납, 60%가 악성…기채 발행 등 재정난 가중(부산 10. 27)
* 문체부, 을숙도 매립장 연장 사용, 을숙도 2차 쓰레기 매립장 사용이 내년 3월말까지 가능,「쓰레기」 한고비 넘겨(국제 10. 27)
* 실업계 고교 재편 가속화, 공업・상업 혼합형 전환,「정보고」로 교명 변경…전문인력 양성(국제 10. 27)
* 사상구청, 해외교류 사업 본격화, 오는 11월 2일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해외교류 사업 본격화, 내달 중국 방문 경협 논의, 민간기업과 함께 교주시 등 순방(부산매일 10. 27)
* 제2부산대교 내년말 발주, 교량 노선과 사업비 확보 문제로 표류하던 제2부산대교 건설 공사가 내년말 발주, 직선형 2천년 완공 영도~감만동 순환로도 민자유치 사업으로 오는 2003년 완공(부산경제 10. 27)
* 국세청, 부산 강서 등 투기 우려 지역 지정, 전국 54개 읍・면・동 새로 추가, 반송・좌동 등 64곳은 해제(부산매일 10. 27)

10. 28
* 부산 상의, 선물 거래소 설치 추진, 건의서・허가 신청 재경원에 제출 예정(국제 10. 28)
* 도개공, 거제지구 택지우선공급, 2002년 아시안 게임 선수촌 후보지로 지정돼 선수 분양이 보류됐던 거제지구 공동주택 용지가 내달 6일까지 주택 협회를 통해 부산지역 주택 건설 업체에 우선 공급(국제 10. 28)
*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창택지개발 내달 착공, 25만여평…주택 5천8백세대 건립(부산 10. 28)
* 부산 현대 음악제 성황리 폐막, 부산 일보사가 음악인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한국 음악발전을 위해 마련 제4회 부산현대음악제가 27일 부산 남구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관현악의 밤」 연주회를 끝으로 대단원으로 막 내려(부산 10. 28)
* "부산발전의 전환점 되도록 최선", 행정경험 활용…지방차원 아닌「국가적 행사」 노력(국제 10. 28)
* 경찰청, 음주운전 1,602명 적발, 경찰 어제 일제 단속 부산선 180명 입건, 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전국에 걸쳐 음주운전 일제 단속 벌여 1천6백2명 적발, 11명 구속 1천5백91명 불구속 입건(부산 10. 28)
* 부산시, 모든 택시「모범」 전환, 아시안게임 전인 오는 2001년까지 모든 택시를 모범택시로 전환키로, 내년 중 2만2천7백여대의 일반 택시 가운데 10%에 해당되는 2천대를 모범택시로 전환할 계획이라 시민 부담 가중될 것으로 보여(국제 10. 28)
* 가덕도 신항만 현지 조사도 안했다, 신항만 탁상서 동부 결정한 뒤 번복 혼선 자초, 새 후보지 북서부도 조사 않아(국제 10. 28)

* 부산 상의, 「선물 거래소」 추진, 부산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금융 활성화 위해 「부산 선물 거래소」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부산 10. 28)
* 정원 8백명 초과 다리 뻗고 앉지도 못해, 부산구치소가 적정 수용 능력 훨씬 초과하는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어 공범 분리수용은 물론 미결수 등 인권보호도 소홀, 동부지원을 별도로 관할하는 새로운 구치지소 신설해야한다는 지적(부산 10. 28)

10. 30
* 부산시, 민원 후견인제 내달 실시, 인·허가 공장 설치 허가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중견공무원들이 민원 접수 때부터 마무리까지 민원인들을 책임지고 도와주는 「민원후견인 제도」 도입 시행키로(국제 10. 30)
* 염색공단 열 병합 발전소 또 고장, 벌써 백여차례 증기 공급 못 받아 수억대 피해, 부산 사하구 신평동 염색공업조합 내 열병합발전소가 또 연속 고장을 일으켜 단지 내 1백여개 입주 업체들이 염색작업에 필요한 증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최고 수억원대의 재산 피해 입혀(부산 10. 30)

10. 31
* 정부, 기술기반 확충 2조8백억 투자, 통산부 부산 등에 산학연 연구센터 설치, 97년까지 테크노파크 2~3곳 조성, 현재 선진국의 10~20% 수준에 불과한 국내 기술 기반 수준을 앞으로 5년동안 선진국의 50~7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키로(국제 10. 31)
* 부산시, 을숙도 위락단지 불투명, 「낙동강 하류 고수부지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을숙도 상단부 종합 위락단지 조성과 관련 문화재 관리국과 지역학계에서 반대하고 나서 사업추진에 마칠 예상(국제 10. 31)
* 부산 공원 시설 대폭 확충, 아주 경기 등 대비 개발, 태종대 유원지에 야외 음악당 갖춘 종합 레저타운 건립, 어린이 대공원안의 동물원 면적이 5배가량 늘어, 부산지역 공원과 유원지의 시설과 운영이 내년부터 대폭 개선(국제 10. 31)
* 금정구·영도구·북구·동래구 외국 도시 자매결연 결실, 상호교류 의향서 체결, 투자단 방문·공무원 교환근무 등 도입(국제 10. 31)
* 재래시장 재개발 부진, 부산 상의 97곳 설문 61%가 "현대화 시급", 자금 부족·절차복잡 등 장애 요인, 경쟁력 갈수록 약화(부산 10. 31)
* 부산지역 간선도로변 대기 중금속 오염 극심, 부산 인제대 연구팀 조사 결과, 납·크롬 등 기준치 크게 초과, "이상 없다" 정부 발표와 큰 차(부산매일 10. 31)
* 부산항 피더선 부두 내년 완공, 「컨」 부두 공단 광양항 2단계사업 함께, 7부두 확장 시설 확충 완료, 자성대 65번 선적 8월 개장, 총 사업비 2천5백억 의결(부산경제 10. 31)
* "낙동강 살리기 국가 대사", 낙동강 보전은 전국 총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영남 지역민의 생존 문제이므로 정부적 차원의 낙동강 관리 책 마련 시급한 것으로 지적(부산경제 10. 31)
* 부산시, 부산시정 경영진단 착수, 기업차원서 재정운용 등 점검, 현재의 행정기구와 인력 재정으로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시대적 조류와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힘들다고 판단 기업 경영적 차원에서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경영진단에 착수(부산 10. 31)
* 내일부터 통행료 면제, 11월 1일부터 3명이상 탑승한 모든 승용차는 카풀마크의 부착 유무에 관계없이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0부제 스티커 부착 차량에 대한 공공주차료 30% 할인제도 폐지(부산 10. 31)
* 가덕도·진해만 피조개 양식 중단 위기, 부산 가덕도 및 경남 진해만 일대 피조개 양식장이 올 여름 계속된 냉수대와 잇따른 기름 유출사고·유독성 적조 등으로 인해 피조개 종패가 전혀 생성되지 않아 내년도 피조개 양식 포기할 처지에 놓여(부산매일 10. 31)
* 아파트 옹벽 "와르르", 부산 수정 인근 공사장서 무리한 굴착 공사, 주민 3백여명 긴급 대피, 지반 침하로 토압 가중 균열 끝 붕괴(국제 10. 31)
* 「제9회 국제조선해상장비 및 기자재전시회」(~11. 3)(부산시정 10. 31)

11. 1
* 부산, 아시안게임 선수촌 건립후보지, 거제지구 택지분양 결정, 부산시·도개공 2개 블록 2만여평 공급하기로(부산매일 11. 1)
* 부산지방항공청, 김해공항 활주로건설 차질우려, 부산항공청, 편입주민 이주대책 소홀, 집단반발 불러 공사중단(부산매일 11. 1)
* 부산, 예산문제 등으로 차질 빚던 회동수원지 하수처리사업 본격화, 예산확보…구조물 설계 3일 내찰(국제 11. 1)
* 부산, 26일 착공되는 노포동 지하철 교통대책 확정, 울산행 시외버스 남산동 하차 등 포함(국제 11. 1)
* 한국조선공업협회·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조선기자재 인력양성센터, 부산에 설립추진, 5대 조선소별 국산화솔 큰 차 개선, 품질향상 개발자금 지원(부산경제 11. 1)

* 부산, 시공·감독 부실 “복합인재”, 부산 수정아파트 옹벽붕괴 사고 안팎, 연약지반 대책 없이 굴착강행 화근, 관할구청에서 현장 기본관리도 않아(부산매일 11. 1)
* 부산시, 지방세 체납 강경조치, 3회 이상 체납 시 사업취소…재산공매(부산 5. 11)
* 부산시, 10부제불참 오늘부터 제재,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내달부턴 주차료 할증, 3인 이상 탑승차량엔 도시고속통행료 면제(부산매일 11. 1)
* 부산시, 새로운 행정환경변화 대응, 종합적인 경영진단 실시, 내년 3월까지 전문용역 의뢰(부산경제 11. 1)
* 쓰레기문전수거 시범실시(부산시정 11. 1)
* 월드컵개최 FIFA조사단 부산실사(부산시정 11. 1)

11. 2
* 정부, 교통난 완화 위해 「자전거 이용활성화 법률」, 부산 자전거도로 탁상행정, 설치여건 나빠 지하철 환승 차질(국제 11. 2)
* 부산 2002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 11명 확정, 집행위원장 권한 대폭 강화(국제 11. 2)
* 국제축구연맹, 2002월드컵 유치역량 평가를 위해 부산방문, “사직경기장 시설계획 만족”, 대체로 만족함을 표시(부산매일 11. 2)
* 건설교통부, 국도2호선 확장사업에 오지인터체인지 제외, 서부산권 개발 큰 차질, 건교부, 부산시에 떠넘겨(부산매일 11. 2)
* 부산, 해운대구청, 해운대해안 「문화의 거리」 조성, 호안도로·동백섬 등 등산로 일대 조각공원 등 꾸며 이벤트 유치(부산매일 11. 2)
* 부산, 신호공단 기반시설 내년 착공, 진입로·하수처리장 등 2월 초 발주, 예산 8백68억 투입(부산 11. 2)
* 부산, 지하철요금 구간별로 50원씩 인상, 이달 중으로 1구간 4백원으로 인상(부산 11. 2)
* 부산, 환승시설 공사 노포역 18개월 폐쇄, 지하철 단축운행 불편 가중, 울산방면 범어사역 이용해야(부산 11. 2)

11. 3
* 부산시, 재정기반 “부실”, 한은분석 「6년 현황」 심한 경직구조에 세외수입 부진, 자립도, 시 90·구 46%로 불균형 심각(부산매일 11. 3)
* 부산, 가덕도 신항만 입지 연내 결정, 해양청 김광득차장, 사업비·공사기간 등을 중시해 가덕도 서안 유력 시사(국제 11. 3)
* 부산지역, 부산대기 오존오염 심화, 해마다 비중 높아져, 덕천동 주거지역 중 최악, 먼지농도는 범천동이 가장 높아(부산매일 11. 3)
* 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환경연구소 “낙동강 인공생태계 철회를”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계획 관련, 현정부 건의문 6개항 채택(부산매일 11. 3)
* 부산, 가덕도 신항만 입지 연내결정, 김 해양청차장, 서·북서안 중 한 곳이 가능성 높아(부산경제 11. 3)
* 부산, 태종대 등 영도 일원 경전철 건설사업, 부산시에 사업계획 의향서 제출, 한진중공업 참여희망(부산경제 11. 3)
* 부산시, 내년 주택건설 대폭 축소, 미분양 사태 심각 20~30% 줄여, 중기계획 수정 불가피(부산 11. 3)
* 부산지역 신발생산 급격 위축, 채산성 악화 등 가동중단 늘어, 3/4분기·작년 대비 27%줄어(부산 11. 3)
* 부산시 재정자립 “뒷걸음”, 84.8% 불과 6대 도시 평균도 못 미쳐, 자율사용 일반재원 적어 경직화(부산 11. 3)
* 부산시, 클린패밀리운동의 일환, 환경·교통대상 후보 접수, 5개 부문 대상에 상금 5백만원(부산 11. 3)
* 부산, 「바다 살리기」 검찰도 나섰다, 관계당국과 해양오염 합동단속반 편성, 기름 무단방류 등 집중 단속, 적발 땐 형사·행정처벌 병행,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실시(부산 11. 3)
* 94년도 결산안 예비심사 완료, 부산시 94년도 세입 세출 견살 승인안, 94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 부산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부산시 남부하수처리 관소 설치 조례 개정안, 부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개정안, 96년도 전국자치 복권 발행 계획 동의안 등(시보 11. 3)
* 지사과학 단지 내년부터 본격 조성, 부산지역 산업 고도화의 주축을 이룰 지사첨단과학단지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작, 25억원 투입·진입로 실시설계 용역(시보 11. 3)
* 국제 조선·해안장비 전시회, 부산 무역관 10월 31일부터 4일간 개최(시보 11. 3)
* 만추의 서정 그윽한 “음악 향연”, 시립 국악단-6일 「현위의 인생」 주제 현악기 깊은 맛 들려줘, 부산시향-「조인트 리사이클」·「금관 5중주」 잇달아 개최(시보 11. 3)
* 화명 4지구 개발 본격화, 6백68억원 투입, 97년말 완공 목표(시보 11. 3)
* 11월은 「부산 복지의 달」, 자원봉사대회 갖고 다짐, 시민 모두가 복지 함께 실천 계기 마련(시보 11. 3)

* “이웃사랑 실천하세요.”, 저기계발 도모・지역 사회 기여, 노인 돌볼 전문 인력 양성 절실(시보 11. 3)
*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부산 개최, 97년 중국 일본 북한 등 10개국 2천여명 참가(시보 11. 3)
* 부산시・호치민시 자매결연, 3일 현지서 문정수 시장・쩡딴상 인민위원장 공동 선언문 교환, 행정・경제・통상투자협력촉진, 기술지도 봉사 의향서도 합의(시보 11. 3)
* 시정 동정, 시장-제5회 낙동강 연등대법회 참석 외 2건(시보 11. 3)
* 산불 방지 종합 대책 마련, 시-내년 5월말까지 발생 요인 사전 제기 철저(시보 11. 3)
*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대회,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후원하는 도・농간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하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다짐 대회가 10월 31일 시민회관에서 개최(시보 11. 3)
* 12월부터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시-소요경비 50%지원…10일이내로(시보 11. 3)
* 11월 한 달 나무 가꾸기 기간으로, 나무 가꾸기 운동 전개함으로써 산림과 나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 높이고 나라사랑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산지자원화와 국토 환경조성 촉진키로(시보 11. 3)
* 「환경오염 사고 대책본부」 구성, 대규모 재난 발생 때 오염사고 줄이기 위해(시보 11. 3)
* 버스 서비스 개선한다, 시 3개조합 녹색 주간 맞이 시민 서비스 개선 계획 발표(시보 11. 3)
* 「시정 경영 진단」 용역, 공공 서비스・조지・인력・재정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해(시보 11. 3)
* 아파트 조경 면적 20%로 확대, 「녹색 도시 부산21」 일환으로 실시, 500세대 이상 파고라 설치 의무화(시보 11. 10)
* 94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부산시의회 제49회 임시회 폐회(시보 11. 10)
* 베트남 호치민市와 자매결연(부산시정 11. 3)
* 남부교육청, 전통문화계승 교육 종합 발표대회(부산교육 11. 3)

11. 4
* 부산시, 분별없는 하수처리정책이 바다 죽인다, 처리장 질소・인 제거시설 없이 분뇨 유입하게 해(부산매일 11. 4)
* 부산, 「오륙도 신선대 자연경관 보존위원회」, 「신성대매립」 감시단 발족, 자연경관 보존위 50여명(부산매일 11. 4)
* 김해~부산 경전철 본격 추진, 설계용역 발주…부지 등 사업자 무상 사용, 합동법인 설립, 소유・관리권 공동 귀속(부산 11. 4)
* 부산, 녹산공단 공장 조기 착공, 삼성전기 차부품 공장 첫 삽질, 동성기공 12월 기동 내년 완공, 부지조성 62% 진척(부산 11. 4)
* 부산, 부민동 재개발 “순조”, 2개월 만에 시공사 삼성건설 선정, 내년 10월 착공 99년 준공예정(부산 11. 4)
* 부산, 건설교통부・해항청, 다대포항 기형개발 불가피, 목재단지조성 제외로 절반가량 축소(부산경제 11. 4)
* 부산, 가덕도 신항만 「입지농쟁」 부산시 밀린다, 해항청안 승복할 듯…전문부서 협의배제(국제 11. 4)
* 부산, 낮은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정구청 대중국 경제협력 “가속화”, 교류의향서・투자설명회 등 실무접촉 추진(부산매일 11. 5)
* 부산지역, 공동주택 “위태위태”, 시 점검보고서 상당수 벽 금가고 누수…일부 기울기도, 28곳 정밀진단・4곳 재건축・1곳 보수 지시(부산매일 11. 5)
* 부산지, 물가정책 “있나없나”, 터널통행료・쓰레기봉투 값 등 무더기 올려, 개인서비스요금도 덩달아 들먹(부산매일 11. 5)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 부두개발채권 2천억 발행, 2000년까지 부산피더・광물 2단계부두 투입(부산경제 11. 5)

11. 6
* 부산지역, “부산경제 살릴 길”, 산업고도화, 중기지원, 민자확대, 신설법인 54%자생력 없어, 투자유인 등 저책배려 절실, 부산상의 기관지서 지적(부산 11. 6)
* 부산, 지하철 공사장 가스누출, 무리한 천공작업으로 공급관 파손, 인근 주민 긴급대피 소동(부산 11. 6)
* 부산도시가스, 도시가스관 안전관리 “0점”, 부산도시가스와 지하철공사장의 굴착업체, 중 도면파악 실수로 파손(국제 11. 6)

11. 7
* 부산시, 부산 차량 60만대 시대로, 10월 말 59만2천대…내달 초 돌파할 듯(부산경제 11. 7)
* 부산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다대쓰레기소각장 독점사용권, 사하구에 허가 “물의”, 시, 「님비」 극복 위해 위법(부산경제 11. 7)
* 부산, 학원가폭력, 재학생 비행이 절반, 10월 한달 1천6백여명 적발…5백여명 구속(국제 11. 7)
* 제14회 대통령기 전국 수영대회(사직수영장)(부산교육 11. 7)

11. 8　* 부산, 다대포공단추진위원회, 다대포개발 축소안 제시, 시제의 수용, 내항 35만평 매립, 지방공단 사업 새 국면(부산 11. 8)
* 부산항, 7부두확장구역 내년 5월 개장돼 본격적인 컨테이너화물처리 개시,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컨처리 기대(부산경제 11. 8)
* 부산, 폭풍주의보 발표・강풍 직격탄에 부산 "비틀", 여중생 철판 맞고 절명…곳곳 정전・윤고(국제 11. 8)
* 부산, 10대 본드흡입 환각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성폭행, 부산중부경찰서 폭력배 셋・판매상 구속…둘 수배(국제 11. 8)
* 부산 장림공단, 신평・장림공단 지반침하 파장, 주먹구구「쓰레기행정」, 마구 버린 쓰레기10년 뒤 폐해 속출(국제 11. 8)
* 부산항 내, 어획물 부정유출 "극성", 어선원 주변 폭력배 결탁 "상습적", 유통질서 크게 어지럽혀(부산경제 11. 8)
* 부산, 광안대로건설 공사비 산정에 대한 적정여부 둘러싸고 사업소・시공사 마찰, 강교제작비 회액 요구에 "불가"(부산경제 11. 8)
* 부산시, 관이 교통평가 외면, 청사 증개축 과정 때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됨에도 불구, 한번도 안 받아(부산경제 11. 8)
* 부산, 김해공항 시설운영・질서유지 "엉망", 부산 국제관문 이미지 먹칠, 주차료「사설」보다 4배 폭리, 차량 출구도 제한 이용불편, 성수기 화장실 폐쇄시켜 원성도(부산매일 11. 8)
* 부산시,「情實용역」무실적 연구소에 시정진단, 직원상당수 시장 선거운동(국제 11. 8)

11. 9　* 부산시의회, 전문성은 부족「현장확인」돋봬, 부산시의회 임시회 결산, 안건파악 못해 겉치레 질의・심사, 연구풍토 절실…인기발언 자제를(부산매일 11. 9)
* 부산시, 민선시장시대의 시정개혁차원에서「6. 27」유공 사설기관에 시정진단 용역의뢰, 부산시 편법지원 의혹(부산매일 11. 9)
* 부산시, 신평・장림공단 "사상누각", 부산토개공 쓰레기 매립・복토부실로 지반침하(부산매일 11. 9)
*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운항만청,「감천항」부지활용방안 대입, 부산시-하수처리장・수산물 도매시장추진, 해항청-잡화부두・시멘트 유통시설 등 계획(부산매일 11. 9)
* 부산시, 부실공사 발본색원, 지역제한공사 발주금액 상향, 부산시 내년부터 시행, 관급건설사업계획 사전 공개, 상세설계도 작성・비치 의무화, 감리・기술자근무 월 2회 체크, 품질측정기로 자재 수시점검(부산경제 11. 9)
* 부산, 사상~김해 경전철 97년 착공, 사업자에 역사・택지개발권 부여, 대동~대야 간 고속도사업 1조23억 투입(국제 11. 9)
* 부산 동구 수정4동, 옹벽붕괴사고를 빚은 수정아파트 붕괴위험, 지반침하…방치 때는 4~5개월 내 사고(부산 11. 9)
* 부산, 몰운대 관광단지 조성 반대, 자연훼손・생태계 파괴 등 후유증 우려, 사하사랑 부산여성회 토론회(부산 11. 9)
* 부산, 영도~감만 해안순환로 터널 에서 장대교로 변경, 시 사업계획 바꿔 교각설치 불가피, 피더선부두공사 차질(부산 11. 9)
* 부산-김해 경전철 등 민자건설, 부대사업 허용, 7건 확정, 택지개발 등 가능, 부지 매입비 국비지원(부산 11. 9)
* 부산 해운대구청, 구청간부 업자 결탁, 지방세 체납 봐주기, 대체물건 없이 오션타워 공매 연기(부산 11. 9)
* 대한민국,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백56개국 찬성, 임기 2년 이사국으로 확정(부산 11. 9)

11. 10　* 부산, 지하철요금 50원 인상, 정액・학생 할인은 현행대로 유지, 20일부터 1구간당 4백원으로(부산 11. 10)
* 부산, 등교길 마을버스 4중 충돌 25명 사망, 중앙선 침범하다 사고…학생 등 5명 즉사 20명이 중경상(국제 11. 10)
* 부산시내, 주요 다리 총 31곳 위험수위, 건축물은 2백19동 크게 훼손, 재건축・철거・정밀안전진단 보수작업 등이 시급(부산 11. 10)
* 부산항, 신선대매립지 일부 친수공간으로 활용, 4만7천평…2001년께, 부산항만부지로는 처음 제공(부산경제 11. 10)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신선대매립 재개 합의, 해항청・부산시 시민 친수공간 4만7천평 조성 전제(부산매일 11. 10)

* 부산, 강서지역 농・어민 “울고 싶어라~”, 빚 못 갚고 땅 뺏기고, 대출금 못 갚아 담보 헐값에, “생업터전 잃고 쫓겨날 판”, 「대상」만 올 들어 2백39건 1백억(부산매일 11. 10)
* 부산시, 야, 새해 부산예산 삭감공세, 예결위 재경원 책정 8천3백억 “PK특혜” 강변(부산매일 11. 10)
* 목욕료 행정 지도키로, 11월부터 북구와 금정구 등 일부지역 목욕탕이 요금을 올려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지도 강호로 요금 인상 억제하도록 유도키로(시보 11. 10)
* 시정업무 전산 개발 연찬회, PC경진대회・세미나도 함께(시보 11. 10)
* 화재 발생 부주의가 으뜸, 지난해 부산 화재 원인 분석…매년 증가, 겨울철에 많아 불조심 높여야, 가정마다 소화기 등 비치 당부(시보 11. 10)
* 「산지수목 정비 계획」 마련, 향후 10년 우량수림 체계적으로 조성, 대형 산불 예방・경제 손실 막기로, 환경 모체 산지정비・쾌적한 시민 휴식 공간 제공, 공항・항구 등 외국인 출입 잦은 주요 관광지부터(시보 11. 10)
* 행정・경제 통상 투자 협력 촉진, 부산・호치민시 자매결연 공동선언문 교환(시보 11. 10)
* 시정 동정, 부시장-제 8차 부산지구 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 참석 외 1건(시보 11. 10)
* 낙동강 수계 하천 특별 관리, 시-겨울 갈수기 예상 수급 종합 대책 마련, 폐수 배출 업소 132개소 감시 강화(시보 11. 10)
* 유럽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12개사 11월 12일부터 보름동안 파견(시보 11. 10)
* 올해 육림 작업 행사, 11월 한달 나무가꾸기 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부산 직원들은 남구 대연동 산 6천여평에서 육림 작업 펼쳐(시보 11. 10)
*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시 소방본부 겨울철 맞아 화재 예방 대책 마련(시보 11. 10)
* 부산시 11월 중 역점 추진 과제, 다함께 만드는 살기 좋은 복지 공동체 지향, 사이 예방에 총력 대처 및 월동 준비 철저, 당면현안사업 추진 및 96업무 준비의 만전(시보 11. 10)
* 자동차세 등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 시-연말까지 세무 행정력 집중해 강력 징수키로(시보 11. 10)

11. 11
* 부산시 내년 예산 어떻게 짜였나, 문화체육 복지지출 확대, 특별회계 사업비 대폭 감소 의외, 안전관리・환경 보전 등 투자보강(국제 11. 11)
* 부산 해항청, 신선대매립 일방추진 물의, 남구청과 협의 없이 시와 절충, “여론무시” 반발 다시 확산, 주민들 집단행동 움직임(부산매일 11. 11)
* 국무회의 의결, 양산군 도농복합형 시로, 전국 5개군 시승격…공무원 연금법도 개정(부산매일 11. 11)
* 부산시・해항청, 감천항매립지 “아전인수”, 부지활용방안 이견 “팽팽”, 부산시-경제활성화 위해 수산물시장 건립, 해항청-부산항 연계 잡화부두 등 들어서야(부산매일 11. 11)
* 부산 남구청,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단장, 환경 최대한 살려 개발, 2001년까지 휴식 공간 등 조성(부산매일 11. 11)
* 부산 서면, “롯데 백화점 「가사용」 어렵다”, 시 “교통대책 완벽해야” 지침통보, “관할구청 승인 때는 업자편 의주의” 지적(부산 11. 11)
* 부산시, 11일 예산안 시의회 제출, 내년 살림살이 “빠듯”, 예산 2조9천억…80년대 이후 증가율 처음 줄어, 경상비 최대억제…아주경기장・교통 등 중점 투자(부산 11. 11)
* 부산, 남구청, 용역중간보고서 발표, 이기대 자연공원 조성, 낚시터・수족관・놀이시설 등 유치, 2001년까지 완공(부산 11. 11)
* 부산, 금융권도 비자금 파문, 상장・증자 등 불투명 영업계획 차질, 금리조정도 시은 눈치보기만(부산경제 11. 11)
* 부산지역, 부산 위험한 다리 9개, 건축물도 2백19개 동은 크게 훼손(부산경제 11. 11)

11. 12
* 부산시・항만청, 황령터널 완전개통 “내년으로”, 편입토지보상 해결 안 돼, 배후도로 공사 완공 못해(부산매일 11. 12)
* 부산, 부산 롯데백화점 가사용 신청, 도심 교통대란 “초읽기”, 지하철공사 등 맞물려 체증 가속(부산매일 11. 12)
* 부산, 생곡매립장 환경평가 “엉망”, 침출수 대책소홀, 오염영향 축소, 지질조사 외면, 가동 때는 장림하수장 “과부하”, 주민들, 부산시에 공사 중지 진정(부산매일 11. 12)

11. 13
* 정부, 부산 민노총 태풍의 핵, 한진중・교통공단 등 57곳 대부분 강성, 소속 노조 사용자 벌써부터 대책 부심(국제 11. 13)
* 부산시, 구덕터널 통행료 징수연장, “수입이 적어 2006년까지 받겠다”(국제 11. 13)

*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가사용」반대 여론 고조, 시민단체・구의회 등 서명운동, 시 "교통대책 없인 승인불가" 재확인(부산 11. 13)
* A/G인터넷홈페이지 개설(부산시정 11. 13)

11. 14
* 부산 북구, 만덕・덕천 교차로 "북새통", 대책 없이 우회도로 폐쇄・LNG매설공사, 출퇴근 교통지옥 방불, 4km구간 통과에 1시간 30분소요(부산 11. 14)
* 부산 기장, 대변리에 어민복지회관 건립, 5억 들여 내년 상반기 착공, 5백여평에 숙박시설・예식장 등 갖춰(부산매일 11. 14)
*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밀매 조직폭력배 수사확대, 부산지검 부평파 둘・상습투약 주점업주 1명 구속, 신세기파-유태파 연계 여부도 추적(부산매일 11. 14)
* 부산시내, 도시계획 틀 대수술, 용도지역 세분화, 친수여가공간 확보, 도시경관 보존, 환경과 조화…생활의 질 높여, 전용주거지 도입・최고 고도지구 지정, 공청회 거쳐 내년 중 용역 추진(부산 11. 14)

11. 15
* 부산 수영구청,「복지의 달」행사 "다채", 가정・아동 주간 등 선정, 저소득층 지원・경로당 등 순회진료도(부산매일 11. 15)
* 부산시, 심야영업 규제 "갈팡질팡", 시, 철폐여부 석 달째 미적, 막대한 행정력 투입불구 단속 미비(부산매일 11. 15)
* 부산교통공단, 지하철2호선 "총체적 부실", 26건 적발, 부산 지하철공단에 통보, 건설비 4백86억 1호선 부채 상환에 사용, 하자 드러난 1호선 공법을 검토 없이 적용, 구조물 규정위배 시공(국제 11. 15)
* 신평・장림・사상공단 등 부산지역 공업지역, 공원지역 중금속 오염 심각, 부산보건환경연조사 대기 중 납 등 태종대보다 최고 6배(부산경제 11. 15)
* 부산단체, 민선시대 맞아 세계화 바람 불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붐 이뤄, 외국어 특기자선발 해외 연수(부산 11. 15)
* 부산지역, 그린벨트 "야금야금", 일선 구・군 토지형질변경 허가 남발로, 해마다 10만여평이나 늘어, 올 들어 규제완화 영향 훼손도 가속화(부산매일 11. 15)

11. 16
* 부산, 롯데백화점 가사용 제동, 부산진구청 보완 지시, 10여개 시민단체 승인 반대 의견서 제출(부산 11. 16)
* 부산, 화명정수장 정수방식 결함, 오수처리율 50%이하, 오존처리・TMH제거 문제 드러나(국제 11. 16)
* 부산동구청, 주택가 등지 무료노상주차장 유료화변경 "벼락", "집 앞에 세워도 월15만원"…주민 항의 소동(국제 11. 16)
* 부산지역 일선구청, 96년 예산운용 "빠듯", 인건비는 오르고 시교부금 역사 최대 축소, 긴축예산을 편성・운용, 각종사업 무더기 중단위기에, 세원도 한계치…파탄 잇따를 듯, 올해보다 모두 55억여원 줄일 것으로(부산매일 11. 16)
* 쓰레기봉투 전입지 사용 검토, 시-5천만원 분량…스티커 붙여서 사용 할 수 있도록 검토(시보 11. 24)

11. 17
* 부산, 대통령에게 뇌물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재벌총수 30명 재소환수사 착수, 노씨 비자금과 연루된 일부 정치인도 곧 조사할 것, 이현우씨 오늘 구속영장 청구(부산 11. 17)
* 수영 로터리 주변 교통소통 대책 마련,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 수영천에 가교 설치 등, 현대 아파트 이면도로 우회(시보 11. 17)
* 행정 사무 감사 등 실시, 부산시의회 정기회 11월 20일부터 4일간 개회(시보 11. 17)
* 유통기한 확인 습관 길러야, 시-부정・불량식품 등 위법사항 신고자 보상금 지급키로(시보 11. 17)
* 시정 동정, 시장-부산정치학회 만찬 참석 외 2건(시보 11. 17)
*「민원후견인제」실시, 시-중견 공무원이 맡아 한번에 해결키로, 자치구・군도 계획 세워 추진(시보 11. 17)
* 동부권 농산물 시장 건립, 시-석대동일대 건물 9개 건립, 건교부에 건의 내년 착수(시보 11. 17)
*「산업 평화상」수상자 확정, 노사 협력 증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제 3회 부산시 산업 평화상 수상자 결정(시보 11. 17)
* 세외 수입 체납 3백70억원,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실적 저조로 심각한 재정난 겪고 있는 가운데 세외수입도 제때 징수가 안 돼 체납액이 3백70억원에 이르고 있어 문제(시보 11. 17)
* 전포 등~금성사 등 183개 등산로 폐쇄, 시-11월 15일~96년 5월말 겨울철 산불 방기 기간 중 20개소만 개방(시보 11. 17)
* 도로 표지판 개선 정비, 도로 표시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도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색상・영문표기 등을 대상으로 개선키로(시보 11. 17)

* 시 직원 금정산서 자연 정화, 자연 정화 운동과 함께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캠페인도 벌여(시보 11. 17)
* 산업 기술 정보 검색 교육, 시・산업 기술 정보원 부산지역 정보센터 공동 주관으로 12월 9일까지 산업 기술 정보 검색 교육 실시(시보 11. 17)
* 화장시설・절차 등 “크게 만족”, 부산 영락 공원 유족 대상 설문조사 결과 화장시간 단축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시보 11. 17)
* 음식물 감량화 적극 추진, 시-집단 급식소・대형 음식점 중심 사료화・발효기 설치 권장(시보 11. 17)
* 석유류 불법 계량기 특별 단속, 시는 13일부터 18일까지 동절기 앞두고 시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석유류 불법 계량기에 대한 특별 단속 실시(시보 11. 17)
* 세계 각국에 부산을 알려, 시는 국제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 부산을 세계 각국에 소개키로(시보 11. 17)
* 저소득 모자 가정에 자립 지원금, 문시장 2백명에게 전달 격려(시보 11. 17)
* 번영로 동천 고가로 일부 통제, 시-노후가로 등 개량 공사로 13일~내달10일까지(시보 11. 17)
* 건설 기계 불법 정비 단속 철저, 건설 기계 정비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불법 정비로 인한 민원과 불법정비 문제점이 야기되어 철저한 단속으로 민원 해소키로(시보 11. 17)
* 국・공유 재산 찾기 운동, 연말까지 4천85필지 4백54만4천평에 대한 국공유지 찾기 운동 전개해 재정 수익 확대키로(시보 11. 17)
* 도로시설물 31곳 안전 위험, 시 진단결과 건축물 2백19개동 보수 시급, 완전 복구에 3백20억원 예산 투입 돼야(시보 11. 17)
* 시민 생활의 질향상에 중점, 시 96년 예산안 의회에 제출, 올해보다 4.8%줄어 축소 편성(시보 11. 17)
* 부산 산업 디자인전 시가 후원하고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제15회 부산산업디자인 전람회가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부산 상공회의회 전시장에서 개최(시보 11. 17)
* 부산 국제 종합 전시장 본격 추진, 설립・운영 위한 법인 발기인 총회(시보 11. 17)
* 「광복 50년」 춤 언어로 풀어낸다, 시립 무용단 22일 정기공연…「길 하나 I」 선봬(시보 11. 17)
* 자동차 정비 요원 교육, 11월 20일부터 30일가지 자동차 정비요원의 자질 향상과 정비 기술 제고하여 자동차 검사제도의 개선 대비 및 책임 정비에 만전 기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요원 연수 교육 실시(시보 11. 17)
* 인터넷 통해 세계로, 부산 아시아드 홈페이지 개설(시보 11. 17)
* 세입저조 긴축 재정 불가피, 경상경비 최대 억제 긴축 재정, 안전관리 환경 보전 투자 보강, 사회복지 분야 2백70%늘려(시보 11. 17)
* 하수도 사용 업종 요율 조정, 제49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의결(시보 11. 17)
* 12일・15일 전후 김장 담그기 가장 좋아, 부산시 임시 시장・상황실 운영 등 수급대책 마련, 가격안정・원활 공급…소비자 생산자 동시 보호(시보 11. 17)
* 연말 물가 안정 대책 마련, 시 쌀・김장 채소 출하 확대 유도(시보 11. 17)
* 도시개발공사 신축사옥 준공(부산시정 11. 17)

11. 18
* 부산시, 공직사회 비리 불감증, 노씨 비자금 사건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대 전기로 삼아야 할 것, 올 20명 파면, 백6명 징계, 작년 3백66건 적발…수뢰・횡령 만연(부산 11. 18)
* 부산시, 수용토지 보상 “주먹구구”, 신호공단 “표류 위기”, 2공구 조성원가 “껑충”…분양은 엄두조차 콧내, 이주비 천9백억 조달 “막막”(부산매일 11. 18)
* 부산지역의 실제 미분양 주택수, 올 들어 매월 발표돼 온 1만4천~1만6천세대보다 훨씬 많은 2만3천여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자사 아파트 및 업체의 이미지 하락을 우려한 업체들이 은닉물량을 드러냈기 때문으로 밝혀져(부산매일 11. 18)

11. 20
* 부산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했던 부산 대미무역수지 첫 적자, 올 9월까지 2억5천8백만불, 농산물 수입은 53%늘고 신발 수출은 47%나 감소, 미국경제불황에 따른 현황으로 보여(부산 11. 20)
* 부산시, EM발효제퇴비(유효미생물군)대량 생산, 열풍 건조 후 분말제조 근교 농가에 공급, 질소・인・칼륨 함유 일반비료보다 우수, 생산설비공장・부지 선정 등 예산확보 나서기로, 시비 시 인력과다소비・장마철 동절기 결빙 시 숙성장 등 단점을 없애주는 효과 있을 것(국제 11. 20)
* 부산시의회, 가덕도・수영비행장 중심 지역개발, 문시장 시정연설 북항횡단교 민자유치 검토, 21일부터 10일간 행정사무 감사(국제 11. 20)
* 부산시, 낙동강오염 사태 이후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또 3년 지연, 현실성 없는 「면피행정」으로 시민의 비난 쇄도, 예산・기술인력 부족・현장여건 등을 감안해 2000년까지 사업 연장, 91년 이후 네 차례나 연기…“시민 우롱”(부산 11. 20)

11. 21　* 부산지검 특수부, 2개 업체 불구속 입건, 이들 업체에 뇌물을 받은 시의원・공무원 등 7명 구속영장청구, 지입차주 산재보험료 거액 횡령, 횡령혐의가 드러난 나머지 12개 화물업체대표들도 소환할 예정(부산 11. 21)
* 부산시, 일본・중국에 부산무역 사무소, 문시장 시정연설 지역중소제조업체 육성 지원을 위해 내년 중기자금 1천6백억 지원, 수영비행장 개발을 위해 수영・가덕도 양대축으로 개발, 무역 금융 등 중추관리 기능의 확충으로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은 KOTRA자회사 설립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부산경제 11. 21)
* 부산시, 구・군 쓰레기 종량제 실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는 쓰레기 종량제를 일선・군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징수, 생활 매립장부터 적용…기금 적립으로(국제 11. 21)
* 부산시, 화물업체의 산재보험료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 화물운송업체 대표 4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 공무원 3명도 구속영장 청구, 불법증차 묵인한 공무원 수뢰 추궁(국제 11. 21)
* 부산시의회, 가덕도 항만개방 갈등 질타, 행정소송 패소대책 추궁, 부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착수(국제 11. 21)
* 부산시・교육청 행정 사무 감사, 시의회 11월 21일부터 10일간(시보 11. 24)
* 투자유치단 부산 방문, 미국 미시시피주 투자유치단이 11월 21일 부산 방문, 수・출입 협의(시보 11. 24)

11. 22　* 부산, 가덕도 신항만 입지가 당초 유력시되던 동안에서 북서안 일대로 변경, 내달 최종 결정될 것, 배후도시・연계수송시설 입지변경은 불가피할 것(부산 11. 22)
* 부산, 기장군 내 그린벨트 훼손 급증, 부산시 편입 이후 그린벨트 내 무단형질변경 건축물 불법 신증축 등 26건 적발, 공직기강 해이・단속 소홀 틈타 기승, 아직까지 군정업무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기 못 한 것으로 보여(부산 11. 22)
* 부산시, 경남도와 시・군의 지방세 징수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도의회, 군・시군 감사 올 들어 체납・결손처분 급증, 부과착오・행정패소 환급액도 엄청나, “무사안일 직무수행” 질책(부산 11. 22)
* 부산시, 기존의 중장기 교통관리대책을 아시안게임을 여는 2002년을 목표로, 「신교통관리」 7개년 계획 추진, 지하철 2・3호선 예정대로 완공, 신도기 청도 건설・바다버스 확충, 하나로 교통카드 내년 시범 도입해 98년까지 시범부과, 2천년까지 교통사고감축 5개년계획 시행(부산매일 11. 22)
*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부산시 산하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현장확인 활동, 기장군 개발계획 등 집중추궁, 아주게임 대비 민자유치안 있나, 시장 「공약」 절반 임기 둥 완결난망(부산매일 11. 22)
* 부산시, 가덕도신항만 입지 변경, 의회 답변 동안에서 북・서안으로, 수영부지 30만평 내년 매입, 정보・업무복합단지(부)설립(부산매일 11. 22)
* 수학능력시험(부산교육 11. 22)

11. 23　* 한국은행 「GDP」 보고서, 중화학공업은 두 자리수 고성장 기록, 경공업 성장률은 마이너스, 3/4분기 경제성장률 9.9%, 수출 호조・건설 투자 등 증가세 지속(국제 11. 23)
* 부산 도심 노래방에서 대낮 화재 발생, 밀폐 방 곳곳 뒤엉킨 시신,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여고생 등 10대 희생, 내장재 유독가스 번져 대형참사, 종업원이 대비하면서 주전원스위치 꺼 피해 확대…헬기 등 동원하여 구출(국제 11. 23)
* 부산 용두산 재개발, 내년부터 본격화, 일선 동단위로 「가족 산책공원」 조성, 「부산타워」 철거 새로 건립, 문화예술 명소, 아시아드 대비 산책공원 조성(부산 11. 23)
* 부산 금정구 노포동, 교통환승시설 건설동사 관계로 지하철역 26일 폐쇄, 97년 5월 말까지 잠정 폐쇄, 지하철 1호선 종착역은 범어사역으로 변경, 시민불편과 더불어 주변 교통 혼잡이 가중될 듯(부산 11. 23)
* 부산 자이언트 빌딩 4층 대형 노래연습장, 대낮에 화재 8명 사망, 2명 화상 연기와 함께 불길이 번져 여고생 등 참변(부산매일 11. 23)
* 교육위원 편입 학교 순방(~11. 24)(부산교육 11. 23)

11. 24　* 노태우 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 충격과 더불어 경기침체까지 겹쳐, 부산경제 “사상최악”, 수출축소・사채시장 위축 “돈가뭄”, 중기 이 달 들어 백19곳 도산, 건설-업체 보증과 얽혀 연쇄부도 우려, 수산-수요없이 재고물량 날로 쌓여, 제조-섬유・신발 수주격감 폐업속출(부산매일 11. 24)
*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민속관, 혼례식장・회의장 등 시민을 위한 공간활용 의견, “지방 청와대를 시민품으로”, 공공기관재활용 시민반발, 전통혼례식장・회의장 등 활용이 바람직(국제 11. 24)
* 부산, 금정산성의 역사와 변천상을 케이블텔레비전에 담는다, 12월 21일 개국예정인 금정케이블TV제작…내달 중순께 방영, 4대문・망루대 등 20여일 간 촬영 마쳐(국제 11. 24)

* 부산, 천연기념물 제179호 을숙도 철새도래지서 상당수가 불법 죽망에 걸려 “허우적”, 하루 수십 마리 몸이 찢긴 채 “떼죽음”, 어민 불법설치 극성…당국 철거발표 빈말(국제 11. 24)
* 부산 국악 대전 성료 대상 유미라씨, 참가자 수·기량 향상…부산 국악 발전 청신호(시보 11. 24)
* 노후된 교량 대대적 보수, 시 안전관리 본부 부산 대교 등 주요 시설물 12곳 보수키로(시보 11. 24)
*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금 지원, 부산시 「미분양 확인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발급, 18평 이하 최고 2천5백만원·25평 이하 3천만원씩(시보 11. 24)
* 수영 비행장·가덕도 양대축 개발, 문정수 시장 시정 열설 시의회에 새해 예산안 제출, 서부산권 개발 등 여건 변화로 도시 계획 등 기능 재배치 할터(시보 11. 24)
* 영도 등 배수지 3곳 확장, 시 내년 하루 7천톤 규모 24시간 급수 추진(시보 11. 24)
* 95행정 관리 시범 기관 평가, 시 최우수 진구 가야 3동 등 선정(시보 11. 24)
* 전국 첫 「환경조례 만든다」, 시 내년부터 사업 허가 때 조망권 등 심사 강화, 공해 방지·경관평가 등 골자(시보 11. 24)
* 연말 물가 안전 단속 강화, 시 목욕료 등 29개 서비스 요금 중점(시보 11. 24)
*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해제 방침, 시 도로·공원 등 내년부터 실태 조사키로(시보 11. 24)
* 주거환경 개선 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및 대형 건물 내 주차장 확보 의무화, 시는 부산광역시 주거환경 개선 지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기관·단체들의 의견 듣기로(시보 11. 24)
* 불우장애인 자녀에 장학금, 시-48명에 30만원씩 전달 격려(시보 11. 24)
* 상습 침수 해소 등 치수 사업 강화, 시-내년 고지배수로 설치 등 재해 예방(시보 11. 24)
* 아시안 게임 조직위 본격 활동, 오는 97년 동아시아경기대회와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위해 실질적 준비 작업 담당할 제14회 아시아 경기대회 및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사무처의 직제 규정 등을 마련하고 본격적 활동에 돌입(시보 11. 24)
*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 마련, 시 5개년 계획으로 노후관 개량 등(시보 11. 24)
* 시정 동정, 시장- 「제11회 라이온스 가족 걷기 대회」 참석 외 2건(시보 11. 24)
*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 부산 시의회 제 50회 정기회 개회(시보 11. 24)
* 마지막 기념 행사 「부산 미술 기수전」 개막, 부산 미술의 미래 짊어질 청년 작가 작품, 세계 조명 실험정신 돋봬는 60점 전시(시보 11. 24)

11. 25
* 부산, 해운대신시가지 기반시설공사 내년 6월 첫 입주 때까지 완공되지 못할 것으로, 기반시설 공사 늑장, 건설교통위의 부산시 종합건설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져, 교통대란·생활불편 “불 보듯”(부산매일 11. 25)
*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나흘째, 녹산공단 분양가 재조정 용의는, 롯데백화점 개점 교통대책 있나, 해운대신시가지 분양 방안 밝혀라, 무허가 학교시설 법 따라 양성화, 다대공단 여건변화로 축소 개발(부산매일 11. 25)

11. 26
* 부산지역, 2002년 아주게임 다각 지원, 부산지역 대학 지원단 구성·심포지엄 개최, 개인활동 지양 학교 주도, 통역·의료·경기진행 등 체계화(부산매일 11. 26)
* 부산, 롯데백화점 개장시기와 시내교통문제 등에 따란 시민들의 관심 집중, 부산진구청 롯데백화점 밀실행정 비난, 가사용 승인 임박설 유포, 보안지시사항 함구…시민 혼란(부산매일 11. 26)

11. 27
* 부산시, 「쥐꼬리」 사업예산 배정, 서구청은 내년 30억원의 시비지원을 요청했으나 부산시는 6억8천만원 책정, 암남공원 반쪽개방 우려, 편의시설 설치 난망, 주차장 예산 책정하지 않아 찔끔 공사 불가피(국제 11. 27)
* 부산, 용두산공원 내 용두산미술전시관 대폭 확충·문화광장 조성, 4억5천만원의 예산 들여 161평을 400백여평으로 대폭 늘려, 광장에 조각공원·야외공연장 조성키로(국제 11. 27)

11. 28
* 부산, 삼성전기 부산공장 “첫 삽”, 녹산공단 자동차부품공장 건설형장서 기공식, 총 8만평 부지에 연건평 2만5천평 규모, 내년 11월 완공 97년말부터 삼성차 핵심부품 생산(부산매일 11. 28)
*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엿새째 시 내무국 수산관리실을 비롯, 부산교통공단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수산물도매시장 조속 추진하라, 도개공 미분양아파트 해소책은, 지하철3호선 책임감리제 실시(부산매일 11. 28)
* 부산, 21세기 문화시대 개막을 앞두고 동구 초량동에서 「포럼 신사고」 창립 1주년 세미나, 부산문화 어디로 가야 하나, 6개 부문 나눠 총체적 진단, 대안제시, 행정·기업후원, 장기정 정책수립 절실(국제 11. 28)

* 부산시, 도시계획 지주입김에 “오락가락”,「달맞이」고도제한 백지화, 11만여 제곱미터 부결한 뒤 “쉬쉬”, 대형복합건물 승인…경찰 보호 빈 말(국제 11. 28)
* 장기간 침체된 부산경제, 재도약을 위해 처방마련, 서부산 공업물류거점 개발, 동부는 관광·레저 중심지, 가덕도 신항만·신공항 우선 개발, 그린벨트 합리적 조정이 관건(국제 11. 28)

11. 28 * 삼성자동차 부품공장 가공(국제 11. 28)

11. 29 * 부산시, 내년 국가보조금 총 8천1백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확정, 예산안통과 사직경기장 건립 등 47건 지원(국제 11. 29)
*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7일째, 교통관광국과 하수관리관실을 비롯, 농촌지도소 및 농산물도매시장 등 현장확인, 신공항경설 추진상황 밝혀라,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은, 금정산 등 6곳 휴양시설로 개발(부산매일 11. 29)
* 부산, 낙동강 부산권 상수원 수질이 희석방류수 부족·악성조류 이상번식으로 취수한계치에 육박 “비상”, 정수장 소독약품 평소보다 2배 가까이 투입으로 발암불질인 트리할로메탄의 과다생성우려, 시민 건강 위협(부산매일 11. 29)
* 부산시, 신호지방공단 개발과정에서 예산 및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2공구 40만평 개발대상에서 제외, 신호공단 개발 “주먹구구”, “조성경가 비싸 사업성 없다”, 기형적 개발·주민반발 우려(부산매일 11. 29)
* 통상산업부,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중기 거점기술 등 신규과제 204건 집중 개발, 정부, 향후 3년간 3천732억원 지원, 통산부, 내달 중 1차년 분 개발자금 230억 투입(부산매일 11. 29)
* 부산금정구청, 준공업지 공동주택 제한, 금사·회동동 38만여평 공고, 아파트부지로 잇단 매매 제동, “강서 떠나면 지역경제는 위축”(국제 11. 29)
* 부산지법 형사5단독, 사고폭주족 방치경관 중형, 부산지법 “구호조치 없이 도주 안될 말” 4년 선고(국제 11. 29)
* 부산시내 지하철공사장·아파트 등 안전사고, 삼조참사 후 안전다짐 벌써 잊었나, 지하철 인접도로 함몰, 부실시공 행인 넷 “날벼락”, 아파트공사장에서도 붕괴사고 빈발(국제 11. 29)
* 제3회 산업평화상 시상식(부산시정 11. 29)
* 고교 3학년생을 위한 열린 문화 축제(부산교육 11. 29)

11. 30 * 부산시, 아시안게임시설 건립,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예산수요 감당 못해, 5천4백62억원 규모 각종 사업은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 등 외상사업으로 추진, AG시설 등 내년에만 5천4백억 규모(부산매일 11. 30)
* 부산시 교육청, 90년부터 추진해온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단 위기, 정부 특별지원도 93년부터 지원중단, 자체적인 예산확보도 어려워 지금까지도 지지부진, 예산확보율 33%에 그쳐(부산매일 11. 30)
* 아시아드경기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법인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직제규정·인력 충원 등 사무처 구성이 본격화될 예정(부산매일 11. 30)
* 부산시, 일부 일선 구청이 함께하는「쓰레기 문전수거」부작용 많아, 부산 배출량 되레 늘고 불법 투기까지, 요일별 분리·규격봉투 사용 등 안 지켜, 시범지역 주택가 “골머리”(부산매일 11. 30)
* 부산경찰청과 교육청, 학원주변 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특별단속·대책, 부산경찰청 갈취배 등 일제 검거 나서(부산매일 11. 30)
* 부산, 부산시자문회의 시설계획 최종안, 2002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확정, 공기 빠듯해 거제동으로, 승마·조정장 강서, 사격장은 금곡동에(부산매일 11. 30)
* 부산시, 수영비행장 부지 30만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차질 없이 끝난다면 고도제한이 전면 해제될 것으로 예상, 땅값 3천억원…고도제한도 해제(국제 11. 30)
* 부산지역, 노인복지 시책 개선,「노인 쉼터의 집」시책에 약 9천만원 예산투입, 내년에 8억원 예산 들여 20개소「노인의 집」개설, 재가봉사 사업 확충,「치매센터」운영·가사서비스 대폭 강화, 노인 취업센터·노인 요양시설도 3곳으로(국제 11. 30)

12. 1 * 고질적 인재 또 폭발, 감독관 없이 야간점검 규정도 무시, 당국 안전 불감 추방운동 헛말 입증(부산매일 12. 1)
* 부산시정 현안·발전 방향 토론, 문정수 시장 취임 후 주요추진 사항 설명(시보 12. 1)
* 부산 관광 일본 홍보물, 부산시는 일본 최대의 관광 교역인 오사카 관광교역전 참가 및 문화의 도시 나고야에서 부산 관광 설명회 개최하는 등 일본 전역에 부산의 관광지 소개와 2002년 아시안 게임 개최 홍보에 힘쓰기로(시보 12. 1)
* 화재 특별 경계 근무, 시 소방 본부 건조주의보 대응(시보 12. 1)

* 가축 통계 조사, 축산 폐수 처리 자료로 활용(시보 12. 1)
* 평통 여성 자문 위원, 문시장 참석해 격려사 전달(시보 12. 1)
* 지하철 건설 재원 확보 등 따져,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쳐(시보 12. 1)
* 구청 민원실 O/A시스템 등 편의 시설 확충, 시-95 행정 관리 시범 기관 평가 분석, 주민참여·필요시책 개발 돋보여(시보 12. 1)
* 성교육 강화 홍보 활동 나서, 여성 신체 구조상 남성보다 감염률 씬 높아, 에이즈 의심되면 각 보건소 통해 무료 검사(시보 12. 1)
* 해안선 정비·침수 공간 이용 계획, 이기대 공원 종합 관광단지로 개발, 자갈치 시장 현대화·주차장 시설 확충(시보 12. 1)
* 제3회 부산시 산업 평화상 시상, 부산시 산업 평화상 시상식 시민 회관에서 개최되어 근로대상 유영식씨 등 13명 수상(시보 12. 1)
* 아시안 게임 시설 배치 계획 설명, 시-자문회의개최 의견 수렴, 35개 종목 38개 경기장 필요(시보 12. 1)
* 삼성차 부품 공장 기공, 녹산공단 8만평 규모 내년 11월 완공, 50개 지방 업체 참여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시보 12. 1)
* 95연말 불우 이웃 돕기 성금 모금 운동, 시-12월 1일~내년 1월 31일가지, 시·구청·동·언론 방송사 등에 접수창구 설치(시보 12. 1)
* 주거 개선 지역 8곳 새로 지정, 시-노후 불량 주택 1,320동 대상, 민락동 230번이 일원 1지구 등(시보 12. 1)
* 지하철 범어사역으로 단축, 부산 교통공단 11월 28일부터 노포동역에 환승 시설 공사로(시보 12. 1)
* 가스·전기시설 특별 점검 나서, 시-겨울철 맞아 시장·백화점 대상(시보 12. 1)
* 부산시 지방채 4천5백억원 발행, 거제지구 택지 개발 등 동의안 시의회에 제출(시보 12. 1)
* 국제 종합 전시장 내년 착수, 부산시 2백50억원 출자키로(시보 12. 1)
* 「가스홀」 주행 시험 나서, 시-대기오염 줄이기…6개월 시범 차량 운행(시보 12. 1)
* 노래방에 대한 소방 안전 점검, 시 소방본부 1,627개소 대산 시설작동·비상구 개방 등(시보 12. 1)

12. 2
* 동래구 중소기업 자금 기술 인력 3중고, 동래지역 중소업체들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자금, 기술, 인력문제 해결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부산매일 12. 2)
* 부산시, 용두산 부산 탑 보수 돈 낭비, 시가 시의 상징물인 용두산 공원 내 부산 탑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벌이면서도 이 탑을 헐고 최첨단을 갖춘 타워를 새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 받아(부산매일 12. 2)

12. 4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부산항 건설예산 23%증액, 내년도 부산항 항만 배후도로 건설 등의 예산이 올해보다 23% 가량 증액된 2천3백79억여원으로 확정돼(국제 12. 4)

12. 5
* 북·사상구 중국교류 본격화, 북구청과 사상구청은 최근 중국 교류도시 방문 결과를 분석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갖고 투자 사업 강구에 들어가는 등 교류확대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어(부산매일 12. 5)
* 주택가 비산먼지 몸살, 주택가 인근 시멘트공장 난립과 대형건설업체공사장 덤프트럭 운행 등으로 시내 곳곳이 도로균열과 비산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어도 일선군청이 이들 사업장에 대해 형식적인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라(부산매일 12. 5)
* 부산시 업무 떠넘기기 일관, 자치시대를 맞아 부산시가 환경보호 청소 교통 주택등 주요 관리업무를 자치구로 대폭이관하면서 전문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업무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 받아(국제 12. 5)
* 부산시 도개공 미분양 금액 눈 덩이, 부산시 도시개발 공사가 건립 또는 개발 중인 아파트 및 택지 미분양 금액이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비자금 파문 등 때문에 2천3백1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부산매일 12. 5)
* 경부고속철 부산기지창 건설 난항, 경부고속도로 차량기지창으로 예정된 부산진구 가야동 군수사령부 제1보급창의 이전문제가 3년째 해결되지 않아 기지창 건설이 난항을 거듭 오는 2002년 고속철도의 개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부산 12. 5)

12. 6
* 하얄리아 조기이전 차질, 부산시의회는 6일 6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고 내년도 부산시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특별 심사에 돌입해(국제 12. 6)
* 낙동강수질 취수한계 넘었다, 낙동강의 부산권 상수원 수질이 취수한계치인 3급수 수질을 초과해(부산매일 12. 6)

* 도심 산지주변 고도제한 강화, 부산시는 금정산을 비롯한 도심 내 산지주변에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 신축 때 고도제한을 엄격히 적용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키로(부산매일 12. 6)
* 부산일선구청 시민혈세 허비 많다, 부산지역 일선구청들이 각종 명목의 예산을 부당집행하거나 전용하는 등 시민혈세를 낭비하며 예산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으로 드러나(부산매일 12. 6)
* 서울 부산지검에 통합 특수부운영, 법무부는 5일 서울지검 산하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등 5개지청과 부산지검 산하 부산 동부지청에 설치 돼있는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고 이를 본청 특수부에 흡수 통합특별수사본부 체제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키로(부산매일 12. 6)
* 시장 직속 정보센터 설립 의향은, 해양방화기구 설치를, 신항만 추진토록 건의(부산매일 12. 6)
* 부산 서비스료 상승률 전국 최고, 지방자치단체가 가격안정을 위해 중점노력하고 있는 외식비 아파트관리비 목욕료 등 37개 개인서비스요금의 부산지역 상승폭이 전국 6대 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산시의 물가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부산매일 12. 6)
* 시 재정 과중 압박, 하얄리아 이전 난망, 하얄리아부대 등 부산시내에 산재한 미 군사시설 이전이 국방부와 미군당국간의 협상지연 등 때문에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개최 때까지 이뤄지기 힘든 것으로 드러나(부산매일 12. 6)

12. 7
* 부산시의회 시 예산 심사 무기연기, 부산시의회가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예산안 첨부자료 미비를 이유로 무기연기 예산안심사가 파행을 빚고 있어(부산매일 12. 7)
* 시내버스 다양해진다, 부산시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일반 및 좌석버스와 마을버스에 이어 올해 중 심야 좌석버스를 도입하며 내년에는 직행좌석버스와 지하철 연계 순환버스 운행시키기로 하고 관련 작업을 벌이고 있어(부산매일 12. 7)
* 기장군 예산집행 파행, 지난 3월 시로 편입된 기장군이 편입에 따른 여러 가지 불가피성을 들어 모두 4억5천 2백만원의 예산과 예비비를 전용하고 군의회로부터 승인조차 받지 않는 등 예산집행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부산 12. 7)
* 부산 교통 방송국 설립 표류, 부산 교통의 현안이자 문정수시장의 공약인 교통 방송국 설립이 국회에서 통합 방송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장기간 표류할 전망(부산 12. 7)
* 돈 상납 않는다, 고문까지, 검찰과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불구 충격적인 학원 폭력 사례가 잇따라 방생하고 있어(부산 12. 7)

12. 8
* 부산시 환경 행정 못 믿겠다, 람사지구 반대 시민단체 학계등서 비난(부산매일 12. 8)
* 부산 대중문화 침체일로, 부산대중문화가 날로 서울 쪽 대중문화에 그 기반을 잠식당하면서 침체일로의 길을 걷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조개선과 함께 신인발굴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국제 12. 8)
* 부산시 대규모 도시경관림 조성, 백양 금정 황령산일대, 30만평 규모 단풍·느티나무 등 9만그루 심어(국제 12. 8)
* 부산시의회 지역현안 해결 의욕과시, 지난달 20일 개회한 부산시의회 제50회 정기회가 개회 18일째인 7일 현재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시정 질문 등을 모두 마치고 내년도 부산시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남겨두고 있어(부산매일 12. 8)
* 정부 부산 조흥 금고 관리명령, 정부는 7일 오전 부산지역 최대금고인 조흥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 불법대출 등이 적발됨에 따라 이날부터 신용관리기금이 경영권을 인수 운영하도록 공동관리 명령을 내려(부산매일 12. 8)
* 청소년범죄 갈수록 심각, 청소년 범죄가 해마나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범죄연령이 어려지고 흉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부산매일 12. 8)

12. 9
* 신호공단 2공구 전면 재검토, 삼성자동차를 유치한 부산 강서구 신호공단 조성사업이 공장용지를 조성원가보다 싼값에 공급키로 계약한데 따른 수지타산 악화로 부산시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등 위기국면을 맞고 있어(부산 12. 9)
* 부산금융 해외 진출 활기, 부산은행 등 부산지역 금융기관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해외현지법인 및 사무소 등 해외점포 설립을 위한 내인가를 획득함으로써 내년부터 부산지역 금융기관의 국제화 및 해외 진출이 러시를 이루게 되어(부산 12. 9)
* 일선구청 불용성 예산 많다, 일선구청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도 집행치 않은 불용예산이 구청별로 해마다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집행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받아(부산 12. 9)

12. 10
* 동사무소 직원들 피곤하고 서럽다, 격무 박봉에 허덕, 하루 10여시간 혹사 쉬는 날도 동원, 쥐꼬리 봉급에 야간 휴일수당 전무(부산매일 12. 10)

* 다목적부두 건설한다, 부산항 북항 재래부두 전체 화물 장치장 면적 50%에 달하는 대형 화물야적장을 갖춘 다목적 부두가 오는 2001년까지 부산항 제2부두와 중앙부두 사이에 건설(부산매일 12. 10)

12. 11 * 금정산 서쪽부터 휴식년제, 내년부터 고당봉에서 북문~동문~산성마을을 연결하는 부산금정산 서부지역에 자연휴식년제가 도입돼 5년간 입산 금지(부산 12. 11)

* 부산항 총기밀반입 구멍, 법무부와 세관의 입국자 검문검색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을 통한 총기 밀반입이 계속되고 있어 해경과 세관등 유관기관의 공조체제 구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해(국제 12. 11)

* 지하철공사장 도로점용 과다, 도심 간선도로를 따라 시공중인 부산지하철 공사장이 각종 공사장비와 적재물 등으로 과다하게 도로를 차지하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어(부산 12. 11)

* 그린벨트-상수원 보호구역 삼중족쇄, 과도한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기장군민들간에 잦은 불화가 생겨 화합과 인정이 사라지는 등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부산 12. 11)

* 여고 폭력서클 셋 구속, 10대 여고생 등 11명이 폭력서클을 조직 학교주변의 여중생 등을 상대로 소주를 강제로 먹이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이 폭력을 행사하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해오다 경찰에 적발(국제 12. 11)

* 부산시 아파트건축 허가지침 제정 방침, 일선군청과 마찰우려, 부산시는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신축 때 거쳐야하는 사전 결정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통일된 사무 처리 지침을 제정 시행키로 해(국제 12. 11)

* 신청사 건립사업 난항, 셋방살림 장기화 우려, 부지매입 등 위한 시 예산지원 시급(국제 12. 11)

* 부산창작극 연구회 활동 활발, 역량 있는 극작가 발굴을 통한 창작극 활성화를 기치로 지난 3월 창립된 부산창작극연구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속속 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어(국제 12. 11)

* 새시피해 부산 만여세대, 10%만이 20만원정도 보상, 포창금속공업(주)의 아파트 베란다새시 계약자가 부산에만도 총 1만세대에 달하고 있으나 계약자의 10%만 보증보험에 들어있고 액수도 세대 당 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국제 12. 11)

12. 12 * 구청공사 설계변경 너무 잦다, 부산지역 일선구청들이 도시계획사업을 비롯 중소규모 건설공사를 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부산매일 12. 12)

* 부산시 도로 교통분야 4조원투자, 부산시는 12일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기재정계획을 확정 2002년 아시안게임 관련 사업을 비롯 도시기반시설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기로 해(부산 12. 12)

12. 13 * 민선행정 거듭나기 활발, 최근 부산지역 일선구청들이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제도 개선 및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어(부산매일 12. 13)

* 95부산문화, 미술의 해였던 올해 부산미술계는 기존의 연례행사에 미술의 해 행사가 겹쳐 어느 때보다 바쁜 한해를 보냈지만 가시적인 소득은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분석(부산매일 12. 13)

* 황령산유원지 개발 축소, 유희시설과 동식물원 운동시설 등 15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포함된 부산 황령산유원지 개발계획이 대폭 축소돼 최대한 자연 녹지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국제 12. 13)

* 부산 물가급등 비상, 개인서비스요금 등 각종 연말 물가가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크게 오르고 있어(국제 12. 13)

* 신현하수장 주민반발 표류, 올 사업비 21억확보 시설설계 완료, 이전 땐 70억 추가될 판(국제 12. 13)

* 전반적 침체 속 일부 극단 약진, 95년 부산연극계는 예년에 비해 분위기가 크게 침체된 양상을 보여, 그러나 지난 2,3년동안 기세를 부리던 벗기기식이 다소 수그러들고 전통연희극과 서구사실주의 연극의 접목을 시도한 우리극을 포함한 진지한 연극이 팬들의 사랑을 받는 경향이 두드러져(국제 12. 13)

12. 14 * 서면서 가스관폭발 1명 사망 6명 부상, 부산 서면에서 또다시 도시가스관이 폭발 1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 인근 수많은 시민들이 대구 가스 참사와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비극을 되새기며 겁에 질려 몸을 피하는 등 대낮 도심이 공포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부산 12. 14)

* 수정만 매립 토취장 잘못선정, 7개월째 공사 중단, 설계량 26%만 채취, 암반 노출 나무심기 등 복구도 못해(국제 12. 14)

* 서면 가스폭발 17명 사망, 도심한복판에 새로 매설한 도시가스관이 내압시험을 하던 도중폭발, 질소 가스 배달원 1명이 숨지고 작업인부와 주민 등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국제 12. 14)

* 공공건물 금연구역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13일 공공건물의 흡연 구역 설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 건강증진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건물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라고 각도에 지시해(부산매일 12. 14)

* 명지 대파 값 폭락…농민 시름, 전국 최대의 대파재배지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대파 값이 과잉생산과 중간상인들의 농간으로 크게 떨어져 생산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부산매일 12. 14)
* 수영비행장 부지 개발 본격화, 부산시의회 시가지 조성 도시 계획안 확정(부산매일 12. 14)
* 부산지역 경찰・교사・학부모등 합심, 학원폭력 뿌리 뽑는다, 최근 심각한 학원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 교사 학부모등이 머리를 맞대(부산매일 12. 14)
* 도심 대형 가스관 폭발,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이길영씨(35)와 이곳을 지나가던 행인 김수진씨(여21)등 모두 7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춘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부산매일 12. 14)
* 광역상수도 내년 착공, 부산시는 식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이해 광역권 상수도 건설 복류수 및 강변 여과수 개발 등 획기적 상수원 개발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착공 2001년까지 완공키로 해(부산매일 12. 14)
* 도시가스관 시험가동 중 폭발, 행인 등 6명 중경상, 도심 한가운데서 도시 가스관 가동시험도중 취급부주의로 가스가 폭발 6명이 다치고 차량 11대가 파손되고 사고가 발생(부산경제 12. 14)
* 도시가스료 5.8% 인상, 부산도시가스 요금이 내년부터 평균 5.8% 인상되고 오는 20일부터 운행에 들어가는 심야좌석 버스요금이 1천3백원으로 결정(부산경제 12. 14)
* 부산 주거개선지구 8곳 지정, 시 이달 중 건교부에 영주 서대1 등 신청(부산매일 2. 14)
* 성곽유적 부산고대사 의문 푸는 열쇠, 기장・배산성지, 삼한 가야시대 흔적남아, 패권범위 형성과정 추정에 귀중한 자료(부산 12. 14)
* 가덕 신항만 공업용지 비상, 가덕도 신항만 입지가 동안에서 북서안 및 용원 녹산일대로 변경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최대 4백60여만평 규모로 계획했던 공업용지가 고작 1백만평 정도로 대폭 축소돼 자동차 및 조선소 입지확보가 어렵게 돼 부산시가 대책마련에 고심(부산 12. 14)
* 해운대구 계획도로 변경 추진 말썽, 구의원 집 포함되자 외곽이전 의혹, 주민반발 항의농성(부산 12. 14)
* 부산 교통 내년 다소 숨통, 지하철 아시아드선 일괄 발주, 수정산 터널 공사 하반기 착공, 다대항 배후로・가야로 확장(국제 12. 14)
* 아시아드 조직회 본격 가동, 아시안 게임 및 97년 동아시아 경기 조직위원회는 12월 14일 눌원빌딩 현관에서 김운용 조직위원장 문정수 부산시장・우병택 집행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및 현판식 거행(시보 12. 22)
* 도시 가스료 5.8% 인상, 14일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열고 내년부터 5.8% 인상키로(시보 12. 22)
* AG조직위 사무처 개소(부산시정 12. 14)

12. 15
* 차량 등록 60만대 넘어, 자가용이 65% 차지(시보 12. 22)
* 2002 조직위 본격 출범, 현판식 아시안 게임・동아시아대회 준비 총괄, 2002년 부산아시아대회 조직위 사무처가 본격 출범해(부산 12. 15)
* 사무자동화 시범 사무실 설치 운영(부산교육 12. 15)
* 교육청 및 각급학교 595개소 전자우편 실시(부산교육 12. 15)
* 19건의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부산교육 12. 15)
* 고입 선발고사(부산교육 12. 15)
* 제35회 눌원문화상 시상(부산교육 12. 15)

12. 16
* 동사무소 건축행정 전시용, 일선동사무소의 건축신고업무가 3년째 시행되고 있으나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아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사(부산 12. 16)
* 올해 부산연극계는 작품상에서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던 뚜렷한 화제작이 없었고 연극계 위상면에서도 전반적 부진을 면치 못했던 한해로 평가된다, 행사위한 행사・관객 무관심 여전, 화제작 없이 전반적 부진, 세계화 바람 속 침체 계속(부산매일 12. 16)
* 부산시의회 지사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부산시의회는 15일 예산결산ㅌ특위 제3차 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활동을 펼쳐(부산매일 12. 16)
* 지하철3호선 내년 착공, 부산 서연정~수영・반송구간 29.5km(부산매일 12. 16)
* 내년 4월 부산~울릉도 연결, 카페리 쾌속선 운항, 정원 6백명 편도 4시간 소요(부산 12. 16)
*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 휴양지 본격 개발, 2001년까지 야외 음악당・모노레일 등 건설, 내년 사업주체 선정 공사 착수, 15일 구청 용역보고회 열려(부산 12. 16)
* 민선구청장들 선거의식 눈치 행정, 민생 질서 뒷걸음질, 주차단속 느슨 골목길 북새통, 심야 영업 “모른척” 호객꾼 기승, 시「단속 강화」지시 외면 일쑤(부산 12. 16)

* 사회 복지 시설 등 이웃돕기, 시는 성탄절과 연말 맞아 시장 비롯 시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격려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95년도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계획 마련(시보 12. 22)
* 경찰산악구조대 발대(경찰사 12. 16)

12. 17
* 부산시 상수도 사업 본부, 상수원 오염「눈가림 행정」물의, 부산시 상수도본부 수질 검사 결과 조작·발표 꺼려, 수질 측정항목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키로 한 수질검사 측정치 축소발표 하거나 검사 결과 공개 철저히 통제해 비난(부산매일 12. 17)
* 부산시, 세일 백화점·주말 예식장 주차장 폐쇄 추진, 내녀부터 도심 교통난 완화 위해, 지하철·버스 5개선 이상 지역 대상, 월 내「롯데」부터 시범 적용(부산매일 12. 17)
* LNG공사 전문기술·경험 전무, 부산 도시가스 안전무방비, 정밀 시공에 무자격자 투입, 원칙도 무시 대형사고 "잠복"(부산매일 12. 17)
* 부산시의회, 예결안 질의·답변, 학원 폭력 근절 방안 있나, 국교 2부제 수업 해소책 밝혀라, 공립 유치원 10곳 내년 신설 검토(부산매일 12. 17)

12. 18
* 사회복지관 운영 허술, 각 구의회 행정 사무 감사 결과, 주민 취업·부업 알선 실적 저조, 관리 체계 부실·직원 자격 미달(부산 12. 18)
* 서부산권·기존도심권·동부산권 3개 권역 특화 바람직, 기장군 정관면에 전원 신도시 제안, 만성적 주택난 해소 위해, 부산 상의 동부 편입 지역 개발 용역 보고회(국제 12. 18)
* 경성대 연영과 부산 연극계 새 바람, 재학생·졸업생 배우·연출 등 대거 참여, 인력 부족 장기 침체 분위기 쇄신 기대(국제 12. 18)
* 1995 문화계 결산, 문화재 보호 혼신 노력 성과, 개발 논리 맞서 싸움 무차별 훼손 막아, 매장 유물 발굴 몇몇 제외 큰 실적 없어(국제 12. 18)
* 인물로 본 95 부산 문화계, 시인 김형술씨, 역설적 표현으로 도시 문명 비판, 난삽한 문장 속에 정교한 관찰력 내재, 신작 <타이프라이터 속의…> <의자와…> 등 호평(부산 12. 18)
* 이웃돕기 시민 캠페인, 중구 미화당 백화점 앞에서 있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돕기 범시민 캠페인 행사 참석(시보 12. 22)

12. 19
* 부산진구, 여 직원 모임들 온정 "화제", 무연고 노인 위로·모자 가정 돌보기 등「봉사활동 펴기」서로 앞장(부산매일 12. 19)
* 95 부산 문화, 동인 춤패 침체 "한계 실감", 민간 무용단 결성 충격 "신선", 부산「대학원」개교에 큰 기대(부산매일 12. 19)
* 부산 의료원 내년 착공, 포스코 개발 시공 거제동에 7백 병상 규모, 시공업체 선정으로 난항 겪던 부산시 산하 지방 공사인 부산 의료원 이전 작업 포스코 개발(주)의 사업 참여로 본격 추진(부산 12. 19)
* 반여 택지 개발 재검토 시급, 시 교통 영향 심의 안 지적 교통 문제 근본 대책 없어, 도개공 5천여세대 건립 계획 허술, "원동 IC 입체화해야"(부산 12. 20)
* 민원 처리 기간 현실화 조정, 시 시민에 불편·부담 주는 업무 대상 법정 기간 불합리한 것 등 재검토(시보 12. 22)
* 아시안 게임 경기장 배치 시민 토론회, 전문가 참석·각계 시민 대표 의견 수렴(시보 12. 22)
*「녹색도시 부산21」, 부산시는 12월 19일 부산호텔 영빈관에서 문정수시장 참석 하에 시민 각계각층 대표로 구성된「녹색도시 부산21 추진협의회」개최(시보 12. 22)
* AG경기장시설 배치안 발표(부산시정 12. 19)

12. 20
* 구포다리「63년 생애」마감 임박, 교각 균열·함몰 급격 진행 붕괴 우려, 내년 1월부터 차량 전면 통행 제한, 철거·대대적 보수 선택만 기다려(부산 12. 20)
* 인물로 본 95 부산문화계<5>, 한국무용가 최은희씨, 마음 가난한 사람들 향한 신명난 춤, 춤패 <배 김새> 예술감독으로 10년 열정, <백의>로 부산무용제 대상…한민족예술제 성료 한 몫(부산 12. 20)
* 아주대회 주경지장 이전요구 시의원들 강서에 땅 수천평씩 소유, 대부분 본인·가족 명의로, 엄청난 개발 이익 불보듯, 당사자들 "최적지 소신에 사심 없다"(부산 12. 20)
* 부산 해운대 반여동 주민, 구의원 퇴진 운동, 의장 등 3명 업무 방해 고발…파문 확산(국제 12. 20)
* 2개 교육청 신설 무산, 북부·해운대 통·폐합 지역 선량 개편 거부 압력, 북부 해운대등 부산지역 2개 지역 교육청 신설이 내년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부산 교육계가 크게 반발(국제 12. 20)

* 1995 문화계 결산, 다매체 다채널시대 진입, CATV 지역채널 7곳 본방송 시작, PSB · BBS개국…방송계 경쟁 가속(국제 12. 20)
* 「송정천 살리기」 민관 합동 작전, 주민 · 공무원 · 단체 총출동, 오염 감시 · 환경 보전 캠페인 등 전개(부산매일 12. 20)
* 부산시, 구포교 내달 5일 폐쇄, 새 교량 대동쪽 접속로 없어 체증 우려, 새 구포대교 개통에 따른 강서지역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치 않은 채 그나마 유일한 보조도로 역할을 할 기존 구포교마저 내년 초부터 폐쇄시키기로 해 강서지역 주민 불편 가중(부산매일 12. 20)
* 부산 기존 조직책 "절반 교체", 19일 정기국회 폐회로 여야가 본격 총선체제에 돌입하면서 내년 4월 부산지역 총선의 신한국당 공천 윤곽 드러나(부산매일 12. 20)
* 공기총범죄 예방 "무방비", 전과 누범에도 소지 허가…관리 규정도 허술, 공기총 관리 규정이 지나치게 허술해 범죄에 사용되는 부작용 잇따라(부산매일 12. 20)

12. 21
* 시의회, 부산시 예산 3조8백53억,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위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중 46억원과 부산시 교육청 예산안 중 15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조정하여 21일 오전 열리는 제50회 정기회 5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키로(부산매일 12. 21)
* 부산시, 교통 정책 관리실 신설, 교통문제 탄력적 대응, 도시계획 · 건설 분야 흡수 기구 개편(국제 12. 21)
* 부산 「세계 해양 축제」 연다, 내년 8월 국제 영화제 · 시민의 날 행사 통합(국제 12. 21)
* 삼성차 본사 "부산 시대" 열린다, 새해 2월까지 전 인력 이전 현장 근무, 삼성 자동차 부산 본사 시대가 내년부터 본격 개막(부산매일 12. 21)
* 경부 고속철 부산~대전 간 새해 착공, 금정 · 울량터널 등 상반기 우선 시행, 내년 경부고속철도 대전 이남 구간이 본격 착공되고 서울-대전 간 일부 구간에는 처음으로 궤도가 부설(부산매일 12. 21)
* 부산시, 시 · 도 의회 의장단에 내년 판공비 지급, "직업 공무원 전락" 비판, 의장에 연 3천6백만원, 「무보수 명예」 퇴색…총선 선심용 의혹(국제 12. 21)

12. 22
* 부산시, 일선 구청 예산 난 "허덕", 교부금 평균 18억 감소…세원 발굴 총력, 부산시내 일선구청들이 내년에 부산시로부터 받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대폭 줄어 사상 초유의 예산 난에 허덕이는 등 비상(국제 12. 22)
* 부산경남 총선 경쟁 "5대 1", 신한국당 물갈이 예고 · 무소속 증가, 부산-서 · 금정을 등 후보 난립 "치열", 경남-노재봉 · 전재국씨 출마 관심(국제 12. 22)
* 해운대경찰서, 버튼 조작 도시 고속도 통행료 횡령, 요금 소장 등 10명 영장, 컴퓨터조작 · 환전창구 버턴 조작 등의 방법으로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억4천여만원의 통행료를 횡령한 부산해운대구 반여1동 도시고속도로 반여 요금소 소장 문경대씨 등 22명 입건 · 구속 영장 신청(국제 12. 22)
* 95년 부산 경제 결산 ②건설, "부실과의 전쟁" 고난의 한해, 도개공 「기우뚱 아파트」 치명적 오점, 경기침체 미분양 급증 업계에 큰 부담(국제 12. 22)
* 인물로 본 95 부산문화계<6>, 연극인 이성규씨, 끊임없는 실험정신 통해 세계 명작 무대화, 부두연극단 · 창작극 연구회 등 이끌며 새 바람 주도(부산 12. 22)
* 통행료 횡령 22명 긴급 구속, 도시속도 요금소 비리 2년간 1억4천만원 착복, 대형차 하루 8천여대 누락, 실제 금액 수억대에 이를 듯, 해운대 경찰서 시 묵인 여부도 수사(부산 12. 22)
* 금융단지 조성 본격화, 분산 도시개발 종사 문현동, 제2정비창부지에 내년 6월 착공(시보 12. 22)
* 고지대 「시간 급수제」 완전 해소, 시 상수도본부 98년까지 53만여명 혜택, 기장이 지역 97년까지 송수관 부설(시보 12. 22)
*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 강제 징수, 시는 교통 유발 부담금의 체납이 늘어나 교통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연말가지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제 징수 나서(시보 12. 22)
* 「국민 건강 증진법」 시행 따른 준비 만전, 시-금연 조치 ·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구성 등, 미성년자에 담배 판매 금지 철저도(시보 12. 22)
* 시정 동정, 시장-국군장병 특수지역 종사 요원 등 위로와 격려, 부시장-보병 53사 125연대 등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시보 12. 22)
* 도시 환경 대대적 정비 나서, 시 JCI 세계대회 등 국제 행사에 대비(시보 12. 22)
* 개인 서비스과 강력 단속, 시 목욕탕 등 2천여개소 중점(시보 12. 22)
* 시 내년 예산 3조 8백53억원 확정, 부산시의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부터 3일간 전체 회의 열고 정책 질의 열어(시보 12. 22)
* "도심 고속도로망 구축용인", 환경오염 문제 적극 대처 방안은 채무 부담으로 가야로 확장을(시보 12. 22)

* 금정・서부산문화회관 기공(부산시정 12. 22)

12. 23 * 황강 상수댐 추진, 수도원 공사 내년 착공 99년 완공, 부산・경남 1급수 공급, 3천여억 투입 하루 1백만t 취수(국제 12. 23)

* 부산시・부산지방철도청, 통근 열차 운행 활성화, 경전선・경부선 증편, 내년 중 5량 추가…운임도 대폭 할인, 부산 철도청 시에 계획안 밝혀, 도심 교통난 완화 위해 출퇴근 시간대의 열차 운행을 증편하고 열차 운임을 대폭 인하하는 등 국철의 시내 교통수단화 적극 추진키로(부산 12. 23)

* 명암 95 부산<2>, 아시안 게임 유치, "동북아 중심 도시로…", 특별법 마련…기반 시설 확충 기대 커져, 15초원 생산 유발 발전 속도 10년 단축, 흑자대회 적신호 시민부담 커질 우려(부산 12. 23)

* 일인 매춘알선에 미 시의원 퇴폐접대까지 「기생 관광」 부산 자존심 먹칠, 관광자원 부족 외국인 갈수록 등돌려, 일 의존 탈피 체질 개선 시급(부산 12. 23)

* 시정진단 용역 중간보고, "부산시 사업 대폭 민영화", 34개 사업소 등 공공부문 위탁 경영, 시조직 통합 대국대과로, 부시장 3명・10개 국 개편, 관광개발・도시철도 등 시출자 주식회사 신설(부산매일 12. 23)

* 부산시, 도심 이전 적지 활용안 시급, 군부대・공장 등 외곽방출에만 신경, 동국제강 터 등 또 아파트 추진, 도시구조 불균형 부채질 우려(부산매일 12. 23)

* 서구청, 서구 옛모습 "한눈에", 희귀기록사진 150점 담은 화보집 발간, 이달말 「서구 옛 모습 기록사진 화보집」 발간, 유관기관・학교・동사무소 등 배부키로(부산매일 12. 23)

* 부산 화명2지구 개발전망, 6년 표류 끝에 아파트촌 기항, 98년까지 만7천여세대 건립, 보상가・방식 등 일부불만 "부담"(부산매일 12. 23)

* 서구 복지협의회 결성 "눈길", 지역 유지・독지가 등 모여 창립총회, 서구지역 회사대표 은행간부 등은 최근 어려운 형편에 놓은 이웃들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모임을 결성해 관심 끌어(부산매일 12. 23)

* 부산시・부산지방철도청, "부산 교통난 열차로 해소", 요금 50% 인하・통근차 증편 등, 부산 도심지 교통난 완화 위해 구포~부산역간 경부선 열차의 특정 구간 입석 운임을 대폭 낮추거나 구포~해운대역 간 동서 통근 열차의 운행 증편하는 등 대책 마련(부산매일 12. 23)

* 부산도 식수난 비상, 최근 계속된 겨울가뭄으로 낙동강 상류 4개댐 저수량 크게 절어 부산・경남 지역의 제한급수 등 식수난 우려(부산경제 12. 23)

12. 24 * 부산상의, 부산 중기 가동률 5년 내 최악, 지난달 판매 부진・자금난 겹쳐 88% 불과, 부산지역 중소기업 가동률이 최근 극심한 자금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5년만에 최악 수준(부산매일 12. 24)

* 부산시, 「대국대과제」 도입 바람직, 10개국으로 통합…부산시장은 3인제로, 동남종합연구원 21세기형 시정방안 분석(부산매일 12. 24)

*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 부산~진해 국도 확포장, 최근 본격적인 서부산권 개발로 폭증하는 교통량 수용키 위해 국도 2호선 중 부산~진해간 16㎞를 오는 99년말까지 확・포장키로 하고 총 1천2백억원대의 공사 발주(부산매일 12. 24)

12. 26 * 인물로 본 95 부산 문화계<7>, 「부산 국제 영화제 준비위」 발족 견인차, 영화인 김지석씨, 평론서 <한국영화…> <1997…> 출간 호평, 부산예전서 후학 지도・시네마떼끄 자문역 등 활동도(부산 12. 26)

* 부산시, 「연말 물가」에 부산시 "백기", 서비스료 등 93년 후 인상 규제 근거 없어져, 일선행정지도는 업주 반발만, 고시가 등 차단 장치 설치 돼야(부산매일 12. 26)

* 북구청, "민선 동 행정 이렇게 달라졌다", 관내 대표 28명 사례 발표, 북구 영세 자녀 무료 방학 교실 등 "변화 실감"(부산매일 12. 26)

* 정부, 부산-거제 연결도로・동서 고속 전철 등, 민자 사업 내년 연기, 사상-김해 경전철 확장, 올해 추진하려던 거제~가덕도~녹산을 잇는 부산~거제 간 연결 도로 민자유치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기로(부산 12. 26)

* 시영 양묘장 4곳 중 2곳 폐쇄, 아시안 게임 조경 차질 우려, 대체 부지 마련 않고 딴 용도로 헐어, 「꽃 특수」 자급 어려울 듯(부산매일 12. 26)

12. 27 * 연제천 고수부지 공원 조성, 체육시설・자전거로・녹지공간 설치, 수질 정화 사업도 병행, 부산 대표적 도심 하천인 연제천의 고수부지가 체육시설과 자전거 도로 등이 들어서는 시민공원으로 조성(부산 12. 27)

* 부산 구청 "올 예산 남기면 안된다", 「한겨울 공사」로 부실 우려, 사전 홍보도 없어 교통 장애 등 민원 유발(부산매일 12. 27)

* 마약 사범 해마다 증가, 부산 올 8백5명 검거…작년 대비 37%나 늘어, 히로뽕 압수량은 전국물량 70% 차지(부산매일 12. 27)

* 부산해항청, 신선대 매립 다시 강행, 연말 분위기 틈타 관할구청 몰래, 시는 무상 양여 노려 「지원 사격」, "주민・의회 등에 적극 이해 구하라" 지시(부산매일 12. 27)

12. 28 * 도시 고속도 터널 곳곳 고드름, 통행차량 불안…사고 우려, 「문현」 등 부산 5곳 벽면 균열로 누수, 예산 타령 보수 공사 못해(부산매일 12. 28)

* 주차장 업주에 주차 단속권, 일부구청 행정 불신 자초, 사전 경고장 발부 주차 협회에 넘겨, 10분 지나면 강제 견인・과태료 처분, 이권 단체에 시혜 준 셈(부산 12. 28)

* 선거구 조정 여야 협상 전망, 4대 1 가이드라인…속셈 제각각, 신한국당-10만명 제의…7만5천명 양보 선, 국민회의-하한선 절대 고수…"상한선 줄이자"(부산 12. 28)

* 낙동강 수질 사상 최악 부산 수돗물 공급 비상, 가뭄 장기화로 수량부족 심화, 물금 등 23일째 취수 한계 넘어, 부산시 제한급수・목욕탕 등 격일 영업 계획(부산 12. 28)

* 신호공단 개발 "실마리", "보상금 절반 우선지급…부족분 차후 해결", 2공구 편입 주민-부산시 잠정 합의, 편입 토지 보상금 부족으로 표류위기 겪던 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호 공단 2공구 개발사업이 보상금 절반만 우선 지급하고 부족분을 추후 지급하라는 주민들의 양보안이 나옴에 따라 해결 실마리 찾아(부산매일 12. 28)

* 부산서 위조 수표, 부산에서 위조된 자기 앞 수표가 발견 돼 경찰이 수사 나서, 10만원권 유통 경로 추적 중(부산매일 12. 28)

* 해운대・기장 분구 추진, 여 선거구 재조정, 중・강서(부산) 합천・거창・창원(경남) 폐지, 인구 하한 10만・편차 3대 1, 오늘 4당 총무 회담서 협상 논의(부산매일 12. 28)

12. 29 * 해운대・기장 선거구 분리, 여야 잠정 합의 반송동 기장에 포함 가능성, 여-강서구 독립구로 유지키로, 거창-함양・합천-산청 조정 될 듯, 인구 7만5천~30만선 의견 접근(부산 12. 29)

* 부산사업 조합, 버스 요금 최고 53% 인상 요구, 일반 4백50・좌석 9백원 안 제시, 부산시 1월 중 결정…시민들 "또 올리냐" 반발(부산 12. 29)

* 「해운대・기장」 분구 합의, 여야 선거구 협상 급진전 인구 편차는 「4대 1」로, 여야 4당은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4대 1로 조정하는데 의견 접근 보여(국제 12. 29)

* 선경, 수영 정보 단지 개발 참여, 법인 설립 「3섹터 방식」 추진 시와 합의, 기반 시설 구축 청신호, 97년 착공 2001년 완공 계획(부산 12. 29)

* 해운대・기장 선거구 분리, 여야 잠정 합의 반송동 기장에 포함 될 듯, 신한국당-강서구 독립구로 유지, 국민회의-도농 통합 현 체제 반발(부산 12. 29)

* 부산시・환경부, 람사협약 대립, 등재시기 타협점 못 찾아 갈등 심각, 환경부와 부산시가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 을숙도의 「국제 중요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목록 등재 여부 놓고 팽팽히 맞서(국제 12. 29)

* 부산 기업 해외 교류 다각화, 올한해 건수 감소 불구 유럽 등 사절 증가, 부산 지역 기업과의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외국사절단의 부산 방문 활발한 가운데 방문 국가도 종전 일본・중국 등 아시아권 중심에서 유럽・중남미 등으로 다변화(국제 12. 29)

* 부산시・환경부, 「람사지구」 지정 이견 "팽팽", 환경부-"관광자원화로 시에 도움…즉시 가입을", 부산시-"공론화 과정 거친 뒤 구체적 일정 검토"(부산매일 12. 29)

* 택시 기본요금 10% 인상, 오는 30일부터 경남도 내 택시 요금이 기본요금 10%, 주행요금 4.4% 시간 병산 요금 3%가 각각 인상, 지역 물가 상승 부채질(국제 12. 29)

* 서연정~수영 2002년, 미남~반송 2005년, 지하철 3호선 단계별 개통, 재원 국비 30・시비 30・차입 40% 비율, 빠르면 내년말 본선 착공(부산 12. 29)

* 정신 요양원 치료 기능 강화, 시 내년부터 전문의 상근 배치・뇌파 검사기 도입(시보 12. 29)

* 도심 교통난 해소에 철도 이용, 부산의 고질적인 도심 교통난 해소 위해서 철도가 대거 기용될 전망(시보 12. 29)

* 가스홀 주요소 시범 운영, 시-대기오염 감소・대체에너지 효과 기대(시보 12. 29)

* 겨울철 유・도선 안전관리 철저, 시-정비 점검 확인・불법행위 단속도(시보 12. 29)

* 상수도 수질 고급화 추진, 시상수도본부-시설확장 앞서 고도 정수 처리 역점(시보 12. 29)

* 시정동정, 시장- 사하구 괴정 1동 영생 노인 복지원 방문 위로・격려, 부산시장-「노・사・정 대표자 송년의 밤」 행사 참여 외 1건(시보 12. 29)

* 아주경기장 「사직」 확정, 시 강서 지역은 신도시 개발과 연계 추진(시보 12. 29)

* 사이클・양궁 등 8개 종목 후보지 선정, 시-아시아드 경기장 배치 계획안 발표, 여론 수렴 후 최적지 최종 확정 계획(시보 12. 29)
* "가입 여부 시민의견 수렴으로", 시-습지 보전 국제 협약 대처, 내년 2월~3월쯤 공청회 갖고 결정, 낙동강 하류 철새・자연 생태 규제 중(시보 12. 29)
* "공유토지 분할을 해줍니다", 특례법 시행따라 토지소유권 행사 가능,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건축법 등 묶여 단독분할 불가한 토지 대상, 해당자는 관할 구청 지적과에 신청(시보 12. 29)
* 구포다리 승용차만 통행된다, 부산광역시 시설 안전 관리 본부- 96년 1월 5일부터 전면 개통함에 따라 현재 노선버스와 승용차 2차로 통행 중인 구포교에 대해 1월 5일부터 승용차에 한하여 1차로(구포→대저)로 일방 통행 허용키로(시보 12. 29)
* 과태료・과징금 운행 정지 등은 제외, 시-12・1 일반사면 교통・운수분야 처리, 교통사고의 전산 입력 자료는 계속 관리(시보 12. 29)
* 연말연시 특별 수송 대책 마련, 시-철도・고속버스 등 증편(시보 12. 29)
* 연말 대통령 선물 전달, 환경 미화원 등 5,256명에게 대통령 선물 전달(시보 12. 29)
* 에너지 절약형 승강기 버턴 개량, 케이블 TV 활용 시정 홍보 등 다채, 95시민 제안 심사 결과 5건 채택(시보 12. 29)
* 연말연시 응급 진료 대책 의료기관 78곳 등 운영, 연말연시 진료 공백 막고 교통사고 환자 발생 등 예상되는 응급환자의 원활한 진료 위해 약국 당번제 진료 대책 마련(시보 12. 29)
* 매연 상시감시체계 구축, 내년 3월까지 신고 센터 등 운영(시보 12. 29)
* 비업무용 자동차 세율 인하, 내년부터 복지시설 위한 부동산 취득세도 경감, 3천cc이하 자동차세 25.4%내려(시보 12. 29)
* 가족 산책 공원 확충, 여가 선용 확대 위해 놀이・운동 시설 보완키로(시보 12. 29)
* 소규모 소각 시설 위치 변경 땐 관할 구청장 폐쇄 증명 받게, 소각 시설 변경 없이 그대로 이동하여 설치할 경우 재성능 검사를 받지 않고 현장 확인만으로 설치 가능(시보 12. 29)
* 문정수 시장 연말연시 동정, 1995년도 종무식・신년참배・신년하례 등 참석(시보 12. 29)
* 가정용 상수도 격월 검침・매월 고지 시 전역 확대, 내년 1월부터 실시 아파트 등 다량 수요가는 제외(시보 12. 29)
* "새로운 행정 수요 수용해야", 행정자원의 공유로 변화에 신속 대응, 특별 상여 통해 능력주의 개념 도입을, 투자 사업의 실적 평가 모델 개방이 필요(시보 12. 29)
* 시 추경 예산안 원안 의결, 부산시의회 제50회 정기회 폐회(시보 12. 29)
* 아주 경기장 시설 배치 심의위원회 1차 회의, 아시안 게임 경기장 시설채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회의 개회(시보 12. 29)
* 종합 환경 감시 센터 설치, 부산지역의 환경오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종합 환경 감시 센터 설치(시보 12. 29)
* 지역 개발 공채 1백80억원 발행, 95년 지역개발기금의 재원 조성 위해 지역 개발 공채 1백79억6천만원 발행키로, 91년 발행 공채는 상환(시보 12. 29)
* 지역문화 창달 주민 문화 복지 활짝, 금정구 문화 회관・서부산문화 회관 건립 기공식 가져(시보 12. 29)
* 성지곡 수원지 공업용수 공급, 성지곡수원지의 용수공급을 중단한지 20년만인 오는 97년부터 부산의 공장 지역에 전용 공업용수 공급 재개(시보 12. 29)

12. 30
* 부산 문화 95년 10대 뉴스, 미술의 해 행사 풍성, 영화 첫 부산 제작, 20대 안무가 대상 수상, PSB 첫 전파 발사, 수석 지휘자 곽승씨 영입,「트러스트」무용단 창단, 전국 연극제 참패, 3대 미술행사 통합, 실내악 협회 창립, 지역 출판계 불황 한파(부산매일 12. 30)
* 95년도 부산 시정 결산, 아주 게임 유치 도약 발판 구축, 수비 개발・가덕 신항만 청사진 마련, 삼성차 공장 착공 지역 경제 새 활로(부산매일 12. 30)
* 수비 개발 선경 참여 확정, 부산시 제3섹터 법인 설립 곧 추진, 선경 그룹이 부산 수영 비행장 이전부지 35만평 일대 대규모 첨단 정보・업무 복합단지 개발 참여 업체로 확정(부산매일 12. 30)
* 부산시, 종무식에서 시민봉사자 표창, 총 35명 수상(부산, 시보 96. 1. 5)

1996년

1. 1 * 부산항 매립·관리권, 시에 곧 이양(부산매일 1. 1)
* 시장, 새해맞아 충렬사 등 성역 참배식 참석(시보, 부산 1. 5)
* 부산시, 농지 임대차 관리 등을 묶은 '통합 농지법' 제정, 시행(부산, 시보 1. 5)

1. 3 * 부산시장, 부산여대 교수와의 신년대담에서 시정 기본방향 언급(부산 1. 3)
* 부산시 의회, 시무식 갖고 96년도 업무 시작, 지방화 시대의 중추적 역할에 중점 두기로(시보, 부산 1. 5)
* 부산시, 문화·관광도시 만들기 위해 20개 사업에 2천여억 투자 예정(부산 1. 3)
* 부산시, 건설업무 구청에 일방 위임, 인력부족 큰 혼선 우려(부산 1. 3)
* 부산시, 녹산공단 관리권 부산시장에 위임(부산 1. 3)
* 부산시, 건설교통부에 부산항 공유수면 관리·매립권을 부산시에 이양할 것을 건의(부산 1. 3)
* 96 시무식(부산시정 1. 3)

1. 4 * 부산시내에 위치한 3개 고속도로 요금소(부마 고속도로, 서부산·남해 고속도로, 북부산·경부고속도로 요금소)의 시외곽 이전이 결정(부산 1. 4)
* 부산시, 둔치도 경마장 유치 재추진(부산 1. 4)
* 부산시 관할의 부산항내 공유수면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권한이 해운항만청으로 넘어감(부산 1. 4)
* 부산해운대경찰서, 엉뚱한 사람을 차량절도범으로 몰아 구속, 구속 20대 6일 만에 무혐의(국제 1. 4)
* 구포대교 개통 시, 연계 도로망 미비한 부산 사상·북·강서구 일대가 교통난 우려(국제 1. 4)
* 부산시, 체육회 예산 3년째 동결(국제 1. 4)
* 부산시, 수비정보단지에 10조 투입, 연 3조원 총생산 기여 전망(국제 1. 4)
* 부산 금정구 공덕산에서 원인모를 화재 발생(부산매일 1. 4)
* 부산시, 구청 행정에 전자통신망 도입(부산 1. 4)
* 강서구 대저2동 맥도마을 주민 3천여명, 부산지방항공청에 소음피해 지역 지정 요구(부산 1. 4)
* 부산 가마골소극장 개관 10주년 기념, 대규모 기념공연(부산 1. 4)

1. 5 * 부산시, 21세기를 향한 '새부산 건설'이라는 기본 방향을 세우고 새해 주요시책을 7개 부분으로 제시(시보 1. 5)
* 부산시, 연말연시를 맞아 재난관리 상황실 설치 운영(시보 1. 5)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광역권 상수도 건설 6월 중 착공 예정(시보 1. 5)
* 부산시, 구포대교 개통, 총공사비 1천1백60억원, 5년만에 완공(시보 1. 5)
* 시 소방본부, 119 소방 구급대에 응급구조사 배치(시보 1. 5)
* 시장, 시의회 의장 신년사(시보 1. 5)
* 부산시, 수영비행장 이전부지 35만평에 대한 대규모 첨단정보업무복합단지 구축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시보 1. 5)
* 부산시, 96년도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1월 13일까지 받기로(시보 1. 5)
* 부산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산의 시책, 수영주변 건물 고도제한 해제, 쓰레기 문전 수법 금연 구역 확대, '하나로 카드' 4월 중 시범운영, 의료보험 연간 적용기간 240일로(시보 1. 5)
* 부산시, 고속도로 요금소 3곳의 장소를 이전하기로 확정(시보 1. 5)
* 부산시, 시정목표 '21세기 새부산 건설' 설정, 주요 시책 7개 부분 제시(부산 1. 5)
* 부산시, 연말연시 맞아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시보 1. 5)
* 부산시 상수도 본부, 광역권 상수도 건설 복류수 및 강변 여과수 개발 등 상수원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착공(시보 1. 5)
*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신년사(시보 1. 5)
* 부산시, 수영비행장 이전부지 35만평에 대한 대규모 첨단정보 업무복합단지 구축계획 본격적 추진,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방(시보 1. 5)
* 부산시, 96년도 일반경쟁 입찰가격 등록 - 1월 5일부터 13일까지(시보 1. 5)
* 부산시, 변경 시책 - 수영주변 건물 고도제한 해제, 쓰레기 문전 수법·금연구역 확대, '하나로 카드' 4월 중 시범운영, 의료보험 연간 적용기간 240일로(시보 1. 5)

* 부산시, 고속도로 요금소 3곳 이전(시보 1. 5)
* 부산시, 구포대교 개통(시보 1. 12)
* 부산시 소방본부, 시내 119소방구급대에 응급구조사가 탄생, 올해부터 119구급차에 승차해 전문적인 응급구조활동(시보 1. 12)
* 부산불교회, 새해 맞아 5백여명의 부산불교계 인사들 참석 가운데 신년하례회 개최(시보 1. 12)
* 부산불교회, 코모도 호텔에서 신년하례회 개최, 시장, 부시장 참석(시보 1. 12)
* 부산~거제 해상교량인 거가대교 올해 착공, 총연장 8.9km 국내최대 규모(부산 1. 5)
* 부산시, 공무원 인사패턴이 대민서비스분야 중심으로 변모(부산매일 1. 5)
* 부산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비 지원 등 재야단체 예산지원(국제 1. 5)
* 부산시, 가덕신도시 부지확보 비상(부산 1. 5)
* 구포대교 개통(부산시정 1. 5)

1. 6
* 부산남구청, 신선지 매립계획 합의, 8만7천평 무상인수 대가로 허용(부산매일 1. 6)
* 부산시, 부산도로망 164km 확충(부산매일 1. 6)
* 부산시, 올 3대 역점사업(차량매연 줄이기, 음식쓰레기 감량, 금정산 되살리기) 추진(부산 1. 6)

1. 8
* 부산시, 겨울 가뭄피해 확산으로 경남도와 긴급 가뭄대책 수립(부산 1. 8)
* 부산해운대구청, 건축법 제50조 위반한 금호아파트 재송2동에 철거 명령(부산 1. 8)
*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요금소 등 부산시내 고속도로 요금소의 이전 불가 방침을 재확인(국제 1. 8)
* 부산시, 「부산 남구 용호동 신선대 앞 공유수면 매립 문제」 마찰 중재·타결(부산 1. 8)
* 재정경제원,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방학이 4계절로 나뉘어 연중 실시될 전망(부산 1. 8)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98년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부두 개장을 앞두고 남구 우암동에서 감만동 삼거리를 잇는 길이 11km 왕복 4차선 고가 차도가 건설될 예정(부산 1. 8)
* 부산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미비로 인해 졸속운영, 홍보 내용과 달라 혼선, 신호기·안내판 부족…공사 구간 체증(부산 1. 8)
* 고입 선발 고사 합격자 발표(합격선이 남 124점, 여 148점으로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 받고 탈락한 여학생 학부모 반발로 합격선 조정 2학군을 선지원 후 추첨제로 선발하는 시범 학군 지정)(부산교육 1. 8)

1. 9
* 동래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이 올 6~7월쯤 마무리 될 예정, 문화재보호법 맹점 보완에도 주력(부산 1. 9)
* 부산지역 도로표지판과 지하철 공항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 표기가 엉터리, 한글·영문 등 제멋대로 표기(부산매일 1. 9)
* 시, 가덕 등 7개 신항만개발사업 300억 배정, 해항청 올해 부대사업 등 등록제전환 완전 개방(부산경제 1. 9)

1. 10
* 부산시, 대구위천공단조성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 개최하는 등 강경 대응, 지역갈등 심화될 전망(부산경제 1. 10)
* 부산시,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5,000억원 이상 이월하는 등 비효율적 예산집행 되풀이(부산경제 1. 10)
* 부산 화명정수장 계통의 대형 송수관이 파열되어 부산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 27만 가구 단수소동(부산경제 1. 10)
* 대구시와 정부의 부산·경남지역 위천공단 조성 강행, 부산·경남 주민들의 반발(부산매일 1. 10)
* 낙동강 수질 사상 최악, 36일째 취수한계치 초과, 암모니아성 질소·BOD 오염도 동반 상승(부산매일 1. 10)
* 쓰레기봉투 가격 이상 강행 방침으로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킬 전망(부산매일 1. 10)

1. 11
* 시장, 헬기탑승 항공, 해안·내륙지방 시찰(부산, 시보 1. 12)
* 부산 남항일대 치안체계 허술, 어획물 불법 유출 등에 속수무책(부산매일 1. 11)
* 부산시, 올해 추진할 민간유치 17개 사업이 확정돼 민간개발에 의한 도심개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 교통망 확충 등 분야별 설명회 개최(부산매일 1. 11)
* 부산시, 부산지방해운항만청과 함께 정기적인 「부산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3월 첫 회의…연 2회 개최(부산매일 1. 11)
* 부산지역 일선 구청들의 정실 인사에 잡음 발생, 직원들 간 내부결속력 저해, 공정사회 정치중립성 위태(부산매일 1. 11)
* 지사과학산업 지방공단 조성사업 계획이 전면 수정된 후 재추진, 분양가도 대폭 인하(부산 1. 11)

1. 12
*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10% 절수운동 지속적 전개, 비상급수대책 3단계로 세분화(시보 1. 12)

* 부산시, 95년 추계 시설물 점검결과가 흡족하지 않아 도로관리 미비점 보완(시보 1. 12)
*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비상급수대책을 3단계로 나누어 수질검사와 10% 절수 운동 등을 전개(부산 1. 12)
* 부산시, 95추계 시설물 점검결과 도로관리 미비점 보완(부산 1. 12)
* 부산시장, 불교연합회 신년회 참석 부시장, 96 신년 오찬 주회 참석(시보 1. 12)
* 부산시, 보건복지부에서 식품포장지에 대한 대책을 관리토록 조치함에 따라 관내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포장지 제조업소에 대해 자율기준 및 규격을 적용(시보 1. 12)
* 부산시, 자동차 전입 등록 업무 간소화(시보 1. 12)
* 부산시, 올해 대규모 축제행사 앞두고 하천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시보 1. 12)
* 부산시, 3대 역점사업 추진, 쾌적한 부산환경 조성(시보 1. 12)
* 부산경찰청, 13일부터 운전면허 무기한 추가시험(시보 1. 12)
* 부산시, 부산무역전시관의 96년 전시회 일정이 결정(시보 1. 12)
* 부산시, 무단폐업인장업소 대상, 신고 않을 땐 직권 정리(시보 1. 12)
* 부산시, 폐수배출 허용 기준 강화된 지역에 적극 계도, 청정 지역 지정으로 금정구 노포, 오륜, 선동 등(시보 1. 12)
* 부산시, 도심 교통난 가중에 따라 시내구간 철도를 도시교통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키로(시보 1. 12)
* 부산시, 사업용 자동차 번호판 교체, 올해부터 각종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이 전면 교체됨에 따라 화물차와 승합차 등 각종 사업용 차량의 번호판 교체(시보 1. 12)
* 부산시 시장, 1월 16일~27일까지 16개 구, 군을 순회하며 시정설명회 가질 예정(시보 1. 12)
* 부산시, 저소득 장애인 전세 주택자금 대여, 2월부터 실시(시보 1. 12)
*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직업훈련원, 1~2년 과정의 공공직업훈련생 모집(시보 1. 12)
* 부산시, 서구 안남동 자연원시림을 이용한 삼림욕장으로 개발, 오는 4월 쯤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시보 1. 12)
* 부산시, 오는 17일 국내도급순위 기준 45대 대형건설사 및 부산 10대 건물사 지역상공인을 초청해 민자유치 사업 설명회 개최할 예정(시보 1. 12)
* 부산시, 지역단위 물가관리의 책임의식 높이기 위해 95년 물가안정대책추진 시달, 물가안정대책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시보 1. 12)
* 부산시, 오클랜드와 밴쿠버, 2개의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맺어 국제교류사업 더욱 강화(시보 1. 12)
* 부산시, 다른 구로 이사 간 주민은 3천원 미만까지 종전 구청의 쓰레기봉투 사용 가능(시보 1. 12)
* 시장, 선박을 이용한 신선대~기장군 해안선 및 기장군 내륙 시찰(시보 1. 12)
* 부산시, 식품포장지의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업소의 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기로(시보 1. 12)
*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준비작업 본격화, 24일 마스터 플랜 확정 예정(시보 1. 12)
* 부산시, 자동차 전입등록업무 간소화, 15일부터 차량확인 없이 번호판 제시로 처리시간 단축키로(시보 1. 12)
* 부산시, 올해 대규모 축제행사 앞두고 폐수 무단 방출 대대적 단속(시보 1. 12)
* 부산시, 3대 역점사업 추진, 차량매연줄이기, 음식쓰레기 감량, 금정산 되살리기, 2월 중 시민, 공무원 연대 '그린 봉사대' 발족키로(시보 1. 12)
* 부산경찰청, 일반사면과 방학기간 등으로 운전면허 허응시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13일부터 기능시험을 무기한 실시키로(시보 1. 12)
* 부산시, 부산무역 전시관의 96년 전시회 일정 결정(시보 1. 12)
* 부산시, 무단 폐업 인장업소 대상, 폐업 신고 안을 때 직권 정리키로(시보 1. 12)
* 부산시, 도로공사체증 무대책, 관련 조례 개정 지지부진, 도심 전체가 주차장 방불(부산경제 1. 12)
*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자 선정, 가덕도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립, 사천등지 산업단지 600만평 조성, 남해안 도서 등 대상 개발촉진지 지정, 경부고속철 부산차량기지 위치 확정(부산매일 1. 12)
* 부산 북구청, 21세기 대비 중장기 발전계획 재수립, 열린 구정 구현 계획(부산매일 1. 12)
* 부산지하철 3호선 연내 착공, 내서~냉정 간 고속도 8차선 확장도 실시(부산매일 1. 12)
* 부산에서 활동 중인 성악가들이 모여 동인제 시스템의 사설 오페라단을 창단(부산 1. 12)
* 정부, 올해 8조6,547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부산 1. 12)
* 당감동 철도청 조차장과 제1보급창 일대 22만여평에 국내 최초로 콘크리트 인공지반을 만들어 2층 구조의 신시가지 건설, 아주게임 대비 계획도시화(부산 1. 12)

1. 13 * 김해와 부산을 잇는 경전철 건설사업이 부산시의 지하철 3호선과 일부 구간이 중복돼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부산경제 1. 13)
* 부산시 공무원 90%가 인사에 불만, 승진 적체・청탁 횡행 공정성 회의, 실력보다 연줄 우선(부산매일 1. 13)
* 부산시 사하구, 고지대 외곽지역 도로 확장・개설주력 공원・산책로 등 시민휴식터 대폭 확충(부산매일 1. 13)
* 부산시 장기가뭄여파 식수조차 못 구해 아우성(부산매일 1. 13)
* 부산시 제2부산대교 즉시 착공, 부산도심권 3개 고속도로 요금소를 시외곽으로 이전키로(부산매일 1. 13)
* 부산시 가거도 신항 개발 동안도 병행제시(부산매일 1. 13)
* 강서구 「국토청결」 최우수 영예, 농약빈병 등 깨끗한 환경 조성(부산매일 1. 13)
* 가덕 신항만 부산시안 확정, 북서안 16・동안 15선적 2단계 걸쳐 건설(부산 1. 13)
* 부산시, 해변 신도시 건설, 관광・문화 등 친수공간・배후 주거지역 개발(부산 1. 13)
* 문정수시장 區郡 연두순방(부산시정 1. 13)

1. 14 * 위천공단 조성 저지 못 하면 문시장・국회의원 퇴진운동(부산매일 1. 14)
* 영도구, 가용재원 대부분 도로개통 부문 투자, 신성동 배수지 확장 등 급수난 해소도(부산매일 1. 14)

1. 15 * 부산시장・시의장 방문 건의문 전달 「위천반대」 대정부 활동 촉구(국제 1. 15)
* 부산항도 보안 "구멍" 한양교 교포선원 입국심사 중 잠적(국제 1. 15)
* 부산지역 일선구청들이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제멋대로 선정해(국제 1. 15)
*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공포(제3270호)(부산교육 1. 15)

1. 16 * 부산시, 산하 사업소 곳곳서 잡음, 비리속출・민원소홀 등, 부산시 감독강화(부산 1. 16)
* 위천공단 수질대책 졸속, 대구시 억제로 꿰맞춘 흔적 역력(부산 1. 16)
* 부산진구, 서북상권 육성・문화예술공간 확보 복지관・어린이집 등 쾌적환경 조성(부산매일 1. 16)
* 위천저지 시의회연대, 국정청원・서명운동 등 적극 동참(부산경제 1. 16)
* 「위천반대」 연대투쟁, 부산 시민단체・시의회 저지운동 본격화, 19일 범시민 규탄대회(국제 1. 16)
* 항공기 김해운항 위협, 「애드벌룬 시위」(국제 1. 16)
* 부산시, 예산부족으로 도로부지 6백만평 방치, 20년 넘은 곳도…재산권침해(부산경제 1. 16)

1. 17 * 부산시, 시민 재산권만 묶은 "반쪽행동", 대부분 우회도로로 교통난 부채질(부산경제 1. 17)
* 부산시・의회 위천대응 "뒷북 행정" 시민운동 확산되지 대책 분주(부산경제 1. 17)
* 기장군, 해안개발 부산관광메카 도약 박차 도로・수상도등 기반시설 확충 주력(부산매일 1. 17)
* 부산시의회, 「위천」 저지 주내 상경투쟁, 시당국은 대책반 구성 검토(부산매일 1. 17)
* 부산시 영도~감만 해안도로 건설 본격화, 총사업비 4천5백40원 투입(부산매일 1. 17)
* 부산맥도주민 이주대책 조속 마련 촉구, 「애드벌룬 시위」 장기화(국제 1. 17)
* 부산시, 경전철 등 민자유치, 초읍 7.6km, 영도선 9.2km 개설(국제 1. 17)
* 부산시, 뒤틀린 도시계획, 다대 택지지구 앞 「공단」 조성, 주민 결사 반대(국제 1. 17)
* 부산시 「위천반대」 건의문, 경남도와 공조체제 구축키로(국제 1. 17)
* 부산시, 해운대 신시가지 학교부지 인근 유흥가 조정(부산 1. 17)
* 「위천공단」 개발계획에 대해 신한국당 부산시 지부도 경남지역 의원들과 함께 공단 조성 반대를 중앙정부에 요구, 이 문제가 제15대 총선 관련에 최대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부산 1. 17)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271호)(부산교육 1. 17)

1. 18 * 부산시, 금정산 휴식년제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 절대보존구역도 지정해 등산객 출입 금지(부산, 부산매일 1. 26)
* 부산시, 민자유치 사업 설명회 성황, 3백여명 참석 높은 관심(부산 1. 18)
* 부산 교통 공단 올예산 32% 부채상환 투입, 지하철공사 공정 차질(국제 1. 18)
* 「위천」 전면 재검토 절실, 낙동강 수질개선・환경 기준설정 미흡(국제 1. 18)
* 부산시 역점 9개사업 민자유치 설명회(부산매일 1. 18)
* 시의회, 위천 공단 반대 결의문, 민주 시 지두보 철회 촉구(부산 1. 18)
* 「위천」 저지 시・관・정 "총력전", 생명줄 낙동강 보호(부산매일 1. 18)

1. 19 * 부산시, 낙동강 유역에서 낙동강 살리기 환경정화 활동 대회 전개(시보 1. 26)
* 부산시장, 1월 19일 남구와 수영구청 방문, 주요 시점 사업 설명하고 주민들과 의견 교환(시보 1. 26)

* 부산 시장, 통일회관 개관식 참석(시보 1. 26)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미용업 등 개설 때 신원조회 없애(부산 1. 19)
* 부산시립극단 창단작업 본격화, 상임단원 15명 등 25명으로 구성되며 연 2회 공연 계획(부산 1. 19)
* 부전·사상 역세권 본격 개발, 종합계획 5월에 착수(국제 1. 19)
* 부산시립 예술단 재도약 시동, 민간체제 전환 가능성 시험(국제 1. 19)

1. 20
* 부산 시장, 부산지방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시보 1. 26)
* 부산 수비, 고도 제한 2월 해제, 1천1백만평 재산권행사 가능 전망(국제 1. 20)
* 「위천」 반드시 막겠다, 부산·경남 「시민대책위」 결성 "연계투쟁"(국제 1. 20)
* 국제 불법통폐합 확인(국제 1. 20)
* 「위천」 저지 시민대책위 결성, 낙동강 보존 특별법 등 촉구(부산 1. 20)

1. 21
* 동래구, 온천장 인근지역 연계 개발로 옛 명성 회복, 도로 개설·확장으로 교통체증 해소 역점(부산 1. 21)

1. 22
* 부산 5개 해수욕장에서 부산바다 축제가 열려, 국제 무용제·굿 한마당·열린 음악회 등 다채(부산 1. 22)
* 금정산 휴식년제 실시, 동·남·북 권역 나눠 3월부터 5년씩 추진키로(국제 1. 22)

1. 23
* 부산 시장, 기자 간담회 개최, 낙동강 수질 개선 및 위천공단 조성에 대한 의견 발표(시보 1. 26)
* 부산시 교육청, 96학년도 부산지역 일반계고교 선발고사의 남녀 합격선 차이에 따른 여학생 불합격자 전원 구제(부산매일 1. 23)
* 위천공단 조성 문제에 대해 신한국당과 정부가 부산·경남 동의 없이 조성을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낙동강 2급수 회복 후에 검토, 추진 땐 부수관로 동해쪽 설치(부산매일 1. 23)
* 부산 김해공항의 각종 항공안전 시설 노후, 시설관리와 보수 능력까지 부족해 항공기 안전관제체계에 큰 허점(부산매일 1. 23)

1. 24
*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겸 제2회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제3차 위원총회 개최하는 등 준비작업에 박차(시보 1. 26)
* 부산 시장, 남부소방서 개서식에 참여(시보 1. 26)
* 살인·강도 활개에 시민들 불안, 초동 공조수사 부재·사건은폐에 급급,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인지하고 강력범 총기사용 검거 지시(국제 1. 24)
* 부산 강서구청, 4대 하천 체계적 정비 휴식공간 조성, 가덕도 주민의 숙원인 천가일주 도로 착공(부산매일 1. 24)
* 부산시의회, 위천공단 조성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단조성 백지화를 위한 강경투쟁 선언(부산매일 1. 24)
* 부산시, 아주경기장 부지선정에 지체, 구청 간 유치갈등 심화, 후속업무 추진에 차질(부산매일 1. 24)
* 부산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 수영만 일대를 잇는 동남해안선과 다대포 어항일대 공유수면 매립권과 관리운영권이 부산시로 이관(부산매일 1. 24)
* 남부소방서 개시(부산시정 1. 24)
* 어린이회관 탐구 과학실 개관(부산교육 1. 24)

1. 25
* 부산시, 부산노인종합복지회관 개관, 시, 연산4동 의료재활센터, 취미활동실 등 갖춰(시보 1. 26)
* 부산 시장, 시의회장, 96년도 적십자 회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장에 전달(시보 1. 26)
* 부산지방경찰청, 1월 25일~2월 13일까지 2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기간으로 지정, 경찰서 등에 제출 자진 신고 시 면책, 총기, 탄약, 폭발물, 도검류 등 일체(시보 1. 26)
* 부산시, 도시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항측도 지적도 도시계획도 등 지형관련 도면과 도로 상하수도 등 시설물 도면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지상물건과 지하매설물을 전산관리(부산 1. 25)
* 노인종합복지관 개관(부산시정 1. 25)

1. 26
* 부산시, 주요건설사업 45건을 카드관리제를 도입하여 집중관리하기로, 올해 68개 사업 상반기 조기착공(시보 1. 26)
* 부산시, 2월부터 식육류 부위, 등급별 표시판매 의무화, 소매점까지 확대 시행, 올해까지 계도, 내년부터 행정처분(시보 1. 26)
* 부산시,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질서, 친절, 청결을 3대 시민운동 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시보 1. 26)
* 부산시, 올해부터 장애인들에게 자동차세 편세 확대, 보조수당증액, 전세자금 대여 등 복지 개선(부산 1. 26)
* 부산시, 낙동강 오폐수로 하류지역 식수원 오염을 우려해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위천국가공단 조성에 반대하기로(시보 1. 26)

* 부산시, 부산경찰청, 시내버스, 택시 불법 운행 행위에 대한 집중지도단속 실시(시보 1. 26)
* 부산시, 지하수 개발 및 유지관리 지침 마련(시보 1. 26)
* 부산시, 96년도 가족보건 특수사업으로 부산시내 저소득층 시혼여성 대상으로 자궁암, 유방암 무료검진 실시, 12월 31일까지, 4천6백명 혜택, 이상 발견되면 정밀검진(시보 1. 26)
* 부산시,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 지원단' 설치, 운영(시보 1. 26)
* 부산시, 작년 시책의 일관성 결여, 구군의 시정 비협조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업무 추진상 미흡한 점을 지적, 96년 시정 운영의 중점 추천과제를 선정, 추진키로(시보 1. 26)
* 부산시, 96 야생 동식물 보호 및 홍보대책 추진키로(시보 1. 26)
* 부산시, 식품제조 가공업소 70군데에 15억원 융자해주는 계획 마련(시보 1. 26)
* 부산시, 96년도 감사, 감찰 방향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로 설정(시보 1. 26)
* 부산시, 낙동강, 을숙도 일원에서 시직원 및 자연보호 부산시협의회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대 시민운동 실천대회겸 '낙동강살리기' 정화활동 전개(시보 1. 26)
* 부산시, 구군청소행정 담당과장과 재활용 담당계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96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계획을 시달, 10% 줄이기 목표(시보 1. 26)
* 부산시, 95년도 차량 승객 교통향 조사결과 보고, 96년도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위해 공청회 개최(시보 2. 2)
* 해운대 선거구 갑·을 분구, 기장포함, 강서는 북구 덕천 2동 편입(국제 1. 26)
* 가덕도 개발 특별법 만든다, 부산시, 건교부와 공동 추진키로(국제 1. 26)
* 중구, 쾌적 환경·문화 조화된 「부산 1번지」로 국제시장 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 도모(부산매일 1. 26)
* 부산시 간부 인사 "잡음", 시장 학연따라 승진·요직 독식(부산매일 1. 26)
* "정부입장 분명히 밝혀야", 낙동강 중·상류 환경특별지역 지정을 강주변 기존공장 역외이전도 급선무(부산매일 1. 26)
* 가덕도 북서해안·진해 용원 일대, 신항만 입지 최종 결정, 배후도로 국비로 건설(부산 1. 26)

1. 27
* "자치제 발전위 조속 가동"(부산경제 1. 27)
* 가덕신항 북서안 확정, 배후수송도로 전액 국비부담(부산경제 1. 27)
* 해운대에 어린이공원 조성, 관광명소 이미지 부각(부산 1. 27)
* 금정산 휴식년 실효없다, 주요등산로 개방으로 생태계회복 도움 안 돼(부산 1. 27)
* 가덕신항 「확정 입지」 문제 많다, 건교부·해양청, 부산시 의견 제대로 반영 않아(부산매일 1. 27)
* 합천댐 물 98년부터 공급, 건교부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사업 10월 착공(부산 1. 27)
* 지자체, 경마장 유치 "불꽃경쟁", 부산 둔치로 우세 속 경남 진해 각축(부산 1. 27)
* 초·중등 전문직 합격증 교부 「사설학원 수강료 관리 지침」 시달 입시학원료 동결(부산교육 1. 27)

1. 28
* 건교부 합천댐 물 하루 1백만t 공급(부산경제 1. 28)
* 제3의 자치기구로 "자리매김", 반상회 고충해결 이웃 간 화합의 장(부산매일 1. 28)
* 다대포개발 무산 가능성, 사업규모 축소(부산매일 1. 28)

1. 29
* 부산시, 부산 관광 종합개발 6개 지구별로 특화(국제 1. 29)
* 지하철 복공판 "함몰", 불량자재 사용 불법시공 의혹(국제 1. 29)

1. 30
* 부산시장, 국민운동단체장 63명을 초청하여 96시정 설명회개최(부산 1. 30)
* 부산시 3대권역 특화 개발(부산 1. 30)
* 대규모 쓰레기소각장 건립, 북구청·주민 크게 반발(부산 1. 30)
* 비디오방 불법영업 "기승", 미성년자들에 성인물 방영, 소화기 등 소방시설도 미비(부산매일 1. 30)
* 부산지역 대학 편입학 대폭 확대, 2천여명 이동 바람(부산매일 1. 30)
* 잡손틈타 민원 "홍수", 대부분 "주의사항"…한표 앞세워 억지(부산매일 1. 30)
* 부산심포닉 밴드 창단 "관악 발전 중추 선언"(국제 1. 30)
*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제4대 수석 지휘자로 배양현 교수 "확정적"(국제 1. 30)
* 동·서·도심권 특화개발, 아시안 게임 등 21세기 새부산 건설(국제 1. 30)
* 낙동강 수질 악화 정수 비상, 암모니아성 질소농도 높아 염소 과다투입(국제 1. 30)
* 작년 부산돈 3,226,300,000,000원 역외 유출(부산경제 1. 30)
* 부산시장에 돌풍예고, 외국 다단계판매업체 대거 상륙, 미·중 20여개사 영업개시(부산경제 1. 30)
* 학교 운영 위원회 시범 운영 보고회(~1. 31)(부산교육 1. 30)

1. 31　* 수비 작전기지 “지정취소”, 감사원, 국방부에 통보(국제 1. 31)
* 부산시 재정난타개 “비상”, 벌인 사업 많은데 예산조달 “막막”(국제 1. 31)
* 부산경기 4년째 내리막길, 신발・고무・섬유제품 등 하락주도(국제 1. 31)
* 한국 아메리칸 댄스 페스티벌 올해 부산서 펼친다, 서계 현대무용 흐름 소개, 테크닉・이론반 구분 강의(부산 1. 31)

2. 1　* 부산시, 건설담당간부 공무원 70여명에게 지역개발사업 교육(시보 2. 2)
* 부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번호 통일하여 운영(시보 2. 9)
* 부산시, 건설교통부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아파트 표준건축비 인상조치 계획(부산 2. 2)
* 부산시,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시보 2. 9)
* 부산시, 96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각종 국제대회대비 지침마련(시보 2. 9)
* 부산시 지방자치단체, 선거지원단 가동 등 본격적인 선거업무 개시(시보 2. 9)
* 부산시의회, 제52회 임시회 폐회, 운영위원자 보궐선거 실시, 1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6년 시정에 관한 보고 받아, 31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실・국별로 업무보고, 안건 심의 주요안건, 부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계정안, 지방공사부산의료원 설치 조례개정안,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개정안, 부산시 지방공사 기업적용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안, 부산시 세감면 조례계정안, 부산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안, 부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시보 2. 2)
* 부산 수영비행장 주변지역 1,100여만평에 대한 고도제한이 16년만에 해제(부산 2. 1)
* 위천공단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 3일 부산역 광장서 대규모 궐기대회(부산매일 2. 1)

2. 2　*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시보 2. 16)
* 부산시, 부산인구 90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시보 2. 2)
* 부산시, 둔치도에 경마장 유치 본격화(시보 2. 2)
* 부산시, 민간 가정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시보 2. 2)
* 부산시, 올해 부산물가 5% 유지 추진(시보 2. 2)
* 부산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통・반장 등 행동기준 마련(시보 2. 2)
* 부산시, 국제행사 앞두고 부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특기자 교육(시보 2. 2)
* 부산시, 제6차 상수도 확장사업계획을 당초 생산력 확대에서 배수지 신・증설로 역점, 고지대 주민들의 제한급수를 확대(시보 2. 2)
* 부산시, 부산교통정책 시민여론조사 실시(시보 2. 2)
*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과 금정구 금사동 방면에서 도시고속도로로 진・출입 가능한 램프 2곳 신설(시보 2. 2)
* 부산시, 올해부터 건축물 허가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용도 변경 시에 ‘사전심의제’ 운용(시보 2. 2)
*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1호선 역에 86억원 들여 장애인 위한 승・하차 편의시설 설치(시보 2. 2)
* 부산지방경찰청, 지하철 2호선 공사에 따라 해운대구 우동 일대의 교통체계 보완(시보 2. 2)
* 부산지방 병무청, 국민 편익차원에서 병역제도 개선하여 시행(시보 2. 2)
* 부산시, 가덕도 신항만 입지가 북서해안측 해역으로 최종 확정(시보 2. 2)
* 부산시, 차량소유자 임의추출 5백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바람직(시보 2. 2)
* 부산국제영화제 9월 개최, 작가와 작품 위주 비경쟁방식 진행, 동북아시아 영화 소개에 주력, 해외초청 50편 등 총 80여편 출품(국제 2. 2)
* 동래구 먹거리타운 조성, 온천1동 방송통신대학 학습관 주변 불고기집 일대를 온천장 개발과 연계 해 명물화(부산매일 2. 2)
* 부산시, 황령터널 추가부담금 80억여원을 시민에게 인가 결정, 대남로터리 자하차도 공사 연기로 발단, 이에 따른 비난 여론(부산매일 2. 2)
* 부산지역 일선 구・군청들에서 시와 정부에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절차 등의 개선 요구, 민원 빈발 41개 분야 우선 취합(부산매일 2. 2)
* 부산시의회, 11개 안건 의결, 52회 임시회 폐회, 10부제 미참여 차량 주차료 2배 할증안 ‘시민부담가중’ 부결(부산매일 2. 2)
* 부산 지하수 57% 오염, 상업지역-발암물질, 공업지-철, 해안-망간 검출,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1,335여곳 조사(부산 2. 2)

* 부산 해운대구청, 올 여름부터 두 달간 해운대 해수욕장 유료화, 입장료 관리비 활용 파라솔 등 무료 이용, 일부선 부작용 우려 반발(부산 2. 2)

2. 3 * 부산시, 체납세 징수에 비상, 일선구청 40억 교부금 놓고 경쟁 치열(국제 2. 3)
* 부산지역 재래시장들이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관련법규가 까다로워 실질적 혜택 수혜에 어려움(국제 2. 3)
* 부산시 택시정책 혼란, 승객 감소에도 증차 고집으로 정책 혼선과 함께 도심교통난 가중(부산매일 2. 3)
* 부산시, 종량제봉투 가격을 평균 20% 인상 결정, 서민가계 부담 크게 가중(부산매일 2. 3)
* 부산 북구청, 금정산 휴식년제 실시에 따라 관할 지역 임야에 대한 입산통제 등 방침 밝히고 금정산 회생 작업에 착수(부산매일 2. 3)
* 부산시, 그린벨트 훼손 묵인한 공무원 무더기 징계, 한달간 특별단속 114명 적발(부산 2. 3)

2. 4 * 부산시, 수산업무기능 대폭 강화하는 방안 검토, 수산관리실을 수산국으로 승격 추진, 해양오염 감시계 신설도 검토(부산매일 2. 4)

2. 5 * 부산시, 15대 총선대비 공무원 교육 실시(시보 2. 9)
* 부산시, 2월 중점추진 확대간부회의, 총선을 맞아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을 밝힘(시보 2. 9)

2. 6 * 부산시, 관련기관별 추자 보고회 수영로 교통처리 대책 논의(시보 2. 9)
* 부산시, 통근형 열차 12회 운행키로 함(시보 2. 9)
* 부산시, 시민운동단체 초청하여 시정 설명회(시보 2. 9)
* 부산시, 설날 물가안정 합동대책회의 개최(시보 2. 9)
* 김해공항 활주로 주변 돌풍으로 안전한 이착륙 위협,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 기상측정 장비 미비로 대책 시급(국제 2. 6)
* 부산 시정 삐걱, 정실인사 잡음, 부서할거 심각, 냉소주의 활개(국제 2. 6)
* 가람신인음악회 개최, 안진현 등 음대졸업생 13명 연주(국제 2. 6)

2. 7 * 김우석 내무부장관이 부산시를 순시하고 복무기강 강조(시보 2. 9)
* 부산시, 사직운동장을 비롯하여 승마 등 보조경기장의 배치계획안 확정(시보 2. 16)
* 부산시, 지사・신호단지 주거・상업용 대거 전환 추진, 이에 장기적 부산발전에 역행하는 단견행정 지적 받음(부산매일 2. 7)
* 부산시, 서비스개선 5개항 이행 없이 시내버스 요금인상 허용으로 시민 반발(부산매일 2. 7)
* 부산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 지연, 2000년에야 개통 가능, 부산시-교통공단 부대사업비 서로 미뤄(부산매일 2. 7)
* 정부, 국가지원지방도로 3,508km 지정하여 국가지원 첫 결정, 부산경남 5개 노선 627km(부산 2. 7)
* 부산시, 98년 계획수립 완료, 2001년까지 110곳 주거환경 개선(부산 2. 7)
* 부산시, 지하철 공사에 따른 우회도로확보 등 소통대책 미비로 5개월째 착공 연기(부산 2. 7)
* 부산시민 1인당 세금부담액(담세액)은 15개 시・도 중 6위이지만 예산수혜액(일반회계 순계예산/인구수)은 전국에서 최하위권(부산 2. 7)
* 김우석 내무부장관 방문(부산시정 2. 7)

2. 8 * 부산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 결과 부산에서 6.9%가 허용기준 초과, 배출가스 특별단속 나섬(시보 2. 16)
*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신설경기장 8개 배치계획이 최종 확정, 사이클 부산 두구동・골프 일광건립(국제 2. 8)
* 부산 해운대교육청과 북부교육청 오는 3월에 신설(국제 2. 8)
* 부산시의회 임시회 소집, 내주 관계공무원 출석 결정과정 추궁,「영도 제1선거구의 보궐선거」포기 경위 조사(국제 2. 8)
*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의 17개 보조경기장 입지 결정, 교통・환경 문제 보완 조건부(부산매일 2. 8)
* 산복도로 3곳이 예산부족과 보상지연 등으로 늑장공사, 양정～전포 범천～개금 청룡～온천동 등 도심 교통난 심화(부산 2. 8)

2. 9 * 부산시, 4급이상 고위직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시보 2. 9)
* 부산시,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개척과 기반 조성을 위해 '수출 진흥 사업계획' 마련(시보 2. 9)

* 부산시, 외국인 소유 토지 실태조사 실시(시보 2. 9)
* 부산시, 2월을 '경로효친의 달'로 정함(시보 2. 9)
* 부산시, 96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시보 2. 9)
* 부산시,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위해 3월까지 기본계획 마련키로 함(시보 2. 9)
* 부산시, 연휴 종합대책 7개 분야 추진(시보 2. 9)
* 부산시, 동절기 콘크리트 시공 지도감독(시보 2. 9)
* 부산시,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 지원(시보 2. 9)
* 부산시, 동아시아경기대회 대비하여 상거래질서 확립 추진(시보 2. 9)
* 부산시, 2월 한달간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징수(시보 2. 9)
* 부산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관을 97년도에도 설치(시보 2. 9)
* 부산지방경찰청 강서경찰서, 9월 사상구 감전동 현 청사에서 관할 강서구 명거동에 신청사를 완공・입수(시보 2. 16)
* 부산시의회, 「주택건설 사전결정 사무처리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 강력 표명(국제 2. 9)
* 부산시, 수비 정보업무 복합단지를 조기개발하기 위해 지방공단으로 지정키로 방침 확정(국제 2. 9)
*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신호지방공단에 유치한 삼성자동차에 대해 공단조성원가 이하로 부지공급 약속한 것에 대한 적자로 난항(부산 2. 9)
* 민간소방점검제도의 문제점으로 업체들의 큰 반발, 1회비용 천만원 이상-점검도 형식적, 중소기업에 부담만 가중-철폐요구 서명운동(부산 2. 9)
* 비디오방 10대 탈선 주요지, 부산 120여 업소 적발-무법지대(부산 2. 9)

2. 10
* 부산시, 각종 국제행사 빌미로 자선단체인 일선구청에 대규모 홍보성 주민동원행사 개최를 지시해 반발사고 있음(국제 2. 10)
* 부산지역 강력사건은 줄고 절도・마약범죄 폭증, 부산경찰 방범체계 전환 시급(부산매일 2. 10)
* 부산 동천 범3호교를 가설했으나 조면보다 높은 기형교량-시와 구청은 서로 책임 회피, 보완작업 수십억 소요(부산매일 2. 10)
* 美 하얄리아부대의 이전 난항, 美측-여타 8개시설도 함께 옮겨라, 부지・재원조달 난감-AG준비 등 차질(부산매일 2. 10)
* 2002년 부산 아시아게임 경기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범위가 사업비의 50%까지 지원 가능, 문체부 입법예고 월말 시행령 공포(부산 2. 10)
* 부산시, 중학 중퇴자들 위한 특수학교 설립 내년부터 본격 운영, 졸업 후 기술계 고교・취업 적극 알선(부산 2. 10)
* 교육 개혁 박람회 보고회(부산교육 2. 10)

2. 11
* 부산 수영구청, 수영구 색채 및 미술장식품 분과위원회 구성, 민락매립지・광안리해수욕장 미관 심의(부산매일 2. 11)

2. 12
* 부산시, 문정수 시장 주재로 문화・체육계 인사 초청, 시정설명회 가짐(시보 2. 16)
* 부산시, 부산~중국 직항공로 조기개설 추진(시보 2. 16)
* 횡령산 산불로 임야 2만평 소실, 소방헬기 11대 출동-4시간 만에 진화, 송전탑에도 불길, 일부지역 정전(국제 2. 12)
* 부산시 가덕도 신항만 매립지 공장용지 절반 축소, 공단 배치계획 큰 차질, 20개社 입주 난항(국제 2. 12)

2. 13
* 부산시, 총선 앞두고 공직자 복무기강 암행감찰(시보 2. 16)
* 부산시, '신교통도시 부산 2002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운영(시보 2. 16)
*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발족, 국내 최초 국제규모로 발전(시보 2. 16)
* 부산시장, 접견실에서 각 언론사 사장으로부터 언로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받음(시보 2. 16)
* 가덕도 일대 산재한 유적 발굴과 보존대책 시급, 신항만 개발로 훼손 위기(국제 2. 13)
* 부산시, 당초방침 철회-영도시의원 보궐 실시 결정(국제 2. 13)
* 자성대부두 크레인 붕괴, 접안선박과 충돌-컨테이너 처리 큰 차질(국제 2. 13)
* 부산 산업재해비율 전국 5위, 지난 해 1.46%-재해예방대책 시급(국제 2. 13)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시민운동 확산, 부산시의회와 단체 등 연일 성명・집회(부산매일 2. 13)

* 일선구청들의 무리한 조직개편 말썽, 지역・업무 특성 도외시, 사무중복・전문성 결여(부산 2. 13)
* 국무회의에서 해운대・북부교육청 신설결정(대통령령 제14924호) 신설 교육청에 각 2국 16과 17계 신설 184명 배치 해운대교육장에 김순종 부교육감, 북부교육장에 정태웅 청학초등학교장 취임, 동부 - 부산진구, 연제구 / 서부 - 서구, 사하구, 영도구 / 남부 - 남구, 중구, 동구 / 동래 - 동래구, 금정구 / 북부 - 북구, 사상구, 강서구 / 해운대 -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부산교육 2. 13)

2. 14
* 부산시, 재외공관장을 초청하여 '지방경제・통상외교 간담회' 개최(시보 2. 16)
* 부산시 분뇨해양처리계약을 둘러싼 특혜시비 의혹, 소요 인력 등 과다 계산, 용역결과보다 최고 50%나 단가 높임, 감사원 전면조사 착수(부산매일 2. 14)
* '96 부산 이바하 페스티벌' 결산-기업메세나 운동 첫 신호탄에 큰 의의, 지역음악인 참가 기획력 미비(부산매일 2. 14)
* 지난 92년 실시된 14대 총선 공약 중 상당수가 흐지부지, 이에 따른 부산시민단체들의 해명 요구(부산 2. 14)
* 부산 3대축제-아시아 위크, 부산바다 축제, 부산포 축제 활성화, 해양도시 특성 살려 국제 규모로 확대(부산 2. 14)
* 부산시, 출퇴근 때 번영로 무료통행 추진-체증 해소일환(부산 2. 14)
* 수영교 안전 위험, 트레일러 하루 295대 통행(부산 2. 14)
* 영남지역 43개 대학 총장 낙동강 문화연구회 설립, 위천공단 갈등해소와 동질성 회복 노력(부산 2. 14)

2. 15
* 부산시, 본관 2층 회의실에서 '하나로 카드' 추진 협의회 개최(시보 2. 16)
* 수영비행장 고도제한 내일 해제, 4개구 23개 동 군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가능(국제 2. 15)
* 부산시, 일선 자치구에 포장마차 등 노점상을 오는 6월말까지 일제 정비토록 지침-올 11월 국제행사 대비 명분, 실적 부진 공무원에 문책 압박(부산매일 2. 15)
* 수협중앙회, 부산어시장 인수 추진, 3개 조합과 지분양도 협상 착수(부산 2. 15)
* 부산시내버스 전체노선의 77.7%가 지하철과 중복되어 지하철 승차효율 격하, 도심 집중화도 문제-연계노선 등 대책 시급(부산 2. 15)
* 부산국제영화제 정식 출범,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올해 9월 6일~16일 개최, 동북아시아 작품과 독립 영화 등 중점 소개(부산 2. 15)

2. 16
* 부산시, 설날 시 직원들 대상으로 귀향버스 운행(시보 2. 16)
* 문화체육부, 아시안게임 관련시설 사업비 50% 범위 내 국가 지원 가능하게 함(부산 2. 16)
* 부산시, 대규모 국제행사 앞두고 지역별 '먹거리 타운' 조성(시보 2. 16)
* 부산시, 폐플라스틱 중간처리시설 설치 2월 중 시험가동(시보 2. 16)
* 부산시, 그린벨트 훼손행위 방지대책 마련 담당직원 특별교육 등(시보 2. 16)
* 부산시, 설 연휴기간 중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과 하천수질 감시 강화(시보 2. 16)
* 부산시 도시고속도로관리소, 3월 1일부터 직접 통행료 투입(시보 2. 16)
* 부산시,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지침 마련(시보 2. 16)
* 부산시, 2월 17~20일까지 번영로・동서고가도로를 오가는 3명이상 탑승차량에 통행료 면제 해택(부산 2. 16)
* 부산시, 설연휴 특별수송기간 정해 교통수단별 운행회수 증편, 비상근무 실시(시보 2. 16)
* 부산시, 부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 발주 의뢰되어 오는 3월 중 착공(시보 2. 16)
* 부산시, 96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앞당겨 지원(시보 2. 16)
* 부산시, 95년말 가축통계조사 결과 - 소, 돼지 등 13종 81만마리가 사육, 2300군수의 꿀벌이 양봉(시보 2. 16)
* 부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발표・시행(시보 2. 23)
* 부산 사상구, 옥외광고물 정비-불법은 양성화, 돌출은 점용료 부과, 환경정화와 수익증대 효과(부산매일 2. 16)
* 구・군 종량제 본격 시행, 폐기물 톤당 8천원씩 징수, 처리시설 설치 땐 감면, 부산시-조례안 확정(부산매일 2. 16)
* 부산 학군 전면 재조정, 부산시 교육청 작업 착수-학생의 중고등학교 선택권 넓히기로, 선지원 후 추첨 확대 시행, 지역 따라 남녀공학 검토(부산 2. 16)
* 부산항 경계 속에서 중국 동포 밀항자들 절반 도주 발생-당국 공조 허술, 제보 받고도 82명 중 51명만 검거(부산 2. 16)
* 수영비행장 고도제한 해제(부산시정 2. 16)

2. 17
* 부산시장, 시민단체 회원들과 서부산톨게이트에서 '깨끗한 고속도로 가꾸기 캠페인'(시보 2. 23)

* 물금신도시 택지개발 본격화, 공구별로 발주 및 착공-내달 5일 입찰(부산매일 2. 17)
* 부산시, 교통정책을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으로 졸속 추진한다는 비난 받음, 여론 수렴없이 조례부터 제정, 시장공약 '하나로카드' 가입도 업계 난색(부산매일 2. 17)
* 설연휴 맞아 부산 250만 등 전국 2,800만명 대이동(부산매일 2. 17)
* 부산 지하철 3호선 지선공사 난항 예고, 시의 무리한 공사 단축, 정부 재정부담 거부, 2002년 개통 불투명(부산 2. 17)
* 부산시, 내주부터 지역별로 아파트 층수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ㄱ과 ㄷ'자 배치도 금지, 고지대 15층 이내로 주변과 조화 역점(부산 2. 7)

2. 20 * 건설교통부, 부산지하철 3호선 건설운영 기본계획 확정 2001년 완공(시보 2. 3)

2. 21 * 부산시, '부산주택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용역보고회 개최(시보 2. 23)
* 부산 전문박물관 잇단 건립-다도박물관 3월 부산여전에 개관, 매장문화재硏 고대사연구 큰 보탬, 전쟁사박물관 98년까지 완공 계획(국제 2. 21)
* 부산시, 녹산 그린벨트에 신도시 개발 방안 적극 추진, 강서송정과 화전동 일대 150만평 규모, 공단과 주거단지 적극 추진(국제 2. 21)
* 경찰·자선단체 마찰-북구청 신호등 설치 비협조, 동선 구분 애로, 출근길 혼잡(국제 2. 21)
* 황령산 수온은 '보통지하수'-개발 빌미로 산만 황폐화 우려, 지하 600m 파야 수온 27도뿐, 성공미미-약리효과 기대 못해(부산 2. 21)
* 부산롯데월드 안전 위협, 놀이시설 정전과 시스템고장 거듭-이용객 불안(부산 2. 21)
* 지하철 아시아드선(3호선)의 건설계획 문제점-건교부 사업승인 늦어져 공사기간 촉박, 국비확보 차질로 부산시 재원 불투명(부산 2. 21)
*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공포(제3280호)(부산교육 2. 21)
* 「부산광역시 학생 야영장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281호)(부산교육 2. 21)

2. 22 * 부산시, 부산대 지역경제개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공동체의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시행할 계획(시보 3. 2)
* 부산시, 지하철 3호선 건설 기본설계 발주(시보 3. 2)
* 부산시, 가덕항 컨테이너 부두공사와 해안순환도로 공사 등 13건 9조2295억원 규모의 공사가 올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시보 3. 2)
* 부산시, '특화산업지원 협의회' 체결식 부산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시보 2. 23)
* 부산 주택보급률 85%, 2011년까지 46만8천가구 공급(부산경제 2. 22)
* 미개설 도심순환로 연내 착공-북항해안도로, 명지대교, 제2부산대교, 부산시-내달 실시하여 기본 설계, 2001년 완료(부산매일 2. 22)
* 지하철 2호선 도로침하-차량 마구 통행시켜 자초, 가스관 묻힌 위험지반 알고도 사고 후 덧씌우기 등 눈가림 복구(부산매일 2. 22)
* 부산시민들-피부민원 여전, 감사원-민선자치 점검, 파손 인도 방치 등 구청마다 수십건(부산매일 2. 22)
* 부산 2,200만평 주택개발, 2011년까지 양산과 김해지역도 포함(부산 2. 22)
* 부산역 주변 10만평 입체 개발-고속철 건설 계기 2002년까지 조성, 간선도로 신설 북항과 연계-인공지반에 각종 업무·숙박시설 건립(부산 2. 22)
* 황령산 온천지구 승인 유착 의혹, 부산시-관련법 입법예고 4일전에 전격 처리(부산 2. 22)
* 부산지역 미술 공모전, 올해 10개 개최, 전국 18개 신설-심사제도 다양화(부산 2. 22)
* 서면지역 전력난 심화, 초대형 건물 속속 건립, 범천변전소와 지하전력구 설치 지연, 이용률 90%넘어 추가 공급 역부족(부산 2. 22)
* 서부교육청, 관할구역 서구·사하구·영도구로 조정(대통령령 제14924호)(부산교육 2. 22)

2. 23 * 부산시, 95년도 하반기 오수정화시설 지도·저검 결과 10.3%의 위반시설 적발(시보 2. 23)
* 부산시, 가스홀 연로주행시험이 큰 성과를 거두어 대체연료로 본격 활용할 계획(시보 2. 23)
* 부산시, 음식물 퇴비화사업 적극 투진(시보 2. 23)
* 부산시, 전세자금과 생업자금을 위한 저리융자계획 마련(시보 2. 23)
* 부산시, 해빙기 이전에 공사장 안전점검계획 실시(시보 2. 23)
* 부산시,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방지와 식수 및 생활용수 비상급수 대책을 위해 '물관리 상황실' 운영(시보 2. 23)

* 부산시, 각종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96녹화사업종합대책 마련(시보 2. 23)
* 부산시, '하나로 카드' 4월부터 시범 실시(시보 2. 23)
* 부산시, 매월 15일 '안전진단의 날'로 정해 가정・직장・마을 단위로 각종 재해물 대상 안전점검 실시(시보 2. 23)
* 부산시,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제도 도입(시보 3. 2)
* 부산시장, 노사단체 초청하여 시정설명회(시보 3. 2)
* 부산시,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의 날' 회의(시보 3. 2)
* 부산권 '3신-신산업, 신물류, 신관광-벨트' 개발, 유기적 연계로 효과 극대화, 동남권 경제중추도시도모(국제 2. 23)
* 부산에 첫 민간 교향악단 창단, 지휘자 최정은씨를 중심으로 '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5월 출범-50여명 참여, 정규 연주단체 표방 주목(부산 2. 23)
* 올 민자유치사업 13건 확정-부산・경남 2조9천억 투입, 가덕 컨테이너 부두・해안순환로 등, 황령산 제3터널 등 7건 자체추진 가능, 해양종합공원 등 10건은 내년에(부산 2. 23)
* 황령산 녹지 18만평 편법 매입, 수림보호 명목 허가 온천 위락단지 추진(부산 2. 23)
* 부산시, 녹산국가공단 분양가 인하 대책 마련-건교부에 요구, 국비지원도 건의(부산 2. 23)
* 남구 동국제강 부지와 매립예정지 등 20여만평 일대가 해안신도시로 개발될 전망(부산매일 2. 23)
* 부산 가덕도 컨네이너 부두와 해안순환도로 올 민자유치 최종 확정(부산매일 2. 23)
* 부산 중구~초량동을 잇는 간선로변 70만여평이 재개발, 북항 2~3부두 매립 국제업무단지 유치(부산매일 2. 23)
* 부산 아시안게임 차질 우려, 소요예산 200억 중 절반밖에 확보 못해(부산매일 2. 23)
* 부산 구봉산서 큰 불, 임야 1,200평 태우고 계속 번져(부산매일 2. 23)
* 부산 일선구청들 결손처리 체납세가 수십억원 달해 올해 심각한 재정난 예상(부산매일 2. 23)
*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개관(부산시정 2. 23)

2. 24
* 다대포항 개발 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입장 밝힐 때-공단지정연기, 해항청 등과 책임공방 예고(부산경제 2. 24)
* 낙동강 수질 사상 최악, 덕산정수장 원수 질소 농도 3.5ppm(부산경제 2. 24)
* 당감 사회복지관 개관, 600평에 5층 건물, 이웃돕기사업 등 본격 업무 개시(부산매일 2. 24)
* 부산시, 업자이익위주로 시내버스 요금 책정 일반 360원으로 13%인상, 승차권 없으면 할증료는 40원(부산매일 2. 24)

2. 25
* 아시아드 시설사업 본격 돌입, 수영정보단지와 다대항 배후로 건설 등 올부터 1조8천억 투입(부산 경제 2. 25)
* 부산 중교포기사 채용, 차량등록업무 하반기부터 우편처리, 도심 화물하역 주차구간 설정, 2,096여곳 교통표지판 정비(부산경제 2. 25)
* 부산 인구수 감소하고 가구 수 증가, 총 1,300만 가구 389만명(부산경제 2. 25)
* 부산지하철 2호선 2단계 10개 공구 토목공사 평균낙찰율 74% 불과, 전동차 공급권도 예정가의 65%서 결정(부산매일 2. 25)
*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상하수도와 교통요금 등 과다인상 방치, 여론수렴 절차 등 소홀(부산매일 2. 25)
* 광안리, 인공해수욕장 건설-부산 수영구 국내 최초로 시도, 용역발주, 관광객과 문화행사 연중유치 기대(부산매일 2. 25)
* 부산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차칠, 토지보상자금 다른데 전용, 변전소건설도 아예 백지화(부산매일 2. 25)

2. 26
* 중리뒷산 큰불 3만평 소실, 군작전지역내 지뢰매설-초기진화 실패(국제 2. 26)
* 시내버스 인상 첫날 곳곳 할증시비, 400원 요금승차 80원 오른셈, 홍보와 준비 미흡으로 출근 승객 항의(국제 2. 26)
* 올 겨울 잦은 산불 발생으로 부산 주요산 잿더미, 잇단 방화성 화재 불구하고 수사도 흐지부지, 산불방제 소극적(부산 2. 26)

2. 27
* 부산시, 정부방침에 따라 6월 7일부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시설기준과 준수 사항 예고(시보 3. 2)
* 부산시,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한 회의에서 양 도시 통상협력 의향서에 서명(시보 3. 2)
* 부산시, 부산지역 경제기관장회의 개최(시보 3. 2)
* 부산시, 초읍터널 공사를 민자로 추진 대림산업・삼성건설・국제종합건설로 확정(시보 3. 8)
* 21세기 부산발전 문화산업이 좌우 시・민간단체 테마문화운동 공동주도 필요(국제 2. 27)

* 부산시와 베트남 호치민시는 상호경제협력 강화, 무역박람회와 기술시장 상호개최 합의(부산경제 2. 27)
* 가덕신항 추진기획단 구성, 아시아드 경기장 그린벨트 내 허용(부산경제 2. 27)
* 국방부, 수영개발에 비협조 예산 1천억 결손 우려 매매계약 차일피일, 정보단지 등 착공 차질, 보급 창 이전 문제도 소극적(부산 2. 27)
* 황령산 녹지 불법매입 수사-유원지 허가과정 공무원 비호 규명, 업자-허가 없이 4만평 거래, 구청장 지시로 뒤늦게 결재, 임야 매매증명서까지 편법 발급(부산 2. 27)
* 美하얄리아부대, 전기료 30여년 특혜-값싼 산업용 적용, 국군은 비싼 일반용 물려 불평등(부산매일 2. 27)
* 동래・장산에 지뢰 방치-시민들 산행 위협, 60~70년대 매설한 뒤 현황 파악 못해 산불 진화 때도 큰 장애(부산매일 2. 27)
* 해운대 100년史 한눈에 본다 유물유적 해수욕장 등 변천상, 사진첩 발간 학교 등 배포(부산매일 2. 27)

2. 28
* 김해~사상 경전철 노선 변경 서연정~대저역 구간연결(부산경제 2. 28)
* 부산 2월 물가상승률 전국 최고 0.6%올라 6대 도시 평균보다 0.2%P 웃돌아, 과일과 수도료 등 주도-억제선 달성 어려울 듯(국제 2. 28)
* 해운대개발 수익 뜬구름-상업용지 매각 부진, 자금회수 불투명, 지하철과 광안대로지원 난관, 은행부채 천억 넘어 악순환(국제 2. 28)
* 육성회비 내년 폐지 부산 교육청 국교 첫 완전 의무교육(국제 2. 28)
* 다도박물관 부산 첫 개관-부산여자전문대학 내 300여평 규모로 전통 다기 망라(국제 2. 28)
* 부산 일선洞행정 엉성-업무처리 미숙, 법규숙지 미흡, 과세 누락과 공사비 과다지급 등 예사, 종합 감사서 무더기 적발(부산매일 2. 28)
* 일제 침략상징 건물 곳곳에-부관 美문화관과 금강공원기념비 등 건재(부산매일 2. 28)
* 나주~부산 구간 등 총 29개 도로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부산매일 2. 28)
*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1,600억 투입 98년 공사 연말까지 4차선 확장(부산매일 2. 28)
* 부산 서구청, 암남공원 단장 박차-해안산책로와 각종 편의시설 등 확충, 천혜관광지 4월 개방(부산매일 2. 28)
* 부산 서구청, 야간 주차공간 확충-산복도로 개구리식 허용지역 늘려, 노상 유료주차장 무료화(부산 2. 28)
* 산불진화 뒷수습 허점, 중리산 2차 발화 피해(부산 2. 28)
* 부산지방중소기업청 개청(부산시정 2. 28)
* 전국 최초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추진 방침 발표(부산교육 2. 28)

2. 29
* 부산시, 동아시안게임의 개최를 위해 경기장 개・보수 등 본격 준비작업(시보 3. 8)
* 부산 땅값 2년 연속 강보합세(국제 2. 29)
* 동아시아대회 3류 전락 조짐 육상 보조경기장 없고 시설 대부분 노후화, 예산부족 국비지원 전무 시 예산 충당해야(국제 2. 29)
* 민자유치 터널사업 활기-도시계획시설 결정, 업자선정 내년 착공(국제 2. 29)
* 초읍터널 민자투자 확정, 내달초 부산시와 공사시행 협약 체결(부산매일 2. 29)
* 수입불가능한 수산물 내국물품으로 위장 반입 성행, 세관-성진수산 등 압수수색(부산매일 2. 29)
* 공사 빌미 횡포 심해-동백섬 일대 부두설치 추진으로 경관 훼손, 시민불편・기관협의도 무시(부산매일 2. 29)
* 부산지검, 해양전담 검사제 신설-오염과 선박사고 등 대처, 부산지법-민사합의부를 특별부로 개편(부산 2. 29)
* 대낮 우체국 앞 노상강도-현금 1억5천여만원 강탈-직원 2명 쇠파이프 피습(부산 2. 29)
* 정부-상류 오염방지 비용을 하류지역으로 분담, 이에 부산시는 절대 불가로 강력 반발(부산 2. 29)
* 초읍터널 공사 본격화-부산시 대림산업 컨소시엄팀 사업자 선정(부산 2. 29)

3. 1
* 부산시, 구포고가교・안락과선교에 대해 1일부터 통행 제한(시보 3. 2)
* 부산시, 스티로폴을 재활용품으로 규정하여 수거(시보 3. 2)
* 부산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77주년 3・1절 기념행사(시보 3. 2)
* 부산시, '부산 3・1독립운동기념탑' 제막식을 동래구 명장동 마안산 정상에서 거행(시보 3. 2)
* 금정산 휴식년제 실시(부산시정 3. 1)
* 부산 3・1독립운동기념탑 제막(부산시정 3. 1)
* 3・1 독립운동 기념탑 제막식(복천동 마안산 정상)(부산교육 3. 1)
*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부산교육 3. 1)
* 6개 지역교육청 관할 구역 조정 학교 신설 개교 유치원 1원 개원(전포-최초 공립 독립 유치원)(부산교육 3. 1)

- 초(7) : 대천리, 다송, 봉삼, 송운, 중현, 좌동, 좌산
- 중(2) : 대천리중, 부흥중
- 고(1) : 서부산공고

* 동서공과대학교, 동서대학교로 교명 변경(부산교육 3. 1)

3. 2
* 부산시, 부산 총인구수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핵가족화 현상으로 세대수는 증가(시보 3. 2)
* 부산시, '선거홍보물 재활용대책' 마련(시보 3. 2)
* 부산시, 3월을 '안전사고 예방의 달'로 설정(시보 3. 2)
* 부산시, 해운항만청 등과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가덕도 개발사업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부산 3. 2)
* 부산시, 시정동정 - 2월 28일, 부산지방 중소기업청 개청식에 참석 / 2월 26일, 베트남 호치민시와 통상협력 증진방안 협의, 주한 남아프리카 대사와 경제관련사항 협의 / 2월 24일, 시 새마을부녀회 96 정기총회 참석 / 2월 23일, 일본 에지마기요시 시장 등 3명 접견(시보 3. 2)
* 부산시,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설치하여 24시간 운영(시보 3. 2)
* 부산시, 장애인 경기대회 개최 26개 직종(시보 3. 2)
* 부산시, 비법정 생활보호자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직업훈련·의료지원 강화(시보 3. 2)
* 부산시, 전간부공무원 '시정현장시찰제' 실시(시보 3. 2)
* 부산시, '자랑스런 공무원상' 제정(시보 3. 2)
* 부산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콘텍트렌즈에 대한 유통판매 지도·점검(시보 3. 2)
* 부산시 환경보호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판생수 대상으로 수질검사 실시(시보 3. 2)
* 부산시, 성수기 맞아 유원지 놀이시설 안전 점검(시보 3. 2)
* 부산시, 해빙기 공사장 위해사항 진단, 공동주택 등 대상 가스사고도 점검·관리 철저(시보 3. 2)
* 부산시, 자치법규 행정규칙 대폭 정비하여 적법행정기반 구축 예정(시보 3. 2)
* 북부·해운대교육청 개청(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행령 제14924호)(개청식 : 북부 26일, 해운대 23일 각각 11시)(부산교육 3. 2)

3. 5
* 부산시, (주)부산국제종합전시장 사무실 열림(시보 3. 8)
* 부산국제종합전시장 개소(부산시정 3. 5)

3. 7
* 부산시, 금호강 유역 및 낙동강 중상류 일부지역을 '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 의(시보 3. 8)
* 부산시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 부산시의회 제53회 임시회 개회(시보 3. 8)
* 부산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위락건축물에 의무적으로 문화예술 공간 설치를 권장(시보 3. 15)
* 부산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부산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사무처리지침'을 의결(시보 3. 15)
* 부산시, 위천공단 조성저지를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시보 3. 15)
* 부산시, 북항통과구간 교량 우선착공 계획(시보 3. 15)
* 부산시, 해양청 회의실에서 가덕도 개발안 확정(시보 3. 15)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개관(부산시정 3. 7)

3. 8
* 부산시, 15대 총선 앞두고 법정선거사무 돌입(시보 3. 8)
* 부산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견인자동차 불법영업단속 실시(시보 3. 8)
* 부산시, 간부회의 운영개선을 통해 지시위주의 운영을 탈피하고자 함(시보 3. 8)
* 부산시, 95세입목표 조기달성(시보 3. 8)
* 부산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물버스가 매연배출 주류(시보 3. 8)
* 부산시,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4일부터 7월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전산교육 받음(시보 3. 8)
* 부산시, 불법·불량 의료용구 근절(시보 3. 8)
* 부산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시 노동부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운영(부산 3. 8)
* 부산시,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위해 현장위주의 감독 강화(시보 3. 8)
* 부산시, 96시정목표 설정하여 30대 현안사업 등과 연계 실시(시보 3. 8)
* 부산시, 기능장려법과 이업시행령에 의거하여 96년도 영장·우수지도자 및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를 정부에 추천(시보 3. 8)
* 부산시, 부산의료원, 도시개발 공사 등 3개 지방공사·공단은 원가절감과 책임경영체제 도입 등을 통해 경영 상태를 개선(시보 3. 8)

* 부산시, 23종의 지적업무에 대해 전산시스템화 도입(시보 3. 8)
* 부산시장,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천공단조성에 대한 부산시 입장을 표명(시보 3. 8)

3. 9 * 부산시, 올해 상·하반기 취로사업 세부지침 시달 자립·자활능력에 기여(시보 3. 15)

3. 10 * 독학 학위 취득 시험(동래중)(부산교육 3. 10)

3. 11 * 부산시의회, 제53회 입시회 본의회 개최(시보 3. 15)

3. 12 * 부산시의회, '위원공단 조성에 대한 경고 결의문' 채택(시보 3. 15)
* 부산시, 해방기 공원시설물 안전점검(시보 3. 22)

3. 13 * 부산시, 국제청년회의소(JCI)부산세계대회를 지원할 자체세부계획 시달회의 가짐(시보 3. 22)

3. 14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산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보 3. 15)

3. 15 * 부산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오는 31일까지 발급(시보 3. 15)
* 부산시, 새농지법과 상충되는 규정 완화 농지매입자 거주요건 등 완화(시보 3. 15)
* 부산시, 재활용 수집장려금을 올해 2억1천만원으로 책정(시보 3. 15)
* 부산시, 가족산책공원을 98년까지 3년간 239개 전동에 조성(시보 3. 15)
* 부산시, 부산지역언론사의 후원을 받아 시민제안제도를 운영(시보 3. 15)
* 부산시, 응급구조단을 사칭하는 불법행위 단속(시보 3. 15)
* 부산시,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업무 전산화(시보 3. 15)
* 부산시,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농산물에 대한 서약서 징수현황을 통보받아 유통과정 추적 조사 때 저극 용(시보 3. 15)
* 부산시, 검찰청과 합동으로 견인업체 불법단속(시보 3. 15)
* (주)부산극장 대표이사 박제민씨, 아동청소년회관에 장학금 등 지원(시보 3. 15)
* 부산시, 불우가정 자녀위한 학비지원 계획 마련(시보 3. 15)
* 부산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 장애인 등에 지원 확대(시보 3. 15)
* 부산시, '도시민 농사짓기 지원창구' 설치·운영(시보 3. 15)
* 부산시, 각종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부산관광공사' 설립 가시화(시보 3. 15)
* 부산시, 최근 중국교포들이 국내에 불법 집단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어 위반어선의 단속을 강화(부산 3. 15)
* 부산시, 어린이들을 '환경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운영(시보 3. 15)
* 부산시, 해빙기 위험에 대비하여 취약시설에 일제점검 실시(시보 3. 15)

3. 18 * 부산시의회,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안' 의결(시보 3. 22)
* 부산시, '시정경영진단' 최종보고회 개최(시보 3. 22)
* 부산발전연구원, 낙동강 수질보전대책을 분석·검토하기 위한 워크샵 개최(시보 3. 29)

3. 20 * 부산시, '새봄맞이 국토 대청결운동' 전개(시보 3. 22)
*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의 일정과 경기종목이 최종 확정(시보 3. 29)

3. 21 * 부산시, 구포대교 조형물 제막(시보 3. 22)
* 부산시장, '시민과 시장이 직접 대화하는 날'을 맞이하여 일반시민과의 대화(시보 3. 29)
* 부산시, 美 하얄리아 부대와 이전합의(시보 3. 29)
* 부산시, 구포대교 개통 기념 '밝은 미래와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부산시민'을 형상화한 조형물 제막식(시보 3. 29)
* 미 하얄리아부대 이전 합의(부산시정 3. 21)

3. 22 * 부산시, 96년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융자계획 및 사업 공고(시보 3. 22)
* 부산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남포역 등 6개 지하철역에서 절수형 수도용구의 설치와 사용요령 안내(시보 3. 22)
* 부산시,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명의신탁 부동산 정리를 당부(시보 3. 22)
* 부산시, 15대 총선 부재자신고 24일까지 접수(시보 3. 22)
* 부산시, 각종 국제행사 대비하여 도시미관을 조성(시보 3. 22)
* 부산시, '96중소기업 수출기업화' 대상업체를 3월 23일까지 모집(시보 3. 22)
* 부산시, 시정동정 시장 3월 19일, 96체육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 참석, 환경기술·산업개발 연구센터에 참석 3월 20일, 라이온스 309-B지구 총재단과 환담, 시 의사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 부시장 - 3월 20일, 동아시아 상품전시회 참가 협조 등을 논의, 여성정책 자문위원회·아시아경기장 관련 추진 상황 보고회 주재(시보 3. 22)

* 부산시,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 연 1회이상 점검(시보 3. 22)
* 부산시, '기획정보' 매일 제작 각 실・국장에 배부(시보 3. 22)
* 부산시, 부산~김해 간 경전철 차량 시스템 선정(시보 3. 22)
* 부산시, '동아시아 상품교역회'에 부산관을 개관하기로 하고 참가업체 모집(시보 3. 22)
* 부산시, 4월 1일부터 '토요전일 근무제'를 전부서로 확대 실시(시보 3. 22)
* 부산시, 2002년 아주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 기공식(시보 3. 22)
* 부산시 시설안전관리본부, 25일부터 한달간 부산터널 보수로 교통 통제(시보 3. 22)
* 부산시, 지하수개발 이용 실태조사 자료의 전산화 추진(시보 3. 22)
* 부산시, 삼성전자와 장애인 복지시설에 특수차량 지원(시보 3. 22)
* 부산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개최(시보 3. 29)
* 부산시, '신교통도시 부산 2002' 워크숍 심각한 교통난 해결방안 등 모색(시보 3. 29)
* 해운대경찰서 해운대파출소를 중1동 파출소로, 중동파출소를 중2동 파출소로 개칭(지방청 훈령 73호)(경찰사 3. 22)

3. 25 * 부산시, 아시아경기 주경기장 기공식 개최(시보 3. 29)
* AG주경기장 착공(부산시정 3. 25)

3. 26 * 부산시, '바람직한 아파트문화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시보 3. 29)
* 부산시, 생곡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완공되어 4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매립 시작(시보 3. 29)

3. 27 * 부산시, 부산지역 최초 성교육 전문기관이 국제문화센터 4층 소강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정식 출범(시보 3. 29)
* 부산시,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식품단속 위반업소에 대해 28일까지 양일간 단속 실시(시보 4. 6)

3. 28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제3282호)(부산교육 3. 28)

3. 29 * 부산시, 해상교통수단 추가확보를 위해 바다버스 3척 증편 운항(시보 3. 29)
* 부산시, 신호공단 조성에 따른 보상협의가 타결(시보 3. 29)
* 부산시, 1단계 이전대상인 부대 내 5만평 2,400세대 규모의 선수・임원 선수촌 건립을 계획(시보 3. 29)
* 부산시,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확정 158건, 2억8천만원(시보 3. 29)
* 부산시, '하나로 카드' 4월 6일부터 첫선 6월말까지 시범 운영(시보 3. 29)
* 부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등급을 사업체 정문 오른쪽에 부착하게 하는 '환경등급실명제' 도입(시보 3. 29)
* 부산시, '부산암남공원' 4월 5일에 개방(시보 3. 29)
* 부산시, 조직활성화 위한 인사운용, 근무환경 개선 등의 시책을 시행(시보 3. 29)
* 부산시, 제15대 총선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부분으로 금지・제한(시보 3. 29)
* 부산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기' 추진(시보 3. 29)

4. 1 * 부산시, 생곡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반입 시작(시보 4. 6)
* 부산시, 해운대~부산역 간 도시통근열차 운행 시작(시보 4. 6)
* 승용차 이용억제 최대현안, 시민들은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로 승용차의 과다한 이용을 꼽고 있으며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교통시설공급이 최우선 돼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부산 4. 1)
* 가덕신항만 수주전 점화, 가덕도 신항만의 건설 일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업 참여를 준비해왔던 업체들의 수주전이 본격화(부산, 국제 4. 1)
* 둔치도 연료단지 부산업체 입찰 원천봉쇄,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이 둔치도에 연료단지 조성 사업을 벌이면서 부산지역 업체의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봉쇄시켜 지역 업계의 반발을 사(국제 4. 1)
* 하나로카드 시범운영(부산시정 4. 1)
* 생곡쓰레기매립장 가동(부산시정 4. 1)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계획」 수립(부산교육 4. 1)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분장 규칙 제353호 3국 3담당관 11과 43계(부산교육 4. 1)

4. 2 * 벽산 강변타운 상가 소유권 이전 늑장, 북구 화명동 벽산강변타운 상가 내 점포주들이 사업시행 업체와 분양업자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완납하고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피해를 입어(부산 4. 2)

* ASEM 부산유치단 설립, 부산시내 각 기관과 단체들이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의 부산 유치를 위해 2000년 ASEM 부산유치 전략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 유치전에 돌입해(국제 4. 2)
* 부산연극제 개막, 4개 극단 기량 겨뤄, 제14회 연극제가 오늘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의 연극축제에 돌입해(국제 4. 2)
* 택시 불친절 시민원성 높다, 시민들은 택시 불친절에 대한 원성이 드높으며 고급택시 증차에는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부산매일 4. 2)
* 생곡쓰레기장 큰 혼란, 시범매립 등 사전준비 부족과 각종 시설미비 등으로 부실가동이 우려되던 부산 생곡 쓰레기매립장이 예상대로 개장 첫날인 1일부터 쓰레기 매립작업에만 2~3시간씩 지체되는 사태를 빚는 등 큰 혼란을 낳아(부산매일, 국제 4. 2)
* 시 교통정책 설문조사, 시 총체적 교통관리 실패, 10부제 카풀 등 미적미적, 체증 따른 시민 불편 여전(부산경제 4. 2)
* 부산국제영화제 이렇게, 홍콩국제영화제를 보고 , 운영요원 등 전문가 양성 시급, 프로그래머 독립성 보장이 성패 좌우(부산 4. 2)
* 을숙도 자연생태공원 조성, 매립이 끝난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이 대규모 복원사업을 통해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돼(부산 4. 2)

4. 3
* 부산시, '하나로 교통카드' 시험 운영(시보 4. 6)
* 지하철 수영로 구간 16일부터 2개차로 차단, 오는 16일부터 부산 지하철 2호선 2단계 수영로 구간이 현재 1개 차로에서 2개차로가 차단돼 극심한 체증이 예상돼(부산 4. 3)
* 부산대 암 연구소 개소, 부산대학교는 암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부산대학교 암연구소를 설립 2일 오후 개소식 및 기념학술강연회를 부산대병원에서 가져(부산 4. 3)
* 만덕 3지구 택지개발 본격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북구 만덕 3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해발 2백m 이상 고지대 2만7만평을 제외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돼(부산 4. 3)
* 기장에 아시아드 골프장, 오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골프장이 27홀 45만평 규모로 기장군에 조성돼(부산경제 4. 3)
* 극동볼링대회 성대한 개막, 동아시아 7개국 110명 참가 오늘 열전 돌입, 2일 오후 2시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남산볼링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3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7일까지 5일간 본격 레이스에 돌입해(부산경제 국제 4. 3)
* 부산건설업계 부도 회오리, 올 들어 부산지역 건설업계가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업체 수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 등이 겹쳐 기록적인 부도사태에 휘말려(국제 4. 3)
* 생곡매립장 졸속 개장 후유증 걱정, 당국의 준비소홀과 각종 시설미비 등으로 개장 첫날부터 매립지연 등 많은 문제를 보인 쓰레기 매립장은 그동안 가장 문제가 돼 온 접근도로 공사가 두달여동안 감리도 없이 시공된 것으로 나타나(부산매일 4. 3)
* 하나로 카드 오늘부터 시험, 부산에서 한 장의 카드로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를 탈 수 있는 하나로 교통 카드의 시범운영이 3일부터 시작돼(부산 4. 3)
* 용두산 전망타워 등 민자 사업 시행확정, 부산 용두산 공원 재정비사업이 전망타워 및 문화예술관은 민자 유치 그 밖의 광장산책로 노인정 등은 공공사업으로 시행키로 확정돼 본 궤도에 오르고 있어(부산 4. 3)
* 대형건물신축 엄격 통제, 부산전역의 도시 스카이라인 및 최고 최저 고도지구 지정을 위한 체계적 용역사업이 오는 5월 중 부산에선 처음으로 시행돼(부산매일 4. 3)
* 자갈치 문화관광 축제, 국제행사 승격, 시의 자갈치 축제, 광복로 축제, 용두산 문화축제 등이 올해부터 부산 자갈치 문화관광축제로 통합돼 국제적인 축제행사로 다시 태어나게 돼(부산매일 4. 3)

4. 4
*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2002년 아시안게임 생산유발 효과 132조원, 안 사무총장 'AG와 부산발전' 강연(시보 4. 12)
* 부산수출 엔화결제 많다, 부산지역 수출은 대상국이 일본이나 엔화결제비중이 높은 아시아지역 수출 전체의 절반을 넘어 달러화보다 엔화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부산경제 4. 4)
* 부산항 안전관리 대폭강화, 항만내의 유류저유업체에 안전관리자 고용이 의무화되는 등 부산항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돼(부산경제 4. 4)
* 부산시 상수도 사업 본부, 수돗물이 안 팔린다, 부산시민 1인당 하루 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93년 4백29L에서 94년 4백22L 95년 3백97L로 부로가 2년 사이에 29L나 급감해(국제 4. 4)
* 암남공원 내일 개발, 부산 서구 암남동 산 61일원 암남공원이 5일 식목일에 맞춰 개방돼 30년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국제, 부산 4. 4)

* 휴대폰도 총선 몸살, 선거운동원 사용 폭증, 중계회선 부족 불통 통화중단 속출, 한국이동통신이 지난 2월 가입비를 인하한 이후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데 선거운동원들의 이동전화 사용이 폭증(부산 4. 4)
* 교통요금 지불수단 대혁신,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하나로 교통카드가 3일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실용화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와(부산 4. 4)

4. 5
* 부산시, 제51회 식목일 행사 시행(시보 4. 6)
* 부산시, 암남공원 개방 행사(시보 4. 6)
* 부산시민단체등 대기업 M&A 공동대응,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향토기업과 시민단체들은 최근 지역 경제계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기업인수 및 합병에 공동 대응키 위해 이 달 안으로 향토 기업을 지키기 위한 대규모 협의회를 구성키로(부산매일 4. 5)
* 암남공원 시민개방(부산시정 4. 5)

4. 6
* 부산시, 부산시민들은 교통난을 유발하는 큰 원인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지나친 이용을 들고 있으며 승용차 소유세대의 90%가 10부제 실시를 찬성(시보 4. 6)
* 부산시, 시청 1층에 '시정홍보실' 설치하여 시정홍보 활성화에 기여(시보 4. 6)
* 부산시, 96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운용계획(시보 4. 6)
*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도개공이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품질보증서를 발급(시보 4. 6)
* 부산시, '하나로 카드' 시험운행 결과 유료도로 논스톱 통과, 체증완화 효과, 대중교통 이용편리, 할인 요금 적용 등(시보 4. 6)
*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종합전산화 사업자로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가 선정(시보 4. 6)
* 부산시, 4개지역 '센터' 세워 연계 - 범시민 자원봉사 운동 펼침(시보 4. 6)
* 부산시, 국제경기용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시보 4. 6)
* 부산시, 4월을 '공명선거 실천의 달'로 선정(시보 4. 6)
* 부산시,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부산지역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96년 수출촉진자금 20억원 융자(시보 4. 6)
*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식후원 은행으로 한국상업은행을 선정(시보 4. 6)
* 부산시, 매·화장신고와 영락공원 장묘시설 이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체계를 개선(시보 4. 6)
* 부산시, 영지주거단지 선수공급 착수(시보 4. 6)
* 부산시, 도시환경 시범지역 선정(시보 4. 6)
* 부산시, 맑은물 유지를 위해 '1사 1하천 운동'을 추진(시보 4. 6)
* 부산시, '시민 꽃심기 운동' 전개(시보 4. 6)
* 부산시, 고지대는 15층, 평지는 25층 이하로 층수 및 고도를 제한하기로 확정(시보 4. 6)
* 부산시장, 제28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시보 4. 12)
* 둔치도 연료단지 조성 반발, 올 상반기에 착공 예정인 둔치도 연료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이곳 주민들이 「승마장 동시착공」을 요구하며 현장 설명회를 저지키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마찰 우려(국제 4. 6)
* 백화점·병원·호텔 등 부실 건축 때 지자체장 시공자 교체, 내년부터 민간건축물 공사라 하더라도 다중이용 건축물일 경우 공사인허가 기관이 시공자의 적격 여부를 따져 시공자 교체 가능, 설계·감리 손해배상 보증제 도입(국제 4. 6)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컨」 공단 기구 대폭 개편, 하역장비 도입·보수 전담 자회사 설립, 재원팀·개발팀 구성 1천억 예산 조달(국제 4. 6)
* 부산에 「동학 연구소」 첫 설립, 부산 예술 학교 오는 5월 공식 출범, 국내외 산재 희귀자료 수집정리 작업, 학회결성·논집 제작 이론적 토대 기대(국제 4. 6)
* 2개 차로 차단 수영로 5.8㎞ 구간 버스 전용차로제 도입 논란, "혼잡 부채질" 시민 반발, 「편도 3차로 이상」 건교부 지침 위반(국제 4. 6)
* 신호 공단 2공구 개발 가속화, 삼성차 부지 제외 42만평 보상 확정, 98년까지 조기 완공, 신호공단 중 삼성자동차 공장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 42만평에 대한 보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돼 신호공단 2공구 개발 가속화(부산 4. 6)

4. 7
* 부산시, 21세기 주거 환경 청사진 만든다, 아시아드 등 연계 「개선안」 마련키로, HABITATⅡ에 대표단 파견(부산경제 4. 7)
* 부산항 「컨」 물량 회복세, 신선대 부두에 집중 체선율 심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던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최근 회복세 보여(부산경제 4. 7)

* 동래역세권 개발, 동해 남부선 구간 고가화 확정, 금명 도시 계획 변경, 부산~울산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 가운데 세병교~안락동~원동 IC 구간이 고가화로 결정, 남북으로 놓인 철로 때문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었던 동래역 일대가 역세권으로 본격 개발될 전망(부산경제 4. 7)
* 부산 5개월만에 무역 역조, 지난 1~2월 중 부산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손질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연초부터 무역 수지 악화 조짐 나타나(국제 4. 7)
* 부산시, 재특 자금 아시아드 지원 건의, 「국비 50%」 수정 돈 따내기 다각화, 내년부터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에 대한 본격적 투자 시작됨에 따라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 저정투자특별회계자금(재특자금) 가운데 일정액을 아시안 게임에 지원토록 재경원에 건의 하는 등 재원조달 위해 총력전 펴고 있어(국제 4. 7)
* "공명 실천" 곳곳 걷기 대회, 부산 YMCA 시민회·공선협 행사, "지역 감정 선동후보 투표 말자", 태종대·수영만서 결의문 배포(국제 4. 7)

4. 8
* 부산시, 수영비행장 부지 29만평을 감정평가 가격인 3,352억원에 5년 분납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국방부와 매매계약 체결(시보 4. 12)
* 부산시, '소하천 오염원 및 배출량 조사' 계획을 확정짓고 5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내 69개소하천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시보 4. 12)
* 부산시교육청, 부산 22개 초등교 통폐합, 전교생 도심 6백명·농어촌 180명 이하, 폐지학교 동문·학부모 반발 클 듯, 내년부터 오는 2000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시내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키로하고 대상 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 나서(국제 4. 8)
* 부산 대표적 유원지들 놀이 시설 사고 우려, 부품 낡고 관리마저 소홀, 자유랜드 등 4곳 내무부 점검서 적발, 태종대의 자유랜드를 비롯한 부산지역 대표적 유원지의 놀이시설 상당수가 언전장치 부실하거나 감전사고 우려 등으로 이용객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부산매일 4. 8)
* 부산시, 내달 최대 규모 조직 개편, 지방자치시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춰 추진한 조직개편 작업 사실상 마무리, 이번주 중 내무부 승인 거쳐 5월 초순께 시의회 임시회에서 관계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 단행할 예정(부산 4. 8)
* 이축권 불법 거래 성행, 법 맹점 틈타 투기 목적 악용, 기장 시 편입 이후 60건, 해안 경관 크게 훼손…법 재정비 시급(부산 4. 8)
* 부산 기업 99.2% 중기, 부산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종업원 수 77.2% 지역 총생산액의 68.9% 차지(부산 4. 8)
* 선관위, 투·개표 비상근무 돌입, 인력 총동원 막판 불법 단속, 10일까지 투표소 설치 완료키로, 부산·경남 등 전국 시·도 선관위는 8일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투·개표 관리준비 사항 최종 점검하는 등 24시간 비상근무 체제 돌입(부산 4. 8)
* 한국 금 8개 종합 우승 "금자탑", 극동 볼링 폐막 남 변호진 「은」 추가…일본 금 4개 2위, 한국이 제13회 극동볼링 선수권 대회에서 종합 우승 차지(국제 4. 8)
* 수영비행장 매매계약 체결(부산시정 4. 8)
*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의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288호)(부산교육 4. 8)
*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중 개정 조례 공포(제 3289호)(부산교육 4. 8)
* 「부산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실비 보상 조례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290호)(부산교육 4. 8)
*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291호)(부산교육 4. 8)

4. 9
* 부산시장, '대한의사회 부산시지부 신임회장단' 취임인사 방문 받음(시보 4. 12)
* 부산시, 「위천」 저지작업 구체화, 최근 대구시가 건설교통부에 내년 위천국가 공단 지정 신청과 관련 건교부의 수질 평가 자문단 활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계획 및 허실에 대한 분석의견과 부산시 입장을 해당 위원에게 전달하는 등 「위천공단 조성 저지」 작업 구체화(부산매일 4. 9)
* 지자체 재정자립 "요원", 예산 확보난·신규 사업 개발 부진, 지자제 출범한지 10개월째 맞고 있으나 재정자립도 확충 위한 일선 구·군의 경영수익사업은 예산 확보난과 신규 사업 개발 부진 등으로 제자리걸음(국제 4. 9)
* 부산시, 청소 위생 사업 공기업화, 만성 적자·전문성 부족 개선, 특별회계로 수지 관리, 재정자립·경영능력제고 추진(국제 4. 9)

* 부산지방철도청, 동해 남부선 통근 열차 증편 운행, “소음 대책 없다” 주민 반발, 지난 1일부터 방음벽 설치 등 근본대책 없이 동해남부선 통근열차 운행에 들어가 철로변 주민들 반발(부산매일 4. 9)
* 부산시·국방부, 「수비」 매매계약 체결, 2001년 6월 인수 29만평 땅값 3천3백52억 결정, 국제 전시장 부지 5만평은 대토(代土)(국제 4. 9)
* 중구청, 「백산기념관」 홍보 책자 제작, 백산 안희제 선생의 항일독립정신을 기념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한 「백산기념관」 홍보 책자 제작·시민들에게 배부(부산매일 4. 9)
* 신용 금고 금리 인하, 부산지역 상호신용금고들이 시중실세금리 하향안정세에 맞춰 예금과 대출금리를 0.5~1.5% 포인트 낮추고 신용대출 대폭 늘리기로(부산경제 4. 9)
* 장애인 2만명 투표 불능, 4·11 총선의 부산 지역 투표소 중 상당수가 2층이나 지하에 있거나 동일 건물 내 2개씩의 투표소가 설치돼 투표당일 부산지역 2만여 중증장애인이 주권행사 못해(국제 4. 9)
* 수비 땅 시민 품에 돌아왔다, 부산시·국방부 29만평 매매계약 체결, 군사시설 54년만에 “마감”, 땅값 3천3백억원 5년간 분납키로(부산 4. 9)
* 부산 무역 수지 첫 역조, 올 들어 부산지역 손질액이 수출실적을 넘어서 사상처음으로 무역 수지 역조 현상 나타나(부산 4. 9)
* 지하철 2호선 서면~호포 구간 궤도 공사 이달 착수, 서면~호포 간 22.17㎞를 잇는 지하철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중 레일을 부설하는 궤도 공사가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작(부산매일 4. 9)
* 수영로 버스 무료 환승제 도입을, 자가용·택시 승객 흡수 체증 해소 도움, 교통연 「부산시 교통관리」 2차 보고, 부산의 주요 간선로인 수영로가 지하철공사로 사상 최악의 체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의 이용률을 높이고 승객 편의와 업체의 경영합리화 위해서 이 구간에 버스 무료 환승제와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 제기(부산 4. 9)
* “기장군을 세계에 알립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서비스 시작, 군 역사 현황 관광명소 특산물 등 소개, 영어 한글 제공 지도 사진도 함께 담아(국제 4. 9)
* 부산시·국방부, 「수비」 개발 본격화, 매매계약 체결, 35만평 3천3백52억에 합의, 정보 업무 복합단지 2001년 완공(부산매일 4. 9)
* 일반 시험 승진 제도를 심사 승진 제도로 개선(부산교육 4. 9)

4. 10
* 부산청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 활동 돌입(시보 4. 12)
* 공무원 1인당 주민 부산시 전국서 최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5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아 각종 행정 서비스 수준 낙후 우려(부산 4. 10)
* 회동 수원지 주변 규제 풀린다, 환경정비구역 지정 건물 신축 허용, 부산 금정구 회동 수원지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에 하수처리장과 공동우수정화 시설 축산폐수 처리 시설 등 설치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돼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규제 완화 돼(부산 4. 10)
* 부산 상의, 면접장 개설, 구인업체와 구직자 즉석에서 연결시켜주는 「상설 면접장」을 오는 5월 1일부터 상의 내에 개설(국제 4. 10)
* 부산시, 가덕연륙교 일부 침매터널 건설, 대죽도 구간까지 추진, 군 작전지역 확보…국방부도 긍정적, 가덕~거제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이 국방부의 반대로 전 구간 해상교량이 어렵게 되자 군 작전지역에는 침매터널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바꿔 추진키로(국제 4. 10)

4. 11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부산시정 4. 11)

4. 12
* 부산시, ‘중소기업 시설개체자금’ 융자신청을 접수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94억6100원을 신청(부산 4. 12)
* 부산시, 제24회 보건의 날을 맞아 시민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들에게 표창(시보 4. 12)
* 부산시, ‘아시안위크’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시보 4. 12)
* 부산시, 공공용재산의 적극적 관리계획 마련 실태조사 나섬(시보 4. 12)
* 부산지방병무원, ‘병무행정 HOME 서비스’를 확대 실시(시보 4. 12)
* 부산시, 수영부지 매매계약 체결로 부산시의 수영정보·업무복합단지 개발이 본격 추진(시보 4. 12)
* 부산시, 15일부터 20일까지 ‘공중화장실 청결 주간’으로 설정하여 운영(시보 4. 12)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의 토지가 종합 건설본부 신청에 의해 각 아파트 및 시설별로 신 지번이 부여(시보 4. 12)
*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수영구 민락동 매립지 일대 4만여평을 인공 해수욕장 등을 갖춘 종합해양 관광단지로 개발(시보 4. 12)

* 부산시 주차관리공단, 미납요금 발생시 기존의 미납확인증제 대신 납부고지서를 즉석에서 발부(부산 4. 12)
* 부산시, '맨홀' 교통사고 유발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시보 4. 12)
* 부산시, 보건분야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에 대한 포상 실시(시보 4. 12)
* 부산시, 시민회관대강당에서 제1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시민대축제 개최(시보 4. 12)
* 부산시, 해빙기 환경시설 안전점검과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시보 4. 12)
* 부산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체, 건물 및 가정에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시보 4. 12)
* 부산시, 용두산 공원에 부산을 상징하는 '시민의 종' 건립(시보 4. 12)
* 부산시,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 중 수영로 구간의 건설공사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부산 4. 12)
* 부산시, 96한・러시아 청소년 교류단을 구성하여 파견(시보 4. 12)
* 부산시, 2002년 아시안게임 및 21세기 광역권개발계획과 연계한 지역주거환경 개선안을 마련(부산 4. 12)
* 부산시, KOTRA와 함께 '96수출기업화' 업체 14개를 새로 선정하여 지원(시보 4. 12)
* 부산시,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식품업소 관리에 박차(시보 4. 12)
* 부산시, 사회기강 확립에 행정력 집중 - 불법건축・GB 불법훼손행위, 심야・변태 영업 등 기동단속(시보 4. 19)
* 부산시장, "선거분위기 벗어나 화합" 당부(시보 4. 19)
* 4・11총선, 신한국 "선전" 139석, 과반엔 미달…부산 완전 석권, 국민회의-수도권 부진 79석 그쳐, 자민련-대구서 대승 50석 약진, 야권 개편 불가피(국제 4. 12)
* 4・11 총선, 1백22곳 당선 확정 "선전", 신한국 「과반」 근접, 국민회의 67・자민련 39・무소속 16석, 민주는 9석 머물러 교섭단체 무산, 부산서는 21곳 완전 석권(부산매일 4. 12)
* 부산, "관광・항만・제조업 주력", 21세기 전략업종 선정,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 등 대책 마련, 관광항만 관련 사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 통한 제조업을 21세기 부산경제주력산업으로 선정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 나서(부산매일 4. 12)
* 올해 「부산 미술제」 17일 열려, 29일까지 문화회관・시민회관 전시실서, 458명 출품 사상 최대 규모, 시민 관심 끌 이벤트 사업 과제(부산 4. 12)
*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계획 수립(부산교육 4. 12)

4. 13
* 부산시, 새봄맞이 환경 정화 3대 시민운동과 연계하여 추진(시보 4. 19)
* 대한주택건설업협회 부산시회, 서부산권 개발과 관련하여 조성중인 명지주거단지의 선수공급 대상 부지 80%가 지역업체에 분양(시보 4. 19)
* 부산 관광 개발(주) 설립, 부산을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가꾸기 위한 부산 관광개발공사가 회사명・자본금・기구・사업계획 등 구체화하는 등 설립 본격화(부산경제 4. 13)
* 해운대구청, 하수도료 체납 업체 제재, 13일 목욕탕이나 건설업체 등 지하수 사용 업체에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료의 체납에 대해 재산압류와 단수조치 등 강력한 제재 조치 취하기로(부산 4. 13)
* 부산해항청, 다대포 공단 조성 사업, 추진여부 이달 중 결정,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에 차질 빚고 있는 부산 다대포공단 조성 사업이 이달말께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부산 4. 13)
* 정부, 아주 경기 광고권 조직위에 부여키로, 버스와 택시 광고허가 등 관리권을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안」이 12일 정부 차관회의에서 통과, 4년간 손질 1백10억…재정에 큰 도움(국제 4. 13)
* 부산시, 재개발 사업 대대적 추진, 2002년 아시안 게임 대비 불량주택지에 대한 대대적인 주택 개량 사업 추진, 법규완화・AG 대비 구・군 일제 조사(국제 4. 13)

4. 14
* 부산시, 「부산시민의 종」 만든다, 웅비하는 21세기 부산의 발전상과 우리 민족의 얼・정서를 담으면서 부산을 상징할 「시민의 종」 제작, 제작비용 성금으로 조달(부산매일 4. 14)
* 수영구, 가사봉사회 무료 물리치료 "호응", 두달간 노인 1백명 시술, 거동 불편 땐 방문도…갈수록 인기(부산매일 4. 14)

4. 15
* 주한 아리에 이스라엘 대사가 기자간담회를 가짐 부산과 이스라엘 사이에 농업과 상공업 문화부문의 교류협력이 강화(시보 4. 19)
* 부산시, 대청공원에 98년 완공을 목표로 부산민주공원을 조성하여 민주화 투쟁정신을 계승, 기념관도 조성할 계획(시보 4. 19)
* 부산시,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 41개소에 대해 실태점검 실시(시보 4. 19)

* 선거철 흐지부지…끝나자마자 고삐죄기, 속보이는 무질서 단속, 정치권 눈치 보기 구태 여전, 일관성 없는 행정 불신 조장(부산 4. 15)
* 논공행상 지자체장 좌불안석, 인기 2년 두고 행정 누수 걱정, 15대 총선이 신한국당 후보의 부산지역 21개선거구 싹쓸이로 끝나자 일부 구청장 중심으로 선거운동과정에서의 기여도 등을 두고 「특정 인사의 차기 지방선거 공천보장」 등 논공행상에 관한 루머가 벌써 나돌아(국제 4. 15)
* 정부, 예산편성 개선 과제 추진, 8개 부분 내년에 반영, 공무원 인력·교육 재정 등 운영 효율화, 재정 운영의 효율화 위해 △공무원 인력 △교육재정 등 8대 개선 과제 선정 오는 6월부터 편성되는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국제 4. 15)
* 부산시, 명지 IC 건설 본궤도, 정부 부산시에 자금 7백억 지원, 공항로·거제로 확장 등 4백50억 투입, 2002년 아시안 게임 관련 사업 집중 투입키로(부산 4. 15)
* 부산시, 세계화 「빠른 걸음」, 외국도시서 자매결연·경협 요청 등 잇따라, 올 환태평양 자매도시 12곳으로(부산 4. 15)

4. 16
* 부산시, 수영로 2개 차로를 폐쇄하고 지하철 2호선 착공 실시(시보 4. 19)
* 부산시, 지사단지 본격추진 전망 한국토지공사의 시행자 참여로 본격화될 전망(시보 4. 19)
* 부산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시보 4. 19)
* 부산시 선관위, 15대 총선기간 중 부산지역 선거법 위반 사례를 41건 최종 집계(시보 4. 26)
* 부산시, 초읍·영도선 경전철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추진(시보 4. 26)
* 총선 끝나자 유럽으로…호주로… 기초 의원 줄줄이 외유, 말로는 "자료 수집" 관광 일색, 예산 수천만원씩 책정…의회 장기간 방치(부산 4. 16)
* 서구청, "공무원 친절도 주민이 평가한다", 민원창구 등 10곳 설문지 비치, 매달 분석 개선책 마련, 이달부터 구청에 대민친절봉사에 대해 주민이 직접 평가하는 창구민원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국제 4. 16)
* 22일부터 제4회 부산 실내악 페스티벌, 부산신포니에타 등 6개 단체 한 자리에, 3일간 문화회관 현악·금관 어우러진 다양한 선율 선사(부산 4. 16)
* 회동 수원지·기장군 지역 식수 전용댐 건설, 수질 개선·타당성 조사 착수, 샘물 형태로 용기 시판 유력, 환경단체 "낙동강 포기" 반발(국제 4. 16)
* 소통책 없이 오늘부터 지하철 공사, 수영로 "교통대란" 본격화, 우회로·버스노선 등 손 못대, 부산전역 심각한 파급 예상(부산매일 4. 16)
* 「부산 민주 공원」 조성 한다, 중앙공원 내 98년 완공, 민주화 투쟁 정신 계승 산교육장 활용, 기념 조형관 등 건립(부산 4. 16)

4. 17
* 부산시장, 미국 마이애미시의 부산무역전시장 개관식 참석 등을 위해 11박 12일 일정으로 출국(부산 4. 19)
* 부산시, 96부산지방기능대회를 7일간 34개 직종 321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기계공고 등 3개소에서 개최(시보 4. 19)
* 부산시, 문정수 시장을 비롯한 일행 40여명이 12일간 미국·뉴질랜드·호주·일본을 방문(시보 4. 19)
* 강서, 대파·미나리 값 폭락, 중간상들 밭떼기 대량 매입·집중 출하 탓, 1월과 비교해 50% 이상 떨어져, 재배면적 31%늘어 가격 하락 부채질(부산 4. 17)
* "집보다 학교가 더 좋아요", 강서구 배영 초등교 「열린 교육」 화제, 교실·복도 안방처럼 꾸며, 집단 학습·모둠별 토론 수업 활발, 수업자료 늘 비치 책가방 불편 없애, 지난해 150개교서 견학 다녀가(부산 4. 17)
* 4월 부산지역 판화전 풍성, 「서울 판화제 참가 작가전」·「유럽현대판화전」 등 잇따라 열려, 동판·석판·목판·공판화 등 다양한 기법 소개(부산 4. 17)
* 부산시내 소음지역 53개 초·중·고 수업 장애 갈수록 심화, 방음벽 무용…36곳 기준치 초과, 이전 밖에 해결책 없는 곳 많아, 잇단 도시개발과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더욱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부산매일 4. 17)
* 녹산 신호 공단 신호 공단 정상가동 "차질", 부지 조성에만 치중 기반설비 부진, 입주 앞두고 도로·용수·전력 등 태부족, 실제 정상가동의 결정적 장애(부산매일 4. 17)
* 정부, 오염 가중 판단 땐 「위천」 불허, 수질평가단 대구시 폐수 대책 등 내주 결정, 대책위-수도료 반환 청구소 제기(부산 4. 17)
* 문정수시장 공무국외출장(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부산시정 4. 17)

4. 18
* 통합준비위원회, 11월 개최될 JCI 세계대회를 위한 통합준비위원회가 개최(시보 4. 26)

* 부산시, ‘자성대’ 민영화 참여, ‘권’ 공사 운영에 10%지분 출자방안 모색 요구, 지방자치 단체로는 처음 항만 운영 참여 기회(시보 4. 26)
* 출근길 수영로 주차장 방불, 좁아진 차로 비까지 내려 차량 뒤엉켜, 평소 천3백원 택시료 2천9백원 나와, 평균 시속 10㎞ 거북 운행, 지하철 2호선 2단계 수영로 구간 토목 공사 시작에 따라 왕복 6차로가 4개 차로로 줄어든 것이 이유(부산 4. 18)
* 『부산 개발 용역』 현실성 적다, 기존계획 상충・학술적 차원 연구 많아, 북항 매립은 가덕도 이전과 배치, 도심 택지조성 과밀화 되레 가중 등 기대 효과 살리지 못해(부산매일 4. 18)
* “부산지역 선거 공약 꼭 지키겠다”, 신한국 후보들 제시 내용과 전망, 차기 디딤돌 인식 시민기대 부응, 여론 집약 21항 실행에 적극 반영, 『낙동강 살리기』 최우선…예산 확보 등 총력(부산매일 4. 18)
* 녹산 공단 매립지 침하 심각, 예상보다 평균 61㎝ 더 진행, 수백억 추가 비용・토취장 확보 안 돼, 공정 7개월 이상 차질, 부산 최대 현안 사업인 녹산국가 공단 조성사업이 매립지반 침하현상 진행으로 추가 매립 등 지반안정작업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부산 4. 18)
* 해외무역사무소(미국 마이애미) 개설(부산시정 4. 18)

4. 19
* 부산시, ‘부산시민의 종’ 시민 성금으로 제작(시보 4. 19)
* 부산시, 부산발전 통합운동인 ‘SMART 21 부산운동’을 구상(시보 4. 19)
* 부산시, 덕산・명장・오륜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가 발주되어 12월경 착공(시보 4. 19)
* 부산시, ‘지구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 전개, 21일 사직운동장에서 행사(시보 4. 19)
* 부산시, 건축물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 자가진단 정기적으로 실시(시보 4. 19)
* 부산시, 부산시 관광협회와 협조하여 일부 여행자들의 어긋나는 여행형태를 근절(시보 4. 19)
* 부산시,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게 위해 시・구・군 세무공무원을 중심으로 세정운영반을 설치해 운영(시보 4. 19)
* 부산발전연구원, 연구기획위원 16명을 새로 위촉해 연구 인력을 보강(시보 4. 19)
* 부산시, 제36주년 4・19혁명행사가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거행(시보 4. 19)
* 부산시, 선거분위기 쇄신위한 대대적 도시정비 총력(시보 4. 19)
* 부산시,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부산유치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시보 4. 19)
* 부산시, 저소득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 상반기 내에 ‘노인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시보 4. 19)
* 부산시・해항청, 다대포항 개발 사업 추진여부 이달 내 결정, 각계 여론 수렴 후 공단 지정, 자성대 민영화・용호만 매립도 논의(부산매일 4. 19)
* 부산시, 『부산 시민의 종』 졸속 제작 우려, 디자인 당선작 억지 선정, 타종 일정에 급급 “추후에 보완하라”, 시민 성금으로 제작할 『부산 시민의 종』이 당국의 일정 맞추기 식 사업 추진으로 자칫 졸속 제작 될 우려(부산매일 4. 19)
* 해산연, 북항 정비 급하다, 시설 늘려 부산항 적체 숨통, 기존 사업만으론 화물처리 역부족, 가덕항 완공 때까지 활용, 부산항의 시설부족현상을 효율적으로 보완해 화물처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개발 사업과는 별도로 북항쪽의 시설 정비 확장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부산경제 4. 19)
* 부산 화랑가 미술 대중화 노력 활발, 작가 작품 세계 설명회・작가와의 만남・미술세미나 등 종전 방식 외에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작품가 파괴・작품가 신용카드 분할 납부 등 도입, 회화작품 점당 30만원 파격가 판매도(부산 4. 19)
* 부산시 교통 영향심의회, 안락 선경 아파트 특혜 의혹, 부산 최악의 교통 혼잡지인 원동IC와 인접한 구 천경 컨테이너 부지에 1천9백 가구의 선경아파트 건설 심의에서 간선도로변 교차로 설치 허용해 줘 특혜 의혹과 함께 입주 시 일대 교통 대란 예상(부산경제 4. 19)
* 도시 재개발 사업 파행 위기, 일선 구청 이관 앞두고 전문 인력 태부족, 기형 개발・주민 반발 등 우려, 사업 실적 전무…승당부락 사태 장기화 조짐(부산 4. 19)
* 도개공 임대 입주민 ‘홀대’, 사소한 시설 훼손 과도한 변상 요구, 누수・균열 등 보수 요청은 아예 외면, 일부 동 주차장도 없어, 입주민들과 잦은 마찰 빚어(부산 4. 19)
* 기장군, 계획도로 노선 임의 변경 물의, 사전 고지 않고 공사 강행, 공유지 2만평 무단 점유, 지주들 뒤늦게 알고 반발, 기장~송정 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계획도로가 곡각이 심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노선 임의로 바꿔 착공(부산 4. 19)

* 부산시, 항만 운영 참여,「컨」공사 민영화 10% 출자, 부산시-해항청과 행정 협의회서 제의, 부산 자성대부두 운영업체인 부산컨테이너 부두운영공사의 민영화 사업에 부산시가 투자・지방자치단체의 전국 첫 항만운영 참여 실현 될 전망(국제 4. 19)
* 「부산 임시수도」다큐 제작,「천일의 기록」5월 초에 방영 거창 학살・정치 파동 등 생생,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부산임시수도 시절 1천일의 역사가 처음으로 PSB 창사 1년 기념특집으로 TV드라마를 통해 재현(국제 4. 19)
* 동아시아・아주경기 유치 기념「부산시민 관광대축제」열린다, 본사주최…오는 20일 수영만서 화려한 개막, 시민 참여의식 고취…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서비스 경연・향토음식 소개 등 볼거리 "풍성"(국제 4. 19)
* 말뿐인 4・19 명예 회복, 관련 단체 지원 적여「혁명」퇴색, 사무실까지 더부살이, 기념사업 전개・학술 세미나 등 역부족(국제 4. 19)
* 부산시, 환경 의식 "부재", 대형 사업「영향 평가」않고 강행, AG주경기장・지하철 3호선 등 후유증 우려(부산매일 4. 19)

4. 20
* 부산, 재래시장「틈새」공략 본격화, 부산지역 대형 재래시장들 최근 매출부진 탈피・경쟁력 강화차원 일환으로 냉온방시설 설치 등 고객 유치 전략 본격 나서(부산경제 4. 20)
* 지하철 적자 보전 "티격태격",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산시지하철 운영수지 적자 일부를 부산시가 보전해 줄 것 요구해 부산시 반발(국제 4. 20)
* 전국 100대 기업엔 "전무" 1000대 기업 고작 52개 사, 부산 업체 "왜소"…대형 제조업 "부재", 지역 1위 부산은 백65위 그쳐, 공인 회계사회 95년 매출기준 조사 결과(국제 4. 20)
* 부산시・기장군, 기장읍성 보호구역 지정 반발, 시와 군이 10여년 전 주민들에게 불하한 기장읍성 일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자 300세대 거주민들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부산 4. 20)
* 부산시, 교각 절반 지어놓고 노선 변경, 개통을 눈앞에 둔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 노선 돌연 변경 해다 지어놓은 교각 헐어내 신시가지와 연결되는 이 도로의 개통이 당초 올 6월에서 빨라야 내년 12월께로 늦어져 수비삼거리 일대 최악의 교통난 우려(부산 4. 20)
* 남북 대표 부산서 만난다, 두만강 개발 해운분야 국제회의 개최, 동북아 물류 시스템 사례 분석, 올 하반기 중 부산에서 남・북한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는 국제 경제회의 개최(부산 4. 20)
* 부산시, 일선 구청 노인 복지 외면, 올「노인의 집」개설 신청 단 2개 구만, 일선 구청의 무관심으로 올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기금을 4억원밖에 확보 못해 저소득 생활 보호자 공동 주거 시설인「노인의 집」개설 사업 위축될 전망(부산경제 4. 20)
* 부산시, 불법 어업 전업 자금 연내 10억 푼다, 척당 1천만원 원칙, 여건 감안 2천만원까지도 융자, 불법어업의 효율적인 전업 유도 위해 1백척에 대해 10억 지원키로(부산경제 4. 20)
* 부산시・부산 지방해운항만청,「다대 공단」지정 마찰 지연, 시・해항청 강행 노골화, 구청・의회・주민들 반발 백지화 운동, 시와 부산 지방해운항만청이 최근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대항 지방공단 지정 강행 움직임 보여 관할 구청 주민 등 거센 반발(부산매일 4. 20)
* "하수 처리장 소규모 바람직", 중소 도시 지역 특성 맞게 설치해야, 위천공단 조성문제 둘러싸고 시민들의 관심 집중되는 가운데 한국수질보전학회가 하천・해양 등 수질 관련 대규모 학술발표회 가져(부산매일 4. 20)
* 부산시, 4・19 기념 행사 "다채", 4・19혁명 36주년 맞아 민주혁명 뜻 되새기는 다양한 기념 행사 열려(부산매일 4. 20)
* 환경부,「위천」수질 개선 보장 없인 불허, 낙동강 주변 위천 공단 조성 경우 낙동강 수질이 현재보다 나아진다는 분명한 보장 없이는 공단 조성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밝혀(부산매일 4. 20)
* 금정경기장 착공(부산시정 4. 20)

4. 21
* 제14회 부산연극제 대상 극단 맥의「샛바람…」, 극단「맥」의「샛바람 부는 날에」가 제14회 부산연극제 영예의 대상작으로 선정 돼 오는 6월 광주에서 열릴 전국 연극제 부산대표로 참가(부산매일 4. 21)
* 부산시, 대형 사업 툭하면 계획 변경・업무 이관, 수십억 예산 낭비,「신호」공단 부지 축소 5억 새로 투입,「지사」는 토공 넘겨 용역비 4억 추가, 제2부산대교 설계 수정 15억 버려(부산매일 4. 21)
* 대남 지하차도 '찔끔 비" 침수, 지난달 20일 개통한 대남로터리 지하차도가 찔끔 비만 와도 물에 잠겨 차량 소통이 안되는 등 부실 배수시설 때문에 진통(부산매일 4. 21)
* 부산 국제 관광전 개최, 러시아・중국 등 15개 국・50개사 참가, 25일~28일 구덕 실내 체육관서 열려, 관광도시의 여행 정보 제공 받을 수 있어(부산경제 4. 21)
* 부산 신용장 내도 급증, 지난달 중 부산지역 수출신용장 내도액이 신발・수산물 등 대부분 품목의 고른 신장으로 전월보다 25% 이상 늘어(부산경제 4. 21)

4. 22 * 부산시, 주차위반차량 견인료 상승, 일률적으로 1만원씩 추가 부담 입법예고(시보 4. 26)
* 부산시, 하얄리아 서쪽 5만평 아주경기 선수촌 조성, 2002년 부산아시안 게임의 선수촌이 미하얄리아 부대 부지 서쪽 5만평에 조성(부산 4. 22)
* 부산시, 영도 토취장 해제 확정, 영도구 동삼동 일대 영도 택지개발 예정지구 19만2천여평이 인공섬건설 무기연기에 따라 잔토처리방안 마련치 못해 22일 지구지정에서 완전 해제(국제 4. 22)
* 지구-과학의 날 곳곳 행사 열기, 공해추방 자전거·걷기 대회 성황,「모형 항공기 대회」로 창의력 향상(국제 4. 22)
* 공보처, 지역 유선 방송 보도 기능 허용 추진, 종합유선방송의 지역방송국(SO)에 지역정치뉴스를 포함한 지역 보도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 추진키로(국제 4. 22)
* 부산시, 금정산 휴식년제 "비틀", 등산객의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자연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금정산 휴식년제가 행락철 맞아 등산객이 크게 늘면서 출입통제가 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국제 4. 22)
* 부산시, 오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세계 시장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중인 환태평양권 국제교류망 강화 위해 22일 오후 5시 뉴질랜드 경제 중심도시 오클랜드 시청에서 오클랜드시와 자매결연(부산 4. 22)
* 뉴질랜드 오클랜드市와 자매결연(부산시정 4. 22)

4. 23 * 건교부, 경부고속철 범어사 구간 지상 통과, "기술상 문제로 지사요구 수용 어렵다", 문시장 지난 15일 "지하 확정 단계"(부산 4. 23)
* 암남공원-두도공원 연계 종합해상관광벨트 추진, 혈청소 매립지도 편입, 서구청 연륙교·케이블카 설치 방안 논의(국제 4. 23)
* 정부,「위천」조성 여부 곧 확정,「수질 영향 평가단」조사 결과 토대로, 이해 당사자간 논란이 많아 총선 뒤로 미뤘던 경부고속철도 경구구간공사·위천공단 조성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 추진일정을 조기에 정상화하기로(부산매일 4. 23)
* 동삼 택지지구 해제, 부산 영도구 동삼동 동삼택지개발예정지구 19만여평이 지구지정 5년동안 사업 시행되지 않아 지구지정이 22일자로 해제·녹지로 변경(부산경제 4. 23)
* 부산지역 사교육비 "연 1조", 시교육청 각 급교 750곳 대상 실태조사, 2인당 초등 50만·중학 백만원, 고교생 되면 폭증…학부모 "비명"(부산매일 4. 23)

4. 24 * 부산관광개발(주) 민자 참여 쇄도, 2조원 규모 개발사업 애주 노려, 재벌·향토기업 20사 신청, 오는 7월 1일부터 출범할 부산관광개발(주) 발기인 모집에 대우·현대·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 20개 기업 참여 신청(부산경제 4. 24)
* 부산시, 엄궁·석대 농산물 도매 시장 99년부터 공기업화,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 및 오는 98년 5월 완공될 예정인 석대동 농산물 도매 시장이 빠르면 오는 99년 공기업화 될 예정(부산 4. 24)
* 광안대로 98년 완공 차질, 장비·인력 확보 어려워 1년쯤 늦어질 듯, 사업비도 3백억 더 필요(부산매일 4. 24)
* 부산시, 기간연장 신청 소홀·1차 경고 무시,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슬러지의 처리문제를 소홀히하는 바람에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23일부터 5일간 슬러지 해양투기 전면중단조치를 당하는 등 분뇨처리업체 선정의 말썽에 이어 또 다시 행정의 난맥상 드러내(국제 4. 24)

4. 25 * 낙동강 오염감시 강화,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주요 상수원 지역에 대한 오염행위 단속이 강화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손실 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부산 4. 25)
* 부산 수영로 버스 중앙 차로제 실시, 오는 7월부터 부산남구 문현동 문현로터리에서 수영구민락동 현대아파트 앞 수영로 구간에 버스 중앙차로제 실시, 다인승 차량 통행 허용도 적극 검토(국제 4. 25)

4. 26 * 부산시, '아시안위크' 9월 개최(시보 4. 26)
* 부산시, 장애인이 직접 제품을 만들고 재활도모를 위해 판매할 수 있는 장애인 전문 판매장이 5월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시보 4. 26)
* 부산시, 96년 한 해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8개의 사업에 총 2,220억원의 자금을 확보(시보 4. 26)
* 부산시, 제 3개발자 자격요건 완화·확대, 공장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신설, 절차 대폭 간소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시보 4. 26)
* 부산시, 단독가구 영세민과 비공공사업 철거민에게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시보 4. 26)
* 부산시, '시정현장 시찰' 전체 시민에 개방, 매주 화·금요일 참여(시보 4. 26)
* 부산시, 불법어업 검거자 및 혐의자를 대상으로 합법어업 전업을 희망하는 어업자를 조사, 어업질서확립자금 10억 마련(시보 4. 26)

* 부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시보 4. 26)
* 부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각계 전문가 19명 의정활동 지원(시보 4. 26)
* 부산시, 95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를 5월 1일부터 한 달간 실시(시보 4. 26)
* 부산시, 공중이용시설은 7월부터 10명당 1평 규모로 유흥업소는 50%이상 확보하는 등 흡연시설 마련을 의무화(시보 4. 26)
* 부산시, 불법구조변경 등 위반차량 단속, 경찰합동으로 적재함 변경 등(시보 4. 26)
* 부산시,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확대, 본인부담 차등지원 폐지(시보 4. 26)
* 부산시, 정기승차권, 셔틀버스 등 도입, 부산역-해운대 도시통근열차 이용확대 대책(시보 4. 26)
* 부산시 고속도로관리소, 문현・대현터널 보수공사 실시(시보 4. 26)
* 부산시, 유원지 내 유기시설 특별안전 점검 실시(시보 4. 26)
* 부산시, 남구 용호만 공수유면 20만평 매립하여 해변신도시 건설(시보 4. 26)
* 부산시, '아시안 위크' 전통예술 공연・학술회의 마련(시보 4. 26)

4. 30
* 부산시교육청, 주산지역 공용도서관 모두 자료실로 운영, 추진계획 마련 연내 도입,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부산경제 5. 1)
* 부산시교육청, 풍진 다시 확산, 학생 7백여명 발병, 정상수업 차질(부산매일 5. 1)
*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 수돗물 수질 최악, 원수 오염 극심, 급수 한계치 육박, 증발잔류량 92년의 배, 염소・황산이온도 기준치 위협(부산 5. 1)
* 96 부산여성대회(부산시정 4. 30)

5. 1
* 부산시의회, 사전심의서 지적, 공기업에서 주식회사로 전환, 부산관광개발 이권화 우려, 추진사업 공공성 퇴색, 기장 골프장 등 특혜시비 예상(국제 5. 1)
* 해운대 신시가지를 가꾸는 모임 결의, 하자보수 후 전금 지불, 지체 보상 등 마찰 예상, 입주시기도 예정자가 결정 요구(국제 5. 1)
* 시, 쓰레기 감량책 겉돈다, 4월 처리량 4.7% 늘어, 하루 평균 2천8백여톤, 기장・해운대 등 제외 14개구 3% 이상(부산경제 5. 2)
* 건설교통부, 가덕 신항만 개발 국책 사업추진, 건설사 수주경쟁(부산경제 5. 2)
* 해운대 신시가지, 인테리어 업주들 폭력배 동원, 위압 판촉, 수십명씩 떼지어 서로 몸싸움, 입주자 정보 빼내 전화공세도(부산매일 5. 2)
* 부산지검, 터키탕 업소 뇌물받고 감싸준 구 청계장 등 3명 구속(국제, 부산매일 5. 2)
* 소림사 공사장 옹벽 버팀 철골 무너져 초량동 주택 10여채 붕괴위험(부산매일 5. 2)
* 시, 시장에 자족신도시 개발, 2011까지 주거・관광・공업 기능 겸비, 인구 16만 수용, 도심～외곽 도시고속 3백km구축, 위성시간 5개 방사축 도로 신설(부산매일 5. 2)
* 중구청, 부산시민의 종, 성금 접수, 이달 말까지 구청, 각 동사무소에서(부산매일 5. 4)
* 양정초등학교 어린이 인터넷 개통(부산교육 5. 1)

5. 2
* 해운대 신시가지 입주 기피, 교통불편, 시설 미비, 40%이상 하반기 이후로 미뤄(부산 5. 2)
* 시, 조직개편안 확정, 재무국 폐지, 2개국 신설, 8개과 통폐합 19개계로 새로 편성, 시의회심의 뒤 7월 시행(국제, 부산 5. 2, 부산매일 5. 3)
* 시, 30대 현안사업 표류, 예산부족, 유관기관 불협화로 진전없어(부산매일 5. 3)
* 시, 순환간선도로망 건설, 신호～대동～해운대 70km구간, 2011년 완공 목표(부산 5. 2)
* 건설교통부, 김해공항 국제선 신축, 99년 착공 2002년 완공(부산 5. 2)
* 농림수산부, 5대강 물길 잇는다, 19개소 도수로 2백60km설치, 2016년내 4조9천억 투입(부산경제 5. 3)
* 신한국 부산지부, ASEM 부산유치 총력, 지원단구성 활동 강화, 부산시 국고지원 2배로 증액 요청, 교통시설에 재정 수요 폭증, 최소 1조7천억(부산매일, 국제 5. 3)
* 시, 시내버스업계, 시내버스 승객 줄고 빚 누적, 13개 회사 부도위기(부산경제 5. 3)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감천권 원양부두 조기개장, 준공전 사용허가, 냉동어획물 적기처지 큰 도움 기대(부산경제 5. 3)
* 부산시교육청, 비만아동 10년새 2.6배, 초중고 대상 종합대책마련, 개인카드작성, 식생활 등 지도(부산경제 5. 3)

5. 3
* 시, 해운대온천센터 개발 난항, 지주 반발 우려, 軍 반대(부산 5. 3)
* 사하구, 노인 무료진료센터 운영 시작, 일반 내과・치과・물리지료 등 대상(부산매일 5. 3)
* 통계청, 부산물가 계속 뛴다(부산 5. 3)

4월 중 부산소비자 물가(90년 100기준, 단위 : %)

	95. 12월	96. 3월	96. 4월
채소류	154.0	161.9	164.8
생선 조개류	159.9	157.4	159.3
비 식료품	139.6	142.3	142.6
곡류	132.1	131.9	134.2

* 시, 남구 대연동에 부산문화공원 조성, 문화회관에 70억 들여 9월 착공(부산경제 5. 4)
* 검찰, 포푸라마치 단속, 여고생 접대부 술시중(부산 5. 3)
* 시, 아파트·교량 등 254곳 재난 위험, 만덕1동 주택 옹벽 보강 시급, 당감동 택지개발 산사태 우려(국제 5. 3)
* 시, 보통교부세 지원 내무부에 4차례나 규직개정건의, 교원인건비지원 중단도 검토(부산 5. 3)
* 시, 국비사업 내년에 러시, 도로·아시안경기시설 등 40여건 일제히 착수, 예년 2배 사상 최대 규모, 교통난 해소 등 해묵은 과제 해결(부산매일 5. 4)
* 시 종합건설본부, 부산시 새청사 건립 순조로워, 공정 41% 진척, 내년말 완공 무난(부산매일 5. 4)
*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연합 시위, 화염병 던져 부산지방경찰청 기동대 9명 중화상(부산매일 5. 5)

5. 4
* 시, 행사 위해 민간 협찬 요구, 국제영화제 15억, 바다축제 10억, 아시안위크 10억, 질저하 우려(부산 5. 4)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다대포권 개발사업 무산위기, 포기방안 정부와 협의 방침, 시 “주민과 합의 안됐다”, 정책 결정 또 연기 통보(국제, 부산 5. 4)
* 건교부, 낙동강환경관리청, 위천대책 어점 투성이, 영향평가에서 낙제점, 하수관로 불량, 대구시 수질보전책 비현실적(국제 5. 4)
* 동남은행, 삼성경제연구소, 부산경제 포럼 23일 창립 예정(부산매일 5. 5, 부산 5. 6)
* 해운대 신시가지를 가꾸는 모임, 부산시의회에 청원서, 부실시공 해결하라, 도로 등 기반시설 지연 반발, 11일 입주 예정자 대토론회(국제 5. 6)
* 강서구청, 용원선착장 이전 추진, 도선이용 주민 터전 달라 8년째 고통, 녹산공단내 적지 물색(부산매일 5. 5)
* 시, 첨단 경전철 국내 첫 추진, 무소음·무공해 대중교통 각광, 영도선 등 미기술사와 발주 협의(부산매일 5. 5)
* 부산 어린이날 큰 잔치(사직야구장)(부산교육 5. 5)

5. 7
* 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보고회, 해운대~정관 전철 건설, 기장군개발안, 관광농원 4곳, 사낭리 등 해안매립 리조트 개발, 정관에 백만평 규모 신도시(국제, 부산 5. 7)
* 부산 지역 학교 급식 우유에 이물질, 약품냄새, 구토와 설사로 회수 폐기 소동(부산매일 5. 7)
* 시, 부산 온천 정책 겉돈다, 물 값 비싸고 민간업체 참여 사실상 불가능, 구청은 대장조차 없어 관리 포기(부산매일 5. 7)
* 시, 부산시민의 종 모금, 시-내무부 마찰, 내무부장관 없어 문제(부산 5. 7)
* 시, 부산지역 1,000명 소년 소녀 가장, 정부지원금으로 생계 못 꾸려, 결연 후원도 저조(부산매일 5. 7)
*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탈의장 운영주체 공익단체로 번복, 해변도로 지하주차장공사 이유(부산경제 5. 7)
* 시, 부산관광개발(주) 설립확정, 민관합동 형태, 전국 첫 발족, 전문 경영인 참여, 시 별정직으로 임명(부산매일 5. 7)
* 시, 추경예산 60%가 빚, 이자만 연 1백억, 재정 빈곤 악순환(부산경제 5. 7)
* 서구청, 직원 설문조사, 토요일 전일근무 좋은시책 53%, 홍보 안 돼 민원인 이용실적은 저조(부산매일 5. 7)
* 동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동아시아경기 차질 우려, 자원봉사자 지원실적 7%에 머물러(부산매일 5. 7)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 해외투자 중국 집중, 3월 28건 중 17건, 저임금 노린 소액이 대부분(부산 5. 7)
* 부산경찰청, 학원폭력배 정상가정 출신 더 많다, 전체 70% 차지, 교우관계 중요(부산 5. 7)
* 시 교육청, 풍진환자 집계 허수가 많아, 단순 감기 환자도 등교 중지시켜 물의, 시조사와 2천명 차이(부산 5. 7)
* 시, 수영비행장내 수영정보단지개발과 교통처리 관련 자문회, 수영정보단지 3차원개발, 부산랜드 철회 친수공간 조성, 우회로 노선변경, 정보·상업·관경 3대 기능 강화(부산 5. 7, 국제, 부산경제, 부산매일 5. 8)
* 부산지검 특수부, 중구청 직원 보상금 불법지급 수뢰 확인, 건설과장 공모여부 수사(부산매일 5. 8)
* 연극협회 부산지회, 제14회 부산연극제 합평회(부산 5. 9)

5. 8
* 시 종합건설본부, 해운대 신시가지 노른자위 택지, 특정인에 불법 분양, 입찰서 제외 사전계약, 9필지 1천8백㎡, 전공무원 등 유력인사 다수(부산, 국제 5. 8, 부산, 부산매일 5. 9)

* 부산시의회, 제54회 임시회 개최, 시조직개편, 관광법인 등 논란 예상(부산매일, 국제 5. 8, 부산매일 5. 9)
* 시, 부산시도시기본계획변의안, 시청・서면 2도심, 사상 등 6부도심, 기장군 전원주택・공업겸비 신도시 개발, 경전철 김해~하단선・초읍・영도선 추진(부산 5. 8, 부산매일 5. 9)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

	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	
3개 대생활권	중앙 대생활권	7개 중권	광복중생활권	29개소권	광복동 동광동 중앙동 남포동 초량1동 등
			대신중생활권	18개소권	동대신1동 서대신 1동 충무동 부민동 등
			영도중생활권	17개소권	대교동 남항동 영산1동 청학동 등
			서면중생활권	29개소권	부전1동 범전동 양정1동 전포1동 등
			연제중생활권	13개소권	거제1동 연산1동 등
			대연중생활권	20개소권	대연1동 용호 1동 문현1동 우암1동 등
			수영중생활권	10개소권	남천1동 수영동 광안1동 망미1동 등
	동부 대생활권	4개 중권	동래중생활권	14개소권	수민동 명륜1동 온천1동 안락1동 등
			구서중생활권	21개소권	구서1동 부곡1동 장전1동 오륜동 등
			해운대중생활권	15개소권	우1동 반여1동 반송1동 송정동 등
			기장중생활권	5개소권	기장읍 장안읍 정관면 일광면 등
	서부 대생활권	4개 중권	사상중생활권	14개소권	모라1동 감전1동 주례1동 괘법동 등
			구포중생활권	11개소권	구포1동 화명동 만덕1동 덕천1동 등
			가덕・녹산중생활권	7개소권	대저1동 명지동 녹산동 가락동 등
			하단중생활권	16개소권	괴정1동 신평1동 감천1동 하단1동 등
3개 대생활권		15개 중생활권		239개 소생활권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도시지표

구분	연도	단위	1994	2001	2006	2011
인구	계획인구	천인	3,912	4,070	4,240	4,500
주택	가구당인구	인	3.5	3.2	3.0	2.8
	주택보급율	%	69.6	80.2	84.5	85.7
교통	도로율	%	14.8	18.0	20.2	22.0
상수도	상수도보급률	%	98.2	99.0	99.2	99.4
	1일 1인 급수량	리터	421	450	475	500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개소	3	6	9	15
	1일 1인 오수량	리터	378	401	424	447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특정사 수의계약 발주, 지역건설업체 특혜비난(부산경제 5. 9)
* 시, 해운대 하수처리장, 올림픽공원 지하건립계획 변경, 청사포 뒷산 암반에, 연말 실시설계 완료 내 년 착공(부산경제 5. 9)
* 시, 부산지검에 수사의뢰, 건설본부・도개공 특감, 해운대 특혜분양 9필지 재분양(국제 5. 9)
* 경남도, 부산~마산~창원 심야버스 운행, 내달부터 새벽 2시까지 운행(부산매일 5. 9)

5. 9
* 해운항만청, 가덕도 신항만 실시설계・보상 산정 추진, 올 예산 3백억 중 백26억 확보, 내달 용역업체 선정(부산 5. 9)
* 시, 부산해외협력사절단, 독일・스위스와 34건 사업추진, 첨단기술 적극 도입(국제 5. 9)
* 부산환경운동연합, 다대항개발 반대주민대책위, 다대포 환경평가 졸속이라 비난, 4개 방파제 상호영향 무시, 조류 방해 해양생태계 파괴(국제 5. 9)
* 시, 관할구청, 分區지역 보건소 7월 개소, 남・북・연제구 세 곳, 예산 확보(부산 5. 9)
* 부산시의회, 부산관광개발(주) 설립 제동, 이권 치중, 시민 부담 등 우려, 공청회 개최 여론 수렴 필요(부산 5. 9)
* 부산시교육청, 냉장시설 없는 학교 우유급식 중단 지시(부산 5. 9)
* 부산해양경찰서, 부관훼리 13년간 폐유 불법 투기, 기관장 구속, 회사측 묵인 여부 수사(부산 5. 9)
* 환경부, 수질평가 자문단 2차 회의, 대구시 대책에 문제제기, 위천공단 조성반대 할 듯(부산 5. 10)
* 부산발전연구원, 동아시아 싱크탱크 한자리에, 5개국 23개 연구기관 부산서 지역발전 세미나 하기로, 오는 31일 예정(부산매일 5. 10)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가덕신항 건설 컨소시엄 추진, 주간사 삼성, 대우 롯데 극동건설 포스코 등 8개업체 추가 참여, 위험부담 분산(부산경제, 부산매일 5. 10)
* 부산해양경찰서, 선박 폐수 90% 무단 투기, 부산연안 작년 13만톤 이상 추정(부산매일 5. 10)

5. 10
* 낙동강환경관리청, 산성비 심각, 86%가 강산성, 덕천동 산도 3.8기록, 울산・마산보다 높아(부산 5. 10)
* 시, 아시안게임 유치 1주년 맞아 OCA기 게양 등 행사 다채(부산 5. 9)
* 통상산업부 시행령 입법 예고, 부산 성장관리 지정 해제, 17년만에, 지역경제 청신호, 대기업 공장 신증축 가능, 7월부터(부산, 국제, 부산경제 5. 10)
* 검찰, 신시가 택지불법분양 사전분양자 9명 입건, 입찰서류 허위작성 적발, 뇌물 추궁(부산, 부산매일, 5. 10)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 어음부도율 급상승, 4월 0.64% 기록, 1년 5개월만에 최고(국제 5. 10)
* 시, 금정구청, 금정산 소나무 재선충 비상, 1백30그루 감염확인, 솔잎 혹파리도 3백그루, 방제 시급(국제, 부산매일 5. 10)
* 녹색도시 부산21, 그린봉사대 공식 출범, 환경감시활동 범시민활동으로 확산(국제 5. 10)
* 부산교통방송국, 부산교통방송 발차, 내년 7월 개국목표 협의 중(국제 5. 10)
* 시, 노포동～정관 경전철 건설, 지하철 4호선 대체 및 선로 조성, 기장 공업지역 축소 전원도시화(국제 5. 10)
* 시, 행정구역 개편 후 정관일대 공장허가 보류(국제 5. 10)
* 시, 지하철 2호선 2년 지연, 지장물 이설 늑장, 재정난 겹쳐 99년말 완공(국제 5. 10)
* 부산지방철도청, 지난 3년간 집계, 사상～부산진구간 열차사고 최다, 선로 무단통행이 주원인, 전체 2백58건 중 경부선서 40% 발성(부산매일 5. 10)
*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개회식(공예고등학교)(부산교육 5. 10)

5. 11
* 부산지검, 해운대 불법분양자 4인 구속, 시건설본부 간부 등 2명 계좌 압수수색, 5명 수배, 사례금 약속, 진술 계장 자금 추적(부산, 국제 5. 11)
* 시, 3개 연구조직통합 정식 직제서 누락, 국제통상협력실 산하 국제통상연구실, 교통관광국산하 교통정책 연구실, 기획관리실산하 시정연구단, 전문직 공무원 크게 반발(부산 5. 11)
* 동래구, 통반 효율적으로 개편, 소규모 세대 통폐합키로, 통간 갈등 해소, 예산절감 등 기대(부산매일 5. 11)
* 부산지방노동청, 부산・경남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인상률 저조, 평균 5.7%로 지난해보다 1.9% 낮아(부산 5. 11)
* 부산상의, 부산 성장관리 해제 별무효과, 공단 땅값 비싸 기업유치 기대난(부산매일 5. 12)
* 일선 보건소 관계자, 진료분야 전문・다양화, 영세민 위주 탈피, 일반 주민 이용 늘어(부산매일 5. 12)
* 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후보 선거비 조사 착수, 총1백1명 회계자료 접수, 허위・누룩 발견시 사법처리, 미제출 1명은 경위조사 후 의법조치(부산매일 5. 12)
* 사하구청, 도시계획구역에 새마을금고 신축허가 행정절차 특혜의혹(부산매일 5. 12)
* 부산시 선관위, 4. 11 전반 평가 보고서, 부산 선거 조기과열・탈법운동・지역주의 지나쳤다(부산매일 5. 12)
* 북구청, 주민 직접 방문 해 민원청취, 구정 반영(부산매일 5. 12)

5. 13
* 부산상의, 남북경제협력지원센터 설립 추진(부산 5. 13)
* 시, 주요 교통사업 차질, 우암고가도로, 부산-거제연륙교, 부산-울산 복선전철, 부대부지 통과, 군함 항로 관통(부산 5. 13, 부산 5. 14)
* 부산지검, 신시가 택지분양 허위공문서 작성, 시건설본부 계장 구속(국제, 부산 5. 13)
* 부산발전연구회 토론회,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과 문화도시 건설(국제 5. 14)
* 시, 노상주차장 전체면적 5.3%, 40만평 전용, 건설비 천9백억 낭비한 꼴, 간선로 등 줄어 체증 가중도(부산경제 5. 14)

5. 14
* 부산진구청, 구마다 수십세대 하루 한두끼 결식, 31세대 주민 75명(부산 5. 14)
* 사하구청, 저소득 주민 방문상담 호응(부산매일 5. 14)
* 정부-위천공단 불허 가능성, 부처 반애의견 많아 불가 입장(부산 5. 14)
* 시, 지하철역 공기오염 심각, 서면역 부유분진 3백17㎍/㎥, 남포동역 2백85㎍/㎥ 육박(부산경제 5. 15)
* 부산시교육청, 소년소녀가장 급증, 초중학생 무려 2백27명, 이혼 등 이기주의 팽배(부산경제 5. 15)
* 시, 부산역～태종대간 영도선, 사직운동장～서면간 초읍선 민자유치를 통한 신교통수단 건설사업 추진, 하반기 착수(부산매일, 부산경제 5. 15)
* 시의회, 54회 임시회, 5개 상임위 속개, 부산관광개발(주) 설치조례안, 본회의 상정, 시 직제개편은 위인철관 오해 우려, 다대포 수산목재단지 계획 밝혀라, 시장업무추진비 추경요구 이유, 모라동 새마을금고 특혜 구청서

허가, 장애인 공판장 올 상반기 중 설립 계획, 시장판공비 삭감, 5천만원 정도 삭감, 과다지출, 혈세낭비, 부산 모자보건사업 올 예산 3천3백만원 불과, 전국 최하위 복지정책(부산, 부산매일, 국제 5. 15)

5. 15 * 부산지역 첫 프로남성합창단, 부산남성콰이어 결성(부산매일 5. 15)

* 부산지검, 부산시종합건설본부장 영장, 신시가 도로공사비 올려주고 천만원 수뢰, 통장 등 압수수색, 계좌추적, 사전 분양 개입가능성 수사(국제, 부산 5. 15)

* 부산 부시장 오세민 사의, 시의회 사사건건 제동 걸어 일 못하겠다(부산, 국제 5. 15, 부산매일 5. 16)

* 건설교통부, 해운항만청, 해양산업부 신설 가시화, 31일 바다의 날 선포식 때 공식발표하기로(부산 5. 15)

* 시, 수영정보단지 시 출자자본금 보류, 시의회 예결특위 추경심사 등 질의(국제 5. 16)

* 부산상의, 지사공단 국고지원 요청, 건설원가 높아 조성 차질(부산매일 5. 16)

5. 16 * 시, ASEM유치안 확정, 민간자문위와 기획단 제출, 기준 부합시설 확보해 일단 유리(부산 5. 15)

* 건설교통부, 황강취수장 백지화, 착공 5개월 앞두고 경남도에 재검토 지시(국제 5. 16)

* 부산지역 시민 출근비용 연 6천억, 교통혼잡으로 1천4백억 날려(부산경제 5. 16)

출근수단별 출근비용과 혼잡비용

구분	출근비용		혼잡비용		1인당 월평균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출근비용	혼잡비용
단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원	원
전통근수단	50655	607863	11668	140027	33331	7678
지하철	2001	24017	0	0	21982	0
좌석버스	823	9883	214	2569	36141	9396
시내버스	10058	120707	2615	31384	21015	5464
택시	4084	49019	1062	12745	44810	11650
자가용	24693	296319	6420	77043	75238	19562
통근버스	4437	53250	1153	13845	29768	7739
도보	2883	34604	0	0	10062	0
기타	1671	20060	203	2440	23134	2814

* 부산시의회, 추경예산 490억 삭감, 신시가지 현장 점검, 건설본부 비리 추궁(부산 5. 16)

* 검찰, 신시가지 시공업체 대표 전원 소환, 건설본부 비리 발본색원, 시 택지분양자료 정밀검토, 담당공무원 수뢰여부 조사(부산 5. 16, 부산매일 5. 17)

* 부산대 김유근교수, 4년간 자료분석, 부산 오존 오염 심각, 부산지역 오존오염도 WHO권고기준치 초과하는 시간이 연평균 1백57시간(국제 5. 16)

* 시, 대형사업 상시 감사 도입, 백억이상 공사 등 대상 실시(국제 5. 17)

*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대회조직위, 제4차 위원총회(부산매일 5. 17)

* 남구청, 주민세 개정세율 작년분 소급 적용 부산시 방침 거부(부산매일 5. 17, 부산 5. 19)

* 시, 부산 무역 세계화 포석, 미국이어 일본 중국에도 부산무역사무소 설치(부산경제 5. 17)

* 시, 정관신도시 1백50만평 확정, 주택공사와 공동 조성사업(국제 5. 17)

5. 17 * 시 건설공무원 일괄 사표, 간부 82명, 명예회복 위해(국제, 부산 5. 17)

* 부산시 한의사회, 대규모 집회, 보건복지행정 규탄, 궐기대회(부산매일 5. 17)

* 시, 부산국제영화제 행사계획 확정, 9월 13일부터 9일동안 100여편, 예총회장 등 11명 자문위원으로 위촉(부산 5. 17)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 종합건설본부 정책 질의, 신시가 부실시공 집중 추궁(부산 5. 17)

* 시, 95년도 지역 및 직장의보조합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보고서, 지역 보험조합 총체적 부실, 동구 제외 11개 조합 적자, 직원 45% 징계 등 신분상 조치(부산 5. 17)

* 시, ASEM 준비계획 설명회, 정부 상대로 설득 홍보단 파견, 관련 시설 등 부각, 당위성 강조, 경주와 연대 강점 부각 로비(부산매일 5. 17, 국제 5. 18)

* 시, 심야좌석 운행 체계 개선, 배차간격 40분에서 20분으로 줄이고 일부 노선 연장(부산매일 5. 17)

* 부산 종합건설본부, 신시가 우회로 변경에 50억·1년 추가소요(부산매일 5. 18)

* 시, 부산해안순환도로 북권 통과 구간 5개 재벌그룹회사 참여 희망, 12월 민자업체 선정, 1년 후 착공키로, 삼성물산(주), (주)대우, 동아건설사업(주), (주)한진중공업 포항제철(부산매일 5. 18)
* 부산시장, 건설공무원 일괄제출 사표 선별처리 하겠다(국제 5. 18)

5. 18
* 시, 재정 바닥, 세입 없어 추경 추가 편성 불가, 빚 1조4천억, 신규사업 불가, 기존사업도 차질, 국비지원 요청 등 대책 부심(부산 5. 18)
* 시, 제 7부두 확장구간 개방 임박, 해항청-부산시 교통대책 서로 발뺌(부산매일 5. 19)
* 해운대구청, 수영강 공동 관리 요구, 분기별 협의회 개최, 오염원 합동 단속 등 수질개선책 제시(국제 5. 20)

5. 20
* 부산시의회, 시 조직개편안 통과, 관광개발사 출자금 삭감 논란(부산, 국제 5. 20)
* 시, 수영정보단지, 지식산업과 정보산업을 유치하는 지방공단으로 지정, 7월 중 시행(국제 5. 20)
* 시, 먼지 유발 사업장 관리 허술, 인력 부족, 단속 겉핥기, 처벌 미약, 발생억제시설 외면(부산 5. 20)
* 문화체육부, 가덕 종합개발에 제동, 철새도래지 생태계 타격 공식 통보(부산 5. 20, 부산경제 5. 21)
* 시, 공직 기강 바로 세운다, 잇단 부정・의회마찰 극복, 시정 쇄신 나서, 주요 현안 사전설명제 활성화, 내부 감찰 대신 검찰 수사 의뢰(부산매일 5. 21)

5. 21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동삼동 매립지 활용방안 최종 확정, 해양종합공원 조성, 내년 1월 기본 설계, 박물관・국제 여객부두 등 건설(국제, 부산 5. 21)
* 부산시의회, 부산시 추경 3백8억 삭감, 총 5천21억여원 확정, 다대포 목재단지 지정 청원 채택(국제 5. 21)
* 시, 약수터 여시니아균 비상, 87%는 대장균 초과, 패혈증・신부전증 초래(부산, 국제 5. 21)
* 서구청, 산복도로 야간 주차제 호응, 밤 10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 허용, 매일 이웃간 다툼(부산매일 5. 21)
* 통계청 조사보고, 부산제조업 성장률 최하위, 부가생산액 15위, 사업체 수 10위, 신발 등 7개업종 마이너스 성장, 6대 도시 1인당 부가가치 비교(단위 백만원), 부산 26.7, 서울 31.7, 인천 40.0, 대구 29.7, 광주 46.4, 대전 44.4(부산 5. 21)
* 시, 아파트 고도제한 첫 조정, 재심의 2개사 층수 낮춰 건립 지시, 세대수 숙소・경사지붕 조건도 달아 통과(국제 5. 21)
* 시, 부산시-의회 상설 협의기구 추진, 현안 사전 설명 등 정례적 의견 조율, 당정협의회와 성격 비슷, 실・국장-상임위원장급 이상 구성(부산 5. 21)

5. 22
* 부산시의회, 제54회 임시회 폐회, 불신・제동걸기, 양측 힘겨루기 양산, 수영정보단지 등 안건마다 의견 대립, 오부시장 출석 사의 파문 해명 요구, 다대공단 승인요청 보류, 본회의 상정 철회(국제, 부산매일 5. 22, 부산, 국제 5. 23)
* 교통개발연구원, 영도선, 태종대~해양대입구~동삼동~영도구청~한진중공업~부산대교~부산역으로 9.8km, 초읍선 사직운동장~어린이대공원~연지삼거리~부산진구청~서면 6.9km, 99년 착공키로(국제 5. 22)
* 건설교통부, 가덕 배후도시 면적 축소, 녹산 2차공단 개발 취소, 문폐부 의견 수용, 3백만평에서 2백만평으로(국제 5. 22)
* 부산 아메리칸센터 9월 폐쇄, 예산삭감, 반미시위 여파(국제 5. 22, 5. 23)
* 금정구, 남산 놀이마당 개최, 전통국악 보급 앞장(부산매일 5. 22)
*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사도 사업 본격화, 부산・경남권 내달 중순 공사발주 10월말 착수(부산매일 5. 23)
* 수영구청, 광안리 해변도로 확장 난항, 편입토지 보상금 낮아 지주들 수령 거부(부산매일 5. 23)
* 시, 해운대구청, 달맞이 절경 훼손 가속화, 시의회 고도제한 부결,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 등 내세워, 업자 로비 의혹(부산매일 5. 23)
* 철도청, 부산역 등 10곳 민자 역사 개발, 2011년까지 백화점 등 대규모 상업시설 구비(부산매일 5. 23)
* 시장 간담회, 출자회사 재벌특혜 배제, 수영정보단지 이익 전액 시 환수 규정 마련, 부산관광개발 기업땅 매각 거부시 수용(부산 5. 23)
* 시, 제2부산대교 직선형 건설 최종 확정, 설계변경 12월까지 완료, 총 공사비 6백43억원 절감해 총사업비 2천4백29억원(부산매일 5. 24)

5. 23
* 기장군, 기장 홍합 맹독 검출, 기준치 30배, 채취 및 판매 금지(국제 5. 23)
* 주택공사 부산지사, 부산 재개발 사업 활기, 신규택지 한계, 도심 정비 주력, 시 99년까지 백10여곳 주거환경 개선 계획(부산 5. 23)
* 부산지방항공청, 대한항공-상해 아시아나 북경 취항, 부산~중국 직항 본격 운항(국제 5. 23)
* 부산경찰청, 남부 이어 북부 시험장도 시설 개선 공사, 2종 보통 운전면허 3개월간 전면 중단(부산, 국제 5. 23)

* 시, 부산~김해 경전철 3개역 신설, 괘법동·평강마을·불암동, 타당성 용역 의뢰(부산 5. 23)
* 부산시의회,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확정, 4조3천억 규모로, 재원마련 제도 완비(부산 5. 24)
* 시, 교통조사 전문요원 선발, 시민·대학생 300여명(부산매일 5. 24)
* AG유치 1주년기념 행사(부산시정 5. 23)

5. 24 * 부산지검 분석, 부산지역 특수범죄 매년 급증, 작년 마약사범 93년비 78% 늘어 5백27건, 해양사범 1천3백18건, 밀수사범 2백53건, 퇴폐사범 8백13건(부산 5. 24)
* 부산상의, 중소기업 조업부진 판매난 탓, 중소기업 조업부진 요인 판매부진 65.3%, 자금난 19.4%, 계절관계 6.6%, 원자재난 2.6%, 종업원 확보난 5.1%, 기타 1.0%(부산 5. 24)
* 금정구청, 노인의 집 개설, 거택보호 4명 보금자리 마련(부산매일 5. 24)
* 부산 건설본부 이번엔 강제모금 말썽, 주경기장 기공식 행사비 2억8천만원 업체에 부담(부산 5. 24)

5. 25 * 시, 5년 표류 지사단지 본격 조성, 한국 토지공사와 부산시 분담개발 방식, 세산삼거리~송정, 구랑경계~단지입구도로 8월 설계(국제 5. 25)
* 북구청, 덕천교차로 잇단 대형유통시설, 서북부산 새 상권 발돋움, 지하철 2·3호선 연계, 교통편리, 김해·양산권 흡수 기대(국제 5. 25)
* 시, ASEM 유치 막판 경쟁, 부산·서울·제주 3파전(국제 5. 25)
* 기장군, 부산 편입된 후 도·시 유지 12만6천형 못받아, 양산시와 대립(부산 5. 25)
* 북구청, 산성로 확장 본격추진, 북구~금정구 촉 12m로, 체증완화 기대(부산 5. 25)
* 시, 시립의료시설 축소 신축, 예산난 원인, 치매센터·의료원병상 크게 줄여(부산 5. 25)
* 부산교통공단, 철도건설부, 지하철 2호선 환승역 위치 싸고 논란, 지하철 올림픽 동산역-동해 남부선 우동역(부산 5. 25)
* 해운항만청, 바다의 날 행사 일정 발표(부산 5. 25)

바다의 날 행사 일정

행사	장소	일시	주최
열린음악회	부산신선대부두	5. 27 오후 7시 30분	KBS
전야제	해운대해수욕장	5. 30 오후 7시 10분	해항청
기념식	부산신선대부두	5. 31 오전 10시	해항청
항만공개	부산항 1부두	5. 27~6. 1	해항청

* 부산시종합건설본부, 신호공단내 철새서식지 조성계획 백지화, 60억 절감, 시설 추진 본 궤도(부산 5. 25)
* 롯데월드 지하도로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시 지적사항 수용않아(부산경제 5. 26)
*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부산연안 중금속 범벅, 적기·다대포 등 3등급 수준, 해수욕장 주변도 오염 심각, 전해역서 검출(부산경제 5. 26)
* 제25회 전국소년체육대회(포항, ~5. 28)(부산교육 5. 25)

5. 26 * 전국 청소년 시조 백일장(교육대 강당)(부산교육 5. 26)

5. 27 * 시, 대연2동 체육공원 약수터, 지하수 마신 18명 장티푸스 증세, 가검물채취·역학조사 의뢰, 여름철 약수터 관리대책 절실(부산 5. 27, 부산매일 5. 28)
* 부산시교육청, 인문계 중간고사 실태 조사, 쉬운 문제 고의 출제 등 특감(부산매일 5. 28)
* 시, 하나로 교통카드 시행 10월로 연기, 판매주체 결정 등 준비(부산매일, 국제 5. 28)
* 법무부 부산출입국 사무소, 신종 밀입국수법, 부산밀항 중국 선박서 조선족 탈출(부산매일 5. 28)
* 시, 부산시민의 종 모금 앞으로 나올, 목표액 30%도 미달(부산매일 5. 28)
*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하구둑 수문 새단장, 특수도료 사용 도장공사(부산매일 5. 28)

5. 28 * 시, 백양터널 관통식, 길이 2천3백40m, 부산 최장(국제 5. 28)
* 강서구의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사례 발표회, 그린벨트 완화 집단 요구, 전국 40여 기초단체장 대정부 건의문, 공공·편의시설 신축 불가능, 독립법 제정 지역 실정 맞게(부산, 국제 5. 28)
* 해운항만청장, 부산항 개발에 상당액 투입 시사, 내년 예산 3배 증액 추진(부산매일, 국제, 부산 5. 28)
* 출입국사무소, 감천 무단입항 중국인 선장 입건, 조선족 위장 밀입국 추궁(국제 5. 28)
* 시, 3백57곳 점검, 집단 급식소 위생 불량, 종업원 건강진단 미칠, 조리장 불결 등, 집단급식소 46개소, 도시락업체 7개 위반사항 적발, 11건은 허가 취소, 5건은 과태료, 19건은 시정명령, 18건은 시설개수 명령(부산 5. 28)

* 사상구청, 사상～백양로 연결도로, 예산부족으로 난항, 시 우선순위 밀려, 대책 시급(부산 5. 28)
* 시, ASEM 유치 시 수영단지 가속화 사기로, 컨벤션 센터 등 2년 앞당겨 완공 가능(부산 5. 28)
* 동래구청, 무인민원실 성과 적어 폐지, 한달 12건에 불과, 행정력만 낭비(부산매일 5. 28)
* 대남로터리, 주거밀집지 도시가스 폭발, 인부 1명 중상, 주민 긴급 대피(부산 5. 29)
* 국립수산진흥원, 부산연안 조개독 확산 기미, 잔류 허용치도 34배 초과(부산경제 5. 29)
* 시, 쓰레기 매립장 부지 공모, 폐기물 처리난 시민 공유, 주민공청회 등 절차 거쳐 조성키로(부산매일 5. 29)
* 시, 지역 이기로 부산 현안 표류, 합리성 적은 집단 민원에 당국은 소극적 대치, 하얄리아 거액 보상요구 이전 준비 저지, 치매센터 혐오시설 입지 땅값하락 반발, 서부산권 헐값 인도요구 분양에 큰 차질(부산매일 5. 29)
* 자원봉사센터 개소(부산시정 5. 28)
* 백양산터널 관통식(부산시정 5. 28)

5. 29
* 해운대경찰서, 고교생 2명 소설 읽고 성폭행 기도, 컴퓨터 통신 음란물 위험 수위(부산 5. 29)
* 남부경찰서, 세관-밀수조직 결탁, 참깨밀수사건, 금괴・히로뽕 등 적재여부 추궁, 증발 트럭 세관원이 빼돌려, 12명 무더기 입건(부산, 부산경제 5. 29)
* 영도구청, 연결 도로 인수 거부, 도시개발공사 영도 동삼 아파트 부실 후유증, 하수시설 등 곳곳 하자(국제 5. 29)
* 건설교통부, 경부고속철 2002년 개통 사실상 불가, 아시안 게임 차질 우려(부산 5. 29)
* 시, 시장 인사재량권 강화, 민선 출범 후 시장 장악력 되레 줄어, 발탁 승진 등 대폭 확대(부산매일 5. 30)
* 시, 관급 공사 설비・보수 등 서울 업체에 발주, 지역업계 경영 악화, 경쟁력 상실 부추겨(부산매일 5. 30)

5. 30
* 해운대구청, 신시가 안내서 배포, 입주민 필요한 행정절차 수록, 공공기관 전화, 교통 등 소개(부산매일 6. 9)
* ㈜대우, 두송반도 대규모 유원지 은밀 추진, 다대 8경 훼손 위기(부산 5. 30)
* 시, 대연2동 체육공원, 장티푸스 또 16명 발병, 수천세대 지하수 마셔 확산(부산 5. 30)
* 시, 다대포 개발 변경 추진, 목재단지, 녹산에 유치, 사하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부산 5. 30)
*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청회(부산 5. 31)
* 부산시교육청, 40개 초동학교 특별 감사, 금품물의 교원 135명 징계(부산 5. 31)
* 해운대 신시가지, 첫 입주, 교통・교육 등 기반 시설 까마득(부산매일 5. 31)

5. 31
* 사하구청, 특수시책연구회 개최, 주민체감행정 펼친다, 민원신청 서류 직접 배달, 노인공동작업장 등 18개 특수시책사업 채택(부산매일 6. 4)
* 부산시, 장티푸스 환자 초기 발생 때 검진한 병원서 신고 안했다, 방역체계 큰 허점, 고발 조치키로, 환자 2명 더 늘어 37명(부산매일 6. 1)
* 제25회 부산민속예술경연대회 개막, 6월 1일까지(부산매일 5. 22)
* 시장-대통령 오찬, 부산 현안 중요성 설명, 하얄리아 무상양여 건의, 선물 거래소 유치, 가덕 개발도 촉구(국제 5. 31)
* 해양부 8월 신설키로, 대통령 바다의 날 기념식서 밝혀, 해양청-수산청-해양경찰청 통합(국제 5. 31)
* 일선 구청, '민선출범 1년간의 성과와 비전제시' 기념식 추진, 혈세낭비라는 비난(국제 5. 31)
* 제1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부산시정 5. 31)

6. 1
* 부산시, 부산당정회의개최, 주요사업 국비확보 방안 협의, 가덕도 특별법 제정 건의, 1백50만평 신도시 조성도, 낙동・금호강 유역 환경보전지구로(부산 6. 1, 부산경제, 부산매일 6. 2)
* 부산시, 시보건환경연구회, 장티푸스 원인 발표, 시 "지하수 탓", 보건환경위 "늑장신고, 병원관계자 고발"(부산경제 6. 2)
* 중국 국제항공공사소속 CA-129편, 부산～북경 첫 취항(부산경제 6. 2)
* 부산시, 지방세 감사 착수, 체납자 수납독촉에 이의신청 봇물, 부산 3개구청 감세 의혹(부산 6. 1)
* 구청 예산집행 무원칙, 공약사업 치중, 민원성 회피, 사하구청, 문화회관공사 무리하게 추진, 서구청, 도서관 건립 시서 제동 부담만(부산 6. 1)
* 부산시, 해운대구청, 반여동 삼해대림, 다 지은 아파트 입주 막막, 사용조건 수영강변로 늦어져, 예산부족 98년께 완공, 주민들 항의, 구청 가사용승인 검토(부산 6. 1)

6. 3
* 부산시, 차량등록 업무이관 차질, 시 일방추진에 구청 반발, 인력 및 장비 확보 안 돼 실시 어려움(부산매일 6. 4)

* 동래구, 동래구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단체 중 최초로, 9월부터 20일간 거주지 만족도 등 62항목(부산매일 6. 2)
* 부산시, 다대포 개발사업 백지화, 공단지정 신청 반려, 자연 주거환경 훼손, 여론 수용(부산매일 6. 4)
* 부산시, 조직개편 앞두고 술렁, 물밑 인사청탁 치열, 민선 1기 성취시금석, 관심집중(부산 6. 3)
* 부산지방경찰서, 해운대경찰서, 신시가지 종합치안대책 수립, 신시가 불안하고 불편, 파출소 없고 순찰도 대낮과 새벽 제외, 먼지범벅 도로 1km씩 걸어야 버스(부산 6. 3)
* 부산시, 장티푸스 신고외면 의사 4명 고발 조치, 정밀역학조사 착수(부산매일 6. 2)
* 영국 문화원장 교육감 방문(부산교육 6. 3)

6. 4
* 건설교통부, 녹산~밀양간 고속도로 신설, 98년 착공, 신항만 물동량 원활처리, 대구~대동, 남해고속도로 등과 연결(국제 6. 4)
* 해양부 신설, 부산해양기관 지각변동 예고, 지방 해양청(가칭) 해양과 수산업무 총괄할 듯, 통합대상 공무원 인사바람 예상(국제 6. 4)
* 부산지검, 부산지방경찰청 부산본부세관, 세관서 밀수범 방면, 경찰에서 인계받아 입건조차 않아(부산 6. 4)
* 부산시, 수영만 매립지, 5개업체 7만여㎡ 비업무용 판정, ㈜대우 등 2백20억 중과세(부산 6. 4)
* 부산시, 심야영업 제한 7월 완화, 잇단 국제행사 이미지 제고, 새벽 2시까지 연장, 연말까지 실시 후 확대 여부 결정(부산 6. 4)
* 부산시, 다대공단 지정신청서 반려,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로 불가, 차관 1억불 취소 확실, 국고 지원사업 불투명, 목재 가공업종 제외 때문에 재검토(부산 6. 4)
* 부산시, 국제회의 도시 지정 총력전, ASEM개최, 경주-제주 육성 반발(부산 6. 5)
* 부산교통공단노조, 노사협상 결렬, 지하철노조 쟁의 신고(부산경제 6. 5)
* 부산시, 해운대구청, 해운대 종합관광개발 표류, 온천센터 토지매입 엄두 못 내, 송림공원 포기, 집단 민원 유발(부산매일 6. 5)
* 부산시, 북구청, 사하구청 등, 기장하수처리장 공단폐수 처리 포기, 주거단지 하수로 용량 차버려, 1차 정화 조차 못하고 직방류, 낙동강 연안해역 오염 가속화(부산매일 6. 5)
* 부산 교통환경연구원 시민공청회, 공영주차료 최고 백% 인상, 구역별 거주자 주차우선제 도입, 내달 시행 예정(국제 6. 5)
* 부산시, 먹는 물 관리대책 발표, 먹는 물 동장이 관리, 여름철 월1회 검사(부산경제 6. 5)
* 부산시, 보건소 기능개선방안 토론회, 보건소 예방활동 강화, 구청 위생과 통합 등 직제 확대개편(국제 6. 5)
* 서부교육청, 전국 최초로 교원 자율연수 실시, 희망자에 연구비 특전 제공(부산매일 6. 6)

6. 5
* 부산지검, 감천 2동장 등 2명 영장, 구청간부 지방세 거액 착복, 기업 관계자 결탁여부 등 전면 수사(부산매일 6. 6)
* 국립수산진흥원, 기장~울산앞바다 대규모 냉수대, 섭씨 10도 안팎, 해역확산, 어민·당국 긴장(부산매일 6. 6)
* 부산시, 새주차정책 발표, 도심 주차장 건립 제한, 주차우선제 도입도 추진, 시외곽은 시설 대폭 확충, 요금 인상(부산매일 6. 6)
* 부산토지공사 부산지사, 녹산분양연체 선별 해약, 대금 납부 계획서 제출업체 구제(국제 6. 5)
* 부산제주연료공업현동조합, 둔치도 연료단지 차질, 민원 쏟아져 시공업체 계약 기피(국제 6. 5)
* 부산금융업계, 종금사 cp할인 신용등급기준 강화, 부산 중소기업 단기 자금난 가중, B등급 통과업체 극소수, 평가사 서울소재, 수수료도 7백만원(국제 6. 5)
* 부산해항청, 다대포 개발 전면 백지화, 목재공단 불허에 수산단지 등 취소, 지자체 반대 항만조성 첫 무산, 사업조사, 용역비 17억만 낭비(국제 6. 5)
*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시민 환경선언 채택, 환경조례 조속제정 촉구, 황령산 두송반도 등 풍전등화, 무분별 개발 자연훼손 막아야(부산 6. 5)
* 해운항만청, 제1유일호 기름유출사고 사후수습 차일피일, 피해어민 6백억 보상 막막(부산 6. 5)
* 부산미술협회, 제22회 부산미술대전 발표, 서양화, 한국화, 판화, 조각 등(국제 6. 5)
* 부산시, 아시안게임 경기 계획대로, 조기개최 불가판단, 월드컵기획단도 구성, 연계방안 마련(부산, 국제 6. 5)
* 부산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2년간 방치, 부동산거래 혼란(부산 6. 5)
* 부산시, 부산경찰청, 경찰 외사기능 확대 시급, 외사과 인원 부산 경찰의 1%미만, 잇단 국제대회 앞두고 보안허점 우려(국제 6. 5)
* 수산청, 해양부 조직안 협상안 마련, 1실 9국, 해항·수산분야로 반분(부산 6. 5)

* 수영구청, 공설 광안시장 철거 마찰, 시 “건축비 없어 보수만”, 구청 “시에서 재건축 하라”, 상인 “무작정 철거 안 된다”(부산 6. 5)
* 부산본부세관, 부산항 밀수 감시체계 엉성, 형식적 검색 적발 구멍, 직통관 시행 앞두고 기존 방법 고집, 출입 차량 검문 제대로 안 받고 통과(부산 6. 5)
* 부산남구의회, 제52차 남구의회 임시회, 조례제정안 부결, 보건소 설치 부결, 장비 보관마저 고충, 의회 내규에 주민숙원 희생(부산매일 6. 7)
* 부산시, 부산시정 싱크탱크 표류, 통합기구 정책개발실 운영안 마련 안 돼(부산매일 6. 7)
* 부산교육청, 인문고 보충수업 개선, 희망학생 국한 자율운영 지시(부산매일 6. 6)
* 사단법인 백산 안희제 선생 독립정신계승사업회 발족, 올부터 학술, 문화, 추모행사 추진(부산매일 6. 6)
* 정부, 부산~대구간 조기 전철화, 고속철 공기지연 대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때 수송잠정활용(국제 6. 6)
* 동구청, 관내 노후아파트 재건축 박차, 30일까지 2천1백여세대 대상, 입주민 설명회 개최(부산매일 6. 12)
* 남부하수처리장 준공(부산시정 6. 5)

6. 6
* 부산상의, 부산지역 200개 업체 대상으로 공동상표 조사, 찬성 63%(부산매일, 국제 6. 6)
* 북구청, 북구의회, 지하철 2,3호선 연계이전 추진, 구포역 옮겨야 한다, 낙동강 고수부지 적절(부산매일, 국제 6. 6)
* 부산교육청, 성적 인플레, 첫 재시험, 3개고 쉽게 출제, 평균 85점 넘어(국제 6. 6)
* 부산시, 교육청 현안사업 마비, 교육부서 교부금 800억 지원 미뤄, 학교신설, 2부제 수업 해소 등 차질, 환경 개선은 엄두조차 못내(부산매일 6. 7)
* 재경원발표 지역 물가 동향, 부산 전국 최고, 각각 0.9%, 1%씩 올라, 지자체 감시, 37개 품목은 평균 이하(부산매일 6. 7)
* 부산시 ASEM개최, 국제회의도시 지정 잇단 탈락, 부산 컨벤션 도시화 차질, 정치권 공양시행 나서야(부산매일 6. 7)
* 부산시, 부산시내 호텔위생 엉망, 49곳 적발, 국제행사 앞두고 망신 우려(국제 6. 6)
* 해운항만청, 제1유일호 기름유출사고 사후수습 차일피일, 피해어민 6백억 보상 막막(부산 6. 5)
* 검찰, 구청 업무과실 적발보다 무마 급급, 비리 덮어두기, 세금횡령 문책대신 변제 종용, 책임회피 위해 늑장 수사 의뢰(국제 6. 8)

6. 7
* 부산지역 소아과, 어린이 질병 부산에 기승, 급성폐렴 유사, 6세 미만 주로 발병, 소아과 환자 절반 차지, 치료법 없어 비상(부산매일 6. 8)
* 부산시, 남부하수처리장, 설계변경, 또 지연, 차집관로 이어 졸속배출구 말썽(국제 6. 7)
* 부산시, 안전점검, 위험교량 방치, 돈 없어 20곳 보수 연기, 재가설 대상 15곳, 개보수대상 83개소(교량 76, 터널 7개소), 2000년까지 정비 완료 계획(국제 6. 7)
* 부산해항청, 부산항 ‘컨’ 물동량 회복세, 5월 올 최고치 하루 8천7백여개 처리(국제 6. 7)
* 한국토지공사, 녹산공단 290만평 규모 확대, 진우도 앞바다까지 매립, 당초 40만평 계획 변경, 부산시 등과 협의, 곧 확정, 공업용지난 해소 도움(6. 7)
* 부산해운대구의회, 해운대 3개 대형건축물 위법 적발, 의원 8명 두 달동안 정밀조사, 공무원 묵인여부 등 수사해야(부산 6. 8)
* 해운대구청,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준비 한창, 해변 전망대 등 설치, 송정 바다축제 첫 개최 적극 홍보(국제 6. 7)
* 부산본부세관, 참깨 2억원 컨테이너째 반입한 선사 간부 등 4명 구속, 4명 수배(부산 6. 7)
* 부산시장, 청와대 건의, 아시안 게임 지원 요청, 월드컵 연계 정부 차원 국제 홍보 등, 국제회의 도시 지정도(부산 6. 7)

6. 8
* 부산시, 녹색교통운동 재점화, 승용차 10부제, 대중교통 이용, 교통질서 준수, 10일~16일, ‘교통문화대행진’ 기간 지정, 차 없는 광복로 등 갖가지 행사(부산매일 6. 9)
* 부산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부산중소기업조합 연합회 경성, 전국서 처음, 비자금, 인력난 등 공동 대처, 7월 중 정식 출범(부산 6. 8)
* 부산시, 신호공단 적자조성, 천6백억원 예상, 재원조달 비상(국제 6. 8)
* 건교부, 부산~대구철도 전철화 2001년 완공, 경주는 제3노선 연내 확정(부산매일 6. 9)
* 정부, 아시안게임 국비지원 요청 불허, 부산시 신청액 60% 삭감, 재경원 넘겨, 경기장 시설 등 큰 차질, 시, 예산안 확정전 재요청키로(국제 6. 8)
* 부산진구청, 행정예고제 시행, 아파트 건립, 도로공사 등, 집단민원 소지 사전대응(부산매일 6. 8)

6. 10
* 부산경찰청, 세관직원 이례적 구속, 참깨밀수 연루, 초소장 등 5명 관세법위반 등 혐의(부산매일 6. 11)

* 부산시, '나홀로 차' 통행제한, 공청회 한번 안 열고 전격 결정, 통행량 등 기초조사조차 생략, 경찰측도 부정적, 범칙금 4만원, 오는 1일부터 8월말까지 시행, 도심 1급 주차료 200%인상(부산 6. 10, 부산매일 6. 11)
* 부산시 시장, 지방세비리 척결지시, 13개 구청 재감사, 3개 구청은 일정 연장(국제 6. 10)
* 아시아 판화 미술축제 운영위원회, 3차 운영위원회 개최, 오는 9월 12일~20일, 아시아 판화미술 축제 부산서 개최하기로(부산 6. 12)

6. 11
* 부산시, 구덕터널 통행료 최고 66.7%인상, 관련조례 개정, 7월 중 시행, 이용자 반발 예상, 승용 5백원, 승합·화물차 6백원으로(부산 6. 11)
* 환경부, 부산 오존오염 무방비, 1월 0.016ppm, 4월 0.023ppm, 5월 31일 시간평균 최고치 0.115ppm, 환경기준 초과, 경보제 시행 안 돼 시민 건강 위험(부산 6. 10, 부산 6. 11)
* 일본 노무라연구소 용역보고서, 기장에 해중공원 개발, 국내 최초로 인공섬 10여개도 건설, 4권역 특화 종합관광지 조성, 첨단레저시설, 전천후 휴양지로(부산매일 6. 11)
* 부산시, 기장군 개발계획안, 기장 해안관광로 대폭 확장, 병산유원지엔 영화타운, 해운대 관광특구와 연계 부거점화, 2006년까지 개발, 도시지역 19㎢확대, 2천6년까지 인구 15만 수용, 13개 중소생활권 갖출 예정(부산매일, 부산 6. 12)
* 일본 시모노세키 교류단 방문(교육감실)(부산교육 6. 11)
* 학생 봉사 활동 지도교사 연수회(부산교육 6. 11)

6. 12
* 부산천주교 남천·용호·석포 성당 황령산 개발반대 서명운동 캠페인 전개, 환경단체, 공사부당 탄원서, 학계도 지정철회, 수사촉구 나서(부산 6. 14)
* 시청사 주변 도시설계 기본구상 및 방향설정 자문위원회, 시청사 주변 도심 중핵지구 개발 토지 부족, 앞바다 매립 공간 확보 필요, 수산물 공장~연안부두 확장구간 사이 8천평, 업무·상업문화·수변상가 등 3개 시설군 배치(부산 6. 13)
* 서구청, 송도해수욕장 본격 개장 채비, 수질관리, 주차장 확보 등 쾌적 피서환경 조성(부산매일 6. 12)
* 부산시, 감사원 감사, 공무원 5인 고발조치, 금정·해운대구 천여만원 횡령, 누락, 감세 만연(부산 6. 12)
* 부산시, 그린벨트 내 쓰레기 소각장 추진, 후보지 4곳 입지 조사, 양산시 경계인근, 대천천 북쪽, 대천천 남쪽, 만덕1터널 위쪽, 금정산 2만평 훼손 위기(국제 6. 12)
* 정부, 주민조례 청구제도 도입, 지자체간 분쟁 직권조성, 내년 시행 목표(국제 6. 12)
* 평통 제7차 지역회의(부산시정 6. 12)

6. 13
* 부산시, '나홀로차량' 통행제한 조치에 대한 논란 여론 무시, 독주행정, 자치 무색, 방침 결정 후 설문 짜맞추기(국제 6. 14)
* 사하구청, 사하구 종토세 유용 의혹, 4천여억원 과다징수, 3년간 환급안 돼(부산 6. 13)
* 부산시, 내달부터 심야영업 규제 완화, 접객업소 오전 2시까지 영업 허용(부산 6. 14)
* 부산시 주차관리공단, 주차공단 운영 난맥, 비리 잇따라도 미온처리 급급, 견인보관소장 횡령 고발 기피, 주차장 특혜 준 직원 요직 발령(부산 6. 13)
* 재정경제원 내무부, 부산 부채증가율 전국 최고, 6대 도시비 크게 상회, 지난해 재작년 비해 30%늘어, 이자급증, 대구 20%, 인천 17%, 광주 10%, 서울 6.4%, 대전 1.5%, 부산 30%(국제 6. 13)
* 부산시, 금정구청, 8월부터 산성고개~남문, 산성마을~북문, 산성로~호국사 3개 구간, 주말 차량 통제(부산매일 6. 14)
* 부산시, 시 청사부지 주산간판 면소로 조성, 워터프론트형 시가지 개발, 50층 컨벤션센터, 대형백화점 호텔, 수변공원, 낚시터 등 도시설계안, 97년 착공 2000년 완공(국제 6. 13)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 가장 살기 불편한 도시, 인구수 밀도 2위, 공원·도로율 최악, 실업률 4.2%로 최고, 상대적 박탈감 심화(국제 6. 13)

6대 도시 지표 분석

실업률(단위 : %)		1인당 GRDP(단위 : 만원)	
부산	4.18	부산	495
서울	2.74	서울	654
대구	3.65	대구	465
인천	2.84	인천	647
광주	3.65	광주	507
대전	3.96	대전	566

6. 14 * 부산시, 신시가지는 고통도시, 문화시설커녕 파출소, 동사무소도 없어(부산경제 6. 15)
* 부산시, 지방산업단지 지정추진, 대체부지 매입비・공원 조성비 등 큰 몫, 수영단지 개발이익 3,300억으로 예상(부산 6. 14)
* 건설교통부, 지사단지 국고 200억 지원, 내년 10개 지방공단에 977억 지원, 연리 5%, 5년거치 10년 분할 상한조건(부산 6. 14)
* 부산시립무용단, '심청' 공연, 국제화 겨냥 야심찬 기획 눈길, 2백여명 출연, 생동무대 기대, 전통 효사상 현대적으로 재구성(국제 6. 12)
* 환경운동연합, '온천법개정과 무분별한 온천개발 반대를 위한 전국 공동대책 위원회 결성, 22일 광주・충주 회원 부산 방문 반대시위, 법조・학계 연대 온천법 개정 청원도(부산 6. 15)
* 부산시, 조직개편 관련 조례와 관련규칙 14건 공포, 7월부터 시행 계획, 대형 사업소 기형 통폐합, 지휘계통 혼선, 업무중복 등 우려(국제 6. 14)
* 부산지검, 부산세관, 청탁받고 밀수수사 축소, 주범 입건도 않고 사건종결(국제 6. 14)
* 부산시, 안전공사, 가스안전 대형 공사장 24곳 긴급 점검, 누설 경보기 미설치, 고장방치 예사, 부실 12곳 시정명령 조치(부산 6. 14)
* 교통공단노조, 부산지하철 20일 파업 결의, 쟁의 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74% 찬성, 한국통신 등 공동노조 연대투쟁(국제 6. 14)
* 제18회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어린이회관(~6. 18)(부산교육 6. 14)

6. 15 * 거제 해상서 화물선 '안나스피라토호' 충돌 1척 침몰, 기름띠 부산앞바다 접근, 너비 100m 유막 북동쪽 확산, 연료탱크 파손 땐 대형사고, 외국인 선원 26명 실종(부산 6. 17)
* 부산시, 장림하수처리장, 장림하수처리장 기능장애, 악성폐수 유입 활성, 쇼크사, 방류수 기준초과 오염 가중(부산경제 6. 16)
* 부산경찰청, 수입산이 부산명물로 둔갑, 산성마일 염소불고기, 자갈치 곰장어구이, 호주 산양고기, 미국 냉동 곰장어 헐값 반입, 경찰, 폭리업주 수사 확대(부산매일 6. 16)

6. 17 * 버스조합,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구, 4개월여만에 일반 4백원 등 11.2% 인상 요구(부산 6. 18)
* 부산시의회 문화환경위, 낙동강 보전에 특단 조치, 관련부처 현지에 조사단 특파, 한강 지역 등 대응 실태도 수집(부산매일 6. 18)
* 생곡매립장 관리사업소, 생곡 매립장 침출수 유출, 인근 저수지 하천 오염・물고기 떼죽음(부산 6. 17)
* 일선구청, 식품위생 점검 겉치레, 예산부족, 대상품목수 미정, 무상수거 위주, 효과 못거둬(부산매일 6. 18)
* 부산 16개 구・군, 구청장 공약이행 부진, 추진완료 10%불과, 예산・법규에 걸려 상당수 허위 공약 가능성(부산 6. 17)

6. 18 * 부산시, 부산서도 일본뇌염 모기 발견, 작년비 10여일 늦어, 월내 예방접종 필요(부산매일 6. 20)
* 부산고등법원, 영도구청장 직권기소 명령, 재판부 특별검사 지정, 전국선거 사범 처리에 큰영향 전망(국제 6. 19)
* 부산시, 심야영업 연장 전면 재검토, 과소비・청소년 탈선 조장 여론 감안, 경찰도 치안 인력 부족 시행에 난색(부산매일 6. 19)
* 부산시, 낙동강환경관리청, 부산 대기오염 최악, 5월 오존농도 사상 최고, 0.115ppm, 산성비(3.8ppm), 먼지(0.285㎍/㎥)도 기록 갱신(부산 6. 18)

6. 19 * 행정쇄신위원회, 환경영향평가, 행정쇄신위원회 개선안, 협의 위반자 직접 과태료 부과, 시・도에 조례제정권 부여(부산매일 6. 20)
* 부산시, 세부시행안 마련, '나홀로 차' 통제기간 단축, 황령터널 통행차량 등 제외(부산경제 6. 20)

6. 20 * 환경부장관, '위천 불가' 변경 조건부 승인, 환경평가 통과되면 부대조건 달아 조성(국제 6. 21)
* 부산시, 황령산일대 온천지구 지정, 내부반대도 묵살, 지하수 고갈・자연훼손 지적 무시 전격 결재, 시민단체 불허건의도 허사(부산 6. 20)
* 부산시, 불법 공산품 판매 합동 단속, 형식승인 미필 등 65종 적발,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서 유통, 안경테부터 수입품가지 다양(부산경제 6. 21)
* 시보건환경연구원, 부산해수욕장 대장균 득실, 광안리 기준치(T-P 0.10ppm) 3배 초과로 T-P 0.151ppm , 생활하수 등 유입, 수질 갈수록 악화(부산 6. 21)
* 부산교통공단, 철야 마라톤 협상 막판 악수, 노조원 출근 지하철 정상 운행, 해고자 넷 취득 임금 8%인상, 직제 추진위 등 구성 잠정합의(국제 6. 20, 부산매일 6. 21)

*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소, 감천항 외국선원 무단이탈 급증, 원양업체 조업 차질, 올 들어 123명, 전문브로커까지 등장해 활개(부산 6. 21)
* 부산시, 가덕~거제 전구간 참매터널 확정, 1조2천억 소요, 7월 민자유치 공고(국제 6. 20)
* 장림하수처리장 인근, 물고기 떼죽음, 독수 유입 집단폐사 추정, 하구둑 사무소·장림처리장 서로 네탓, 시 등 관련기관 원인규명 나서(부산매일 6. 21)
* 통계청, 94년 15개 시도별 1인당 GRDP 발표, 부산, 5백50만원으로 전국 14위, 부산 경제성장률 지난해 비 2.1%증가, 6.1%기록, 전국 평균 8.06%에 못 미쳐, 전국 11위(부산경제, 부산매일 6. 21)

94년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지역	금액 (10억원)	인구구성비	1인당생산액 (천원)
서울	76,806.1	24.1	7,160.2
부산	20,895.0	8.5	5,505.0
대구	11,783.7	5.1	5,244.2
인천	14,738.1	4.8	6,962.5
광주	6,944.4	2.7	5,718.7
대전	6,923.2	2.6	6,003.4
경기	49,901.6	16.4	6,854.4
강원	8,165.6	3.3	5,635.3
충북	9,913.6	3.1	7,219.9
충남	12,528.4	4.2	6,645.9
전북	11,140.3	4.3	5,811.6
전남	15,848.0	5.1	7,056.8
경북	20,843.9	6.2	7,589.2
경남	36,384.8	8.5	9,601.0
제주	3,126.4	1.2	6,042.0
합계	305,973.5	100.0	6,883.1

6. 21
* 부산교육청,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보고, 교내폭력 근절운동 본격 추진, 학생 자율 정화위원회 등 조직(부산, 국제 6. 21)
* 부산시, 가덕도 어업권 보상 난항, 3천억대 추정, 종합개발에 걸림돌, 경남·토공 관련사업 미확정, 협약지연, 조사 조차 착수 못해(부산 6. 21)
* 부산시, 환경관리청 시료채취 원인조사, 낙동강 하류 물고기 떼 죽음, 홍티천서도 웅어 등 수천마리 떠올라, 하구둑 수문개방 흙탕물 유입(부산, 국제 6. 21, 부산매일, 부산경제 6. 22)
* 건교부, 가덕 신항만 연계사업 늑장, 배후 수송망·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협의 미뤄(부산 6. 21)
* 국립수산진흥원, 기장, 울진 앞바다 냉수대, 양식장 멸치잡이 어선 요주의(부산 6. 21)
* 환경부장관 부산 방문, 부산시, 위천문제·낙동강보전 명확한 입장표명 요구, 부산시의회, 대통령 면담 추진, 부산시, 신한국지부는 정부 움직임 관망만 한다고 비판, 환경부장관, 위천공단 조건부 승인 시사, 환경평가 통과되면 보완조치 부과(부산, 부산매일, 국제 6. 22, 부산매일 6. 23)
* 부산경찰청, 해수욕기간 교통대책, 해운대주변 화물차 통제, 광안리 4개 이면도로는 차단(부산경제 6. 22)
* 부산시, 영도·거수 보궐선거 실시 공고, 7월 11일, 22일부터 26일까지 부재자신고(부산 6. 21)
* 한전 부산화력발전처, 감천동 화력발전호 1·2호기 연말 퇴역, 철거비 200억원, LNG 복합발전소 건립(국제 6. 21)
*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개최(부산교육 6. 21)

6. 22
* 위천공단저지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위천반대 다시 확산, 시민단체, 시의회 연계 저지투쟁(부산매일 6. 23, 국제 6. 24)
* 한국도로공사 영남권 건설사업소, 구포~양산, 냉정~구포, 2개 고속도 28일 개통(부산경제 6. 22, 부산매일 6. 23)
* 시종합건설본부, 해운대구청, 수영강 범랑 위험, 강변로 토사 2만톤 방치, 토질 나빠 매립용 꺼려 처리 곤란, 장마철 강 흐름 막아야(국제 6. 22)
* 생곡쓰레기 매립장 주민공동대책위원회, 부산시에 생곡쓰레기 반입 전면 중단 요청, 침출수 방수막 등 재시공(부산매일 6. 23)
* '나홀로 차' 규제 마찰음, 시 "여론·현지조사 등 타당성 확보", 민 "비현실적 부분 많아 보완 필요"(부산경제 6. 22)

* 해운항만청, 가덕도 신항만 개발 본격화, 개발사업비로 3천78억원 요구, 울산・포항 등 7곳도 공사 착수(부산 6. 22)

6. 23 * 제5회 부산무용제 개막(~25)(국제, 부산 6. 21, 부산시정 6. 23)

6. 24 * 부산시장, 취임 한 돌 기자회견, 스마트 21 본격 추진, 부산을 세계 첨단 해양도시로(부산경제 6. 25)

* 부산시장, 시의회, 위천저지에 총력 연대키로, 재경의원 함께 대구로비 맞서(국제, 부산매일 6. 25)

* 부산시장, 1인탑승 승용차통제 관련 주민홍보강화계획, 수영・충렬로 10일까지 강제우회, 지도장 발급, 나홀로 차량 단속 10일간 유예(부산 6. 25)

* 부산 경남 집중호우, 피해속출, 평균 강우 백50mm, 곳곳 농경지 침수, 산사태, 내일 오전까지 50~1백mm 더 내릴 듯(부산 6. 25)

* 부산지검, 죽음의 낙동강 수사, 시・구합동 어패류 떼죽음 원인규명 착수(부산 6. 25)

6. 25 * 신시가 발전소 부실시공, 설비 미비, 입주 후 17일 늦게 가동, 작동 1주만에 고장, 1천7백여세대 난방・온수 중단 큰 불편(국제, 부산매일 6. 25)

* 남부 장마 호우 피해 속출, 부산 1백34mm, 농지침수, 국도 교통 두절, 대학생 등 4명 급류 휩쓸려 실종(국제 6. 25)

*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사업 본격화, 황강취수원 부근 상수원구역 제외, 이달부터 적극 대민협상, 1단계구간 설계완료 10월 착공(부산 6. 25)

* 동래구청, 동래문화회관 건립사업 연말 착공키로, 1백15억원 투입, 올 예산 31억원 확보(부산 6. 25)

* 부산시, 도시계획 피해감수 조건부 허가, 정관지역 공장규제 완화(부산 6. 25)

* 부산, 정음리서치, 문정수시장 시민기대 미흡, 매우잘함 2.1%, 비교적 잘함 17.2%, 보통 59.6%, 다소잘못 16.3%, 매우 잘못 4.8%(부산 6. 25)

* 제5회 부산무용제 대상, 부산발레연구회 '섬'(부산 6. 25)

*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위천 정치권이 해결하라, 지역출신 의원들에 역할 촉구, 서명재개, 내달초 궐기대회, 시의원 20명 상경, 저지운동(국제 6. 26)

* 환경부, 이달 산성비 잦아, 부산 등 전국 수차례 내려(부산매일 6. 26)

* 부산지하철 대티역 승강대, 누수 잠수철, 시간당 수십 톤 쏟아져, 부실 의혹, 전동차 덮쳐 안전 위협, 교통공단, 뒤늦게 보수 공사, 법석(부산매일 부산, 6. 26)

* 신시가지 치안봉사센터, 개설, 경찰 17명 배치 파출소 개소때까지 가동(부산매일 6. 26)

* 시교육청, 내달초 토론회 개최 미비점 보완, 보습학원 전환 끝내 허용(국제 6. 26)

6. 26 * 부산본부세관, 현행 수입면허제의 신고제 전환과 관련, 부산항을 통해 반입되는 수입물품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이에 따른 밀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부산세관 내달 실시(국제 6. 26)

* 부산상의, 기업이어 정보, 연구기관마저 서울집중, 경제력 지방이양 특별법을, 산업 70% 수도권 밀집, 행정기관 등 분산 시급(국제 6. 26)

구분	수도권				부산권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제조업본사	81.7	72.3	2.8	6.6	6.8	4.7	2.1
제조업체수	55.6	22.5	6.8	26.3	17.4	10.2	7.2
상장회사	78.1	59.1	4.5	14.5	11.3	6.5	4.8
그룹계열회사	79.0	72.8	2.5	3.6	10.1	5.0	5.1

*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대티역서 누수, 천정서 빗물 쏟아져, 부실시공(국제 6. 26)

* 부산대, 인제 등 5개 대와 체결, 학점인정, 학생교류 등 6개조 합의(부산 6. 25, 국제 6. 6)

* 제5회 부산무용제, 5개 팀 열띤 경연, 부산발레연구회 '섬' 대상(부산, 부산매일, 6. 26)

* 부산 남부경찰서, 횡령산 온천개발 비리 본격 수사, (주)라이프플랜 압수영장, 장부, 통장, 인가서류 등 일체, 공무원 유착, 뇌물여부 추적(부산 6. 26)

* 부산지검, 오폐수 1백여톤 하천 불법 배출, 시의원 구속(부산 6. 26)

* 공정거래위원회, 레미콘값 담합 부산21개 사에 시정명령, 법위반공표도(국제, 부산 6. 26)

* 건설교통부, 현재 재건축 18평형 의무건축 완화, 부산, 대구 등 40%서 30%로 낮춰(국제 6. 26)

* 부산시, 생곡 쓰레기 반입 비상, 장마비로 진입로 침수, 차량통행 금지, 홍수우려 지하철 가도교 철거, 오늘 하루 수거 중단 시민불편(부산, 부산매일, 국제 6. 26)

* 부산지검, 부산시의원 등 둘 구속, 낙동강에 폐수 무단방류 5곳 적발(국제 6. 26)

* 대남병원과 노조측, 입원 중 11명 결핵 감염, 부산 대남병원 병동 옮겨 치료 밝혀져(부산, 국제 6. 26)
* 부산시, 위천문제 최종 담판, 부산시의회-국회의원 연대 본격저지, 환경부장관 만나 직접 해명 요구키로(부산매일 6. 26)
* 도시항만주택위원장, 황령산 온천개발 진상 규명, 정보단지 조례안 등 심의 예정(부산 6. 26)
* 부산상의, 부산지역 산업업무 지원기능 현황 발표, 부산권, 기업중추관리・산업업무지원 기능 최하위권, 경제거점도시 성장 한계, 수도권 집중, 정보화 수준 전국 평균 이하, 제조업 본사 서울 72.3%, 부산 4.7%, 경남 2.1%, 경기 6.6%, 인천 2.8%, 기타 11.4%(부산 6. 26)
* 북구청, 만덕로 확장공사, 통행제한, 26일~8월 13일, 10월말 완공(부산 6. 25)

6. 27
* 부산시, 침출수량 산정 착오, 접근도로 부실시공, 생곡매립장 쓰레기대란 자초(부산매일 6. 28)
* 전국 기초의회 의장단, 시, 도지사감사 폐지도, 2백30개 기초의회 의장단 결의문, 경찰, 국가-지방 이원화 건의(부산 6. 28)
* 부산시, 수영, 충렬로 나홀로차 통행제한 계도, 출근길 교통혼잡 가중, 우회로 미비, 차량흐름만 차단, 진입로마다 병목현상 부채질(국제 6. 28)
* 시, LG유통 추진 부곡동 초대형 할인점, 주변교통 극도 혼란 우려, 현재도로 체증 위험수위, 교통영향 심의때 보완대책 마련 필요(국제, 부산매일 6. 28)
* 환경부장관, 위천조성 사실상 불가, 낙동강 수질개선이 우선(부산매일 6. 28)
* 양산~서부산 고속도로 개통, 냉정~구포도로 확장준공, 교통 숨통(국제 6. 27)
* 환경부장관, 낙동강 수질개선이 우선, 조건부 위천승인 부산발언 와전 해명(부산 6. 27)
* 부산시의회, 위천승인 움직임 강력 반발, 경남도의회도 저지성명, 시의회-국회의원 회동, 정부 진의 추궁(부산 6. 25)
* 부산대언론정보연구원, 민선단체장 1년 부산・경남 여론조사, 문시장 현안추진력 부족, 김지사 소신・적극적, 의정에 부정적인 의견(국제 6. 27)

자치단체장 지역현안 해결자세

	추진력 약함	주민여론 민감	소신갖고 적극적	잘 모르겠다
부산	35.7%	35.8%	21.8%	9.9%
경남	18.5%	28.7%	30.0%	22.9%

공무원 부정부패

	매우 줄어듬	조금 줄어듬	전과 비슷	오히려 늘어남	매우 늘어남	모르겠다
부산	3.7%	30.3%	45.8%	11.2%	1.3%	7.7%
경남	3.8%	35.9%	39.4%	7.1%	0.3%	13.5%

* 제21회 초등학교학생예능대회시상식 및 발표회(어린이회관 시청각실)(부산교육 6. 27)

6. 28
* 부산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롯데 지하차도 파행심의, 무기명 투표로 가결, 종전 합의방식 파기, 시민 편의외면 비난(부산 6. 29)
* 부산시, 부산매장문화재 연구소 설립 좌초, 내무부 행정조직 감량 방침들어 제동, 내달께 시립박물관 복천동 분관으로 개원, 부산 고고학회 성명서 추진 등 지역학계 반발(부산 6. 28)
* 부산 환경연구소, 생곡 쓰레기장 전면 재시공 불가피, 설계부터 하자, 땜질보수 한계, 집중호우 고려않고 침출수량 산정, 차수시트 하부 점토 대신 모래사용, 환경평가 무시 졸속개장(부산 6. 28)
* 부산 연희단거리패, 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 참가, 부산 극예술 세계무대 도약 선언, 10월 러시아 로스토프서 햄릿 공연, 극단측 교육용으로 손질할 계획(국제 6. 28)
* 부산시, 제1만덕터널 통과 고속, 시외버스 2천원 아끼려 만덕터널 고수, 제2터널 개통 8년 돼도 기피, 승객경제, 시간피해, 사고위험, 운행거리 1.2km 단축, 운임감소, 통행료부담(부산매일 6. 28)
* 부산상의회, 통계청, 부산경제 총체적 위기, 각종 경기지표 곤두박질, 지난달 조업률 94년 이후 최저, 수출증가율도 큰 폭으로 둔화(국제 6. 28)
* 부산시, 우암・수영로 교통대란 예고, 체증우려 불구 7부두 확장구간 28일 개장(부산 6. 25)
* 건설교통부, 96 개별공시지가 공고(부산 6. 28)
* 한국도로공사 영남권 건설사업소, 구포~양산, 양정~구포 2개 고속도 28일 개통 예정(부산매일 6. 23, 부산시정 6. 28)

6. 29
* 시, 생곡매립장 전면 재시공, 자수시트, 정화시설 등 부실 판단, 용역결과 나오면 곧 착수(부산매일, 6. 30)

* 박재혁의사 기념회, 출범, 어제 창립총회(부산매일 6. 30)
* 환경부, 전국 4대강 수질 악화, 5월 오염도 낙동강 고령지점 4급수 전락(부산매일 6. 30)
* 부산시의원, 보궐 무투표 당선(부산매일 6. 30)
* 부산시의회, 의회에 조례안 12건 제출, 녹지 건폐율 40%로 완화, 주차위반 차량 견인료 3만원으로(부산매일 6. 30)
*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노사 분규로 지역 경제 위축, 부산경남 16곳 파업, 쟁의, 기간산업에 몰려 파급 커(부산매일 6. 30)
* 부산, 6개 해수욕장 내일 일제 개장, 탈의실 등 편의시설 정비, 주차장 확보, 축제개최 손님맞이 만전(부산매일 6. 30)
* 울산시, 공해차단녹지 훼손 허가, 쓰레기처리 예산 46억 절감 내세워, 삼성정밀에 특혜의혹(국제 6. 29)
* 부산시 환경녹지국, 생곡 쓰레기장 전면 재시공 검토, 기술 진단 후 설계변경 착수, 을숙도 매립장 임시사용 추진(부산매일 6. 29)
* 통계청 부산사무소, 소비자 물가 4.4% 상승, 연말 억제목표선 육박, 식료품가 인상주도 6대 도시 중 최고(부산매일 6. 29)
* 낙동강실태조사단, 낙동강 오염조사, 정화시설, 수질 현황 등 심각상황 재확인(국제 7. 1)

6. 30 * 강서구 녹산동 생곡마을, 생곡매립장 침출수 오염(국제 7. 1)

7. 1 * 부산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이 발효되어 시행(시보 7. 19)
* 사하구청, 첫 전면 문전수거제 실시(국제 6. 21)
* 수영구 망미2동, 대형 송수관 파열 '물바다', 가옥 침수 주민 100여명 대피 소동, 부산 27만가구 수돗물 공급 중단(국제 7. 2)
* 한국선주협회, 한진해운, 조양상선, 동남아해운, 고려해운, 홍아해운, 가덕도신항만 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하기로 합의, 해항청 10월 즈음 시행자 선정(부산 7. 1)
* 건설교통부, 문화체육부, 둔치도 경마장 건설 확정, 아시안게임 승마장 포함해 34만평 규모, 그린벨트 완화 방침(국제 7. 1)
* 부산 해수욕장 오늘 개장, 해운대, 광안리 등 6곳, 8월 31일까지, 해상 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부산 7. 1)
* 부산시, 부산지방경찰청, 간선로 원활 우회로 지도, 지도장 발부, 수영로·충렬로 소통 시원, 이면로 평소 배로 몰려 북새통, 곳곳 단속원과 마찰 부작용(부산 7. 1)
* 부산·경남 시민대책위 성명, 위천 가부 분명히 하라, 1백만 서명, 위천 승인이 정권퇴진운동 벌일 예정(부산 7. 1)
* 기장군-전북 무주군 결연, 행정·문화·관공 등 정보교환(부산매일 7. 23)
* 부산시 신청사기획단 발족(부산시정 7. 1)
* 부산관광개발(주) 발족(부산시정 7. 1)
* 부산,「성장관리지역」해제(부산시정 7. 1)

7. 2 * 부산시, 부산시청 부지개발 자갈치시장 현대화 연계, 워터프런트형 첨단 상단 만든다, 50층 복합빌딩, 쇼핑몰, 낚시터 등 조성(부산매일 7. 3)
* 33회 과학전람회 시상식 및 개관(과학 교육원)(부산교육 7. 2)

7. 3 * 회동 상수원 보호 비상, 수영천 상류부터 거품띠, 물고기 떼죽음, 수사 착수, 육지 오염물질로 판명, 공장·폐광 등서 빗물 오수 유입(국제, 부산매일 7. 4, 국제, 부산매일 7. 5)
* 한국전력 부산지사, 부산지역 전력 사용급증, 5월 현재 44억kW, 작년보다 11.7%, 일반·심야이용 증가 주요 원인(부산 7. 3)

부산지역 1~5월 전력 사용량 (단위 : 백만 kw)

	산업용	일반용	심야 전력
94	2,047	615	40
95	2,085	727	44
96	2,261	886	60

* 시, 시교육청, 중퇴생 전용학교 설립 추진, 중·고 2개 과정으로(부산경제 7. 4)
* 부산시, 안전점검 실시, 공동주택 1백여채, 장마철 재해 위험(부산경제 7. 4)
* 사상구청, 자치카드 말썽, 수익 사업 일환 BC카드와 제휴, 업체 유형별 나눠 직원들에 할당(국제 7. 3)
* 시·구·군청, 자치경영 수익사업 러시(부산경제 7. 4)

* 농산물검사소 부산지소, 6곳 고발 364곳 과태료 부과, 수입 농축산물 국산 위장, 원산지 표시 위반, 상반기 370개 유통업소 적발, 고발업소: 아람유통, 신세화백화점, 항도유통, 하이마트식육점, 비프스토아, 태원농산(부산매일 7. 4)
* 부산시, 우수기 특별 점검결과, 부산 공동주택 103개 재해 위험, 2만여 입주민 불안, 벽 균열 지반침하 등 안전비상, 보수 및 재건축 유도 등 행정지도(부산 7. 3)
* 교통개발연구원 중간보고서, 부산 교통요금체계 개편 시급, 시간대별 탄력 요금제 필요, 3개 동심원 구역별 차등을(부산 7. 3)
* 학교 운영위원 연수회(KBS홀)(부산교육 7. 3)

7. 4
* 건설교통부, 가덕 신항에 5조5천억 투입, 민자 3조8천억, 국고 1조7천억, 월내 기본계획, 내년 11월 착공, 문화재구역 1백83만평 해제, 컨 전용 24개 등, 부두 33개 건설(부산매일 7. 6)
* 시, 지하철역 주파장 확충, 노포동 등 5개역 1천여대 규모(부산경제 7. 4)
* 부산시의회, 오늘 임시회, 10일까지 7일간, 6개 상임위원회서 20개 안건 심사(부산, 부산매일 7. 4)
* 국립수산진흥원, 기장지역 냉수대 확산에 먹이섭취 중단한 넙치, 축양어민 비상, 성장 타격(부산매일, 국제, 부산 7. 4)
* 시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정화시설 시공업체, 생곡쓰레기장 총체적 부실, 정화시설도 무용지물, 용량부족, 기능마비상태, 10억 낭비, 폐출수 기준치 최고 20배 초고(부산 7. 4)
* 부산시, 낙동강환경관리청, 합동조사단, 낙동강 어패류 떼죽음 원인규명 실패, 직접 요인 분석 엇갈려, 조사단 결론 못 내고 활동 중단(부산매일, 부산 7. 5)
* 김해국제공항, 화물청사 천장 및 벽면 누수, 컴퓨터 작동 중지 등 큰 혼란(부산 7. 5)
* 부산고등법원, 영락공원 주민 소송 기각, 이격거리 위법주장 이유 없다(국제 7. 4, 국제 7. 5)
* 정부, 가덕도개발지원협의회, 가덕 배후도시개발 난망, 정부 지원불가 방침 확정(국제 7. 4, 부산, 국제 7. 5)
* 한러해운(주), 부산~러 정기여객선, 20일부터 '올가'호 취항(부산 7. 4)

7. 5
* 부산시의회, 수영정보단지 재심사, 상법상 저촉여부 검토 필요(부산매일 7. 6)
* 시, 사회복지전문요원 방문 조사, 무의탁 독거노인 6천여세대, 실제로 2배 이상 추정, 월 생계비 20만원 미만, 각종 질병 3천여명 고통(부산매일 7. 5)
* 부산시의회, 제55회 임시회, 교통대책·버스료 인상 추궁, 수영정보단지 조례안 통과유력, 지출비율 의회 심의, 지역기업 참여 등(부산, 국제 7. 5)
* 부산상의, 3백개 업체 경영애로 조사 결과, 한국은행 분석 3/4분기 BSI도 바닥권 여전, 인건비·원자재값 상승 부담(부산 7. 5)
* 시, 주택개량계 신설, 주택 재개발 본격화, 이달부터 개정법 적용 기금 확대(부산 7. 5)
* 부산교육청, 고입내신산출지침 발표, 중학교 특별·봉사활동 점수 비중 줄여, 교과성적은 80% 반영(부산매일 7. 5)
*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부산 11월 LNG공급 차질, 화명 가스시설부지 분양 반대, 도시가스 계속 사용 시 시민 4백억 손실(국제 7. 5)
* 시, 북항 횡단로 건설 본격화, 해상 교량 방식 확정, 연말까지 업체 선정, 감만~청학동 해상 1.8km, 높이 최고 60m 사장교 유력, 98년 착공 아시안게임 전 완공(부산 7. 5, 부산매일 7. 6)
* 환경부, 부산시, 5월 부산지역 미세먼지 오염도 1백6㎍/㎥, 연간 기준치 80보다 32.5% 높아(부산매일 7. 6)
*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매립장 토사 유실, 쓰레기 유출 우려(부산 7. 5)
* 부산민주공원조성발기위원회, 발기인 대회, 부산민주공원 98년까지 건립, 대청공원 내 기념조형관 조성키로, 1백60억 들여 내년 착공(부산 7. 5, 부산매일 7. 6)
* 시, '나홀로 차' 통제 소통 효과, 수영·충렬로 출근길 교통량 40%이상 줄어(부산매일 7. 6)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지역 4백20개 업체 대상으로 조사, 경기부진 3·4분기도 여전, 제조업체 예상, 펄프·종이·출판인쇄 등 침체 주도, 제조업 업황전망 BSI 88수준 그쳐(부산매일 7. 6)
* 시, 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버스 올여름도 찜통, 냉방화 실적 15% 불과, 6개 업체는 아예 없어, 8월 이후 구입계획, 승객들 고통(부산 7. 6)

7. 6
* 정부, 국립학교 설치령, 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업대 통합 부경대 공식 출범, 6개 단대, 43개학과 개편(국제, 부산 7. 6, 부산매일 7. 7)
* 건설교통부, 가덕보호구역 183만평 해제, 이달부터 신항만 실시설계 작업(국제 7. 6)

* 시, 을숙도 2차 매립장 재사용, 생활쓰레기 반입 공식 건의(국제 7. 6)
* 부산 영도구 경남 조선, 바지선 작업 중 탱크 폭발 참사, 8명 사망 10여명 부상, 주택가 유리창 박살(부산매일 7. 7, 부산, 국제 7. 8)
* 부산교통공단, 3호선 건설 표류, 시, 정부 특단 지원 없이 완공 불가, 반송로, 국비조달 미정, 시공 불투명, 본선, 도로 선 확장 돼야 착공 가능(부산매일 7. 7)
* 시, 민・관합작 관광회사, 부산관광개발(주) 민간출자지분 확정, 5개 대기업 각 4% 등 17개 사 총 49% 지분(부산 7. 6, 부산매일 7. 7)
* 해운항만청, 다대포항 개발사업 철회, 시 공단지정 불가 따라 최종 확정(부산 7. 6)
* 부산시의회, 황령산 훼손 중지 촉구, 10일 본회의서 권고결의안 채택하기로, 환경파괴 더 이상 좌시 못해, 상임위 현장실태 조사 실시(부산 7. 6)
* 건설교통부, 가덕 보호구역 일부 해제, 신항만지 백83만평, 배후도시 부분은 합의 못봐(부산 7. 6)
* 경부고속철도 종착역 건설방식 논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지상화”, 부산시 전문가“고가화” 첨예 대립(부산 7. 8)
* 부산상의 조사, 3・4분기 제조업 경영 애로 전망 조사결과, 인건비 상승 16.2%, 인력부족 14.1%, 자금조달 14.1%(부산매일 7. 7)
* 부산지역 관련업계, 부산 백화점가 상반기 실적 보고(부산매일 7. 7, 국제 7. 8)

부산지역백화점 상반기 매출액

	95년	96년	증감
롯데	-	1,771	-
현대	-	1,110	-
태화	1,139	820	-28
세원	736	731	-0.7
리베라	661	684	3.5
부산	476	499	4.8
신세화	370	378	2.2
미화당	199	191	-4
유나	83	96	15.7
계	3,664	6,280	71.4

* 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 통합, 부경대학교로 설립 인가(부산교육 7. 6)

7. 7
* 시, 부산교통공단, 감전 삼거리~사상역 차량 통제, 6개월간(부산매일 7. 6)

7. 8
* 시, 제55회 임시회, 접객업소 규제완화검토, 오락실 등 위생업소까지 포함, 유흥주점 신규허가제한 해제도 추진, 논란예상(국제 7. 9)
* 부산시의회, 수영정보단지 조례안 통과 확실, 황령산 훼손방지 결의안 채택(부산 7. 8)
* 수영구 민락동, 한신빌라 B동 외벽 대규모 균열, 입주자 인근주민 밤샘 대피, 정밀진단 전 사용금지 조치, 경찰, 준공허가・부실시공 수사(부산 7. 9)
* 시, 낙동강 전략 없어, 주변 지자체 독자 개발용역과 큰 대조, 본격 연구 커녕 기초대책도 없어, 타시・도 전가 부작용만 떠안을판(부산 7. 9)
* 시, 수질관리 환경보호과 전담, 검사횟수도 월 1회로 통일(국제 7. 8)
* 모라변전소, 고압선 끊겨 단전단수 소동, 공장 조업 차질, 신호등 꺼져 교통 혼란(국제 7. 8)
* 경찰청, 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해양오염 방제의무 강화, 사고조치 않을 땐 3년 이하 징역(부산 7. 8)
* 사상구청, 사상공단 폐업업체 급증, 경기침체・수출격감, 작년 46개업체 문닫아, 공동화 우려(부산 7. 8)
* 시, 황령산3터널 조기추진, 대남R~연산R연결, 아시안게임 전 완공(국제 7. 8)
* 부산지역 신발업계, 부산중견신발업체 내수 공략, 성호・학산・트바스 등 수출중심 탈피, 독자상표로 승부, 판매망 구축・상품 홍보전 전개(부산 7. 8)

7. 9
* 시, 낙동강 종합대책 세운다, 관련 광역단체와 적극 행정협의, 산발적 임기응변 탈피, 분야별로 단계적 추진(부산 7. 10)
* 중・동구청, 주차관리권 시-구청 다툼, 위탁관리 주차공단에 직영 통보(국제 7. 9)
* 남구의회 구정질의, 황령산 개발 강행 질타, 특위, 훼손지역 원상복구 원칙 결정(부산 7. 10)
* 부산시, 도시계획 수정안 정부에 승인 요청, 가덕개발 7백만평으로 확정, 기장 농림・준농림지 폐지 주거지 확대(부산매일 7. 10)

* 부산교육청, 집단 괴롭힘 진상 조사, 학생지도 문제 땐 교직원 문책키로(국제 7. 10)
* 부산시, 민자유치 10대사업 선정, 요트경기장 활용방안, 실버타운조성, 역세권주차장 건립, 영화테마공원 조성을 포함한 아시아드 민속촌 건립, 해상선상호텔 및 해상 유람선 도입방안,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산성터널 축조, 상수도시설사업소 복합청사 건립, 연제구청 복팝청사 건립(부산 7. 9, 부산매일 7. 10)
* 국무총리, 부산・광양항 동북아 중심항 육성, 가덕 신항계획 연내 확정, 경제 체질개선 최대 노력(부산매일 7. 9)

7. 10
* 부산시장, 생곡매립장 시찰 후 대책 지시(시보 7. 19)
* 부산경찰청, 청소년 유해업소 무더기 적발, 3백68개소 단속 업주 2백93명 입건(부산 7. 11)
*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주거환경개선지구, 9곳 추가지정, 영주, 서대1, 아미2, 수정3, 대연2, 민락1, 민락2, 거제3, 수정5(부산 7. 11)
* 서구청, 부실시공 공사중지령, 송도삼거리～고신의료원 도로확장구간, 관계자 고발키로(국제 7. 11)
* 부산시교육청, 2학기부터 학교장초빙제 실시, 대송초등학교, 동현초등학교, 모라중학교, 부산공고(부산매일 7. 11)
* 부산시의회, 제55회 임시회 폐회, 수영정보단지 등 18개 안 의결, 수영정보단지 총과, 수정안 채택, 본회의만 남겨(부산 7. 10, 부산매일 7. 11)
* 일본 시모노세키시, 부산무역사무소 개소(부산시정 7. 10, 부산매일 7. 11)

7. 11
* 부산시, 위천공단 조성문제 대해 경남도의회와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단조성저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시보 7. 19)
* 부산시, 수영로와 충렬로 일대의 나홀로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본격 실시(시보 7. 19)
* 부산시, 부산시장과 교육감・경찰청장 등이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청소년 선도 분위기 조성에 범시민적인 협조를 당부(시보 7. 19)
*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저수용량 1,800만톤의 회동수원지 수질을 2000년까지 3급수에서 1급수로 개선해 비상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시보 7. 19)
* 부산시, '부산관광 종합개발' 중간보고회에서 12종류의 관광신상품의 개발을 제시(시보 7. 19)
* 부산시,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북경 항주에서 관광설명회 개최(부산 7. 19)
* 서구청, 백일건설에 공사중지령, 대표 고발, 감천항 배후로 부실 시공, 시방서 무시하고 철근 적게 넣고 부벽 설치(부산, 국제 7. 12)
* 부산시의회, 경남도의회, 낙동강 회생 위해 환경 연대, 공단 조성 조짐 위기의식 확산(국제 7. 11, 부산, 부산매일 7. 12)
*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96상반기 부산지역 클레임 실태 분석, 부산업체 무역피해 증가, 클레임 감소 속 국내제기 4건 늘어, 대금 미지급・품질불량순 美최다(국제 7. 11)
* 진구청, 문화거리 조성, 영광도서～유원오피스텔 복개도로(국제 7. 11)
* 부산시, 제1회 바다축제, 민간협찬 6억 줄여 계획 확정, 8월 1일～10일 예정(부산 7. 11)
* 96 움직이는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예술 직접 주민 찾아간다(부산매일 7. 10)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회동 1급수로 개선, 2000년까지 비상 식수원 활용 계획(부산 7. 11)
* 사하구청, 낙동강 오수 방류 적발, 다대 기계공단 입주업체의 23%(부산매일 7. 12)
* '나홀로 차', 통제시간 전후엔 더 북새통, 단속 첫날, 운행자체 감소보다 체증분산 효과(부산매일, 부산 7. 11)
* 시・도 의회,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단조성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원회 구성, 낙동강 수질보전 성명 채택(부산 7. 11)
* 시, 시교육청, 청소년 종합대책 마련, 중・고교 중퇴생 복교 추진, 희망자 1천45명 오는 9월부터 2차례(부산 7. 12)
* 사하구청, 다대포 위락단지 조성, 서부산권 발전과 연계, 연내 추진(부산매일 7. 12)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 관광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회, 가덕도・금정산성 등 5곳, 관광상품 최우선 개발, 지역특성 최대한 살려, 대저 꽃박람회, 다대, 해운대 8경도 대상(부산, 국제 7. 12)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 6월 중 어음부도율 2개월째 하락, 0.35%기록, 전월비 0.12% 감소(국제 7. 11)
* 제6대 부산지방경찰청장에 이의호 치안감 취임(경찰사 7. 11)

7. 12
* 부산시,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민영아파트는 건립계획을 사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이의사항을 수렴하여 사전결정심의 때 반영
* 부산시, 부산지역 소비자물가가 전국 6대 도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에 따라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여 대처(시보 7. 19)

* 시, 4천여명 여론조사, 시민 57% 심야영업 완화 긍정적, 유흥업소 적용엔 대부분 반대(부산매일 7. 13)
* 건설교통부, 서부산 요금소 이전 난항, 장유지역 체증·통행료 부담 불합리, 경남도 반대입장 분명(부산 7. 12)
* 부산상의, 상반기 부산화학고무업체 생산증가율 발표, 화학 고무제품 생산 호조, 상반기 2천7백억, 전년비 11.4%, 기초 화합물 접착제 8.3%, 도료 11.8%, 유지 16.4%, 고무 플라스틱 14.8%(부산 7. 12)
* 사하구청, 12개업체 적발 행정처분, 다대공단 오수처리 엉망, 업체 23% 기준치 초과 방류(국제 7. 12)
* 부산공동어시장, 상반기 위판물량 21만6천9백32톤, 56% 증가, 조기 등 고급어종 감소로 금액은 줄어(국제 7. 12)
* 시, 10부제 위반차에 과태료, 카풀차량 버스 전용차로 통행허용, 나홀로 범칙금, 주차료 인상에 이어 부담 가중, 영업사원 영세상인 생계 타격, 반발 가능성(국제 7. 12)
* 부산본부세관, 창원·마산·울산·울산 산하 편입(부산, 국제 7. 12)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위해식품 특별단속반, 부산 등 전국 6곳 설치(부산매일 7. 13)
* 교육 개혁 박람회 부산 교육관 전시자료 시사회 개최(부산교육 7. 12)

7. 13
* 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 2008 올림픽 부산 유치 노력, 한일경쟁 불가피(부산 7. 15)
* 남부지방 비 피해, 가옥붕괴, 정전, 항공기 운항 중단(부산매일 7. 15)
* 부산시 수협 및 낙동강 어패류폐사에 따른 어민대책위, 어민 대규모 해상시위 채비, 환경영향평가·피해조사 요구, 오는 18일 분뇨처리 봉쇄 등 실력행사 예고(부산매일 7. 14)

7. 15
* 부산시장, 나홀로차량 통제 후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시보 7. 19)
* 낙동강 하류 어패류 떼죽음에 대한 어민대책위원회, 떼죽음 피해조사 요구, 해상시위 움직임, 12개 어촌계 어선 1천척 동원 계획(국제 7. 15)
* 낙동강 하류 어패류 떼죽음에 대한 어민대책위원회, 내부조사보고서 공개, 맹독 유기물질 검출 파문, 하구둑 사무소"지천 4곳 수질조소 보고 공개", 시·보건환경연구원 "채수시점과 시기 달라 결과 상반"(국제 7. 16)
* 강서구청, 벼 병충해 비상, 전문회사 헬기 고장, 벼멸구·도열병 등 번져도 속수무책(부산매일 7. 16)
* 환경부 수질조사, 광안리해수욕장 부적합, 대장균·COD기준 초과(부산매일 7. 16)
* 기장군, 도로율 7%에 불과, 상·하수도 시설 미비, 복지회관도 없어, 도시기능 밑바닥(부산 7. 15)
* 감사원, 생곡매립장 차수막 28곳 파손 확인(국제 7. 15)
* 재정경제원, 부산 민주공원 조성 차질 예상, 정부 국고지원 불가방침 결정(국제 7. 15)
* 강서구 생곡동 주민, 쓰레기 반입저지키로 결정, 부실시공 미온대처 반발, 하루 2천8백톤 갈 곳 잃어, 주택가 방치 등 시민 불편 극심 우려(부산매일 7. 16)
* 시 보건사회국,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확대, 전국 첫 조례 제정키로, 내년부터 대폭 인상,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영세민·거택보호자 혜택(부산 7. 16)
* 시 종합개발사업기획단, 가덕도·기장군 관광단지화, 아시안게임 대비, 민자 2조원 유치 조성(부산 7. 16)
* 시, 보건소 통합확대 개편 검토, 보건복지사무소 전환 설치, 일반 복지의료 시행기구 활용(국제 7. 16)
* 시 지역경제국, 11개 신규사업 추진계획 보고, 부산시 종합상사 추진, 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매, 자본금 30억, 테크노마트도 유치 선진기술 도입(국제 7. 16)

7. 16
* 부산시장, 구청장 연석 간담회, 차지 1년 자체평가 조목, 시·구 협조 미흡, 시정발전 차질, 조직 기강·내부 결속 해이 공감(부산매일 7. 19)
* 시, 내달부터 구청별 쓰레기 10% 줄여야 반입, 19~20일 생곡 매립장 반입·수거 중단(국제, 부산 7. 17)
* 시, ㈜부산종합상사 설립, 중기제품 판매대행·시장개척 등 전담, 시영임대공장 운영, 수출신용 보증료지원 검토(부산 7. 16)
* 부산지역 12개 재래식분뇨처리업체, 수거중단 결의, 정화조업체 제한 반발, 행정심판 청구(국제 7. 17)
*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SOC 확충대책 발표, 가덕개발 국책사업 지정, 항만건설 등 특별법 연내 제정, 가덕~삼랑진 복선전철 건설, 가덕~김해·밀양 도로도 신설(국제, 부산, 부산매일 7. 17)
* 정부, 97-98 10개 민자사업 선정, 부산해운대 온천개발사업 선정(부산 7. 17)

7. 17
* 시, 번영로 13개소·동서고가로 7개소에 교통전광판 설치하기로(부산 7. 17)
* 부산진경찰서, 10대 담배판매 업주 첫 입건, 개정 미성년자 보호법 적용(국제 7. 17)
*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 적체 매년 심화, 병·의원서 기피, 예산 턱없이 부족해 결제 불가, 올 1백79억원 예상, 전향적 대책 시급(부산 7. 17)
* 시, 생곡매립장 상단부 29곳의 차수막이 찢어졌다, 침출수 처리시설 및 정화시설도 부실시공, 손질 불가피, 쓰레기 반입 일시 중단, 공사기간 1년 걸려 고심(국제 7. 17)

7. 18 * 부산시, '한일해협연안 환경기술교류 실무회의'가 부산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개최(시보 7. 19)
* 부산시, '7월 중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의 날' 행사를 진행(시보 7. 19)
* 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부산시 지방항만 추진, 기장・수영만 일대 다목적항 개발(국제 7. 19)
* 시, 낙동강 환경영향 재평가, 어패류 떼죽음 피해조사도 실시(부산 7. 19)
* 부산도시가스, 부산지역 LNG전면 공급키로, 11월부터, LPG대체, 사고위험 줄여(부산매일 7. 19)
* 시, 시내 쓰레기 수거 전면 금지, 동사무소 통해 쓰레기 보관하기로(국제 7. 18)
* 부산지검, 화재취약대형건축물 일제단속, 위생병원, 교보생명빌딩, 포토피아, 한중병원 등 44개 대형건축물 소방시설 미비 입건(국제 7. 18)
* 부산 시내버스 준법투쟁 돌입, 심야버스운행 거부, 25일 파업 찬반투표키로(국제 7. 18)
* 통계청, 95년 인구주택 총조사 속보집계, 부산시민 10명중 4.9명이 토박이, 6대 도시 중 출생지 거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부산지역 인구 3백74만6천명, 5년전에 비해 5천명 증가(국제 7. 18)
* 시, 생곡쓰레기 매립장 2단계, 을숙도 사용 않기로, 임시 처리하며 1단계 시설 재시공, 주민과 마찰 예상(부산매일 7. 18)
* 하단・명지어촌계 등 낙동강하류 인근 12개 어촌계 소속 어민 1천여명, 어패류 떼죽음 피해보상 요구, 낙동강 지키기 어민 시위(부산 7. 18)
* 시, 종합개발사업기획단 직제개편 시급, 한시조직, 인력부족, 업무추진 차질(부산 7. 18)
* 시, 부산패션센터건립, 종합패션타운 조성, 신진 디자이너 발굴 육성, 컬렉션 경진대회 연례화, 2002년 패션 비엔날레 개최 등 부산패션발전 5개년 계획 적극 지원키로(부산 7. 18)
* 시 건설하수국, 수익사업 구상, 하수처리수・가스 재활용, 조경용수 등 사용・난방용 연료로 공급(시보 7. 18)

7. 19 * 부산시, 하절기를 맞아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되는 물수건 및 일회용 위생용품의 위생관리를 강화(시보 7. 19)
* 부산시, 제1회 '부산바다축제'의 행사일정과 프로그램 준비가 마무리 단계(시보 7. 19)
*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신호공단 하수처리장 건립공사가 발주(시보 7. 19)
* 부산시, 신교통체계 도입 추진, 미남교차로 올 시범 운영(시보 7. 19)
* 부산시, 최근 남해안에서 적조가 발생함에 따라 적조대책반을 구성하여 체계적 대처(시보 7. 19)
* 부산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승용차 함께 타기(Car Pool)'를 적극 추진(시보 7. 19)
* 부산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부산 7. 19)
* 부산시, 올해 3/4분기 중에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시보 7. 19)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장마철 수질오염 대비하여 각종 급수시설에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당부 지시(시보 7. 19)
* 부산시,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상의 문제점 보안, 교육기강 확립(시보 7. 19)
* 부산시, 환영오염행위 특별단속 연장(시보 7. 19)
* 부산시, 시역내 소재한 기업 중 '對EU민관합동투자유치단'에 참가할 희망업체 접수(시보 7. 19)
* 부산시, 심야 유흥업소 영업시간 조정관련 시민공청회에서 대부분 부산전지역 전업종에 대해 영업 시간을 현재보다 연장하되,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시보 7. 26)
* 부산시, '부산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섬(시보 7. 26)
* 동래구 명장동, 동래구 관내 학교기관, 단체원 등 4백여명이 학교폭력근절 및 3대 시민운동 실천 다짐(부산 8. 2)
* ㈜대아고속훼리,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정기여객선 올가 샤도브스카야, 오늘 부산항에서 첫 출항(부산매일 7. 20)
* 부산시, 각 구청, 구별 인구증감현상 뚜렷, 해운대・북구・사하구・기장군만 증가, 나머지 계속 감소(국제 7. 19)
* 부산민주공원 조성 범시민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부산 민주공원 조성 박차, 규정안 확정(부산 7. 19)
* 해운항만청, '가덕' 일반 부두 건설 유보, 수요 맞춰 탄력 조정, 민자로 건설되는 컨테이너부두 24선석・자동차부두 1석만 2011까지 개발키로(부산매일, 부산 7. 19)
* 부산민주공원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 426명 창립총회, 본격활동 벌일 계획(국제 7. 19)
* 시, 이달말까지 사회지표수립 기본계획 마련키로, 소득・교통 등 만족도 평가, 전국 처음(국제 7. 19)
* 해운항만청, 부산항 미군부두 8월 개방, 연간 '컨' 16만개 처리 체화현상 완화 도움, 6부두는 피더선 부두로 9월 개장(국제 7. 19)
* 생곡쓰레기장 부실시공, 주택・시장・터미널 수거중단, 쓰레기 산더미, 악취진동, 생곡반입저지철회 주민 설득, 기동청소차 가동도 속수무책(부산, 국제 7. 19)

* 통상산업부, 제5회 신산업발전민관협력회의, 신발・피혁 연구에 3백억 지원키로, 동남아・동유럽 틈새시장 개척위해, 자체상표 개발에 연간 1백억원씩(국제 7. 19)
* 부산경찰청, 학원폭력배 무더기 검거, 학교주변서 금품갈취 재학생 등 16명 영장(국제 7. 19)
* 시, 송정R~거제삼거리구간 가변차선제 시행(부산매일 7. 17)
* 시민공청회, 심야영업 완화 확실시, 새벽 2시까지 연장허용, 내달~연말 한시적인 시행(부산매일, 국제, 7. 20, 부산 7. 22)
* 시, 부산서 비브리오균 검출, 어패류 생식, 자갈치시장 조개서 원인균 첫 검출, 해수욕 시 요주의(부산매일, 국제 7. 20)
* 부산비즈니스클럽 공식 출범, 지역중소기업에 경영정보・컨설팅 등 담당(부산매일 7. 20)
* 부산민주공원 조성 범시민 추진위원회 창립(부산시정 7. 19)
* 제18회 고교 합창 발표회(부산교육 7. 19)

7. 20
* 중구청, 백산기념관 일요일・공휴일에도 개관, 외래 관광객에 편의 제공, 관람객 증가 대비 대대적 정비도(부산매일 7. 20)
* 사상구청, 물류유통대학 설립추진(국제 7. 20)
* 시 도시개발공사, 수정 1지구 주거개선 급진전, 사업착수 6년만에 8월 시공사 선정키로, 8가구 제외 보상협상 마무리(국제 7. 20)
* 96 교육 개혁 박람회 개최(서울 한국 종합 전시장, ~8. 2)(부산교육 7. 20)

7. 21
* 부산시의회, 상해 인민회의와 재매결연, 10월께 공식 체결 가능성(시보 7. 26)
* 연제구, 연제구 상징 연꽃・소나무・황새, 노래말 등 구민 대상 공모 통해 선정(부산매일 7. 21)
* 강서구 생곡쓰레기 반입 재개, 시-주민, 청소차반입, 완벽 재시공 등 8개항 합의(부산, 국제 7. 22, 부산매일 7. 23, 시보 7. 26)

7. 22
* 부산시교육청, 부산열린교육센터 세운다, 어린이회관부지에 5천평 규모 건립, 오는 11월말까지 기본 설계 마치기로, 98년 12월말까지 회관 준공키로, 전국 최초(국제 7. 22)
* 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13개 지구 65만평 중 고층지구를 제외한 화명, 중동, 덕포, 남천, 사직, 수안, 반여지구 내년까지 고층지구로 변경, 재건축 활기 띨 듯(국제 7. 22)
* 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신청사 입주 맞춰 1인 1컴퓨터 추진(국제 7. 22)
* 강서구청, 4대 하천 정비계획 마련, 장기개발・상습수해 방지, 평강 배수문 제방 등 설치(부산 7. 23)
* 특급좌석버스 스타트, 해운대신시가~충무・하단동 연결, 배차간격 1분, 요금 1천원(부산시정 7. 22, 부산매일 7. 23)
* 중학교 진로 교육 담당 교사 연수(부산교육 7. 22)

7. 23
* 시, 실・국장간부회의, 부산시 거품빼기 운동 실시키로, 기업식 회의・자동결재확대 등 전개(부산 7. 23)
* 시, 병・의원 부정 의료행위 여전, 시설위반・장비부족 등 57건 적발(부산 7. 23)
* 시, 을숙도 철새보호지 조성 난항, 문화재관리국과 마찰, 계획변경 잇따라(부산 7. 23)
* 국회 문체공위, 황령산 개발, 환경보호차원 대처, 위천도 수질개선 전제 논의(부산 7. 23)
* 부산상의, 300개 업체 실태조사, 부산수출도 하도급, 80%이상의 업체가 로컬수출을 병행하거나 로컬 수출만, 브랜드 개발 요원(국제 7. 23)
* 시, 부산 롯데월드 안전점검, 소음・진동 유기시설 정밀진단 착수(부산매일 7. 24)

7. 24
* 부산시장, 부산국제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설명회에서 강조(시보 7. 26)
* 부산시장, '96 일본 후쿠오카 관광전' 개최에 참석(시보 7. 26)
* 시, 하나로카드 내년으로 연기, 오작동대비 상용테스트기간 거치기로(부산 7. 24)
* 국립수산진흥원, 기장・울진연안 냉수대 또 출현, 넙치류 성장둔화 적조발생 우려(국제 7. 24)
* 시, 녹산 협동화단지 분양 저조, 업체 경기불황 입주기피 63% 그쳐(국제 7. 24)
* 부산지역 건설업계, 해외활로 진출 모색, 수주난・개방대비 9개 업체 분주, ISO획득 이어 중・동남아 진출(국제 7. 24)
* 시, 일선구청, 유사시 대비 설치시설 불량, 비상급수 식용 부적합, 관리 허술, 전체 43% 오염, 대피시설도 5백곳 불량(부산매일 7. 25)
* 부산중소기업신발협동조합 창립, 31개 업체 참여, 우수제품 공급・공동상표 개발 주력(국제 7. 25)
* 부산시의회, 생곡매립지 공법 바꿔 재시공, 종합건설본부로 업무 이관 검토(부산, 부산매일 7. 25)
* 시, 숙박・문화・수변 상업군 분리, 현 시청사 주변 시설배치 계획 확정, 공유수면 매립은 배제(부산 7. 25)
* 제1차 청소년 농촌 봉사 활동 캠프 발대식(이사벨여고 무궁화관)(부산교육 7. 24)

* 제4회 과학 탐구 올림픽 부산 예선 시상식(과학교육원)(부산교육 7. 24)

7. 25
* 부산시, 제1회 부산바다 축제의 대외 홍보를 위해 서울로 현지・원정홍보를 실시(시보 7. 26)
* 수협중앙회, 한일 민간어업협의회 개막, 어선간 사고예방 및 처리대책 등 토의(국제 7. 25)
* 국회 13개 상임위, 2008년 올림픽 부산유치책 촉구(부산 7. 24)
* 시 건설안전본부, 부산 붕괴위험 구조물 244곳, 재난관리대상 지정, 팔도시장 등 11곳 극히 위험, 영도대교 등 교량 23곳 불안(부산 7. 25)
* 사하구청, 감전 유수지 오폐수 유입, 장림하수장 용량한계로 배출 안 돼, 삼락천・하수구 등 흘러들어 악취(부산매일 7. 26)
* 아루바, 부산에 대표부 설치, 선박 편의치적, 유치업무 등 개시(국제 7. 23)

7. 26
* 부산시, 시장재개발 사업의 지원자금 규모가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시보 7. 26)
* 부산시, 부산지방자치단체・중국도시 간 교류활동 개선 촉구(시보 7. 26)
* 부산시, '생활체육 발전계획'을 수립・세부 계획 마련(시보 7. 26)
* 부산시, 연안 1.5해리 해역에 밤10시~새벽 3시까지 항해 및 어로를 금지(시보 7. 26)
* 부산시,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가용재원 60%를 도로건설에 투자(시보 7. 26)
* 부산시, '부산바다축제' 앞둠(시보 7. 26)
* 부산시, 중퇴청소년과 청소년 자율선도위원 자매결연 추진, 8월 중 1,219명 자립능력 뒷받침(부산 7. 26)
* 부산시, 중소 시설개체자금 집행실적이 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여 잔여액을 대상으로 재조정(부산 7. 26)
* 부산시, 여름철 집단식중독 예방 강화, 식품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시보 7. 26)
* 부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최고 70% 경감도(시보 7. 26)
* 부산시, 불법 주・정차량 견인료 인상, 8월부터 적용(시보 7. 26)
* 부산시, 시정 단신 소비자 담당공무원 등 교육, 마을버스 일제정비, 부산자연 살리기 결의대회(부산 7. 26)
* 한국통신 부산본부, 다목적 '바다전화국' 설치(시보 7. 26)
* 부산시, '바다축제' 등 대비, 3대 시민운동(부산 8. 2)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해안 3대 권역 개발, 항만기능과 조화 위해 차별화 전략 시급(국제 7. 26)

7. 27
* 기장군, 기장 청강~대변 군도 확장키로, 노폭 6m에서 12m 2차선으로, 예산 40억 투입, 다음달 착공해 98년 완공키로(국제 7. 27)
* 재송동 건널목, 열차・트럭 충돌, 백여명 부상, 승객・짐 창밖으로 튀어나와 아수라장(부산매일, 부산 7. 28)
* 시, 2・4분기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결과, 94개 약수터 부적합, 88개 지역서 여시니아・대장균 검출, 6곳은 수원 고갈상태, 연속 4회 판정 때 폐쇄키로(부산경제 7. 28)
* 사상구, 야외문화공원 개최, 동 돌면서 좋은 영화 상영, 시립무용단 초충무대도(부산매일 9. 1)

7. 29
* 부산시, 종전 자정까지이던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연말가지 새벽 2시로 연장(부산 8. 2)
* 부산시, 경기 중부 및 강원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을 위한 지원(부산 8. 2)
* 신한국당 예결의원, 부경 실태조사, 가덕 신항만 등 국책 사업장 현황점검 실시, 부산시, 사직주경기장 2백30억 지원 건의(국제 7. 29)
* 시, 부산지방해운항만청, 가덕도 신항만걸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설명회, 내달 초 어업피해조사 용역발주, 면허・허가 어업 등 포함, 98년 보상금 지급(부산매일, 국제 7. 30)
* 환경부, 전국 대도시 대기오염도 조사 현황, 부산시 미세먼지 오존 오염 악화, 부산에선 신평동 최악, 배기가스 주원인(부산매일 7. 30)
* 공립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연도별 추진 계획 수립(부산교육 7. 29)

7. 30
* 부산시, 유흥접객업소 영업시간 완화에 따른 부작용 대책 수립(부산 8. 2)
* 부산시, '건전사회 기풍조성 대책회의' 개최,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지향(부산 8. 2)
* 부산지방철도청, 철도건널목 사고 잠복, 건널목 98개 중 38곳 위탁관리, 전방 주시거리 짧아 참사 우려(부산 7. 30)
* 시, 심야영업 사실상 완전 허용, 일선구청, 2시~4시사이 단속 한계(국제 7. 31)
* 통계청, 올 상반기 산업활동량 발표, 부산 생산량 올 상반기 작년보다 3.9% 감소, 산업 생산 경공업 침체, 중화학 성장세 둔화, 경기선행지수 하반기도 비관적, 전년 동월대비 중화학공업 6.2% 감소, 경공업 11.9% 감소, 전체적으로 8.5% 감소(부산매일 7. 31)
* 해운대구의회, 감사원 특감 첫 요청, 감사청구제 적용, 구청 건축비리 5건에 조치 촉구(부산 7. 31)

7. 31　* 부산 바다축제 전야제, 축제기간 도시열차·바다버스 운행 늘리기로(부산매일, 국제, 부산 7. 31)
* 시, 수산도매시장 또 마산, 시-해항청 합의 안 돼, 재경원 추경 보류(부산 7. 31)
* 무역협회, 올 상반기 수출입 동향, 부산 경제 급속 위축, 수출 크게 둔화, 수출액 31억, 3% 증가, 95년은 5.2% 증가(부산 7. 31)

8. 1　* 민주공원 2천5백평 규모 확정, 추진위 세부계획 마련…설계는 공모(국제 8. 1)
* 부산·경남의회, 낙동강 공대협 발족, 합천 반대 공조…시민단체 등과 연대(국제 8. 1)
* 배출위반업소 436개소 적발, 단속대상 10%가 불법…조업정지 등 처분(국제 8. 1)
* 다대포 배후도로 12월 착공, 미개설구간 9.3km 왕복6차선 변경 시공(부산 8. 1)
* 제1회 부산바다축제 개막, 10일까지 시내해수욕장 등지서 다양한 행사(부산, 부산시정 8. 1)
* 부산-김해 경전철 차질, 민자 사업자 신청 전무, 사업성 희박으로 투자 꺼려(부산 8. 1)
* 부산 소비자 물가 4.7% 상승, 연말 억제선 붕괴, 6대 도시 중 최고(부산 8. 1)
* 합천·구미·안동 공단 전면백지화 등 요구, 부산시·경남도의회 낙동강 공대협 발족(부산매일 8. 1)
* 「부산물가」 전국서 최악, 연 억제선 4.5% 지난달에 이미 무너져(부산매일 8. 1)
* 전입신고서에 운전면허증 기재란 신설 운영(부산시정 8. 1)

8. 2　* 부산시, 현대·기아 등 5개 자동차 제작회사의 협조를 받아 피서객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부산 8. 2)
* 부산시, 98년 신청사시대 사무자동화에 대비하여 전자사서함 활성화 추진(부산 8. 2)
* 부산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용촉진 훈련계획을 마련, 훈련생 모집(부산 8. 2)
* 부산시, '환경 등급 실명화'를 대기·수질 등 3종 배출업소로 확대(부산 8. 2)
* 부산시, 태아성감별 지도단속 강화(부산 8. 2)
* 부산시, 각 구청 민원실에 설치된 '공산품 상설전시장'이 주민들로부터 호응(부산 8. 2)
* 부산시, 사후 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대형건설공사 등에 대해 주요 공정별 사전예방지도감사인 '일상감사'를 실시(부산 8. 2)
* 부산시, 여름철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강화(부산 8. 2)
* 부산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와 합동 점검을 실시(부산 8. 2)
* 부산시, 96년 제3회 부산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확정·발표(부산 8. 2)
* 부산시장,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을 딴 길영아선수 집 방문 격려(시보 8. 9)
* 부산시의회, 경상남도의회와 부산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단조성 저지 공동대책협의회'를 결성(시보 8. 9)
* 해항청, 부산항일대 대대적 준설, 선박운항 편의위해 내년 초부터 실시(국제 8. 2)
* 부산항 항계 확장, 가덕신창 계획 따라 진해 명동까지(국제 8. 2)
* 부산지역 8개 대학 상호 학술 교류, 6일 조인식으로 2학기부터 시행(국제, 부산 8. 2)
* 부산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에 422억 지원, 지자체 국가사업비 첫 부담(국제 8. 2)
* 부산에 수산물 종합시장 건설, 공동어시장내 30층 규모 추진, 7일 임시운영위서 결정(부산 8. 2)
* 부산항 운영효율방안 추진, 자성대 부두 운영건물 고층화, 「컨」 하역 고속장비증설·부두준설(부산 8. 2)
* 「낙동강 공단저지」 공대협 출범, 부산-경남도의회 환경보존특별법 제정 등 촉구(부산매일 8. 2)
* 수영정보단지 건설 차질, 시 출자분 미정 법인설립 지연 부지 내 CY이전도 99년께나(부산매일 8. 2)
* 부산지역 터널은 차량매연 "소굴", 통행시민 건강 크게 위협(부산매일 8. 2)
* 부산시, 장애인차 통행료 전액 면제, 차량등록제 감면 확대 등 추진(부산매일 8. 2)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323호)(부산교육 8. 2)
* 「부산광역시 교육기자재 수리 정비소 설치 조례」 공포(제3324호)(부산교육 8. 2)
* 「부산광역시 교육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제3325호)(부산교육 8. 2)

8. 3　* 용호만 「해변도시」 본격화, 해양스포츠 유통 위락단지 조성(부산경제 8. 3)
* 가덕도개발 1백만평 축소, 항만·물류단지 줄여 599만평 개발 수영강변도로 지하화 공원 조성(국제 8. 3)
* 부산시 순환주택 5백세대 건립,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국제 8. 3)
* 생곡매립장 재시공 추진 난항, 환경공단·설계 시공사 의견 팽팽(국제 8. 3)
* 부산 조선업계 불황 "그림자", 상반기 5개사 수주실적 12만5천여t 그쳐(부산매일 8. 3)
* 부산해안 해일피해 잇따라, 태풍 「허브」 영향 피서객 2명 실종…차량 등 유실도(부산매일 8. 3)

* 부산 열대야 신드롬, 12일째 계속…6년만에 최장 기록(부산매일 8. 3)
* 「합천」 등 저지 공대협 발족, 부산·경남도의회 낙동강 수질개선 능동 대처(부산매일 8. 3)
* 대기오염 측정망 정비, 부산·경남 8곳 장비 확충·전면 교체(부산매일 8. 3)
* 생곡매립장 재시공추진 난항, 환경공단-감리단 시공방법 논란(부산 8. 3)
* 부산시, 동국제강 앞바다 15만평 개발 본격 추진, "관광도시 조성 배치" 논란(부산 8. 3)

8. 4
* 해운대 온천센터개발 차질, 관광지 지정 등 지연(부산매일 8. 4)
* 「합천」 수용 낙동강 개발 제시 "눈길", 신한국 시지부·시의회 지도부 간담회(부산매일 8. 4)
* 부산시 교육위, 예산심의 "어이없다", 사무전산화비 전액 삭감(부산매일 8. 4)
* 부산시 「불용 예산」 매년 눈더미, 8백억원 책정하곤 집행 않아(부산매일 8. 4)

8. 5
* 부산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오전 8시부터 5시간동안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부터 침설 작업(시보 8. 9)
* 제9회 한·중·일 퇴계학 국제 학회(부산 10층)(부산교육 8. 5)
* 부산시, 내년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두고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시보 8. 9)
* 부산시, 심야영업 관련 기관단체장들이 서면과 온천장 일대에서 심야영업 현장조사(시보 8. 9)
* 부산시, 동아시안게임 준비상황 보고(시보 8. 16)
* 시정 서비스 뒷걸음질, 민원부서폐지·조직분산·인원감축(부산 8. 5)
* 중공업, 부산주종산업 부상, 기계·장비 1위 '껑충' 허나 신발은 3위 추락(국제 8. 5)
* 선사-업체 예선 운영방식 갈등(국제 8. 5)

8. 6
*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가 해운대구 회의실에서 내무부장관을 포함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시보 8. 9)
* 부산시, 중구 중앙동 부산시청사 일대가 2001년까지 업무·상가 기능과 문화·휴식·관광기능을 고루 갖춘 도심 중추복합공단으로 단장(시보 8. 9)
* 도개공 아파트 편의서실 "낙제", 2천세대에 주차장 453면 뿐(부산 8. 6)
* 물금·매리 취소장도 악성조류, 서낙동강 이어 잇단 발생(부산매일 8. 6)

8. 7
* 부산시, 내년에 열리는 동아시아경기대회의 공식 공급권자 선정사업 설명회가 개최(시보 8. 16)
* 부산시청 주변 「중추도심」 육성, 업무·상업·문화·휴식·관광 복합공간으로(부산매일 8. 7)
* 부산 「민선살림도」 엉망, 예산 34%가 불용·이월액 처리, 투자순위 결정 예산관리제도 시급(부산매일 8. 7)
* 부산 지방세체납자 강경조치, 일선구청 재정압박 가중, 지역사업 차질 따라 형사 고발키로(부산매일 8. 7)
* 금정구, 공무원 하계수련대회, 심신단련·유대강화 도모(부산매일 8. 7)
* 부산 교통난 완화 5대 분야 45개안 설정, 대중교통 확충 "최우선"(부산매일 8. 7)
* 아시안게임 시설 건립 비상, 그린벨트 이유 골프·승마장 등 제공(부산 8. 7)
* 부산 8부두 공동 사용 협상 결렬, 미, 한국에 모든 비용전가(부산 8. 7)
* 부산 시청사 부지 개발 난항, 설계면적 34% 항만시설 보호구역 포함(부산 8. 7)

8. 8
* 부산시, '녹산 신호공단 기반시설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시보 8. 16)
* 시내버스 요금인상 확정, 일반 400·좌석 800원(부산매일 8. 8)
* 향토 금융기반이 무너진다, 부산상공인 출자 종금사 속속 재벌에 넘어가, 서울영업 치중 자금유찰 심각(부산매일 8. 8)
* 동아경기 시 적극 지원 시급, 재원·경기장 개보수·소통책 등 난제 산적(부산매일 8. 8)
* 지역경제도 폭염 신드롬, 건설·제조업 작업시간 변경 등 능률향상 부심(부산매일 8. 8)
* 피서지 「쓰레기 종량제」 표류, 하루 수십t씩 방치, 일선구청 처리비용 부담 가중(부산매일 8. 8)
* 서부산권 적기개발 차질, 기반시설 건립미흡, 공단입주·삼성차 지연 불가피(부산 8. 8)
* 부산 시내버스과 평균 11.9%인상, 소비자 물가 상승 '부채질'(부산 8. 8)
* 부산시 버스요금 정책 '실종', 16일부터 11.1%~14.5%인상 단행 업체와 사전약속·서울 따라가기 일관(국제 8. 8)
* 양산~일광 간선로 구체화, 총 연장 34KM 4차선 내년 중 타당성 조사(국제 8. 8)

8. 9
* 부산시, '용호만 해변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시보 8. 9)
* 부산시, 지역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0대 열린 기업지원 시책'을 수립(시보 8. 9)
* 국회예결위원, 97 국책사업 예산심의 대비 등을 위해 부산시를 방문하여 사업현장을 점검(시보 8. 9)
* 부산시, 중부지역 수재민 성금 1,289만7천여원을 부산의 지역방송 및 신문사 등 7개 언론사에 각각 기탁(시보 8. 9)

* 부산시, 제조・유통・서비스업체 가운데 8%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과 진동, 소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시보 8. 9)
* 부산시장, 아시안위크 96홍보를 위해 CF촬영(시보 8. 9)
* 부산시, 일요일에도 생곡매립장 쓰레기반입을 허용하기로 함(시보 8. 9)
* 부산시, 을지연습 훈련기간 중 인 21일에 불시 민방공훈련을 실시(시보 8. 9)
* 부산시, 각종 환경오염행위감시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신문고'를 설치(시보 8. 9)
* 부산시, 저소득층・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시보 8. 9)
* 부산시, 2002 아시안게임에 사용될 9개 신설 경기장 입지 확정(시보 8. 16)
* 부산시 아시안게임 준비단, 2002 아시안게임 8개 신설 경기장의 설계 공모당선작 확정(시보 8. 16)
* 부산 「소비도시화」 급속 진행, 화폐 환수율 매년 증가(부산매일 8. 9)
* 부산항 이용료, 동아 경제국 보다 비싸, 호주 LSS 자료 저렴도 순위 세계 30대항만 중 10위(부산매일 8. 9)
* 아주경기장 입주 최종확정, 시 테니스 등 9종목으로 내년 본격 착공(부산매일 8. 9)
* 녹조 맹위 상수원 위협, 낙동강 상류 합천・고령까지 확산(부산 8. 9)
* "황령산 지하수는 시민 공동 자산, 부산지법 대량취수 공사금지 가처분 받아들여(부산 8. 9)
* 가덕 신항만 피해보상 난항, 부산시 어민 약정서 체결・용역기관 선정 등 이견(국제 8. 9)
* 낙동강 조류농도・전망 '제각각', 부산상수도 본부-환경관리청 측정치 4배 차이 혼란 부채질(국제 8. 9)
* 산학협력관 기공식(동아대 하단 캠퍼스)(부산교육 8. 9)

8. 10
* 부산시, 정책개발실장 정기용씨 임명(시보 8. 16)
* 부산시, 낙동하류 환경 영향 평가, 어패류 죽음 때 피해 어민 진정 수용(부산매일 8. 10)
* 상수원 악성녹조 하룻새 2배 폭증, 부산시 뒤늦게 "정수비상"(부산매일 8. 10)
* 부산바다축제 폐막, 10일 28개 행사 80만명 피서객 참여 "성황"(부산 8. 10)
* 부산시, 무역정보은행 설립, 하반기부터 민간・기관 자료 데이터 베이스 추진(부산 8. 10)
* 부산시, 공무원 시험 경쟁률 치열, 9월 15일 실시 3회시험 29대 1로 올 최고(부산 8. 10)
* 2002년 부산 동아게임 8개 경기장 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23개작품 응모로 내년 7월 발주, 99년 완공(부산 8. 10)
* 첨단 해양도시 구상 본격화, 2011년 목표 「그랜드 디자인」 수립 박차(부산 8. 10)
* 낙동강 환경청, 부산이전 백지화, 해양부 발족, 바다관리업무 분리 등 이유, 현 덕천동 부산사무실도 잠정 폐쇄 방침(국제 8. 10)
* 「환경신문고」 운영(부산시정 8. 10)

8. 11
* 부산바다축제 피날레, 열흘간 백만 관람…"국제적 축제 가능성" 평가(부산매일 8. 11)
* 부산경제 전국서"최악", 각종 지표 16개 시・도 중 꼴찌, 부도・실업・수출 증가율도(부산매일 8. 11)
* 악성녹조 칠서까지 확산(부산매일 8. 11)

8. 12
* 부산시, 안전대책위원회 개최(시보 8. 16)
* 부산대 「토플 졸업제」 도입, 97년 신입생적용 인문 530점・자연 510점 돼야(부산 8. 12)

8. 13
* 부산 경제구조 소비도시화, 도・소매 숙박업 전국비중보다 높아 음식점수 인구 대비 최다(부산 8. 13)
* 가덕항 개발 내년 본격화, 정부 3천억 신규 투입 방파제 건설・보상 등 착수(부산 8. 13)
* 부산 그린벨트 내 경기장 허가, 건교부 별도규칙 월내 마련, 조정・사이클 등 9개 종목 대상(부산 8. 13)
* 부산경제10년간 하향 일관, 성장률 6.8로 전국 평균 9.5% 밑돌아(부산매일 8. 13)

8. 14
* 부산시, 선경그룹과 수영정보단지 기본합의서 체결하고 사업추진 구체화(부산 8. 23)
* 부산 상수원 수질 역상 최악, 물금 BOD 정수한계치 초과 COD도 한때 15.6pm 치솟아(부산 8. 14)
* 부산시-선경 합의서 체결, 수영 정보단지개발 주식회사 9월말 설립(부산 8. 14)
* 부산시-선경 공동설립, 수영 정보단지개발 주식회사 기본합의서 체결(국제 8. 14)
* 광안대로 98년 완공 힘들 듯, 상부공 제작 부진 20%진척, 1년 지연예상(국제 8. 14)
* 「부산항 종합대책」 시행 진통, 옛 동명부지 철거 대상 36개 업체 반발, 3・4부두 민영화안도 노조와 협상 필요(국제 8. 14)
* 한국 수채화 100주년 개막전(부산매일 주최) 문화회관 전시실(부산교육 8. 14)

8. 15
* 부산시, 제51주년 광복절 경축식 거행(시보 8. 16)
* 부산 수영 정보단지 개발, 8천억 투입 최첨단화(부산 8. 15)

* 둔치도 승마장・연료단지 난항, 건교부 경마장 불허 방침에 주민들 반발(부산 8. 15)
* 가덕신항, 하역・선사도 참여, 건설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특혜불식 시공・관리 등 일괄(부산매일 8. 15)
* 상수원수“사상최악”, 부산 낙동강 녹조 계속 확산 “정수 불가 상태”(부산매일 8. 15)
* 남포동 노점상 일제 정비, 국제영화제기간 차량통행 등 위해 강력단속(국제 8. 15)

8. 16
* 부산시, ‘지사 과학단지’ 조성 활기, 재정경제원으로부터의 기반시설비 1,300억원 지원(부산 8. 13)
* 부산시, 일본뇌염 발생경보(부산 8. 13)
* 부산시, 각종 국제경기를 앞두고 3대 시민운동 ‘질서・친절・청결’에 박차, 시민운동 단체를 통한 세미나 개최(시보 8. 16)
* 부산시, ‘함지골 청소년수련원’ 개원, 1,500평 규모, 지상 3층・지하 1층(시보 8. 16)
* 부산시, 내년 7월부터 ‘오존 환경경보제’ 실시(시보 8. 16)
* 부산시, 제1회 부산 바다축제 폐막(시보 8. 16)
* 부산시, ‘하나로 카드’ 10월부터 상용시험 실시(시보 8. 16)
* 부산시,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관리 업무 종합 분석하고 결과 발표, 150여개 업소 적발, 위반율 9.2%(시보 8. 16)
* 부산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도로굴착 복구실태 점검(시보 8. 16)
* 부산지방노동청, ‘실업자 재취직 훈련’ 수강료 국가부담, 최저임금 50% 훈련 수당지급(시보 8. 16)
* 부산시, 저소득 주민 대상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생활안정・자립자금 적극 지원(시보 8. 16)
* 부산시, 역경・가난 극복 사례 생활보호대상자와 사회복지담당자 수기를 9월 30일까지 모집(부산 8. 16)
* 부산시, 시내버스요금 400원으로 인상(시보 8. 16)
* 부산시, 부산시 소재 기업의 주요 수출상품을 모아 책자 발간 참여업체 모집(시보 8. 16)
* 부산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접수(시보 8. 16)
* 부산시, 중구 5개소 등 총 59개소에 가드레일 설치(시보 8. 16)
* 부산시, 30억원 들여 2000년까지 소음이 심한 시내 23개 학교에 방음벽 설치(시보 8. 16)
* 부산시, 낙동강 녹조의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시보 8. 16)
*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 확정 ‘비밀과 거짓말’ 등 171개편(시보 8. 16)
* 부산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등 부과(시보 8. 16)
* 부산시, 중소기업 수출 신용보증료 지원제 실시(시보 8. 16)
* 부산시 근로복지과,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따른 대상자 838명 모집, 저소득층과 중・고 중퇴생을 대상(시보 8. 16)
* 부산시, 올해 을지연습과 관련하여 문정수 부산시장 주재로 방위협의회 개최(시보 8. 23)
* 생곡매립장, 부실관련자 처벌 촉구, 설계・감리 시공서 총체적 부실 근본대책 없인 환경오염 불가피(부산 8. 16)
* 버스 인상료 곳곳 실랑이, 차내 거스름돈 지급기 설치않아(부산 8. 16)
* 영도 앞바다 또 기름유출, 대형유류 운반선 좌초 기관연료 새나와(부산 8. 16)
* 부산 제조업 역외이전 가속, 올 73개 업체, 전년비 58.7%증가(부산 8. 16)
* 남구『자랑스런 구민상』제정, 효행 등 3개 부문으로 오는 10월 시상(부산매일 8. 16)
* 남구청, 신청사 건립 본격, 전문가 위촉 추진위 발족(부산매일 8. 16)
* 불법형질 변경 묵인 ‘공공연’, 부산시 감사실 허가 부적합 85건 적발, 158명 징계(국제 8. 16)

8. 17
* “생곡매립장 부실 구조적 결함”, 제방 지하수 용출 붕괴 우려, 침출수처리시설 축소 설계(부산매일 8. 17)
* 시내버스 횡포 극심, 요금인상 첫날 “잔돈 없다” 차액 안줘(부산매일 8. 17)
* 녹산공단이 떠돈다, 분양 부진 속에 해약사태 겹쳐, 정부・토공은 대책 없이 방치(부산매일 8. 17)
* 부산시 버스전용차로 37km 신설, 올 하반시 하단5거리~낙동주유소 등 4개 구간(부산 8. 17)
* 녹산공단 입주포기 29업체, 계약금 24액 전액환불, 한국토지공사 중도금 납부연장방안 검토(부산 8. 17)
* 부산 0-157균 ‘취약지대’, 도축장・식육점 위생관리・감독 소홀(부산 8. 17)
* 건교부, 울산~동대구 복선전철화, 동대구~순천 남해선 신설(국제 8. 17)
* 토공『녹산』계약금 환불, 96년 해약업체 29개사로 총 24억 규모(국제 8. 17)
* 부산시, 무의탁노인 지원 늘린다, 내년부터 65세 대상『종합대책』본격실시(국제 8. 17)

8. 18
* 남천만 일대『수변 신도시』조성, 2001년까지 15만평 추가매립 총 40만평 규모(부산매일 8. 18)
* 부산지역 각종 생필품 가격 반년새 최고 5배 폭등, 같은 품목도 시장 따라 2~4배 격차(부산매일 8. 18)

* 녹산 공단 분양가“세계최고”, 당초 평당 58만서 70만원대 예상(부산매일 8. 18)
* 유통식품 점검 허술, 부산 일선구청 농수산물은 아예 검사 않아, 변질제품 재포장 판매 다반사로 여름철 시민건강 위협(부산매일 8. 18)

8. 19
* 부산시민 수돗물 이중고, 정부 방침 따라 2년 안 45%인상, 약품투입 비용 많아 원가 전국 최고(부산 8. 19)
* 시내버스 노선 너무 길다, 부산지역 40km 이상 장거리가 43% 중복・과당경쟁 유발, 경영난 악화 주요인(부산 8. 19)

8. 20
* 수영정보단지 개발계획 확정, 면적 만7천평 늘고 상업기능 확대(부산 8. 20)
* 구청사 임대사업 활발, 진구・연제구 일부층 임대・시공사에 사용권 주기도, 재정난 해소 차원이나 도덕성 논란도 예상(부산 8. 20)
* 표류 녹산공단 “설상가상”, 정부・시서 약속한 융자・시설 지원 공수표화(부산매일 8. 20)
* 위천공단 공동 토론회 부산-대구 시의회 개최(국제 8. 20)
* 부산현안 국비 1조 지원, 동아 경기시설・가덕도 개발 등 ‘숨통’, 김해공항 국제선확장 150억 배정 광안대로 건설 사업 1천억 추가(국제 8. 20)

8. 21
* 부산시, 시정 동정 시장 제10회 아시아・태평양 에이지그룹 수영선수권 대회 참석 부시장 수영정보단지 개발계획 용역자문회 주재(시보 8. 23)
* 부산 신보조합 내년 초 설립, 기본재산 2백50억 규모(부산 8. 21)
* 부산시 대형 건설사업 지지부진, 예산집행 22% 불과, 공법변경・보상지원 등 추진력 부족 공장내 완공 큰 차질(부산 8. 21)
* 제10회 아시아태평양에이지그룹 수영선수권 대회(사직 실내체육관)(부산교육 8. 21)

8. 22
* 부산시, 간부 기업체 순회・현장 방문, 신평・장림공단 대상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수렴(부산 8. 30)
* 부산시, 수영・충렬로 출근시간대 ‘나홀로 차’ 규제 상당한 효과를 보이나 우회로 혼잡 등 부작용 대처 시급(부산 8. 30)
* 부산시, 민원발생 사전예방과 공영개발 내실 추진을 지시(시보 8. 23)
* 부산시, 제3회 부산자원봉사대축제 행사 계획, 9월 5일까지 동사무소 신청(시보 8. 23)
* 부산시, 부산지역 중소기업 우수상품 안내(시보 8. 23)
* 부산시, 생곡쓰레기매립장 보수공사로 인해 ‘사업장 폐기물’ 한시적 반입 중단(시보 8. 23)
* 부산시, 소년소녀가장 및 요보호아동들에게 지원 확대를 위해 30일까지 사실 조사 착수(시보 8. 23)
* 부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시보 8. 23)
* 부산시 여성정책과, 여성과 시민단체 참가하여 ‘대책위’ 구성, 성폭력 근절에 대한 시민중심 종합대책 수립(시보 8. 23)
* 부산시 여성정책과, 성폭력피해 신고안내소 운영(시보 8. 23)
* 부산시, 해외여행 급증으로 위・변조 사례 많아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리대책 시달(시보 8. 23)
* 부산시, 낙동강 녹조확산 방지대책 마련(시보 8. 23)
* 부산시,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엽서제’ 정착위해 활성화 대책 마련(시보 8. 23)
* 부산시, 무의탁 노인지원 종합대책 마련(시보 8. 23)
* 부산시, 거제동에 지하 1층・지상 3층규모의 ‘곰두리 체육센터’ 97년말 완공예정(시보 8. 23)
* 부산시,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도래(시보 8. 23)
* 부산시, 올 하반기에 4개구간 37km의 버스전용차선 신설(시보 8. 23)
* 부산시 근로복지과, 고용정보망에 대한 다각적 대응책 강구, 취업알선기관 이용(시보 8. 23)
* 부산시, 올해 택지 초과부담금 지난해에 비해 급감(시보 8. 30)
* 부산시 보건과, 콜레라 예방대책에 대한 긴급 방역회의(시보 8. 30)
* 부산시, 영업시간 완화에 따른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유흥접객업소 일제 점검(시보 8. 30)
* 시, 수영정보(주) 23.3% 출자, 출자비율 진통예상(부산 8. 22)
* 방위비・SOC확충 과감히 지원, 군・현대화・고속철 등 집중 투자 경제난 반영 행정경비는 대폭 긴축(부산 8. 22)
* 「합천」 결국 허용될 듯, 낙동강 수질 개선에 내년 5조억 투입(부산 8. 22)
* 2002년 아시안게임 국비지원액 대폭 삭감돼 2천억 요청에 5백80억만 반영 부산시, 대체재원 확보 시급(부산 8. 22)
* 양심실종 「뺑소니」 급증, 부산 올 들어 1,375건 발생 하루 7건(부산 8. 22)

* 부산 2020년 세계 10대 도시로, 통일 대륙축 기・종점(부산 8. 22)
* 공동어시장 “무대책”, 부산 시설 투자・시장현대화 계획 수년째 담보(부산매일 8. 22)
* 부산~여수 “마의 항로”, 전국 선박사고 40% 집중 발생(부산매일 8. 22)
* 부산, 모방직물 산지로 육성, 섬유산지 4곳 권역별 육성안 마련(국제 8. 22)
* 합천공단 설립 강행, 낙동・금호강 수질개선 병행(국제 8. 22)

8. 23
* 사하구, 을숙도 강변음악회 개최, 구민 문화회관 건립 축하, 사물놀이패・가수 등 출연(부산매일 8. 23)
*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안전 “사각”, 마구잡이 보수공사 사고 촉발 야간 진입금지 표지판도 없어(부산매일 8. 23)
* “부산 선물거래사 내년초 설립” 지역 금융기관 100억원 출자추진(부산매일 8. 23)
* 중-대만「컨」직항로 개설 가시화로 부산항 환전화물처리 타격(부산 8. 23)
* 올림픽공원・요트경기장 기능 상실, 공사・수질오염으로 도심공원 역할 못해(부산 8. 23)
* 「생산자서비스업」도 절반 수도권 집중해 지역경제 발전 장애, 정보・법률 등 부산권 17%(국제 8. 23)

8. 24
* 자전거도로 시전역 확대, 너비 25m이상 평탄대로 지역대상, 올해내에 시설계획 용역 발주키로(국제 8. 24)
* 부산시 하수시설 ‘발등의 불’, 처리율 전국 6대 도시 중 꼴찌, 예산 없어 처리장 14곳 건설 표류(부산 8. 24)

8. 25
* 무선호출기・이동전화・PC통신 “가입자 짜증난다”, 수요폭증에도 시설확충 외면, 해지・변경 신청마저 제때 안 돼(부산매일 8. 25)
* 부산경찰 청소년 유흥업소 정화 박차, 미성년에 술・담배 판매 등 잇단 철퇴(부산매일 8. 25)
* 부산 텍사스촌 경기 “시들”, 8월 들어 주고객 러시아인 발길 격감(부산매일 8. 25)
* 일선구청 조직・기능 개편 추진, 정보관련 부서 확충, 기획 감사 실장 직급도 상향 조정(부산매일 8. 25)
* 건축조례 개정여부 “최대쟁점”, 부산시의회 29일 개회 전망(부산매일 8. 25)
* 연제구,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접수, 9월 20일까지 한 달간(부산매일 8. 25)
* 독학 학위 취득 96 전공 심화 과정(3단계) 인정시험(부곡여중)(부산교육 8. 25)

8. 26
* 부산시, 9월 6일까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시보 8. 30)
* 신호공단도 분양난 불가피, 평당 분양가 96만원 전망, 사업성 상실(부산 8. 26)
* 부산「노인전문 복지관」절대 부족,「수요」증가불구 연제구에 단 1곳뿐(부산 8. 26)
* 구포 고가교 애물단지, 대체도로 조기완공 시급(부산 8. 26)
* 부산시 첫 해외투자 베트남 진출, 도로 교량 등 2,400억 규모 사업 의향서 전달(국제 8. 26)
* 최첨단 교통정보센터 설치, 부산 99년까지 신호기 일괄제어 등 기능(국제 8. 26)

8. 27
* 부산시,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시보 8. 30)
* 부산시,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활성화 대책 마련(시보 8. 30)
* 「빈사 지역경제」활성화 시동, 부산시・경제단체・업계대표 대책회의(국제 8. 27)
* 부산 체육회 제 2도약 ‘점화’, 중・장기 계획 수립(부산 8. 27)
* 부산 지역 0-157식중독균 “아직 안전”, 관련 육류 검사 “이상무” 업소 필요조치는 강화(부산매일 8. 27)
* 기장군, 기장읍성 문화재지정 설명회, 주민 50명 초청, 경과보고, 문화원 설립도 착수, 정관내용 검토(부산매일 9. 7)
* 함지골청소년수련원 개원(부산시정 8. 27)
* 함지골 청소년 수련원 개원(부산교육 8. 27)

8. 28
* 공사, 지사 단지 참여, 내년 초부터 본격 조성(부산매일 8. 28)
* 용두산 공원 지하공간 개발, 전망타워 등 연계 주차장・체육시설 건설키로(부산 8. 28)

8. 29
* 부산시의회, 제56회 임시회를 열고 수영정보단지(주)자본금 출자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의(부산 8. 30)
* 부산국제영화제 설명회 개최, 시장 참석(시보 8. 30)
* 부산시 기업지원과, 부산중소기업청 산하 부산지방원로봉사단이 발대식을 갖고 정식활동에 돌입(시보 8. 30)
*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보고회가 시장 초청으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부산 9. 6)
* 부산시의회, 제5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벌임(부산 9. 6)
* 지사과학단지 축소 개발, 토공 1백만평서 1백1만평 규모로, 공단・주거용지 60%・공원도로 40%만 계획(부산 8. 29)
* 냉수대・적조 소멸 공식 발표 수진원, 넙치 집단폐사 우려(부산 8. 29)
* 양산 ICD 또 1년 지연 불가피, 장치장 운영업체 아우성(부산 8. 29)
* 교통유발 부담금 43%인상, 대형 건출물 “억제” 대책 땐 70%경감(부산 8. 29)

* 세무행정 종합 전산망 구축, 부산시 16개 구・군 연결 올 연말께 가동(부산 8. 29)
* 교통유발 부담금 대폭 인상, 시 정책 호응 기업엔 혜택, 10부제 40% 모범시설 70%까지 경감(부산매일 8. 29)
* 부산3대 관광권 설정, 3대 경제권 개발과 병행 추진(부산매일 8. 29)
* 부산해경 페스카마호 인수, 조선족 선원들 선상반란・사체유기(부산매일 8. 29)
* 「컨」 부두 잇단 개장, 「7부두 1,2단계」・「65번 선석」 내달 조업(국제 8. 29)
* 부산국제영화제 시상제 일부 도입, 「뉴커런츠」「와이드 앵글」 부문 4편 선정키로(국제 8. 29)
* 「정보단지」 등 논란 예상, 시 출자지분 대폭 축소(국제 8. 29)
* 가덕신항 민자 사업 시행자 「대기업 컨소시엄」 유력, 삼성-현대-대우 등 5개사(부산 8. 29)
* 시 출자지분 24.9% 합의에 시의회 반발, 33%로 대폭 수정 요구(부산 8. 29)

8. 30
* 부산시, '아시안 위크' 준비 만전(시보 8. 30)
* 부산시, 염소 소독 완전 제거(식수 이상 없음), 약수 등에서는 우려(끓여먹는 것을 권장)(시보 8. 30)
* 부산시, 9월 3일까지 국제영화제 등 손님맞이 대비하여 도심지와 유원지를 중점으로 피서철 뒷정리, 시 전역 대청소 돌입(시보 8. 30)
* 부산시, 국제영화제 등 대비 3대 시민운동 추진(시보 8. 30)
* 부산시, '대민친절 봉사운동' 추진, 응대요령 등 서비스 질 향상(시보 8. 30)
* 부산시, 시정 동정 - 시장 : 제2회 96 비치발리볼 세계여자선수권대회 현장 방문, 제10회 아시아 태평양・에이지그룹 수영선수권대회에 참석, '아시아드 2002 신탁통장' 증정 받음, BLUE RIDGE(미7함대)에 승선하여 오찬에 참석(시보 8. 30)
* 부산시, 도축장・식육제품 등 수거검사 결과 병원성 대장균 O-157균 검출되지 않음(시보 8. 30)
* 부산시, '아시안위크 96'을 앞둠(시보 8. 30)
* 부산시, 부산지역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9월 3일부터 북경에서 열리는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본격적인 중국시장 개척에 나섬(시보 8. 30)
* 부산시,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 강화(시보 8. 30)
* 부산시, 부조리・예산낭비 방지위한 보고회, 뇌물공여업자 관급공사 입찰제한(시보 8. 30)
* 부산시 건설안전관리본부, 광안대교 현수고 주탑 신설(시보 9. 6)
* 신호・녹산공단 인력수급 추궁, 버스료 주먹구구식 결정 시정촉구(부산 8. 30)
* 부산・경남 쓰레기 소각장 6개 신설, 매립처리서 소각위주로(부산 8. 30)
* 부산시 허용량 초과 해운대구 첫 반입제한 조치, 구・군, 쓰레기 줄이기 "비상"(부산 8. 30)
* 신호대교 건설공사 난항, "뚝공사로 김양식 피해" 어민 반발(부산 8. 30)
*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물 부실건축, 단체장에 시공자 교체권, 대형공사 감리・시공 총괄 건설관리제 도입(부산 8. 30)
* 야, 가덕신항 "백지화" 촉구, "PK특혜"…광역 등 개발 요구(부산매일 8. 30)
* 부산지역 물가상승 "주춤", 추석 앞두고 농수산물 값 하락 힘입어, 8월등 0.5%내려 6대 도시와 대조(부산매일 8. 30)
* 중기 조업비율 갈수록 떨어져, 부산 7월 중 87.2%…2・4분기 이후 계속 추락(부산매일 8. 30)
* 부산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확정, 임택권, 강수연씨 등…부분 시상제 도입(부산매일 8. 30)
* 부산시 수영・충렬로 강제 통제 해제, 「나홀로차」 자율 통제 전환(부산매일 8. 30)
* 부산~언양 경부고속 6차선 확장, 건교부 내년말 착공…동아게임 전까지 8차선(국제 8. 30)
* 부산물가 모처럼 하락, 8월 중 4.2%, 전월비 0.5%p 내려(국제 8. 30)
* 부산항, 「컨」 처리 빨라진다, 자성・신선대 「터미널 게이트 자동화」 도입(국제 8. 30)
* 일선구청 쓰레기 감량 비상, 부산 생곡 반입제한…주민홍보 전력(국제 8. 30)
* 「부산 국제영화제」 설명회, 서울 유명감독・배우 등 200여명 참석(국제 8. 30)

8. 31
* 부산시 새 청사 98년 1월 개청, 3월 앞당겨 내년 9월까지 완공, 정보화 중추 건물로(부산 8. 31)
* 자치구에 기획실 신설, 부산 감사실 확대하며 4급서기관이 실장 돼(부산 8. 31)
* 부산시, 마을버스요금 11.8%인상, 내일부터 기습시행…"밀실행정" 비난(부산 8. 31)
* 수영정보(주)지분갈등 증폭, 「동국」 부지 항만・위락시설 촉구 동명학원 일부 땅 주거용 반대(부산 8. 31)
* 낙동강 하수처리장 확충, 2002년까지 「장림」 용량 배증설 「강동」 신설(부산 8. 31)
* 동국제강 "포항 이전 재고", 녹산 입주 포기 "공식 결정 아니다" 해명(부산매일 8. 31)

* 페스카마호 부산 인항, 오늘 새벽 조선족 선원 등 상대 본격 수사(부산매일 8. 31)
* 낙동강 녹조 소멸 기미(부산매일 8. 31)
* 동삼동 매립지「컨」야적장 허가 “반발”, 부산대교 등 체증가중(부산매일 8. 31)
* 합천 축소허용 방침, 이 총리 수질 개선 뒤 비공해 업체 중심 입주(국제 8. 31)
* 「선상반란」본격수사, 해경 중교표 6명 압송…살해경위 추궁(국제 8. 31)
* 부산해경 수사본부, 페스카마15호 선상반란사건 경위조사, 치밀한 사전모의, 차례로 살해, 실습선원 산채로 바다 던지기도(부산매일, 부산경제 9. 1, 국제 9. 2)
* 시, 퇴비업체 민원 탓 반입중단 해 음식쓰레기 갈 곳 없어 비상, 대체장소 등 확보 못해 혼란(부산매일 9. 1)

9. 1
* 부산시, 30일까지 ‘96 생활보호대상자 실태 조사’(시보 9. 6)
* 해운대하수처리장 준공(부산시정 9. 1)

9. 2
* 선상반란 현장 검증, 사건 후 선원간 흉기 대치극 발생(부산 9. 3)
* 시의회, 수영정보(주) 심사보류, 동명학원 일부 부지 용도변경 포함, 다음기회에 검토키로(부산 9. 3)
* 훗카이도부근, 동원산업 소속 원양어선, 인도네시아 선원 해상탈출, 1명 사망 3명 표류 중 구조(부산매일 9. 4)
* FAX민원제도 시행(부산시정 9. 2)

9. 3
* 부산시장, 이건희 IOC위원 선임 축하 리셉션에 참석(시보 9. 6)
* 부산시, 부산시장과 직원들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시보 9. 6)
* 부산시의회, 6개 상임위 일제히 개최, 감천항 수산물시장 협의 중(국제 9. 3)
* 정부, 가덕 신항 물류단지 확대건설 검토, 3백만평 자유유통단지로, 배후도시 취소 대신 도시기능 갖춰 정비(국제 9. 3)
* 부산지방노동청, 특별기동반 편성 비상근무, 69개 사업장 130억 임금 미지불, 4천9백여 노동자 피해, 사실상 도산・폐업 상태(부산 9. 3)
* 시, 시의회 임시회 개정조례안 심사과정, 소방본부산하 안전점검기동반 신설키로, 재난위험요소 사전확인, 녹산 입주금 40% 납부되면 융자 알선키로(부산매일 9. 4)
* 남부경찰서, 주부윤락조직 검거, 10여명 고용 매춘알선 40대 여 포주 영장(부산매일 9. 4)
* 맹학교에 교육 기자재 기증(로타리 클럽)(부산교육 9. 3)

9. 4
* 산업기술정보원 부산지역정보센터, 부산발명특허 서울의 1/80(국제 9. 4)

부산지역 발명특허 출원현황

	전국비중	출원건수
90	1.8%	162건
93	1.33%	286건
94	1.29%	369건
95	0.6%	357건

부산과 서울지역의 특허출원 대비

	서울	부산
발명특허	28,539건	357건
실용신안	35,477건	1095건
의장	13,354건	1613건
상표	36,517건	2457건

* 부산시장, 한일해협연안 7개 시・도・현지사 교류회의에 참가하러 온 일본측 교류단 영접(시보 9. 6)
* 한일해협 7개 시・도・현지사 회의가 개최(부산 9. 13)
* 부산지검 특수부, 부산지소장 등 5명 구속, 수입수산물 뇌물검사, 부적합 중국산 소라 등 수백톤 비표처리 합격판정(국제 9. 4, 부산매일 9. 5)
* 동래읍성 내 북문, 동장대 균열, 금정산성, 동래성지 훼손 심각, 구청예산 모자라 보수 복원 불가(부산매일 9. 4)
* 시의회, 수영정보단지 제동, 내달 창립총회 계획 무산, 의혹규명 없이 절대 불용, 설립계획 등 보완 요구, 출자・정관동의안 심사보류(국제, 부산 9. 5)
* 페스카마 15호 선상반란, 오늘 검찰 송치,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은 불구속 입건(부산매일 9. 5)
*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카탈로그 배포, 20만부, 부산 부영 국도 제일 아카데미 극장에서 1만원에 판매(국제 9. 5)

* 시설안전관리본부, 구포교 철거여부 점검, 내년 1월 중 존폐결정(부산 9. 5)
* 시의회, 2008년 부산올림픽 유치 촉구 결의 확산, 시민연계 운동(부산매일, 국제 9. 5)
* 시, 시 종합건설본부, 명지소각장, 내년 완공 불투명, 시서 공사발주 미뤄, 백40억 확보에도 불구 투자순위 뒤진다(부산매일 9. 6)

9. 5
* 부산 해운대경찰서, 해운대 유기장 봉인 훼손 개입 수사, 사무실 압수수색, 자금 추적(부산매일 9. 5)
* 건설안전관리본부, 광안대로 현수교 케이블 국내제작, 국제 공인기관, 강선 합격점 통보, 사업비 절감 효과 기대(부산 9. 5)
* 중구청, 자갈치 상징탑 세운다, 자갈치 축제 전국 6대 축제 선정기념, 외지 관광객 홍보, 상권 활성화 도모(국제 9. 5)
* 시, 아시안위크 10개국 15개 도시 참여키로, 오는 13일부터 9일간 치러질 예정(국제 9. 5)
* 부산기점 특수부, 권오만 시의원(택시노조 위원장) 영장, 택시기사 옷값 미리 지급 거액 수뢰(부산 9. 5)
* 시, 세무체계 개선계획 확정, 동 세정업무 자치구 환원, 세무직원 구청에 배치, 인력난 해소(부산 9. 5)
* 시, 수도료 인상 연장 건의, 정부에 2001년까지 매년 10~15%씩(부산 9. 5)
* 부산상의, 부산지역 고용구조에 따른 인력 문제점과 대책방향 발표, 고령화 따른 노동력 질 저하 심각, 90년 후 경제활동 인구도 감소세(부산 9. 5)

연평균 경제활동인구 증가추이 (단위 : %)

	부산	전국
80~84	7.4	1.5
85~90	6.6	3.5
91~95	1.9	2.3

* 시, 비디오방 무더기 미등록, 신설법 시설규정 못 따라 업주 기피현상, 7일부터 집중 단속, 마찰예상(국제 9. 5)
*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일선구청, 10여 단지 1만2천세대 녹물로 고통, 상수도본부 "옥내 배관시설 불량 등 원인", 아파트 시공업체 "공급원소 자체에 말썽"(부산매일 9. 6)
* 시, 시의회에 추진상황 보고, 신호공단 4만평 주·상용지 전환,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위해 용동 변경(부산매일 9. 6)
* 시, 전국 최초로 지방항만 고시, 해운대·기장 레저권 추진, 중앙부처 독주 벗어나 독자개발, 기존 도시계획 연계 효율극대화(부산매일 9. 6)

9. 6
* 부산시, '농산물 직거래' 시책 활성화, 매장·취급 품목도 확대(시보 9. 6)
* 부산시, 학교 급식소 및 구내식당에 대한 세균검사를 20일까지 실시(시보 9. 6)
* 부산시, 국제전문직위 보직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달(시보 9. 6)
* 부산시, 9월 중 역점 시책 추진(시보 9. 6)
* 부산시, 가스안전 관리체계에 SMS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시보 9. 6)
* 부산시, 시정 동정(시보 9. 6)
* 부산시, 온천동 내성지하차도 일부 보수공사로 30일까지 통행제한 실시(시보 9. 6)
* 부산시, 시정 단신(시보 9. 6)
* 부산시, 사상~김해 신영구간에 건설예정된 15개 역을 18개로 늘리는 방안 논의(부산 9. 13)
* 해양수산부장관 기자간담회, 가덕 신항 조기 완공, 1,2통합, 내년 11월 착공 예정, '컨' 공단도 개발에 참여시킬 방침, 건설방실도 제3섹터 전환(부산매일, 국제 9. 6)
* 한국토지공사, 물금신도시 땅투기 극성, 주택지원 3천만원 이상 웃돈 전매, 부산·울산지역 재력가 가세(부산 9. 6)
* 시, 부산 현안사업 사면초가, 수영단지, 당·의회서 제동, 가덕 항만건설 야권 반대, 아시안경기장 차질, '관광개발' 출범도 늦어질 듯(부산 9. 6)
* 시의회 상임위, 기형 시건축조례안 통과, 지역이기·로비, 제한 대폭 완화, 부산시, 본회의 후 재의 요구키로, 정치권 외풍, 파행의회, 내부갈등에 제역할 못해, 수영정보단지 심사 등 현안 무더기 보류(국제 9. 7)
* 시, 사상~김해간 18개 경전철역 추진, 강변·평강·불암 3곳 신설, 기, 유동인구 수용, 주민 편의 등 고려(부산매일 9. 9)
* 신한국당 당정협의회, 위원장 집행부 맹공 해 갈등, 국제대회 준비 안일, 협조 체제 강조, 중앙정치권 분위기 냉담 지적(부산매일 9. 7)
* 제28회 교육자료 전시회(부산교육 9. 6)

9. 7 * 부산시, 제1회 아시안위크 준비를 위한 최종 종합보고회를 가짐(부산 9. 13)
* 해양대 신재영교수팀, 토탈 소프트 뱅크 합동 CATOS프로그램 개발, 부산항 물류 전산화시대 성큼, 컨테이너 선적 관련 자료 입력 자동처리, 본격가동 때 만성적 체선 체화 해소 기도(부산매일 9. 7)
* 해운대 신시가 입주민, 미비한 기발시설 실태조사 직접 시작, 삶터 가꾸기 운동전개(부산매일 9. 8)

9. 9 * 부산시, 제56회 임시회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18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부산 9. 13)
* 해운대구청, 충렬로 체증완화 물거품, 확장공사 준공 연기 불가피, 해운대구-철도청 노폭・관리비 대립, 연말 개통 여부 불투명(부산 9. 9)

9. 10 * 시,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95년 징수액 1조2천1백47억원, 올해도 7월말 5백67억원 체납세, 체납세 누계 1천6백76억원, 재정 운영 큰 압박, 10월・11월 특별 정리기간으로 지정, 재산・급여 압류 및 형사고발도(부산 9. 10)
* 부산시 체육회, 2008 올림픽 유치 본격화, 내년부터 정부승인 얻어 적극 추진(부산매일 9. 11)
* 15회 교육감기 초・중등 학년별 수영대회(부산교육 9. 10)

9. 11 * 부산시, 'PIFF 광장' 명명 선포식(부산 9. 13)
* 부산해항청, 감천항 다목적 부두 활용, 북항 보조기능 부여, '컨' 처리도(부산 9. 11)
* 당정 내년 예산안 합의, 부산 72개사업 1조원 지원, 올해보다 24.9% 증가, 가덕항 보상비 태부족, 시 재정난 가중, 당초 책정액에서 1천3백억 추가(부산 9. 11)
* 구청, 5급 승진시험대비 과목당 교습비 최고 45만원 불법 과외극성(부산 9. 11)
* 부산교통공단 국정감사자료, 지하철 2호선 불안하다, 토목 예정가 71%에 받아 다시 38%로 넘겨, 일부 회사 90%이상 받고도 폭리, 저가 낙찰, 저가 하도급으로 부실우려(국제 9. 11)

9. 12 * 박홍섭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근로자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기본합의서 서명(시보 10. 4)
* 국민대 구조안전연구소, 부산・마산・울산항만 등 조사보고서, 부산 부두 야적화물 중량 초과, 균열 심각, 설계 하중의 5배를 넘는 16t/㎡(국제 9. 12)
* 부산상의, 300개 업체 조사, 부산 제조업체 인력난 심각, 전체 90%가 일손 모자라, 인력 부족율 조선 24.2%, 화학 및 화합물 15.1%, 의복 15.0%, 음식료품 14.3%, 조립금속・기계장비 12.0%, 신발 9.8%, 섬유 8.1%(부산 9. 12)
* 문화체육부, 가덕 배후도시, 녹산 공단 확장 등에 철새도래지 보호 내세워 반대, 건교부 관련부처 의견 수렴 20일께 결정(부산 9. 12)
* 시, 아시안게임 19개 시설 건립 융자 절실, 내무부에 재특자금 건의(부산 9. 12)
* 신한국당, 위천 관련 지역 주민 설득 방침, 낙동강 수질개선 가시화될 때 검토, 수질 개선 후 위천공단 지정 키로(부산 9. 12)
* 낙동강 공동체 운동, 초등생도 동참(국제 9. 13)
* 부산진구청, 서면 재개발 진행, 대상자 주민 초청, 주민 200명 농성, 도시계획 공청회 무산(국제 9. 16)

9. 13 * 부산시, 고령자 취업활성화 대책 마련(시보 9. 13)
* 부산시, 중구 중앙동 소재 현시청사 공매 예정가 877억원에 매각 입찰 공고(시보 9. 13)
* 부산시, 20일까지 추석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함(시보 9. 13)
* 부산시, 97년 동아시아 경기대회에 대비하여 85억6천만원을 녹화사업에 투입(시보 9. 13)
* 부산시 자치행정과, 국민생활밀접 7개 기능 전자주민카드로 통합, 총예산 2,735억원 투입, 연차적 계획마련 추진 중(시보 9. 13)
* 부산시 사회복지과, 정신요양원 환자에서 도서보내기 운동 추진(시보 9. 13)
* 부산시, 지방세 체납액이 1,676억원에 이르게 되어 10~11월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시보 9. 13)
* 부산시, 자치구 세무행정 체계적 개선(시보 9. 13)
* 부산시, 97년 지방세 목표액 산정지침 시달(시보 9. 13)
* '아시안위크 96'이 오전 10시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막(부산 9. 17)
*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영화가 상영된 수영만 요트경기장 야외특설 상영장에 5천여명의 관람객 참여(부산 9. 17)
* 부산시, '설계 변경심의 규정' 공표(시보 9. 20)
* 부산시, 시정 단신(시보 9. 20)
* 부산국제영화제 부대행사, 수영만 요트경기장서 한국영화사료전, 우리 영화 76년 발자취 한눈에(부산, 국제 9. 13)

* 시, 대형건설공사 시행시 설계변경, 설계변경심의규정, 시 훈령 제1135호로 발령(부산 9. 17)
* 시, 광안대로 공사기간 연장 불가피, 야간작업 금지 및 재원난으로 인해 1년 차질(국제 9. 13)
*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21일까지, 31개국 171편, 수영·7개 개봉관서 상영(국제 9. 13)
* 부산시, 경남도, 경마장 유치 줄다리기, 둔치도-진해 웅동 팽팽, 제2위천사태 우려(부산 9. 13)
* 국제영화제, 아시안위크 96 동시 개막(부산매일, 부산 9. 13)
* 부산경찰청, 무면허·음주 운전 여전 기승, 올 들어 3천여건 사고, 천4백여명 사망, 상당수는 면허취소 후 재범(부산매일 9. 13)
* 감사원, 해운대구청 특별 감사, 구의회 감사청구제 첫 시행(부산매일 9. 14)
* 아시안위크 96(~21)(부산시정 9. 13)

9. 16
* 부산시, 시정 단신(시보 9. 13)
* 부산해항청, 부산항 '컨' 물량 급감, 8월 처리물량 38만7백여개로 7월 7.1% 하락, 체선율은 늘어 작업 효율성 하락(국제 9. 16)
* 제39회 부산시 문화상 수상자 확정, 인문과학 김승찬, 자연과학 공재열, 문학부문 이해웅, 공연예술, 김온경, 전시예술 진병덕, 체육부문 장창희(부산, 국제 9. 17)
* 국립수산진흥원, 적조 부산연안 확산, 낙동강하구~기장 주의보, 양식장 보호에 어민들 비상(부산매일 9. 17)
*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입장권 예매 쇄도, 10만석 돌파(부산매일 9. 17)
* 시, 경마장, 부산·경남 공동입지, 금정구 가락·김해 경계지역 유력, 20일 전 매듭짓기로, 실무 협상 박차(부산매일 9. 17)
* 시, 기장지역 식수전용댐도 가시화, 황강 취소 재추진, 내년 예산에 379억원 반영(국제 9. 16)
* 부산상의 조사, 부산지역 11개 업종 44개 주요업체 대상, 제조업 추석자금난, 44곳 중 42곳 작년 수준이거나 악화, 휴무 기간은 업체 대부분 4일로 계획(부산매일 9. 17)
* 정부, 운영회 간사회의, 부산·경남 31곳 국감, 내달 1일부터 부산시 등 대상으로(부산 9. 17)

9. 17
* 부산시, 제39회 부산시문화상 8개부문 수상자를 확정·발표(시보 9. 20)
* 황령산살리기비상대책회의, 황령산 온천개발 국정감사 청원(부산 9. 17)
* 시, 6대 도시 분뇨수수료 비교, 부산 10리터당 2백원으로 전국 최고, 하반기 또 인상 계획, 수거업체 난립 등 불합리 구조 조정 급선무(부산 9. 17)
* 동래구의회, 소위구성 재해 위험지 점검 현황도 제작해 동래구청에 제출(국제 9. 17)
* 시, 경마장 공동유치 수용, 둔치도-김해입지 수정제의, 수변공원 등 조성, 마권세 수입 경남과 공동배분, 둔치도개발위 거부, 경남도 장소 반대(국제 9. 17)
* 부산상의, 3대 현안 이행하라, 선물거래소 설립, 청도 직항로 개설, 녹산분양가 인하(부산매일 9. 18)
* 시 종합건설본부, 문화재관리국에서 철새서식지 축소 조성키로, 당초 12만2천평에서 4만5천평으로 확정, 동쪽 2공구 시공사엔 삼성물산 등 공동 도급팀 선정(부산매일 9. 18)

9. 18
* 부산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유치문제 대한 부산시 대책을 따짐(시보 9. 20)
* 시, 주행세 내년 신설 추진, 부산시 정부에 건의, 휘발유·경유값에 포함(부산 9. 18)
* 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법개정 따라 시전역대상 전반적 수정(부산 9. 18)
* 시의회, 경마장 단독유치 촉구, 금명 결의문 채택 등 운동 본격화(부산매일, 국제 9. 18, 부산매일 9. 19)
* 시·일선구청 설문, 국제영화제 전체 30%이상 관람, '은행나무', '꽃잎' 등 가장 감명, 50~60%가 성공적 행사 평가(부산매일 9. 19)
* 시, 녹색도시 21선언 1주년 맞아 '96환경백서' 발간(부산매일 9. 19)
* 시, 공원·유원지 마스터플랜 수립, 국제행사 대비 시민 삶의 질 향상(부산 9. 20)
* 시, 해양공원 전면 재검토, 박물관·경찰서 건립논란, 수정 협의(국제 9. 20)
* 초등 영어 교과 교육 연구 세미나(교육대 콘서트 홀)(부산교육 9. 18)
* 노벨경제학 수상자 초청강연 Robert W. Fogel 박사 「인류의 진보와 경제성장」(부산교육 9. 18)

9. 19
* 부산시, '녹색도시 부산21' 선언 1주년을 맞아 환경보전통보대상 수상작품을 전시하고 기념식을 가짐(시보 9. 20)
* 부산시장, 중소기업현장 순회방문 간담회(시보 10. 4)
* 해양수산부, 말라카해협 오염방지 연안국 분담금 협상, 컨테이너장치장설영주협의회, 부두 밖 '컨' 장치장 이전 대책 요구, 양도세감면·용도변경 지원을(부산 9. 18)

* 해양수산부, 감천권 매립지 5만여평 대규모 수산물단지 조성, 2천년까지 총 3천2백억원 투입, 내년 냉동창고 3개 건설(부산매일 9. 20)
* 북구청, 미관 심의구역 대폭 확대, 색상 등 조화 쾌적경관 조성 도모(국제 9. 20)
* 부산경찰청, 미양사건 고문・조작수사 지휘책임 경찰간부 3명 징계, 남부경찰서 형사과 간부(부산매일 9. 20)
* 수영구청, 중국 금주구와 자매결연, 문화・체육 등 교류협력 추진(부산매일 9. 20)
* 강서구민, 둔치도 승마・경마 경기장 유치 촉구 결의대회 열어(부산 9. 20)
* 시 도시개발공사, 베트남 진출, 호지민시와 11월 투자양해각서 체결(부산 9. 20)
* 초・중・고 체육주임교사 초청 간담회 시민회관 소강당(부산교육 9. 19)

9. 20
* 부산시, 시정 동정(시보 9. 20)
* 부산시, 추석절 맞아 불우이웃돕기, 13,000여명에게 생필품 전달 위문(시보 10. 4)
* 부산시, 수온 18도 이하일 때까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보 10. 4)
* 부산시, 제14회 지역경제・활성화 헌신 근로자・기업인 대상으로 산업평화상 시상에 대해 후보자 추천(시보 10. 4)
* 부산시, 구・군에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구분 철저히 지시(시보 10. 4)
* 부산시, 추석연휴 물가안정・체불임금해소・교통소통・재해예방 등의 종합대책 마련(시보 10. 4)
* 부산시, '97 동아시아 경기대회' 종합계획안 상정(시보 10. 4)
* 부산시, 22일까지 청결운동기간을 정하고 아시안위크 및 국제영화제 행사장 주변을 청소・정비(부산 10. 4)
* 부산시, 10월 1일부터 생곡매립장 운영방법을 조정하여 시행, 호우주의보 때는 중단(시보 10. 4)
* 재정경제원,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 부산시 관련 국비지원 1조600억원(시보 10. 4)
* 동아시아대회 조직위원회, 제 5차 위원총회를 열고 각 단위 사업별 대회준비 추진방향을 심의・확정(시보 10. 4)
* 부산지역 구, 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직제개편 등 건의안 채택(부산매일 10. 1)
* 시,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 녹산 입주포기 119개사, 계약금 환불조치 후 71개사 절차 밟아, 16만7천평 여유부지로(부산 9. 20)
* 도시발전연구소, 고속전철 부산역사 건설계획 및 검토토론회, 부산진~부산역 건설방식 지상화, 시민강력 반발(부산 9. 21)
* 제1회 부산 트리엔날레 세부일정 확정, 내년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야외조각심포지엄, 5월 한 달간 본 행사, 집행위, 내달 초 사무국・조직위 발족(국제 9. 20)
* 환경부, 낙동강 맑은 물 공급 또 연기, 2급수 개선 97년서 2000년으로, 선수질 후 위천공단 사실상 포기(부산 9. 20)
*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종합계획안 확정, 내달부터 대회준비 박차, 국내외 홍보, 경기장 개보수 등(부산, 부산매일 9. 21)
* 부산시의회, 수영단지 출자비율 제시, 선경 40%이하, 부산시 30%이상(부산 9. 20, 부산매일 9. 22)
*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여대, 부산외국어대, 국제 전문가 공동양성, 전문 대학원 설치, 교육체제 협조(부산 9. 20, 부산매일 9. 21)
* 해양수산부, 감천항 아시아 최대 수산단지 건립 계획, 소요액 내년 예산서 제외, 시행 불투명(국제 9. 20)
* 국제 주최, 부산지역 독립운동 학술세미나(국제문화센터 4층 강당)(부산교육 9. 20)
* 급식 담당 영양사 김치 전시회(부산교육 9. 20)

9. 21
*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안위크 폐막(부산 9. 21, 부산매일 9. 22)
* 동래구, 주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매월 셋째 토요일마다, 민・형사 등 소송 관련 제반 민원 조언(부산 9. 13)
* 부산시교육청, 교육부 예산 7백억 추가지원 미뤄 신시가 등 학교 신설 차질, 노후시설 개・보수도 못해(부산매일 9. 22)
* 시장군수협, 기장 어민회관 내년 11월 착공(부산 9. 21)
*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호지민시 투자 구체화, 빈코이 지역 교량 도로건설 합의(국제 9. 23)
* YMCA회관 개관(부산시정 9. 21)

9. 22
* 동래구, 새미산에 구민의 숲 조성, 벤치 등 설치 휴식공간 마련키로(부산매일 9. 22)

9. 23
* 부산시,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개최, 시장 참석(시보 10. 4)
* 시, 중구청, PIFF광장 보존 추진, 노점상과 간담회 정비대책 논의(부산매일 9. 22)

* 동아대, 동아대-대구대 학술교류, 교환교수제 도입, 서로 학점인정(국제 9. 23)
* 국립수산진흥원, 적조 포항연안까지 확산, 기장앞바다 등 독성 농도 갈수록 높아져(부산매일 9. 24)
* 교육 전문직 신규 임용자 연수(부산교육 9. 23)
* 기동대 4개(1,2,5,6)중대와 전경대 4개(309,510,701,702)중대를 차장직속 직할대로 배속하고 지방청 주관부서 및 분장사무조정(지방청 훈령 75호)(경찰사 9. 23)

9. 24
* 연제구, 거제2지구 주거개선안 확정, 현지개량, 공동주택 병행, 사업비 4백40억 규모, 융자알선(부산매일 10. 1)
* 가덕만 민자유치 시설사업기본계획 확정, 연 460만 TEU처리, 사업자 일괄지정, 수의계약 가능 개발 활기, 12월 신청자 접수, 1~2월께 시행자 지정(부산 9. 24)
* 시청부지개발, 롯데에 낙찰, 아시안게임 전까지 호텔·컨벤션센터·수변공원 조성(국제 9. 24, 부산매일 9. 25)
* 시, 부산진역~부산역구간 설계변경 건의, 도심 고속철 고가화 해야, 정부안과 달라 논란 일 듯(부산 9. 25)

9. 25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고속철 부산 통합역사 설계 당선작 선정, ㈜종합건축사무소 건원-영국 니컬러스 그림쇼사, 5층 규모, 98년 착공(국제 9. 25)
* 부산상의, 200여곳 조사, 제조업 경기 전망조사, BSI 89 기록 수출·내수 모두 침체 예상, 4·4분기도 부진, 부산기업 대부분이 경영난, 신발·건설 등 업종과 관계없이 불황(부산매일 9. 26)
* 시,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운송·장려금 확대, 채소류 상장 지원 대책 마련(부산매일 9. 26)
* 시, 해운대하수처리장 수영단지 내 건설, 총 사업비 825억원 투입, 내년 착공(국제 9. 30)

9. 26
* 시, 가덕 배후도시 조성 정부지원서 제외, 신항만 특별법 보완건의(국제 9. 26)

9. 27
* 제2회 아태도시 서미트회의(시장참석, 중국 광주)(부산시정 9. 27)

9. 29
* 시, 경마장 공동유치 수정 제의, 둔치도 포함 규모 늘려, 경남과 58만평 건립안 협의(부산매일 9. 29)
* 시, 국정감사자료, 부산 오존 오염도 매년 심화, 8월말 평균 오존오염도 0.021ppm, 광복동 등 7곳 심각, 차량매련 등 영향(부산매일 9. 30)
* 시, 구청, 폐스티로폼 처리 골치, 중 수입 중단 등으로 업체 수거 기피, 부산 하루 8t의 양(부산매일 9. 30)
* 시, 지방세 체납액 사상 최고, 1천6백여원대, 악성 많아 회수도 어려워(부산매일 9. 30)
* 부산 도시개발공사, 내달 초 엄궁 택지 아파트 첫 분양, 2,900여세대, 부산 단일지역 중 최다 물량(부산매일 9. 30)

9. 30
* 부산진구청, 주차단속 5분예고제 폐지, 적발즉시 예인, 과태료, 10월 1일부터 실시(부산매일 10. 1)
* 부산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품 상설매장 설치, 30~50개 향토업체 선정, 이달내 입점 추진(부산매일 10. 1)
* 시, 금정구청, 개좌터널 내년 민자로 착공, 회동~철마, 접속도 99년까지 연차적 개설(부산 9. 30)
* 환경부 국정감사자료, 지하철, 지하역, 상가 먼지 오염 심각, 부산 서면 등 권고치 초과, 폐질환 유발(부산매일 10. 1)
* 생곡매립장 침출수 일부 또 유출, 생곡천 준설 후 오수방치, 주변위엄, 우수관서 흘러 인근 토양 등 크게 오염(부산매일, 국제 10. 1)

10. 1
* 부산시, 지하철 3호선, 미남로터리~반송구간 무산 위기, 건교부, 국고지원 불가, 재원 마련 막혀(부산매일 10. 1)
* 부산시, 생곡 쓰레기 반입시간 단축, 새벽 3시~오후 2시, 4시간 줄어(국제 9. 30)
* 사상구청, 사상공단 가건물 양성화, 내년부터 건축조례개정 추진중(국제 10. 1)
* 부산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대상은 곰탕집 할머니 강처녀씨(국제 10. 1)
* 강서구청, 둔치도 연료단지 사업 차질, 문화재관리국, 진입로개설 불가, 환경심의 요구(국제 10. 1)
* 국정감사, 녹산단지 분양가 인하 대책 추궁(시보 10. 1)
* 부산미문화원반환 범시민추진위원회, 폐쇄 부산 미문화원 즉각 시민에 반환 요구(시보 10. 1)
* 부산해항청, 자성대부두 민영화 무산, 2001년 재검토 바람직(시보 10. 1)
*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부산시정 10. 1)
*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331호)(부산교육 10. 1)
* 시민도서관 동래분관 폐관(부산교육 10. 1)
*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공포(제3332호)(부산교육 10. 1)
* 「부산광역시 학생 야영수련원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333호)(부산교육 10. 1)

10. 2
* 부산해항청, 부산항 준설작업 이달 중순 실시(부산 10. 2)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부산수출 추락 계속, 8월, 4억6천만불, 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전업종 감소세, 부진 장기화 될 듯(부산 10. 2)
* 부산해항청, 연합철강부두 연말 폐쇄, 하역비항, 노조실업 보상요구 큰 반발, 원양어선은 감천항부두 이용 예정(국제 10. 2)
*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강변 여과수 사업 본격화, 이달 중 업체 선정, 시범 생산, 50억원 사업비(국제 10. 2)
* 건설교통부, 경부선철도 부산~대구간 전철화 사업, 내년말 착공, 2001년 완공(부산, 국제 10. 2)
* 부산시의회, 57회 임시회 개회, 15일간의 회기(국제 10. 2)
* 부산지검특수부, 교통영향평가 소개, 거액 받고 통과 시킨 오윤표 교수 수뢰 구속, 심의통과 조건 2천8백만원, 건축주 용역기관 소개 사례비, 다른 심의위원 수뢰여부 수사(부산, 국제 10. 2)
* 부산시, 기장군, 3층 이상 건물 불가, 상수도 보급 때까지 허가 동결, 마찰 예상(국제 10. 2)
* 부산시 국감자료, 93년 이후 지방세 징수관련 비리 크게 증가, 부산시 공무원 4백14명 중징계(국제 10. 2)
*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3호선 구포역 지난다, 북구, 강서구 노선 기본계획안 대폭 변경, 종착역 서연정서 대저 하리마을 남쪽으로(부산 10. 2)
* 부산 고등법원, 9월부터 행정 소송 급증(45.4%증가), 부산, 경남, 개인면허, 조세관련이 절반(부산 10. 2)
* 부산세관, 러시아 어선, 총기류 밀반입 일당 적발, 기관장 등 2명 구속, 부산거주 동포에 권총 밀매, 폭력배 연계 대량 유통 가능성 수사(부산 10. 3)

10. 3
* 부산시 국정감사 자료, 유명무실 위원회 많다, 부산 67개, 60% 활동 미미, 통폐합 시책에도 불구 10개나 신설(부산 10. 3)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동삼동 매립지에 '컨' 야적장 허가, 영도구민 일제 반발, 교통체증 악화, 탁상 행정 분노, 17개 동 전주민 반대서명 운동(부산 10. 3)
* 부산시, 토지이용 계획안 확정, 동국제강부지 일대, 주거용지 50%미만으로 축소, 고층아파트 과밀 조성 강력 제한, 민간업체 수용여부 주목(부산 10. 3)
* 보수동 책방 골목 축제, 8~13일 개최, 쇠퇴 상권에 활력 기대, 고서전시, 책 무료교환 등 행사 다양(부산 10. 3)
* 구청, 동 세무업무 구청 이관 불편, 현행 위임 처리보다 비용, 시간 더 소요(부산매일 10. 4)

10. 4
* 부산시, 시정 동정(시보 10. 4)
* 부산시, 제19회 부산무대예술제가 11일 시민회관대강당과 소강당에서 개최(시보 10. 4)
* 부산시, '시정현장 확인' 시책을 시민위주로 운영(시보 10. 4)
* 부산시 총무과, 동사무소 민원차구에 국기판매대를 상설 설치, 국기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부산 10. 4)
* 부산시, 가덕도 신항만 민자건설 추진계획이 확정(시보 10. 4)
* 부산시,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협의제와 중간검사제를 실시(시보 10. 4)
* 부산시, 동아시아 경기대회에 맞춰 제2회 아시안위크 등 다양한 경축문화예술행사를 열기로 함(부산 10. 4)
* 제 1회 부산국제영화제·아시안위크 96 폐막(시보 10. 4)
* 부산시, 1일부터 생곡매립장 쓰레기반입시간 조정, 낙동강 조류경보제 시행(시보 10. 4)
* 부산시, '96 부산 자갈치 문화관광축제'가 7~13일 자갈치시장·광복로·남포로 일원에서 개최(부산 10. 4)
* 부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시보 10. 4)
* 부산시, 'SMART 부산 21' 계획이 시정개혁 시민통합 발전전략 등 3개 분야에 초점 맞춰 내년 6월까지 수립(시보 10. 4)
* 부산시, 지역 영세중소제조업체 생산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지역중기제품의 수의계약구매를 적극 추진(시보 10. 4)
* 부산시, 해운대 신시가지를 건설하여 상업용지 및 택지를 분양(시보 10. 4)
* 부산시, 제18주년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을 계기로 시민들이 강이나 산 등 16개소에서 자연보호운동을 벌이고 부대행사를 가짐(시보 10. 11)
* 부산시, '96 부산포축제' 행사계획 확정(시보 10. 11)
* 부산지검, 교통영향평가 추가비리 적발, 다른 심의위원 교수도 소개대가 혐의(국제 10. 4)
* 부산시 각 구청, 쓰레기 줄이기 안간힘(국제 10. 4)
*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간 5일 개관, 연건평 2천3백58평, 가야문화 한눈에(부산매일 10. 5, 국제 10. 4)
* 국감개최, 부산 자치경찰제 도입 용의, 내무위, 서울과 연대 교통법 개정 촉구해야, 통산위, 화력발전소 질소 산화물 방출 급증, 법사위, 검찰 권력시녀로 전락, 중립 방안, 문체공위, 국민체력 증진 위한 생활체육보험 제도 도입 제안(국제 10. 4)
* 부산시청 국회내무휘원회 국정감사,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선수촌과 아시아드테마공원 조성지역 이달 중 확정키로(부산매일 10. 5)

* 부산지검, 교통영향평가 추가비리 적발, 다른 심의위원 교수도 소개대가 혐의(국제 10. 4)
* 부산시 각 구청, 쓰레기 줄이기 안간힘(국제 10. 4)
* 국감개최, 부산 자치경찰제 도입 용의, 내무위, 서울과 연대 교통법 개정 촉구해야. 통산위, 화력발전소 질소산화물 방출 급증, 법사위, 검찰 권력시녀로 전락, 중립 방안, 문체공위, 국민체력 증진 위한 생활체육보험제도 도입 제안, 부산 고질병인 환경, 교통, 치안 추궁, 내무위, 위천문제와 아시아드 준비 따져, 농림해양위, 적조, 선상폭력 근본대책 요구(부산매일, 국제 10. 4)
* 부산시,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재건축, 2백42동 8촌5백61세대 재건축 사업, 내년 7월 사업착수, 2001년 완료예정(부산매일 10. 4)
* 부산교통공단, 지하철에 장애인 시설 설치, 98년까지 휠체어리프트 등 설치(부산매일 10. 4)
* 부산시, 수영로 개발 본격화, 상업지 도시설계 변경안 확정, 고도제한 규정 완전 삭제, 업무, 통신, 관광 등 중심지 발전 기대(부산매일 10. 4)
* 부산시, 부산포 축제 전야제(부산매일 10. 4)
*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부산시정 10. 4)

10. 5
* 부산시정, 5년만에 종합 감사, 감사원 25명 투입, 11일부터 2주간, 내달 중 자치구도 감사(부산매일 10. 5)
* 부산시, 제17회 부산시민의 날 기념, 96부산포축제 개막, 20일까지 행사 개최, 문정수 시장 등 1천7백여명 참석(부산매일 10. 5)
* 부산시 선수단, 제77회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 결단식, 1천4백47명 참가, 4위 목표(부산매일, 국제 10. 5)
* 제17회 부산시민의 날(부산시정 10. 5)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 개관(부산시정 10. 5)

10. 6
* 중구청, 96부산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전야제, 7일 개막해 13일까지(부산매일 10. 5)

10. 7
* 부산시, 사하구청 처분 취소 결정, 신평 소각장 심의 보류 위법(부산매일 10. 8)
* 검찰, 뇌물심의 교수 둘 또 적발, 교통평가 관련 최고액 수뢰, 배임 수재혐의, 출국금지 조치, 부경대 정창식 교수 등 사전 구속영장(부산매일 10. 7)
* 부산시, 교통평가 심의위 개선책 마련, 부시장을 위원장으로(부산매일 10. 7)
* 부산지검, 영성섬 유대표 등 3명 구속, 폐수방류 23곳 무더기 적발(국제 10. 7)
* 제77회 전국체전 참가(～13)(부산시정 10. 7)
* 자갈치문화광광축제(～13)(부산시정 10. 7)
* 부산 자갈치 문화 관광 축제 개막(부산교육 10. 7)

10. 8
* LG아파트 인근 주민, 시 항의 방문, 교통평가 재심요구(부산매일 10. 8)
* 부산지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뇌물비리사건, 뇌물 심의 두 교수 잠적, 평가 기관서 1억6천여만원 수뢰(국제, 부산매일 10. 8)
* 부산시의외, 수영단지 지분 수정안 확정, 선경 2% 축소, 지역업체 참여 높여, 11일 통과 예정, 내년 동시 착공(부산매일, 국제 10. 8)
* 부산시, 상수도사업 민영화 추진, 시설 민간 위탁, 운영관리 등 검토(국제 10. 8)
*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신평 소각장 심의보류 철회결정, 외벽 그래픽은 건축물 권장사항(부산매일 10. 8)
* 부산지방노동청, 종업원 건강검진 소극적, 부산, 경남사업장 작업환경 측정도 부실(부산매일 10. 9)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 김해공항 구내 음식점 등 위생위반 10곳 적발(부산매일 10. 9)
* 부산해항청, 가덕도신항만개발 민자유치시설 사업설명회 개최, 가덕 신항만 수주열기 후끈, 대기업 사업계획 마무리 단계 접수만 남아, 중견선사, 하역사 정부에 제도적 배려 요구, 기반시설 민간에 수의 계약, 가덕 신항만 연계 배후도시 개발, 민자사업 계획서 제외, 항만 조성 후 검토, 부산시 반발 예상(국제, 부산매일 10. 9)
* 중구청, 중부경찰서, 미문화원 앞 쇠말뚝 추가 철거, 진입로 등 19개, 내년 상반기 완전 제거(부산매일 10. 9)
*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 엄격화, 위원선정, 운영방법 개선키로(부산매일 10. 8)

10. 9
* 5백50돌 한글날 기념식 행사가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 김언주 교수 등에 감사장(부산 10. 9, 부산매일 10. 10)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선물거래소 설립작업, 증권사 등 53개사 참여의사(부산매일 10. 9, 부산매일 10. 10)
*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부산지역 종합 병・의원, 5년간 진료비 부당 청구, 의보환자 의약품 조작, 동아대병원 등 1백여 곳 적발(부산매일 10. 9)
* 낙동강 공동체 모임, 범시민운동 확산, 보고회 등 후속프로그램 마련, 경실련, 환경연합, 부산발전 시스템 등 참여(국제 10. 9)

* 동아대 진해에 제3캠퍼스, 6개 군대 이전 계획 확정, 47만평 규모(부산매일 10. 10)
* 부산시교육청, 부산 고입선말 고사 12월 10일 실시 확정(부산매일 10. 10)

10. 10
* 국회, 14개 상위 국감, 환경 평가 안 끝낸 채 가덕항 추진, 부산 에이즈 감연자 전국 25%, 대책 촉구부산마약 실태 날로 심각, 범죄 매년 10%증가, 전국의 20%, 항만관련 민간단체 임원 64% 해항청 출신(국제, 부산매일 10. 10)
* 보건복지부 국감자료, 부산 에이즈 감염자 급증, 전국 평균증가율 3배, 감염자는 현재 1백45명으로 전국의 25.4%(부산매일 10. 11)
* 수영정보단지 조속 추진 촉구, 부산교수 179명 연대서명(부산매일 10. 10)
* 국회 보건복지위, 부산 종합병원 약값 폭리, 부산대, 동아대, 메리놀 최고 30% 덤핑구입, 판매는 정상가, 올해 35억 부당 이득 환자 피해, 제중, 일신 등 8곳 법정진료과목 임의로 폐지(부산매일 10. 10)
*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부산시정 10. 10)

10. 11
* 시립박물관 복천분관 개관(시보 10. 11)
* 부산시, 시정 동정(시보 10. 11)
* 부산시, 총사업비 94억9천만원으로 구・군 쓰레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시보 10. 11)
* 부산시, 제77회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목표, 부산시장 등이 현지를 방문하여 격려(시보 10. 11)
* 부산시, 여성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시보 10. 11)
* 부산시, 자치행정 우수 구・군에 상 사업비 지원(시보 10. 11)
* 부산시, 쓰레기 종량제 분석 결과 봉투사용율은 정착단계이나 감량율은 저조(시보 10. 11)
* 부산시, 부산시의 도시기반건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설명회 개최(시보 10. 11)
* 부산시, 시정 단신(시보 10. 11)
* 부산시, 하관시와 자매결연 20주년 행사 개최(시보 10. 18)
* 부산 강서구청, 경남 김해시청, 서낙동강 행정협의회 발족, 규약마련, 이달말께 첫 회의키로(부산매일 10. 11)
* 부산시, 한국토지공사 부산지부, 각종 부담금 면제, 하수처리장 국고지원 등, 전국 공단 용지가격 평균 25% 까지 인하, 녹산은 3%선에 그칠 듯, 해안매립, 처음부터 부담금 면제(국제 10. 11)
* 부산 강서구청, 경남 김해시청, 서낙동강 행정협의회 발족, 규약마련, 이달말께 첫 회의키로(부산매일 10. 11)
* 감사원, 부산시 종합감사 시작, 감사원 16명 투입, 교통평가비리 등 조사(국제 10. 11)
* 부산시 문화예술과, 제15회 전국연극제 계획안 마련, 내년 5월 개최, 14개 극단 경연, 일본, 중국 등 3개국 초청 공연(국제 10. 11)
* 부산시, 한국토지공사 부산지부, 각종 부담금 면제, 하수처리장 국고지원 등, 전국 공단 용지가격 평균 25% 까지 인하, 녹산은 3%선에 그칠 듯, 해안매립, 처음부터 부담금 면제(국제 10. 11)
* 부산시의회, 수영정보단지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선경그룹에서 포기, 지분 45% 이하 수정안에 난색, 선경, 51%이상 보장한 시가 기본합의서 위배(부산매일, 부산, 국제 10. 12)
* 부산시, 61개 위원회 대폭 정비, 유사기능 통폐합, 위촉 1년 이상 위원 교체, 중복 금지(부산 10. 11)
* PIFF, 입장권 15만6천여장 판매(국제 10. 11)

영화상영 극장별 입장권 발급 현황

	총 좌석수	총 발급수
부산극장 1관	39,000	29,324
부산극장 2관	15,560	10,221
부산극장 3관	8,400	6,522
부영극장	44,800	37,285
제일극장	36,400	15,560
국도극장	37,800	7,870
아카데미극장	30,600	17,515
수영만야외상영장	36,000	32,319
합계	248,560	156,616

* 신평통합폐기물관리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신평소각장 시험가동 합의, 환경 영향 평가도 재실시키로(국제 10. 12)
* 건설교통부, 2001년까지 산업지원 국도 3백12km 닦는다, 2조2천억 투입, 부산~진해 등 26곳 확장(부산 10. 11, 부산매일 10. 12)

* 교육 박람회 부산 교육관 개관식(과학교육원)(부산교육 10. 11)
*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시상(부산교육 10. 11)

10. 12
* 부산시, 제17회 '흰 지방이의 날' 행사 개최(시보 10. 18)
* 부산시,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교수 및 판사로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민원조사(국제 10. 12)
* 낙동강환경관리청, 부산·서부 경남 산성비 심각, 지난 8월 신평 및 감전동 지역 산도 4.9%기록(부산 10. 12)
* 새경 홍티선박출입항신고소, 사하 홍티천 또 녹물 오염, 관할구청 속수무책 관리, 기계공단서 무단 방류 양식장 피해 우려(국제, 부산 10. 12)
* 부산동구청, 식당 음료수 대장균 득시글, 79%가 기준치의 최고 2백10배 초과(부산 10. 12)

10. 13
* 부산시 환경천, 낙동강 하류 오염 방관, 어패류 떼죽음 이어 최근 폐수 방류, 예산 인력 타령, 무대 책, 역학조사, 단속도 흐지부지(부산매일 10. 13)
* 부산시, 시교육청 결산심사 본격화, 예산 방만 운용 불용액 사상최대, 면밀 검토 없이 재정확보 급급, 민원 등 변수작용 사업 취소도(부산매일 10. 13)

10. 14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부산시와 교육청의 95년도 결산안을 심의(부산 10. 18)
* 부산시, '부산시 종합취업정보센터'를 시정종합민원실 내에 설치하여 운영(시보 10. 18)
* 부산시, 부산 공원관리사업소 업무 부실, 공사대금 과다지급, 하자보수 이행 안 해, 태종대, 어린이, 금강, 대청 공원 등 4곳(부산 10. 14)
* 부산시, 내년 재정난 봉착, 수세조 4천억, 증가율 사상 첫 한자리수, 환경, 복지예산 크게 줄 듯(부산 10. 14)
* 가덕도신항 건설 난항 예고, 촉진법안 민자유치 특례 조항 삭제, 수의계약, 무이자 융자 등 막혀(부산매일 10. 15)
* 한국토지공사장, 건설교통위원위 국정감사서 녹산공단 분양가 대폭 인하 가능성 밝혀, 평당 50만원 미만으로, 하수장 건설비 국고 지원 등 협의(부산매일 10. 15)
* 선경, 수영정보단지 불참고수, 부산시 설득에도 경영권 보장 계속 요구, 사업 원점화, 무산위기 고조, 시, 의회에 지분 재수정 요청 등 비상(부산매일, 부산 10. 15)

10. 15
* 부산시, 문현동 697일대 제2정비창부지에 조성하 종합금융단지의 토지조성공사 입찰을 오는 29일에 실시(시보 10. 18)
* 부산경남지역본주세관 국감자료, 작년 1억원 가량 추징, 환급 조치, 부산 세관, 관세 징수 업무 미숙(부산, 10. 15)
* 부산시도시개발공사, 문현동 금융단지 조성, 29일 입찰공고, 기매입 부지부터 공사(부산 10. 15)
* 13개 상임위 국감, 부산 비행학생 발생률 최고 1천명당 19명, 전국 평균의 배, 부산 경남 교육청 발주공사 담합 의혹, 경찰 대공 역량강화 시급(부산 10. 15)
* 명지쓰레기소각장 착공(부산시정 10. 15)

10. 16
* 부산시, 문정수 시장 주재로 교통혼잡관리 5개년 최종보고회를 갖고 중간선도로 관리조례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시보 10. 18)
* 부산시의회, 임시회 일정 마쳐, 시안 수용, 반목서 화해로, 건축조례, 지역구의식 한 기형처리 인정, 수영단지, 현안사업 조기추진 여론수렴, 수영정보단지는 여전히 미제, 정치권 재발 외풍 무소신 대응 비판(부산매일, 국제 10. 16)
*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수영정보단지 조성안 수정 통과, 선경도 사업 참여키로 선회, 실권 주 발기인 우선(부산 10. 16)
* 부산경찰수사과, 부산전문대학 공사 뇌물 수주 및 발주공사 빌미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국제 10. 16)
* 부산시립 예술단 처우 형평성 논란, 교향악단-기타단체 대우 달라 불만, 서울서 차등 철폐 계기, 기대감 높아(부산 10. 16)
* 건설교통부,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전철화 공사 내년 상반기까지 유보, 기본 실시 설계는 계속(부산 10. 16)
* 부산 경남 의원, 국감감사 활동, 미군 공여지 임대료 3천5백억 누락, 저수시설 56%가 노후 심각, 해양환경 오염지구 만들라(부산매일, 10. 17)
* 금정구 부곡4동 아파트 녹물수도 고통 심각, 부곡시영 등 상당수 붉은 물, 식수, 빨래 등 못해 주민 큰 불편, 값싼 아연백관 급수관이 주요원인(부산 10. 17)
* 부산시의회,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감천 수산시장 지원 확대 요청, 부지 2만6천여평 추가, 국고 2백75억 차질 없게(부산매일 10. 17)

* 부산지방경찰청, 저격용 총기 밀매단 적발, 독일제 모방, 폭력배 등 유출 수사, 5인 영장(부산매일 10. 17)

10. 17
* 부산시, 상업은행 부산은행 동남은행 예치한 자금은 8천29억원, 평균 이자율 4.98%에 이자소득 1백70억원, 예산 이자 손실 막대, 기간 잘못 상정, 중도해약, 만기 후도 그대로 나두는 등(부산 10. 17)
* 선경, 수영단지 참여 불가, 출자동의안, 부산시 합의내용과 위배(국제 10. 17)
* 전국의료보험연합회 국감결과, 부산 의료보험조합 경영 부실, 재정, 관리 등 5개 부문 전국 최하위(부산 10. 17)
* 국회, 12개 상임위원회 국감, 부산 중소기업 지원책 촉구, 기술 신보, 보증 업무 부실 추궁(부산 10. 17)
* 기장군, 부산시에 편입된 후 불만 고조, 도심권 연계 이유로 인・허가 유보, 개발 지연, 재산권 묶여 반발 심화(부산매일 10. 17)
* 부산시교육청, 초등학교에도 폭력 서클, 각급학교 은밀히 활동 94개 해체(부산매일 10. 18)
* 석대매립장, 침출수 비상, 지하수계 통해 주변수질 크게 오염, 1km이상 먼 곳까지 파급, 망간 등 중금속 다량 확인(부산, 부산매일 10. 18)
* 부산 종합건설본부, 신시가지 주변지역 15만평 방치, 해운대 미관훼손, 교통난 심화, 시・구청 재원확보 어려움으로 도로개설 외면, 좌동일대 슬럼화 우려(부산 10. 18)

10. 18
* 부산시, 시정 단신(시보 10. 18)
* 부산시, 시정 동정(시보 10. 18)
* 부산시, 시민여론 수렴에 적극적(시보 10. 18)
* 부산시,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개최(시보 10. 18)
* 부산시, '제1회 자갈치 문화관광축제'의 새 가능성 제시(시보 10. 18)
* 부산시, 자주재원 확충위한 경영행정 평가(시보 10. 18)
* 부산시 대중교통과, 개인택시면허 심사결과 열람・이의신청 접수(시보 10. 18)
* 부산시, 96 교통행정 추진실적을 오는 11월 1일까지 평가 실시(시보 10. 18)
* 부산시,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시보 10. 18)
* 부산시 가정복지과, 기존의 통근버스를 이용해 추가예산 없이 '복지버스 운영' 계획 마련(시보 10. 18)
* 부산시, 생활체육협의회와 '제7회 시민생활체육대회'를 20일에 개최(시보 10. 18)
* 부산시, 안전대책회의와 위험표지판 설치 및 교통관련 안전관리상태 등을 점검(시보 10. 18)
* 부산시, 중소 난립 조장, 과당경쟁, 도산 등 속출, 부작용 불구 해마다 허가 조건 완화(부산매일 10. 18)
* 부산시, 부산~거제 연륙교 건설 불투명, 국방부 "예비 항로 2개 필요", 현수교 시공 불가피, 4천억 추가 부담, 민자유치 사실상 곤란(부산 10. 18)
* 부산시, 부산해항청, 제2부산대교 제원 확정, 교각 간 폭 160m, 선박통항 높이 28m, 내년 상반기 착공, 2011년 완공 예정(국제 10. 18)
* 제17회 어머니 합창 발표회(시민회관 대강당)(부산교육 10. 18)

10. 19
* 부산시・일본 오이타현 여성교류회의(부산 10. 25)
* 부산시, 쓰레기 정책 추진 차질, 부산 기초단체, 자체 매립장 설치 뒷전(부산매일 10. 20)
* 부산시종합건설본부, 신호공단 조성 더 지연된다, 분양가 녹산 수준 낮추려 계획 변경, 빨라야 99년말께 완공, 비용부담도 증가(부산매일 10. 20)
* 부산 2공장 무산 위기, 삼성, 쌍용차 인수, 대구에 신공장 설립설, 녹산 2차 매립계획 원점, 지역발전 차질 우려(부산 10. 19)

10. 20
* 시민대책위원회, 환경한마당 행사 개최, 황령산 온천 철회 요구(부산 10. 21)
* 제14회 부산무용콩쿠르, 대상, 김영숙(23, 부산대졸), 한국무용 전통부문서 살풀이 열연(부산매일 10. 21)
* 부산 북구 만덕1동 남해고속도로 굴다리 밑, 대형 하수도관 파열, 극심한 악취 불구, 구청 하루종일 방치(국제 10. 21)
* 제7회 부산시민생활체육대회(부산시정 10. 20)

10. 21
* 부산시, '96 아시안위크' 결과 보고회(부산 10. 25)
* 북구청, 덕천공원, 송도, 새 문화 레저공간 개발, 덕천, 2백억 투입, 근린공원 조성, 송도, 내년부터 해양스포츠 유치(부산매일 10. 22)
* 부산시,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로 고가도로 공사 6개월째 중단, 병경 노선 미술관 진입로 등과 중복(국제 10. 21)
* 해양부, 재경원, 부산지방해항청 요청 97년도 예산 총액 삭감, 9백1억3천7백만원으로 축소 반영(부산매일 10. 21)

* 교육부, 23개 개혁 우수대학 선정, 재정지원키로(국제 10. 21)
* 북구 만덕동 만덕로 유조차 등 6중 추돌, 2명 숨지고 2명 중상 미남R~만덕2터널 4km 90분 걸려 출근 대란(국제, 부산 10. 21, 부산매일 10. 22)
* 부산항해청, 해양수산본부로부터 1억8천만원 예산 확보, 내년 남북형제도 사이 등대 2기 설치(부산 10. 21)
* 부산시 교육청, 초중고 교실 너무 어둡다, 48%가 기준 명도 미달, 사립교 더 열악, 시력 저하 주 원인(부산 10. 21)
*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이기대 심의 또 보류, 공원조성 수정안, 현장답사키로(부산 10. 22)
*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용두산공원, 동래사적 공원 조성계획 확정, 청소년 수련장과 문화회관 등 건립(국제 10. 22)
* 부산시, 96 아시안위크 행사결과 보고회, 개선방침 마련(국제 10. 22)
* 부산 상의, <부산지역의 유통업 실태> 조사, 부산유통업 덩치만 크다, 재래시장 전국 비중 최고 매출액 4%에 불과, 종합 소매업도 영세, 정보화 현대화 시급(국제 10. 21)

10. 22
* 부산시교육청,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34건, 일선학교 촌지관행 여전, 자정운동 불구, 학부모 진정 잇따라(부산매일 10. 23)
* 부산시, 동아시아경기대회 200일 전을 맞아 시민초청보고회 개최(부산 10. 22)
* 강서구청, 문화재관리국 오탁방지시설 등 조건 허가, 서낙동강 내년 4월부터 준설(부산 10. 22)
* 부산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영도대교와 구포교 정밀 안전진단, 노후회로 붕괴위험, 다음 달 용역 계약(부산 10. 22)
*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 결정, 연제구 거제동 인근으로 예상(국제 10. 22)
* 부산 YMCA 창립 50주년 기념식, 시장 참석, 실천으로 보여준 시민운동 반세기(부산 10. 22)
* 부산시, 수질검사 결과, 생곡지하수도 침출수 오염, 생활용수 기준 최고 34배나 초과, COD 205.7ppm(국제 10. 22)
* 부산 동구청, 수영동 주거개선사업 이달 착공, 7년 끌다 2천여평에 아파트 2개 동 건립(부산 10. 22)
* 교단 선진화 지원으로 초·중등학교에 실물 화상기보급(총5억9,783만원)(부산교육 10. 22)

10. 23
* 부산시, 각 구·군별로 광견병·돼지콜레라 예방 접종 실시(부산 10. 25)
* 부산시, 96 '부산사회지표' 조사를 11월 1일까지 실시, 시민생활수준 파악, 복지시책 자료에 참고(부산 10. 25)
* 부산시,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 지사단지 분양가 80만원선 예상, 시행권 토지공사로 넘겨, 연구, 학교용지 크게 축소, 지역업체 입주기피 우려(부산매일 10. 24)
* 부산시, 한국 토지공사 부산지사, 녹산 조성 늦어 입주 포기, 총 163개사 대 다수 첫째 이유로 꼽아, 토공, 중도금 납부금 연장방안 연말께 마련키로(부산 10. 23)
* 부산시, 해양수산부에 의견 제출, 신항만 건설 촉진법 보완 건의, 배후도시 규정 모호, 반쪽 기능 우려, 기반 조성 구체화 요청도(부산 10. 23)
* 기장지역 중소기업 파산 위기, 부산시 편입 후 공장설립허가 돌연 유보, 21개 업체, 100억대 피해(부산매일 10. 23)
* 해운대구 승당마을 재개발 마찰, 오늘 철거 강행, 철거반-세입자 극한 충돌, 강제 해산에 맞서 화염병 던져, 3명 부상, 인근 충렬로 등 체증 급증, 주민 가스통 준비, 부상자 우려(부산, 국제 10. 23)
* 부산시, 일선 구청, 부산지역 7개 구청이 외국도시 결연, 대상국 중국 집중, 성과 적어 전시성이라는 비난, 속빈 강정(부산 10. 23)
* 서부교육청 관내 중학교 음악 발표회(시민회관 대강당)(부산교육 10. 23)

10. 24
* 부산시, 제51회 유엔의 날을 맞아 유엔묘지에서 시장을 비롯한 5백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부산 10. 25)
* 부산시장, 제7회 주택행정교류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후쿠오카시 건축국장외 3명의 예방을 받고 환담(부산 10. 25)
* 부산시, 후쿠오카시와 주택행정교류회를 갖고 상호 정보교환과 공동현안에 대해 토론(부산 11. 1)
* 해운대구 우2동 승당마을 재개발지역 강제철거사태 농성자 29시간만에 자진 해산, 최악 사태 모면, 대치로 안해 24명 중경상, 23명 구속방침, 강제해산 맞서 화염병 저항, 인근 가건물 10여 채 불태워(부산매일, 부산 10. 24)

10. 25
* 부산시, 부산지역 11월부터 천연가스(LNG) 공급(부산 10. 25)
* 부산시 가정복지과,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600여세대에 1억2,008만원을 지원할 예정(부산 10. 25)

* 부산시・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교체자금 융자계획을 마련하여 신청접수 받음(부산 10. 25)
* 부산시, 11월 '복지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 개최(부산 10. 25)
* 부산시의회, 제58회 임시회를 10월 28일~11월 4일까지 개최(부산 10. 25)
* 부산시, 국제행사를 맞이하여 시내 일원도로와 공사장을 대상으로 11월 7일까지 일제정비(부산 10. 25)
* 부산시, 시정동정(부산 10. 25)
* 부산시, 서울에서 19개 사업 민자유치 설명회 개최(부산 10. 25)
* 부산시, 28~31일 간 불법공산품 특별유통단속, 백화점 등 중점 대상(부산 10. 25)
* 부산시, 서울서 민자유치 사업설명회 개최, 산성터널 축조 등 제시, 부산~거제 연결로, 부산랜드 건설 등, 계획 11건 포함 22건 대상(부산 10. 24)

10. 26
* 부산시, 시직원 자연보호 체육대회 개최(부산 11. 1)
* 해양수산부장관, 가덕도 신항만 건설 공기 최대한 단축, 항만운영초고속전산망 구축 등, 정부 기본방침 밝혀(부산매일 10. 27)
* 해운대신시가 전세값 폭락, 최근 두달새 30% 하락, 교통난 등 심해 입주 기피, 임대 쏟아져(부산매일 10. 27)
* 사하구청, 지하철 공사로 내달부터 반년간 극심한 교통체증 예고, 사하로 전면 통제, 주례동 4거리~모라1동 4km(부산매일 10. 27)
* 부산시, 교통불편신고 건수 총 1천1백53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말뿐, 요금인상 뒤 난폭운행, 시는 위반업체에 눈가림 처벌만(부산매일 10. 27)
* 부산시, 내년 투자재원 비상, 대형사업 산적 불구 가용규모 되레 감소, 올보다 천억 늘은 7천억 추산, 침체경기로 시세 증대 난감(부산매일, 10. 26)
* 부산 교통영향평가 깐깐, 뇌물사건 이후 6건 상정, 4건 부결, 위원 현장답사 후 재심의, 면모 일신, 2건 조건부 통과, 경찰청 교통과장도 사전(부산 10. 26)
* 구의회, 의정계 신설요구 물의, 구청, 1개계 없애야 가능, 위민 행정 역행, 공무원 증원 우선돼야 가능(부산 10. 26)

10. 27
* 동래구, 조선시대 동래부동헌에 대한 축소모형 충신당에 전시, 부속 건물 등 완벽 복원, 관광 상품화 계획(부산매일 10. 27)

10. 28
* 부산시의회,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개최, 저소득층 특별지원조례 등 심의(부산 11. 1)
* 부산시・한국도시가스협회, 낡은 아파트의 가스배관교체자금 융자계획 마련하여 신청접수 받음(부산 11. 1)
* 시, 설립준비위원회 사업설명회수영정보단지개발(주) 참여주주 출자 지분 확정, 내달 10일 정식 창립, 지역업체 목 30.1%, 부산은행 등 배정, 선경, 사실상 48% 확보(부산매일 10. 29)
* 문화재관리국, 일제지정 문화재 지위 박탈, 22건 격하, 명칭 변경 등 결정(부산매일 10. 29)
*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부산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등, 내년 4월 중순 52회 전국남녀대학육상경기대회 유치하기로(부산매일 10. 29)
*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낙동강 수계 연결 추진, 충주댐, 대청댐, 섬진강, 수로 97km 건설, 맑은 물 확보, 재정 및 인력부족, 현안연구에 한계(부산매일 10. 29)
* 부산공정거래사무소, 전세버스 담합 폭리조사, 요금협정 등 확인 시 처벌(부산매일 10. 29)
* 부산지역 일선구청, 식품안전 점검 형식적, 예산핑계 검사대상 저가위주로 축소(부산매일 10. 29)
* 96 충무훈련(~11. 1)(부산시정 10. 28)
* 중・고교생 외국어 말하기 대회(부산교육 10. 28)

10. 29
* 부산시, '시와 시민단체간의 관계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시보 11. 1)
* 부산시, 강서구 대마등섬, 제2을숙도 조성, 주변 자연환경 복원, 철새도래지로(국제 10. 30)
* 부산시의회, 버스공동배차제 추진, 재개발지역 임대주택 건립(국제 10. 30)
* 신한국당 부산출신 국회위원들, 약속 어기고 위천 저지 공약 역행, 시민 단체들 낙선운동 결의(부산매일 10. 29, 10. 30)
* 재경원, 부산 불황 위험수위 넘었다, 각종 지표 곤두박질, 특단 대책 마련 시급, 생산지수 90년 비 80%, 3분기 수출 18%감소, 고물가, 수출격감, 고실업(부산매일 10. 30)
* 부산지역 LNG교체 안전대책 구멍, 유관 기관, 시설 전환 실태 점검 않아(부산매일 10. 29)
* 부산상의, 부산지역중소기업 현황 분석 보고서 발표, 부산 중소기업 빈사상태, 조업상황 악화, 수출부진, 자금까지 달려(부산매일 10. 29)

* 자치구, 체납세 징수 특단, 고액대상자 출금 요청, 금융자산 조회, 직장인엔 봉급압류도(부산매일 10. 29)
* 부산시, 기장 신도시 좌광천 오염방지 시급, 하루 오폐수 5천여톤 여과 없이 방수(부산매일 10. 29)
* 부산시, 동부권 농산물 시장 첫 삽, 내달 반여동 4만5천평 부지, 99년 완공 계획(부산매일 10. 29)

10. 30 * 위천공단결사저지 부산시민 총궐기본주, 낙동강 살리기 계획 촉구(국제 10. 30)
* 한국노총 부산본부, 부산역 광장에서 1만명 집회, 금융노련 파업결의, 오는 2일 준법 투쟁, 노동법 개정 파문(부산매일 10. 30)
* 부산시, 재정공개, 내년부터 상하반기 2차례 의무화(국제 10. 30)
* 수영구청, 황령산 지하수 판매 강력 제재, 장군샘터 등 3곳 봉인 조치(국제 10. 30)
* 부산시, 12월 초부터 사하구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자연복원 사업 실시(국제 10. 30)
* 부산시, 2011년 부산 청사진 확정, 2도심, 6부도심, 2지구 체계, 가덕도, 수영정보 등 공식 반영, 도로율 22% 주택률 85.7%로, 인구 4백50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국제 10. 30)
* 건설교통부, 범아시아 횡단철도 부산에서 출발키로, 남북한 구간연결결의, ESCAP, 북한 포함, 42개 참석국 합의(부산매일 10. 31)
* 부산시, 9급 전산직 장애인 지방공무원 공채 시 필기합격 불구 대민봉사 애로 들어 면접 탈락(부산매일 10. 30)
* 부산시, 조례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시민이 시정 감사 청구, 공단, 공사 경영평가 대외 공개, 롯데월드 정밀 안전진단 실시(부산매일 10. 30)
* 수영구청, 쓰레기 감량 특단 작전, 음식점 등엔 봉투 고액화, 자율감소 유도, 행정부재 따른 책임전가, 업주 비난(부산매일 10. 30)
* 한국 토지공사, 물금 신도시 택지개발 늘려, 교동일대 야산 15만평 추가, 3백20만평 규모 조성 확정(부산매일 10. 31)
* 건설교통부 발표, 부산 땅값 꾸준한 상승세, 올평균 0.29%상승, 경남 0.78%인상, 창원 안민동 천국 3번째 기록(국제 10. 30)
* 경남도, 장유 유통단지 본격화, 경남도-롯데 조인식, 2002년 개점(국제 10. 30)
* 보건복지부, 부산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책 겉돈다, 각종 융자금 이율 높아 기피 대출 저조, 거택 보호자는 늘고 자활대상자 감소(국제 10. 30)
* 광역, 기초단체 마찰 표면화, 구군 쓰레기 허용량 초과 반입 중단, 구청, 발행량 급증 등 조치 준수 불가, 시, 자체처리 노력 없이 시 의존 반대(부산매일 10. 30)
* 부산시, 내년부터 상수도 22.5%, 하수도 34.9%로 상하수도료 대폭 올려, 여론 후렴 무시 시민 비난, 목욕료 등 연쇄 인상 우려, 공업용수는 업무용보다 66%인하(부산매일 10. 30)

부산시 상하수도 요금 조정내용

구분			현행	조정안	인상률
상수도료	가정용(t당)		249.8원	289.8원	16%
	업무용(t당)		390원	539.7원	35.3%
	욕탕용(1종)		989.1원	445.9원	16.4%
하수도료	일반용	월 10t 이하 기본요금	750원	1000원	33.3%
		월 11~30t 이하 기본요금	115원	155원	34.7%

* 동래교육청 중학생 우리가락 발표회(시민회관 대강당)(부산교육 10. 30)

10. 31 *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동아시아드 성화 184km 봉송, 경주 화랑교육원에서 점화해 부산 구덕주경기장까지(부산매일 11. 1)
* 부산시, 업계, 부산버스시내요금 서울과 동일 수준으로 인상, 총 천2백억 부채 엄살, 올 2차례 인상, 땅투기 등 수익금 전용 소문(부산매일 10. 31)
* 부산시, 추진 중인 60대 현안 및 건설사업 중 23개 계획 수정 불가피, 터미널 시외이전, 건교부 반대 따라 가능성 희박, 가덕도 종합개발, 문화재 걸려 배후 시 조정의문, 선물거래소유치, 기반산업 미비로 경쟁력 취약, 현안사업 시 돌파력에 달렸다, 부족재원 채울 다각방안 적극 개발(부산매일 10. 31)
* 통계청 부산사무서, 9월 산업생산지수 발표, 부산 경제 침체 가속, 전국대비 절반수준, 주력품 수출 부진 장기화, 조업률 바닥(부산매일 10. 31)

산업생산지수(96년 9월분은 잠정치임)

연월	전국	부산
90	100.0	100.0
95. 9	147.7	82.2
95. 10	157.9	87.6
95. 11	159.5	89.2
95. 12	160.4	86.4
96. 1	156.3	86.3
96. 2	146.5	79.3
96. 3	165.3	87.0
96. 4	164.8	89.4
96. 5	166.4	88.4
96. 6	256.1	83.5
96. 7	161.5	79.3
96. 8	158.4	80.9
96. 9	158.5	76.9

*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서, 화명주공 재건축 본격화, 구서, 세대 82%동의, 14개 건설사 군침, 화명, 4천여 가구 대상, 부산 최대 규모(부산매일 10. 31)
* 부산시의회, 새조례 확정, 교통영향평가 대상 확대, 백화점 예식장 등 기준 강화, 기장 2개 면 외 전지역 적용(부산매일 10. 31)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의 변화(건축연면적기준)

구분		개정전(도심외곽)		개정후(도시교통정비지역내)	
		법령	시조례	법령	시조례
예식장		1,000㎡이상	900㎡이상	2,500㎡이상	1,750㎡이상
판매시설	도소매시장	5,000㎡이상	4,500㎡이상	11,000㎡이상	7,700㎡이상
	백화점, 쇼핑센터	3,000㎡이상	2,700㎡이상	8,000㎡이상	5,600㎡이상

11. 1
* 부산시, 녹산국가공단과 신호공단, 명지주거단지를 연결하는 명지IC건설 본격 추진될 전망(부산 11. 1)
* 부산시, 시정 동정(부산 11. 1)
* 부산시, 올해 모범경로당에 프로그램운영 등 11개 분야로 평가 실시, 우수경로당 포상 예정(부산 11. 1)
* 부산시, '21세기 세계첨단 해양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부산 11. 1)
* 부산시 기업지원과, 96년도 중소기업 시설개체자금을 추가로 융자승인·추천하기로 함(부산 11. 1)
* 부산시, JCI 부산세계대회를 대비하여 7일까지 환경정비주간으로 지정(부산 11. 1)
* 부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운영 개선(부산 11. 1)
* 부산시 소방본부, 11월 '시민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각종 시범훈련 등 취약지 일제점검 실시(부산 11. 1)
* 부산시내버스, 현금승차시 횡포, 요금수급기 설치하지 않고 추가요금 요구, 요금수납기 설치 차량은 17%에 불과(부산매일 11. 1)
* 부산시, 부산청년회의소,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열릴 JCI 96부산 세계대회 앞두고 비상, 숙박, 주차난 등 해결 과제, 전통 문화, 관광지 개발도 문제로(부산매일 11. 1)
* 건설교통부, 오는 2002년까지 경부고속도로 부산~언양간 40.5km, 대구~경주간 54.0km 확장, 가덕~김해간 국가지원 지방도로 신설하기로(부산매일 11. 1)
* 부산시, 감사원 통보에 따라 사업추진 계약 관리 설계 시공준공처리 감리 감독사용허가 운영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3인에 대해 징계, 8명에게는 주의 조치하기로(부산매일 11. 1)
* 부산시, 「교통정책연구」, 부산 버스노선 불합리, 75% 지하철과 중복, 황금노선에 과밀, 시, 업자두둔, 변두리 주민 신설 요구 묵살(부산매일 11. 1)
* 부산시, 올해 32개 노선(4백65대) 변경, 일부 노선이 업자의 입김에 따른 것으로 지적, 운영원가 비해 요금 과다 인상도 문제(부산매일 11. 1)
* 부산구치소, 담배밀매 성행, 1개피에 최고 10만원까지 거래, 5명 금치조치(부산매일 11. 2)
* 부산시종합건설본부 및 부산교통공단, 신시가지 지하철공사 중단위기, 상업용지 안 팔려 사업비 충당 못해, 방치 땐 교통장애, 사고 우려, 2호선 완공 2000년에나 가능(부산매일 11. 2)

* 부산시, 국방부, 미국측, 하얄리아 이전 가시화, 실무협상, 기초작업 본격추진, 이군 시설 재물조사 착수, 옮길 후보지 현장답사 진행(부산매일 11. 2)
* 96 복지자원봉사자대회(부산시정 11. 1)

11. 2
* 부산시, 버스조합, 물가대책위원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400원 인상 결정(부산매일 11. 2)
* 부산시, 경마장 후보지 선정을 두고 둔치도 유지를 위한 막바지 로비, 마권세 감면과 수변공원형 건설계획 제시(부산매일 11. 2)
* 부산 북구청, 부산시 연합회 근로자 지역 주택조합과 자유건설(주)이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계획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 보류, 교통심의 결정 첫 불복(부산매일 11. 2)

11. 3
* 국회 법제 예산실, 부산의 항만분야와 지하철 건설 분야의 전체적인 총액 예산 증액 필요 지적, 야권의 편중배정 특혜 주장 설득력 잃어 GMP 대비 항만투자비중 0.14%(95년 기준)는 일본(0.35)이나 대만(0.31)에 비해 매우 저조함(부산매일 11. 3)

자료 해운항만청

단위(%)	구분	70	76	80	85	90	94	95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비중	GNP대비	0.26	0.33	0.21	0.13	0.12	0.12	0.14
	SOC투자대비	27.1	18.2	15.5	8.5	9.3	6.8	7.0

11. 4
* 부산시 환경보호과, 9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특별단속 지시(부산 11. 8)
* 부산시의회, 제5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승마장 유치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하고 폐회(부산 11. 8)
* 부산시 버스, 적자조작 의혹 증폭, 업체 년 수입금 시 추정액 보다 640억 적어, 현금 할증료 감안시 더 증가할 듯, 진상규명 위한 철저조사 시급(부산매일 11. 4)
* 검찰,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사업 무기한 지속하기로, 서울지검 60여명 소환 착수(부산매일 11. 4)
* 부산시, 민자사업 순항 예감, 대기업 문의, 방문 쇄도, 북항 횡단로, 명지대교 등 관심고조(부산매일 11. 4)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지회, 부산 소비자 알뜰하다, 값싼 재래시장 이용, 백화점 비선호 이유, 가격이 비싸다 61%, 교통불편 10%, 충동구매 우려 20%, 물건의 질이 떨어진다 3%, 기타 6%, 앞으로 쇼핑장소, 백화점-재래시장 5%, 재래시장 41%, 백화점 21%, 재래시장-백화점 9%, 기타 24%(부산매일 11. 4)

11. 5
* 부산시, 행정동 통・폐합 추진(부산 11. 15)
* 동명 사이버 유니버시티, 첫 사이버 대학 부산서 출범, 학사일정 및 수업 온라인 진행, 주부 등 일반인에 개방, 심사 거쳐 정식학위도 수여(부산매일 11. 5)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감사원 감사 요청, 양산~구포 고속도, 물금신도시 조성 지반공사 부실 의혹, 외국 공법 변칙 시공, 침하 등 우려(부산매일 11. 5)
*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 담화문 발표, 시내버스요금 2년간 동결, 시민 참여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시, 실태조사 후 요금 인하하기로(부산매일 11. 5)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표, 97학년도 대입시 요강, 입시일 편중, 부산지역 14개 대학 중 13개 대학의 입시일이 '가', '나'군에 각 8개, 6개교로 집중, 부산지역 입시생과 학부모들 응시기회 줄었다고 반발(부산매일 11. 5)

11. 6
* 부산시, 주차관리공단 이사장 면직, 공단, 공사 121명 인사조치, 조직정비, 책임경영제 도입 등 경영 쇄신책 확정(부산매일 11. 6)
* 부산지검, 광안대로 비리 20명 수사, 4개 공구 공사관련 회계장부 압수, 건설, 감리사관계자 철야조사, 부실시공, 뇌물거래 집중 추구, 공무원-업체결탁, 불법 하 도급 등(부산매일 11. 6)
* 수영 정보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선경그룹 참여사실 확정, 경영권 확보 전제 법인설립, 기본설계 자체부담 선착수, 여론 향배 관건(부산매일 11. 6)
* 부산시 일선구청, 도로 공원 등 관내 대형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건설교통부 부산시 등 상급기관의 인계방침에 관해 마찰, 유지관리 요청에 예산 없다 반발, 도로 등 관리 파행 우려(부산매일 11. 6)
* 영도구, 영세민에 담장벽화 강요 말썽, 경비 등 건물주 부담, 거센 반발(부산매일 11. 7)
* 한국토지공사부 부산지사 부산시 강서구청, 녹산공단 입주 해양 밀물, 700여 업체 중 취소 200곳 이상, 부지조성 지연이 주요인, 사업계획 차질로 기업들 피해(부산매일 11. 7)
* 제4회 부산국제신발피혁 전시회(~9, 무역전시관)(부산시정 11. 6)
* 고교생 예능 발표회(시민회관 대강당)(부산교육 11. 6)

11. 7 * 부산시의회, 선경그룹 수영단지 참여 수용, 경영권 확보책 조건, 12월 법인 발족, 선경주식회사 발족 합의(부산매일 11. 7)
* 부산시, 강서구청, 을숙도 매립 묵인 의혹, 인해건업, 주민 580명 동의서 받아 이미 공증, 강서구청측은 지역발전 개발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부산매일 11. 7)
* 부산지검, 광안대로 뇌물 수수 포착, 관련 공무원 소환 상납 고리 수사(부산매일 11. 7)
* 부산시, 부산지역 대형 사업장 교통심의 어기고 배짱시공, 건설교통부서 적발, 신호공단, 6백대 주차장 미반영, 주경기장, 고가로 설치 조건 위배, 동부터미널 동측 도로 차선 축소(부산매일 11. 7)
* 부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부산-거제 연륙교, 북항 횡단교, 재경원 심의 거쳐 12월 고시, 2001년 완공 목표(부산매일 11. 8)
*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95년도 대기오염배출량 자료집 발간, 부산시 차량 대기오염 전국 최고, 경남은 오염물 총 배출량 서 1위, 전체적으로 90년 이후 감소세(부산매일 11. 8)
* 부산시, 현 시청사 부지 주변 공유 수면 8천평 매립 친수공간 조성, 해안선 1.3km 도로 개설, 해항청 승인나면 내년부터 본격 추진, 97년 완공 예정(부산매일 11. 8)

11. 8 * 부산시, 월동기 석유수급 대책 마련, 유류비축량과 유조차를 대폭 확대하기로 함(부산 11. 8)
* 부산시 기업지원과, 부산·경남 중소기업 채용 박람회 개최(부산 11. 8)
* 부산시, '공동주택 구조변경처리 세부시행지침' 마련(부산 11. 8)
* 부산시, 내년부터 무의탁 노인지원 강화(부산 11. 8)
* 부산시, 구청과 경찰서·수용시설 간의 협조로 기·미아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조치하고 적법절차에 의거하여 수용시설에 입소조치토록 당부(부산 11. 8)
* 부산시, 장애인 복지기금 20억 조성, 내년부터 저소득 주민지원조례 제정(부산 11. 8)
* 부산시, 시정 동정(부산 11. 8)
* 부산시, JCI(국제청년회의소) 부산에서 개막(부산 11. 8)
* 부산시, 소년소녀가장 종합지원책 마련, 생필품·학원비·교통비 등을 지원(부산 11. 8)
* 부산시, '96 동아시아도시회의 시장회의'가 개최(부산 11. 8)
* 부산시·국방부,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노선 변경문제를 타결하고 내년말 배후도로 준공에 착수할 예정(부산 11. 8)
* 부산시 위생과, 우수업소 지정 및 명칭일원화 단행(부산 11. 8)
* 부산동아시아대회 조직위원회, (주)제일기획과 동아시안게임 개·폐회식 행사의 대행 협약 체결(부산 11. 15)
* 부산시, 북항횡단교 등 민자유치계획 확정(부산 11. 15)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사업소, 수돗물 안전·우수성 인식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부산 11. 29)
* 부산전문대 장백기 교수, 부산건축문화 정립 시급, 외국기술 신자재 도입으로 전통과 단절, 서면로타리 부산탑 등 근대건물 철거 아쉬움(부산매일 11. 8)
* 부산지검, 광안대로 시공사서 수천만원 수뢰, 건설안전본부장 등 셋 수배, 매달 떡값 명목 정기상납 받아, 현장감독 등 하위직도 돈 수수(부산매일 11. 8)
* 부산시, 오는 18일부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분리수거 미이행, 젖은 쓰레기, 지정폐기물 등 하자 있는 쓰레기, 행공매립장 반입 전면 금지, 수분제거 논란 예상(부산매일 11. 8)
* 김해시, 강서구청, 부마고속도 요금소 이전 진통, 행정협의 삐그덕, 지역 이해 첨예 대립, 행정구역 조정 때 공유재산 등 마무리 안 돼 문제(부산매일 11. 8)
* 부산시, 시청 주변 해안과 남포동 자갈치 시장 및 건어물 시장, 주변 물양장을 매립, PIFF광장과 연계한 남항 해안우회도로 만들기로, 시청 앞바다 8천2백평 매립, 새 풍물 거리로, 내년~2001년까지 200억원 투입(부산매일 11. 8)
* 시민단체, 부산시의 현행버스 요금 조사 방식에 크게 반발, 부산시 버스조합 제출서류 및 생산성 본부 용역만 조사, 실사반 구성도 난항(부산매일 11. 8)
* 부산경찰청, 퇴폐 제비방 무더기 적발, 30대 남자 고용 신종 호스트바 업주 4명 영장(부산매일 11. 8)
* 부산지검, 광안대로건설사업비리 조사, 건설안전본부장 등 3명 3개 회사에서 상납, 신병확보, 수사확대(부산매일 11. 8)
* 정부, 위천공단 사실상 확정, 국토개발연구원 보고서 곧 제출, 2001년까지 낙동강 2급수 개선(부산매일 11. 8)
* JCI 세계대회 공식일정 돌입, 120개국 1만5천여명 참가, 10일 개막식, 오는 15일까지 개최(부산매일 11. 8)

* 녹산공단 해약사태 갈수록 증촉, 지반침하 계속, 내년말에나 입주가능, 회생불능 되기 전 업체 지원 특단 필요(부산매일 11. 8)
* 부산시, 18일부터 생곡 쓰레기 반입 제한, 분리수거 위반, 물기 있을 때 제제(부산매일 11. 9)
* 부산시 교육청, 자체감사 착수, 파행 물의 고3 직업 교육, 위탁 학원 구비시설 점검, 공무원 묵인 여부도 조사(부산매일 11. 8)
* 문화체육부 한국마사회 등 관계 기관, 부산-경남지역 경마장 후보지에 대한 조사결과 작성, 경마장 선정 내달로 연기, 정부, 부산-경남 절충 종용, 상황 따라서 정치적 결정키로(부산매일 11. 9)
* JCI부산세계대회(~15)(부산시정 11. 8)
* 동부교육청 중학생 종합 학예 발표회(부산교육 11. 8)

11. 9
*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신호공단 2공구 조성 차질, 토사 공급 안 돼 지연, 화전 체육공원 활용 건교부서 제동(부산매일 11. 9)

11. 10
* 부산시교육청, 개혁안 내년부터 시행, 도심-농어촌간 이동수업 도입, 초등학교 시험 폐지, 부모동반 여행 시 결석처리 않기로(부산매일 11. 10)

11. 11
* 부산해항청, 부산 북항 대대적 준설, '컨' 선박 대형화 맞춰 내년 하반기부터, 주항로 수심 13m에서 15m로(부산매일 11. 11)
* 부산시, 내년 예산 16.4% 증가, 일반회계 1조7천8백24억원, 특별회계 1조8천1백억원 등 총 3조5천9백24억원 규모 시의회 제출(부산매일 11. 11)
* 부산시, 북항 민영화계획 반대, 친수공간 개발 차질, 해양부에 재고요청(부산매일 11. 11)
* 부산시, 부산역 진입구간의 지하화 건의, 한국고속철도공단 측 지상화 강행, 역세권 개발사업 등 큰 차질(부산매일 11. 11)
* 부산 사하구청, 청소년 국제문화센터 건립, 2000년 완공 예정, 다대동 8천5백여평(부산매일 11. 12)
* 부산시, 금정구청, 영락공원 납골당 증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전국 최초 합동 묘도 마련, 총 86억원 들여 내년말까지 완공, 금정구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회의자체 무산(부산매일 11. 12)
* 부산시, 지사 과학단지 본격 추진, 사업주체 토지공사로 전환, 내년 하반기 중 보상 끝내고 곧바로 착공(부산매일 11. 12)
* 부산시, 동향보고, 위천국가공단 조성면적 당초 304만평에서 178만평으로 축소, 낙동강 수질 개선도 병행, 정부, 내달 최종 확정 방침, 시, 시의회, 경남과 연계 강력 대응키로(부산매일 11. 12)
* 부산시, 동아시아대회 및 부산 아시안게임 시 보조금 20억원 삭감 결정, 9~14일 예결위 계수 조정, 개최에 차질, 동아시아대회 경비 축소 불가피(부산매일 11. 14)

11. 12
* 사하구 녹산, 신호 등 낙동강 하류 대형 사업, 지반침하 종합대책 시급(부산매일 11. 11)
* 건설교통부, 국제대회지원 차원에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선, 경기장 9곳 제한구역 내 허용(부산매일 11. 12)
* 부산시, 부산연료공업협동조합, 둔치도 연료단지 이달 착공, 문화재관리국 조건부 허가 결정, 2년 뒤 완공, 경마장 연계 개발론 팽배, 추진 걸림돌(부산매일 11. 12)
* 부산시, 체육회 보조금 내년도 25억원 선 증액, 시의회 상정, 올 연말 최종 확정(부산매일 11. 12)
* 부산시, 차기매립장 공개모집방안 최종 확정, 차기매립장지역 150억 지원, 운영관리에 주민대표 참여키로, 2개월간 후보지 공모(부산매일 11. 12)
* 중구청, 공영주차빌딩건립, 2년만에 백지화, 땅값 비싸 수익성 없다며 도시계획 해제,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 탁상행정 비난(부산매일 11. 12)
* 북구청, 화명 소각장 금정산자락 재추진, 금곡동 야산 등 후보지 5곳 선정, 민원 의식 환경 뒷전(부산매일 11. 13)
* JCI 환경선언문 채택, 전세계 회원 결의 담아 정부에 제출(부산매일 11. 13)
* 건설교통부, 그린벨트에 아시아경기장 허용, 강서, 금정, 북구, 기장군에 9개 건립,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부산매일 11. 13)
* 동래구청, 전자공고 관통도로 지하화 결정, 학교측 요구안 전면 수용(부산매일 11. 18)

11. 13
* 부산시, 선경그룹, 수영정보단지개발(주) 설립준비위원회 내달 11일 발족, 지역업체 지분 30.1%, 15일부터 발기인 모집부산업체 대상 자본금 18억원 모집(부산매일 11. 13)
* 부산시민단체, 부산시, 시의회, 위천공단조성 강행 저지 총궐기, 장외집회, 상경투쟁 등 초 강경 대응(부산매일 11. 13)

11. 14 * 부산시장, 부산지역 11개 주요기관장들과 함께 신평·장림공단을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가짐(부산 11. 22)
* 2002 부산아시안게임 홍보용 광고물량 확정, 광고사업 활성화 전망, 야립 9, 옥상 6개(부산매일 11. 14)
*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문화재관리위원회, 신호공단 건립 승인, 철새 인공서식지 4만5천7백42평과 교환하기로(부산매일 11. 14)
* 위천공단조성반대를 위한 경남지역비상대책위원회, 경남, 도의회 연석회의, 결사 저지(부산매일 11. 15)

11. 15 * 부산시 환경보호과, 내년 2월말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태와 대기환경 보전법이 정한 제반사항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부산 11. 15)
* 부산시장, 제2기 여성정책자문위원 선정에 따른 첫 회의 개최(부산 11. 15)
* 부산시, 11월 한달간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안전점검 실시(부산 11. 15)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절기 동파로 인한 급수 중단에 대비하여 배수·급수관 점검 등 대책마련(부산 11. 15)
* 부산시, 제3회 부산자원봉사축제 참가단체 중 24개 팀을 선정하여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에 시상식 예정(부산 11. 15)
* 부산시, 물가종합대책상황실 운영(부산 11. 15)
* 부산시, 영화관 등급이행 행정지도를 당부(부산 11. 15)
* 부산시, 겨울철 해난사고 방지대책 수립(부산 11. 15)
* 부산시, 시정 단신(부산 11. 15)
* 제41차 JCI 부산대회 폐막(부산 11. 29)
* 부산시, 매각 때 등기촉탁 대행, 국유재산 담당자업무 연찬회 발표결과 우수사례를 구·군에 통보하고 자체 실정에 맞게 확대·발전(부산 11. 29)
* 해양수산부, 감천항 준설토투기장 일부 및 추가 매립지에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계획 불가, 시, 불복, 계속 추진키로(부산매일 11. 15)
*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부산아시안게임 보고경기장 용역 계약 체결, 금정 제1경기장, 강서 제2경기장, 기장 제3경기장, 내년말 착공(부산매일 11. 15)
* 부산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금리 연 11.5%, 부산시가 3% 부담, 기업부담 8.5%, 제주보다 2.5% 높아, 업체 경쟁력 강화 결정적 걸림돌(부산매일 11. 15)
* 우암 2단계 부두 개장, 2만톤급 등 3개 선석, 연 36만TEN(부산매일 11. 15)
* 부산시 문화재관리국, 금정산성 남문, 제3망루 해체 복원, 4억원 들여 내년 7월 착공(부산매일 11. 15)
* 부산시, 지하철 공사를 위한 사상로 일대 교통 통제 20일 부터로 연기, 주민홍보 미흡 판단(부산매일 11. 15)
*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부산의료원 부실 운영, 예산낭비, 공사비 과다 계상 등 탈법, 적자 불구하고 조직, 인력 확충(부산매일 11. 15)
* 해운대구 우2동 지하철 공사장 화재, 고압선 불타 4천여세대 정전(부산매일 11. 16)

11. 16 * 부산시, 용두산공원 지하공원 개발, 소극장, 아이스링크 등 조성 추진, 민간투자자 공모, 내년 5월 착공(부산매일 11. 16)
* 부산화력발전소, 석탄재 수천톤 불법 매립, 을숙도 부근 철새도래지, 강서구청 허가, 수자원공사 뒤늦게 중단 조치, 잿물 유출(부산매일 11. 16)
* 부산시, 거제로 1천7백m 구간 확장사업 내년에 마무리키로, 잔여구간 4백60m에 예산 집중 투자, 3백억원 소요, 15년간의 병목현상 말끔히 해소(부산매일 11. 16)
* 시의회 의장단,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와 면담, 위천 수질 재확인, 청와대 건교부 등 공단 불가 강력 전달키로, 낙동강 98년까지 2급수로 개선(부산매일 11. 16)
* 부산시의회 대표단, 위천문제로 상경 투쟁, 당정, 공단지정 결정 된 바 없다 해명(부산매일 11. 18)

11. 17 * 신한국당, 지자체 국감범위 축소, 제도개선 특위서 야당과 협의, 기관위임 사무로 제한, 로비스트 도입, 장기과제 선정(부산매일 11. 18)

11. 18 * 부산시, 내년도 예산에 제2부산대교 건설비 2백억원 반영, 영도구간 접속도로개설, 해상교 교각 기초공사 착공키로(부산매일 11. 18)
* 생곡매립장, 젖은 쓰레기 단속 첫날, 물기제거 큰 혼란 없었다, 위반 청소차 3대, 이틀 반입정지, 11대 경고(부산매일 11. 18)
* 부산시, 부산항 민영화 사업에 적극 참여, 북항 친수공간 개발 참여의사 적극 표명, 해항청, 부산시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부산매일 11. 18)

* 부산시 행정감사, 공무원 6백77명 처벌, 업무 부당 등 이유, 훈계 이상 조치(부산매일 11. 18)
* 해양수산부, 감천수산물도매시장 부지할애 전면 재검토, 거부입장 철회(부산매일 11. 19)

11. 19
* 건설교통부, 토지거래 허가지역 일부 해제권, 시도지사에도 허용(부산매일 11. 19)
*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기자회견, 낙동강유역 관리안, 위천공단 저지 연대투쟁 입장 밝혀(부산매일 11. 19)
* 부산시, 해운대 신시가지 5년만에 1단계 준공, 27만평 1만5천세대 재산권 가능(부산매일 11. 19)
* 부산시, 공무원 5급승진 시험제 확정, 심사제 실시 때 파행인사 우려(부산매일 11. 19)
* 부산시, 재정경제원과 마찰, 동해남부선 건설 부담액 2.5배 요구(부산매일 11. 19)
* 위천문제 경남항의단 30명, 오늘부터 상경투쟁 돌입(부산매일 11. 19)
* 부산시 용역회사, 가덕신항 배후로 교통량 1백60만대, 서부산항 연계 간선망 확충 필요, 지하철 1호선 종착역 연장 검토 시도(부산매일 11. 19)
* 철도청,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사업 진통, 기장 석산마을 주민, 일방적인 선형변경에 큰 반발(부산매일 11. 19)
* 부산시, 차관도입사업 선정 고심, 수영정보단지, 부산~거제 연륙교, 북상 횡단로 등 3곳 검토(부산매일 11. 19)
* 시의회 감사, 부산 에이즈 전국 감연자의 1/4, 백45명 중 50명은 관리 허술(부산매일 11. 19)
* 부산시, 시체육회, 부산 체육회관 건립 가시화, 2000년 전국체전 이전까지 완공할 방침, 70억원 예산(부산매일 11. 20)
*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동아대회기간 차량 홀짝 운행 제시, 선수차량 선도, 버스노선 조정 등도 계획(부산매일 11. 20)
* 부산시, 부산지방경찰청, 버스전용차로 득보다 실, 불법운행 기승, 단속 실종, 교통흐름 차단, 혼잡 가중(부산매일 11. 20)
* 감사원, 단체장 섭외성 경비 특감, 부산 북구 등 30곳 불요불급 조사(부산매일 11. 20)

11. 20
* 부산시, 96 하반기 항만행정협의회 개최(부산 11. 15)
* 부산시 대중교통과, 주례사거리에서 구포방면 시내버스가 운행 변경(부산 11. 22)
* 부산시의회, 제5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의 시정방향 제시(부산 11. 22)
* 부산시, 제2차 부산지방 해운항만청과 99 하반기 항만행정협의회를 가짐(부산 11. 22)
* 부산시장, 제5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의 시정을 평가(부산 11. 22)
* 문현고가로 차선 통제, 오는 22일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부산매일 11. 20)
* 건설교통부, 부산지하철 3호선 턴키공사 발주, 지사공단 포함 전국 64건 확정(부산매일 11. 20)
* 부산교통공단,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비해 지하철 3호선 정류장 증설계획, 구포역 앞 등 3곳 신설(부산 11. 21)
* 위천공단저지 부산시민 총궐기대회본부, 위천공단 조성 만대하는 대형우편물, 폐수보내기 행사, 가두방송 나서, 시민 본격 투쟁(국제 11. 20)
* 부산시, 한국토지공사. 지사단지 33만평 축소, 사업변경 협약 체결(부산매일 11. 20)
* 부산시의회, 제59회 정기회 개회, 39일간 의사일정(부산매일 11. 20)
* 한국토지공사, 도화종합기술공사, 녹산공단 침하 심각, 예상치보다 55cm 초과 전망, 추가 매립 불가피, 입주시기 1년 이상 지연, 분양업체 해약 가속 우려, 공사비 5백억원 더 소요(부산매일 11. 20)
* 부산시의회 문화환경위, 부산 생활환경 심각, 소음, 분진 기준치 훨씬 초과(부산매일 11. 20)
* 부산해항청, 연안여객터미널 친수공간 조성 확정, 신축건물 중심 세관 부산대교쪽 660㎡, 낚시터, 휴게공간, 문화광장 등 들어설 예정(부산매일 11. 20)
* 부산시, 부산해항청, 항만관련사업 모두 타결, 시청주변 공유수면 매립 등 원안 수용(국제 11. 21)
* 감사원, 북구, 기장 단체장 선심 예산 감사, 12월 3일까지(국제 11. 21)
*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 녹산국가산업단지 공단지원시설용지 8만3천여평 본격 분양, 28~29일 입찰, 분양신청 내달 5일 확정(부산매일 11. 21)
* 시장 시정연설, 녹산공단 215만평 추가 매립, 회동수원지 1급수 개선, 가덕 신항 내년에 착공계획 밝혀(부산매일 11. 21)
* 부산시의회, 정기회 개회, 29일 일정, 부산시와 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착수(국제 11. 20)
* 부산시, 올해 예산 중 6,000여억 미집행, 총 예산 중 20% 이월, 효율적 운용에 허점(국제 11. 20)
* 부산해항청, 부산시, 감천항 하수처리 비상, 하루 5만톤 쏟아내 해안 오염 부채질, 하수관로 설치 공사 2000에 완공 예정(국제 11. 20)

* 부산시, 내년 도시정비계획 마련, 7개 저밀도 아파트 지구, 순차적으로 아파트 지구 해제하거나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하기로, 1만8천7백세대 대상(국제 11. 20)
* 강서구청, 국도 2호선 확장 8차로가 타당하다는 입장 밝혀, "신호공단, 신항만 고려 6차로 좁아"(부산 11. 20)
* 영도구청, 제1 부산대교 보상금 마찰 심각, 내년 착공 차질 우려, 수령율 24% 불과, 구청에선 재결신청 방침(부산 11. 20)

11. 21
* 부산시, 11월 중 '시민과 시민과의 대화의 날'이 시장접견실에서 운영(부산 11. 29)
* 부산시, 토지공사와 지사과학산업단지 사업시행 합의협약을 체결하고 총 100만평에 이르는 지사과학단지 조성사업에 착수(부산 11. 22)
* 부산시, 부산시 입안 2011년 도시기본계획 대폭수정 불가피, 가덕항 배후, 녹산 추가 매립 등,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서 상충(부산매일 11. 22)
* 부산고등법원, 한국전력공사가 부산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구청의 건립반려 처분은 위법, 민원보다 공익이 우선(부산 11. 22)
*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베트남 호치민시 SOC투자 추진, 도개공 98년 베트남 진출, 시공업체는 대우건설(부산매일 11. 22)
* 부산 취업난 '고질화' 실업률 전국최고 실업자 5만6천명(부산매일, 부산 11. 22)
* 부산시, 2/4분기 주요업무 계획 심사평가보고서, 부산 6개 사업 지지부진, 문화 공원, 장애인 체육센터, 송정~기장간 송수관 부설, 중앙하수처리장 건립, 명지주거단지 쓰레기 소각장 건립, 온천교 재가설 및 확장 사업 등(부산 11. 21)
* 부산시의회 행정감사, 부산공직비리 타시도 2배, 상수보호구역 주유소 불법허가 등 추궁(국제 11. 21)
* 부산해항청, 부산항 기능 마비 비상, 부두 매립공사 남발, 바다면적 급격히 감소, 극심한 체증, 물류비 손실 급증, 입출항 안전사고도 위협(부산 11. 21)
* 부산시, 한국토지공사, 지사과학단지 협약 변경, 업종제한 폐지, 3류 집합소 전락 위기, 비과학단지 우려(부산매일 11. 21)

11. 22
* 부산시, 녹산국가공단의 공장용지 입주자격 완화(부산 11. 22)
* 부산시 여성정책과, 28~29일 이틀간 상담봉사자 양성교육 실시(부산 11. 22)
* 부산시, 갈수기 수질관리 종합대책 마련(부산 11. 22)
* 부산시, 이달 말까지 시직원 1일 자원봉사(부산 11. 22)
* 부산시, 생곡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 지표수 2/4분기보다 약화 감소로 나타남(부산 11. 22)
* 부산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추진(부산 11. 22)
* 부산시, 가을철 산불방지활동 강화(부산 11. 22)
* 부산시, '21세기 세계첨단 해양도시'를 목표로 'SMART 부산 21' 계획을 수립·추진(부산 11. 22)
* 부산시의회, 22일~28일까지 6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돌입(부산 11. 29)
* 부산시, 동행정방향 정립연구발표회 개최(부산 11. 29)
* 부산시농구협회, 내년 1월 프로농구 출범키로, KBL출범과 연금 지원금 3억으로 팀 창단도 봇물(부산매일 11. 23)
* 대구 달성공단 공장폐수 1만톤 낙동강 유입, 부산시 수질조사강화 비상, 부산경남에 통보 없어(국제, 부산, 부산매일 11. 23)
* 위천공단 결사저지 부산 총 궐기대회 본부, 위천공단 결사저지 부산 시민 총 궐기 대회 개최, 강행 시 납세 보이콧 등 결의, 부산 마산인 2만여명 모여(부산 11. 22, 부산매일 11. 23)
* 부산시교육청, 학원 고액 불법 논술 실태 조사 돌입(부산매일 11. 23)
* 국립수산진흥원, 기장연안 적조 씨앗 첫 발견, 1㎤당 10마리, 환경 조건 맞으면 독자발생가능, 지금까지 남해안서 조류 따라 이동, 발생 추정(국제 11. 22)
* 수영구청, 황령산 지하수 중금속 검출, 일반세균도 기준치 6배, 2곳 판매중지(국제 11. 22)
* 부산시, 동행정방향 정립 연구발표회 개최, 인력배분 불합리, 유사단체 행정 관여 잔존, 대동제 확대 적용 바람직(부산 11. 22)
* 부산시의회, 시 체납세 미수 이월금 급증, 9월말 현재 1천억원, 해마다 증가 추세(부산 11. 22)

11. 23
* 부산상수도사업, 낙동강 수질검사 강화, 하루 4회 실시, 채수지점도 늘리기로(부산매일 11. 25)
* 부산시, 충무동~김해, 서면~서창, 내년부터 심야좌석 2개 노선 추가, 특급버스도 100여대 인가(부산 11. 23)

* 부산시, 용두산 공원 재정비계획안에 의거한 정비계획 재조정 확정, 민자유치 부지, 사업비 확대, 지하체육시설, 지상 청소년 수련원 건립, 내년 3월 투자자 선정 98년 완공(부산 11. 23)
* 대한항공, 중국 동방항공, 부산~상해 직항 내달 11일 이륙, 매주 목, 토 주 2회 왕복 운항 합의(부산 11. 23)

11. 25
*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 21세기 새부산 건설 시민의지 결집, 연산동 신 시청사에 타임캡슐 묻자(부산 11. 26)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동삼동 해양공원 "제3섹터 방식 바람직", 10년간 5천8백억 투입 3단계 개발(부산매일 11. 26)
*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예산 추가확보, 8억여원 늘어 1백47억5천5백만원 확정(부산매일 11. 26)
* 부산시, 시립미술관 보완책 마련 대책, 부지 내 통과 도로폭 대폭 축소 조정, 건축물 피해 최대한 배제(부산매일 11. 26)
* 생곡쓰레기매립장 대책위원회, 쓰레기차 통제 움직임, 재활용춤 반입 격감 등 피해보상 부진 반발, 부산시에 약속이행 요구(부산매일 11. 26)
* 신한국당 부산지부, 위천공단저지 적극 동참키로, 시민총궐기본부와 공동투쟁 계획(부산매일 11. 26)
* 부산교통공단, 부산 지하철 2,3호선 예산부족 및 민원 겹쳐 지하철 건설 차질(부산매일 11. 26)
*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해운대 신시가 용지 매각 어려움, 미매각 용지 전체 21.9%, 사업추진 걸림돌, 사업비 4천7백53억원 미확보(부산 11. 25)
* 부산시, 도, 군 청사 주차장 유료화 혼선, 시행 8곳 불과, 요금체계도 제각각(부산 11. 25)
* 부산시, 생활시정 우선키로, 장바구니 물가 관리, 탁아 보육시설 확충, 새 투자사업 가급적 지양(부산 11. 25)
* 부산시, '정부 부문의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에 부응, 연례행사 줄이기로, 격년제 시행, 내실화 꾀할 예정(부산 11. 25)
* 부산시, 수영정보단지 주식회사 13사 참여희망, 내달 2일 발기인 총회서 지분 등 조정, 지분한도 30.1%, 12월 11일 주식회사 창립(국제, 부산매일 11. 26)

11. 26
* 서구청, 천마산 정상에 전망대 설치, 공사비 5천만원 확보, 내년 5월 착공 예정(부산매일 11. 27)
* 부산시, 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시민공청회, 시립미술관 장기운영 계획 시급, 설계변경 놓고 미술인과 시 입장 팽팽(부산매일 11. 27)
* 부산시, 시립미술관 변경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신시가 우회로 노선폭 대폭 축소하기로, 올림픽공원 쪽 대체부지에 조경광장(국제 11. 26)
* 부산시 수협, 공동어시장 조직개편 모색, 현재 회장제 폐지, 운영조합장에 위임(부산매일 11. 27)
* 부산시, 부산국악대전 폐막, 판소리 부문 평남기씨, 기악부문 정세희씨 각각 장원(국제 11. 27)
* 부산시, 시청회의서 첨단해양도시 청사진 마련, 2011년 목표, '스마트 부산21' 계획 포안 확정, 친수공간, 복합물류단지 조성 등 제시(국제, 부산매일, 부산 11. 27)
* 부산시, 해운대 장산에 삼림욕장 건설 계획, 13만평에 4억들여 97년말 완공예정(부산 11. 26)
* (주)부산도시가스, 내달 2일부터 LNG(액화천연가스)로 교체, 값싸고 비교적 안전, 공해물질 배출도 없어, 바닥쪽 설치 경보기 천정 밑으로 옮겨 달아야(부산 11. 26)
* 부산시, 자치구군 수질오염 무방비, 16개구군 중 사상・서・동・영도・부산진・남・금정구 등 7개구가 기초방제장비 갖추지 못한 것으로(국제 11. 26)
* 금정구청, 회동수권지 인근데 화훼단지 조성키로, 3억5천만원의 예산 확보, 8천평 계획, 정화시설 설치계획 없어 오염 우려(부산매일 11. 26)

11. 27
* 대구 위천공단 저니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서울서 대국민 홍보캠페인, 신항국당 반대운동 불사, 달성 폐수조사단도 구성, '위천 안된다' 최후 통첩(부산 11. 28, 부산매일 11. 29)
* 부산시교육청, 제9회 부산교육상 수상자 선정, 시상식은 12월 말 예정(부산매일 11. 28)
* 을숙도 매립장 재사용 논란, 부산시, 주요사업 차질 우려해 강행, 사하구, 민원 우려해 허용 불가(부산매일 11. 28)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철 2호선 공사관계로 30일~12월 1일 단수, 남구 전역 등 9개구 대상(국제 11. 27)
*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요금 24% 인상 건의, 1구간 500원 2구간 550원 추진(부산매일, 국제, 부산 11. 27)
* 부산상의, 부산지역 업체 단축 및 휴폐업, 213개사 판매부진, 정상조업률 10월도 87%대(국제 11. 27)

* 해양수산부, 부두민영화 내년 시행, 내달부터 세부사항 절충작업(국제 11. 27)
* 부산시 어업권 피해보상업무 위임, 가덕신항 조기착공 난관, 어민들 관행, 어업권 보상요구 나서(부산매일 11. 27)
* 한국토지공사부산지사, 녹산공단 입주 3년 정도 지연, 지반침하 심각, 성토 등 보완공사 불가피, 분양업체 대책 다각 마련(부산매일, 부산 11. 27)
* 부산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소위원회, 2011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안 쟁점 통과, 명지대교건설 등 원안 통과, 녹산 추가매립, 가덕 개발 우선 반영(국제 11. 28)

11. 28
* 부산시, 개인서비스업소의 요금 일제점검 실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를 개인서비스요금 단속기간으로 정함(시보 12. 6)
* 주앙도시계획위원회, 2011년 부산안 결정, 명지대교건설 등 원안 통과, 녹산 추가 매립, 가덕 개발 우선 반영(국제 11. 28)
* 장림하수처리장, 처리능력 넘어섰다, BOD 등 방류수질도 기준치 넘어, 하루 3만톤 용량초과(부산 11. 28)
* 제37회 전국배드민턴 선우서권 대회 개최, 5일간, 사직체육관에서, 김지현, 길영아 등 올림픽스타 총출동(국제 11. 28)

11. 29
* 부산시, '해수행정 홍보' 적극 추진(부산 11. 29)
* 부산시, 고용촉진사업추진 철저, 저소득층 직업능력 적극 개발(부산 11. 29)
* 부산시, '경쟁력 10% 높이기' 지방행사 내실화, 허례허식・낭비요인 없애기로 함(부산 11. 29)
* 부산시, 시정 동정(부산 11. 29)
* 부산시 자치행정과, 7개 가능 통합 전자주민카드가 98년부터 실용화될 전망(부산 11. 29)
* 부산시, 부산시내 대형 예식장과 호텔 예식부 43개소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 실시(부산 11. 29)
* 부산시, 중국현지에 개소될 무역사무소를 이용할 생산업체 모집(부산 11. 29)
* 부산시, 3일간 본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노선조종문제', '부산경제 회생방안' 등 시정 질문(부산 12. 6)
* 금정구청, 금사공단 공동화 가속, 활성화 위해 공동주택 제한 특단조치, 공장유치 실패로 수천평이 빈터 방치(국제 10. 29)
* 교육감기 쟁탈 초・중・고 마라톤 대회(요트경기장)(부산교육 11. 29)

11. 30
* 부산 지역 기습한파, 일부도로 통제, 여객기 결항 등 피해 속출(부산매일 12. 2)
* 부산진구, 문화의 거리 만든다, 영광도서~유원 오피스텔, 상설 공연장 등 설치(부산매일 12. 2)

12. 1
* 부산시, 에이즈 감염자 증가 추세에 대한 홍보교육 제공(시보 12. 6)
* 부산시, 연말 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 전개(시보 12. 6)
* 부산시장, 위천공단조성 저지에 총력(시보 12. 6)
* 부산시, 위천저지 막바지 총력전, 헬기 동원 낙동강 오염 점검, 시민단체 연대 강화, 시 특별기획팀 발족(부산 12. 2)
* 부산시, 부산시의회에 상하수료도 대폭 인상 승인 요청, 상수 22.5%, 하수 34.9%, 물가 오름세 선도에 시민 반발(부산매일 12. 2)

12. 2
*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하구둑사무소, 을숙도 주차장 유로화 추진, 요금은 국립공원 수준으로, 시민 반발 예상(국제 11. 2)
* 한국가시공사, 부산도시가스, LNG 공급 개시, 5일까지 28만여세대 교체, LPG보다 10~15% 싼편(국제 12. 2, 부산매일 12. 3)
* 기습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 속출, 채소 수학량 20~30% 감소 예상, 김장 비상, 반입량 급감, 가격 크게 올라(국제 12. 2)
* 시건설안전관리본부, 강동교 내년 재가설, 124억 들여 왕복 4차로 확장, 98년 완공 예정(부산 12. 2)
* 수영정보(주) 발기인 총회 예비모임, 이사 7인, 감사 2인 선임키로, 오는 6일 공식 출범하기로, 선경, 이사 7명 중 4명 추천권(부산매일, 부산 12. 3)
* 부산시, 녹산 내년부터 입주, 사정 급한 업체는 먼저 조치, 항만관리권 인수 연기, 상수도 누수방치 요금인상 추궁(부산매일 12. 3)
* 부산시의회, 3일간 시정 질문 종료, 낙동강 회생 기구 설치키로, 을숙도 중심 시민조각 공원 조성 제안(부산 12. 3)
* 위천공단결사저지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임시회의, 위천저지 극한 투쟁 불사, 대중교통, 업소 등 집단 휴업 모색(부산 12. 3)

* 사하구청, 장림 유수지도 침하 우려, 연약지반 무시, 일반공법 매립(부산매일 12. 3)
* 부산해항청, 「컨」 처리 연간 목표 미달, 512만개 설정에 480만개에 그칠 전망, 경기부진 수출입 증가세 둔화, 물량 부족(국제 12. 3)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부산남항 '쓰레기 바다', "이렇게 썩은 줄 몰랐다" 작업 인부도 경악, 선박 무단투기 심각, 해양단속 속수무책(국제 12. 3)

12. 3
* 부산시교육청, 동광·충무 초등교 99년 3월에 폐교, 부산 매년 학급수 감소(국제 12. 3, 부산매일 12. 4)
* 부산시, 인공어초 사업 본격화, 2010년까지 140억 투입키로(국제 12. 3)
* 부산시, 주거지 전용 주차제, 내년부터 실시, 구청별 2~3곳 우선 시범 지정, 한달 2만2천원 징수(부산매일 12. 4)
* 해운대 승당마을 사태 일단락, 재개발 조합 미동의 25세대 요구안 수용, 세입자 천막, 창고생활 대책 시급(국제 12. 4)
* 금정구, 산청군 자매결연, 94년 농촌돕기로 시작, 부산 기초단체론 최초(부산매일 12. 7)

12. 4
* 부산 경남 69업체 파업결의, 노-사-공 충돌 긴장 고조, 민노총 10일, 노총 16일 파업 강행, 재계, 고발·무임금원칙 적극대처, 정부, 불법행위 사법처리(부산 12. 5)
* 위천공단결사저지 부산시민 총 궐기 본부, 위천 반대 상경 투쟁, 서울역서 낙동강살리기 대국민 캠페인, 정부, 신한국당에 "시민불복종·낙선운동" 최후통첩(부산, 국제 12. 4, 부산매일 10. 5)
* 남구청, 전철공사장 점용료 부과, 자재야적장 등에 2억여원 결정, 교통공단 "교통 소통위해 불가피" 반발(국제 12. 4)
*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북 참가요청, OCA총회 북대표 접촉(국제 12. 4)
* 낙동강환경관리청, 생활오수 2만톤도 정화 않고 낙동강에 직유입, 성서공단 유독도금폐수 유출, 갈수기 수질급격 악화, 물금취수장 BOD 5.0PPM(국제 12. 4)
* 부산환경개발, 신평소각장 강행 물의 우려, 관리위원회 활동도중 구청에 승인 요청, 주민과 갈등 부채질(부산매일 12. 4)
* 부산시 둔치도 경마장 무산될 위기, 경남측 반발로 제3의 장소 물색 검토(부산매일 12. 5)
* 한국고속철도공단, 부산 통합역사 내년말 착공, 공사비 2,451억원, 2001년 완공(국제 12. 5)
* 부산시의회, 예산 예비심사 착수, 구·군별 예산배분 불균형, 수영단지 자금 조달 추궁, 유료도로 특별회계 전용(부산매일 12. 5)
* 96 부산시 새마을지도자대회(부산시정 12. 4)
* 96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말연찬회(교원연수원)(부산교육 12. 4)
* 부산 교육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개통(부산교육 12. 4)

12. 5
* 부산시의회, 제59회 정기회, 부산시 예산안 예비심사 이틀째, 영세민 지원비 증액 긍정 평가, 신도시 하수장 운영개선 요구, 예산집행 지역 중소기업 체감혜택(부산매일 12. 6)
* 북부경찰서, 상습 성폭행 사촌 형제 검거, 전국 돌며 15차례 걸쳐 범행, 부녀자 있는 집만 골라 사진 찍어 돈갈취(부산매일 12. 6)
* 대한주택공사, 부산진구청, 서면재개발, 경전철 초읍선 및 명지대교 건설 등 주요사업 수년째 제자리걸음, 경제타격, 물류비용 절감 효과 기대난(부산매일 12. 6)
* 한국마사회, 강서 죽동, 김해시 화목동 부적합 결론, 강서 봉림마을, 김해시 수가리 경마장 부지로 제시(부산매일, 부산 12. 6)
* 부산시, 해운대구청, 농산물시장, 택지지구 등 대형사업 우회도로 없이 추진, 반송로, 반여로 교통지옥 불보듯(부산매일 12. 6)
* 부산지검, 해양오염 인제단속 28명 약식 기소, 폐유 무단투기 무더기 적발(국제 12. 5)
* 부산시, 공원 및 녹지확보계획, 휴식공간 2011년까지 현재의 1.8배인 88.11㎢로(국제 12. 5)
* 부산시의회, 의장단 선거 26일로 확정, 득표전 돌입(국제 12. 5)
* 부산지검, 주차공단 불법 전면 수사, 지정구역 밖 주차유도 피해 일쑤(국제 12. 5)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부산 수출 기지개, 중화학 호조, 4개월 만에 처음 늘어(부산 12. 5)

12. 6
* 부산시, 겨울철 재해예방 종합대책 마련(시보 12. 6)
* 부산시,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지내전역 꽃심기·꽃단지 조성사업 추진(시보 12. 6)
* 부산시 농업행정과, 김장채소 성수기를 맞아 김장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위해 대책 마련(시보 12. 6)

* 부산시, 시정 동정(시보 12. 6)
* 부산시, 4대 중점업무가 완료됨에 따라 주전산기를 보유한 자치구·군별로 희망업무 조사하여 전 자치구에 확대 보급(시보 12. 6)
* 부산시, 상해 부산사무소 개소(시보 12. 6)
* 부산시, 명예 식품감시원과 공무원 합동단속(시보 12. 6)
* 시보, 연말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시보 12. 6)
* 부산시 공업행정과, 유류판매용 계량기 특별단속(시보 12. 6)
* 부산시, 수영정보단지 개발 주식회사가 정식 출범(시보 12. 13)
* 부산시, 효율적 대기질 관리를 위한 대토론회 개회(부산 12. 13)
* 수영정보단지개발(주), 발기인 총회, 정식 출범, 선경, 수영단지 경영권 확보, 지역 3개사(영남석유, 국제플랜트 등) 포기지분 6% 인수, 선경 51%지분 확보(부산, 부산매일 12. 7)
* 부산시장, 광안대로전문진단실시, 종합대책 발표(부산매일 12. 6)
* 부산지방경찰청 치하철수사대, 올해 날치기 등 형사사건 3백14건, 지하철 범죄 2배 급증, 형사사건 총 3백14건, 지난해비 141% 증가(부산매일 12. 7)
* 위천공단결사저지 부산시민총궐기본부, 성서, 달성공단 등 오염현장 합동조사, 인간띠잇기, 낙동강 대청결운동도(부산, 국제, 부산매일 12. 6)
* 금정구청, 오는 16일 온천교 재가설 착공 예정, 26억원 예산, 교통통제로 일대 혼잡 예상(부산 12. 6)
* 해운대구청, 신시가지 입주민, 신시가 기반시설 미비, 난방공급 안 돼 추위, 버스노선도 4개 뿐(부산 12. 6)
* 부산시의회 전문위원실 보고서, 부산시, 예산안 허점투성이, 중복편성에 불용성 예산 과다책정(국제 12. 6)
* 동구청, 분리수거용기 확대보급, 안창마을이어 초량지구도, 내년 전면 시행(부산매일 12. 6)
* 부산시, 시민 감사청구제, 내년 1월께 시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부산매일, 부산 12. 6)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심사, 부산시, 총 부채 1조6천억 재정부담 가중, 17개 사업 지방채 3천오백억 발행(부산매일 12. 6)

12. 7
* 북구청, 구청 마당에 쓰레기 소각장, 전국 첫 시도, 하루 4백여톤 처리, 첨단시설 갖춰 인체 무해 입증, 폐열로 인근에 온수, 전기공급(부산 12. 9)
* 건설교통부, 부산~언양, 대구~경주간 고속도, 왕복 8차선 확장된다(부산 12. 7)

12. 8
* 부산시, 낙동강 종합보고 곧 발표, 조사단도 구성, 강 살리기 주력, 위천 불가 객관적 입증, 오염실태와 회생책 등 망라(부산매일 12. 9)

12. 9
* 부산시, 자선냄비 모금 시종식(시보 12. 13)
* 부산시, 28일까지 하수도사용료 체납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처분 강력히 추진(시보 12. 13)
* 부산시장, 대형공사 부실방지 다짐, 광안대로 공사현장 답사(시보 12. 13)
* 부산시의회, 제5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97년 예산안 종합심사(시보 12. 13)
* 부산, 경남 건설업체, 부도회사 비율 4% 육박, 연쇄도산 우려, 지역 건설업체 회악 불황(부산매일 12. 10)
* 시장 기자간담회, 광안대로 공공자금 증액 불가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도 지연, 시민대표 등 안전점검반 구성, 현수교 외국기술진 보강감독(부산매일, 부산 12. 10)
* 부산지법, 영장심사 전담판사 선임, 임관 5년이상 3명 6개월 임기(부산매일 12. 10)
* 부산시종합건설본부, 부산시청소시설관리사업소, 생곡 재시공은 불가, 기술적 난점, 가스폭발 우려, 분할옹벽 설치하면 공사가능, 차수막 등 보완장치 강화(부산매일 12. 10)
* 북구청, 민방위시책 최우수 구 뽑혀, 시 재난관리 평가에서 대처능력 인정받아(부산매일 12. 9)
* 부산시의회, 시의회 예결특위, 도시가스 1개 업체 독점 따져, 민선 후 시 채무액 급증 추궁(부산 12. 9)
* 감사원, 9일부터 2주간 부산시 특별 감사(부산 12. 10)

12. 10
* 96부산 인권문화제 추진회, 제1회 광주인권사랑한마당 조직위원회, 부산-광주 인권선언문 발표(부산 12. 10)
* 수영단지(주) 정식발족, 범일동 선경빌딩서 현판식(부산 12. 10)
* 부산시, 공사설명회, 광안대로건설공사 현장설명회, 광안대로를 부산 상징물로(부산 12. 10)
* 부산, 경남 고입 선발고사, 117개 고사장서 8만여명 응시(부산매일 12. 10)
* 부산지검, 페스카마호사건, 선상 살인, 6명 사형 구형, 해상간도 살인죄 등 적용(부산매일, 부산 12. 11)
* 부산시, 낙동강 기획단 구성, 추가 공단 대응, 오염백서 추진, 강 살리기 정부노력 강력 촉구, 낙동강 현황, 대책 발표(부산매일 12. 11)

* 항만운송협회, 국제통운, ㈜동방, ㈜한진 등 8개사 대표 협의, 부두운영회사 배정 합의, 4부두-국제통운 등 2개사 확정, 운영방식은 결론 못내 추후 논의키로(부산매일 12. 11)
* 고입선발고사, 부산 결시율 0.14%, 내년 1월 10일 합격자 발표(부산 12. 11)
* 기장군, 양산시 상대 소송, 미인수 도유지 매각시도 반발(부산매일 12. 11)

12. 11
* 부산~중국 상해간 항공기 직항로 개설(시보 12. 13)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사무소, 부산에 장애인 직업훈련원 운영 예정, 전국 두 번째, 정관면에 내년 착공, 99년부터 운영(국제 12. 11)
* 시, 정관신도시 전철 연장 요청, 동해남부선~좌천역까지 지선 요청(국제 12. 11)
* 한국항만운송협회 및 업계, 부산항 부두운영권 배정 완료, 중앙부두, 동부 고속・세방, 3부두 대한통운・(주)한진・동진, 4부두, 국제통운・동방, 감천항, 삼창・동진(국제 12. 11)
* 해양수산부, 건설업계, 해운업계, 가던 신항만 그랜드 컨소시엄 수주 확실시, 삼상 등 시존 5사에 롯데 등 합류 11개 그룹 참여(삼성 물산, 동아건설, 현대건설, 한진건설, (주)대우, LG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개발, 극동건설, 금호건설), 15일 지분 결정, 24일 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국제 12. 11)
* 시. 시정비방안, 6개 위원회 폐지, 기능 유사 6개위 통합,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기채심의위원회, 약사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한미친선협의회, 지역건설사업조정협의회, 수뢰위원 3명 해촉, 19명 교체(부산 12. 11)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 부도율 지난달 0.01% 감소, 비제조업 자금난은 악화(부산매일 12. 12)
* 부산시, 96년도 자치구군 및 사업소 경영행정 추진평가, 영도구청 우수구로 선정, 폐품 재활용, 양묘장 운영, 올 32억원 수익(부산매일 12. 11)
* 부산시 환경녹지국, 종합건설본부, 생곡쓰래기매립장 대책 오락가락, 전면재시공 포기, 침출수 유출방지 공사만 검토, 주민 반입저지 등 반발 움직임(부산 12. 11)
* 국회 97 예산안, 부산 국비지원 1조89억, 아시안게임, 도로확장에 집중 배정(부산 12. 11)
* 낙동강환경관리청, 낙동강유역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부족, 지지부진, 35곳 계획한 후 10곳 준공(부산매일 12. 12)
* 부산시, 학교폭력근절 종합평가보고회, 내무부선정, 금정구, 학교폭력 근절 우수기관 영예(부산매일 12. 12)
* 낙동강수질보전에 대한 환경전문가 자문회의, 낙동강 수질개선 공염불, 정부 2급수 목표 불가능, 물정책 불신 증폭(부산 12. 12)
* 가덕항 대형컨소시엄 구성, 삼성 중심 11개 그룹 참여, 싱가포르항만청 등 외국기업 제외, 산성물산, 동아건설, 현대건설, 한진건설, ㈜대우, LG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개발, 극동건설, 금호건설(부산 12. 11)
* 부산경찰청, 심야영업 후 음주 운전 급증, 29% 늘어(부산 12. 11)

12. 12
* 부산시, 2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시보 12. 13)
* 고속철도공단, 건설교통부, 내년 사업자 선정, 고속철 부산역 민자유치, 백화점, 호텔 등 부대사업 허용(부산매일 12. 13)
* 부산시, 송정~기장, 해안관광도로 신설, 기장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 2006년 청사진 제시, 용도지역 대폭 늘어(부산매일 12. 13)
* 부산시, 수영정보단지 개발계획 확정, 국제업무, 미디어시설 등 배치 매듭, 컨벤션센터 등 유치, 부지 51% 분양(국제, 부산 12. 12, 부산매일 12. 13)
* 부산시, 경남도, 경마장 설치, 부산강서 범방동, 김해장유 수가리, 확정적, 60만평 규모, 부산-경남 의견 일치, 문체부 긍정 평가(국제 12. 12)
* 부산시, 시도경제협의에서 재경원에 신용보증조합 설립 지원 요청(부산매일 12. 13)
* 위천공단저지부산시민총궐기본부, 민관합동조사단, 대구 달서공단과 성서공단 무단 방류 은폐사건 현장조사 실시(국제 12. 12)
* 부산시, 제19차 시도경제협의회, 관련법규 개정 건의, 그린벨트 내 정신질환자 시설 신축 허용 건의 및 부산경제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선 요구, 신보조합 적극지원, 하수관로 법, 중등교원 인건비 부담 요구(국제, 부산 12. 12)

12. 13
* 부산시, 주거지전용주차제 시행, 시의회 상정(시보 12. 13)
* 부산시, 교통안내 전광판 램프식에서 LED방식으로 교체 전망(시보 12. 13)
* 부산시, 이웃돕기 범시민 캠페인과 모금운동 실천(시보 12. 13)

* 부산시 국민홍보위원협의회, '국가경쟁력 10%이상 늘리기' 학술세미나 개최(시보 12. 13)
* 부산시, 시민감사청구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23일까지 개인 및 시민단체 의견 접수(시보 12. 13)
* 부산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범시민 홍보(시보 12. 13)
* 부산시, 버스와 지하철 통합 운영에 대중교통공사설립 바람직(시보 12. 13)
* 부산시 보건과, 가정간호사업 시범 실시(시보 12. 13)
* 부산시, 공동주택 주요 구조부 임의 변경 금지, 12월 한달간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여 벌금 면제(시보 12. 13)
* 부산시, 10억3천만원 예산 확보하여 내년 초부터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 확대(시보 12. 13)
* 정부, 위천조성 확정, 정부 연내 공식허가 방침, 대구 경제회생, 수질개선 병행, 20일 종합보고서 발행(부산 12. 14)
* 부산시, 구청장 군수 간담회, 자치구 군의 건의 수렴, 사무관 승진 시험제로 시행, 감사실장은 4급 승격, 자치구군, 차 납세필증 부활 등 건의(부산 12. 13)
* 부산시, 낙동강 고수부지 유원지 개발, 천6백억 투입, 산책로, 운동장 등 조성, 4백만평 규모 내년 착수(부산 12. 13)
* 부산시교육청, 조례개정안 발표, 학원설립 규제 완화, 면적 90㎡ 이상만 되면 단과학원 허가, 보습학원, 국영수과외 양성화, 학원 난립 등 논란 일 듯(부산 12. 13)
* 부산시, 조례추진, 내년 동아시아대회 개최 2주동안 승용차 부제 운행에 강제력, 위반 시 과태료(부산매일 12. 14)
* 부산지방노동청, 부산, 경남지역 체불임금발생익 급증, 85개 사업장, 5천여명, 1백84억원 못 받아(부산 12. 13)
* 위천공단결사저지부산시민총궐기본부, 부산공동조사단, 독수 은폐, 대구, 정부에 정식 항의, 공문 통해 수중오염 제거도 강력 요구, 폐수관 교체, 사고방지 촉구(국제, 부산 12. 13, 부산매일 12. 14)
* 부산시 부산관광개발(주) 내무부 출자 승인, 지분재조정 거쳐 23일 창립총회(부산매일 12. 14)
* 부산지검, 경찰, 구의원 수사 착수, 구청장에 불법영업 묵인 압력, 주점 실소유주 밝혀지면 사법처리(부산 12. 14)

12. 14
* 위천공단 결사저지 부산시민 총 궐기본부, 인간띠 잇기, 낙동강 대청결 운동 시행(부산 12. 14)
* 사하구 다대1동 중소기업협업화단지 기계공단 인근 홍티천 또 녹물, 올 세 번째, 당국 점검 허점(부산 12. 14)
* 부산시의회, 수도료 21%수정 통과, 기장군 도시계획 심사 보류(부산 12. 14)

12. 15
* 부산시, 위천공단 조성반대와 낙동강 회생을 위한 '인간 띠잇기' 행사가 개최(시보 12. 20)

12. 16
* 부산시의회, 제5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을 3조 5487억2천만원으로 수정해 의결・확정(시보 12. 20)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지역 수출 모처럼 햇빛, 11월 L/C내도 첫 증가, 전년비 15% 3억5천만불, L/C 내도액 3억5천1백만달러(부산매일, 부산 12. 17)
*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시민 민주항장사 집대성, 편찬위 구성, 개항 이후 저항정신 모아(부산 12. 17)
* 중구청, PIFF광장 노점상 일제 정비, 연내 절반으로 축소, 강경 입장(부산 12. 17)
* 정부, 신한국당, 신항만 건설 촉진법 제정, 국책사업 지원 근거 마련, 26개 관련 법률 일원화, 가덕, 광양항 사업 급진전 예상(부산매일 12. 16)
* 부산경찰청, 2천억대 어음사기단 적발, 유령회사 수십개 설립, 고의 부도, 조직폭력배 3개파 개입, 26명 영장, 22명 입건(부산, 국제 12. 16)
* 부산시의회, 예산 3조5천억 확정, 16억 순삭감, 교육청은 1조1천8백억, 49억4천3백만원은 예비비, 도로비 삭감, 치매노인보호금 등 증액, 예결위원 입김 예상, 지역 챙기기 여전(국제 12. 16)
* 시 건설안전관리본부, 16일부터 대티터널, 만덕터널 통행제한, 23일부터 부산터널 차량통행제한, 시설정비공사(부산매일 12. 10)

12. 17
*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조합 설립 발기인 대회 개최(시보 12. 20)
* 부산시, 전문가・대학교수・시민단체 합동으로 광안대로 시공 상황 특별 점검(시보 12. 20)
*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재개발사업 본격화, 전담부서 신설, 해당지역 타당성 조사 착수(부산매일 12. 18)
*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조합 설립 준비, 발기인대회, 지역은행, 연고 대기업 등 110억 출연(부산매일 12. 17)
* 부산시, 자치법규 정비, 경쟁력 높이기 일환, 4개 분야 36건 손질(부산 12. 17)
* 통상산업부, 부산 등에 신발전문화단지 조성, R&D 등 연 4백억원 신발연구소 지원도(부산 12. 17, 부산매일 12. 18)

* 부산발전연구원 분석, 부산신항 파급효과 11배, 고용 유발도 39만명선(부산매일 12. 18)
* 부산시, 수영비행장 이전 본격화, 협의보상 내년 초까지 마무리, 주민 이주 98년 완료(부산매일 12. 18)
* 부산시민본부, 낙동강물 취수 중단 요구, 매리취수장 4급수 육박, 물값 반환소송 추진, 경남업체들, 정수비용 부담 공업용수로도 못써, BOD 6.2ppm으로 한계치 초과(부산 12. 17, 부산매일, 국제 12. 18)

12. 18
* 부산시장,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위원총회가 개최되어 참석, 예산안 등을 토의・의결(시보 12. 20)
* 부산시, 96 이웃돕기운동 범시민 캠페인 및 성금모금운동 행사 개최(시보 12. 20)
* 부산시, 내년 1월 7일까지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시보 12. 27)
*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내년도 예산 197억원 확보하여 재정기반 마련(시보 12. 27)
* 부산시, 환경기본조례 만든다, 종합계획 수립, 쾌적한 도시 기틀 마련, 부실방지 공사실명제 도입, 10년 넘긴 도시계획은 정비(부산매일 12. 19)
* 정부 당국자, 2백만평 규모로 수질과는 별도 추진, 위천공단 조만간 지정(부산매일 12. 19)
* 부산시민단체, 출신의원, 문시장 신한국탈당 촉구, 김대통령 퇴진 운동, 위천국가공단지정 임박, 생존권 외면 강력투쟁(부산 12. 19)
* 통계청, 부산시, 뷰산 사업체수 증가율 꼴찌, 4.7%로 전국평균 절반 수준, 수도권편중, 종사자수도 저조(부산매일 12. 19)
* 부산시민본부, 시장, 의원에 신한국당 탈당 촉구, 정권퇴진운동 저항(국제 12. 19)
* 철도청, 시설 현대화, 부산역은 2001년 추진, 부산역사 99년 민자건립(부산 12. 18)
* 부산, 초읍선 경전철 사업, LG등 컨소시엄 구성, 내년 3월 사업계획 고시예상(부산 12. 18)

12. 19
* 부산시장, 부산동부권 농산물 도매시장 기공식 개최에 참석(시보 12. 20)
* 제14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 개최에 참석(시보 12. 20)
* 부산, 경남시민, 1천만 생명수 당이익과 맞바꿔 분노, 대통령, 수질개선 병행은 아예 불가능, 오판 정권엔 퇴진투쟁 불가피(부산매일 12. 20)
* 부산시, 부산 상업차관 1억불 도입, 제3도시고속도로 공사비 내년 하반기 계획(국제 12. 19)
* 부산, 경남주민, 위천공단 강행에 분노, 대구표만 표냐, 대선 때 보자, 낙동강 수질개선 외면 고향사람 독수 마실판, 정치흥정 배제 이수마스터플랜 다시 짜라(국제 12. 19)

12. 20
* 부산시, 경제행정 위한 불합리 자치법규 정비(시보 12. 20)
* 부산시, 쓰레기 수거관련 여론 수렴(시보 12. 20)
* 부산시 교통공단, 98년까지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철 1호선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시보 12. 20)
* 부산시, 지역중소기업 판로 적극 지원(시보 12. 20)
* 부산시, 시정 동정(시보 12. 20)
* 부산시, 비법정 생활보조대상자 일제조사 실시(시보 12. 20)
* 부산시, 3대 시민운동 추진 실적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시장 표창 및 상금 수여 실시(시보 12. 20)
* 부산시 주차관리공단, 주차료 영수증 주기 실천운동 실시(시보 12. 20)
* 부산시, 내년 동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경기장 시설 등을 최종점검, 총괄준비 체제 돌입(시보 12. 27)
* 부산시, 수정산 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가 현지에서 기공식(시보 12. 27)
* 부산시, 확대간부대회를 갖고 '부산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시보 12. 27)
* 부산시, 꽃등탑 점등식 후 시장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의 점등인사 및 송년사 마련(시보 12. 27)
* 공청회, 시금고 지역은행 유치 한목소리, 시민단체, 상공계등 주장, 시는 반대표명(국제 12. 21)
* 위천공단 결사저지 부산시민 총궐기본부, 시당국 여태 뭘했나 격앙 분루(부산, 부산매일 12. 21)
* 부산경찰청, 초등교까지 폭력, 동심얼룩, 올 들어 1천7백명 구속 불구 아직 숙제, 부모, 스승에게도 못 알리고 혼자 속앓이(국제 12. 20)
* 부산, 경남 시민본부, 수도료 거부, 공단예정지 농성 계획, 위천 백지화 실력행사, 여당사무실 검거, 아시아경기, 월드컵 불참(국제 12. 20)
* 경남 밀양, 10대까지 낀 보복 살인극 충격, 병원 뒤쫓아가 2명 살해, 잔혹성 극치(부산매일 12. 20)
* 대통령, 8개부 처장관 경질(부산 12. 20)
* 정부, 신한국당 항의 방문, 시민단체 철야 농성, 취수장 점거도, 위천반대 전국 확산, 환경운동조직 30개 지부 서울 긴급회의(부산 12. 20)
* 남구청, 온천개발업자 지원 의도 의혹, 황령3터널 위치변경 추진 물의(부산 12. 20)

* 부산지검, 조선족 취업사기 적발, 거액 사례비 착복 셋 구속(부산 12. 20)
* 제3도시고속도로(수정산 구간) 착공(부산시정 12. 20)

12. 21
* 시, 위천저지 100만 서명 돌입, 부산 국회의원 일부 의원직 사퇴 불사, 정부 낙동강대책 등 23일 발표, 이대표, 영남의원과 사전회동(국제, 부산 12. 21)
* 부산교통공단, 부산지하철 건설 총체적 난국, 시 출연금 5백억 미지급, 도로점용료 요구에 재정압박 가중(부산 12. 21)
* 부산시, 주택용LNG요금 LPG보다 20% 저렴, 6㎥ 이하 월 기본료 1천7백95원, 영업용 ㎥당 319원, 산업용 242원(국제 12. 21)

용도		월 기본요금		초과요금	
		기본량	요금	사용량	요금
주택용	취사용	0~6㎥	1795.08	12㎥까지	299.18
	개별난방용			12㎥초과	291.06
	중앙난방용	1㎥	279.80	-	-
일반용	영업용	1㎥	319.15	-	-
	난방용	1㎥	296.10	-	-
	냉방용	1㎥	251.30	-	-
산업용		1㎥	242.20	-	-

* 부산시, 개인정보 누출 금전피해 속출, 보험계약, 물품대 청구서등 날아들어, 금융기관, 기업서 허술하게 관리(부산매일 12. 21)
* 부산, 히로뽕 국제거점 확인, 야쿠자 밀매단 등 잇따라 적발(부산매일 12. 21)

12. 22
* 해운대구, 시평가서 우수구로 선정, 경영행정 추진, 사회진흥 업무, 부녀복지 사업, 하수도료 체납금 징수, 건교부 자동차 관리행정 평가서도 표창(부산매일 12. 23)
* 부산사상구의회, 동정자문위 조례안 법정 공방, 구청반발 소송준비(부산 12. 23)
* 재정경제원, 국고지원안 마련, 실시, 초등교 새해부터 완전 무상교육, 부산 등 6대 도시 육성회비 없애(부산매일 12. 23)

12. 23
* 부산시의회, 제5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23개의 안건을 의결(시보 12. 27)
* 부산시의회, 부산 기초자치단체장, 위천 대처 행동으로 밝혀라, 이중적 보신 일관, 시의원 기초장과 판이(부산매일 12. 25)
* 시,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 난항, 일손 모자라고 주차공간도 부족, 일선 구청에서 난색 표명(부산매일 12. 24)
* 경남 김해시, 부산~김해간 경전철 24.5km 전구간 고가화 확정, 민자유치 총 8천4백억원 투입 아주게임전까지 개통(부산매일 12. 24)
* 정부, 위천 강행과 연계 부산 현안사업에 압력, 관광개발 최종승인 돌연보류, 경마장 위치선정문제도 입김(부산매일 12. 24)
* 부산시, 이기대공원 개발 본격화된다, 남구청 마스터플랜 시심의서 통과, 국제적 관광명소 조성덕천공원 부결, 금곡공원 보류(국제, 부산매일 12. 24)
* 지역 환경운동연합단체, 위천반대 동참, 범국민 투쟁 점화, 부산, 경남 상경단 종합청사, 신한국당사시위(부산 12. 23, 부산매일 12. 24)
* 부산시의회, 시의원 총사퇴 결, 위천저지에 구청장, 군수도 가세(부산매일 12. 24)
*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도시가스 요금 인하, LNG교체로 주택 20%선(부산, 부산매일 12. 24)

구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평균요금
	취사용	개별난방	중앙난방	영업용	난방용	냉방용		
부산	299	291	279	319	296	251	242	274
서울	301	243	243	309	242	165	196	245
대전	325	286	250	315	275	196	208	266
대구	299	291	279	315	285	230	240	283

* 위천공단 저지 부산경남공동본부소속 시민대표단, 정권퇴진운동 본격 돌입, 위천저지 궐기본부, 평화적 상경시위 원천봉쇄 비난(국제 12. 24)
* 도로교통안전협회, 부산 교통방송 개국, 내년 5월 기상, 교양등 지역생활정보 포함(부산 12. 24)

* 부산시, 부산관광개발(주) 무산위기, 내무부서 제동 오늘 출범 수포(부산 12. 23)
* 시, 재활용쓰레기 재활 말뿐, 종이류 외엔 매각 안 돼, 스티로폼, 페트병 수십t 쌓여(부산 12. 23)
* 시, 위천 저지운동 오늘 1천명 상경, 부산, 경남본부 청와대등 항의방문, 여당사 점거도(국제, 부산매일, 12. 23)
* 부산시, 구평 택지개발사업 승인, 3만4천평 주공 99년까지 2천7백세대 건립(국제 12. 23)

12. 24
* 부산시, 96 하반기 정년 및 명예 퇴임식 개최(시보 12. 27)
* 정부, 그린벨트 내 강서우체국 설치, 국무회의 의결, 부산 우편물 급증, 기계로 처리(부산 12. 25)
* 해양수산부, 부산 가덕신항 민자유치 SOC 건설사업, 삼성컨소시엄 단독신청(부산매일, 부산 12. 25)
* 부산시장, 수질개선 기획단 구성, 낙동강특별법 부산 요구 대폭수용(부산, 12. 25)
* 부산교총방송본부, 부산교통방송국 본궤도, 정통부 가허가, 건물입찰, 직원채용공고(부산, 12. 25)
* 부산 강서구청, 강서 그린벨트 내 8개 이주단지, 내년조성, 이주 본격화, 4백여 대상세대 최종확정, 대단위 공공사업 활기 전망, 주민 요구 따라 계획 보안키로(부산매일 12. 25)
* 부산시, 지역여론 끝내 외면 상업은행 시금고 재계약, 지자제시대 역행, 법규 마련해야(국제 12. 25)
* 부산지법, 선상살인 전원사형, 인간임을 포기한 잔혹성 극형 마땅(국제, 부산 12. 24)
* 부산경찰청, 범죄신고 보상금제 정착, 올 들어 114건 5,700만원 지급, 부산해운대구청 도로점용료 3천만원 부과, 해운대구, 2개 건설사 대상(국제 12. 24)
* 통계청, 부산물가 전국 평균 웃돌아, 6년새 45.5%인상, 가사서비스 최고(부산 12. 24)
* 부산시, 사무혁신운동 본격추진, 내년 10대 강령 제정, 업무 자동화 확대, 화상회의 운영도 검토(부산 12. 24)
* 부산시, 부산, 경남 경마장 유치 표류, 금병산지역 난공사로 경제성 적어, 마사회, 문체부 난색(부산 12. 24)
* 정부, 출신국회의원 발표연기 요구, 저지본부, 대정부 초강경 투쟁(부산 12. 24)

12. 25
* 부산시, 부산시금고가 상업은행으로 결정(시보 12. 27)
* 수영구청, 부산교통공단, 수영로 체증 무방비, 내년 지하철 공사 본격화, 우회로 개설 등 전무, 혼잡 극심할듯(부산매일 12. 26)
* 부산시, 2년간 일반회계와 택지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계를 상업은행에 맡기기로 최종결정, 지역여론 무시, 특혜 의혹 제기(부산매일 12. 26)
* 부산지방노동청, 항만하역장 안전 취약, 시설노후화 올 산재 3백23건 17개사 위반사항 1백47건 적발(부산 12. 25)
* 동구청, 좌천동 가구거리 조형물 제막, 오비신호대옆 높이 8m, 폭 4m 의자 형상(부산매일 12. 25)

12. 26
* 부산시장,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어려운 이웃 격려(시보 12. 27)
* 부산시장, 시간부・기관장들과 국군장병 현지 위문(시보 12. 27)
* 내무부, 부산관광(주) 20일 출범 승인, 추가 증자는 힘들 듯(부산매일 12. 28)
* 부산시의회, 4대의장선거 전반기 지도부 3명 나란히 재선출, 의장득표율 하락 부의장 고전비주류 다독이기 새과제 등장, 전반기 지도부 채찍어린 신임(부산 12. 26, 국제 12. 27)
* 연제, 동래, 북구 등 시내 7개 자치구의회, 의장단구성(부산매일 12. 27)
* 부산상의, 부산 조선 내년경기 파란불, 내수, 수출 등 두자릿수 증가 전망(부산매일 12. 27)
* 부산해항청, 양산 '컨' 기지 개장 1년 연기, 토지보상, 연약지반 처리로 공기 차질(부산 12. 27)
* 내무부, 부산관광개발(주) 출범, 30일 현판(부산 12. 27)
* 금정구청, 독서의 요람 금정도서관 개관식, 81억원 투입 지하2층～지상4층 1천500석 갖춰(부산매일 12. 26)
* 부산시 구청장 군수 협의회, 단체장 시종합평가 보이콧, 지방자치 위배 자료제출 집단거부(국제 12. 26)
* 부산지방노동청, 부산, 경남 산재사망 올 68명, 산업안전법 위반 사업장 233곳 적발, 대책마련요구(부산 12. 26)
* 부산교통공단, 도로점용료 법정비화, 행정심판청구, 일선구청 소송불사(국제 12. 26)
* 금정도서관 개관(부산시정 12. 26)

12. 27
* 부산시, 내년 1월 1일부터 등・초본 제도 폐지(시보 12. 27)
* 한국자원봉사연합회, '기능별 자원봉사대' 발족, 5개 분야별 전문인력 활성화 기대(시보 12. 27)
* 부산시, 부실공사 방지 위해 97년 예산편성기준 계정요율 확대(시보 12. 27)
* 부산시, 96년 시정 성과(시보 12. 27)
* 부산시 가정복지과, 국제대회 대비하여 노인・여성・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과 참여 범위 확대(시보 12. 27)

* 부산외대, 캠퍼스 김해 이전 박차, 부지 30여만평 확보(부산매일 12. 28)
* 부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부산 12. 28)
* 진해시, 녹산주거단지 내년 본격 조성, 5개 건설업체, 아파트 4,685세대 건립(국제 12. 27)
* 양산시, 원동면 청정지역 폐기물처리장 추진, 폐수유입 낙동강 수질오염 우려 주민반발(국제 12. 27)
* 시 건설안전관리본부, 붕괴위험 구포고가가교 철거 지연, 대체 우회도로 공사 사업비 없어 표류(국제 12. 27)
*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아주게임 주경기장 건립 하청업체 부도, 공정 1주일이상 중단(부산 12. 27)
* 부산시 감사실, 대형공사 부실투성이, 현장감사 21곳 45건 적발 시정지시(국제 12. 27)
* 위천공단 결사저지 부산시민 총궐기본부, 위천저지 가두방송, 오늘 총력투쟁 방안모색(부산, 부산매일, 국제, 12. 27)
* 부산시, 부산의료원서 대장균 폐수, 버스, 택시회사 등 17개소 적발(국제 12. 27)
* 민주노총, 100개노조 총파업, 노동법반발 확산, 부산지하철 29일 파업(국제 12. 27)
* 부산시, 주차장조례개정안 6개월째 낮잠, 시의회 심사보류, 민원처리 혼선(부산 12. 27)
* 부산시, 기장에 아시아드 민속촌 건립, 부산 관광종합 계발계획 확정(국제 12. 27)

12. 28
* 시, 지난 11월말까지 부산 방문 외국인, 총 93만4천6백여명, 지난해 비 7.7%감소(부산매일 12. 30)
* ㈜삼호산업 식당 영양사 박복련씨, 무의탁노인 1백여명과 위로잔치(부산 12. 30)
* 시, 부산민주운동사 출간키로, 편찬위 구성 실무작업 돌입, 개항기부터 1995년까지, 격동기 저항정신 재조명, 98년 6월 발간 목표(부산매일 12. 28)
* 부산시, 낙동강 하구 환경보존책 수립, 내년 4월 용역발주 98년 확정, 1천200만평, 을숙도 등 개발(부산 12. 28)

12. 29
* 부산교통공단, 부산지하철 파업 이틀째, 비노조원 등 투입 정상 운행 유지, 시, 버스증차 등 비상책 마련,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조업중단 확산(부산 12. 28, 부산매일 12. 30)

12. 30
* 위천공단 결사저지 부산총궐기본부, 공단지정방친 반발, 시청서 농성, 80명 중회의실 점거 무기한 돌입, 내달 10일 시민총궐기대회 계획(부산, 부산매일 12. 30)
* 부산시장,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 발표, 낙동강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특별법에 따라 위천공단 조성 여부 결정을 요구(국제 12. 30)
* 통계청 부산사무소, 지난 1년 부산지역 소비자물가 인상률 4.7%로 전국평균보다 0.2% 높아 울산 5.6%, 마산 4.2%, 연도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80: 32.1%, 83: 1.9%, 86: 1.3%, 90: 9.4%, 91:9.3%, 92: 4.5%, 93: 5.8%, 94: 5.6%, 95: 4.7%, 96: 4.5%)

올 한해 부산 소비자물가 품목별 등락표 (등락률 : %)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식품	일반미(6.3)		비식품	전세(4.5) 월세(3.5) 아파트관리비(5.7)	
	돼지고기(5.6)	쇠고기(한우)(-11.4) 닭고기(-0.6)		등유(23.6) 상수도료(12.5)	
	배달우유(11.1) 시판우유(11.3)			파출부임(10.0)	세탁기(-6.4)
	갈치(33.4)	마른멸치(-18.9) 고등어(-47.3)		티셔츠(여름:10.3)	바지(-26.3) 잠바(-2.9)
	양파(135.0) 시금치(43,7)	무(-33.7) 오이(-34.0)		진찰료(3.3)	
	밀감(35.1) 토마토(33.4)			남입금(사립대:15.5) 유치원비(10.1)	퍼스널컴퓨터(-10.9) 피아노(-4.3)
		고추(-23.3) 고춧가루(-11.4)		휘발유(29.5) 시내버스료(25.0)	
	맥주(7.1)			담배(24.2) 목욕료(성인 8.3)	
	칼국수(8.3) 불고기(12.5) 짬뽕(12.0)				

12. 31
* 정부, 수질개선 9개 대책 발표, 위천공단 지정, 방침 확정 후 여론 다스리기 일관, TK표 잡기 노린 정략산물 지적(부산 12. 31)
* 96년도 종무식(부산시정 12. 31)

1997년

1. 1
* 부산시, 우수 자치구 선발 구청장·군수 반발, 부산시내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부산시의 「행정실적 우수자치구 선발」에 대해 "행정여건 무시·시 통제 강화기도"라며 반발(부산 1. 1)
* 부산·경남 대선 민의, 위천 동의 후보 '표 안 찍겠다', 지지도 박찬종·이회창씨 순…야보다 여 선호, 김 대통령 개혁 "부정적" 46%(부산 1. 1)
* 부산경찰청, 운전 도로주행시험코스 확정, 남부 시험장 3개·북부 시험장 2개(부산매일 1. 1)
* "21세기 살만한 도시로", 새해 연중기획 '부산 대진단' 특별취재팀 가동, 부산대와 제휴해 부분별 입체분석 해법 제시(부산매일 1. 1)
* 시민의 종 타종 및 신년참배(부산시정 1. 1)

1. 2
* 97년도 시무식(부산시정 1. 2)

1. 3
* 부산항 연안항로 시대 개막, 군산 제주 울릉도 「컨」·카페리 투입 예정, 업계 신 영업 전략 수립…서비스 개선 나서(국제 1. 3)
* 위천 결사저지 '삭발투쟁', 총궐기본부 공동대표·구의원 등 5명 결행, 시의원·부산 출신 국회의원 초청 연쇄간담회 개최, 5일째 시청 점거 철야 농성·대학생 선전단도 발대(국제 1. 3)
* 백지화만이 유일 해결책, 「1천만 젖줄」 낙동강을 살리자, 졸속 수질개선책은 기만행위, "정부 모든 책임" 시민 투쟁 가열(국제 1. 3)
* 시, '꽃 있는 부산' 만들겠다, 꽃 거리·축제 등 강력 추진, 국제행사 열기 고취·쾌적한 삶 도모, 문시장 「아름다운 부산 가꾸기」 본보 회견(부산 1. 3)
* 위천 저지, 노동계 연대 투쟁, 위천공단 저지 시민운동에 노동계가 연대할 움직임을 보여, 시민 총궐기대회 등 민노총 동참(부산 1. 3)

1. 4
* 부산시, 해상관광호텔 특혜 의혹, 동백섬 공유수면에 사업 전격 승인, 해운대구청 "선박 오폐수 어장오염 우려" 큰 반발(국제 1. 4)
* 한파 녹인 위천 저지 열파, 여 탈당 촉구·종교계 참여 등 투쟁 강화, 부산시청을 점거 농성 중인 「위천공단 결사저지 부산·경남 총궐기 본부」 부산 본부 측 관계자 와 시민들은 3일 부산시청 앞에서 공동본부장 등 6명의 삭발 투쟁식을 갖고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위천공단 백지화 요구(부산매일 1. 4)
* 부산시립박물관, 문자 유물로 보는 한국 고대사, 부산박물관 복천분관이 개관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특별기획전 「유물에 새겨진 고대문자」를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1층 전시실에서 열려(국제 1. 4)
* 부산가톨릭 적극 동참, 위천 저지 총궐기 초읽기, 투쟁본부·부산국회의원 정부대책 강력 규탄, 부산가톨릭계가 위천공단저지 시민운동에 동참할 방침이어서 위천 저지 운동이 범종교계로 확산(부산 1. 4)
* 가덕 신항 올해 착공, 올해 부산 가덕 신항·목포 신외항 등 전국적으로 5개 신항만 개발공사 착공, 부산 감만 부두는 연말 완공(부산 1. 4)
* 하수슬러지 첫 퇴비 재활용, 투기비용 연 4억 절약, 채소 등엔 유해여부 조사 후 사용 결정키로(부산 1. 4)
* "「위천」 발표 땐 신한국 탈당", 내주 초 긴급의총 소집 최종결정, 민주당 시지부도 6일부터 단식 농성(국제 1. 4)
* "위천 저지 도청 점거 농성, 경남본부 30개 시민단체 참여 대정부투쟁 격화, 부산본부 종교계 야권 기초단체장과 연대모색(국제 1. 4)

1. 6
* 부산해항청장, 부산 국제 여객 부두 신축, 내년 착공 2002년 완공…용역비 20억 편성, 민자 유치 호텔·상가 갖춘 초대형 복합건물(국제 1. 6)
* 시의원 2명 "위천 반대" 사퇴, 정부의 위천공단 지정 움직임과 관련 부산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원 2명이 낙동강 살리기와 위천공단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의원직 사퇴(국제 1. 6)
* 「하얄리아」 이전 협상 결렬,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선수촌이 들어설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하얄리아부대 이전 협상이 결렬 돼 선수촌 건설 등 아시안 게임 준비작업 차질 예상(국제 1. 6)
* '위천 저지' 동참 확산, 「위천공단 결사저지 부산·경남총궐기 본부」가 부산시청 에서 점거농성 중인데 이어 경남본부측도 경남도청을 검거하고 천주교 부산교구와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 및 목요학술회 등 각 단체가 잇따라 위천 반대투쟁에 동 참키로(부산매일 1. 6)

* 신선대「컨」터미널 IOS획득, 업무 전 분야는 항만업계 최초, 국제신뢰도 높아져 선박유치 도움(국제 1. 6)
* 시민단체・교육위원・민주당 등 위천 저지 단식 투쟁, 대구 위천공단 조성반대에 대한 시민 및 사회단체들의 동참 확산(부산 1. 6)
* 정관 신도시 '공영' 개발, 올 하반기 지구고시 99년 착공 2006년 완공, 인근에 지방공단도 조성, 주택난 및 택지난 해소・부산 북부지역의 거점 생활권 확보 등 목적(부산 1. 6)
* '교통 수요' 바짝 죈다, 10부제 미 참여 승용차 공영 주차요금 할증, 시차출근 땐 교통 부담금 경감…조례 곧 개정(부산매일 1. 6)

1. 7
* 시의원 10명 또 사퇴서, 정부의 위천공단 지정 움직임에 항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이 사퇴한데 이어 신한국당 소속의 기획재경위 위원 10명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 제출(국제 1. 7)
* 부산・경남 55개 사업장 파업, 방송 4사 오늘 돌입…병원 10일 합류,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을 날치기 처리한데 항의하는 노동계의 2차 총파업이 검찰의 주동자 소환장 발부 등에도 대기업체를 중심으로 일제히 시작(부산매일 1. 7)
* '위천 저지' 범시민 항쟁 가열, 부산・경남지역 일선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오는 10일「범시민 항쟁대회」에 적극 동참할 것을 공식 청명하고 부산지역 6개 종단도 총궐기를 선언하는 등 갈수록 반발 열기 고조(부산매일 1. 7)
* 시교육청, '교사 초빙제' 올해 시범 도입, 학부모 등 요청하는 교원 임용, '학교장 초빙제'는 확대 실시키로(부산매일 1. 7)
* 위천 저지 각계각층 총 동참, 종교인・지식인 등 10일 부산역에서 열릴 시민 항쟁 대회 대 집결(부산 1. 7)
* 「하나로 교통카드」 시행 또 연기, 요금결제 시험 성공률 90% 밑돌아, 이달 실시서 3월 실시로 연기(국제 1. 7)
* 교장 초빙제 4개교 추가, 지난해 시범 실시된 학교장 초빙제가 올해 4개교 더 확대되고 교사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초빙제 실시(국제 1. 7)
* 부산시, 61개 역점사업 추진, 올해 동아시아 경기대회 개최 등에 대비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환경보전 및 시민 생활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경제 등 6개 부문에 61개 역점사업 추진키로(부산 1. 7)
* 부산시장배 스키열전 돌입, 제6회 부산시장배 및 제12회 부산시협회장배 스키대회가 7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초등부 알파인대회전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열전 시작(부산 1. 7)
* 녹산 아파트 단지 이달 착공, 명지주거단지와 달리 지반연약의 우려가 없는 녹산 국가 공단 배후주거단지 아파트 8천3백여세대 등 공사가 연초부터 본격 시작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시작(부산매일 1. 7)
* 종교계 위천 저지항쟁 가열, 오는 10일 부산역광장에서의 위천공단 반대 범시민항쟁 대회를 앞두고 각계의 참여열기가 높은 가운데 부산지역 종교단체와 16개 자치구군 단체장・의회도 범시민항쟁대회 적극 동참과 지원 약속(국제 1. 7)
* 정부, 토요전일 근무 고위직만 유보, 7일 공무원 토요전일 근무제의 현행골격을 유지하되 중앙부처 본부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 대해 이 제도의 시행을 잠정 유보키로(국제 1. 7)

1. 8
* 위천공단지정 3월로 연기, 정부는「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특별법」제정 뒤 대구 위천공단을 지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단 지정시기를 당초 1월에서 3월로 연기키로(부산 1. 8)
* 서낙동강 수상공원 조성, 아시안게임 조정・카누경기장과 승마경기장이 들어서는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일대가 종합관광・위락단지를 갖춘 수상공원으로 조성(부산 1. 8)
* 총궐기본부,「위천」저지 가두투쟁 강화, 종교계이어 문인단체・교수도 잇단 동참키로(국제 1. 8)
* 「위천」지정 3월께로 연기, 영남지역에 식수전용 댐 4~5곳 건설키로 이총리 밝혀, 수질개선특별법 의원입법으로 추진(국제 1. 8)
* 선 수질개선 강력촉구, 문정수부산시장이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공식비판하고「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 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국제 1. 8)
* 부산교통방송 기공식, 올 하반기에 개국예정인 부산교통방송 기공식이 9일 남구 대연동 도로교통 안전협회 부산지부 내 신축예정지에서 열려(국제 1. 8)
* 동아시아 경기대회 4개월 남았는데…경기장 주변 도로 정비 부진, 보상・철거로 마찰…예산집행도 지연(국제 1. 8)
* 제2회 PIFF 10월 개최, 조직위 발표 베니스 영화제・극장 사정 감안 결정(국제 1. 8)

* 부산시, 정관 개발계획 확정, 오는 2006년까지 조성될 정관신도시를 포함한 정관 지역 1천1백56만1천평에 대한 세부적인 도시개발계획 확정(국제 1. 8)

1. 9
* "위천 저지 전세계가 주시", '인터넷' 통해 각국 환경단체에 낙동강 살리기 호소, '네티즌' 1억명 접속…유엔 네트워크엔 주요이슈로(부산매일 1. 9)
* "위천 원천 취소하라", 위천 저지를 위한 시민 총궐기 본부와 부산시는 8일 일제히 기자회견과 특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위천허용방침 철회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정부의 위천공단 조성방침에 강력히 반발(부산매일 1. 9)
* 부산 강서구 「군」 전환 추진, "그린벨트 완화・농어촌 지원혜택 불이익", "서부산권 중심" 행정명칭 변경 부적절 지적도(국제 1. 9)
* 부산도 내일 병원 파업, 동아대 등 8곳 출정식 2천여명 참여 환자 진료 '비상', 병원노련 사복착용・중식집회 개최(국제 1. 9)
* "「위천」 저지" 내일 총 궐기,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서 대규모 범시민항쟁 대회 개최, 경남은 창원 실내 체육관서 시민대회 개최(국제 1. 9)
* 정부, 지방은행 영업구역 제한 완화, 금융개혁의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지방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고 특수은행을 가급적 일반은행으로 전환하는 한편 증권과 투자신탁회사 업무영역 통합 문제 검토 중(부산 1. 9)
* 평균수명 연장 노령화사회 진입, 통계청 발표 인구 추계조사, 95년 73.5세 2010년엔 77세로 높아져, 65세 이상 비율 2000년 7.1%로 늘어(부산 1. 9)
* 시의회 별도집회 계획에 '울분', 부산 - "시의원 사퇴 앞서 신한국 탈당하라", 경남 - 격려방문・성금전달 쇄도 사기 충전(부산 1. 9)
* 부곡시영 임대 아파트 분양신청 거부, 녹물・누수 등 건물수리 않고 일방전환, 주민 선 하자 보수 요구(부산 1. 9)
* 음식 쓰레기를 줄입시다② 퇴비・사료로 자원화 절실, 부산 작년 재활용률 63%(부산 1. 9)
* 다대 홍티천 황폐화, 또 폐수 수백m 시뻘겋게 오염, 당국의 무관심과 책임회피로 홍티천 황폐화(부산 1. 9)
* 위천 저지 골목골목 '불길 참여', 서민들 "맑은 물 염원 방관할 수 있나요", 감전동 청노회-비용 각출 플래카드 설치, 모라동 정목회-이웃대상 서명운동・홍보, 명륜 동 시싯골-총궐기본부에 김밥 봉사(부산 1. 9)
* 위천 저지 끝까지 투쟁, 범정부 규탄 부산・경남 총궐기, 부산역 광장 - 「시민항쟁 대회」 대집결, 창원체육관-종교・학계 등 대거동참(부산 1. 9)
* 신한국당・경찰 왜 이러나, 위천 궐기 방해 '물의', 구청장・단체에 "참석말라" 압력, 대회본부 "저항운동 전개" 경고(부산 1. 9)
* 부산 8개병원 파업 돌입, 응급실 등 부서별 필수인력 계속 근무, 전국병원노련 부산지역본부 소속 동아대 일신기독 고신의료원 춘해 부산백병원 동래 봉생 대남병원 등 8개 병원 노조 파업 돌입(부산 1. 9)
* 가덕신항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부산가덕항만(주) 지정, 고시내용 수정 요구 많아 난항 예상, 정부 "협상 안 되면 공사구역 분할"(국제 1. 10)
* 부산교육청, 교사 부조리 뿌리 뽑는다, 일선교사들의 촌지수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직사회부조리 암행감찰반 운영키로(국제 1. 10)
* "「위천」 백지화 끝까지 투쟁", 부산・경남 1천만 '마실 물 확보' 총궐기, 부산역 광장・경남창원 체육관 2군데서 210개 단체 1만6천명 참석, 총궐기본부 신한국당 분열책 즉각 중단 촉구(국제 1. 10)
* 강서구청 신청사 오는 16일 기공, 261억 투입, 지하 2층・지상 7층…99년말 완공 예정(부산매일 1. 10)
* '교통방송' 5월에 전파 띄운다, 부산서 반경 50㎞이내 지역 청취 가능, 서울에 이어 전국 2번째(부산매일 1. 10)
* '위천 종식' 오늘 대항쟁, 부산・경남 동시에 사회단체・노동계・대학 등 5만 이상 집회 참석(부산매일 1. 10)
* 부산진구, 구상징 마크 새로 지정, 기본・컬러 변형 등 2종…"유통・정보중심지" 강조, 지난 10일부터 사용 시작(부산매일 1. 13)

1. 11
* 「위천」 저지 열기 '도심 폭발', '낙동강 살리기' 오색 깃발 물결, 가두행진에 시민들 박수・환호(국제 1. 11)
* 전국 환경운동연합 긴급회의, 위천 저지 투쟁 결의(부산 1. 11)
* "생명 수 말살행위 중단하라', 위천 저지 시민항쟁 대회 2만6천명 봇물, 3백여 단체 총궐기본부 조직 확대(부산 1. 11)
*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3호선 낙동강구간 고가화 된다, 「고가화-지하화 논란」을 빗었던 부산지하철 3호선(아시아드선)의 낙동강횡단구간 공법이 고가화로 결정(부산 1. 11)
* 부산시, 시민감사관제 도입, 대학생 등 요원 위촉, 기관 감사 청구제・민원부서 불시 감찰도(부산 1. 11)

1. 13 *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3호선 김해까지 연장 검토, 강서구 건의 수용 타당성 조사(부산매일 1. 13)
* 정부, 낙동강 '수질개선기획단' 발족, 총리실 직속으로 관련 예산・사업 집행 총괄, 내주 초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족 예정(부산매일 1. 13)
* 장전2동 애광원 내 5월 착공, 금정구 장전2동에 위치한 노인수용 시설 애광원 내에 노인치매 전문 요양 시설 들어서, 노인수용 시설 내에 노인치매요양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부산지역에서 처음(부산매일 1. 13)
* 동래구청, 동래사적공원 생태계 복원 추진, 58만㎡에 야생동식물 방생, 보호육성 회도 구성…도시 속 자연 조성(국제 1. 13)
* 부산항 '컨'화물 증가율 둔화,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화물 증가율이 90년대 들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부산 1. 13)
* 중구청, 흑교로 확장 시 지원 요청,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고 시민들의 불편 불만을 수렴하기 위한 97년도 시・구(군)정 설명회서 건의(부산 1. 13)
* 부산시, 파업대비 비상교통대책 수립,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동시 파업에 대비해 비상 교통 대책 수립(국제 1. 13)
* 낙동강 연구센터 설립, 문시장 회견 수질현황 등 담은 백서도 발간(국제 1. 13)
* 부산시, 낙동강연센터 설립,「낙동강 연구센터」설립해 낙동강문제를 전문적이 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낙동강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위한 기금조성 방안 마련키로(부산 1. 13)
* 부산시, 체육회 업무 공백 "심각", 사무처장 1년간 공석 방치 '현안'해결 팔짱만(부산매일 1. 13)
* 구・군 시정설명회(중구)(부산시정 1. 13)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363호)(부산교육 1. 13)

1. 14 * 위천 절대 불가 거듭 천명, 저지 총궐기본부 "수질개선이 최우선" 정부에 뜻 전달(부산 1. 14)
* 연근해 '어기파괴' 이변 속출, 철지난 오징어・전어 풍어…하루 만 상자 위판, 본격 어획기 맞은 부세・삼치 어군 자취 감춰(국제 1. 14)
* 부산시, 생곡 젖은 쓰레기 하반기 금지, 젖은 쓰레기의 기준 설정 작업, 올 하반기부터 젖은 쓰레기의 생곡 매립장 반입중단조치 취해질 전망(국제 1. 14)
* 회사 택시 1만대 '올스톱', 부산지역 대중교통 파업 첫날, 버스・지하철 몰려 출근 승객「짐짝 고통」, 카풀 희망자 쇄도・탑승 거부에 곳곳 시비(국제 1. 14)
* 부산시, 생곡매립장 젖은 쓰레기 반입 오는 7월부터 전면 금지, 침출수 발생・운송비 증가 등 문제 많아, 내달 시범실시 예정(부산 1. 14)
* 정부, 낙동강「수질대책지역」검토, 1~2급수 추진 3년 지나도 개선 안 돼(부산 1. 14)
* 부산시, 해안 기본 개발안 만든다, 광안리~기장군 52.8㎞ 항만・공유수면 매립 계획, 3월부터 용역비 4억 투입(부산 1. 14)
* 출근길 서둘러 큰 혼란 없어, 회사택시 파업 시민들 버스・지하철 이용 늘어, 파업 미동참 차량과 곳곳 마찰(부산 1. 14)
* 부산시, 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책 마련, 택시부제 해제・전세버스 투입(부산매일 1. 14)
* 부산시, '낙동강 연구 센터' 설립,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마련과 정부의 수질개선 특별법제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낙동강 연구센터」설치키로(부산매일 1. 14)

1. 15 * 기장군 개발기본계획 확정, 동부산권 중심 도시로, 용당 동명정보대 부지도 최종 결정, 시도시계획위 12건 심의(부산 1. 15)

1. 16 * 정부, '4대강 특별법' 공단 규제 외면, "위천 강행 호도책" 반발, 낙동강 수질개선・위천공단 반대 여론 대책으로 특별법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나 정부의 특별법 구성에는 공단건설 등 무분별한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내용이 없어 법제정 실효성에 의문 제기(부산매일 1. 16)
* 지하철 공사장 2단계 2구간 고압전선 훼손 '비상', 화재로 정전사태 빈발, 최근 4건…신시가지 등 주민 불편(부산 1. 16)
* 아주대회 주경기장 공사 '난항', 하청 업체 부도・설계 변경 등 공기 지연 우려(부산매일 1. 16)
* '부산 선물거래소' 청와대에 건의, 부산상공회의소 일행 5명은 청와대를 방문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정부의 부산지역 개발계획의 실천방안의 하나로 선물 거래소를 부산에 유치해야 할 필요성 강조 예정(부산매일 1. 16)
* 부산지역 중업 ISO 획득 부진,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들도 ISO품질 경영체제 인증 획득 실적이 늘고 있는데 반해 부산지역 업체들은 전국 총 50여개 인증 업체 중 68개사에 불과(부산매일 1. 16)

* 「위천」 백지화 강력 촉구, 궐기본부대표단 총리면담 “어떤 오염원 건설도 반대”, “낙동강 수질 개선에 최소한 10년 필요 강조”(국제 1. 16)
* 주거개선 지구 6곳 추가 지정, 현지 개량 방식 채택…시내 전역 총 80개 지구, 추후 불량 건축물 밀집・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 갖춰져 있지 않은 시내 6개 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 지정(국제 1. 16)

1. 17
* 정부, ‘위천 강행’ 불변, 이총리 수질・공단 분리 추진 첫 공식화, 부산・경남 대표단 면담서 “수용 불가” 전달(부산매일 1. 17)
* 부산해항청 조직 대폭 정비, 청장 직급 상향・수산 조직 흡수 등 검토, 3월께 업무・정원 내부적 조정 계획(부산매일 1. 17)
* 가덕 신항 착공 10월로 앞당겨, 신해수부 과도 인센티브 요구 땐 공구 분할(부산매일 1. 17)
* 부산지역 L/C내도액 “제자리”, 작년 수입승인서는 급증…10억불 밑져, 수출신용장 내도액은 경기부진으로 제자리걸음했으나 사업승인서 발급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 L/C 내도액을 10달러 초과(부산매일 1. 17)
* 동구 도서관 증산공원서 기공식, 23억 들여 올 연말 완공 목표(부산 1. 17)
* 시내버스 노선 조정위 표류, 시・시민단체 인선 이견, 지하철 2호선 내년 개통…구성 시급(부산 1. 17)
* 삼락천 집단 식육 업소 오수 방류, BOD 기준치 8배나 초과, 업체 영세 정화시설 없고 규제 안 돼(부산 1. 17)
* 부산항 안전대책 적극 추진, 항로 유도시설 확충・노후선박 검사관 배치(부산 1. 17)
*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낙동강 수질 급속 악화, 물금 BOD 5.4㎎ 4급수 육박…조류 늘어 강알카리성으로 변해(국제 1. 17)
* 「위천」 저지 전열 재정비, 총궐기본부 전국민적 반대운동으로 확산 방침, 이총리 면담 결과 「병행 추진」 확인(국제 1. 17)
* 오폐수 방류 무더기 적발, 부산지역 상당수 오수 배출 업체들이 기준치 3~7배 초과한 오수 무단 방류(국제 1. 17)
* 동삼 「컨」 하치장 재검토 번복, 해항청-“반대 이유 없다” 의견서, 주민들 “속였다” 반발 충돌 우려(국제 1. 17)
* 감사원, ‘녹산’ 관리비 사전 징수, 지난해 중소기업육성 지원 실태 특별 감사에서 부산시 등 3개 기관이 녹산 공업단지 등 4개 공단을 분양 받은 업체들로부터 관리비를 길게는 7년 6개월 미리 징수한 사실 적발, 195억 환불 통부(부산매일 1. 17)
* 동래시장・사직터미널 안전취약, 내무부 거물균열・가스 배관 등 위험 조치 촉구(부산매일 1. 17)
* 낙동강연구센터 개소(부산시정 1. 17)

1. 18
* 사상구의회 업무시간에 예산 전용 개최 의장단 축하연 “말썽”, 부산 사상구의회가 의회예산으로 업무시간에 공무원과 단체장들을 모아 놓고 신임의장단 취임 축하연을 개최 절반가량의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말썽(부산 1. 18)
* 부산시, 시정책 토론청구제 도입, 시민 시정 참여 전국 첫 시행, 3백명 이상 연서 제의 땐 회의 개최, 공무원 시민단체 가입 권장(부산 1. 18)
* 음식 쓰레기를 줄입시다③ 부산 「분리배출・수거」 극히 저조, 비닐・이쑤시개 등 섞여 재활용 애로(부산 1. 18)
* 환경운동 중산층 참여 확대한다, 지식인 주축 부산 녹색연합 창립, 교통・중수도시시스템 등 지역 현안 주력 키로(부산 1. 18)
* 부산시, 시민단체 시정 참여제 도입, 시책 토론 청구제도 실시…전국 처음(국제 1. 18)
* 부산시 교육청, 부산 중・고 수업료 4.9% 인상, 18일 올해 중고수업료 인상률을 4.9%로 최종확정 발표, 입학금은 중학교 5%・고교 4.4%씩 인상키로(국제 1. 18)
* 물 관리 조정위 이달 말 발족, 낙동강 수질 개선 정책 심의 일차 과제(국제 1. 18)
* 정부, ‘물 관리위’ 월말께 발족, 낙동강 등 4대강 수질 개선 효율화 기대(부산매일 1. 18)
* 부산시, ‘낙동강 연구센터’ 출범, 수질 개선 방안 등 체계적 마련(부산매일 1. 18)
* 공동어시장 수입수산물 위판 추진, 전국 처음 7월부터 ‘설립취지 위배’ 연근해 어민 반발(부산매일 1. 18)

1. 20
* 부산 교도소 무기수 탈옥, 20대 강도치사범 신창원, 경찰 전국 수배 검문검색 강화키로 감방환기통 뜯고 새벽 탈주, 부산교도소 강도치사죄 복역 20대 무기수 신창원 공사장 버팀목 타고 월장, 인근 농원서 옷 등 훔쳐 달아나(부산 1. 20)
* 물금 신도시 3월 분양, 8개 업체 1만2천여 아파트, 19만 수용 교통 중심지 각광(부산 1. 20)
* 강서 구청 신청사 기공식, 99년말 완공 연건평 1천200평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부산매일 1. 20)

1. 21 * 연내 공무원 2천명 감축, 경쟁력 10% 제고방안 확정, 지・파출소 초중고 100곳 통폐합, 국공립 병원 등 민간 이양도 적극 추진(국제 1. 21)
* 부산 10개 민자 사업 활기, 11개 기업 의향서 제출, 명지대교건설 등 20개 업체 참여 희망(부산 1. 21)
* 낙동강 4급수 전락, 갈수기 맞아 수질 악화(부산 1. 21)
* 명지주거단지・해운대 신시가 미분양 택지 '골치', 부산시 간부 동원 1인 1필지 팔기 운동 등 벌여, 건설사 철수통보・공사비 미확보로 체임 우려(국제 1. 21)
* 부산시, 파행인사 물의, 업무능력보다 특정 보직 중시 관행 되풀이(부산매일 1. 21)
* 시의회 올 회기계획・중점 사안, 위천 저지・아시안 게임 점검 '최대 현안', 정기・임시회 합쳐 총 8회 120일, 신청사로 옮기기 전 활동 마무리짓기로(부산매일 1. 21)
* 동북아 4개국 정보 공동체 추진, 부산 중심도시로 자리 잡는다, 제1회 아이빅심포지엄 중장기 계획 발표(부산 1. 21)
* 동현중 멀티미디어 화상 교육 시연(부산교육 1. 21)
*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부산교육 1. 21)

1. 22 * 예산 1조・공무원 2천명 감축, 3천명 미만 동 통폐합…국공립 병원 민간 위탁, 정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방안 확정(부산매일 1. 22)
* 금정구청, 요산 기념관 세운다, 예산 1억 배정 가옥 매입 수립, 고 김정한 선생 부산 남산동 생가 복원, 일제하 청소년 시절 보내「사하촌」집필 때 거주, 문단・예술계・시민 등 참여 기념사업회도 구성(국제 1. 22)
* 강 오염 날로 악화…「천혜의 산란장」황폐화, 낙동강 하구 어류 사라졌다, 94년 12종 1만5천마리→95년 8종 1167마리→96년 전무(국제 1. 22)
* 외지 건설사 부산・경남 시장 잇단 진출, 쌍용・우방 등 틈새 공략…올 7천여세대 분양(부산매일 1. 22)

1. 23 * 부산지법, 부산지법도 첫 봉사 명령,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라 부산지법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인에게 150시간 사회봉사 명령 내려(부산매일 1. 23)
* 부산시, 을숙도 2차 쓰레기 매립마찰 예상, 인근 주민이나 관할 부산 사하구청에 대한 충분한 설득 없이 다음 달부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쓰레기 2차 쓰레기 매립장 잔 여지에 쓰레기를 묻을 방침이라 마찰 예상(부산매일 1. 23)
* 부산・경남 겨울 가뭄 '비상', 석달째 계속된 가뭄으로 취수원 수위・수질악화, 기장・남해안 등 수천세대 제한 급수(부산 1. 23)
* 신시가지 공원・녹지 부실조성, 나무 고사・산책로 불량, 준공 후 관리도 잘 안 돼 "쾌적 환경" 빈말(부산 1. 23)
* 양산 화물터미널 연내 완공, 김해공항・부산지하철 사업 계속, 진주 광양권 등 광역 개발 본격화(부산 1. 23)
* 낙동강 하구 오염물질 흡수 진흙 퇴적, 지형・생태계 급속 변화, 둑 공사 이후 새 모래섬 수 급증, 방치 땐 하류전역 황폐화 우려(부산 1. 23)
* 부산 '마실 물이 없다', BOD 6.0㎎ 갈수기 낙동강 수질 4급수로 전락, 조류 농도 급속 상승・부영양화 심각, 약수터 세균오염 66곳 부적합 판정(국제 1. 23)
* 해운대 '꽃의 도시' 조성 본격화, 각종 국제행사 대비 주요도로・강변・아파트 단지 등 단장(부산매일 1. 23)
* 지방행정기관 한 곳에 모은다, 총무처 올해 업무 계획 발표, 부산 등 19개 시 통합 청사 건립 민원・업무 협조 효율성 위해(부산매일 1. 23)
* 음식물 안 남기기 추진 계획 수립 및 시달(부산교육 1. 23)

1. 24 *「위천 저지」조직 확대, 부산궐기본부 환경・법률 등 자문단 신설(부산 1. 24)
* 낙동강 연구센터 출발부터 '삐걱', 예산 부족・조직 미정비…취지 무색, 여론 밀려 준비 없이 발족만 서둔 결과(국제 1. 24)
* 부산시, 암남동에 하수처리장 건립, 중구와 서구 지역 하수 처리, 하루 23만㎥ 처리규모 2002년 완공(부산매일 1. 24)
* 부산항 부두 운영 회사제 '안개 속', 하역업체 선석운영지침 미흡…선사・화주 불만, 화물 내륙 운송권 갈등도(부산 1. 24)
* 교원 미술 전람회(부산교육 1. 24)

1. 25 * 명지대교 건설 차질 우려, 가덕도 신항만 및 녹산・신호공단 물동량수송 위해 추진 중인 명지대교가 연약 지반이라는 지질상 특이구조로 인해 건설에 차질 우려(부산 1. 25)

* 새 시청사 배치 싸고 마찰, 시・시의회 알력에 감사원 특별 감사, 2층 전시실 특위서 사용 요구, 공기지연・예산 낭비 등 부작용(부산 1. 25)
* 군부대 119구조대 53사 전국 첫 발족, 전국 군부대로서는 처음으로 부산향토사단인 진충부대가 재난발생 때 인명구조를 주임무로 하는 119구조대를 발족(부산 1. 25)
* 지하철 공사 도로 점용료, 시 관할 구청에 면제 지시, 부산교통공단과 자치구청이 지하철공사장 구간도로 점용료 부과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관할구청들에 도로점용료 면제지시를 내려 사태해결의 실마리 마련(부산 1. 25)
* 해운대 온천센터 본격 추진, 육군본부의 반대로 지연돼온 부산시의 해운대온천센터건립 사업이 육군본부측의 요구사항을 시가 적극 수용키로 해 본격 추진(부산 1. 25)
* 부산 AG사업 추진 "삐걱", 선수촌・테마공원 등 조성 부서・지역 간 이견(부산매일 1. 25)
*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불법 용도 변경 "기승", '실내장식 영업장' 활용 23세대 무더기 적발(부산매일 1. 25)

1. 27
* 교차로 통행체계 바뀐다, 올 안락・조방 등 4곳 로터리식 도입, 2001년까지 21개소 추진(부산 1. 27)
* 남포동 건어물시장 재개발 구체화, 연말까지 공청회・심의…내년 하반기 착공(부산 1. 27)
* 시내버스 횡포 여전, 지난해 요금 2번 인상과 대시민 자정결의 등에도 불구 승차 거부・정류소 통과 등 횡포 줄지 않아, 신고건수 2%늘어…택시는 15% 감소(부산 1. 27)
* "수영강 하류 관리권 전면 이양을", 현 3원체제 효율 미비, 수영구・의회・주민 오염 가속화…관광지로 개발해야(부산 1. 27)
* 톨게이트 외곽 이설・터미널 노포동 이전・지하철 3호선 지선・동해남부선 복선화 교통 현안 제자리, 중앙정부 비협조 차질 빚어, 착공 제때 못해 교통난만 가중(부산 1. 27)
* 부산시,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올 상반기부터 공공행사 과다 음식제공 단속, 겨울 주2회 여름 주3회 수거키로(부산 1. 27)
* 부산에 첫 실버타운, 노인들을 위한 유료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29일 착공 99년 개관(국제 1. 27)
* '동래사회복지관' 내일 첫삽,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내년 상반기 개관(부산매일 1. 27)
* 과소동 통폐합 주민 반발, 행정 생산성 제고 위해 16개 구군의 인구 5천명 이하 17개 동에 대해 통폐합 추진에 대해 일부 구 군과 주민들 반발 마찰 예상(국제 1. 27)
* 낙동강 새 상수원 본격 개발, 부산시정보고 남강 상류 4개소형 댐 조기 건설, 한강 수계연결 사업도 타당성 조사(국제 1. 27)

1. 28
* 신선대에「스페이스 월드」추진, 우주박물관・전시관 조성, 매립지 8만평에…미업체와 협의 중, 이기대 58만평과 연계 개발(부산 1. 28)
* 부산 교통 계층 권역 확대, 김해・양산에 마・창 포함, 41개 읍・면 추가…건교부 상반기 중 고시(부산 1. 28)
* 「위천」저지 2차 투쟁 결의, 부산총궐기본부 공청회・가두선전 등 논의, 문시장 방문 낙동강 취수 중단 요구(부산 1. 28)
* 부산 식수 전용 댐 추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식수전용 소형댐건설과 한강 수계연결문제가 올해 부산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관광산업이 부산전략 산업으로 육성(부산매일 1. 28)
* 대구・서울 등 전국 환경운동 연합, 위천 공동저지 돌입 선언, 부산・경남은 물론 대구・경북과 서울 등 전국 27개 지역 환경운동 연합이 위천공단 반대 공식 선언(부산매일 1. 28)
* 부산 교통권역 대폭 확대, 부산 교통권역이 마산・창원을 포함한 광역권역으로 확대・지정(부산매일 1. 28)
* 법무부, 무기수 탈옥 부산교도소 감사, 교정국 교도관 4명이 무기수 신창원 탈옥 사건과 관련한 전면감사 시작, 교도소장・보안과장 직위 해제(국제 1. 28)
* 부산시, 보상 업무 전산화, 도로건설 택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업무 전반을 전산화 내달부터 시행, 민원인 불편 감소 및 업무처리 기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 조기 착수 가능(부산 1. 28)

1. 29
* 부산교육청, 학원 수강료 '바가지', 202곳 초과징수 7억8천만원 환불, 111곳 세무조사 의뢰・6곳 고발(국제 1. 29)
* 부산시, 부산 신항 남・북항 동시착공을, 북항 우선 개발 반발…정부에 요청(부산 1. 29)
* 자치구도 쓰레기 배출량 점검, 허용량 초과 수거 중단, 사상구-엄궁동・부산청과(주)에 31일까지(부산 1. 29)
* 산성터널 공사 내달 착수, 부산 금정산 중심을 동서로 관통하며 부산시내 북구와 금정구를 잇는 산성터널 축조사업 본격화(부산매일 1. 29)
* 부산시, 올 정보화사업 원년 선언, 시장 등 30명 협의회 발족…광역 정보 센터 구축(부산매일 1. 29)

1. 30 * 기초 자치 단체 평가제 폐지 건의, 전국 협의회 「광역」서 통제수단 악용 소지(부산 1. 30)
* 부산시, 예산수혜 최하위, 15시도 비교 1인당 세금 부담액은 7위(부산 1. 30)
* EAG D-100 '카운트다운', 부산항 개항 이래 첫 국제 종합 대회인 제2회 부산 동아시아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와, 자원봉사자 오늘 발대식…대회준비 박차(국제 1. 30)
* 부산시, 지하철 아시아드선 연장, 서연정~강동동 구간 2㎞ 추진(국제 1. 30)
* 부산 제조업체 하루 1.2개씩 도산, 만성적 자금난・판매난 등으로 부산 제조업체가 하루 평균 1.2개씩 쓰러진 것으로 조사(부산 1. 30)
* 한보 피해 구제 신청 부산 업체도 속출, 한보 부도파장이 한보철강 부산제강소의 협력업체들에게로 점차 확산, 중기청 이틀새 23사 90억원…원진 최대(국제 1. 30)
* 가덕 신항 2008년 완공, 3년 단축 터미널 운영 자동화…수심은 16m로, 해양부- 삼성 컨소시엄 합의(부산매일 1. 30)
*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D-100일기념 카운터다운판 설치・점등식(부산시정 1. 30)
* 부산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 2006년 목표 부전 역세권 개발 계획도 연내 수립(부산매일 1. 30)

1. 31 * 공영 주차료 44.4%인상, 부산 1급지 30분 1,500원…2월 말 시행, 개정안 내달 3일 의회 통과 확실시(국제 1. 31)
* 부산시, 하천 중금속 오염 심각, 준설 등 각종 하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하천 퇴적물의 중금속 농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중금속기준 설정 등 대책 마련 요구, 삼락천 기준치 24배 카드뮴 검출(국제 1. 31)
* 대동조선 1차 부도, 한보그룹의 위장 계열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 진해시 소재 대동조선 결국 부도, 86억원 지역여신 2천83억 규모…150개사 피해(국제 1. 31)
* 부산・인천 선원복지회관 연내 착공, 해양부 부지제공 울산・광양 등에도 연차로 건립(부산 1. 31)
* 공영주차료 44% 인상, 부산시의회 조례개정안 수정 통과, 이르면 3월 시행, 체증해소엔 의문, 1급지 기본 30분 1천5백원, 신축 건물 주차장 상한제도입, 주거지 전용 주차세 시범실시(부산 1. 31)
* 부산시, 의회보고-녹산에 시영임대 공장 건립 인구 5천명 미만 동 통・폐합(부산매일 1. 31)
* 새 조례 대형학원 일방 유리, 기준 강화・「재학생 종합반」 허용, 단과학원 신설을 골자로 한 「부산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31일 부산시의회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통과돼 3월부터 시행 예정(부산 2. 1)

2. 1 * 부산시, 2월부터 방역 실시, 과거 발병지역 중심으로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2월부터 조기 방역 실시, 집단 발병 지역 등 31곳 대상 시행(국제 2. 1)
* 부산시, 공항로 확장 입찰자격 완화, 부산 건설업체들 건의 수용해 공항로 확장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완화키로(부산 2. 1)
* 생곡매립장 부분 재시공으로, 시 종건본부 "전문기관 연구 결과 보완 공사로 충분", 전년 재시공 계획을 부분 재시공으로(부산매일 2. 1)
* 부산시, 「환경도시」 개발 적극 추진, 5개년 종합 계획 마련, 시민의식 반영…오는 5월 착수(부산 2. 1)
* 신시가 제척지 도로개설 늑장, 예산 부족 2개 계획로 착공조차 못해, 지역낙후 이질감 가속(부산 2. 1)
* 겨울가뭄 부산 취수 비상, 낙동강 수질 악화 제한급수 검토, 이달 중 취수량 30% 감소 예상(부산 2. 1)
* 부산본부세관, 태반화장품 밀수・국내 유통, 미국산 태반 성분 화장품 밀수입 후 다단계 판매에 의해 대량 유통, 판매상 등 수배・유해 여부 규명(부산 2. 1)
* 부산시, 부산 신항 개발 남북항 동시 착공 촉구, 해양부・삼성물산 등에 건의(부산 2. 1)

2. 3 * 상의 지역 경제난 '팔짱만', 한보・대동 조선 피해 실태조차 파악 못해, 불황 타개 부산 종합 상사 출자 모집 거부(국제 2. 3)
* 부산시, 올해 해양 문학상 제정, 8월 심포지엄서 구체적 방안 마련…내년부터 시상, 부산 문학계의 숙원이던 「해양 문학상」 제정방침 확정, 해양 문학 도약 길 열려(국제 2. 3)
* 부산시, '낙동강 관리 특별법' 건의, 주중 정부 관계부처 보내 수용 촉구, 낙동강 수질 개선 위해 낙동강 유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부산시안을 입안(부산매일 2. 3)
* 부산시, 교통정책 "편의주의", 대중교통수단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없이 도심 주차료 인상・특급 좌석 버스만 늘리는 등 요금인상으로 직결되는 교통수단 고급화에 나서 시민부담만 가중 시킨다는 지적(부산매일 2. 3)
* 수영구, 이달 중 인도네시아 파당시와 자매결연, 대표단 20명 파견 조인식 갖고 실질 교류 협력(부산매일 2. 3)
* 설 경기 10여년만에 '최악', 부산・경남 시장・백화점 매출액 예년비 절반 감소, 한보 파급 확산에 물가・고용불안・체임 겹쳐(부산매일 2. 3)

* 그린벨트 내 불법 소각 횡행, 강서지역 서낙동강 지류 맥도강 일대 무허가 공장 들이 지정폐기물인 폐유・PVC 폐전선 피복 등에 대한 무단 소각행위 일삼아(부산 2. 3)
* 구의회 '파벌싸움' 추태, 부산지역 일부 구의회 의장단 선거 후유증으로 의원 편갈라 회의 불참 등 파행(부산매일 2. 3)
* 연근해 업계 '설 대목' 물 건너갔다, 어획부진으로 부도・조업 중단 잇따라, 한보여파 돈 가뭄…경영난 가중(부산 2. 3)
* 부산시, 기능직정원 대폭 감축, 컴퓨터 등의 도입 확대로 기능이 줄고 있는 타자 차드 및 운전 업무 등 기능직 정원을 상반기 중 대폭 감축…신규 임용 동결, 연간 수십억원대 예산 절감 효과 기대(부산 2. 3)
* 설 연휴 교통 대책 돌입, 경남 일대 우회로 차량 분산・버스 증편(부산 2. 3)
* 부산시, 수질 기준에 COD・질소 포함을, 낙동강 특별법안 마련 정부 건의(부산 2. 3)
* 심야 광란 질주 10명 중경상, 지하철 부산대역 앞, 20대 차 3대 받고 포장마차 덮친 뒤 도주(부산 2. 3)
* 경찰 강경진압 30여명 다쳐, 민주노총 부산・양산 지역 본부・한국 노총 부산지역 본부가 부산역 광장에서 연대집회 마친 후 가두행진 중 경찰이 곤봉・방패 마구 휘 둘러(부산 2. 3)

2. 4
* 부산시, 가덕도-거제-통영 고속도 건설을,「부산-거제」사업비 급증 수익성 미흡, 대전-통영 구간 연결 정부에 건의(부산 2. 4)
* 총궐기본부 '위천 철회 언급 없다' 반발, 정부-낙동강 상류 취수・3개 댐 추진(부산 2. 4)
* 낙동강 수계 3개댐 신설, 한보부도 여파로 부도가 난 부산 대동 조선 관련 특별 위원회・아시안게임신설 준비관련 특별위원회가 부산시 의회 차원에서 구성 전망(부산매일 2. 4)
* 좌천 3・범일 5동 재개발 본격화, 내주 철거 시작 3월 착공계획,「주택지구」로 방식 변경 추진(부산 2. 4)
* 영남권 광역상수도망 구축, 남강 등 경남 3곳에 댐 건설 공동 취수, 부산・경남지역 식수문제 해결 위해(국제 2. 4)
* 설 연휴 부산 287만명 대이동, 지난해 비해 15%더 늘어 '교통 전쟁'우려(부산매일 2. 4)
* 시의회 60회 임시회 결산, 건축 관련 개정 조례안 통과 큰 성과, 학원 설립 완화 시민들 '비난감', 편의위주 일정변경 구태 여전(부산매일 2. 4)
* 부산 손님맞이 환경 정비 착수, 공항로 확장・유채꽃 길 조성・소공원 추진 등, 올 동아시아 대회 등 국제 행사 잇따라(부산 2. 4)
* 무용협회 부산지부 "새 모습으로 거듭나야", 2월 정기 총회 임원진 개편 계기, 부산 춤꾼들 다양한 의견 제시, 협회회원 턱없이 적어 문호개방 절실, 대학・학원 무용인 고질적 갈등 해소를(부산 2. 4)

2. 5
* 북항 일반부두 친수 공간 조성, 부산항 1~4부두와 중앙부두 등 부산항 북항 일반부두가 가덕신항만 완공이후 부산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으로 활용 전망(부산 2. 5)
* 공항 시설 배치 재검토, 부산 아시안 게임 대비해 확장되는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계류장 등 공항내 시설물 배치 계획 전면 재검토(국제 2. 5)
* 체납차 번호판 영치 큰 효과, 3개월 임시시행 체납세 50%해결, 진구청 등 3월부터 연중 실시키로(국제 2. 5)
* 우울한 설 노동자 막막, 경기침체 속 한보부도・총파업 겹쳐, 상여금 아예 없거나 대폭 줄어, 체불업체도 수백개 "쓸쓸한 귀향" 한숨(부산 2. 5)
* 부산시, 98년까지 매립장 반입량 50%감소 발표, 각 구청 음식쓰레기 처리 비상(부산매일 2. 5)
* 동아대회 해외 홍보 불협화음, 부산시・조직위 사절단 파견 놓고 "티격태격"(부산매일 2. 5)
* 근현대 주요 자료 잠자고 있다, '정부 기록 보존소 부산지소' 문턱 높아, 항일 재판 기록 등 100만점 보관 관리, 대출 때 제출 서류 많고 절차 복잡, 최종단계서 "안보" 이유 거절 일쑤(부산매일 2. 5)
* '문화 가족 운동' 조용한 확산, "한달에 한번 외식하듯 문화 예술 감상하자", '문예 사랑 가족 모임' 창립…300명 확보, 월 5천원에 음악…전시회 등 정보 제공(부산매일 2. 5)

2. 7
* 신세화 괴정점 "도로부지 기부채납 부당" 행소, 정문 앞 1백46평 12억원 상당, 신세화측 - "부당한 허가 조건", 사하구청 - "보상금 노린 술책"(부산 2. 7)
* 대파 값 폭락 명지농가 '울상', 산지 값 작년 70%선, 출하량 크게 저조…중간 상인 횡포도 한몫(부산 2. 7)
* 가스료 월 내 최고 20% 인상, LNG・LPG 가격 13~20%인상 전망, 재경원 검토 부산 휘발유 값 가장 비싸(부산 2. 7)
* 한진, 대동조선 인수 가능성, 세제지원 전제…2~3개월 내 윤곽, 한보사태 여파로 부도처리된 대동조선이 한진공업에 인수될 가능성 높아(부산 2. 7)

* 건설교통부, 부산~김해 경전철 재추진, 사업 희망자 없어 무산된 경전철 사업 계획 일부 변경, 사업비 증액 정거장 3개 더 늘려 재추진(부산매일 2. 7)

2. 10
* 부산해경, 원양선 통신사 승선 조작 수사, 선사 관계자 소환 허위 신고 등 조사키로(부산매일 2. 10)
* 부산시, 부산 관광 산업 적극 육성, 해운대 2곳에 컨벤션센터 건립, 한-일 연계시스템 구축·남해안 홍보(부산 2. 10)
* 부산항 효율성 제고 묘안 속출, 장치장 운영 건물 기능 통합·정문위 건립 등(부산 2. 10)
* 부산 묘지 부족 심각, 매장 급증 화장은 저조, 4~5년 내 묘원 바닥, 새 장소 난망(부산 2. 10)
* 신호 공단 2·3공구 연내 착공, 화전 체육공원 공사장서 성토용 토사 조달(부산매일 2. 10)

2. 11
* 정부, 수질개선 기획단 출범, 범정부 차원에서 수질개선 사업 추진키 위해「수질개선기획단」공식 출범, 정부-낙동강 등 수계 사업 우선 추진(부산 2. 11)
* 황령산 온천 개발 강행 물의, 남구청 계획안 확정…환경 파괴 등 우려(부산 2. 11)
* 부산시, 젖은 쓰레기 반입 단속,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달 12일부터 생곡매립장에 반입되는 젖은 쓰레기 및 분리수거 미이행·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에 대한 점검 실시 계획(부산 2. 11)
* 4대강 특별법 이번 주 부산 공청회, 정부안 마무리 작업 임시국회 제출(부산매일 2. 11)
* 자투리땅에「소공원」, 7개구군에 60~700평 규모, 4월 중 조성…나무심기운동도 병행(국제 2. 11)
* 부산시, 생곡 쓰레기 일제 점검, 위반율 높은 구군 일정기간 해당 자치구군 쓰레기반입 중단 조치(국제 2. 11)
* 버스조합 승객 실사, 경영상태의 비공개로 수입금 횡령의혹을 받은 부산시 버스 운송 사업조합이 부산시와 공동으로 승객실사를 통해 경영상태 공개키로(부산 2. 11)
* 강서 범방동 장유 수가리 경마장 부지 금명 확정, 경주로·관람대 이견…이르면 내주 발표(부산 2. 11)

2. 12
* 환경부, 6대 도시 중 '부산 공기' 최악, 먼지·오존 등 계속 증가, 서울·대구 등의 오염 개선과 대조(부산 2. 12)
* 부산 조선 용접공 9명 또 망간 유소견자 발견, 조선업체 근무하는 용접공 9명이 망간중독 유소견자로 밝혀져 당국 특수검진 실시(부산 2. 12)
* 동래역 복개주차장 14일 개장, 지하철 동래역 환승주차장이 하천 추가복개로 주차 면수 3배 가까이 대폭 확충, 역주변 주차난 해소 및 도심 승용차 진입억제 크게 기여할 전망(부산 2. 12)
*「동아대회」중 차 2부제 방침, 5월 10일~19일 계도기간 뒤 위반차량 벌금형(부산 2. 12)
* 기장 해안관광도로 생긴다, 시와 기장군 동해 남부 연안의 절경을 끼고 있는 기장군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대단지 해안관광 위락단지로 조성한다는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 해안변을 따라 14.9㎞의 해안관광도로를 개설키로(부산 2. 12)
* 부산시, 도로개설 기분채납·도시기반 시설 부과·공장설치 주민동의 조건부 인·허가 사라진다, 법령 근거 없는 조례·규칙 등 정비, 현장 사례 조사 후 4월부터 실시(국제 2. 12)
* 부산·경남 공동유치 경마장 부지 강서구 금병산 일대 유력, 경마장 위치 이달 중 결정, 마사회 타당성 재조사키로(부산매일 2. 12)
* 부산지역기업 어음부도율 급증, 한은 지점 집계 0.53%로 작년 평균비 0.13%P 상승(부산매일 2. 12)

2. 13
* 지하철 신시가선 공사 숨통, 예산·개발 이익금 3백86억 지급키로(부산 2. 13)
* 부산시 시민단체 건전사업 공모, 시민협력에 의한「열린 시정」구현 위해 시민 단체 대상으로 건전사업을 공모 재정 지원, 24일까지 비용 50%이내 지원(부산 2. 13)
* 부산시, 체납세 징수 성과, 전년 이월 1백70억원 감소(부산 2. 13)
*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자가용승용차 2부제 운행방안 시민공청회(부산시정 2. 13)

2. 14
* 국도 14호선 부산-김해 확장 구간 교통사고 위험 지대, 부분 개통 후 안전 조치 미비, 신호대 위치조정·야간 표지병 설치 시급(부산 2. 14)
* 대동여지도 부산지역 오류 많다, 원로소설가 최해군씨 월간「시민시대」서 주장, 초량왜관·개운포진·동평 등 5곳 잘못 표시(부산 2. 14)
* 동아경기 문화·예술 행사 확정, 문화예술축전실행위 회의, 아시안위크 앞당겨 5월개최, 의식·공연·전시 행사 등 다양(부산 2. 14)
* 부산에도 단편영화 바람 분다, 올「부산단편영화제」출범 계기로 제작 열기, 동녘필름 <길 위에서의 휴식> 등 3편 계획(부산 2. 14)
* 승당마을 재개발 난항, 부산지역 최초 주택 재개발사업은 승당마을 재개발 사업 착공계 접수 안 돼 공사 지연 불가피(부산매일 2. 14)

* 부산 화물 터미널 '썰렁', 도심 대형차량 단속 등 겉돌아 이용률 저조, 행정・금융 과감한 지원 통한 활성화 시급(부산 2. 14)
* 부산시, 신청사 「불편청사」, 신청사 주변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되지 않아 청사 완공 후 차량접근 불가능할 전망(국제 2. 14)
* 포푸라마치서 적발한 10대 접대부 보호자 대신 술집업주에 인계, 윤락행위 혐의로 10대 술집접대부를 적발해 조사 후 부모 친보호자가 아닌 술집주인에게 넘겨줘(부산매일 2. 14)
* 부산~김해 경전철 착공 땐 낙동강 생태계 큰 타격, 철새도래지 등 낙동강 하류 일대 동식물 생태계 대규모 악영향, 환경보전 대책 수립 촉구 여론(부산매일 2. 14)
* 부산시, 행정 경쟁력 강화 총력전, 9개 항목 경상경비 절감・인력 156명 감축(부산매일 2. 14)
* 이수성총리 낙동강 현장시찰(부산시정 2. 14)

2. 15
* 교량 높이 제각각 사고 잇따라, 기준 무시 「컨」 차량 통과하다 충돌 잦아(부산매일 2. 15)
* 부산시, 구덕・제2만덕터널 통행료 23일부터 최고 67%인상, 부산 서구 대신동과 사상구 학장동을 잇는 구덕터널 및 동래구 온천동과 북구 만덕동을 잇는 제2만덕터널 차량통행료 인상(부산매일 2. 15)
* 이수성 총리 낙동강 시찰 표정, '위천' 언급 피하며 여론 무마 안간힘, "공단 지정 여부 건교부 검토 중", 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론 자제, 낙동강 수질개선 의지 의문(부산매일 2. 15)
* 상의, 역외 이전 업체 작년 33%증가, 부산지역 역외 이전 업체가 해마다 늘어 77년 이후 1천개사 이상, 부산 산업 공동화 현상 점차 심화(국제 2. 15)
* 부산시, 장애인 보장구 교부 동사무소 연중 처리, 제조 구매 수리 등 자활 지원, 품목-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대상-생활보호자・저소득층(국제 2. 15)
* 임진왜란 왜승 종군일기 원문 국내 첫 공개, 동서대 김대식 교수 입수, 싸움터 참상 일기체로 서술, 학계 연구과제 기대(국제 2. 15)
* 동아대회 기간 '노 비자' 허용(부산매일 2. 15)
* 부산 AG경기장 건설 차질, 경마・양궁・골프장 주민 반대・토지매입・난항 등 '걸림돌'(부산매일 2. 15)
* 부산・경남 식수 합천댐 하류 취수 광역 상수도 조기 건설, 이총리 낙동강 시찰 지시(국제 2. 15)
* 법무부, 부산 동아대회 참가자 '노비자', 선수・임원・기자 등 ID 소지자 허용(부산 2. 15)
* 해운대구 청소종합처리시설 건립, 소각로・재활용품 선별장 한곳에 유치, 총사업비 27억원 투입,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부산 2. 15)

2. 16
* 다대 두송 반도 큰 산불, 2만여평 태워…학생 모닥불 피우다 발화 추정(부산 2. 17)

2. 17
* 지하생활공간 오염도 심각해, 6개 지하상가 습도미달 9개 지하역 먼지농도 초과(시보 3. 20)
* 강서지역 문화재 훼손 위기, 각종 개발 사업…패총 등 유적 손상 우려, 실태 조사 보존책 시급(부산 2. 17)
* "황령산 개발은 시민 기만술", 시민단체비대위 온천 백지화 촉구・저지운동 가속(부산매일 2. 17)
* 제 15회 부산 연극제 팡파르, 18일~3월 2일 시민회관 소강당서 6개 극단 경연(국제 2. 17)
* 부산시, 개발제한 구역 규제완화 추진, 개발제한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 불편 줄이고 효율적 토지 이용 관리 이해 개발 제한 구역 내 취락지 개발계획 및 구역별 차등 관리 방안 정부에 건의키로(부산매일 2. 17)
* 북구청, 전자 결재 시스템 도입, 1억원 투입 이달 중 주전산기 설치 하반기 운영 예정, 행정업무 효율적 처리 위해 도입키로(부산매일 2. 17)
* 해운대구청, 자동차 야외극장 개설, 올림픽 동산에 「시네마 천국」, 관광산업 활성화와 야간 문화생활 공간 제공 위해(국제 2. 17)
* 동부터미널 이전 재추진,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개최 기간 사직주경기장 일대 교통 혼잡 완화 위해, 도시계획법 개정・내년 중 착공 주장(국제 2. 17)
* 둔치도 연료단지 표류, 경마장 무산 반발 주민들 공사 저지, 이미 100억 투입 사업 위기…대책시급(국제 2. 17)
* 가덕 신항 올 10월 착공, 신 해양부장관 회견 1・2단계 사업 동시 추진, "하반기에 한국항만공단 발족"(부산 2. 17)
* 주행 시험 내달 3일 실시, 부산경찰청 5개 코스 선정…24일부터 접수(부산 2. 17)
* 부산 보육시설 대폭 확충, 10개소 신축 등 81곳에 41억원 지원(부산 2. 17)

2. 18
* 양곡부두 사일로 추가 설치, 부산해항청 물류 대책 체선해소 위해 새 부두 건설은 지양, 원목・고철부두도 준설작업 등 통해 개선(부산매일 2. 18)

* 기장군, 의료・편의시설 크게 부족, 시 편입 후 유흥업소 갑절로 늘어나도 병원급은 한 곳 뿐, 주민들 생활 불편(부산매일 2. 18)
* 부산시, 도심 재개발 사업 본격화, 공동화 현상 빚고 있는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위해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방안 마련, 관련 조례 전면 개정, 올해부터 재개발 사업 본격 추진키로(부산매일 2. 18)
* 한국・호주 환경 신기술 연구 발표, 20일부터 부산대서 국제 심포지엄 열려, 분해 효율 높은 새 쓰레기 매립 기법, 미생물막 이용 폐수 질소・인 제거(부산 2. 18)

2. 19
* PIFF 광장 특화 예산 낭비 크다, 작년 9월 시공 바닥 포장 재공사 추진, 내실 기하는 방안 절실(부산 2. 19)
* 부산시, 공항로 확장 첫 국제 입찰, WTO 협정 따라 2백79억 공사 업자 선정(부산 2. 19)
* 9개국 해저 광케이블 개통, 총연장 1만2천83㎞・6만여 회선(부산 2. 19)
* 동아대회 성화 봉송 주자 최종 확정,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2회동아시아경기 성화 봉송 주자요원 최종 확정, 특별・일반 주자 등 모두 777명 선발(부산매일 2. 19)
* 부산 해양수산청 '새 돛', 해항청서 명칭 변경…어촌 지도 등 통합, 해양부 직제개편안…본부조직 2실 6국 51과로(부산 2. 19)
* 상수원 개선 '껍데기 특별법', 「낙동강 특별지역」 지정 등 부산 요구 모두 외면, 정부 입법예고…24일께 부산서 공청회(국제 2. 19)
* 보육시설 81개소 신・증축, 학교 빈 교실이나 종교시설 활용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자녀수용, 공공기관 활용땐 최고 1억 무상 지원(국제 2. 19)
* 부산시, 버스요금 연 4회 실사, 시민합동조사단 전 노선 대상 실시, 「노선조정 심의회 규칙안」도 마련(국제 2. 19)
* 서구청, 장군산~천마산~암남공원 연계 「자연생태공원」 추진, 송도 환경 살려 휴식 공간 활용키로(국제 2. 19)
* 「지방해운항만청」 확대 개편, 수산행정기능 추가 「해양수산청」으로, 「신항만 건설 본부」 해양부내에 설치(국제 2. 19)
* 낙동강 회생 "물 건너가나", 정부 수질 개선 특별법 허점투성이, 지자체에 재정 관리 등 떠넘기기, 오염 규제보다 지역경제에 치중(부산 2. 19)

2. 21
* 부산 하역업계도 '한보 타격', 항만 운송협회 집계, 10개 업체 28억 피해…체임 등 심각(부산매일 2. 21)
* 대동조선 재산권 보전 처분 결정, 지난 31일 부도난 대동조선에 대한 재산권 보전신청 법원 받아들여, 관리인에 이용길 전사장…3자 인수 활기 띨 듯(부산매일 2. 21)
* 낙동강 보존회 건설부 '위약' 소송 추진, 건교부가 환경용량 초과한 낙동강오염실상을 수년전에 깨닫고 지난 91년부터 낙동강유역 공해공단 증설을 규제키로 하고도 약속 어겨와(부산매일 2. 21)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제2중앙부두 확장 상반기 착공, 항외 「컨」 장치체제로 심각한 체선 체화를 겪고 있는 제2중앙부두를 항내 「컨」 장치체제를 갖춘 다목적 부두로 건설키로(부산매일 2. 21)
* 양정~대연동 연결 산복도로 착공 23년만에 내달 완공, 범천~개금도로도 18년만인 3월 7일 개통식(부산매일 2. 21)
* 건조주의보・대보름 산불 경계령, 금정・황령・연대산 큰불, 건조주의보와 대보름 산불 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20일 오후와 21일 새벽 금정산 황령산・가덕도 연대산 등 큰불(국제 2. 21)
* 부산노동청, 부산・경남 산재은폐 '전국 최고', 지난 한해동안 부산・경남지역 산재 은폐 적발 건수 42건, 전국 62건의 68% 차지(국제 2. 21)
* 부산 명산 화마에 폐허화, 금정・황령산 등 건조주의보 속 잇단 대형 산불, 강풍에 장비부족으로 진화 애로, 계속 번져 산림・생태계 위기(부산 2. 21)
* 고속철 부산구간 난제 해결 기미, 범어사지역 지하화 등 공단・시민여론 적극 수용 입장(부산 2. 21)
* 상의, 부산 한 달에 59개 공장 문 닫아, 작년 한해 709개 폐업 1만4천8백14명 일자리 잃어, 전년대비 업체수 20.3% 종업원 22.5% 감소(부산 2. 21)
* 부산동아대회기간 국제무역전시회 개최, 한・일테크마트 등도…통상외교 적극 활용(부산매일 2. 21)

2. 22
* 부산시, '10부제' 어기면 불이익 준다, 내달부터 '교통량 줄이기' 강력 시행, 공영 주차장 이용 못 하고 '민영요금' 50% 할증 적용(부산매일 2. 22)
* 부산의료원 거제동 이전 내달 착수, 지방공사 부산의료원 19일 부산 연제구청으로부터 신축이전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 받아, 오는 3월 공사 시작 예정(부산매일 2. 22)

* 부산시민 의정참여단 발대,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 참여 자치 시민연합 등 부산시내 6개 시민・환경 단체 참여, YMCA회관에서 발대식 가져(부산 2. 22)
* 부산시, 「문화유산 3대 사업」 추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고장 문화유산 알기・찾기・가꾸기 등 3대 역점 사업 추진키로(부산 2. 22)
* 강서・기장 「동아대회」 2부제 제외, 시민들 불편・불만 최소화 위해 교통체증이 덜한 강서구・기장군 지역・생계형 차량 등은 2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부산 2. 22)
* 생곡매립장 전면재시공 안한다, 부분 보강…올해 말 완공, 주민 거센 반발 시와 마찰 불가피(부산 2. 22)

2. 24
* 부산시, 행정규제 완화 추진, 기업 활동・시민생활 관련 전 분야 포함(부산 2. 24)
* 낙동강 하류 '중증신음', 상하퇴적층 중금속 오염 극심 자정능력 상실, 삼랑진・남지 등 납・카드뮴 농도 심해, 상류는 덜해 금호강 "주범" 확인(부산 2. 24)
* 부산시 연구센터, 낙동강 오염 금호강이 '주범', 17일 발족한 부산시 낙동강연구 센터가 처음으로 실시한 1월중 낙동강 유역 수량 수질 저질 조사 결과 금호강이 낙동강 오염의 주원인으로 나타나(국제 2. 24)
* 낙동강 유독 중금속 퇴적 심화, 계속되는 가뭄으로 올해 사상 최악의 유량 부족 현상을 겪어 금호강에서 쏟아지는 오염부하 타격 받아(부산매일 2. 24)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공포(제3374호)(부산교육 2. 24)

2. 25
* 주택가 「전용주차」 9월 시행,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합법적 개별 주차 공간으로 이용, 6m이상 이면도로… 공간 적어 차질 예상(국제 2. 25)
* 동아시아 경기대회 일정 확정, 글로리 콘도 등 6개 호텔 선수 숙소로 사용, 5월 11일~17일 아시안위크… 민속축제 등 열려(국제 2. 25)
* 부산시,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노포동 이전 본격적 추진, 특별 전략팀 구성 건설 교통부 방문 등 이전 계획 추진 적극 나서기로(부산매일 2. 25)
* 사상구 27년만에 도시 재정비, 공업용지 반으로 줄고 주거지역・상업지역 크게 늘어, 71년 조정 이후 27년만(부산매일 2. 25)
* 연제구 신청사 '민자 건립' 본격화, 시유지 5천여평 무상사용 승인따라 유치 나서(부산매일 2. 25)
* 부산 통・반조직 대폭 개편, 민선자치시대에도 불구 지난 60년대 기준으로 운영돼 온 부산시 자치구의 통・반제로 잇따라 개편, 예산 절감・주민본위 행정 기분 효과 기대(부산 2. 25)
* 승당마을 재개발 착공, 철거민 반발 등으로 착공 늦어진 해운대구 승당마을 재개발 사업이 국유지 매입문제가 타결돼 3년만에 공사 들어가(국제 2. 25)

2. 26
* 부산시, 「50대사업」 적극추진, 지난 26일 추진상황보고회 개최(시보 3. 6)
* 부산시, 민자 유치 대상사업 선정, 초읍・영도선등 6개 사업, 부산시는 지난 2월 26일 민자 유치 사업대책회의를 갖고 지난해 말 재경원에 97년도 민자 유치 대상 사업으로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고 초읍선 및 영도선 신도시 철도사업 등 사업비 2천억원 이상 5개 민자 유치사업 승인이 이뤄지는 대로 올해 중 사업시설 기본 계획고시와 사업자선정 등을 통해 적극 추진키로(시보 3. 6)
* 버스수익금 첫 현장실사, 부산지역 2천7백87대 봉인 작업 마쳐(국제 2. 25)
* 부산 주택 보급률 76%, 95년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 89%보다 크게 뒤져(부산 2. 26)
* 동아대회 기념 체육복권 발행, 즉석복권식…전국에 3천만장 판매키로(부산매일 2. 26)

2. 27
* 김해공항・화명택지 쓰레기처리 난제, 시・구・생곡 "3각 마찰", 부산시-을숙도 연장 사용 추진, 사하구청-민원 등 우려 동의 거부, 생곡 주민-사하구 청소차 반입 저지 결의(부산 2. 27)
* 올 시 민자사업 6건 확정, 초읍・영도선 경전철화 등 추진(부산매일 2. 27)
* 전국 기초단체장협 상설 기구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위해 기존 협의회를 상설 기구화하고 의장단과 사무국 신설・활동강화키로(부산매일 2. 27)
* 건교부, 부산 땅값 상승 전국 최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거쳐 발표, 전체 필지의 89% 공시지가 "현상유지"(부산매일 2. 27)
* 부산지법 가사부 신설, 독립되고 집중심리 재판부도 배로 확대, 재판 사무분담 확정・접수기간 5배 단축(부산 2. 27)
* 환경부, 부산시내 90곳 토양 오염 측정, 전국 토지 오염실태 조사 일환, 매립장・골프 장・아파트 단지 등 대상(국제 2. 27)

2. 28
* 부산시, 부산을 「해양 스포츠 메카」로 조성, 문정수 시장 부산체육발전 10대사업 밝혀(시보 3. 6)
* 문정수 시장은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위생단체 시정설명회에 참석(시보 3. 6)

* 시 공직자 재산변동 공개, 대상자 65명중 28명 증가(시보 3. 6)
* 브레이크 파열 트레일러 참사, 서부산 세무서 앞 6중 추돌・화재로 행인 등 사망 8명 중상(부산 2. 28)
* 부산 수출 2년만에 감소세, 지난해 중화학 및 경공업제품 전 부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수출 실적 2년만에 다시 감소세, 기계류 제외 선박・절강 등 전 부문 고전(부산매일 2. 28)
* 부산 초・중・고교 조기진급제 전면시행, 학력・정서 등 종합 고려 올해 새 학기부터 실시, 초・중등 과정 각 1회씩 월반 가능(부산 2. 28)
* 부산 수출 다시 감소세, 2년만에 삼소세로 돌아서 부진면치 못해, 전국비중도 내리막길(부산 2. 28)
* 낙동강 수질 '제한 급수' 육박, 매리・물금취수장 BOD 7PPM근접, 수돗물 감산 채비… 고지대 등 식수난 우려(부산매일 2. 28)
* 부산 상의 회장 후보 단일화 극적 성사, 출마 3인 회동 강병중 현회장 추대 합의(부산 2. 28)

3. 1
* 부산시, 제78주년 3・1절 기념식, 부산시는 3월 1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문성수 시장 등 주요기관장 독립유공자 시민 등 2천여명 참석(시보 3. 6)
* 감만부두 4개선석 독립운영, 관련 민-관협의 민자업체 한정하역면허 부여키로, 별도 공동운영법인체제 설립 사실상 철회(부산매일 3. 1)
* 부산물가 연초부터 심상찮다, 올 들어 벌써 1.6% 상승…6대 도시 중 최고, 15개 시・도 중 2번째로 높아, 전국 평균치보다도 0.3%P 높아(부산매일 3. 1)
* 부산시, 문예 진흥기금 5개 분야 145건 지원 확정, 무용・연극영화 제외 올 수혜 대상 발표, 총 3억1천만원… 작년보다 3천만원 증가, '별도 지원 사업' 4건 4천8백만원 책정(부산매일 3. 1)
* 부산물가 너무 뛴다, 올 소비자 값 1.6%나…6대 도시 중 최고, 연말 대선 불안요인 상존(국제 3. 1)
* 서면에 빌딩 신축 잇따라 승인, 부산 최대 교통체증 지역인 서면 일대에 초대형 교통유발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돼 체증을 가중시킬 전망(부산 3. 1)
* 생곡 사하구 쓰레기 반입중단 결의, "10일부터 실력 저지", 김해공항・화명택지 쓰레기 마찰 심화, 부산시 당국에 「을숙도」 연장 사용 건의(부산 3. 1)
* 부산해항청, 감만 '컨'부두 선석 독자운영, 올 연말 개장되는 부산항 감만컨테이너 전용부두는 운영업체들에 의해 선석별로 독자 운영(부산 3. 1)
* 부산 산업 생산활동 계속 부진, 1월 지수 80.9…작년 비 6.3% 줄어, 금속 재고 20.5% 늘어(부산 3. 1)
* 부산도시가스, 5월말께 기업 공개, 오는 5월 말 기업공개를 거쳐 증시에 상장될 전망, 135억 증자 상장 방침…경영권 공방 숙제로(부산매일 3. 1)
* 부산교육청, 학원수강료 지역・계열별 차등화, 불법・변태 소규모 학원은 단과로 전 환 유도(부산매일 3. 1)
* 제78주년 3・1절 기념행사(부산시정 3. 1)
* 학교 신설 개교(부산교육 3. 1)
  - 초(4) : 응봉, 상당, 양운, 신곡
  - 중(4) : 다선중, 상당중, 신도중, 신곡중
  - 고(3) : 다대고, 양운고, 부흥고
* 학교 공납금 납부 스쿨뱅킹 제도 시행(부산교육 3. 1)

3. 3
* 부산시, 「경쟁력10%이상높이기」 보고회 경상적 경비 3백14억원 절감, 부산시는 지난 3월 3일 시청 회의실에서 진만현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사업소장 부구청장 부군수 등 주요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97시정 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상황보고회 개최(부산 3. 3, 시보 3. 6)
* 광안대로 공사 '2년 더 연장', 2000년께나 완공…시민부담 가중, 당초 98년 완공 계획에서 1년 연기한 99년말보다도 더 늦어(국제 3. 3)
* "부산항 입출항 간편해져요", 부산항 비롯 마산・울산・포항항도, 해항청과 세관 출입국 관리 사무소 검역소 등에 제출하는 부산항 입출항서식이 통일・전산시스템을 일괄 처리키로(국제 3. 3)
* 민자 사업 무더기 차질, 재경원 부산시 신청 5건 중 1건만 고시계획, 철도 「영도선」・산성터널 보류…교통난 가중(국제 3. 3)
* 김해평야 급격 잠식, 각종 개발에 밀려 해마다 큰폭으로 줄어, 5년새 논 1천530만평 '증발'(부산매일 3. 3)
* 부산시, 공직기강 쇄신 추진, 부조리 센터도 확대개편, 「불가처리 민원」 사유・조건 중점 감사(부산 3. 3)
* 서부산에 자동차고 설립, 동래원예・부산공예고 시 외곽 이전(부산 3. 3)
* 부산시, 부산시립대 본격 추진, 부상 자리에 내년 설립…3개안 검토 착수, 교육청과 부지관리권 이양 협의(국제 3. 3)

3. 4
* 부산시주차관리공단, 3월은「고객만족의 달」지정, 직원직무교육 통해 실천 다짐(시보 3. 13)
* 지하철 2호선공사 안전점검 실시, 문시장등 관계관 추락사고등 위험요소 중점(시보 3. 6)
* 제15회 부산연극제 시상, 극단 세이「그 여자 숲속…」대상, 우수상 극단 맥「어무이, 어무이요」연출상 허영길・희곡상 하창길씨(국제 3. 4)
* "정부-수질특별법안 안 된다", 위천 저지 궐기본부-입법 예고 즉각 철회 촉구, 부산변호사회 내주께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부산 3. 4)
* 가덕신항 어업권 보상 타결, 최대 걸림돌 해결…예정 금액 5천억 넘을 듯(부산 3. 4)

3. 5
* 부산시 새 국제대사 변종규 방글라데시 대사, 부산시의 새 국제 관계 자문대사에 변종규 주 방글라데시대사(57)가 3월 5일 임명(시보 3. 13)
* 부산시, 시민・공무원에 인터넷 교육, 올해 1만2천여명 대상, 정보화 마인드 확산 간부에선 선진시설 시찰도(부산 3. 5)
* 부산시, 양 위주의 식단 버립시다,「좋은 식단제」시행, 1백60개 업소 우선 실시…융자 등 지원, 3단계 추진 후 기업・학교 확대(부산 3. 5)
* 부산항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 레이더・방향탐지기・기상조수 장비 등 도입, 해상 교통 센터 연말 가동 항내 상황 한눈에(부산 3. 5)
* 지역 이해에 낙동강 수술 유보, "4대강 적용불가" 특별법 처리 난망, 경기의원- 한강수계 규제 해제 요구(국제 3. 5)
*「낙동강 특별법」입법 제동, 황경당정회의-수질개선 병행「위천」조성도 영향(국제 3. 5)
* "위천저지 재상경 투쟁", 궐기본부대표자 회의서 '낙동강 특별법' 의원입법화 거듭 촉구(부산매일 3. 5)
* "세계 관광정보 부산 총집합", 27일 구덕체육관서…100개 업체 참가, 동아시안 게임 직전 관광 붐 조성 기대(부산매일 3. 5)
* 부산 해항청, 감천 원양어업부두 내달 개장, 북항 체화해소 위해 일정 앞당겨, 배후도로・경비 초소 등 서둘러 완공키로(부산매일 3. 5)

3. 6
* 부산시, 부산체육발전 위한 10대 구상 사업, 중・장기 5개년 계획, 부산체육진흥기금조성(시보 3. 6)
* 부산시, 공직자 근검절약 10대 수칙 제정, 시공무원, 축의금・조의금부터 줄이기로(시보 3. 6)
* 부산시, 대형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시, 영도구 동삼동 재활용선 별장에 7월 가동(시보 3. 6)
* 방재전산요원 활성화, 시 재해 상황・홍수정보시스템 구축(시보 3. 6)
* 부산시, 광고물 내용 적정여부 심의, 시 건강보조식품 과대광고쐐기, 부산시는 3월부터 건강보조식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시행돼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수영양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자나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을 광고하고자할 때 해당 광고 글 내용의 적정여부 사전 심의키로(시보 3. 6)
* 부산시,「열린 시정」시민제안 쇄도, 시 심의 거쳐 사업비 등 지원, 30개 단체에서 100여개 내놓아, 학원폭력 예방 교실 등 내용 다채(시보 3. 6)
* 부산시, 억울한 행정처분 등 고충해결,「시민과 시민과의 대화」이렇게 운영(시보 3. 6)
* 부산시, 젖은 쓰레기 반입 제한 기준마련, 시 5월까지 쓰레기 수분유출량 측정 나서 기준 마련되면 7월부터 초과 땐 반입중단(시보 3. 6)
* 부산시, "부산의 우수한 건축물 찾는다" 시 3월 10일까지 지역특성・환경조화기준, 부산시에서는 동아시아 경기 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건축학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을 오는 3월 10일까지 조사(시보 3. 6)
* 부산시, 청소년 이용시설 연내 4개소 추가 건립, 부산시는 올 한해동안 청소년 이용 시간 4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기로 했다(시보 3. 6)
* 부산시 교육청, 학교시설 안전점검 강화, 울산 남부초등학교의 어린이 계단 압사 사고 발생 이후 학교생활 안전에 대한 관심 높아져, 학교 안전시설 점검 대폭 강화・안전생활 지도 적극 나서기로(국제, 부산매일 3. 6)
* 부산시-지역출신 국회의원, 낙동강 특별법 '포기', "현실적 한계"…위천 공단 강행 될 판, 환경시민단체 등 대응 주목(국제 3. 6)
* 녹산 범방마을에 경마장, 지난해부터 논란이었던 부산・경남 공동유치 경마장 위치가 부산 강서구 녹산동 범방마을을 중심으로 한 금병산 일대로 확정(부산매일 3. 6)
* 부산연안, 생미역 3년만에 대풍, 6개 어촌계 석달새 5천3백여t 생산・가격 호조(국제 3. 6)

3. 7
* 3월 7일 문정수시장은 오전 8시 시청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보건단체 시정 설명회에 참석(시보 3. 13)
* 낙동강・취약지역 정화대청소, 문정수 시장 등 시 직원・일반시민 12,000명 참여, 동아시아대회를 앞둔 환경정화 대청소 실시(시보 3. 13)

* 가덕 배후도시 160만평 확정, 부산시·「삼성」 합의 남·북 「컨」 부두 내년 동시 착공(국제 3. 7)
* 경전철 마산·진해까지 연장, 건교부 좌천~물금~가덕 연결 전철망도 건설키로(국제 3. 7)
* 부산시, 재정운영상황 첫 공개, 연 2회씩 시보에 게재, 예산·채무관리·주요 사업 계획 망라(부산 3. 7)

3. 8
* 민락 놀이 시설업체 압수수색, 민락동 매립지내 대규모 놀이시설에 대한 수영구청의 위법허가 사건 수사 위해 남부경찰서 경리장부·설계도면 확보 뇌물거래 추적(부산 3. 8)
* 건설업 부도사태 '긴급수혈' 부산시·업계 등 간담회 행정·재정 지원책 마련, 아주 경기장 건설 조기 발주, 「지역경제 발전 금융협」 발족(부산 3. 8)
* 을숙도 2차 매립장 쓰레기 반입 가능, 부산시와 사하구청간의 의견대립으로 재사용 논란을 빚은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2차 매립장 잔여지에 이달 중 쓰레기 반입 가능성 높아져(부산 3. 8)
* 금정구 쓰레기 처리장 부지 확정, 금정구청이 추진 중인 대규모 다목적 쓰레기처리장의 건립부지 금정구 금사동 일대 개좌골로 최종 확정, 3백억 투입 98년 착공(부산매일 3. 8)
* 부산시, 동아시아 대회기간 2부제 참여 차량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실시(국제 3. 8)

3. 10
* 운수업 대표자 시정설명회, 부산시는 3월 10일 오후 2시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대비와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운수업대표자 4백여명을 초청, 시정설명회(시보 3. 13)
* 다대항 배후도로 월말 착공, 시공회사 선정 마무리…98년 9월 1단계 완성, 서부산권 항만 물동량 수송과 교통난 완화 위해(부산 3. 10)
* 부산화력 1·2호기 33년 발전 마감, 14일 매각 입찰…고철덩이로 팔려, 3·4호기도 98년말 가동중단 철거(국제 3. 10)
* 부산시, 감천 수산물 도매시장 연내 착공, 하수처리장 병설안 해항청에 제출, 부두시설도 공동사용 합의 걸림돌 해소(부산매일 3. 10)
* 지하철 2호선 금곡-율리 중간역 본격화, 철도청·부지사용 허가, 6월 착공 플랫폼 지하 대합실은 지상에(부산 3. 10)
* 낙동강 물 '못 먹는 물' 전락, 매리 2월 중 19일간 4급수 취수한계치 넘어, 부산시 상수도본부 "시민불편 생산중단 못해"(국제 3. 11)
* 부산시, 쓰레기봉투 값 인상, 부산시내 쓰레기봉투 값이 각 구별로 평균 20~30% 인상되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어 서민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국제 3. 11)
* 부산상의 의원 무투효 확정, 부산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후보단일화 성공과 의원 지분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의원 무투표 당선 확정(부산 3. 11)
* 부산 어음 부도율 "최고치", 한보부도사태와 부산지역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 여파로 52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4년 4개월만에 2월 중 113개사 도산(부산 3. 11)
* EAG 문화예술축전 일정 확정, 대회기간 전후 공연 전시 등 총 33개, 「아시아위크」 행사 앞당겨 함께 개최(국제 3. 11)
* 부산 구·군청 쓰레기봉투 값 일제 인상, 20%에서 최고 50%까지…주민 물가 불안 증가와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등 부작용 우려(부산매일 3. 11)
* 부산 어음부도율 '비상', 한보부도사태에 이은 지역 중견건설업체 연쇄 부도 등 여파, 지난 92년 신발산업 연쇄부도 사태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부산매일 3. 11)
* 중 총영사관 해운대 이전 합의, 지난 94년부터 부산시와 중국측 사이에서 이견을 보이던 주(駐)부산중국총영사관 신축 부지 매입협상이 3년만에 완전 타결, 해운대구 우동 1418 시유지 2천27평 매도 계약 체결(국제 3. 11)
* 부산시, 광안대로 2년 연장 공식 발표, 설계상 문제점 발생·신규공정 발생 등 이유, 2000년 완공 총 예산 1천8백억 증액(국제 3. 12)
* 좌천 3동·범일 5동 재개발 본격 추진, 부산 제 1지구 1만1천㎡ 철거 작업 이달 말 완료(국제 3. 12)
* 부산 축구 전용 구장 건립, 국제 수준의 축구 전용 축구장 수영만 일대에 2만5천석 규모로 연내 착공·98년 말 완공 예정(부산매일 3. 12)
* 부산 법원 신청사 오는 21일 기공식, 부산고·지법 거제동 신청사 오는 21일 기공식 갖고 본격 착공(부산매일 3. 12)

* 버스업계 적자 타령 “엄살”, 부산지역 시내버스 하루 운송수익금 비수기 기준 버스 1대당 평균 28만1천5백60원(국제 3. 12)
* 환경부, 부산 수질・대기배출 위반 ‘전국 최고’, 점검 업소 26%나 차지, 전국 평균 17% 크게 웃돌아(부산 3. 12)
* 「낙동강 살리기」 물거품 됐다,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 또 다시 후퇴・위천공단 축소 승인 움직임 보여, 부산 건의안 묵살(국제 3. 13)
* 광안대로 공기 2년 연장, 설계 부실로 보강 작업…공사비 눈덩이 증가(부산매일 3. 13)
* 녹산공단 공동분양 요구, 각종 규제와 여건이 나빠 녹산 공단으로 이전 희망하는 부산 강서구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120여개 중소기업업체 공동 분양 요구(국제 3. 13)
* 부산, 수출실적 추락 끝이 안 보인다, 전국비중 겨우 4.8%, 지속적 경기침체와 공장부지난으로 부산 탈출기업 늘어나는 것이 이유, 95년과 비교해 3.7%감소(부산 3. 13)
* 낙동강 수질 최악 급수 비상, 매리・물금취수장 BOD 7㎎초과, 취수 부분 중단・감축 조치(부산 3. 13)
* 부산 또 ‘식수난 직면’ 비상, 매리・물금취수장 취수 제한치 초과, 시 당분간 주 시…계속 악화 땐 취수 중단키로(부산매일 3. 13)
* 부산항내 유람선 화재 침몰, 승객・선원 10명 모두 구조, 전기합선으로 보이는 불로 화재, 승객・선원 전원 구조 사고 선박 침몰(부산매일 3. 13)
* 연제문화원 내일 현판식, 회원 600명…구청 내 조립식 건물 100여평 사용키로(부산매일 3. 13)
* 교육 기자재 수리 정비소 개소(부산교육 3. 10)

3. 11
* 시정 동정, 문정수 부산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시청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종교 단체 시정설명회에 참석(시보 3. 20)

3. 13
* 동아시아 경기대비 비상근무, 시 일・공휴일 1/2씩(시보 3. 13)
* 시 재정 운영상황 시민에 공개, 시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시민 알 권리」 보장(시보 3. 13)
* 부산시 재정운영 상황공개에 따른 문정수 시장 담화(시보 3. 13)
* 부산지역 건설업체 지원 간담회 개최 “지역 업체 참여기회 확대해야”, 부산시는 최근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 현상을 막기 위한 금융관계 및 건설업체 대표와의 긴급 대책 마련(시보 3. 13)
* PIFOS 97, 오는 11월에, KOEX와 공동으로 개최(시보 3. 13)
* 재래시장 재개발 적극추진 건축공사비 40억까지 지원, 부산시는 중소 유통 상인들이 생활터전을 보호하고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재래시장 재개발지원・독려(시보 3. 13)
* 시민・공무원대상 인터넷 교육, 세계화・정보화시대 대비 3월부터, 부산시는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때맞춰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시보 3. 13)
* 올해 주거 환경사업 활성화, 시 30개 주거지구에 335억여원 들여(시보 3. 13)
* 쓰레기반입허용량확정, 부산시는 3월 중 광역처리장 쓰레기 반입허용량을 확정하여 16개 자치구・군에 통보(시보 3. 13)
* 부산동아시아 경기대회 준비박차, 시 13일부터 종합리허설・집중 홍보나서(시보 3. 13)
* 의료보험조합 감사 계획 확정, 시 부조리요인제거・서비스 향상키로(시보 3. 13)
* 「부산 시민의 종」 관리개선, 시 지각없는 시민들 종각표면 등 낙서 훼손(시보 3. 13)
* 현장 행정 강화로 경쟁력 높여, 시 주요사업장 방문…실천력 있는 행정 펼쳐(시보 3. 13)
* 개인서비스 요금 이곳이 가장 저렴, 시 3월 선정품목 「중국음식료」 …각 구별 비교(시보 3. 13)

3. 14
* “황령산 개발 절대 불가”, 시민들 거센 반발에도 불구 남구청 개발 사업 강행, 63개 단체 저지 결의, 온천계획 전면 공개・토론회 촉구(부산 3. 14)
* 부산~양산 심야버스, 15일부터 부산 동부터미널-양산 하북간 및 구포 덕천로터리~양산버스정류소간 심야버스 운행(부산 3. 14)
* 부대 앞길 문화공간 만든다, 부산대 총학생회 올 봄 대학 축제를 맞아 축제 중 서울 동숭로처럼 조성, 음악동아리 등 초청키로(부산 3. 14)
* 가덕 신항 기형 개발, 기업의 영리성 논리에 밀려 절름발이식 개발로 전락, 25개 선석 사업자 통합선정 후 분리 건설, 해양부 삼성 측 요구에 밀려 기본계획 변경(부산매일 3. 14)
* 부산시・경찰청, PC통신 민원방 폐쇄, 시민과 관공서간 대화통로이자 민원창구 구실은 한 관공서 PC통신 코너가 통신회사들의 사용료 부과 방침에 따라 폐쇄키로 해 시민단체 등 반발(부산매일 3. 14)

* 수영구, 무의탁 노인 돕기 운동 활성화, 이달부터 무의탁노인에 대한 명찰달아주기・요구르트 무료 배달 등 불우노인 돕기 운동 펼쳐(부산매일 3. 14)
* 롯데・현대백화점 지역법인화 외면, 지방에 출점한 서울지역 대형백화점들 잇따라 현지법인화 추진 중이나 부산 진출이후 업계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급성장 하고 있는 롯데・현대 등 재벌 백화점은 현지법인화 외면해(부산매일 3. 14)
* 부산 태권도・농구협 '내우외환' 냉가슴, 한보사태와 관련 구속수감 중인 홍인길 회장 거취문제로 부산시 태권도 협회 냉가슴앓이, 일부 농구인들의 집행부에 대한 공금횡령 등에 대한 진정서 파문으로 농구협회 행정 공백 계속(부산매일 3. 14)
* 석면취급자 건강관리 구멍 충격, 대우조선 악성 중피종 발병으로 본 실태, 근무자 중 7~8% 암 발병률 보여, 단순질병으로 생각하는 게 큰 문제(부산 3. 14)
* 부산시, 석대 매립장 부지 되팔기로, 지난 94년 10월 매립이 끝난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20만평 규모 석대 쓰레기 매립 부지를 원소유자들에게 환매키로(국제 3. 14)
* 부두운영 주도권 싸움서 비화, 잡화선 화물 하역 갈등 배경, 선사-"높은 요율적용 노린 횡포" 하역회사-"과거 우월감 못 잊는 억지"(국제 3. 14)
* 부산시, 해운대신시가 「버스증설」 번번이 묵살, 황금 노선 특혜 의혹, 주민들 생활 불편에도 버스 노선 증설 민원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 08년에나 검토 예정(국제 3. 14)
* 해운대구, 음식쓰레기 줄이기 규제 강화, 올해를 「음식물 쓰레기 반입 제로화 원년의 해」로 삼고 다량배출 기준 확대・잔반통 없는 날 지정 등 다양한 종합 계획 마련 추진키로(부산매일 3. 14)
* 낙동강 물 악화 1억 손배소, 부산환경단체 "부적합 수돗물 공급 국가 배상 책임", "부산지방 변호사회 소송 대리 전담(부산 3. 14)
* 부산 외국인 일본 밀항 온상, 밀항 모집 총책 주로 같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 상대 4~5단계 범죄조직 수사, 출입국 사무소 23명 검거(부산매일 3. 14)
* 부산연극제 참가작 내실 다지기 절실, 연기・연출・희곡 모든 분야 기대 못 미쳐, 뚜렷한 극단 색깔 없고 연습 부족 여전, 전국연극제 참가 '그 여자의…' 보완점 등 논의(부산매일 3. 14)
* 낙동강 전역 조류 급속 번식, 겨울 가뭄 장기화로 상류를 중심으로 낙동강 전역에 BOD 증가 등 수질 악화 원인이 되는 조류 급속이 늘어, 상류지역도 3급수 전락(부산매일 3. 14)
* 부산 변호사회, "수돗물 오염 배상하라", 국가・시 상대 1억 손배소 제기, 시민 정신적 고통 막대, 제 2・3 소송제기 예상…파장 클 듯(부산 3. 14)
* 영도구청, 쓰레기 소각로 설치 난항, 「쓰레기 10%이상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부지선정 문제로 난항(부산 3. 14)

3. 15
* 부산실업률 4% 전국 최고,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신규 채용 억제・고용사정악화로 전국 최고 증가세 보여, 하반기 들어 점차 회복될 전망(부산 3. 15)
* 「하얄리아」 타결 민・관・군 나섰다, 하얄리아부대 이전 협상에 민・관・군이 함께 나서 서명운동 추진・항의서한 전달키로(부산 3. 15)
* 부산시・공정위 일처리 "편파적", 공정거래위원회・부산시가 힘 있는 업체의 횡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특혜성 발주 강행 움직임 보여 영세업자 큰 반발(부산매일 3. 15)
* 지하철 2호선 개통 2년 연기, 잦은 노선변경・연계 공정 차질이 이유, 200년 완공 남구・해운대 교통난 「불 보듯」(국제 3. 15)
* 수영구, 쓰레기 문전 수거제 전면 실시, 지난해부터 부분 실시해 온 수영동과 망미1동 지역에 대한 쓰레기 문전수거를 내달 1일부터 완전 문전수거로 확대 실시, 일반・업소 등 구분 봉투 제작키로(부산매일 3. 15)
* 유물로 보는 가야, 뛰어난 조형・예술미 "토기의 백미", 낙동 유역에서만 출토 "독자 예술세계 구축", 부드러운 선・풍만한 몸매…고대인 심성 대변(부산매일 3. 15)
* 부산시민 가계 주름 깊어졌다, 식료품비・주거비・교통비 등 기초 생활비의 폭동과 불황으로 부산지역 서민들 살림살이 크게 악화(부산매일 3. 15)
* 물금・매리취수장 수질 연사흘째 '한계선' 넘어,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이 낙동강 일대 현지조사와 수질 개선 대책 점검에 착수(부산매일 3. 15)
* 사상구청, 기초단체 외부에 '협찬금' 요청 논란, 구청 현안사업 추진 위해 관내 9개 새마을금고 측에 사업비 지원 공식 요청해 논란, 재정 타개책 주시(부산매일 3. 15)

* 양산학춤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 여부 논란, 부산민속보존협 “동래학춤 모방” 이의 제기, 보유・발굴자 “춤사위 달라…시비 가려져야”(부산 3. 15)
* 부산・경남 상장사 업종다각화 적극 모색, 환경・정보통신 등 고부가 사업 진출 추진(국제 3. 15)

3. 16
* 부산시, ‘낙동강을 살립시다’ 부산시민 걷기대회 낙동대교에서(시보 3. 20)
* 해외부산관광설명회(일본)(부산시정 3. 16)

3. 17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신임위원장에 조무제씨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시보 3. 20)
* 부산시 광안대로 건설 사업단, 광안대로 건설사업 2차 설명회 개최 첨단 점검 장비 이용 품질관리설계 변경 시 투명・공정성확립(시보 3. 20)
* 「컨」 화물 화주에 직접 전달, 감천항 등 부두 증설 따라 On-Dock체제 검토, 부산해항청 항만 운영 종합 개선책 마련 착수(부산 3. 17)
* 북구청, 북구 화명동・낙동강 둔치, 다목적 운동장 건립, 15,000여평 연내 완공 계획, 축구장 등 갖춰 시민 휴식 공간 될터(부산 3. 17)
* 부산시 의회 임시회, 자가용 2부제 실시 논란 예상 첫 도입 「현안 본회의 보고제」도 관심(부산 3. 17)
* 부산 제3도시 고속도 재원 조달, 부산시 외화증권 차입 승인, 정부 5천만불 규모 통보(부산 3. 17)

3. 18
* 「시민감사청구제」 등 상정, 부산시의회 제61회 임시회 개최, 부산시의회(의정 도종이)는 지난 3월 18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회기(시보 3. 20)
* 동아대회 운영본부 조직안 확정, 현장 중심 체제개편・내달 10일 본격 가동(부산매일 3. 18)
* 부산시, 현금차관 도입, 사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도로・항만 시설 등 각 종 대형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 비해 이자부담 낮은 외자도 입 적극 추진 방침(부산매일 3. 18)
* 부산해항청, 영도 조도에 새 항만 관제실, 해상교통관제시스템 갖춘 새항만 관제실 오는 11월 중 들어설 예정(국제 3. 18)
* 아시아드 마스코트 ‘갈매기’, 2002년 열리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마스코트 소재 갈매기로 선정, 시조・백의민족 강인함 상징(국제 3. 18)

3. 19
* 부산지법, 청소년 전담재판부 운영,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공판 사건의 신속 진행・양형의 일관성 위지 위해(부산매일 3. 19)
* 부산 ‘물의 날’ 행사 입체적 전개, 오늘부터 위천・낙동강 수질 등 물 관련 이슈 부각, 배수지 정화・이동 홍보관 운영・낙동강 회생책 축구(부산매일 3. 19)
* 부산 AG 마스코트 ‘갈매기’ 확정, 이달 말까지 마스코트 및 엠블렘 지명 제작자 선정・5월말까지 출품작 접수 받아 6월 중으로 당선작 선정해 연내에 위원총회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승인 받아 최종 확정 계획(부산매일 3. 19)
* 부산시 시의회, “하얄리아 이전 상반기 내 해결”, ‘위전 처리’는 특별법 제정까지 연기 요청키로(부산매일 3. 19)
* 부산시, 「사업소」 인사전횡 우려, 분장사무 조례 규칙에 위임 추진, 시의회 “감시권한 없다” 크게 반발(국제 3. 19)
* 「생곡」 쓰레기 반입 차단, 인근 주민들이 침출수 피해지역의 전면 재시공과 재활용 쓰레기 반입량 확대를 요구하며 쓰레기 운반차량 출입 저지키로(부산 3. 19)

3. 20
* 「위천공단조성 절대불가」 기존방침 재확인, 수질 1,2급수로 전환전까지 반대 운동 전개(시보 3. 27)
* 공채시험 평균 38대 1 97지방고등고시마감(시보 3. 20)
* 동아대회 개・폐회식 세부일정확정, 대회조직위 개막 5월 10일 구덕운동장에서 4월부터 대회조직 현장중심으로 운영(시보 3. 20)
* 정부의 낙동강 수질 개선의지 부산시민 납득하기엔 미흡, 문정수시장 당정협의회에서 언급(시보 3. 20)
* 수산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오는 8월 홍콩・상해에서 개최, 부산시는 WTO 체제 출범에 따라 부산지역 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수산물 박람회 참가희망업체를 오는 3월 30일까지 시청 수산 진흥과와 각 구・군 지역경제과에서 접수(시보 3. 20)
* 먹는 샘물 위생상태 단속강화, 시, 관리계획 마련…유통 중인 생수 수질 검사도(시보 3. 20)
* 공원・유원지 입장권 자동발매제도 추진, 시 태종대 등 10월 시범실시 후 99년 전면시행(시보 3. 20)
* 공유토지 분할 절차 간소화로 소유권 취득, 시 특례법시행…등기까지 단독으로 가능(시보 3. 20)
* LED식 전광판 설치 시, 간선로에 35개소, 부산시는 도로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운영 중인 현행 Lamp식 교통안내판의 노후화로 민자를 유치, 4월말까지 LED식 전광판으로 전면 교체키로(시보 3. 20)

*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조사 분석, 시 버스 43개사 190개 노선 2,854대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 1대당 281,560원(시보 3. 20)
* 이웃돕기기금 집행계획, 시 시민 모금 성금 등 24여억원으로(시보 3. 20)
* 시내 90개 지정 토양오염측정 시민궁금증 해소・정리 위해 필요한 기초시료확보, 환경부 전국토 오염실태 조사일환(시보 3. 20)
* 주요소・공중화장실 정비, 동아경기대비, 3월말까지 꽃 화분 놓기 등, 부산시는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와 각종 국제행사 등을 대비, 시내 주요소와 공중화장실을 3월말까지 일제히 정비(시보 3. 20)
*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현장 밀착적인 지원체계구축, 부산시와 부산지방중소기업청은 3월 20일 2백여 중소기업대표를 초청하여 중소기업자원 설명회개최(시보 3. 27)
* 을숙도 쓰레기장 재사용 강행, 부산시-문체부 '충돌', 부산시- "별도 허가 불필요" 반입, 문체부-잔여지 불법…고발 방침(부산 3. 20)
* 부산시의회, 동아대회 자가용 2부제 확정, 시민불편 최소와 다각 노력 지적, 기장・강서・영도 등은 제외키로(부산 3. 20)
* 시의회, 부산의료원 명예퇴직제 시행, 해마다 누적되는 적자로 겪고 있는 경영난 타개 일환, 임원 임금도 동결키로(부산매일 3. 20)
* 「경마장 가는 지하철」 추진, 2002년 아시안 게임 기간 승마경기장으로 사용 될 부산 강서구 범방동 경마장까지 지하철 3호선 또는 부산~김해간 경전철의 연정 건설 추진(부산 3. 20)
* 공영주차료 44%인상, 오는 22일부터 평균 44%인상, 도심 차량통행량 감축을 통한 수요관리・공영주차장 건립 위한 재원확충 위해(부산 3. 20)
* 부산시, 초중교사 인사 광역화, 시 전역 대상 내년 실시…교육수준차 해소, 1만5천명 해당…비인기 지역 교사 사기 진작(국제 3. 20)
* 공영 주차 요금 대폭 인상, 1급지 30분당 1천5백원・2급지 1천원(국제 3. 20)
* 부산시, '종일 버스 전용 차로제' 전국 첫 시행, 5월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계기로 전국 시 중 처음으로 종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부산매일 3. 20)
* 부산에 아이스링크 건립, 동계스포츠의 불모지인 부산에 국제 규격의 빙상장이 오는 2002년까지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 100여억 투입(부산매일 3. 20)
* 서부산권 개발 사업 차질, 토지보상 지연 및 재원부족・용수시설 미확보 등 요인으로 차질(국제 3. 20)
* 상수도본부 공업용수도사업소 개소(부산시정 3. 20)

3. 21
*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 시, 3월 19일부터 다양한 행사, 배수지・정수지・물탱크 청결운동전개(시보 3. 20)
* 최인섭 행정부시장 취임, 취임식이 3월 21일 부산시청에서 열렸다(시보 3. 27)
* 전 진만현 전행정부시장 퇴임(시보 3. 27)
* 부산경제 부도 '행진', 2월 중 113개 사…매년 증가 추세, 한보에 이어 삼미그룹 부도로 전국적 부도 도미노 현상 확산(부산 3. 21)
* 유나백화점 휴점, 삼미그룹 부도 여파로 계열사 유나백화점・삼미특수강 창원 및 울산 공장 휴업(부산 3. 21)
* 공유수면 매립 허가 지방해항청 일괄 이관, 해양부 「항만업무 행정 규제 완화 방안」 발표, 항만출입 자유화・부두 용역 등록제 등 시행(부산 3. 21)
* 녹산 분양가 50만원대 전망, 높은 분양가로 해약사태를 빚은 부산 녹산공단 분양가가 50만원대로 인하 예정(부산 3. 21)
* 을숙도 쓰레기 반입 차단,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쓰레기 2차 매립장 재사용과 관련 부산 사하구의회가 "산업폐기물이 많아 환경오염 우려 높다"는 이유로 매립장 입구를 막아 쓰레기 반입 완전 중단(부산 3. 21)
* 부산 시의회, 「시민감사청구제」 보류, 지하철 1인승무제 도입 추궁(부산 3. 21)
* 시의회, 동아대회 기간 '2부제' 확정, 택시부제 해제・출근시차제 등 보완책 마련(부산매일 3. 21)
* 부산시・의회・시민단체 소위 구성, '낙동강 특별법' 관철키로(부산매일 3. 21)
* 을숙도 쓰레기 추가 매립 시작, 6월말까지 30만t 규모 첫날 주민 반발 없어(부산매일 3. 21)
* 서부산 요금소 김해 장유 이전 추진, 경마장부지 내정 민원소지 적어…경남과 협의 착수(부산매일 3. 21)
* 부산시의회, 부산 「경제 회생」 집중 추구, 시위기 상황 미온 대처 질책, "무담보 기업 자금대출 시급" 지적(국제 3. 21)

* “산폐물, 「일반쓰레기」로 둔갑”, 을숙도 반입 중단 결의, 사하구 의회 22일 실력 저지…성분 분석 요구도(국제 3. 21)
* 기장군, ‘대변항 멸치 축제’ 개최, 내달말께…기장미역・오징어 등 지역특산물 홍보(부산매일 3. 22)
* 부산시, 신청사 본격 준비, 연산동 신청사 시대를 위한 본격 준비 작업 돌입(부산 3. 22)
* 부산상의, 부산경기 2/4분기도 ‘하강’, 재고 조정 등 생산량 감소 전망(부산 3. 22)
* 대티터널 보수 대신동 방면 차선 통제, 24일부터 40일간 부산 서구 서대신동과 사하구 괴정동을 잇는 대티터널 보수 공사 실시, 밤 11시 30분부터 오전 6시까지 괴정동에서 대신동 방면 차선 통제(국제 3. 22)
* 진만현 행정부시장 퇴임 및 최인섭 행정부시장 취임(부산시정 3. 21)
* 제1회 대한민국 환경 사진전(문화회관)(부산교육 3. 21)

3. 23 * 동아시아경기대회 각종시설 현장점검, 문정수시장 사직주경기장・공항로・성화 봉송로 등 점검(시보 3. 27)

3. 24 * 지역 신금 설립 자유화, 지역 밀착 금융기관인 상호신용 금고 설립이 빠르면 올 상반기 중 자유화, 거대 공기업의 민간위탁 경영제 도입될 전망(국제 3. 24)
* 시내버스 「올스톱」 위기, 부산지역 노조 오늘 사업장별 파업 찬반 투표, 부산시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책 마련(국제 3. 24)

3. 25 * 부산시의회 「시민감사청구제」 보류(시보 3. 27)
* 가스요금 오늘부터 태폭 인상, 부산 소매가 기준 LNG 7.5・LPG 17.6% 올라(부산매일 3. 25)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구분	사용량	현행 요금	인상시요금	추가부담금액
LNG (원/월)	취사용 난방용	12㎥/가구 188㎥/25평형	3,590 54,719	3,983 60,881	393 6,163
LPC (원/월)	취사용	10㎏/가구	5,100	6,000	900
지역난방비 (원/연간)	25평형 32평형 45평형	- - -	319,819 371,430 550,234	345,941 403,953 601,778	26,122 32,523 51,544

* 부산지역 민자유치사업 6천억원 규모 4개 선정, 초읍선 경전철 등 총 6천8백36억원 규모의 4개 사업 선정, 98~99년도 민자유치 예비사업으로 영도선 경전철 사업 등 2개 사업 포함(국제 3. 25)
* 부산 시내버스 파업 결의, 전국자동차 노조연맹 부산버스지부 부산지역 42개 단위 사업장별로 파업 찬반투표 실시한 결과 94.7%의 찬성률로 파업 결의(국제 3. 25)
* 시의회, 극한 대립 표류, 시정 감시・감독 기능 도외시한 채 편 가르기・자리다툼 등으로 제기능 못해(국제 3. 25)
* 부산시・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동아대회 무드조성 본격화, 오는 5월 동아시아경기대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대회분위기 조성・시민참여 유도위한 막바지 홍보활동 나서기로(부산매일 3. 25)
* 부산 시내버스 파업 결의, 전국자동차노련 부산버스지부는 사용자측의 임금동결 등 임금교섭 방식에 반발하여 무기한 파업 결의, 서울 등 6대 도시 내일 동시 돌입 할 듯(부산매일 3. 25)
* 부산시, 경마장-경정장-위락단지 연계 강서 종합관광지 조성, 오는 2002년 아시안게임에 맞춰 개장키로(부산매일 3. 25)

3. 26 * 해양대 한바다호 북한 간다, KEDO 경수로 기획실무단 수송, 북경계심 완화위해 실습선택(국제 3. 26)
* 소음학교 방음벽 계속 지연, 부산지역 상당수 학교가 소음 등 교육환경 악화로 학업에 지장을 주고 있으나 부산시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계속 늦어져(국제 3. 26)
* 부산상공회의소, 업종별 의원 선출, 제16대 의원부 업종별 의원 선출회의 열고 태화섬유 이병걸 대표・동신유압 김지 대표 등 16명 의원 선출(부산매일 3. 26)
* 부산 시내버스 임협 타결, 6대 도시 중 첫 노사 극적 합의, 상여금 50%・임금 5% 인상키로(국제 3. 26)
* 부산 도시가스 평균 10%인상, 통상산업부가 액화천연가스 도매가격을 15.3% 인상함에 따라 부산지역 액화천연가스 소매가격도 평균 10%인상(부산 3. 26)

	도시가스	현행요금	인상요금
주택용	취 사 용 개별난방 중앙난방	229.18 291.06 279.80	330.96 322.84 311.58
일반용	영 업 용 난 방 용 산 업 용 냉 방 용	319.15 296.10 242.20 251.30	332.39 327.88 255.44 251.30

* 수질 개선법 '속빈강정', 환경부가 낙동강 오염 해법으로 제정 중인 수질 개선 특별 조치 법안에 대해 부산지역 환경경문가들 허울뿐인 법안이라며 환경부 장관 공박(부산 3. 26)
* 해양대 한나라호 북한간다, 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나라호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의 경수로 기획 실무진을 태우고 북한행(부산 3. 26)
* 금강여객 부도 폐업 위기,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으로 파행 운행을 해온 금강여객이 부도 여파로 폐업 위기에 몰려 부산시가 사업정상화 명령 내려(국제 3. 26)
* 부산해항청, 부산항 3·4부두, 1만여㎡「컨」야적장 전환, 선박 입출항이 잦은 감천항에 새 묘박지 2곳 추가 지정, 내달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국제 3. 26)
* 정부, 올 민자사업 15건 8조8백억, 재정경제원관 주재로 제8호 민자유치심사위원회에서 해운대 온천센터·산성터널 등 총 8조8백45억원 규모의 15개 사업 선정(부산매일 3. 26)
* 해양부, 공동어시장 감사, 배당금 미지급·운영 조성금 지급지연 등 파행 예산집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업무전반에 걸쳐 현장감 사 실시키로(부산매일 3. 26)
* 부산지법, 부산지법 백년사 발간, 부산법원 한 세기 "이 한권에", 판사 20여명 1년간 작업 주요 사건사고·재판 정리, 한국사법 제도 변천사 중요한 자료 평가(부산매일 3. 26)
* 부산시, 유해 식품 업소 58곳 '철퇴', 불량식품 유통·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을 사용해오던 초등학교 구내매점·뷔페 등 58곳 무더기 적발, 관할 경찰서와 관할 구청에 고발 및 행정조치토록(부산매일 3. 26)
* 부산시 의회, 도종이 시의회의장 사퇴안, 임시회 소집 처리키로, 운영위원회 열어 사퇴동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최 일정 잡는 등 구체적 사퇴 처리방향 결정키로(부산매일 3. 27)
* 부산시, 토취장부지 공원화 계획, 인공섬 건설 계획 행정적으로 보류 처리·사실상 폐기로 지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토취장부지를 유원지 및 공원지역으로 고시할 계획 추진, 지주들 거센 반발 예상(부산 3. 27)
* 부산시의회,「도의장 사퇴」이달 중 처리, 도종이의장 사퇴서 제출로 빚어진 시의회 내분 수습 위한 수순 밟기 들어가(국제 3. 27)
* 부산 경제를 살리자, 65개 기관·시민단체 나섰다, 31일 전체협의회 개최해 대책 발표키로(국제 3. 27)
* 시 도시계획위, 감천항 매립지 LNG 화전 건설, 감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규모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대연동 문화회관 일대 문화시설 지구로 결정, 부산문화공원 조성사업 본격 추진(부산매일 3. 28)
* 부산 경제 이렇게 살린다<1>, 조례제정·지원예산 확충, 10대 중점 과제 선정 구체실천안 마련, 중업 제품 구매·인력은행 연내 설치(국제 3. 28)
* 신평 소각장 중재 무산,「녹색연합 환경 평가안」주민 70% 반대, 부산환경 개발 "사용허가 신청 공장 가동"(국제 3. 28)
* 택시기사 구인난 '옛말', 만성 구인난에 시달리던 부산지역 택시업체들이 올 들어 불황이 심화되면서 구직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즐거운 비명(국제 3. 28)
* 부산 철강업계 "안팎시련", 부산지역 간판산업인 철강업이 세계 시황 악화와 엔저여파로 불황의 늪에 빠져(부산매일 3. 28)
* 본회의 표결로 거취 최종 결정, 오는 29일 제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종이 의장 사퇴서 처리 위한 표결 실시(부산매일 3. 28)
* 난간 뚫고 30m 곤두박질, 구포대교 버스 추락 사찰차…탑승 6명 중 1명 구조, 운전자 핸들 조작 잘못 추정, 수심 깊고 어두워 구조 애로(부산 3. 28)
* 정부-업체 가덕항 건설 주도권 싸움, 민자 투자사「매수 청구권」보장 요구(부산 3. 28)
* 시체육회 이사 대폭 교체 임원 49명 중 23명 새인사, 오는 2000년까지 앞으로 4년간 부산체육회를 이끌어갈 부산시체육회의 최고집행기관인 이사회의 임원진 대폭 물갈이(부산 3. 28)

* 불황 여파 관급공사 중단 사태, 부산지역 건설사 연쇄도산 자금사정 악화로, 신시가지우회로・지하철 3개 공구 등 차질(부산 3. 28)

3. 27 * 시정 동정, 문정수 부산시장은 3월 22일 최치원사상과 문학출판기념회에 참석 축사(시보 3. 27)
* 내년도 국비예산확보에 총령, 시 정부 긴축 재정운용으로 어려움 예상(시보 3. 27)
* 그린벨트 무단형질 변경 등 강력단속, 시 감사실 중심 현장단속・실태확인 나서(시보 3. 27)
* 보건업무추진 실적종합평가, 시 16개 구・군 대상 업무전반에 걸쳐 실시 의료서비스 향상시켜 삶의 질 높이고 장비・시설보강 다양한 욕구 능동대처(시보 3. 27)
* 하수 처리수 재활용 확대 추진, 시 하수처리장 발생…기계냉각수 등으로(시보 3. 27)
* 추곡수매 약정제 첫 시행・시 4월말까지 선급지급, 부산시에서는 오는 3월 27일~4월 10일까지 쌀 생산농가와 지역단위농협별로 추곡수매약정은 체결토록(시보 3. 27)
* 학교주변 불량식품 총 58개소 위반적발(시보 3. 27)
* 봄철 산불예방・진화 주력, 시 장비・인력・신고망 재정비 강화(시보 3. 27)
* 길거리 농구대 32개소 설치, 부산시는 주거생활권내 주민체육 기반시설 저변 확충을 위해 길거리 농구대 32개소 설치키로(시보 3. 27)
* 버스전용 치료제 시 전일 시행키로, 동아시아경기대회중…전국서 처음(시보 3. 27)
* 위생 접객업소 시설환경 등 수준 높이기로, 시, 각종 국제 행사 대비,「좋은 식단」실천 등(시보 3. 27)
* 국제행사대비 부산 꽃 도시로 가꾼다, 시「시민 꽃 심기 운동」… 자율참여 당부 오는 5일까지 각 구 민원창구 등 꽃씨 무료배포(시보 3. 27)
* 중소기업기술개발능력 취약,「기술실태・수요조사」결과보고(시보 3. 27)
* 동아대회 운영본부 조직안 확정, 조직위 체제개편 내달 10일 본격가동(시보 3. 27)

3. 29 * 도의장 사퇴서 부결 시의회 62회 임시회, 부산시의회는 도종이의장의 사퇴 동의안을 부결, 도의장이 의장직을 계속 수행(시보 4. 3)
* 부산상의「신협」설립, 부산지역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해소・금융지원 담당하는 부산상의 신용협동조합 설립(부산 3. 29)
* 부산시의회, 도의장 사퇴 동의안 부결, 찬성 27・반대 30 근소한 표차로 부결, 반발 계속(부산 3. 29)
* 부산시의회, 도의장 사퇴 동의안 부결, 본회의에서 도종이의장이 지난 24일 시의 회사무처에 제출한 의장사퇴서 처리 위한「사퇴동의안」표결에 부쳐 찬성률 45.6%로 부결(국제 3. 29)
* 부산상의 16대 회장 강병중씨 재선, 16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강병중 현회장이 선출(국제 3. 29)
* 부산시, 재정위기 극복 박차, 정부보조금 난망・재원수요 폭증 대비, 경영수익 확대 방안 추진(부산 3. 29)
*「부산 경제 살리기」회의, 부산시・부산상의・한국은행부산지점 등 부산지역 65개 기관으로 구성된「부산 경제 살리기 추진협의회」가 열려 기관별 지역경제 지원책 발표(국제 3. 31)
* 통계청, 부산물가 6대 도시 중 최고, 3월 중 부산지역 소비자물가가 전국 6대 도 시 가운데 최고치 기록, 3월 중 0.6%상승 '광주의 6배'(국제 3. 31)
* 마약사범 늘어난다, 부산 올 115명 구속 3월 한달만 42명(부산 3. 31)
* 통계청, 부산 실업률 전국 최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부산 경남지역 실업자수가 처음으로 8만명 넘어(국제 3. 31)
* 산업생산 폭락 90년비 73%선, 부산지역 산업생산이 지난 90년 3/4 수준으로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극심・실업률 2년 연속 전국 최고치 기록(부산매일 3. 31)
* 제7대 부산지방경찰청장 황활웅 치안감 취임(경찰사 3. 29)

3. 31 *「부산경제 살리기 추진협의회」모임, 역량 총집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각종 준조세성 기업부담 근절, 기업의 규제완화 추진팀 구성(시보 4. 10)

4. 1 * 부산시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시역내 도서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산시에 등록된 도서는 38개소에 총면적 35.83km²이고 을숙도 하단부와 녹산 등 새등도 2개소 추정면적 약 1백24만m²는 미등록 된 것으로 조사(시보 5. 1)
* 부산지하철 3호선 30개역 최종확정, 본・지선 등…수영・반송선 구분 2001년도까지 건설 1조4천억 투입(시보 4. 10)
* 공법따라 10층 이상도 가능・기초・침하연구용역 보고회, 시 명지주거단지(시보 4. 10)
* 화염병에 맞은 김호준군 위문, 문정수 시장 사경 헤매는 환자 가족 찾아, 부경련 대학생 폭력시위 반이성적 행위(시보 4. 3)

* 부산시, 건축분쟁조정위 설치, 지역 주택건설업계 지원 위해 주택건설 인허가를 둘러싼 마찰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키로(부산 4. 1)
* 도의장 재 사퇴의사 표명, 부산시의회 파행 수습 곧 정상화(국제 4. 1)
* '부산 신보조합' 이달 중 출범, 3월말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이번 주 중으로 통상산업부에 조합설립신청 계획(부산매일 4. 1)
* 교통공단, 부산지하철 3호선 정거장 30개로 결정, 강서구 대저동과 수영구 수영 로타리·해운대구 반송을 잇는 부산지하철 3호선의 정거장은 30개·낙동구간은 고가로 건설 될 전망, 빠르면 10월 착공(부산매일 4. 1)
* 부산교통공단, 수영R·구포역·사직운 「아시아드선」 3개역 신설, 본·지선 등 30개 역 최종 확정, 「낙동강 구간」 고가화등 부산시에 사업승인 요청(국제 4. 1)
* 지하철 3호선 노선 확정, 수영선 중전철 건설·정거장 17개, 2002년 개통 힘들 듯(부산 4. 1)
* 부산시, 정보인력단지 조성, 옛 영도구청사 3층 2백평 규모, 첨단시설 갖춰 8월 가동(부산 4. 1)
* 기장군, 군청 안가도 증명서 발급, 직장인·오지 마을 주민들 편의 위해 기장읍 현대아파트·장안읍 원내 마을회관 등 5곳에 현장 중계 민원실 설치해 1일부터 운영(부산매일 4. 2)

4. 2
* 악성폐수 9곳 적발, 시 54개 대형업소 수질분석결과(시보 4. 10)
* 시장동정, 문정수 부산시장은 4월 2일 오후 6시 롯데호텔 3층에서 개최된 대우자동차(주) 시차 레간자 발표회에 참석 축하(시보 4. 3)
* 부산시, 외국인 투자기업 본격 유치, 정부의 자본자유화 조기시행에 따라 부산시도 투자서비스센터 설치·전용공단 설정 등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위한 준비작업 시작(부산 4. 2)
* 부전 역세권 5개 분야 개발, 통합역사·상업 지구 등 분할, 복선 전철·환승 주차장 설치(부산 4. 2)
* 광안대로~신시가 접속도 노선 확정, 부산시립미술관 부지 편입으로 말썽을 빚은 광안대로와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의 연결부분 고가도로 노선이 요금소 너비를 축소하는 선에서 최종 확정(국제 4. 2)
* 도의장 사퇴서 다시 제출, 도종이의장 2일 시의회사무처에 의장사퇴서 다시 제출, 부산시의회 내주 임시회 열어 동의안 처리키로(국제 4. 2)
* 부산시, 부전 역세권 개발 본격화, 부산진구 부전 철도역과 인근 하얄리아 미군 부대 이전 부지를 연계한 서면일대부전역세권 개발이 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기관 선정으로 가시화, 서면일대 130만㎡ "단장"(부산매일 4. 2)
* 부산무용제 '체질개선' 시급, 안일한 운영·밀실 심사로 신뢰도 추락, 올해 출품기준 조차 마련 않아 졸속우려, 무용인·일반인에 쇄신노력 보여줘야(부산매일 4. 2)
* 부산기업해외투자 올 들어 급감, 계속된 지역경기침체 여파, 2월까지 1,500만불에 불과(부산매일 4. 2)
* "명지 지질재조사 결과 믿을 수 없다", 부지 매입업체 "해약 강행", 부산시가 명지주거단지 분양 제고를 위해 지질을 재조사해 아파트 시공에 긍정적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 일대 공동주택용지를 산업체들은 지질재조사팀 절반이 시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해약을 강행키로(부산매일 4. 2)
* 부산기업 대북 경협 '재가동', 지난달 31일 그동안 제한해왔던 민간단체의 북한에 대한 쌀 지원과 기업체 경제지원 허용에 따라 신발·피혁·수산업계 등 부산지역 업체 들 대북 경협 진출 위한 준비작업 착수(부산매일 4. 2)
* 박차정의사 동상 시 신청사 광장에 착수, 추진위 건립부지 다시 물색, 금정문화회관 준공 늦어 변경 불가피, 시에서 수용 않을 땐 사업 표류위기(부산매일 4. 2)

4. 3
* 3무추방 만들자, 시 활력 있는 공직사회로(시보 4. 3)
* 「부산 경제 살리기 추진협의회」 발족, 시 등 지역경제관련 주체 70개 단체로 범시민 차원서 예산·인력확충·중기업·자금지원·기업여건 개선 등(시보 4. 3)
* 공공성·경제성 조화를, 시 경영수익사업 지침 시달(시보 4. 3)
* 봄철 해빙기안전관리 실태확인 점검, 부산시는 봄철해빙기를 맞아 주요공사장에서 본격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안전사고 대책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키 위한 지도 점검(시보 5. 1)
* 해외동포, 국내보유 부동산처분안내, 4월 7일로 유예기관 만료로 권리계속(시보 4. 3)
* 생산성향상 행정사무관리 추진, 시 지침마련 10% 덜·더하기 운동 등 고비용·저효율·구조타파로 절약 앞장(시보 4. 3)
* 부산시 신청사 이전계획 수립, 청사관리기획단 12월 준공 앞두고 본격추진(시보 4. 3)
* 동아시아대회 준비 진행, 각종경기장 개·보수작업 80% 진척…4월 마무리(시보 4. 3)

* 공동주택관리 실태 조사키로, 부산시는 공동주택관리실태 전수조사를 3월 24일~4월 12일까지 실시(시보 4. 3)
* 소비자단체 활동 적극지원, 97소비자보호 시책 추진계획 마련(시보 4. 3)
* 식중독 발생예방, 시 봄철행락기간 맞아(시보 4. 3)
* 홍보 사전단 타시·도 원정, 시 동아시아경기대회 스포츠축제로 성공개최 협조 당부(시보 4. 3)
* 자치구·군 재정분야 종합평가, 시 지방세 징수실적·예산절감 등 전반(시보 97. 4. 3)
* 특별방역을 실시, 동아경기대비 비상근문(시보 4. 3)
* 부산시, 부산시 모범택시 150대 증차, 3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에서 최근모범 택시희망자 자체 조사 결과 150명이 전환을 희망(국제 4. 3)
* 부산시, '나홀로 차' 도심 통금 추진, 1인 탑승 자가용승용차의 도심운행 제한·2인 이상 승용차에 혼잡통행료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수요관리정책 도입키로 해 논란 예상(부산매일 4. 3)
* 부산·강남대표 '낙동강특별법' 수용 재촉구, "개발보단 수질 우선" 강력 추천(부산 4. 3)
* 부산 수출 전국 비중 4.6% 불과, 잠시 증가세를 보였던 부산지역 수출이 지난 2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전국 수출대비 비중이 80년대 10%대의 절반도 못 미쳐, 2월 무역수지 흑자도 지난 95년 월평균 흑자의 57.6%수준으로 격감(부산매일 4. 3)
* 부산시, 시예산 10% 경제 지원, 모든 행정력 동원해 부산경제 살리기에 총력, 「10대 과제」 시행 위한 본격 작업, 산업수도료 2년 동결키로(국제 4. 3)
* 사회봉사 실천 않은 집유 사범 2명 검거,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실천하지 않은 집행유예 선고사범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징역형 집행(부산 4. 3)
* 「낙동강 특별법 시민안」 추진, 수질 개선법 통한 회생 불가능 판단, 위천 본부·시 긴급 결의(부산 4. 3)
* 도의장 사퇴서 수리 될 듯, 부산시의회는 도종이 의장이 사퇴서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3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퇴 동의안 처리 위한 제63회 임시회를 오는 7일 소집키로(부산 4. 3)
* 외국인서비스센터 개소(부산시정 4. 3)

4. 4
* 시정 동정, 문정수 부산시장은 예비군의 날을 맞아 4월 4일 오전 10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했다(시보 4. 10)
* 민락 공유수면매립 순시, 문시장 공사 관례자 등 격려(시보 4. 10)
* 부산시, 중업 융자금 조기 지원, 지역경제의 침체로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위해, 하반기 예산 700억 5월부터 대출(부산 4. 4)
* 건교부, 부산 정관 신시가 조성, 기장군 정관면지역 도시계획구역으로 새로 편입 돼 신시가지로 개발될 예정(국제 4. 4)
* 지하철 2호선 2년 연기, 당초보다 2년 연장된 2001년께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식화, 건교부에 건설운영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 방침(국제 4. 4)
* 김해~사상 경전철 사업 3개역 신설·사업비 증액, 도시철도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해~사상 경전철 사업 구간에 정차역이 당초보다 3곳 늘어(국제 4. 4)
* 건교부, 기장 신시가지 조성 확정, 기장군 정관면 일원 5백39만평과 제주 서귀포시 상예동과 하예동 일원 2백89만평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새로 편입돼 신시가지와 관 광산업단지로 개발(부산매일 4. 4)
* 정관 신도시 도시계획구역 확장 건교부 부산편입 5백35만평 변경 고시(부산 4. 4)
* 「도시 계획 구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7일자로 변경·고시키로(부산 4. 4)
* 부산지역 수출 매년 감소, 2월 중 부산지역 수출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한데 이어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0.1%P 감소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부산 4. 4)
* 부산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정부는 4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올해 안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에 60억원 투자·소프트웨어 지원 센터 설립키로(부산 4. 4)
* 동아대회 한국선수단장 결정, 최헌열 대한농구협회장이 제2회 부산동아시아 경기대회 한국선수단장으로 결정, 선수촌장엔 박기성씨(부산매일 4. 5)
* 동래구, 공개감사제 부산 첫 도입, 부산시내 일선구청 중 처음으로 관내 동 감사 실시 때 주민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수렴·집중 감사를 펼치는 「97 동 종합감사 공개감사제」 도입·시범 시행키로(부산매일 4. 5)
* 건교부, 김해~사상 경전철 정차역 3곳 추가, 도시철도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구간에 정차역이 당초보다 3곳 늘어, 사업비도 3천200억원 증액(부산매일 4. 5)

* 부산 방문 외국인 감소, 전년도에 비해 7%가량 감소, 국내 취업 목적으로 분석되는 중국인·필리핀인 방문은 크게 늘어(국제 4. 5)
* 부산 경제 살리기 첫 실무자 회의, 지난 달 31일 구성된 「부산경제살리기 추진협 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유관기관 첫 실무자회의가 7일 부산시 주관으로 열리는 등 각 기관별로 구체적 시책 마련(국제 4. 5)
* 부산시, 부산 문화 축제 위원회 설립, 바다축제·부산포축제 등 부산시가 주최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 전담위해 민간기구인 사단법인 부산문화축제위원회 곧 설립(국제 4. 7)
* 서구청, 암남공원 유료화 추진, 공원관리 재원확보 등 위해 오물 수거료 명목으로 입장객 한 사람당 200~300원씩 받는 방안 검토 중(국제 4. 7)
* 정신요양시설 화재 무방비, 부산시내 정시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상당수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가입했더라도 대물보상에만 가입 돼 인명피해 사고 때 대책 전무(국제 4. 7)
* 부산서도 「금융피라미드」 사기, 최근 서울에서 국제 금융피라미드 조직이 적발된데 이어 부산지역에서도 적발, 36명에 13억원 챙긴 40대 영장(국제 4. 7)
* 부산경찰청, 청소년 범죄 초저녁 주택가서 다발,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3개월 동안 시 지역에서 적발된 청소년 사범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5% 준 것으로 조사(부산매일 4. 7)
* 부산시 의회, 「도의장 사퇴」 통과, 제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의장 사퇴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찬반 투표 실시, 찬성 37표·반대 20표로 동의안 가결(부산 4. 7)
* 통계청, 부산 물가 상승률 전국 최고, 3월 중 부산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국 6대 도시 중 최고 수준, 전월비 0.6% 올 들어 2.1%올라(부산 4. 7)
* 부산·경남 지역 식목일 행사 다채, 공무원·시민단체 등 참가 곳곳서 나무 심어, 한식·연휴로 도로 행락차량 몸살(부산매일 4. 7)

4. 5
* 황령산에서 식목행사, 문시장 등 시 직원 벚나무 심어(시보 4. 10)

4. 7
* 시의회 의장 사퇴동의안 가결, 부산시의회 제63회 임시회(시보 4. 10)
*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 교육(부산교육 4. 7)

4. 8
* 부산 신발 부품 '동주 공급기지' 부상, 부산 수출이 수년째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2~3년새 연간 30~50%씩 신발부품 수출이 급증, 부산 전체 수출의 10% 차지(부산매일 4. 8)
* 부산시, 녹산 외국인 전용공단 추진, 통산산업부가 국가공단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용지를 무상임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부산시도 녹산공단에 외국인 공장부지 무료임대·전용 공단 추진 적극 검토키로(부산 4. 8)
* 부산시, 정관 신도시 본격 추진, 정관신도시의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안을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음에 따라 본격 추진키로, 2006년까지 1조2천억 투입해 240만평 개발(국제 4. 8)

4. 9
* 사하구 보건소 최우수 영예, 사하구보건소가 96년 시 보건업무추진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보건소로 뽑혀, 노인 무료 진료센터 등 성과 돋보여(부산매일 4. 9)
* 동국제강 부지 절반 주거용지 건설, 부산 남구 용당동 동국제강이 이전 예정 부지 및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지 일대 「용호동 도시설계지구 도시설계(안)」이 잠정 결정, 29%는 공공용지 21%는 마리나·상업시설(부산매일 4. 9)

4. 10
* 동아게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부산 대외 지향적 발전 추구해야", 이윤극대화 기회 제공해야 도시발전(시보 4. 17)
* 매립지역내 건출물 시설물 안전점검, 시 해빙기 맞아 위험요인 사전제거(시보 4. 10)
* 학교폭력근절, 시 상춘기 특별대책(시보 4. 10)
* 철저한 사전심사로 용역과제 강화, 시 중복·예산낭비 요인 사전 억제(시보 4. 10)
* 2단계 국토 대 청결 운동, 시 4월 30일까지 3개 시민 운동도(시보 4. 10)
* 중소기업운전자금 앞당겨 지원, 시 4월 16일~30일 700억 규모 경영안정 도움(시보 4. 10)
* 식료품 등 위생 강화, 시 동아시아 대회대비(시보 4. 10)
* 97무료급식 지원계획 추진, 시 34개 시설 5억7천만원 들여 59만명 대상(시보 4. 10)
* 시 올해 주택 4만채 건립할 계획, 보급률도 76%에서 3% 상향조정, 79%까지 끌어 올릴 방침(시보 4. 10)
* 정보인력 양성단지 조성, 부산시 전문연구원 50명 선발·SW개발(시보 4. 10)
* 부산신용보증조합 4월 개소, 빠르면 5월부터 정식업무(시보 4. 10)
* 건설 폐기물 특별단속 시 불법투기예상지역, 4월 1일부터 한 달간 건설폐기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시보 4. 10)

* 97모범 선행・시민 발굴, 시 연중 추천받아 분기별로 표창(시보 4. 10)
* 내무장관 10일 부산시방문, 내무부장관은 양종석 차관보와 류수택 공보관, 이병진 치안보좌관을 대동하고 4월 10일 부산시를 방문(시보 4. 10)
* 동아시아 대회 준비 막바지, 시 타시・도 직접 방문 홍보전력(시보 4. 10)
* 「시민감사관제」 운영 여론 직접 듣는다, 시 「…감사관」 활동희망자 4월말까지 접수 5월 중 위촉(시보 4. 10)
* 재활용품 수거체계 요일별로 정해 추진, 부산시는 재활용품을 요일별로 수거품목을 정해서 수거하는 등 수거체계를 정비하는 등 수거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시보 4. 10)
* 유기시설 안전실태 점검, 시 행락철 맞아 공원 등 놀이시설(시보 4. 10)
* <자전거 이용> 대기오염・교통난 줄여 "일석이조", 부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단계별 추진(시보 4. 10)
* 부산시, 동아대회 차량 2부제 생계수단용 차량 제외, 동아시아 경기대회 기간 동안 자가용・승용차 2부제의 보완대책으로 생계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생계용 판정 기준 마련(국제 4. 10)
* 보건소 기능 대폭 확대, 구・군・동 위생 복지 업무 흡수 통합, 조직 3단계화・의료인력 3백명 충원(국제 4. 10)
* 부산 부도율 80년 이후 '최고', 한국은행부산지점에 따르면 지난 3월 중 부산지역에 돌아온 어음 교환액 20조1천3백54억원 가운데 1천4백61억원이 부도처리 돼 어음 부도율이 지난 2월보다 0.04%상승(국제 4. 10)
* 동국제강부지 아파트 8천5백세대, 부산 남구 용호동 동국제강 부지에 설치될 도시 설계안 확정, 6개 학교도 신축키로(부산 4. 10)
* 위천 저지 대규모 궐기, 위천공단 결사저지 부산・울산・마산・창원지역 총궐기본부는 정부의 위천공단 지정 움직임을 막기 위한 합동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총리면담도 추진키로(부산 4. 10)
* 페스카마호 선원 살해 항소심, 한국인 선원 등 11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받은 페스카마 15호의 중국 조선족 선원 6명 전원에게 항소심서 사형 구형(부산 4. 10)
* 부산소년체육대회 폐막, 97부산소년체육대회가 수영에서만 대회신기록 11개를 수립하는 등 풍성한 기록과 함께 10일 막 내려(국제 4. 11)
* 97 교육청 자체 평가 실시 계획 수립(부산교육 4. 10)

4. 11
* 중소기업 상설 전시판매장 건립, 부산시 오는 연말 개장목표(시보 4. 17)
* 119구조 구급대 활동사례 발표, 시 구포대교 사찰버스 추락사고 때(시보 4. 17)
* 부산 미분양 아파트 급감, 주택건설사의 연쇄부도 등 지역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해 지역업계 반색, 한달새 3천가구 소진(국제 4. 11)
* EAG 최종 엔트리 마감,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선수와 임원 확정, 9개국 1천8백59명 참가…북한 불참(국제 4. 11)
* 폐천부지 1만㎡ 양여 합의, 도로・하천 등 4만8천㎡도 강서구에 양도, 강서구・김해시 서낙동강권 행정 협의(국제 4. 11)
* 부산지검, 환경사범 예고단속, 환경오염 기업에 대한 단속을 불시단속에서 예고 단속으로 전환, 상습적 환경오염 기업주는 처벌 강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벌(국제 4. 11)
* 부산 중업 하루 5.4개 꼴 도산, 부산지역 기업 어음부도율 16년 8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3월 부도율 0.73%(부산매일 4. 11)
* "부산-규슈 광역경제교류권 설정을", 부산・울산 등 한반도 남부권과 일본 규슈지역을 「한일광역경제교류권」으로 설정 자동차 산업공정을 분업화하고 「아시아 벤처캐피털」을 양국이 공동 창설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일경제 총수간 회의에서 공식 제기(부산매일 4. 11)
* 가덕신항 민자사업 20개 기업 컨소시엄 확정, 「컨」 부두 10선석・다목적 1선석 2005년 건설, 해양부 사업시행 조건 타결…98년 본격 착공(부산 4. 11)
* 해양부・부산시, 감천항 수산물시장 규모 합의, 전용부두 길이 5백m 너비 30m로 결정(부산매일 4. 11)
* 부산동아시아드 소식, 참가선수 9개국 1,859명 확정, 북한 참가 통보 해(부산 4. 11)
* 창업박람회 개막 '열기 후끈', 명예・조기퇴직자나 소자본 자영업자 위해 마련,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부산무역전시장에서 개막, 컴퓨터・교육 등 60개 업체 참여(부산 4. 11)
* 부산 학생 야영 수련원 철마 분원 개원(구포 분원 폐쇄)(부산교육 4. 11)

4. 12
* 낙동강 살리기 범시민 결의대회, 하구둑~낙동대교간 8km 인간 띠 형성(시보 4. 17)
* 시정 동정, 문정수 시장은 4월 12일 오후 7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경기대회 축하쇼 관람(시보 4. 17)

* 낙동강 살리기 범시민 결의대회, 시 대청소도 실시 12일 낙동강 하구언 일대(시보 4. 10)
* 부산 실업자 갈수록 는다, 전반적 불경기 여파로 지난 한해동안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는 반면 부산지역 구직자는 크게 늘어 취업난 심화, 1분기 구직자 23% 증가…영세업체는 구직난(부산매일 4. 12)
* 부산외대 2002년 김해 이전, 송은복 김해시장・학교법인 성지학원 정해린 이사장・조규향 부산외대총장 등 김해시청 회의실에서 부산외국어대 김해이전 기본협약 체결(부산매일 4. 12)
* 부산해항청, 항만순환도로 연합철강 외곽 우회 추진, 연합철강의 반발을 사왔던 항만순환도로 연합철강 내 관통계획이 '기계손상' 등 피해 주장에 연합 철강 외곽을 우회하는 방안으로 변경・추진(부산매일 4. 12)
* 부산외대, 이전 협약서 체결, 내년까지 현재 공원부지로 지정 돼 있는 이전 예정부지를 학교시설 지구로 도시계획 변경・2002년부터 첫 수업 시작(국제 4. 12)
* 건설교통부, 부산 자동차 68만대 넘었다, 3월말 기준 전국 7% 차지…용도별로는 92%가 자가용(부산 4. 12)
* 소형주택 건설 의무제 폐지, 부산・대구 등 4개 지역에 대한 「소형 주택 건설 의무 비율제」 제 미분양 사태 해소 일환으로 폐지(부산 4. 12)
* 부산항 연안 생물서식 부적합, 부산항 주변 연안이 수산 생물의 서식에 부적합한 해역으로 분류될 만큼 오염도 심각(부산 4. 12)
* 부산 가덕신항 공익성 뒷전, 남항부두 물동량 평가 후 2단계 추진 등 업체 이윤 우선 민자 유치 협상 타결(부산 4. 12)
* 부산지방경찰청, 영안실 폭리 업주 23명 입건, 병원으로부터 영안실 임대받아 불법 장의식장 영업, 업주 외 병원장도 전원 입건 방침(부산 4. 12)

4. 13
* 동아대회 경기장 점검, 문정수 시장, 동아시아 경기대회 주경기장인 구덕운동장등 5곳의 경기장을 점검(시보 4. 17)

4. 14
* 부산대병원 AIDS 병동 폐쇄, 병원증축에 따른 병실 부족 이유, 부산지역 유일 에이즈 환자 격리 병동 대책 없이 폐쇄, 부산・경남 등 환자 132명 치료 공백 우려(국제 4. 14)
* 「부산문화축제위」 창립 총회, 시 주최 행사 민간화…사단법인 설립(부산 4. 14)
* 황령터널 보수 15・16일 통행 제한, 내부청소 및 조명 시설 보수 공사, 2개 터널 중 1개 터널 폐쇄・1개 터널만 양방향으로 통행(국제 4. 14)
* 「낙동강 1억 손배소」 첫 공판, 낙동강 수질 악화에 따른 위자료 1억원 청구소송 첫 공판 열려(국제 4. 14)
* 을숙도 쓰레기 반입 재개, 주민반대로 사용 중단됐던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2차 쓰레기 매립장 잔여지에 대한 부산시의 쓰레기 반입이 14일부터 재개, 산폐물 매립 여부 계속 감시(부산 4. 14)

4. 15
* LED식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 시 비디오 화면에 입체식으로 식별용이 35개소 설치 중(시보 4. 24)
* 「서류없는 간부회의」 시 액정 비젼을 활용, 매주 화요일 시장 주재 때(시보 4. 17)
* 부산시의회 제64회 임시회 열어 신임의장 선출(시보 4. 17)
* 가족산책 공원 20곳 조성, 부산시 14개 구・군에 1천2백평 규명, 빈터활용 의자・운동시설 등 설치키로(국제 4. 15)
* 새 부산시의장에 이종만 의원,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보궐선거 실시 해 새의장 선출(국제 4. 15)
* 하반기부터 과외방송, 안병수교육부장관은 최근 교육개혁위원회 등 일각에서 제기 되고 있는 과외전면허용설은 사실과 다르며 학부모들의 과외비 경감을 위해 현재 교육방송에다 2개의 위성채널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부터 과외전담방송 실시키로(국제 4. 15)
* 다대 배후로 1단계 착공, 450억원 투입 5.3㎞ 6차선 99년 완공(국제 4. 15)
* 부산, 녹지부족도시 2위, 농경지 46・산림지역 7.1% 차지, 수령 20년 이상 녹지지대 아예 없어(국제 4. 15)
* 감천항 수산도매시장 확장, 부산지역 어업인 숙원인 국내 최대 규모의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이 지난 2년 동안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간의 줄다리기 끝에 최종 합의(국제 4. 15)
* "낙동강 오염은 정책에 큰 책임", 낙동강 상수원오염에 대한 1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 열려, 부산지법 1억원물 소송 첫 공판(부산매일 4. 15)
* (사)부산문화축제위원회 창립총회(부산시정 4. 15)
* 안병영 교육부 장관 초청 강연회(KBS홀)(부산교육 4. 15)

4. 16
* 신임 부산시의회 의장 이종만 의원 선출, 부산시의회 제5대 의장에 이종만의원 선출, 문정수시장 오늘 소환, 문정수 부산시장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의 정치 자금 수수의혹과 관련 16일 소환 된다고 대검중수부 검사가 발표(부산매일 4. 16)

*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시의회 임시회 하얄리아부대 이전 결의문 채택(부산 4. 16)
* 서구청, 암남공원 시민쉼터 탈바꿈, 암남공원 조성공사 마무리·20일 준공식과 함께 시민 걷기 대회 개최, 진입광장·구름다리·전망대 등 마무리(부산매일 4. 16)
* 부산해항청, 국제여객터미널 대폭 확장, 부산항의 국제여객터미널 재개발이 기존 위치에 1부두까지 포함하는 등 대폭 확대 추진 전망(부산매일 4. 16)
* 아시안위크 내달 11일 개막, 오늘 10일부터 부산에서 열릴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맞아 아시아인의 문화 축전인 「아시안위크97」이 11일부터 7일간 열려(부산매일 4. 16)
* 부산시, 생계용 차량 2부제 제외, 오는 5월 동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시행하는 2부제와 관련 생계용 차량은 제외시키기로 하고 오는 21일부터 자치구·군에서 대상 차량 접수 받기로(부산 4. 16)
* 「신평 소각장」 미관심의 통과, 소각장 가동문제를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업체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환경개발이 신청한 신평동 산업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미관 심의 통과(국제 4. 16)

4. 17
* 동아시아경기 기간 중 자가용승용차 2부제 운행, 시 완벽한 시행위해 5월 16일~19일까지(시보 4. 17)
* 동아경기대회준비, 시민단체와 협력체계 도시 환경준비 등 마무리(시보 4. 17)
* 「시민의종」 보호 관리강화, 시 조류피해·낙서·훼손 방지시설 설치(시보 4. 17)
* 자동홍보 신호기 대포정비, 시 300여 군데 오작동 등 보수(시보 4. 17)
* 97취로사업 조기 수진키로, 동아 대회 환경정비 등(시보 4. 17)
* 가스보일러 사고예방 대책마련, 시 환기구설치 등 대대적 홍보 나서(시보 4. 17)
* 지하수폐공 전수조사, 원상복구 등 사후관리 강화‥법 개정 따라 실시(시보 4. 17)
* 재래시장 대형화재 무방비,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소방시설미비로 대형 화재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부산 4. 17)
* “택시료 상반기 인상 불가”, 부산시내 택시료가 상반기 중에는 안 올라, 부산시 업계 통보…타 시·도 형평 고려 하반기 확정(부산 4. 17)
* 부산지검, 동서대 장총장 소환, 학교법인 동의학원 비자금 조성 및 장총장의 비자금 횡령의혹 수사(국제 4. 17)
* 부산·경남 순물동량 23% 차지, 연간 순물동량 전국 23.2%, 총 10억t…수송부담률 도로가 87%(국제 4. 17)
* 해양부, 가덕 신항 정부투자분 공개 입찰, 1조7천억 규모 시공권 ‘컨’공단 위탁, 민자업체 수의계약시 특혜시비 전면 차단(부산매일 4. 17)
* 부산교육청, 중학입학 내년부터 선 지원 후 추첨, 중학교 전형도 고교 입학전형 방식과 같이 선복수지원 후첨방식으로 바꿔 내년부터 시범 시실키로, 주소지·학력 입력 컴퓨터로 무작위 선발(부산매일 4. 17)
* 부산시, 롯데 스카이프라자 “특혜광장”, “허가 결정 위법” 관련 공무원 징계조치, 가동 중지명령은 내리지 않아 비호 의혹(부산매일 4. 17)

4. 18
* 부산시·해항청 항만행정협의, 감천항공영수산물 도매시장 등 논의(시보 4. 24)
* 부산시의회, 부산 현안추진 특위 설치 제의, 제64회 임시회 4일째 회의에서 부산 정보단지와 가덕 신항만·경마장 등 표류하고 있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 의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키로(부산 4. 18)
* 문정수 시장 소환 조사, 김봉호·노승우씨도 불러 김수막의장 18일께 조사(부산 4. 18)
* 부산상의, 지역경제회생 총력전, ‘벤처’ 육성 규제 완화 등 10대 과제 중점 추진, 간부 임금인상분 반납 ‘활성화기금’ 사용(부산 4. 18)
* 검찰, 문정수 시장 2억 수수 확인, 95년 지방선거 때 한보측으로부터 2억원이 든 사과상자 받아(부산매일 4. 18)
* 검찰, 롯데 스카이프라자 ‘위법’ 내사, 롯데 스카이프라자 영업허가가 위법이라는 지적에 따라 검찰이 인·허가 과정에 대한 내사에 착수(부산매일 4. 18)
* 가덕 신항 예정지 환경대책 마련 시급, 구역내 수달서식 확인…철새도래지도 급속 훼손, 항만서 하수방류 땐 BOD 증가 수질 악화 우려(부산매일 4. 18)
* 공익근무요원 탈선 속출, 장기 무단결근을 일삼고 성폭행·절도·대마초 흡연 등 범죄행위까지 서슴치 않아 대책 마련 시급(국제 4. 18)
* 종량제 2년 쓰레기 더 늘었다, 부산 발생량 작년 0.7%에서 올 0.3% 증가해, 「음식물」 2년새 9.7%감소 불구 ‘기현상’(국제 4. 18)
* 부산·경남 주식인구 대폭 증가, 지난 한해동안 부산·경남지역 주식시장 저변 크게 확대, 25만8천여명…저년대비 6.7%(부산 4. 18)
* 녹산 삼성전기 본격가동, 오늘 준공 삼성차 핵심부품 20% 공급, 종업원 1,100여명…지역 경제 회생 전기 기대(부산 4. 18)

4. 19 * “남항 관리비 지원”, 부산해항청에서 가진 부산지방해운항만청과의 항만행정협의회에서 지난 75년 관리권을 위임받은 남항의 원활한 관리가 적자누적 때문에 어렵다며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재정 지원 공식 요청(부산매일 4. 19)

* 종토세 과표 2%인상,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과표현 실화율이 낮은 일부지방만 소폭 인상되고 전체적으로는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국제 4. 19)

* 선상살인 5명 무기 감형, 한국인 선원 등 11명을 살해해 1심에서 전원 사형을 선고받은 페스카마 15호의 중국 조선족 선원 6명 중 주범을 제외한 5명 무기로 감형(부산 4. 19)

* 지하철 2호선 공비 배 증액, 부산지하철 2호선의 공기가 4년가량 지연되면서 당초 보다 1백%이상 공사비 증액 불가피, 주먹구구식 계획변경으로 예산난과 시민부담 가중(부산 4. 19)

* 암남공원 ‘시민 품으로’, 지난해 4월 시민들에게 개방된 서구 암남공원이 시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20일 완전 개장(국제 4. 21)

* 낙동강 하류 준설 착수, 낙동강 하구둑 준공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하류준설 사업이 3년간 표류 끝에 최근 착수(부산 4. 21)

* 수출신용장 내도액 크게 증가, 올 들어 급격히 떨어지던 부산지역 업체들의 수출이 지난달부터 외국 바이어들의 수출신용장 내도가 크게 늘면서 다시 활기(부산매일 4. 21)

4. 20 * 암남공원 준공(부산시정 4. 20)

4. 21 * 「시민감사청구제」 조례의결, 부산시의회 제64회 임시회 폐회(시보 4. 24)

* 제30회 과학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부산교육 4. 21)

4. 22 * 공동주택건축 부실시공 추방, 시 공장·감리자·공무원과 합동점검(시보 5. 1)

* 활기찬 시정추진에 행정력 집중, 시 동아시아경기대회도 성공개최(시보 4. 24)

* 부산시의회, 부산 현안 해결 22개 소위 구성, 산적한 부산현안 해결 위해 각 상임 위원회 내에 현안해결 소위원회 구성 비회기에도 활동하는 한편 의원 5분 발언제 도입 등 의정 활성화키로(부산매일 4. 22)

* 공장 설립 매년 감소 추세, 97년 3월말 현재 부산지역 공장 수는 1만24개로 지난 95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 1만24개 중 93% 50인 이하 ‘영세’(국제 4. 22)

부산 지역 종업원 수별 공장 현황

구분 / 총계	50명 이하	51~100명	101~500명	501~1,000명	1,000명 이상
10,024	9,311	466	213	19	15

부산지역 연도별 공장 설립 추이

구분 / 총계	90년 이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1~3월
10,024	5,087	750	764	777	902	810	782	152

* 황령산3터널 민자 유치, 역세권 주차장·부산랜드 등 6건 확정, 영도 경전철 내년 추진(부산 4. 22)

* “교통 해결돼야 부산 발전 58%”, 부산시민들 부산 발전 위해 교통 분야 우선 육성 요구,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동래·금정·해운대구 순(부산매일 4. 22)

* 동아대회 대비 범테러 시범훈련, 제2회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위한 「해상 대테러 시범훈련」이 22일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대학 선착장 앞바다서 실시(부산매일 4. 23)

4. 23 * 국비 6천3백억원 지원요청, 아시안게임 경기장 등 82건 추진(시보 5. 1)

* 「시민생활불편」 시책 적극개선, 시 추진상황 보고회, 내 집 마련 돕기 창구 운영, 지방세 신용카드로 납부(시보 5. 1)

* 시정 동정, 문정수 부산시장은 스티븐 브라운 영국대사의 예방(시보 4. 24)

* 해양수산부, 항만부지 전환 국방부와 협의, 부산항 우암컨테이너 부두 옆 군용지 9천평을 항만부지로 전환키로 국방부와 합의(국제 4. 23)

* 상의, 부산 창업 열기 뜨겁다, 최근 계속된 지역경기 침체에도 불구 고용 불안정에 따른 창업 열기 확산으로 부산지역 신설법인 수가 지난해보다 30%이상 크게 증가(부산매일 4. 23)

* 부산 식물검역체계 ‘구멍’, 전문인력 태부족 1인당 연간 검역 건수 일본의 2.8배, 고가장비 있으나마나… 신종 유해 병충해 유입 비상(부산 4. 23)

*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동아대회 개·폐회식 최종 연습, 제2회 동아시아대회 개·폐회식 공식 행사 출연진에 대한 3단계 종합 마무리 연습 돌입(부산매일 4. 23)
* 부산시, 국비 6천억 지원 요청,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사업 등 현안 사업 82건 추진 위해 98년 국고보조금 6천2백98억 신청(부산 4. 23)
* 낙동강 오염 사고 증가, 지난해 4대강 수계 전체의 수질오염사고 전년보다 10% 감소했으나 낙동강수계는 오히려 늘어났고 피해도 가장 커, 유류유출 한달에 한번 꼴(국제 4. 23)

4. 24
* SW지원센터 설립 올 상반기, 모라동에, 부산시는 정보화 유망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부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올 상반기 안에 설치·운영(시보 4. 24)
* 97년 민자 유치 대상사업 선정, 초읍선전철·산성터널 등 6건(시보 4. 24)
* 신규아파트 보일러실 환기구 설치의무화, 가스보일러 선호추세…가스중독 등 안전사고 급증(시보 4. 24)
*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추진, 시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일환…아시안게임 전 끝내(시보 4. 24)
* 보건복지·사회보장 연계「지역종합복지체계구축」역점, 부산시 97~2011년까지 3단계 복지정책 청사진 마련(시보 4. 24)
* 부산시 복지시책 관련 수요전망 여론조사, 부산시는 시내 거주 만 20세 이상의 남녀 1천5백16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부산시 복지관련 시책 수요전망에 대한 직접 면접방법의 여론조사 실시(부산시보 4. 24)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추진, 시「부산 경제 살리기」활성화 방안으로 구체적 과제 발굴·관행적 규제 완화 등 마련(시보 4. 24)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나서, 시 오는 28일까지 위험요인 사전예방 위해(시보 4. 24)
* 생계용 차량2부제 제외, 동아 대회 4월 21일부터 10일간 접수(시보 4. 24)
*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특별단속, 시 4월 21일~5월말 불법퇴폐행위 근절(시보 4. 24)
* 97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 시 금강공원 34개소 각종 편의시설 개·보수(시보 4. 24)
* 시정단신, 동아시아 경기대회 기간 중 도시고속도로 자가 승용차 통행료 면제(시보 4. 24)
* 물새는 지하철역 땜질 급급, 지상에 위치한 지하철역들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 부산교통공단 측은 정확한 원인도 못 찾은 채 땜질식 보수만 계속(부산매일 4. 24)
* 수영R 교통대란 불가피, 5월 10일부터 지하철 공사 통행방법 변경, 대연동서 연산로 진입 직진코스 추가 허용(국제 4. 24)
* 지하수 4% 청색증 '위험', 동물배설물 오염 질산성질소 기준치 초과, 온천동·거제동 3~4배…어린이 건강 위협(국제 4. 24)
* 부산시, 수영강변로 수영CY 관통 추진 물의, 화물처리 등 협의 없이 강행해 관련 업체들 반발 거세(부산매일 4. 24)
* 구청 재활용센터 붐빈다, 불황 속 중고가전제품과 가구가 날개 돋친 듯 팔려, 중고품 시중가 보다 20~30% 저렴해 인기(국제 4. 24)
* 장의업계 수사 흐지부지, 부산시내 장의업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 경찰인력 부족·사전 법률검토 미흡, 비품 강매 등 처벌 무산(부산 4. 24)
* 시립대 추진 적극 반대, 전담부서나 재원 확보계획 등 없이 무리하게 시립대 설립을 추진한다는 지적, 부산·경남지역 총장 문시장 항의 방문(부산 4. 24)
* 수영R 교통대란 예고, 부산교통공단이 부산 최대의 교통요충지인 수영구 수영교차로 일대에 대한 지하철 토목공사가 24일부터 본격 착공해 교통 소통에 비상 걸려, 터널식 아닌 개착식…체증 심화(부산 4. 24)
* 동아대회 시민 애향심 아쉽다, 대회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부산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해 부산시가 유치한 첫 종합국제대회 원활한 진행 우려, 시민 한보청문회 관심 쏠린 것이 이유(부산 4. 24)

4. 25
* 시정 동정, 문정수 부산시장은 4월 25일 오후 3시 시장접견실에서 일본 벳푸시장 일행의 예방을 받고 환담(시보 5. 1)
* 성폭력 상담소 개소(부산교육 4. 25)

4. 26
* 동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 시찰, 시 각급기관장·사회단체장 초청(시보 5. 1)
* 해운대 관광셔틀버스 운행, 국제행사 맞아 외국인에 서비스 위해 내달 시범 실시키 로, 무료로 해운대일대 주요 관광지 순회(부산매일 4. 26)
* "대중 없는 대중교통 정책 개선 우리 힘으로", 부산·마산·창원·진주 등 영남지역 5개 도시 시민운동단체 대표들 시내버스 및 대중교통운영개선에 대해 공동대처키로(부산매일 4. 26)

* 부산 신보 조합 설립 지연, 당초 이달 중 설립키로 했던 부산신용보증조합 설립이 문정수부산시장의 한보 자금수수 문제와 각 기업들의 출연금 문제 등으로 한달이상 늦춰질 전망(부산매일 4. 26)
* "선물 거래소 부산 유치 적극 추진", 강경식부청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간담회서 밝혀, 또 부산증권거래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혀(부산 4. 26)
* 지사 과학단지 본격 조성, 부산 강서구 지사동 일대에 들어설 부산과학산업단지 규모가 당초계획보다 33만평 축소되고 단지 내 부지이용계획도 대폭 변경 돼(부산 4. 26)
* 부산상공인들 경제 살리기 호소, 증권거래소 세우고…녹산 분양가 내리고…, 임해 공단 활성화・자유항 지정 등 포함된 8가지 현안 부산 방문한 강총리에 건의(국제 4. 26)
* 해운대신시가 공공부지 잔토투기, 건설 본부 돈 받고 묵인 의혹, 운송트럭기사 "운송비 30% 줬다" 폭로, 지반 60㎝ 높아져…업자 결탁 여부 수사(국제 4. 26)
* 정부, "부산 증권거래소 설립", 녹산 공단 215만평 추가 매립 추진, 부산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인 부산증권거래소 설립 가능성 높아지고 선물거래소 부산 유치는 불투명 한 것으로 드러나(국제 4. 26)
* 부산시, 중등 교원 인건비 지원 반발, 매년 50%…지방 재정 운용에 큰 부담,「교부금법」개정 정부에 강력 건의키로(국제 4. 26)
* 15회 전국 연극제 개막, 한국연극협회・한국문화예술진흥원 공동 주최, 부산문화회관에서 14개 시도 대표팀 13일간 경연(국제 4. 26)
* 제15회 전국연극제(~5. 8, 부산문화회관 등)(부산시정 4. 26)

4. 27
* 부산당정회의, 예산・AG준비 문제 등 논의, 문정수 시장・김운환 신한국당 부산시지 부장은 내달 1일 서울에서 강경식 경제부 총리・관계부처 장관 등 참여한 가운데 지역 당정회의를 열고 98년도 정부 예산확보 문제와 경마장 및 골프장 건설 등 아시안게임 준비문제 등 논의키로(부산 4. 27)
* 문정수 시장 사퇴 권고, 여당은 한보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협의가 확인된 문정수 부산시장이 불구속 기소 될 경우에도 시장직 사퇴와 신한국당 탈당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 불응 땐 출당 검토(국제 4. 27)
* 김해공항 시설투자 난망, 김해국제공항이 비행기 승객들로부터 편의시설확충 위해 징수한 여객이용료 수백억원이 지난 94년부터 지금까지 인천신공항건설 사업비 등 국고로 환수돼 승객들 편의나 서비스 개선 위한 투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국제 4. 27)

4. 28
* 택시행정 비틀, 완전 월급제 대책 "나 몰라라", 양도 허용 이권화 부채질, 탈・불법 운행 단속도 겉치레 불과(부산 4. 28)
* 부산 외국관광객 일본인 44%, 지난 3월 한달동안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44%가 일본인인 것으로 조사(부산 4. 28)
* 신발・차・조선, 부산・경남 주도산업 육성,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간담회에서 밝혀, 내달 전국 10개 권역 특화업종 선정(부산매일 4. 28)
* 제2증권거래소 부산 유력, 기존 증권거래소와 다른 벤처기업 및 코스닥 기업 활성화 위한 전문거래소 형태의 제2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설립 적극 검토 중(부산매일 4. 28)
* 부산 대진단, 잔치는 많아도 "속빈 강정", '바다 축제' 등 사철 관 주도 행사 줄줄 이, 대부분 영세・기획력 부족 행사장 썰렁, 민간주체 방식 전환・독창성 확보 절실(부산매일 4. 28)
* 지방청 교통과 교통순찰대를 폐지하여 안전계에 통합(경찰사 4. 28)
* 경비과 항공대 신설(경찰사 4. 28)
* 동래경찰서 안락1파출소의 위치를 안락1동 772번지에서 안락동 426-77번지로, 부산진경찰서 전포3파출소의 위치를 전포3동 890-6번지에서 전포3동 890-14번지로, 남부경찰서 대연3파출소의 위치를 대연5동 384-1에서 대연3동 54-4번지로, 사하경찰서 하단2파출소의 위치를 하단2동 588-13에서 하단2동 498-10번지로 변경(지방청 훈령77호)(경찰사 4. 28)

4. 29
* 금정산 생태계 용역 맡겨, 시 휴식년제 성과측정…1권역 집중조사(시보 5. 8)
* 부산상공회의소, 유통단지 4곳 개발 건의, 29일 부산경제살리기운동의 하나로 효율적 물류체제 구축 위해 4개 지역에 유동단지 개발해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 공동 집배송으로 물류비 절감해야(국제 4. 29)
* 부산시, 금정산 생태계 용역실시, 일부 지역에 휴식년제 실시하고 있는 금정산에 대해 생태계 용역 실시할 계획, 제도 실시 이후 생태계 변화 추이 파악 통해 성과 측정 가능(부산 4. 29)
* 남부 하수처리장「체육공원」개장, 남구 용호동 남부 하수처리장에 1만2천여평 규모의 종합 체육시설공원 30일 개장(국제 4. 29)

* 노점상 2부제 시대, 남포동 PIFF광장 철거 작업 대신 격일제 영업키로, 숫자 절반 감축・소형규격화 단장 잠정 합의(국제 4. 29)
* 부산 기능 경기대회 입상자 131명 발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기계공고 등 3개 경기장에서 개최된 97부산시 지방 기능경기대회 입상지 29일 확정 발표(국제 4. 29)
* 부산시, 주민등록등초본 시청도 7월 발급, 부산시 「20대 민원행정개선 계획」 발표, 자동차등록증 팩스 발행, 등록장애인에 서류 택배, 내년부터 심야 민원 접수(국제 4. 29)
* 부산시, 민원인 권리장전 선언, '장애인민원서류택배제' '행정 사전 예고제' '민원지 연보상금' 등 20개 부문에 민원행정서비스개선 책 마련(부산 4. 29)
* 백산 안희제 선생 친필 서한 공개, 일제하 백산상회를 건립하여 민족자본육성과 독립 운동에 힘썼던 백산 안희제 선생의 친필서한 공개(부산 4. 29)
* 동아시아대회경비단 발대 및 치안확립결의대회(경찰사 4. 29)

4. 30
* 하수처리장 복개 체육공원화, 남부하수처리장 12,000평 운동 휴게시설(시보 5. 8)
* 「부산경제 살리기」 기술지원 대책회의, 시・상의・대학 등 17개 기관 참여(시보 5. 8)
* 지하철 양산역 설계 착수, 부산지하철 2호선의 연장구간인 양산선이 기본설계에 착수함으로써 본격화(부산 4. 30)
* 사상로 왕복 2차선 소통, 지난 93년 하반기부터 지하철2호선 1단계 공사로 폐쇄되었던 사상로 전구간이 공사 4년만인 오는 6월부터 왕복 2차선 소통(국제 4. 30)
* 부산실업률 전국 두 번째, 올 들어 부산지역 소비자물가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산업 생산 및 실업률이 최악으로 나타나는 등 부산지역 경제가 전국서 가장 침체된 것으로 조사(국제 4. 30)

5. 1
* 지역경제 사주기 운동, 시 부산경제 살리기(시보 5. 1)
* 최우수구에 북구선정, 지방재정 종합평가 결과 나와(시보 5. 1)
* 5월 3일 범시민 대청소 실시, 시 동아시아 경기 준비 마무리…시전역서(시보 5. 1)
* 올해 제1회 부산시 지방직, 채용시험 458명 합격…5월 1일 등록(시보 5. 1)
* 동아 대회 적극 협조 당부, 시 당정협의회 AG국비 신청금 지원건의(시보 5. 8)
* 해빙기 사고예방위해 안전점검 실시, 시 재난취약지역 22개소 보수・보강공사 이미 끝내(시보 5. 1)
* 시정 동정, 문정수 부산광역시장은 건설안전본부장 재무 국장 등 관련간부를 대동하고 동아시아경기대회 공항로 주변과 문현로타리 주변정비 상황 점검(시보 5. 8)
* 재활용 촉진 지침 시달 시, 전 부서에 실천토록, 지난 5월 1일 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촉진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와 재활용 가능품의 분리수거 실천에 시 산하 전부서 앞장서줄 것 당부(시보 5. 22)
* 직업학교 불 40여명 화상, 명장동 제마전문교 라이터 불장난 휘발유 가스폭발, 부상자 4개 병원 분산 치료 중(부산 5. 1)
* 동해남부복선 4개역 신설, 부전~울산 우동~송정 신시가 외곽이길(부산 5. 1)
* 남부하수처리장 체육시설 개장, 국내 최초 윗부분 복개 1만2천평 활용(부산 5. 1)
* 동해남부선 전철노선 확정, 부전역~울산 65km 총 22개역 설치, 환승역 교대 우동 남문구 3곳 건설, 교리 망양(울산구간)등 4개역 신설(부산 5. 1)
* 동아대회 적극협조 당부, 오늘 부산 당정협의회 AG 국비신청금 전액지원도 건의(부산 5. 1)
* 부산~울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확정", 총 65km에 22개역…부전~일광 우선 착공(부산 5. 1)
* 전염병 예방비상 방역근무, 시 하절기 대비 건강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시보 5. 15)

5. 2
* 선수촌・수송지원본부 개소, 동아경기대회(시보 5. 8)
* 기아함대 '우승축포', 챔프전 5차전 나래 107대 90 꺽어, 원년 챔프 영광…MVP엔 강동회(국제 5. 2)
* 동아대회 본부호텔 오픈, 롯데호텔에 본격적인 손님맞이 돌입(부산매일 5. 2)
* 승마장 승인 특단조치 촉구, 부산지역 당정회의 "승마장 골프장 주경기장 지원 시설 등과 관련된 정부측의 지원이 미흡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부산매일 5. 2)
* 동아시아대회 선수촌 개촌(부산시정 5. 2)

5. 3
* 부산도시가스 이달 기업공개, 세원중공업 등 "26~27일 공모주 청약…" 발행가 1만9천원(부산매일 5. 3)
* 부산기업 해외 직접투자 16% 감소, 1분기 소규모 중소기업투자는 대폭증가(부산매일 5. 3)

5. 5
* '움직이는 미술관' 부산 왔다, "동아대회 기념 용두산 전시관서 공개" '한국의 풍경' '현대…' 등 3개 주제 80점 선봬, 인터넷 사이트 개설 다양한 정보도 제공(부산매일 5. 5)

* 부산앞바다도 반핵 캠페인, 13일 개최 대만-남해-원산 항로봉쇄(부산 5. 5)
* 노동 생산성, 임금상승률 첫 능가, 작년 실업 등 급증…전년비 12.4% 늘어(부산 5. 5)
* 문시장 불구속 기소방임, 검찰 "무협의 처리보다 재판 통해 결백입증"(부산 5. 5)
*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부산교육 5. 5)

5. 6
* 김해국제공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준공, 지난해 11월 15일 착공한 김해국제공항 진입로 확장공사 준공(시보 5. 15)
* 부산서도 위조 1만원권 발견, 마산・창원・대구 9장 이어 같은 일련 번호 "경찰은 위조된 지폐 9장의 일련번호가 같고 택시를 이용해 사용한 점 등에 미뤄 동일범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부산 5. 6)
* 오늘부터 승용차 2부제, 시범실시 EAG기간 위반때 과태료 5만원, 낮시간대 이면도로 불법주차 시비예상(국제 5. 6)
* 감천항「컨」부두 조성, 한진 7월・제일제당 내년 5월 완공, 연 64만개 처리…체선 해소 일조(국제 5. 6)
* 하얄리아 이전 급진전, 시 조기매듭 박차, 협상창구 장관급으로 격상, 중순께 4자회담 구체의견 접근 시도(부산 5. 6)
* 오늘부터 승용차 2부제, 부산 9일까지 자율기간 거쳐 10일 시행, "부산시는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두고 승용차 2부제 자율시행기간인 6일부터 9일까지 아파트 단지와 주요간선로 교차로 등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계도활동에 들어갔다"(부산 5. 6)
* 1만원권 위폐비상, 마산이어 부산・대구서도 발견…동일범 추정, "지난 4일 창원과 마산 등 경남도내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가 잇따라 발견된데 이어…"(부산 5. 6)
* 지하철 8량으로 늘려, 1호선 11월까지…차내 혼잡 완화 기대, "부산지하철 1호선의 편성이 오는 11월까지 모두 8량으로 장대화 돼 차내 혼잡률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산 5. 6)
* 김해 공항로 확장공사 준공, 대저2동 파출소~공항 1.3km구간, "지난해 11월 총27억3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착공된 김해국제공항 진입로 및 공항로 3단계 확장 공사구간이 새롭게 단장돼 6일 오전 개통됐다"(부산 5. 6)

5. 7
* 시장, 부산발전은 바로 국가장래와 연결, 재정적 어려움과 극심한 교통난 해결위해 협조 당부(시보 5. 15)
* 기습 폭우 피해 속출, 시간당 최대 50mm 퍼부어 도로 곳곳 침수, 차량 7중 충돌… 여객기 결항・지연 사태(부산 5. 7)
* 15억 동아시아인 길 밝힌다, 내일 경주서 성화채화, 2박3일 봉송 퍼레이드, "성화 채화를 시작으로 부산동아시아 대회는 사실상 막이 오른다"(부산 5. 7)
* 용호만 매립 특혜추궁, 시의회 부지추가・롯데 시공권 내락 의혹 따져,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주택위는 6일 폐회 중 상임위활동을 갖고 용호만 매립 관련 특혜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부산 5. 7)
* '부산 2008올림픽 유치' 시사, 김운용 KOC위원장 일본 방문 중 밝혀, '부산이 오는 200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후보대열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부산매일 5. 7)
* 지하철 1호선 '모든 전동차 8량 편성', 10월까지 완료 이용객 급증 감안 … 혼잡 다소 줄듯, "오는 10월말까지 부산지하철 1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가 모두 8량 편성으로 장대화된다"(부산매일 5. 7)
* 환경운동연합 13일 부산항 해상시위,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수출을 반대하는 해상시위가 오는 13일 부산항 앞바다에서 열린다"(국제 5. 7)
* 부산 경마장 건설계획 무산, 정부 아시안게임대비 소규모 마술경기장만 허용, "부산 강서구 녹산동 범방마을과 김해시 장유면 일대 50만평에 부산시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해 왔던 경마장 건설이 좌절되고 아시안게임을 위한 소규모의 마술 경기장 건설만 허용될 것으로 6일 알려왔다"(국제 5. 7)
* 동아지역 스포츠스타 총출동, D-3 부산 동아시아경기 관전 요령, "10일부터 19일까지 열전 10일에 돌입하는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는 동아시아지역이 최고 스포츠스타들이 거의 출전"(국제 5. 7)
*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주택위 초점「용호만 매립」타당성 집중추궁,「부지확대」건설업체 특혜 아니냐, 매각시기도 부동산경기 참작하지 않아(국제 5. 7)
* 김해공항, 검색기 '툭하면 고장' 국제선 4대 내구연한 경과・과다 사용, "김해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에 설치된 X레이 화물검색기 문형 금속탐지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작동이 잘되지 않아 교체 및 수리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제 5. 7)
* 정부 광양항 파격지원 발표, 부산항 화물유치 '비상' 이용료 낮게 책정…컨화물 옮아 갈듯, "광양항의 항만이용료가 부산항의 6분의 1수준으로 낮게 책정돼 부산항 화물유치에 비상이 걸렸다"(국제 5. 7)

* 「전자민주주의」 꿈 부산서 일군다, 전자주민카드 실시 반대, 정보공유 지역결합 등 논의, “정보화 사회가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 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정보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단체와 연대 모색(국제 5. 7)
* 지자체 행정개선 전국연대, 5대도시 서구청장 규제법령 개정 요구, “일선 지방 자치단체들이 중앙위주의 각종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로 연대해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부산 5. 7)
* 항공기 부산 첫 재산세 부과, 강서구청 김해공항 이용 대한항공 대상, “부산 강서구청이 세수증대를 위해 관할지역인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대한항공 항공기에 대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부산 5. 7)
* 시의회 「위천저지」 상경투쟁, 내일 총리 등 관련 장관 면담 특별법안 전달, “최근 대구시의원들이 정부 각 부서를 방문, 위천공단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데 대해 부산시의회도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시위성 상경 방문을 할 계획이어서 의회 차원의 힘겨루기 본격화 전망(부산 5. 7)
* 강운태 내무부장관 방문(부산시정 5. 7)

5. 8
* 동아경기 대회시연회 8일, 구덕운동장에서(시보 5. 8)
* 「아시안 위크97」 홍보, 문시장 기자회견서 당부, 문정수 시장은 97동아시아 경기 대회 개최와 함께 5월 11일부터 13개국 15개 도시가 참여해 펼쳐지는 아시안위크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기자간담회(시보 5. 8)
* 시 민원행정개선, 3대 목표・20대 시책추진, 더욱 신속하게・항상 친절하게・매사 공정하게(시보 5. 8)
* 출퇴근시간대 지정운영폐지, 시 시내버스 예비 차량 운행제도 개선키로(시보 5. 8)
* “부산신청사 조경 사업은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시민휴식 공간으로 조성…공사 계획대로 순조(시보 5. 8)
* 동아 대회 카운트다운, 10일 개막 경기장・손님맞이 점검 총력(시보 5. 8)
* 지하철 양산선 설계착수, 2개 업체 선정, 2001년 개통목표(시보 5. 8)
* 동아시아 횃불 구덕벌로, 2박3일간 187km 퍼레이드 돌입 “성화가 울산을 거쳐 부산시 전역을 돌며 대회개막을 알리는 동안 성화를 맞는 시 군 구에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성화맞이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부산 5. 8)
* 부산복지시설 안전 ‘흔들’ 74곳 시설점검 건물 균열・누수・배전설비 노후, “부산 시내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균열과 누수현상에다 배전설비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국제 5. 8)
* 국제 스포츠회의 잇따라, OCA총회・스포츠과학 학술회의 등 열려(국제 5. 8)
* 부산 대형사업 적극지원, 녹산공단・정보단지 등 정부차원 뒷받침(국제 5. 8)
* 94세 시어머니 30년 봉양 “손발 역할 더 오래했으면” “16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4남매를 홀로 키우면서 거동이 불편한 올해 94세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해 온 윤귀선씨는 8일 아침 어버이날을 맞아 시어머니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를 가슴에 달아드리면서…”(국제 5. 8)
* 결혼식에도 자가용 이용 말라니… 승용차 2부제 부작용 ‘원성’ “부산시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자가용 승용차 2부제를 강제시행키로 하며 시민들의 결혼 등 관혼상제에 꼭 필요한 차량까지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자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에도 경직된 시책이라는 비난 여론이 높다”(부산매일 5. 8)
* 대선주자들, 동아대회 대거 참석, 개막식 전후참석, PK지역 ‘표밭갈이’ 경쟁(부산매일 5. 8)
* 부산・경남 장대비 피해 속출, 차량 7중 추돌・도로 침수・항공기 결항 “7일 부산・경남지역에서 갑자기 장대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하천이 범람하고 주택담이 무너지는가 하면 도로 침수가 정전, 하수구 범람 및 교통사고 등 각종 비 피해가 속출했다”(부산매일 5. 8)
* 김해공항 남풍만 불면 ‘마비’ 입지에 문제 동아대회 7개국 선수단 등 입국 못해 “7일 입국예정이던 제2회 부산동아시아 경기대회 참가 7개국 외국선수단 2백60여명이 남풍이 불 때마다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김해 국제공항의 고질적 입지 문제 때문에 이날 부산에 오지 못했다(부산매일 5. 8)
* 부산항 충장고가로 교각 균열, 시설 안전공단 보고 ‘철근량 기준치 크게 미달 부실의혹’(부산매일 5. 8)
* 수협, 부산공동어시장 인수 검토, 중국산 수입제한・할당제 도입도 건의, 어업인 간담회서 밝혀, “부산시수협 김정권 이사는 「우리나라 수산물수입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대해서는 수입할당제를 정부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부산매일 5. 8)
* ‘동아대회를 신명대회로’ 금정구 주민 어우러지는 풍물잔치 두 차례 마련(부산매일 5. 8)
* 강서, 도시형 농산물 생산지 조성, 국비 등 220여억 투입 농업기반시설 확충 “부산강서구가 올해 국비 2백18억5천여만원 등 2백22억여원을 지원받아 도시근교 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로 개발된다”(부산매일 5. 8)
*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성화 채화식 및 봉송(부산시정 5. 8)

5. 9
* 시정 동정, 문정수 부산시장은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97 아시아 꽃 예술제 개회식 참석(시보 5. 15)

* 남구청-교육청 마찰 증폭, “부산 남구청이 대연동 부경대 못골캠퍼스부지로 청사 이전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부지 소유자인 부산시 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국제 5. 9)
* 하천 막고 다리공사 마을 “물바다” 강서 폭우로 범람해도 방치 논밭 3만여평 학교 수몰, 주민들 롯데・태영 건설 몰려가 거센항의(부산매일 5. 9)
* 남구청 종합 전자행정센터 추진, 새청사 신축때 교육청등 유치… 주민편의 도모, “남구청은 복합청사에 탁아소 전자도서관 쇼핑센터 등 주민편의 시설도 모두 설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망을 갖출 계획이다(부산매일 5. 9)
* 광양항 활성화 정책 발표, 부산항 대책 마련 ‘발등의 불’ 물량감소・수지악화 따른 부작용 불가피, 체선・체화 해소 서비스 향상 등 장점도, “광양항 활성화는 상대적으로 부산항의 물량감소 및 터미널 종업원의 감원 문제 발생, 항만 이용조건에 대한 형평성 결여 등의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부산 5. 9)
* 한국인 평균수명, 10년전 보다 4.5세 늘어, 통계청 남 69.5, 여 77.4… 뇌혈관 질환 사망률 가장 높아(부산매일 5. 9)
* 녹산공단 강서 물난리 재해, 인근보다 높게 조성・재해방비 허술, 주민구청 항의방문(부산 5. 9)
* 여성 남아선호여전 성비심화, YMCA・YWCA 여성 1천3백명 설문, 주부절반 “아들 낳아라” 가족 성화 겪어, 태아 성감별 26% 경험 딸 낙태도 11%, 남녀평등이 성비 불균형 해소책(부산 5. 9)
* 낙동강 오염 당국 책임시사, 물소송 시・국가 ‘법원제출 시국가 사실상 인정(부산 5. 9)
* 문시장 등 8명, 불구속 기소, 검찰관계자는 이날 여야중진 의원과 재경위 통산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이른바「보험금」이상의 대가성 입증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부산 5. 9)
* 국민캡 공권력 투입, 택시 백63대 전격양도…노조반발(부산 5. 9)
* 달북초등~만덕터널 도로 양쪽주민 상반요구, 2단 기형도로 시공 ‘말썽’ 중앙성 좌우 노면높이 최고 7m 차이, “부산 동래구청이 산복도로를 개설하며 산복도로 위 아래지역 주민들의 상반되 민원을 모두 수용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높이가 2~7m나 차이가 나는 2단 기형도로를 시공, 도리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국제 5. 9)
* 남구청사 건립계획 좌초, 예정지 부경대 못골캠퍼스 교육시설 짓기로, “남구청 신청사 건립계획이 건립예정지인 부경대 못골캠퍼스의 소유자인 부산시교육청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였다”(부산 5. 9)
*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경축 전야제(부산시정 5. 9)

5. 10
* 자가용승용차2부제 집중계도, 시 아주경기대회 기간 중 시민자율참여유도(시보 5. 1)
* 「함께여는 평화제전, 하나 되는 동아시아, 10일 구덕벌에서 화려한 “팡파르”(시보 5. 15)
* 부산 동아대회 개막, 9개국 선수 1,900여명 참가…19일까지 열전, 한국 금 40개 획득 종합 2위 목표 “15억 동아시아인들의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는 제2회 부산동아 시아 경기대회가 10일 오후 부산 구덕운동장 메인스타디움에서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막이 오른다”(국제 5. 10)
* 부산항 잡종선 관리 허술, 계류시설 등 부족 툭하면 표류…부두 기능 마비, 선박 끼리 충돌 기름유출 등 대형사고 우려도 “부산항내 잡종선박의 계류시설 부족과 관리부실에 따른 집단표류사고가 잦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부산매일 5. 10)
* 부산동아시아대회 ‘팡파르’ 9개국 1천900여명 참가 열전 10일 돌입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15억 동아시아인의 가슴을 파고드는 가운데 제2회 부산동아시아 대회가 항도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부산매일 5. 10)
* 광안대로 공사대금 4개월째 체불, 광덕건설 20여 협력업체 현장철수 지급요구 “광안대로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중인 광덕건설(주)가 협력업체들에게 공사 대금을 4개월째 지급하지 않아 영세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부산매일 5. 10)
* 부산은 벤처기업 불모지대, “국내벤처기업의 80%가 수도권에 집중, 부산지역 벤처기업은 전국의 1.3%인 20여개사에 불과한 등 첨단기술을 통한 고부가치화를 위한 지역기반이 취약하다(부산매일 5. 10)
* 부산 시민정신 돋보였다, 동아시아대회 참여 열기 가득, 2부제 등 호응 체증 해소, 개막식 입장권 완전 매진(부산 5. 10)
* 신평소각장 사용신청 또 반려, 구청 ‘성능검사 등 허가 안됐다’ 업체 적법절차 후 시험가동(부산 5. 10)
* 부산 2008년 올림픽 개최능력 충분, 사만란치 위원장 회견, 동아경기대회가 역량검증 호기 “후안 안토니 오사마란치 IOC위원장은 9일 부산의 2008년 올림픽 유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국제 5. 10)
* 2부제 위반 5만원 과태료, 오늘부터 시・경찰 만명 투입 합동단속(국제 5. 10)
* 유원지 이용료 7%인상, 시 13개 민간업체 적자보전요구 수용, “시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내 유원지 및 공원내 유기시설 이용요금을 평균 7% 올리기로 했다(부산매일 5. 10)

* 낙동감특별법 시민안, 의원입법 요구, 위천 저지본부 법안 재정리 신한국당 시 지부에 전달(부산매일 5. 10)
* 민노총 지역본부 철야농성, 국민캡 노조 공권력 투입 항의(국제 5. 10)
* 화려한 '팡파르'… 첫날 한국 수영 등 7종목 출전, 동아대회 메달레이스 돌입(국제 5. 11)
* 부산시민 참여도 높았다, 승용차 2부제 첫날 대부분 운행자제 간선로 원활, 시 1천60대 적발…승강이 벌이기도(국제 5. 11)
* 손에 손잡고 '부산찬가' 열창, 유니폼·홍보책자 올림픽 박물관 보전결정, 각국 선수단 전통의상 경연장 방불 '환호'(국제 5. 11)
* 운영시숙 불구 「도시축제」 가능성, 일부진행 부조화·성화점화 등 기대 못 미쳐(국제 5. 11)
* 승용차 2부제 첫날 '호응', 대상차량 90% 참여 도로 소통 원활, 제2회 부산동아시아 경기대회 개막과 함께 승용차 2부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시작된 10일 부산지역에는 대부분 시민들이 「2부제」에 적극 참여, 전국최악의 만선체증을 빚던 주요간선로가 시원하게 뚫리는 등 도로마다 원활한 소통(부산매일 5. 11)
* '동아시아 평화' 구덕벌에 '활활', EAG개막식 상보 화려한 성화·짜임새 있는 진행에 갈채(부산매일 5. 11)
* 동아대회 질서의식 '금' 첫날개막식 시민열의 만점, 관중 떠난 뒤 쓰레기 사라져, 대중교통 이용 혼잡도 해소(부산 5. 11)
*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개막(~19, 구덕운동장 등)(부산시정 5. 10)
*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383호)(부산교육 5. 10)
* 동아시아대회 개회(경찰사 5. 10)

5. 11
* 아시안위크 97(~17)(부산시정 5. 11)

5. 12
* 2008년 올림픽 부산유치가능성, 사마란치, 「충분한 역량」 긍정적 답변(시보 5. 15)
* 관중열기 '후끈' 운영은 '시들' 통역원 미비·수송버스 늑장 곳곳 허점, 궂은 날씨 불구 경기첫날 5만명 관람(부산 5. 12)
* 수영만 매립 또 추진 특혜의혹, 시 공유수면 17만평 조성계획 '해양생태계파괴' 지적(부산 5. 12)
* 준문전수거 부작용 속출, 주민배출·구청수거시간 제대로 안 지켜, 방치쓰레기에 주변주민 잇단 고통 호소(부산 5. 12)
* '자치구 담당관제 개선을' 해운대구 시에 건의(부산 5. 12)
* 2008년 올림픽 부산유치 가능성, 사마란치 '충분한 역량' 긍정 답변(부산 5. 12)
* 대학 내고장과목 개설, 동아대 등 일반 교양채택 줄이어, 전공자 부족 효과는 미지수(부산 5. 12)
* 내년 국고보조, 부산 1조9천억 신청, 지하철 3호선 건설 총 103개 사업비(부산매일 5. 12)
* 동아대회 초반운영 '원성' 빗발, 연습장비 늑장배치·전산망도 제대로 가동 안 돼(부산매일 5. 12)
* 시민관심 갈수록 뜨겁다, 농구 매진에 한국팀 없는 경기도 관중 몰려(부산매일 5. 12)
* '문화 동아대회'도 막올라, 17일까지 '아사안위크 97'… 요리축제 등 풍성(부산매일 5. 12)

5. 13
* 부산시 건설사업 4년내 마무리…일감부족 「사업소」 조직재편 시급, 신규사업권 확보 공기업과 마찰우려(국제 5. 13)
* 시·구 건축행정 '혼선' 시 개정안 시행… 구(군) 기존조례 적용, 용적률 규정 등 달라 민원인 피해속출(부산 5. 13)
* 부산한 골재전용부두 건설 추진, 사설 처리장 폐쇄 위기 등으로 이용 한계, 내년 중 6백m^3 처리규모 타당성 조사의뢰(부산 5. 13)
* 「부산단편영화제」 알찬 '레디로', 총 36편 응모작 중 14편 본선 진출, 시민들 감상기회 제공 축제화 시도(부산 5. 13)
* 도시계획 지자체 완전이양, 30만평 이상 지역공단 개발권도 일임, 정부 「지방경제 활성화방안」 오는 20일 발표(국제 5. 13)
* 올림픽 부산유치 본격화, 시 정부 승인 즉시 범시민협의회 구성 사마란치 위원장도 적극협조 시사(국제 5. 13)

5. 14
* 한심한 「쓰레기 행정」 생곡매립장 젖은 것 기준 없어 반입금지 불투명(부산 5. 14)
* 종합병원 영안실 운영개선, 임대료 낮추거나 직영체제 전환, 장의비용 크게 절감(부산 5. 14)
* 신발학과 양성 100억 지원 부산 98년도부터…고무·피혁학과 추가(국제 5. 14)
* 시청사 주변개발 본격화 시 남항일대 공유수면 매립 용역계약(국제 5. 14)
* 부산 해안절경 시가 망친다, 청사포·기장·시청사 주변 등 수면매립 계획 강행(부산매일 5. 14)
* 부산·경남 지방노동위원회 표류, 사업장 임단협 앞두고 협상지연 등 파행 우려(부산매일 5. 14)

* 동아대회 물품 임대료 '바가지' 조직위 주선 특정사 휴대폰 등 최고 20배 폭리(부산매일 5. 14)

5. 15 * 시정 동정, 시장은 상광사에 열린 부처님오신 날 대법회에 참석(시보 5. 22)

* 노포동까지 운행, 지하철 26일부터(시보 5. 15)

*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문정수 부산시장 환영사, 우의와 협력 다지는 진군의 축제 성실한 부산사람의 참모습 보길(시보 5. 15)

* 하반기 운전자금 조기지원 8백1개 업체에 8백37억원, 부산시는 5월 15일 금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확정(시보 5. 22)

* 보건소 정보시스템 구축 해운대구 7천만원 들여 하반기부터 업무 전산화(부산매일 5. 15)

* 노포동 환승시설「반쪽」기능, 터미널 이전표류 이용객 없어 버스회사 사용기피(부산 5. 15)

* 김대통령 지역발전 기여 미흡, 차남 현철씨 문제 '사법처리 불가피' 문시장 부정적 평가…김지사와 대조(부산매일 5. 15)

* 부산·경남 체불임금 300억 육박, 대형업체 연쇄부도 여파 사상 최고치 기록(부산매일 5. 15)

* 기장군 도시기반시설 허술, 상하수도 배수 안 돼 황토물 유입, 도로매몰·유실 등 위험(부산 5. 15)

* 동아시아드 '상품전시회' 국내잔치 전락 우려, 일부국가 중도 철거 움직임에 주최측 전전긍긍(부산매일 5. 16)

5. 16 *「부산 경제 살리기」창업지원 대책회의 공장설립 관련인허가 사항 일괄처리, 녹산공단에「창업보육센터」설립(시보 5. 22)

5. 17 * 중국투자 유치단 부산 러시, 광동·호남·산동성 최근 설명회 잇따라, 법인세·부가세 등 세제혜택 제시 유혹(국제 5. 17)

* 광주항쟁「그날」추모제, 5·18 17주기 기념행사 다채…묘지 이전 새단장(부산 5. 17)

* 경남전문대 신발관련학과 설치, 내년부터 신발공학과 학생 80명 모집(국제 5. 17)

* 제마화재 피해보상 난항(부산 5. 17)

* 정당정치 불신 팽배 "공천 반대" 압도적, 시민 30% 지방의회 없는 게 낫다(부산 5. 17)

* 명지주거단지 분쟁 일단락, ㈜대동 소송취하, 계약해지로 대금반환 등 '불씨' 남아(부산매일 5. 17)

* 김해공항 유사시 '숙박' 골치, 항공기 결항·지연때마다 민박소동 빚어, 개발제한 구역 휴게시설도 확충 못 해(부산매일 5. 17)

* 경찰, 범죄사용 차량도난, 영도서 밀항기도 네팔인 검거 후 현장 방치(부산매일 5. 17)

* 신시가 단독주택 무단용도변경 극성, 기형개발로 균형 해친다(부산 5. 17)

5. 18 * 동아 대회 참가자 환승, 문시장 관계자들에 감사(시보 5. 22)

5. 19 * 10일간의 도전·화합 제전폐막, 제2회 부산동아시아대회「영원한 우정」다짐(시보 5. 22)

* 한전 변전소건설 또 표류, '전자파유해·재산권제약' 주민착공 저지, 전력공급 차질 불 보듯(부산 5. 19)

*「부산국제 아트페스티벌」'마찰음', 갈등 빚은 준비위원장 사임에, 미협 회장단서 자체 운영키로, 미술인들 '동네잔치' 우려(부산 5. 19)

* 부산·경남 실업급여 전국최고, 3·4월 신청자 전체의 25%…지역실태 반영(국제 5. 19)

* 도개공「임대」'뻥튀기 분양' 부산다대 6년전 장기임대 같은 평형 면적 늘려(국제 5. 19)

* 부산사교육비 1조4천억, 가구당 월소득 10%… 서울이어 두 번째(국제 5. 19)

* 실업급여 신청 절반 30~40대, 부산·경남 4천400명, 명퇴·정리해고 가속반영(부산매일 5. 19)

* 2001년 오사카서 만납시다, 구덕벌서 펼친 10일간 열전 레이스 오늘 막내려(부산매일 5. 19)

* 동아시아대회 폐회(경찰사 5. 19)

5. 20 * 부산선물·증권 거래소 설치 건의, 녹산 분양가 인하지원 요청도(시보 5. 29)

* 동아대회 2부제 결산, 대상차량 99% 참여성과, 시민불편 담보·공무원 단속동원 행정손실 막대(국제 5. 20)

* 한국 금 45개 3위 '영원한 우정' 등 화려한 폐막식, 부산 EAG 열전 10일 대단원(부산매일 5. 20)

* 롯데 스카이프라자 허가 취소, 부산진구청 26일까지 가동 중단 않을 땐 강제폐쇄, 롯데 행정처분 중단 가처분 신청키로(부산매일 5. 20)

* 자원봉사자 '대회성공' 일등공신, 3천여명, 선수단 손발… 조직위 관계자 '안일' 지적도(부산 5. 20)

* 문화교류를 통한 '아시아는 하나', 다양한 볼거리…기획·관객유치 성공적, 긴축 재정, 섭외·홍보 등 무리수 아쉬움(부산 5. 20)

5. 21 * 기록만 풍성…대회수준 크게 격화, 동아시아국가 스포츠 현주소 노출(부산매일 5. 21)

* 부산시 '테크노 파크' 사업자 선정, 지역 8개대·단체 컨소시엄…내달 정부 신청(부산매일 5. 21)

* 부산지역 제조업체 판로 개척, 중기청・부산상공회의소・시 “3각공조” 자금지원 확대・첨단판매기법 등 소개(부산매일 5. 21)
* 조직위 직제개편 등 서둘러야, 2002년 아시안게임 성공 위해 착착 준비를(부산 5. 21)
* “신선대 바다 매립 해양 생태계 파괴” 부유물 증가 플랑크톤・해조류 감소(부산 5. 21)
* 지하철역 수요 편차 극심, 부산3호선 민원탈피 우선…구조적 적자 우려(국제 5. 21)
* 「위천」 확정적…낙동강 초비상, 총궐기본부 부산 경남주민 총력투쟁 결의, 정부 지방공단 100만평까지 허용(국제 5. 21)
* 부산분양가 인하 지원요청, 부산선물・증권거래소 설치 강력 건의, 시 「경제활성화 7대사업」 정부 보고(국제 5. 21)
* 해항청 해양수산청으로 확대, 조직개편안 확정, 어촌지도과 해양부산하로 편입(국제 5. 21)
* 남구청 교육청, 부경대부지 갈등심화, 남구청 용도변경・강제수용등 강공불사, 교육청 재조회 불가 통보 보수공사 진행(국제 5. 21)
* 학원 불법 고액과외 또 고개, 부산 단속 느슨 틈타 ‘소수정예반’ 편법 운영(부산매일 5. 21)
* 무단형질변경 고발했다가 사후승인 계획, 강서구청 ‘갈팡질팡’ 행정, 생곡주민 “시와 합의사항” 반발하자 번복(부산매일 5. 21)
* 하나로 교통카드, 내달부터 본격 시행, 부산시 성능시험 마무리, 8월 ‘도로통행료’ 등 확대실시(부산매일 5. 21)

5. 22
* 부산시, 해안개발 본격착수, 기장 앞바다 해상 호텔 등 내년 계획 수립(시보 5. 22)
* 한국 종합 3위 아쉬움 남겨, 부산시, 2008년 유치 대비 우위 선점 전략(시보 5. 22)
* 생활쓰레기 반입량 10%정도 감소, 시, 16개구・군 대상 실태점검…자원 재활용 적극 참여 바람직(시보 5. 22)
* 민락동매립지, 수변공원개장, 수영구 민락동 매립지 해안가에 국내 최초로 십자형 블록을 깔라 만든 수변공원이 5월 22일 개장식을 갖고 일반인들에게 개방(시보 5. 22)
* 해수욕장 수질오염 방지 특별대책, 시 6월 중 오염배출 업소 집중관리(시보 5. 22)
* 시민단체와 공동실시 버스요금 2차실사, 부산시내버스 운송수익금 2차실사가 25일부터 3일간 시공무원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부산지역 43개 버스회사 2천7백87대를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시보 5. 22)
* 「민원상담 예약제」 시 민원인 편리한 시간 맞추어 다시 찾는 일 없게(시보 5. 22)
* 부산 새로운 명소 을숙도・황령산 유채꽃단지 인기, 시 부산개최 국제행사대비 ‘꽃의 도시 부산’ 이미지 제고 위해 조성(시보 5. 22)
* 경기장 등 공사 중단 위기, 뒤늦게 신청 재특자금도 불투명(부산 5. 22)
* 수변공원 관리 떠넘기기, 수영구 연 10억원 비용부담 곤란 시 맡아야, 부산시 지원난망 구청 수입사업 적극 검토(국제 5. 22)
* 「위천」 저지 다시 불붙었다, 부산・경남주민 대규모 집회・철회운동 추진, 총궐기 본부 부총리에 공개질의서 발송…항의삭발도(국제 5. 22)
* 지자체, 하수처리장 부담금 싸움, 울산시 회야댐 오염 원인자 부담 당연, 양산시 시민 식수원 정화 수혜자 내야(부산 5. 22)
* ‘국제 문화도시 부산’ 토양 구축 ‘아시안위크’ 등 내용 충실 관객 동원 성공, 준비 기간 짧아 다양・현대성 결여 비판도(부산매일 5. 22)
* 지하철 2호선, 역세권 주차장 부족, 구남・주례역 2곳뿐…환승 불편 클 듯(국제 5. 22)
* ‘낙동강 살리기’ 다시 강력 점화, 위천저지 본부 “지방공단 확대는 전국토 공단화”(부산매일 5. 22)
* 부산시 일선구청 “재정확보” 빌미 무분별 해안 매립, 오륙도・신선대・남천동 앞바다 등 대규모 추진, 인근 주민들 “환경 훼손” 거센 반발(부산매일 5. 22)
* 부산기업 신규채용 28%축소, 지역업체 50.7%나 “규모 줄여가겠다” 응답, 대기업 고학력・사무관리직 기피 현상 심화(부산매일 5. 22)
* 녹산 추가매립・정관단지 조성 ‘숨통’ 부산, 공업용지난 해소・제조업 유치 활력소 기대(부산 5. 22)
* 민락동 친수공간 개장(부산시정 5. 22)

5. 23
* 통근열차 이용객 해운대역 몰려 교통혼잡, 신시가 주민 미포역 설치요구(부산매일 5. 23)
* ‘2부제’ 시행 성공 선진 교통문화 과시, 시민 참여율 99.5%…당초 우려 말끔, 선수단 밀착 경호 치안능력도 합격점(부산매일 5. 23)

* 1분기 GDP 5.4%증가, 3년 9개월만에 최저 건설・경공업은 마이너스 성장(부산매일 5. 23)
* '위천저지' 불길 급속 확산, 부산 경남 시・의회・시민단체 특별법 촉구 등 대정부 투쟁결의(부산매일 5. 23)
* 여 본격 경선국면 돌입, 예비주자들 "내달 초까지 출마선언"…표밭갈이(부산매일 5. 23)
* 명지대교 건설중단 '교통중단' "철새도래지 보호" 문화재 관리국서 불허, 서부산권 개발사업 큰 차질 예상(부산매일 5. 23)
* 강서구 '1사무실 1운동' 전개, 도시락 싸오기・폐품 수거 등 업무특성 맞춰 추진(부산매일 5. 23)
* 기소 예상한 듯 담담하게 집무, 사법처리 문시장 반응과 파장, 측근들 "민심 떠났다" 사과회견 만류, 남은 임기 시정누수로 파행 불가피(부산매일 5. 23)
* 일반택시 축소 '모범' 증차 비난 빗발, 부산 "시가 요금 편법인상・이용불편 가중"(부산매일 5. 23)
* 한・영 교류 200주년 기념행사 다채, 최첨단 영 항모 2척 부산입항…전시・연주회 등 가져(부산매일 5. 23)
* 부산항 장비현대화 '뒷걸음' 부두운영사들 민영화 전보다 예산 183억 삭감(부산매일 5. 23)
* 침하…균열…불안한 아파트, 부산 망미로얄・다대도개공 안전 '불합격' 일부 시행업체 부도…보수 엄두 못 내(국제 5. 23)
* 문정수시장 등 8명 기소, 검찰「정리스트」수사 뇌물수수혐의…불구속(국제 5. 23)
* 텔레포트, 부산경제 회생 돌파구, 부산발전연구원 정보도시화 시민대토론회(국제 5. 23)

5. 24
* 대형건설 사업 등 50대 중점과제 총 점검, 시 추진실태 보고회 시정역량 집중(시보 5. 29)
* 신시가 관리공백 장기화, 해운대구청 시설물 26%하자 인수 거부(부산 5. 24)
* 소음해소 후에 공사해야, 금정구청 주상복합건물 건설 중지 명령(부산 5. 24)
* 시의회・문시장 "가재는 게 편", 선처 파문 불구 임시회도 흐지부지될 듯(부산 5. 24)
* 롯데・현대 지방점 '효자손', 수도권 백화점 침체불구 부산 매출 20%대 신장(부산 5. 24)
* 재난우려시설 곳곳 방치, 북구청 안전진단결과 65곳 발견 낙석・폭우 시 위험(국제 5. 24)
* 5거리된 수비삼거리 해운대구내 수영역 "엉터리 지명 바꿉니다, 시 하천・터널 행정구역 등 개명 추진(국제 5. 24)
* 긴급진단 새 국면 위천공단, 환경단체 연대투쟁만이 '살길', 지역이기 빠져 경제논리 고수 땐 모두가 공멸, '맹목적 경기부양책' 방향 돌리게 역량 모아야(국제 5. 24)
* 부산, 경력법관 태부족, 서울선호…77명중 2년차 이하 40%, 공판지연 등 법률 서비스 부실 우려(국제 5. 24)
* 지방직 공무원 시험 "별 따기" 부산 9급 행정 137대 1등 평균 45대 1 사상최고, 행정 분야 지원자 88%가 대졸…취업난 방증(부산매일 5. 24)
* 직장의보 '직선조합장' 첫 당선, 북・사상・강서지구 내달 선거 타 지역 파급 클 듯(부산매일 5. 24)
* 낙동강하류 1년 중 9개월은 '저수지' 상류 질소・인 유입에 유속도 느려 자정 한계(부산매일 5. 24)
* 개최능력은 세계가 인정…문제는 "투자", 동아시아 대회 결산, 수송・홍보・시설 등 과제 산더미, 완벽한 준비만이 성공대회로 인도(부산매일 5. 24)
*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권고치 최고 46배 배출, 환경부 전국 11곳 조사, 집단민원 우려 소각장별 수치는 "쉬쉬"(부산매일 5. 24)
* 기장군 정관면, 공시지가 무더기 이의신청, 신도시 개발 때 불이익우려…부산 총 건수 80%(부산매일 5. 24)
* 시 민간단체 예산지원 역작용 우려, 재원확보 급급 시민운동정신 변색 가능성(부산매일 5. 24)
* 기장 군-의회 추경예산 마찰, 도자기마을 사업비 전액 등 대폭삭감 파문(부산매일 5. 24)
* 전화방 탈법영업 일제단속, 27개업소 업주 25명 불구속 입건(부산매일 5. 24)

5. 26
* 하얄리아부대 이전 협상 타결, 99년 5만평에 선수촌, 한미정부 2002년까지 완료 합의(국제 5. 26)
* 부산 국회의원들「위천저지」의지회박「낙동강」의원입법 방치, 생색용 개별 홍보만 궐기본부 등 29일 강력대처 촉구키로(국제 5. 26)
* 버스 운송 수입금 실사, 내일까지 백91개 노선 대상 투명성 확보(부산 5. 26)
* "밀사리를 아십니까"「우리밀 살리기」문화축제(부산 5. 26)
* "민속예술 주제・내용 파악 미흡" 막내린 26회 민속경연대회, 표현・의상・도구 등 세심성 부족「학생부」기량 등 돋봬 수상 많아(부산 5. 26)
* 위천저지 불길 다시 붙었다, 총궐기본부 내달 대규모 궐기・시위 계획, 1만명 참가 특별법 제정 촉구, 수차례 상경 백지화 투쟁도(부산 5. 26)
* 낙동강 악성폐수 비상, 대구 하수처리장 고장…4만톤 유입(부산 5. 26)

* 한미합의 하얄리아 부지 중 5만평 선수촌 조성(부산 5. 26)
* 고지대 식수난 해소한다, 2000년 청학동 배수지 확충・신설, 영도 8만여명 희소식(부산 5. 26)
* 다이옥신 배출량 '함구' 큰 반발, 부산시민・환경단체 실태조사 결과 공개요구・집단행동 검토(부산매일 5. 26)
* 해운대서 '챌린지 데이' 행사, 국내서 단독 참가…예루살렘과 경합 벌여(부산매일 5. 26)
* 수영구직원 문화유적지 답사(부산매일 5. 26)
* 기장 정관소방파출소 개소, 취약지 초기진화・구조 활동 기대(부산매일 5. 26)
* 6월 금융대란설, 부산 중소기업 돈줄 죈다, 대출・어음할인 안 돼 하루하루 5~10사 부도(부산매일 5. 26)
* 대구 하수처리장 오수 4만톤 낙동강 유입, 부산・경남 또 식수오염 "비상", 정전으로 처리시설 마비… 정화 안 된채 방류(부산매일 5. 26)
* 하얄리아 부산아시안대회전 이전, 류외무-미국방 합의 실무협상 급진전 전망(부산매일 5. 26)
* '한심한 구의회' "나라형편・지역현안 무시" 주민들 비난 빗발, 경제난 나 몰라라 걸핏하면 외유, 파벌싸움에 화풀이성 예산 삭감(부산매일 5. 26)

5. 27
* 적극적인 중추기능 유지대책은,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나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27일 제65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시보 5. 29)
* 백산기념관 빗물 샌다, 95년 완공 천장 철제 이음새 부실, 하자보수 등 대책 부심(부산 5. 27)
* 아시아드선 착공땐 교통대란, 개착식공법에 도로 협소, 교통평가 신호체계변경 등 소통책 시급(부산 5. 27)
* 「엄궁 계획도로」 공사비논란, 부산시 "집행거부" 입주민 "분양가포함" 반발(국제 5. 27)
* 부산 대동제추진 난항, 통폐합으로 행정력 낭비・불균형 해소, 대상 주민들 "기준 불합리" 거센 반발(국제 5. 27)
* '스마트 부산21' 계획 오리무중, 위원회구성 무산 1년 가까이 기본방향 못 잡아, '부산발전전략 마련' 출범 취지 무색(부산매일 5. 27)
* 부산시의회 난맥상 어디까지… 중 실력자 초청 관광만…업계진출 호기놓쳐, 문 시장 서울행 등으로 임시회도 파행 운영(부산매일 5. 27)
* 신선대 해안 대규모 매립 시사, 신해양 종전 포기합의 번복…주민 거센 반발 예상(부산매일 5. 27)
* 부산 꿈나무 '금16' 꿈인가, 사흘째 수영 체조서 4개 추가 그쳐 모두 7개(부산매일 5. 27)
* 신선대・오륙도 앞 매립 강행, "시와 합의 끝났다" 해양부 신장관 기자회견서 밝혀, 환경・시민단체 강력 반발 예상(부산 5. 27)
* 부산 하수관 사업에 2백56억, 올해부터 지방양여금 전환 배정(부산 5. 27)
* 위천지정 사전포석 "반발" 상수원법 국무회의통과 시민반응 낙동강 수질개선 기대난(부산 5. 27)
* 부산 소각장도 다이옥신 공포, 신시가지 선진국 규제농도 2~3배, 아무런 대책없어 문제 심각, 환경 단체 "부실땐 즉각 폐쇄"(부산 5. 27)
* 금정산 붉은점모시나비 '부활', 부산・경남일대 서식 86년께 자취감춰, 사육장 지어 번식운동 10마리 부화(국제 5. 27)
* 신선대 앞바다 매립 재추진, 신장관 해운대 강연, 생태계파괴…주민들 반발예상(국제 5. 27)
* 시의회 개회…「현안」 집중 추궁, 문시장 "시장 재임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시장으로서 물의를 빚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 할 것으로 전해졌다"(국제 5. 27)
* 하얄리아 이전예산 확보 '막막' 부산시 예상 자금 4천억원…택지 매각해도 2천억원 부족(부산매일 5. 27)
* 공영 주차 빌딩 적자 '허덕' 동래구 사전조사・홍보 제대로 않아 이용객 적어(부산매일 5. 27)
* 부산신보조합 7월 돛 올린다, 초대이사장에 김정규시 선임…내달 설립허가(부산매일 5. 27)
* "위천 저지 실력행사도 불사" 62.4%, 생업피해 농어민 더욱 강경 … 58%이상 수돗물 아예 안 마셔(부산매일 5. 27)
* 동마다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중구 특별회계 80억원 투입 6월까지 대상지 선정(부산매일 5. 27)
* 하단초등학교 열린교육 운영 사례 발표(부산교육 5. 27)

5. 28
* 시정 동정, 문정수 시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무위원과 15개 시 도지사 등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화 추진 상황 및 첨단 S/W 산업육성방안 보고회」에 참석(시보 5. 29)
* 연극・음악・전시회 등 관람 극소수, 월평균 1명당 5만7천원 지출… 연령이나 학력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산매일 5. 28)
* 부산신보조합 200억원 확보, 대기업 출연금 기탁서 제출…출범 '순풍의 돛'(부산매일 5. 28)

* 교통영향 재평가 규정 “사문화” 부산시 건물준공 후 체증심화 불구 단 1차례도 실시 않아(부산매일 5. 28)
* 순천당제약・천호한방・고려식요 제약부산 맥 잇는다(부산 5. 28)
* 부산에 지방양여금 256억 지원, 시・도 경제협의회, 그린벨트 내 정신질환시설 설치는 불용(부산매일 5. 28)
* “진솔하지 못한 면피성 사과” 문시장 신상발언 시민반응, 수뢰 경위 등 진실규명 이뤄줘야(부산매일 5. 28)
* 부산정보단지, 정부지원 없어 분양가 높아져 입주기피 예상(부산매일 5. 28)
* 문시장 “시정 전력” 표명, 사퇴의사 안 밝혀…시민단체 퇴진 운동(부산매일 5. 28)
* 소각장 다이옥신 파문 확산, 신시가입주민 ‘위험도 분석 후 가동중단 요구도 불사’ 부산 환경연합 ‘주민생존권 위협 소각정책 전환 촉구’(부산 5. 28)
* 버스터미널 축소 이전 추진, 문시장 시의회 답변 ‘유엔묘지 인근 규제완화 검토’(부산 5. 28)
* 부산의원들 「위천」 기피증, 신한국 부산지부 「간담회」 일방연기 무산…시민 ‘반발’(국제 5. 28)
* 부산 「스페이스월드」 설립, 다대포에 2000년내 미교육재단과 공동추진, 한국판 디즈니랜드 계획도 협의중(국제 5. 28)
* 초등생 양심 울린 경찰, 주워 맡긴 지갑서 31만원 가로챘다 들통(국제 5. 28)
* 정부확정 「상수원 수질개선법」 ‘특별대책지역 제외・수질개선 조치도 누락’, 오염 규제 강제수단 없어 「젖줄」 회생 요원(국제 5. 28)
* “신선대 앞바다 매립불가”, 남구청 정부 강행시 주민동원 실력행사 방침(국제 5. 28)
* 초등생이 31만원 주워 신고, 경찰이 가로채 말썽(부산 5. 28)
* 달맞이길 훼손 극심, 대형 건출물 줄줄이 신축 조망권 저해(국제 5. 28)
* 부산 다이옥신 ‘비상’ ‘환경부’ 소각장 기준치 최고 48배 초과, 「다대」 저감장치 미부착 가동 중, 부산 사하 주민 「신평」 허가반려 요구(국제 5. 28)

5. 29
* 불가민원에 대해 「민원3심제」 도입, 시・구・군서, 「민원인 감찰제」도…불가민원 줄여(시보 5. 29)
* 영구임대주택 관리개선 방안 마련, 시 저소득층 주민 주거환경・자립기반조성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시보 5. 29)
* 2002년 아시안게임 성공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2008년 부산올림픽 유치도…조직위 직제 개편 등 서둘러야(시보 5. 29)
* 국내 최초 친수 공간 「민락동 수변공원」 조성, 민락 공원・광안대로등과 어우러져 새로운 해안 관광명소로 부상(시보 5. 29)
* 시, 지방재정 확충 체납세 정리 등 강화, 부산시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체납지방세 정리・세무조사 강화 및 신 세원 발굴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시보 5. 29)
* 2단계 「경쟁력 높이기」 50대과제 선정, 시 행정내부 경영혁신・기업 뒷받침 등 3대 분야 가시화로(시보 6. 5)
* 세계인구 올 중반 58억5천만명, 유엔인구기금 전망 90~95년 매년 8천1백만명씩 증가(부산 5. 29)
* 황령산 온천개발 사실상 무산, 남구청 확정지 황령3터널과 땅 중복, 시 승인 불가 방침(부산 5. 29)
* 부산・거제 연륙교 본격화, 시 국방부・해운과 업무협의 착수(부산 5. 29)
* 쓰레기 소각정책 재검토해야, 다이옥신 저감장치 「SCR」 실효성 의문, 국내 소각장 검증 없이 설치, 난립 간이소각장 점검 소홀(부산 5. 29)
* 6월 위천저지 ‘투쟁의 달’ 선포, 총궐기본부 차량 가두방송・시민 선전활동 돌입, 시의회도 오늘 부산출신 의원과 긴급 대책회의(부산매일 5. 29)
* 다이옥신 비공개에 반발 확산, 환경부 발표거부, 부산 환경단체 등 “소각장 폐쇄 투쟁 불사”(부산매일 5. 29)
* 자녀 결혼비용 평균 2천678만원, ‘남자가 더 부담’ 당연시…직장부조금 평균 2만9천원 “적당”(부산매일 5. 29)
* 공영주차장 700면 추가 확보, 금정구 내년까지 장전・온천장역 등에 신・증설키로(부산매일 5. 29)
* 부산국회의원 이래도 되나, 시민단체 배재 시의회와 「위천간담회」, 총궐기본부 6월 「총력투쟁의 달」 확정(국제 5. 29)
* 노포 환승시설 「반신불수」 회차 시설 없어 지하철-버스 연계 불능(국제 5. 29)
* 한심한 경찰… 도박판돈 36일 지난 뒤 경리계 인계, 압수 오토바이 9대 행방 오리무중(국제 5. 29)
* 정관신도시 주거지 15만평 축소, 농림부 우륭농지 보존 내세워 용수리 일원제 외, 이미 공람 마친 상태… 주민발발 예상(국제 5. 29)
* 연안부두변 친수 공간 조성 반발, 부산세관 ‘감시정 계류장 잠식 출입항 장애… 설계변경 요구’ ‘시・해양청,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다 제동 걸려’(부산매일 5. 29)

* 학교운영위 '비민주적' 교사참관 저지에 자료공개 않아(국제 5. 29)
* 부산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는, 해운대신시가 현대・대우・LG・대림, 지역 업체부문 「주례반도보라」 선정(국제 5. 29)
* 노인・유치원생 합동체육대회 다채, 가정의 달 맞아 사랑・위안행사, 다채로운 게임 중 "즐거운 한때"(부산 5. 29)
* "6월은 위천 저지 총궐기 달", 부산본부 '오염 낙동강 살리기 모든 수단 동원'(부산 5. 29)
* 롯데백화점 '옥외주차장 매장대여 물의' '100여평에 철 구조물까지 설치…고객 통행 방해'(부산매일 5. 29)
* 부산건축사 40명, 시 업무정지처분, 부실감리・설계 등 위법 자행(부산 5. 29)
* 부산항 2부두 확장 단계별 추진, 1단계 접안대체시설…2단계 본격 매립 공사(부산 5. 29)

5. 30
* 적조대책위원회 정기회개최, 시 조기발견・효율적 방제위해(시보 6. 12)
* 부산지역 발주공사 금액 상향조정, 일반공사 1백억원, 전기통신 20억원(부산 5. 30)
* 영도구 상공인 연합체 창립, 59개업체 정보교류 목적, 「절영상공인 연합회」 세워(부산 5. 30)
* 부산항 홍보세일즈 주먹구구, 관련기관 제각각 추진…중복・누락등 비효율적(부산매일 5. 30)
* 그린벨트 아주대회 골프장 논란, 부산시 '지역여건상 건설 불가피 허용요구' 건교부 '완강한 반대, 승마장은 6만평 가능'(부산 5. 30)
* 제2증권거래소, 부산 유치 무산위기, 3부시장 개설도 '용역 연구기관서 불필요 결론'(부산 5. 30)
* 주택공사, 관리비 과다부과 물의, 모라 3단지 임대아파트 전기료 매달 엉터리 계산(부산 5. 30)
* 황령산 온천개발 또 마찰, 남구청 승인요청…부산시 불허방침(국제 5. 30)
* 「구덕야영장」 개장 임박, 부산 첫 구직영 내달 14일께 준공식(부산 5. 30)
* "학교 옮기기 싫어요" 해운대 신시가 초등생들 「학구조정」 피해, 18개월 사이 세 번이나 전학 '동심에 상처', 아파트 일시 입주 개교일자 안 맞아(국제 5. 30)
* 부산 대형아파트도 '가스 공포' , 2개단지 1천600세대 불합격 판정불구 보수비 마찰 방치(부산매일 5. 30)
* 부산 수출 3개월 연속 부진, 4월에도 전년동월에 비해 2.9% 줄어(부산매일 5. 30)
* 낙동강 하상퇴적물 중금속 오염 심각, '카드뮴・납・구리 위험수준', 위천지정 재검토해야(부산 5. 30)
* '생활민원' 시위・집회 급증, 부산지역 관계당국 여론수렴・대안제시 미흡(부산매일 5. 30)
* 신평소각장 가동 반대 시위, "부산환경운동연합회원들과 사하구 신평소각장반대 투쟁위원회 회원 50여명이 29일 오전 부산 사하구 신평동 부산환경개발(주) 앞에서 정부의 쓰레기 소각정책 철회와 소각장 가동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부산매일 5. 30)
* 부산지방 노동위 전국 첫 구성, 공석 심판 공익위원 선출 제기능 기대(부산 5. 30)
* "다이옥신 검출지도 모르는데 웬 대책" 시・도 지자체 환경부 조사결과도 안 가르쳐준 '저감' 지시에 반발(부산매일 5. 30)

5. 31
* 부산~방콕노선 개설, KAL・아시아나 내달주 2~3회 운항(부산 5. 31)
* 수산업 구조혁신・첨단해양도시 건설, 독도 체계적 개발…남해안에 인공섬 조성(부산 5. 31)
* "364일 사방서 바위깨는 소리 끔찍해요" , 사하구 '감천1동 전원빌라 97세대 고통 호소', '옆쪽선 3년째 감천항 배후도로 암반천공 작업', '뒤쪽 신축아파트 터파 기공사로 균열 등 피해'(부산 5. 31)
* 경찰서장 퇴폐업소 폐쇄 가능, 풍속영업규제 개정법 내달시행, 영업정지등 단속 강화(부산 5. 31)
* 부산 불교 청년단체 통합 무산, 대불청・광불청 각기 독자노선 천명, 방법・시기 등 입장차 커…갈등도 한몫(부산 5. 31)
* 신선대 매립 "시민 반대하면 추진 않겠다", 신장관 밝혀…기존 입장변경 시사(부산 5. 31)

6. 1
* 부산상공회의소・부산지역 산발업계, 부산신발업 최대 위기, 부산지역 신발업계 지난 80년대 말 이후 최대 위기 맞아, 나이키사 지역업체 수입물량 50% 축소, 세원・삼양통상 생산라인 폐쇄 등 '초비상'(국제 6. 2)
* 부산시, '다이옥신 사각' 소규모 소각장 난립, 부산 아파트・사업장 등 1천여 곳…작년비 48% 증설, 오염원 여과시설 없이 쓰레기 마구잡이 처리, 전국 대형쓰레기소각 장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배출돼 인근주민들의 건강위험성이 사회 문제화됐으나 아파트나 사업장의 소형소각장 설치 사례가 오염원 여과시설이나 측정 장치도 없이 해마다 급증(부산매일 6. 2)
* 부산시, 부산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 올해 종토세 1,227억원, 과세표준액 산정을 위해 각 필지별 개별 공시지가에 각 구군이 결정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 이달부터 시행(국제 6. 2)

6. 2
* 해양수산부, 부산항 2001년까지 대대적 개발, 금융센터・초고층 빌딩・통합관청 등 건립, 제 1, 2 부두와 국제 여객터미널, 그리고 부산세관 자리 등을 잇는 부산항 전면이 아시안게임 직전인 2001년까지 대대적으로 재개발(부산매일 6. 2)

* 부산시, 민주공원 조성 지지부진, 부지 보상합의 안 돼 착공 10월로 연기(부산매일 6. 2)
* 부산시향, 부산 음악 사절 미국 무대에, LA 등 4도시서 '전통·현대 앙상블'선사, 꿈의 무대 카네기 메인홀서 연주 '화제', 우리나라 교향악단 최초로 미국 4개 도시를 순회 공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대륙과 바다를 잇는 환상여행-바다의 꿈 콘서트」가 오는 8일부터 공식 일정 돌입(부산매일 6. 2)
* 해양수산부, 자성대 부두 연내 민영화, 내달 중 입찰 공고…부산항 7부두는 내년 7월부터, 국내 최대의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부산항 자성대 부두가 올해 중에, 석탄 및 고철 광석 전용부두로 운용되고 있는 부산항 제7부두가 내년 7월부터 민영화(부산 6. 2)
* 부산시, 부산·경주관광청 운영, 통합루트 개발·공동홍보물 제작 등 추진, 부산시와 경주시가 해양 자원과 역사적인 유적을 연계해 세계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부산·경주권 광역 관광협의회」 설치 운영키로(부산 6. 2)
* 부산시, 부산 국비지원 2조383억 요구, 시 98년 107개 사업…전년비 16.7% 증가, 내년에 부산신항 건설·아시안 게임 경기장 및 관련도로 건설과 지하철 1호선 운영 2·3호선 건설 등 총 1백7개 사업에 2조3백83억원의 국비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부산 6. 2)
* 강서주민 "다이옥신 언급 없이 공사강행" 반발, 최근 쓰레기 소각로의 다이옥신 초과배출 문제가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명지주거단지 쓰레기 소각장 건립부지인 부산 강서구 명지동 주민들이 발주처인 부산종합건설본부가 근본적 대책 없이 공사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쓰레기 소각장 이전 및 백지화 요구 등 파장 확산(국제 6. 2)
* 부산시, 주차장 용도변경 못 막는다, 건물주 임대수입 높아 이행강제금 감수, 도심 지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임대료 수입을 노린 건물주에 의해 사무실 식당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되고 있으나 제재조치가 미흡해 위법주차장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국제 6. 2)
* 부산시교육청, 추경편성안 1,027억원 확정, 97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 1천27억여원의 편성안을 확정 오는 9일 열리는 부사시교육위원회 임시회와 이달 중순예정 인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 거쳐 집행키로(국제 6. 3)
* 건설교통부, 공시지가 이의신청 '봇물', 최근 개별공시지가 선정에 따른 이의 신청을 전국 230개 시구 군별로 접수한 결과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에서 무려 2천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돼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국제 6. 3)
* 부산 남부경찰서, 광안리·해운대 '보도방' 일제 단속, 광안리 해수욕장과 해운대 일대 40여개 유흥업소들이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무허가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에서 10대 여자들을 매일 전화로 소개받아 손님접대와 윤락행위를 시키고 있다는 단 서를 잡고 법원에 이들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전면 수사키로(부산매일 6. 3)
* 부산시의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2002 아시안게임 준비조직 연내 구성, 지하철 미남역 위치선정 특혜설 추궁, 여성발전기금 운용 자문위 심의 의무화 등 논의(부산매일 6. 3)
* 고등어가 다시 돌아왔다, 2일 올 들어 하루 위판량 최대…가격 60%이상 하락, 부산 공동어시장에 반입돼 위판된 고등어는 모두 20㎏들이 5만상자로 올 들어 위판된 물량 가운데 하루 최대물량 기록(국제 6. 3)
* 시정 동정, 문정수 부산시장은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한 2002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1주년 기념행사 참석(시보 6. 12)

6. 3
* 부산지검, 부산지역 특수범죄 중의 하나인 해양오염 근절 위해 해양부서관계자들과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대대적 단속에 나서(국제 6. 3)
* 부산시, 모범택시 확대 운행 '진통', 배기량 기준 시비·이해대립 일정연기, 다음달 말부터 확대운행이 추진돼 오던 부산지역 모범택시 면허전환사업이 적정 배기량 기준 시비와 택시업계의 이해가 얽혀 진통(국제 6. 3)
* 부산상공회의소, '선물거래소 부산유치' 공조, 상의-시의회 오늘 경제살리기 공동결의문 채택,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시의원 초청간담회를 갖고 선물거래소 부산유치·녹산공단 분양가 인하 등 지역경제 현안과제를 논의한 뒤 경제살리기 공동결의문 채택키로(부산매일 6. 3)
* "2002월드컵 우리고장서 치르자" 치열 경쟁,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의 국내경기를 유치하기 위한 전국 16개 도시 기획단구성 작전 개시, FIFA 조사단 내한 11월께 10곳 최종 낙점(부산매일 6. 3)
* 외국 대형 할인점 부산에 속속 진출, 부산의 대표적 교통체증구역인 서면지역에 초대형 전자유통단지의류도매시장에 이어 외국계 대형 할인점이 교통영향평가를 끝내고 사업 본격 추진 향후 1~2년내 심각한 교통난 우려(부산 6. 3)

* 부산시, '부산 경제 살리기' 본격화, 시 통산부에 6개항 건의…시의회·상의도 공 동결의문, 침체에 빠진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통산부와 부산시 부산상의와 부산시의회가 발 벗고 나서(부산 6. 3)
* 부산시 체육회, 「미래의 금맥」 시추 나섰다, 기초종목 발굴·육성 5개년 계획 마련, 2001년까지 3백여명 선발…과학적 훈련 등 지원, 오는 2000년 전국체육대회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메달밭인 육상과 수영·체조 등 기본종목의 꿈나무 선수 발굴 및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부산 6. 3)
* 마약사범이 넘친다, 히로뽕을 중국서 밀반입한 보따리장수 적발, 택시기사 히로뽕 투약한 채 환각운행, 히로뽕 투약자들 대로에서 단속반에 흉기 휘두르는 등 마약 사범의 사회적 폐해 갈수록 심화(부산 6. 3)
* 10대 접대부 공급처 기승, 여고생도 "돈벌고 즐기자"나서, 한곳서 주점 등 10~20곳 거래, 전화를 통해 10대 가출여고생 등을 룸살롱 단락주점 나이트클럽 등에 접대부로 공급하는 「보도방」이 부산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부산 6. 3)
* 「장애인 택시」 최악 국면, 장애인 택시회사 설립을 위한 부산시의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장애인들의 극한투쟁 양상으로 비화, 부산총연합 사업허가 촉구 도로점거 시위(부산 6. 3)
* 부산시, '10부제 강제 시행 추진', 부산지역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10부제를 강제 시행하는 등 강력한 교통 수요억제정책 시행키로(부산매일 6. 3)
* 부산시의회, 미남R~반송 경전철 건설, 교통공단 부산백화점 앞 지하철역 특혜 추궁 등 안건 처리하고 임시회 폐회(국제 6. 3)
* 부산항 「컨」 물량 급증, 지난해 보다 22.8%…수출 화물 크게 늘어, 3일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발표한 「부산항 전용부두 컨테이너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자성대 신선대 우암부두 등 「컨」 전용부두에서 처리한 「컨」 화물은 모두 32만3천6백88개로 집계(국제 6. 4)
* 부산시 시내버스노선조정 심의위원회, 3일 시청회의실에서 제1차 시내버스노선 조정 심의회를 열고 부산진구 범천~개금 산복도로 시내버스 노선 개설 등 3개 지역 시내버스 노선조정 계획 결정, 해운대·문현동 노선 일부 변경(국제 6. 4)
* 지하철 공사장 잇단 사고, 3일 하루 동안 부산지역 지하철 공사장에서 2건의 안전사고 발생, 7살 어린이 환기구 추락 사망·20대 낙하물 맞아 중태(국제 6. 4)
* 국민캡 노조원 시청앞서 시위, 회사분할매각에 반발해 음독자살한 국민캡 노조원 홍장길(58)씨 장례대책 위원회 소속 근로자와 유족 등 40여명 3일 부산시청앞에서 분할매각을 승인한 문정수 부산시장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국제 6. 4)
* 시교육청, 부산 초·중·고 촌지수수 감소, 올 들어 신고 12건에 그쳐 … 단속 계속 강화키로(부산매일 6. 4)
* 해양수산청, 부산항 운영규칙 부두운영회사제시행과 항만 여건 변화에 맞춰 대폭 개정, 부산항 운영 이용자 중심으로, 개정 규칙 3일부터 시행(부산매일 6. 4)

6. 4
* 부산해양청, 감전출장소측으로부터 수심측량에 필요한 해역도를 제출 받아 해양부에 7천만원의 예산 요구 했으나 우선순위서 밀려, 제대로 측량 안 된 채 대형 선박 접안 허용(국제 6. 4)
* 부산시, 부산 중업 해외시장 개척 '붐', 「불황탈출, 해외로 눈을 돌려라」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이 이달 들어 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등에 잇따라 참가하는 등 해외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 중동시장 개척단 380만달러 가계약 성과(국제 6. 4)
* 부산시, 국제 망신 살라, 지난 동아시아대회에서 협소한 시설문제 등으로 웃음거리가 됐던 사직수영장을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방침, 수중발레·수구전용풀·부대시설 전무 몸풀 곳도 없어(국제 6. 4)
* 부산시, 신시가지 순환버스 신설,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동래 충무동 송정방향으로 가는 시내버스노선이 조정 신시가지내에 순환버스 5~6대가 이달 중으로 신설 운행, 해운대→동래·충무동 동서로 분산, 범천~개금 산복도로서 서면 순환(국제 6. 4)
* 부산시, 15개 광역 자치단체 평가 "최우수 시", 민선지자체 출범 2년을 맞아 실시 된 한 평가 조사에서 전국 15개시도 가운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정보화 부문 1위·공공 서비스 2위(국제 6. 4)
* 경성대-부산신학교 통합, 부산 경성대 학교법인인 한성학원이 같은 법인산하인 부산 남구 대연 5동 부산신학교를 흡수 통합키로, "학교 특성화 정책 위해 불가피"(국제 6. 4)
* 부산시, '최우수 기관' 선정,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동아일보사가 민선 자치단체 출범 2년을 맞아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전국 6대 도시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스마트 21'·정보화 앞장 등 높은 점수 받아(부산매일 6. 4)

* 부산시, '외국인 투자지구' 추진, 부산지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녹산국가공단 등 공단조성지역의 일정 구역을 기존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지구」의 지정 추진, 녹산 등 염두 통산부에 재정보조 요청(부산매일 6. 4)
* 부산시, 수영정보단지 개발 차질, 컨테이너야적장 이전 차질과 토지보상 부진으로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부산(수영)정보단지가 이번에는 국방부의 제동으로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 계속 늦어져, "계약조건 위배" 동의 거부…11월 착공 지연 불가피(국제 6. 4)
* 택시 분할매각 또 말썽, 회사택시의 분할매각으로 인한 국민캡노조원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사하구 장림동 극동운수 보수택시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들 몰래 택시를 매각해 노조원들이 매각 무효화 주장, 매도 뒤 대표 잠적 '제2국민캡 사태' 우려(국제 6. 4)
* 22회 전통예술경연대회 7일부터, 부산민속관서 국악·무용·풍물 등 3개 부문 개최(부산매일 6. 4)
* 부산시, 오륜유치위 내년 초 구성,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사실상 지지의사 표명에 따라 유치 경쟁에 나서기로(부산 6. 4)
* 부산시,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시공상 편의 및 주민보상을 둘러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키로 방침을 확정해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부산 6. 4)
* 부산시, 가덕신항 10월 착공 본격 추진, 가덕신항만 개발을 위한 어업권 피해 보상 민원이 타결 돼 오는 10월부터 신항만사업 본격 추진(부산 6. 4)
* 택시 양도양수 또 파문, 협동택시 인수회사 소속기사 정리해고, 노조원 생존권 박탈 반박, 시 진상조사 커녕 은폐 급급, 제2국민캡 사태 우려 긴장(부산 6. 4)
* "6월 항쟁 민주화 완성 아닌 시발점", 민주·자유 진척·노동 운동 활성화 결실, 정신 계승 새 시대 열 초석 삼아야(부산 6. 4)
* 감사원, 부관부어업권 보상금 지급중단 지적에 따라 부산 대형 공공사업 '표류', 수협 등 어민 생존권차원 법적 대응·시위 결의(부산 6. 5)

6. 5
* 6월 정신 계승 우리 시대 '화두', 전국민 참여 "독재타도" 현대사 큰 획, 민주세력 분열·지역갈등 극복 못해(부산 6. 5)
* 부산 학원 비리 수사하라, 서울 대규모 실시 후 성과 뚜렷, 사법권 없는 교육청 단속 한계, 탈법 지능화 검·경 적극적 처벌 시급(부산 6. 5)
* 신평 소각장 반대 대대적 시위, 주민·환경연합 등 1천여명 연대 집회(부산 6. 5)
* 부산시, 면허 기준 50대 초과분에 한해 택시 「일부 매각」 허용, 노조 "법미비·기사 불이익" 반대(국제 6. 5)
* 부산 오존오염도 '전국 1위', 4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우리의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먼지량도 으뜸…낙동강 수질 악화, 쓰레기 발생량 서울·경기 이어 3위(국제 6. 5)
* 부산시, 98년 4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중구 영주동 중앙공원 내 부산 민주공원이 토지보상 차질과 공기연장으로 최소 1년 가량 늦은 오는 99년 4월 이후 에나 완공 가능 전망(국제 6. 5)
* 부산 의료원 10일 기공식, 지난 68년 문을 연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이 오는 10일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산 81 일대 3만6백평 신축부지에서 기공식 가져(국제 6. 5)
* 신평 소각장 18일 시험 가동, 하루 3~4시간씩…다음달 폐기물 투입, 반대대책위 "실력 저지" 마찰 불가피(국제 6. 5)
* 「부산문화축제위」 불안한 출범, 문체부 법인설립 인가 유보, 시 기본적인 예산만 지원, 년 수십억 협찬금 조달 난제(국제 6. 5)
* 가덕신항 어업보상 타결, 시 의창수협과 마지막 약정 체결, 공사걸림돌 제거…오는 10월 착공(국제 6. 5)
* 정부, 해운대 온천센터·기장 해양리조트 건설, 부산 관광업 발전 도약 기대, 온천센터-백화점 호텔 놀이시설 겸비한 종합레저타운, 해양리조트-3만평 오픈 「부산판 할리우드」 볼거리 제공(국제 6. 5)
* 기장·해운대 관광단지 조성 확정, 오는 2001년까지 부산 기장군에 대규모 해양관광리조트와 아시아드 민속촌 및 영화촌 설립, 해운대에는 대규모 온천휴양센터 건설(국제 6. 5)
* 부산 남부경찰서, 미성년 퇴폐영업 무더기 적발, 가출여고생 등을 꾀어 전화를 이용 술집 종업원으로 공급하는 보도방을 통해 미성년자들 불법 고용해 술시중을 들게 한 유흥업소업주들 무더기 적발(국제 6. 5)
* 택시 분할 매각 철회, 극동 보수택시의 전격적인 양도양수계약이 조합원들의 반발로 무산(국제 6. 5)
* 해수욕장 개장준비 '구슬땀', 내달 1일로 예정된 해운대, 광안리 등 시내 6개 공설 해수욕장 일제 개장을 앞두고 관할 구청이 손님맞이에 한창(부산매일 6. 5)
* 금정구, 지역문화재 답사여행 활성화, 전직원 연 1회이상 권장…구민 참여도 유도(부산매일 6. 5)

* 정부, 검・경에 한총련 지도부 특별 검거령, 부산서 상경한 500명 추적, 치안장관회의 배후세력 등 전원 구속 수사(부산 6. 5)
* 택시 몰래 매각 성행 기사들 불안, 관련법 악용 분할・합병 예사…올 들어 380대나 처분(부산매일 6. 5)
* 부산요청 국고 절반 삭감, 정부 AG경기장 진입로 개설비 등 제외, '가덕신항'도 40%만 반영…내년 사업 차질 우려(부산매일 6. 5)
* 통관 불합격 육류 반입 급증, 올 들어 부산서만 179건 적발…'구제역' 발생 우려(부산매일 6. 5)
* 부산지원 40% 줄어 현안 차질,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가 5일 예산당국에 정식 제출됨에 따라 예산 편성 작업 본격화, 세수전망 어두워 9% 인상안 대폭삭감 불가피(국제 6. 6)
* 부산시향 환송연주회 '성황', 본사주최 「미 순회공연」 축하, 5일 문화회관 강당 1천7백여 청중 갈채(국제 6. 6)
* 우수기관 표창수상 시 96년 물가관리, 내무부의 종합평가 결과 부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무부 장관 기관표창 수상(시보 6. 12)
* 「부산역사관」 전시자료 구합니다, 시 내년 개관 앞두고 범시민 자료수집운동 전개(시보 6. 5)
* 하나뿐이 우리 삶터 땀 흘리는 지구를 살립니다,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환경보전문화제」 개최(시보 6. 5)
* 중동시장 개척단 큰 성과, 중동시장 개척단이 11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5월 31일 귀국(시보 6. 5)
* 여성 발전 기금 조성 조례확정, 부산시의회는 지난 6월 3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개정안 등 안건을 처리한 후 제65회 임시회 폐회(시보 6. 5)
* 「민선 지방자치 2년」 평가, 「부산시최우수」, 동아일보・서울대행정대학원 종합 평가(시보 6. 5)
* 재산・자동차세 24개월까지 할부납부 가능, 시 이달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할부수납제」 시행(시보 6. 5)
* 외국인 시정모니터 위촉(부산시정 6. 5)
* 제1회 기관(학교)평가 위원회 개최(부산교육 6. 5)

6. 6
* 지하철공사장 통행 불안, 건설회사들이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안전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자재를 무분별하게 야적해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까지 주고 있으나 당국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돼 주민들 반발(부산 6. 6)
* 사상로 노선 버스 양방향 통행 재개,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차량통행이 제한됐던 사상구 사상로에 다음달 20일부터 35개 전 노선버스의 양방향 통행이 부분 재개(부산 6. 6)

단계별	시행일	통 행 방 법	대 상 노 선
1단계	97.6.10	주례사거리→사상초등학교 방향 : 일방통행	14,31,31-1,32,33,59,59-1,61,61-1,75, 85,85-1,97,107,128,133,138-1, 157,160,169,186번
2단계	97.6.20	서부터미널 주례사거리간 : 양방통행	〃
		운수천사거리～평화정비간 : 양방통행	15,33,120,132,200,202번
		서부터미널→운수천사거리 방향 : 일방통행	15,31,31-1,32,33,58-2,59,59-1,66,69-1, 75,85,85-1,107,110,110-1,120,121,128, 128-1,133,157,160,169,200-1,309,310번
3단계	97.7	사상로 전 구간 : 양방통행(왕복1차로)	사상로 운행 전 노선

* 부산 각종 경제지표 전국 최악, 부산상의 「부산경제 현황과 과제」 보고서, 제조업 부가가치 전국 꼴찌・실업률은 최고, 지역 총생산・수출 등 인구비에 턱없이 낮아, 공단 면적 대구의 1/4 도로율 6대 도시 중 5위(국제 6. 6)
* 폐기물 수거료 천차만별, 일선 구군청의 대형폐기물 수거료가 천차만별이어서 개선 시급, 세탁기 처리비 최고 18,000원 차이(국제 6. 6)
* 내년 예산 93조6천억 요구, 48개 전체 중앙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 해 예산보다 31.1%가 증가한 93조6천2백억원…대폭 삭감 불가피(국제 6. 6)
* 부산 대형 현안 사업 표류 위기, 내년도 국고 요청액 절반삭감 파장, "중앙정부 비협조・견제 표면화" 우려, 올해 초 재특자금도 깎여 시정 '험난'(부산매일 6. 6)

6. 7
* 세관 신문고 제구실 못한다, 고발・진정 등 기명청구 원칙 민원인 꺼려…'생색내기' 비난(부산 6. 7)
* 불륜과 맞바꾼 공직윤리, 기장 40대 유부녀 살해 암매장 사건 범인은 내연관계 시청 고위 간부, 범행이용 물증 찾아…오늘 중 구속(국제 6. 7)

* “6·10항쟁 정신을 되살리지”, 부산대총학생회 ‘시국대토론회’ 개최 민주화 투쟁서 민중의식 고무, 정치세력화 가능성 확인 뿌듯, 올 연말 국민 후보로 열기계승 다짐(부산매일 6. 7)
* 신시가 복지시설 불모지, 부지 매입예산 미확보 장기 방치, 부산건설본부 주택용지 용도변경 추진(국제 6. 7)
* 부산시 인력은행 ‘발병’, 올 예산 확보 못해 연내 설치 불투명, 6대 도시 중 가장 늦어…‘뒷북행정’(국제 6. 7)
*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지역업체 차별화 전략 부심, 방향 층수 따라 가격차…내부 고급화도 경쟁, A급 32평 평당 400만·중소형 360~380만원 선(국제 6. 7)
* 구청 폐컴퓨터 처리 골머리, 286급 수두룩·처분 비용 상당, 재활용 방안 마련 시급(부산 6. 7)
* 부산시의회 사조직 난립 “갈등”, 학연 등 이해 따라 10여개 활동…시정 걸림돌(부산매일 6. 7)
* 구의회 혈세로 ‘차 사치’ 경쟁, 부산 절반 이상 의장용 1,800cc서 2,000cc급으로 교체, “경제 살리기·근검절약 추세 역행” 비난 빗발, 동-중-부산진구는 되레 예산 삭감 “대조적”(부산매일 6. 7)
* 부산시 간부 내연 여인 살해·암장, 4급 서기관 이영록씨 통장 빌미 5억 요구에 범행(부산매일 6. 7)

6. 8
* 국무총리상 대금산조 한영길씨, 지난 7일부터 부산민속예술관에서 열린 전통예술의 신인등용문인 제22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가 지난 8일 폐막(부산매일 6. 10)
* “부산이 새롭게 보이네요”, 본사와 삼성그룹 부산지역본부 공동주최 부산문화유적 답사가 지난 8일 2백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부산매일 6. 11)

6. 9
* 학원수강료 횡포 여전, 시교육청 단속 35곳 전부 탈법, 2곳 휴원·15곳 환불 조치(부산 6. 9)
* 집중호우 윤화 속출, 부산·경남 142건 19명 숨지고 172명 중경상(부산 6. 9)
* 가덕항 배후도로 내년 착공, 건교부「지방도로 사업내역」발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가덕~김해(21.9㎞)를 잇는 가덕항 배후도로와 통영 북신~미수(5㎞), 함안~가야(9.7㎞)간 지방 도로 착공(국제 6. 9)
* 부산시, 안전점검용 부대시설 의무화, 신설교량 적용…기존 다리 단계 설치, 기존 교량도 단계적 점검 시설물 설치키로(국제 6. 9)
*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위험’ 2년간 방치, ‘재시공할 만큼 불안’ 지적 받고도 아무 조처 않아, 한국공항공단 이달 중순께나 보수 착수(부산매일 6 .9)
* 주거지내 공장건축 쉬워진다, 면적 2백㎡서 5백㎡까지 확대…입지난 해소, 주거 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공장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자연녹지 지역의 건축물 용적 규제가 완화되며 건축심의 절차는 간소화(부산매일 6. 9)
* 부산교육청, 탈법 입시학원 무더기 적발, 수강료 초과 등 35곳에 환불·행정 조치, 부산경찰청도 고액과외 등 부조리 수사 착수(부산매일 6. 9)

6. 10
* 신선대 앞 매립 어촌계 반발, 부산시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강행 중인 신선대 공유수면 매립사업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난항(부산 6. 10)
* 부산시, 불법어선 일제정비-무허가·무등록 어선 등 5t 미만의 생계형 소형어선에 대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 구제 등록키로(부산 6. 10)
* 부산신보 설립허가, 통산부 시 90억 등 195억 출자, 부산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이 허가 돼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온 부산 지역내 많은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다소 트여(부산 6. 10)
* 신평 소각장 반려 행정심판, 부산환경개발 청구 시험 가동 둘러싼 마찰 새 국면(부산 6. 10)
* 부산·경남도 한총련 강경대응, 서적·유인물 등 백여건 압수, 부산대 총학사무실 새벽 경찰투입, 12명 강제연행…학생들 반발(부산 6. 10)
* “6·10항쟁 역사적 재평가를”, 지난 87년 전두환정권의「4·13호헌조치」를 허물고 대통령직선제를 쟁취 문민정부 탄생의 도화선이 됐던 6·10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 활발, 군사정권 향수 경계 지적도(부산 6. 10)
* 6·10항쟁 10돌 기념행사 다채, 고박종철군비 제막…마라톤·대동제「6·10항쟁 10주년 기념 계승토론회」등 열려(부산매일 6. 10)
* 부산 어음부도 다시 고개, 지난달 0.58%…한보여파 제조업에 ‘불똥’, 한보부도사태의 여파로 제조업의 부도가 대폭 증가하면서 잠시 주춤하던 부산지역 어음부도율이 다시 증가(부산매일 6. 10)
* 지역정보센터 구축 본격화, 중구청의「공공시설 이용안내 및 전자예약시스템」이 정부의 제2차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억원가량 국비 지원받아(부산매일 6. 10)
* “6·10항쟁은 한국 민주화 분수령”, 부산시민의 4명 중 3명 이상이 6월항쟁에 대해 알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은 6월 항쟁이 한국사회의 민주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부산매일 6. 10)

* 부산~김해 경전철 실효성 의문, 지하철 3호선과 경전철이 일부 지역에서 중복 건설되면서도 역간 거리 멀어 환승이 어려워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부산매일 6. 10)
* 광안리 백사장 해초밭화, 바다매립 등 대형 토목공사로 조류변화 원인, 해수욕장 기능 상실 위기(부산매일 6. 10)
* 「만년 계획도로」 심판 청구, 상습체증지역인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대규모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우회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 혼란 우려, 주민들 '우회도로 계설하지 않으려면 도시계획 바꿔라'며 행정심판 청구(국제 6. 10)
* 학교부지 해제 특혜 의혹, 용당동 동명문화재단 부지 1만4천만평 20년 묶인 땅 풀고 아파트 건립 허가 신청(국제 6. 10)
* 부산시 교육청, 부산 유치원 5곳 9월 개원, 초등학교 병설 11개 학급…내년 10곳 증설(국제 6. 10)
* 통반장 통일관 '변했네', 영도구 평통자문회의 329명 조사, 「이념 관계없이 하나 됨」 40% 찬성(국제 6. 10)
* 부산시, 평등부부상 제정, 구청·단체 12쌍 추천…내달 5쌍 선전(국제 6. 10)
* 영도구청, 공유수면 매립 해안로 개설, 만성적 교통체증을 해소와 부산남외항의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항해안도로 건설 사업이 해안을 매립하여 해안도로 개설하고 부지 일부는 매각 민자를 유치해 관광 위락 단지 개발키로(국제 6. 10)
* 부산도시가스 정식상장, 오는 23일 총공모주식 270여만주…1주 1만9천원(국제 6. 10)
* 부산신용보증조합 공식 허가, 부산시·롯데·부산은행 등 공동출자, 통산부 자본금 200여억원…유망 중기 돈줄 풀릴 듯(국제 6. 10)
* 7개 현안 시정토론 열차, 부산 3개단체 청구서 시민 참여제 도입 후 처음(부산 6. 10)
* 아시안게임 전광판 광고 낙찰사 시·조직위에 거액로비 의혹, 관련간부 "4천만원 돌려줬다" 시인(국제 6. 11)
* 부산광역시 의료원 신축기공, 10일 연제구 거제2동 신축현장에서(시보 6. 5)
* 시정 동정, 문정수 부산시장은 신임 대한 노인회 회장단일행을 예방 받고 환담(시보 6. 19)
* 시정토론회 첫 청구 부산 시민단체 7개현안제기, 부산환경운동 연합 등은 해운대구청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시정시책토론회 개최 청구서 제출(시보 6. 19)
* 부산의료원 신축 기공식(부산시정 6. 10)
*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 배치안 확정(부산교육 6. 10)

6. 11
* 초·중학교 63곳도 '공해병' 심각, 부산지역 고등학교 뿐 아니라 상당수 초·중학교도 극심한 소음 공해나 대기오염 때문네 학업에 지장, 삼락 중등 18곳은 소음·대기 오염 '2중고'(부산매일 6. 11)
* 부산시, '스마트 21' 마스터 플랜 본격화, 해양 등 3개부분 전략 마련…이달까지 매듭, 동아시아 거점 도시 겨냥 '마리노 폴리스' 추진(부산매일 6. 11)
* 부산시, 2002년 월드컵 경기 부산유치 본격 나서,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강당에서 월드컵 조직위가 주관하는 월드컵 경기개최 후보도시 유치설명회 개최(부산매일 6. 11)
* 부산시, 월말 조직개편 단행, 도로관리계 등 신설…대규모 인사도 예상(부산매일 6. 11)
* 검찰, 시간부 6명 거액수뢰 수사, 아시안 게임 광고관련 2억 받은 혐의, 내사결과 상당부분 포착(부산 6. 11)
* 부산시교육청, 초중고 「환경피해」 무방비, 송정초등 등 13곳 소음 시달려 수업 큰 지장, 도심지 일부학교 공해영향 두통 등 후유증(국제 6. 11)
* 부산시, 도시지리정보시스템 추진, 시내 지상·지하 도시기반시설물 현황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시정보관리전산개발사업」 본격 추진키로(부산 6. 11)
* 부산시, 부산 관광발전 4개항 건의, 시 정부에 골프경기장 건설 지원 등 촉구(부산매일 6. 11)
* 공해에 시달리는 학교, 매연·소음으로 수업방해 돼도 방치, 피부발진·두통 시달려(부산 6. 11)
* 제일투신 노사 첨예대립, 노동조합이 적자경영과 관련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 소송제기, 회사측 노조집행부에 대한 중징계 검토 작업 착수 등 심각한 내홍 겪어(부산 6. 11)
* 대한주택공사, 부산 내 집 마련 8·8년 걸린다, 주공 설문조사 단독주택 11·8 아파트 6·6 걸려, 집 구입까지 4·3회 이사, 6대 도시 중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부산 6. 11)
* 부산시, 부산 주거·공업지 대폭 확대, 「스마트 21」 확정 2001년까지 배 이상…3대 권 특화개발, 「항만관리공사」 설립도 추진(국제 6. 11)
* 부산 올림픽 유치 시도 일본체육계 심한 반발, 2008년 올림픽 유치경쟁에 뛰어든 일본이 한국의 부산올림픽 유치 의사 발표에 크게 반발(국제 6. 11)

*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 녹산공단 서부산 최대 행정타운 급부상, 중기청・사상세관・강서소방서 등 공공기관 이전 러시(부산매일 6. 11)
* 제일투신 노사 극한 대립, 경영적자 197억 창립 후 최대 규모, 책임 공방으로 노사 대립 극심(국제 6. 11)
* 부산시, 택시 80대 넘어야 분할 매각 허용, 3년내 재매매 금지, 택시 분할 매각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반발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분할매각 기준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보완 대책 시행키로(부산매일 6. 11)
* 아파트 분양 신시가 "활기" 타 지역 "침체", 한신공영 부도 영향 대형건설사로만 몰려(부산매일 6. 11)
* 건설교통부, 부산・경남 땅 투기 조짐, 농촌 및 도시 주변지역 토지에 대한 서울지역 거주자를 비롯한 외지인들의 매입 작년 비 17.3% 급증(국제 6. 12)
* 부산시, 전염병 방역 불안, 작년보다 열흘가량 빨리 일본뇌염모기가 발견됐으나 접종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국제 6. 12)
*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2호선 역명 확정, 부산지하철 2호선에 정보단지역과 동원역이 신설 기존 5개 역 개명(국제 6. 12)
* '펑' 순식간 불길 속수무책, 11일 오후 토성 상가아파트 화재 1층 꽃집서 발화 통로타고 확산, 점포 1백40개 태워 10억 손실, 한밤 대피 소동 인명 피해 없어(부산 6. 12)
* 토성 상가아파트 불, 11일 주민들 한밤 긴급 대피…인명 피해는 없는 듯(부산매일 6. 12)
* 2002년 월드컵도 부산에서, 전국 16개 도시 치열한 유치 경합(시보 6. 19)
* 지하철 2호선 역명 확정, 부산교통공단 2개역 신설 모두 39곳(시보 6. 19)
* 하얄리아 이전 정부지원 요청, 문정수 시장 류외무 방문(시보 6. 19)

6. 12
* 녹산공단 땅값인하 난관 봉착, 환경부 녹지축소 반대…건교부와 감정싸움 양상(국제 6. 12)
* 하얄리아 주변 소음 심각, 녹색연합 등 조사 주택가 기준치 1.6배…토양오염도 높아(부산매일 6. 12)
* 부산시, 2011년 부산 환경・복지도시로, 스마트 21 부분별 전략 확정, 혼잡통행료는 97년 이후 시행(부산매일 6. 12)
* 남항 일자방파제 존폐 논란, 선망수협-해수면 확보위해 해양청에 철거 건의, 원양선사 "어선 40여척 정박…갈 곳 없어져 곤란"(국제 6. 12)
* 동명정보대 국내 최고 성능 '슈퍼컴' 가동, 세계 90위 수준…부산 경남 산・학・관 통 신망 연결(부산매일 6. 12)
* 부산시, 내년「혼잡통행료」추진, 시속 20㎞이하 체증 구간…큰 반발 우려, 오늘「스마트 21」교통 분과 회의서 최종 확정(국제 6. 12)
* 부산지검, 부산시 국장급 6명 곧 소환, AG전광판 로비자금 2억 수사착수, "최고위층에 1억원 전달" 진술도 확보(국제 6. 12)
* 낙동관환경관리청, 서낙동강 올해 첫 남조류 발견, 본류 16곳 수질 검사 강화키로(국제 6. 12)
* 부산교통관리공단, 지하철 2호선 역명확정, 11일「지하철 2호선 역명 제정위원회」열고 금곡~율리역 간 중간 역 등 2개 신설역에 역명 부여 5개역 개명(부산 6. 12)
* 부산기업부설연구소 '열악', 현재 88개로 전국 2천7백52개 중 3%의 비중에 불과 연구인력도 열악해 제구실 못하는 것으로 조사(부산 6. 12)
* 부산시,「하수도 박물관」만든다, 현재와 과거・국내 및 외국의 하수도와 관계된 모든 것을 구비 전시, 수질오염방지 위한 산업교육장으로 활용키로(부산 6. 12)
* 대한적십자사, 부산-홍남 해로로 대북지원, 95년 민간차원 대북식량지원 시작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이용(부산 6. 12)
* 검찰, 문시장 계좌 압수수색 검토, 아시안게임 광고 전광판 설치 허가와 관련 부산시 고위공직자 5명의 뇌물수수의혹 수사 위해, 부산시 국장급 이상 간부 4명도 대상(부산 6. 12)
* 교육부, 불법적 학생운동 내친김에 '쐐기', 한총련 지지 약화 판단 근절 기회로, 뒷짐 진 대학당국 '반강제' 참여 유도(부산 6. 12)
* 취업마켓 구인・구직자 연결 '톡톡히', 금정구 주민 225명・24개사 참가 71명 일자리 찾아(부산매일 6. 12)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인근 국유지 '컨'야적장 활용, 해기연수원 부지 16만평 등 개발 검토, 오는 10월 부산정보단지 착공과 수영CY 폐쇄에 따른 컨테이너 물류 대란 우려 해소키 위해(부산매일 6. 12)
* 사업조합, 지방 조합 전환 러시, 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과 산업용품상협동조합 등이 종전 단순한「사업조합」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지방조합」으로 정식 출범 하자 부산지역업체들 잇따라 지방조합전환 등을 통해 자체판로 확보에 나서(부산매일 6. 12)

* 부산시 고위 공무원 내사,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전광판 설치허가 과정에서 부산시 고위공무원들이 광고업체로부터 거액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본격내사(부산매일 6. 12)
* 주유소 기름 값 담합 의혹, 부산 금정구를 비롯 북구 사상구 등 부산 지역 주유소 들 동일하게 인상한 가격으로 판매해 가격 담합 의혹, 당국 수수방관(부산매일 6. 12)
* 낙동강 환경 관리청, 서낙동강 노조현상 확산, 취・정수 차질 우려 수질 검사 강화키로(부산매일 6. 12)
* 정보화시대 여는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시 연산동 신청사에 행정사무 전 과정(시보 6. 12)
* 부산신항만 오는 10월 착공, 부산 신항만 개발을 위한 어업권 피해 보상민원이 타결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신항만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시보 6. 12)
* 기업민원 재심창구 설치,「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일환(시보 6. 12)
* 통상진흥시책 적극추진, 수출로 '부산경제 살리기' 나서, 오는 7월 상해무역사무소 개소 중동시장 개척단 380만불 계약(시보 6. 12)
* 2008년 부산 올림픽 유치 가능성, 문정수 시장 9월 로잔 IOC총회 방문(시보 6. 12)
* 외국인「부산시정 모니터」로 활동한다, 시 부산장기체류외국인 대상 21명 위촉(시보 6. 12)
* 기업관련 민원 처리 관행 개선, 시 법령근거 없는 조건제시 등 배제로 신속・절차간소화(시보 6. 12)
* 하천정비 중・장기 계획 순조, 시 87억 투입 동천・덕천천 등 7개소(시보 6. 12)
* 사상로 시내버스 환원운행, 시 단계별로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시보 6. 12)
* 민원공무원 일과 전 친절・봉사교육, 시 9일부터 매주 월요일 30분간(시보 6. 12)
*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생활 통해 자립훈련 받는다, 시 동래・남・금정・북구 등 4곳 장애인위한 재활가정 꾸려(시보 6. 12)

6. 13
* 비리의혹 부산관가 다시 충격파, 시 간부 '광고업체 수뢰론' 파장, '전광판' 억대 로비 투서 관계자 부인, 1백억대 이권결려 개연성 배제 못해(부산매일 6. 13)
* 남구청, 해상에 혐오・레저 시설 설치 검토, 남구청 '21c 비전' 용역 결과, 7부두~이기대 해안 대형 바지선 띄워 소각장・호텔 등 건립 계획(부산매일 6. 13)
* 대학가 '한총련 망령' 벗기 안간힘, 한총련의 과격・폭력성에 대한 비난 여론 확산, 각 대학들 학생운동의 개혁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부산매일 6. 13)
* 수영구청, 광안리 앞바다 수중 방파제 건설, 바닷물 흐름 걸러 모래 유실방지・수질 보호, 주변 녹지 공간 조성도 추진(부산매일 6. 13)
* 부산지검, 부산 건축 행정 비리 철퇴, 분양・사업 승인 등 대가 시・구청 간부 등 5명 구속(부산 6. 13)
* 시 간부 내주 소환 조사, 수뢰의혹 수사 국도 대표 조기귀국 종용(부산 6. 13)
* 화재 토성 상가아파트 침하, 곳곳 균열…주민불안 사흘째 대피 생활(부산 6. 13)
* 제23회 부산미술 대전, 대상에 조각부문 정윤성씨, 한국화 우수에 윤춘근씨, 서양화 우수에 이동환씨, 판화 우수에 박경애씨(부산 6. 13)
* 현대 30층 아파트 추진 물의, 현대건설이 부산시 주택 행정 지침을 어겨가면서 부산 연제구 거제 택지개발지구에 30층짜리 아파트 건립을 추진…구청 '하자없다' 허가(부산 6. 13)
* 수영구청, 공무원 1인 1「컴」시대 개막,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사무직원 4백41명 모두에게 컴퓨터 지급키로(부산 6. 13)
* 부산 도로 행정 오락가락, 경부고속도 요금소 확장 동의, 문시장 부산요금소의 시 외곽 이전 공약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난(부산 6. 13)
* 녹산 공단 분양률 갈수록 하락, 추가성토작업이 확보된 토사 부족으로 지연돼 작업완료 예정시기보다 2달 지연, 일부부지는 분양이 6개월째 중단 돼 입주 포기 속출(부산매일 6. 13)
* 부산미술 대전 대상에 정윤선「이탈 된 자의 꿈」(조각), 판화 기교발전…회화 내면성 결여, 지역 특성 살려낸 작품 없어 아쉬움(부산매일 6. 13)
* 기장군수 '욥의 마을' 관련 피소, 사회복지법인 욥의 마을 이전문제와 관련해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소당해, 지주 "합법적 토목공사 강제금지" 주장(부산매일 6. 13)
* 폭주족에 해운대 신시가 "몸살", 신호무시・과속 일삼아 대형사고 속출, 소음에 주민들 밤잠까지 설쳐(부산매일 6. 13)
* 국내 첫 호화 유람선, 유공해운 드림 21호 내달 취항, 중・일・동남아 등 6개 노선 6층 구조 연회실 등 갖춰(국제 6. 13)

* 부산 남구청, 「해상 소도시」 만든다, 신시대와 이기대 등 해안관광벨트 인근해 상에 대규모 해상 부유시설 건설 계획(국제 6. 13)
* 부산지검, 시 로비 직후 전광판 협의, 광고업체 (주)국도 관계자 진술 확보…수사 박차(국제 6. 13)
* 말레이시아 국제기계류 박람회, 부산 6개 기업체 대 호평, 기계류 수출이 늘고 있어 부산지역 기계류 업체들에게도 점차 매력적 수출시장으로 관심 고조(부산 6. 13)
* '전광판 비리' 부산시 공무원 곧 소환, 부산아시안게임 전광판사업권을 둘러싼 부 산시 고위공무원들의 2억원대 뇌물수수혐의를 내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13일 그 동안 수집한 내사자료를 대검찰청에 송부(부산매일 6. 14)
* 부산 상공의 스모그 현상, 초여름 날씨를 보인 13일 낮 부산시내 상공에 스모그 현상이 발생(부산매일 6. 14)
* 제19회 학생 과학 발명품 전시회(부산교육 6. 13)

6. 14
* 신한국 「낙동강대책위」 설치 당론 수렴,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 조성 등 양대 현안에 관한 본격적 당론 수렴 작업(국제 6. 14)
* 구덕 청소년 야영장 개장, 7,800평 규모…14일 개장식을 갖고 당분간 무료 개방키로(국제 6. 14)
* 시내학교 21% '유령건물', 548개교 중 113곳 가옥대장등재 안 돼, 부산 교육청 재산 관리 '엉망'(국제 6. 14)
* 재경원 전문 인력 부산 파견, 빠르면 7월 중 중앙경제부처의 전문 인력팀 부산광역시에 파견, 3~4급 3~5명 시 개발계획 지원(국제 6. 14)
* 검찰, 부산 초중고 교재 비리 내사, 연간 수억원대에 이르는 부산지역 일선학교 과학기자재 구입과 관련된 납품업체와 학교관계자간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비리혐의(부산매일 6. 14)
* 부산지검, 수뢰 공무원 5명 구속, 13일 아파트 인·허가 및 입지심의 과정에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산시 건축재개바로가장 탁치남씨와 부산시 종합건설 본부 건축1과장 하옥성, 부산진구청 건축과장 최주룡, 남구청 건축과장 박두규, 사하구청 민방위과 직원 김삼남씨 등 5명을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부산매일 6. 14)
* 「관광특구 특별법」 제정 건의, 세제혜택·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요구, 해운대구 등 5개지역 의장단 토론회에서 채택(국제 6. 14)
* 개인택시 면허지연 부작용, 1순위 윤화 우려 차량 운행 중지, 사고 땐 보험 처리도 않아(국제 6. 14)
* 부산시, 지하철 3호선 교통처리대책 '비상', 도로폭 좁고 우회로 확보 어려워, 부산교통공단 제시안 보류결정(국제 6. 14)
* 교회 버스 10중 추돌, 15일 오후 교회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내리막길을 돌진해 내려오면서 승용차 등 10대의 차량 잇달아 들이받아 2명 사망·16명 중상(국제 6. 16)

6. 16
* 현대정유 부산공장 폐쇄, 연내 충남 이전…일부부지 「컨」 야적장 활용, 부산 지역 산업공동화 가속화 전망(국제 6. 16)
* 오 기장군수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수사 법 하자 없는 복지시설 민원이유 불허, 행정심판승소 정신요양원 허가반려, 사조직 동원 공사방해도(부산 6. 16)
* 교사 임용가산점제 확대, 초등-토익 컴퓨터 자격취득자에 1~5점, 중등-전 교과목 적용 세부안 마련 작업(국제 6. 16)
* 기장군수 가택 등 압수수색, 부산 기장군 군수가 군청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사조직을 운영해 왔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 받아(국제 6. 16)
* 태화백화점 법정관리 신청, 태화백화점이 신관건립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16일 법정관리 신청키로(부산매일 6. 16)
* 교회버스 내리막길 10중 추돌, 15일 오후 부산 용호동에서 사고 발생, 2명 숨지고 14명 중경상(부산매일 6. 16)
* 변전소 실수로 집단 정전, 15일 한국 전력공사 서부산 전력소 개금변전소에서 진공차단기 청소를 하던 신일전공 소속 인부 5명이 한전 측 실수로 전압 2만2천9백 볼트가 흐르는 차단기를 청소 중 감전 돼 1명은 중태 4명 중경상(부산매일 6. 16)
* 단체장 만족도 부산지역 꼴찌, 본사-R&R 여론조사 41%만 "잘한다" 대답, 여 대선후보 이회창 1위, 권력분산론 60%가 찬성(부산 6. 16)
* 문시장, 공소사실 전면 부인, 한보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정치인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전 열려 검찰 측 심문 진행(부산 6. 16)
* 환경부, 부산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농도 선진국 기준치 3배 이상, 환경부 전국 11곳 측정결과 발표(부산 6. 16)

* 비관리청 항만공사 국가귀속 시급, 양곡 사일로 등 민간인 투자 기피…효율성 저해(부산 6. 16)
* 문시장, 공소사실 부인, "2억원 든 사과상장 받은 적 없다", 한보사건과 관련 추가 기소된 「정태수 리스트」 정치인 8명에 대한 첫 공판 16일 열려(부산매일 6. 17)
* '97정부합동종합감사 수감(부산시정 6. 16)

6. 17
* 부산시 97마약퇴치 국민대회 전국 시도 중우수기관 선정돼, 「UN마약퇴치의 날」 맞아(시보 6. 12)
* 문시장, 「수뇌」 전면 부인, 「문리스트」 첫공판, 나머지 피고인도 "대가성 아니 다"주장(국제 6. 17)
* 설계부터 다이옥신 무방비, 부산소각장 시의 대기오염 무관심 질책(국제 6. 17)
* 시, 추경 6천5백억 확정, 작년비 30%증가, AG사업비·도로확포장 등 투자(국제, 부산매일 6. 18)
* 한국은행 부산지점, 5월 L/C내도액 3개월째 증가세, 지난해 비 7% 증가해 3억3천5백만달러, 수출 청신호(국제, 부산매일 6. 18)
* 해운대경찰서, 기장 군수 불구속 입건, 직권남용, 불법 감금 폭행 등 혐의(부산매일 6. 18)
* 통계청, 95년 지역내 총생산, 부산지역 총생산규모는 23조5천6백39억원, 부산의 전국 생산비중 0.1% 감소(부산매일 6. 18)
* 부산시 종합환경감시센터, 부산 오존오염비상(부산 6. 17)

소각장명	긴 급 대 책	항 구 대 책
다 대 (배출농도 0.32ng)	- 활성탄 분무시설 설치(97.12) ⇒ 0.5ng 달성 기대	- SCR 설치중(98.1) - SCR 촉매중 1단 추가(2단→3단) - 활성탄 분무시설 설치 ⇒ 0.1ng 달성 기대
해운대 (0.7ng)	- 활성탄 분무시설 설치(97.12) - 집진기입구온도조절(230°C⇒210°C) ⇒ 0.5ng 달성 기대	- SCR 촉매탑 1단 추가(2단→3단, 98.9) - 활성탄 흡착탑 설치(98.12) ⇒ 0.1ng 달성 기대
창 원 (1.27ng)	- 백필터 여과포 교체(97.7~12) - 성탄 흡착시설 설치(97.7~12) ⇒ 0.1ng 달성 기대	- SCR설치(98.12) *활성탄 시설보안결과 0.1ng 미달 시 SCR설치

* 부산 녹색 연합창립대회,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환경운동」, 「대안 있는 환경운동」을 내건 부산녹색연합이 17일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 활동 시작(부산 6. 17)
* "위천공단조성 신중 결정", 신한국당 대선 예비주자들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부산지역 현안으로 항만과 지하철 등 기반시설 확충과 낙동강수질의 획기적 개선·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 등을 꼽아(부산 6. 17)
* 낙동강 본류서 남조류, 매리취수장 인근…확산 예상돼 정수 비상(부산 6. 17)
* 군청계장 등 7명입건, 기장 복지시설 수사 오 군수 20일께 출석 요구(부산 6. 17)
* 태화쇼핑 회생대책 착수, 부산상의·시 조속한 법정관리 유도 등 구체적인 안건 마련(부산, 부산매일, 국제 6. 17)
* 낙동강 하류 수역서 남조류 발견, 예년보다 한달 이상 빨라, 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에 영향 줄 정도는 안 돼"(부산매일 6. 17)
* 오 기장군수 사무실·자택압수수색, 경찰 내일 소환 방침…출석요구서 발송(부산매일 6. 17)
* 낙동강 본류도 남조류 비상, 지난해 여름 독성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남조류가 최근 서낙동강에 이어 낙동강 본류에도 한달 가까이 일찍 발생하면서 올여름 부산 수돗물 생산에 차질 우려(국제 6. 17)
* 「제2회 부산바다축제」 밑 그림 완성, 바다-산 연결 범시민 축제로, 8월 1일~7일 해양 문학상 시상 등 다양한 행사(국제 6. 17)
* 연희단 거리패 가마골소극장 폐관 공연, 내달 7~30일 「사랑의 힘으로」 등 차세대 연출가 3인 연속 무대, 중앙동 시대 9년 마감 「장림공방」서 당분간 활동(국제 6. 17)
* 해운대·다대·창원 소각장 다이옥신 최고 18배 초과, 환경부 「의정부」 폐쇄·「대구」 등 3곳 보완공사(국제 6. 17)
* 부산시, 긴급대책회의, 태화쇼핑 법정관리 신청 대책 논의 위해 부산상의 및 태화쇼핑 관계자 등과 부산시청에서 긴급대책회의 가져(부산매일 6. 17)

6. 18 * 신한국, 낙동강 물 개선 “2조9천억” 2천년까지 4급수서 2급수로(부산 6. 18)
* 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확대, 98년부터 토익·토플 점수 취득자 등 적용키로(부산 6. 18)
* 부산 1인당 총생산 최하위권, 통계청 95년 자료 발표, 전국최고 경남의 절반… 총생산 증가운도(국제 6. 18)
* 부산지검, 외국인 마약조직 검거, 헤로인 등 밀수판매 3명 구속(부산 6. 18)
* 태화쇼핑 20일부터 정상영업, 민관서 살리기 운동(부산매일 6. 18)
* 해양수산부, 자성대터미널 민영화 기획팀 발족, 첫 회의, 내달 해선사대상 공개 입찰(부산매일 6. 19)
* 컨 공단, 부두통과료 컨 공단이 징수하기로, 내년부터 연 1백억원 부두시설 투자(국제 6. 19)
* 부산지검, 부산시 건설본부장 영장, 경부고속철 사업관련 수뢰, 수뢰액 4천5백만원(부산, 국제, 부산매일 6. 19)
* 감사원, 중소기업 행정규제 여전, 부조리 507건 접수 269건 처리, 부산 17건 적발(국제 6. 19)

6. 19 * 부산발전연구원, 항만서비스 설문, 총 13개항 설문 결과, 국내 항만 서비스 세계 최하위, 부산·인천·광양 11~13위 기록(부산 6. 19)
* 부산항 자성대컨테이너터미널, 자성대 민영화 감원 없이 추진, 매각조건에 인력 전원 인수 명시(부산매일 6. 20)
* 시, 일본뇌염 전염 피해 우려, 예방주사 접종률 59% 불과, 대책 마련 시급(부산매일 6. 20)
* 시,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 공사 강행, 어촌계 어민 반발 확산(국제 6. 20)
* 부은상호신용금고 동래지점, 대출사기단에 16억 사기, 대선자금 비밀유지에 대출(부산매일, 부산 6. 20)
*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부산항 체선 손실 전국 두 번째, 2천8백48억원, 납품지연, 창고보관료 부담 커, 96 전국 항만체선율 부산 8.4%, 인천 32.3%, 광양 13.9%, 군산 40.9%, 울산 10.0%, 마산 0.5%, 1.4%(국제 6. 20)
* 국립수산진흥원, 녹산·울산 앞바다 적조, 이상고온여파(국제 6. 20)
* 시, 차무지개운동 내달 시행, 일주일에 하루 승용차 운행 자제, 공영주차료 감면 등 혜택(부산 6. 21)
*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설 설치 의무화, 1백여명 넘는 급식소등 대상, 올 하반기부터 실시(시보 6. 19)
* 단란주점 변태영업 단속, 시 경찰합동으로(시보 6. 19)
* 주1회 승용차 운행을 자제합시다, 시 요일별로 색깔지정「무지개 운동」전개(시보 6. 19)
* 행정의 거품빼기 5대과제 실천, 시 결재·보고 등 행정 효율성 제고(시보 6. 19)
* 하나로 교통카드 시범 실시, 지하철·버스 일부 우선시행, 부산시는 6월말부터 부분 시행키로 한「하나로 교통카드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우선 이번 주부터 버스와 지하철에 한해 카드 1백40장을 보급, 시범실시하고 대중교통카드 1만장을 시민들에게 무료 보급(시보 6. 19)
* 시보 6월 20일 개소, 오는 8월~9월부터 정상업무에(시보 6. 19)
* 중국시장 활발한 진출기대, 시장개척단 1천2백만불 상담(시보 6. 19)
* 도시정보관리 전산화추진, 시 2007년까지(시보 6. 19)
*「물자사랑」추진, 시 공용물자등 관리지침 마련(시보 6. 19)
* 시내버스수익금 2차 실사 실시, 1차때보다 1만3천7백여원 증가(시보 6. 19)
* 자치시정 2년 토론회, 6월 19일 문화회관에서(시보 6. 26)

6. 20 * 부산여대, 남녀공학 확정, 투표학생 과반찬성, 내년부터 전환(부산 6. 20)
* 세원, 내달 공장 폐쇄, 부산 최대 신발업체, 거래처 200곳 타격(국제 6. 21)
* 사하구청, 5개년 발전 계획, 괴정 당리 주거생활권, 하단 을숙도 서부산 중심권, 신평 장림 산업공단권, 다대동 해양관광 위락권, 구평 감천동 항만배후권(국제 6. 21)
* 부산시교육청, 2002년까지 초등 39, 중학 17, 고등 11개교 신설(부산매일 6. 21)
* 부산신용보증조합 개소(부산시정 6. 20)
*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개관(부산시정 6. 20)
* 금곡청소년수련원 건립 기공식(부산시정 6. 20)
* 기초질서, 준법생활 단막극 경연 대회(부산교육 6. 20)

6. 21 * 강서, 김해 일대 낙동강 하류 녹조류 확산, 양식어장 위협(부산 6. 21)
* 부산 경남 본부 세관, 밀입국 조선족 무더기 적발, 부산서 40명 체포(국제 6. 23)

6. 22 * 시, 시 사업 특정업체 몰아주기, 부산관광단지 개발 LG에 일괄발주 검토, 총 1조원 규모, 독점시 반발 클 듯(국제 6. 23)

6. 23 * 동래동물원 경매, 경영난 가중 1차 유찰 36억 매물로(국제 6. 21)
* 시, 하얄리아 이전 순조, 신규부대건설비산출 공동실사 합의(부산 6. 23)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물류손실 매년 심화, 체선체화 주요인, 작년비 23% 급증, 총 2천8백48억원(부산매일 6. 24)
* 시, 지하철 3호선 강서구 노선 제외, 공기촉박 이유 구포까지만 신설, 강서구청역일대 통과지점 변경, 신구청사서 옛 국도 14호선 통과 주장(부산매일, 국제, 부산 6. 24)
* 시, 1급지 노외주차장 설치금지 해제 요구에 조례개정 불가 밝혀(국제 6. 24)
* 시, 부산발전 청사진 스파트21 확정, 물류 등 국제 거점 육성, 100대 사업, 실천과제 선정, 2011년까지 76조 세입 확보(국제, 부산매일, 부산 6. 24)
* 부산경제살리기운동,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서도 참여(부산매일 6. 24)
* 건설교통부, 동아건설 면허 취소, 광안대로 현수교공사 차질(부산 6. 24)
*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주합, 완전월급제 거부, 9월 의무시행 앞두고 마찰(부산 6. 24)
* 신평소각장 마찰 악화, 해당업체, 구청-주민상대 84억 손해배상 청구(부산 6. 24)
* 북구청, 전자결제시스템 운용 등 총무과 사무실을 사무자동화체계로(국제 6. 25)
* 기업애로타개 대책위 구성, 시 경제단체 기업 학계 등 24명으로(시보 6. 26)
* 부산진경찰서와 북부경찰서 경계지역에 위치한 백양산터널을 부산진경찰서 관할로 이전(지방청 훈령 80호)(경찰사 6. 23)

6. 24
* 검찰, 자동차학원 비리 내사, 경찰청・동래구청 수뢰혐의 포착(부산 6. 24)
* 사하구청, 장림유수지 매립지 가옥 강제철거, 철거반-주민 격렬 충돌(부산 6. 24)
* 국립수산진흥원, 부산・울산연안 냉수대주의보 발령, 예년보다 1주 빨라(국제 6. 25)
* 시, 황령산 온천개발 백지화, 남구청 승인 신청서 반려(부산 6. 25)
* 부산항 건설사무소, 항만배후도로 착공 지연, 감만부두 기능 저하, 우암로 체증 우려(국제 6. 25)
* 시, 하나로카드 또 차질, 기술상 결함, 이달말 시행 어려워(국제 6. 25)
* 부산지검, 경찰 간부 등 3명 철야 조사, 돈받고 사건무마해준 경찰, 공해업체 업주, 마약투약자 풀어줘(국제 6. 25)
* 시의회, 시유지 매각 특혜 의혹 제기, 부경대 땅 인근 업체 봐주기 아니냐(부산 6. 26)
* 제22회 초등학생 예능대회 시상 및 발표대회(부산교육 6. 24)

6. 25
* 해운대구청, 재송동 동부 CY서 정체불명 악취(부산 6. 25)
* 강서구 명지동 쓰레기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 명지쓰레기 소각장 조성・녹산공단 조성 반발(부산 6. 25)
* 부산시교육청, 관내 548개교 조사, 부산 과외비 5천5백억, 전학생 86% 학교 밖 수강, 영어・수학과목에 수요집중, 전년비해 13%증가(국제, 부산매일 6. 26)
* 시, 재정위기 심각, 총 부채 1조8천억, 수익사업 차질 상환 난감(부산매일 6. 26)
* 부산시의회, 부산 사이버해양박물관 건립, 시의회 예산반영(국제 6. 26)
* 부산시의회, 7개 상위 열어 심의활동, 정보단지 11월께 공사착수, 지역경제 살리려 추경안 조정합의, 시민체육시설 요금인상 심사 보류(국제 6. 26)
* 시 종합건설본부, 해운대구청, 도로정비 시급, 공공도로 없고 진입로도 좁아 교통난(국제 6. 26)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제조업 하반기 호전 예상, 경기 최저점 지나 회복기 돌입(국제 6. 26)
* 부산경실련, 지하철요금 동결 성명서 발표(부산매일 6. 26)
* 부산지방노동청, 부도 한국금형대표 수배, 근로자대표 협박, 브로커와 계약(부산매일 6. 26)
*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15대회장, 권홍사씨 선출(부산매일 6. 26)
* 부산지방기상청, 부산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건축물 내진설계 미비(부산매일 6. 27)
* 인제대 조경제 교수, 서낙동강 전체 부패단계 진입, 부영양화 지나 무산소상태, 본류에 확산 우려(부산매일 6. 28)

6. 26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부산 수돗물값 6대 도시 중 최고, 톤당 2백23원80전(부산매일 6. 26)
* 건설업체, 화명2지구 택지개발 무더기 해약사태, 쓰레기 매집 미고지, 수백억 반환 소송(부산 6. 26)
* 부산교통공단, 북구청, 만덕로 일대 최악의 교통대란, 지하철 공사 우회로 등 소통대책 없이 강행(부산매일 6. 27)
* 부산시의회, 내무건설교통 기획재경위 등 5개 상위 열어 추경예산 심의 활동, 명지주거단지 재분양 대책 있나, 경륜장 예산 50억 증가 이유는(국제 6. 27)
* 시, 민선지방자치 이후 전체 행정사무 1만5천7백74건 중 국가사무가 74%인 1만1천6백46건, 순수지방 사무는 2천8백82건에 불과(부산매일 6. 27)

* 시, 부경대내 시유지 매각 특혜 논란, 인접 특정업체에 처분추진, 남구청 등 반발(부산매일 6. 27)
* 시민생활 질 향상 최선 다한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 민선 자치 2년 맞아 남은 1년간 시정구상도 밝혀(시보 6. 26)
* 시 추경 6천5백억원 편성, 아시안게임 관련 사업비등(시보 6. 26)
* 자치시정2년 도시 개발 분야, 부산정보단지 개발, 정보화 세계화 부응(시보 6. 26)
* 부산발전 청사진 스마트21 확정, 100대 사업실천 과제 선정(시보 6. 26)
* 「오존경보제」 실시 대비, 근무체제 강화, 7월부터 9월말까지, 시민건강・생활환경 피해 최소화(시보 6. 26)
* 시정 동정, 문정수 부산광역시장은 6월 26일에 지방언론에 보도된 연제구 거제2동 초등학생 최혜은양과 춘식군의 아버지 최상진씨가 공사장에서 일하던 도중 건물에서 추락하여 장파열등과 허리・다리 등을 크게 다쳤으나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용호 사회복지과장을 통해 가정을 방문위로금 1백만원을 전달하고 격려(시보 7. 10)
* 다함께 건강하고 활력찬 복지공동체 건설 역점, 비 법정 생보자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등 복지시책 내실있게 추진(시보 6. 26)
* 국제적 문화 관광도시 기틀구축, 문화 인프라 확충・시민문화의식 성장 괄목(시보 6. 26)
* 시청민원실에서도 주민등・초본 증명발급, 시 7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원부 등 215종 취급(시보 6. 26)

6. 27
*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주택위, 주택국 및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비디오 시사회(부산 6. 27)
* 금정구청, 구서동에 전국 최대 실버타운, 2000년 완공 예정, 삼성생명, 노인주책, 테마파크 조성(부산 6. 27)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생산 40% 감량, 덕산 정수장, 낙동강 토사 등 대량 유입해 탁수 증가 60%에 임박(부산 6.27, 부산매일 6. 28)
* 검찰, 아시안게임 전광판사업 로비의혹 수사종결, 문시장 등 무협의(부산 6. 27)
* 시, 경영수익사업 부진, 신시가지 건설사업 경우 예상 수익금 3천5백95억의 70%에 불과(부산 6. 27)
* 수영구청, 삶의 질 높이는 자치 행정, 광안리 정비, 회촌 현대화 등 성과 거둬, 재정기반 취약, 범죄 빈발 발전 걸림돌(부산매일 6. 27)
*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운동 본부 성명서 발표, 관계기관 동참 촉구(부산매일 6. 27)
* 부산지법, 시설물 방치 사고, 지자체에 80% 책임있다 판결(부산매일 6. 27)
* 시, 시민휴식공간 대대적 확충, 중・장기계획 마련, 2011년까지 1인당 공원면적 4배 늘려(부산매일 6. 28)
* 부산지방철도청, 우암선 탈선구간 방치, 해양수산청 앞 급격한 곡선 반경 사고 빈번(부산 6. 28)
* 시, 신평소각장 5자회담 제안, 개최(부산, 부산매일 6. 28)
* 부산통계청, 부산취업자 여성이 42%, 30~40대 주부 재취업 현상 뚜렷, 40%가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 주당 평균 51.3시간 파트타임・부업 많아(부산 6. 28)
* 일선구청, 기구개편 추진, 조직 통폐합, 노인・국제업무 부서 신설(국제 6. 28)
* 부산시, 부산시-구청 화상회의추진, 신청사 입주 앞서 행정업무 34건 개선(국제 6. 28)

6. 28
* 제6회 부산무용제 개막, 오는 28~30일, 부산 문화회관서(국제 6. 23)
* 중구 동정자문위원장협의회, 1급지 상업지역내 주차장 설치제한 조례규정 개정 건의서 시에 제출(국제 6. 28)
* 정부, 부산 가덕신항개발사업의 민자사업 시행자로 삼성컨소시엄 최종 확정, 내달 실시 설계, 착수 내년 9월(부산매일, 국제 6. 30)
* 부산진구, 복지・개발・환경 3대 시책 호응, 도전 10・10운동・초록구 조성 중점 추진, 서면 철물상가 재개발 반발심해 진통 거듭(부산매일 6. 30)

6. 29
* 통계청부산통계사무소, 89~96 부산지역 고용사정의 변화, 부산지역 재취업 갈수록 험난, 계속 실업자 3만6천명, 89년비 9천명 많아(부산매일 6. 30)
* 부산시교육청, 중・고교 복학생 부적응 심각, 42%가 결석, 학습분위기 저해(부산매일 6. 30)
* 기장군, 장마철 재해 무방, 상습 침수・산사태 우려지 9곳 방치(부산매일 6. 30)
* 건설교통부, 미화당백화점 부산 땅값 1위, 평당 8,429만원, 전국 필지의 37%상승(국제, 부산 6. 30)

6. 30
*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은, 시의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시보 7. 3)
* 동래구청, 충렬로 교통대란 온다, 미남로터리에 대형 예식당도 속속 건립(부산 6. 30)
* 해양수산부, 가덕신항 민자사업자 확정, 실시협약 서명식(부산 6. 30)

부산지역 상업·주거지역별 지가수준

(단위 : 천원/㎡)

용도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행정구역		소재지	지가	소재지	지가
부산광역시	최고	광복동2가 2의 35	25500	사상구 모라동 788의 8	2630
	최저	송정동319의 3	337	동래구 온천동 산78의 3	30
중구	최고	광복동2가 2의 35	25500	대청동4가의 81의 7	1290
	최저	동광동5가 3의 85	354	보수동1가 2의 43	89
서구	최고	충무동1가 10의 17	6100	남부민동 677의 16	1740
	최저	암남동 227의 2	504	동대신동 2가 1의 19	144
동구	최고	초량동 1207의 12	6700	초량동 754의 179	1480
	최저	범일동 1369의 6	705	좌천동 941	99
영도구	최고	남항동2가 244의 3	3000	영선동 2가 82	1570
	최저	봉래동1가 37의1	750	청학동 382의 95	100
부산진구	최고	부전동 192의 2	25000	당감동 300의 25	1900
	최저	부암동 127의 9	530	범천동 1272의 80	160
동래구	최고	온천동 212의 5	9860	복천동 286의 6	1440
	최저	온천동 1392의 3	563	온천동 산78의 3	30
남구	최고	대연동 1752의 6	4500	대연동 60의11	1620
	최저	대연동 76의 19	600	우암동 120의 71	58.3
북구	최고	덕천동 399의 10	7920	구포동 982의 9	1400
	최저	구포동 521의 1	446	만덕동 605의 4	49.5
해운대구	최고	중동 1153의 11	12000	반송동 250의 318	1350
	최저	송정동 319의 10	337	송정동 775의 1	110
사하구	최고	괴정동 966의 1	6040	괴정동 437의 40	1790
	최저	다대동 788	634	당리동 산 108의 1	98.2
금정구	최고	장전동 654의 37	2940	장전동 311의 3	1500
	최저	구서동 420의 42	704	서동산 38의 2	87.9
강서구	최고	-	-	명지동 3213의 11	620
	최저	-	-	대항동 358	55
연제구	최고	연산동 726의 1	8370	연산동 2133의 8	1650
	최저	연산동 1359의 9	843	거제동 309의 4	217
수영구	최고	수영동 444의 21	6500	남천동 318의 1	1890
	최저	광안동 561의 1	636	수영동 251의 12	161
사상구	최고	괘법동 546의 12	6950	모라동 788의 8	2630
	최저	괘법동 394의 14	471	덕포동산 17	178
기장군	최고	대라리 419의 30	2450	대라리 60의 12	584
	최저	청강리 52의 5	338	청강리 795의 38	68.5

* 부산시의회, 부산시 부채 1조4천96억원, 2010년까지 이자만 4천1백83억(국제 7. 1)
* 경성대 농구팀 창단, 부산대 이어 2번째 대학팀(국제 7. 1)
*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 부산지소, 미국 오렌지 부산항 점령, 1일 개방 맞춰 수천톤 대기,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시급(국제 7. 1)
* 시, 독립운동가 박차정동상 금강공원 내 건립키로(국제 7. 1)
* 부산시의회, 제1회 추경안 종합심의, 구체적 중소기업 육성방안 요구, 건축 대행업체 중점 감사 방침(국제 7. 1)
* 시, 젖은 쓰레기 매립장 반입제한 계획, 9월부터, 물기기준·전용봉투 제작 등 아직 논란(국제 7. 1)
* 정태수 리스트, 정치인 8명에 대한 2차 공판, 문시장 2억 수수 거듭 부인(부산매일 7. 1)
* 사상구의회, 불법건축물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회, 특위구성에 반발한 일부 구의원에 의해 회의정족수 채우지 못해 무산(부산매일 7. 1)
* 시, 2차 조직개편안, 13개 사업소 폐지·축소, 99년까지 3단계 나눠 효율성 제고, 태종대·금강·어린이공원 등 3개 공원 관리사업소, 구덕운동장 관리소, 도시고속도로 관리소 폐지(부산매일 7. 1)
* 재경원, 동해남부지역 물가상승률 전국 최고, 부산은 4.7%로 전국평균 4.0%보다 높아(부산매일 7. 1)

* 사상구청, 사상공단 갈수록 영세화, 78%가 종업원 20인 이하, 작년보다 64사 증가(부산매일 7. 2)

7. 1
* 시, 자가용 주1회 안 타기운동, 참여차량 공영주차료 20% 할인(부산매일 6. 30)
* 시 보건환경연구원 종합환경감시센터, 오존경보 하루 전에 알려준다, 주의보・경보・중대경보 등 3단계 오존경보 발령, 6대 도시 환경 규제 강화(부산매일, 국제 7. 1)
* 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계획 비현실적, 과다책정, 조장-인공섬 조성해 6백억 투입, 사이클 하키-매머드 투자 재조정 필요(부산 7. 1)
* 부산시, 초읍터널・접속도로 2일 착공, 거제동~만덕동 연결, 2000년 완공 목표, 만자유치 해 대림산업, 삼성물산, 국제종합토건이 시공사(부산 7. 1)
* 해수욕장 오늘 개장, 해운대 등 5곳 바다경찰서 개소(부산매일, 부산 7. 1, 부산매일 7. 2)
*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감량업소 확대, 6백60㎡이상 음식점 등 대성(부산 7. 1)
* 위천공단 결사저지 부산시민 총궐기 본부, 기자회견, 대구시 수년간 쓰레기 매립장서 유독침출수 백만톤 낙동강 방류(부산 7. 1)
* 동명전문대학, 동의공업전문대학, 경남전문대학, 부산전문대학, SW센터 발족, 전문대 컨소시엄 설립(부산매일 7. 1)
* 부산경남본부세관, 수산물검사소 식물검역소, 농수축산물 수입 홍수, 부산 개방 첫날 보지・오렌지 대량 반입, 원목 등 통상적 품목 검역은 마비상태(국제 7. 2)
* 시, 각 구군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시비 지원규모 축소, 빗나간 문화회관 건립 경쟁(국제 7. 2)
* 위천공단결사저지 부산시민 총궐기본부, 침출수 조사단 파견(부산, 국제 7. 2)
* 시, 부산경제살리기 추진협의회 종합추진상황보고회, 내년 벤처빌딩 세운다, 사상・녹산 중 1곳 중소기업 기술개발기금 조성도(국제 7. 2)
* 통계청, 부산 85~95년 성비 여 100 : 남 114.9, 재혼년-총각 결혼비율 2.6%, 이혼률 17%, 여성 취업률 46%(국제 7. 2)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부산 수출 전국비중 사상 최저, 5월에 43%, 올해 누계액 4.6%에 그쳐, 6월 국내무역 수지 30개월만에 흑자 9천8백만달러(부산매일 7. 2)
* 부산동아시아대회 조직위, 동아대회 경기용품 경기단체에 기증, 내달까지 부산시 체육회 산하 무상지급(부산매일 7. 2)
* 해양수산부, 부산항 내년 예산 대폭 삭감, 모래부두 건설비 등 신청액 42% 줄어(부산매일 7. 2)
* 「종합 환경 감시센터」 가동,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존경보발령(시보 7. 10)
* 「스마트 부산21」 카운트다운점등, 7월 1일 기해 부산 발전정립의 기틀 담아(시보 7. 10)
* 부산지역 해수욕장 개장(부산시정 7. 1)
* 2000년 카운트다운보드 점등(부산시정 7. 1)
* 구덕운동장 수영장 개장(부산교육 7. 1)

7. 2
* 통계청 부산사무소, 부산 물가 안정세, 올 들어 3.1%, 93년 이후 최저 상승(부산 7. 2)
* 부산 주택업계, 아파트 분양가 치솟는다, 동원보라 평당 450만원 등 400만원대 인단 등장, 200만원대 서민용 갈수록 줄어들어(부산 7. 2)
* 부산도시개발공사,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 공동주택・근린생활・숙박시설 토지 1만1천평(국제 7. 2)
* 시, 쓰레기장 미확보 강경조치, 자치구・군 전국 첫 협약서 체결, 계획 안세우면 생곡 반입 제한(부산, 부산매일 7. 2)
* 부산신항 사업설명회, 삼성물산, 가덕항만(주) 본사 부산이전, 이달내 법인 설립,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 가덕신항 사업비 11조원, 민자 9조4천억 중 80% 금융차입(국제, 부산매일 7. 3)
* 부산시교육청, 부산고교 구내식당 위생상태 엉망, 교육청 점검 58개교 중 32곳 살균시설 미설치(부산매일 7. 3)
* 사상구청, 포푸라마치 사라진다, 집중보도 후 건물주 속속 자진 철거, 업종 전환(부산매일 7. 3)
* 기장 53사단 126연대, 간첩선 오인 낚싯배에 난사, 1명 숨지고 5명 부상(국제, 부산매일 7. 3)
* 부산지법, 80년 계엄피해자 첫 재심, 부산서 2명 청구, 사법처리 원인 무효(부산, 국제 7. 3)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공원 조성안 대폭 수정 가능성, 위락단지 협소 등, 재검토 착수(부산매일 7. 3)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건축허가 면적 급감, 부동산 경기 침체로 광공업 56%・주거 46% 감소(부산매일 7. 3)
*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 기공식(부산시정 7. 2)

7. 3 * 낙동강살리기 위천공단 결사저지 부산시민 총궐기본부, 대구 침출수방류 조사단 급파, 학계 전문가 등 40여명 구성(부산매일 7. 3)
* 해양부, 해운대 앞바다 해상 호텔, 러 여객선 개존 12월 국내 첫 개장(부산 7. 3)
* 부산시도시계획국, 초읍 경전철 수정 불가피, 경비조달・지목 변경 등 난제 산적(부산 7. 3)
* 부산경찰청, 부산 토착폭력단 기승, 8개 조직 적발 71명 구속, 10대 행동대원 많아(국제 7. 4)
* 부산환경개발, 신평소각장 마찰 법정비화 조짐, 시험가동 방해 주민 고소, 주민대책위 재산권 피해 보상소송 추진(부산매일 7. 4)
* 둔치도개발위원회, 둔치도개발을 위한 5개항 개발정책 수립, 유통단지 설치와 승마경기장 고시문제 등(부산매일, 국제 7. 4)
* 부산시의회 항만주택위원회, 지하철 3호건 9월 착공 차질, 강서・구포구간 빠져, 도시계획안 심사보류(부산매일, 부산 7. 4)
* 부산진구청, 하얄리아 녹산이전 확인, 1차 99년 6월전 5만평 반환(국제 7. 4)
* 통상산업부장관, 녹산공단과 아파트형공장을 중심으로 신발업체의 집단화 및 계열화 추진, 공동 브랜드 판매법인 설치 등 40억 지원(국제 7. 4)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 39억2천만원 삭감, 본회의 상정(국제 7. 4)
* 위천저지본부, 매립장 인근 배출구 추정 4백mm관 발견, 대구시 침출수 공동조사 거부(부산 7. 4)
* 황령산온천 신청반려 사실상 전면 백지화 돼, 부산시는 6월 24일 남구청이 제출한 황령산온천개발 계획 승인신청서 반려(시보 7. 3)
* 민선시정 3차년도를 맞이하며, 그동안 시정발전에 참여・협조해주신 시민에 감사하며(시보 7. 3)
* 자치시정2년 도로 교통 분야, 교통시스템과 문화를 선진국형으로(시보 7. 3)
*「청소년보호법」 제정공포, 7월부터 시행, 유해업소출입규제, 술・담배등도 판매 못해…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시보 7. 3)
* 환경 안전관리 대책 적극추진, 시 장마철 대비 풍수해 피해 최소화(시보 7. 3)
*「시민위한 행정」 결의, 민선자치 3차년도 출발대회(시보 7. 10)
* 시, 안전 대책회의 재난 위험지 정비, 부산시는 지난 3일 오후 3시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시 안전대책위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부산광역시안전대책위원회」 개최(시보 7. 10)

7. 4 * 시,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준비 본격화, 다음주 중 개관기획단 회의 소집(부산 7. 4)
* 부산진구, 오존오염도 심각, 3개 지역 측정결과 모두 기준치 초과(부산매일 7. 4)
* 부산교통공단 노조, 부산지하철 전면 파업 결의, 9일 새벽부터, 행동 돌입 시 교통대란 불가피(부산매일 7. 4)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영도구 봉래동 소형선박계류지 운영 효율성 제고, 안전대책 마련 필수, 안벽창고 기준 구분 선종별 계류(부산 7. 5)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두 내 컨테이너 전용로 연말 착공, 1부두~신선대 4,250m, 4차선 부두 내 컨테이너전용도로, 99년 완공(부산매일 7. 5)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문건설 고발, 낙동강 하류 불법 준설 말썽(국제 7. 5)
* 시, 연말 대대적 조직개편, 건설업무 일원화 등 직제 대폭 손질(국제 7. 5)
* 부산고법, 기장군 재산소유권 반환 승소, 양산시에 동부리 일대 9만2천평 양도 판결(부산매일 7. 5)
* 기장군 장안읍 주민, 고리원전 추가건설 안된다, 지진 안전성 의문, 반대운동 본격화(부산매일 7. 5)
*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추경예산 6천503억 확정(부산매일 7. 5)
* 월드컵개최도시 현지실사(부산시정 7. 4)

7. 5 * 수협중앙회, 부경대, 수산분야 산학협동, 현장기술・연구개발접목기대(부산 7. 5)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부산서점조합 횡포, 공정위 조치 불구 가입비 등 과다 징수(부산 7. 5)
* 해운대구청, 수영매립지 유휴지 추진 말썽, 대우학원 스포츠센터 건립 위법 소지(부산 7. 5)
* 시, 무지개운동 본격화, 시자체추진단 구성키로(부산 7. 5)

7. 6 * 한국은행 부산지점, 6월 부산 어음부도율 크게 증가, 태화부도 후유증, 80년 7월 이후 최고치(국제, 부산매일 7. 7)

부산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수 추이 (단위 : %)

	95년	96년	97년	4월	5월	6월
어음부도율	0.47	0.44	0.73	0.52	0.58	0.74
부도업체수	1387	1223	161	138	139	117

* 낙동강홍수통제소, 경북 북부 폭우, 위험수위 9m 근접, 저지대 수해 우려(국제 7. 7)
* 시, 화명2택지 개발계획 변경, 면적·가구수 축소 사업기간 연장(국제 7. 7)

7. 7
* 시, 교차로 통행체계 대폭 바뀐다, 안락 내달 첫 시행, 직전·우회전 2개 신호만 허용, 2001년까지 20곳 단계적 개선(부산 7. 7)
* 동래경찰서, 여고중퇴생 셋 검거, 험담하고 다닌다 앙심 집단폭행(부산 7. 7)
* 대우자동차 동래공장 노동자 29면 망간 과다노출 C판정, 11명 정밀진단 결정(부산 7. 7)
* 해양수산부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건설예산 대폭 삭감, 재경원 요청액의 46%선 잠정 결정(부산 7. 7)
* 영도구의회, 관급공사 부실시공 물의, 봉래 4동 현장적발, 일제 점검키로(부산 7. 7)
* 시, 평등부부상 5쌍 선정, 수상(부산 7. 8)
* 국회, 건설교통부 지적, 부산지하철 지진에 완전 무방비, 고속철 공사 예산으로 이자놀이(부산매일, 부산 7. 8)
* 시, 지방세 체납에 재산압류, 올 3백12억 늘어, 공매 의뢰도(국제 7. 8)
* 시, 지하철 파업 비상대책 마련, 버스노선 연장·택시부제 해제(부산매일 7. 8)
* 환경부, 부산 하수도 보급률 6대 도시 중 꼴지, 39%(국제 7. 8)

7. 8
* 부산시의회, 제66회 임시회 폐회, 시 추경 6천5백26억 확정, 시교육청은 천27억 중 5억 삭감(부산 7. 8, 부산매일 7. 9)
* 시, 팩스 민원발급제 확대 호응, 각종 서류 2백15종으로 늘려 서비스, 구청 처리건수 큰폭 증가(부산 7. 8)
* 서구청, 직원 자유발언대 운영, 구정 아이디어 등 의견 발표 마당 활용(부산매일 7. 8)
* 영도구청, 장기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현실과 동떨어져, 상업지 확충 방향 추진(부산 7. 8)
* 중구청, 복병산에 시민공원 조성, 체육시설·산책로 설치 등 내년 상반기 중 완공(부산매일 7. 8)
* 시, 지방세 체납에 재산압류, 올 3백12억 늘어, 공매 의뢰도(국제 7. 8)
* 시, 상해 부산무역사무소 오늘 개소, 기역 중소 해외세일즈 지원, 지자체 중 최초(국제 7. 8)
* 일본, 부산선적 102 대양호 나포, 최근 다섯번째, 억류선원 12명 오늘 중 귀국(부산매일 7. 9)
* 부산지방항공청, 김해국제공항, AG이전 대폭 확장, 2천20억 투입, 연간 380만명 수용 규모로(부산매일, 국제 7. 9)
* 부산시 기계공업협동조합, 다대보세장치장 내달 개장, 448개 회원사 물류비 연500억 절감효과 기대(부산매일 7. 9)
* 시 추경 6천5백26억원 확정, 부산시의회 제66회 임시회 폐회(시보 7. 10)

7. 10
* 9월부터 젖은 쓰레기 반입전면 제한,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소각효율 높이고 악취제거 등 생활환경 보호(시보 7. 10)
* 대형공사장 안전대책 강구, 시는 7월말까지 시내 대형공사장에 대한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 실시(시보 7. 10)
* 「무지개운동」에 범시민적 참여유도, 시 자가용 주 1회 안타기 대대적 전개(시보 7. 10)
* 자치시정 2년지역 경제 분야, 「부산경제 살리기 운동」 적극추진(시보 7. 10)
* 인·허가 민원 「갱신 시기 예고제」 시행, 시 7월 1일부터 기간만료 민원 26종(시보 7. 10)
* 「무지개운동」 실천결의대회, 새마을 운동 등 국민운동 단체, 2천명참여(시보 7. 18)
* 해외무역사무소(중국 상하이) 개소(부산시정 7. 8)

7. 9
* 태화백화점 김정태 사장 투신자살, 태화 회생 새 변수(부산 7. 9, 부산매일, 국제 7. 10)
*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직제 개편(부산 7. 9)
* 부산경찰청 실태조사, 부산 중·고교 폭력서클 49개, 금품갈취·폭행 피해 학생 전반 넘게 신고 않아(부산매일 7. 9)
* 부산교통공사 노사, 철야협상, 파업대비 대체인력 확보, 전철 정상운행, 노사임금 5%선 인상 등 잠정 합의(국제 7. 9, 부산매일 7. 10)
* 부산시·상의 긴급 대책회의, 향토경제살리기운동 확산, 시민본부는 법정관리 수용 촉구 결의대회(부산매일 7. 10)
* 부산수산기관협의회 구성, 정례화·현안 공동대처 합의(부산 7. 10)

* 시, 무지개운동 호응, 8일만에 1만4천명 참가, 전화문의 빗발(국제 7. 10)

7. 10 * 동래구청, 가로등・보안등 낡아 2천여개 교체 신설키로(부산매일 7. 10)

* 연제구청, 연산동 고분군 정비 본격화, 예산 4억원 들여 2002년 복원 완려 추진(부산매일 7. 10)
* 서울시립대부설 수도권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세계도시경쟁력비교 보고서, 부산, 기반시설 열악, 세계 30개 도시 중 29위(부산 7. 10)
* 시, 영도 하수처리장 지하 건립, 일산봉 일대 1만여평 굴착 검토, 과다비용・민원 등 난제(부산 7. 10)
* 동래동물원, 재일교포사업가 60억 매각, 12일 계약, 구매자 골프장용지 물색, 폐쇄 시사(국제 7. 11)
* 내무부, 부산 최우수 광역시에 선정(국제 7. 11)
* 일선 자치구・군, 97 경영행정연구발표회, 구・군 수익사업 대부분 표류, 주민호응 적고 유관기관 비협조로 어려움(부산매일 7. 11)
* 부산시민단체, 일본 영사관 앞 시위, 상품불매운동, 어선나포 만행규탄 확산(부산 7. 11)
* 북부경찰서, 중학생대상 폭력배 14명 검거, 불량서클 조직・금품갈취, 12명 긴급체포(국제 7. 11)
* 시, 경마장 유치 추진방식과 입지선정에 대해 경남도와 마찰, 김해 율하리 건설과 행정구역 분할 제시, 부산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며 난색(국제 7. 11)
* 시, 오는 16일부터 해수욕장행 임시버스 운영키로(국제 7. 11)
* 시, 4급 이상 기술직 간부 공무원 17명 인사, 종건본부차장에 행정직 승격발령 등 주목(부산매일, 국제 7. 11)
* 초・중등학교 일반교실 교단 선진화 기자재 보급(5,388학급, 161억6,400만원)(부산교육 7. 10)

7. 11 * 부산관광개발(주), 아시안게임 골프장 이전 추진, 기장 건림 난항, 강서 지사동 예정, 동남부 관광벨트화 차질(부산 7. 11)

* 부산지법, 태화백화점 재산보전처분 결정, 모든 채무 전면 동결, 법정 관리 청신호, 시민운동서 회생 가능성 엿봐(부산매일, 국제 7. 11)
* 낙동강환경관리청, 낙동강환경청 재이전 추진, 창원에서 부산으로, 시・환경부, 예산확보 공동 노력키로(국제 7. 12)
* 송천기업,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에 제출, 황령산 체육시설 온천단지 둔갑, 목욕탕・식당 등(부산 7. 12)
* 부산종합상사, 9월 설립 예정, 부산 신발 공동브랜드 '테즈락' 확정(부산 7. 12)
* 경찰청장, 부산교통방송국 10월 설치키로(국제 7. 12)
* 위천공단결사저지 부산시민총궐기본부, 14일 상경 투쟁 예고(국제 7. 12)

7. 12 * 교통개발연구원, 부산 교통 혼잡비 전국 최고, 6대 도시 조사, 96년 기준 연간 차1대당 270만원, 총액 1조6천억, 도로율은 16%로 최악(부산 7. 12)

* 중구청, 복병산 공원조성 논란, 사업추진에 생태계 훼손 여론(부산 7. 12)
* 중구청, PIFF광장 특화사업 본격화, 도로바닥 세라믹 타일로, 조형물 설치(부산, 국제 7. 12)
* 금정경찰서, 무허가 퇴폐휴게방 적발, 첫 영장, 밀실에 침대・비디오 미성년자 유혹(부산 7. 12)
* 건설교통부, 지난해 공공사업용 토지 취득, 부산 1백36만평, 5천6백억 보상(부산 7. 12)
* 한국신발피혁연구소, 시・대기업 등 5명 추진위 구성, 오는 26일까지 부산 공동브랜드 판매회사 주주 모집(국제 7. 12)
* 시, 교통영향심의위, 지하철 3호선 우회도로 개설 전제돼야 공사 가능, 제2롯데월드 영도대교 이전 해결 후 허가내기로(부산 7. 14)
*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시 부산역 광장 등 3곳서 일제히(시보 7. 18)

7. 14 * 신평소각장, 폐기물 반입 싸고 주민-회사 격렬 몸싸움(부산 7. 14, 국제 7. 15)

* 중구청, 자갈치 현대화 사업 본격화, 부산어패류처리조합,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확대(부산 7. 14)
* 시, 모범택시 200대 증차계획 보류, 이용률 저조・배기량 높여 차종선택권 박탈, 업계 반발(부산 7. 15)
* 국민회의, 부산지하철 사고축소 은폐됐다, 작년 899건 발생 불구 2건만 보고(국제 7. 15)
* 주공아파트, 재건축 확정, 유림・현대 공동건설, 9월부터 이주, 내년 8월 분양(부산매일 7. 15)
* '태화쇼핑 대책위' 매주 개최 부산상의 '본사 유치 인센티브제' 시에 건의도(부산매일 7. 15)
* 지하수법 개정,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관정별 관리책임자 지정, 매년 수질검사(시보 7. 18)
* 학교폭력근절대책회의, 시 당면 업무추진 분야별 세부지침 마련(시보 7. 18)
* 남부교육청사 이전(남구 대연6동 1272번지)(부산교육 7. 14)

7. 15 * 시, 영도다리 철거 결정, 2001년 제2부산대교 완공 후 재가설(부산 7. 15)

* 시, 시종합환경감시센터, 부산 오존경보체제 구멍, 이틀간 통신망 마비(부산 7. 15)
* 부산 신평 소각장 반대, 학생등교 저지, 3천여명 결석(부산매일 7. 16)
* 시, 부산정보단지 계획 수정 불가피, 외국업체 입주희망 적고 국내기업도 투자 꺼려, 기반시설 확충・세제 지원 등 보완책 마련 고심(부산매일 7. 16)
* 시정 동정, 부산시장은 기독교 협의회 신임회장단 일행 9명의 예방(시보 7. 18)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반대, 부지 못 구해, 부산시는 대형소각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어려움에 직면(시보 7. 18)

7. 16
* 시, 기업체교통수요관리 기행계획안 마련, 카풀시행업체 부담금 감면(부산, 부산매일 7. 16)
* 시, 신평소각장사태 중재안 제시, 주민이 성능검사 의로, 유해 때 패쇄키로(부산, 국제 7. 16, 국제 7. 17)
* 남구청 감사, 구의원에 식당운영권 수의계약 특혜(국제 7. 16)
* 국회, 부산 당감 대지조성 차질 추궁(부산 7. 16)
* 시, 정부 혼잡통행료 반대, 내년 확대시행에 대한 정부방침 수용불가 입장(부산매일 7. 16)
*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장애인 직업학교 설립 승인(부산, 국제 7. 17)
* 시, 국민캡 택시 매각금 축소 물의, 거액 탈세 노려 이중계약 의혹, 시에서 묵인(부산매일, 국제 7. 17)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충장고가로 부실 투성이, 노선 곳곳에 균열(부산, 국제, 부산매일 7. 17)
* 제19회 고교생 합창 발표회(부산교육 7. 16)

7. 17
* 신평주민대책위, 시 중재안 거부(부산, 부산매일, 국제 7. 17)
* 사하경찰서, 10대 6명 초등생 집단 성폭행, 4명 검거(부산 7. 17)
* 시, 조정경기장 건설 설계안 선정 후 예산부족 이유 철회(부산 7. 17)
* 참여자치시민연합, 부산 YWCA, 부산을 가꾸는 모임, 여성정책연구소 등 부산 10여개 시민단체, 무지개 운동 불참 선언(부산, 부산매일, 국제 7. 17)
* 시, 오존 통신망 마비 인재, 프로그램 오조작, 요령 잘못 수정(부산 7. 17)
* 부산지검, 성인용품 판매점 일제 단속, 음란물 미성년자 판매 등 강력차단(부산매일, 국제 7. 17)
* 부산진구청, 주민 2천3백72명 대상으로 공무원 평가 설문조사, 부산진구 주민 75% 친절해졌다, 연제구청 설문, 연제구 주민 80% 업무처리 만족(부산매일 7. 17)
* 시, 기금관리실태 자체점검, 운영기금 탈법 운영, 75개 3천1억 무자격자 출납, 임의처리 드러나(국제 7. 18)
* 시, 구청소각장 관리 엉망, 부산시내 49곳 배출기준도 없고 오염도 측정 안 돼(국제 7. 18)
* 부산체신청, 우편취급소 지자체 위탁 거부, 관련법규 어겨가며 기존업자 보호 의혹 높아(부산매일 7. 19)

7. 18
* 시, 화명택지개발 매립쓰레기 대란, 2지구 1백24만톤 처리방안 없어 차질 예상(부산 7. 18)
* 시, 올림픽유치 기획팀 발족, 체육인 등 각계 인사 20명 구성(부산매일 7. 19)
* 시, 내년 지역순환버스제 도입, 지하철 2호선 1단계, 9월 개통에 맞춰, 연내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단속도 강화(부산매일 7. 19)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부산 5개업체 반덤핑 피소, 여러 업체서 제소, EU조사 결정 가능, 타격 클 듯(국제 7. 19)
* 부산지검, 도주차량사범 억제 및 검거대책회의, 부산 뺑소니 증가율 47로 최고, 검거율은 47.3%로 꼴지, 작년 1,118건(국제 7. 19)
* 해양수산보, '민영화 자성대' 감원 불가피, 한진해운 수익성 고려 20~30%선 감축하자, 해양부와 마찰(부산매일 7. 19)
* 시,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종합대책, 전용・실명제 봉투 사용 등 추진(국제 7. 19)
* 시, 사상로 내일부터 왕복 통행, 지하철 공사 마무리, 주례~모라 버스 종전대로 운행(부산매일 7. 19)
* 시내버스터널통행료면제, 시 8월 1일부터 경영개선 지원(시보 7. 18)
* 불법음반・비디오업소 강력산속, 시 7월말까지 경찰과 협동으로 미성년자 출입・시설 기준 대상(시보 7. 18)
* 자치행정 2년 도시환경분야, 「녹색도시 부산」 실현위한 기반 구축(시보 7. 11)
* 관광・행락철 물가안정대책, 시 8월말까지 자릿세 등 합동단속 나서, 행락지 별로 「부당요금신고센터」도 운영(시보 7. 18)
* 음식물쓰레기 반감 비상대책마련, 시 전용실명제・봉투 사용 등 추진(시보 7. 24)
* 시정 동정, 문정수 시장은 일본국회 참의원 사이토 후미오씨 등 일행 12명을 예방(시보 7. 24)
* 「올림픽 유치 기획팀」 발족, 시 체육인 등 각계인사 20명으로 구성(시보 7. 24)

7. 19
* 문화체육부, 기장해양리조트, 아시아드 민속촌 등 4곳 관광개발대상지로 결정(부산 7. 19)

* 감사원감사, 부산지역 건물 불법용도 변경 적발, 사무실 개조 등 공무원 묵인 조사, 눌월빌딩, 크라운 호텔, 국제 호텔(부산 7. 19)
* 시, 무지개운동 조례 제정, 관 주도 한계, 시민운동으로 승화 노력(부산 7. 19)
* 시 녹지사업소, 노포동에 대규모 삼림욕장, 99년초까지 계면산 30ha에 조성키로(부산 7. 19)

7. 20
* 항공사, 부산 관광업계 최악 불황, 항공권 예약 격감(부산매일 7. 21)
* 사상구, 밤 10시 50분즈음 1시간여 정전(부산매일 7. 21)

7. 21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외국인 방문 급증, 동북아 물류 거점 위상변화 반영(부산 7. 21)
* 생곡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차량 통행 일부 중단, 복토권 요구 주민 시위로 오늘부터 5일간(부산매일, 부산 7. 21, 부산매일 7. 22)
* 해운대구청, 해운대 해저테마수족관 건립, 내년 5월 착공, 길이 80m, 폭 40m 규모 터널 형태로(부산매일 7. 21)
* 시, 남도빌딩 철거 주춤, 보상금 진통, 연내 도로확장 감감, 내년까지 체증 불가피(부산 7. 21)
* 시, 무지개운동 제도화 작업 착수, 운행 제한권 단체장 위임 등 관련법 개정 건의(부산매일 7. 22)
* 한국토지공사, 양산 다방동～부산 노포동, 지방도로 6차선 확장, 신도시 입주 99년말 전 완공, 상습 정체 현상 해소(부산매일 7. 22)
* 부산시체육회, 추경예산 30억, 운영위원회 통과, 사무처 직제개편안은 보류(부산매일 7. 22)
* 성지곡동물원 새단장, 동래동물원 동물 인수해 1천마리로, 내년 1월 공사, 3만평 규모 종합 레저시설 갖춰(국제 7. 22)
* 시보건환경연구원, 부산대형건물 레지오넬라균 비상, 49곳 중 10곳서 검출(부산 7. 22)

7. 22
* 생곡쓰레기 매립장 주민 이틀째 시위, 부산 곳곳서 악취 고통(부산 7. 22)
* 사하구 다대동 시파크, 정화조 가스에 설비주임 3명 질식사(국제 7. 22)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충장로 보수 교통 통제 없이 추진(부산매일 7. 22)
* 부산정보단지, 산업단지 지정, 건교부 승인 민자 활용길 열려, 재원 조달 등 정부 지원(부산, 부산매일, 국제 7. 23)
* 시, 부산교통공단, 부산지하철 2・3호선 차질 불가치, 금융시장 경색 등 재원난, 정부 특단 조치 필요(부산매일 7. 23)

7. 23
* 부산상의조사, 부산 자사상표 수출 24.7%, OEM 수출 48.1%, 병행수출 272%(부산 7. 23, 국제 7. 24)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부산수출 5개월 연속 감소, 지역수출 감소율 10%, 선박수출 전년비 64.2%감소(부산매일 7. 24)
* 해양수산부, 자성대부두 내년 1월 민영화, 컨소시엄 형태 운영사 선정(부산 7. 24)
* 우암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부산 7. 24)
* 낙동강환경관리청, 서낙동강 녹조 또 급속 확산(부산매일 7. 24)
* 해양수산부장관 기자간담회, 부산마린랜드 2001년 완공, 1・2부두 매립 1만평 규모, 여객터미널 등 조성(부산매일 7. 24)
* 교육부, 98고입 부산 등 4개시 무시험 전형, 학생부・선발고사 성적 병합(부산매일 7. 24)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401호)(부산교육 7. 23)

7. 24
* 시, 생곡매립장 복토공사에 불량토사 사용, 침출수 방지에 290억 부담(부산매일 7. 24)
* 시, 아시안게임 예산 확보 비상, 국비 50% 삭감 예상, 경기장 등 건설 차질(국제 7. 25)
* 부산지방노동청, 부산・경남 체임 3백억, 1만여명분, 작년비 135% 폭증(부산매일 7. 25)
* 한국전력공사 부산전력구건설처, 북부산～남부산변전소간 총 22.7KM로 9년만에 1단계 마무리, 전선 지중화 완공(부산매일 7. 25)
* 기장군, 고리방사능폐기물 투기 의혹 조사, 임시 사토장 방사능 자연상태의 15배 확인(부산, 국제 7. 25)
* 시, 부산～울산 고속도 건설 수정안 제시, 시, 부산쪽 접속로 확장 등 담아(부산매일 7. 25)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중시 기업 조업률 추락, 87.1%, 상반기, 판매부진, 자금난이 주요인(부산매일 7. 25)
* 사하구 통장 28명 사퇴 결의, 신평소각장 시험가동에 반대(부산매일 7. 26)
* 수질오염 방지위한 「홈닥터」 제 정착, 시 3월부터 실시 1백33개업소 지정, 기술・행정지원(시보 7. 24)
* 시 신청사 준비 한창, 공정 80% 올해 완공, 부산 연사동시대를 열어갈 부산시청 신청사 공사가 80%의 공정을 보이는 등 순조롭게 진행, 웅장한 제 모습을 드러내(시보 7. 24)
* 여름철 방역대책 실시, 부산시는 9월말까지 장마철 수인성 전염병 등 차단(시보 7. 24)
* 「카풀시행업체」 부담금 감면, 시 대상기업체등 교통 수요 관리안 마련(시보 7. 24)

* 7월부터 「생활시책」 추진강화, 시 민선자치 3차년도 맞아 인원불편 표본조사…과제 선정착수(시보 7. 24)
* 자치행정 2년 일반행정분야, 대형사업과 생활시책 동시 추진(시보 7. 24)
* 「한·미 공동 세미나」 개최, 시 지방자치역량 강화, 부산시는 지방자치 시정이 출범한지 2년을 넘기고 3차년도의 새로운 출발을 내딛는 시점을 맞아 보다 바람직하고 역량을 갖춘 지방자치의 실현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공동 세미나」 개최(시보 7. 24)

7. 25
*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낙동강 수온 상승, 조류 급속 확산, 수돗물 공급 차질우려(국제 7. 26)
* 부산시교통영향심의회, 지하철 3호선 교통영향평가 통과(부산매일, 국제, 부산 7. 26)
* 부총리, 낙동강 수질대책위원회 조기 가동, 개선사업 2001년까지 5년 앞당겨(국제 7. 26)
* 부산시종합건설본부, 국내 최신 해운대 신시가 소각장 2호기, 다이옥신 배출 위험수위(부산매일 7. 26)
*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지원 협의회 개최, 문정수 시장 주재, 추방 캠페인 등(시보 7. 31)
* 부산해양청, 충장고가도 보강공사 부실 우려, 안전진단 무시 일부구간 시공 추진(국제 7. 26)
* 청소년 농촌 봉사대 발대(부산교육 7. 25)

7. 26
* 부산시립박물관, 고대이집트문명전 개최, 9월 28일까지(국제 7. 24)
* 대법원, 페스카마호 선상살인 주범 사형(부산매일 7. 26)
* 시, 부산올림픽 유치 본격화, 전략 기획팀 공식 출범, 공청회 등 개최 여론 조성, 9월 범시민 추진위 발족(부산 7. 26)
* 해운대구청, 민주도 전국 첫 시정 토론회, 3개 시민단체 신청, 교통·소각장 등 중점 논의(부산 7. 26)
* 시정 동정, 문정수 시장은 제2회 부산바다축제 최종 준비 상황 보고회 7월 26일 오전 10시 시청 회의실에서 주재(시보 7. 31)
* 국회, 부산지하철 부채문제 추궁(부산 7. 26)
* 해운대구 부산 반여상가시장 큰불, 20개 점포 태워 4천여만원 피해(국제 7. 28)

7. 27
* 시, 지역제품 시장공략 본격화, 공동브랜드 테즈락 판매상 부산은행 대우 등 출자, 부산 중소기업청도 도심에 우수업체 직판장 개설(부산매일 7. 28)
* 시, 아파트 곳곳 재난 무방비, 39개소 옹벽 석축 등 붕괴위험(국제 7. 28)
* 시, 부산현안사업 국비확보 비상, 재경원, 아시안 경기장·지하철 등 예산 대폭 삭감 추진(부산매일, 국제 7. 28)

7. 28
* 재경원, 부산시에 천8백여억 국고지원 약속, 부산시 예산확보 청신호(부산 7. 29)
* 재경원, 아시안게임시설·지하철 2호선 등, 부산현안사업 재정 적극지원 "긍정" 답변, 문정수 시장, 내년 국비확보 위해 재경원 방문(시보 7. 31)
* 유치원 교육 자료 전시회(부산교육 7. 28)

7. 29
* 시의회 결산검사, 시경영수익사업 부실, 기업회계 않고 주먹구구식(부산 7. 29)
* 시, 97년 부산시 환경백서, 부산 오염투성이, 오존·이산화질소 농도 매년 급증(부산 7. 29)
* 해양수산부, 컨테이너세 폐지 강력 반발, 연 6백억 수익 감소(부산 7. 29)
* 부산상공회의소, 컨테이너세 2001년까지 존치 촉구, 폐지 시 물류비 가중, 통산부에 건의문(부산매일 7. 29)
* 시, 부산 약수터 85곳 음용 부적합, 여시니아균 함유, 세균 기준치 79배 검출(부산매일, 국제 7. 30)
* 부산 비브리오패혈증세 환자 첫 사망, 생선회 먹은 50대 하루만에(부산매일, 부산 7. 30)
* 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회, 시내버스노선 자체안 마련 결의, 호포~서면 지하철 개통 대비, 민락~부암로터리 운행 83-1번 신설(부산매일 7. 30)
* 영도 제일교회, 하계수련중 학생 170명 식중독, 주문도시락 먹고 복통(부산매일 7. 30)
* 시, 자동차 내달 70만대 돌파, 교통난 완화 종합대책 수립 착수(부산매일 7. 30)
* 부산교통공단, 방만운영으로 적자 확대, 부대사업 수입증가 불구 작년 269억 기록, 공단 조직개편·경상비 지출억제 등 경영내실화 추진(부산매일 7. 30)
* 시, 해운대 신시가 a/s센터 설치, 감리단 15개 시공사 공동구성(국제 7. 30)
* 한국토지공사, 녹산땅 평당 57만6천원, 공단 전체 녹지율도 7.8% 축소 조정, 정부 개발계획 변경안 내달 확정(국제 7. 30)
*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8차 위원 총회, 동아대회 경기품 간하단체에 내달 기증, 관리권·집행잔액 등 아시아드 조직위로 넘기기로(부산매일 7. 30)
* 시, 도시락 제조업체 위생관리 허술, 기한지난 식품사용, 보관기준 위반 예사, 18곳 적발, 행정처분·시정조치(부산매일 7. 31)

* 부산시,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역 여권밀매 성행, 재발급 간소화부, 200만건~800만원씩 팔려(부산매일 7. 31)
* 시, 전용공업용수도 1단계 통수실 가져(부산매일 7. 31)
* 시, 무지개운동 불참차량 강력 제재, 내일부터 공공기관 출입금지, 공영주차료 할증(부산매일, 국제 7. 31)
*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부산시 아시안게임 준비 착수, 직제개편, 잔액이월, 조직위사무처 직원 대규모 인사 연말 다행(국제 7. 31)
* 시정참여 대토론회, 시 시민단체 청구로…당면현안 다뤄(시보 7. 31)
* 「청소년의 배」 국제교류 위해 출항, 부산시 생활 어려운 모범학생 1백50명으로 구성(시보 7. 31)
* 수영~초읍 직노선 개설, 시 조정심의회 기존 83번 버스 5대 연장 개편(시보 8. 7)
* 비브리오패혈증 원인균 불검출, 강서구 강호달씨 사인 규명위해, 시 보건 환경 연구원 검사 결과(시보 8. 7)
* 제14회 부산 음악 콩쿠르(부산교육 7. 29)

7. 30 * 부산지역공단 전용공업용수도 공급, 시 상수도본부 1단계로 하루 20만톤 생산…신평·장림·사상 등 공급(시보 8. 7)
* 공업용수도 통수식(부산시정 7. 30)

7. 31 * 건설교통부, 부산 땅값 하락세, 부산 용도지역별 지가상승률 97년 2/4분기 평균 0.05%, 주거 0.02%, 상업 0.07%, 공업 0.10%, 녹지 0.04%, 비도시 0.00%(부산 7. 31)

부산시 분기별 지가상승률 (단위 : %)

구분	97	
	1/4	2/4
평균	0.05	0.05
중구	-0.05	0.03
서구	-0.23	-0.06
동구	-0.03	-0.03
영도구	0.03	-0.05
부산진구	0.02	0.10
동래구	0.10	0.00
남구	0.18	0.05
북구	0.0.3	0.00
해운대구	0.09	0.06
사하구	0.02	0.05
금정구	-0.04	0.01
강서구	0.03	0.10
연제구	-0.01	0.03
수영구	-0.08	-0.11
사상구	0.21	0.24
기장군	0.80	0.40

* 시, 광복회관 세운다, 중앙공원 내 독립운동 자료집결, 광복절 기공(부산 7. 31, 부산매일 8. 1)
* 부산지검 공안부, 부산 한총련 17명 사법처리, 부산대·해양대·부산여대 3개대 미탈퇴(부산 7. 31)
* 부산공동어시장, 위판가격 폭증, 위판량 격감 따라 올 들어 평균 44%나 올라(부산매일 8. 1)
* 대한대학유도연맹, 부산서 세계대학유도 개최, FISU 지지업고 사실상 확정, 2000년 개최(부산매일 8. 1)
* 북구청, 행정직제 대폭 개편, 일부 부서 통폐합·수요 많은 징수과 등 신설(부산매일 8. 1)
* 부산시의회 재경위, 컨테이너세 폐지 촉구, 시 미온대처 질타(부산매일 8. 1)
* KAL기 착륙 중 활주로 이탈 7명 부상, 조종 미숙 탓(부산매일, 부산 8. 1)
* 부산도 대청공원에 「광복회관」 건립된다, 시 후손들에 민족교육장으로 활용(시보 8. 7)
* 한일 테크노마트 부산유치, 오는 9월 1일부터 롯데호텔에서(시보 7. 31)
* 부산정보단지 「산업단지」 지정의의, 선수분양 통해 투자재원 조달(시보 7. 31)
* 「무지개운동경진대회」 시상, 시 새마을운동 등 국민운동 및 시민단체 대상, 참여신청서·스티커 발부 실적 따라 선정(시보 7. 31)
* 행락 질서 확립·범죄예방대책, 시 8월말까지 피서철 맞아, 시민단체등과 기초질서 단속도 병행(시보 7. 31)

8. 1 * 부산 바다축제 개막, 6개 해수욕장서 7일간 행사 다채(부산, 부산매일 8. 1, 부산매일 8. 2)

* 시, 부산시민교통정책 설문조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도로・지하철 확충 급선무 응답 53.2%, 버스전용차로 확대・환승체계 구축(부산 8. 1)
* 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주요 제조수출업체 1백27곳 조사, 하반기 수출전망 다소 회복, 그러나 상반기 수준은 크게 못 벗어날 듯(부산 8. 2)
* 정부, 사회간접자본건설 추진 위원회, 부산신항, 국책 신항만으로 지정, 민간업자 행정절차 해양부서 대신 처리(부산, 국제 8. 2)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자성대 전산 현대화 전면 연기, 내년 민영화 이후 민간업체 자율 추진케(부산매일 8. 2)
* 제1회 부산시장배바다카약대회, 인천 1위 골인, 부산은 3위(부산매일 8. 2)
* 제2회 부산바다축제(~7)(부산시정 8. 1)
* 심야 청소년 선도 캠페인(광안리해수욕장)(부산교육 8. 1)

8. 2
* 부산시장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펼쳐진 해변콘서트를 관람하고 행사 관계자들 격려(시보 8. 7)
* 부산항 자성대컨테이너 터미널, 월 최대 물량 처리, 16만5천TEU(부산 8. 2)
* 시 상수도사업본부, 낙동강 남조류 비상, 농도 올 최고치, 광안리바다 또 적조(부산 8. 2)
* 제1회 한국 해양 문학상 시상(부산교육 8. 2)

8. 3
* 해양부・재경원 21c 국가과제 확정, 부산감천・광양항에 비관세 지역, 동북아 환적화물유치 물류중심권 육성(부산, 국제 8. 4, 국제 8. 5)
*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 아시아드 전략개발팀 가동, 사무처 과 3~4개씩 묶어 전문성 높여(부산매일 8. 5)

8. 4
* 시장, 현안사업장 방문, 문시장 도시 개발 공사 등(시보 8. 7)
* 해양부, 감만부두 민자유치 내년 연기, 공고대상서 제외, 공사지연 불가피(부산매일 8. 5)
* 부산지방기상청, 부산 최고 180mm 집중호우, 경보 발령・수방대책 만전 당부(부산매일 8. 5)
* 국립수산진흥원, 기장~감포연안 냉수대 경보, 거제~주문진해역 주의보도 유효(부산매일, 국제 8. 6)

8. 5
*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부산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3차실시와 관련한 시민감시체제 강화 자원봉사자 투입(부산매일 8. 5)
* 낙동강연구센터, 상수도사업본부, 낙동강 오염 주범은 금호강, 총인・총질소농도 타수계의 100배(국제 8. 6)
* 광안대로 건설공사 설명회,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 초청(시보 8. 7)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지역 어음부도율 주춤, 7월 0.59%로 전월비 0.15% 하락(부산매일 8. 6)

8. 6
* 시, 구덕운동장 내 스포츠센터 건립, 체육진흥기금 지원받아, 실내수영장 등 갖춰, 내년 초 착공, 2000년 개장(부산매일 8. 7)

8. 7
* 연제구-일본 사가시 자매결연 추진, 직원・초등생 등 105명 방문(부산매일 8. 7)
* 제2회 부산바다축제 폐막식(부산매일 8. 7, 국제 8. 8)
* 부산지역 건설업체, 역외진출 활발, 택지구입 쉽고 소자금 사업 가능(국제 8. 8)
* 개금주공주민, 백양산터널~수정산터널 잇는 가야고가로 백지화 농성(국제 8. 8)
* 사하구청, 대티고개간 도시계획도로, 도로폭 절반으로 축소하고 공사비도 1억1천만원으로 줄여(국제 8. 8)
* 가덕신항만 어업피해보상 감정평가 업무추진협의회, 어업피해보상 감정평가 이달 착수, 평가일정・용역기관 최종 확정(국제 8. 8)
* 한국전력 부산지사, 산업용 전력사용 작년비 0.3%증가, 올 상반기 부산 경기부진 반영, 전국 평균은 9% 늘어(국제 8. 8)
* 사상구 감전1동 부산위생처리사업소내 공사중 슬래브 무너져 인부 10명 매몰, 1명 사망(국제 8. 8)
* 「무지개운동 불참차량」 제재, 1일부터 공공기관 출입금지・공영주차료 할증(시보 8. 7)
* 「이면 도로 주거지 전용 주차제」 66.7%찬성, 시 1500명 설문조사결과, 「승용차 부제 운행 의무화」 88.3%가 긍정적(시보 8. 7)
* 전국 「여름문화축제」로 정착, 제2회 부산바다 축제 민간주도 내실…성공작 평가(시보 8. 14)

8. 8
* 시, 아시안게임 경기장 설계 본격화, 일신 서강 세진 설계종합건축사 사무소 요구 대폭 수용(국제 8. 9)
* 시, 하얄리아 부대 이전사업 활기, 비용 실사팀 구성・시기 등 합의, 한・미 금명 발표(부산매일 8. 9)
* 대검찰청, 제9대 부산고검장에 고영규, 법무실장에 내정(부산매일 8. 9)
* 북구청, 애기소계곡 시민공원 추진, 삼림욕장・자연학습장 등 조성 계획(국제 8. 9)

8. 9
* 시, 주거개선 지구 공람 공고, 동광3지구, 아미3지구, 동대8지구, 범일1지구, 범일3지구, 초량1지구, 가야3지구, 가야4지구, 가야5지구, 임랑지구(부산매일 8. 9)
* 시, 광복기념관 건립 사업 확대, 민간주도로 전환(부산 8. 9)
* 보안수사대 발대(경찰사 8. 9)

8. 10 * 민주주의민족통일 부산연합, 제52주년 광복절기념 및 민족화해와 평화실현을 위한 부산지역 평화통일 민족대회 개최, 53개단체 참여(부산매일 8. 11)
* 시, 부산 태풍피해 5명 사상·실종, 선박 1척 좌초 등 1억5천만원 손실(부산매일 8. 11)
* 시, 부산 일본 뇌염모기 비상, 밀도 67%로 올 들어 최고치(부산매일 8. 11)

8. 11 * 법무부, 부산고검장에 고영규씨 임명(부산매일 8. 11)
* 증권거래소 부산사무소, 94년도 전체이용자들 중 20대 이용자들의 비중에 24.08%에서 95년 33.91%, 96년 35.25%, 97년 58.99%로 늘어나는 추세(부산매일 8. 12)
* 기장군, 공무원 수련회 탈선 물의, 여직원에 폭탄주 강요 등 변질(부산매일 8. 12)
* 부산공동어시장, 수입·원양어획물도 취급하기로 정관 개정(부산매일 8. 12)
* 부산해양수산청장, 신선대 인근 해상 매립 강행, 해양부·해군·남구청 합의(부산매일 8. 12)
* 시, 재경원, 건교부, 부산교통공단 시 이관 추진, 부채 2조4천억 떠안을 예정(국제 8. 12)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제조업체 상반기 480사 폐업, 지난해보다 12.7% 증가(부산매일 8. 12)
* 2008년 부산올림픽 유치전략기획팀, 부산올림픽추진위 내달 발족, 이달 27일 발기인 대회(부산매일 8. 12)
* 정부, 고리원전 근처 그린벨트 해제 추진, 5,6호기 추가건설 관련, 주민반발 고려(부산매일 8. 13)
* 중구 보수동 만화총판 서적, 문닫는 만화방 늘어난다, 당국 단속강화로 매주 40여 곳 휴폐업, 하루수입 70% 감소(국제 8. 13)

8. 12 * 해운대구청, 수영매립지 축구장 건립 난항, 업체·구청, 수익시설 법규 해석 마찰(부산 8. 12)
* 강서구청, 서낙동강에 수변공원 조성, 대저~녹산수문, 관광·위락단지기능 가지기로(부산 8. 12)
*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무지개 운동 승용차 함께타기 등 적용(부산 8. 12, 국제 8. 13)
* 부산교통공단, 지하철부문 리더기 등 불량,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부산 8. 12)
* 부산시교육청, 열린교육 학업 성취도 높다, 시범학교·미실시교 비교, 주관식·사고력 해결 영역 등 뛰어나(국제 8. 12)
* 시, 관광객·시민 대상 여론조사, 바다축제 2백55억 수입, 해운대 관광객 평균 13만원씩 사용(국제 8. 12)
* 영도구청, 태종대에 울타리 없는 동물원 조성(부산매일 8. 12)
* 동구청, 망양로변 축대 보수공사 후 4곳에 벽화작업(부산매일 8. 12)
* 통계청, 부산 실업률 전국 15개 도시 중 최고, 올 1만4천명 늘어 4.2% 기록, 전체비 13.3%로 7만3천명(국제, 부산매일 8. 13)
* 부산지방항공청, 김해공안 안전 점검, 레이더 정상작동여부 등 항공보안시설 점검(부산매일 8. 13)
* 동구 초량동 웬디스햄버거, 1만원권 위폐 발견, 충북 발견 위폐와 동일(국제 8. 13)
* 해운대경찰서, 해운대 신시가, 치안부재 강·절도 기승, 올 들어 50여건 발생(부산매일 8. 13)
* PIFF광장 조형물·아치 선정, 부경대 김철수, 동아대 김학제 교수 작품(부산매일 8. 13)
* 시, 부산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법개정으로 피해보상 결정권 줘야(국제 8. 13)
* 해양수산부, 연근해수산물 자유판매제, 오는 9월부터, 직거래로 위판수수로 절감·가격안정 기대(국제 8. 13)
* 시정 동정, 문정수 시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한 97을지 연습 준비 상황보고회 참석(시보 8. 21)

8. 13 * 부산시 특별감사, 기장군수 등 4명 징계, 서기관 정실인사 문책(부산 8. 13)
* 우리물산 장려운동본부, 외제추방 시민운동 확산, 오는 16일 시민대회 예정(국제 8. 13)
* 기장군청, 동부리일대 도시계획 도로공사, 시공선 잘못 측량, 피해지주 소송제기, 고법 공사중지 결정(부산 8. 13, 부산매일 8. 14)
* 생곡대책위, 시 제시 복토사대체 보상안 거부, 반입저지 집회신고서 제출(부산 8. 14)
* 제3도시고속도로 주공 통과반대 공동투쟁위원회, 전 시의회의장 제소방침(부산매일 8. 14)
* 시, 부산현안 사업 국비 지원 차질, 예결위원 상대 예산확보 총력(부산, 국제 8. 14)
* 해양수산부, 삼성물산, 부산가덕항만(주) 법인설립 눈앞, 출자한도 예외인정, 국내 3위 기업으로 출범(국제 8. 14)
* 금정구청, 부산대 대학가 주변 업소, 절반 이상 일본어 등 외래어 간판(부산매일 8. 14)

8. 14 * 제2회 아시아연극인페스티벌 개최, 11일 동안(부산매일 8. 13)
* 시, 예결위에 가덕신항 1천900억 반영 요청, AG경기장, 지하철 2호선 비용도(부산매일 8. 14)
* 부산노동청 작년 7월부터 1년간 조사, 부산지방 실업급여 전국 2위, 6천2백61명에 75억 지급, 경기 불황영향, 올 들어 급증한 수치(부산 8. 14)

* 남구 용호동 어민, 하수처리장 보상 해상시위(부산 8. 15)
* 수영구청, 광안리 해별공원 대날 착공, 월말 실시설계, 상설무대 및 휴식공간 조성(국제, 부산매일 8. 15)
* 시, 아시안게임 시설 대폭 확충, 올림픽 대비, 지사단지 내 골프장 조성(국제, 부산매일 8. 15)
* 시 녹산공단 부지 싼값 공급, 부산시는 녹산공단의 임대공장 부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뒤 입주업체들에게 싼값으로 공급하는 공장부지 임대사업을 벌일 방침(시보 8. 14)
* 주거환경개선 10개 지구 지정, 8월 중 공람공고… 저소득 밀집지역 46㎢ 대상(시보 8. 14)
* 소년 소녀가장 등에 전세금지원, 시 시설퇴소아동도 대상…수요조사 나서(시보 8. 14)
* 아주경기시설 크게 확충, 문정수 부산시장 올림픽 대비 지사단지 내 골프장 조성(시보 8. 28)
* 시 3회 예결위원과의 간담회, 아시안 게임준비에 특별한 관심(시보 8. 21)

8. 15
* 제52년 광복절 경축행사(부산 8. 15)
* 부산상공업계, 부산경제 하반기도 어둡다, L/C내도액 줄고 어음부도율 증가, 추석전후 자금난 심화, 지난 상반기 부산지역 수출실적 29억6천9백만달러, 전년동기 비해 5.5%감소(국제 8. 16)
* 부산지방항공청, 김해공항 안전시설 개선키로, 착륙유도 각종 계기 새장비로 교체(부산 8. 15, 부산매일 8. 16)
*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재경원 부산신항 컨테이너공단 위탁공사 제동, 예산과목 변경 어렵다는 이유로 발주 반대(부산매일 8. 16)
* 「부산광복회관」 올 하반기 착공, 시 시민 단체 대표로 건립추진위를 발족(시보 8. 21)

8. 16
* 시, 수자원공사 원수값 폭등에 반발, 원수값 톤당 9.5원에서 11.98원으로 올려, 수질 악화 정수비 가중(부산 8. 16)
*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고지대 급수난 해결을 위해 부산 서구 아미・대티배수장과 영도구 영도배수장 확장공사, 공하 끝나도 급수시간대 배로 늘어날 뿐 24시간 급수 어려워, 53만여명 하루 4~10시간씩 제한급수(부산매일 8. 16)
* 시, 시민광장 선다, 성지대공원내 분수대 등 갖춰 2005년 완공(부산 8. 16)
*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환승제 찬밥신세, 홍보부족으로 시민외면 판매처로(부산 8. 16)
* 부산지방항공청,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철거, 완충녹지대 조성 등 확장사업 활기(부산 8. 16)

8. 17
* 신시가지 주민, 해운대 장산 훼손 극심, 시민의식 실종・바가지 상혼 행락철 몸살(국제 8. 18)
* 부산 한의사협회, 한약분쟁 여파로 올 졸업생 배출 못해 한의사 모자란다, 의료서비스 차질, 병의원 영세화 우려(국제 8. 18)
* 해운대구청, 파행감사 물의, 비위사실 적발 후 부하직원만 징계하고 인사규정 위반자 직무만 변경하는 등(국제 8. 18)
* 차질 없이 추진당부, 문정수 시장 주요 사업장 점검 우회공사 등(시보 8. 21)

8. 18
* 재정경제원, 부산국비지원 대폭삭감, 내년 시 예산 요구액 42%만 반영(부산 8. 18)

주요 국비지원사업 예산편성 정부안 (단위 : 억원)

사업명	시 요구액	부처요구액	재경원 1차안	재경원 조정액
아시안게임경기장	1969	699	360	360
주경기장진입로	600	600	600	600
부산신항만	4664	1979	1500	1850
지하철(운영)	4018	2900	1510	2860
김해공항국제선	844	629	485	528

* 생곡주민대책위원회-시, 23억 지불방법 이견, 협상 결렬, 쓰레기장 출입 통재 투쟁 벌이기로(부산매일 8. 19)
* 해양수산부, 부산항 미군부두 이용 무산, 미군측 사실상 거부, 해양부 실익없다 협상포기(부산 8. 18)
* 시, 시내버스 구조개선 기금 조성 추진, 과징금 적립 냉방화 등 검토(부산매일 8. 19)
* 시, 택시종합대책 발표, 모범택시 배기량 기준 완화, 모범택시 일반택시 전환 허용, 개인택시 신규면허 올 267대 확정(부산매일 8. 19)
* 금정구 동직원 사칭 사기범 하루만에 3건(부산 8. 19)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고부가 환적화물 급증, 유치경쟁 불붙어 올 첫 100만TEU 돌파 예정(부산매일 8. 19)
* 강서구청, 명지소각장 미관심사 조건부 승인, 주민 반발 심화(부산매일 8. 19)
* 중구청, 청사내 주차빌딩 완공, 내달 1일 가동, 84대 수용(부산매일 8. 19)

8. 19　* 남부경찰서, 부산만원권 위폐 계속 발견(부산, 부산매일 8. 19, 국제 8. 20)
* 시, 차 등록 구・군 이관 백지화, 추진 2년만에 환원(부산 8. 19)
* 시, 중수도확대조례 추진, 절수・홈페이지 이용 홍보 등 계획, 수돗물 요금 감면 혜택(부산 8. 19)
* 생곡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부산시, 보상금 5억 연내지급 등 합의해 타결(부산매일, 부산 8. 20)
* 시, 낙동강환경관리청, 지하철역・상가 오염 심각, 대부분 먼지・분진 기준치 크게 초과(부산매일 8. 20)
* 신평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근로자 복지매장, 중소기업전시장 난항(국제 8. 20)
*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동서고가로 일부차선 통행제한, 감전IC～서부산 낙동대교, 내달 2일부터 9일간(국제 8. 20)
*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 기자회견 갖고 오프닝작 및 심사위원 확정발표, 차이니즈박스 선정(부산매일, 국제 8. 20)
* 시, 내년 부산 국고 지원 1조1천억(국제 8. 20)
* 부산지방항공청, 김해공항 올해 6월까지 하루 평균 12대 결항・지연(부산매일 8. 20)
* 시, 무지개운동 활성화 위해 민영주차장에 협조공문 보내, 민영주차장 참여 적고 적용폭도 제각각이라 대혼란 예고(부산매일 8. 20)

8. 20　* 환경부, 지자체 상수도부채 3조 상회, 부산 3천2백억, 전국 시도 중 4번째(부산 8. 20)

부산시 상수도 부채액 변화

구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평균
부채액(백만원)	248299	274993	303164	326904	325247	295721
변화율(%)	-	10.8	10.2	7.8	-0.5	7.1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중소기업 자금난에 3백억 특별지원, 다음달 13일까지(부산 8. 20)
* 생곡쓰레기반입 정상화(국제 8. 20)
* 금정구청, 아시안경기장 예정지, 보상노린 비닐하우스 난립(부산 8. 21)
* 해양수산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신항 컨테이너공단 위탁 무산, 재경원 등 관계당국 명분없이 처리 미뤄(부산매일 8. 21)
* 가야고가로 둘러싸고 개금주공주민과 부산시 대립, 주민도로점거 시위에 전원 연행(부산매일 8. 21)
* 시, 해군작전구역 침매터널 건설 합의, 거가대교 내년 착공, 민자투자, 2004년 완공예정(부산 8. 21)
* 시, 금정구청, 아시안 경기장 건립 마찰, 농민-부산시, 농민 "지적고시도 안 해 놓고 웬 농사방해(국제 8. 21)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신평・장림공단 수출・생산 내리막길, 작년비해 각각 17%, 3%나 하락(부산매일 8. 21)
* 시, 구・군 무허건물・불법주차 모르는 척, 선거용 선심행정 의혹, 올 상반기 적발건수 작년 비해 37% 감소(부산매일 8. 21)
* 재경원, 시, 교통공단 시 이관 본격화, 2조3천억 부채 정부 전액 부담 조건(부산, 국제 8. 21)
* 제2부산대교 공사입찰 연기, 문시장, 지역 업체 보호 결단…경제 활성화 도모(시보 8. 28)

8. 21　* 시, 택시사업 첫 시민감사 청구, 참여연합 시에 제출, 수입금 전액관리제, 차양도 등 감독(부산 8. 21)
* 시, 충렬로 동래고 구간 확장 본격화, 시교육청・학교측 담장철거 수용, 10월 마무리하기로(부산매일 8. 21)
* 조달청, 제2부산대교 입찰 무기연기, 시 조달청에 지역업체 지분 40%이상 요구, 지역회사 참여율 높이기 위해 10여일 늦춰(부산, 국제, 부산매일 8. 21)
*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안 유해성 적조 비상(부산매일 8. 22)
* 부산상공회의소, 백화점 독주 속 할인점 급성장, 수입품 매출 최고 500% 신장(국제 8. 22)
* 북구청, 낙동강 지류 오염 심각, 북구관내 7곳 BOD 기준치 초고(국제 8. 22)
* 시, 아시아드선 교통대책 발표, 연산로터리 등 우회로 내년 착공(국제 8. 22)
* 해운대구청, 장산 폭포사계곡 일대 삼림욕장 개장(부산매일 8. 25)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준 강화, 시 10월부터 식품접객업・호텔・콘도 등(시보 8. 21)
* 9월에 부산올림픽추진위발족, 시 참여 본격유치 활동, 문정수 시장 등 일행 로잔느 9월 IOC총회 참석(시보 8. 21)
* 불법건축물근절대책마련, 조기적발 정비,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시보 8. 21)
* 시민 휴식 공간「가족 산책 공원」조성, 시 올해 20개소 … 2000년까지 174개소 추진(시보 8. 21)
* 97을지연습 시민참관, 각계 300명 초청 시정 출입기자단도 방문(시보 8. 21)
* 거제～가덕도간 연륙교 건설 본격화, 해군 작전 구역 침매터널 건설 합의(시보 8. 28)

* 남구청, 남구청사 건립 급진정, 부경대측 교육부 부지-시유지 맞교환 제안(부산매일 8. 27)

8. 22
* 해운대신시가지 입주민대표회, 아파트 보수 무성의 원성, 집단 항의(부산매일 8. 23)
* 건설교통당정회의, 부산지하철 건실화 계기 강변, 형평성 고려 시추가부담 불가피 강조(부산매일 8. 23)
*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요금인상 로비자금 조성 의혹, 판공비 명목 2억여원 거둬(부산매일, 국제, 부산 8. 23)
* 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 무산 위기, 주민 반발로 처리시설 건립공사 난항(부산매일 8. 23)
* 정부,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 민간유치 잡보 국가사업 추진 검토(부산매일 8. 23)
* 해양수산부, 부산신항 건설사업 중 내년에 착공할 정부공사 가운데 준설토투기장 호안공사를 재정경제원과 협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위탁 시행키로(부산매일 8. 23)
* 시, 공무원 지방세 체납 많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 수개월씩 미뤄(국제 8. 23)
* 시, 부산교통공단을 98년에 부산시로 이관하자는 결정 반발, 부산지하철 건설 차질 불가피(부산 8. 22, 부산매일, 국제 8. 23)
* 시, 일반장애인도 복지시설 무료 입소(국제 8. 23)
* 시, 북구청, 내달부터 지하철 3호선 공사, 만덕로 교통지옥 예상(국제 8. 23)
* 사하구 감천1동 주민들, 감천중앙부두 중장비 불법 주차(국제 8. 23)
* 부산지방노동청, 부산·경남 퇴직금청산 대거 유보, 8천여 근로자 126억원 못 받을 판(국제 8. 23)
* 각 구청, 부산 군·구의회 의정단 협의회 소속 의원 15인 예산 편법 사용해 일본 방분 예정(부산 8. 23)

8. 24
* 부산지역 금융기관, 5개 종금사 해태그룹에 대해 부산 여신액의 70%넘는 1천500억 대출(부산매일 8. 25)
* 북구청, 시 건설본부 택시휴게소 불법 건축, 덕천 2동 도시공사부지 소유권 이양 안 받고 공사 강행(국제 8. 25)
* 부산·울산·경남 중소기업, 추석자금 확보 비상(국제 8. 25)
* 2008년 올림픽 부산유지 시민공청회, 2008년 올림픽 유치의 경제적 타당성과 파급효과 발표, 2천억 흑자 예상(부산매일 8. 26)

8. 25
* 해운대구청, 해운대구 인구증감추세 조사, 택지개발 등 영향으로 매년 2만~5만여명 증가(2000년엔 14만세대 48만명 예상(부산매일 8. 25)
* 시, 유명 음식점 검사, 냉면 육수·팥빙수·쉐이크 등 불량식품 48건 적발, 대장균 우글우글(부산 8. 25)
* 시, 녹지공단에 아파트형 공장 추진, 지상 5층 연면적 7천2백평 규모, 예산 1백83억투입(부산 8. 25)
* 시, 시립미술관 개관 준비 본격화, 공청회, 시민여론조사 등 움직임 활발(부산 8. 25)
* 남구청, 대연4동 현대아파트 신축공사장, 소통대책 없이 가스관 굴착 강행(부산 8. 25)
* 가덕도 주민, 식수난 고통, 상수도 시설 없어 물 기근 장기화(부산 8. 25)
* 강서구청, 김해공항 불법영업 사설 주차장 8곳 폐쇄(국제 8. 25)
* 부산지역 종합병원, 부산 장기밀매행위 성행, 3개 브로커 조직 전국 연계 활동(부산매일 8. 26)
* 해운대구청, 달맞이길 무단증축 단속, 대형식당 40곳 대상(국제 8. 26)
* 시, 선물거래소 부산유치 막판 총력전, 집중 로비(부산매일, 국제 8. 26)
* 시, 건축물 경관 심의 더욱 강화, 관리기준·지구지정 등 대책 마련(부산 8. 26)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부, 부산교통공단 인수 손익분석 및 투자계획 등 미흡, 불신 가중(부산 8. 26)
* 건교부 도시철도위,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 확정, 호포~북정 11km, 경전철 노선도 결정(부산 8. 26)
* 시, 하나로카드 부분시행, 내달부터(부산 8. 26)
* 공동브랜드 출자포함 모두 11개 안건 다뤄, 부산시의회 8월 25일~9월 3일 시, 무지개운동추진상황·바다축제 개선방안보고(시보 8. 28)
* 2008년 올림픽 유치 4단계로, 시 1단계 9월 로잔총회 문시장 등 관계관 파견(시보 9. 4)
* 대규모 신축건물 경관심의 강화, 시 내년부터…국제행사 대비「미관정비」일환(시보 9. 4)

8. 26
* 부전역일대 21세기형 첨단도심으로, 역세권개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시보 9. 4)
* 부산시 현안 추진상황 점검, 시의 제67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별로(시보 97. 9. 4)

8. 27
* 해양수산부 장관, 감천항 비관세 물류기지 육성, 원양어획물 보관·단순가공 재수출(국제 8. 27)
* 부산시의회, 6개 상임위 열어 정책 질의, 교통공단 시 이관 집중 추궁, 생곡매립장 분쟁재발방지책 있나, 지역의보 적자, 부실운영 개선 촉구, 부산시 택지개발 지지부진(국제 8. 27, 부산매일 8. 28)
* 영도구청, 청학모자원 대표, 사회복지기금 23억 회사자금 유용(부산매일, 부산 8. 27)

* 시, 사하구청, 신평소각장대책위, 부산환경개발(주), 긴급 간담회, 환경평가 및 성능검사 후 시험가동하기로(부산, 부산매일 8. 27)
* 국제종합도건, 최종 부도, 어음 71억 못 막아, 200여 하청업체 피해 우려(부산매일 8. 27)
* 사하구, 을숙도일대 불법행위에 따른 단속인력 부족(부산 8. 28)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시의회-시 수영만 시유지 특혜 공방(부산 8. 28)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송업체 실태조사, 현장검증 없이 자료만 의존, 부실 우려(부산매일 8. 28)
* 해운대경찰서, 송정공영주차장 요금 횡령 수사(부산매일 8. 28)
* 시, 지하환경 조사, 지하철 대기오염 심화, 서면역 등 7곳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국제 8. 28)
* 부산경찰청, 부산 조직폭력 고개, 재건・신흥 세력 규합, 경찰 경계 강화(국제 8. 28)
* 낙동강환경관리청, 부산지역 초등교 대기오염 극심, 아황산가스 등 기준치 배 이상 검출(부산매일 8. 28)
* 해운대구청, 수영～해운대 호안도로 1.5km, 교통대란 조짐, 도로변 3곳 초고층 건물 건립(국제 8. 28)
* 부산시 의료계, 장기밀매 병원도 개입 의혹, 시술과정 알고도 묵인(부산매일 8. 28)
* 2008년 올림픽 부산유치 발기인 대회(부산시정 8. 27)

8. 28
* 철도건설본부, 동해남부선 일광～남창간 19.5km 구간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 예정(국제 8. 19)
* 감만 현대아파트, 수도관 교체 부실시공, 흙 등 이물질 유입, 천3백세대 물 고통(부산 8. 28, 부산매일 8. 29)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강서구청, 가덕 신항・녹산 수송로 차질, 강서성고개일대, 주민발파 작업 반발, 문화재 발굴 지연(부산 8. 28)
* 남구청 건축위원회, 건설업자 위원겸임 물의(국제 8. 28)
* 해양수산부, 부산항 하역량 2.3% 증가, 경기침체 불구, 부두민영화 영향(부산 8. 28)
* 부산지방기상청, 부산전역 복사냉각 현상, 항공기 무더기 결항・지연(부산매일 8. 29)
* 시, 신시가지 우회도로 공사 감리단, 신시가 우회로 무리한 공기단축 독촉, 시공사 철야계획(부산매일 8. 29)
* 부산지방항공청, 김해공항 활주로공사 위한 대형시설 설치, 이착륙 장애 예상(부산매일, 국제, 부산 8. 29)
* KIST 전국 35개 정수장 조사, 낙동강 수계 정수장 수돗물 비상, 유해물질종류 2배 많아(국제 8. 29)
* 서구청, 체납자 예금 강제 인출, 40여명 대상, 예고장 발송(국제 8. 29)
* 장안읍 주민, 좌천역 이전 반대, 새후보지 개발 불가한 곳(부산 8. 29)
* 부산지법, 파산한 회사의 노동자, 퇴직금 우선 변제 보류(부산 8. 29)
* 시, 특혜분양 의혹, 수영정보단지 내 시유지 1만평 현대에 영구 제공(부산매일 8. 29)
* 시, 부산지역 금융기관, 시민단체, 국제종합토건 회생 앞장, 관계기관 긴급 간담회(국제 8. 29)
* 시, 부산시 행정소송 패소 늘어, 부당처분, 처리상 과실 많아 작년비 4.8%(국제 8. 29)
* 시, 자체감사, 징계 대대적 추진, 특혜, 근무 태만 공직자 대상(부산 8. 29)
* 일선 구・군, 주차단속권 시 환원 강력 반발, 기초단체 권한・자율성 대폭 축소 우려(부산매일 8. 29)
* 시책추진 우수사례 발굴 구・군에 파급, 시 읍 면 동서 지역특성 맞는 행정봉사 찾아(시보 8. 28)
* 추석 성수식품 위생 점검 강화, 시 제주 선물용품과 저질원료사용 등(시보 8. 28)
* 「홈 닥터제」 호응 좋은 것으로 나타나, 시 폐수배출업소 133개소 처리공정지도(시보 8. 28)
* 장애인복지시설 무료입소 확대, 시 전국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전면개방(시보 8. 28)
* 지하철 3호선 공사구간 교통대책 마련, 시 연산 로터리 등 우회로 내년착공 교통체증 심한 11개구간 조기 개설(시보 8. 28)
* 아시아경기 주경기장등 주요사업 현장을 살펴, 문시장 사직～초읍 도로공사도(시보 8. 28)
* 「시민과 대화의 날」 개최, 문정수 시장 참석 애로사항청취(시보 9. 4)

8. 29
* 해운대구청, 수영만 축구장 건립문제, 대우 수익시설 규모 축소 의사로 해결 전망(부산 8. 29)
* 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신청사 이전 예산 50여억원 투입(부산 8. 29)
* 부산지방노동청, 추석 밑 체임 468억원, 전국 총액의 24%, 한달새 66% 늘어(부산매일 8. 30)
* 부산시종합건설본부, 명지소각장 건설 마찰 심화, 시 공사강행에 주민 저지 실력행사(부산매일, 부산 8. 30)
* 재정경제원장관, 부산교통공단 시 이관 불면(부산매일 8. 30)
* 기장군 쓰레기 수거차 전복 소동, 3시간동안 차량통행 전면 차단(부산매일 8. 30)
* 장애인단체, 시에 택시회사 취업약속 이행 촉구, 시청 항의 방문 등(부산매일 8. 30)
* 기장군, 고리원전 주민 방사능 누출 무방비, 인근 4천200세대에 방호복 겨우 6벌 뿐(부산매일 8. 30)
* 부산경찰청, 조직폭력배 일제 단속(부산매일 8. 30)

* 시, 부산지역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대상으로 토양오염도 측정, 토양오염, 시민여객 저가주유소, 부광화학공업(주), 태양주유소, 구민석유 등 기준치 초과, 복원지시(부산매일 8. 30)
* 부산진구청, 계획도로부지 특혜성 해제 물의, 체증 예상되는데도 대형할인점 신축 허가, ㈜한국마크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고시(부산매일, 국제 8. 30)
* 한국증권거래소, 부산·경남 상장사 재무구조 악화, 12월 결산 상장기업, 전년비 매출 2%증가, 부채는 15% 껑충(부산, 국제 8. 30)
*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자문회의, 부산정보단지 기형화 우려, 유통·관광시설 중심배치, 땅장사 급급 비난(부산 8. 30)
* 통계청, 부산경기 회복세, 7월 중 생산·출하지수 소폭상승, 0.9% 증가해 80.0(국제 8. 30)
* 남부교육청, 수성초등학교 내달 재건축, 500여명 더부살이 수업(국제 8. 30)

8. 30 * 부산관광개발(주),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에 지사단지 내 25만평 할애 요청, 토지공사 수용불가 방침(부산 8. 30)
* 시, 신청사 집기구입 비용 축소(부산 8. 30)
* 부산지방노동청, 부산·경남 체임 4백67척, 백22개 업체, 만2천명, 한달새 65% 급증(부산 8. 30)
* 재경원 부산국비 지원안, 2조9백억 신청에 1조5백억 반영(부산 8. 30)

사업별 예산내역 (단위 : 억원)

사업명	98년 부산시 신청	재경원 조정안
-시소관사업		
부산의료원 신축 이전	100	70
주경기장 건립	150	90
금정제1경기장	224	224
강서제2경기장	110	110
기장제3경기장	67	67
조정·카누경기장	88	88
사격경기장	60	60
사직~초읍간 도로	200	200
연산R~고속터미널간 도로	250	250
어린이대공원~하마정간 도로	150	150
지방체육시설	38	6
아시안게임조직위운영비	20	20

사업별 예산내역 (단위 : 억원)

사업명	98년 부산시 신청	재경원 조정안
-중앙부처사업		
지하철1호선건설운영	4018	2114
지하철1호선운영	2653	1374
지하철2호선건설	1083	575
지하철3호선건설	282	165
김해공항활주로확장(1단계)	395	344
김해공항국제선확장(2단계)	394	183
동해남부선복선전철	815	200
녹산공단집입도로	125	124
녹산공단배후도로	280	276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	43	253
낙동강교건설	244	177
낙동대교 IC건설	200	200
부산~김해간경전철	94	94
부산신항만건설	4684	1800
부산항건설	1667	821
-민간단체사업		
둔치도연료단지 건설	187	143

* 시, 부산광역 교통망 장기표류,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부산~울산, 부산~마산간 전철 건설 등, 예산단과 정부 무관심 주요인(부산 8. 30)
* 시, 기장군, 정관신도시 중앙 부처간 협의 안 돼 택지지정 지연(부산 8. 30)
* 부산대, 부경대, 해양대, 교수 안식・연구년제 확대(국제 8. 30)
* 전 국토 대청소 실시, 시 피서철 뒷정리… 산・계곡・해수욕장등(시보 9. 4)

9. 1
* 부산경찰청, 뺑소니 전담반 운영(부산 8. 30)
*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견학코스 만들어 일반 개방(국제 8. 30)
* 전 국토 대청소 실시, 시 피서철 뒷정리… 산・계곡・해수욕장 등(시보 9. 4)
* 한・일 테크노마트 부산행사(부산시정 9. 1)
* 부산맹학교 신축 이전 개교(부산교육 9. 1)
* 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 전담수사반 발대(경찰사 9. 1)

9. 3
* 2008 올림픽 부산유치 '총력' 스위스 로잔 IOC총회 참석, 문정수 시장일행 9월 3일~ 9일(시보 9. 4)
* 총12건 의안 중 9건 수정・원안통과(시보 9. 11)

9. 4
* 97 한일 테크노마트 부산개최, 공동발전과 수평적인 기술협력의 토대(시보 9. 4)
* 폐수자동측정망 확대운영, 수질오염사전예방, 쾌적한 환경조성(시보 9. 4)
* 「젖은 쓰레기 배출억제」 홍보강화, 시 9월 1일부터 생곡매립장 반입 금지 방침 따라(시보 9. 4)
*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나서, 시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값 오름세 추세(시보 9. 4)
* 교육위원회 제2대 2기 의장단 선출(강숙자 의장)(부산교육 9. 4)

9. 5
* 시정동정,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9월 5일 현대자동차 서비스에서 9월부터 시판 하게 될 국민차 ATOS의 부산지역 신차발표회 참석축사(시보 9. 11)

9. 6
*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개관(부산시정 9. 6)

9. 11
* 「시민감사관제」 도입운영, 시 무보수명예직…감사모니터 역할 부여(시보 9. 11)
*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단속 본격화, 시 10대청소년 고용 유흥업소 등 대상(시보 9. 11)
* 지방세 체납액 1,800억원, 시 올 상반기…취득・주민・자동차세(시보 9. 11)
* 2008년 올림픽 부산유치 "청신호", 문정수 시장 사마란치에 요청…긍정 답변 받아(시보 9. 11)
* 추석맞이 시민생활 안전 종합대책, 시 상황실 운영 안전사고 예방 등(시보 9. 11)

9. 17
* 통계청, 부산물가 상승률 전국 최고, 95년 지방자치제 실시 후 더 악화, 10.7%, 서비스료 상승이 주원인(부산, 부산매일, 국제 9. 18)
* 시, 생활편의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할 예정, 강서구와 기장군, 금정구 등 법률 검토 작업 시작(국제 9. 18)
* 부산경찰, 금은방털이 올 8곳 도난, 1건도 해결 못해(국제 9. 19)

9. 18
* 시 상수도사업본부, 금정구청, 무허가공장에 의해 회동수원지 오염, 정화시설 없이 오폐수 방류(부산매일 9. 19)
* 해양수산청, 부산항 장기체화 처리 골치, 일반부도 8천7백여톤 3개월 이상 방치(국제 9. 19)
*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 녹산공단 평당 58만2천원 확정(부산매일, 국제 9. 19)
* 부산공정거래사무소, 부산소비자 유명브랜드 업체 상품 지방공급 꺼려, 백화점 물량 확보난(국제 9. 19)
* 주은부동산신탁, 부전동 지점 본격 업무(부산 9. 19)
* 시, 쓰레기 투기 단속활동, 72건 적발, 과태료 4백80만원 부과(부산매일 9. 19)
* 부산지방국세청, 강서・기장 등 그린벨트 투기 감시, 전담단속반 투입, 적발 시 정밀세무조사 실시(부산매일 9. 19)
* 재정경제원, 공공요금 인상 내년 봇물, 철도 10%, 부산 수도료 15% 올려(국제 9. 19)
* 영도구청, 동삼2지구 아파트 진입도로변 옹벽 1년만에 철거, 동삼동 해안도로 보수 시급(국제 9. 19)
* 시, 금정구청, 버스터미널 이전 가시화, 건교부 긍정검토, 노포동 기지창 일대 현장답사(국제 9. 19)

9.19
* 전문가들, 부산 남천항 선착장 기능 잃었다, 파도 충격 흡수할 테트라포드 부실(부산매일 9. 19)
* 시, 하나로카드 22일부터 확대, 4만장 추가 판매(부산 9. 19)
* 시, 새청사에 집단 시위공간 생긴다, 시민광장, 회의실 등 조성(부산 9. 19)
* 해운대구청, 공영주차장에 견본주택 부지 유상임대, 특혜지적(부산 9. 19)
* 시, 행정절차 간소화 위해 신평・산업단지 업무 자치구에 위임(부산 9. 19)
* 부산시교육청, 실업계고교 존립기반 흔들, 상고 최고 93% 대입 희망, 고학력 선호, 취업난 부딪혀(부산 9. 19)

* 건설교통부, 부산~언양고속도로 6차선 확장, 2003년 완공 예정, 남해고속도로 내서~냉정(부산 9. 19, 부산매일 9. 20)
* 시, 내달부터 민원서류 간소화(부산 9. 19)
* 시, 통반장 대선운동 사양 추세, 지지후보 미결정(부산 9. 19)
* 부산시립박물관, 강서구 녹산동 일대 옹성문 양식 원형 그대로 발굴(부산매일 9. 19)
* 시, 기초단체 문화유산의 해 사업 추진상황 평가, 최우수 수영구, 우수 동래구, 중구(부산매일 9. 19)
* 시, 부산정보단지 조성사업 본격 착수, 사업변경안 확정 고시, 전시·문화시설 대폭 확대(부산매일 9. 20)
* 부산시교육청, 해운대 신시가 중학생 전출, 고입 내신 높이려 전입 6개월도 안 돼 빠져나가(부산매일 9. 20)
* 시, 소관사무 145종, 구 군소관 사무 189종 등 모두 334종의 민원업주 처리기간 대폭 단축키로, 전체 민원사무 1천2백37종의 27%(국제 9. 20)
* 시, 하나로카드 거래실적 총 5만7천8백36건, 대중교통 연계대책 시급(국제 9. 20)
* 부산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부산협의회, 자원봉사자 못 구해(국제 9. 20)
* 시, 주상복합건물 79개소 안전관리실태 점검 조사, 63개소 균열·가스누출 등 안전 심각(국제 9. 20)
* 시, 일선 구군청, 교통유발금 대상업소 작년 기준 4천7백여 곳, 부과액은 37억여원,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 30~50%인상, 항의빗발(부산매일 9. 20)
* 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박차, 사격장 등 5개 종목 시설결정 도시계획안 통과(부산매일 9. 20)
* 시, 영도다리 철거 재검토, 롯데측 민자유치 재가설 타진(부산 9. 20)
* 일선구군, 전화예약 민원서류 20% 폐기, 안 찾아가는 경우 많아 행정력 예산낭비(국제 9. 20)
* 부산 제2회 국제영화제 카운트다운, 시 서울서 국내외 영화계 인사초청 설명회(시보 10. 2)

9. 20
* 주한영국문화원, 제2회 영국영화제 개최, 20~22일(부산 9. 19)
* 지방항공청, 김해공항 항타작업으로 착륙가시거리 상향조정, 결항 잦을 듯(부산 9. 20)
* 여야총무회담, 내달 1일 부산시·경찰청 국감(부산 9. 20)
* 부산지검, 학원폭력 근절 추진본부 발족, 학원폭력 소년범죄 적발 시 기소 원칙, 우범지역 단속 강화하기로(부산매일, 부산 9. 20)
* 부산공예협동조합, 아시안게임 특수 노린다, 부산지역 대표 관광상품 개발, 협동화단지조성 추진(국제 9. 20)
* 시, 부산지하수맥 지도 만든다, 내년부터 3년간 30억 투입(부산 9. 20)
* 재정경제원, 부산 제2증권거래소 설립 무산(부산 9. 20)
* 시, 환경·교통부담금 인상, 최고 56% 늘어 큰 부담, 행정편의 발상이라는 의견(부산 9. 20)
* 한국은행 부산지점, 중소기업인 체감경기 최악, 부산지역 2년간 비제조업업황 BSI, 제조업업황 BSI, 비제조업매출증가율, 제조업매출증가율 모두 하락세(부산 9. 20, 부산매일 9. 22)
* 영도도서관, 새마을중앙협의회 등 4개 단체 무상입주 특혜(부산 9. 20)

9. 21
*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3호선 내년 초 착공 불투명, 우회로역 덕천천 복개지연, 강행 시 교통대란(부산매일 9. 22)
* 부산지법, 7월말까지 채무 갚지 못해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 건수 3천6백11건, 지난해보다 25.9%증가, 낙찰률도 30%에 달해(부산매일 9. 22)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접수사건 대부분 기각, 부당행위·해고구제 신청 등 17%만 인정(부산매일 9. 22)
* 시, 아시아드 민속촌, 영화촌 난항, 그린벨트 내 추진에 건설교통부 반대(국제 9. 22)
* 시, 부산국제신발전시회 내실화, 11월 6일~9일 개최, 유명브랜드 공동부스 설치 수출 상담(국제 9. 22)
* 일선구군청, 다음달 중순까지 기초단체마다 10여건의 문화 예술축제 계획(부산매일 9. 22)
* 부산시주차관리공단, 불법주정차로 견인된 차량 1만8천여대, 대형차는 210대에 불과, 장비부족 이유로 대형차는 방치(국제 9. 22)
* 시, 다대포개발 재추진, 앞바다 58만평 매립 항만·공단 등 조성, 백지화 1년만(국제 9. 22)
* 부산지역 경찰서, 법의나 공의로 활동 중인 의사 11명일 뿐, 각 경찰서당 1명도 확보 안 돼(국제 9. 22)
* 현안사업현장점검, 문시장 명지주거단지 비롯 국제 영화제 준비사업 등(시보 10. 2)

9. 22
* 시, 96년 12월말 통계로 작성한 '6대 도시 주요통계 비교지표', 부산 식품위생업소 40,941개소, 공중위생업소 18,045개소, 최대 소비도시 방증(부산매일 9. 22)
*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올 상반기 상담건수 총 1백54건 중 중국이 30건으로 가장 많고 신발 관련 상담이 느는 추세, 중국 현지파트너 사기와 횡포로 철수업체 증가(부산 9. 22)
* 한국공항공단, 김해공항 출입국시설 확충요구, 검색장비 낡고 부족, 국제선 증설·화물증가 감당 못해(부산 9. 22)

* 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시내 도로표지판 바뀐다, 크기 확대, 노선명기 내달 1차 발주(부산 9. 22)
* 시, 역세권 주차장 내년 확충, 부산지하철 2호선 냉정 등 주변역(부산 9. 22)
* 일선 구군청, 97부산포축제 맞아 자치구별로 축제 예정, 비슷한 내용 많아, 내년 선거겨냥 의혹도(부산 9. 22)
* 부산지검, 동사무소 명의의 공용신용카드 이용해 2천만원 인출한 동사무소 직원 수사(부산 9. 22)
* 시, 사무관 승진방식 변경, 통합명부식 서열 확대 건의, 자치구, 인사권 유명무실 우려 반발(부산 9. 22)
* 지역건설업체, 부동산신탁사 대행공사 급증, 부산만 15곳 진행(부산매일 9. 24)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편의점 실태조사, 부산 편의점 시장성 전국 최고(부산매일 9. 23)
* 시, 97회계 결산, 지난해 8천억원 집행 못하고 이월(부산매일 9. 23)
* 강서구청, 명지소각장 건립 조건부 동의, 주민 협의, 다이옥신 저감시설 추가 설치 증 전제(부산매일 9. 23)
* 부산상의, 지난 7월 기준 물가상승률 6.3%로 전국평균보다 비싼 탓, 가중치 높은 식료품 값(부산매일 9. 23)
* 시, 택지개발계획지구 변경, 부산 내년 택지 23만평 개발, 부산진 사상 금정구 등 3개 지구 잠정 확정(국제 9. 23)
* 시, 부산에 관광유람선 뜬다, 200명 승선 규모(국제 9. 23)
* PIFF 예배 시작, 첫날 체리향기 매진돼 모두 1만8천장 팔려(국제 9. 23)
* 기관(학교) 현장 평가 실시(~10. 31)(부산교육 9. 22)

9. 23
* 사하구청, 공유토지 분할 본격화, 감천2동 13-19 등 4필지 1만1천여평 우선작업(부산매일 9. 23)
* 시, 부산지하철 3호선 노선 확정, 강서와 대저동까지 연장(부산매일 9. 25)
* 동부경찰서, 장례업무 대행 부당이득 혐의, 부산상조 압수 수색(부산매일 9. 23)
* 시 내달 국감 답변자료, 수도료 13.6% 인상, 생산원가 못 미쳐 적자 7백14억(부산 9. 23)
*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지자체 7개소 추가 건설 중(부산 9. 23)
* 사하경찰서, 급커브 6차선 다대로 윤호 속출(부산 9. 23)
* 시,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한 건축사 31명 적발, 1개월~4개월간 업무정지(부산 9. 23)
* 시, 부산교통공단 내년초 조기이관 불가피, 18개 시민단체 졸속추진 대책마련 나서(부산매일 9. 25)
* 시, 고지대 재개발 사업에 반대급부 부여, 개발권 이양제도 적극 추진, 저지대 규정밀도 이상 고밀도 개발(국제 9. 24)
* 해양수산부, 연안해송 활성 대책, 자성대부두 65번 선석 일반하역 요율로 전환, 기존보다 30% 저렴, 내항선 외국인 승선 허용(국제 9. 24)
* 금정구청, 그린벨트 내 터미널 건립 요청(부산 9. 24)
* 국회통산위, 부산종합전시장, 예산 집행률 4.9%, 634억중 30억 불과, 사업축소 등 추궁(부산 9. 24)
* 시, 시종합건설본부, 낙동강 주말농장 두고 갈등, 관할 사상구, 시 계획 현실성 없다며 강력 반대(부산매일 9. 24)
* 시, 오는 2000년까지 부산재개발기금 1천억대로 확충(부산 9. 24)
* 시, 새청사 위탁관리업체 자격요건 강화, 지역업체 참여 원천 봉쇄(부산 9. 24)
* 부산동부경찰서, 부산상조 관련업소 압수수색, 계좌 입출금 명세 조사키로(부산 9. 24)
* 부산시교육청, 547개교 학사업무 전산화, 초중고교 전산망 구축(국제 9. 24)
* 부산경찰청, 기장군에 미니경찰서 운영, 1개 대형파출소가 3개소 지휘(국제 9. 24)
*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 자가운송 컨테이너 업체 관리비 신설 반발(부사매일 9. 24)
* 사하구청, 장림매립지 녹지축소 말썽, 낙동강 환경청 승인없이 2100평 줄여(국제 9. 24)

9. 24
* 부산해양경찰서, 소형어선 선원 안전교육 엉망, 사고 많아도 강제규정 없어(부산매일 9. 25)
* 시종합건설본부, 명지쓰레기소각장 건립 합의 실패, 주민 실력저지 밝혀, 시 공사 강행하기로(부산매일 9. 25)
* 부산지법, 교통사고 양형 통일 본격화, 전담재판부 별도 구성, 뺑소니 등 신속 처리(부산매일 9. 25)
* 해양수산부, 시, 부산 북항 횡단도로 건설사업 난항, 군부대 이전 놓고 해군과 이견, 착공 지연(부산매일 9. 25)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스포츠행사와 연계한 부산지역 수출확대방안(국제 9. 25)
* 네덜란드 항만연구단체, 부산항 운영 수출입 화물 중심으로, 시설 모자라 환적물 유치 역부족(부산매일 9. 25)
* 부산지방경찰청, 문현교차로 시내서 교통 최다 지역, 올 들어 280건 발생, 267명이나 사상(부산매일 9. 25)
* 시, 대형공사 설계감리 부실 우려, 뇌물업체 독점 낙찰, 검찰, 지하철 2·3호선 맡은 삼안·도화 등 수사 확대(국제 9. 25)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제2부두와 중앙부두 확장공사 추진하며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기초교통 수요 예측 등 잘못된 용역 결과(부산매일 9. 25)

9. 25
* 동아시아 경기대회 기념 사료실 설치, 시 신청사내 행사용품 등 820점 전시(시보 9. 25)

* 정보 인력 양성 단지 만든다, 인재육성위해 정보통신연구원 모집…학력·성별 제한 없어 50명 선발(시보 9. 25)
* 민원처리 기간 단축·첨부서류 삼축, 시 10월부터 시·구·군 소관 총 386종(시보 9. 25)
* 부산시민 올림픽 부산유치 80% 찬성, 경제 활성화 기대·차량 2부제 적극 참여 표명(시보 9. 25)
* 시, 부산 6개도로 개명, 장춘로, 쇠미로, 구남로, 장산로 등, 동·광장지명도 새 이름 부여키로(국제 9. 26)
* 시, 선물거래소 유치위해 나서, 법인새 50% 감면 등 혜택 제공, 전담팀 구성 추진(국제 9. 25)
* 부산지검, 도박판 강도사건 단순폭행으로 축소 수사, 청탁받은 경찰관 둘 수배(국제 9. 26)
* 부산시교육청, 학생수용 및 교사수급 장기계획 마련, 고교 과밀수업 99년 이후 해소(국제 9. 26)
*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지역 부도회사 근로자 1천여명 피해 예상, 퇴직금 우선변제 축소, 노동계 항의집회 계획, 중간 정산제 등 추진(국제 9. 26)
* 부산교통공단 국감자료, 지하철 구내 안전사고 급증, 93년 이후 25건 발생, 12명 사망(국제 9. 26)
* 전국 경제인 연합회, '항만의 경쟁력 제고 과제' 보고서 제출, 항만자치공사 신설해 인사재정권 등 부여하라(국제 9. 26)
* 김해공항, 또 활주로 사고, 착륙 항공기 빗길에 미끌(부산 9. 26)
* 부산교통공단, 부산지방경찰청 제출 국감자료, 부산 지하철구내 자살 늘어, 최근 2년간 10건 발생, 사상사고 중 92%가 투신(부산매일 9. 26)
*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 항로변경계획에 따라 41억3백만원 투입, 항로준설공사 다음달부터 시행(부산매일 9. 26)
* 시, 부산시 빚 1조5천억, 사상 최고, 내년에도 800억 차입으로 재정압박 더 심화(부산매일 9. 26)
* 부산진구청, 체감행정 실현에 초점, 편의시설 확충 등 내년 업무계획 마련(부산매일 9. 25)

9. 26
* 부산올림픽 유치위 발족, 시 2008년 내년정부에 승인신청(시보 10. 2)
* 시정 동정, 문정수 부산시장은 9월 26일 오후 6시 KBS 부산홀에서 개최된 부산 콜렉션 및 패션디자인 경진대회에 참석 축사(시보 10. 2)
* 제68회 시의회임시회 열어, 10월 6일~20일까지 15일간 지난해 시 예산 결산 등 다뤄(시보 10. 2)
* 시, 내년도 시예산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편입될 재산매각수입, 1천1백50억원, 내년 재정난 가중될 예정(국제 9. 27)
* 시, 국가경쟁력 향상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행정규제개혁 대상 과제 발굴사업 추진, 내달말까지 행정규제개혁 모색(부산 9. 26)
* 시, 음식 쓰레기 감량 정착 난망, 퇴비 제조업체 아직 못 구해(부산 9. 26)
* 시, 개발계획안 변경, 명지주거단지 분양가 인하, 평당 20만원 이상 내릴 듯, 3만6천㎡ 공동주택에 시설부지 1만6천㎡로 추가지정(부산 9. 26)
* 시, 택시업계 측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미루고 있으나 조치 없어(부산 9. 26)
* 국립동물검역소 부산지소, 수입 미 쇠고기 O-157감염, 1만8천kg 전량 폐기 통보(부산매일 9. 27)
* 시, 아시안게임 인공섬 취소, 예산난, 카누경기장 설계축소 1년 연기(국제 9. 27)
* 정부, 내년도 예산편성안 확정, 국고지원 50%로 상향(국제, 부산매일 9. 27)

부산경남 98년도 주요완공 사업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남강댐건설	87~98	6498
구포~서부산간 고속도로	93~98	1789
함양~진주간 고속도로	91~98	6270
부곡 양산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91~98	1300
김해공항 활주로	87~98	2635
부산항 신선대 투기장(B)	96~98	196
양산 ICD 국도 연결도로	94~98	439
울산항 직항로 개설	94~95	389
울산항 컨테이너야적장 조성	95~98	321

9. 27
* 시 국감자료, 91년 이후 주택 매매가 하락, 전세가 상승, 전세값 연평균 3~5% 올라, 매매가는 1~2% 내려(부산 9. 27)

9. 28 * 시, 부산 5천여가구 미준공 아파트 재산권 피해 속출, 시공사 부도 등으로 소유권 이전 못해(부산매일 9. 29)
* 부산종합화물터미널, 터미널 제기능 못해, 5만평 중 1만5천평 미조성, 임대 안 돼(국제 9. 29)
*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대리점협회 부산지부, 부산항 준설에 항로폐쇄 웬말, 입출항 차질 사고 우려 들어 공법 변경 촉구(부산 9. 29)
* 부산경찰청, 경찰 오토바이 애물단지, 인력부족, 교육미흡으로 창고 방치, 예산낭비(국제 9. 29)
* 부산상공회의소 상임의원, 민주당 조순 총재에게 선물거래소, 자유항 지정 등 공약 반영 요구(부산매일 9. 29)
* 건설교통부, 아파트값 하향 안정세, 부산지역 미분양 주택 1만가구 넘어(부산 9. 29)

9. 29 * 부산보건환경연구원 국감자료, 지하철역 공기오염 매년 악화, 먼지 중금속 등 대부분 기준치 초과(국제, 부산매일 9. 30)
* 시, 적자 공원사업 대책 시급, 부산 금강 등 3곳 경영수지율 불과 41%(부산 9. 29)
* ㈜해강 환경영향평가, 정보단지 착공 시 피해 심각, 수영만 오폐수 유입, 인근 주택가 소음(국제 9. 30)
* 부산진구청, 범천4동사무소, 사유지 무단점유, 19년간 인근 17평사용, 손해보상(국제 9. 30)
* 부산시교육청, 수업료 못내는 중고생 급증, 지난해 동기에 비해 10% 증가해 230명(국제 9. 30)
* 시, 건설교통부 제출 국정감사자료, 94년 이후 그린벨트 무차별 훼손, 5만6천㎡(국제 9. 30)
* 시, 내년 국고보조 1조1천4백억, 올보다 12.4%증가, 사업 총 94건 확정(국제, 부사매일 9. 30)
* 시,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 등, 내년 택지 45만4천평 분양, 명지주거단지 10만평 등 신규공급 33만여평(국제 9. 30)
* 시, 제2부산대교 명칭, 남항대교로 결정(국제, 부산매일, 부산 9. 30)
* 통계청 부산사무소, 재정경제원, 부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국 최고, 9월 작년 같은 달 대비 5.6% 올라(국제 9. 30)
* 한국선주협회, 국적외항선 운임수임 큰폭 증가, 올 100억불 전망, 무역외 수입의 30% 웃돌 듯(부산매일 9. 30)
* 해양수산개발원보고서, 신항만 사업 민자유치 방안 시급(부산매일 9. 30)
*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 7부두 다목적용 변신, 컨테이너, 잡화 등 동시처리, 다음달 1일부터(부산매일 9. 30)
* 철도청, 동래역 민자유치 종합개발사업 본격화, 99년 착공, 역세권 대대적 개발, 2003년 완공(부산매일, 부산 9. 30)
* 부산지역 유통업체, 부산도 o-157쇠고기 유통, 보관물량 긴급수거 검사 의뢰(부산매일, 부산 9. 30)
* 시, 부산시립미술관 새 로고 확정(부산매일, 부산 9. 30)
* 부산시교육청, 중고생 도피성 유학 다시 성행, 대부분 중하위권 성적(부산매일 9. 30)
* 내무위, 오는 1일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 국감 실시(부산매일 9. 30)
* 부산지역 구청, 경영수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직영시설 임대사업 불경기(부산매일 9. 30)
* 시, 문화상 수상자 확정 발표, 인문과학 강위두, 전시예술 김원, 자연과학 최진호, 체육 남태호, 문학 정진채, 지역개발 우용태, 공연예술 배영식, 언론출판 이기술(부산 9. 30)
* 남항대교 건설 기공식(부산시정 9. 29)

9. 30 * 연제구청, 악취공장 적합판정에 의혹, 대상공업 대상으로 맑은 날 낮 검사예정(국제 10. 1)
* 내무부, 부산 성인 연 3.5회로 지나치게 개인정보 조회 당한다, 67% 목적 불분명(부산매일 10. 1)
* 대선 부산 및 경남지역 TV토론회, 이인제 후보, 부산에 국제 금융센터 설립(부산매일 10. 1)
* 시보건환경연구원, 온천천 BOD 기준치 14배 초과, 회생불가, 하수도 전락, 대책 시급(부산 9. 30)
* 건설교통부, 시, 미남~반송 11.2km 반송선, 내년초 착공, 국고 절반 지원, 백86억 배정, 아시안경기 전 개통(부산 9. 30)
* 부산지법, 법무사 3명중 2명꼴 징계, 1년간 비용 과다청구 등 195명 적발(부산매일 10. 1)
* 건교위 국감자료, 부산시 고지대 고층아파트 허가 남발, 지난해 22개 사업장 1만여세대 승인(부산매일 10. 1)
* 환경부 국감자료, 롯데 등 특급호텔 대기오염 주범, 차량 수천대 맞먹는 질소 산화물 배출(부산 9. 30)
* 주택공사, 부산 영구임대아파트 부족, 신청자 1천1백50세대 입주대기(부산 9. 30)
* 강서구의회, 서낙동강 조사특위 구성, 회생책 마련 위해 실태파악 나서 주목(부산 9. 30)
* 부산지법 국감자료, 공무원 사범과 뺑소니 사고 등 지탄범죄 처벌 관대, 석방률 90%, 보석율 66%이상(국제 10. 1)
*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아시안게임 32개 종목 선정, 육상, 수영, 양궁, 배드민턴, 야구, 농구, 복싱, 카누, 사이클, 승마, 펜싱, 축구,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조정, 사격, 탁구, 테니스, 배구, 역도, 레슬링, 근대5종, 요트, 태권도, 정구, 볼링, 세팍타크로, 우슈, 골프(국제 9. 30)

10. 1 * 시, 젖은 쓰레기 잦은 구 반입 금지, 해운대·사하·금정구 3~5일씩 조치, 지역 주민 큰 불편 예상(부산매일 10. 1)
* 둔치도 연료단지 본격 공사, 보상금 등 합의, 지반보강작업 시작(국제 10. 1)
* 시, 부산 현안사업 그린벨트 활용 공식 요청으로 건교부에 경마장 등 아시안게임 경기장 설치 의견 전달(부산매일 10. 1)
* 부산택시노조, 극동운수 이틀째 점거 농성, 택시계약금 반환 마찰 악화(부산매일 10. 1)
* 시, 부산 하수처리율 6대 도시 중 5위로 46%, 올림픽 유치전 환경실사 변수 될 듯(부산매일 10. 1)
*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택시양도·양수제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등 택시제 개선책 국회 제출(부산매일 10. 1)
* 부산·경남 국감, 14개 상임위가, 부산정보단지 세금 특혜 의혹, 지방세 일천억 징수삭제 추궁, 부산 대형사업 졸속 추궁, O-157감염 늑장발표 질타, 기아사태(부산 10. 1, 국제 10. 2)
* 신한국당 국감자료,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초중고교 상당수가 교육환경 최악, 지하수 중금속 검출, 대기 소음공해 심각(국제 10. 1)
* 부산지방경찰청, 국감자료, 경찰 강압수사관행 여전, 영장심사제 도입 후 기각률 5.5%늘어(부산매일 10. 2)
* 부산시 국감자료, 부산시 교량관리 허술, B급 부산대교는 매년 보수, 구포교 등 D급은 방치, 해운대 신시가 하수관로 엉망, 1천1백여건 결함, 재시공 필요(부산매일 10. 2)
* 시, 에이즈 신규감염 올해만 15명, 전국 68% 차지, 보호시설 없고 인적사항 안 밝혀 2차 피해 우려(부산매일 10. 2)
*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부산시정 10. 1)
* 공항기동대 발대(경찰사 10. 1)

10. 2 * 시, 부산시 공무원 직무유기 심각, 92년 이후 공금횡령 등 626명 징계 받아(국제 10. 3)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산 지하철 2호선 잦은 설계변경에 교통공단-업체 결탁의혹(국제, 부산 10. 2)
*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공사 건물피해 심각, 2호선 14개 공구 7백여동, 균열 등 보수비 82억 소요(부산 10. 2)
* 해양수산부, 부산신항만(주), 부산신항사업 좌초 위기, 실시설계 1년 이상 지연돼 2004년 부분개장 불가능, 법인과 조직구성 혼선(부산 10. 2)
* 시, 금정구청, 녹지대주차장 특혜논란(부산 10. 2)
* 동래구청, 해운대구청, 반여 선경아파트 구 경계에 걸쳐 행정구역 조정작업(부산 10. 3)
* 시 국감자료, 부산지방세 비리 501건 적발, 전산화 이후도 여전, 공무원 백4명 징계 등 조치(부산 10. 3)
*「하나로 교통카드」확대시행, 시 수요증가 따라 4만배 추가발행, 1매당 2천원 … 리드기 부착버스 1천여 대 늘려(시보 10. 2)
*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부산시정 10. 2)

10. 3 * 시 국정감사자료, 부산시 대형공사 설계변경 빈발, 작년 1월 이후 예산 2천600억원 추가지출로 낭비(부산매일 10. 4)
* 시, 아파트 무분별 허가 민원 쇄도, 공단 주변 등 주거여건 무시, 입주자-업체 분쟁 속출, 신평 장림 감천항 다대지역 등 집단행동 조짐(부산매일 10. 4)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유지 무단 굴착, 당감동 삼원공장에 통보 않고 작업 물의(부산 10. 4)
* 해운대구의회 96년 예결산심의, 해운대구 7곳 사업소세 누락, 동사무소부지 입찰의혹 제기(국제 10. 4)
* 부산 무선동호인, 부산포축제 전세계에 송신, 민간외교(국제 10. 4)

10. 4 * 하나로카드 이용률 저조, 지하철 1.2%불과, 버스 0.04%(부산 10. 4)
* 한국도로공사-금정구청,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마찰, 도로공사 “체증 극심해 확장 불가피”, 금정구청 “터미널 이전과 배치 반대”(부산 10. 4)
* 신평소각장 대책위, 대화결렬, 중단시위 재개(부산 10. 4)
* 이회창-김대중 총재 주말 대회전, 부산 표심 굳히기 박차(국제, 부산 10. 4)
* 시, 주차장 조례안, 민영주차장에 공문, 무지개운동 참여차량에 주차요금 20% 인하 권유(국제 10. 4)
* 북구청, ‘주차장 조례안’ 의회상대 개정안 무효확인 소송(국제 10. 4)
* 지하철 2호선 구간연장, 부산지하철2호선이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까지 11.1Km(시보 10. 9)
*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방문(부산시정 10. 4)
* 개림초등학교 개교(부산교육 10. 4)

10. 5 * 해양수산부, 부산항 컨테이너 화물 내년부터 직접 반출, 별도 장치장 안 거쳐도 돼 체증완화, 물류비 절감(부산매일 10. 6)
* 시,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 제출, 톨게이트·고속터미널 이전 등 부산 민생현안 줄줄이 장기과제로 넘어가(부산매일 10. 6)
* 제18회 부산시민의 날, 구·군 단위 축제(부산매일 10. 6)
* 부산지검, 불황 틈타 지적재산권 범죄 활개, 1년새 건수 16건 늘고 사범 18% 늘어 76명 구속(부산매일 10. 6)
* 시, 지난달 24일~26일 동안 1백79개 주유소 자동세차시설 단속, 폐수배출 주유소 15곳 적발(부산매일 10. 6)
* 통계청, 부산 전입자보다 전출자 많아, 지난해 18만2천명 이사, 13만4천명 새 시민, 진학 및 취업이 주원인, 25~29세 이동률 최고(부산 10. 6)
* 부산환경운동연합, 8개도시 운전행태 조사, 부산 9개 노선 조사, 635분간 시내버스 경음기 시간당 3만여회 울려, 절반이 정지선 무시, 시민안전 위협(국제 10. 6)
* 시, 함지골수련원, 양정청소년회관, 금련산수련원, 시설 운영 멋대로, 프로그램 성인위주, 강좌 중도 폐강(국제 10. 6)
* 제18회 부산시민의 날(부산시정 10. 5)

10. 6 * 부산시 중남미 시장개척단, 10일 출국, 18일 남아공화국 국제박람회, 20일 일본 수입촉진지역 투자 및 시장개척단, 부산 중소기업 해외진출(부산 10. 6)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아시아나·대한항공 95년 거액 탈세 적발(부산 10. 7)
* 국감자료, 고리 폐기물 관리 구멍, 저장용기 부식, 중수 누출 잇따라(부산, 부산매일 10. 7)
* 부산지법, 관할 법관 사건부담 가중, 1인당 연간 1천67건 담당, 전국 평균비 226건 많아(부산매일 10. 7)
* 시, '부산지역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산업실태분석 및 실행시책연구' 용역, 오는 20일 지명경쟁입찰(부산매일 10. 7)
* 시, 준공검사 미필 가사용 승인 아파트 방치, 14개소 5천3백세대 관리 허점(국제 10. 7)
* 동아대병원, 부산지역 비브리오 비상, 95년 이후 환자 첫 발생 1명 숨져(부산매일 10. 7)
* 시, 토지개발 및 이용실태 조사, 강서·기장지역 땅투기 조짐, 토지거래허가 건수 각각 93%, 19% 증가(국제 10. 7)
* 시, 사하구청 처분 부당, 신평소각장 건축승인 입장 밝혀(부산, 부산매일 10. 7)
* 97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 나흘째, 길놀이, 풍물장터 등 행사 다채(부산 10. 7)
* 극동운수·보수택시, 지역택시업계, 택시노조재편 가속화(국제 10. 8)
* 부산지검,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영업 기승, 예고 단속에도 8곳 적발(부산매일 10. 8)
* 자갈치문화관광축제(~9)(부산시정 10. 6)

10. 7 * 국정감사 일주일째, 부산신항 개발 특혜 등 사업비 2배증액 등 따져(부산 10. 7)
* 정부, 부산미문화원 반환 본격화, 부산 주한미국원조사절단 등 포함, 협상진행 요청, 무상 사용 국유재산 조기 매듭(부산 10. 7)
* 부산시 특목·일반고 학부모 등교거부, 항의시위, 비교내신제 첨예대립, 부산예고 등(부산 10. 7)
* 시, 부산도시정보 전산화 추진, 상하수도·교통 등 17개 업무대상, 2007년까지 시스템 구축(부산 10. 7)
* 부산과학고, 집단 학교이탈 파문, 2학년 45명 자퇴원 내고 떠나 사실상 수업중단, 검정고시 위해(부산매일 10. 7)
* 부산 우성식품 1차 부도, 코카콜라 영업권 매각 후 자금 악화(부산매일 10. 7)
* 시, 영도하수처리장 건립 난항, 기존 시 계획안과 민자유치안 놓고 내부 검토(부산 10. 7)
* 시, 부산시립극단 내년 1월 창단 예정(부산 10. 7)
* 부산지역 백화점 재고 0작전 돌입, 가을세일기간 이월상품 팔기 비중 더 늘려(국제 10. 8)
* 부산경남본부세관, 납투성이 중국산 완구 범람 11만여개 적발, 대량 수입 시중 유통(국제 10. 8)
* 시, 국공유지 무단점유 올해 2,780건 적발(국제 10. 8)
* 시 자체감사, 공무원·유흥업소 결탁의혹, 단란주점 불법허가·재산세 경감, 33건 적발(국제 10. 8)
* 시, 신평소각장 가동 사실상 승인, 시 행정심판위 결정에 주민·환경단체 반발(부산매일 10. 8)
* 부산지검, 공단예정지 위장 식수 11명 적발, 보상금 노린 신종 사기범 9명 첫 입건(부산매일 10. 8)

10. 8 * 시, 해운대 관광특구개발사업, 육군 군휴양시설부지 배정으로 합의, 2천평 배정 잠정 합의(부산 10. 8)
* 부산해경, 국내법근거 외국어선 단속 논란, 부산해경 특정금지 구역 홍보 후 내달부터 실시 방침(부산 10. 8)

*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 등, 부산 택배 업체 배달사고 잦다(부산 10. 8)
* 일선 구·군, 주차 범칙금 730억 낮잠, 땅값 비싸 효율성 낮아 기피, 도로개설 사용 법 개정 필요(부산 10. 8)
* 시, 고속철 대구~부산 전철화 반대, 기존 철도 이용 수정안은 미봉책(부산 10. 8)
* 부산지검 자체감사, 경찰 압수한 도박판돈 꿀꺽, 적발되자 사건기록 변조도(부산매일 10. 9)
* 공연윤리위원회, 부산국제영화제 제한상영 물의, 동성애 다룬 2편 극장개봉 취소로 망신(부산매일 10. 9)
* 낙동강환경관리청 국감자료, 토지공사, 부산시 등 공사 13건 중지명령 받아(부산매일 10. 9)
* 환경노동위, 낙동강 하·폐수 외해로 수중방류하자, 방수량 4.7~11% 불과(부산매일 10. 9)
* 건설교통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지부진, 83개 지구 중 단 1곳 해결, 6대 도시 중 꼴지(부산매일 10. 9)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7부두 진입로 확장 본격화, 내년 상반기 완공, 우암로 교통난·물류체증 완화 기대(부산매일 10. 9)
* 민주당 조순 후보, 부산항 테마파크 조성 주력(부산매일 10. 9)
* 시, 부산국제종합전시장 23일 기공, 컨벤션센터 함께 2000년 완공, 지사과학단지 진입로 보상 착수(국제 10. 9)
* 시-북구청, 화명소각장 입지 두고 마찰(국제 10. 9)
* 시정 동정, 문정수 시장은 태종대 유원지 꽃사삼 방목행사 참석(시보 10. 9)

10. 9
* 시, 자유·성지랜드 등 균열·안전시설 고장(국제 10. 10)
* 부산상공회의소, 코스닥 증권시장 부산 유치 추진, 재경원서 지방기업 활성화 차원 적극 검토, 선물거래소 등은 관련법 들어 난색(부산매일 10. 10)
* 97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 폐막식(국제 10. 10)
* 시 건설안전본부 재정난, 해운대 신시가지·명지주거단지, 도로표지판 변경사업서 제외(국제 10. 10)
* 시, 젖은 쓰레기 반입제한 결과, 9월 한달 7만5천8백40톤, 지난해 9월보다 11.3% 줄어(국제 10. 10)
* 해양수산부, 국내 10대 무역항, 작년 지출이 수입의 3배, 부산 적자 817억으로 전국 최고(부산매일 10. 10)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자체감사서 예산 과다책정 문의, 6건 8억1천만원 적발(부산매일 10. 10)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 리스테리아균 검출 피자 유통, 백화점 등서 판매확인(부산매일 10. 10)
* 시, 해외차관 총 8건에 1천1백25억원, 상환금 9백61억원, 달러와 엔화 환율 급등, 234억원 손실(국제 10. 10)
* 일선 구·군청, 취득세 늑장 고지로 주민만 골탕, 무더기 가산금 처분에 행정 편의 비난 빗발(부산매일 10. 10)
*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국감자료, 부산어업 침체 가속화, 올 생산량 작년비 37%, 가구소득 17.6%줄어(국제 10. 10)
* 「납세자권리현장」 제정시행, 시 구체적 탈루혐의 없으면 성실 납세자로 보호 등(시보 10. 9)
* 시정 공약사업 착실히 추진…88% 진척, 올 상반기 현재 총123건 중 정상이행 108건 등 가시적 성과(시보 10. 9)
* 도시정보관리 전산화 적극추진, 오는 2007년까지, 17개 분야 1,229개 업무(시보 10. 9)
* 시 그린벨트 활용 공식 요청, 아시안 게임 경기장 건설 등(시보 10. 9)
* 관광유람선 「테즈락호」 취항, 9일 선착장 부산 연안여객 터미널(시보 10. 16)
* 관광유람선 '테즈락' 취항(부산시정 10. 9)

10. 10
* 제2회 부산국제 영화제 개막, 로이타 통신 등 국내·외 취재진, 열띤 경쟁…영화제 위상 "실감"(시보 10. 16)
* 해양수산부, 여객선 매표창구 선사별 운영, 내년부터, 부산 통영 장승포 군산 이달 시범 시행(국제 10. 10)
* 시, 부산민주공원 조성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부산 10. 10)
*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18일까지 9일간 일정, 핸드프린딩 행사(국제, 부산, 부산매일 10. 10, 국제, 부산, 부산매일 10. 11)
* 개금 신주공 2~3단지 구간, 아파트 코앞 가야고가로 사태 악화, 5개월째 표류, 주민 재산권 침해 가처분 준비, 입주 이후 도시계획 세워 말썽(부산 10. 10)
* 국회 국정 감사, 진해항 저가낙찰 의혹, 부산항 건설 경상경비 전용 따져(부산 10. 10)
* 시, 택시양도파문 재연 조짐, 지역노조 대광택시 인수 승인(부산 10. 10)
* 부산해양청 국감, 예산절감 항만배후로 부실 우려, 10%축소 목표 맞추려 제대로 집행 않아(부산매일 10. 11)
* 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안전점검 결과, 시민회관·부산의료원·한국콘도, 지반침하 균열, 위험(국제 10. 11)
* 시, 사상 역세권 본격 개발, 경전철·지하철2호선 연계 대비(국제 10. 11)
* 시, 서민울리는 임대주택법, 계약만료 후 분양전환 의무규정 없어, 행정관청 분양 마찰 중재도 소극적(국제 10. 11)
* 시, 용호만 매립 표류로 1공구 공사 차질, 설계변경 추진, 광안대로 완공 또 늦어지나(국제 10. 11)
* 시, 산업구조 개편 종합용역, 내달 착수, 용업비 1억1천9백만원(국제 10. 11)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 부도율 32년만에 최악, 9월 중 1.05%, 장기불황 여파, 어음교환 금액도 줄어, 부도금액은 1천5백18억원(부산매일 10. 11)
* 조해녕 내무부장관 방문(부산시정 10. 10)
*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18)(부산시정 10. 10)

10. 11
* 해운대구청, 석대동 그린벨트 해제 요구, 군시설 때문에 98% 묶여 생활 불편, 부대이전 돼 재조정 시급(부산 10. 11)
* 시, 무지개운동 조례제정, 도시고소국도 통행료 할인 등 혜택, 15일부터(부산 10. 11)
* 기장군, 쓰레기 선별장 계획, 시 거절, 매입비 2억 날려(부산 10. 11)
*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필름사고 속출(부산매일 10. 13)
* 부동산 뱅크, 부산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 전국 최고, 매매가는 3주만에 0.09%밖에 안 올라 안정세(부산매일 10. 13)

10. 13
* 시, 내달 30일까지 경로연금 선정 노인 실태조사, 소득 등 점검 대상기준 삼아(부산 10. 13)
* 부산지법, 낙동강 오염 보상 소송 현장 검증, 대구 염색 단지 등 5곳 서 7시간 30분 동안 실시(부산매일 10. 13)
* 부산시의회, 제6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지하철 3호선 원안대로 건설, 교통유발 부담금 다각 경감 조례도 가결(부산매일 10. 14)
* 부산지검, 윤락묵인 경찰 12명 구속·입건(국제 10. 14)
* 건설교통부,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유치 물거품, 정부 국고지원 추진 방침(부산 10. 14)
* 이회창 신한국당총재 방문(부산시정 10. 13)

10. 14
* 사하구청, 을숙도 불법 죽망 설치, 어민들 재첩채취 등 3백여곳 설치(부산 10. 14)
* 부산시교육청 국감자료, 학교급식 학부모 부담 크다, 부산초등교 111개교, 교육청 지원액 92억원 57% 후원금 조달(국제 10. 14)
* 해운대구청, 반여2지구 진입로 불투명, 시-도개공과 서로 마찰(부산 10. 14)
* 사하구청, 을숙도 철새도래지역 훼손, 갈대밭 복구 없이 유채단지 강행(부산 10. 15)
* 교육부, 대학정원 자율화 확대조치, 부산지역 사립대학 자율화시대 대책부심(부산 10. 15)
* 부산시립박물관, 강서구서 15c 옹성 발굴, 상태 양호(부산 10. 15)
* 부산정보통신연구원 개원(부산시정 10. 14)

10. 15
* 2008년 올림픽 부산유치 승인 신청서 제출, 15일 문정수 시장 등 일행, 대한올림픽 위원회 방문접수, 문체부 찾아 정부승인 협조 당부도(시보 10. 16)
* 96 예비비지출 결산승인 심사, 악성 고액체납자 공개요구 부산시 현안사업 관련 회계사용 물어(시보 10. 23)
* 건교부 통계자료, 부산 도시화율 전국 5위, 인구 3백88만(부산 10. 15)
* 시, 지방 사무관 승진방식 혼선, 심사제-승진시험제 놓고 일선 구청마다 제각각(부산 10. 15)
* 시, 올림픽유치 신청서 접수(부산매일 10. 16)
* 부산교통공단, 덕천 로터리 교통영향평가 졸속, 갑작스런 변경으로 예산확보 안 돼 우회로 지연(부산매일 10. 16)
* 시 공청회 개최, 무지개운동 시민 합의부터, 참여차 혜택확대 등 보완책 촉구(부산매일 10. 16)

10. 16
* 시, 부산시 택지개발 신시가·명지 등 미분양 토지대금 1조 상회, 이자부담만 연 1천억대(부산 10. 16)
* 해양수산부, 당초 매립목적 변경, 사하구 다대동 삼미금속 시행 매립지, 해양오염 방제 전초기지, 5천평 규모 정보센터, 교육전시장 등 친수공간 조성(부산 10. 16)
* 부산지방경찰청 감사결과, 업무태만 520건 적발(부산매일 10. 16)
* 감사원 제출 국감자료, 부산국토관리청, 설계미비로 국고 낭비, 도로·교량공사 지휘감독 소홀(국제 10. 17)
* 부산시종합건설본부, 명지주거단지, 수용인구 크게 줄 듯, 시, 연약지반 영향 공동주택지 대폭 축소키로, 단독주택, 저층아파트 확대(국제 10. 17)
* 부산개인택시사업조합, 을숙도 휴게소서 개인택시 점검, 하루 800여대 몰려 체증(국제 10. 17)
* 영도구청, 영도 쓰레기 소각장 무산, 시 대규모만 지원, 예산확보 불가능(국제 10. 17)
* 부산시도시개발공사, 화명2지구 택지 유해 메탄가스 배출, 옛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차질, 아파트 건축 지연 불가피(부산매일 10. 17)
* 부산민주공원 조성사업기공 민주화운동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중앙 공원 내 5천7백평 부지에 건설(시보 10. 16)
* 사상역세권 본격개발, 시 경전철 지하철 2호선 연계대비(시보 10. 16)
* 지하철 3호선 원안대로 건설, 교통유발 부담금 다각, 경감조례도 가결(시보 10. 16)

*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등 할인 혜택, 시무지개운동 조례제정위한 공청회 열어(시보 10. 16)
* 부산민주공원조성사업기증, 10월 16일 부마항쟁기념일 맞아(시보 10. 23)
* 가을 행락철 쓰레기투기 강력단속, 시 태종대 등 유원지·금정산성 공원 등 34곳 중심(시보 10. 16)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강제징수, 시 재산압류에 형사고발도(시보 10. 16)
* 환경오염행위특별단속, 시 야간 공휴일 감시취약 시간대 강화(시보 10. 16)
* 부산민주공원 조성 기공식(부산시정 10. 16)

10. 17
* 시, 남구청, 오륙도 관광벨트 사업 난항, 예산난으로 시 종합계획서 배제, 쓰레기 방치 절경 훼손(부산 10. 17)
* 부산진구청, 복지행정 실현 주력, 11월 한달간 저소득 주민위한 각종 행사 마련(부산매일 10. 17)
* 건설교통부, 그린벨트내 경기장 건설 허용 촉구, 아시안게임 대비 관계법 조기 개정 등 건교위에 요구(부산매일 10. 18)
* 시장 간담회, 가야고가로 사태 해결 실마리, 왕복 4차로로 축소 등 주민 요구 대부분 수용(부산매일, 국제 10. 18)
* 부산시청소시설사업소, 을숙도 매립장 복토작업 전면중단, 시공사 부도, 침출수 대량 유출로 생태계 오염 우려(부산매일 10. 18)
* 부산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 재활정보 인터넷 개설, 재활정보통신 곰두리 시연회, 전화·팩스 통한 서비스도 곧 실시(국제 10. 18)
* 강서구의회, 서낙동강 조사특위 활약 난망, 관련 기관 비협조·전문성 부족(국제 10. 18)
* 시 계획변경안 확정, 신호공단 주거·상업용지 늘린다, 각각 5만6천·1만5천여평, 공장부지는 3만평 축소(국제 10. 18)
* 부산경남본부세관, 20억대 중국산 참깨 밀수, 21명 적발, 감시원 결탁 수사, 4명 구속, 9명 수배(국제 10. 18)
* 금정구청, 구청공사 빈축, 과속방지시설 민원야기, 보름 안 돼 철거 방침(부산 10. 18)
* 금정구청, 금정산성 남문·3망루 붕괴 우려, 비바람에 지붕·기둥 부식, 내달 보수 착수(부산매일 10. 20)
* 지역공동브랜드 제품판매회사(TEZROC) 개소(부산시정 10. 17)

10. 18
* 건설교통부장관, 아시안게임 골프장, 그린벨트내 불가(부산 10. 18)
* 시, 동래역 환승시설 완공, 시내버스 22일부터 역 거쳐 운행(부산 10. 18)
*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 박기용감독 모텔 선인장 뉴커런츠상 영예(부산매일 10. 20)
* 시정 동정, 국무총리등과 바다정화활동(시보 10. 23)

10. 19
* 부산시종합건설본부, 명지주거단지 계획변경 논란, 단독택지 확대 추진에 반대 목소리(부산매일 10. 20)
* 롯데건설, 롯데 지하차도 체증 불 보듯, 소통책 없이 준공검사 신청 추진(부산매일 10. 20)
* 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영도대교 긴급 보수, 파손 상판 이음부 교체로 일부구간 차량통제(부산매일 10. 20)
* 부산지역 일선 중학교, 학사일정 파행, 내달 내신산출 지침에 중간·기말시험 한달 간격 치러(부산매일 10. 20)
* 교육부 97평가, 부산시교육청 최우수교육청으로 뽑혀(국제 10. 20)
* 건설안전관리본부, 영도대교 보수공사 체증 극심, 부산시 건설안전본부 4차로 중 2차로 막아(국제 10. 20)
* 기장군, 폐기물 무단투기 속수무책, 기장군 곳곳에 방치, 적발 고작 54건, 단속인원 1명 뿐(국제 10. 20)
* 시, 해운대구청, 해운대 신시가 조경 없어, 공원 관리 부실로 나무 고사, 경관녹지에 폐건축자재(국제 10. 20)

10. 20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험물 부두하역 허가제 논란, 자율시행 변경 본선 접안 하루 전 신고 요구, 컨테이너 부두·선사 사실상 불가능 반발(부산 10. 20)
* 부산지방국세청, 종소세 불성실 신고자 대상,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직종별 3~4명 선정, 정밀세무조사 연말 착수(부산 10. 20)
* 한국공항공단, 김해공항 주말에 난장판, 질서단속인력 태부족(부산 10. 20)
*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순시, 신선대 매립, 국방부-남구청 합의 사실 밝혀 반발 클 듯, 컨테이너 부두 공단 서울이전 철회는 재확인(부산매일 10. 21)
* 신평소각장기동반대 주민대택위, 주민들 조건부 선시험 가동안 일부 수용하도록(부산매일 10. 21)
* 시, 부산시 신청사 울타리설치 예정, 당초 완전 개방 방침 바꿔 시민단체 반발(국제 10. 21)
* 제40회 부산시문화상 시상, 「문화의 날」 기념(시보 10. 23)
* 부산시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 받음(부산교육 10. 20)

10. 21
* 시, 서부산 요금소 이전 난항, 후보지 주민 반발로 계획 잦은 변경(부산 10. 21)
* 미화당백화점 부도 처리(부산 10. 21, 부산매일 10. 22)

* 시, 온천천 마를라 조바심, 수영하수처리장 확장 때 수량 급감, 낙동강 유입 등 대책 골몰(부산 10. 21)
* 부산지방경찰청, 자동차 학원 비리 적발, 학과시험·출석부 조작 잦아(부산 10. 22)
* 해운대구 민자유치사업사업평가위원회, 해운대 지하주차장 12월 착공, 7백49대 규모(부산 10. 22)
* 시, 사무라이본드 60억엔 도입, 건설재원 확보 위해, 30일 현금 인수(부산매일 10. 22)
* 군부대 백운포 이전 반대 추진위, 신선대 매립지 관광단지 조성약속 위반 따른 해명 요구(부산매일 10. 22)
* 시, 선거 앞 행정편의 금지 부작용, 각종 행정서비스 중단, 영세가정 지원 등 복지사업도 차질(국제 10. 22)
* 강서구의회, 서낙동강물 농업용수 부적, 수질악화 5급수 전략(국제 10. 22)
* 시, 부산 약수터 40% 오수터, 222개소 중 금수사 등 89개소 부적합 판정(국제 10. 22)

10. 22
* 문화재관리국, 을숙도 꽃단지 조성 구청 신청 반려(부산 10. 22)
* 강서구청, 서낙동강 수질 악화, 중상류 BOD수치 매년 증가세, 공업용수로도 부적합(부산 10. 22)
* 부산지방노동청, 건설 안전위반 무더기 적발, 3백40개 부분 시정지시(부산 10. 22)
* 해양수산부, 부산해양청 총체적 행정 난맥, 부두사업비 1억 이상 과다 산정, 설계 변경 실수 3억여원 낭비(부산 10. 22)
* 해운대경찰서, 자동차학원 탈법, 학원부원장 등 3명 입건(국제 10. 23)
* 시, 대형병원 방류수 대장균 득실, 기준치 초과 5개 병원 13개 업체 적발(국제 10. 23)
* 해운대 신시가, 지하 공동구 화재 무방비, 진화장비 등 전무(부산, 국제 10. 23)
* 부산교통공단, 도시철도공사 설립 본격화, 교통공단 이관 대비, 조례 제정·공채 발행 등 박차(부산매일 10. 23)
* PICES총회 개최, 동해바다 방사능 오염 심각, 중 핵실험 등 영향 플루토늄 농도 3배 초과(부산매일 10. 23)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시설 안전 낙제점, 외관 강도 염해 진단결과 500여 곳 결함(부산매일 10. 23)
* 문시장, 신평·장림단지 기업인과 정례간담회, 명지IC평면교차로 연말 우선 개통(시보 10. 30)
* 문시장 신평·장림단지, 기업인과 정례간담회, 현지방문(시보 10. 23)

10. 23
* 시, 매립·소각장 정책 개선, 유치 지자체 최고 60배 지원키로(부산 10. 23)
* 해운대 신시가, 지하 공동구 화재 무방비, 진화장비 등 전무(부산 10. 23)
* 해양수산부, 침몰선박 방치 연안오염 심화, 해양부 예산부족 내세워 15척 인양 포기(부산 10. 23)
* 시, 신청사 문예진흥법 무시, 미술관 없애(국제 10. 24)
* 시, 쓰레기처리부담 크게 는다, 내년 반입료 75% 올려 봉투값 인상 전망(국제 10. 24)
* 참여차량 혜택 확대 등 촉구, 시 무지개 운동 조례제정 공청회(시보 10. 23)
* 선거 앞둔 각종 탈법행위 집중단속, 시 건설폐기물 무단투기·각종 환경오염 행위 등(시보 10. 23)
* 국제종합전시장·컨벤션센터기공, 부산정보단지 조성 앞당길 사업(시보 10. 30)
* BEXCO 건립 기공식(부산시정 10. 23)

10. 24
* 장서초등 영어 시범 재발표(부산교육 10. 24)

10. 25
* 남구청, 해군기지 이전 파문 남구 의회 상정 예정(부산 10. 25)
* 강서구청, 명지단지주변 불법건물, 쓰레기 투기, 환경오염 심해(부산 10. 25)
* 시, 터미널 이전 요구 건교부 긍정 검토, 노포동 예정지, 3년 난항 끝 연내 해결 전망(부산 10. 25)
* 시정 동정, 문정수 부산시장은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 광장에서 개최된 국제라이온스 355-A지구 걷기대회 참석 축하·격려(시보 10. 30)

10. 26
* 시,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 재경원·건교·통산부 감부 4명 시 파견 근무, 지역 주요 현안사업 원활 추진 기대(부산매일 10. 27)
* 시, 건설교통부, 부산지하철 3호선 내달 착공(부산매일, 국제 10. 27)
* 건설교통부, 김해공항 세계 12곳 비교, 운항 안전지수 하위권(부산매일 10. 27)
* 문화재관리국, 사하구청, 갈대밭 복원을 위해 을숙도 29만평 경작중단 논란(부산매일 10. 27)
* 시, 낙동 고수부지훼손 우려, 북구와 사상구의 경쟁적 개발 탓(국제 10. 27)
* 부산 엄궁동 9개 업체, 물류단지 시설 고시만 되고 묶여 11년째 사업추진 안 돼(국제 10. 27)
* 부산지방항공청, 김해공항 무더기 결항 불가피, ILS 개량공사 내달 시작(국제 10. 27)

10. 27
* 시, 선거철에 시·구청 운영 생활법률 등 각종 상담 폐쇄, 다음해 5월까지(부산매일 10. 27)
* 부산지검, 부산윤락가 시범폐쇄 추진, 완월동 감전동 범전동 중 택일(부산 10. 27)
* 중소기업청, 녹산공단 입주지연 피해 속출, 조선기자재 센터 무산 위기(부산 10. 27)
* 건설안전관리부, 광안대로~수영강변도로 연결, 지하차도 건설 확정(부산 10. 27)

* 국민홍보위원 초청간담회, 문정수 시장 시정현안 설명 노고치하(시보 10. 30)
* 「부산인력은행」 개원, 구인·구직자를 체계적으로 연결(시보 10. 30)

10. 28
* 시, 민자유치 사업기본계획 확정, 부산~거제연륙교, 초읍선 경량전철, 장산역세권 개발(국제 10. 29)
* 사하구청, 매립지서 폐유찌꺼기 수십톤 발견, 환경연합, 인근 토양 오염, 구청 조사 착수(부산매일, 부산 10. 29)
* 사하구청, 갈대밭 훼손지역 근처 골프연습장 건설, 구청은 금지판 달랑, 단속 시늉만(부산 10. 29)
* 가야고가로 건설지역 인근 주민대표, 시건설안전본부에서 열린 협의회, 집단행동 불사하기로, 시, 도로 축소 약속 번복(부산매일 10. 30)

10. 29
* 부산지검, 영도구 청소년 유해업 최대, 1개교당 단란주점 등 평균 27곳(부산 10. 29)
* 해양수산부, 부산항 제2~중앙부두 확장공사 시행 앞두고 속앓이, 부두운영회사 참여업체 영업손실 반발, 장기적 관점서 불필요론 대두결정 유보(부산 10. 29)
* 시, 위생감시요원 68명 사직서 수리, 위생요원 재배치, 증기탕 사건 관련(국제 10. 30)
* 시, 무지개운동 보라색 스티커 폐지, 특정요일 지정 없이 하루 운행 중지(국제 10. 30)
* 부산 일선구청, 선거법에 주눅든 복지사업, 영세민·노인 위로행사 무산(부산 10. 30)
* 시 교육청, 부산지역 유치원 공교육 확대, 2002년까지 614학급 증설 취원율 73%로 올려(부산매일 10. 30)
* 통계청, 96년 광공업통계조사 잠정결과, 부산 산업활동 갈수록 위축, 광공업체 되레 줄고 풀하액 비중은 울산 절반도 안 돼, 사업체 수 1.5% 줄어든 9천4백개, 종사자 수 5.8% 감소, 21만9천2백명으로 집계(부산매일 10. 30)
* 부산시건설안전관리본부, 구포고가교 철거대비 가교개설, 왕복 4차선 고가차도도 추진 내달 공사 발주키로(부산매일 10. 30)
* 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정동 주민 불편 무시, 관교체 하면서 길 파헤쳐 방치(부산매일 10. 30)
* 부산상공회의소, 지역중소기업 84.3%만 정상가동, 294개사 조업단축 휴업, 92년 이래 최악 수준(부산매일 10. 30)
* 부산시의회 제69회 임의회, 98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도(시보 11. 6)
* 중·고생 외국어 말하기 대회(부산교육 10. 29)
*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발대식(부산교육 10. 29)

10. 30
* 시, 비법정영세민 의보료 감면, 내년 20~50% 낮춰, 3만여명 혜택(국제 10. 31)
* 시, 남부하수처리장, 남부하수처리장 가동률 저조, 예산모자라 관로공사 지연, 하루 처리용량 35% 그쳐(부산매일 10. 31)
* 시, 시내버스 요금 고액화, 800원 받는 좌석, 곱절 넘는 직행 도입 서둘러(부산매일 10. 31)
* 건설교통부 고시, 정관에 인구 13만 신도시 계획, 118만평 규모 99년 택지개발 착수, 노포동서 12km(부산매일, 부산 10. 31)
* 기장군 정관면에 신도시 건설 1백18만평규모, 99년 개발 착수(시보 11. 6)
* 「부산광역 정보센터」 자료구축작업, 시 연말까지 마무리…내년부터 인터넷 통해 정보제공(시보 11. 6)
* 시 도시철도공사 본격추진, 교통공단 이관대비, 조례제정 등(시보 10. 30)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추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례안 확정으로 11월부터 시행(시보 10. 30)
* 택지 개발 사업 때 확정예정 지번 부여, 시 입주민들 주민등록 주소지 등 16개 공부정리 불편해소(시보 10. 30)

10. 31
* 시, 기장군, 신천리에 기장 하수처리장, 2000년 완공, 하루 2만2천톤 정화(부산 10. 31)
* 건설안전관리본부, 구포고가교 철거, 건설 본부·교통공단 사후 대책 미협의, 예산 낭비 공사기업 차질 초래(부산 10. 31)
* 부산교통공단, 부산건설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지하철 3호선 수주조건으로 규정(국제 11. 1)
* 문화재관리국, 국도 2호선 확장공사 4년 지연, 문화재 관리국 금단곶보 원형 보존 결정(국제 11. 1)
* 연제구 주민, 시청사 담장설치에 발끈, 반대서명운동 시작(국제 11. 1)
* 부산자동차매매사업조합, 부산시에 탄원서, 중고차 매매업 추진, 기존 사업자들 크게 반발(국제 11. 1)
* 부산지역 종합병원, 환율복 등 비상, 고가 외제장비 달러 결제로 상환금액 늘어, 내년 예산 증액편성 등 대책 마련(부산매일 11. 1)

11. 1
* 시, 화물터미널 내 중고차시장 유치, 부산시, 경영수익 위해 추진, 매매업계 강력 반대(부산 11. 1)

11. 2
* 부산지검, 외화 밀반출, 밀수 단속 강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부산매일 11. 3)
* 시, 부산과학단지 절반 축소, 200만평서 82만평으로 확정(부산매일 11. 3)

* 해운대구청, 대동제 파행, 민원처리 완행, 해운대구 좌동 내무부 직제 승인 지연, 인력 달려 기초 행정업무도 감당 못해(국제 11. 3)
*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본부, 부산중소기업 외환쇼크, 원화가치 폭락 탓 외자도입 극력 꺼려(국제 11. 3)
* 시, 주거지 주차제 시행토록, 그러나 16개 구군중 고작 사상 금정 영도구 3곳만 실시(부산매일 11. 3)

11. 3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온독시스템 차질 우려(부산매일 11. 6)
* 부산기업 월 80곳 폐업, 장기 불황, 대기업 부도 여파로 올 800곳 넘을 듯(부산매일 11. 4)
* 부산해경, 부산항 관제 레이더 낡고 대항만서비스 엉망, 공사 중인 시스템 조기정착 감감(부산 11. 3)
* 시, 무지개 운동, 자가용 자율 참여 적고 스티커 강제부착에 반발 커(부산매일 11. 4)
* 시, 환경부 제출 조사결과, 매립장 지역 토지오염 심각, 화명 등 중금속 농도 타지 최고 4배(부산 11. 4)
* 문화재관리국, 시, 낙동강 철새 도래지 본격 조사(부산 11. 3)
* 「무지개운동」 특별지원 조례 제정시행, 대 시민 홍보위해 캠페인・설명회 등 적극 대처(시보 11. 13)
*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408호)(부산교육 11. 3)
*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제3409호)(부산교육 11. 3)

11. 4
*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가덕신항만 등 국책사업 차질 들어 금단곶보 보존 재심의 요청(국제 11. 5)
* 시, 지난 9월말 부산시 시세 8천5백77억원, 구군세 8백90억 징수, 징수 목표의 95.5%, 연간목표의 65.5% 수준(국제 11. 5)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부산가덕 신항 오늘 착공, 총사업비 6조원 투입, 2011년 완공(국제, 부산 11. 4)
* 시, 주택공사, 정관신도시개발사업, 용적율 1백50%, 평당 분양가 1백50만원 내외로 개정, 도시기반 시설 등 1조2천8백8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 조달방안은 수립 못 해(부산 11. 4)
* 부산지역 경제회생 건의 등 채택, 부산시의회는 올해 행정 사무 감사 계획 등 가결 후 폐회(시보 11. 13)
* 부산신항만 기증, 부산을 세계3대 거점항만으로(시보 11. 6)
* 부산 신항 역사적 첫 삽질, 11월 4일 선진해양국 발돋움, 부산경제발전 획기적인 계기 마련(시보 11. 6)
* 부산신항 정부공사 착공(부산시정 11. 4)

11. 5
* 기장군청, 오는 6일 기장문화원 개원식 가지기로(부산매일 11. 6)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동삼동 매립지 교육시설부지 7만2천평 활용, 부산 해사고 유치(부산매일 11. 6)
* 시, 열린행정 실시 취지로 시민감사청구제, 시민토론청구제, 시민감사관제, 전자시장실 등 시민참여제도 내놓음(부산매일 11. 5)
* 시, 교통정책 규제서 육성으로 전환, 부산시 버스업 백억 지원(부산매일, 국제 11. 4, 부산 11. 5)
* 시, 공익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육성조례 제정, 부산시 정책개발실 다시 확대 개편키로(부산매일 11. 6)
* 시, 시건설안전관리본부, 남항대교 건설 국비 요청(부산매일 11. 6)
* 부산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원수 바이러스 대책 촉구, 정수장 소독・가정용 정수기로 제거 안돼(부산매일 11. 5, 11. 6)
* 영화산업 복합단지 건설추진,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시보 11. 13)
* 부산역세권 내년부터 본격개발, 기념 공원 등 5개 지구로 나눠(시보 11. 13)

11. 6
* 부산지검 특부수, 유흥업소, 불법영업 기승, 단속직원 허위복명 예사, 행정령이 안 먹힌다(부산매일 11. 7)
* 시, 암남동 장군산에 터널식 하수처리장 건립키로(부산 11. 6)
* 국회 예결위, 가덕 신항 내년 예산 전액 삭감 요구(부산 11. 6)
* 버스조합, 하나로카드 연말 전면 시행, 시내버스 리더기 본격 설치(부산 11. 6)
* 신평소각장 대책위, 환경조사 등 5개항 타결, 내년 주민투표 최종 확정, 신평소각장 사태 3년만에 극적 합의(부산 11. 6)
* 97 부산중소기업채용람회 개막, 7일까지, 128개업체 참가, 1천여명 뽑아(국제 11. 6)
* 「복지사회건설」 함께 실천 계기 마련, 부산시 제4회 복지의 달 운영계획(시보 11. 6)
* 금정산등 232개소 등산로 등 입산통제, 시 황령 백양산도 내년 5월까지(시보 11. 6)
* 운전기사 해운대 휴게소 개소, 시 5개소 건립계획추진(시보 11. 13)
* 시정 동정, 문정수 시장은 중국 중소기업 국제합작협회 장서우회장등의 예방 받고 환담(시보 11. 13)

11. 7
* 시, 사하・강서구, 을숙도 현상변경 허가 요청, 명지대교 유채꽃밭 조성 위해(국제 11. 8)

* 한국은행 부산지점, 어음부도율 5. 16이후 최고치, 9월 0.55% 뛴 1.60% 기록(부산매일 11. 8)
* 낙동강 환경관리청, 낙동강 조류확상 정수 비상(국제 11. 8)
* 부산지방경찰청, 대선여론 동향 파악 구설수, 청와대 신당 지원설 관련 은밀 지시해 물의(부산매일 11. 8)
* 시, 둔치 주말농장, 완공 앞두고 건립부지 변경·분양 백지화(부산 11. 7)
* 서울대 김상종 교수, 화명·덕산 정수장 오존처리시설, 낙동강 원수 바이러스 제거 못해(부산매일 11. 7)
* 영도구청, 태종대 사슴 자연방사 무산(부산 11. 7)
* 환경관리청, 낙동강 둔치 개발 재검토 불가피, 환경성 검토 의뢰(부산매일 11. 8)
* 나무가꾸기 작업 펼쳐, 육림의 날 금련산 등 15개소에서(시보 11. 13)
* 대대적 나무가꾸기 펼쳐, 시 11월 중 복토작업·비료 주기 등(시보 11. 6)
* 동아경기 신설경기장 등 연내착공, 시 싸이클 하키 양궁 등 보상 문제 해결로(시보 11. 6)
* 안전사고 예방 등 월동종합대책 마련, 시 대형재난 화재대처 생필품 안정공급도(시보 11. 6)

11. 8 * 시, 사하·강서 일대 3천여만평 환경조사 후 복원위해 연구 용역, 낙동강 하구 보존대책 수립(부산 11. 8)

11. 9 * 한국조선공동협동조합, 부산 중소형조선소 가동률 격감, 선박 대형화·수산 불황 영향으로 물량 거의 없어(부산매일 11. 10)
* 시,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역 택지 내년 131만평 공급, 올 미분양 해운대 신시가지 8만6천평도 포함(부산매일 11. 10)

11. 10 * 시, 내년예산 3조6천900억 편성, 지하철 등 현안사업비 소요로 사상 최악 재정난 예상(부산매일, 국제 11. 12)
*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부산 해양수산정보센터 개설 추진, 내년 4월~9월 DB구축, 99년부터 가동(국제 11. 11)
* 남구청, 제3함대 이전 마찰 심화, 남구의회, 조건부 수용방침, 주민 강력 반발(부산 11. 10)

11. 11 * 시, 채권발행 중당계획 빚도시 오명 우려, 97~2001년 투자사업비 6조3천억 부족 전망(부산매일, 국제 11. 12)
* 미 IT사 지뢰제거팀, 영도 중리산 지뢰 제거 작업 본격화(부산 11. 10)
* 시, 부산시체육회, 구덕운동장 부지에 시민체육회관 내년 착공, 2000년 완공 예정(부산매일 11. 12)
* 「부산광복기념관」 본격건립, 시 추진위개최 11월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청공원에 10억 들여 내년말 완공(시보 11. 13)
* 제9회 고등학교 예능 발표회(부산교육 11. 11)

11. 12 * 통계청, 3/4분기 고용동향 발표, 부산실업자 6만3천명, 전국 47만명의 13.4%, 실업률 전국 최고(국제, 부산 11. 13)
* 교육부, 내년 교사 신규임용 확정, 초등 2백24명, 중등 75명(부산 11. 12)
* 부산지하철 2호선 공사, 지역업체 30% 공동도급 수주전 치열(국제 11. 12)
* 시, 컨테이너세 폐지 방침 반대, 내무부를 통해 반대의사 통상산업부 건의키로(부산매일 11. 13)
* 부산지법, 미화당에 재산보전처분 결정(부산매일 11. 13)
* 동래구청, 동경계 재조정 추진, 일제 강점기후 변경 안 돼, 수민동 등 594세대 불편(국제 11. 13)
* 시 도시개발공사, 전자결재 등 그룹웨어개통, 사내전자우편도(시보 11. 20)

11. 13 * 시, 아시안경기장 건립 차질, 건교부 산림훼손 우려 잇단 제동, 연내착공 어려울 듯(부산, 부산매일 11. 14)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감천항 수산물 유통기지 급부상, 냉동창고 속속 입주, 국내 물론 일본서도 사용 문의(부산매일 11. 14)
* 시, 주요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실시, 2월말까지, 붕괴위험요소 등 점검(부산매일 11. 14)
* 올림픽 부산유치 2백만명 서명운동, 12월말 대규모 시민다짐대회 열어 열기확산(시보 11. 13)
* 부산문화공원 공정 92%진척, 시 시립박물관~UN묘지~문화회관 연계(시보 11. 13)
* 시정 동정, 부산호텔에서 개최된 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 부산지역 간담회에 참석 격려(시보 11. 20)

11. 14 *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광안대로, 정보단지 교통영향평가 통과(국제 11. 15)
* 한국은행 부산지점, 수출 신용장 5개월째 감소(부산매일 11. 15)
* 시, 동래구 사직동 사직종합운동장 옛 주차장 부지 내 시민체력센터 내년 1월 개관(부산매일 11. 14)
* 금정구청, 온천장역 북측 복개주차장 건설관련 시민토론회(부산 11. 15)
* 부산시교육청, 금정산 대규모 수련원 추진 물의, 생태계 파괴 환경단체 반발, 삼림 2만평 훼손 부대시설 등 건립(부산 11. 14)

11. 15 * 시, 부산환경운동연합, 새마을운동부산시지부, 낙동강 철새도래지 대대적 정화(부산 11. 15)
* 시, 일선 보건소, 독감백신 동나 접종 중단, 제약회사 한정 생산, 비상(부산 11. 15)
* 낙동강 하류섬 자연정화, 부시장 참석 장자도등서 철새 먹이주기도(시보 11. 20)

11. 16　* 부산지방경찰청, 신축건물 1% 미술품 전면 수사, 건축주-작가 구매가격 조작관련 60명 내사(부산매일 11. 17)
* 사상보건소, 초등학교 집단 발병 잇따라, 보건소 급식 가검물 역학 조사(국제 11. 17)
* 금정산에서 자연정화 캠페인, 문정수 시장, 시청 산악회원과 산불예방 운동(시보 10. 20)

11. 17　* 부산경영자협회 조사, 부산업체 채용 억제·기구 축소 심화, 임금상승률은 5.5%로 하락(부산매일 11. 18)
* 시, 부산 재정난 예산 통제, 공사 신규발주, 용역 억제, 지방세 징수, 재산매각 수입 부진, 일반회계 5% 집행 못할 듯(부산 11. 18)
* 종합건설본부·안전관리본부 감사, 시건설 기구 부실운영 적발, 구매 시방서 변조해 중징계 받기도, 공사 안전관리비로 직원들 회식(국제 11. 18)
* 시, 한국토지공사, 녹산공단 2차매립지 축소, 예정보다 38만평 줄여 187만평 추진(국제 11. 18)
* 시내버스 운영개선 시민공청회, 17일 문화회관, 교통문제 전문가 학계 등 1백40여명 참석(시보 11. 27)
* 2008년 올림픽 부산유치, 200만 시민서명운동 전개, 주요간선로 동사무소 등 40개소에 서명대 마련(시보 11. 20)

11. 18　* 국회, 부산 국고지원비 무삭감 통과(국제 11. 19)
* 도매시장 조례개정안에 대한 청문회, 개정안 재검토키로(국제 11. 19)
* 해양수산부, 자성대부두 민영화 확정, 5개 선석, 컨소시엄 선사에 일괄 공개 입찰(국제, 부산매일 11. 19)
* 시종합건설본부, 체육시설부지 몰래 매각, 용지난 해운대교육청 신청사용으로 4천여평 팔아(부산매일 11. 19)
* 건설교통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대구~대동 고속도 4천500억 지원, 내주 재경원 심의 제출예정(부산매일 11. 19)
*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바이러스조사, 4대강 원수, 수돗물 대상으로 실시(부산 11. 18)
* 동부경찰서, 부산상조 장례비 22억 횡령, 건당 20만원씩 허위 계상(부산 11. 18)
* 부산경찰청, 1%미술품 비리사건 수사, 비자금 조성 관계자 처벌키로, 건축주 소환주사 비리 속속 확인(부산 11. 18)
* 시, 영도하수처리장 부지 확정, 동삼동 해양공원 앞바다(부산 11. 18)

11. 19　* 시, 하나로 교통카드 전면 확대, 연말까지 판독기 금전충전소 설치 완료(국제 11. 20)
* 시, 1% 미술 제도 개선, 운영방식 변경, 작품공모(부산, 국제 11. 19)
* 각 구청, 내년부터 쓰레기 봉투값 20~40% 인상(부산 11. 20)
* 시, 운전사휴게소 건립 차질, 책정 예산도 턱없이 부족, 관련기관 미협의(부산 11. 20)
* 시, 암남동 중앙하수처리장 용역 중간보고서, 서구 하수처리장 터널식 추진, 암남공원 내 공사비 적고 부지 이용 쉬워(부산 11. 20)
* 부산상의, 부산 60개사 조사, 기업 내년 설비투자 줄인다, 33개사 소폭, 27개사 계획 없다(부산 11. 19)

11. 20　* 일선구군, 내년 예산 긴축, 복지후생비 크게 줄어 공무원 사기 저하, 도로공사 등 숙원사업도 추진 어려울 듯(국제 11. 21)
* 올해 시정총결산 내년 예산심의, 40일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도(시보 11. 27)
* 연말연시 물라 안정대책 마련, 시 상황실 운영 단속반편성 현장지도(시보 11. 20)
* 불요불급예산 집행을 통제, 시 법정경비 제외(시보 11. 20)
* 경전철 초읍선 노선연장 추진, 시 중앙 민자 유치위원회에 심의요청(시보 11. 20)
* 국내 최초 노화문제연구소 설립, 사회 경제 의학적 접근 통해 노인문제 새롭게 조명(시보 11. 20)
*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57억 지원, 시 겨우살이 대 11,265세대 생계비 지급(시보 11. 20)
* 겨울철 산불방지 강화, 시 소방 헬기 등 진화장비 일제정비(시보 11. 20)

11. 21　* 부산지검, 자동차부속 순정품 위조 적발, 와이퍼·모터 등 3천여개 판매업주 둘 영장(부산 11. 22)
* 교통공단 이사장, 부산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 설명회, 부산 지하철 4호선 백지화 검토, 1호선 진해, 2호선 기장, 3호선 김해가지 연장(국제 11. 22)
* 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성차별 시정창구 등도 마련키로(국제 11. 21)
* 부산시-구-동사무소, 선거인명부 집계 작업 차질, 동사무소 전산망 장애로(부산매일 11. 22)
* 공직자「경제 살리기 운동」앞장, 시 공무원 자율실천 결의다짐(시보 11. 27)

11. 22　* 부산시건축사회, 2천㎡·4층 이하 건축물, 감리법인서 감리 전담(부산 11. 22)

11. 23　* 2008년 부산올림픽 유치 연내승인, 정부 신청서 검토 후 장정결론(시보 11. 27)

11. 24　* 시, 경제위기 극복 범시민 운동 전개키로, 외화모으기, 저축운동, 해외여행 자제 등 추진, 28일 범시민실천대회 예정(국제, 부산 11. 25)

* 부산시교육청, 부산 공립 중등교원 임용 12.4대 1, 사립은 4.4대 1, 취업난으로 비 사범계 지원 늘어나(부산매일 11. 25)
* 건설교통부, 부산~울산 고속도로 내년 착공, 총길이 40km에 6천8백억원 들여 2003년 완공(부산 11. 25)
* 부산항부두관리협회 및 관련업계, 부산항 화물경비료 마찰 재연, 부두관리협, 채산성 악화, 인상요율 내년 환원 적용(부산 11. 24)
* 제5회 산업평화상 시상식(부산시정 11. 24)

11. 25
* 환경부, 을숙도·석대, 쓰레기 매립 후유증 심각, 지하수 발암물질 다량 검출(국제 11. 26)
* 부산시의회, 무지개운동 관련 차 소유자 설문, 무지개운동 소용없다 71%(부산 11. 26)
* 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처리제 입상활성탄 국산화, 시-업계 공동개발 추진, 재생시설 건설도 병행(부산매일 11. 26)
* 부산교통공단, 부산지하철 3호선 착공, 재원조달 싸고 뒤늦은 마찰, 시 철도채권 승인 요청에 건교부 난색(부산, 국제 11. 25)
* 부산 지하철 3호선 건설 기공, 11월 25일 첫 삽질, 2001년 완공 예정,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 수송 분담 23%예상(시보 11. 27)
* 시직원 달러모으기운동(부산시정 11. 25)
* 부산지하철 3호선 기공식(부산시정 11. 25)

11. 26
* 부산시종합건설본부, ㈜신성 ㈜삼호 등 4개 건설회사, 수영컨테이너수송배후도로 2단계 2공구공사 굴착으로 오륜터널 붕괴 우려(국제 11. 27)
* 시, 유엔묘지 지역개발 족쇄, 존엄성 유지 명목 인근 재산권 제약, 문화공원 조성 등 차질(부산 11. 26)
* 시, 동래·해운대구청, 신규아파트 개별 교통평가, 밀집지역 교통대란 예고, 안락 반여 일대 권역별 감안 않아 충렬로 마비 우려(부산 11. 26)
* 시, 사상구청, 터미널 부지에 자동차 매매장 개설키로, 개인업자에 의해 운영(부산 11. 26)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제조업 경영안 심화, 내년 실어 10만명 웃돌 듯(부산매일 11. 27)
* 해양수산부, 항만사용료 4.7% 인상, 요율수준 산정 개편안 확정(부산 11. 27)
* 시, 낙동강 하구지역 람사협약 습지등록 관련 자연생태계 조사용역 최종 보고서, 낙동강 하구섬 수달, 고라니 서식(부산매일, 국제, 부산 11. 27)
* 시정 동정, 시장-26일 부산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부산 도시 경쟁력 분석 및 경제 활성화 심포지엄」참석 외 2건(시보 12. 4)
* 부산 기관장 회의 개최, 문시장 주재로 경제 살리기 및 대선 관련 공정 관리 등 논의(시보 12. 4)

11. 27
* 시지역 예술인·문화관련 종사자 설문조사, 부산 상징물 오륙도, 69.2%지지, 가장 발전된 분야는 영화 50.2%(부산매일 12. 1)
* 시, 버스노선 조정안 확정, 부산금곡동~부산대 방면 등 신설(부산 11. 28)
* 부산지검, 부산지역 마약 사범 급증, 1천여명 검거, 암거래 가격도 급상승(부산매일 11. 28)
* 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용역의뢰, 아시안게임 전 이정표 등 체계적 개선, 부산 도로표지판 쉽게 바뀐다, 56개 도로 번호 붙인다, 1,300여개 표지판도 일제 정비(국제, 부산 11. 28)
* 부산경제살리기 종합대책보고회, 내년 중소기업 지원에 1천9백억원 투입(국제 11. 28)
* 경제적 어려움 지방 차원 대책 방안 논의, 부산시 등 부산지역 64개 기관이 참여하는 부산 경제 살리기 추진 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 방안 논의(시보 12. 4)
* 지하철 3호선 기공, 대저~미남R~수영과 반송을 잇는 부산 지하철 3호선이 지난 11월 25일 기공식 갖고 본격 건설(시보 11. 27)
* 98년 부산지역 국비 지원 확정, 올해보다 1천2백64억원 늘어(시보 11. 27)
*「하나로 교통카드」전면 확대 실시, 시-연말까지 판독기·금전충전소 설치 완료 계획, 11월 현재 282만건 이용 실적(시보 11. 27)
* 달러 모으기 환전 창구 운영, 최근 환율 급등·주가폭락·기업부도 등으로 위기에 놓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달러 모으기 범시민운동을 시 직원들이 앞장서기로 하고 시청 민원실에 달러 모으기 환전 창구를 개설(시보 11. 27)
* 식품 접객업소 불법 영업 단속, 시-퇴폐·변태 등 탈법행위 차단 10개 단속반 운영·청소년 출입 등 중점 단속(시보 11. 27)

* 버스 노선 조정안 확정, 시 3차 심의회 기·종점 변경 등(시보 11. 27)
* 동절기 도로정비 이상 무, 시 교량·구조물 안전시설 총 점검, 교통사고 예방 대비…암거·배수관 등(시보 11. 27)
* 고액 체납자 금융 기관 신용 정보통일, 시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 15일까지 한달여 동안 시·구·군합 등으로 특별 체납세 장수 대책 수립 체납지방세 1천7백87억원 징수에 총력 기울이기로(시보 11. 27)
* 인성교육, 학부모 가정교육 세미나 종합 보고회(부산교육 11. 27)

11. 28
* 신형소각장 주민투표 부결, 62%가 합의가동 반대, 사태 원점으로(부산매일, 국제 11. 29)
* 대선주조 1차부도, 4억원 결제 못해, 화의신청 검도(부산매일, 국제, 부산 11. 29)
* 부산시체육회, 각 학교 체육팀 창단 러시, 수영, 역도 등 비인기종목 위주(부산매일 11. 29)
* 사하구청, 복지관 이용료 편법인상, 4년간 동결 일선구청 운영 애로, 조례개정 현실화 절실(부산 11. 28)
*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 자성대부두 컨테이너 처리 2천만TEU 돌파(부산 11. 28, 부산매일 11. 29)
* 부산 아시안게임 조직위, 아시안게임 내년 예산 91억원, 자체수입 31억원 등 확정(부산매일 11. 29)
* 경제 위기 극복 범시민 실천 대회, 부산역 광장 각급기관·시민 단체 2천명 참가, 경제 살리기 결의 다짐 현장서 달러 모으기도(시보 12. 4)
* 이용원 교육부 차관 해강초등학교 방문(부산교육 11. 28)

11. 29
* 부산지역 올림픽교수연구단, 2008년 하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부산유치 전략 방안 세미나, 재원확보가 최우선 과제(부산매일 12. 1)

11. 30
* 부산진구청, 아시아드로 확장 삐걱, 일부구간 동해남부선·경전철공사 맞물려 차질(국제 12. 1)

12. 1
* 시, 불법 주정차 단속 전면 중단, 구청서 시로 업무 이양뒤 시행지침 미비·인력 부족(부산매일 12. 2)
* 청학2동 지하수 마신 주민 50명 집단 복통 설사(부산, 국제 12. 1)
* 부산신항만(주), 부산신항만 1단계 사업 계획 발표, 1단계 북항건설 3조2천억 투입, 99년 착공 2005년 완공(부산 12. 1)
* 시, 부산 병원 진료비 카드수납 기피, 부산종합병원 6곳만 도입(부산 12. 1)
* 시, 정보단지 조성 차질, 수영 컨테이너 업체에 강제 이전 방침(부산 12. 1)
* 대선주조 3개사 화의 신청, ㈜대선과 대선건설 등은 파산절차에(부산매일 12. 2)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제2·중앙부두 확장 난항, 운영회사 반발에 당국 사업변경 결정도 지연(부산매일 12. 2)
* 시, 국비사업 대거 차질 예상, IMF체제로 재원조달 어려워 축소조정 불가피(부산매일 12. 2)
* 해양수산부, 무역외수지 개선대책 발표, 부산항 통과선박 항만료 80% 감면(국제 12. 2)
* 각 상위별 98년도 예산안 심사, 시의회 제2회 추경예산안도 다뤄, 12월 1일~29일 4차 본회의 후, 40일간 제70회 정기회의 폐회(시보 12. 4)
* 강력수사대 발대(경찰사 12. 1)

12. 2
*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다대매립지 친수공간 개발, 목재·수산단지 취소, 홍보관 등 설치(국제 12. 3)
* 시, 제7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진해용원 편입 추진, 가덕·명지대교 조기착공 논의(국제 12. 3)
* 서구청, 구덕운동장 내 스포츠센터 건립예정, 2000년 완공(부산매일 12. 3)
* 통계청 부산통계사무소, 연말 물가 비상, 유류가격 인상, 서비스료 등 압박(부산 12. 2)
* 한솔·고려·항도·신세계 포함 9개 종금사 업무 정지(부산 12. 2)
* 시 종합건설본부, 시 건설예산 4천9백억 이월, 대형사업 공기연장 불가피(국제 12. 3)

12. 3
* 부산시체육회, 시민스포츠센터 건립 차질 불가치, 시 체육회 수익성 불투명 들어 기금 35억 출연 않기로(부산매일 12. 4)
* 부산지역 금융계, 금융시장 공황 직면, 종금사 영업정지 파장(부산매일 12. 4)
* 환경부, 부산대기오염 전국 최고, 7대 도시 중 오존 등 3개 항목 수위, 총 먼지 62$\mu g/m^3$(국제 12. 4)
* 해양수산부, 부산항 건설사업 차질 우려, 국회서 관련예산 요구액보다 313억이나 삭감(부산매일 12. 4)

12. 4
*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2호선 공사 차질 예상, 재원 조달용 신시가 상업지 분양부진 여차(부산매일 12. 5)
* 북구청, 북구청 역사관 조성 추진, 옛 행정자료와 민속용품 등 전시, 공무원 대상 수집, 구민 기증 기대(국제 12. 5)
* 한국은행 부산지점, 당좌거래 정지 14배 폭증, 종금사 업무정지 여파 하루사이 72곳으로 늘어나(부산매일, 국제 12. 5)

*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해외출국 40% 줄었다, 환전액도 절반으로(국제 12. 5)
* 수영「컨」업체 이전 방침, 부산 정보단지 조성 공사 현장인 옛 수영 공항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11개 컨테이너 업체들에 대해 이전 방침(시보 12. 4)
* "도로표지판 쉽게 바뀐다", 부산시내 도로 표지판이 2002년 아시안 게임 등에 대비 대폭 바뀌고 모든 도로에 노선 번호 표시(시보 12. 4)
* 젖은 쓰레기 배출량 크게 줄어,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2백68t 감소, 침출수 발생량도 크게 감량, 월 평균 2천6백만원 운영비 절감 효과(시보 12. 4)
*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 경찰 합동 연말까지…유해 업소 알선 행위 등(시보 12. 4)
* 지하철 연계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지하철과 연계되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대폭 확충되어 생활권 중심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시보 12. 4)
* 무지개 운동 에너지 절약 차원 전개, 무지개 운동활성화를 최근 어려운 국가 경제난 타개 위한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연계·적극 추진키로(시보 12. 4)
* 부산 신항 배후 도시 2백90만평 조성, 강서구 천가동 가독도 일원에 들어서는 부산신항만 주변에 2백90만평 규모의 대단위 배후도시 조성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민자 참여 업체 공모(시보 12. 4)
* 지역 공동 브랜드 사업 본격 추진, 개발에서 판매까지 집중 지원, 기존제품과 차별화…최고급 제품으로, 국제행사 계기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테즈락」제품 내년 4월부터 시판(시보 12. 11)

12. 5
* 시, 문화예술과 주관, 1% 미술품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 열려(국제, 부산매일 12. 8)
* 시, 자전거 전용도로 대폭 확충, 지하철 구간, 유원지 등 155개 노선, 251km(국제 12. 6)
* 부산시의회, 시의회 상임위 예비심사, 시 내년 약감 803억 삭감, 해외출장비 전액과 판공비 20~50%정도(국제, 부산매일 12. 6)
* 시 상수도사업본부, 제한급수 제한 푼다, 배수지 8곳 신설, 확충 계획(부산 12. 5)
* 부산 YMCA조사, 놀이터 안전관리 시급, 어린이 31%가 다친 경험(국제 12. 5)
* 통계청 부산사무소, 10월 중 산업활동 동향, 부산 산업생산지수 4.6%감소(국제 12. 6)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 어음부도율 고공비행, 10월 1.60%에 이어 11월 176업체 1.40% 기록(국제, 부산매일 12. 6)
* 경성대 부설 조류연구소, 금정산 휴식년제에 따른 생태조사 중간보고서, 시에 제출(부산매일 12. 6)
* 각계서 경제 살리기 실천 결의, 당면 경제위기 극복 위해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광역시 청년 연합회 주관으로「경제 살리기 실천 결의 대회」개최(시보 12. 11)

12. 6
* 북구청, 내년부터 64개 아파트 3만여세대로 늘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부산매일 12. 6)
* 시, 부산시 산하 공기업 기구 축소, 업무 민간위탁 인력 감축 계획(부산 12. 6)
* 시장, 주요 산업 현장 방문, 백양산 터널 및 구포대교 공사 현장과 광덕 물산 등 방문 산업 현장 임원과 근로자들 격려(시보 12. 11)

12. 7
* 시, 98년도 수정예산안 제출, 지하철 건설비 3백억 새로 편성, 도로사업비 등 줄여 공정차질도 우려, 총 3조7천164억원 규모(부산매일 12. 8)
* 부산교통공단, 단수 대비 안 해 용수 부족, 지하철 화장실 이틀간 폐쇄(국제 12. 8)
* 낙동강관리청, 낙동강 중류 수질 크게 악화, 금호강 수질개선 한계, 하류 2급수 회복 난망(국제 12. 8)

12. 8
* 도로교통안전협회 부산시지부, 부산 주행시속 20km 안된다, 주요간선로 시속 19.5, 작년비 3.8km 떨어져, 충렬로 최악(국제 12. 9)

12. 9
* 시, IMF 경제체제 등 당면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시정종합대책 마련, 기금적립 축소, 신규조성 금지, 2000년까지 행정지원인력 1천25명 감축 등 추진(부산매일 12. 10)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자성대부두 민영화 전면 유보, 인수 희망업체 없어, 현 체제 유지 자구책 강구(국제 12. 10)
* 부산인권센터 추진위원회, 부산에 인권센터 설립 본격화(부산 12. 9)
* 시, 재정긴축 및 지역경제 회생 종합대책 발표, 일부 투자사업 유보하기로(국제 12. 9)
* 미 국방부, 하얄리아 내년 봄 매듭(부산 12. 9)
* 시, 청소년 보호전화 설치, 유해환경고발 1388, 여성문제 상담 1366(부산 12. 9)
* 「경제 위기 극복 위한 종합 대책」마련, 시 산하 공기업 인력 대폭 감축·17개 소규모 동 통·폐합, 해운대 신시가지·명지주거단지 분양가 하향·분할 납부도, 관급 공사 발주 지역 업체 40%이상 입찰·선금지급 10% 높여(시보 12. 11)

* 시정 동정, 시장-8일 롯데 백화점 앞에서 구세군 시종식, 9일 봉생문화상 시상식에 참석 수상자 축하 격려(시보 12. 11)

12. 10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세부경기 준비계획이 최종 확정, 내년부터 본격 착수, 2002년 프레대회(부산 12. 11)
* 부산신항(주), 내년 57억원 증자 실시키로, 최초 자본금 2백억으로 늘어(부산 12. 11)
* ㈜선경, 부산정보단지 포기선언, 금융한파, 신규투자 여력 없어(부산 12. 11)
* 시,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공사 중단 우려, 2·3호선 부산시 출연금 교부 촉구(국제 12. 11)

12. 11 * 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년말 대비 4.7% 상승률, 공공료 동결·인상시기 분산 등 대책 부심(국제 12. 12)
* ㈜선경, 부산정보단지 포기 재확인, 대체업체 모색난(부산매일, 부산 12. 12)
* 「지방세 분할 납부제」 도입, 내년 상반기 관련세법 개정 추진 1천만원 이상 고액 세납자 부담 줄이게(시보 12. 11)
* 수영 CY 내년 3월까지 이전키로, 새로 조성될 부산 정보 단지 조성 공사 현장인 옛 수영 비행장 부지에 자리 잡고 있는 수영 컨테이너야적장을 내년 3월까지 모두 이전키로(시보 12. 11)
* 업무 추진비 등 1억9천2백만원 삭감, 시의회 자체 예산 최근 경제 위기 감안…절약 앞장, 예결위 98년 시 예산 심의 착수(시보 12. 11)
* 시 재개발 기본 계획 수립, 시내 1백43개소를 재개발 대상지로 설정 오는 2011년까지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 벌일 계획(시보 12. 11)
* 21세기 보건·복지 환경 변화 대처 위해 장기 발전 계획 수립, 부산시 97보건 복지 시책 추진 성과, 저소득 시민 실질적 생활보장, 독거노인 119 자동 신고 시스템 설치, 장애인 공공시설 턱 낮추기, 보육시설 4백26개소 확충, 전국 최초 중퇴 청소년 대책 수립(시보 12. 11)
* 「전화 여론 조사실」 운영…시민의견 조사 활성화, 시 신청사에 지동 응답 전화 40대 설치, 올해 실시한 여론 조사 자료 책으로 발간·배포(시보 12. 11)

12. 12 * 롯데건설, 극동건설, 명지주거단지 공사 중단, 시 공사비 1년 이상 지급 않아 자금난 봉착(국제 12. 12)
* 시, 건교부-시도간 정책협의회에서 13개 현안 건교부에 건의, 해안순환로 등 지원 요청(부산매일 12. 12)
* 시, 4차례 실사결과, 버스 노선별 수입 최고 5배 차, 일괄인상 불합리, 공동배차 시급(부산 12. 12)
* 부산시 현안 사업 조기 해결 촉구, 건교부와 협의 아시안 게임 경기장 등 12건 지원 요청(시보 12. 19)

12. 14 * 부산지역 업계, 설탕·밀가루 품귀현상, 원자재값 오르자 제조업체 생산량 20~70% 줄여(부산매일 12. 15)
* 시의회 예결위, 내년 시 예산 3조6천844억원, 삭감액 중 137억여원은 예비비로 조정(부산매일 12. 15)

12. 15 * 부산시종합건설본부, 부산신호공단 물류수송 차질 우려, 명지주거단지 시공사 자금난 들어 진입로 공사 중단(부산매일 12. 16)
* 부산지법, ㈜국제종합토건, 화의절차 개시, 채권단 내년 2월에 구체 절차 협의(부산매일, 국제 12. 16)
*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2롯데월드 교통평가 통과, 총공사비 1조60억원, 내년 초 본격 착공(국제 12. 16)
* 부산지역 경제 관련 단체 종합 대책 획의, 시 기업 지원 등 IMF 위기극복 능동적 대처, 유관 기관·단체별 80여명 참석 새 대응책 모색(시보 12. 19)
* 시 내년 예산 3조6천8백44억원, 시의회 예결위 판공·업무 추진비 등 320억 삭감(시보 12. 19)
* IMF시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부산지역종합대책 회의(부산시정 12. 15)

12. 16 * 시, 동부산권 항만 및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동부산권 해안개발 본격화, 광안리해수욕장~기장군 월내리 52.8km(국제 12. 17)
* ㈜한성기린건설 끝내 부도, 시중자금 경색에 미분양 사태 겹쳐(부산 12. 17)
* 학교 현장 교육개혁 우수 사례 발표회(부산교육 12. 16)

12. 17 * 시, 부산 그린망 형성, 공원 유원지 녹지 종합개발계획 추진(국제 12. 18)
* 기관(학교) 평가 결과 발표(부산교육 12. 17)

12. 18 * 부산해양청, 위험물 적재선 특별관제 실시, 장치장 확충 등 안전대책 추진(부산매일 12. 20)
* 시, 자전거도로 5개 구간 개설, 공항로·낙동로·강변로·공단로 등 총연장 47.8km(부산매일 12. 1)
* 제15대 대통령선거(부산시정 12. 18)

12. 19 * 부산지검 공안부, 불법선거운동 4명 구속, 김대중 비방, 온천관광알선 등 혐의(국제 12. 20)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연간 컨테이너 처리 500만개 돌파(부산매일 12. 20)

* 세원백화점, 자금난 못견뎌 휴업(부산매일 12. 20)
* 시정 동정, 14일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장 순시 나서 공정과정 점검, 16일 한라중공업 피해 업체와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 주재 외 3건 등(시보 12. 19)
* 민원・친절・신속처리 80.9%가 만족, 첨부서류 대폭 감축 등 각종 서비스 개선 가시화 민선 자치 3년 신뢰・지지도 등 구체적 항목 설정(시보 12. 19)
* 97 연말연시 청소년 위한 건전 프로그램 운영, 시 내년 1월까지 「선도 사업기간」 설정…비행・탈선 예방 '주력', 모범 청소년 표창 격려・소년소녀 가장 지원・청소년 가족 캠프 등 '다양'(시보 12. 19)
* 근검절약 10대 수칙 실천, 예산 절감 대중교통 이용 등, 시 공직자들 솔선수범 앞장(시보 12. 19)
* 연말물가 안정 대책 저극 추진, 시 구・군 합동 75개 지도 단속반 가동, 공공요금 관리 대책 심의 강화키로(시보 12. 19)
* 외화 모으기 18만달러, 지난 11월 25일부터 시・구・군에 외화 모으기 창구 설치해 모금 운동 펼친 결과 18만여달러가 환전되는 등 경제 살리기 범시민 운동이 상당한 효과 보이는 것으로 조사(시보 12. 19)

12. 20 * 시, 세원・신세화 도산에 따른 긴급대책회의 가져, 정부지원 SOS(부산, 국제 12. 20)
* "부산 신항 건설 등 현안 사업 차질 업이 하겠다", 새 정부와 적극적 협력 관계 계속 유지, 국가 발전 돔역점 사업 계획대로 추진(시보 12. 26)
*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15대 대통령 선거 종료 후 시민 화합을 위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시보 12. 26)

12. 22 * 이웃돕기 범시민 캠페인, 문 시장 등 시민 1천여명 참석(시보 12. 26)

12. 24 *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다뤄, 제70회 정기회 제5차 본 회의 갖고 97년도 부산시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시보 12. 26)
* 시정 동정, 17일 문정수 부산시장 지하철 2호선 225중구 현장 방문・교통공단 방문, 22일 부산국제 영화제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패 전달, 부시장-시청 회의실에서 시의회 예산 결산위원회 참석(시보 12. 26)
* 「체육진흥 5개년 계획」 추진, 부산시는 부산 체육 발전 위한 중기 계획의 하나로 「부산 체육 진흥 5개년 계획」 수립(시보 12. 26)
* 새 청사 국내 최대 「1% 미술품」 설치, 시 대형 회화 조형물・실내 조각품 등 예산 10억원 확보…의회・경찰청도(시보 12. 26)
* 음식쓰레기 절반으로 감소 추진, 시 재활용 비율도 3배로 증가 방침, 새해부터 10% 줄이기 운동 강화(시보 12. 26)

12. 26 * 부산문화공원 준공(부산시정 12. 26)
* 제10회 부산교육상 시상식 수상자-박찬웅, 김창덕(부산교육 12. 26)

12. 29 * 97년 기관(학교) 평가 우수 사례 발표(부산교육 12. 29)

12. 31 * 부산광역시 신청사 준공(부산시정 12. 31)
* 97년 종무식(부산시정 12. 31)

市 史 資 料 Ⅵ

2015年 7月 20日 印刷
2015年 7月 31日 發行

發行處 : 釜 山 廣 域 市
編 著 :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印 刷 : 대 훈 기 획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 21000-86760-86-15 (非賣品)

연/락/처

우편번호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시사편찬실
Tel : 051) 888-5056~8 / FAX : 051) 888-5059